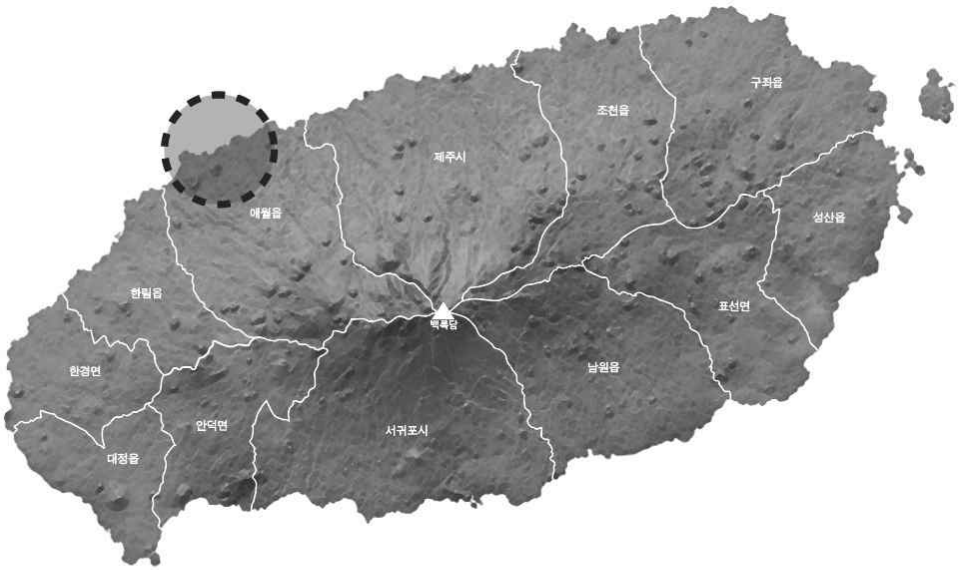
발간 등록 번호
79-6500000-000563-01

2019년도 제주어구술자료집 28

-애월읍 구엄리

구술: 김여환, 홍창자
채록·전사·표준어 대역: 김성룡



Jeju 제주특별자치도
JRI 제주학연구센터

2019년도 제주어구술자료집(21-28)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공기관 대행 사업을 수탁한 제주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에서 작성하였습니다.

2019년도 제주어구술자료집 28

목 차

Ⅰ. 사업 개요

1. 사업 목적 ····· 5
2. 사업 기간 ····· 5
3. 사업 참여자 ····· 5
4. 조사 지점과 제보자·조사자 ····· 6
5. 사업 추진 과정 ····· 6
6. 표준어 대역 ····· 8
7. 주석 ····· 8

Ⅱ. 구술 자료

1. 조사 마을 ····· 9
2. 제보자 일생 ····· 28
3. 밭일 ····· 64
4. 들일 ····· 223
5. 바다일 ····· 280
6. 의생활 ····· 319
7. 식생활 ····· 378

Ⅰ. 사업 개요

1. 사업 목적

‘2019 제주어 채록 사업 자료 표준어 대역 발간 및 보급 사업’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개년에 걸쳐 진행된 ‘제주어 구술 채록 사업’ 종료에 따라 구술 자료를 대중에게 널리 보급하고 활용할 수 있게 제주어 자료를 표준어로 대역하는 데 목적이 있다.

3개년에 걸쳐 이루어진 채록 사업의 성과물인 ≪제주어구술채록보고서≫(1~36)는 현장에서 조사된 내용을 그대로 전사하였기 때문에 지역적 특성은 물론 어휘적 특색으로 말미암아 누구나 쉽게 접근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이 보고서는 제주어를 어느 정도 알아야만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어서 보고서 활용에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이용의 제한을 극복하고 누구에게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려면 제주어 구술 자료를 표준어로 대역하고 주석을 다는 작업이 불가결한 일이다.

나아가 표준어로 대역하고 주석을 달아 만든 ≪제주어구술자료집≫은 <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 제12조에도 부합한 일로, 소멸 위기의 제주어의 보전과 그 가치를 널리 알리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다.

2. 사업 기간

2019년 3월 25일~2019년 12월 31일

3. 사업 참여자

‘2019 제주어 채록 사업 자료 표준어 대역 발간 및 보급 사업’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연구진은 2014년부터 시작한 ‘제주어 구술 채록 사업’의 인력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현지 조사와 표준어 대역 담당자를 동일하게 함으로써 이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리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현지 조사와 표준어 대역을 동일인으로 담당하게 한 것은 조사할 때의 발화 상황은 물론 조사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어서 표준어 대역 작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어서다.

또 현지 조사자와 표준어 대역 연구자를 동일인으로 한 것은 조사할 때 미흡했던 내용이나 잘못된 내용을 수정, 보강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더불어 추가 조사의 편이성도 고려하였다.

‘표준어 대역’ 사업의 연구진 현황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자 현황

이름	소속	분야	구분
김순자	제주학연구센터	국어학(제주도방언)	연구 책임・총괄 성산읍 온평리
김미진	제주학연구센터	국어학(제주도방언)	공동 연구 남원읍 태흥리
강영봉	(사)제주어연구소	국어학(제주도방언)	교열 및 감수
안민희	민요패 소리왓	한국학(제주민요)	조천읍 신촌리
김승연	(사)제주학연구소	한국학(제주무속)	제주시 우도면
허영선	제주대학교	한국학(제주역사)	성산읍 온평리
최연미	돋을양지책드르	국문학	표선면 세화리
권미소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국어학(제주도방언)	남원읍 태흥리
김보향	제주대학교	국어학(제주도방언)	한경면 신창리
신우봉	제주대학교	국어학(제주도방언)	한림읍 옹포리
김성룡	귀일중학교	국어학(제주도방언)	애월읍 구엄리
현혜림	제주학연구센터		연구 보조
서수빈	제주학연구센터		연구 보조

4. 조사 지점과 제보자·조사자

‘2019 제주어 채록 사업 자료 표준어 대역 발간 및 보급 사업’의 조사 지점, 제보자, 조사자를 보이면 <표 2>와 같다.

〈표 2〉 조사 지점과 제보자·조사자

번호	조사 지점	제보자	조사자
21	조천읍 신촌리	김옥녀, 이명언	안민희
22	제주시 우도면	한두영, 고옥녀, 홍한옥	김승연
23	성산읍 온평리	송옥금, 강문홍, 강백년	김순자·허영선
24	표선면 세화리	강필문, 고옥화, 송인생, 장술생, 강기수, 김정자, 현봉화, 김양선	최연미
25	남원읍 태흥리	오윤생	김미진·권미소
26	한경면 신창리	진인중, 이순녀	김보향
27	한림읍 옹포리	장경욱, 양순자, 장정자, 김화원	신우봉
28	애월읍 구엄리	김여환, 홍창자	김성룡

5. 사업 추진 과정

‘2019 제주어 채록 사업 자료 표준어 대역 발간 및 보급 사업’은 총 9개월여가 소요

되었다. 현지 조사에서 미진한 부분이나 잘못된 내용을 조사하기 위하여 추가 채록을 실시하고, 조사된 내용을 전사하도록 하였다.

전사의 통일성과 표준어 대역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연구진 회의를 개최하였다. 연구진 회의는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열렸는데, 이때 도출된 문제점을 해결하여 제주어 표기와 표준어 대역을 통일하려고 애썼다. 연구진 모임을 매달 가진 것은 오류를 가급적 줄이고 통일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다음은 회의를 거치며 통일시킨 내용이다.

-제주어 표기는 <한글 맞춤법>에 따라 제주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체언과 조사, 어간과 어미를 구분하여 표기하도록 한다.

-개인 정보는 숨김표로 표시하고, 청취가 안 되는 부분은 음절수만큼 꽃표(**)를 사용한다.

-필요하지 않은 잡담은 삭제한다.

-띄어쓰기는 <한글 맞춤법>에 따라 제주어와 표준어를 동일하게 한다.

-문장부호 가운데 마침표와 쉼표는 휴지(休止)와 문맥에 따라 표시한다.

-'하다'의 경우 'ᄒᆞ다'가 아닌 경우는 '허다'로 표기한다. '허는구나, 헷구나'처럼 'ㅓ'로 통일한다. 분명하게 '하다'로 발음한 경우에는 '하다'도 허용한다.

-표준 발음과 달리 제보자의 발음이 된소리로 나는 경우는 원형을 밝히어 적되, 발음 기호인 대괄호([ ]) 안에 표기한다.

-보고서의 번호는 2018년에 이어 제주시를 기준으로 동쪽부터 표기한다. 제주시의 표준어 대역 자료가 없기 때문에 '조천읍 신촌리' 구술 자료가 『2019년도 제주어구술자료집 21』이 되는 것이다. 구술 자료의 @는 조사자, #은 제보자라는 표시이다. 제보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1, #2, #3 …처럼 표시하였다.

-활자 크기는 11포인트로 하고, 첫 줄은 '들여쓰기'를 하였다.

-장 구분은 두 줄을 띄었다.

한편 월별에 따른 주요 추진 내용은 <표 3>과 같다.

〈표 3〉 월별에 따른 추진 내용

구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현지 추가 채록	■	■								
추가 전사			■	■						
표준어 대역			■	■	■	■	■	■		
자료집 편집·교열, 감수					■	■	■	■	■	
자료집 발간										■

6. 표준어 대역

표준어 대역의 근거는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두었으며, 몇 가지 원칙을 정하여 통일을 기하려고 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조사된 자료 가운데 10시간 분량의 구술 자료를 표준어로 대역한다. 이는 조사자에 따른 구술 분량이 다르기 때문에 일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다.
- 조사된 내용 순서에 따라 표준어 대역을 한다. 곧 조사자와 제보자가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조사했기 때문에 표준어 대역 또한 이에 따른다.
- 표준어 대역은 소괄호(()) 안에 넣는다.
- 표준어 대역은 직역을 원칙으로 한다. 의역할 경우는 문맥에 맞게 주석에서 그 내용을 밝힌다.
- 대응 표준어가 없는 경우에는 제주어를 그대로 옮겨 작은따옴표(‘ ’)로 표시하고, 주석에서 그 내용을 밝힌다.(예: ‘바령팟’을)
- ‘에, 으’ 따위의 담화 표지도 가급적 그대로 둔다.
- 외래어는 번역하거나 부득이한 경우는 외래어를 그대로 둔다.

7. 주석

주석은 원칙적으로 표준어로 바꿀 수 없는 경우, 문맥에 따라 그 의미가 달리 쓰인 경우, 지명 등 부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였다. 모아진 의견은 다음과 같다.

- 주석은 각주로 하되, 주석한 제주어에 주 번호를 부여한다.
- 주석은 주어-서술어의 호응 관계를 고려하여 작성한다.
- 주석의 대상은 대응 표준어가 없을 경우, 본래의 뜻과 달리 쓰인 경우, 이해를 돕기 위한 경우 등으로 한다.
- 지명인 경우는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간단하게 주석을 한다.
- 조사 과정의 분위기를 전달하기 위한 경우에도 주석으로 처리한다.
- 동일한 내용을 주석으로 처리할 때는 면수(3~4면 간격)를 고려하여 작성한다.

Ⅱ. 구술 자료

(@ 김성룡, #1 김여환, #2 홍창자)

1. 조사 마을

101001 @ 오늘은 저 구엄리[1] 와시난양, 구엄리 마을 형성 과정에 대해서 혼번 말해 봅서.(오늘은 저 '구엄리' 왔으니까, '구엄리' 마을 형성 과정에 대해서 한번 말해보십시오.)

101001 #1 여기 설촌은 혼 우리가 알기로는양, ᄉᆞ백오십년쯤 뒈는디 구엄이 그 삼엄, 중엄[2] 잇고, 신엄[3] 잇고, 또 용흥[4] 잇고, 이 ᄉᆞ방에 부락이 잇는디 구엄이 제일 그네 부락 중 ᄆᆞᆫ제 설치가 뒈십주게. 경 사람이 살앗는디, 게난 저 이제 모감물이라고 잇수다게. 모감물[5] 잇고 원물[6]이 이신디, 저 원물ᄒᆞ고 모감물 중심으로 옛날덜은 사름 사는 것 제일 중요한 것이 물 아니우꽈? 그 물따라 ᄎᆞᄎᆞ 살아 온 것이 요 베릿골[7]이렌 혼 동네가 잇고 거기 또 당할망비[8]가 잇수다. 게난 송씨 할망이옝 ᄒᆞ영 지금도 저 거뭐 일년에 혼 번썩 제를 지냄수다마는 그 당할망 중심으로 헹 거기 베릿골 쵀초에 구엄 생겨날 때 베릿골에서부터 사름이 살기 시작헤십주게. 게 ᄎᆞᄎᆞ 사는 것이 지금 웃동네 알동네가 생기고 ᄎᆞᄎᆞ 저 모감동이 생기고 이렇게 ᄒᆞ연 ᄎᆞᄎᆞ 구엄 마을이 형성뒈언 지금 제일, 게난 아직도 성씨 한 것이 송씨, 송씨 할망이 제일, 송씨덜이 제일 하고 그다음에는 고씨 게난 이게 항상 부락에 엿날도 구장 선출ᄒᆞᆯ 때도 이제 송씨ᄒᆞ고 고씨ᄒᆞ고 이제 서로 대결을 헙주게. 경ᄒᆞ연 이번에 송씨 집안에서 구장이 나오고 구장 혼 번 헤난 다음엔 고씨 문중에서 이제 구장을 혼번 허고, 송씨ᄒᆞ고 고씨 항상 대결ᄒᆞ멍 살아온 것이 그렇고, 엿날 여기 거 신우면이라고 해서 지금도 저 비석거리 가믄 비석이 엿날 비석 저, 어릴 때 쉐 멕이레 가믄 비석거리 동산이 잇수다. 게믄 그 옛날 어느 그 목사가 넘어가다가 아 여기구나 엄장이[9]라고 해서 너무 좋다. 바당 완 보고 ᄒᆞ연 그 목사가 ᄒᆞ기를 아 일로 여기를 면을 헤시믄 좋겟다 헤 가지고 거 사또가 이제 그런 유래로 헨 돌아봐 가지고 여기를 엄장면이렌 헤낫수다. 겐디 그 후제 애월[10]러레 갓는디 면이 애

1) '구엄리'는 제주시 애월읍 구엄리이다.
2) '중엄'은 제주시 애월읍 중엄리를 말한다.
3) '신엄'은 제주시 애월읍 신엄리를 말한다.
4) '용흥'은 제주시 애월읍 용흥리를 말한다.
5) '모감물'은 제주시 애월읍 구엄리를 가로질러 흐르는 물이다.
6) '원물'은 제주시 애월읍 구엄리에 있는 물이다.
7) '베릿골'은 제주시 애월읍 구엄리에 있는 옛 동네 이름이다.
8) '당할망비'는 본향당비이다.
9) '엄장이'는 제주시 애월읍 구엄리, 중엄리, 신엄리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10) '애월'은 제주시 애월읍 애월리를 말한다.

월은 물이 좋아 하물이라고 ᄒᆞ연 그 물 따라 사람이 하영 사난 여긴 물이 셔도 구엄에는 큰 물이 어섯수다게. 아까 ᄀᆞᆯ은 모감물ᄒᆞ고 저 원물ᄒᆞ고 아 요거 두 가지로 헤 가지고 사람이 물을 먹언 살앗는디 물이 하지 않다보난 아메도 사람이 덜 살아십주게. 게 애월러렌 사람이 크고 물이 크고 허난 면도 뺏기고 게난 이제도 엄쟁이 엄쟁이 ᄒᆞᆫ 것이 엿날 지금 바당에 강 보믄 뒤후루 뒷멩이[11]라고 잇수다게. 거 강 보믄 참 지금은 많이 부숴부런 엿날 어려우난 마을에서 축항ᄒᆞᆯ 때 우리 알아져마씀. 서부두 축항헐 때 그걸 발파로 헨 ᄆᆞᆫ딱 부수멍 시꺼가서마씀. 게 그 돌로 축항을 허다보난 거기는 바닷가는 춤 많이 헐어지고 지금 경치 존 것이 하영 어서진디, 게 않으믄 그 저 경치가 뒤후루 뒷멩이엔 허영 좋은 경치 게 그것이 엄장, 거 저 바위 엄자 써가지고 이거는 이제 그걸 하나 헤 가지 엄장이라 헤 가지고 구엄리 설촌을 이제ᄁᆞ지 허고 잇수다게.(여기 설촌은 한 우리가 알기로는요, 사백오십년쯤 되는데 '구엄'이 그 삼엄, '중엄' 있고, '신엄' 있고, 또 용흥 있고, 이 사방에 부락이 있는데 '구엄'이 제일 그 네 부락 중 먼저 설치가 됐지요. 그렇게 사람이 살았는데, 그러니까 저 이제 '모감물'이라고 있습니다. '모감물' 있고 '원물'이 있는데, 저 '원물'하고 '모감물' 중심으로 옛날들은 사람 사는 것 제일 중요한 것이 물 아닙니까? 그 물따라 차차 살아 온 것이 요 '베릿골'이라고 한 동네가 있고 거기 또 '당할망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송씨 할머니라고 해 가지고 지금도 저 거 뭐 일 년에 한 번씩 제를 지내고 있습니다만은 그 '당할망' 중심으로 해서 거기 '베릿골' 최초에 '구엄' 생겨날 때 '베릿골'에서부터 사람이 살기 시작했지요. 게 차차 사는 것이 지금 윗동네 아랫동네가 생기고 차차 저 '모감동'이 생기고 이렇게 해서 차차 '구엄' 마을이 형성되어서 지금 제일 그러니까 아직도 성씨 많은 것이 송씨, 송씨 할머니가 제일, 송씨들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는 고씨 그러니까 이게 항상 부락에 옛날도 구장 선출할 때도 이제 송씨하고 고씨하고 이제 서로 대결을 하지요. 그래서 이번에 송씨 집안에서 구장이 나오고 구장 한 번 한 다음엔 고씨 문중에서 이제 구장을 한 번 하고, 송씨하고 고씨 항상 대결하면서 살아온 것이 그렇고, 옛날 여기 거 신우면이라고 해서 지금도 저 비석거리 가면 비석이 옛날 비석 저, 어릴 때 소 먹이러 가면 비석거리 동산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옛날 어느 그 목사가 지나가다가 아 여기구나 '엄장이'라고 해서 너무 좋다. 바다 와서 보고 해서 그 목사가 하기를 아 여기로 여기를 면을 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거 사또가 이제 그런 유래로 해서 돌아봐 가지고 여기를 '엄장면'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제 '애월'로 갔는데 면이 '애월'은 물이 좋아 '하물'이라고 해서 그 물 따라 사람이 많이 사니까, 여긴 물이 있어도 '구엄'에는 큰 물이 없었습니다. 아까 말한 '모감물'하고 저 '원물'하고 아 요거 두 가지로 해가지고 사람이 물을 먹어서 살았는데 물이 많지 않다 보니까 아마도 사람이 덜 살았지요. 게 '애월'에는 사람이 크고 물이 크고 하니까 면도 뺏기고 그러니까 이제도 '엄쟁이' '엄쟁이' 한 것이 옛날 지금 바다에 가서 보면 뒤로 '뒷멩이'라고 있습니다. 거 가서 보면 참 지금은 많이 부숴버려서 옛날 어려우니까 마을에서 축항할 때 우리 알아져요. 서부두 축항할 때 그걸 발파로 해서 모두 부숴버리면서 실어갔어요. 게 그 돌로 축항을 하다보니까 거기는 바닷가는 참 많이 헐어

11) '뒷멩이'는 제주시 애월읍 구엄리 바닷가에 있는 지명이다.

지고 지금 경치 좋은 것이 많이 없어졌는데, 게 않으면 그 저 경치가 뒤로 '뒷멩이'이라고 해서 좋은 경치 게 그것이 '엄장', 거 저 바위 엄자 써가지고 이거는 이제 그걸 하나 해 가지 '엄장'이라 해 가지고 '구엄리' 설촌을 이제까지 하고 있습니다.)

101001 @ 거 흔 멧 년 됏수가?(거 한 몇 년 됐습니까?)

101001 #1 게난 지금 뭐 우리가 추측ᄒᆞ건 흔 ᄉᆞ백오십 년쯤 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추측헴신디, 확실흔 거는 유래헤도 뭐 이 마을에도 문서가 엇고 ᄒᆞ다보난 입으로 전해온 것이 ᄉᆞ백오십 년쯤 마을이 형성뒌 것이 뒌 걸로 추측을 헨 알암십주게.(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가 추측한 건 우리가 추측한 건 한 사백오십 년쯤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추측하고 있는데, 확실한 거는 유래해도 뭐 이 마을에도 문서가 없고 하다보니까 입으로 전해온 것이 사백오십 년쯤 마을이 형성된 것이 된 걸로 추측을 해서 알고 있지요.)

101001 @ 그러면 구엄리는 저 자연부락 멧 개가 뒙니까?(그러면 구엄리는 저 자연부락 몇 개가 됩니까?)

101001 #1 자연부락은 웃동네 싯고, 알동네, 또 저 동카름[12], 배릿골, 지금은 또 중간에 이제 저 대흥동이라고 한질 웃동네 거기 생겨나고, 겡 허연 각 자연부락은 그렇게 헹 이제 생겨나십주게. 이제ᄁᆞ지도 도에 행정상 구역도 그렇게 헹 이제도 웃동네 알동네 영 생겨나불곡 허영 ᄒᆞ는디.(자연부락은 윗동네 있고, 아랫동네, 또 저 '동카름', '배릿골', 지금은 또 중간에 이제 저 '대흥동'이라고 한길 윗동네 거기 생겨나고, 그렇게 해서 각 자연부락은 그렇게 해서 이제 생겼었지요. 이제까지도 도에 행정상 구역도 그렇게 해서 이제도 윗동네 아랫동네 이렇게 생겨나버리고 해서 하는데.)

101002 @ 그다음에 구엄리는 주로 성씨가 무슨 성씨가 잇수가?(그다음에 구엄리는 주로 무슨 성씨가 있습니까?)

101002 #1 아, 주로 송씨, 최초에 송씨는 저 이 구엄을 형성하는 첫째 거 송씨 할망지라. 송씨가 먼저 생겻고, 그다음에는 고씨, 고씨 문중, 그 외에는 이제 나중에 뭐 김씨라.(아, 주로 송씨, 최초에 송씨는 저 이 '구엄'을 형성하는 첫째 거 송씨 할머니야. 송씨가 먼저 생겼고, 그다음에는 고씨, 고씨 문중, 그 외에는 이제 나중에 뭐 김씨야.)

101002 #2 강씨도 하신디.(강씨도 많은데.)

101002 #1 강씨.(강씨.)

101002 #2 강씨가 하.(강씨가 많아.)

101002 #1 예.(예.)

101002 #2 시 번체.(세 번째.)

101002 #1 강씨 집안에는 세 번째는 강씨고, 그 외에는 뭐 김씨여, 박씨여, 이씨여 이렇게 조곰썩 경 살곡.(강씨 집안에는 세 번째는 강씨고, 그 외에는 뭐 김씨야, 박씨야, 이씨야, 이렇게 조금씩 그렇게 살고.)

101002 #2 김씨, 세 부락이 질 하주. 시 가지가.(김씨, 세 부락에 제일 많지. 세 가지가.)

101003 @ 그다음에 요 구엄리 사름들은 무슨 일 허멍 살암수가?(그다음에 여기 구

12) '동카름'은 제주시 애월읍 구엄리에 있는 동쪽 동네 이름이다.

엄리 사람들은 무슨 일 하면서 살고 있나요?)

101001 #1 지금 전이는 구엄 저 옛날엔 나도 헤 낫수다마는 소금빌레 허영 경 살곡, 알동네는 이제 뭐 바릇질허영 궤기, 궤기 나끄곡 또 자리 거리곡, 정 알동네 사름덜 거 어업을 중심헹 ᄒᆞ곡 웃동네 사름들은 또 바당ᄒᆞ고 머난 거 밧디 농ᄉᆞ헹 그자 조, 보리 허고 경, 이제 감제ᄒᆞ고 산디ᄒᆞ고 영 나룩 조금 ᄒᆞ곡 허멍 살암십주게.(지금 전에는 '구엄' 저 옛날엔 나도 했습니다마는 '소금빌레' 하여서 그렇게 살고, 아랫동네는 이제 뭐 바다일 해서 고기, 고기 낚고 또 자리 거리고, 저렇게 아랫동네 사람들 거 어업을 중심해서 하고, 윗동네 사람들은 또 바다하고 머니까 거 밭에 농사해서 조, 보리하고 그렇게, 이제 고구마하고 밭벼하고 이렇게 벼 조금 하고 하면서 살고 있어요.)

101003 #2 밧들이 경 널르지 아니허난 멘딱 질왓[13]이곡 헤노난.(밭들이 그렇게 넓지 아니하니까 모두 '질왓'이고 해 놓으니까.)

101003 #1 겡 헤도 영 잘 이제ᄁᆞ지 산 거 보믄 알동네 사름들이 바당에 바릇칠허영 ᄒᆞ믄 이제 궤기 잡앙 웃드르[14]에 강 풀믄 돈을 문제 받읍주게. 아메도 경허난 알동네 사름들이 잘살암주게. 이제는 골라졋수다마는 엿날에 그렇게 살아십주.(그렇게 해도 이렇게 잘 이제까지 산 거 보면 아랫동네 사람들이 바다에 바닷일하면서 하면 이제 고기 잡아서 '웃드르'에 가서 팔면 돈을 먼저 받았죠. 아마도 그러니까 아랫동네 사람들이 잘 살고 있지요. 이제는 같아졌지만 옛날에는 그렇게 살았지요.)

101004 @ 그다음에 요 구엄 주변에양 오름, 내창, 바위, 굴 등이 잇으면 소개헤줍서.(그다음에 요 '구엄' 주변에요 오름, 냇가, 바위, 굴 등이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101004 #1 여기 구엄은 저 지금 보이는 수산봉[15]ᄒᆞ고, 또 그 이쪽에 저 원내창[16]이라고 잇수다. 내 터지믄 거난, 원내창 또 이 저 굴은 말라리[17]라고 허영 바당 이염에 가믄 지금은 그 저 하, 연날 바위덜 하영 돌 캐 가부난, 것이 굴이 하영 메와졋는디 옛날엔 말라리엔 허영 또 강 보믄 그 굴 저 돌 캐 가기 전엔양, 사름 치가 들어가게 ᄒᆞᆫ디 잇수다.(여기 '구엄'은 저 지금 보이는 '수산봉'하고, 또 그 이쪽에 저 '원내창'이라고 있어요. 내가 넘치면 그러니까, '원내창' 또 이 저 굴은 '말라리'라고 해서 바다 옆에 가면 지금은 그 저 많아, 옛날 바위들 많이 돌 캐 가버리니까, 그곳에 굴이 많이 메꿔졌는데 옛날엔 '말라리'라고 해서 또 가서 보면 그 굴 저 돌 캐 가기 전에는요, 사람 키가 들어가게 한 데 있습니다.)

101004 #2 사름 막 하영 곱아 그디 강.(사람 아주 많이 숨어 거기 가서.)

101004 #1 거 춤 귓것도 나오곡 경 ᄒᆞᆫ덴 ᄒᆞ는 디 거 가믄 저 그런 말 들어지난 영 강 바당에 몸곰으레 강 영 강 그 ᄌᆞ꼿디 강 보믄 좀 머리가 으시시헨양. ᄆᆞᄉᆞ와마씸. 그디 자꾸 헛게도 나고 영 허영 비나 오곡 허영 거 저쪽에 당 아래라고 잇수다. 거긴 가믄 또 아기 흥그는 소리가 나. 거 우리도.(거 참 귀신도 나오고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13) '질왓'은 돌멩이가 없고 질흙이 깔려있는 밭이다.
14) '웃드르'는 한라산이 있는 벽지(僻地) 근처의 들, 또는 그런 곳에서 이루어진 마을이다.
15) '수산봉'은 제주시 애월읍 수산리에 위치한 오름이다.
16) '원내창'은 제주시 애월읍 구엄리에 있는 '원물'의 냇가이다.
17) '말라리'는 제주시 애월읍 구엄리 바닷가에 있는 굴이다.

거기 가면 저 그런 말 들어지니까 이렇게 가서 바다에 목욕하러 가서 이렇게 가서 그 옆에 가서 보면 조금 머리가 으스스해서요. 무서워요. 거기 자꾸 도깨비도 나고 이렇게 해서 비나 오고해서 거 저쪽에 당 아래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가면 또 아기 흔드는 소리가 나. 거 우리도.)

101004 #2 날 우치젠 헤사. 비 오젠 ᄒᆞ민. 우치젠 ᄒᆞ민.(날 궂으려고 해야, 오려고 하면. 궂으려고 하면.)

101004 #1 비가 오곡 어떵 날이 침침허민.(비가 오고 어떻게 날이 침침하면.)

101004 #2 아기 흥그는 소리가 나곡. 게 물 질레 갓당 ᄆᆞᄉᆞ와그넹 그 ᄌᆞ꼿디 물 질레 갓당 ᄆᆞᄉᆞ와그네 울멍도 와나곡양, 놈이영 ᄀᆞ치 가사. 그 따문에 ᄆᆞᄉᆞ와.(아기 흔드는 소리가 나고, 거기 물 길러 갔다가 무서워서 그 옆에 물 길러 갔다가 무서워서 울면서도 왔었고요, 남이랑 같이 가야. 그 때문에 무서워.)

101004 #2 그루 후젠 아파ᄒᆞ멍 돌들 막 부솨가나그네, 그것이 ᄒᆞ끔 저 그추룩 ᄌᆞ주 아니허여. ᄌᆞ주 아니허영 막 메칠 후제 아기구덕 흥그는 소리 남저, 남저 헤도 우린 막 벗들 허여그네 물 질레 가게, 허벅 졍 물 질레 가게, 가곡 헤낫수다게. 게난 ᄆᆞᄉᆞ왕 못 강 ᄌᆞ꼿디 아기구덕, 게난 세벡이도 못 가곡 저 헛게 가기 전이 저 물 강 질어오젠 ᄒᆞ민 어멍덜은 아기 젯 멕이곡 허젠 ᄒᆞ민, 가게, 가게 ᄒᆞ영. 춘화[18]영 우리 잘도 가 완.(그 후에 아파하면서 돌들 마구 부숴가니까, 그것이 조금 저 그처럼 자주 아니해. 자주 아니해서 마구 며칠 후에 아기구덕 흔드는 소리 나고 있어, 나고 있어 해도 우리는 막 벗들 해서 물 길러 가게, 물동이 져서 물 길러 가게, 가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서워서 못 가서 곁에 '아기구덕', 그러니까 새벽에도 못 가고 저 헛것 가기 전에 저 물 가서 길어오려고 하면 어머니들은 아기 젖 먹이고 하려고 하면, 가자고, 가자고 해서. '춘화'랑 우리 잘도 가 왔어.)

101004 #1 게고 저 샘물벵디[19]옌 ᄒᆞ영 그 중엄 물 저 이제도 물 큰 물이 남수다게. 바당물 나는디 지금 옌날 담지 아니허영 그 샘물 동산 이펜이 허믄 헛게가 많이 나나서 마씀. 거기 헹 허믄 밤이는 ᄆᆞᄉᆞ왕 글로 넘어가질 못 허여. 비가 그치고 나도양, 거 해안 근무허멍 거기 삿단 ᄉᆞ못 저 똥줄이 나낫수다게. ᄆᆞᄉᆞ완.(그리고 저 '샘물벵디'라고 해서 그 '중엄' 물 저 이제도 물 큰 물이 나고 있습니다. 바닷물 나는데 지금 옛날 같지 않아서 그 샘물 동산 이쪽에 하면 헛것이 많이 났었어요. 거기 해서 하면 밤에는 무서워서 그리로 지나가지를 못 해. 비가 그치고 나서도요, 거 해안 근무하면서 거기 섰다가 사뭇 저 똥줄이 났었습니다. 무서워서.)

101004 #2 게난 구엄 물은 저 아래 원동 사름들이 질레 가젠ᄒᆞ민 멀고, 물이 그디 쪽아노난 그디 ᄋᆞ라이 가노민 허벅 부릴 디가 어성. 게민 저 샘물동산에 중엄더레 요ᄀᆞ른 질로 허여그네 그레 가그네 질레 가믄 그디 막 중엄은 널른 물이난 우리 ᄋᆞ라이 질레 가도 ᄋᆞ라이 벗허영 가지 안 허믄 ᄆᆞ습곡. ᄋᆞ라이 가믄 그딘 허벅 부릴 디가 하그네 허곡. 일로 저렌 모감물ᄒᆞ곡 원동 사는 물은 허벅 부릴 디가 족아마씀. 돌덜 옛날 하

18) '춘화'는 당시 제보자의 친구이다.
19) '샘물벵디'는 제주시 애월읍 중엄리에 있는 지경 이름이다.

르방덜은 돌덜 족게 놔신고라. 경헹 재게 간 사람이 허벅 정 ᄀᆞ치 오곡 경 아닌 사름은 저 물 질어난 다음 물도 졸졸, 질어난 다음 질 젠 ᄒᆞ민 막 오래곡. 샘물벵딘 가믄 허벅채 듸무랑그네 구석드레 들러놩 경ᄒᆞ난 재게 놈광 ᄀᆞ치 와지곡. 경ᄒᆞ난 중엄 물이라도 올로 구엄광 멀지 안 헌 디난 그레 자꾸 가집니다게. 서답허레도 그디 가곡, 서답허레도 가. 이딘 가믄 막 샘물 벵디 모감이영 구엄은 물이 경 뚠 디보단 좋지 아니허여마씨. 좋지 아니 허영 허믄 사름은 하영 살아도 좋지 아니 허영 허믄 저 중엄더레 샘물벵디레 가멍 그디 강 똥 지성귀도 뺄곡 아기옷덜도 느량 뺄아낫수다게. 예, 지엉 강. 모감이영 구엄 물에 가믄 사름은 한한허영 가곡 저 왓당 물 졸졸 나난양, 하지 아니 허영 못 허여양. 멀어도 ᄒᆞ썰 멀어도 벗덜허영 우리 저 물 질레 가렝 허영 벗 아니 허민 ᄆᆞᄉᆞ왕으네.(그러니까 '구엄' 물은 저 아래 '원동' 사람들이 길러 가려고하면 멀고, 물이 거기 적으니까 거기 여럿이 가면 물동이 부릴 데가 없어. 그러면 저 샘물동산에 '중엄'으로요 평평한 길로 해서 그리로 가서 길러 가면 거기 아주 '중엄'은 넓은 물이니까 우리 여럿이 길러가도 여럿이 벗해서 가지 안 하면 무섭고. 여럿이 가면 거기는 물동이 부릴 데가 많아서 하고. 여기서 저쪽은 목욕물 하고 '원동' 사는 물은 물동이 내릴 데가 작아요. 돌들 옛날 할아버지들은 돌들 작게 놨는지. 그렇게 해서 빨리 간 사람이 물동이 지고 같이 오고 그렇게 안한 사람은 저 물 길어난 다음 물도 졸졸. 길어난 다음 길려고 하면 아주 오래 걸리고, 샘물 '벵디'는 가면 허벅채 들이밀어서 구석으로 들러놔서 그러니까 빨리 남과 같이 와지고, 그러니까 '중엄' 물이라도 여기로 '구엄'과 멀지 안 한 데니까 그리로 자꾸 가집니다. 빨래하러도 거기 가고, 빨래하러도 가. 여기 가면은 마구 '샘물벵디' '모감'이랑 '구엄'은 물이 그렇게 다른 데 보다는 좋지 않습니다. 좋지 아니 해서 하면 사람은 많이 살아도 좋지 아니 해서 하면 저 '중엄'으로 샘물 '벵디'로 가면서 거기 가서 똥 기저귀도 빨고 아기옷들도 늘 빨았습니다. 예, 져가서. '모감'이랑 '구엄' 물에 가면 사람은 많고 해서 가고 저 왔다가 물 졸졸 나니까요, 많지 아니 하니까 못 해요. 멀어도 조금 멀어도 벗들 해서 우리 저 물 길러 가라고 해서 벗 아니 하면 무서워서.)

101004 #1 샘물 동산이 귀신 나시난 거 저 뭐 잇는디 옛날은 거기 ᄒᆞᆫ 번 거 ᄒᆞᆫ 여름 지나나믄 거기양 아기구덕도 빈주릉허곡 거 연날은 저 아이덜이 전렴병 뭐 허믄 ᄒᆞᆫ 여름만 지나믄 아기무덤이양 빈주릉케 셔마씀. 거 아기구덕도 거기.(샘물 동산이 귀신 났으니까 거 저 뭐 있는데 옛날은 거기 한 번 거 한 여름 지나나면 거기요 '아기구덕' 아주 많고 거 옛날은 저 아이들이 전염병 뭐 많으면 한 여름만 지나면 아기무덤이 아주 많이 있어요. 거 '아기구덕'도 거기.)

101004 #2 바당 이염더레.(바다 옆으로.)

101004 #1 바당 이염에 공처 묻을 디 어시난 좀팍[20]만썩 팡으네 춤 슬픈 일이우다마는 그렇게 허영 한동안 허단 이젠 해안도로가 난 ᄆᆞᆫ짝 밀어부난 그런 흔적이 엇수다만, 엿날은 그렇게 허연양.(바다 옆에 공처 묻을 데 없으니까 '좀팍'만씩 파서 참 슬픈일입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한동안 하다가 이제는 해안도로가 나서 모두 밀어버리니까 그

20) '좀팍'은 나무를 둥그스름하고 납죽하게 파서 만든 작은 바가지이다.

런 흔적이 없습니다만. 옛날은 그렇게 했어요.)

101004 #2 새촐 올레 아기덜 묻은 트멍으로 물 질레 가믄 ᄆᆞ습곡, 벗헹 가게, 벗헹 가게, 물 질레 허벅뎅이 졍 강. 구엄은 물이 나빵 옛날부터 물이 경 좋지 아니허영 헙디다게. 사름은 하 밧자 저 물이 나빠. 다 원동산[21] 가곡 모감물 가곡. 저 산 소곱이서 나오는 물 괄괄괄 허민 샘물 벵디레 ᄎᆞ록 물이 흔뻔에 막 하영 왕, 사름 막 몸 ᄀᆞᆷ곡 그디 가믄 지성귀덜 뽈곡 대베기[22] 물 질어놩 지성귄 둑지에 놓곡, 경 헹은에 헤낫수다마는.('새촐' 올레 아기들 묻은 틈으로 물 길러 가면 무섭고, 벗해서 가게, 벗해서 가게, 물 길러 허벅 져서 가서. '구엄'은 물이 나빠서 옛날부터 물이 그렇게 좋지 아니해서 합디다. 사람이 많아 봐야 저 물이 나빠. 다 '원동산' 가고 '모감물' 가고. 저 산속에서 나오는 물 괄괄괄 하면 샘물 '벵디'로 거리 물이 한꺼번에 아주 많이 왔어. 사람 마구 목욕하고 거기 가면 기저귀들 빨고 '대베기' 물 길어놔서 기저귀는 죽지에 놓고, 그렇게 해서 했었습니다만.)

101004 #1 원내창이라고 해서 저 아까 ᄀᆞᆯ은 내창, 거기 ᄋᆞ름에 이제 거 장마지믄 내 터집주게. 큰 비 오고. 경 우리도 내 터졍 강 긍이 심으레 가자, 강. 그 지금은양 농약덜 치곡 헤부난양 엇는디, 웃드리[23]서 긍이덜 살당 큰 물 오믄 긍이덜이 ᄁᆞ성 큰 긍이라고 털 돋곡 큰 긍이덜이 그 알러레 ᄁᆞ서왕 바당 이염에 가믄양, 그것이 이제 문 돌 올라오는 거 멧 번 잡으레 강 보믄양, 첨 큰 긍이덜이 이만씩 헌 것이 잡혀지곡 허는디, 이제도 그디 강 보믄 긍이 살아난 거기 구멍이 물엔 시난 아직도 긍이 잡곡 허는디, 그런 추억도 잇곡 뭐, 또 바당인 가민 거긴 삼밧달[24]이라 이제도 삼밧달, 삼밧달, 것이 요렇게 형성뒌 ᄒᆞ믄 수만년 전부터 물에 왓다갓다 왓다갓다 허단, 또 산에 물 터지믄 돌 ᄁᆞ서오곡 돌 물리곡 허당 보니까 자갈이 그디 모레영 이제도 짐뿍 신게 촘 문짝헌 자갈로 경치가 좋아낫수다게. 거기 ᄒᆞ믄 또 저 포젯동산이라고 허영 거기 삼밧달에 옌날 우리도 제 지낼 때 자꾸 얻어먹으레도 가 왓수다. 거기 가믄 ᄋᆞ름에도 포젯, ᄋᆞ름에 더운 때 지냅주. 팔월 이제 칠월절 들믄 입제헷당 제를 지내는데 거 가믄 홀기도 불곡 허영은에 우리도 참 돗궤기도 요만씩 흔 거 석점ᄒᆞ곡 뭐 떡 헤나믄 ᄒᆞ끔 썰곡 허영 거 먹으레 이제 ᄋᆞ름에도 가 오곡, 그런 추억 다 잇고, 또 이 저 빌레[25]에 가믄 우리도 빌레 헤나믄양 그 애길 좀 드리쿠다. ᄋᆞ름에 밧디 검질 메당 방학만 뒈믄 검질 밧디 메날 허당보믄 검질 메당 보믄 이 ᄋᆞ름방학이 다 넘어마씀. 경 허는디 집이서 이제 부모네덜은 검질메당 강으네 저 빌레 지쳥 오라 허믄 얼마사 기쁜디양, 빌레 지치레 가믄 이제 바당에 강 히곡, 촌 물 그레 이제 바가쓰로 두레박으로 헹 떠 놩 좀팍으로 거려놩 이제 옌날은 이제ᄀᆞ치 담지 아니허영 바당물이 공해가 어섯수다게. 게난 이제 바당물 질어당 허곡, 더운 디 물에 강 히곡, 좀 시간이 어서십주게. 게믄 빌레 지치렝만 ᄒᆞ민 지꺼졍

21) '원동산'은 애월읍 구엄리에 물이 나는 지명이다.
22) '대베기'는 모양이 둥그스름하여서 가운데 배는 불룩하고 위아래는 졸아지되 위의 아가리는 아주 좁게 된, 물을 길어 나르는 작은 동이이다.
23) '웃드리'는 한라산의 있는 쪽 벽지(僻地) 근처의 들, 또는 그런 곳에서 이루어진 마을이다.
24) '삼밧달'은 애월읍 구엄리 바닷가에 있는 지명이다.
25) '빌레'는 지면(地面) 또는 땅에 넓적하고 평평하게 묻혀진 돌이다. 여기서는 구엄리 바닷가에 있는 소금빌레를 일컫는다.

강 첨 헤나곡, 이 그런 추억이 잇수다게. 또 빌레엔 어떵 허냐 허믄 그 ᄋᆞ름 이추룩 더운디양 자꾸 흑과 돌은 뜨겁주마씀. 널직ᄒᆞᆫ 빌레에 영 물 어신더레 것도 좀팍으로 영헨 물 ᄀᆞᆯ른 걸 걸렁 케우려, 게믄 그디 것이 이제 거 뜨거운 벳에 ᄆᆞᆯ르멍 뜨거워가믄 그냥 것이 짠물이 뒈어가는 거. 게 그냥 막 어떤 디는 오래 허민 돌소금이엔 허여, 그냥 그 물로 그냥 저 소금이 뒈고, 건 오래 지쳐사, 또 그냥 허는 소금은 이제 ᄒᆞᆫ 열흘이나 보름쯤 그걸 헤 노믄 소금 뒈기 전이 물이 영 헤보믄 막 짜마씀. 그 물을 이제 영 츤흑으로 헌 흑이라고 이서, 동글락허게 ᄂᆞ람지[26] 씨우곡 헹 그레 믄딱 츤물을 퍼 놔마씀. 비나 오게 뒈믄 그거 물 젖어불믄 이제ᄁᆞ지 빌레 지친 건 헛수고라, 게난 걸 ᄏᆞ콜 폭에 담앗당 또 다음 그 물만은 족으난 또 ᄒᆞᆫ 번 이제 두 번, 시 불에 다 헙주게. 게믄 시 불 물 허연, 두 불 물 허연, 영 허영 빌레에 어느 정도 영 ᄒᆞ끔 하영 헤지믄 그땐 허벅으로 허영 대베기엔 허영 집더레 지어당 궤약[27]이엔 허영 영 밧치는 것 이서서, 쉐가죽 ᄆᆞᆯ리운 걸로 허영 아래 물 흘러도 이젠 비니루도 시난 옌날엔 그런 것이 어시난 쉐궤약이라고 헤 가지고 그걸로 헹 밧처당 이제 집더레 지어당 솟티엔 허영 보통 허믄 소낭 ᄆᆞᆯ린 거 솔잎이엥 허영 여기선 그것이 저 지름기 싯고 허난 잘 붙음니다게. 에이 거 소금 ᄉᆞᆯ맘직ᄒᆞ다, 소금 ᄉᆞᆯ맘직ᄒᆞ다 ᄒᆞ멍 지들케 그거 특별히 놔두엇당 소금 ᄉᆞᆷ을 때만 헤마씸. 밥 헤 먹을 땐 에껑 놔뒷당 허곡, 걸로 이제 ᄇᆞ짝 허영 밥솟디 ᄉᆞᆯ므믄 그것이 물 거의 뿔엉 영 올앙 보믄양, 소금이 헤영케 큰 반 솟쯤 ᄒᆞᆫ 솟 물 ᄀᆞ뜩허영 ᄒᆞ믄 나옴니다게. 걸 북북 허영으네 벳디 ᄆᆞᆯ리왕 거 헷당은에 허믄 구덕이영 뭐 쉐영 져당 웃드리에 강 곡식에도 ᄊᆞᆯ도 받앙 보리영 바꽝 허곡 뭐 허곡 헙주게. 것도 잘 헤사. 게 아니믄 벌써 뚠 사름 풀아뒁 강, ᄒᆞ루 종일 졍 데녀도 못 풀 때도 하고. 소금빌레 ᄒᆞ믄 겐디 밧디 농사보단 ᄒᆞ끔 낫아마씀. 경 허연 아직ᄁᆞ지도 소금빌레 싯수다게. 어촌계에서 소금은 아니 헴수다마는 멩그란 놔둬십주게.('원'냇가라고 해서 저 아까 말한 냇가. 거기 여름에 이제 거 장마지면 내 터지지요. 큰 비 오고. 그렇게 우리도 내 터져서 가서 게 잡으러 가자, 가서. 그 지금은요 농약들 치고 해버리니까 없는데, '웃드리'서 게들 살다가 큰 물 오면 게들이 떠내려가서 큰 게라고 털 돋고 큰 게들이 그 아래로 떠내려와서 바다 옆에 가면요, 그것이 이제 모두 돌 올라오는 것 몇 번 잡으러 가서 보면요, 참 큰 게들이 이만큼 한 것이 잡히고 하는데, 이제도 거기 가서 보면 게 살아난 거기 구멍에 물이 있어서 아직도 게를 잡고 하는데, 그런 추억도 있고 뭐, 또 바다에 가면 거긴 '삼밧달'이라 지금도 '삼밧달', '삼밧달', 것이 요렇게 형성된 하면 수만 년 전부터 물에 왔다 갔다, 왔다갔다하다가, 또 산에 물이 터지면 돌 떠내려오고 돌 물리고 하다가 보니까 물이 내려와서 물 한군데 모이고 하다 보니까 자갈이 거기 모래랑 이제도 가득 있고 참 매끈한 자갈로 경치가 좋았었습니다. 거기 하면 또 저 포젯동산이라고 해서 거기 '삼밧달'에 옛날 우리도 제 지낼 때 자꾸 얻어먹으러도 가 왔습니다. 거기 가면 여름에도 포제, 여름에 더운 때 지내지요. 팔월 이제 칠월절 들면 입제했다가 제를 지내는데 거 가면 호리기도 하고 해서 우리도 참 돼지고기도 요만큼 한 거 석 점하고 뭐 떡 했었으면 조금 썰

26) 'ᄂᆞ람지'는 이엉과 비슷한 것으로 낟가리 위에 덮는 물건이다.
27) '궤약'은 소가죽을 말려 물동이 물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받침대로 만든 것. '쉐궤약'이라고도 한다.

고 해서 거 먹으러 이제 여름에도 가 오고, 그런 추억 다 있고, 또 이 저 '빌레'에 가면 우리도 '빌레' 했었으면 그 얘길 좀 드리겠습니다. 여름에 밭에 김매다가 방학만 되면 김 밭에 맨날 하다가 보면 김매다가 보면 이 여름방학이 다 넘어요. 그렇게 하는데 집에서 이제 부모네들은 김매다가 가서 저 '빌레' 지쳐서 오라 하면 얼마나 기쁜지요, '빌레' 지치러 가면 이제 바다에 가서 헤엄치고, 찬물 그리로 이제 양동이로 두레박으로 해서 떠놔서 '좀팍'으로 떠놔서 이제 옛날은 이제 같지 안 해서 바닷물이 공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닷물 길러다가 하고, 더운 데 물에 가서 헤엄치고, 좀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빌레' 지치라고만 하면 기뻐서 가서 참 했었고, 이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또 '빌레'엔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여름 이처럼 더운데요, 자꾸 흙과 돌은 뜨겁지요. 넓적한 '빌레'에 이렇게 물 없는 쪽으로 것도 '좀팍'으로 이렇게 해서 물 괸 것을 떠서 던져, 그러면 거기 것이 이제 거 뜨거운 볕에 마르면서 뜨거워가면 그냥 것이 짠물이 되어가는 거. 게 그냥 마구 어떤 데는 오래 하면 돌소금이라고 해, 그냥 그 물로 그냥 저 소금이 되고, 건 오래 지쳐야, 또 그냥 하는 소금은 이제 한 열흘이나 보름쯤 그걸 해 놓면 소금 되기 전에 물이 이렇게 해보면 아주 짜요. 그 물을 이제 이렇게 찰흙으로 한 혹이라고 있어, 동그랗게 'ᄂᆞ람지' 씌우고 해서 그리로 모두 짠물을 퍼 놔요. 비나 오게 되면 그거 물 젖어버리면 이제까지 '빌레' 지친 건 헛수고야, 그러니까 걸 깨끗이 폭에 담았다가 또 다음 그 물만은 적으니까 또 한 번 이제 두 번, 세 번에 다 하지요. 그러면 세 번 물 해서, 두 번 물 해서, 이렇게 해서 '빌레'에 어느 정도 이렇게 조금 해서 해지면 그땐 허벅으로 해서 '대베기'라고 해서 집에 져다가 '궤약'이라고 해서 이렇게 받치는 것 있었어, 소가죽 말린 걸로 해서 아래 물 흘러도 이젠 비닐도 있으니까 옛날엔 그런 것이 없으니까 '쉐궤약'이라고 해 가지고 그걸로 해서 받쳤다가 이제 집에 져다가 솥이라고 해서 보통 하면 소나무 말린 거 솔잎이라고 해서 여기선 그것이 저 기름기 있고 하니까 잘 붙습니다. 에이 거 소금을 삶을 것 같다, 소금을 삶을 것 같다 하면서 땔감 그거 특별히 놔뒀다가 소금 삶을 때만 해요. 밥해 먹을 땐 아껴서 놔뒀다가 하고, 걸로 이제 바짝 해서 밥솥에 삶으면 그것이 물 거의 줄어서 이렇게 열어서 보면요, 소금이 하얗게 큰 반 솥쯤 한 솥 물 가득해서 하면 나옵니다. 걸 박박 해서 볕에 말려서 거 했다가 구덕에랑 뭐 소랑 져다가 '웃드리'에 가서 곡식에도 쌀도 받아서 보리랑 바꿔서 하고, 뭐 하고 하지요. 것도 잘 해야. 그렇게 안 하면 벌써 다른 사람이 팔아서 가, 하루종일 져서 다녀도 못 팔 때도 많고. '소금빌레' 하면 그런데 밭에 농사보다는 조금 나아요. 그렇게 해서 아직까지도 '소금빌레' 있습니다. 어촌계에서 소금은 아니 하고 있습니다만 만들어서 놔뒀습니다.)

101005 @ 게고 여기 저 구엄리에는 어떤 기관들이 잇수가?(그리고 여기 저 구엄리에는 어떤 기관들이 있습니까?)

101005 #1 구엄에 여기 ᄒᆞ믄 저 첫째 구엄국민학교가 싯고, 기관이옌 ᄒᆞ민 또 저 신엄중학교가 싯고양. 네 부락이 이제 구엄, 중엄, 신엄, 용흥 네 부락에서 국민학교 ᄒᆞ고, 중학교는 신엄중학교, 또 여기 니 부락에서 합친 저 농협이 싯고, 지소로, 그 외에 뭐 기관은 별로 엇수다게.(구엄에 여기 하면 저 첫째 구엄초등학교가 있고, 기관이라고 하

면 또 저 신엄중학교가 있고요. 네 부락이 이제 '구엄', '중엄', '신엄', '용흥' 네 부락에서 초등학교 하고, 중학교는 신엄중학교, 또 여기 네 부락에서 합친 농협이 있고, 지소로. 그 외에 뭐 기관은 별로 없습니다.)

101005 #2 니사무실이영.(이사무실이랑.)

101005 @ 복지회관.(복지회관.)

101005 #1 아, 복지회관이 잇고, 리사무실이 잇고. 어촌계가 잇고.(아, 복지회관이 있고, 이사무실이 있고, 어촌계가 있고.)

101005 #2 어촌계 사무실이 잇고. 그추룩 그런 ᄉᆞᄉᆞᄒᆞᆫ 기관, 옛날부터 큰 뭐시 어섯수다게. 국민학꾼 구엄으로 허난 구엄사름덜이 더 뭐 헤마씸, 이제 구엄 학교, 구엄 학교, 옛날부터 헤나난. 겐 아이덜도 구엄 학교 감저, 구엄학교 감저. 신엄 학교옌 아니허여마씸. 중엄 학교옌도 아니ᄒᆞ고. 이 국민학교, 구엄 학교, 구엄 학교, 이 구엄 제일 처음 기관이 거마씸. 리사무실이영, 리사무실이라. 무신, 공회당, 공회당이영, 이제 공회당ᄀᆞ뜬 디영 그런 거 ᄒᆞ끔.(어촌계 사무실이 있고. 그처럼 그런 사소한 기관, 옛날부터 큰 뭣이 없었습니다. 초등학교는 '구엄'으로 하니까 '구엄' 사람들이 더 뭐 해요. 이제 '구엄' 학교, '구엄' 학교 옛날부터 했었으니까. 그래서 아이들도 '구엄' 학교 가고 있지. '신엄' 학교라고 아니 합니다. '중엄' 학교라고도 아니하고. 이 초등학교, '구엄' 학교, '구엄' 학교, 이 '구엄' 제일 처음 기관이 거요. 이사무실이랑 이사무실이야. 무슨, 공회당, 공회당이랑. 이제 공회당 같은 데랑 그런 거 조금.)

101005 #1 겐디 마을에 큰 기관은 그것뿐이우다게.(그런데 마을에 큰 기관은 그것뿐입니다.)

101005 #2 이제사 복지관이여, 무신 이사무실이여 헴주, 옛날에 공회당 하나 ᄒᆞ고, 우리 공회당에서 야학헤낫수다. 야학.(이제야 복지관이여, 무슨 이사무실이여 하고 있지, 옛날에 공회당 하나 하고, 우리 공회당에서 야학했었습니다. 야학.)

101006 @ 그다음에 구엄리에 옛날 계덜 잇잖우꽈? 계.(그다음에 구엄리에 옛날 계들 있잖습니까? 계.)

101006 #2 제?(계?)

101006 @ 예, 제, 제, 그거 ᄒᆞᆫ 번 말해 봅서?(예, 계, 계, 그거 한 번 말해 보십시오?)

101006 #2 화단제[28]여.('화단계'다.)

101006 #1 옛날 뭐 ᄒᆞ믄 저 화단제가 싯고. 또 무신 잔치집이 허는 가메제, 가메, 거 저 잔치들믄 새각시 모셩 가는, 그것도 제 안 허믄 안 빌려주곡. 가멧제 잇곡, 또 화단제엔 허영 사람이 돌아강 죽으믄 그레 저 묻는 거, 것도 제 헹 얼마 돈을 내, 쏠로 받읍주, 쏠로. 쏠 ᄒᆞᆫ 뒈, 두 뒈 영 헹 받으믄 이제 그것이 ᄎᆞᄎᆞ 메와지믄 사름이 하영 죽곡 허믄 매헤 연말에 그걸 쏠 계산허영은에 돈 ᄒᆞ곡.(옛날 뭐 하면 저 '화단계'가 있고. 또 무슨 잔칫집에서 하는 가마계, 가마, 그것 저 잔치들면 새색시 모셔서 가는, 그것도 계 안 하면 안 빌려주고. 가마계 있고, 또 '화단계'라고 해서 사람이 돌아가서 죽으면 그

28) '화단제'는 상여에 지붕 모양으로 꾸며 둘러치는 제구들을 빌려주는 계이다.

리로 저 묻는 거, 것도 계해서 얼마 돈을 내, 쌀로 받습니다, 쌀로. 쌀 한 되, 두 되 이렇게 해서 받으면 이제 그것이 차차 모아지면 사람이 많이 죽고 하면 매해 연말에 그걸 쌀 계산해서 돈 하고.)

101006 #2 옛날엔 심방들 왕은에 가메도 미어가곡, 경.(옛날에는 무당들 와서 가마도 메어가고, 그렇게.)

101006 #1 제는 그렇게 허영 무슨 제 무슨 제 헷자 그것이 제일 크고 이.(계는 그렇게 해서 무슨 계 무슨 계 했자 그것이 제일 크고 이.)

101006 #2 무사, 포제옌 ᄒᆞ영 바당에 이제 할마님 제영, 이제 그런 제도 ᄋᆞ라게 잇수다. 포제도 헤나고, 바당에 크게 헤낫수다. (왜, 포제라고 해서 바다에 이제 할머님 제랑, 이제 그런 제도 여러 개 있습니다. 포제도 했었고, 바다에 크게 했었습니다.)

101006 #1 그거라게, 제.(그거야, 계.)

101006 #2 제? 젠 그런 뭐.(계? 계는 그런 뭐.)

101006 @ 사발제?(사발계?)

101006 #2 사발제, 사발제.(사발계, 사발계.)

101006 #1 사발제도 싯곡. 경 헨 멧이 영 돌아가멍.(사발계도 있고. 그렇게 해서 몇 명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101006 #2 상제도 잇고.(상계도 있고.)

101006 #1 상제가 이서. 상젠 뭐냐 ᄒᆞ믄 잔치 때 ᄀᆞ튼 때 상 빌레 데니멍 전인양, 이런 이제 ᄀᆞ트면 큰 상 허영 쭉 잔치칩이 허는디, 아 전인 영 외상으로 그냥 ᄒᆞᆫ 상으로 ᄒᆞᆫ 사름이.(상계가 있어. 상계는 뭐냐 하면 잔치 때 같은 때 상 빌러 다니면서 전에는요, 이런 이제 같으면 큰 상 해서서 쭉 잔칫집에 하는데, 아 전에는 이렇게 외상으로 그냥 한 상으로 한 사람이.)

101006 #2 잔치허젠 허민 막 빌레 뎅기젠 허민.(잔치하려고 하면 마구 빌리러 다니려고 하면.)

101006 #1 동넬 다 뎅겨야 허여. 상제 든 사람들은 ᄀᆞ만이 앚이믄 아 누구네 오늘 잔치여 허믄게 데려당 다 거기도 계 주인이 싯곡 뭐가 이서, 책임자덜이. 게믄 잔치홀 때 ᄀᆞ튼 때는 그 집이만 강 ᄀᆞᆯ으민 다 헤줘.(동네를 다 다녀야 해. 상계 든 사람들은 가만히 앉으면 아 누구네 오늘 잔치야 하면 데려다가 다 거기도 계 주인이 있고 뭐가 있어, 책임자들이. 그러면 잔치할 때 같은 때는 그 집에만 가서 말하면 다 해줘.)

101007 @ 그다음에 이 마을엔 어떤 풍습들이 잇수과?(그다음에 이 마을에는 어떤 풍습들이 있습니까?)

101007 #1 뭐 저 이.(뭐 저 이.)

101007 @ 뭐 당에 뎅긴다거나.(뭐 당에 다닌다거나.)

101007 #1 당할망제 ᄒᆞ믄 당할망제 저 음력 정월, 초정월 ᄀᆞᆫ 넘으믄 이제 저 제를 지냅니다. 이제 거 허게되믄 정자 든 날 거 저 정묘일 요런 날만 들엉 이제 어디강 책봉 왕 제 지내곡, 제 지낼 때는 제관 뽑는 디도 봉으네 상제 안 들곡, 그 집이 깨끗ᄒᆞ곡 마을에서 영 봉 ᄒᆞ끔 게도 밥 적이나 먹곡, ᄒᆞ끔 덕이 잇다 ᄒᆞ는 분을 제관을 ᄒᆞ믄 거

당할망제는 제관을 이제 거, 제관ᄒᆞ고 다시 집사ᄒᆞ곡, 또 전사관이라고 이서, 도새기 잡앙 거기 시정ᄒᆞ고, 전사관 헹은에 제를 지냅주게. 게민 미릿 도새기 사당으네 것도 검은 도새기로, 이 하양 거나 털 얼룩진 거는 제관으로 안 지냉, 옛날은 다 헹 토종 도새기 까망 걸로 사당 걸 시셍허영 ᄒᆞ민 물 꿰왕 들렁 그스리질 안 헷수다. 전인 돗 잡앙 그스리는디, 겡 이제 거 손으로 뽑곡 헹 나중에 저 돗술은 풀아 먹곡, 겡 제 헹 이제 거 제 지냅주게. 산 채 잡앙 내장 문딱 빼 놓곡 허영 딱 ᄒᆞ게 첨 할머니 앞더레 올렁으네 노민 정밤쯤 뒈믄 축 이제 세 번 고허곡 헹으네 제를 지냅주게. 게믄 거기서도 제 지내당 자축, 대축이라고 허영 축도 익곡 허는디 세 번쯤 축을 고헙니다. 나도 첨 ᄋᆞ라번 제를 지내봣는디 이제 경 ᄒᆞ끔 이제 거 대충 헹 제 익곡, 거 동네분덜토 아 뭐영 허믄 거 놀레와마씀. 그날 제 지내믄. 몸이나 굿지 안은 사람덜은 왕, 집이 몸이 굿거나 상제, 영장밧디 간 이런 사람덜은 이녁낭으로 가질 말고. 겡 헹 거 강 또 밤중 뒈영 제 지내곡, 그거 그 후제 또 돗 잡앙으네 술망 썰엉 헤 가믄 두세 시 뒙주게, 밤이. 경 헹 또 먹곡 ᄋᆞ름엔 저 이젠 어서졋수다마는 포제옝 허영 거 삼밧[29] 아래 돌로 영 싸근에 포젯동산, 포젯동산, 이젠 다 밀어졋수다. 거기 강도 똑같이 헤도 거기 규모가 ᄒᆞ끔 당할망보다 ᄒᆞ끔 커. 제관도 ᄒᆞᆫ 열 두 사름 뽑곡, 제관 뭐 알짜여 뭣이여 헹 열두 사람 뽑곡, 제 지내는 건 이디ᄒᆞ곡 비슷ᄒᆞ여마씀. 제관은 ᄋᆞ라 사람 뽑앙은에 거기서.(본향당제 하면 본향당제 저 음력 정월 초정월 곧 넘으면 이제 저 제를 지냅니다. 이제 거 하게되면 정자든 날 거 저 정묘일 요런 날만 들어서 이제 어디 가서 책 보고 와서 제 지내고, 제 지낼 때는 제관 뽑는 데도 봐서 상제 안 들고, 그 집이 깨끗하고 마을에서 이렇게 봐서 조금 그래도 밥 적이나 먹고, 조금 덕이 있다 하는 분을 제관을 하면 거 본향당제는 제관을 이제 거, 제관하고 다시 집사하고, 또 전사관이라고 있어, 돼지 잡아서 거기 받치고, 전사관 해서 제를 지내지요. 그러면 미리 돼지 사다가 것도 검은 돼지로, 이 하얀 거나 털 얼룩진 거는 제관으로 안 지내, 옛날은 다 해서 토종 돼지 검은 걸로 사다가 걸 씻어서 하면 물 끓어서 들러서 그을리 질 안 했습니다. 전에는 돼지 잡아서 그을리는데, 그렇게 이제 거 손으로 뽑고 해서 나중에 저 돼지털은 팔아서 먹고, 그렇게 제 해서 이제 거 제를 지내지요. 산 채 잡아서 내장 모두 빼놓고 해서 딱 하게 참 할머니 앞으로 올려서 놓으면 한밤중 되면 축 이제 세 번 고하고 해서 제를 지내지요. 그러면 거기서도 제 지내다가 자축, 대축이라고 해서 축도 읽고 하는데 세 번쯤 축을 고합니다. 나도 참 여러 번 제를 지내봤는데 이제 그렇게 조금 이제 거 대충해서 제 읽고, 거 동네분들도 아 뭐 이렇게 하면 거 놀러와요. 그날 제 지내면. 몸이나 비리지 않은 사람들은 와서, 집에 몸이 비리나 상제, 장지에 간 이런 사람들은 이녁 냥으로 가질 말고. 그렇게 해서 거 가서 또 밤중 되어서 제 지내고, 그거 그 후제 또 돼지 잡아서 삶아서 썰어서 해 가면 두세 시 되지요, 밤이. 그렇게 해서 또 먹고 여름에는 저 이젠 없어졌습니다만 포제라고 해서 거 '삼밧' 아래 돌로 이렇게 쌓아서 포제동산, 포제동산, 이젠 다 밀어졌습니다. 거기 가서도 똑같이 해도 거기 규모가 조금 본향당보다 조금 커. 제관도 한 열두 사람 뽑고, 제관 뭐 알짜여 뭣이여 해서 열두 사람 뽑고, 제 지내는 건 여기하고

29) '삼밧'은 제주시 애월읍 구엄리에 있는 지경 이름이다.

비슷해요. 제관은 여러 사람 뽑아서 거기서.)

101007 #2 경 헤도 바당 이시난 생선도 놀차 올리곡 저 바당 것이엔 헤낫수다. 놀차 헤당은에.(그렇게 해도 바다 있으니까 생선도 날 채 올리고 저 바다 것이라고 했었습니다. 날짜 해다.)

101007 #1 또 물꾸럭은 이제 헤당 놀 채 숨지 아니허영.(또 문어는 이제 해다 날 채 삶지 아니해.)

101007 #2 포제헐 땐 다 놀 채, 다 바당이난.(포제할 때는 다 날 채, 다 바다이니까.)

101007 #1 아무 제도 다 당할망제도 도새기 다 놀채 올리곡, 이제도 뚠 부락엔 포제 ᄒᆞ곡, 일 년에 두 번 당제 ᄒᆞ곡 ᄒᆞ는디, 우리 마을은 이제 포제는 거 뭐 허다보난 어서지고 이제 지금은 당제만 지냄십주게.(어떠한 제도 다 본향당제도 돼지 다 날짜 올리고, 이제도 다른 부락엔 포제 하고, 일 년에 두 번 당제 하고 하는데, 우리 마을은 이제 포제는 거 뭐 하다보니까 없어지고 이제 지금은 당제만 지내고 있습니다.)

101007 #2 자갈들 풀단 보난 문딱 하파해부러가난.(자갈들 팔다가 보니까 모두 폭파해 버려가니까.)

101007 #1 아, 거 자갈.(아, 거 자갈.)

101007 #2 막 풀앗수다. 구엄 그 부락이서.(마구 팔았습니다. '구엄' 그 마을에서.)

101007 #1 것이 이제 놔둬시민 관광지로 막 좋을 건디. 그땐 마을엔 어렵곡 허다 보난 저 비행장 허멍양, 그 자갈을 막 풀안 시꺼간 거라.(것이 이제 놔뒀으면 관광지로 아주 좋을 건데. 그때는 마을에는 어렵고 하다 보니까 저 비행장 하면서요, 그 자갈을 마구 팔아서 실어간 거야.)

101007 #2 막 하영 풀앗수다.(아주 많이 팔았습니다.)

101007 #1 문짝 파 부난.(모두 파 버리니까.)

101007 #2 막 폭파허멍 헤 부가난, 그 포젯동산이엔 허영.(마구 폭파하면서 해 버려가니까, 그 포제동산이라고 해서.)

101007 #1 포크레인이여, 문딱 큰 땀뿌차로 거려간 그 자갈도.(굴삭기여, 모두 큰 덤프트럭으로 가져간 그 자갈도.)

101007 #2 막 풀안.(마구 팔았어.)

101007 #1 수백 년 쌓은 자갈덜 문짝 케부난, 이제 거긴 뭐 돌만 엉성허연 촘 보기가 싫고, 뭐도 관광지도 못 뒈어마씨. 그런 것이 아쉽수다게. 거 풀아먹은 거.(수백 년 쌓은 자갈들 모두 캐 버리니까, 이제 거긴 뭐 돌만 앙상하여서 참 보기가 싫고, 뭐도 관광지도 못 되어요, 그런 것이 아쉽습니다. 거 팔아먹은 거.)

101007 #2 게난 ᄀᆞ만이 풀지 말아시믄.(그러니까 가만히 팔지 않았으면.)

101007 @ 농악놀이 그런 건 엇수과?(농악놀이 그런 거는 없습니까?)

101007 #1 별로 저, 걸궁이엥 허영.(별로 저, 걸립이라고 해서.)

101007 @ 걸궁, 걸궁.(걸립. 걸립.)

101007 #1 걸궁 게믄 지금은 저 안 허는디 전인 걸궁덜 막 헤낫수다.(걸립 그러면

지금은 안 하는데 전에는 걸립들 마구 했었습니다.)

101007 #2 오랫수다. 오래언게.(오랬습니다. 오래었어.)

101007 #1 걸궁허믄 저 거기서도 뭐 저 총젭이여 이제 무신 동녕바치여, 경헹 다 이제 구대진ᄉᆞ, 영 헹 이제 거 또 여러 기관덜이 총젭이도 털벙거지 씨고, 이 총 둘러메엉 총 멩그랑 둘러메엉 ᄒᆞ곡 집마다 돌멍 독독독 두드리멍 거, 저 집이 들어강 재게 뭣 안 주믄 강 뭐영 쏠이영 걸여줘사. 안 주믄 강 믄딱 저 정지로 강 믄 넴비도 저 장난으로 데껴불곡, 이제 거 마당더레 믄 케우립주게. 경 헤 가믄 재게 아이고 이거 재게 줘사켜. 보내곡 ᄒᆞ믄. 집마다 뎅이멍 헤 노믄, 거기도 막 쏠도 이제 ᄒᆞᆫ 짐 막 벌곡, 영 헹 첨 동네 막 헷수다게.(걸립하면 저 거기서도 뭐 저 총잡이여, 이제 무슨 거지여, 그래서 다 이제 구대진사, 이렇게 해서 이제 거 또 여러 기관들이 총잡이도 털벙거지 쓰고, 이 총 어깨에 둘러메어서 총 만들어서 어깨에 둘러메고 집마다 돌면서 독독독 두들기면서 거, 저 집에 들어가서 빨리 무엇 안 주면 가서 뭐랑 쌀이랑 떠줘야. 안 주면 가서 모두 저 부엌으로 가서 모두 냄비도 저 장난으로 던져버리고, 이제 거 마당으로 모두 던져버리지요. 그렇게 해 가면 빨리 아이고 이거 빨리 줘야겠어. 보내고 하면. 집마다 다니면서 해 놓으면, 거기도 마구 쌀도 이제 한 짐 마구 벌고, 이렇게 해서 참 동네 마구 했습니다.)

101007 #2 아방은 부름씨만 헤시난.(아버지는 심부름만 했으니까.)

101007 #1 우린 뒤에서 부름씨헹 뭐 졍 데니곡, 아버지네 대에예, 그렇게 허영 헷고.(우리는 뒤에서 심부름해서 뭐 져서 다니고, 아버지네 대에요, 그렇게 해서 했고.)

101007 #2 구덕 ᄀᆞ져오라 허영.(바구니 가져오라 해서.)

101007 #1 우리 뒤에 부름씨허영.(우리 뒤에 심부름해서.)

101007 #2 쏠 받아 오곡 허영.(쌀 받아 오고 해서.)

101007 #1 들렁 지어오곡 헤낫수다게.(들어서 져오고 했었습니다.)

101008 @ 거ᄒᆞ고 이 마을 특산물 어떤 것들이 잇수과?(그거하고 이 마을 특산물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101008 #1 특산물은.(특산물은.)

101008 @ 특산물, 특산물.(특산물, 특산물.)

101008 #1 특산물은.(특산물은.)

101008 @ 특별히 생산되는 물건.(특별히 생산되는 물건.)

101008 #1 특산물은, 특별히 생산뒈는 물건은 뭐 엇고. 요즘 근간에 하우스 단지가 다 뒛수다게. 옛날 허믄 멘네도 ᄒᆞ고.(특산물은, 특별히 생산되는 물건은 뭐 없고. 요즘 근간에 하우스 단지가 다 됐습니다. 옛날 하면 면화도 하고.)

101008 @ 소금.(소금.)

101008 #1 소금ᄒᆞ고 또 바당에 궤기 나끄레 강 ᄒᆞ믄, 우리도 성창에 강 보믄 ᄋᆞ름에 양, 거 이때라. 복젱이가 잘 잡혀낫수다. 그 복젱이 ᄒᆞ믄 복젱이알 또 헤당 데껴 이제 ᄒᆞ곡 ᄒᆞ믄(소금하고 또 바다에 고기 낚으러 가서 하면, 우리도 선창에 가서 보면 여름에요, 거 이때야. 복어가 잘 잡혔었습니다. 그 복어 하면 복어알 또 해다가 던져서. 이제

하고 하면.)

101008 #2 먹으믄 죽느넨 ᄒᆞ영.(먹으면 죽는다고 해서.)

101008 #1 사람은 못 먹어도 그걸로 허영 복젱이알 냄새가 지독헤낫수다. 겐디 여기선 복젱이 ᄆᆞᆯ린다 헤 노믄 막 그레 코가 깨져마씀, 냄새로. 그 ᄋᆞ름. 경 헤도 그것이 나중 잘 ᄆᆞᆯ라노믄 복젱이 풀곡, 소금 풀곡. 그거ᄒᆞ곡 ᄒᆞ믄 그 외에는 뭐 조나 보리 이런 거는 다 그냥 뚠 부락도 ᄒᆞ는 농사, 그 외에는 또 근자에 왕으네는 감제도 싱그곡.(사람은 못 먹어도 그걸로 해서 복어알 냄새가 지독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복어 말린다 해 놓으면 마구 그리로 코가 깨져요, 냄새로. 그 여름. 그렇게 해도 그것이 나중 잘 말려놓으면 복어 팔고, 소금 팔고. 그거하고 하면 그 외에는 뭐 조나 보리 이런 거는 다 그냥 다른 부락도 하는 농사, 그 외에는 또 근자에 와서는 고구마도 심고.)

101008 #2 그건 그 후제마씀.(그거는 그 후에요.)

101008 #1 이거, 저거 헹 오이, 이 제주도에서 요즘은 구엄 오이옝 ᄒᆞ민 알아줍주게. 여기 면적이 뭐 거의 지금 밧은 칠십프로는 하우스라. 게난 우리 제일 처음 우리도 하우스 시작허영 나 우이 ᄒᆞᆫ 세 사람, 다섯 사람가 시작을 헷는디 하우스, 그 하우스가 뭣도 모르고 헐 때 우리도 외부 강은에.(이거, 저거 해서 오이, 이 제주도에서 요즘은 '구엄' 오이라고 하면 알아주지요. 여기 면적이 뭐 거의 지금 밭은 칠십 퍼센트는 하우스야. 그러니까 우리 제일 처음 우리도 하우스 시작해서 나 위에 한 세 사람, 다섯 사람이 시작을 했는데 하우스, 그 하우스가 뭣도 모르고 할 때 우리도 외부 가서.)

101008 #2 작년 간.(작년 가서.)

101008 #1 아니 처음엔 외부 간 저 하우스 허는 거 강 봐아전, 아이고 이거 하우스 좀 헤사 돈 벌어지켜. 그 때 시작헌 거. 뚠 딘 간 보난 담배대옌 허여, 담배 영 욱강 여는 것이 싯수다게. 게문 저 이십이미리 빠이프에 이제 거 팔메다 뒈는 그걸 헹 이제 담배 욱그는 디 ᄒᆞᆫ 삼십 갠가 그 때 담배ᄒᆞ는 사람덜은 그거 특별이 줘낫수다게. 그걸로 허단 하우스가 나중에 좀 크게 해야겟다 허는 여기 작목반에 멧 사름 헤 가지고양, 우리도 담양[30]ᄁᆞ지 갓수다, 대 허레. 왕대, 왕대 허레 강, 거긴 ᄒᆞ민 저 여기보다 아멩헤도 여기보다 쌉주게. 대 장시 왕 허난, 아, 담양가믄 대가 이제 여기 담지 아니허영 수월허게 사 지곡, 좀 싸게 사진다. 겡 이제 담양을 가기로 헌디. 그때도 돈을 가져간디 이제 ᄀᆞ뜨믄 첨 은행으로 헹 보내곡 허민 아무것도 아닌디. 그땐 현찰을 돈을 그냥 가정 데녀서. 게 집마다 메완 돈을 허난 이제 천원 컷고 이제 보통 만 원짜리양, 천 원짜리 오천 원은 큰돈, 만 원짜리 귀ᄒᆞ게 얼마 어섯수다게. 천 원ᄒᆞ곡 저 오천 원짜리로 허다보난 베개보단도 크게 돈을 싸져서마씀. 게난 아 둘이 가멍양. 야, 이거 돈 일엇당 큰일 나켜. 이거 둘이 안쳐 요거 저 영 허니까 요거 가방에 놔도 알아지고 요거. 겡허연 이제 제우 비헹기 탄 담양ᄁᆞ지, 그때 비헹기도 처음 타보고 난 뭐 비헹기 탈 일이 셧수가? 그때 담양가멍.(아니 처음에는 외부 가서 저 하우스 하는 거 가서 봐와서, 아이고 이거 하우스 좀 해야 돈 벌어지겠어. 그때 시작한 거. 다른 데는 가서 보니까 담배대라고 해, 담배 이렇게 엮어서 여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 이십이 밀리미터 파이프에

30) '담양'은 대나무 주산지인 전라남도 담양을 일컫는다.

이제 거 팔 미터 되는 그걸 해서 이제 담배 엮는 데 한 삼십 갠가 그때 담배하는 사람들은 그거 특별히 줬었습니다. 그걸로 하다가 하우스가 나중에 좀 크게 해야겠다 하는 여기 작목반에 몇 사람 해 가지고요, 우리도 '담양'까지 갔습니다, 대 하러. 왕대, 왕대 하러 가서, 거기는 하면 저 여기보다 아무래도 여기보다 싸지요. 대 장수 와서 하니까, 아, '담양' 가면 대가 이제 여기 닮지 아니 해서 수월하게 사지고, 좀 싸게 사진다. 그렇게 이제 '담양'을 가기로 했는데. 그때도 돈을 가져갔는데 이제 같으면 참 은행으로 해서 보내고 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땐 현찰을 돈을 그냥 가져서 다녔어. 그렇게 집마다 모아서 돈을 하니까 이제 천 원 컸고 이제 보통 만 원짜리요, 천 원짜리 오천 원은 큰돈, 만 원짜리 귀하게 얼마 없었습니다. 천 원하고 저 오천 원짜리로 하다보니까 베개보다도 크게 돈을 싸졌어요, 그러니까. 아 둘이 가면서요, 야 이거 돈 잃었다가 큰일 나겠어. 이거 둘이 앉혀 요거 저 이렇게 하니까 요거 가방에 놔도 알아지고 요거. 그래서 이제 겨우 비행기 탄 '담양'까지, 그때 비행기도 처음 타보고 난 뭐 비행기 탈 일이 있었습니까? 그때 담양 가면서.)

101008 #2 이십 년도 더 뒛수게.(이십 년도 더 됐습니다.)

101008 #1 우리 흔.(우리 한.)

101008 #2 스물 싯에.(스물 셋에.)

101008 #1 스물서이 뒐 때 담양 가 오랏는디, 그때 간, 거 간 ᄒᆞ난 또 대 ᄒᆞ는디 간에, 거기도 거기만이양, 밤이 또 여관이 강 자젠ᄒᆞ난 거 돈은 붕땅ᄒᆞ고양, 어두왕 어느 놈 가져가불지 겡, 이거 큰일 낫다. 강도 들믄. 겡 두 친구가양, 눠두서 베게에 돈을 반썩 나놩 베게에 이거 돈 들러가믄 이거 헤가믄 알아지난 베게 비영 눅자 허연. 그렇게 헨 헤오고 또.(스물셋 될 때 '담양' 가 왔는데, 그때 가서, 거기 가서, 또 대하는데 가서, 거기도 거기만이요, 밤에 또 여관에 가서 자려고 하니까 거 돈은 불룩하고요, 어두워서 어느 놈 가져가 버릴지 그렇게, 이거 큰일 났다. 강도 들면. 그렇게 두 친구가요, 눠둬서 베개에 돈을 반씩 나눠서 베게에 이거 돈 가져가면 이거 해가면 알아지니까 베개 베어서 눅자 했어. 그렇게 해서 해오고 또.)

101008 #2 게난 멧 십 년 뒛수게.(그러니까 몇 십 년 됐습니다.)

101008 #1 게난 여기 돈 헤단 베삭 내언, 짐 베 삭 내언양. 이꺼지 춤 시꺼완에 그것이 하우스양, 구엄이 오깍 일어나게 된 동기우다게. 그루 후제는 빠이쁘 이제 빠이쁘 새로 나오난 이제 사단 ᄒᆞ곡, 대 빠이쁘는 어서졋는디.(그러니까 여기 돈 해다가 배삯 내었어, 짐 배삯 내었어요. 이까지 참 실어 와서 그것이 하우스요, '구엄'이 오롯이 일어나게 된 동기입니다. 그 후에는 파이프 이제 파이프 새로 나오니까 이제 사다가 하고, 대 파이프는 없어졌는데.)

101008 @ 게난 하우스 안네는 주로 오이, 오이 키왐수과?(그러니까 하우스 안에는 주로 오이, 오이 키우고 있습니까?)

101008 #1 이제는 오이ᄒᆞ고 저 도마도 ᄒᆞ끔 ᄒᆞ는디, 그자 이 첫째는 오이우다게. 오인 헤보믄 사름은 ᄒᆞ끔 저 못젼뎌도 돈이 뒈어마씸. 일을 ᄒᆞ민 거 빨리 흔 ᄉᆞ십일 뒈어가믄 싱경으네 흔 십오일이나 이십일 메종 키왕으네 걸 하우시에 싱급주게. 싱경 ᄒᆞ믄

흔 ᄉᆞ십일 뒈 가믄 저 우트레 올랑 저 오이, 이제 저 물웨 종류 아니꽈게? 재게 커. 물웨 크듯 헌다 허다시피. 재게 크믄 금방 타믄 시장에 가믄 그땐 이제 하우스덜 얼마 어시난 돈이 뀌 뒙디다. 경 헹 주로 이제 하우스가 집마다 거의 막 일어난 요즘도 저 젊은 사람덜토양 하우스 아니 허는 사람이 어서. 우린 옛날 다 헤부난 이젠 설러부런, 나도 이제 ᄒᆞ끔 싯고. 걸 다 이제 메어불젠 너무 아쉽고 헨 조금 흔 멧 백 평 싯고. 경 헨 이제 여긴 주로 이제도 하우스 오이우다. 구엄오이허믄 제주도에서 알아줘낫수다.(이제는 오이하고 저 토마토 조금 하는데, 그자 이 첫째는 오이입니다. 오이는 해보면 사람은 조금 저 못 견뎌도 돈이 되어요. 일을 하면 거 빨리 한 사십일 돼 가면 심어서 한 십오일이나 이십일 모종 키워서 그것을 하우스에 심습니다. 심어서 하면 한 사십일 돼 가면 저 위로 올라서 저 오이, 이제 저 물외 종류 아닙니까? 빨리 커. 물외 크듯 한다 하다시피. 빨리 크면 금방 따면 시장에 가면 그땐 이제 하우스들 얼마 없으니까 돈이 꽤 됩디다. 그렇게 해서 주로 이제 하우스가 집마다 거의 마구 일어난 요즘도 저 젊은 사람들도요 하우스 아니 하는 사람이 없어. 우린 옛날 다 해버리니까 이젠 치워버렸어, 나도 이제 조금 있고. 그것을 다 이제 매어버리려고 너무 아쉽고 해서 조금 한 몇 백 평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긴 주로 이제도 하우스 오이입니다. '구엄' 오이 하면 제주도에서 알아줬습니다.)

101009 @ 그다음에 이 마을 자랑거리 시민 ᄒᆞ끔 ᄀᆞᆯ아봅서?(그다음에 이 마을 자랑거리 있으면 조금 말해보세요?)

101009 #1 자랑거린 뭐 특별헌 거.(자랑거리는 뭐 특별한 거.)

101009 #2 옛날 축구도 ᄒᆞ곡.(옛날 축구도 하고.)

101009 #1 아, 옛날양.(아, 옛날에요.)

101009 #2 공도 창 일등ᄒᆞ곡.(공도 차서 일등하고.)

101009 #1 이 ᄉᆞ계에서 구엄ᄒᆞ민 무시 못 헤낫수다게. 이 운동을 잘허여.(이 세계에서 '구엄'하면 무시 못 했었습니다. 이 운동을 잘해.)

101009 #2 운동을 잘허여.(운동을 잘해.)

101009 #1 예, 거 돌아간 분도 잇지만 고○○씨라고 그 사람이 막 축구 어린 때부터 시에 농고여 어디영 막 데니멍 축구선수로 제주도 선수 허연, 또 저 윤○○ 그 분덜 축구 도 선수덜이 멧 사람 셧수다게. 그 받침 헤 가지고 제주도 츰 저 이 애월읍 허믄 아, 구엄 이기지 못허여. 구엄 허믄 이제도 구엄도 운동 정신이영 게이트볼 허믄 구엄에 요번에도 제주도연합회 전체에서 간 일등혯수다. 게난 육지ᄁᆞ지 가완. 거 이제도 ᄒᆞ믄 거 저 구엄 마을 노인정에 강 보믄 이제 트로피가 방안에 ᄀᆞ득앙 놀 디가 어실 정도로 혯고, 또 우승기도 멧 개 싯고, 이런 건 아주 첨 저 전통적으로 구엄리 운동허는 전통이라.(예, 그렇게 돌아간 분도 있지만 고○○씨라고 그 사람이 아주 축구 어릴 때부터 시에 농고여 어디랑 마구 다니면서 축구선수로 제주도 선수 했어, 또 저 윤○○ 그분들 축구 도 선수들이 몇 사람 있습니다. 그 받침 해 가지고 제주도 참 저 이 애월읍 하면 아, '구엄' 이기지 못해. '구엄' 하면 지금도 '구엄'도 운동 정신이랑 게이트볼 하면 '구엄'에 이번에도 제주도연합회 전체에서 가서 일등 했습니다. 그러니까 육지까지 가왔어.

거 이제도 하면 거 저 ‘구엄’ 마을 노인정에 가서 보면 이제 트로피가 방안에 가득해서 놓을 데가 없을 정도로 했고, 또 우승기도 몇 개 있고, 이런 건 아주 참 저 전통적으로 ‘구엄리’ 운동하는 전통이지.)

101009 #2 요새 젊은 아이덜토, 운동 선생덜 다 죽엇수다게. 나이 들기 전이 죽언, 젊은 때에. 돌아가도 이제 젊은 아이덜은 그 정신으로 이제 운동가도 이제 구엄, 구엄 험니다. 어떵 허난 뭐시 전달뒈신가? 그추룩 허영헤도 구엄 젊은 사람덜토양, 운동이영 허믄 어디 강 안 떨어지는 셍입디다게. 그 운동 선생님덜 다 돌아갓수다.(요즘 젊은 아이들도, 운동 선생들 다 죽었습니다. 나이 들기 전에 죽었어, 젊은 때에. 돌아가도 이제 젊은 아이들은 그 정신으로 이제 운동가도 사람들도 이제 ‘구엄’, ‘구엄’ 합니다. 어떻게 하니까 무엇이 전달됐는가? 그처럼 해서 해도 ‘구엄’ 젊은 사람들도요, 운동이라고 하면 어디 가서 안 떨어지는 모양입니다. 그 운동 선생님들 다 돌아갔습니다.)

101009 #1 것이 전통이 셩은에.(것이 전통이 있어서.)

101009 #2 것이 이제도 뭣이 셔마씀. 이제 공회당에 강 봐도 그런 무신거 아이고, 운동허영 무신거 탕 왓져. 젊은 사람덜토 뭣이 신 셍이라마씀(것이 이제도 뭣이 있어요. 이제 공회당에 가서 봐도 그런 무엇 아이고, 운동해서 무엇 타서 왔어. 젊은 사람들도 뭣이 있는 모양이에요.)

101009 #1 물림이 싯수다게.(물림이 있습니다.)

101009 #2 물림이 이성마씨게.(물림이 있어서요.)

101010 @ 아까 물어본 거 이외에 구엄에 대해서 더 곧고 싶은 것 잇걸랑 골아봅서.(아까 물어본 거 이외에 ‘구엄’에 대해서 더 말하고 싶은 것 있걸랑 말해보십시오.)

101010 #2 거 뭐. 하도 옛날, 옛날 헤나난 무신 옛날 저.(그렇게 뭐. 매우 옛날, 옛날 했었으니까 무슨 옛날 저.)

101010 @ 소금 헤난 거 ᄒᆞ끔 골아봅서.(소금 했던 거 조금 말해보세요.)

101009 #2 소금양?(소금요?)

101010 @ 소금 헤난 거.(소금 했던 거.)

101010 #1 소금, 그땐 이제도 싯수다마는, 소금 거 바당에 가믄 그것이 소금도 밧ᄀᆞ찌 물려주곡양, 풀곡 사곡 헤마씀. 하간 소금빌레[31] 허민 멧 파니, 멧 파니 다섯 파니라, 멧 개 이제 ᄒᆞ민, 것도 하민 이제 갈랑줘.(소금, 그땐 이제도 있습니다만, 소금 그거 바다에 가면 그것이 소금도 밭같이 물려주고요, 팔고 사고 해요. 모든 ‘소금빌레’ 하면 몇 뙈기, 몇 뙈기 다섯 뙈기야, 몇 개 이제 하면, 것도 많으면 이제 갈라서 줘.)

101010 #2 큰아덜은 멧 개, 족은아덜은 멧 개씩.(큰아들은 몇 개. 작은아들은 몇 개씩.)

101010 #1 것도 소금빌레영 하믄 갈랑줭, 멧 파니 아덜 거, 멧 파니 성 줄 거옌 헤노민 이제 것도 잘 안 주믄 형제간도 것 따문에 좋지 못 허영 쌉기도 허곡 허는디, 소금은 거 지금은 영 형식만 세멘으로 헷주마는, 전인양 그 천흑 허영 천흑으로 다 흑을

31) ‘소금빌레’는 제주시 애월읍 구엄리 바닷가 ‘빌레’ 위에 있는 소금밭이다. ‘빌레’는 지면(地面) 또는 땅에 넓적하고 평평하게 묻힌 돌이다.

뒈게 막 불라놩 흑으로 영 저 소금 파니 멩그랏수다.(것도 '소금빌레'랑 많으면 갈라 줬어, 몇 뙈기 아들 거, 몇 뙈기 형 줄 거라고 해놓으면 이제 것도 잘 안 주면 형제간도 것 때문에 좋지 못해서 싸우기도 하고 하는데, 소금은 거 지금은 이렇게 형식만 시멘트로 했지만, 전에는요 그 찰흙 해서 찰흙으로 다 흙을 되게 마구 발라놔서 흙으로 이렇게 저 소금 뙈기 만들었습니다.)

101010 #2 동글락, 동글락 허영.(동그랗게, 동그랗게 해서.)

101010 #1 이제 ᄇᆞ짝 ᄆᆞ리왓당 ᄒᆞ믄 그 뭐 흑 헐 때 소금 헤도 그냥 허믄 그게 흑이 안 뒈난 ᄀᆞ시락 ᄀᆞ찌 놩 막 천흑으로 뀌영 막 다려. 게믄 것이 끈닥끈닥헙니다. 지깍 허믄 그걸로 손으로 싹 허멍 영 흑질허영 헹으네 파니를 멩글아. 멩글앙 그레 이제 흔 동안 쳥 앗졋당, 물 이제 받앗당, 이놈 요것이 쫀물에 영 굳어지믄 양, 비와도 얼른 싯어지지도 아니허곡, 데깍허영. 저 물 들어도 잘 흑은 안 싯어져. 게믄 이제 이걸 바가지나 뭣으로 이제 그 빌레허믄 물 질어당 호갈이마다 물 채왕.(이제 바짝 말렸다가 하면 그 뭐 흙 할 때 소금해도 그냥 하면 그게 흙이 안 되니까 까끄라기 같이 놔서 마구 찰흙으로 반죽해서 마구 다려. 그러면 것이 끈적끈적 합니다. 빽빽하면 그걸로 손으로 싹 하면서 이렇게 흙질해서 하여서 뙈기를 만들어. 만들어서 그리로 이제 한동안 쳐서 앉혔다가, 물 이제 받았다가, 이놈 요것이 짠물에 이렇게 굳어지면요, 비 와도 얼른 씻기지도 아니하고, 딴딴해서. 저 물 들어도 잘 흙은 안 씻어져. 그러면 이제 이걸 바가지나 뭣으로 이제 그 '빌레'하면 물 길어다가 웅덩이마다 물 채워서.)

101010 #2 좀팍은 집이서 멩글앙.('좀팍'은 집에서 만들어서.)

101010 #1 경 헤영 저 그레 채왕 놔뒷당 요것이 흔 닷새쯤 ᄀᆞ뜩 앚앗당 영 허믄 날 덥곡 헤 가믄 이 때 뒈믄 거 영 비슷허게 빌레옌 헌 건 영 펜안흔 디도 잇주마는 펜안헌 딘 돌소금ᄒᆞ곡, 돌소금이옌 흔 건 어떵 허냐믄, 딱 허게 펜안헌 딘 물 영, 비그릇헌 딘 빌레옌 허영 지치믄 더운 물이 영 허영 벳디 줒아지곡 헤 가믄 ᄎᆞᄎᆞ 짜질 거 아이우꽈? 펜안헌 딘양, 돌소금이옝 허영 아, 이건 돌소금 앚일 디, 겡 영 펜안ᄒᆞ믄 물이 지칠 디 어서도 이것이 지냥으로 자연이 뿔어 가믄 나중에 아레 ᄒᆞ끔썩 소금이 셍겨납니다. 겡 그대로 딱 놔두믄 소금 더러 건지멍 ᄆᆞ이우멍 거 돌소금이고.(그렇게 해서 저 그리로 채워서 놔뒀다가 요것이 한 닷새쯤 가득 앉았다가 이렇 하면 날 덥고 헤 가면 이때 되면 거 이렇게 비슷하게 '빌레'라고 한 건 이렇게 평평한 데도 있지만 평평한 데는 돌소금하고, 돌소금이라고 한 건 어떻게 하냐면, 딱 하게 평평한 데는 물 이렇게, 비탈진 데는 '빌레'라고 해서 끼얹으면 더운 물이 이렇게 해서 볕에 잦아지고 해 가면 차차 짜질 거 아닙니까? 평평한 데는요, 돌소금이라고 해서 아, 이건 돌소금 앉을 데, 그렇게 해서 평평하면 물이 끼얹을 데 없어도 이것이 스스로 자연히 삐어 가면 나중에 아래 조금씩 소금이 생겨납니다. 그렇게 그대로 딱 놔두면 소금 더러 건지면서 말리면서 거 돌소금이고.)

101010 #2 호갈이 소곱더렌 건졍 그레 놩.(웅덩이 속으로 건져서 그리로 놓아서.)

101010 #1 그냥 소금, 이제 소게소금[32]이렝 허여. 돌소금, 소게소금.(그냥 소금, 이

32) '소게소금'은 면화처럼 아주 하얀 소금을 일컫는다.

제 ‘소게소금’이라고 해. 돌소금, ‘소게소금’.)

101010 #2 게난 그건 산에 가도 ᄒᆞ끔 쏠 더 줍니다. 돌소금 구엄 왓젱 허영. 쏠 뒈 왁세기로 하나 더 줘.(그러니까 그건 산에 가도 조금 쌀 더 줍니다. 돌소금 ‘구엄’ 왔다고 해서. 쌀 식되로 하나 더 줘.)

101010 #1 돌소금이우다. 이건 소게소금이우다.(돌소금입니다. 이건 ‘소게소금’입니다.)

101010 #2 겡 돈 더 받곡 헹.(그렇게 돈 더 받고 했어.)

2. 제보자 일생

102001 @ 다음은양, 그 낳고 자라온 과정을 ᄀᆞᆯ아줍서. 낳고 자라온 과정.(다음은 요, 그 낳고 자라온 과정을 말해주십시오. 낳고 자라온 과정.)

102001 #1 남은 우리가 이제 원래 우리 팔남매우다게. 집안에 팔남맨디 위로는 누님이 세 분 계셨고, 또 알로는 이제 우리 어머니가 작은어머니, 저 큰어머니 돌아가부난 큰어머닌 뚤만 시 성제 나고, 거 나가 알기로는 젊을 때 돌아갓는디 혜 부난, 이제 돌아가부니까 우리 어머니 이젠 생모를 혜다가 이제 오남매, 원래는 육남매라낫수다게. 육남매허고 어떵 허냐 하믄 위로부터 형님이 다섯 분 계셨고, 또 이제 알로 나보다 누이 동생이 하나 이섯고, 우이로 다섯 분 허연 이제 사삼사건에 ᄒᆞᆫ 분은 돌아갓고, 영 허연 이제 여기서 자라낫는디 허다 보난 나도 원래 우리 집이 가난허다 보난 아버진 돌도 깨곡, 돌쳉이 생활허다 보난 집이 돈이 별로 어실 거 아니우꽈? 돈 버는 것이 엇다 보난 중학교도 이젠 처음엔 못 가고, ᄒᆞᆫ 삼년 가기 전에 그 때 주로 헌 건 뭐냐 허면 쉐 멕이는 거여. 어린 아이덜토 쉐는 쉐출허레 뎅이고 검질메고 이것이 줍주게. 어린 때 사는 게. 경 허단 여기 저 밋에 한문서당이 하나 생겻수다게. 게난 한문서당에 그 분도 다릴 양쪽 절단뒌 그 사름이 ᄒᆞ다 버치난 그 사람도 사삼사건 따문에 그추룩 뒛는디 거기 이제 한문 서당을 뎅이는디, 한문 서당에 간 보난 뭐 이 천자문 허는디 반은 공부를 하영 덜 헤십디다게. 난 나중 들어간 보니까, 것도 이제 열니 설, 아 열다섯 때, 거 한문에 간 보난 뚠 아이덜은 반은 ᄒᆞᆫ 천자문 오백 자쯤 익어서마씀. 아, 난 간 이제 뭣도 모르고 영 저레 허난 공불 영 헤보난 어린 때난산디 ᄒᆞ끔 쉬와보여마씨. 게네 ᄒᆞᆫ 사름이 어떵 허냐 하믄 ᄒᆞ를 공부를 허는디 열ᄋᆞᄉᆞᆺ 자썩 공부헤서마씀. 아니 저 ᄋᆞ둡 자, ᄋᆞ둡 자 허믄양, 두 줄 헹 공부를 헷는디, 아 영 ᄋᆞ둡자 허믄 너무 싱거와마씸. 공부를 허다보난, 아 거믄 난 곱을 해야겟다. 열여섯자를, 게 열여섯자를 ᄒᆞ를 ᄒᆞᆫ 장썩 막 나간 거마씨. 게 ᄒᆞᆫ 덜 뒈가난 그 사름들이영 ᄀᆞ찌 맞먹어 가. 겡 공부를 허니까 선생님이 항상 그날 공부헌 건양, 어떵 허냐 허믄 아장 뭐시엔 헌다 강 복습을 허믄 이 거 선생 앞이 강 그거 다 그 아시날 공부헌 거 다 듣고, 거 이제 뭔 자 쓰라 허믄 눈 꼼앙 책 베리지 말앙 글을 썽 바쪄사 헤마씨. 경 헤사 너 공부헷다. 또 수판 베우고 이제 거 우리 주로 헌 건 수판허고 거 한문인디 거기서도 수도라고 해서 제일 ᄆᆞᆫ제 공부헌 사람덜은 천자문을 뗀

사람덜, 이제 돌아가부렛수다마는 그 두 분은 이제 천자문을 떼난 그 사람덜 앞이 공부를 허는디, 여기서도 옛날ᄀᆞ치 시험을 받수다게. 흔 둘에 흔 번 시험을 봐. 게민 이제 거 선생도 내곡, 거 저 수도 선생, 수도옌 ᄒᆞ당 문제 흔 사람덜이 시험을 내어마씨. 시험을 내믄 강 그 시험을 당허믄 채점은 선생이 다 헙니다. 왕 딱 공부허영 질 잘헌 사람은 장원이옌 헤 가지고 떡 헤 가고, 또 두 번째 공부헌 사람은 준장원이옌 허영 콩 볶아 가고, 경 헤십주게. 게믄 이제 장원은 선생인 장원책 써 줭 딱 거 도장찍곡 헹 집이 가졍 오민 아 너 장원헷고나. 이거 장원헷수다. 떡 뭐 저 헤줍서 허믄 그 때는 오메기, 오메기떡[33] 허영으네 영 좁쏠떡으로 오메기떡 허영 다 이제 인절미[34] 헹 갑주게. 가믄 이제 거 아이가 흔 ᄉᆞ십 명, 오십 명 거의 뒛수다. 그때 게민 그거 흔 사름이 얼마 썩 떡 태우고 두 개 정도 보통 태우고, 또 준장원이옌 허영 콩 볶아가믄 이제 영 홈팍 담은 걸로 흔 사름썩 손 내밀렌 허영 거 다 이제 태와주고. 경 헨 먹어난 뭣도 잇는디. 나가 중학교 가게 뒌 건양, 거 강 영 허믄 선생님이 그때 어떠난산디 넌 학교를 들어가 사헌다. 너 여기서 쉐 멕이는 건 아까우난, 공부를 영 헤보난 어린 땐 영 잘 헤져사신디, 아 거 저 선생이 자꾸 강 글 바칠 때마다 그 말을 골아. 넌 중학교 가 아까와. 너 여기서 공부 서당만 허영 끗내는 거 아깝다. 저 너무 아깝다, 아깝다. 부모님 앞이 나가 골으커메 이제 널랑 중학교 가라.(남은 우리가 이제 원래 우리 팔남매입니다. 집안에 팔남매인데 위로는 누님이 세 분 계셨고, 또 아래로는 이제 우리 어머니가 작은어머니, 저 큰어머니 돌아가 버리니까 큰어머닌 딸만 삼 형제 낳고, 거 내가 알기로는 젊을 때 돌아갔는데 해 버리니까, 이제 돌아가 버리니까 우리 어머니 이젠 생모를 해다가 이제 오남매, 원래는 육남매였습니다. 육남매하고 어떻게 하냐하면 위로부터 형님이 다섯 분 계셨고. 또 이제 아래로 나보다 누이동생이 하나 있었고, 위로 다섯 분 해서 이제 사삼사건에 한 분은 돌아갔고,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서 자랐었는데 하다 보니까 나도 원래 우리 집에 가난하다 보니까 아버진 돌도 깨고, 석공 생활하다 보니까 집에 돈이 별로 없을 거 아닙니까? 돈 버는 것이 없다 보니까 중학교도 이젠 처음에는 못 가고, 한 삼 년 가기 전에 그때 주로 한 건 뭐냐 하면 소 먹이는 거야. 어린아이들도 소는 소꼴 하러 다니고, 김매고 이것이 주지요. 어릴 때 사는 게. 그렇게 하다가 여기 저 밑에 한문 서당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한문 서당에 그분도 다리를 양쪽 절단된 그 사람이 하다 버거우니까 그 사람도 사삼사건 때문에 그처럼 됐는데, 거기 이제 한문 서당을 다니는데 한문 서당에 가서 보니까 뭐 이 천자문 하는데 반은 공부를 많이 덜 했습디다. 난 나중 들어간 보니까, 것도 이제 열네 살, 아 열다섯 때, 거기 한문에 가서 보니까 다른 아이들은 반은 한 천자문 오백 자쯤 읽었어요. 아, 나는 가서 이제 뭣도 모르고 이렇게 저리로 하니까 공부를 이렇게 해 보니까 어린 때니까인지 조금 쉬워 보여요. 그래서 한 사람이 어떻게 하냐 하면 하루 공부를 하는데 열여섯 자씩 공부했어요. 아니 저 여덟 자, 여덟 자 하면요, 두 줄 해서 공부를 했는데, 아 이렇게 여덟자 하면 너무 싱거워요.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 그러면 난 곱을 해야겠다. 열여섯 자를 게 열여섯 자를 하

33) ‘오메기떡’은 차좁쌀 가루에 더운 물을 넣어 되게 반죽해서 둥그렇게 만든 후 가운데 큰 구멍을 뚫어 만들거나 둥글납작하게 만들어서 삶아낸 떡이다. 팥고물을 묻히거나 소를 넣어 만들기도 한다.
34) ‘인절미’는 메밀이나 쌀가루 따위로 네모지고 넓적하게 만든 후 삶거나 쪄낸 떡이다.

루 한 장씩 마구 나간 거요. 그렇게 한 달 돼 가니까 그 사람들이랑 같이 맞먹어 가. 그렇게 공부를 하니까 선생님이 항상 그날 공부한 건요, 어떻게 하냐 하면 앉아서 뭐라고 한다, 가서 복습을 하면 이거 선생님 앞에 가서 그거 다 그 전날 공부한 거 다 듣고, 거 이제 뭔 자 쓰라 하면 눈 감아서 책 보지 말아서 글을 써서 바쳐야 해요. 그렇게 해야 너 공부했다. 또 주판 배우고 이제 거 우리 주로 한 건 주판하고, 거 한문인데 거기서도 수도라고 해서 제일 먼저 공부한 사람들은 천자문을 뗀 사람들, 이제 돌아가 버렸습니다만 그 두 분은 이제 천자문을 떼니까 그 사람들 앞에 공부를 하는데, 여기서도 옛날 같이 시험을 받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시험을 봐. 그러면 이제 거 선생도 내고, 거 저 수도 선생, 수도라고 하다가 먼저 한 사람들이 시험을 내어요. 시험을 내면 가서 그 시험을 당하면 채점은 선생이 다 합니다. 와서 딱 공부해서 제일 잘 한 사람은 장원이라고 해 가지고 떡 해 가고, 또 두 번째 공부한 사람은 준장원이라고 해서 콩 볶아 가고, 그렇게 했지요. 그러면 이제 장원은 선생인 장원책 써 줘서 딱 거 도장 찍고 해서 집에 가져오면, 아 너 장원했구나. 이거 장원했습니다. 떡 뭐 저 해주십시오 하면 그때는 '오메기', '오메기떡' 해서, 이렇게 좁쌀떡으로 '오메기떡' 해서 다 이제 '인절미' 해서 가지요. 가면 이제 거기 아이가 한 사십 명, 오십 명 거의 됐습니다. 그때 그러면 그거 한 사람이 얼마씩 떡 태우고 두 개 정도 보통 태우고, 또 준장원이라고 해서 콩 볶아 가면 이제 이렇게 가득 담은 걸로 한 사람씩 손 내밀라고 해서 거 다 이제 태워주고. 그렇게 해서 먹었던 뭣도 있는데. 나가 중학교 가게 된 건요, 거기 가서 이렇게 하면 선생님이 그때 어떻게 해선지 넌 학교를 들어가야 한다. 너 여기서 소 먹이는 건 아까우니까, 공부를 이렇게 해보니까 어린 땐 이렇게 잘 해졌는지, 아 거 저 선생이 자꾸 가서 글 바칠 때마다 그 말을 말해. 넌 중학교가 아까워. 너 여기서 공부 서당만 해서 끝내는 거 아깝다. 저 너무 아깝다, 아깝다. 부모님 앞에 나가 말하겠으니 이제 너랑 중학교 가라.)

102001 #2 집이 오난 가게 허여. 쉐 멕이레 아이 강 공부헴젠.(집에 오니까 가게 해. 소 먹이러 아니 가서 공부하고 있다고.)

102001 #1 하르방넨 그 말 ᄀᆞᆯ으난 막 매 맞으멍 욕 들엉 헤도.(할아버지에게 그 말 말하니까 마구 매 맞으면서 욕 들어서 해도.)

102001 #2 하르방 몰르게 저 하귀중학교 가곡.(할아버지 모르게 저 하귀중학교 가고.)

102001 #1 저 귀일중학교에양.(저 귀일중학교에요.)

102001 #2 양, 술째기 쉐 멕이레 가켄 ᄒᆞ여둰, 술째기.(예, 살짝 소 먹이러 가겠다고 해둬서, 살짝.)

102001 #1 이 저 돌아가부렷주마는 문귀광씨라고, 그분이 성은 선생이라낫수다. 거 나도 그 때 ᄒᆞ끔 ᄋᆞᆨ아지난 열ᄋᆞ섯 술.(이 저 돌아가 버렸지만 문귀광씨라고, 그분이 형은 선생이었습니다. 그렇게 나도 그때 조금 성장하였으니까 열여섯 살.)

102001 #2 열일곱 뒈어 갈 때주게.(열일곱 되어갈 때지요.)

102001 #1 뒌 거라. 열여섯, 열일곱 허연 나는 헤 가난, 간 이제 선생님 앞이, 성은 선생님이옌 헙디다. 귀일중학교 성은 선생님, 동네 분이난양, 잘 ᄀᆞᆯ으난 너 아버지 앞인

골아봣냐 허난, 저 골앗수다.(된 거야. 열여섯, 열일곱 해서 나는 해 가니까, 가서 이제 선생님 앞에, 형은 선생님이라고 합디다. 귀일중학교 형은 선생님, 동네 분이니까요, 잘 말하니까 너 아버지 앞에는 말해봤냐 하니까, 저 말했습니다.)

102001 #2 골으난 쉐 멕이레 가렌 ᄒᆞ곡(말하니까 소 먹이러 가라고 하고.)

102001 #1 이제 집이나 알민 난리 나곡 우선 입학 지어 놓고, 아 거기도 간 보난 ᄒᆞᆫ 오월 달쯤 나실 거라마씀. 겐 간 보난 두어 덜 공부헤십디다게. 그 어린 때 중학교 1학년 나믄 영어, 영어도 멧 장 공부헷고양. 아 경헤도 거간 영 헤 보난 한문 공부헤나난 국어 ᄀᆞ뜬 것은 자신이 셔마씀. 한자 잘, 천자문, 뚠 사름은 육 개월 헤도 천자문 떼기 어려운디 난 딱 석 달만이 천자문을 떼서, 떼난 선생님도 아파불고 그루후제 계속 더 못 허고 헹, 그걸로 돌아가멍 헨, 난 학교 가믄, 게 하귀중학교, 아, 귀일중학교 뎅이멍 나가 제일 늦언가노난.(이제 집에나 알면 난리 나고 우선 입학 시켜 놓고, 아 거기도 가서 보니까 한 오월 달쯤 됐을 거야. 그래서 가서 보니까 두어 달 공부했습디다. 그 어릴 때 중학교 1학년 되면 영어, 영어도 몇 장 공부했고요. 아 그래도 그동안 이렇게 헤 보니까 한문 공부했었으니까 국어 같은 것은 자신이 있어요. 한자 잘, 천자문, 다른 사람은 육 개월 해도 천자문 떼기 어려운데 난 딱 석 달 만에 천자문을 떼었어, 떼니까 선생님도 아파 버리고 그 후에 계속 더 못 하고 해서, 그걸로 돌아가면서 했어, 난 학교 가면, 게 하귀중학교, 아, 귀일중학교 다니면서 내가 제일 늦어서 가니까.)

102001 #2 나이가 하 부럿주.(나이가 많아 버렸지.)

102001 #1 나이도 하고 허난 나도 규율부로 거기 간, 규율부장도 허멍 이제 학교 뎅겻수다게. 귀일중학교 졸업허고, 아 이젠.(나이도 많고 하니까 나도 규율부로 거기 갔어, 규율부장도 하면서 이제 학교 다녔습니다. 귀일중학교 졸업하고, 아 이제는.)

102001 #2 쉐 멕이레만 가렌 ᄒᆞ고.(소 먹이러만 가라고 하고.)

102001 #1 집이 뭐 졸업허난 나도 학교 어디 영 집이 몰르게 원서 내난, 아버지네 첨 영 골앙, 돌아강 뭐허주만 난리가 낫수다게. 안 뒈 절대. 돈 어신디 어떵 헹 갈레. 게다 보난 이제 공분 못 허고, 허다 봐도. 겐 이제 저 강의록 불런 동북중고등학교[35] 강의록이 셔나서. 그것도 공부허고, ᄎᆞᄎᆞᄎᆞ 허난, 에 고등학교 졸업만 헤사. 어디 요 허다 못 헹 순경이라도, 고등학교 졸업을 안 허민 순경을 못 헤마씨. 졸업장이 셔사. 아 게난 허젠 허난 이제 애월고등학교라도 강 ᄒᆞᆫ번 졸업장을 받아보카허연 간, 저 거 부모님 몰르게 허난.(집에 뭐 졸업하니까 나도 학교 어디 이렇게 집에 모르게 원서 내니까, 아버지네 참 이렇게 말해서, 돌아가서 뭐하지만 난리가 났습니다. 안 돼 절대. 돈 없는데 어떻게 해서 갈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부 못 하고, 하다 봐도. 그래서 이제 저 강의록 불러서 동북중고등학교 강의록이 있었어. 그것도 공부하고, 차차차 하니까, 에 고등학교 졸업만 해야. 어디 요 하다 못 해서 순경이라도, 고등학교 졸업을 안 하면 순경을 못 합니다. 졸업장이 있어야. 아 그러니까 하려고 하니까 이제 애월고등학교라도 가서 한번 졸업장을 받아보겠다고 해서 갔어, 저 그렇게 부모님 모르게 하니까.)

102001 #2 부모님 몰르게 허난, 몰르게 간.(부모님 모르게 하니까. 모르게 갔어.)

35) '동북중고등학교'는 서울특별시에 있는 중고등학교이다.

102001 #1 거 가믄 저 시험을 봐봐사 헐 거 아니우꽈? 삼학년으로 편입허켄 가난 실력을 테스트 영 허연, 게도 시험문제를 냅니다. 나만 간 시험 헨, 더러 아는 대로 간 허니까, 아메도 고등학교 이학년베낀 못 허겟다. 3학년으로 못 허켄. 집이 완 ᄀᆞᆯ으난 부모님네 뭐 돈 잇수가게? 그때는양, 이제는 이해가 뒈는디, 그때는 부모 앞이도 막 반감이, 섭섭헤낫수다. 첨 헤낫수다게. 웨냐허믄 그때는 이제 거 허면서 ᄒᆞ교도 졸업 못 허고, 그루 후젠 좀 서월 간, 형님 집이 잇엇수다. 서울에 간 군대생활 ᄒᆞ고 허난, 오라, 오라 서울 왕 이 좀 어디 일이라도 뎅이멍 야간이라도 ᄒᆞ끔 헤보라 허멍, 처음에 가난 게 ᄆᆞ음대로 뒙니까? 어디 취직도 못 허고, 그럭저럭 헌 게 허단, 또 부모님 늑곡 허난, 게난 여기 살림을 헤야 헐 거 아니우꽈? ᄒᆞᆯ 사름도 엇고 허난 나가 다시 고향으로 완 ᄒᆞᆫ 게 이제 스물세 설 나는 헤에 이 사람광 결혼을 헤 가지고 이제.(거기 가면 저 시험을 봐봐야 할 거 아닙니까? 삼학년으로 편입하겠다고 가니까 실력을 테스트 이렇게 해서, 그래도 시험문제를 냅니다. 나만 가서 시험 했어, 더러 아는 대로 가서 하니까, 아마도 고등학교 이학년밖에는 못 하겠다. 삼학년으로 못 하겠다고. 집에 와서 말하니까 부모님이 뭐 돈 있습니까? 그때는요, 이제는 이해가 되는데, 그때는 부모 앞에도 아주 반감이, 섭섭했었습니다. 참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그거 하면서 학교도 졸업 못 하고, 그 후에는 좀 서울 간 형님 집에 있었습니다. 서울에 가서 군대 생활 하고 하니까, 오라, 오라 서울 와서 이 좀 어디 일이라도 다니면서 야간이라도 조금 해보라 하면서, 처음에 가니까 게 마음대로 됩니까? 어디 취직도 못 하고, 그럭저럭한 것이 하다가, 또 부모님 늙고 하니까, 그러니까 여기 살림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할 사람도 없고 하니까 내가 다시 고향으로 와서 한 것이 이제 스물세 살 되는 해에 이 사람과 결혼을 해 가지고 이제.)

102001 #2 영, 졍 살암수다게. 하하.(이렇게, 저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하.)

102001 #1 이제 ᄒᆞ다 보난 아이도 다섯, 오남매, ᄯᆞᆯ 서이에 아덜 둘. 경 헨 낳곡.(이제 하다 보니까 아이도 다섯, 오남매, 딸 셋에 아들 둘. 그렇게 해서 낳고.)

102001 #2 게난 하도 공부에 인연이 뒈언. 이 하르방[36] 하도 성질도 못 뒈어 먹고 헤노난, 인연이 뒈연, 아기덜 ᄒᆞ교라도 시켜사 허겟다. 막 ᄂᆞᆷ이 일 허멍, 밥 굶으멍도 아덜, ᄯᆞᆯ 학교 시키멍 헷수다게. 하도 난 공부 못헌 것이 소원이엔 허멍. 우린 영 못헤시멍 부모 원망만 셔나부난.(그러니까 하도 공부에 인연이 되어서. 이 '하르방' 매우 성질도 못 되어 먹고 하니까, 인연이 되어서, 아기들 학교라도 시켜야 하겠다. 마구 남의 일 하면서, 밥 굶으면서도 아들, 딸 학교 시키면서 했습니다. 매우 나는 공부 못한 것이 소원이라고 하면서. 우린 이렇게 못했으면서 부모 원망만 있어 버리니까.)

102002 @ 예, 다음에양, 부모님은 어떤 일을 헷수가?(예, 다음에요, 부모님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102002 #1 아버진 우리 태어난 보난 주로 이 돌 일, 돌쳉이엔 ᄒᆞ연, 촘 방에도 ᄆᆞᆯ방에도 마탕 ᄒᆞ곡, 거 멧 사름 헤 놓믄 ᄆᆞᆯ방에 ᄒᆞ나 허믄 돈이 꿰 뒈낫수다게. 게난 ᄆᆞᆯ방에 멩글앙, 그 큰 돌 헤당 ᄆᆞᆯ방에 멘들젠 ᄒᆞ민 도치로 막 좃곡, 끌로 깨곡 허멍 ᄆᆞᆯ방에

36) '하르방'은 할아버지인데, 여기서는 남편을 일컫는다.

ᄒᆞ곡, 주로 이제 거 족은 방애 ᄒᆞ곡, 방엣돌을 다 헤나서, 마탕. 겡 헤나고 뭐 저 그 외에는 농사도 짓곡, 그자 야채 헤난, 부모님이 ᄒᆞ끔, 주로 농사는 뭐 연날 조, 보리 허곡, 영 허영 농사지엉 먹엉산디, 경 헤도 식구가 하다 보난 이제 우이로 형님이 다섯 뒈고 나가 ᄋᆞ슷째 뒈난 아, 식은 먹엉 살 때 아니우꽈? 식은 오물랑오물랑ᄒᆞ곡, 우리도양, 이제 생각나는 디 아버지가 게믄 ᄒᆞ끔 손재주가 셩으네 거 물방에 ᄒᆞ멍도 남박세기엥 저, 박세기도 잘 파곡, 이런 손놀림허는 재주는 셔마씀. 경 헨 나도 이제 그 재주 ᄒᆞ끔 물려 십주. 하하, 저 뭐 영 멩글 때도 멩글곡 헤 지는디.(아버지는 우리 태어나서 보니까 주로 이 돌 일, 석공이라고 해서참 방아도, 연자매도 맡아서 하고, 거 몇 사람 해 놓으면 연자매 하나 하면 돈이 꽤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연자매 만들어서, 그 큰 돌 해다가 연자매 만들려고 하면 도끼로 마구 막 쪼고, 끌로 깨고 하면서 연자매하고, 주로 이제 거 작은 방아 하고, 방아돌을 다 했었어, 맡아서. 그렇게 했었고 뭐 저 그 외에는 농사짓고, 그저 야채도 했어, 부모님이 조금, 주로 농사는 뭐 옛날 조, 보리 하고, 이렇게 해서 농사지어서 먹어서인지, 그렇게 해도 식구가 많다 보니까 이제 위로 형님이 다섯 되고 내가 여섯째 되니까 아, 식은 먹어서 살 때 아닙니까? 식은 오물락오물락하고, 우리도요, 이제 생각나는 데 아버지가 그러면 조금 손재주가 있어서 거 연자매 하면서도 나무 바가지 저, 바가지도 잘 파고, 이런 손놀림하는 재주는 있어요. 그렇게 해서 나도 이제 그 재주 조금 물렸습니다. 하하, 저 뭐 이렇게 만들 때도 만들고 해지는데.)

102002 #2 메당 하귀장[37]에 어머님은 풀레 가곡, 남박세기 파 놩 ᄌᆞ근ᄌᆞ근헹 이만저만 멩테기에 졍 강 풀곡.(매어다가 '하귀장'에 어머님은 팔러 가고. 나무바가지 파 놔서 차근차근해서 이만저만 망태기에 져서 가서 팔고.)

102002 #1 ᄀᆞᅰ옝 허영 문딱 잘 글겅 보기 좋게 허믄, 남박세기ᄒᆞ곡, 국자ᄒᆞ곡 뭐 이 저.(호비칼이라고 해서 모두 잘 긁어서 보기 좋게 하면, 나무바가지하고 국자하고 뭐 이 저.)

102002 #2 국자라, 저 무신거고, 국자가. 낭으로 멘든 거. 국 거리는 거. 그거ᄒᆞ곡 초신 삼앙 ᄒᆞ곡 경 협디다게. 좀팍 파곡양.(국자라, 저 무엇이고, 국자가. 나무로 만든, 국 뜨는 거, 그거하고 짚신 삼아서 하고, 그렇게 합디다. '좀팍' 파고요.)

102002 #1 초신ᄒᆞ곡 좀팍 담앙 장엘 어머니가 풀레 강. (짚신하고 '좀팍' 담아서 장엘 어머니가 팔러 가서.)

102002 #2 경 허영 그땐 아버지신디 하간 거 안 헴젠 헤도, 영 심들게 부모들이 헤낫구나. 이제 ᄒᆞ끔 나이 우리 다 늙으난양, 생각이 납니다. 부모님신디 죄송헌 생각이 나마씨. 그렇게 힘들게 우리를 살리우젠. 경 헨 초신 삼앙 풀레 가곡, 경 헨.(그렇게 해서 그땐 아버지에게 모든 거 안 하고 있다고 해도, 이렇게 힘들게 부모들이 했었구나. 이제 조금 나이 우리 다 늙으니까요, 생각이 납니다. 부모님에게 죄송한 생각이 나요. 그렇게 힘들게 우리를 살리려고. 그렇게 해서 짚신 삼아서 팔러 가고, 그렇게 했어.)

102003 @ 그다음에 어머님 고향은 어디우꽈? (그다음에 어머님 고향은 어디입니까?)

37) '하귀장'은 제주시 애월읍 하귀리에 섰던 오일장을 말한다.

102003 #1 어머님이 원래 구엄이우다. 구엄이 어디 저 처음엔 고내[38], 내가 알기로 고내 시집간 살단 그 저 돌아간, 신랑이 돌아가부난 혼자 살단 이제 우리 아버지도 또 거 누님네 세 분 나멍 어머니가 셋이라낫수다게. 각각 혼 누님썩 이제 큰누님, 셋누님, 족은누님이 셔난. 게다 보난 이제 그 분덜은 다 영 갈리멍 뭐 헤도 더러 돌아가고양. 큰누님 어멍. 게다 보난 어머니가 어떵 만나젼 이제 우리 헌 것이 육 형제, 육 형제, 칠 남매, 아니 육 남매를 나아십주게. 아덜 ᄋᆞ슷에 젤 막내뚤 낫단 건 어린 때, 좀 세 설, 네 설에 돌아갓는디. 어머님은 원래 구엄 송씨우다.(어머님이 원래 '구엄'입니다. '구엄'이 어디 저 처음엔 '고내', 내가 알기로 '고내' 시집간 살다가 그 저 돌아갔어, 신랑이 돌아가 버리니까 혼자 살다가 이제 우리 아버지도 또 거 누님네 세 분 낳으면서 어머니가 셋이었습니다. 각각 한 누님씩 이제 큰누님, 둘째누님, 작은누님이 있었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분들은 다 이렇게 갈리면서 뭐 해도 더러 돌아가고요. 큰누님 어머니.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가 어떻게 만나져서 이제 우리 한 것이 육 형제, 육 형제, 칠 남매, 아니 육 남매를 낳았습니다. 아들 여섯에 제일 막내딸 낳았던 건 어릴 때, 좀 세 살, 네 살에 돌아갔는데, 어머님은 원래 '구엄' 송씨입니다.)

102003 #2 구엄인디 고내 시집가난 이제 고내 간도 자제분이 아덜이 이섯수다. 큰아덜이, 큰아덜이 이선. 우리도 시집간 보난, 시아바님이 고내 자꾸 가멍, 밧 갈레 가곡, 초신 삼앙으네 가곡. 이상허덴 무사 경 헴신고 보난 고내, 고내 어머님이 고내 본 시집이라. 그디 시집갓단 어떵 그디 시아방이 일본 간 어떵 죽어부럿덴 헌디, 경 헨 어머님 구엄, 구엄 알동네라, 구엄 알동네 사름이우다게. 경헨디 시집 완 보난 시아방이 자꾸 쉐 몰곡, 장비 지곡 허영 어디레 감수가? 아버지 허믄 고내 밧 갈아뒁 오켜, 밧 갈아뒁 오켜. 경헌디 고내 큰아드님이 어머님 강 난 큰 아드님이 근간ᄁᆞ지 소식이 셔난디, 이젠 자제분들 셔 가난 소식이 엇수다. 경ᄒᆞᆫ디 경 헤부난 어머님이 친정에 완, 어머님이 구엄 완 살다근에 아바지ᄒᆞ고 영영 헷져. 게 아바님이 ᄉᆞ실 말을 ᄀᆞᆯ아낫수다. 영 헨 ᄒᆞ난 느네덜 다 낫져. 경 헨 ᄀᆞᆯ아낫수다.('구엄'인데 '고내' 시집가니까 이제 '고내' 가서도 자제분이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아들이, 큰아들이 있었어. 우리도 시집가서 보니까, 시아버님이 '고내' 자꾸 가면서, 밭 갈러 가고, 짚신 삼아서 가고. 이상하다고 왜 그렇게 하고 있는가 보니까 '고내', '고내' 어머님이 '고내' 본 시집이야. 거기 시집갔다가 어떻게 거기 시아버지가 일본 가서 어떻게 죽어버렸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어머님 '구엄', '구엄' 아랫동네야, '구엄' 아랫동네 사람입니다. 그런데 시집 와서 보니까 시아버지가 자꾸 소 몰고, 장비 지고 해서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면 '고내' 밭 갈아둬서 오겠어, 밭 갈아둬서 오겠어. 그런데 '고내' 큰아드님이 어머님 가서 낳은 큰아드님이 근간까지 소식이 있었는데, 이제는 자제분들 있어 가니까 소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 버리니까 어머님이 친정에 왔어, 어머님이 '구엄' 와서 살다가 아버지하고 이렇게 이렇게 했어. 그렇게 아버님이 사실 말을 말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니까 너희들 다 낳았져. 그렇게 해서 말했었습니다.)

102004 @ 그다음에 어릴 때 무슨 놀이 허멍 컷수가?(그다음에 어릴 때 무슨 놀이

38) '고내'는 애월읍 고내리를 말한다.

하면서 컸습니까?)

102004 #1 어린 땐 저 이 자치기허고 이 자치기엔 허영 저, 낭께기 한쪽으로 탁 허영 허믄 탁 허영 받으곡, 자치기 허곡, 또 흑다마, 흑으로 다마 멩그랑 다마 따먹기, 경 허영 따먹기 탁 맞추믄 이제 따곡, 또 빠찌, 빠찌영 허믄 이거 종이로 멩그랏당 딱 허영 이제 게 허영 이기믄 앗곡 허멍.(어릴 때는 저 이 자치기하고 이 자치기라고 해서 저, 나뭇개비 한쪽으로 탁해서 하면 탁해서 받고, 자치기 하고, 또 흙구슬, 흙으로 구슬 만들어서 구슬 따먹기, 그렇게 해서 따먹기 탁 맞추면 이제 따고, 또 딱지, 딱지랑 하면 이거 종이로 만들었다가 딱 해서 이제 게 해서 이기면 갖고 하면서.)

102004 @ 엎어치기영.(엎어치기랑.)

102004 #1 게 엎어치기영 자치기영도 허곡.(그렇게 엎어치기랑 자치기도 하고.)

102004 @ 이제 빠찌옝 헙니까?(이제 딱지라고 합니까?)

102004 #1 예, 빠찌옝.(예, 딱지라고.)

102004 @ 빠짱이옝 안 허여양.(딱지라고 안 해예.)

102004 #1 빠찌, 빠찌치기 허자.(딱지, 딱지치기 하자.)

102004 @ 그다음 ᄆᆞᆯ탈락.(그다음 말놀음질.)

102004 #1 아, ᄆᆞᆯ탈락, 저 가믄 이 ᄆᆞᆯ 탕 허믄, 막 보잉규[39] 허멍, 막 일본말 그때 영 헹 열ᄁᆞ지 허믄, 이젠 잊어부렀구나. 나중엔 영 베렁 ᄆᆞᆯ 탕 잘 헹은에 보잉큐 헹 허믄 그초록 허멍 놀이헤나고 주로 일제시대에는, 게믄 나가믄 쉐 멕이레 강도 그추룩 헹 놀이를.(아, 말놀음질, 저 가면 이 말 타서 하면, 마구 '보잉규' 하면서, 마구 일본말 그때 이렇게 해서 열까지 하면, 이젠 잊어버렸구나. 나중엔 이렇게 봐서 말 타서 잘 해서 '보잉규' 해서 하면 그처럼 하면서 놀이했었고 주로 일제시대에는, 그러면 나가면 소 먹이러 가서도 그처럼 해서 놀이를.)

102004 @ 삥이 빠 먹는 거.(삘기 빼 먹는 거.)

102004 #1 삥이도 빠 먹고, 감제도 또 궝 먹고.(삘기도 빼 먹고. 고구마도 또 구워서 먹고.)

102004 #2 인동고장도 타 먹곡, 무신 저 탈도 타 먹곡, 무신 옛날사 먹을 거 어시난 들이 가민 멘딱 먹어, 아무거나.(인동꽃도 따 먹고, 무슨 저 딸기도 따 먹고, 무슨 어떻든 옛날이야 먹을 거 없으니까 들에 가면 모두 먹어, 아무거나.)

102004 #1 장난을 좀 헤노난양, 가믄. 거 ᄒᆞ끔 큰 아이덜 쉐 멕이레 가믄, 너네 강 감제 파 와. 나 앚젠 헴서.(장난을 좀 했었으니까요, 가면. 거 조금 큰 아이들 소 먹이러 가면, 너희들 가서 고구마 파 와. 나 가지려고 하고 있어.)

102004 #2 놈이 밧디 강 도둑질양. 쉐 멕이레 갓당.(남의 밭에 가서 도둑질요. 소 먹이러 갔다가.)

102004 #1 팔월 뒝 감제 들어가믄 감제 강, 감제 든 딜로만 하나썩, 땅 벌러진 디로만 하나썩 파당, 언제 임제 들리믄 ᄒᆞᆫ 번썩 매도 맞곡.(팔월 돼서 고구마 들어가면 고구마 가서, 고구마 든 데로만 하나씩, 땅 벌어진 데만 하나씩 파다가, 언제 임자 들키면

39) '보잉규'는 일본말로, 손으로 망원경처럼 해서 멀리 있는 자연이나 사물들을 바라보는 것이다.

한 번씩 매도 맞고.)

102004 @ 보린 안 궈 먹어 봅디가?(보리는 안 구워서 먹어 봤습니까?)

102004 #1 보리도 궈낫수다. 보리도양, 요거 물긋물긋헐 때, 이제 궝 부비믄, 불믄 맛 좋아. 거 먹어나믄 입 바우가 거멍케 뒈엉.(보리도 구웠었습니다. 보리도요, 요거 물긋물긋할 때, 이제 구워서 비비면, 불면 맛 좋아. 그거 먹어나면 입 바위가 검게 됐어.)

102004 @ 멘네 타 먹곡.(면화 따 먹고.)

102004 #1 예, 멘네, 멘네.(예, 면화, 면화.)

102004 @ 멘넷ᄃᆞ래 타 먹곡.(면화다래 따 먹고.)

102004 #1 ᄃᆞ래옌 헤도 그거 맛 좋아, 덜 핀 때는 먹으믄.(다래라고 해도 그거 맛 좋아, 덜 핀 때는 먹으면.)

102004 @ 아, 게난 퍼렁ᄒᆞᆫ 때게, ᄃᆞ래.(아, 그러니까 퍼럴 때요, 다래.)

102004 #1 감제 궈 먹곡.(고구마 구워서 먹고.)

102004 #2 놈이 밧디 강 놈 몰르게 그초록 헹 허고.(남의 밭에 가서 남 모르게 그처럼 해서 하고.)

102004 @ 그다음에 게가비, 이 개구리.(그다음에 개구리, 이 개구리.)

102004 #1 에, 개구리.(에, 개구리.)

102004 @ ᄋᆞ름 때, 거 다리 끄챵은에. 몰리왓당은에.(여름에, 그거 다리 끊어서, 말렸다가.)

102004 #1 돌로 두드령, 허리 꺼껑, 가죽 벳경 몰리왓당 거 궝 먹곡, 또 이 저 우리도 뭐 허난 베염, 베염도 무사 독사, 그거 물꿴이, 물꿴이 그거 허영 거죽 벳기믄양, 이거 잘못 물리믄, 나도 ᄒᆞᆫ번 물려나서. 이디 무난 이디 솔갓이 ᄒᆞ끔 두꺼운디. 거 어린 때 영 허단, 그거 잘못 건드렷단 탁 ᄃᆞᆯ려들언 무난. 이제 뭐 허연, 거난 막 숙 뜸허연 살앗는디. 겡 물꿴이도 헹 겡 놧당 먹곡, 벨거 다 먹어낫수다게. 말축도 궈 먹고.(돌로 두드려서, 허리 꺾어서, 가죽 벗겨서 말렸다가 그거 구워서 먹고, 또 이 저 우리도 뭐하니까 뱀, 뱀도 왜 독사, 그거 살무사, 살무사 그거 해서 가죽 벗기면요, 이거 잘못 물리면, 나도 한번 물렸었어. 여기 무니까 여기 살갗이 조금 두꺼운데. 그거 어릴 때 이렇게 하다가. 그거 잘못 건드렸다가 탁 달려들어서 무니까. 이제 뭐 했어, 그러니까 마구 쑥 뜸해서 살았는데. 그렇게 살무사도 해서 그렇게 놨다가 먹고, 별거 다 먹었었습니다. 메뚜기도 구워 먹고.)

102004 #2 그땐 일이 그거엿수게.(그때는 일이 그거였습니다.)

102004 #1 나상 먹을 건 이런 거 먹을 거벳끼 어선.(나서서 먹을 거는 이런 거 먹을 거밖에 없어서.)

102004 #2 거 먹을 거만 생각허연. 시장허곡 허난 먹을 거만 생각허고.(그거 먹을 거만 생각했어. 시장하고 하니까 먹을 거만 생각하고.)

102004 #1 쉐 보레 가믄 쉐 어디 에와둥은에, 밧디 빈 밧디 좀 에와뒁 뭣 먹을 거나 구허레 강. 감제 ᄒᆞ나 궝 먹자. 멀리 어디 임제 어신 밧디 강. 허허.(소 보러 가면 소 어디 에워두고 밭에 빈 밭에 좀 에워두고 뭣 먹을 거나 구하러 가서. 고구마 하나 구워서

먹자. 멀리 어디 임자 없는 밭에 가서. 허허.)

102005 @ 그다음에 일제강점기 때양, 생활 헤 보진 안 헷주마는 별로 생활상을 흔 번, 그다음에 공출이라든가 이런 거 흔 번 말해봅서.(그다음에 일제강점기 때요, 생활해 보진 안 했지만 별로 생활상을 한 번, 그다음에 공출이라든가 이런 거 한 번 말해 보세요.)

102005 #1 게난 건 주로 아버님네 당흔.(그러니까 건 주로 아버님들이 당한.)

102005 @ 게난 들엇던 얘기 골아봅서.(그러니까 들었던 얘기 말해보세요.)

102005 #1 아, 저 공출허믄양, 여기 구장이, 좀 독헌 구장이 셔낫수다게. 그 이름은 안 곧겟고, 돌아가부난, 아 게 헤 노믄 집이 쏠 허영 먹을 거 허젠 허믄, 그때는 막 집 더듬으난, 궤팡 더듬으난 쏠은 멀리헹 항 우이 묻엉 놔두곡, 그거끄지 알앙 다 공출로 양, 가져강 헤 노민 이디 들어보곡, 또 게난 해방뒐 때, 이제 큰형님이영 이시난 일본놈덜 다 감젠. 우리도 흔 다섯 살 정도 이성, 다섯 살. 그때우다. 거난 아, 일본놈덜 가난 이제 구루마라도 강 헤 와사켄 허연. 게난 이 여기 흑교가 이선 일본놈덜이 주둔헤 나서, 구엄 흑교에. 주둔허난양, 그때 우리 셋형님은 학교에도 육흑년 뎅이난 일본말 잘 헤낫젠 헙디다게. 일본말 모른 거 어시난, 일본놈덜허고 통허연 영 보믄 뭐 간재미여, 우리 어린 때 쉐궤기 간재미 먹으믄 구수협주게. 간재미에 뭐 이거 저 모기장, 지금 이젠 모기장 하도 그땐 모기장도 어려운디, 거 보믄 문딱 이제 베로, 베 모기장이라낫수다게. 모기장이여 뭐 이 일본시대 허믄 이 중엄이도 장이 셔낫수다. 장이 시믄 우리 어머니 떡 헹 강 그 일본 군인덜 앞이 픈는디 뭐. 그 일본말 잊어부런. 그 어릴 때 들은 말, 고지셍[40], 고지셍 흑믄 아 일본 군인덜이 왕 돈 내엉 사 가고, 우리 영 대여섯 살 때 양 앚앙 영 픈는 거 보고, 여기 중엄 장이 셔 낫수다게. 방드리왓[41]디 장 셔나지 아니 허연? 방드리왓.(아, 저 공출하면요, 여기 구장이, 좀 독한 구장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안 말하겠고, 돌아가니까, 아 그렇게 해 놓으면 집에 쌀 해서 먹을 거 하려고 하면, 그때는 마구 집 더듬으니까, 고방 더듬으니까 쌀은 멀리해서, 항아리 위에 묻어서 놔두고, 그거까지 알아서 다 공출로요, 가져가서 해 놓으면 여기 들어보고, 또 그러니까 해방될 때, 이제 큰형님이랑 있으니까 일본놈들 다 가고 있다고. 우리도 한 다섯 살 정도 있어서, 다섯 살.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아, 일본사람들 가니까 이제 마차라도 가서 해 와야겠다고 해서. 그러니까 이 여기 학교가 있어서 일본사람들이 주둔했었어, '구엄' 학교에. 주둔하니까요, 그때 우리 둘째 형님은 학교에도 육학년 다니니까 일본말 잘했었다고 합디다. 일본말 모른 것이 없으니까, 일본사람들하고 통해서 이렇게 보면 뭐 통조림 하고, 우리 어릴 때 소고기 통조림 먹으면 구수하지요. 통조림에 뭐 이거 저 모기장, 지금 이젠 모기장 많아도 그땐 모기장도 어려운데, 그거 보면 모두 이제 베로, 베 모기장이었습니다. 모기장하고 뭐 이 일본시대 하면 이 '중엄'에도 장이 있었습니다. 장이 있으면 우리 어머니 떡 해서 가서 그 일본군인들 앞에 파는데 뭐. 그 일본말 잊어버려서. 그 어릴 때 들은 말, '고지셍', '고지셍' 하면 아 일본 군인들이 와서 돈 내어서 사 가고, 우

40) '고지셍'은 일본말로, 일본 돈 오 원 정도인 것 같다.
41) '방드리왓'은 제주시 애월읍 중엄리에 있는 지경 이름이다.

리 이렇게 대여섯 살 때요, 앉아서 이렇게 파는 거 보고, 여기 '중엄장'이 있었습니다. '방드리왓'에 장 있었지 아니했어? '방드리왓'.)

102005 #2 이제도 오일장, 오일장 허여. 장 셔낫수다.(이제도 오일장, 오일장 해. 장 있었습니다.)

102005 #1 구엄 여기 초등학교에 일본군인 주둔지라낫수다. 게고 저 수산봉, 수산봉에서 주로 이젠 다 메와졋는디 일본놈덜 땅굴 팡 깊인 안 파고, 영 움막움막허영 영 ᄒᆞ주게. 이제 ᄀᆞ트믄 총 들엉 쏘게. 그렇게 판 디가 빈중헤낫수다. 게고 거기 근무허영 허민 저 간재미 뭐 영 주믄양, 그 일본 군인덜토 시장허난 간재미만 먹지 못허믄, 우리 그걸 맛 좋게 먹어서. 감제영 뭐 지슬허영 거 군인덜 주믄 그 사람덜은 시장헤도 먹지 안 허영, 쉐 간재미를 줍주게. 어떻게 맛 좋은지양. 그거 경 먹어난 기억이 싯고. 뭐 일제시댄 그루후제 해방뒷젠 허난.('구엄' 여기 초등학교에 일본군인 주둔지였습니다. 그리고 저 '수산봉', '수산봉'에서 주로 이젠 다 메워졌는데 일본사람들 땅굴 파서 깊인 안 파고, 이렇게 움퍽움퍽해서 하지요. 이제 같으면 총 들어서 쏘게. 그렇게 판 데가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근무해서 하면 저 통조림 뭐 이렇게 주면요, 그 일본 군인들도 시장하니까 통조림만 먹지 못하면, 우리 그걸 맛 좋게 먹어서. 고구마랑 뭐 감자랑 그거 군인들 주면 그 사람들은 시장해도 먹지 안 해서, 소 통조림을 주지요. 어떻게 맛 좋은지요. 그거 그렇게 먹었던 기억이 있고. 뭐 일제시대에는 그 후에 해방되었다고 하니까.)

102005 #2 그 일제강점기게, 우리 벵디 물 질레 강 보믄, 거 군인덜 따문 ᄆᆞᄉᆞ왕 헤낫수다게. 군인덜 가믄 거 무시거 잇잔아, 뭣고? 밥허는 거, 군인덜 밥허는 거, 항고.(그 일제강점기요, 우리 '벵디' 물 길러 가서 보면, 그렇게 군인들 때문 무서워서 했습니다. 군인들 가면 거 무엇 있잖아, 무엇이고? 밥하는 거, 군인들 밥하는 거, 반합.)

102005 #1 항고.(반합.)

102005 #2 항고 밥 헤노난, 우리 그 춘화ᄀᆞ라, 이모ᄀᆞ라 아이구 저 항고 밥 ᄒᆞ나 얻어, 밥이 경 맛 좋앙. 말쩬양, 밥 헤주민 우리신디 불 숨아주믄 무신거 그거 고치장 주켄. 겐 고추장을 요망썩 헌 거 무신거 하나씩 얻어먹으멍 물 질레 갓당, 게믄 물 질레 가믄 그거 허젠 허믄 재게 못 왕. 어멍은 왕 무시거 물 질레 강 영 오래 살아시니? 욕은 헤도. 그 군인덜이 그 물에 막 더꺼져낫수다게. 일제시대에 우리 어린 때.(반합 밥 했으니까, 우리 그 '춘화'에게, 이모에게 아이고 저 반합 밥 하나 얻어, 밥이 그렇게 맛 좋아서. 말째는요, 밥 해주면 우리에게 불 때어주면 무엇 그거 고추장 주겠다고. 그래서 고추장을 요만큼 한 거 무엇 하나씩 얻어먹으면서 물 길러 갔다가, 그러면 물 길어 가면 그거 하려고 하면 빨리 못 와서. 어머니는 와서 무엇 물 길어 가서 이렇게 오래 사느냐? 욕은 해도. 그 군인들이 그 물에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일제시대에 우리 어릴 때.)

102005 #1 일본 군인덜은 데스까보[42]옌 허여. 데스까보, 이 저 철모. 데스까보옌 헹으네 저 ᄆᆞᆫ 물 데왕 뭣 허믄 우리도 거기서 항고, 이제 여기서 주믄 그 데스까보에 솖

42) '데스까보'는 일본말로 철모를 일컫는다.

읍디다. 솟이 항고, 어신 사람은 항고에 어떵 항고에 숧지만, 데스까보에 술망 문 저 강 넹이영 뭣이영 헹 강 허믄 뭣덜 무신거 저 감빵이영 바꽈줘낫수다. 장도 주곡 허믄 우리 얻어당 먹어난 기억이 셔마씨.(일본 군인들은 '데스까보'라고 해. '데스까보', 이 저 철모. '데스까보'라고 해서 저 모두 물 데워서 뭣 하면 우리도 거기서 반합, 이제 여기서 주면 그 '데스까보'에 삶습디다. 솔이 반합, 없는 사람은 반합에 어떻게 반합에 삶지만, '데스까보'에 삶아서 모두 저 옥수수랑 뭣이랑 해서 가서 하면 뭣들 무엇 저 건빵이랑 바꿨었습니다. 장도 주고 하면 우리 얻어다가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102006 @ 그다음에 사삼사건에 대허영 아는 대로 혼번 골아줍서.(그다음에 사삼사건에 대해서 아는 대로 한번 말해주세요.)

102006 #1 사삼사건은양, 우리 어린 때도 저 산목[43]이옌 허영 이렇게 그건 사삼이 뭔지 모르는디, 그 저 혼 일고여덟 살 쉐 멕이레 강 영 보믄, 아 저 수산봉 질로 궤물[44] 저 어디 답동 그디 사름들이영 왕 그디 들엉양 수산봉 질로 와샤 와샤 와샤 허믄 "야, 저 폭도 왐져." 우리 ᄆᆞᄉᆞ왕, 게믄 이딘 안 들어오곡 헹, 똑 길로 대목[45], 이제 대목 ᄀᆞ튼 질로 기 들렁양, 와샤 와샤. 게고 아이고 그때부터 폭도 뭣이 생견 허난 아 이제 허다보난양, 구엄 습격 들기 전이 서북청년, 어린 때 보믄 서북청년단이라고 허영 여기 왕 막 총 들렁양, 집마다 뎅이멍 수 셈으로 세어. 게난 우리 형님은 중학교 뎅일 때난 나보다 크고, 난 이제 국민학교도 1학년 때고 혹교 뎅일 때난 아, 영우 형이라고 허연 중학교 간 오단 혹생덜 막 심으레 온 거라, 서북청년이. 아, 영 저 그 점방ᄀᆞ디로 들어오난, 아 뒤에 조차온 우리 형님은 겁난 집 안트레 확 들어오난, 그 서북청년들이 총 가젼 완 그때 총이 ᄆᆞᄉᆞ왓수다. 총 타각탁 엠완, 저 구식 총 차각착 허믄 ᄆᆞᄉᆞ완. 아까 혹생 어디 가시니? ᄒᆞ믄 우리 아버진 야이 혹생이 아니주. 영 보난 어린 아이난, 아 거 말고. 혹생이 들어왓다고. 우리 모르켄 영 허난 가분 기억이 싯수다. 또 이 농고생덜 와 가지고양, 저 공회당에 헤 노난, 것덜 주로 산쪽이우다게. 산쪽이난 그 여기서 주장허는 주로 마을의 유지덜 불러당 막 꿀려앚연양, 우리도 간 구경, 저 공회당에 모연 막 취조 헴젠 허연. 우리 어린 때고 조록허게 간 보니까 막 예 꿀려앚젠양, 그 모자로 영 이제 알아져. 거 저 영 그 놓고, 거 퍼렁헌 걸로 양지 두드령 이디 영 체어지멍, 매 허연 그 추룩헌 기억이 싯고. 그 외에도 이제 구엄리 습격이 세 번 들어왓수다. 세 번 들어온디 첫 번째는.(사삼사건은요, 우리 어릴 때도 저 '산목'이라고 해서 이렇게 그건 사삼이 뭔지 모르는데, 그 저 한 일고여덟 살 소 먹이러 가서 이렇게 보면, 아 저 '수산봉' 길로 '궤물' 저 어디 '답동' 거기 사람들이랑 와서 기 들어서요, '수산봉' 길로 와샤 와샤 와샤 하면 "야, 저 폭도 오고 있어." 우리 무서워서, 그러면 여기는 안 들어오고 해서, 똑 길로 '대목', 이제 '대목' 같은 길로 거기 들러서요, '왓샤' '왓샤'. 그리고 아이고 그때부터 폭도 뭣이 생겨서 하니까 아 이제 하다 보니까요, '구엄' 습격 들기 전에 서북청년, 어릴 때 보면 서북청년단이라고 해서 여기 와서 마구 총 들러서요, 집마다 다니면서 수 셈으로 세어. 그러니까 우리 형님은 중학교 다닐 때니까 나보다 크고, 난 이제 국민학교

43) '산목'은 제주시 애월읍 구엄리에 위치한 지명 이름이다.
44) '궤물'은 제주시 애월읍 하귀2리 지명 이름. 답동이라고도 한다.
45) '대목'은 제주시 애월읍 수산리, 옛날 수산봉 옆의 도로명이다.

도 1학년 때고 학교 다닐 때니까 아, 영우 형이라고 해서 중학교 가서 오다가 학생들 마구 잡으러 온 거야, 서북청년이. 아, 이렇게 저 그 점방 옆으로 들어오니까, 아 뒤에 쫓아온 우리 형님은 겁난 집 안으로 확 들어오니까, 그 서북청년들이 총 가져서 와서 그때 총이 무서웠습니다. 총 타각탁 엠원, 저 구식 총 차각착 하면 무서워서, 아까 학생 어디 갔니? 하면 우리 아버진 이 아이 학생이 아니지. 이렇게 보니까 어린아이니까, 아거 말고. 학생이 들어왔다고. 우리 모르겠다고 이렇게 하니까 가버린 기억이 있습니다. 또 이 농고생들 와서요, 저 공회당에 해 놓으니까, 그것들 주로 산 쪽입니다. 산 쪽이니까 그 여기서 주장하는 주로 마을의 유지들 불러다 마구 꿇려 앉혔어요, 우리도 가서 구경, 저 공회당에 모여서 마구 취조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 어릴 때고 재빠르게 가서 보니까 막 예 꿇려 앉혀서요, 그 모자로 이렇게 이제 알 수 있어. 그거 저 이렇게 그 놓고, 그거 푸른 것으로 얼굴 두드려서 여기 이렇게 째어지면서, 매 해서 그처럼 한 기억이 있고. 그 외에도 이제 '구엄리' 습격이 세 번 들어왔습니다. 한번 들어왔는데 첫 번째는.)

102006 #2 이월 달에 들어왓수다. 이월 스무이틀날. 체암 들어온 땐. 천구벡ᄉᆞ십 멧 년에.(이월 달에 들어왔습니다. 이월 스무이튿날. 처음 들어온 땐. 천구백사십 몇 년에.)

102006 #1 그 들어완 허난 저 동네를 불바다 멩글앗수다. 밋밋 그딘 초집이난 흔 번만 ᄒᆞ고, 하늬 불믄 양, 밤이 들불 난 다 집이 멧십 채 문짝 카부럿주기. 아, 카고 메칠 어선 또 허난.(그 들어와서 하니까 저 동네를 불바다 만들었습니다. 계속 거긴 초가집이니까 한 번만 하고, 하늬바람 불면요, 밤에 들불 나서 다 집이 몇십 채 모두 타버렸지요. 아 타고 며칠 없어서 또 하니까.)

102006 #2 유지덜이랑 그때 구장 헤난 집이영 순경 헤난 집이영, 그때 그런 사름덜만 춧안.(유지들이랑 그때 구장 했던 집이랑 순경 했던 집이랑, 그때 그런 사름들만 찾아서.)

102006 #1 거 유지덜 집이 이장허곡, 뭣 허난 집이, 그 집만 주목허영 왕 이제 그 아기 낳단도 죽곡, 그런 집이 ᄋᆞ라이 죽엇수다.(그렇게 유지들 집에 이장하고, 뭣 했던 집에, 그 집만 주목해서 와서 이제 그 아기 낳다가도 죽고. 그런 집에 여럿이 죽었습니다.)

102006 #2 그때 그런 사름덜만 춧안. 아기 낳단도 죽고.(그때 그런 사름들만 찾아서. 아기 낳다가도 죽고.)

102006 #1 이제 게난 그디 남편덜은 아기 낳는 거 각시덜 첨 창으로 막 찔러부난 죽고 헤신디, 그걸 낭 우틴 순경을 가고 헷는디, 나중에 세 번째 들어온 건 어떠냐 허믄 것도 이제 동짓둘 잊어버리지 안 헷주. 열여드렛날 그때 마지막 세 번 들어온 거라, 습격을. 아, 게 날은 붉아가는디 ᄒᆞ교에 완 2학년 뒈 가난 알앗져. 초등학교, 국민학교 ᄒᆞᆫ 2학년 때라. 총소리가 파박파박 난, 영 허난 아버지네 영 싯단, 아이고 습격이여. 습격 들어왓져. 큰일 낫다. 아, 경 헤가난 벌써 다, 다 들어온거라. 들어완 허난 앞이 우리 영 헌디 초집이영 뭐 지름 대롱에 지름불 그냥 불리웡 횃불 싸가지고 멘 초집 아니우

꽈? 그땐. 이 집더레 강 칵 질르곡, 저 집더레. 밧거리 돌아데니멍 질으니까 불이 벌겅허지 안허우꽈? 막 카가난. 게난 막 총소리 나가멍 헤가난 우리, 또 아버지네 살고 쉐가 세 ᄆᆞ리 양, 그때 쉐양에 불 부쪄부난 쉐 코 딱 꿰노난 어디 들아나질 못 헙주게. 쉐 시 ᄆᆞ리 칸 죽고 헐 때, 아 우리 저 뒤에 영 대왓디 영 션 허니까, 아, 좀 시난 그때 아버지가, 할머니 그때 살아낫수다게, 밧거리에. 그 불 칼 때에도 그때 아버지가 그 생각을 허연예, 아이고, 어머니 칸 죽어부런. 큰일 낫다. 겐 어머닐 업어 온 거라, 그레. 아, 업어완 그레 허난, 그해에 게난 다 그 불 부떠불고, 집은. 안거린 ᄒᆞ끔 남은 디, 건 막 붉간 이제 소방서덜 완 불 뀌완. 거 ᄒᆞ끔 뼈만 살련 다 카불고 헨 보난, 뒷날 일어난보난 형님도 한 분 학교에서.(이제 그러니까 거기 남편들은 아기 낳는 거 부인들 참 창으로 마구 찔러버리니까 죽고 했는데, 그걸 나무 위에는 순경을 가고 했는데, 나중에 세 번째 들어온 건 어떻게 하냐 하면, 그것도 이제 동짓달 잊어버리지 안 했지. 열여드렛날 그때 마지막 세 번 들어온 거야, 습격을. 아, 게 날은 밝아가는데 학교에 와서 2학년 돼 가니까 알았어. 초등학교, 국민학교 한 2학년 때야. 총소리가 파박파박 나니까, 이렇게 하니까 아버지네 이렇게 있다가, 아이고 습격이야. 습격 들어왔어. 큰일 났다. 아, 그렇게 하니까 벌써 다, 다 들어온 거야. 들어와서 하니까 앞에 우리 이렇게 했는데 초가집이랑 뭐 기름 대롱에 기름불 그냥 붙여서 횃불 켜서 모두 초가집 아닙니까? 그때는. 이 집으로 가서 콱 붙이고, 저 집으로. 바깥채 돌아다니면서 붙이니까 불이 벌겋지 않습니까? 마구 타니까. 그러니까 마구 총소리 나가면서 하니까 우리, 또 아버지네 살고. 소가 세 마리요, 그때 외양간에 불붙여버리니까 소 코 딱 꿰어놓으니까 어디 달아나질 못하지요. 소 세 마리 타서 죽고 할 때, 아 우리 저 뒤에 이렇게 대밭에 이렇게 서서 하니까, 아, 조금 있으니까 그때 아버지가, 할머니 그때 살았었습니다, 바깥채에. 그 불 탈 때에도 그때 아버지가 그 생각을 했어요, 아이고, 어머니 타서 죽어버렸어. 큰일 났다. 그런데 어머닐 업어 온 거야, 그리로. 아, 업어와서 그리로 하니까, 그해에 그러니까 다 그 불붙어버리고, 집은. 안채는 조금 남았는데, 그건 아주 밝아서 이제 소방서들 와서 불 껐어. 그거 조금 뼈만 살려서 다 타버리고 해서 보니까, 뒷날 일어나서 보니까 형님도 한 분 학교에서.)

102006 #2 두 분 다 돌아갓수다.(두 분 다 돌아갔습니다.)

102006 #1. 돌아갓고, ᄉᆞ춘형은 또 저디서 거 지커단 그때는 죽창 거, 철창 들르고, 순경 하나믄 이제 거 저 가빈총이나 쥐고, 그 외로 다섯, ᄋᆞ섯썩 ᄀᆞ찌 보초를 삿수다게. 보초 삿젱허여. 보초 상 영 뭘 허믄, 아 우리 형님도, 거기 ᄉᆞ춘 형님도 보초 사단, 족은어머니가 이쪽 베릿골 우리 집 알녁집이 살아낫수다. 우리도 이제 이레 와 부럿지마는. 겐 막 이제도 밤이 불끄렝이가 뜹니다. 막 이놈이 새끼덜 집 불 부쩜져. 막 헤가난 우리 ᄉᆞ춘형은 ᄌᆞ꼿디 삿단 아이고, 어머니 다 죽엄젠 허연.(돌아갔고. 사촌형은 또 저기서 그거 지키다가 그때는 죽창 거, 철창 들르고, 순경 하나면 이제 거 저 카빈총이나 쥐고, 그 외로 다섯, 여섯씩 같이 보초를 섰습니다. 보초 섰다고 해. 보초 서서 이렇게 뭘 하면, 아 우리 형님도, 거기 사촌 형님도 보초 서다가, 작은어머니가 이쪽 '베릿골' 우리 집 아랫집에 살았었습니다. 우리도 이제 이리로 와 버렸지만. 그래서 막 이제도 밤에 불

티가 뜹니다. 마구 이놈의 자식들이 집 불붙이고 있어. 마구 해가니까 우리 사촌형은 곁에 섰다가 아이고, 어머니 다 죽고 있다고 했어.)

102006 #2 지붕 우의 올란 막 헤가난.(지붕 위로 올라서 마구 해가니까.)

102006 #1 지붕 우의 올란 담 소리 오죽 막 남니까게, 돌아오단양.(지붕 위로 올라서 담 소리 얼마나 마구 나고 있습니까, 돌아오다요.)

102006 #2 질레에서 총 쏴 부런.(길에서 총 쏴 버렸어.)

102006 #1 그놈덜양, 목 지컨 것추룩 총 쏴 부난 그디서 직사허고. 또 우리 여주[46] 형님, 말젯형님은 학교 그 저 급사라낫수다게. 어릴 때, 열여덥 술에 돌아갓는디, 학교 급사로 선셍이영 거 숙직허단 밤에 거 일제강점기난, 집이 문딱 우리도 강 보믄 숙대낭으로 다 벽채허고 문딱 낭집이라낫수다. 우이도 기와, 우인 기와 덕엇주마는, 겐 낭집이라난. 그레허난 그놈덜 뭔 석유 지천에 막, 불 다 학교 카는 ᄇᆞ름에양, 형님도 그 아래 싯단에.(그놈들은요, 목 지킨 것처럼 총 쏴 버리니까 거기서 직사하고. 또 우리 '여주' 형님, 셋째형님은 학교 그 저 급사였습니다. 어릴 때, 열여덟 살에 돌아갔는데, 학교 급사로 선생님이랑 그렇게 숙직하다가 밤에 거 일제강점기니까, 집에 모두 우리도 가서 보면 삼나무로 다 벽채하고 모두 나무집이었습니다. 위에도 기와, 위에는 기와 덮었지만, 그래서 나무집이었어. 그리하니까 그놈들 뭔 석유 지천에 마구, 불 다 학교 타는 바람에, 형님도 그 아래 있다가.)

102006 #2 마리 알러레 들어간.(마루 아래로 들어갔어.)

102006 #1 그 사이 멧이 저, ᄒᆞᆫ 사람은.(그 사이 몇이 저, 한 사람은.)

102006 #2 우리 외삼춘네허고 마리 알러레 들어갓단 나오지 못 허연.(우리 외삼촌네하고 마루 아래로 들어갔다 나오지 못했어.)

102006 #1 나온 사름은 살고.(나온 사람은 살고.)

102006 #2 ᄒᆞ나 나오고.(하나 나오고.)

102006 #1 그 안네 이제 허난.(그 안에 이제 하니까.)

102006 #2 신엄 문 선생은 나오고.('신엄' 문 선생은 나오고.)

102006 #1 마리 아레 곱앗단 거기서 다 돌아갓수다게.(마루 아래 숨었다가 거기서 다 돌아갔습니다.)

102006 #2 그때, 세 분이 다 돌아가셧수다.(그때, 세 분이 다 돌아가셨습니다.)

102006 #1 이제도 거기 비석이 이신디.(이제도 거기 비석이 있는데.)

102006 #2 이제도 ᄒᆞᆨ교에 비석이 다 이서마씸.(이제도 학교에 비석이 다 있어요.)

102006 #1 또.(또.)

102006 #2 힘들어낫수다게.(힘들었습니다.)

102006 #1 그때 알아진 기억은 그때 구엄 사삼사건 습격 들어온 때, 고내, 자운당[47] 애기벤돌거리[48]라고 잇수다게. 이렇게 오가믄, 옛날에 한질은 넙지 아니헷수다게. ᄒᆞᆫ 지금 팔메다 길 정도도 안 뒈서. 경 헨 길 허고, 저쪽 헌디, 그놈들이 들어올 때는 똑 이

46) '여주'는 제보자의 형님이다.
47) '자운당'은 애월읍 하가리 입구 쪽에 있는 지명이다.
48) '애기벤돌거리'는 '자운당' 근처에 있는 지명이다.

전홧기를, 전홧줄을 꼭 끈엉 들어오는디, 통화헤도 안 뒈게. 그때는 전화를 이 군인덜이 게메 이 저 폭도덜토 머릴 썬. 전화기를 안 끈은 거라. 전홧줄을.(그때 알았던 기억은 그때 '구엄' 사삼사건 습격 들어온 때, '고내', '자운당' '애기벤돌거리'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가면, 옛날에 한길은 넓지 아니했습니다. 한 지금 팔 미터 길 정도도 안 됐어. 그렇게 해서 길 하고, 저쪽 했는데, 그놈들이 들어올 때는 똑 이 전화기를, 전화줄을 꼭 끊어서 들어오는데, 통화해도 안 되게. 그때는 전화를 이 군인들이 글쎄 이 저 폭도들도 머릴 써서. 전화기를 안 끊은 거야. 전홧줄을.)

102006 #2 순경 지커는디.(순경 지키는데.)

102006 #1 거난 이 저 한림[49]지서레 전화허곡, 구엄 습격 들어왓젠. 저 시에 경찰서레도 전화허난, 아 이제 막 기관총 걸고 차 헨 돌아올 거 아니우꽝? 구엄리 습격들엇젠. 날씨가 겐디 붉아갈 때라, 거의 우리가 알기론. 겜 시난 요 자운당 애기벤돌거리랑 요렇게 길이 ᄒᆞ끔 험헌 디우다. 이젠 길 느추와부난 모르는디, 거기 비석이 셔낫수다. 이젠 어신디. 그때 허난양, 이렇게 곱안 허니까, 길은 양, 올라간 디난 폭도덜이 곱앗단으네 거 저 운전수부터 몬제 쏴 부난, 거기서 다 전멸당허고.(그러니까 이 저 '한림'지서로 전화하고, '구엄' 습격 들어왔다고. 저 시에 경찰서로도 전화하니까, 아 이제 막 기관총 걸고 차 해서 달려올 거 아닙니까? '구엄리' 습격 들었다고. 날씨가 그런데 밝아갈 때야, 거의 우리가 알기로는. 그렇게 있으니까 요 '자운당' '애기벤돌거리'랑 요렇게 길이 조금 험한 데입니다. 이젠 길 넓혀 버리니까 모르는데. 거기 비석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없는데. 그때 하니까요, 이렇게 숨어서 하니까, 길은요, 오르막인데 폭도들이 숨었다가 그 거 저 운전사부터 먼저 쏴 버리니까, 거기서 다 전멸당하고.)

102006 #2 순경덜이영 하영 돌아갓수다.(순경들이랑 많이 돌아갔습니다.)

102006 #1 구엄, 구엄.('구엄', '구엄'.)

102006 #2 높은 사름덜 하영 돌아갓수다.(높은 사람들 많이 돌아갔습니다.)

102006 #1 구엄, 주임 저 문 씨라고 허영 그분도 돌아가고. 그분 따문에 구엄 오다가 경 애석허게 젊은 경찰덜 많이 죽엇수다, 순경덜.('구엄', 주임 저 문 씨라고 해서 그분도 돌아가고. 그분 때문에 '구엄' 오다가 그렇게 애석하게 젊은 경찰들 많이 죽었습니다, 순경들.)

102006 #2 많이 돌아갓수다. 우리 친척도 돌아가고.(많이 돌아갔습니다. 우리 친척도 돌아가고.)

102006 #1 그때도 ᄒᆞᆫ 사름은양, 그 폭도덜 들어왕 옷 다 벳겨 가고, 총 다 가져가고, 기관총이영 그디 실탄이영 ᄆᆞᆫ딱 가져가고 헤도 ᄒᆞᆫ 사름이 살아가지고 모든 걸 증언을 헤십주게.(그때도 한 사름은요, 그 폭도들 들어와서 옷 다 벗겨 가고, 총 가져가고, 기관총이랑 거기 실탄이랑 모두 가져가고 하여도 한 사름이 살아서 모든 걸 증언을 했습지요.)

102006 #2 경허난 더 잘 알앗수다게.(그러니까 더 잘 알았습니다.)

102006 #1 어떵 된 건지.(어떻게 된 것인지.)

49) '한림'은 한림읍 한림리를 말한다.

102006 #2 게 아니믄 모를 건디. 게난 잘 알아.(그렇게 안 하면 모를 건데. 그러니까 잘 알아.)

102006 #1 경 허멍 사삼사건 넘어서마씨. 이제 생각해도 첨 이거는양, 어디 구별 못 허게 다 이디서.(그렇게 하면서 사삼사건 넘었어요. 이제 생각해도 참 이것은요, 어디 구별 못 하게 다 여기서.)

102006 #2 사삼사건도 그뿐 아니우다. 막 헐 일이 막 하영, 하영 싯수다마는, 첨.(사삼사건도 그뿐 아닙니다. 아주 할 일이 아주 많이, 많이 있습니다만, 참.)

102007 @ 그다음에 그 중매결혼 헙디강? 연애결혼 헙디강?(그다음에 그 중매결혼했습니까? 연애결혼했습니까?)

102007 #1 중매, 중매헌디 저, 이 사름이 지금도 뭐 허지만 어린 땐, 그 일본 뎅이 멍 허고 헤난 얼굴이영 고와낫수다게. 게난 중매헨. 저 우리 그 처 삼춘이, ᄉᆞ춘. (중매, 중매했는데 저, 이 사람이 지금도 뭐 하지만 어릴 땐, 그 일본 다니면서 하고 하니까 얼굴도 고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중매했어. 저 우리 그 처삼촌이, 사촌.)

102007 #2 우리 아버지 ᄉᆞ춘.(우리 아버지 사촌.)

102007 #1 이제 저 삼춘이, 저기 우리 동창네 아버지라낫수다게. 거기 허난 이 사름은 일본 그 아버지엔 일본 가 불고. 여긴 어머니영 너 오누이가 사는디, 큰뚤입주게. 게난 ᄀᆞᆯ아둰 어떵 허연 ᄒᆞᆫ두 번 간, 처음엔 우리 집이 돈 엇덴 안 헨, 이제 헤도 ᄎᆞᄎᆞᄎᆞ ᄒᆞᆫ 것이 결혼혜졋수다게. 결혼헤도 이 사름은 시집 안 가켄, 저 일본ᄁᆞ지 밀항허연 가멍, 결혼허기 전에, 경헤도 저 어머니네영 허연 제우 ᄎᆞᆺ안 데려단 결혼시겻수다게. 난 스물세 ᄉᆞᆯ에 갓고, 이 사름은 스물 하나에, 두 ᄉᆞᆯ 아래난. 그때 게도 저 우리 차로 결혼헷수다게, 차로. 이제ᄀᆞ뜨믄 쓰리꼬다 닮은 차.(이제 저 삼촌이, 저기 우리 동창네 아버지였습니다. 거기 하니까 이 사람은 일본 그 아버지라고 일본 가 버리고. 여긴 어머니랑 네 오누이가 사는데, 큰딸이지요. 그러니까 말해둬서 어떻게 해서 한두 번 가서, 처음엔 우리 집에 돈 없다고 안 했어, 이제 해도 차차차 한 것이 결혼해졌습니다. 결혼해도 이 사람은 시집 안 가겠다고, 저 일본까지 밀항해서 가면서. 결혼하기 전에. 그래도 저 어머니네랑 해서 겨우 찾아서 데려다가 결혼시켰습니다. 난 스물세 살에 갔고, 이 사람은 스물하나에, 두 살 아래이니까. 그때 그래도 저 우리 차로 결혼했습니다, 차로. 지금 같으면 군용차 같은 차.)

102007 #2 아니양, 택시 앞 막아진 거라.(아니요, 택시 앞 막아진 거야.)

102007 #1 택시 닮은 차.(택시 닮은 차.)

102008 @ 경ᄒᆞ고 사주 봅디강?(그리고 사주 봤습니까?)

102008 #2 양.(예.)

102008 @ 사주.(사주.)

1020087 #1 사준 저, 사줏젱이 집이 간 택일허고 헨 보난 궨찬텐 허연 절혼허게 뒛수다게.(사주는 저, 사주보는 사람 집에 가서 택일하고 해서 보니까 괜찮다고 해서 결혼하게 됐습니다.)

102009 @ 그다음에 혼수품이나 결혼 예물, 어떤 걸 마련헙디강?(그다음에 혼수품이

나 결혼 예물, 어떤 걸 마련합디까?)

102009 #2 결혼 예물사 찻장허고, 무신 궤허고, 궤 이제도 싯수다. 저 소낭 궤. 찻장허고 찻장이옌 요 구엄 동네 찻장 짜는 사름도 잇곡, 궤 짜는 하르방 셔나서마씸. 고씨옌 허영, 고. 저 하귀 고하주 아방이옌 셔난. 우린 뭣도 몰르고 뭐, 어머니가 그디 강 맞추켜, 맞추켄 허난, 궤영 찻장이영, 뚜시 무시거 화리영, 화리영. 경 헨 시 개 맞추난 그건 이제 이디 허고 이불 둘, 요 둘 허고, 그거벳끼 무신거, 미싱허고, 미싱은 일본 간 오멍 족은어멍 써난 거 어졍 간 주난에, 거 어젼 완 어젼 오고.(결혼 예물이야 찬장하고, 무슨 궤하고. 궤 이제도 있습니다. 저 소나무 궤. 찬장하고 찬장이라고 요 '구엄' 동네 찬장 짜는 사람도 있고, 궤 짜는 할아버지 있었어요. 고씨라고 해서, 고. 저 '하귀' '고하주' 아버지라고 있었어. 우린 뭣도 모르고 뭐, 어머니가 거기 가서 맞추겠어, 맞추겠어 하니까. 궤랑 찬장이랑, 또 무엇 화로랑, 화로랑. 그렇게 해서 세 개 맞추니까 그건 이제 여기 하고 이불 둘, 요 둘하고, 그거밖에 무엇, 재봉틀하고. 재봉틀은 일본 가서 오면서 작은어머니 썼던 것 가져가서 주니까, 그거 가져와서 가져서 오고.)

102009 @ 그 당시엔 하영 흔 거우다.(그 당시에는 많이 한 겁니다.)

102009 #2 양.(예.)

102009 #1 하영 헌 거라.(많이 한 거야.)

102009 #2 하영 헨. 그 일본 가 오난, 일본서 주난 헷주기. 게 아이 시믄 우리 어머니넨 살 수가 어서낫수다게. 살 치메, 그거 헹, 궨 큰뚤이옌 허영 허곡, 게난 찻장도 이 구엄더레 져 오곡, 궤도 져 오곡, 시꺼오곡, 져 왓수게. 짐패[50]로 허연으네. 아시날 밤이 져 완. 시집 오젠 허난, 구엄 완 저 밧거리 져 완 보난 마당에 보리낭 눌련 젼 그디 셔렌, 누게 져 온 사름 말이. 우리 궨당 오라방덜 져다 도렌 허난, 아바지도 일본 셔 부난 허연. 시집갈 때는 몰르고, 사진도 아이 찍고 경 헷수다. 사름으로 궤도 져 오고, 화리도 져 오고, 찻장도 져 오고, 미싱도 다 사름으로 다 아시날 문딱 져 완마씸. 멧 번 져 완.(많이 했어. 그 일본 가 오니까, 일본서 주니까 했지. 했죠. 게 아니 했으면 우리 어머니네는 살 수가 없었습니다. 살 치마, 그거 해서, 궤는 큰딸이라고 해서 하고, 그러니까 찬장도 이 '구엄'으로 져 오고, 궤도 져 오고, 실어오고, 져 왔습니다. '짐패'로 해서. 전날 밤에 져 왔어. 시집오려고 하니까, '구엄' 와서 저 바깥채 져 와서 보니까 마당에 보릿짚 눌러져서 거기 있었다고, 누구 져온 사람 말이. 우리 권당 오라버니들 져다 달라고 하니까, 아버지도 일본 있어 버리니까 해서. 시집갈 때는 모르고, 사진도 아니 찍고 그렇게 했습니다. 사람으로 궤도 져 오고, 화로도 져 오고, 찬장도 져 오고, 재봉틀도 다 사람으로 다 전날 모두 져 왔어요. 몇 번 져 왔어.)

102009 @ 잘 헤왓뎅 허지 안 헙디강?(잘 해왔다고 하지 안 합디까?)

102009 #2 잘 헤왓덴 헌디게, 원 우린 어떵사 헤신디 잘 헤 온 것도 모르고 난 그자 사는 거옌 살안.(잘 해왔다고 했는데, 원 우리는 어떻게야 했는지 잘 해 온 것도 모르고 나는 그저 사는 거라고 살았어.)

102009 #1 잔치는양, 그때는 한창 마당에서 헷수다, 식장을.(잔치는요, 그때는 한창

50) '짐패'는 짐을 지는 데 쓰는 줄이다.

마당에서 했습니다, 식장을.)

102009 @ 예, 그거는양, 나중에 물어보쿠다.(예, 그거는요, 나중에 물어보겠습니다.)

102009 #2 게난 이 이불 두 개, 요 두 개 헤 노난, 이제 ᄀᆞ뜨믄 시어머니네 하나 안넬 거주만, 안넴이랑 말앙, 게난 이불 하나 허고 요 하난 풀앙은에, 만이천 원 받안, 이제 돈, 잊어불지도 안 허여. 만이천 원 받안 풀앙은에 이제 이불 사 간 사람도 신엄 살앗수다. 겐 풀안으네 그걸로.(그러니깐 이 이불 두 개, 요 두 개 해 놓으니까 이제 같으면 시어머니네 하나 드릴 거지만, 드림이랑 말앙, 그러니까 이불 하나 하고 요 하나는 팔아서, 만이천 원 받았어, 이제 돈. 잊어버리지 안 해. 만 이천 원 받아서 팔았어. 이제 이불 사 간 사람도 '신엄' 살았습니다. 그것을 팔아서 그걸로.)

102009 #1 양단 이불이옌 허연 비싸낫수다.(양단 이불이라고 해서 비쌌었습니다.)

102009 #2 양단 이불 일본서.(양단 이불 일본서.)

102009 @ 그땐 비쌋수다양.(그땐 비쌌었군요.)

102009 #2 그때 일등으로 헷젱 허여. 게고 옷도 양단 옷 허영 우알 입언. 양단 옷 우알 입어네. 게난 그 양단은 애월에 허는 할망 셔난디, 그디 간 맞추안. 양단 꼴레기 일본서 어전 완 맞추안, 게난 권당덜은 우리 친정이 돈 어신 사름이 뚤 경 출려줌젠 ᄒᆞ멍 ᄀᆞᆯ아나서게, ᄀᆞᆯ아낫수다게. 게난 그땐 나 일본서 오멍 어전 오난으네 잘 출렷젠 ᄒᆞ고, 권당덜은 에에 밧도, 돈 어신디 그거 허연 출려줫젠 허멍. 밥도 굴머가는 디 출려줫젠 허멍 헤도. 도새기 두 개 질루우단으네, 도새긴 두 개 질루우단 하나 풀안에 잔치헹 먹젠 허난 이제 돗 잡는 사름도 빌어사 돈 주고. 하나 풀안 그걸로 비용 헤 가고, 하나만 잡앙 헌 걸로 우리 알아져마씸. 나가 그건 알아지는 거. 경 헹으네 시집이우다. 시집이, 하하하하하. 시집이우다, 시집이예.(그때 일등으로 했다고 해. 그리고 옷도 양단 옷 해서 위아래 입었어. 양단 옷 위아래 입어서. 그러니까 그 양단은 '애월'에 하는 할머니 있었는데. 거기 가서 맞추어서. 양단 꼬랑이 일본서 가져 와서 맞추어서, 그러니까 권당들은 우리 친정이 돈 없는 사람이 딸 그렇게 차려주고 있다고 하면서 말했었습니다, 말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땐 나 일본서 오면서 가져서 오니까 잘 차렸다고 하고, 권당들은 에에 밭도, 돈 없는데 그거 해서 차려줬다고 하면서, 밥도 굶어가는 데 차려줬다고 하면서 해도. 돼지 두 개 기르다가, 돼지 두 개 기르다가 하나 팔아서 잔치해서 먹으려고 하니까, 이제 돼지 잡는 사람도 빌어야 돈 주고. 하나 팔아서 그걸로 비용 해 가고, 하나만 잡아서 한 것으로 우리 알아줘요. 나가 그건 알아주는 거. 그렇게 해서 시집입니다. 시집이, 하하하하하. 시집입니다, 시집이요.)

102010 @ 다음에양, 결혼식은 어디서 헙디가?(다음에는요, 결혼식은 어디서 했습니까?)

102010 #1 결혼식은양, 마당에 식장 출려 놘, 이제 그전인 결혼 안 헌 총각덜 멧이 다 짱 뎅이멍 식장을 우리가 꾸몃수다게. 게믄 무신거 천막이영 치곡, 낭 헤당 저 멍석 하곡 허영 딱 쳥 허믄 식장을 만들어. 겡 허영 거기서, 게도 우리 헐 땐양, 주례도 셧고 집사영 다 헨. 또 사진도 찍고 헷수다마는. 게믄 친족들이영 이제 다 모아들엉 찍은 것도 잇고, 게 한쪽엔 보릿낭으로 허허.(결혼식은요, 마당에 식장 차려 놓아서, 이제 그전

에는 결혼 안 한 총각들 몇이 다 짜서 다니면서 식장을 우리가 꾸몄습니다. 그러면 무엇 천막이랑 치고, 나무를 해다 저 멍석하고 해서 딱 쳐서 하면 식장을 만들어. 그렇게 해서 거기서, 그래도 우리 할 때는요, 주례도 있었고 집사랑 다 했어. 또 사진도 찍고 했습니다만. 그러면 친족들이랑 이제 다 모아들어서 찍은 것도 있고, 게 한쪽에는 보릿짚으로 허허.)

102010 #2 보릿낭 시난.(보릿짚 있으니까.)

102010 #1 그 보리낭양.(그 보릿짚요.)

102010 #2 보라낭으로양 막앙은에. 보릿낭 우인 보난 호박도 싯고.(보릿짚으로요 막아서. 보릿짚 위에는 보니까 호박도 있고.)

102010 #1 마당에 식장 출려은에 잔칠.(마당에 식장 차려서 잔치를.)

102010 @ 펭풍 쳥은에?(병풍 쳐서?)

102010 #2 펭풍은 못 봐 원. 펭풍은 안 친 것 닮아.(병풍은 못 봐 원. 병풍은 안 친 것 닮아.)

102010 @ 뒤에 쳥은에 사진.(뒤에 쳐서 사진.)

102010 #1 뒤에 펭풍은 쳐.(뒤에 병풍은 쳐.)

102010 @ 사진 찍젠 허난게.(사진 찍으려고 하니까요.)

102010 #1 펭풍 영.(병풍 이렇게.)

102010 #2 멍석 꼰 건 알아진 디, 멍석 꼴고. 올레[51]서 영 들어가는 디 발 탁탁 차멍, 올레 들어가민 잇돌이영 돌이영 들어가멍 걸리멍 나도. 우리 집 닮지 아니허영 돌로 문딱, 시아버님 문딱 돌 허영 영.(멍석 깐 거는 알 수 있는데, 멍석 깔고. '올레'서 이렇게 들어가는 데 발 탁탁 차면서, '올레' 들어가면 디딤돌이랑 돌이랑 들어가면서 걸리면서 나도. 우리 집 같지 아니해서 돌로 모두, 시아버님 모두 돌 해서 이렇게.)

102010 #1 돌쳉이 집이난.(석공 집이니까.)

102010 #2 돌로 문딱 잇돌 허고, ᄒᆞ끔 높으고, 또 이문간 저레 ᄒᆞ곡, 돌 시 반디썩션, 경 헌 집입디다게. 경 허연 발 걸리멍, 그레 넘어강 지방 넘어가고, 이문간이 널짝문이곡 허믄게.(돌로 모두 디딤돌 하고, 조금 높고, 또 대문 저리 하고, 돌 세 군대씩 있어, 그렇게 한 집입디다. 그렇게 해서 발 걸리면서, 그리 넘어가서 문지방 넘어가고, 대문이 널쪽문이고 하면요.)

102010 #1 경허고 잔치 때도양.(그리고 잔치 때도요.)

102010 #2 그레 넘어강.(그리 넘어가서.)

102010 #1 둘러리옌 허영 신랑 둘러리 ᄒᆞᆫ 사름 허고, 새각시 둘러리, 그 새각시 둘러리도 이제 사진에도 잇수다마는 허고, 신랑 둘러리 허믄 그디 강 모든 걸 이제 신랑 뒷바라지를 헤 줍주. 사진 찍을 때도 옷도 잘 보고. 영 헹 사람덜도 메우고, 이제도 헴수다마는, 또 새각시 둘러리는.(들러리라고 해서 신랑 들러리 한 사람하고, 새색시 들러리, 그 새색시 들러리도 이제 사진에도 있습니다만 하고, 신랑 들러리 하면 거기 가서 모든 걸 이제 신랑 뒷바라지를 해 주지요. 사진 찍을 때도 옷도 잘 보고, 이렇게 해서

51) '올레'는 거릿길 쪽에서 대문까지의, 집으로 드나드는 아주 좁은 골목 비슷한 길이다.

사람들도 모이고, 이제도 하고 있습니다만, 또 새색시 들러리는.)

102010 #2 사진젱이가 골으난게, 사진젱이.(사진사가 말하니까요, 사진사가.)

102010 #1 사진젱이사게 왕으네, 마당이 왕 찍곡, 영 그땐 게난 집마다 잔치허믄 어느 제나, 게믄 거기서도 문 저 축사도 총각덜 허믄, 친구덜 허믄 축사도 왕 읽어주곡, 또 주례도 왕.(사진사야 와서, 마당에 와서 찍고, 이렇게 그땐 그러니까 집마다 잔치하면 어느 때나, 그러면 거기서도 모두 저 축사도 총각들 하면, 친구들 하면 축사도 와서 읽어주고, 또 주례도 와서.)

102010 #2 그땐 거믄 무사 부모님덜은 아니 나왕 찍는고?(그땐 그러면 왜 부모님들은 안 나와서 찍는가?)

102010 #1 무사 연날.(왜 옛날은.)

102010 #2 경 허연 그날은 부모님덜은 아니 찍어서.(그렇게 해서 그날은 부모님들은 안 찍었어.)

102010 #1 아니, 부모네 찍는 디 어떠냐 허면, 이제 사진 싯수다마는 신랑, 신부만 처음 찍고, 이제 친족덜 문딱 ᄀᆞ찌 찍어서. 이제는 주례 뭐 집사허고, 부모네 양가 부모허고.(아니, 부모네 찍는 데 어떠냐 하면, 이제 사진 있습니다만 신랑, 신부만 처음 찍고, 이제 친족들 모두 같이 찍었어. 이제는 주례 뭐 집사하고, 부모네 양가 부모하고.)

102010 #2 헤꼬만헌 사진기로 허난.(조그마한 사진기로 하니까.)

102010 #1 그땐 양가 부모를 안 찍어서, 홈치 궨당들이영 그자 이.(그땐 양가 부모를 안 찍었어, 한꺼번에 같이 친척들이랑 그저 이.)

102010 @ 사진값도 비쌋주예?(사진값도 비쌌지요?)

102010 #1 예, 비싸곡 허난.(예, 비싸고 하니까.)

102010 @ 흔꺼번에.(한꺼번에.)

102010 #1 홈치 찍어분 거.(한꺼번에 같이 찍어 버린 거.)

102010 #2 게난.(그러니까.)

102010 #1 겐 또 주례도 사진 안 찍엇주마씨.(그래서 또 주례도 사진 안 찍었지요.)

102010 @ 사진이 비싸부난산디게.(사진이 비싸서인지.)

102010 #2 그때도 쉐 ᄒᆞ나 풀앙은에 잔치허젠 허난게. 난 영 소문만 들엇주. 시집오난 동네에.(그때도 소 하나 팔아서 잔치하려고 하니까. 난 이렇게 소문만 들었지. 시집오니까 동네에.)

102010 @ 그때는 사진 찍는 사람들이 별로 드물어마씨.(그때는 사진 찍는 사람들이 별로 드물어요.)

102010 #1 사진 못 찍은 디도 하고.(사진 못 찍은 데도 많고.)

102010 @ 아이, 핫주게.(아니, 많지요.)

102010 #2 족은아들이난 사진 찍곡, 쉐 풀앙 하르방네 헴젠 허난, 영 이제 담, 문 넘언 들어낫수다. 들어도 난 새각시난 그거 영 헹은에.(작은아들이니까 사진 찍고, 소 팔아서 할아버지네 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렇게 이제 담, 문 넘어서 들었었습니다. 들어도 난 새색시니까 그거 이렇게 해서.)

102010 #1 돗헹은에 거 저 흔 칭, 그땐 흔 칭짜리 돗이옌 허믄 막 테와낫수다게. 아이고, 그 집인 잘 멕연, 그 집인 흔 칭 돗 잡암젠 헴서, 영 허연.(돼지해서 그거 저 한 층, 그땐 한 층짜리 돼지라고 하면 마구 태웠었습니다. 아이고, 그 집에는 잘 먹였어, 그 집에는 한 층 돼지 잡고 있다고 하고 있어, 이렇게 했어.)

102010 @ 삼춘이 하영 혼수품 헹 와 부난에, 사진 찍은 거 닮아.(삼촌이 많은 혼수품 해서 와 버리니까, 사진 찍은 거 같아.)

102010 #1 하영 출련 와부난.(많이 차려서 와 버리니까.)

102010 @ 와 부난.(와 버리니까.)

102010 #2 식구덜 하고 허난.(식구들 많고 하니까.)

102010 #1 도새기도 흔 칭짜리 돗 잡고 헹으네, 잔치를.(돼지도 한 층짜리 돼지 잡고 해서, 잔치를.)

102010 @ 잘 보이게.(잘 보이게.)

102010 #2 게난 족은아덜이난 경 헤 줌젠.(그러니까 작은아들이니까 그렇게 해 주고 있다고.)

102010 @ 것도 이실 거고.(것도 있을 거고.)

102010 #2 뭐 헌 말덜토 들어도 난 시집오란.(뭐 한 말들도 들어도 난 시집왔어.)

102010 #1 우터레 형덜 헹 못 헌디.(위로 형들 해서 못 했는데.)

102010 #2 못 헹. 잔치 무시거 헷수가게.(못 해서, 잔치 무엇 했습니까.)

102010 #1 족은아덜 뒈 가믄 ᄒᆞ끔 낫곡.(작은아들 돼 가면 조금 났고.)

102010 #2 잘 헴젠.(잘 하고 있다고.)

102010 #1 이 사름도 무시거 출련 오곡 헤 가난, 체멘도 잇고.(이 사람도 무엇 차려서 오고 해가니까, 체면도 있고.)

102010 @ 그러십주.(그러지요.)

102010 #1 아멩이나 잔치허지 못 허연.(아무렇게나 잔치하지 못해서.)

102010 #2 게 우리 할으부지가 애월읍에서 소문나낫수다게. 구장 아홉 해 허연양, 구장을 아홉 해 허연.(그렇게 우리 할아버지가 '애월읍'에서 소문났었습니다. 구장 아홉 해 해서요, 구장을 아홉 해 해서.)

102010 #1 중엄 홍 구장 칩이옌 허멍, 흥글어나서.('중엄' 홍 구장 집이라고 하면서, 흔들었었어.)

102010 #2 게난 아버진 일본 셔도, 할으버지가 경 홍 구장, 홍 구장, 애월면에 가도 홍 구장, 손지 무시거 헴구나 허영, 경 뭣 아니허곡, 시아바님네도 홍 구장네 집이 족은 메누리 헴서, 헴서 헹으네, 겡 동네에서도 막 허난 저 돌쩽이, 그때도 돌 깨는 사름덜이 막 ᄋᆞ라이, 간 보난으네 하르방덜, 그디 완 잔치 먹은 사름덜 멘딱 돌 깨는 하르방덜이라게. 게난 아버지 벗들인 셍이라. 벗양.(그러니까 아버진 일본 있어도, 할아버지가 그렇게 홍 구장, 홍 구장, '애월면'에 가도 홍 구장, 손자 무엇 하고 있구나 해서, 그렇게, 무엇 아니하고, 시아버님네도 홍 구장네 집에 작은며느리 하고 있어, 하고 있어 해서, 그렇게 동네에서도 마구 하니까 저 석공, 그때도 돌 깨는 사름들이 아주 여럿이, 가서 보

니까 할아버지들, 거기 와서 잔치 먹은 사람들 모두 돌 깨는 할아버지들이야. 그러니까 아버지 벗들인 모양이야, 벗요.)

102010 @ 예, 벗들게.(예, 벗들요.)

102010 #2 뚠 딘 몰르고, 문딱 돌 깨는 하르방덜게. 옛날 저 강씨 하르방네영, 누게. 이젠 보난 문딱 그 하르방덜 완 먹으멍 경. 족은아덜이난 저 홍 구장네 집이 족은아덜 풀앙, 잘 먹언. 잘 잔치 멘들안 잘 먹으크라, 잘 먹으크라. 가다가 허멍 허는 소리해도 우린 뭣도 몰르고, 그땐 마당에서덜만 먹으난양, 어느 무신 천막을 치카, 멍석 깔앙 마당이서 먹읍디다게.(다른 데는 모르고, 모두 돌 깨는 할아버지들요. 날 저 강씨 할아버지네랑, 누구. 이젠 보니까 모두 그 할아버지들 와서 먹으면서 그렇게. 작은아들이니까 저 홍 구장네 집에 작은아들 팔아서, 잘 먹었어. 잘 잔치 만들어서 잘 먹겠어, 잘 먹겠어. 가다가 하면서 하는 소리해도 우린 뭣도 모르고, 그땐 마당에서만 먹으니까요, 어느 무슨 천막을 칠까. 멍석 깔아서 마당에서 먹습디다.)

102010 #1 경 헤도.(그렇게 해도.)

102010 #2 경 헤도 눈영 비영 ᄒᆞ끔썩 그때와도 어떵사 헤신디 사진도 나오고, 저 하근 거, 먹는 것도 마당이서 어떵사 허연, 막 왕왕작작 먹으나네 초가집 헤끄만헌 집이서.(그렇게 해도 눈이랑 비랑 조금씩 그때와도 어떻게야 했는지 사진도 나오고, 저 모든 거, 먹는 것도 마당에서 어떻게야 해서, 막 왁자지껄 먹으니까 초가집 조그마한 집에서.)

102010 #1 마당 완 저 천막 쳐놘 그디서 막 손님 접대허멍 헷는디, 전인 게도양, 그추룩 허멍 먹엇는디, 우리 어릴 때 잔치헐 땐 보믄 그 통보리밥이옌 허영 잔치도, 거 밥이 두 가지, 시가지라나서. 통보리밥허고, 이 저 그냥 우시상에 밥허고, 뚜난 거. 거 통보리밥은 제일 저 아이덜허고, 그냥 제일 일반 사람덜, 겐디 그땐 허믄 거 돗궤기가 어려우난, 돗궤기 석 점허고, 거 저 수에 ᄒᆞᆫ 점허고, 둠비 ᄒᆞᆫ 점 먹곡 헹. 그것이 뭐냐 믄 조커지, 조꼭, 고고리, 조찝, 조남 꼭대기 걸로 똑똑 꺼꺼당, 그것에 다 적고지 꿰멍, 밥 우터레 꼭꼭 꿰멍, 다 이제 잔치는.(마당 와서 저 천막 쳐놓아서 거기서 막 손님 접대하면서 했는데, 전에는 그래도요, 그처럼 하면서 먹었는데, 우리 어릴 때 잔치할 때 보면 그 통보리밥이라고 해서 잔치도, 그거 밥이 두 가지, 세 가지였어. 통보리밥하고 이 저 그냥 위요상에 밥하고, 다른 거. 거 통보리밥은 제일 저 아이들하고, 그냥 제일 일반 사람들, 그런데 그땐 하면 그렇게 돼지고기가 어려우니까, 돼지고기 석 점하고, 그렇게 저 순대 한 점하고, 두부 한 점 먹고 했어. 그것이 뭐냐 하면 조이삭, 조이삭, 이삭, 조짚, 조짚 꼭대기 걸로 똑똑 꺾어다가, 그것에 다 적꼬치 꿰면서, 밥 위로 꼭꼭 꿰면서, 다 이제 잔치는.)

102010 #2 ᄒᆞᆫ 사름이 하나.(한 사람이 하나.)

102010 #1 겡 헨 먹곡, 또 그때는 어른덜은양 상, 지금은 영 놩 ᄀᆞ찌 먹으민 뒈는디, 메 상마다 상을 이제 독상 허영.(그렇게 해서 먹고, 또 그때는 어른들은요 상, 지금은 이렇게 놔서 같이 먹으면 되는데, 모든 상마다 상을 이제 독상 해서.)

102010 #2 사름마다 독상 허영.(사람마다 독상 해서.)

102010 #1 뚜로 뚜로 출령 갑디다게. 게난 집마다 겡 허난, 잔치 먹으레 가믄 상 받앙 와샤, 상 받안. 그추룩 허영 출령 헷고.(따로 따로 차려서 갑디다. 그러니까 집마다 그렇게 하니까, 잔치 먹으러 가면 상 받아서 와야, 상 받아서. 그처럼 해서 차려서 했고.)

102011 @ 경허고 신혼살림양, 어디서 협디강?(그리고 신혼살림요, 어디서 합디까?)

102011 #1 신혼살림은 아부지 물려준 그 집, 안팟거리가 셔나수다게. 안거리에는 아버지네가 살고, 우린 밧거리에 헨 이제, 거 한쪽은 쉐막이고 방 하나 싯고, 그디 족은 영 삼방 새끼 싯고.(신혼살림은 아버지 물려준 그 집, 안채와 바깥채가가 있었습니다. 안채에는 아버지네가 살고, 우린 바깥채에 해서 이제, 그렇게 한쪽은 외양간이고 방 하나 있고, 거기 작은 이렇게 삼방 작은 거 있고.)

102011 #2 밧거리에 우리 사는디.(바깥채에 우리가 사는데.)

102011 #1 거기 살아낫주게. 게난 저 창문도 열젠 ᄒᆞ믄, 요즘은 유리창인디, 유리창이 이섯수강? 종이 불랑 영 헤노믄.(거기 살았었죠. 그러니깐 저 창문도 열려고 하면 요즘은 유리창인데, 유리창이 있었습니까? 종이 발라서 이렇게 해놓으면.)

102011 @ 그때야 다 그거주마씸.(그때야 다 그거지요.)

102011 #1 눈, 눈 와가믄 거 영 가마니테기나 영, ᄒᆞ끔 비 들이치믄 헤 가믄 왁왁헌디서.(눈, 눈 와 가면 거 이렇게 가마니나 이렇게, 조금 비 들이쳐 가면 캄캄한 데서.)

102011 #2 불이 셔게? 술칵 허영 쌍은에 허믄.(불이 있어? 관솔 해서 켜서 하면.)

102011 #1 자꾸 왁왁헤도 이제, 그때는 다 호야등 쌍.(자꾸 캄캄해도 이제, 그때는 다 남포등 켜서.)

102011 #2 호야등 물로 싯지 아니허믄 어둡곡.(남포등 물로 씻지 안 하면 어둡고.)

102011 #1 어두와 가믄 등 허기가 뭐 허고.(어두워 가면 등 하기가 뭐 하고.)

102011 #2 호야 상.(남포등 사서.)

102011 #1 살림은 게 허다보난 첨 아버지네영 ᄀᆞ찌 살멍 허다 보난 이 사름이 고셍 많이 헷수다게. 업는 살림에 허다 보난 헤도.(살림은 그렇게 하다 보니깐 난 참 아버지네하고 같이 살면서 하다 보니깐 이 사람이 고셍 많이 했죠. 없는 살림에 하다 보니깐 해도.)

102011 #2 경 헤도 멧 년, 이제 우의로, 알레레 하나 나난에, 아버지네도 이제 저 상간집을 느네 안거리에 왕 살라. 우리 저 요 한질에 큰아덜네 집 밧거리에 그디. 우리 큰할망이 몹실어낫수다. 게난 그디 강 살켜 허멍예. 두 어른이 그디 완 살아부난 안거리에 그루후제 상간집이 살앙으네. 밧거린 저 보리장만, 보리장만 헤당 놓곡, 조 장만헤당 놓곡, 우리 살아난 디 그추룩 허멍 안거리 상간집이 살멍, 살아도 오래오래 살안. 오래오래 살안 아기 둘 난으네 아기 싯째 나는 디 잊어불지도 아니허여. 이제 왁왁헌 족은 구들에 영 창문, 영 종이 불른 창문덜에 이제 국이영 밥이영 구들러레, 구들문, 부억더레 가는 디도 게 무신 낭 널짝문 허영으네 영 헹 올곡 덕겅으네 허난, 구들에 불가시믄 허주마는.(그렇게 해도 몇 년, 이제 위로, 아래로 하나 나니까 아버지네도 이제 저 삼간집을 너희 안채에 와서 살라. 우리 저 요 한길에 큰아들네 집 바깥채에 거기. 우리 큰할

머니가 사납고 악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서 살겠어 하면서요. 두 어른이 거기 와서 살아 버리니까 안채에 그 후에 상간집에 살아서, 바깥채는 저 보리장만, 보리장만 해서 놓고, 조 장만해다가 놓고, 우리 살았던 데 그처럼 하면서 안채 삼간집에 살면서. 살아도 오래오래 살았어. 오래오래 살아서 아기 둘 낳아서 아기 셋째 나는 데 잊어버리지도 아니해. 이제 캄캄한 작은 방에 이렇게 창문, 이렇게 종이 바른 창문들에 이제 국이랑 밥이랑 방으로, 방문, 부엌으로 가는 데도 그렇게 무슨 나무 널쪽문 해서 이렇게 해서 여닫으면서 하니까, 방에 밝았으면 하지만.)

102011 #1 살체기문[52]도 헤서.('살체기문'도 해서.)

102011 #2 국 거려노난게, 족은 구들에 저, 아기, 저 아기 두 번채 아기영, 구들러레 국 거려가렌 허난, 이 아방[53]은 큰아기만 거념허단 보난, 두 번채 아긴 그 국에 디어 먹언. 경허고 오물랏기 알러레 데어 먹으난 어디강 구완헐 디 십니까? 어둡곡, 호얏불허곡 어디 갈 처리도 모르고, 올 처리도 모르고. 아이고, 이거, 아기 그날 아기 밤새낭 우난, 무신 지름도 데겨박, 그때 무신 그런 거.(국 떠놓으니까요, 작은 방에 저, 아기, 저 아기 두 번째 아기랑, 방으로 국 떠가라고 하니까, 이 '아방'은 큰아기만 돌보다 보니까, 두 번째 아기는 그 국에 데어 먹었어. 그리고 완전히 아래로 데어 먹으니까 어디 가서 치료할 데가 있습니까? 어둡고, 남포불하고 어디 갈 방법도 모르고, 올 방법도 모르고. 아이고, 이거, 아기 그날 아기 밤새도록 우니까, 무슨 기름도 발라보고, 그때 무슨 그런 거.)

102011 #1 뭰장도 불르멍.(된장도 바르면서.)

102011 #2 지름 불르곡, 무신 아무것도 헐 충 몰르난에, 지름 불라가난 더 와싹허연, 와싹헌 걸 몰랑, 밤 새낭 호얏불이 싯카, 뭣 허영. 게난 뒷날은 누게 말이 도립병원에 가렌. 도립병원엔 어떵 허영 가집니까? 그때 한질에 가난 무신 차, 저 이제 ᄀᆞ뜨믄 짐차, 화물차, 그거 허연 재게 가젠 허난, 버스도 싯젠은 헤도 버스 탈 처릴 몰르곡, 게난 그 차에 누게 붓더으네, 저 용흥 사름 손 들런 막 이제 우리 아는 사름 막 살려줍센 허난, 무사, 무사 허난, 아기 데 먹언 도립병원에 감젠 허난, 이제 도립병원에 가나네, 그디 가난 약 불라주고 무신 앙까징기 헤 주난, 도립병원인 어디레 간 처린 알아, 그디 가나네 누게 그디 간 누게고라 어떤 할망고라 들으난 에에, 아기 데 먹은 거믄 저 춤지름 볼르곡 저 무시거, 갯낭썹 ᄲᅡ상 체메민 뭴 건디 헤도, 아이구 이디 온 거 아멩 헤도 아방이 약 불랑 가젠 허연, 병원장신디 가나네, 양, 삼춘 이거 저 자기 불찰입니다. 경 허멍 불란 올 땐 경헤도 저 도립병원이, 아니 이젠 보난 관덕청이라. 그땐 관덕청을 무시거옌 ᄀᆞᆯ아나서. 게난 그디 ᄂᆞ려와근에 걸언 완에, 버스 타멍 헤 난. 버스 탄에 집이 왕은에 오멍 헤도 그때 병원에 가나도 밤새낭 업언 살안. 불은 호얏불, 지름이 셔사 불도 싸질 거난, 지름이 어시민 사레 가집니까? 못 사레 간. 불간 가사 지름도 사고, 겐 사레 가젠 허민 돈 앚졍 가사, 천 원. 그추룩 헹, 허연 도립병원에 멧 번, 저 흔 사흘 가 와도 좋지 아니허연. 이젠 막 그디 똥고냥이영 막 이디 아래영 문딱 데 부난 문딱 헤싸젼에

52) '살체기문'은 짐승이 못 들어가게 나무로 엮어서 만든 문이다.
53) '아방'은 아버지인데, 여기서는 남편을 뜻한다.

헤가난, 이제 그 쯩시에 창오지 덕엉 헤봐도 안 뒈곡, 무시거 저 무신, 낭 ᄲᅥ산 그 사름 곧는 것 ᄲᅥ산 헤도 안 뒈난게. 한질이 베릿장[54] 어멍이옌 허연, 점방에 저 양면골지, 양면골지 사당 덕으젠, 사당 덕으젠 한질에 가난 베릿장 어멍이 이제 영영 헤낫수덴. 날은 어두와가고 쉐지름 ᄒᆞ끔 산 놔 두고, 아이고 영 헤낫수덴. 아이고, 그거 경 허지 말앙 강 ᄃᆞᆯ헌 물, 사끄랑ᄒᆞᆫ 물, 사끄랑ᄒᆞᆫ 물이나 설탕물이나 허영, 아기 일렁 그레. 경 허멍 양면골지 하나 풀아주고. 삭가링이영 설탕ᄀᆞ를이영 줍디다. 돈은 어스난 게난 닐랑 왕 ᄃᆞ라. 거 어전 완 그날 처냑 삭가링이영 허연 남박에 헨 칸에, 그 아길양, 것도 아깁디다게. 일로 ᄆᆞᆫ들락기 데난 밥 먹을 생각이랑 말앙, 게난 큰 아긴 완 할망신디 멧겨두고, 할망신디 ᄃᆞᆯ아다둰, 아이 영 심어간 시에 가노렌 헤노난, 그 할망은 재게 안 왐젠 욕해도, 이제 그 베릿장네 집이 양면 골지 사레 가난, 양면 골지도 그냥 주고, 애기 우리 손지도 그때 저 무신 불에, 저 무신 불에 난로가 아니고, 그때 저 무시거, 흑으로 멘든 거 뭣고? 저 그걸로 헨 데 먹어그네 영영 헷져. 겐 설탕허고 저 무신거 삭가링허고 쥔게 오랑은에 카근에, 영 헹 들어앚지렌. 게난에 들어앚지렌, 들어앚지난양, 그날 저냑에 쑥 헨 게, 아기가. 쑥 허난, 그 데 먹으난 ᄆᆞᆫ딱 헤싸젼, 가죽 헤싸젼 잘잘잘 헨. 잘잘잘 헨 양, 불은 왁왁허고, 업언만 살멍, 살멍 허단 이제, 그때 전기시설은 완 다 헤 논 때라. 우리 생각에 그때양, 다 이디 완 초집이도 ᄆᆞᆫ딱 무신거 전기시설은 다 헤 놘. 수도물은 ᄒᆞᆫ 메칠 전이 ᄆᆞ녀 ᄆᆞ을에 오고, 겐 전기시설은 이제 나중, 그때 헹 설탕물에 헹 똥고냥도 쑥, 준등 아래에도 쑥 허연, 이제 쑥 허연 ᄒᆞ끔 잔, 이제 뒷날은 도립병원이 가젠 천원도 차비 얻곡 허연 이제, 경 헨 이제 저 그 후젠 아, ᄒᆞᆫ 메칠 시난, 이제 무신 불 왐젠. 불이 무신거산디양. 말쩬 보난 업언 산 당당당 호야만 닥가, 아방은 호야 닥그지 못허고, 난 아기 젯 멕이고, 아기 업곡 허난 무신거 어멍이 잘 먹어져사 젯이 나옵니께게. 무시거 잘 먹지 못허고 허난, 겐 말쩬 업언, 궨찬이 헐 때 업언 허단 보난 어떤 사름덜이 이제 무시거 등 ᄃᆞᆯ안 무시거 헴젠. 겐 말쩬 보난 전기다마양, 아, 게난양, 아기 ᄃᆞᆯ앙 뒷날은 병원에 가곡, 그 설탕물허난 쑥 헌 디, 아이 게난 불이 싸지는 거라. 아이고 지꺼젼, 아이고 지꺼지난 ᄉᆞ뭇 이런 일이 어디 신고 허연 잊어불지 아니헙니다. 가이 두 술 때 경 헤난 거. 게난 가이가 이제 마흔일곱이우다. 게난 이제 멧 년사 뒈신지 양, 그 추룩 헤낫수다. 마흔일곱마씨, 가이.(기름 바르고, 무슨 아무것도 할 줄 모르니까, 기름 발라가니까 더 와싹해서, 와싹한 걸 몰라서, 밤새도록 호롱불이 있을까, 뭣 해서. 그러니까 뒷날은 누구 말이 도립병원에 가라고. 도립병원엔 어떻게 해서 가집니까? 그때 한길에 가니까 무슨 차, 저 이제 같으면 짐차, 화물차, 그거 해서 빨리 가려고 하니까, 버스도 있다고는 해도 버스 탈 줄을 모르고, 그러니까 그 차에 누구 붙어서, 저 '용흥' 사람 손 들러서 막 이제 우리 아는 사람 마구 살려주라고 하니까, 왜, 왜 하니까, 아기 데 먹어서 도립병원에 가고 있다고 하니까, 이제 도립병원에 가니까, 거기 가니까 약 발라주고 무슨 요오드 해 주니까, 도립병원에는 어디로 가는 줄은 알아, 거기 가니까 누구 거기 간 누구더러 어떤 할머니더러 들으니까 에에, 아기가 데 먹은 거면 저 참기름 바르고 저 무엇, 누리장나무잎 빻아서 처매면 될 건인데 해도, 아이고, 여기 온 거 아무리

54) '베릿장'은 애월읍 구엄리에 당시 살았던 어머니의 별칭을 말한다.

해도 '아방'이 약 발라서 가겠다고 해서, 병원장에게 가니까, 예, 삼촌 이거 저 자기 불찰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발라서 올 땐 그래도 저 도립병원이, 아니 이젠 보니까 관덕정이야. 그땐 관덕정을 무엇이라고 말했었어. 그러니까 거기 내려와서 걸어서 와서, 버스 타면서 했어. 버스 타서 집에 와서 오면서 해도 그때 병원에 갔어도 밤새도록 업어서 살았어. 불은 호롱불, 기름이 있어야 불도 켜질 거니까, 기름이 없으면 사러 가집니까? 못 사러 갔어. 밝아 가야 기름도 사고, 그래서 사러 가려고 하면 돈 가져서 가야, 천 원. 그처럼 해서, 해서 도립병원에 몇 번, 저 한 사흘 가와도 좋지 아니했어. 이젠 마구 거기 항문이랑 마구 여기 아래랑 모두 데어 버리니까 모두 헤벌어져서 해가니까, 이제 그 쯤에 창호지 덮어서 해봐도 안 되고, 무엇 저 무슨, 나무 빻아서, 그 사람 말하는 것 빻아서 해도 안 되니까요. 한길에 '베릿장' 어머니라고 해서, 점방에 저 양면골지, 양면골지 사다가 덮으려고, 사다가 덮으려고 한길에 가니까 '베릿장' 어머니가 이제 이렇게 이렇게 했었다고. 날은 어두워 가고 소기름 조금 사서 놔 두고, 아이고 이렇게 했었다고. 아이고, 그거 그렇게 하지 말아서 가서 달콤한 물, 사카린 물, 사카린 물이나 설탕물이나 해서, 아기 일으켜서 그리로. 그렇게 하면서 양면골지 하나 팔아주고. 사카린이랑 설탕가루랑 줍디다. 돈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네일랑 와서주라. 거 가져서 와서 그날 저녁 사카린이랑 해서 나무바가지에 해서 타서, 그 아길요, 것도 아깁디다. 이리로 완전히 데니까 밥 먹을 생각이랑 말앙, 그러니까 큰아긴 와서 할머니에게 맡겨두고, 할머니에게 데려가서, 아이 이렇게 잡아가서 시에 가겠다고 하니까, 그 할머니는 빨리 안 오고 있다고 욕해도, 이제 그 '베릿장네' 집에 양면 골지 사러 가니까, 양면 골지도 그냥 주고, 애기 우리 손자도 그때 저 무슨 불에, 저 무슨 불에 난로가 아니고, 그때 저 무엇, 흙으로 만든 거 뭣고? 저 그걸로 해서 데 먹어서 이렇게이렇게 했어. 그래서 설탕하고 저 무엇 사카린하고 줬는데 와서 타서 이렇게 해서 들어앉으라고. 그러니까 들어앉으라고, 들어앉으니까요, 그날 저녁에 쑥 해서, 아기가. 쑥 해서, 그 데어 먹으니까 모두 헤벌어져서, 가죽 헤벌어져서 잘잘잘 했어. 잘잘잘 해서요, 불은 캄캄하고, 업어서만 살면서, 하다가 이제, 그때 전기시설은 와서 다 해 놓은 때야. 우리 생각에 그때요, 다 여기 와서 초가집에도 모두 무엇 전기시설은 다 해 놓았어. 수돗물은 한 며칠 전에 먼저 마을에 오고, 그래서 전기시설은 이제 나중, 그때 해서 설탕물에 해서 항문도 쑥, 허이 아래에도 쑥 해서, 이제 쑥 해서 조금 잤어, 이제 뒷날은 도립병원에 가려고 천 원도 차비 얻고 해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저 그 후에는 아, 한 며칠 있으니까, 이제 무슨 불 오고 있다고. 불이 무엇인지요. 말짼 보니까 업어서 서서 당당당 호롱만 닦아, '아방'은 호롱 닦지 못하고, 난 아기 젖 먹이고, 아기 업고 하니까 무엇 어머니가 잘 먹어야 젖이 나옵니다. 무엇 잘 먹지 못하고 하니까, 그래서 말째는 업어서, 괜찮아 할 때 업어서 하다가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제 무엇 달아서 무엇 하고 있다고. 그래서 말짼 보니까 전구요. 아, 그러니까요, 아기 데려서 뒷날은 병원에 가곡, 그 설탕물 하니까 쑥 한 데, 아니 그러니까 불이 싸지는 거야. 아이고 기꺼해서, 아이고 기꺼하니까 사뭇 이런 일이 어디 있는가 해서 잊어버리지 아니합니다. 그 아이 두 살 때 그렇게 했던 거. 그러니까 그 아이가 이제 마흔일곱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몇 년이야 됐는지요, 그처럼 했었습니다. 마흔일곱이

요, 그 아이.)

102012 @ 그다음에양, 아이덜은 어떵 뒘수가?(그다음에요, 아이들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102012 #2 아이덜 다섯 싯수다게, 다섯.(아이들 다섯 있습니다, 다섯.)

102012 @ 오남매?(오남매?)

102012 #2 예, 큰아덜은 몸이 불편허연, 몸이 불편허연. 이제 거세기 장애인센터에도 가곡, 갓다 왓다 허연, 이제 그 군인, 이디 사름 군인 살 때에 어떵 뭣이 잘못뒌 거라, 경 헨 고생 많이 헷수다게.(큰아들은 몸이 불편해서, 몸이 불편해서. 이제 거시기 장애인센터에도 가고, 갔다 왔다 해, 이제 그 군인, 여기 사람 군인 살 때에 어떻게 뭣이 잘못된 거야, 그렇게 해서 고생 많이 했습니다.)

102012 #1 여기서 저 나가 곧주. 보충역 살멍 저, 한림도 살곡, 여기도 헷는디.(여기서 저 나가 말하지. 보충역 살면서 저, '한림'도 살고, 여기도 했는데.)

102012 #2 신창[55]도 살곡.('신창도 살고.)

102012 #1 그디서도 그 보초 사멍 뭔 잘못허믄 매 맞곡 헤십주. 경 허단 헌 게 허멍 어떵, 어떵 정신 좀 장애가 생견. 경 헌 것이 허난 군대 보충역 졸업헤도 뭐 허단 보난 그럭저럭 헌 것이, 이 고생 많이 헷수다.(거기서도 그 보초 사면서 뭐 잘못하면 매 맞고 했지요. 그렇게 하다가 한 게 하면서 어떻게, 어떻게 정신 좀 장애가 생겼어. 그렇게 한 것이 하니까 군대 보충역 졸업해도 뭐 하다가 보니까 그럭저럭한 것이, 이 고생 많이 했습니다.)

102012 #2 지금도 것이 좋아지질 아니헨마씨.(지금도 것이 좋아지질 아니해요.)

102012 #1 또 족은아덜은 아까 데어 먹언 어디 저, 요양병원에 이제 잇수다.(또 작은아들은 아까 데어 먹어서 어디 저, 요양병원에 이제 있습니다.)

102012 #2 복지과 나왕은에, 이제 세 번 간 완에.(복지과 나와서, 이제 세 번 가 와서.)

102012 #1 거 뚤도 그냥 어디 저 복지과 나완으네.(그렇게 딸도 그냥 어디 저 복지과 나와서.)

102012 #2 잇수다마는.(있습니다만.)

102012 #1 저 어디 요양원에 싯고.(저 요양병원에 있고.)

102012 #2 탑동[56] 어디 헴젠.('탑동' 어디 하고 있다고.)

102012 #1 셋뚤은 어디 요 저기 가게 좀 보고, 족은뚤은 저 한림 이제 교육청에, 저 교육계에 뭐 그디.(둘째 딸은 어디 요 저기 가게 좀 보고, 작은딸은 저 '한림', 이제 교육청에, 저 교육계에 뭐 거기.)

102012 #2 그럭저럭 다.(그럭저럭 다.)

102012 #1 밥은 먹엄수다.(밥은 먹고 있습니다.)

102012 @ 게난 저 아덜 둘이고, 뚤 셋이고나양.(그러니까 저 아들 둘이고, 딸 셋이

55) '신창'은 한경면 신창리를 말한다.
56) '탑동'은 제주시 일도동 해안가에 있는 지경 이름이다.

군요.)

102013 @ 그다음에 아까도 막 골앗수다마는 시집살이 허멍 기억에 남는 것덜 ᄒᆞ끔 골아줍서.(그다음에 아까도 마구 말했습니다만 시집살이하면서 기억에 남는 것들 조금 말해주십시오.)

102013 #2 아이고, 게메, 시집살이 허멍 기억이나 뭐.(아이고, 글쎄, 시집살이하면서 기억이나 뭐.)

102013 #1 게난 나부터 먼저, 우리가 거.(그러니까 나부터 먼저, 우리가 거.)

102013 @ 시집살이 허멍이우다예.(시집살이하면서입니다.)

102013 #2 예.(예.)

102013 @ 여자 삼춘이 말해봅서.(여자 삼촌이 말해보세요.)

102013 #2 시집살이, 하하하, 에이구 게메, 시집살이옌 ᄒᆞ난 게 시부모님이, 아이들이 뭣이 잘못뒈디다게. 게난 성질이, 아이덜이 침 마칠 철이도 몰르고, 심방허영 빌 철이도 몰르고, 아기덜이 밥 아이 먹어가도, 게믄 영 헴신가, 울어가도 영 헴신가, 시장헨 우는 철이도 몰르고, 게난 ᄂᆞᆷ이 사름덜은 심방허라, 굿허라, 경 헤도 경도 몰르곡, 우린 식구가, 동셍, 형님덜이 ᄋᆞ라이우다게. 너이곡 헤노난양, 우리 시어머닌 하건 것이 엿날 노인이라서 하건 것이 ᄒᆞ끔 앞뒤 생각을 잘 못헤양, 경 헤나난 이거 족은메누리옌 헹 ᄒᆞ끔 영, ᄒᆞ끔 영 감싸근에 무신거 허지 못허난, 그런 때고 저런 때고 잘도 힘들언양, 나도 힘들엉, 아이고 이거 영 헤도 살아질 건가, 살아질 건가, 게믄 ᄒᆞ끔 뚠 메누리덜 보멍 눈치 알앙 ᄒᆞ끔 영 메누리들, ᄒᆞ끔 영 무신거 허질 못헤마씨, 어머님이. 게난 나대로만 허영 영 헹 나가젠 허민 그렇게 힘들곡 아기 울어가도 시어머님은 욕헤마씸. 거무사 울렴시? 아기덜. 아기 울렴시니? 배고프곡, 어떵 뭐 헹 못허영 헐 철인 몰랑 존셈이 ᄒᆞ끔 어서노난양, 것도 경 허난 양, 형님덜광 ᄯᅳ라가지 못허여마씨, 나가. ᄯᅳ라간 생활을 못 허여마씨. 경허곡 성님덜은 ᄯᅳ시 날 젊엇젱 어디 아기, 어디 어머님 멧겨뒁 아무디라도 가지주기 뭐. 경헤도 그것도 질 아쉽곡, 생활이 항상 무신 것이 어려와노난 뭐 첨, 잘도 힘듭디다게. 힘들엉 그자 친정어머니신 강으네 무사 완디? 무사 완디? 허믄 가그네 무사 아니우다 허믄, 친정 어머닌 배 고픈 철이 알앙 밥도 영 무시거 출령 주곡, 숙도, 보리떡도 헷당 주곡, 경 헹 헤도 그런 말 왕 곧지도 못허고, 그자 우리가 힘들어 나난 아기덜이라도 ᄒᆞ끔, 헤도 살아가믄 잘도 힘들언 ᄂᆞᆷ이 벵작 밧디양, 허영양, 벵작 밧을 느량 헷수다게. 느량 허난 무신거, 게도 그날, 그날 영 무시거 용돈이라도 나야 헐 건디 ᄂᆞᆷ이 벵작밧디 그거 애쓰게 허영 아기, 아이덜 무신거 고무신도 상 신어사, 머리도 각그레 보내사, 게난 회비도 못 내영은에 ᄂᆞᆷ이 집마다 돈 꾸레 뎅이곡양, 게도 동네사름들이 좋앙은에 돈 꾸아줭 다 살앗수다게. 우리 돈 꾸레 뎅이멍, 아기덜 경 허연, 경 허연 살앗수다.(시집살이, 하하하, 아이고 글쎄, 시집살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시부모님이, 아이들이 뭣이 잘못됩디다. 그러니까 성질이, 아이들이 침 맞힐 줄도 모르고, 무당 해서 빌 줄도 모르고, 아기들이 밥 안 먹어가도, 그러면 이렇게 하고 있는가, 울어가도 이렇게 하고 있는가, 시장해서 우는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남의 사람들은 무당 하라, 굿하라, 그렇게 해도 그렇게도 모르고, 우리는 식구가, 동생, 형님들이 여럿입니다. 넷이고

했었으니까, 우리 시어머니가 모든 것이 옛날 노인이라서 모든 것이 조금 앞뒤 생각을 잘 못해요, 그렇게 하니까 이거 작은며느리라고 해서 조금 이렇게, 조금 이렇게 감싸서 무엇 하지 못하니까, 그런 때고 저런 때고 잘도 힘들어요, 나도 힘들어서, 아이고 이거 이렇게 했어도 살아질 건가, 살아질 건가, 그러면 조금 다른 며느리들 보면서 눈치 알아서 조금 이렇게 며느리들, 조금 이렇게 무엇 하지을 못해요, 어머님이. 그러니까 나대로만 해서 이렇게 해서 나갈려고 하면 그렇게 힘들고 아기 울어가도 시어머님은 욕해요. 그거 왜 울리고 있니? 아기들. 아기 울리고 있니? 배고프고, 어떻게 뭐 해서 못 해서 할 줄 몰라서 자잘한 정이 조금 없으니까요, 그것도 그렇게 하니까요, 형님들과 따라가지 못해요, 나가. 따라가는 생활을 못 해요. 그리고 형님들은 다시 아를 젊었다고 어디 아기, 어디 어머님 맡겨둬서 아무데라도 가지지 뭐. 그래도 그것도 제일 아쉽고, 생활이 항상 무엇이 어려웠으니까 뭐 참, 잘도 힘듭디다. 힘들어서 그저 친정어머니에게 가서, 왜 왔느냐? 왜 왔느냐? 하면 가서 왜 아닙니다 하면, 친정 어머닌 배고픈 줄 알아서 밥도 이렇게 무엇 차려서 주고, 쑥도, 보리떡도 했다가 주고, 그렇게 해서 해도 그런 말 와서말하지도 못하고, 그저 우리가 힘들었으니까 아기들이라도 조금, 해도 살아가면 잘도 힘들어서 남의 병작 밭요, 해서요, 병작 밭을 늘 했습니다. 늘 하니까 무엇, 그래도 그날, 그날 이렇게 무엇 용돈이라도 나야 할 것인데, 남의 병작밭에 그거 애쓰게 해서 아기, 아이들 무엇 고무신도 사서 신어야, 머리도 깎으러 보내야, 그러니까 회비도 못 내어서 남의 집마다 돈 꾸러 다니고요, 그래도 동네 사람들이 좋아서 돈 꿔줘서 다 살았습니다. 우리 돈 꾸러 다니면서, 아기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살았습니다.)

102013 @ 다 경 허멍.(다 그렇게 하면서.)

102013 #2 그 당시 힘들게, 잘도 힘들언.(그 당시 힘들게, 잘도 힘들었어.)

102014 @ 그다음에 자식덜 결혼은 어떵 헷수가?(그다음에 자식들 결혼은 어떻게 했습니까?)

102014 #2 자식덜 결혼은 저 두 아인 집이서 허고, 서인 다 식당에 간양, 식당에서.(자식들 결혼은 저 두 아이는 집에서 하고, 셋은 다 식당에 가서요, 식당에서.)

102014 @ 제주시?(제주시?)

102014 #2 아니요, 예, 제주시도 간 허고, 제주시도 간, 두 사름은 제주시 간 풀고, 하난 뚜시 하귀 하나로마트에서 풀고 경 헷수다.(아니요, 예, 제주시도 가서 하고, 제주시도 가서, 두 사름은 제주시 가서 팔고, 하나는 다시 '하귀' 하나로마트에서 팔고 그렇게 했습니다.)

102014 @ 하귀 하나로마트면 요 근래네?('하귀' 하나로마트면 요 근래네요?)

102014 #2 예, 이게 멧 년벳기, 혼 삼 년.(예, 이게 몇 년밖에, 한 삼 년.)

102014 #1 족은아덜.(작은아들.)

102014 #2 혼 삼사 년벳기, 막 늦언 시켯수다.(한 삼사 년밖에, 아주 늦어서 시켰습니다.)

102014 #1 거의 이제 늦언, 가이도 어디 저 공부허켄 허연, 육지 올라간 서울 사는 것이, 군인 간 완 거 헌 것이 거기서 어디 저 대학교, 육지서 나완, 저 서울 간 무신 저

시험공부여, 뭣이여 허단보난 양, 시험은 안 뒈고.(거의 이제 늦어서, 그 아이도 어디 저 공부하겠다고 해서, 육지 올라가서 서울 사는 것이, 군인 갔다 와서 한 것이 거기서 어디 저 대학교, 육지서 나왔어, 저 서울 가서 무슨 저 시험공부여, 뭣이여 하다가 보니까요, 시험은 안 되고.)

102014 #2 세월은 다 가불고.(세월은 다 가버리고.)

102014 #1 세월은 막 가고, 마흔이 넘어가난, 마흔.(세월은 마구 가고, 마흔이 넘어가니까, 마흔.)

102014 #2 아니, 서른일곱에 오긴 왓주기.(아니, 서른일곱에 오기는 왔지요.)

102014 #1 완 ᄒᆞ난, 재게 오라, 느네 어머니, 아버지 늑는 철이도 몰르느냐? 하도 오렌 허난, 아이 오켄 허단 완 헌 것이. 어디 강 새각시 얼른 구헤집네깡? 요즘 담지 아니허연, 게 제우 허연 결혼시견 허난, 이 시에서, 아, 첨 하귀서 시겻고.(와서 하니까, 빨라 오라, 너희 어머니, 아버지 늙는 줄도 모르느냐? 하도 오라고 하니까, 아니 오겠다고 하다가 한 것이. 어디 가서 새색시 얼른 구해집니까? 요즘 같지 아니해서, 그렇게 겨우 해서 결혼시켜서 하니까, 이 시에서, 아, 참 '하귀'서 시켰고.)

102014 #2 하귀서 헷수다.('하귀'서 했습니다.)

102014 #1 이제 첨 손지 하난 난으네, 아들 손지 이시난.(이제 참 손자 하나 낳아서, 아들 손자 있으니까.)

102014 #2 컷수다, 문.(컸습니다, 모두.)

102014 #1 족은뚤렌 아덜.(작은딸에는 아들.)

102014 #2 족은뚤은 이디서 결혼헷수다게.(작은딸은 여기서 결혼했습니다.)

102014 #1 집이서 결혼허연.(집에서 결혼했어.)

102014 #2 가이 교육청에 신 때양, 어머니, 손님덜이 함니덴, 게난.(그 아이 교육청에 있을 때요, 어머니, 손님들이 많다고, 그러니까.)

102014 @ 응, 교육청 하주게.(응, 교육청 많지요.)

102014 #2 교육청에 신 때난 첨 아니 와본 선생님덜 우리 집이 많이 완, 한수풀[57] 어른덜 많이 와 간양, 첨 우리도 경 ᄀᆞᆫ주기, 어머니 나 때문 영광이우다. 기여게, 기여게, 뚤이라도 하나 잘 나사느네게. 게난 이제 집이서 허젠 허난 이틀 손님을 마당에 천막도 서너개 쳐 놓고, 첨 큰 잔치 흔번 허고, 큰뚤하고 족은뚤 허고 집이서 헷수다, 경 허연. 게난 이제 족은뚤도 아덜 성제에 뚤 ᄒᆞ나, 경 헨 신디, 직장덜 두 가시 뎅이는 사람덜이난, 다 그런 데로 밥만 먹엄수다. 크겐 못 살아도.(교육청에 있을 때니깐 참 아니 와본 선생님들 우리 집에 많이 왔어. '한수풀' 어른들 많이 와 갔어요, 참 우리도 그렇게 말하지요, 어머니 나 때문에 영광입니다. 그래, 그래, 딸이라도 하나 잘 낳아서.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 하려고 하니까 이틀 손님을 마당에 천막도 서너 개 쳐 놓고, 참 큰 잔치 한번 하고, 큰딸하고 작은딸하고 집에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작은딸도 아들 형제에 딸 하나, 그렇게 해서 있는데, 직장들 부부가 다니는 사람들이니까, 다 그런대로 밥만 먹고 있습니다. 크게는 못 살아도.)

57) '한수풀'은 한림읍 한림을 뜻하는 순우리말이다.

102015 @ 메누리허고 사위에 대허영 흔번 골아줍서.(며느리하고 사위에 대해서 한 번 말해주세요.)

102015 #2 메누린, 메누리허고 사우도 다 놈이라마씨. 놈이라. 아명헤봣자 메누리,뚤만이 못 하고, 뚤은 소켄 말 다 헤지곡, 나쁜 말 막 욕을 헤짐니께.(며느리는, 며느리하고 사위도 다 남이에요. 남이야. 아무리 해봐도 며느리, 딸만 못 하고, 딸은 속에 말 다 해지고, 나쁜 말 마구 욕을 해집니다.)

102015 @ 시어멍이 잘 영 해야 뭴 거 아니우꽈?(시어머니가 잘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102015 #2 에, 친어멍 친어멍 헤도 메누리신딘 뚤신디추록 못허는 겁디다, 못 허여. 게난 어떵 눈치만 봐졍 어떵 허코. 지도 나 눈치보곡, 이추룩 허영.(에, 친어머니, 친어머니 해도 며느리에게 딸에게처럼 못 하는 겁디다, 못 해. 그러니까 어떻게 눈치만 봐져서 어떻게 할까. 자기도 나 눈치 보고, 이렇게 해서.)

102015 @ 서로 눈치 봐부럼고나.(서로 눈치 보고 있구나.)

102015 #2 예, 경 허영 이제 뚤신디 사우이도게, 사우이도 각시엔 헌 양만 헹으네. 하하하.(예, 그렇게 해서 이제 딸에게 사위에게도, 사위에게도 처라고 한 양만 해서, 하하하.)

102015 #1 사우이도, 이.(사위도, 이.)

102015 #2 사우이도 놈이라.(사위도 남이야.)

102015 @ 놈이주게.(남이지요.)

102015 #2 옛날 놈, 놈 헤도 무사 놈이옌 골암신디.(옛날 남, 남, 해도 왜 남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102015 @ 각시 눈치만 보주게.(처 눈치만 보지요.)

102015 #2 예, 각시 눈치만 봥 허나네, 각시도 나신디 골은 말 다 ᄉᆞ나이신디 아이 곧곡 허는 생입디다게. 나안티 욕들은 말도 다 아이 곧곡.(예, 처 눈치만 봐서 하니까, 처도 나에게 말한 말 다 남편에게 아니 말하고 하는 모양입디다. 나한테 욕들은 말도 다 아니 말하고.)

102015 @ 예, 안 허주게.(예, 안 하지요.)

102015 #2 예, 다 아이 곧는 생입디다.(예, 다 안 말하는 모양입니다.)

102015 @ 다 자존심.(다 자존심.)

102015 #2 예, 어머니, 엄마헌티 헌 거 다 무사 신랑에게 골음니껜게. 나 그디 간 못 헌 거 뭐 잇수겐 허멍, 경 다 아이 골읍니다.(예, 어머니, 엄마한테 한 거 다 왜 신랑에게 말하니까. 나 거기 가서 못 한 거 뭐 있습니까 하면서, 그렇게 다 아니 말합니다.)

102015 @ 요즘 여자덜은 다 잘헷젠 골아.(요즘 여자들은 다 잘했다고 말해.)

102015 #2 양?(예?)

102015 @ 다 잘헷덴 골아.(다 잘했다고 말해.)

102015 #2 다 잘 헷젠 골아. 경 헤근에.(다 잘했다고 말해. 그렇게 해서.)

102015 @ 무신거 상 오곡 허지 안 헙니까?(무엇 사서 오고 안 합니까?)

102015 #2 에이그, 상 옵니다, 하근것덜 상, 하근거.(아이고, 사서 옵니다. 여러 가지 사서, 여러 가지.)

102015 #1 게도 집이 오믄, 올 땐 요번이도 오켄 헤도. 아, 요즘 덥곡.(그래도 집에 오면, 올 땐 요번에도 오겠다고 해도. 아, 요즘 덥고.)

102015 #2 더원 이디 오지 말렌 헤십주게.(더워서 여기 오지 말라고 했습지요.)

102015 #1 ᄒᆞ끔 선선허 건 오라.(조금 서늘할 때 오라.)

102015 #2 족은뚤네도 다 오란 그디.(작은딸네도 다 와서 거기.)

102015 #1 이제 오지 아니허곡 허영.(이제 오지 아니하고 해서.)

102015 #2 어머니넨 에어콘도 엇곡, 시원헌 것도 엇다 ᄒᆞ난.(어머니네는 에어컨도 없고, 시원한 것도 없다 하니까.)

102015 #1 그땐 무신거 영 뭐 먹을 거영 영 사옵니다게.(그땐 무엇 이렇게 뭐 먹을 거랑 이렇게 사서옵니다.)

102015 #2 ᄉᆞᄉᆞᄒᆞᆫ 거 하영 헙니다게. 어머니네 건강허게 먹는 거영. 이것저것 막 요번이도 한림서 거 무시거 죽 쒓젠, 것도 ᄒᆞᆫ 박스, 오멍 퇴근헨 오멍 이레 놔둰 가고. 이제 우리 도마도 아이, 작년엔 도마도 아이 싱그곡, 오이도 안 싱그고 허난 한림 가믄 그 직원, 기능직 직원덜 막 무신것덜 그런 것덜 풀레 옵니덴, 방울도마도도 오곡 허믄, 그거 자꾸 사당 가멍, 다섯 시믄 퇴근허여예. 다섯 시 반이믄 이디 오라마씸.(사소한 거 많이 합니다. 어머니네 건강하게 먹는 거랑, 이것저것 막 요번에도 '한림'서 거 뭐 죽 쒔다고, 그것도 한 상자, 오면서 퇴근해서 오면서 이리로 놔둬서 가고. 이제 우리 토마토 아니, 작년엔 토마토 아니 심고, 오이도 안 심고 하니까 '한림' 가면 그 직원, 기능직 직원들 마구 무엇들 그런 것들 팔러 온다고, 방울토마토도 오고 하면, 그거 자꾸 사다가 가면서, 다섯 시면 퇴근해요. 다섯 시 반이면 여기 와요.)

102015 @ 한림초등학교에 잇구나.(한림초등학교에 있구나.)

102015 #2 한림고등학교에 이서마씸.(한림고등학교에 있어요.)

102015 @ 한림고?(한림고?)

102015 #2 예, 한림고등학교에 잇수다.(예, 한림고등학교에 있습니다.)

102015 @ 거기 교장 선생도 잘 아는디.(거기 교장선생님도 잘 아는데.)

102015 #2 알아마씸? 게난.(알아요? 그러니까.)

102015 #1 서무과에 거 뭐.(서무과에 거 뭐.)

102015 #2 게난 교육청에 오래 잇단 저 이젠 한라초등학교에, 아기 이만이 벤 때난 집, 그 ᄌᆞ꼿이우다. 한라초등학교 ᄌᆞ꼿이 살암수다, 부영아파트. 게난 거기 배 이만이 헌 때도 경 뎅이곡, ᄒᆞᆫ 오 년 반 한라초등학교 뎅이다네, 이젠 저 서귀포교육청에 또 가단, 가단에 차 ᄆᆞᆯ앙 뎅이는 사름이난에게 가단, 또 이제 ᄯᅳ시 한림더레 전학, 이제 일 년 넘어가난 새해 나믄 어머니, 몰라 시에 가질 건가? 간 보난 그디 선생님덜 ᄀᆞ찌 근무헤난 선생님덜 하십디덴.(그러니까 교육청에 오래 있다가 저 이젠 한라초등학교에, 아기 이만큼 밸 때 집, 그 옆입니다. 한라초등학교 옆에 살고 있습니다, 부영아파트. 그러니까 거

기 배 이만큼 할 때도 그렇게 다니고 한 오 년 반 한라초등학교에 다니다가, 이젠 저 서귀포교육청에 또 가다가, 가다가 차 운전해서 다니는 사람이라서 가다가, 또 이제 다시 '한림'으로 전학, 이제 일 년 넘어가니까 새해 나면 어머니, 몰라 시에 가질 건가? 가서 보니까 거기 선생님들같이 근무했던 선생님들 많이 있다고.)

102015 @ 예, 경 헙니다게.(예, 그렇게 합니다.)

102015 #2 하십디덴 허연 이제.(많이 있다고 해서 이제.)

102015 @ 선생덜이영 왓다 갓다 허지예.(선생님들이랑 왔다 갔다 하지요.)

102016 @ 그다음에 결혼에 대허영은에 다 곧지 못헌 말덜 잇걸랑.(그다음에 결혼에 대해서 다 말하지 못한 말들 있으면.)

102016 #2 결혼에 대허영 다 골앗주. 하하하하하.(결혼에 대해서 다 말했지. 하하하하.)

102016 @ 거난 경헤도 더 허고 싶은 말.(그러니까 그래도 더 하고 싶은 말.)

102016 #2 더 허고 싶은 말은 무신거 골을 거 잇수가? 못 살앙으네, 에이, 별말 다 쯧, 골읍서? 하하하.(더 하고 싶은 말은 무엇 말할 거 있습니까? 못 살아서, 에이, 별말을 다 쯧, 말하십시오? 하하하.)

102016 #1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102016 #2 힘들엉, 골읍셍 허믄.(힘들어서, 말하라고 하면.)

102016 #1 힘든 말만 허믄 안 뒈주게. 거 영, 저 지쁜 말도 싯곡 해야주.(힘든 말만 하면 안 되지요. 그거 이렇게, 저 기쁜 말도 있고 해야지.)

102016 #2 부끄르왕 난 못 골으크라, 부끄르왕.(부끄러워서 난 못 말하겠어, 부끄러워서.)

102016 @ 아이, 거. 누게 아무거나 게 골암시믄.(아니, 거. 누구 아무거나 그렇게 말하고 있으면.)

102016 #1 첨, 이.(참, 이.)

102016 @ 앞뒤가 엇수다게.(앞뒤가 없습니다.)

102016 #2 앞뒤 어시 골을, 부끄르왕 못 골아.(앞뒤 없이 말할, 부끄러워서 못 말해.)

102016 #1 잇수다게, 처음 결혼허연.(있습니다. 처음 결혼해서.)

102016 #2 부끄르완.(부끄러워서.)

102016 #1 허니까, 그 일본 뎅이멍 영 이젠 영 양지 서늉광 해도 그땐 첨 고와낫수다게. 스물한 살이난. 게난 저 난 놈우 밧 벵작 좀 헹 허곡 허믄, 넘어가멍 검질 메는디 허믄, 저 아긴 누게고? 영 곱닥허게 놈우 검질이나 안 멤직헌 아이가 완 맴져 허멍.(하니까, 그 일본 다니면서 이렇게 이젠 얼굴 모양과 해도 그땐 참 고왔었습니다. 스물한 살이니까, 그러니까 저 나는 남의 밭 병작 좀 해서 하고 하면, 넘어가면서 김매는 데 하면, 저 아긴 누구인고? 이렇게 곱게 남의 김이나 안 맬 것 같은 아이가 와서 매고 있어 하면서.)

102016 #2 자꾸 할망덜 그런 말 골안.(자꾸 할머니들 그런 말을 말했어.)

102016 #1 넘어가멍 봉덜 막 곧곡 허믄, 난 강 왕 그런 소도리 허멍 울멍 해도, 거 다 홀 수 엇다, 어떵 허느니.(넘어가면서 봐서들 마구 말하고 하면, 나는 가서 와서 그런 말전주 하면서 울면서 해도, 그거 다 할 수 없다, 어떻게 하니.)

102016 #2 하영 울멍 헷수다, 울멍 살안.(많이 울면서 했습니다, 울면서 살았어.)

102016 #1 자꾸 울멍 뭐 곧지 아이허곡 허믄. 달레멍 뭐 헹 살곡양. 그것이 게고 그 때는 거 테레비 이젠 나도 라디오도 어려왓수다. 집마다 라디오가 없어. 게난 라디오 하나 허젠 허믄 막 무선통신이엔 허영 막 높이 안테나 세왕, 그 무신 조립헹, 것도 전파사에 가서, 거 저 조립헹 픈는 것이, 게믄 귀레 영 들엉 라디오 듣곡 허단, 그때 나중에 이제 기념 뭐 허젠 결혼 얼마 어선 허난, 셋형님이 서울 살단 그 내려오멍 트란지스터라지오 걸 하나 사와서마씸. 기념으로 사 오난, 아 거 둘어메영 데니믄 집안에도 노믄 영 소리 나고, 동네에서 그거 들으레양.(자꾸 울면서 뭐 말하지 아니하고 하면서. 달래면서 뭐 해서 살고요. 그것이 그리고 그때는 그렇게 텔레비전 이젠 나도 라디오도 어려웠습니다. 집마다 라디오가 없어. 그러니까 라디오 하나 하려고 하면 막 무선통신이라고 해서 아주 높이 안테나 세워서, 그 무슨 조립해서, 그것도 전파사에 가서, 그렇게 저 조립해서 파는 것이, 그러면 귀로 이렇게 들어서 라디오 듣고 하다가, 그때 나중에 이제 기념 뭐 하려고 결혼 얼마 없어서 하니까, 둘째 형님이 서울 살다가 그 내려오면서 트랜지스터라디오 그것을 하나 사왔어요. 기념으로 사 오니까, 아 거 둘러메어서 다니면 집안에도 놓으면 이렇게 소리 나고, 동네에서 그거 들으러요.)

102016 #2 막 오라난. 밤이서도 막 오고.(마구 왔었어. 밤에도 마구 오고.)

102016 #1 라디오 들으레양, 그 집이 라디오 싯져 허영.(라디오 들으러요, 그 집에 라디오 있어 하면서.)

102016 #2 막 밤이서도 오고, 동네 사름.(마구 밤에도 오고, 동네 사람.)

102016 #1 멩 뎅이고 허다가, 또 이 그걸 이제 결혼 초에 얼마 안 뒌 땐디, 셋아주망이영 허난, 게믄 시에 가자 강 극장이라도 좀 구경시키게. 그땐 극장 구경이 경 어려왓수다게. 웬만허믄 시에 아이믄.(메어서 다니고 하다가, 또 이 그걸 이제 결혼 초에 얼마 안 된 때인데, 둘째 아주머니랑 하니까, 그러면 시에 가자 가서 극장이라도 좀 구경하자. 그땐 극장 구경이 그렇게 어려웠습니다. 웬만하면 시에 아니면.)

102016 @ 대단헤신게마씸, 하하.(대단했어요, 하하.)

102016 #1 극장을 못 간. 겐 그땐 어느 제일극장이던가 가서 이제 이제도 잊어불지 아니허여. 그 극장을 보는디 그 첨 연산군, 이제 보니 연산군 거 영화라마씨. 그 영화도 그 때는 저거 시네마스코프라고 해 가지고 그림이 다른 건 영 족안, 이 화면이 크고 총천연색으로 그 때는 총천연색, 그냥 흑벡이 이서나십주, 영화도. 겐 총천연색 시네마스코프로 춤 헷고, 또 그 영활 본 후제 밥 어디 간 맛존 거 사줍디다게. 두 가시가 간, 아 그날 겐 셋형님은 빨리 가켄 허연 가부난, 우리도 밥 사먹고 허연 오단 허니까.(극장을 못 갔어. 그래서 그땐 어느 제일극장이던가 가서 이제 이제도 잊어버리지 않아. 그 극장을 보는데 그 참 연산군, 이제 보니까 연산군 거 영화였어요. 그 영화도 그때는 저거 시네마스코프라고 해서 그림이 다른 건 이렇게 작아서, 이 화면이 크고 총천연색으로 그

때는 총천연색, 그냥 흑백이 있었었지요, 영화도. 그건 총천연색 시네마스코프로 참 했고, 또 그 영활 본 후에 밥 어디 가서 맛 좋은 거 사줍디다. 두 부부가 가서, 아 그날 그래서 둘째 형님은 빨리 가겠다고 해서 가버리니까, 우리도 밥 사 먹고 해서 오다가 하니까.)

102016 #2 질을 일러부런.(길을 잃어버렸어.)

102016 #1 어두와 간, 날은 어둡고 헌디 버스는 그때는 아홉시나 지금은 혼 오덥 시믄 버스가 끈나마씀. 아, 거 그럭저럭 시내 어디 뎅이단 보난 시간도 엇곡, 완 보난 떠나부런. 어떰니까? 시에 이제 밤이 잘 디도 돈도 엇고, 시에 잘 디도 어디 잘 몰르고.(어두워 가서, 날은 어둡고 그런데 버스는 그때는 아홉 시나 지금은 한 여덟 시면 버스가 끝나요. 아, 그렇게 그럭저럭 시내 어디 다니다가 보니까 시간도 없고, 와서 보니까 버스가 떠나 버렸어. 어떻게 합니까? 제주시에 이제 밤에 잘 데도 돈도 없고, 시에 잘 데도 어디 잘 모르고.)

102016 #2 밤새낭 걸언, 하하.(밤새도록 걸어서, 하하.)

102016 #1 이제 걸엉 가야겟다, 허영. 거 라디오 들러메고.(이제 걸어서 가야겠다, 해서. 그렇게 라디오 둘러메고.)

102016 #2 하이고, 밤새낭.(아이고, 밤새도록.)

102016 #1 걷는 게요, 동귀[58] 저 이 지금 그 ᄃᆞ리 신 하귀[59] 내창 이염에 거기 저 이 사름네 육춘이 살아. 이제 시집간 얼마 안 간. 아, 그레 완. 밤이 그ᄭᅡ지 걸어 오난 아이고 이거, 더 밤이 못 가켜. 이디라도 강 눵 자야겟다. 그 집이 간 밤이 눵 자는 거, 그디 들어간양.(걷는 것이요, '동귀' 저 이 지금 그 다리 있는 '하귀' 냇가 옆에 거기 저 이 사람네 육촌이 살아. 이제 시집간 얼마 안 갔어. 아, 그리로 왔어. 밤에 거기까지 걸어오니까 아이고 이거, 더 밤에 못 가겠어. 여기라도 가서 눠서 자야겠다. 그 집에 가서 밤에 눠서 자는 거, 거기 들어가서요.)

102016 #2 우리 ᄉᆞ춘 성이 그디 살아낫수다게.(우리 사촌 형이 거기 살았었습니다.)

102016 #1 춤 그디 자멍 허연 뒷날 아침 걸언 완(참 거기 자면서 해서 뒷날 아침 걸어서 왔어.)

102016 #2 걸언 ᄯᅳ시 엄쟁이[60]ᄭᅡ지 오고.(걸어서 다시 '엄쟁이'까지 오고.)

102016 #1 추억이 그거는 잊어불지 아니헤져마씨. 영화 본 거허고, 그 걸언, 신혼 때난 걸언 와나서.(추억이 그거는 잊어버리지 아니해져요. 영화 본 것하고, 그 걸어서, 신혼 때니까 걸어서 왔었어.)

102016 #2 이제 걸믄, 걸으렌 허믄.(이제 걸면, 걸으라고 하면.)

102016 #1 그때 밤은 왁왁 어둡지, 뭐 이젠 차도 막 뎅이는디 차도 그땐 어섯고, 밤질, 첨 귀신이나 남직헌 때 걸언 와난. 기억이 이제도 잊어불지아니허여마씨.(그때 밤은 캄캄 어둡지, 뭐 이젠 차도 마구 다니는데 차도 그때는 없었고, 밤길, 참 귀신이나 날 것 같을 때 걸어서 왔었어. 기억이 이제도 잊어버리지 아니해요.)

---

58) '동귀'는 애월읍 하귀1리를 말한다.
59) '하귀'는 애월읍 하귀2리를 말한다.
60) '엄쟁이'는 애월읍 구엄, 중엄, 신엄리를 일컫는다.

3. 밭일

103001 @ 오늘은양, 그 밧일에 대허영 물어보쿠다. 밧일양, 밧일은 어떤 것들 잇수강?(오늘은요, 그 밭일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밭일요, 밭일은 어떤 것들 있습니까?)

103001 #1 밧일 허게 뒈믄 옛날 이제 보리 갈곡, 조 보리 그르에.(밭일 하게 되면 옛날 이제 보리 갈고, 조 보리 갈았던 곳에.)

103001 @ 예.(예.)

103001 #1 조 이제, 조 볼리곡 헤낫는디, 밧일허믄 우선 요즘은 하근 원예작물을 막 헤부난 조, 보리를 덜 헙니다게. 이 덜 허는디. 전이 먹을 걸로 해가지고 조 볼렁 끈나믄 이 보리 끄르에 다시 조 가는디, 조도 게우다게. 마갇이[61]라고 헤 가지고양, 이 ᄉᆞ방엔 흑이양, 춤질 왓 뒈가지고 그냥 그걸 잘 갈지 아이허믄 씨가 사질 아이헙주게. 씨 사도 허곡 허난. 여기선 그초록 헹, 마가지라 허믄, 마 끗데 이제 곧 거 날짜 영 봐 가지고, 겐 아, 이젠 마가 가, 이딘 마가 가믄 마 갓넨 허지 아니헙니까? 제주도는양, 남풍 불고 막 마ᄇᆞ름 불어가믄, 마가 거쳐가믄 그때 영 기회 봉으네 마가지를 헙주게. 게믄 어떠냐 허믄 조 허게 되믄, 이제 우선 초불 갈아놩 쟁기로 갈아놩 다음은.(조 이제, 조 밟고 했었는데, 밭일하면 우선 요즘은 모든 원예작물을 마구 해버리니까 조, 보리를 덜 합니다. 이 덜 하는데, 전에 먹을 걸로 해 가지고 조 밟아서 끝나면 이 보리 갈았던 곳에 다시 조 가는데, 조도 그거입니다. '마갇이'라고 해 가지고요, 이 사방엔 흙이요, 질 흙 밭 돼서 그냥 그걸 잘 갈지 안 하면 씨가 서지를 아니하지요. 씨 사도 하고 하니까. 여기서는 그처럼 해서, '마갇이'라 하면, 장마 끝에 이제 곧 거 날짜 이렇게 봐서, 그래서 아, 이제는 장마가 가, 여기는 장마가 가면 장마가 갔다고 하지 아니합니까? 제주도는요, 남풍 불고 마구 마파람 불어가면, 장마가 걷어 가면 그때 이렇게 기회 봐서 '마갇이'를 하지요. 그러면 어떠냐 하면 조 하게 되면, 이제 우선 애벌 갈아놔서 쟁기로 갈아놔서 다음은.)

103001 @ 거난양, 그 밧일 허민 보리허고 그다음은.(그러니까요, 그 밭일 하면 보리하고 그다음은.)

103001 #1 보리허고.(보리하고.)

103001 @ 종류만 일단 말헙서.(종류만 일단 말하십시오.)

103001 #1 조허고, 콩도 갈고, 풋도 가는디, 콩은 이제 또 유월절이 잇수다게. 절 재게 갈믄 그것이 이제 낭만 나불어. 게믄 열매가 적읍주게. 게믄 절.(조하고, 콩도 갈고, 팥도 가는데, 콩은 이제 또 유월절이 있습니다. 절기 빨리 갈면 그것이 이제 나무만 나버려. 그러면 열매가 작지요. 그러면 절기.)

103001 #2 잘 올질 아니허영.(잘 열지 아니해서.)

103001 #1 예, 잘 올질 아니허여. 절이믄 이제 절기 저 소서, 유월절이라고 헤 가지

61) '마갇이'는 장마 시기가 지난 뒤에 파종하는 조 농사 따위이다.

고 절기 때 이제 기준헹 콩을 갈믄 낭도 얼마 안 크고 열매만 다닥다닥 허는디, 그 전에 갈믄 여기서 그냥 뭐 게곡, 또 비료 ᄀᆞ튼 거 굽 비료를 ᄒᆞ나토 아니허여마씨. 거 헷당으네 낭만 커불믄 콩은 안 뒈곡.(예, 잘 열지 아니해서. 절이면 이제 절기 저 소서, 유월절이라고 해 가지고 절기 때 이제 기준해서 콩을 갈면 나무도 얼마 안 크고 열매만 다닥다닥 하는데, 그전에 갈면 여기서 그냥 뭐 그러고, 또 비료 같은 거 밑 비료를 하나도 아니해요. 그거 했다가 나무만 커버리면 콩은 안 되고.)

103001 @ 산듸, 산듸는 안 헤봅디가?(밭벼, 밭벼는 안 해봤습니까?)

103001 #1 산듸 헙니다. 산듸도 이제 헹 허믄 옛날 우리 아버지네 살 때 늘 산듸 헷수다게.(밭벼 합니다. 밭벼도 이제 해서 하면 옛날 우리 아버지네 살 때 늘 밭벼 했습니다.)

103001 @ 나록은마씨.(벼는요.)

103001 #1 나록은.(벼는.)

103001 #2 나록도 허고.(벼도 하고.)

103001 #1 나록은 이제, 이디서 보리 ᄋᆞ물아 갈 때 메종이엔 허영으네 논에, 수답에 잘 골랏당, 그 씨를 메종 놧당 이제 걸 싱겅, 이식헹 논더레 싱거사 허는디, 메종 노첸 허믄 여기서는 걸름을양, 풀걸름을 헙디다게. 여기서 풀걸름이 뭐냐 허믄 저슬살이 ᄀᆞ뜬 거 비어당 이제 작두로 썰엉 미릿 논 골라놩 그레 물에 ᄃᆞᆼ가마씨. 그레 꽉 헤노믄 그것이 ᄒᆞᆫ 열흘 뒈가믄 썩읍니다게. 썩어가믄 그레 나룩씨를 미리 컷당, 물에 컷당, ᄒᆞᆫ ᄒᆞ를 쯤 컷당 건졍으네 나룩 헐 때, 나도 나룩을 헤나난.(벼는 이제, 여기서 보리 여물어 갈 때 모종이라고 해서 논에, 논에 잘 골랐다가, 그 씨를 모종 놨다가 심어서, 이식해서 논에 심어야 하는데, 모종 놓으려고 하면 여기서는 거름을요, 풀 거름을 합디다. 여기서 풀 거름이 뭐냐 하면 겨우살이 같은 거 베어다가 이제 작두로 썰어서 미리 논 골라놔서 그리로 물에 담가요. 그리로 꽉 해놓으면 그것이 한 열흘 돼 가면 썩습니다. 썩어 가면 거기 볍씨를 미리 담갔다가, 물에 담갔다가, 한 하루쯤 담갔다가 건져, 건져서 벼 할 때, 나도 벼를 했었으니까.)

103001 @ 나룩허고양, 그다음에 저 뭐는? 감저.(벼하고요, 그다음에 저 뭐는? 고구마.)

103001 #1 감자도, 나도.(고구마도, 나도.)

103001 #2 하영 싱거낫수다.(많이 심었었습니다.)

103001 #1 주로 나도 하영 싱거낫수다마는.(주로 나도 많이 심었었습니다만.)

103001 @ 감저양, 뺏데기, 뺏데기 허영.(고구마요, 고지, 고지를 해서.)

103001 #1 아니, 아니. 것 전분 공장에.(아니, 아니. 그것 전분 공장에.)

103001 @ 물감저로.(물고구마로.)

103001 #2 전분 공장 시난.(전분 공장 있으니까.)

103001 #1 게믄 감제도 메종 놧당 저걸 이제 싱거사 허는디 ᄒᆞᆫ 천 펭 이상 싱그젠 허믄 하영 메종을 놔야 헙주게.(그러면 고구마도 모종 놨다가 저걸 이제 심어야 하는데, 한 천 평 이상 심으려고 하면 많이 모종을 놔야 하지요.)

103001 @ 수박도 헤 보고양?(수박도 해 보고요?)
103001 #1 예, 수박.(예, 수박.)
103001 @ 그다음에 츰웨?(그다음에 참외?)
103001 #1 츰웨도 헤나고.(참외도 했었고.)
103001 #2 츰웨도 해 보고.(참외도 했었고.)
103001 @ 고치?(고추?)
103001 #2 고치도 헤나고.(고추도 했었고.)
103001 @ 다 헤낫고나양.(다 했었구나예.)
103001 #2 예, 다 헷수다.(예, 다 했습니다.)
103001 @ 지실도 헤 보고?(감자도 해 보고?)
103001 #2 아이, 지슬은 안 헷수다.(아니, 감자는 안 했습니다.)
103001 #1 무사 혼번, 농촌 저 진흥원에서 씨 조은 거옌 허연 그거 이제 혼번 해 보도록 허난, 그거 씨를 진흥원에서 권장허는 거, 일본 씨옌 허연 간 받아당은에 허난 어디 저장헐 디가 싯수강? 이제 고구마 저장고옌 허영양, 저 여기는 이제도 잇수다. 저 절간, 으 혼 펜이 신디, 땅굴 파서 그 안네 딱 허게 온도조절기 놔가지고, 저 감제, 여기서 감제옌 허믄 고구마를 얘기허는 겁주게.(왜 한번, 농촌 저 진흥원에서 씨 좋은 거라고 해서 그거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하니까, 그거 씨를 진흥원에서 권장하는 거, 일본 씨라고 해서 가서 받아다가 하니까 어디 저장할 데가 있습니까? 이제 고구마 저장고라고 해서요, 저 여기는 이제도 있습니다. 저 말린 고구마, 요 한 편에 있는데, 땅굴 파서 그 안에 딱 하게 온도조절기 놔서, 저 고구마, 여기서 '감제'라고 하면 고구마를 얘기하는 거지요.)
103001 @ 예, 감저는 고구마.(예, '감저'는 고구마.)
103001 #1 지슬은 이제 그냥 지슬이난, 감자가 지슬인데.(감자는 이제 그냥 감자이니까, 감자가 '지슬'인데.)
103001 @ 예, 그냥 ᄆᆞ멀도 해봅디가?(예, 그냥 메밀 해봤습니까?)
103001 #1 ᄆᆞ멀은 이 토질에양, 이 ᄉᆞ방인 ᄆᆞ멀은 안 뒈어.(메밀은 이 토질에요, 이 사방에는 메밀은 안 되어.)
103001 #2 아이, 뒈어마씨.(아니, 돼요.)
103001 @ 담배는 어떵 허고마씨?(담배는 어떻게 하고요?)
103001 #1 담밴 옛날 아버지네 적에.(담배는 옛날 아버지네 적에.)
103001 @ 해봅디강?(해봤습니까?)
103001 #1 담배 헌 거, 담배 심부름.(담배 한 거, 담배 심부름.)
103001 @ 자세헌 건 나중에 물어보쿠다. 자세헌 건 나중에 물어보고.(자세한 거는 나중에 물어보겠습니다. 자세한 건 나중에 물어보고.)
103001 #1 예. 허고.(예, 하고.)
103001 @ 밧일 처음에 허는 것이 보리농사? (밭일 처음에 하는 것이 보리농사?)
103001 #1 예.(예.)

보리농사

103002 @ 보리농사에 대헤서 물어보쿠다양. 우선 그 보리농사 짓젠 허민 어떤, 무슨, 어떤 준비를 헙니까?(보리농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그 보리농사 지으려고 하면 어떤, 무슨, 어떤 준비를 합니까?)

103002 #1 첫째양, 보리농사 허젠 허믄, 것도 큰 농사난 먹고 살젠 허민 보리허곡 조, 허허, 이디서 일년에 두 번 헹 걸 먹는디.(첫째요, 보리농사 하려고 하면, 그것도 큰 농사니까 먹고 살려고 하면 보리하고 조, 허허, 여기서 일 년에 두 번 해서 그것을 먹는데.)

103002 #2 도새기걸름 시꺼 가사.(돼지거름 실어 가야.)

103002 #1 보리 허젱 허믄 도새기통시에, 그걸 걸름을 허는디, 걸름도 어떵 허냐 허믄 보리낭 자꾸 노멍, 돗은 이제 질리우왕 허믄 그 돗 똥 싸고, 오줌 싸고 헹 걸름을 막헤노믄 쉐양에 걸름도 통시레 놔마씨. 내어당 흔 둘에, 두 둘에 흔 번씩 내어당 통시에 놓곡, 또 보리낭 꼴곡 허영 거 막 허게 돗걸름 헹 통시에 헤노믄 썩엉 그걸 내쳇당양.(보리 하려고 하면 돼지우리에, 그걸 거름을 하는데, 거름도 어떻게 하느냐 하면 보릿짚 자꾸 넣으면서, 돼지는 이제 길러서 하면 그 돼지 똥 싸고 오줌 싸고 해서 거름을 마구 해 놓으면 외양간에 거름도 돼지우리로 넣어요. 내어다가 한 달에, 두 달에 한 번씩 내어다가 돼지우리에 넣고, 또 보릿짚 깔고 해서 그거 마구 하게 돼지거름 해서 돼지우리에 해놓으면 썩어서 그걸 내쳤다가요.)

103002 #2 내쳥 이제, 질 에얌더레.(내쳐서 이제, 길옆으로.)

103002 #1 딱 허게 물 빠지고 허믄.(딱 하게 물 빠지고 하면.)

103002 #2 막 내영 놔둬사.(마구 내어서 놔둬야.)

103002 #1 이제 보리 갈젠 허믄 그걸 져당.(이제 보리 갈려고 하면 그걸 져다가.)

103002 #2 골체로 내쳥.(삼태기로 내쳐서.)

103002 #1 거 골체로 내쳐 놩.(그것 삼태기로 내쳐 놔서.)

103002 #2 골체로 내쳥, 졍, 흔뻔에 어져가젠 허믄.(삼태기로 내쳐서, 져서 한꺼번에 가져가려고 하면.)

103002 #1 밧더레 져 가젱 허믄 옛날 뭐 구르마가 싯수가? 뭣 잇수가? 뭐 이 등짐벡이 어시난.(밭으로 져 가려고 하면 옛날 뭐 마차가 있습니까? 뭐 있습니까? 뭐 이 등짐밖에 없으니까.)

103002 #2 게난 이제.(그러니까 이제.)

103002 @ 쉐로 헷주.(소로 했지.)

103002 #1 배, 쉐 헹, 쉐질메 헹.(참바, 소 해서, 소길마 해서.)

103002 @ 쉐질메.(소길마.)

103002 #1 양 펜이 네 개 시끄곡, 지곡 헹은에.(양 편에 네 개 싣고, 지고 해서.)

103002 #2 우리 져 강.(우리 져 가서.)

103002 #1 밧디 강.(밭에 가서.)

103002 @ 아, 거난 처음에, 저 돗통에 이신.(아, 그러니까 처음에, 저 돼지우리에 있는.)

103002 #2 돗통에 걸름을.(돼지우리에 거름을.)

103002 #1 걸름을.(거름을.)

103002 @ 그 걸름을 내영은에 씨 삐영은에 거 붋아야 뭴 거 아니우꽈?(그 거름을 내어서 씨 뿌려서 거 밟아야 될 거 아닙니까?)

103002 #2 아니, 게난 건 말쩨고. 마당 이염더레, 질 이염더레 ᄒᆞ끔 영 질러레 도새기 똥을 막 ᄀᆞᆯ체로 날랑은에 그레 헹 데명, 영 헹 데명 놔뒷당 ᄒᆞ끔.(아니, 그러니까 건 말째고. 마당 옆으로, 길옆으로 조금 이렇게 길로 돼지 똥을 마구 삼태기로 날라서 그리로 해서 쌓아서, 이렇게 해서 쌓아서 놔뒀다가 조금.)

103002 #1 물 빠지곡.(물 빠지고.)

103002 #2 썩으믄 이젠, 또 그 놈을 쉐에, 쉐덜 빌엉, 동네 쉐덜 수눌엉, 느네 집이 강 ᄒᆞ를 허민, 우리 집이 강 ᄒᆞ를 허게 허여근에, 수눌엉, 쉐에 이제 짐, 짐에 저 이제도 우리 집이도 이서, 창고에. 게난 이제 등짐 헐 것 뭣고.(썩으면 이제는, 또 그 놈을 소에, 소들 품앗이해서, 동네 소들 품앗이해서, 너희 집에 가서 하루 하면, 우리 집에 가서 하루 하게 해서, 품앗이해서. 소에 이제 짐, 짐에 저 이제 우리 집에도 있어, 창고에. 그러니깐 이제 등짐 할 것 뭤고.)

103002 #1 걸름착 허영.('걸름착' 해서.)

103002 #2 걸름착[62] 아니고 영, 무시거 쉐질메, 쉐질메옌 허믄, 양 펜이 영 허믄, 걸름착 두 개가 영 시꺼져. 게믄 쉐들 수눌엉 허믄 쉐 시 개로 헹은에 몰앙은에 저 두에기[63] 저 웃드르[64] 밧디 시꺼 강, 게난 그건 ᄒᆞ를에 헤도 다 못 허여. 영 군데 군데 놧당, 뒷날은 ᄯᅳ시 이제 아 그걸 강 ᄒᆞ를에 다 못 시꺼 강 놔뒷당, 뒷날은 또 우리 쉐로만 허영, 수눌음 아니허영 그 쉐랑 가불렝허영은에, 이젠 우리 쉐로만 허영은에, 그때 쉐도 잘 멕이지 아니허믄 가당은에 어떤 건 어퍼져불곡 허나네 어떤 쉐도 ᄆᆞ음씨 존 쉐를 헤지믄 허곡, 게 아니믄 ᄆᆞᆫ 질메도, 질메도 ᄆᆞᆫ 꺼꺼불곡, 걸름도 가당 ᄆᆞᆫ 어퍼불곡, 경 헤도 어떵 어떵 달래여근에 허믄, 제우 나 그 옵집이 쉐 빌언 허멍 허연. 이제 거져 다 노믄, 게난.('걸름착' 아니고 이렇게, 무엇 소길마, 소길마라고 하면, 양편에 이렇게 하면, '걸름착' 두 개가 이렇게 실어져. 그러면 소들 품앗이해서 하면 소 세 개로 해서 몰아서 저 '두에기' 저 '웃드르' 밭에 실어 가서, 그러니까 그건 하루에 해도 다 못 해. 이렇게 군데 군데 놨다가, 뒷날은 다시 이제 아 그걸 가서 하루에 다 못 실어가서 놔뒀다가, 뒷날은 또 우리 소로만 해서 품앗이 아니해서 그 소랑 가버리라고 해서, 이젠 우리 소로만 해서, 그때 소도 잘 먹이지 아니하면 가다가 어떤 건 엎어져 버리고 하니까, 어떤 소도 마음씨 좋은 소를 해지면 하고, 게 아니면 모두 길마도, 길마도 모두 꺾어버리고, 거름도 가다가 모두 엎어버리고, 그렇게 해도 어떻게 어떻게 달래서 하면, 겨우

62) '걸름착'은 퇴비 따위의 거름을 담고서 나르는 멱둥구미이다.
63) '두에기'는 제주시 애월읍 구엄리에 위치한 지명 이름이다.
64) '웃드르'는 한라산이 있는 마을이나 들판을 말하며, 벽지(僻地) 근처의 들이다.

나 그 옆집에 소 빌려서 하면서 했어. 이제 가져다 놓으면, 그러니까.)

103002 #1 옛날은 그때 비료도 엇고, 비료가 어섯수다. 비료 나오질 아니허난 우선 걸름허고 이제 또.(옛날은 그때 비료도 없고, 비료가 없었습니다. 비료 나오지를 아니하니까 우선 거름하고 이제 또.)

103002 #2 걸름을 막 뿌령 뒷날은.(거름을 마구 뿌려서 뒷날은.)

103002 #1 오좀도 이 오좀항에.(오줌도 이 오줌독에.)

103002 @ 게난 밧 갈기 전이.(그러니깐 밭 갈기 전에.)

103002 #2 갈기 전이, 그걸.(갈기 전에, 그걸.)

103002 @ 걸름 뿌려?(거름 뿌려?)

103002 #2 예, 걸름을 뿌려 놩.(예, 거름을 뿌려 놔서.)

103002 @ 그 밧 갈앙.(그 밭 갈아서.)

103002 #2 걸름을 뿌려놩, 이제 다 뿌려지믄 뒷날은 이제 쉘 이제 쉐를, 쉐도 배 불어사 밧 가는 따문에 쉐죽 쒀사, 쉐죽. 도고리 헹 쉐죽 쒀그니 잘 멕영, 밤이 ᄎᆞ자강 멕영 보리씨 물 컷당 졍 가사, 졍 가근에 이제 그거 뿌령, 걸름 우터레 뿌려.(거름을 뿌려 놔, 이제 다 뿌려지면 뒷날은 이제 소를 이제 소를, 소도 배 불어야 밭 가는 때문에 소죽 쒀야, 소죽. 함지박 해서 소죽 쒀서 잘 먹여서, 밤에 찾아가서 먹여서 보리씨 물 담갔다가 져서 가야, 져 가서 이제 그것을 뿌려, 거름 위에 뿌려.)

103002 @ 물 컷당은에.(물 담갔다가.)

103002 #2 으, 물컷당, 게사 재게 나곡게, 재게 나렌 경 허연. 어떵사 헤저신디 경 물 커, 경허난 그걸 졍 강은에 거 뿌령, 뿌령으네, 쉐로, 쉐로 갈아, 갈믄 쉐도 뚜시 낮 뒈 가민 강은에 저 우트레 강 촐, 풀 비어당 쉐멕이곡.(으, 물 담갔다가, 그래야 빨리 나고요, 빨리 나라고 그렇게 했어. 어떻게야 해졌는지 그렇게 물 담가, 그러니까 그걸 져 가서 그거 뿌려서, 소로, 소로 갈아, 갈면 소도 다시 낮 돼 가면 가서 저 위로 가서 꼴, 풀 베어다가 소먹이고.)

103002 @ 그다음에 섬비, 섬비로 끄습니까?(그다음에 끙게, 끙게로 끕니까?)

103002 #2 섬피로 아이 끗는 사름도 싯고, 다시 뚜랑 아이 끄서.(끙게로 아니 끄는 사람도 있고, 다시 따라서 아니 끌어.)

103002 @ 그냥 밧만 갈앙 내불어?(그냥 밭만 갈아서 내버려?)

103002 #2 질왓[65]디 잘 갈아지는 밧은 그냥 내불곡, 웃드르에 빌레밧[66]들은 돌 놩 허는 디 끄서사. 야티 잘 못 갈앙, 쉐가.('질왓'에 잘 갈아지는 밭은 그냥 내버리고, '웃드르'에 '빌레밧'들은 돌 놔서 하는데 끌어야. 얕게 잘 못 갈아서, 소가.)

103002 @ 게 섬비 우에 돌 놩은에 영 끄서야.(그렇게 끙게 위에 돌 놓아서 이렇게 끌어야.)

103002 #2 경 헹 끗어도 나고.(그렇게 해서 끌었었고.)

103002 #1 해벤 밧은 갈기가 저.(해변 밭은 갈기가 저.)

---

65) '질왓'은 돌멩이가 없고 맨흙이 깔려 있는 밭이다.

66) '빌레밧'은 지면(地面) 또는 땅에 넓적하고 평평하게 묻힌 돌이 있는 밭이다.

103002 #2 경 헤나서.(그렇게 했었어.)

103002 #1 돌이 어스난 갈기가 부드러왕 가는디, 저 한질 우트레 가믄 멘 자갈, 아래 뭐도 싯곡 헤노믄 그거 이제 그냥 씨 뿌려도 잘 안 뒈난양.(돌이 없으니까 갈기가 부드러워서 가는데, 저 한길 위로 가면 맨 자갈, 아래 뭐도 있고 해놓으면 그거 이제 그냥 씨 뿌려도 잘 안 되니까요.)

103002 #2 자갈이곡 돌이곡 허난, 건 뜨시.(자갈이고 돌이고 하니까, 건 다시.)

103002 #1 보리씨를 묻엉 경 헹은에 골체로 허덱이곡 이러저럭 허멍.(보리씨를 묻어서 그렇게 해서 삼태기로 허적이고 이럭저럭 하면서.)

103002 #2 막 심들엇주게.(아주 힘들었지요.)

103002 @ 겡 이제 그냥 쉐로 갈아놩, 또 이제 섬피로 우이로 막 끄성 놔둬마씨. 겡 허믄 이제 겨울 들어가믄 나.(그렇게 이제 그냥 소로 갈아놔서, 또 이제 끙게로 위로 마구 끌어서 놔둬요. 그렇게 하면 이제 겨울 들어가면 나.)

103002 #2 갈앙 와, 갈앙 와근에.(갈아서 와, 갈아서 와서.)

103003 @ 아까 물어 본 건디 보리밧 걸름양, 어떵 마련허는지 한번 더 골아줍서.(아까 물어 본 것인데 보리밭 거름요, 어떻게 마련하는지 한번 더 말해주십시오.)

103003 #1 보리에.(보리에.)

103003 #2 도새기, 도새기, 통시에 걸름 내쳥, 그디 보리낭 놓곡, 짓 주곡, 도새기 짓 주곡.(돼지, 돼지, 돼지우리에 거름 내쳐서, 거기 보릿짚 넣고, 깃 주고, 돼지 깃 주고.)

103003 #1 쉐허고.(소하고.)

103003 #2 쉐걸름도 그레 것다 놩은에.(쇠두엄도 그리 가져다 넣어서.)

103003 #1 거자 이 쉐 어슨 집이 어십주게. 보리농사 짓젠 허믄 다 쉐 한 ᄆᆞ리썩 두 ᄆᆞ리썩 질루는디, 쉐걸름, 이제 거 촐 헤당은에, 겨울에 집이 메멍, 그 겨울엔 어디, 여기서는 노을 디가 엇수다. 게난 배 메영 쉐양에 촐 썰어주곡 허영, 먹엉 헤 노믄 그레 똥, 오줌 싸곡 헤노믄 쉐가 막 질어마씨. 그추룩 허믄 이제 보리낭 빠당, 보리낭에양 미릇, 집마다 보리허믄, 집마다 보릿낭 흔 눌 눌엇당은에 자꾸 빠멍 쉐 짓 줭.(그저 이 소 없는 집이 없지요. 보리농사 지으려고 하면 다 소 한 마리씩 두 마리씩 기르는데, 쇠두엄, 이제 거 꼴 해다가, 겨울에 집에 매면서, 그 겨울엔 어디, 여기서는 놓을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바 매여서 외양간에 꼴 썰어주고 해서, 먹어서 해놓으면 그리 똥, 오줌 싸고 해놓으면 소가 막 질어요. 그처럼 하면 이제 보릿짚 빼다가, 보릿짚요 미리, 집마다 보리 하면, 집마다 보릿짚 한 가리 쌓았다가 자꾸 빼면서 소 깃 줘서.)

103003 #2 묵은 보리낭게, 엿날 거.(묵은 보릿짚요, 옛날 거.)

103003 #1 쉐 짓 줭 헤노믄, ᄉᆞ륵ᄉᆞ륵헌 디 누믄 폭헹 존디, 쉐똥 싸곡 헤노믄 걸름이 합니다게. 겐 그걸 이제 두어 둘에 흔 번썩 통시레 담아마씨. 옛날 그냥 걸.(소 깃 줘서 해놓으면, 사락사락한 데 넣으면 폭해서 좋은데, 소똥 싸고 해놓으면 거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두어 달에 한 번씩 돼지우리에 담아요. 옛날 그냥 것을.)

103003 #2 도새기 질르메, 다.(돼지 기르며, 다.)

103003 #1 도새기 질루는 데레, 통시레. 이제 걸름 내영양, 걸름 내영 그레, 통시레 놔 노믄 돗은 구정물 먹고, 오좀 싸고 똥 싸고, 그레헤 노믄, 쉐 걸름허고 돗 걸름이 ᄀᆞ치 막 뒐 거 아이우꽈?(돼지 기르는 데로, 돼지우리로. 이제 거름 내어서요, 거름 내어서 그리, 돼지우리로 넣어 놓으면 돼지는 구정물 먹고, 오줌 싸고 똥 싸고, 그리해 놓으면, 쇠두엄하고 돼지거름이 같이 막 될 거 아닙니까?)

103003 #2 막 이만이 허여마씨.(아주 이만큼 해요.)

103003 #1 이제 게믄 일 년에 ᄒᆞᆫ번 내치는디, 그때 음력 ᄒᆞᆫ 구월이나 팔월 뒈믄 그걸 미릇 내쳐마씨. 질레레 어디, 질 영 통시 욮의 영 담 헤쌍 그레 내쳥 다우멍 우터레 이제 발로 ᄇᆞᆯ르멍 헹 딱 놔두믄 더러 물 빠지곡, 물착물착헌 것이 걸름만 띠기가 좋아마씸. ᄒᆞ끔 덜 썩은 것도.(이제 그러면 일 년에 한번 내치는데, 그때 음력 한 구월이나 팔월 되면 그걸 미리 내쳐요. 길로 어디, 길 이렇게 돼지우리 옆에 이렇게 담 허물어서 그리로 내쳐서 쌓으면서 위로 이제 발로 밟으면서 해서 딱 놔두면 더러 물 빠지고, 문덕문덕한 것이 거름만 떼기가 좋아요. 조금 덜 썩은 것도.)

103003 #2 게난 이녁만 버치믄 동네 장남들.(그러니까 이녁만 부치면 동네 장정들.)

103003 #1 막 쉐덜 수눌엉양.(마구 소들 품앗이해요.)

103003 #2 수눌엉 허곡, 경 허여.(품앗이해서 하고, 그렇게 해.)

103003 #1 오널은 누구네 집, 오널은 누구네 집(오늘은 누구네 집, 오늘은 누구네 집.)

103003 #2 시꺼 가고(실어 가고.)

103003 #1 허믄 그거 막 쉐질메로 시끄멍.(하면 그거 마구 소길마로 실으면서.)

103003 #2 저 웃드리레 강.(저 '웃드리'로 가서.)

103003 @ 거난 거, 우리 동네는 쉐가, 돗걸름 내영은에. 그 어느 정도 물 빠지면, 영 둥그스럼허게 허영, 씨 뿌령, 거기서 씨 뿌령은에.(그러니까 거, 우리 동네는 소가, 돼지거름 내어서. 그 어느 정도 물 빼지면, 이렇게 둥그스름하게 해서, 씨 뿌려서, 거기서 씨 뿌려서.)

103003 #2 보리씨?(보리씨?)

103003 @ 예, 보리씨 뿌령, 막 ᄇᆞᆯ랑, 쉐로 막 ᄇᆞᆯ랑은에 이제 어느 정도 보리씨가 골고루 가면 걸 돗걸름착에 담앙 경 헤낫주마씨.(예, 보리씨 뿌려서, 마구 밟아서, 소로 마구 밟아서 이제 어느 정도 보리씨가 골고루 가면 그것을 돼지'걸름착'에 담아서 그렇게 했었지요.)

103003 #2 거 저, 메, 메 걸름. 게난 우리 동네에는, 우리 동네는 뜰려.(그렇게 저, 모, 모 거름,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는, 우리 동네는 달라.)

103003 @ 여기가 밧이 좋앗다는 거라.(여기가 밭이 좋았다는 거야.)

103003 #2 예, 밧이 좋앗수다.(예, 밭이 좋았습니다.)

103003 @ 웨냐며는 돗걸름만 실러 가근에.(왜냐하면 돼지거름만 실어 가서.)

103003 #2 예게, 돗걸름 메날, 질메 헤근에 시꺼 가(예게, 돼지거름만 만날, 길마 해서 실어 가.)

103003 #1 게난 이딘 그런 거 아니고, 지메 헹 시꺼당 걸름을 밧디 뿌렁, 다 뿌려 놩 이제 것도 보리씨 뿌렁, 우테레 삐영 쉐로 갑주게. 갈앙, 영 갈아보멍 덜 묻어진 디가 봐 지믄 섬피로 더러 ᄒᆞ꼼 끗곡.(그러니까 여기는 그런 거 아니고, 길마 해서 실어다가 거름을 밭에 뿌려서, 다 뿌려 놔서 이제 것도 보리씨 뿌려서, 위로 뿌려서 소로 갈지요. 갈아서, 이렇게 갈아보면서 덜 묻어진 데가 봐 지면 끙게로 더러 조금 끌고.)

103003 #2 경헤도 경 헹.(그래도 그렇게 해서.)

103003 @ 설피?(끙게?)

103003 #2 섬피.(끙게.)

103003 @ 섬피.(끙게.)

103003 #2 섬피게. 섬피 멘들앙, 꽝낭으로 영, 옛날 꽝낭 헤당 멩글앙.(끙게요. 끙게 만들어서, 꽝꽝나무로 이렇게, 옛날 꽝꽝나무 해다가 만들어서.)

103003 @ 꽝낭으로양.(꽝꽝나무로요.)

103003 #2 꽝낭 헹은에 묵엉은에, 뭐 끈이 셔? 무신거 셔?(꽝꽝나무 해서 묶어서, 뭐 끈이 있어? 무엇 있었습니까?)

103003 @ 예게, 우티 돌 멧 개 놓곡 허영.(예게, 위에 돌 몇 개 놓고 해서.)

103003 #2 경으네 이제.(그래서 이제.)

103003 @ 쉐로 끄섯지양? 쉐로.(소로 끌었지요? 소로.)

103003 #2 예, 쉐로도 끗곡, 쉐로 끄섯주기.(예, 소로도 끌고, 소로 끌었지요.)

103003 #1 사름도.(사람도.)

103003 #2 무사 암쉐신디 끗지 아이헤서?(왜 암소에게 끌지 아니했습니까?)

103003 @ 사름은 버청 안 뒈어.(사람은 부쳐서 안 돼.)

103002 #2 예, 암쉐는 새끼 둘곡, 경 허여.(예, 암소는 새끼 데리고, 그렇게 해.)

103003 #1 게난 쉐 딱 코, 코허영은에 가린석 헤 노믄, 쉐로 끗곡, 버청 허믄.(그러니까 소 딱 코, 코해서 고삐 해 놓으면, 소로 끌고, 부쳐서 하면.)

103003 #2 하이고, 어떵사 살아신지, 옛날 어른덜 불쌍허게 살안. 이 한질 알러레 밧 신 사름은 지게로 져 가난 덜 헷주.(아이고, 어떻게야 살았는지, 옛날 어른들 불쌍하게 살았어. 이 한길 아래로 밭 있는 사람은 지게로 져 가니까 덜 했지.)

103004 @ 보리헐 때 보린 언제 감니까?(보리할 때 보리는 언제 갑니까?)

103004 #2 시월, 시월.(시월, 시월.)

103004 #1 보리가 이 저 어디 음력, 음력.(보리가 이 저 어디 음력, 음력.)

103004 @ 거 감저 그루에 허지 아니허여?(그거는 고구마 '그루' 하지 아니합니까?)

103004 #1 감저 그루게, 게난 상강 전이 헤 나서. 상강이 이제 거 모든 건 상강 기준헤 가지고 농서를 지으난 상강 넘으믄 이 저 그냥 감제도, 이제 조나 뭐나 상강 기준 허믄 다 상강 넘으믄 이것 묵은 ᄆᆞ음이 다 뒈분 거라마씨. 어디 이슬 내렷다허믄 곡식은 벌써 ᄋᆞ물 기운이 문 뒌 거. 거난 여기 상강 기준 헹 감제도 파곡, 상강 넘엉 너무 헤가믄 컴직헤도 상강, 우리가 헤 보믄 상강 넘엉 헤 노믄 것이 저 씨로 저장헤도 잘 썩어불곡, 게난 상강 ᄉᆞ시엔 파사.(고구마 '그루'요, 그러니까 상강 전에 했었어. 상강이

이제 그렇게 모든 건 상강 기준 해 가지고 농사를 지니까 상강 넘으면 이 저 그냥 고구마도, 이제 조나 뭐나 상강 기준하면 다 상강 넘으면 이것 묵은 마음이 다 돼버린 거지요. 어디 이슬 내렸다 하면 곡식은 벌써 여물 기운이 모두 된 거. 그러니까 여기 상강 기준 해서 고구마도 파고, 상강 넘어서 너무 해가면 클 거 같아도 상강, 우리가 해 보면 상강 넘어서 해 놓으면 그것이 저 씨로 저장해도 잘 썩어버리고, 그러니까 상강 근방에는 파야.)

103004 #1 먹을 거 어시난 감제 헤사.(먹을 거 없으니까 고구마 해야.)

103004 @ 서리 내령 헹은에.(서리 내려서 해서.)

103004 #1 서리 내린 따문에 그 전에 팡, 걸 이제 고구마 저장고에 강 저장도 허고 허는디.(서리 내리기 때문에 그 전에 파서, 그것을 이제 고구마 저장고에 가서 저장도 하고 하는데.)

103004 #2 구들에, 네 개 담앙 놔 두주기. 네 개 담앙 놔둬.(방에, 네 개 담아서 놔 두지요. 네 개 담아서 놔둬.)

103004 #1 그것도 고구마 저장고에 가도양, 거 우리가 학고엔 영, 거 우리가 담안, 거 부락 전체에 이제 담안 거기서 저장을 헷는디, 관리허는 사름 주고, 그루후제 영 저장헌 것이 능금 학고에, 능금 학고에 이제.(그것도 고구마 저장고에 가도요, 그거 우리가 상자에는 이렇게, 그거 우리가 담아서, 그거 부락 전체에 이제 담아서 거기서 저장을 했는데, 관리하는 사람 주고, 그 후에는 이렇게 저장한 것이 능금 상자에, 능금 상자에 이제.)

103004 #2 네 개썩 담안.(네 개씩 담아서.)

103004 #1 담곡, 가멩이에도 담곡 헹 이런.(담고, 가마니에도 담고 해서 이런.)

103004 #2 가마니에, 감젤 하영 담안, 감제.(가마니에, 고구마를 많이 담았어. 고구마.)

103004 #1 온돌, 온돌방에 이제 거 벡장 ᄀᆞ뜬 디양, 이불 아사뒁 그레 똑 놓곡 허믄 아멩헤도 뜻시주기.(온돌, 온돌방에 이제 그거 벽장 같은데요, 이불 가져둬서 그리 똑 놓고 하면 아무래도 따뜻하지요.)

103004 @ 거난 보리는 혼 십일월달에 가는 거우다양?(그러니까 보리는 한 십일월에 가는 거네요?)

103004 #2 예, 십일월달.(예, 십일월.)

103004 @ 상강.(상강.)

103004 #1 상강 기준 헤 가지고 갈아마씨.(상강 기준 해 가지고 갈지요.)

103004 @ 예, 보리 저, 밧 갈 때, 보리밧 갈아야 뒐 거 아니우꽈? 밧 갈아야 헐 거 아니우꽈? 거 누게가 감니까?(예, 보리 저, 밭 갈 때, 보리밭 갈아야 될 거 아닙니까? 밭 갈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거 누가 갑니까?)

103004 #2 게난 이디.(그러니까 여기.)

103004 #1 나가 갈아야, 누게가 감니까? 하하.(내가 갈아야, 누가 갑니까? 하하.)

103004 #2 쉐 이제.(소 이제.)

103004 @ 놉 빌엉?(놉 빌어서?)

103004 #1 아니, 아니, 보통은 이녁만썩 허는디. 게난 이제 쉐 얘기우다. 쉐도 잘 ᄀᆞ르치젱 허믄 이디서 쉐를 질들여야 헐 거 아니우꽈? 허젠 허믄 멍에하고 첨 그 무신 댓돌이옌 헤 가지고양, 고냥 뚤랑 돌에 헤 가지고 무겁게 막.(아니, 아니, 보통은 이녁만큼씩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소 얘기입니다. 소도 잘 가르치려고 하면 여기서 소를 길들여야 할 거 아닙니까? 하려고 하면 멍에하고 참 그 무슨 댓돌이라고 해 가지고요, 구멍 뚫어서 돌에 해 가지고 무겁게 마구.)

103004 @ 맛수다게.(맞습니다.)

103004 #1 쉐를 이제 코 꿰영으네 끗곡 허는디.(소를 이제 코 꿰어서 끌고 하는데.)

103002 #2 게난 그것도 쉐 곧 사오믄 밧 갈지 못허여. 그거 거 빌엉 헤사. 동넷 하르방 빌엉 쉐 ᄀᆞ르쳐도렌 헹.(그러니깐 그것도 소 곧 사 오면 밭 갈지 못해. 그거 거 빌어서 해야. 동네 할아버지 빌어서 소 가르쳐달라고 해서.)

103004 @ 우리도 그 쉐 ᄀᆞ르치는 거.(우리도 그 소 가르치는 거.)

103004 #2 쉐 ᄀᆞ르쳥으네, 쉐 ᄀᆞ르치는 걸.(소 가르쳐서, 소 가르치는 것을.)

103004 @ 봐낫수다게.(봤었습니다.)

103004 #2 빌엉 헤사, 사온 때 곧 못 헤마씀.(빌어서 해야, 사온 때 곧 못 해요.)

103004 @ 맛수다게, 순허게 멩글아사.(맞습니다, 순하게 만들어야.)

103004 #2 예, 게난.(예 그러니까.)

103004 #1 쉐 코 꿰젼 허믄. 누게 지정헤사.(소 코 꿰려고 하면, 누구 지정해야.)

103004 #2 막걸리, 탁베기 멘들앙 멕이곡, 집이서 허영으네.(막걸리, 탁주 만들어서 먹이고, 집에서 해서.)

103004 #1 우리 어린 때, 뭐 못 허믄 그디 동네에도 게도 영.(우리 어릴 때, 뭐 못하면 거기 동네에도 그래도 이렇게.)

103004 #2 동네 하르방덜.(동네 할아버지들.)

103004 #1 심 께나 쓰곡 옛날 허는 사름덜 헹은에, 쉐 빌엉 쉐 코 꿰어 나믄 , 그날 이제 술도 멕이곡, 허허 영 헹은에.(힘 게나 쓰고 옛날 하는 사람들 해서, 소 빌어서 소 코 꿰어 나면, 그날 이제 술도 먹이고, 허허 이렇게 해서.)

103004 #2 막 게난 보리 갈젠 허믄, 탁베기 막 조 헹은에 옛날 헹 놔둬사. 술 가믄 멕이곡.(마구 그러니까 보리 갈려고 하면, 탁주 마구 조 해서 옛날 해서 놔둬야. 술 가면 먹이고.)

103004 #1 걸름헐 때 우선 저.(거름할 때 우선 저.)

103004 #2 막.(마구.)

103004 #1 보리 감주영, 저 조캄주영, 경 헷당 그걸 꺼냉 멕여야.(보리 감주랑, 저 조 감주랑, 그렇게 했다가 그걸 꺼내서 먹여야.)

103004 #2 그추룩 헌 거 안 멕이믄 사름덜 그거 멕이멍 ᄀᆞ찌 강은에.(그처럼 한 거 안 먹이면 사람들 그거 먹이면서 같이 가서.)

103004 #1 그걸 안 멕인 사름 집인 잘 아니혜줘.(그거 안 먹인 사람 집에는 잘 아니

해줘.)

103004 #2 아니허곡게, 게난(아니하고요, 그러니까.)

103004 #1 그거 먹으레 가멍, 또 일도 ᄀᆞ찌 수눌어 가멍 허곡.(그거 먹으러 가면서, 또 일도 같이 품앗이해 가면서 하고.)

103004 #2 ᄀᆞ찌 수눌어 가멍 헤낫수다게.(같이 품앗이해 가면서 했었습니다.)

103004 @ 그다음에양.(그다음에요.)

103002 #1 탁베기 좋아허영.(탁주 좋아해서.)

103005 @ 그다음에 보리씨 어떵 뿌립니까?(그다음에 보리씨 어떻게 뿌립니까?)

103005 #2 보리씬 멩텡이에 담앙게, 멩텡이에.(보리씨는 망태기에 담아서요, 망태기에.)

103005 @ 멩텡이에 담앙은에.(망태기에 담아서.)

103005 #1 그냥 저 물 컷당.(그냥 저 물 담갔다가.)

103005 #2 물 컷당 건졍.(물 담갔다가 건져서.)

103005 #1 거 이제 순 나기 전에라도, 영 순이 뽀족뽀족 나믄 좋고, 게믄 그걸 멩텡이에 작작 영 헹.(거 이제 순 나기 전에라도, 이렇게 순이 뾰족뾰족 나면 좋고, 그러면 그걸 망태기에 작작 이렇게 해서.)

103005 @ 손고락 사이로 헹 뿌려.(손가락 사이로 해서 뿌려.)

103005 #1 예, 삭삭 영 나가는 거 보멍.(예, 삭삭 이렇게 나가는 거 보면서.)

103005 @ 골고루 뿌려야주.(골고루 뿌려야지.)

103005 #1 예.(예.)

103005 @ 줒지 아니허기시리.(잦지 아니하게끔.)

103005 #1 그건 나가는 거 보멍.(그거는 나가는 거 보면서.)

103005 #2 게난 체음 헐 충 몰른 사름은 잘나지 아니허여.(그러니까 처음 할 줄 모른 사람은 잘나지 아니해.)

103005 #1 이제 거 잘 뿌려야 허는데.(이제 거 잘 뿌려야 하는데.)

103005 #2 그것도 배와사.(그것도 배워야.)

103005 #1 그거 헤나도 여기선양, 전이 웃드리 밧덜은 자갈이 하 놓고 아까 곧듯이 헷지만, 여기 헤변 밧은 자갈이 별로 어서마씨. 겡 갈아 노믄, 옛날 그 일본시대에부터 자꾸 허는 골이라, 골 친다 헙니다게. 저 영 갈앙 헤 노믄 고량더레 이제 영 갈아 노믄.(그거 했어도 여기서는요, 전에 '웃드리' 밭들은 자갈이 많아 놓고 아까 말하듯이 했지만, 여기 해변 밭은 자갈이 별로 없어요. 그렇게 갈아 놓으면, 옛날 그 일본시대에부터 자꾸 하는 고랑이라, 고랑 친다고 합니다. 저 이렇게 갈아서 해놓으면 고랑으로 이제 이렇게 갈아 놓으면.)

103005 @ 고량더레 씨를 뿌령.(고랑으로 씨를 뿌려서.)

103005 #1 예, 영 갈앙 이제 나믄 문딱 불라주곡 뭐 허는디 그걸 대토엔 헤 가지고양, 벳 가는 영 낭깽이 허는 잠대에 메왕, 벳 갈.(예, 이렇게 갈아서 이제 나면 모두 밟아주고 뭐 하는데 그걸 대토라고 해 가지고요, 볏 가는 이렇게 나뭇개비 하는 쟁기에

메워서, 볏 갈)

103005 @ 빼영은에.(빼어서.)

103005 #1 예, 그거 헹 새로 갈믄 양펜더레 착착 갈라집주게.(예, 그거 해서 새로 갈면 양편으로 착착 갈라지지요.)

103005 @ 나도 밧 갈아 봅디다, 봣수다게.(나도 밭 갈아 봤습니다, 봤습니다.)

103005 #1 겡 허는디 허믄 사름은 잘 안 뒈는디 들어강 너무 덕거진 건 잘 영 손으로 골라주고, 한참 또 불라줘마씨. 경 헤노믄 보리가 실허고 잘나마씨. 실헹 읏망.(그렇게 하는데 하면 사람은 잘 안 되는데 들어가서 너무 덮어진 건 잘 이렇게 손으로 골라주고, 한참 또 밟아줘요. 그렇게 해 놓으면 보리가 실하고 잘나요. 실해서 여물어.)

103006 @ 그다음에 보리도 종류가 잇지 아니허꽈양? 보리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잇수가?(그다음에 보리도 종류가 있지 아니합니까? 보리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103006 #1 아, 보리는 술오리 싯고, 보리, 겉보리라고 헤 가지고, 술오리는 맥주보리 비슷헤서 겉보리는 그 엿날 보리, 엿날 보린디 그거는 똑 맥주보리 헤도 저 보리 수확도 잘 나오곡 허는디, 거 장만허기가 궂어, 겉보리는. 게난 그후젠 일본시대에, 엿날은 겉보리만 헨 먹어낫는디, 일본시대에 난 맥주, 맥주 술 담으멍 맥주보리가 나고, 그루후제 술오리라고 허영, 지금 대부분 술오리우다게.(아, 보리는 쌀보리 있고, 보리, 겉보리라고 해 가지고, 쌀보리는 맥주보리 비슷해서 겉보리는 그 옛날 보리, 옛날 보리인데 그거는 똑 맥주보리 해도 저 보리 수확도 잘 나오고 하는데, 그거 장만하기가 궂어, 겉보리는. 그러니까 그 후엔 일본시대에, 옛날은 겉보리만 해서 먹었었는데, 일본시대에 난 맥주, 맥주 술 담으면서 맥주보리가 나고, 그 후에 쌀보리라고 해서, 지금 대부분 쌀보리입니다.)

103006 @ 게난 거 밥헤 먹는 거 아니?(그러니까 그거 밥해 먹는 거 아니?)

103006 #1 밥 헤 먹는 건디, 게도 밥맛은 겉보리가 맛 좋아마씀. 술오린 이 수확은 하영 나는디 뿍뿍허게 하영 잘.(밥 해 먹는 건데, 그래도 밥맛은 겉보리가 맛 좋아요. 쌀보리는 이 수확은 많이 나는데 빡빡하게 많이 잘.)

103006 @ 게난 종류가 세 개구나?(그러니까 종류가 세 개구나?)

103006 #2 예, 세 개마씨.(예, 세 개입니다.)

103006 #1 아니, 종류가 더 뒈우다. 어떠냐믄 출보리영 헹 무사 거멍헌.(아니, 종류가 더 됩니다. 어떠냐면 찰보리라고 해서 왜 거먼.)

103006 #2 출보리도 싯고 첨.(찰보리도 있고 참.)

103006 #1 출보리가 검은 쏠, 그건 헤 노믄 밥맛은 좋아마씀. 겐디 건 수확이 덜 남니다게.(찰보리가 검은 쌀, 그건 해 놓으면 밥맛은 좋아요. 그런데 건 수확이 덜 납니다.)

103006 #2 거 허는 사름은 멧 사름 어서.(그거 하는 사람은 몇 사람 없어.)

103006 #1 건 어느 허믄 둘렝이 하나 헷당, 뚠 딘 다 술오리 갈곡, 그 저 검은 쏠, 나는 거 저 출보리, 출보리영 허여, 출보린 혼두 개, 혼 드르겡이 헷당, 지엉 놔둠서러 혹끔석 석으멍 밥에 출지게 허여.(그거는 어느 하면 아주 작은 밭 하나 했다가, 다른 데

는 다 쌀보리 갈고, 그 저 검은 쌀, 나는 그거 저 찰보리, 찰보리라 해, 찰 보리는 한두 개, 아주 작은 밭 했다가, 찧어서 놔두고 있으면서 조금씩 섞으면서 밥에 찰지게 해.)

103006 #2 게난 겉보리 허믄, 맥주보린 허믄 막걸리 잘 나옵니께, 막걸리, 그 맥주보리가. 막걸리 옛날은 집이서 허믄 탁베기 담앙으네, 탁베기 노앙덜 소낭 아래 앉앙 가믄 멕이곡.(그러니까 겉보리 하면, 맥주보리는 하면 막걸리 잘 나옵니다, 막걸리, 그 맥주보리가, 막걸리 옛날은 집에서 하면 탁주 담아서, 탁주 놓아서들 소나무 아래 앉아서 가면 먹이고.)

103006 #1 저 맥주보린 거기서 받아가멍, 거 저 맥주회사에서 받아갑주게. 받아 가믄, 얼마허믄.(저 맥주보리는 거기서 받아가면서, 거 저 맥주회사에서 받아가지요. 받아가면, 얼마 하면.)

103006 #2 우리 헐 땐 풀지 못허연, 첨, 믄 쉐멕이멍 풀지 못허연.(우리 할 땐 팔지 못해서, 참, 모두 소먹이면서 팔지 못해서.)

103006 #1 게난양.(그러니까요.)

103006 #2 그루후제 저 탁베기 공장덜 나난.(그 후에 저 탁주 공장들 나니까.)

103006 #1 그걸 헤 놔도.(그걸 해 놔도.)

103006 #2 그전인 어떵사 헤신디 몰라도. 맥주보리 풀지 못헤나서, 체암은. 게난 탁베기 헨에.(그전에는 어떻게야 했는지 몰라도. 맥주보리 팔지 못했었어, 처음은. 그러니까 탁주 해서.)

103006 #1 이젠 방에공장이여 뭣이여 헤도 옛날은 방에공장이 셧수강? 어시난 그걸 이제 물방에에 헹 물 우쩟당 이제 쉐나 물로 헤 가지고 그걸로 허멍 계속 돌령으네.(이젠 방앗간이여 뭣이여 해도 옛날은 방앗간이 있었습니까? 없으니까 그걸 이제 연자매에 해 가지고 물 담갔다가 이제 소나 말로 해서 그걸로 하면서 계속 돌려서.)

103006 #2 물방에 알아지쿠강?(연자매 알겠습니까?)

103007 @ 예, 그거 나중에 물어보쿠다. 나중에 이거, 이제 다 물어봅니다, 이제. 게난 아까 ᄀᆞ치 보리 종류는 뭐 뭐 잇수강? 허며는 그 정도만 말허민 뒈는 거. 그다음에 양, 보리밧 밟기, 보리가 어느 정도 뒈민 겨울에 보리 불릅니까?(예, 그거 나중에 물어보겠습니다. 나중에 이거, 이제 다 물어봅니다, 이제. 그러니까 아까 같이 보리 종류는 뭐 뭐 있습니까? 하면은 그 정도만 말하면 되는 거. 그다음에요, 보리밭 밟기, 보리가 어느 정도 되면 겨울에 보리 밟습니까?)

103007 #1 이제 들르지 못허게.(이제 들뜨지 못하게.)

103007 @ 예, 그거 흔번 말헤봅서.(예, 그거 한번 말해보세요.)

103007 #1 그것이 눈 왕 얼어 노믄양, 발이 들렁.(그것이 눈 와서 얼어 놓으면요, 발이 들떠서.)

103007 @ 여기서도 여긴 잘 안 불브지양?(여기서도 여긴 잘 안 밟지요?)

103007 #2 여긴 잘 아니.(여기는 잘 아니.)

103007 @ 웃드르 ᄀᆞ뜬디.('웃드르' 같은데.)

103007 #1 웃드리 이제 흑이 게벼운 밧에는 허고, 여긴 허는디양, 보통 대토허영 삭

삭 영 덕거불믄 불르지 아이헤도 뒈마씨. 여긴 흑이 딱 허게 출진 흑이난 하고, 요 웃드리레 가믄 것이 얼어노믄 눈이 부각부각.('웃드리' 이제 흙이 가벼운 밭에는 하고, 여기는 하는데요, 보통 대토해서 삭삭 이렇게 덮어버리면 밟지 아니해도 돼요. 여긴 흙이 딱하게 찰진 흙이니까 하고, 요 '웃드리'로 가면 것이 얼어 놓으면 눈이 보각보각.)

103007 #2 불르레 가낫수다.(밟으러 갔었습니다.)

103007 #1 발 들러진 덴 허영, 그디 강 탁 불릅주게.(발 들뜬 데는 해서, 거기 가서 탁 밟지요.)

103007 #2 글라 강, 아버님 살 때.(가자 가서, 아버님 살 때.)

103007 #1 거 사름으로 다 불랏수다, 사름으로.(그거 사람으로 다 밟았습니다, 사람으로.)

103007 #2 사름으로 헹 불르라, 불르라 헹, 불르레, 불르레 가낫수다, 거 저 웃드리에.(사람으로 해서 밟아라, 밟아라 해서, 밟으러, 밟으러 갔었습니다, 그렇게 저 '웃드리'에.)

103007 @ 게난 거 저 헤변은 잘 안 불를 거라.(그러니까 그거 저 해변은 잘 안 밟을 거야.)

103007 #2 예, 헤변 아니.(예, 해변 아니.)

103007 @ 눈이 잘 안 오는 디난게.(눈이 잘 안 오는 데니까요.)

103007 #2 예, 우리 불르레 가낫수다.(예, 우리 밟으러 갔었습니다.)

103007 #1 눈이 와도 흑이 출졍.(눈이 와도 흙이 찰져서.)

103007 #2 가난은에 실펑 허지 아니허영 오꼿 돌아나불곡, 경 헤낫주. 불르라, 불르라 허곡.(가니까 싫어서 하지 아니해서 그만 달아나 버리고, 그렇게 했었지. 밟으라, 밟으라 하고.)

103007 #1 수량도 이디가 하영 남니다게, ᄀᆞ뜬 펭수에 헤도.(수량도 여기가 많이 납니다, 같은 평수에 해도.)

103008 @ 보리 검질 멧 번 멥니까?(보리 김 몇 번 맵니까?)

103008 #2 보리 검질은 우리 두 번 메, 두 번 메는 거.(보리 김은 우리 두 번 매, 두 번 매는 거.)

103008 #1 대토 흔번 허곡, 검질메기 전이, 대토헹 흑 덕으믄 웬만헌 준 검질은 거 안 나옵주게, 흑 덕어지믄.(대토 한번 하고, 김매기 전에, 대토해서 흙 덮으면 웬만한 잔 김은 그거 안 나오지요, 흙 덮어지면.)

103008 @ 처음에 메는 검질을 뭐옌 허여마씸?(처음에 매는 김을 뭐라고 해요?)

103008 #1 초불.(애벌.)

103008 @ 어, 초불검질(어, 애벌김.)

103008 #1 초불검질 메 놩으네.(애벌김 매 놓아서.)

103008 #2 두불만 메어, 두불.(두벌만 매어, 두벌.)

103008 #1 두불검질 메고, 나중에 저 아이 시불 허는디, 대우리라고 허영 보리 말고 뚠 저 똑 저 보리 닮아.(두벌김 매고, 나중에 저 아니 세벌 하는데, 귀리라고 해서 보리

말고 다른 저 똑 저 보리 같아.)

103008 @ 보리 ᄉᆞ춘.(보리 사촌.)

103008 #1 거 대우리옝 허영 대우리 멘다 허여.(그거 귀리라고 해서 귀리 맨다 해.)

103008 #3 대우리 메 가믄 시 번은 뒈어.(귀리 매 가면 세 번은 돼.)

103008 #1 건 시 번채.(건 세 번째.)

103008 @ 그러면 처음 메는 검질을 뭐?(그러면 처음 매는 김을 뭐?)

103008 #1 초불검질.(애벌김.)

103008 @ 그다음?(그다음?)

103008 #1 두불검질, 다음 시불검질.(두벌김. 다음 세벌김.)

103008 #2 대우리 메어, 시불은.(귀리 매어, 세벌은.)

103008 #1 굽엉 뎅이멍, 저레 가멍 그자. 거 중간에도 알아지믄 허는디 똑 보리 닮아노난, 그거 저 영 피영은에 고고리가 나와사 그것이 허는 거지, 게 아니믄 대우린지 보린지 잘 구별허기가 어려와.(굽어서 다니면서, 저리로 가면서 그저. 그거 중간에도 알아 지면 하는데 똑 보리 같으니까, 그거 저 이렇게 피어서 이삭이 나와야 그것이 하는 거지, 게 아니면 귀리인지 보린지 잘 구별하기가 어려워.)

103008 #2 게믄 두루 헴젠 아바지안티 욕들멍, 잘 아니허영 감젠 허멍.(그러면 덜 하고 있다고 아버지한테 욕 들면서, 잘 아니해서 가고 있다고 하면서.)

103008 #1 경허믄 믄 보리 ᄇᆞᆯ르지 못 허게 허영 멩심허영 대우리 메라. 거 헤노믄 믄 보리 내려앚곡, ᄇᆞᆯ라도.(그러면 모두 보리 밟지 못하게 해서 명심해서 귀리 매라라. 그거 해 놓으면 모두 보리 내려앉고, 밟아도.)

103008 #2 게난 보리, 그놈이 대우리도 거 보리씨에 석거졍 보리씰 받아오믄 잘 야속헌 사름덜은 잘 영 헹, 거 대우리 골령 씨 허믄 덜 허는디. 경 아니허영 ᄀᆞ찌 삐어노믄 그놈이 대우리가 낭 허민 그디 메기가 궂어.(그러니까 보리, 그놈의 귀리도 거 보리씨에 섞여져서 보리씨를 받아오면 잘 야속한 사람들은 잘 이렇게 해서, 그렇게 귀리 골라서 씨 하면 덜 하는데. 그렇지 아니해서 같이 뿌려놓으면 그놈의 귀리가 나서 하면 거기 매기가 궂어.)

103008 #1 대우리 메곡 허영 쉐출도 허곡.(귀리 매고 해서 소꼴도 하고.)

103009 @ 그다음에양, 그 검질, 보리밧디 검질은 어떤 것덜 남니까?(그다음에요, 그 김, 보리밭에 김은 어떤 것들 납니까?)

103009 #2 똑 보리 비슷헌 검질 나.(똑 보리 비슷한 김 나.)

103009 @ 게난 검질도 종류가 잇지 아니허꽈? 뭐 보리밧디 나는 검질.(그러니까 김도 종류가 있지 아니합니까? 뭐 보리밭에 나는 김.)

103009 #2 제와니 나곡.(바랭이 나고.)

103009 @ 양?(예?)

103009 #1 제와니 이젠 안 나게. 이제 ᄋᆞ름에 것, 물룻 ᄀᆞ뜬 거, 또.(바랭이 이제는 안 나요. 이제 여름에 것, 무릇 같은 거, 또.)

103009 @ 물룻.(무릇.)

103009 #1 저 이 복쿨이라고 허영양, 그런 것도 잇고, 복쿨 허믄 그거 그놈으 것이 이.(저 이 깨풀이라고 해서요, 그런 것도 있고, 깨풀 하면 그거 그놈의 것이 이.)

103009 #2 죽질 아니허여.(죽지를 아니해.)

103009 #1 씨가, 게우 이 잘 흔 번 져 노믄 잘 끈어지질 못 허여마씨. 게믄 그런 건 멩심허영 메지 아니허믄, 또 뒷헤에 나곡 뒷헤에 나곡, 요놈으 것이.(씨가, 겨우 이 잘 한 져 놓으면 잘 끊지를 못해요. 그러면 그런 건 명심해서 매지 아니하면, 또 다음 해에 나고 다음 해에 나고, 요놈의 것이.)

103009 @ 고니쿨은 안 나양? 감제밧디 나지 이건, 고니쿨.(달기씨깨비는 안 나요? 고구마밭에 나지 이거는, 달기씨깨비.)

103009 #1 보리 골?(보리 고랑?)

103009 @ 고니쿨, 고니쿨, 그저 작지 우에 놔도 죽지 아니허는 거.(달기씨깨비, 달기씨깨비, 그자 자갈 위에 놔도 죽지 아니하는 거.)

103009 #1 고니쿨, 이디선 고냉이쿨이렌 허여, 고냉이쿨.(달기씨깨비, 여기선 '고냉이쿨'이라고 해, 달기씨깨비.)

103009 @ 고냉이쿨?(달기씨깨비?)

103009 #1 예, 고냉이쿨이옌 허영, 그건 저 잘 안 죽읍네다. 다 내쳐사.(예, 달기씨깨비이라고 해서, 그건 저 잘 안 죽습니다. 다 내쳐야.)

103009 @ 게난 거 작지왓티서도.(그러니까 그거 자갈밭에서도.)

103009 #2 게난 저 웃드리 밧 허멍, 게난 웃드리 밧 허멍 우린 막 얼 먹엇수다게.(그러니까 저 '웃드리' 밭 하면서, 그러니까 '웃드리' 밭 하면서 우리는 아주 얼먹었습니다.)

103009 @ 여긴 고냉이쿨?(여기는 달기씨깨비?)

103009 #2 예, 고냉이쿨. 막 얼먹언. 검질을 하영 메주기.(예, 달기씨깨비. 아주 얼먹었어. 김을 많이 매지요.)

103009 #1 저 으름 검질은 빈데, 빈데옌 헤 가지고, 빈데 검질로 이제 헤 노믄, 것이.(저 여름 김은 피막이풀, 피막이풀이라고 해 가지고, 피막이풀 김으로 이제 해 놓으면, 것이)

103009 @ 그건 감제밧디 잘 나.(그거는 고구마밭에 잘 나.)

103009 #1 예, 빈데는.(예, 피막이풀은.)

103009 @ 보리밧딘 아까 골은 복쿨허고.(보리밭에는 아까 말한 깨풀하고.)

103009 #1 이 저 무신거 거 고냉이쿨허고, 겨울에 허는 게 주로 이제 늦어가믄, 또 아까 ᄀᆞ찌 제완지도 나고.(이 저 무엇 거 달기씨깨비하고, 겨울에 하는 것이 주로 이제 늦어 가면, 또 아까 같이 바랭이도 나고.)

103009 @ 아, 거난 보리밧디도 나? 보리밧디, 보리밧디?(아, 그러니까 보리밭에도 나? 보리밭에, 보리밭에?)

103009 #2 늦이믄 나, 보리밧디. 게도 메지 못허영 내불어, 보리 커 불믄 메지 아니허영. 게난 제완지 신디 영.(늦으면 나, 보리밭에. 그래도 매지 못해서 내버려, 보리 커

버리면 매지 아니해서. 그러니까 바랭이 있는데 이렇게.)

103009 @ 게난 세 가지벳기 업네.(그러니깐 세 가지밖에 없네.)

103009 #2 예.(예.)

103009 @ 복쿨(깨풀.)

103009 #2 고냉이쿨(달기씨깨비.)

103009 @ 그다음(그다음.)

103009 #2 지완지.(바랭이.)

103009 @ 제완지.(바랭이.)

103009 #2 지완지는 막 늦어사 똑 저.(바랭이는 아주 늦어야 똑 저.)

103009 #1 대우리 나오곡.(귀리 나오고.)

103009 @ 제완지 이 저 조팟디 잘 나메, 이거.(바랭이 이 저 조밭에 잘 나요, 이거.)

103009 #1 제완지 이거는 으름 검질인디 이 조 불르는, 똑 요놈으 것이 조에 뚝 ᄀᆞ치 들엉으네, 거 하나 메젱 허당 조 메 지곡.(바랭이 이거는 여름 김인데 이 조 밟는, 똑 요놈의 것이 조에 딱 같이 들어서, 거 하나 매려고 하다가 조 매어 지고.)

103009 #2 감제 이렌양, 땅이 이상허연.(고구마 이리로는요, 땅이 이상해서.)

103009 # @ 막 억울허주게.(아주 억울하지요.)

103009 #2 감제왓, 감제왓디도 거 나고.(고구마밭, 고구마밭에도 거 나고.)

103009 #1 감제왓딘 그저 쒜비늠 ᄀᆞ뜬 것 잘 나고.(고구마밭엔 그저 쇠비름 같은 거 잘 나고.)

103009 @ 아, 거난 보리밧디, 보리밧.(아 그러니까 보리밭에, 보리밭.)

103009 #1 보리왓딘 복쿨허고 이 저 무신거 고냉이쿨허고 대우리허고, 그 외로 뭣 좀.(보리밭에는 깨풀하고 이 저 무엇 달기씨깨비하고 귀리하고, 그 외로 뭣 좀.)

103009 #2 제완지도 늦어가믄 나. 늦어가믄 나는디, 겐디 보리 커 블믄.(바랭이도 늦어 가면 나. 늦어 가면 나는데, 그런데 보리 커 버리면.)

103009 #1 그것이 씨 졋당은에 허믄 요게 날 ᄯᅡ사가믄 똑 제완지가 나거든마씨.(그것이 씨 졌다가 하면 요게 날 따뜻해 가면 똑 바랭이가 나거든요.)

103010 @ 보리 수확헤야 뒐 거 아니우꽈양? 보리, 거 어떵 헙니까?(보리 수확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보리, 거 어떻게 합니까?)

103010 #1 망종은.(망종은.)

103010 @ 우선 제일 처음에 보리 비어야 뒈곡, 말헤봅서.(우선 제일 처음에 보리 베야 되고, 말해보세요.)

103010 #1 망종을 기준 허영 이디서도 에, 언제 망종이라? 보리 이제 곧 망종 넬 모리라 허믄, 이제 보리가 누릿누릿 헤가믄, 익어가믄 망종 영, 망종 넘으믄 이제 곡식은 다 으문거라마씨. 게난 ᄒᆞ끔 설어 봬도 망종 넘으난 비어게. 경 헹 이제 웬만허민 비곡 허영 ᄆᆞᆯ류는디, 전이도 하도 곡식이 어려운 땐 어떵 헤신고 허믄 그 석보리[67]라고 헤가지고양, 보리.(망종을 기준 해서 여기서도 에, 언제 망종이야? 보리 이제 곧 망종 내

67) '석보리'는 보릿고개를 넘기려고 일찍 수확한 보리를 말한다.

일 모래야 하면, 이제 보리가 누릇누릇 해가면, 익어 가면 망종 이렇게, 망종 넘으면 이제 곡식은 다 여문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덜 익어 보여도 망종 넘으니까 베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웬만하면 베고 해서 말리는데, 전에도 하도 곡식이 어려울 때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 '석보리'라고 해 가지고요, 보리.)

103010 #2 익기 전이게.(익기 전에요.)

103010 #1 익기 전이 곡식은 다 먹을 건 다 떨어집주게. 다 떨어지믄 이것이 식구 하난 먹어야 헐 거 아니우꽈? 경 허젠 허믄.(익기 전에 곡식은 다 먹을 건 다 떨어지지요. 다 떨어지면 이것이 식구 많으니까 먹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면.)

103010 #2 푸랑헌 보리 비어당.(파란 보리 베어다가.)

103010 #1 퍼렁헌 보리 물긋물긋만 허믄 보리왓딜 강 봐, ᄒᆞ끔 물긋물긋만 허믄 비영은에 요걸 집이 져다 놩, 멧 짐게. 이제 화덕 솟디 불 살랑 그거 영 채왕 ᄒᆞ끔 더러 그시립주기. 그시린뎅 허여, 그시령 이제 ᄀᆞ시락 카고 뭐 헤 노믄 요것이 ᄒᆞ끔 ᄆᆞᆯ르멍 화적덜 허믄 막 발로 부비멍.(파란 보리 물긋물긋만 하면 보리밭에를 가서 봐, 조금 물긋물긋만 하면 베어서 요걸 집에 져다 놔서, 몇 짐이요. 이제 부뚜막 솥에 불을 피워서 그거 이렇게 채워서 조금 더러 그을리지요. 그을린다고 해, 그을려서 이제 까끄라기 태우고 뭐해 놓으면 요것이 조금 마르면서 화적들 하면 마구 발로 문지르면서.)

103010 #2 도께, 도께로 두드려서.(도리깨, 도리깨로 두드려서.)

103010 #1 마께로 독독독 두드리곡.(방망이로 독독독 두들기고.)

103010 #2 도께 허영은에 우린.(도리깨 해서 우린.)

103010 #1 보리쏠 영 나믄 그것 이제 ᄆᆞᆫ 이제 거 뭣이 안 뒈난, ᄀᆞ레, ᄀᆞ레에 ᄀᆞᆯ앙 그것에 헤 노믄양, 껍질째 벳겨집니까? ᄂᆞᆯ 거 놔, 경 무싱거만 부병 헤 노믄 보리쏠 헤도 이제 거멍헤마씀, 보리쏠 헤도. 경 헹으네 죽 쒕, 보리죽 쒀 노믄 첨, 죽도 아이고 밥도 아이고, 하하하(웃음).(보리쌀 이렇게 나면 그것 이제 모두 이제 거 뭣이 안 되니까, 맷돌, 맷돌에 갈아서 그것에 해 놓으면요, 껍질째 벗겨집니까? 날 거 놔, 그렇게 무엇만 문질러서 해 놓으면 보리쌀 해도 이제 거멓습니다, 보리쌀 해도. 그렇게 해서 죽 쒀서, 보리죽 쒀 놓으면 참,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고, 하하하(웃음).)

103010 #2 맛이 좋아. 하하하.(웃음)(맛이 좋아. 하하하.(웃음))

103010 #1 경 허멍 헤도 어떵 헙네까? 그거 첨 식구덜 모다앚앙 그거 먹곡, 겐디 그 때도양, 뭣이옌양, 우리 집이도 나중ᄁᆞ지 싯단 어셔졋는디 남박세기이옌 허영 여기 박세기에 죽 헤노믄 식구 한 집인 ᄒᆞᆫ 적썩 착착 분헹.(그렇게 하면서 해도 어떻게 합니까? 그거 참 식구들 모여앉아서 그거 먹고, 그런데 그때도요, 뭣이라고요, 우리 집에도 나중까지 있다가 없어졌는데 나무바가지라고 해서 여기 바가지에 죽 해놓으면 식구 많은 집에는 한 적씩 착착 나눠서.)

103010 #2 아이, 게난 보릴, 방엣혹이 셔낫수다, 우리 집이. 방엣혹으로 허믄 그 보릴 이제 ᄀᆞ레에 ᄀᆞᆯ기 전이 방엣혹에 ᄒᆞᆫ번 ᄯᅳ시 ᄒᆞᆫ번, ᄀᆞ시락을 다 두드려가믄 부서지게, 게믄 대체 ᄋᆞ져당으네 청 허믄 그걸 청 ᄋᆞ물 뒌 때 ᄯᅳ시, 원 그때 그렇게 먹는 것도 심들언.(아니, 그러니까 보리를, 방아확이 있었습니다, 우리 집에. 방아확으로 하면 그 보

릴 이제 맷돌에 갈기 전에 방아확에 한번 다시 한번, 까끄라기를 다 두들겨 가면 부서지게, 그러면 대체 가져다가 쳐서 하면 그것을 쳐서 여물 된 때 다시, 원 그때 그렇게 먹는 것도 힘들었어.)

103010 @ 일단 보리 강 비엉.(일단 보리 가서 베어서.)

103010 #2 져 왕.(져 와서.)

103010 @ 거 묵거야 헐 거 아니우꽈?(그거 묶어야 할 거 아닙니까?)

103010 #2 예, 묵엉, 묵엉 져 왕.(예, 묶어서, 묶어서 져 와서.)

103010 @ 예, 져 왕.(예, 져 와서.)

103010 #1 비나, 비나 온덴 허믄양, 밤중에라도 강 묵어사.(비나, 비나 온다고 하면요, 밤중에라도 가서 묶어야.)

103010 #2 묵엉 졍 와.(묶어서 져서 와.)

103010 @ 졍 왕.(져서 와서.)

103010 #2 졍 왕은에 이디 ᄀᆞ시락 불 살랑(져서 와서 여기 까끄라기 불 피워서.)

103010 @ 눌 눌지 아니허고.(가리 쌓지 아니하고.)

103010 #2 아니게, 저, 우리 저, 체암 석보리 밥 먹을 제, ᄒᆞ끄만 헤 올 때, ᄒᆞ끄만 헤 올 때엔.(아니요, 저, 우리 저, 처음 '석보리' 밥 먹을 때, 조금만 해 올 때, 조금만 해 올 때에는.)

103010 @ 아니, 하영 헤 올 때.(아니, 많이 해 올 때.)

103010 #2 하영 헤 올 때엔 밧디 데명 놔둬사주게. 밧디 데명 놔두곡.(많이 해 올 때엔 밭에 쌓아서 놔둬야지요. 밭에 쌓아서 놔두고.)

103010 #1 밧디도 눌엉, 눌엉 놔두곡, 집의도 또 져당 허믄.(밭에도 쌓아서, 쌓아서 놔두고, 집에 또 져다가 하면.)

103010 #2 가까우믄 밤새우곡게. 먼 딘 어려와.(가까우면 밤새우고요. 먼 덴 어려워.)

103010 @ 아니, 집이 가졍 와야 뒐 거 아니.(아니, 집에 가져서 와야 될 거 아니.)

103010 #2 집이 가져와사 헐거주게, 아멩헤도, 뒷날이라도.(집에 가져와야 할 거지요, 아무래도, 뒷날이라도.)

103010 @ 가져 왕은에 클로.(가져 와서 틀로.)

103010 #2 클로, 홀트는 클 헤당.(틀로, 홅는 틀 해다.)

103010 @ 홀타야주.(홅어야지.)

103010 #1 보리클.(보리를 떠는 농기구.)

103010 #2 보리클 어디 강은에 ᄂᆞᆷ 헤난 거 빌어 왕 우리 헤도.(보리를 떠는 농기구 어디 가서 남 했던 거 빌어 와서 우리 해도.)

103010 #1 보리클도 매집마다 어서마씨.(보리를 떠는 농기구 모든 집마다 없어요.)

103010 #2 빌어 왕 허믄 이제.(빌어 와서 하면 이제.)

103010 #1 어느 집이 보리클 끗남저 허믄.(어느 집에 보리를 떠는 농기구 끝나고 있어 하면.)

103010 #2 것 강 빌어다놩 허믄.(그거 가서 빌어다 놔서 하면.)

103010 #1 이제.(이제.)

103010 #1 게 아니믄 ᄒᆞ를 강 막 서로 영 줴어 주멍.(그렇게 아니하면 하루 가서 마구 서로 이렇게 쥐어 주면서.)

103010 #2 게난 이녁만도 못 허여.(그러니까 이녁만 못 해.)

103002 #1 수눌엉 막.(품앗이해서 마구.)

103002 #2 보리 철엔 줴 주곡 허엿주.(보리 철에는 쥐어 주고 했지.)

103002 @ 보리 타작 아니우꽈양?(보리 타작 아닙니까?)

103002 #2 예, 보리타작, 경 헤놩.(예, 보리타작, 그렇게 해놔서.)

103002 @ 끄는 것ᄁᆞ지 누는 것ᄁᆞ지 헤근에, 다음에 보리.(끄는 것까지 쌓는 것까지 해서, 다음에 보리.)

103002 #1 눌엇당.(쌓았다가.)

103011 @ 타작헤야 될 것 아니우꽈? 그 타작허는 건 우선.(타작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타작하는 것은 우선.)

103011 #1 눌엇당, 이디선 메탁기 허영양, 거 원동기 지금은 뭐 헤도 기계 식그곡 탈곡기 시끄곡 헹 집마다, 그땐 집인 어떻게 엿날은 뭐 헌디 마당에 비가 덜 오믄 허는디, 똑 보리 장만헐 땐 비가, 장마가 진 때 똑 저 이디서 허믄 우리 뭐 헐 땐 뭐 저.(쌓았다가, 여기서는 탈곡기 해서요, 그거 원동기 지금은 뭐 해도 기계 싣고, 탈곡기 싣고 해서 집마다, 그땐 집에는 어떻게 옛날은 뭐 했는지 마당에 비가 덜 오면 하는데, 똑 보리 장만할 때는 비가, 장마가 진 때, 똑 저 여기서 하면 우리 뭐 할 땐 뭐 저.)

103011 @ 장마가 와.(장마가 와.)

103011 #1 똑 장마가 져마씨. 게믄 그걸 이제 허믄 집안네 어디 창고가 싯수가? 뭐 잇수가? 창고 아이싸으믄양, 집이 삼방에양, 보리 이제 눌 눌어뒁 ᄒᆞᆫ 뭇썩 쏙쏙 빠멍 이제 거 보릿기게, 구들러레. 보릿기겡이 훌트는 기겡이 구들러레 헤 놩 ᄒᆞᆫ 구덕, ᄒᆞᆫ 구들 그냥 ᄁᆞ뜩 헤 놧당, 아, 이제 장마 헹 보리 헌다 허믄 그 탈곡기도 양, 그 방엣공장이 주민 대여숫 사람썩 인불 빌엉 거기서도, 탈곡에서도 기계 오야지옌 허믄양, 그렇게 헹 그 사름덜은 탈곡헹 그걸로 이제 보리, 보리 대 ᄒᆞᆫ 말에 얼마 허영 그 삭을 받읍주게. 보리 삭을 허는디 것도 집마다 허믄 어느집이 헌다 허믄 탈곡기 끄성 뎅이멍게.(똑 장마가 져요. 그러면 그걸 이제 하면 집안에 어디 창고가 있습니까? 창고 안 쌓으면요, 집에 삼방에요, 보리 이제 가리 쌓아둬서 한 뭇씩 쏙쏙 빼면서 이제 거 보리 기계, 방으로. 보리기계 훑는 기계 방으로 해 놔서 한 바구니, 한 방 그냥 가득 해 놨다가, 아, 이제 장마 해서 보리 한다고 하면 그 탈곡기도요, 그 방앗간에 주민 대여섯 사람씩 인부를 빌어서 거기서도, 탈곡에서도 기계 주인이라고 하면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은 탈곡해서 그걸로 이제 보리, 보리 대 한 말에 얼마 해서 그 삯을 받지요. 보리 삯을 하는데, 그것도 집마다 하면 어느 집에 한다고 하면 탈곡기 끌어서 다니면서.)

103011 #2 탈곡기 사름으로 불르난 무신 기계우꽈?(탈곡기 사람으로 밟으니까 무슨 기계입니까?)

103011 #1 아이, 그건.(아니, 그건.)

103011 #2 사름으로 블르멍, 탈곡기 보리 장만헤낫주게.(사람으로 밟으면서, 탈곡기 보리 장만했었지요.)

1103011 @ 뭣도 허지 안 헷수가? 도께질.(뭣도 하지 안 했습니까? 도리깨질.)

103011 #2 도께질도 허곡, 도께질.(도리깨질도 하고, 도리깨질.)

103011 #1 저 별로 도께는 안 허고.(저 별로 도리깨는 안 하고.)

103011 #2 도께는 체암 헐 때.(도리깨는 처음 할 때.)

103011 @ 메탁기로 허고양, 보리 홀탕으네.(탈곡기로 하고요 보리 홅어서.)

103011 #2 보리 홀탕, 홀타놩.(보리 홅어서, 홅어놔서.)

103011 @ 가와로 올렷주게.(벨트로 올렸지요.)

103011 #1 솔오리 헷당.(쌀보리 했다가.)

1030112 @ 가와로 올령은에.(벨트로 올려서.)

103011 #2 가와로 올령 허곡, 경 헹 장만허민.(벨트로 올려서 하고, 그렇게 해서 장만하면.)

103011 #1 그건양, 나중에 가와로 올리고, 처음엔 여기선양, 솔오리 갈아노믄 그 장마 때나 막 훌텅, 훌탕 이제, 구들에 이빠이나 삼방에 막 헷당, 이제 어느날 어느집 멕타기가 막 집마다 메탁기 식엉 뎅이멍 마당에 앚졍 이제 그걸 ᄉᆞ뭇 첨 장만헙주게. 장만허믄 삭은 흔 말에 흔 뒈던지 어떻게 건 그때 마련헨 우리도 주엇고. 게난 그걸 쏠 멕타허믄 옛날, 또 그전에는 그자 뭐옝허믄 도께로 두드려난디, 그때는 별로 여기 얼마 뭐 안 헷수다게. 도께론 덜 허고.(그건요, 나중에 벨트로 올리고, 처음에는 여기서는요, 쌀보리 갈아 놓으면 그 장마 때나 마구 홅어서, 홅어서 이제, 방에 가뜩이나 삼방에 마구 했다가, 이제 어느 날 어느 집 탈곡기가 마구 집마다 탈곡기 실어서 다니면서 마당에 앉혀서 이제 그걸 사뭇 참 장만하지요. 장만하면 삯은 한 말에 한 되든지 어떻게 건 그때 마련해서 우리도 주었고. 그러니까 그걸 쌀 탈곡하면 옛날, 또 그전에는 그저 뭐라고 하면 도리깨로 두들겼었는데, 그때는 별로 여기 얼마 뭐 안 했습니다. 도리깨로는 덜 하고.)

1030112 #2 게난 우리보단 막 그 전에 노인덜사 헤나신디, 우리 헐 때도 도께로 두들령 허는 딘 하영 알아져마씨, 알아지는디.(그러니까 우리보다는 아주 그 전에 노인들이야 했었는데, 우리 할 때도 도리깨로 두드려서 하는 데 많이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는데.)

103011 #1 아이라게. 도께 헤도 별로 아니허영, 그 탈곡기.(아니에요. 도리깨 해도 별로 아니해서, 그 탈곡기.)

103011 #2 무사 말젯아방 폭낭 알에서 도께질 헤신디, 순일이 아방네영 조그만이 헤서게. 도께질 이제 하르방네영 도께질 헤낫주. 그루후젠 탈곡기 허멍 장만헤낫수다.(왜 셋째아버지 팽나무 아래서 도리깨질 했었는데, '순일'이 아버지랑 많이 했지요. 도리깨질 이제 할아버지네랑 도리깨질 했었지. 그 후엔 탈곡기 하면서 장만했었습니다.)

103011 #1 게허고양, 탈곡기 헷고, 나중에 어떵 헷냐허믄 이젠 하건 것이 개량뒈언

이제 아까 얘기허듯이 줄 올리는 걸로, 경운기로 탈곡기영 끄성 뎅이멍, 게난 이제 그때는 사름으로 안 허영.(그리고요, 탈곡기 했고, 나중에 어떻게 했냐면 이젠 모든 것이 개량되어서 이제 아까 얘기하듯이 줄 올리는 것으로, 경운기로 탈곡기랑 끌어서 다니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사람으로 안 했어.)

103011 @ 사름으로 끄성 발동기 헹.(사람으로 끌어서 발동기 해서.)

103011 #1 발동기 끄서 나고, 그루후제 경운기로 허믄 그저 탈곡기 허믄 낭 채, 훌트지 아니허여, 낭 채 장만헷수다. 낭 채 영 허영 짝 멕이곡, 짝 멕이곡 허믄, 인부덜 다 둘앙 허믄 흔 집이.(발동기 끌어 나고, 그 후에 경운기로 하면 그저 탈곡기 하면 짚 채, 홅지 아니해, 짚 채 장만했습니다. 짚 채 이렇게 해서 짝 먹이고, 짝 먹이고 하면, 인부들 다 데려서 하면 한 집에.)

103011 @ 예, 경 헤낫수다. 잡아주는 사름이 싯고, 거 심들어.(예, 그렇게 했었습니다. 잡아주는 사람이 있고, 그거 힘들어.)

103011 #2 줴어 줘사.(쥐어 줘야.)

103011 @ 그다음에 보리낭 무끄는 사름, 나오는 데로 그자 묵엉.(그다음에 보릿짚 묶는 사람, 나오는 데로 그저 묶어서.)

103011 #1 묵으는 사름이 얼 먹곡, 정신엇수다게.(묶는 사람이 얼 먹고, 정신없습니다.)

103011 #2 게난 보리낭도 비 아이 맞게 눌엉 놔둬사. 거세기 짓 지젠 허믄 그걸 집 더레 져 가사. 게난 도새기 짓 짓곡, 쉐 짓 지젱 허믄 져 가사.(그러니까 보릿짚도 비 안 맞게 쌓아서 놔둬야. 거시기 깃 지려고 하면 그걸 집으로 져 가야. 그러니까 돼지 깃 짓고, 소 깃 지으려고 하면 지을려고 하면 져 가야.)

103011 #1 전인양, 져 가고 그걸 어떵 헷냐 허믄 통시 읖의 눌엇당, 옛날 무신 화장지가 이섯수가? 걸로양 막 빵 똥고망 씰엉은에 덱기곡.(전에는요, 져 가고 그걸 어떻게 했느냐 하면 돼지우리 옆에 쌓았다가, 옛날 무슨 화장지가 있었습니까? 걸로요 마구 빼서 항문도 닦아서 던지고.)

103011 @ 나도 경 헷수다게.(나도 그렇게 했습니다.)

103011 #1 보리낭으로 똥고망 씰엉.(보릿짚으로 항문 닦아서.)

103011 #2 막 눌, 흔 눌 눌어노믄 ᄇᆞ름도 안 자곡, 집은 초가집이고, 옛날 허멍.(마구 가리, 한 가리 쌓아 놓으면 바람도도 안 그치고, 집은 초가집이고, 옛날 하면서.)

103011 #1 게난 똥 이제 도새기도 하영 허멍 누구던지 다 허주마는 착착 도새기 대가리부터, 허허 똥 싸노믄 착착 털어놔부러.(그러니까 똥 이제 돼지도 많이 하면서 누구든지 다 하지만 착착 돼지 머리부터, 허허 똥 싸놓으면 착착 털어놔 버려.)

103011 @ 이런 것도 다 물어봅니다양.(이런 것도 다 물어봅니다.)

103011 #2 다 그런 거주.(다 그런 거지.)

103011 @ 묻는 말만 대답허민 뒈어양.(묻는 말만 대답하면 되어요.)

103011 #2 예.(예.)

103012 @ 그다음에 보리쏠 어떵 장만헙니까? 이제 쏠을 장만헤야 헐 거 아니우꽈?

(그다음에 보리쌀은 어떻게 장만합니까? 이제 쌀은 장만해야 할 거 아닙니까?)

103012 #1 장만허영 물리우믄 이제 또 방엣공장이 싯수다게. 방엣공장에 강 지어, 보리를. 보릴 지믄 그것도 이제 막 츠레 대기로 헹은에.(장만해서 말리면 이제 또 방앗간이 있습니다. 방앗간에 가서 지어, 보리를. 보리를 지면 그것도 이제 막 차례 대기로 해서.)

103012 #2 방엣공장은 말쩨주기, ᄀᆞ레에 막 ᄀᆞᆯ아놩.(방앗간은 말째지요, 맷돌에 마구 갈아놔서.)

103012 @ ᄀᆞ레, ᄀᆞ레에도 헷수다게. ᄀᆞ레도 그것도 흔번 ᄀᆞᆯ아봅서.(맷돌, 맷돌에도 했습니다. 맷돌도 그것도 한번 말해보세요.)

103012 #2 ᄀᆞ레로 헹 보리쏠 내왕, 좁쏠 내왕 먹곡 헤낫주기.(맷돌로 해서 보리쌀 나오게 해서, 좁쌀 나오게 해서 먹고 했었지요.)

103012 #1 경 영 부서진 건 ᄌᆞᆫ 쏠이옝 허영은에, ᄌᆞᆫ 쏠 그거 뭐 헹 죽도 쒀 먹곡.(그렇게 부서진 건 잔 쌀이라고 해서, 잔 쌀 그거 뭐 해서 죽도 쒀서 먹고.)

103012 #2 ᄀᆞ레도 오래 막 둘르믄, ᄀᆞ레 헹 아기덜 죽 쒕 먹이고, 보리쏠 게 안허믄 훌경 죽은 못 쒀부난에 ᄀᆞ레 헹 허민.(맷돌도 오래 마구 돌리면, 맷돌 해서 아기들 죽 쒀서 먹이고, 보리쌀 게 안 하면 굵어서 죽은 못 쒀버리니까 맷돌 해서 하면.)

103012 @ 겐 제일 먼저 나오는 건 체라?(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겉겨야?)

103012 #2 아니, 질 ᄆᆞ녀 나오는 건, 저 ᄆᆞᆫ딱 거렁 체로 무시거 영 쳥, 쳥, 또 아랫 컷도 다 먹어질거라, 깍깍 질르멍도. 죽 쑤믄 삐각삐각 질르멍도 먹어졍, 그다음은 영 친 후제 ᄀᆞ레에 ᄀᆞᆯ아. ᄀᆞ레 ᄀᆞᆯ앙은에 그 전인 그거 허믄 보리가 반착, 보리쏠이 반착반착 멧 것에 체 져. 게믄 밥허기도 쉽곡.(아니,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저 모두 퍼내서 체로 무엇 이렇게 쳐서, 쳐서, 또 아래 것도 다 먹어질 거야, 깍깍 찌르면서도. 죽 쑤면 삐각삐각 찌르면서도 먹었어, 그다음은 이렇게 친 후에 맷돌에 갈아. 맷돌에 갈아서 그 전엔 그거 하면 보리가 반쪽, 보리쌀이 반쪽 반쪽 몇 것에 체 져. 그러면 밥하기도 쉽고.)

103012 #1 좀쏠이옌 허영.(잘게 간 쌀이라고 해서.)

103012 #2 좀쏠이옌 헹 뿍뿍허지 아니허영, 좀쏠이옌 헹 뿍뿍허지 아니허영 밥 헤나고, 그 아래 체암 거는 보리ᄀᆞ를이영 보리 체영 반작헤진 것은 죽 쒕으네 것도 먹곡 허멍. 경 헨 헌디, 막 멧 년 허다네, 이 동네 방엣공장이 셔낫수다. 방엣공장이. 요디 방엣공장 하르방, 방엣공장이 뭣산디도 우리도 몰르곡 헌디, 방엣공장에 강, 방엣공장에 헨 이제 그땐 방엣공장에 가믄 막 사름덜이 신기허연.(잘게 간 쌀이라고 해서 빡빡하지 아니해서, 잘게 간 쌀이라고 해서 빡빡하지 아니해서 밥했었고, 그 아래 처음 거는 보릿가루랑 보리 겉겨랑 반짝한 것은 죽 쒀서 그것도 먹고 하면서, 그렇게 해서 했는데, 아주 몇 년 하다가, 이 동네 방앗간이 있었습니다, 방앗간이. 요기 방앗간 할아버지, 방앗간이 뭣인지도 우리도 모르고 했는데, 방앗간에 가서, 방앗간에 해서 이제 그땐 방앗간에 가면 아주 사람들이 신기해서.)

103012 #1 멕으로, 멕으로 젼.(망태기로, 망태기로 져서.)

103012 #2 멕으로 졍 강 보리 졍 가믄, 것도 보리쏠로 이제 허믄 지네 쏠 허믄 흔 말에 얼마 헤영 보리로 다 받읍니다.(망태기로 져서 가서 보리 져서 가면, 것도 보리쌀로 이제 하면 자기네 쌀 하면 한 말에 얼마 해서 보리로 다 받습니다.)

103012 @ 음.(음.)

103012 #1 경 헹 이제 허믄 깡통 두 말 가옷들이 흔 뒈 허믄 나중에 거 흔 깡통허믄 얼마썩 허멍 흔 뒈썩 딱딱 받으멍.(그렇게 해서 이제 하면 깡통 두 말 반들이 한 되 하면, 나중에 그거 한 깡통하면 얼마씩 하면서 한 되씩 딱딱 받으면서.)

103012 #2 보리, 그디 강 보리 허여와도 ᄀᆞ레에 또 ᄀᆞᆯ안 먹엇주기. 그디양, 보리양, 보리쏠만 헤노난 ᄀᆞ레에 ᄀᆞᆯ믄 뿍뿍 덜 허영은에 경 헨덴 허멍, 게난 집집마다 ᄀᆞ레가 끈어지질 아니허여.(보리, 거기 가서 보리 해서와도 맷돌에 또 갈아서 먹었지요. 거기요, 보리요, 보리쌀만 했으니까 맷돌에 갈면 빡빡 덜 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집집마다 맷돌이 끊어지질 아니해.)

103012 @ ᄀᆞ레양.(맷돌요.)

103012 #2 아직꺼지도양 ᄀᆞ레가 느량.(아직까지도요, 맷돌이 늘.)

103012 #1 ᄀᆞ레도 풀ᄀᆞ레 싯곡, 무시거.(맷돌도 풀매 있고, 무엇.)

103012 #2 ᄀᆞ레도 두개썩, 시개썩 흔 집이 경 십디다게, 원.(맷돌도 두 개씩, 세 개씩 한 집에 그렇게 있습디다, 원.)

103012 #1 아, 이제도 우리도 놔뒷수다. ᄀᆞ레 우알 짝이.(아, 이제도 우리도 놔뒀습니다. 맷돌 위아래 짝이.)

103012 #2 우리도 셔마씸, ᄀᆞ레도. 하도 어머니네 헤난 거. 우리 뭐 허난 저 집이 살 때, 이디 오멍 완 식거다 놔뒷수다만.(우리도 있어요, 맷돌도 하도 어머니네 했던 거. 우리 뭐 하니까 저 집에 살 때, 여기 오면서 와서 실어다 놔뒀습니다만.)

103013 @ 그다음에 보리쏠로 뭐 헙니까? 보리쏠 허민.(그다음에 보리쌀로 뭐 합니까? 보리쌀 하면.)

103013 #2 보리쏠 밥 헹 먹곡, 보리쏠 솔망 누룩허곡게, 누룩 헷당 탁배기허곡, 경 허멍 경 헤낫주게.(보리쌀 밥해서 먹고, 보리쌀 삶아서 누룩하고요, 누룩 했다가 탁주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했었지요.)

103013 @ 그다음은.(그다음은.)

103013 #2 게난예, 보리 강 져.(그러니까요, 보리 가서 져.)

103013 #1 누룩 헐 때 더 보리낭 소곱더레, 밥 솔망 떡 헹은에.(누룩 할 때 더 보릿짚 속으로, 밥 삶아서 떡 해서.)

103013 #2 보리ᄀᆞ를 허젠 허믄 ᄀᆞ레에 멧 번사 ᄀᆞᆯ안, 멧 번 ᄀᆞᆯ아사, ᄀᆞ를 허젱 허믄. ᄀᆞ를 허젠 ᄀᆞ를 그거 나오믄, 이제 그걸로 헹으네 떡도 헹 먹곡, 옛날은 무시거 저.(보릿가루를 하려고 하면 맷돌에 몇 번인지 갈아서, 몇 번 갈아야, 가루를 하려고 하면. 가루를 하려고 가루를 그거 나오면, 이제 그걸로 해서 떡도 해서 먹고 옛날은 무엇 저.)

103013 #1 식겟 때엔 그걸 헹은에 보리 적.(제사 때에는 그걸 해서 보리 적.)

103013 #2 보리 적 허영, 보리 적 허영은에 올려나고.(보리 적 해서, 보리 적 해서

올렸었고.)

103013 #1 보리 적 허영은에 식게에 올리고, 또 보리 삼메[68]옌 허영.(보리 적 해서 제사에 올리고, 또 보리 '삼메'라고 해서.)

103013 #2 ᄀᆞ레도 막 ᄋᆞ라 번 ᄀᆞᆯ지 아니허믄.(맷돌도 아주 여러 번 갈지 아니하면.)

103013 #1 그 기주[69] 헹으네 ᄀᆞ찌 영 허믄 이제 거 이제 ᄀᆞ뜬 막걸리 시난, 엿날은 집이서 기주헙주게. 기주옌 허영 그거 떡에 ᄀᆞ를에 쪗당 뜨뜻헌디 어디 영 덕엇당 키왕, 영 이제 보글보글 궤믄 그거 떡 다 헹은에 식게 때, 무사 순우네 집이서 보리떡 허멍. (그 '기주' 해서 같이 이렇게 하면 이제 거 이제 같은 막걸리 있으니까, 옛날은 집에서 '기주' 하지요. '기주'라고 해서 그거 떡에 가루에 쪘다가 따뜻한데 어디 이렇게 덮었다가 키워서, 이렇게 이제 보글보글 끓으면 그거 떡 다 해서 제사 때, 왜 '순우'네 집에서 보리떡 하면서.)

103013 #2 우리도 헤낫주, 무시거 허멍.(우리도 했었지, 무엇 하면서.)

103013 #1 떡 헤낫덴 허여, 보리떡, 집마다. 나중엔 웨 삼메옌 허영 밀ᄀᆞ를 헤영헌 거, 그건 아주 고급스러운 요즘 빵이고, 그땐 어디 가도 식겟집이 가믄 보리적하고, 보리 삼메허고.(떡 했었다고 해, 보리떡, 집마다. 나중엔 왜 '삼메'라고 해서 밀가루를 하얀 거, 그건 아주 고급스러운 요즘 빵이고, 그땐 어디 가도 제삿집에 가면 보리 적하고, 보리 '삼메'하고.)

103013 #2 보리 막, 기계가 셔시믄 허주만는 ᄀᆞ레에 막 ᄀᆞᆯ아사. ᄀᆞ레에 멧 번 ᄀᆞᆯ지 아니허믄 ᄀᆞ를이 나오지 아니허는 따문, 치멍 대체로 우리 집 체도 이서. 영 저 ᄀᆞ는 체로 치믄 ᄀᆞ를 나왕 허고, ᄯᅳ시 그거 놩 ᄀᆞᆯ앙 ᄀᆞ를 나왕, ᄒᆞᆫ 사름만도 못 허여, ᄑᆞᆯ 아프난에, 영 서너이 ᄀᆞ레 ᄀᆞᆯ젠 허믄 헤멍 ᄒᆞᆫ 사름은 치곡, 두 사름은 이레 ᄀᆞᆯ곡, 경 허멍. (보리 마구, 기계가 있으면 하지만, 맷돌에 마구 갈아야. 맷돌에 몇 번 갈지 아니하면 가루가 나오지 아니하기 때문, 치면서 대체로 우리 집 체도 있어. 이렇게 저 가는 체로 치면 가루가 나와서 하고, 다시 그거 놔서 갈아서 가루가 나와서, 한 사람만으로도 못 해, 팔 아프니까, 이렇게 서너 명이 맷돌 갈려고 하면 하면서 한 사람은 치고, 두 사람은 이리 갈고, 그렇게 하면서.)

103013 #1 게난 요사이는 뭐 헌디, 그때 ᄀᆞᆯ멍도 이 맥주, 저 아니 솔오리는 게도 양반이라마씨. 옛날 겉보리 헌 땐 그것이 아멩 방에 져도 채가 더러 붓드난 그걸 ᄀᆞᆯ앙 떡을 헤노믄 아멩 잘 쳐도 떡에 반은 채가 빈주룩허영.(그러니까 요새는 뭐 하는데, 그때 갈면서도 이 맥주, 저 아니 쌀보리는 양반이에요. 옛날 겉보리 할 때는 그것이 아무리 방아 져도 겉겨가 붙으니까 그걸 갈아서 떡을 해 놓으면 아무리 잘 쪄도 떡에 반은 겉겨가 많이 보여.)

103013 #2 깍깍해서, 깍깍. 그렇게 해도 그거 먹은 사람들 있었죠. (깍깍해서, 깍깍. 그렇게 해도 그거 먹은 사람들 있었죠.)

103013 #1 깍깍 질르곡 먹젱 허믄 그루후제 첨 솔오리 난 허니까, 게도 그보다는 좋

68) '삼메'는 삼메떡인데, 밀가루 따위에 더운 물과 기주를 조금 넣어 되게 반죽하고서 만두 모양으로 만들고는 더운 방에 두어서 부풀어 오르게 하여 찐 떡이다.

69) '기주'는 증편 같은 것을 만들 때에 술 따위를 쳐서 부풀어 오르게 하는 것이다.

게. 양반.(깍깍 찌르고 먹으려고 하면 그 후에 참 쌀보리 나서 하니까, 그래도 그보다는 좋게, 양반.)

103013 #2 옛날, 옛날 어른덜은 더 막 헤신가? 우리 헐 땐 그추록 경 헷는디, 경 허연 탁배기 허연 그자 보리로 탁배기허고, 술 허곡, 누룩 허곡, 이제 기추룩 헹은에 식게 헐 땐 그거 탁배기허곡.(옛날, 옛날 어른들은 더 막 했는가? 우리 할 땐 그처럼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서 탁주 해서 그저 보리로 탁주하고, 술하고, 누룩하고, 이제 그처럼 해서 제사할 때는 그거 탁주하고.)

103013 #1 다 어디던지 보리 저, 보리.(다 어디든지 보리 저, 보리.)

103013 #2 보리 고소리술[70]도 허멍.(보리 '고소리술'도 하면서.)

103013 @ 보리 저기 거 저 보리로 떡 만드는 거?(보리 저기 거 저 보리로 떡 만드는 거?)

103013 #2 예.(예.)

103013 #1 적도 거 무신 적이 싯고양, 지지는 거허고, 또 무신 꿰는 보리적 싯지 아니허꽈? 게 헹은에 이것도 다 무신거 헷당, 보리떡 헐 때 걸 적을 다 허영 꿰영 그것도 ᄀᆞ찌 북은뎅 허여. 영 ᄃᆞ뜻헌 디 아랫목이나 덕엉 놔두믄 것이 궤믄.(적도 거 무슨 적이 있고요, 지지는 거하고, 또 무슨 꿰는 보리적 있지 아니합니까? 그거 해서 이것도 다 무엇 했다가, 보리떡 할 때 그것을 적을 다 해서 꿰어서 그것도 같이 부푼다고 해. 이렇게 따뜻한 데 아랫목이나 덮어서 놔두면 그것이 끓으면.)

103013 #2 게난 거 보리로 허영으네 탁배길 멘들앗당 이제 보리ᄀᆞ를 놩, 그 탁배기에 석엉, 든 것이 셔, 뭣이 셔, 탁배기에 영 서껑은에.(그러니까 그거 보리로 해서 탁주를 만들었다가 이제 보릿가루를 놔서, 그 탁주에 섞어서, 단 것이 있어, 뭣이 있어, 탁주에 이렇게 섞어서.)

103013 #1 삭가링이옌 허영 ᄒᆞ끔.(사카린이라고 해서 조금.)

103013 #2 무신거 갈적삼[71] 영 씨왕 놔두믄, 바가지에 갈적삼 씨왕 놔두믄 그레 ᄒᆞ끔 ᄃᆞ뜻헤가믄 부그락허게 올라와. 게민 이제 보리떡을 만들아, 만들앙게 징이 어서도 만들앙으네 솟디 쳥, 치믄 치는 것이 셔. 대왓디 강 무신 치는 거, 대 끈어다 놩 시리 징, 이젠 시리 징이옌 허주, 영 솟디 허영 치는 거 영 대로 영 멘들앙 대로 헹 여깡은에 멘들앙은에. 솟디 놩 그 우터레 놩 쳥, 경 허믄 알론 보리낭 불 솜곡, 그거 치곡, 보리낭 불 솜당 보믄 ᄒᆞᆫ 사름 솜앙 베꼇디레 불 부떠부난 경 허멍 청은에 식게허고, 경 헌 땐 꽝낭 더러 어디 강 소낭이나 저 수산봉에 강 봉가다 놩 ᄒᆞᆫ 사름덜은 그런 거 솜기도 좋은디, 우린 아기 둘곡, 아기 둘곡 헤노난, 그런 거 비레 잘 못 강 보리낭 그자 도새기 주는 보리낭 ᄌᆞ꼿디 놔뒷당 거 ᄒᆞᆫ 뭇 빠당 정지에서 불 솜곡 허믄, 경 허멍 거 떡 치젱 허믄.(무엇 '갈적삼' 이렇게 씌워서 놔두면, 바가지에 '갈적삼' 씌워서 놔두면 그리로 조금 따뜻해가면 보그락하게 올라와. 그러면 이제 보리떡을 만들어, 만들어서 경그레가 없어도 만들어서 솥에 쪄서, 찌면 찌는 것이 있어. 대밭에 가서 무슨 찌는 거, 대 끊어다

70) '고소리술'은 솥에 오메기술을 넣고 그 위에 소줏고리를 얹어서 증류해서 뽑아낸 제주 전통 소주이다.

71) '갈적삼'은 감물을 들인 적삼이다.

놔서 시루 겅그레, 이젠 시루 겅그레라고 하지, 이렇게 솥에 해서 찌는 거 이렇게 대로 이렇게 만들어서 대로 해서 엮어서 만들어서. 솥에 놔서 그 위에 놔서 쪄서, 그렇게 하면 아래로는 보릿짚 불 때고, 그거 찌고, 보릿짚 불 때다가 보면 한 사람 때어서 바깥으로 불붙어버리니까, 그렇게 하면서 쪄서 제사하고, 그렇게 할 때는 꽝꽝나무 더러 어디 가서 소나무나 저 '수산봉'에 가서 주워다가 놔서 한 사람들은 그런 거 불을 때기도 좋은데, 우린 아기 데리고, 아기 데리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거 베러 잘 못 가서 보릿짚 그저 돼지 주는 보릿짚 옆에 놔뒀다가 거 한 뭇 빼다가 부엌에서 불 때고 하면,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떡 찌려고 하면.)

103013 #1 경허난 그 보리낭으로 그 보리쏠 허영 밥 헤 먹으믄 뚝 존넹 헤나서, 옛날은. 주로 땔 건 그자 보릿낭으로 밥헹 왈락 궤왓당, 밥헐 때도. ᄒᆞ끔 틈 들엿당으네 이제 또 나중엔 물 뿜으믄 그땐 이제 나중 솜으믄 것이 좀 재영 밥이 뒈는디.(그러니까 그 보릿짚으로 그 보리쌀 해서 밥해 먹으면 딱 좋다고 했었어, 옛날은. 주로 땔 건 그저 보릿짚으로 밥해서 왈락 끓었다가, 밥할 때도. 조금 뜸 들였다가 이제 또 나중엔 물 뿜으면 그때는 이제 나중 불을 때면 그것 조금 빨라서 밥이 되는데.)

103013 @ 그다음에양, 개역도 멘들앙 먹지 안 헷수가?(그다음에요, 미숫가루도 만들어서 먹지 안 했습니까?)

103013 #2 개역도 멘들앙 먹엇주. 개역도 복앙 ᄀᆞ레에 ᄀᆞᆯ아사, 개역도 보깡.(미숫가루도 만들어서 먹었죠. 미숫가루도 볶아서 맷돌에 갈아야, 미숫가루도 볶아서.)

103013 #1 나중에 방엣공장에 강 ᄀᆞᆯ아 왓는디, 처음엔.(나중에 방앗간에 가서 갈아 왔는데, 처음에는.) 에 우린 그냥.(처음에 우린 그냥.)

103013 @ 솟두껑에? 예?(솥뚜껑에? 예?)

103013 #2 솟뚜껑에 허영게. 솟뚜껑, 선셍님도 알암신게. 경 헤영 ᄀᆞ레에 ᄀᆞᆯ앙 먹엇주.(솥뚜껑에 해서요. 솥뚜껑, 선생님도 알고 있군요. 그렇게 해서 맷돌에 갈아서 먹었지.)

103013 @ 거 보깡은에, 보깡예. ᄀᆞ레에 ᄀᆞᆯ앙.(그거 볶아서. 볶아서요. 맷돌에 갈아서.)

103013 #1 비와 가믄 뭐 헐 거 잇수가? 이디선 허믄 보리 장만허는 디는 집마다 개역 헤노믄.(비와 가면 뭐 할 거 있습니까? 여기서는 하면 보리 장만한 데는 집마다 미숫가루 해 놓으면.)

103013 #2 메날 그 보끄는 내가 나.(만날 그 볶는 냄새가 나.)

103013 @ 비가 와야.(비가 와야.)

103013 #2 비가 오믄 보끄는 내 낭은에.(비가 오면 볶는 냄새가 나서.)

103013 #1 보리 보끄는 내가 고소허게 동네 집마다 나.(보리 볶는 냄새가 고소하게 집마다 나.)

103013 #2 느네 ᄀᆞ레 고와샤? 빌리라 허믄, 것도 빌려주곡.(너희 맷돌 고왔니? 빌리라 하면, 그것도 빌려주고.)

103014 @ 그다음엔양, 보리쏠 말헷고, 보리체가 잇고양, 보리체로는 뭘 헷수가?(그

다음에는요, 보리쌀 말했고, 보리쌀의 겉껍질이 있고요, 보리쌀의 겉껍질로는 뭘 했습니까?)

103014 #2 보리첸 이제 거시기게 쉐멕이곡, 보리체도 쉐도 멕이곡, 막 그건 밧 갈 때나 갈젱 허믄 잘 멕이젱 허믄 보리체.(보리쌀의 겉껍질은 이제 거세기 소먹이고, 보리쌀의 겉껍질 소도 먹이고, 마구 그건 밭 갈 때나 갈려고 하면 잘 먹이려고 하면 보리쌀의 겉껍질.)

103014 #1 방엣공장 강 ᄀᆞᆯ아온 누까옌 헹.(방앗간 가서 갈아온 쌀겨라고 해서.)

103014 #2 누까옝 허영.(쌀겨라고 해서.)

103014 #1 누까옌 허영 그걸 이제 그 출 썰엉 ᄒᆞ끔 영 서껏당 쉐 멕이곡 허믄.(쌀겨라고 해서 그걸 이제 그 꼴 썰어서 조금 이렇게 섞었다가 소먹이고 하면.)

103014 #2 썰엉 그레 헤노믄.(썰어서 그리 해놓으면.)

103014 #1 겡 쉐를 봉그랑케 멕여사 밧도 갈곡.(그렇게 소를 배부르게 먹여야 밭도 갈고.)

103014 @ 도새긴 안 멕입디가?(돼지는 안 먹였습니까?)

103014 #2 도새기도 멕엿주. 도새기도 멕연.(돼지도 먹였지. 돼지도 먹였어.)

103014 #1 엿날 도새긴양, 뭐 줄 거 어선, 거 헤노믄 도새기가 막 무신 이제 것지 솔짐니깡게? 그디서 옛날 ᄒᆞᆫ 칭이옌 허영 돗을, ᄒᆞᆫ 칭 돗이, 거 ᄒᆞᆫ 칭이 백 근인디, 요즘은 백 근은 아무것도 아니라. 겐디 옛날은 아, 그 집이 ᄒᆞᆫ 칭 돗 셔, 잘 멕연 헷젠.(옛날 돼지는요, 뭐 줄 거 없어서, 그거 해놓으면 돼지가 아주 무슨 이제 같이 살찝니까? 거기서 옛날 한 층이라고 해서 돼지를, 한 층 돼지가, 그거 한 층이 백 근인데, 요즘은 백 근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옛날은 아, 그 집에 한 층 돼지 있어, 잘 먹여서 했다고.)

103014 #2 게난에 보리쏠 싯어난 물 허곡게, 쉐 멕여사. 것이 막 영양가렌 허영. 보리쏠 싯어난 물, 보리쏠 싯어난 물 허믄, 막 뚜로 놔 뒀당 쉐 멕영으네, 쉐 멕이곡 도새기도 멕이젱 허믄 막 그것 하나토 덱기지 아니허영, 이젠 보리쏠 싯엉 무시거 허여도 도새기 채에 석엉으네 도새기도 멕이곡, 보리쏠 헤난 물, 쉐도 그거 멕이곡.(그러니까 보리쌀 씻었던 물 하고요, 소 먹여야. 그것이 아주 영양가라고 해서. 보리쌀 씻었던 물, 보리쌀 씻었던 물 하면, 마구 따로 뒀다가 소 먹여서, 소먹이고 돼지도 먹이려고 하면 아주 그것 하나도 던지지 아니해서, 이제는 보리쌀 씻어서 무엇 해도 뭐 하여도 돼지 겉겨에 섞어서 돼지도 먹이고, 보리쌀 했던 물, 소도 그거 먹이고.)

103014 #1 이젠 살기 좋으난 헷주, 그 전인 누까, 누까, 우미도 먹어나고.(이젠 살기 좋으니까 했지, 그전에는 쌀겨, 쌀겨, 우뭇가사리도 먹었었고.)

103014 #2 누까 떡도 허연 먹어낫수다게. 옛날 누까 떡 하영 먹엇주기, 옛날 어른덜은, 우린 덜 먹엇수다마는.(쌀겨 떡도 해서 먹었었습니다. 옛날 쌀겨 떡 많이 먹었지요, 옛날 어른들은, 우린 덜 먹었지만.)

103014 #1 거 전인 감젯주시 헤 가지고 서껀 경 헨 뭐 헤노믄 그냥 비삭비삭허난 뭐 허난에 삭가렁 ᄒᆞ끔 ᄃᆞᆯ게 탕 그 물로 떡 헹은에.(그거 전에는 고구마찌꺼기 해 가지

고 섞어서 그렇게 해서 뭐 해놓으면 그냥 비삭비삭하니까 뭐 하니까 사카린 조금 달게 타서 그 물로 떡 해서.)

103014 @ 그다음에양, 보리낭, 보리낭으론 뭘 헷수가?(그다음에요, 보릿짚, 보릿짚으로는 뭘 했습니까?)

103014 #1 보릿낭은 주로 이제 쉐 짓 주고, 밥헹 걸로, 으름에는 걸로.(보릿짚은 주로 이제 소 깃 주고, 밥해서 걸로 여름에는 걸로.)

103014 #2 불 솜고, 밥 허고.(불 때고, 밥 하고.)

103014 @ 쉐도 먹어 보리낭?(소도 먹어 보릿짚?)

103014 #1 안 먹읍니다. 쉐 똥고망에 꼴앙, 쉐 이제 질착질착 헤가믄, 도새기통시에도 짓 주고.(안 먹습니다. 소 똥구멍에 깔아서, 소 이제 질척질척 해가면, 돼지우리에도 깔아 주고.)

103014 @ 돗통에도 담곡.(돼지우리에도 담고.)

103014 #2 도새기새끼 나믄 것덜 꼴지 아니허믄 문딱 물 소곱더레 뭐 허곡 허난, 비나 와노믄 도새기똥은 어디 나가지 못허여. 물 나가지 못허믄, 거 막 하영 꼴아사. 하영 꼴아사 도새기 새끼덜토 저 나오곡, 허멍 누까물, 보리쏠 싯은 물 허영 주믄 도새기 새끼덜만 남박세기 흑끔 갓당 주믄, 영 흑끔 먹어가. 흑끔 먹곡, 깅 헤도 누까물 못 먹엉 어멍 젯 먹젱 허믄, 어멍은 먹을 거 어스믄 ᄉᆞ뭇 도새기통을 막 니 굿으로 돌아, 시장 헤노믄. 게난 밧디 갓당도 도새기 채 주젠 재게 오라사. 혼에 똑, 이제ᄀᆞ뜨믄 사름 삼식 먹듯이.(돼지 새끼 나면 그것들 깔지 아니하면 모두 물속으로 뭐 하고 하니까, 비나 오면 돼지똥은 어디 나가지 못해. 물 나가지 못하면, 거 아주 많이 깔아야. 많이 깔아야 돼지 새끼들도 저 나오고, 하면서 쌀겨 물, 보리쌀 씻은 물 해서 주면 돼지 새끼들만 나무바가지 조금 갔다가 주면, 이렇게 조금 먹어가. 조금 먹고, 그렇게 해도 쌀겨 물 못 먹어서 어미 젖 먹을려고 하면, 어미는 먹을 거 없으면 사뭇 돼지우리를 마구 네 곳으로 돌아, 시장 해놓으면. 그러니까 밭에 갔다가도 돼지 걷겨 주려고 빨리 와야. 시기에 똑, 이제 같으면 사람 삼식 먹듯이.)

103014 #1 게난 허믄 돗도양, 그 돗도고릴[72] 주둥이로 문딱 업퍼불믄 어떤 젠 새끼덜 문 지둘루곡 허멍양, 돗도 시장헤 노믄 첨 심술부려.(그러니까 하면 돼지도요, 그 '돗도고리'를 주둥이로 모두 엎어버리면 어떤 빠른 새끼들 모두 지지르고 하면서요, 돼지도 시장 해 놓으면 참 심술부려.)

103014 #2 게난 빗물 아이 줭 쏠 싯은 물 막 놔뒀당 돗도고리에, 새끼 나믄 도새기 길 막 멕여사.(그러니까 빗물 아니 줘서 쌀 씻은 물 마구 놔뒀다가 '돗도고리'에, 새끼 나면 돼지를 막 먹여야.)

103014 #1 거 뭐 우유가 싯수가 뭐 잇수가, 그것이 아주 첨 영양제로 그건 쏠 싯은 물 뜨로 놔두라 헷당, 도새기 주곡, 보리쏠 싯은 물.(거 뭐 우유가 있습니까 뭐 있었습니까, 그것이 아주 참 영양제로 그건 쌀 씻은 물 따로 놔두라 했다가, 돼지 주고, 보리쌀 씻은 물.)

72) '돗도고리'는 돼지에 먹이를 넣어 주기 위해서 돌을 둥글넓적하게 파서 만든 돌그릇이다.

103014 @ 그다음에 ᄀᆞ시락, 고시락양, ᄀᆞ시락으론 뭘 헷수가?(그다음에 까끄라기, 까끄라기요, 까끄라기로는 뭘 했습니까?)

103014 #1 ᄀᆞ시락은 주로 이제는 그자 ᄀᆞ시락도 허영.(까끄라기는 주로 이제는 그저 까끄라기도 해서.)

103014 #2 굴묵[73] 짓곡 저, 옛날 무신거 적삼 허멍게, 베 짤 때에 뒷당 베, 미녕 찰 때에 ᄒᆞ끔 우리 할머니덜 헐 때 봐낫수다.('굴묵' 때고 저, 옛날 뭐 적삼 하면서요, 베 짤 때에 놔뒀다가 베, 무명 짤 때에 조금 우리 할머니들 할 때 봤었습니다.)

103014 @ ᄀᆞ시락을 무신 미녕 찰 때에 허여?(까끄라기를 무슨 무명 짤 때에 해?)

103014 #1 아니.(아니.)

103014 #2 아니라.(아니야.)

103014 #1 이 저 불치옌 헤 가지고양, 마당에 영 ᄇᆞ름 잔디 짝 불 살아놩 그 미녕 창 족은할망네 집이, 쭉 헹 거 씰 헤노민 풀헤여마씨. 풀헹 그 씰에 영 너른디 풀헷당 그거 ᄆᆞᆯ리우젠 허믄 ᄀᆞ시락 불을 살와사.(이 저 불티라고 해 가지고요, 마당에 이렇게 바람 잔데 짝 불 피워놔서 그 무명 짜서 작은할머니네 집에, 쭉 해서 그거 실 해 놓으면 풀해요. 풀해서 그 실에 이렇게 넓은데 풀했다가 그거 말리려고 하면 까끄라기 불을 피워야.)

103014 @ 아, ᄀᆞ시락 불을 살앙은에.(아, 까끄라기 불을 피워서.)

103014 #1 겡 헹 그걸 ᄆᆞᆯ리왕 이제 ᄆᆞᆫ딱 들이멍.(그렇게 해서 그걸 말려서 이제 모두 들이면서.)

103014 #2 돌 ᄃᆞᆯ아 메놩 그거 허영.(돌 달아 메어놔서 그거 해서.)

103014 #1 꼬리옌 허영 그것에 탁 감곡 허멍 이제 거 우리집인 어서나고 알력집 족은할망네 집이 헐 땐 베 차고, 미녕 차곡 영 허멍 첨 시간 이실 때마다.(실톳이라고 해서 그것에 탁 감으면서, 이제 거 우리 집에는 없었고 아랫집 작은할머니네 집에 할 때는 베 짜고, 무명 짜고 이렇게 하면서 참 시간 있을 때마다.)

103014 #2 우리.(우리.)

103014 #2 게난 우리 족은어머님네 허고 우리 할마니, 시할마님네, 우리 옆집의 족은시어머님네도 경 헤나고, 헤낫수다, 하영덜.(그러니까 우리 작은어머니네 하고 우리 할머니, 시할머니네, 우리 옆집에 작은시어머니네도 그렇게 했었고, 했었습니다. 많이들.)

103014 @ 아, 나 그거 처음 들엄수다. 처음 들엄수다, ᄀᆞ시락이영 미녕 찰 때.(아, 나 그거 처음 듣고 있습니다. 처음 듣고 있습니다, 까끄라기랑 무명 짤 때.)

103014 #1 미녕 찰 때 그 저 뭣이옌 헌다, 꼬리옌 허던가 금방, 영.(무명 짤 때 그 저 뭣이라고 한다, 실톳이라고 하든가 금방, 이렇게.)

103014 #2 실 감는 거.(실 감는 거.)

103014 #1 거 말고, 미녕 찰 때 이렇게 뭣 디므는 거.(그거 말고, 무명 짤 때 이렇게 뭣 집어넣는 거.)

---

73) '굴묵'은 구들방에 불을 때게 만든 아궁이 및 그 아궁이 바깥 부분이다.

103014 #2 몰라. 저 뒈왁세기 닮은 거 무시거 디믈멍 허여.(몰라. 저 식되 같은 거, 뭐 집어넣어서 해.)

103014 #1 게메, 그거 이름 꼬리옌 허든가 뭣이옌.(글쎄, 그거 이름 실톳이라고 하든가 뭐라고.)

103014 #2 게도 헤난 거양, 나도 이 총기가 이서.(그래도 했던 거요, 나도 이 총기가 있어.)

103014 @ 그것도양, 다 물어볼 거우다, 미녕 차는 거.(그것도요, 다 물어볼 겁니다, 무명 짜는 거.)

103014 #2 미녕 차는 거, 이상허다, 알아지커라.(무명 짜는 거, 이상하다, 알 수 있겠어.)

103014 #1 아는 흔은 골아사주게. 게 우리 본 거영.(아는 한은 말해야지요. 그렇게 우리 본 거랑.)

103015 @ 모든 거 다 물어봐. 그다음에양, 보리농사에 얽힌 추억이나 경험, 보리농사 허멍 재미낫던 일.(모든 거 다 물어봐. 그다음에요, 보리농사에 얽힌 추억이나 경험, 보리농사 하면서 재미있었던 일.)

103015 #2 보리?(보리?)

103015 @ 예, 보리농사 허멍 재미낫던 일, 어디 장마철에 보리 나 부럿다든가, 이런 것덜.(예, 보리농사 하면서 재미있었던 일, 어디 장마철에 보리 나 버렸다든가, 이런 것들.)

103015 #1 아이고, 그때는 측우소도 어섯고 일기예볼 몰라마씨. 뒷날 비올 때 영 봉, 이거 마 불엉 똑 비왐직허다 허믄, 어디 이디 요즘 ᄀᆞ뜨믄 일기방송이나 들엉 아 내일, 겐디 내일 비올 것도 몰라마씨. 겡 헷당은에 닥치곡 허는디 비가 옴 시작허믄양 보린 멘딱 저 비온 왓디, 이거 큰일나마씸, 밤중에도 강은에양, 그걸 언주와노멍 더러 헤 가지고 눌지 안허믄, 보리 다 그 장마 때는 메칠 멧날 헤노믄 다 썩엉 뒛사놓곡, 또 이 헹 장만허젱 뒛사놧당 뒷날 무끄젠 허민, 그젯날 비가 잡아 골겨노믄 이건양, 보린 흔번 비 맞앙 뭐 헤노믄 돌돌돌 다 털어져마씀.(아이고, 그때는 측후소도 없었고 일기예보를 몰라요. 뒷날 비올 때 이렇게 봐서, 이거 마파람 불어서 똑 비올 것 같다 하면, 어디 여기 요즘 같으면 일기방송이나 들어서 아 내일, 그런데 내일 비 올 것도 몰랐죠. 그렇게 했다가 닥치고 하는데 비가 오기 시작하면요, 보리는 모두 저 비온 밭에, 이거 큰일 나요. 밤중에도 가서요, 그걸 그러모으면서 놓으면서 더러 해 가지고 쌓지 안 하면, 보리 다 그 장마 때는 며칠 몇 날 해놓으면 다 썩어서 뒤집어 놓고, 또 이 해서 장만하려고 뒤집어 놨다가 뒷날 묶으려고 하면, 그저께 비가 잡아 갈겨 놓으면 이건요, 보리는 한번 비 맞아서 뭐 해 놓으면 돌돌돌 다 떨어져요.)

103015 #2 털어지곡, 거멍허영 먹지 못허여.(떨어지고, 검어서 먹지 못해.)

103015 #1 거멍허영 먹지 못허고.(검어서 먹지 못하고.)

103015 @ 보리 나진 안 헙니까?(보리 나지는 안 합니까?)

103015 #1 무사 안 나? 오래 가믄 나부러. 게문 다 뒛사놩 놔둬, 또 비오믄 그다음

엔 우리도 혼 밧 내불어낫주. 아, 뒷날 영 헨 무끄젠 헨, 그날 저냑 비 골겨부난, 물이 봉봉 차 그 밧은 물 안 빠졍. 겐 물이 둥둥 턴 다 헹 허난 내불언.(왜 안 나? 오래 가면 나버려. 그러면 다 뒤집어 놔서 놔둬, 또 비 오면 그다음엔 우리도 한 밭은 그냥 내버렸었지. 아, 뒷날 이렇게 해서 묶으려고 했어, 그날 저녁 비 갈겨버리니까, 물이 봉봉 차 그 밭은 물 안 빠져서. 그래서 물이 둥둥 떠서 다 해서 하니까 내버렸어.)

103015 #2 삼백 평짜리 저 수산봉 즈꼿이우다마는, 삼백 평짜리 저디 싯수다마는. 그 밧디.(삼백 평짜리 저 '수산봉' 옆에 입니다만, 삼백 평짜리 저기 있습니다만, 그 밭에)

103015 #1 보리 허난, 내, 큰 비 오난 민짝 끄서부런, 어떵사 헌디.(보리 하니까, 냇가, 큰 비 오니까 모두 떠내려가 버렸어, 어떻게야 했는지.)

103015 @ 예, 좀 쉬엇당 허쿠다.(예,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103016 @ 그다음에 이제 조에 대해서 물어보쿠다예. 조 농사 허젠 허민 어떤 준비가 필요헙니까?(그다음에 이제 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조 농사 하려고 하면 어떤 준비가 필요합니까?)

103016 #1 우선 이디 저, 질왓[74]이난 여긴 밧 가는 것이 제일 문제라마씨. 겐 초불 밧 거시리헹 덜 거시리옝 허는디, 으름 밧 혼 번 거시령 놔두믄 비 맞곡, 벳 맞으믄양, 비료, 걸름 혼 번 준 건만이, 게난 여기선 질왓은 하여튼 어떻든 밧은 초불 갈아사. 것도 또 물맞게 갈아야지 너무 몰라도 잘 못 갈곡, 너무 질믄 이제 벙뎅이 나 노믄, 이것이 생전 풀어지질 아니허여마씨. 게난 물맞게 잘 가는 것이 제일, 우리 농스 져 보믄 그것이 질 문제라마씨.(우선 여기 저, '질왓'이니까 여기는 밭 가는 것이 제일 문제에요. 그래서 애벌 밭 애벌갈이를 해서 덜 애벌갈이라고 하는데 여름 밭 한 번 애벌갈이를 해서 놔두면 비 맞고, 햇빛 맞으면요, 비료, 거름 한 번 준 것만큼, 그러니까 여기선 '질왓'은 하여튼 어떻든 밭은 애벌 갈아야. 것도 또 알맞게 갈아야지 너무 말라도 잘 못 갈고, 너무 질면 이제 덩어리 나 놓으면, 이것이 생전 풀어지질 아니해요. 그러니까 알맞게 잘 가는 것이 제일, 우리 농사져 보면 그것이 제일 문제에요.)

103016 #2 밧덜이 질왓덜, 질왓.(밭들이 '질왓'들, '질왓'.)

103016 #1 밧을 어떵 이제 물맞게 가느냐? 거시린덴 허는디, 밧 거 물맞게 잘 거시려서 영 헹, 꼭 물맞게 쉐로 허영.(밭을 어떻게 이제 알맞게 가느냐? 애벌갈이 한다고 하는데, 밭 거 알맞게 잘 애벌갈이 해서 이렇게 해서, 꼭 알맞게 소로 해서.)

103016 #2 저 웃드리렌 잘 헨덴 허는디.(저 '웃드리'로는 잘 한다고 하는데.)

103016 #1 우에는 땅이 비가 와도 좀 허곡, 몰라도 덜 허는디, 아, 이 헤변 밧은 양, 질왓디 헤노믄 초불, 거시령 놩 콩 갈젠. 아이, 저 조는 그렇고, 콩은 나중 예기허쿠다마는, 이 조 허젠헤도 밧 거시렷당, 또 이 날씨 영 봉 마갈이[75] 일, 이제 헤 점직허다 허믄, 그땐 이 일기방송을 들어지카 뭐 아무것도 모르는데, 산데레 베리곡 바당더레 베령 이거 비는 이제 큰 비는 아이 왐직허다, 마 불언. 여기사 마브름 불믄 빌레, 열 나을 빈

74) '질왓'은 돌멩이가 없고 맨흙이 깔려있는 밭이다.
75) '마갈이'는 장마 시기가 지남 뒤에 파종하는 조 농사 따위이다.

덴 헤낫수다게. 마ᄇᆞ름 계속 터지믄.(위에는 땅이 비가 와도 좀 하고, 말라도 덜 하는데, 아, 이 해변 밭은요, '질왓'에 해놓으면 애벌, 애벌갈이해서 놔 콩 갈려고. 아니, 저 조는 그렇고, 콩은 나중 얘기 하겠습니다만, 이 조 하려고 해도 밭 애벌갈이 했다가, 또 이 날씨 이렇게 봐서 장마가 질 일, 이제 할 것 같다 하면, 그때는 이 일기방송을 들어질까 뭐 아무것도 모르는데, 산으로 보고 바다로 보아서 이거 비는, 이제 큰 비는 안 올 것 같다, 마파람 불어서. 여기야 마파람 불면 빌러, 열나흘 빈다고 했었습니다, 마파람 계속 불면.)

103016 #2 졸 허젠 허믄 놈이 ᄆᆞᆯ덜이영 쉐덜이영 수눌어사. ᄇᆞᆯ리젠 허믄. 이녁 쉐 하나만도 이녁 쉐 갈고, 뒤에서 ᄇᆞᆯ리는 ᄆᆞᆯ덜이영 쉐덜이영, 이제.(조를 하려고 하면 남의 말들이랑 소들이랑 품앗이해야. 밟으려고 하면. 이녁 소 하나만도 이녁 소 갈고, 뒤에서 밟는 말들이랑 소들이랑, 이제.)

103016 #1 사름덜이영 수눌엉 어디 밧 ᄇᆞᆯ린다 허믄 ᄆᆞᆯ 신디서.(사람들이랑 품앗이해서 어디 밭 밟는다고 하면 말 있는 데서.)

103016 #2 그디 강 먹어 놩.(거기 가서 먹어 놔서.)

103016 #1 오늘은 누구네 집이 밧 ᄇᆞᆯ렴져 허믄 이제 그레 갈아가멍 좁씨 삐어가멍, 이제 거 좁씨 삐고 밧 가는 사름은 이제 것이 제일 선셍이난, 밧 갈아가멍 좁씨 삐믄 뒤에 들어강 이제 ᄆᆞᆯ덜 허영 ᄇᆞᆯ리곡.(오늘은 누구네 집에 밭 밟고 있다고 하면 이제 그리로 갈아가면서 좁씨 뿌려가면서, 이제 거 좁씨 뿌리고 밭 가는 사람은 이제 것이 제일 선생이니까, 밭 갈아가면서 좁씨 뿌리면 뒤에 들어가서 이제 말들 해서 밟고.)

103016 #2 경허난.(그러니까.)

103016 #1 경 헹 씨 헤 노믄 나중에 이제 거의 물맞앙 나 노믄 '마갈이'옌 헤 가지고 비가 다헹히 안 왕 조가 날 거 아이우꽈? 수북이 낭 허믄, 요놈으 것이 이제 거 물맞앙 나 노믄, 조가 줏게 삐어 노믄 복짝허믄 이제 소깡, 초불 멩, 그다음에 두불 매고 시불꺼지, 조컴질을 시불꺼지 매사 허주게. 조 컴질은 시불꺼지 메믄 이제 나중에 거 조.(그렇게 해서 씨 해 놓으면 나중에 이제 거의 알맞아서 나 놓으면 '마갈이'라고 해 가지고 비가 다행히 안 와서 조가 날 거 아닙니까? 수북이 나서 하면, 요놈의 것이 이제 거 알맞아서 나 놓으면, 조가 잦게 뿌려 놓으면 빽빽하면 이제 솎아서, 애벌 매서, 그다음에 두벌 매고 세벌까지, 조 김을 세벌까지 매야 하지요. 조 김은 세벌까지 매면 이제 나중에 거 조.)

103016 #2 페렝이가 시카? 씰 거 어선, 씰 것도 엇곡.(패랭이가 있을까? 쓸 거 없어서, 쓸 것도 없고.)

103016 #1 조, 저 뭣이옌 허느니? 대우리, 조. 빈 ᄋᆞ물 나는 조 대우리.(조, 저 뭐라고 하지요? 귀리, 조. 빈 여물 나는 조 귀리.)

103016 #2 조 대우리라, 것도 잊어부런. 하하하(웃음), 거세기게.(조 귀리야, 그것도 잊어버렸어. 하하하(웃음), 거세기요.)

103016 @ ᄀᆞ랏.(가라지.)

103016 #1 예, ᄀᆞ랏.(예, 가라지.)

103016 #2 예, ᄀᆞ랏, 조ᄏᆞ랏.(예, 가라지, 조가라지.)

103016 #1 아, 조ᄏᆞ랏.(아, 조가라지.)

103016 #2 조ᄏᆞ랏 메젱 허믄, 메젱 허믄.(조가라지 매려고 하면, 매려고 하면.)

103016 #1 어떤 딘 그거 조카부덴 살령 놔, 살령 놔두믄 멘 ᄀᆞ랏뿐인 디도 셔. 게난 잘 봥으네 메사 허고.(어떤 데는 그거 조일까 싶어서 살려서 놔, 살려서 놔두면 모두 가라지뿐인 데도 있어. 그러니까 잘 봐서 매어야 하고.)

103016 @ 게난 이 밧을 잘 갈아야 뒈컨게양.(그러니까 이 밭을 잘 갈아야 되겠어요.)

103016 #1 첫째양, 그것이 제일우다게. 마같이 헹 씨 뿌린 후부터 이제 비가 잘 안 왕 이레 쪼끔 왕 날씨 개곡 헤 노믄, 요것이 조가 나 노믄 이제 거 초불 검질 메고 두 불 검질 매가믄양, 마같이 든 밧은 겨당 비가 간혹 흔번 맞곡 허믄 요것이 울뭇울뭇 커마씨. 조 허믄양, 이디 마같이 뒈언 첨 조 좋게 뎀져 허영. 그건 헤 노믄 좋곡, 장마 헹 물 마같이 뒈 노믄양, 종자를 셉지 못허여. 또 재깍헤 노믄 크지도 아이허곡, 조가 나도.(첫째요, 그것이 제일입니다. '마같이' 해서 씨 뿌린 후부터 이제 비가 잘 안 와서 이리로 조금 와서 날씨 개고 해 놓으면, 요것이 조가 나 놓으면 이제 거 애벌 김 매고, 두 벌 김 매가면요, '마같이' 든 밭은 그러다가 비가 간혹 한번 맞고 하면 요것이 울뭇울뭇 커요. 조 하면요, 여기 '마같이' 돼서 참 조 좋게 되고 있어 해서. 그건 해 놓으면 좋고, 장마 해서 물 '마같이' 돼 놓으면요, 종자를 세우지 못해서. 또 빽빽해 놓으면 크지도 아니하고, 조가 나도.)

103016 #2 조 볼릴 때도 경 헤사. "이 놈의 물들아 어장어장 어장어장 조 보리도 잘 먹곡, 조도 잘 불려사 우리 느네들토 좋고, 조코고리도 먹고, 곡식도 잘 뒐 거 아니가."(조 밟을 때도 그렇게 해야. "이 놈의 말들아 어장어장 어장어장 조 보리도 잘 먹고, 조도 잘 밟아야 우리 너희들도 좋고, 조이삭도 먹고, 곡식도 잘 될 거 아니가.")

103016 #1 "어허어, 어어."("어허어, 어어.")

103016 #2 "어허 어러러러러러러. 어장어장 어장어장 요놈이 물들아, 말도 잘 듣곡, 어허 어러러러러러, 어어어으 어러라."("어허 어러러러러러러. 어장어장 어장어장 요놈이 말들아, 말도 잘 듣고, 어허 어러러러러러러, 어어어으 어러라.")

103016 #1 게난 우리 집사름은 소리허곡, 난 밧 가는 장남이난 밧을 갈아사. "에허 어러러."(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은 소리하고, 난 밭 가는 장정이니까 밭을 갈아야. "에허 어러러.")

103016 #2 이추룩벳기 못 허여, 경허난 아기도 재와동 재게 강 소리허젠 허믄 아긴 깨나 불곡, 구덕에 놔, 골체에 놩, 게믄.(이처럼밖에 못 해, 그러니까 아기도 재워둬서 빨리 가서 소리하려고 하면 아기는 깨어나 버리고, 바구니에 놔, 삼태기에 놔서, 그러면.)

103016 #1 골체에.(삼태기에.)

103016 #2 조 볼리당 보민, 아긴 담 이염이 골체에 놩 흥글당.(조 밟다가 보면, 아기는 담 옆에 삼태기에 놔서 흔들다가.)

103016 #1 밧디 담 이염이 어디 그늘진 디 영 재우곡.(밭에 담 옆에 어디 그늘진 데 이렇게 재우고.)

103016 #2 재우곡, 경 헤가믄 재게 불르곡, 소리 헤뒁 왕, 아기 젯 멕이곡, 아이고 어떵 헤사 세상이 경 허멍 살아, 살앗수다.(재우고, 그렇게 해가면 빨리 밟고, 소리 해둬서 와서, 아기 젖 먹이고, 아이고 어떻게 해야 세상에 그렇게 하면서 살아, 살았습니다.)

103016 #1 조컴질 메젱 헤도 저 그늘케 헹으네, 영 그 낭께기 헹 강, 니 끗에 영 그늘을 멩글아사.(조 김매려고 해도 저 그늘지게 해서, 이렇게 그 나뭇가지 해서 가서, 네 끝에 이렇게 그늘을 만들어야.)

103016 #2 조 컴질 메젱 허믄 뚜시 이제 아길 골체에 놔뒁.(조 김매려고 하면 다시 이제 아기를 삼태기에 놔둬서.)

103016 #1 겡 거기 앚앙 이제 아기 재와뒁 검질메곡, 조 불리레 강도 그추룩 헹 허고.(그렇게 거기 앉아서 이제 아기 재워둬서 김매고, 조 밟으러 가서도 그처럼 해서 하고.)

103016 #2 게난 보리보다 더 어려와, 이것이 막.(그러니까 보리보다 더 어려워, 이것이 마구.)

103016 #1 잘못허당 이제 구덕 엎어져노믄 아기도 춤 울곡, 그런 때도 으라 번 이섯수다게. 저 흔구석에 그늘진 디 어디 놩 아기 놩 놔두믄, 골체에 허당 엎어졍 막.(잘못하다가 이제 바구니 엎어져 놓으면 이제 아기도 참 울고, 그런 때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저 한구석에 그늘진 데 어디 놔서 아기 놔서 놔두면, 삼태기에 하다가 엎어져서 막.)

103016 #2 조컴질 메젠 허믄 조 재게 소리 헹, 헤동 왕 불려뒁으네 이제 아기 젯 멕여동 가곡 허당 보믄, 하르방 하난 물 시 개 허난 버치곡, 순일이 아방은 경 허멍. 아이고, 어떵사 헤연 헤져신디, 어떵사 허연 헤져신디 다 옛날 한 거 잊어부러, 잊어부러.(조 김매려고 하면 조 빨리 소리해서, 해둬서 와서 밟아둬서 이제 아기 젖 먹여둬서 가고 하다 보면, 할아버지 하나는 말 세 개 하니까 부치고, '순일'이 아버지는 그렇게 하면서. 아이고, 어떻게야 해서 해졌는지, 어떻게야 해서 해졌는지, 다 옛날 한 거 잊어버렸어, 잊어버렸어.)

103016 #1 그땐양, 마갇이 시겸 허믄 저, 두 집 시 집이 장남덜 모다들엉 그 밧덜 막 ᄀᆞ찌 갈고.(그때는요, '마갇이' 시키고 있다고 하면 저, 두 집 세 집의 장정들 모여들어서 그 밭들 마구 같이 갈고.)

103016 #2 탁배기 먹고, 술 허영 먹어.(탁주 먹고, 술 해서 먹어.)

103016 #1 그디 저 탁배기 거려오라 허영 흔 적 먹어 노믄, 으름에 헤 노믄.(거기 저 탁주 떠오라 해서 한 적 먹어 놓으면, 여름에 해 놓으면.)

103016 #2 보리 탁배기 헹 먹언.(보리 탁주 해서 먹었어.)

103016 #1 밧 불리레 뎅이멍양, 오늘은 어느 집 어느 집, 마갇이 신데레 글라 헹.(밭 밟으러 다니면서요, 오늘은 어느 집 어느 집, '마갇이' 있는데 가자 해서.)

103016 #2 아이구 게메, 경 헌 세상도 다, 경 헤낫수다.(아이고 글쎄, 그렇게 한 세

상도 다, 그렇게 했었습니다.)

조 농사

103017 @ 그다음에양, 조팟 걸름 안 허지양?(그다음에요, 조밭 거름 안 하지요?)

103017 #2 조팟 걸음, 게난.(조밭 거름, 그러니까.)

103017 #1 조는 보리 그루에 걸름 노믄 일 년 가마씸. 조팟은 걸름, 또 덮곡 헤노믄. 또 그건 조는 오래 안 걸리곡, 보리ᄀᆞ치 겨울 들엉 막 오래 가는 거 아이난, 조는 재개뒈는 거난, 조는 걸름 아이헤마씨. 그 비료도 엇곡 허믄 그냥 오좀 신 집이.(조는 보리 갈았던 곳에 거름 놓으면 일 년 가요. 조밭은 거름, 또 덮고 해놓으면, 또 그건 조는 오래 안 걸리고, 보리같이 겨울 들면서 아주 오래 가는 거 아니니깐, 조는 빨리 되는 거니까, 조는 거름 아니해요. 그 비료도 없고 하면 그냥 오줌 있는 집에.)

103017 #2 오좀 져당은에, 것 허는 사름은 허고, 경 헤낫주.(오줌 져다가, 그것 하는 사람은 하고. 그렇게 했었지.)

103017 #1 오좀 져당 박세기 헹 뿌리고, 무신 걸름이 셧수가?(오줌 져다가 바가지 해서 뿌리고, 무슨 거름이 있었습니까?)

103017 #2 허벅에 오줌 정 강게. 오줌 세벡이 져 가지 아이허믄, 아기 눅져뒁 져 가지 아이허믄, 강 져당 ᄒᆞᆫ 허벅, 두 허벅 박세기 허영 지쳥으네.(물동이에 오줌 져 가서요, 오줌 새벽에 져 가지 아니하면, 아기 눕혀둬서 져 가지 아니하면, 가서 져다가 한 물동이, 두 물동이 바가지 해서 지쳐서.)

103017 #1 것이 거멍허곡 것이 좋아마씨.(그것이 검고 그것이 좋습니다.)

103017 #2 게난 오줌, 조도 ᄋᆞ라 찔이주. 오줌 져 강 준 딘 허곡. 막 수눌어 가멍 져서, 동네사름덜.(그러니까 오줌, 조도 여러 가지지. 오줌 져 가서 준 데는 하고. 마구 품앗이해 가면서 져서, 동네사람들.)

103017 #1 누게네 오줌 쥠덴 허믄.(누구네 오줌 주고 있다고 하면.)

103017 #2 게믄 ᄀᆞ찌 져 가곡, 보린 멧 번 아이 줫수다마는. 경헤도 졍 가긴 졍 가나서, 가까운디.(그러면 같이 져 가고, 보리는 몇 번 아니 줬습니다만. 그래도 져서 가기는 져서 갔었어. 가까운데.)

103018 @ 그다음에 조는 언제 어떵 감니까?(그다음에 조는 언제 어떻게 갑니까?)

103018 #1 존 이디서 보릿그루나, 주로 보릿그루 나믄 ᄋᆞ름에 저, 거 처서 전에, 처서 전에 이제 초불 거시렷당, 이디선 하여튼 거시렷수다, 밧을. 거시렷당 이제.(조는 여기서 보리 갈았던 곳이나, 주로 보리 갈았던 곳이 나면 여름에 저, 그것 처서 전에, 처서 전에 이제 애벌 애벌갈이를 했다가, 여기선 하여튼 애벌갈이를 했습니다, 밭을. 애벌갈이를 했다가 이제.)

103018 #2 ᄀᆞᆯ을 말 헤나고, 게난.(말할 말 했었고, 그러니까.)

103018 #1 거시렷당 거 두불 우이로 살살살 젱기 들렁 갈멍 씨 뿌령은에 사름덜 모다들엉 ᄇᆞᆯ립주. 쉐, 게고 그전에 그건 처음 써나고, 남텡이[76]옌 허영 영 구루마ᄀᆞ찌 영

헌 것에, 동글락헌 것에 막 물발ᄀᆞ치 헤 놩, 그것도 헤낫수다. 처음에 게믄 이제 밧마다 강 끄성 오민 물, 쉐 어신 집이 거 남테이옌 허영 끄선.(애벌갈이 했다가 거 두벌 위로 살살살 쟁기 들어서 갈면서 씨 뿌려서 사람들 모여들어서 밟지요. 소, 그리고 그전에 그건 처음 섰었고, '남텡이'라고 해서 이렇게 마차 같이 이렇게 한 것에, 동그란 것에 막 말발같이 해 놔서, 그것도 했었습니다. 처음에 그러면 이제 밭마다 가서 끌어서 오면 말, 소 없는 집에 거 '남텡이'라고 해서 끌었어.)

103018 @ 남텡이? 그거 조 볼릴 때 허는 거 아니우꽈?('남텡이'? 그거 조 밟을 때 하는 거 아닙니까?)

103018 #1 조 볼릴 때, 게메.(조 밟을 때, 글쎄.)

103018 @ 예, 거난 그건 나중에 물어보쿠다예. 그다음에 좁씨는 어떵 뿌립니까?(예, 그러니까 그건 나중에 물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좁씨는 어떻게 뿌립니까?)

103018 #1 좁씬 좀진 거난 줄끈 줴영, 이거 잘 베리지도 못 허곡, 덮곡 흑은 뭣헤노난 손짐작으로 삐는디 이거 좀진 거난 꽤씨ᄀᆞ찌 좀질아노난.(좁씨는 잘고 가는 거니까 잘끈 쥐어서, 이거 잘 보이지도 못하고, 덮고 흙은 뭐해 놓으니까 손짐작으로 뿌리는데 이거 잘고 가는 거니까 깨같이 잘고 가늘어 놓으니까.)

103018 #2 멩텡이에 멘게.(망태기에 메어서요.)

103018 #1 멩텡이에 멩 이제 줄끈 줴영 영 ᄉᆞ락ᄉᆞ락.(망태기에 메어서 이제 잘끈 쥐어서 이렇게 사락사락.)

103018 #2 서툰 사름은 하영 삐여지곡.(서툰 사람은 많이 뿌려지고.)

103018 #1 게난 이 씨 뿌리는 것도 좀 잘 허는 사름이 이제 씨를 뿌려사, 이거.(그러니까 이 씨 뿌리는 것도 좀 잘하는 사람이 이제 씨를 뿌려야, 이거.)

103018 #2 빌어당 허곡, 서툰 땐 경 헤낫주.(빌어다가 하고, 서툴 때는 그렇게 했었지.)

103018 #1 처음 우리도 이제 잘 허는 하르방 빌어단, 처음 조 갈 땐 이제 영 삐라, 영 삐라 허난.(처음 우리도 이제 잘 하는 할아버지 빌어다가, 처음 조 갈 땐 이제 이렇게 뿌려라, 이렇게 뿌리라고 하니까.)

103018 #2 영영영 삐어, 영영영영영. 그 하르방안티. 순일이 아방은 눈도 어둡곡 헤도 영영영 삐멍, 어떵 허영 삐여근에 경 허여.(영영영 뿌려, 영영영영영. 그 할아버지한테. '순일'이 아버지는 눈도 어둡고 해도 영영영 뿌리면서, 어떻게 해서 뿌려서 그렇게 해.)

103018 #1 아이, 손짐작으로 이렇게. 우리도 헤 보믄 착 허믄 손이 어느 새 흔 줌 줴영 허믄 좀진 거난 ᄉᆞ락ᄉᆞ락 삐는 게.(아니, 손짐작으로 이렇게. 우리도 해 보면 착 하면 손이 어느 새 한 줌 쥐어서 하면 잘고 가는 거니까 사락사락 뿌리는 게.)

103018 #2 어떵 허는지 그 하르방은 영영영영, 순일이 아방은 경 헤난. 경 헤나서, 경 허는디.(어떻게 하는지 그 할아버지는 영영영영, '순일'이 아버지는 그렇게 했었어.

76) '남텡이'는 둥근 나무토막에 굵은 나뭇가지를 돌아가며 수없이 박아 붙여서 만들고는 굴려서 밭을 눌러 다지는 농기구이다.

그렇게 했었어, 그렇게 하는데.)

103018 #1 나가는 거 보멍 삐엇주게. 지금 헤시믄 거 살충제 서껑 헤영케 삐믄 봐 질 건디. 그때 좁씨는 베려질, 잘 못 베렷당.(나가는 거 보면서 뿌렸지요. 지금 했으면 그거 살충제 섞어서 하얗게 뿌리면 봐 질 건데. 그때 좁씨는 보이질, 잘 못 보았다가.)

103019 @ 거난 좁씨는 밧 갈아난 다음 좁씨 뿌립니까?(그러니까 좁씨는 밭 갈아난 다음 좁씨 뿌립니까?)

103019 #2 밧 갈아난 다음 좁씨 뿌령.(밭 갈아 난 다음 좁씨 뿌려서.)

103019 @ 그다음 좁씨 뿌령.(그다음 좁씨 뿌려서.)

103019 #2 뿌려 놩 불리웡, 물덜 불리웡.(뿌려 놔서 밟아서, 말들 밟아서.)

103019 @ 건 경 허고.(건 그렇게 하고.)

103019 #1 남텡이도 끗곡.('남텡이'도 끌고.)

103020 @ 그다음에 거 조팟 어떵 불릅니까?(그다음에 거 조밭 어떻게 밟습니까?)

103020 #1 조팟이 그추룩 헹 불랑 놔 노믄 이디서.(조밭이 그처럼 해서 밟아서 놔 놓으면 여기서.)

103020 @ 뭘로 불바?(무엇으로 밟아?)

103020 #2 물덜게.(말들요.)

103020 #1 물로영 사름으로영 쉐로영.(말이랑 사람들이랑 소랑.)

103020 #2 물덜, 멧 사름 수눌어당.(말들, 몇 사람 품앗이해다가.)

103020 #1 게난 어느 집이 어떵허다 허믄 물 멧 개.(그러니까 어느 집에 어떻게 하다 하면 말 몇 개.)

103020 #2 서너니 개썩 허영.(서네 개씩 해서.)

103020 #1 멧 개 빌려.(몇 개 빌려.)

103020 @ 아 거나네 물 허고, 아 그저 남텡이?(아 그니깐 말 하고, 아 그저 남텡이?)

103020 #1 남텡이옌 거 끗곡, 쉐, 사름으로.('남텡이'라고 거 끌고, 소, 사람으로.)

103020 @ 남텡이 어떤 것과?('남텡이' 어떤 것입니까?)

103020 #1 이 저 낭으로, 낭으로 영 ᄉᆞ랑허게 헤 가지고 흔 발쯤 허게 허영 솔진 낭 허영, 거 구멍 뚤르멍 영 주작주작 이만씩 너 물발굽 곱젬지. 경 헨 이 양펜이 영 헹 돌아가게 멩글앙, 게믄 끄서가믄 칵칵칵, 버치믄 이제 쉐로.(이 저 나무로, 나무로 이렇게 길쭉하게 해 가지고 한 발쯤 하게 해서 굵은 나무해서, 그거 구멍 뚫으면서 이렇게 주작주작 이만큼 네 말발굽 숨기고 있지. 그렇게 해서 이 양편에 이렇게 해서 돌아가게 만들어서, 그러면 끌어가면 칵칵칵, 부치면 이제 소로.)

103020 @ 돌아가는 거구나.(돌아가는 거구나.)

103020 #1 예, 돌아가멍 불려지게. 물발통ᄀᆞ찌.(예, 돌아가면서 밟아지게. 말발굽같이.)

103020 @ 그저 무신 건 안 헤 봅디가? 아까 섬비(그저 무슨 건 안 해 봤습니까? 아까 끙게.)

103020 #1 섬피.(끙게.)

103020 #2 섬피로 끄성. 섬피로도 끗는 사름도 싯곡, 이 밧에 따랑 허여. 밧이 부각헌 딘 막 불려부러사. 게 아니믄 조 문딱 들어져부렁 뒈지 아니허여. 게난 이 알러레 질 왓더렌 섬피로 끅고, 저 우테렌 부각헌 밧이난, 부각허고 자갈 신 밧이난 조 나믄 문딱 들러져부렁.(끙게로 끌어서. 끙게로도 끄는 사람도 있고, 이 밭에 따라서 해. 밭이 보각한 데는 마구 밟아 버려야. 그러지 아니하면 조 모두 들떠 버려서 되지 아니해. 그러니까 이 아래로 '질왓'으로는 끙게로 끌고, 저 위로는 보각한 밭이니까, 보각하고 자갈 있는 밭이니까 조 나면 모두 들떠 버려서.)

103020 #1 발 들러지지 아이허게 불렴주.(발 들뜨지 아니하게 밟고 있지.)

103020 #2 나오믄 문딱 들러졍 뒈질 아니헤난. 게난 막 불렷수게. 그때 물덜이영, 쉐덜이영, 저 이 알러렌 섬피로 끄슨 사름덜이 하고, 밧덜 저 우터레 신 사름은 불리고, 경 허난 혼 무을에서도 농사는 두 찔이라. 두 찔로, 시 찔로 허여. 밧 좋은 사름덜은 질 왓 좋은 사름덜은 뭐 건 물만 맞으믄 농ᄉᆞ허기가 막 그자 먹긴디.(나오면 모두 들떠서 되질 아니하니까, 그러니까 마구 밟았습니다. 그때 말들이랑, 소들이랑, 저 이 아래로는 끙게로 끄는 사람들이 많고, 밭들 저 위로 있는 사람은 밟고, 그렇게 하니까 한 마을에서도 농사는 두 가지야. 두 가지로, 세 가지로 해. 밭 좋은 사름들은, '질왓' 좋은 사름들은 뭐 그것은 물만 맞으면 농사하기가 아주 그저 먹기인데.)

103020 #1 건 저 물 잘 맞촤사. 물 잘 맞촤사 허고, 우선은 첫짼 물 맞촤사. 물 맞촹 혼번 잘못헤 노믄 이게 나중엔 ᄌᆞ묵ᄌᆞ묵 ᄌᆞ물허멍양, 농사가 어떵 어떵 골라앚으멍 잘 안 뒈어.(그거는 저 물 잘 맞춰야. 물 잘 맞춰야 하고, 우선은 첫짼 물 맞춰야. 물 맞춰서 한번 잘못해 놓으면 이게 나중엔 깊숙하게 잠기면서요, 농사가 어떻게 어떻게 가라앉으면서 잘 안 돼.)

103020 @ 물 맞촤사가 뭐라마씨?(물 맞춰야가 뭡니까?)

103020 #1 물이 적당허게 맞아사, 갈아 보믄 보그락허게 물.(물이 적당하게 맞아야, 갈아 보면 보각하게 물.)

103020 @ 아, 저.(아, 저.)

103020 #1 너무 질지도 아이허곡, 물르지도 아이허고 적당히 맞춘 때 갈아사.(너무 질지도 아니하고, 마르지도 아니하고 적당히 맞을 때 갈아야.)

103021 @ 그다음에 조팟 검질은 멧 번 멤수가?(그다음에 조밭 김은 몇 번 매고 있습니까?)

103021 #2 시 번.(세 번.)

103021 #1 초불 메엉.(애벌 매어서.)

103021 #2 초불, 두불, 시불 메사, 조팟은.(애벌, 두벌, 세벌 매어야, 조밭은.)

103021 #1 초불 이제 허멍 대강 소끄멍 ᄌᆞ진 디, ᄌᆞ진 디 초불, 준 때난 초불 허영 요만씩 헌 때, 준 때 이제 훌근 벌레기[77].(애벌 이제 하면서 대강 솎으면 잦은 데, 잦은 데 애벌, 잔 때니까 애벌 해서 요만큼 한 때, 잔 때 이제 굵은 '벌레기'.)

77) '벌레기'는 밭을 갈 적에 일어나는 엉클어진 풀포기이다.

103021 #2 벌레기, 벌레기 들러사 헐 거주.(‘벌레기’, ‘벌레기’ 들어야 할 거지.)

103021 #1 벌레기 들렁, 벌레기 들른뎅 허여. 벌레기 들르믄 이제 초불 검질이 영.(‘벌레기’ 들어서, ‘벌레기’ 든다고 해. ‘벌레기’ 들면 이제 애벌 김이 이렇게.)

103021 @ 벌레기 들른다는 말이 뭐라? 벌레기 둘른다.(‘벌레기’ 든다는 말이 뭐야? ‘벌레기’ 든다.)

103021 #1 묵은 검질 납주게.(묵은 김 나지요.)

103021 @ 벌레기 들른다?(‘벌레기’ 든다?)

103021 #2 검질이옌 허여.(김이라고 해.)

103021 @ 벌레기가 검질이꽈?(‘벌레기’가 김입니까?)

103021 #1 초불 검질멘다 허여.(애벌 김맨다 해.)

103021 @ 아, 벌레기가?(아, ‘벌레기’가?)

103021 #1 거 벌레기 들러사 허여.(거 ‘벌레기’ 들어야 해.)

103021 #2 벌레기 강 들렁, 그다음은 정식으로 ᄎᆞ례로 영 영 영 방 돌랑 ᄉᆞ까 놩. 두불은 경.(‘벌레기’ 가서 들어서 그다음은 정식으로 차례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방 돌라서 솎아 놔서, 두벌은 그렇게.)

103021 @ ᄉᆞᄁᆞ는 거.(솎는 거.)

103021 #2 어, 그런 식으로 영 영 ᄉᆞ까 놩 ᄯᅳ시 시불은 ᄀᆞ라지영 무신 저 선 검질.(어,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솎아 놔서 다시 세벌은 가라지랑 무슨 저 선 김.)

103021 #1 못 멘 거영. 강 하나썩 굽어둠서 매멍.(못 맨 거랑. 가서 하나씩 굽어서 매면서.)

103021 #2 게난 검질 ᄒᆞᆯ허게 메영, 게난 메당 보믄 다 해가 져.(그러니까 김 깨끗하게 매어서, 그러니까 매다가 보면 다 해가 져.)

103021 #1 게난 잘 안 메믄 알 검질이옌 혜 가지고.(그러니까 잘 안 매면 아래 김이라고 해 가지고.)

103021 #2 거 무신 재게 메지도 못허고.(그거 무슨 빨리 매지도 못하고.)

103021 #1 잘 안 메믄 빌 때에.(잘 안 매면 벨 때에.)

103021 @ 경 허믄 조 컴질 가장 메기 힘들지양?(그렇게 하면 조 김 가장 매기 힘들지요?)

103021 #2 아이고.(아이고.)

103021 #1 덥긴 허고.(덥기는 하고.)

103021 #2 모제가 시카? 무시것이 시카?(모자가 있을까? 무엇이 있을까?)

103021 #1 게난 여름에양, 우리도 농ᄉᆞᆫ 하영 혜 놓고 어릴 땐 저 검질메언.(그러니까 여름에요, 우리도 농사는 많이 해 놓고 어릴 땐 저 김매었어.)

103021 #2 식군 하곡게.(식구는 많고요.)

103021 #1 식구 하 노믄 저 웃드리 밧도 벌어나십주게. 거 어떵사 멍에 앚으믄 저고지는 진지, 검질메는.(식구 많아 놓으면 저 ‘웃드리’ 밭도 벌었었지요. 거 어떻게야 밭머리 앉으면 저 이랑은 긴지, 김매는.)

103021 @2 일 실퍼노난게, 일 실퍼노난.(일 싫었었으니까, 일 싫었었으니까.)

103021 #1 일은 실프곡, 저 끗테 가젱 허믄.(일은 싫고, 저 끝에 가려고 하면.)

103021 #2 저레만 베리믄게, 시장허곡, 일은 실프고, 옷이 시카, 무시것이 시카?(저리로만 보면요, 시장하고, 일은 싫고, 옷이 있나, 무엇이 있나?)

103021 #1 거 저 국민학교 삼ᄉᆞᄒᆞᆨ년 때부터 검질 강 메믄, 강 쉐 보렌만 허믄 지꺼져.(거 저 국민학교 삼사학년 때부터 김 가서 매면, 가서 소 보라고만 하면 기뻐.)

103021 #2 쉐 보렌 가믄 어디 낭 아래 강 ᄒᆞ끔.(소 보러 가면 어디 나무 아래 가서 조금.)

103021 #1 ᄒᆞ끔 쉬곡, 요놈으 검질은 메젠 허믄양, 어멍, 아방 읖의서.(조금 쉬고, 요놈의 김은 매려고 하면요, 어머니, 아버지 옆에서.)

103021 #2 ᄁᆞ딱을 못 허영, 하르방덜.(까닭을 못 해서, 할아버지들.)

103021 #1 잘 못 메믄 마주 메주곡, ᄁᆞ딱 못헹.(잘 못 매면 마주 매주고, 까닭 못 해서.)

103021 #2 막 욕허곡 허멍.(마구 욕하고 하면서.)

103021 #1 딱 못 허영은에, 허허.(딱 못 해서, 허허.)

103021 @ 난 제일 기분 좋을 때가, 나도 검질 여름방학 때 계속 메엇수다게.(난 제일 기분 좋을 때가, 나도 김 여름방학 때 계속 매었습니다.)

103021 #2 하이고, 경 헤납디가?(아이고 그렇게 했었습니까?)

103021 @ 여름방학만 어서시만 헤신디. 가장 기분 좋은 땐 강 목욕허렌 헐 때.(여름방학만 없었으면 했는데, 가장 기분 좋은 땐 가서 목욕하라고 할 때.)

103021 #2 우린 쉐멕이렌 헌 때가 질 좋앗주.(우린 소먹이라고 할 때가 제일 좋았지.)

103021 #1 나도 게난.(나도 그러니까.)

103021 @ 목욕허렌 허민 그 물웨 하나 탕은에, 먹을 건 어시니까 물웨 강 물웨 하나 탕은에 저 목욕허는 디 가는 거라.(목욕하라고 하면 그 물외 하나 따서, 먹을 건 없으니까 물외 가서 물외 하나 따서 저 목욕하는 데 가는 거야.)

103021 #1 게난 나도 경 허곡, 또 바당에 강 물 지치렌 허여. 그저 빌레[78].(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하고, 또 바다에 가서 물 끼얹으라고 해. 그저 밭에.)

103021 #2 소금빌레에, 그것이 질 지꺼졍, 경 허믄.('소금빌레'에, 그것이 제일 기뻐서, 그렇게 하면.)

103021 #1 물 지치라, 강 물때 뒈어서, 강 물 지쳥 오라 허믄.(물 끼얹으라, 가서 물때 되어서 가서 물 끼얹어서 오라 하면.)

103021 #2 물 지쳐뒁 오라.(물 끼얹어둬서 오라.)

103021 #1 건 지꺼집주게. 어떠냐 허믄 그디 강.(건 기쁘지요. 어떠하냐 하면 거기 가서.)

103021 #2 조 컴질 메지 말랑 그디 강.(조 김매지 않고 거기 가서.)

78) '빌레'는 '소금빌레'이며, 제주시 애월읍 구엄리 바닷가 지경 이름이고 소금을 생산했던 곳이다.

103021 #1 해수욕 저 물 흔번 히곡, 물에 빠졍 강 히곡, 강 이제 이거 빌레 지치는 건 쉬와마씨. 박세기로 잘락잘락 ᄆᆞ른 디만 지쳥 놔두민, 물 지쳐진 곳으로.(해수욕 저 물 한번 헤엄치고, 물에 빠져서 가서 헤엄치고, 가서 이제 이거 '빌레' 끼얹는 건 쉬워요. 바가지로 잘락잘락 마른 데만 끼얹어서 놔두면. 물 끼얹어진 곳으로.)

103022 @ 그다음에 조팟 검질덜 어떤 거 잇수가?(그다음에 조밭 김들은 어떤 거 있습니까?)

103022 #2 조팟 검질은게.(조밭 김은요.)

103022 #1 저 제완지허고.(저 바랭이하고.)

103022 #2 저 ᄀᆞ라지, ᄀᆞ라지영, (저 가라지, 가라지랑.)

103022 #1 ᄀᆞ라지영 쒜비늠.(가라지랑 쇠비름.)

103022 #2 쒜비늠 ᄀᆞ뜬 거, 그런 거나.(쇠비름 같은 거, 그런 거나.)

103022 #1 쒜비늠 ᄀᆞ뜬 거, 쉐비늠은 영 곧 나멍 씨 털어져.(쇠비름 같은 거, 쇠비름은 이렇게 곧 나면서 씨 떨어져.)

103022 #2 아이, 게난 ᄆᆞ을마다 이것이 ᄯᅳ나고.(아니, 그러니까 마을마다 이것이 다르고.)

103022 #1 씨 털어노믄 쒜비늠은 양.(씨 떨어놓으면 쇠비름은요.)

103022 @ 제완지허고, 쒜비늠허고, ᄀᆞ라지.(바랭이하고, 쇠비름하고, 가라지.)

103022 #2 그추룩 허영, ᄀᆞ라진 제일 말쩨 메는 거.(그처럼 해서, 가라지는 제일 말째 매는 거.)

103022 @ 게믄 ᄀᆞ라지허고 조 어떵 구별허여?(그러면 가라지하고 조 어떻게 구별합니까?)

103022 #2 ᄀᆞ라지 거 구별헤지주기게.(가라지 그거 구별해지지요.)

103022 #1 아니, 아니.(아니, 아니.)

103022 #2 ᄀᆞ라진 이파리가 틀려.(가라지는 잎이 달라.)

103022 @ 어떵?(어떻게?)

103022 #1 이파리 잘 보믄 허고.(잎을 잘 보면 하고.)

103022 #2 이파리가 어떵 저 뜰려.(잎이 어떻게 저 달라.)

103022 #1 꼬골꼬골허멍 좀.(꼬깃꼬깃하면서 좀.)

103022 #2 조 닮지 아니허여. 더 질곡.(조 같지 아니하고. 더 길고.)

103022 #1 아니, 저 이런 꼬골꼬골허질 아니허여. 그것이 민짝허게, 똑 논에 피ᄀᆞ찌 쪼금 알아져마씨, 잘 보믄.(아니, 저 이런 꼬깃꼬깃하지를 아니해. 그것이 평평하게, 똑 논에 피같이 조금 알 수 있어요, 잘 보면.)

103022 #2 낭도 틀려, 낭도. 낭도 ᄒᆞ끔 영 솔지곡, 틀려.(짚도 달라, 짚도. 짚도 조금 이렇게 살지고, 달라.)

103022 #1 게난 잎이.(그러니까 잎이.)

103022 @ 게난 사름도 ᄉᆞ춘이 잇주마는, 이 식물들도 다 ᄉᆞ춘이 잇수다.(그러니까 사람도 사촌이 있지만, 이 식물들도 다 사촌이 있습니다.)

103022 #1 예, ᄉᆞ춘이 셔.(예, 사촌이 있어.)

103022 #2 ᄉᆞ춘이라.(사촌이야.)

103022 #1 꼿이영, 꼿광(꽃이랑, 꽃과.)

103022 @ 나룩은 피, 조는 ᄀᆞ라지, 보린 대우리.(벼는 피, 조는 가라지, 보리는 귀리.)

103022 #2 다 이거 권당들.(다 이거 친척들.)

103022 @ 춤웬 갈젱기.(참외는 개똥참외.)

103022 #1 갈정기, 갈정기, 게도 거 갈정기도 맛 좋아.(개똥참외, 개똥참외, 그래도 그거 개똥참외 맛 좋아.)

103022 @ 에, 뭐 맛 좋을 말이우꽈?(에, 뭐 맛 좋을 말입니까?)

103022 #1 벌겅케 허영, 먹을 거 어스믄 어떵 허여.(빨갛게 해서, 먹을 거 없으면 어떻게 해.)

103022 #2 씨만 한한허여. 씨만 한한허여.(씨만 아주 많아. 씨만 아주 많아.)

103022 #1 씨는 하주만.(씨는 많지만.)

103022 @ 옛날에 우리도 타 먹으레 하영 뎅겻수다.(옛날에 우리도 따 먹으러 많이 다녔습니다.)

103022 #2 옛날 우리 먹을 거 어시난, 아이고 첨, 먹어지난 살앗수게.(옛날 우리 먹을 것 없으니까, 아이고 참, 먹을 수 있으니까 살았습니다.)

103022 @ 그다음에 푸께, 푸께, 푸께 타 먹으레.(그다음에 꽈리, 꽈리, 꽈리 따 먹으러.)

103022 #2 푼철귀, 푼철귀.(꽈리, 꽈리.)

103022 @ 푼철귀가 푸께옝 헙니까?('푼철귀'가 '푸께'라고 합니까?)

103022 #2 예, 푼철귀.(예, 꽈리.)

103022 #1 푼철귀도 가을 들엉 조 크루에 헤 노믄 맛 들엉 맛 좋아.(꽈리도 가을 들어서 조 갈았던 곳에 해 놓으면 맛 들어서 맛 좋아.)

103022 @ 아이, 그거 노랑 허민, 익으민 맛 조읍주게.(아이, 그거 노랑 하면, 익으면 맛 좋지요.)

103023 @ 그다음에양, 조 수확, 조 수확헐 때 ᄎᆞ례대로 말해봅서.(그다음에요, 조 수확, 조 수확할 때 차례대로 말해보십시오.)

103023 #1 조는.(조는.)

103023 @ 우선 비어야 뒐 거 아니우꽈?(우선 베어야 될 것 아닙니까?)

103023 #1 비어야 헐 건디 상강 넘엉 열흘만 시믄 이제, 게난 열흘 전이 조가 고개 숙영 두북허게 익어 가믄 조 색깔이 익어 가믄 알아, 누렁케 알아져 가고, 경 헤도 상강 헹은에.(베어야 할 건데 상강 넘어서 열흘만 있으면 이제, 그러니까 열흘 전에 조가 고개 숙여서 듬뿍하게 익어 가면 조 색깔이 익어 가면 알아, 누렇게 알아져 가고, 그렇게 해도 상강 해서.)

103023 #2 상강 ᄉᆞ시 비연.(상강 근방에 베었어.)

103023 #1 비지 안허믄, 상강 전에 비믄 것이 으물이 익어 비어도 소곱이 아멩헤도 그저 체 많이 나곡, 장만헤도.(베이지 안 하면, 상강 전에 베면 그것이 여물이 익어 베어도 속이 아무래도 그저 겉겨 많이 나고, 장만해도.)

103023 #2 쏠이 덜 난덴 허영.(쌀이 덜 난다고 해서.)

103023 #1 쏠이 덜나, 물라. 게난 상강 넘언 흔 열흘 ᄉᆞ시 뒈 가믄 이젠 으물 건 다 으망, 지깍허믄 이제 걸 비는디, 이디선 조코고리 이제 비엇당 허믄 날씨.(쌀이 덜나, 말라. 그러니까 상강 넘어서 한 열흘 근방 되 가면 이제는 여물 건 다 여물어서, 꽉 차면 이제 걸 베는데, 여기선 조이삭 이제 베었다가 하면 날씨.)

103023 @ 비영은에 거 저 쉐질메로 헹 와.(베어서 거 저 소길마로 해서 와.)

103023 #1 쉐로도 시꺼오곡, 져 오곡, 대개 허믄 쉐로 시꺼 와, 조를 묵엉은에.(소로도 실어오고, 져 오고, 대개 하면 소로 실어 와, 조를 묶어서.)

103023 @ 쉐질메양.(소길마요.)

103023 #1 예, 쉐질메, 양쪽에 딱 질메 허영 시끄곡 허영 집이 가져가 노믄 이제 조코고리 튿나 헤 가지고, 호미로 이렇게 헹은에 거 뭇 풀멍.(예, 소길마, 양쪽에 딱 길마 해서 싣고 해서 집에 가져가 놓으면 이제 조이삭 뜯나 해 가지고, 낫으로 이렇게 해서 그거 뭇 풀면서.)

103023 #2 이제사 ᄀᆞ뜨믄 ᄀᆞ세로 영영 헌다, 그땐 저.(이제야 같으면 가위로 이렇게 이렇게 한다, 그때는 저.)

103023 #1 호미레 영 세와놩은에 툭툭 잘르멍.(낫으로 이렇게 세워놔서 탁탁 자르면서.)

103023 @ 호미 영 놔은에 영 튿앗주게.(낫 이렇게 놔서 이렇게 뜯었지요.)

103023 #1 경 허멍 고고리 막 놧당 바싹 물리우믄 이제 물방에, 물방에에 강 그거 둥그리멍 이제 씨는, 조는 수확허영 허는디, 게 방엣돌에 헹 허는디 것도 막 ᄎᆞ례로 헤사.(그렇게 하면서 이삭 마구 놨다가 바싹 말리면 이제 연자매, 연자매에 가서 그거 굴리면서 이제 씨는, 조는 수확해서 하는데, 그렇게 방아에 해서 하는데 그것도 마구 차례로 해야.)

103023 #2 게곡.(그리고.)

103023 #1 게난 매 집이 아이허믄 어느 집이 어느 날 강.(그러니까 모든 집에 아니하면 어느 집에 어느 날 가서.)

103023 @ 물방에옌도 허고, 물ᄀᆞ레옌도 허고양.(연자매라고도 하고, 연자방아라고도 하고요.)

103023 #1 물ᄀᆞ레.(연자방아.)

103023 #2 게난 우린 쉐, 미국 쉐 닮은 쉐로 헨 허단 쉐 막 방엣혹 우에 올라간.(그러니까 우린 소, 미국 소 같은 소로 해서 하다가 소 막 방아확 위에 올라가서.)

103023 #1 방엣혹 우에 올라사멍.(방아확 위에 올라서면서.)

103023 #2 말 아이 듣는 쉐헹 우리도 경 얼먹어낫수다.(말 아니 듣는 소해서 우리도 그렇게 얼먹었었습니다.)

103023 #1 쉐도양, 이 양종덜은 영 지나 보니까 윽아마씨.(소도요, 이 양종들은 이렇게 지나 보니까 약아요.)

103023 #2 말 아이 들엉으네.(말 아니 들어서.)

103023 #1 사름 똑 이.(사람 똑 이.)

103023 @ 사름이나 다름엇수다.(사람이나 다름없습니다.)

103023 #1 예, 다름없어. 양종들은 윽앙 사름신디 영 돌아사.(예, 다름없어. 양종들은 약아서 사람에게 이렇게 돌아서.)

103023 #2 게난 조코고리 둥글멍, 조코고리 둥글멍.(그러니까 조이삭 뒹굴면서, 조이삭 뒹굴면서.)

103023 #1 게도 한국 쉐는, 조선 쉔 순헌디 이 저 양종은양, 그렇게 밧 ᄀᆞ르치는 디도 힘들고, 아주 양종은 이제 똑 사름도 비슷허지 아니허꽈. 하하.(웃음)(그래도 한국 소는, 조선 소는 순한데 이 저 양종은요, 그렇게 밭 가르치는 데도 힘들고, 아주 양종은 이제 똑 사람도 비슷하지 아니합니까? 하하.(웃음))

103023 #2 게난 ᄆᆞᆯ방에 들어난. 우리 집 옆의 ᄆᆞᆯᄀᆞ레, ᄆᆞᆯᄀᆞ레라낫주기.(그러니까 연자방아 들었었어. 우리 집 옆에 연자방아, 연자방아였었어.)

103023 @ ᄆᆞᆯᄀᆞ레?(연자방아?)

103023 #2 ᄆᆞᆯᄀᆞ렌도 허곡.(연자방아라고도 하고.)

103023 #1 ᄆᆞᆯ방에, ᄆᆞᆯᄀᆞ레.(연자방아, 연자방아.)

103023 #2 게난 우리 집 옆이가 ᄆᆞᆯ방에난, 아기 아방은 조코고리 놘 쉐 둥그렴시커라. 둥그렴시커라, 말허난에, 이제 저 막 울르는 소리난 아긴 깨낭 울어가곡, 내불어 뒁 간 보난, 그놈이 ᄆᆞᆯ이 방엣혹 위에 올라간에 헤난게.(그러니까 우리 집 옆에가 연자방아니까, 아기 아버지는 조이삭 놔서 소 굴리고 있겠어, 굴리고 있겠어, 말하니까, 이제 저 마구 울르는 소리 나서 아기는 깨서 울어가고, 내버려 둬서 가서 보니까, 그놈의 말이 방아확 위에 올라가서 했었어.)

103024 @ 조코고리 이거 호미로 영 허는 걸 뭐옌 헙니까? 조코고리 ᄐᆞᆫ다.(조이삭 이거 낫으로 이렇게 하는 걸 뭐라고 합니까? 조이삭 뜯다.)

103024 #2 ᄐᆞᆫ는 거게. 고고리 ᄐᆞᆫ는 거.(뜯는 거요. 이삭 뜯는 거.)

103024 @ ᄐᆞᆫ은다.(뜯는다.)

103024 #2 예, ᄐᆞᆫ는 거.(예, 뜯는 거.)

103024 @ ᄐᆞᆫ으면 이것을 ᄆᆞᆯ방에에 강 ᄀᆞᆯ곡.(뜯으면 이것을 연자방아에 가서 갈고.)

103024 #1 ᄆᆞᆯ방에에 강 고고리 노멍.(연자방아에 가서 이삭 놓으면서.)

103024 @ 도께질은 안 헤 봅디가?(도리깨질은 안 해 봤습니까?)

103024 #1 이추룩 여기서 ᄆᆞᆯᄀᆞ레옌.(이처럼 여기서 연자방아라고.)

103024 #2 게난 ᄆᆞᆯᄀᆞ레옌 허멍도 사름 뒤에 사둠서. 영 돌 돌아오는 딘 ᄏᆞᆯ 돌아오지 아이허주게. 구석ᄁᆞ지 허믄 구석ᄁᆞ지 안테레 놩 돌로 ᄆᆞ사지게 멘들앙, 경 허당 어떵 허당 잘 못 허믄 ᄆᆞᆯ 발로 차불곡 허멍, 경 안 헤도 말쩬 하도 경 헤가난 이만이 긴 비치락 닮은 걸로 헨에 무신 광이ᄀᆞ추룩 멘들안 그걸 먼 디서 ᄆᆞᆯ은 돌아와 가도 그게 돌

영 돌아가도 안 돌아간 디가 시믄 그거, 그거 ᄲᅥ사지렌 영 거려놩.(그러니까 연자방아라고 하면서도 사람 뒤에 서고 있으면서, 이렇게 돌 돌아오는 데는 깨끗하게 돌아오지 아니하지요. 구석까지 하면 구석까지 안으로 놔서 돌로 부숴 만들어서,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잘 못하면 말발로 차버리고 하면서, 그렇게 안 해도 말짠 너무도 많이 그렇게 해가니까 이만큼 긴 빗자루 같은 걸로 해서 무슨 어떤 괭이처럼 만들어서 그걸 먼데서 말은 돌아와 가도 그게 돌 이렇게 돌아가도 안 돌아간 데가 있으면 그거, 그거 빻아지라고 이렇게 올려놔서.)

103024 @ 예, 거려놔야.(예, 올려놔야.)

103024 #2 예, 거려놓곡. 겡 이제 믄 헤지믄 대체, 얼멩이 사당은에 얼멩이로 쳥, 쳥우이 걸랑 이제 쉐 주곡, 아래 건 이제 또 불렁은에 ᄯᅳ시 널엇당은에, 멍석에 널엇당 이제, 저.(예, 올려놓고. 그렇게 이제 모두 해지면 대체, 어레미 사다가 어레미로 쳐서, 쳐서 위에 거는 이제 소 주고, 아래 건 이제 또 불려서 다시 널었다가, 멍석에 널었다가 이제, 저.)

103024 #1 ᄒᆞᆫ번 이제.(한번 이제.)

103024 #2 공장에 강은에, 거시기 헹.(공장에 가서, 거시기 해서.)

103024 #1 둥그려사, 경 허곡.(굴려야, 그렇게 하고.)

103024 #2 경 허고 게난 영 친 건 ᄒᆞᆫ뻔에 쉐 주지 아니허영은에, 조칵메기[79]옌, 또 ᄒᆞᆫ번 더 둥그려사, 믄 아이 털어지믄 ᄋᆞ물.(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친 건 한꺼번에 소 주지 아니해서, '조칵메기'라고, 또 한번 더 굴려야, 모두 아니 떨어지면 여물.)

103024 #1 조칵메기옌 허영, 조칵메기옌 허영, 그것이 이제 쉐도 잘 먹읍주, 영양가도 잇곡 허난, 그것 두불 헤사.('조칵메기'라고 해서, '조칵메기'라고 해서, 그것이 이제 소도 잘 먹지요, 영양가도 있고 하니까, 그것 두벌 해야.)

103024 @ 조칵메기양.('조칵메기'요.)

103024 #2 조칵메길 영 쳐놩, 또 ᄒᆞᆫ 번 방에, ᄆᆞᆯ방에, 또 둥그려사.('조칵메기'를 이렇게 쳐놔서, 또 한 번 방아, 연자방아에, 또 굴려야.)

103024 @ 조칵메기 거 도새기도 멕여낫주게. 먹을 거 어시난.('조칵메기' 거 돼지도 먹였었어요. 먹을 거 없으니까.)

103024 #2 도새기도 멕여낫주만.(돼지도 먹였었지만.)

103024 #1 조체옌 허영, 그거 무신 체고, 붕당체.(조체라고 해서, 그거 무슨 체고, '붕당체'.)

103024 #2 붕당체[80]옌 허영.('붕당체'라고 해서.)

103024 #1 붕당체옌 허영 그냥 조 장만헤낭 ᄇᆞ름에 불려나믄 영양가도 하나도 어신 거, 그자 그걸 조체, 붕당체 허믄 이제 그것에 ᄒᆞ끔 서껑.('붕당체'라고 해서 그냥 조 장만해 나서 바람에 불려나면 영양가도 하나도 없는 거, 그저 그걸 조체, '붕당체' 하면 이제 그것에 조금 섞어서.)

---

79) '조칵메기'는 조이삭에서 열매를 떨어 버리고 남은 줄기이다.
80) '붕당체'는 조를 찧을 때 생기는 껍질가루이다.

103024 #2 서끄멍 멕이고.(섞으면서 먹이고.)

103024 #1 그거 보리ᄀᆞ를이나 조금.(그거 보릿가루나 조금.)

103024 @ 보리ᄀᆞ를 조금 서껑.(보릿가루를 조금 섞어서.)

103024 #1 보리체나 ᄒᆞ끔 서껑, 도새기 멕이곡.(보리쌀의 겉껍질이나 조금 섞어서. 돼지 먹이고.)

103024 #2 게 아이믄 아이 먹곡.(그거 아니면 아니 먹고.)

103024 #1 붕당체 이건 아무 영양도 어신 거. 그자 비삭헌 거.('붕당체' 이건 아무 영양도 없는 거, 그저 바삭한 거.)

103024 @ 맛수다게.(맛습니다.)

103024 # 게도 내불지 아니허곡, 게도 쉔 주믄 먹지 아니허여. 쉐도 시장허난 쉐도 물 칸은에, 거시기 보리쏠 싯어난 물 칸 줘부난 먹지 아니허여. 말째에 도고리 믄 엎어 불멍 경 헤나서, 게난.(그래도 내버리지 아니하고, 그래도 소는 주면 먹지 아니해. 소도 시장하니까 소도 물에 타서, 거세기 보리쌀 씻었던 물 타서 줘버리니까 먹지 아니해. 말째에 함지박 모두 엎어 버리면서 그렇게 했었어, 그러니까.)

103024 @ 이 덩드렁마께[81]론 안 두드려봅디가?(이 '덩드렁마께'로는 안 두드려봤습니까?)

103024 #2 덩드렁마께도 더러 두드려, 하지 아이헌 거. 한 건 방에에 허고.('덩드렁마께'도 더러 두드려, 하지 아니한 거. 한 건 방아에 하고.)

103024 #1 덩드렁마께로 독독독 두드령 더러 장만허고.('덩드렁마께'로 독독독 두드려서 더러 장만하고.)

103024 #2 낭 마께로도 두드려낫주. ᄒᆞ끔만 헌 거 장만허여.(나무 방망이로도 두드렸었지. 조금만 한 거 장만해.)

103024 #1 경 안 헌 건 ᄆᆞᆯ방에 강은에 둥그리멍.(그렇게 안 한 건 연자방아에 가서 굴리면서.)

103024 #2 말째에 조코고리 톧으멍 두루 톧아진 건 봉가다 놩 그걸 막 곡식이영, 두루 톧아다 놩 메아놩 그걸 마께로, 마께로 헹으네 멕더레 놔뒷당은에 한걸허믄 영 청 붕당체 허믄 그걸 도새기 주곡, 새끼덜 낭은에 그거 놩 죽 쒕은에 ᄒᆞ끔 저 조도 ᄒᆞ쏠 놩 주고, 붕당체 주고 죽 쒕은에 옛날 경 허멍 줘나서. 아이고, 뭐 어떵사 헨 살아신디.(말째에 조이삭 뜯으면서 덜 뜯어진 거는 주워다 놔서 그걸 마구 곡식이랑, 덜 뜯어다 놔서 모아놔서 그걸 방망이로, 방망이로 해서 망태기로 놔뒀다가 한가하면 이렇게 쳐서 '붕당체' 하면 그걸 돼지 주고, 새끼들 나서 그거 놔서 죽 쒀서 조금 저 조도 조금 놔 주고, '붕당체' 주고 죽 쒀서 옛날 그렇게 하면서 줬었어. 아이고, 뭐 어떻게야 해서 살았는지.)

103025 @ 좁쏠, 좁쏠 어떵 장만허여마씨?(좁쌀, 좁쌀 어떻게 장만해요?)

103025 #1 그냥 저 방에에서 계속 그냥 헤가믄 체영 나옵니다. 게난 것도 잘 ᄆᆞᆯ리와사. 잘 ᄆᆞᆯ리지 아니허믄 문 ᄲᅡ사져부난 이제.(그냥 저 방아에서 계속 그냥 해가면 겨랑

81) '덩드렁마께'는 짚이나 대 따위를 두드리는 방망이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잘 말려야. 잘 말리지 아니하면 모두 빻아져 버리니까 이제.)

103025 #2 방에에서 좁쏠헤서마씨, 무사?(방아에서 좁쌀 했어요, 왜?)

103025 #1 방에에서 헷주기. 처음에 방엣공장 가기 전이 방에에서 져서.(방아에서 했지요. 처음에 방앗간에 가기 전에 방아에서 져서.)

103025 #2 방에에서 좁쏠 멘들안.(방아에서 좁쌀 만들었어.)

103025 #1 초불 헤놩 나중에 체로 치멍, 또 그디 놩 또 치고, 경 나중에 불리곡 헹.(초벌 해놔서 나중에 체로 치면서, 또 거기 놔서 또 치고, 그렇게 나중에 불리고 해서.)

103025 @ 그다음에 좁쏠 다음에 아까 그것이 뭐? 각메기.(그다음에 좁쌀 다음에 아까 그것이 뭐? 각메기[82].)

103025 #1 아, 조칵메기.(아, '조칵메기'.)

103025 #2 조칵메기. 조칵메긴 놔뒷당 쉐 멕이곡, 조칵메기도 흔번 또 둥그려사. 으물 하나썩 시믄 으물 아까와뷍, 문딱 트다사.('조칵메기', '조칵메기'는 놔뒀다가 소 먹이고, '조칵메기'도 한번 굴려야. 여물 하나씩 있으면 여물 아까워보여서, 모두 뜯어야.)

103025 #1 궂인 조가 싯고, 모힌조 싯고. 흐린조 싯곡.(궂은 조가 있고, 메조 있고, 차조 있고.)

103025 #2 어떤 땐 쉐 그냥 멕이곡, 죽 쒄도 멕이고. 경 허멍 졍 허멍 어떵 옛날.(어떤 때는 소 그냥 먹이고, 죽 쒀서도 먹이고. 그렇게 하면서 저렇게 하면서 어떻게 옛날.)

103025 #1 흐린조는, 이 모힌조는 허믄 밥 헤노믄 베삭베삭허는디 흐린좁쌀 허믄 맛좋아.(차조는, 이 메조는 하면 밥 해 놓으면 바삭바삭하는데, 차좁쌀 하면 맛 좋아.)

103025 @ 그다음에양, 방에 강 좁쏠 멩글엇지양, 방에 강양?(그다음에요, 방아 가서 좁쌀 만들었지요, 방아 가서요?)

103025 #2 방에 강 둥그령, 둥그령.(방아에 가서 굴려서, 굴려서.)

103025 @ 좁쏠 다음에 나오는 것이 조칵메기.(좁쌀 다음에 나오는 것이 '조칵메기'.)

103025 #1 조칵메기허곡, 좁쏠 전에.('조칵메기'하고, 좁쌀 전에.)

103025 #2 건 좁쏠 전이 나와.(건 좁쌀 전에 나와.)

103025 #1 둥글영 헤노믄 나왕 체로 쳥, 우이 것이 붕당체주기. 거 또 아래 건 이제.(굴려서 해놓으면 나와서 체로 쳐서, 위에 것이 '붕당체'지요. 거 또 아래 거는 이제.)

103025 #2 조칵메긴 영영 허멍 뚜로 허여.('조칵메기'는 이렇게이렇게 하면서 따로 해.)

103025 @ 붕당체허고 틀리구나? 좁쏠 다음에.('붕당체'하고 다르구나? 좁쌀 다음에.)

103025 #1 그다음 좁쏠 나기 전이 이렇게 불리믄양, 방에에서 조칵메기 영 손으로 게뒁 걸 불리믄 문딱 조허고 빈 으물허고 갈라질 거 아니우꽈? 게믄 저쪽에 간 것이 붕당체라. 그건 비삭헌 게 영양가 어서.(그다음 좁쌀 나기 전에 이렇게 불리면 요, 방아에서 '조칵메기' 이렇게 손으로 거둬서 그걸 불리면 모두 조하고 빈 여물하고 갈라질 거

82) '각메기'는 조 이삭이나 콩꼬투리에서 열매를 떨어 버리고 남은 줄기나 깍지 따위를 말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저쪽에 간 것이 '붕당체'야. 그건 바싹한 게 영양가 없어.)

103025 @ 제일 뭐 헌 것이 조칵메기구나.(제일 뭐 한 것이 '조칵메기'구나.)

103025 #2 조칵메기 그거 허믄 쉐 막, 물 웃졋당 쉐도 멕이곡, 어떤 집인 둥글이지 아니허영 좁쏠 신 양도 멕여. 경 헤나서. 부제칩덜은 그추룩덜 허고, ('조칵메기' 그거 하면 소 마구 물에 담갔다가 소도 먹이고. 어떤 집에는 굴리지 아니해서 좁쌀 있는 상태로도 먹여. 그렇게 했었어. 부잣집들은 그와 같이 하고.)

103025 @ 아까 저, 조 종류는 어떤 것들이 이서마씨?(아까 저, 조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103025 #2 노랑조.(노랑조.)

103025 #1 흐린조 싯고, 모힌 조 싯고.(차조 있고, 메조 있고.)

103025 #2 무사 그것이 거주게.(왜 그것이 거지요.)

103025 #1 아이라, 흐린조는 거무릉헌 게 쏠 지어노믄, 밥 헤노믄 친닥친닥헌 게 이제 거 오메기[83]도 허곡.(아니야 흐린 조는 거무스름한 게 쌀 지어놓으면, 밥 해놓으면 찐득찐득 한 게 이제 거 '오메기'도 하고.)

103025 #2 흐령, 흐령.(차져서, 차져서.)

103025 #1 또 영 떡도 허는디, 모힌조는 또 노랑헌 게 바삭바삭헹은에 잘 떡도 아니허곡, 게삭게삭 허영.(또 이렇게 떡도 하는데, 메조는 노란 게 바삭바삭해서 잘 떡도 아니하고, 게실게실 해서.)

103025 #2 겐디 수확은 하영 나, 노랑조가.(그런데 수확은 많이 나, 노랑조가.)

103025 #1 수확은 더 나.(수확은 더 나.)

103025 #2 수확은 더 난게.(수확은 더 났어요.)

103025 #1 이제 밥 헹 먹을 때 그것에 좁쏠에 감제 썰어놩.(이제 밥해서 먹을 때, 그것에 좁쌀에 고구마 썰어놔서.)

103025 #2 겐디 노랑조는.(그런데 노랑조는.)

103025 #1 경 헹 여기선양, 이제 보리쏠에 허믄.(그렇게 해서 여기서는요, 이제 보리쌀에 하면.)

103025 #2 흐린조에 허는 거 아니우꽈? 흐린조에 감제 썰어놩.(차조에 하는 거 아닙니까? 차조에 고구마 썰어놔서.)

103025 #1 흐린조에, 아니 노랑조에도 놉니다.(차조에, 아니 노랑조에도 넣습니다.)

103025 @ 감제 썰어놩으네, 게난 우리 어릴 때도 좁쏠은 안 먹곡, 저 감제만 파은에.(고구마 썰어놔서, 그러니까 우리 어릴 때도 좁쌀은 안 먹고, 저 고구마만 파서.)

103025 #2 노랑존 죽 쑤젱, 노랑조를 헤영, 경 헤낫젠 허여, 우리 어머님도.(노랑조는 죽 쑤려고, 노랑조를 해서, 그렇게 했었다고 해, 우리 어머님도.)

103025 @ 많은 사름덜 죽 쒕 줘낫수다.(많은 사람들 죽 쒀서 줬었습니다.)

103025 #2 죽 쑤젠 경 헷젠 허여. 저 어머니덜이 노랑조 죽 쑬 거여게.(죽 쑤려고

83) '오메기'는 차좁쌀 가루에 더운 물을 넣어 되게 반죽해서 둥그렇게 만든 후 가운데 큰 구멍을 뚫어 만들거나 둥글납작하게 만들어서 삶아낸 떡이다.

그렇게 했다고 해. 저 어머니들이 노랑조 죽 쑬 거에요.)

103025 @ 게난 두 가지뿐이네, 흐린조허고, 맛시리[84]옌 헌 건 안 들어봅디강?(그러니까 두 가지뿐이네, 차조하고, '맛시리'라고 한 건 안 들어봤습니까?)

103025 #2 노랑조.(메조.)

103025 #1 맛시리도 들어봣는디 맛시리옝 허영, 그것이 열매는 아주 뭉갈뭉갈헌 게 그냥 이 고고리 하나도 이만씩 헌 거 맛시리, 맛시리, 맛시리 헙주게. 그것도 이제 노랑조도 싯고, 흐린조도 셔, 맛시리.('맛시리'도 들어봤는데 '맛시리'라고 해서, 그것이 열매는 아주 뭉갈뭉갈한 게 그냥 이삭 하나도 이만큼 한 거 '맛시리', '맛시리', '맛시리' 하지요. 그것도 이제 메조도 있고, 차조도 있어, '맛시리'.)

103025 @ 맛시리도.('맛시리'도.)

103025 #1 예, 노랑 맛시리 싯곡, 흐린 맛시리 싯고. 맛시리옌 헌 건 이만썩 큰 고고리가 맛시리이고. 게난 노랑 맛시리, 저 흐린 맛시리, 모힌 맛시리옌 허여, 모힌.(예, 노랑 '맛시리' 있고, 차진 '맛시리' 있고. '맛시리'라고 한 건 이만큼씩 큰 이삭이 '맛시리'이고. 그러니까 노랑 '맛시리', 저 차진 '맛시리', 메진 '맛시리'라고 해, 메진.)

103025 #2 건 술 담아, 탁배기 허는. 우리 할머니 항에 멘딱 술 담으멍 마시리 술 담앗져, 담암져.(건 술 담아, 탁주 하는, 우리 할머니 항에 모두 술 담으면서 '맛시리' 술 담았어, 담고 있어.)

103026 @ 그다음에 좁쏠로 뭐 뭐 헙니까?(그다음에 좁쌀로 뭐 뭐 합니까?)

103026 #1 좁쏠로게, 떡도 헹 먹고, 옛날은 그 영장밧디 가믄 돌레떡[85]이옌 헹 이만썩 알 건가? 선생님. 이마썩 헹 돌레떡 넙작넙작 그거 영장밧디 강 하나둘만 먹어도 배가 든든헤마씨. 그추룩 헹 먹곡, 대개 여기선 흐린 좁쏠로 조팝 헹 먹곡, 감제 썰어놩은에.(좁쌀로요, 떡도 해서 먹고, 옛날은 그 장지에 가면 '돌레떡'이라고 해서 이만큼씩 알 건가? 선생님. 이만큼씩 해서 '돌레떡' 넓적넓적 그거 장지에 가서 하나둘만 먹어도 배가 든든해요. 그처럼 해서 먹고, 대개 여기선 차진 좁쌀로 조밥해서 먹고, 고구마 썰어 넣어서.)

103026 #2 게난 제사 땐 게도 좁쏠떡 허여, 좁쏠떡.(그러니까 제사 때는 그래도 좁쌀떡 해, 좁쌀떡.)

103026 @ 침떡 허영은에.(시루떡 해서.)

103026 #2 예, 침떡허고.(예, 시루떡하고.)

103026 #1 조침떡 허곡, 또 오메기도 허고.(조시루떡 하고, 또 '오메기'도 하고.)

103026 #2 집이서 허고, 게허고 노랑, 노랑 좁쏠허고 거 무신 맛시리허곡 허믄 탁배기 술 허여, 식게 때. 술 허영으네 항에, 항에 경 헙디다게. 항 소곱에 술 헤놩 거령은에, 거령 제사 때에 막 제사 먹으레 오는 어른덜 거려내곡, 우린 아이고 그거 술 내놈젠 헤도 막 좋아허영덜 할으버지네, 할마님. 그땐 여자 어른덜토 막 먹어. 이제 담지 아니허영, 옛날 할망 어른덜은 잘 먹어나서양, 할마님덜토. 경 허민.(집에서 하고, 그거하고

84) '맛시리'는 흔히 박토(薄土)에 가는 쌀알이 잘고 메진 조의 한 가지이다.
85) '돌레떡'은 메밀이나 좁쌀가루 따위로 쟁반만큼 크고 둥그렇게 만든 떡이다.

노랑, 노랑 좁쌀하고, 그거 무슨 '맛시리'하고 하면 탁주 술 해, 제사 때. 술 해서 항에, 항에 그렇게 합디다. 항속에 술 해놔서 떠서, 떠서 제사 때에 마구 제사 먹으러 오는 어른들 떠내고, 우린 아이고 술 내놓고 있다고 해도 아주 좋아해서들 할아버지네, 할머님. 그때는 여자 어른들도 마구 먹어. 이제 담지 아니해서, 옛날 할머니 어른들은 잘 먹었었어요, 할머니들도. 그렇게 하면.)

103026 #1 전인 막 제삿때는 그 적갈이 먹기 어려우난 적갈허는 디 ᄀᆞ만이 앚앙, 우리 어린 땐, 것이 어떵 영 요만이 파치라도 나오믄 그거 이제 주믄 먹곡 헤난디. 똑 반에 저긴 몰라도 이딘 반에 반이옌 허영 놉네다. 제사 때도 허믄 떡 하나 예를 들엉 골라 놓으믄.(전에는 마구 제사 때는 그 적을 먹기 어려우니까 적하는 데 가만히 앉아서, 우리 어릴 때는, 그것이 어떻게 이렇게 요만큼 파치라도 나오면 그거 이제 주면 먹고 했었는데. 똑 반기에 저긴 몰라도 여기는 반기에 반기라고 해서 놉니다. 제사 때도 하면 떡 하나 예를 들어서 골라 놓으면.)

103026 @ 지금도 반 놩.(지금도 반기 놓아서.)

103026 #1 예, 다 세엉 놓곡.(예, 다 세어서 놓고.)

103026 @ 세엉 놓고마씨.(세어서 놓고요.)

103026 #1 썰엉 다 놓곡, 또 영 적갈이옝 흔 점썩 다 놓고.(썰어서 다 놓고, 또 이렇게 적이라고 한 점씩 다 놓고.)

103026 @ 거 옛날.(거 옛날.)

103026 #2 이제도 이젠.(이제도 이젠.)

103026 @ 이젠 경 안 허주게.(이젠 그렇게 안 하지요.)

103026 #2 이젠 안 헙네다. 이젠 허긴 헤도.(이제는 안 합니다. 이제는 하긴 해도.)

103026 @ 나도 옛날 어릴 때 식겟집이 하영 갓다 왓수다게.(나도 옛날 어릴 때 제삿집에 많이 갔다 왔습니다.)

103026 #1 반 노레 가.(반기 놓으러 가.)

103026 @ 강 보민 궤기 흔 근 가졍 식게 헷수게. 그러면 재수 어시민 적갈 궤기 흔 점 어실 때가 이서마씨. 저 이 잘못 놩.(가서 보면 고기 한 근 가져서 제사 했습니다. 그러면 재수 없으면 적 고기 한 점 없을 때가 있습니다. 저 이 잘못 놔서.)

103026 #2 예, 맛수다게.(예, 맞습니다.)

103026 #1 게믄양, 먹당 허믄 이거 적갈 떨어졋져. 저쪽에 적갈 엇다 허믄 거 반 놓던 사름이 왕 적갈 흔 점 가졍 왕 술 먹곡 헤낫주.(그러면요, 먹다가 하면 이거 적 떨어졌어. 저쪽에 적 없다 하면 그렇게 반기 놓던 사람이 와서 적 한 점 가져와서 술 먹고 했었지.)

103026 #2 게난 저 똑ᄀᆞ뜬 게 그 동네하고, 저 동네허고.(그러니까 저 똑같은 게 그 동네하고, 저 동네하고.)

103026 @ 옛날 게 어실 때난게.(옛날 그렇게 없을 때니까요.)

103026 #2 아이고, 경 헤낫수다.(아니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103026 @ 흔 근 가졍 식게 다 헤시난게.(한 근 가져서 제사 다 했으니까요.)

103026 #2 아이고, 게메마씨, 혼 근 가졍.(아이고, 글쎄요, 한 근 가져서.)

103026 @ 궤기 혼 근 가졍.(고기 한 근 가져서.)

103026 #2 식게허곡.(제사하고.)

103026 @ 그 저 좁쏠 가졍으네, 곤썰이 어려울 때니까. 침떡도 반은 좁쏠, 반은 곤쏠 헹은에 침떡 멩글지 안 헷수가?(그 저 좁쌀 가져서, 흰쌀이 어려울 때니까. 시루떡도 반은 좁쌀, 반은 흰쌀 해서 시루떡 만들지 안 했습니까?)

103026 #2 예게, 반은 좁쏠, 반은, 게난 것도 매 집이 아니허연. 허는 집이 허고, 매 집이 못 헷수게.(예게, 반은 좁쌀, 반은, 그러니까 그것도 모든 집에서 아니했어. 하는 집에 하고, 모든 집에 못 했습니다.)

103026 #1 좁쏠허영 허믄 이제 저 침떡이옌 허영 거 풋쉬허곡 헹 허믄.(좁쌀해서 하면 이제 저 시루떡이라고 해서 그거 팥소하고 해서 하면.)

103026 #2 흐린 좁쏠만은 아이 뒈어.(차진 좁쌀만은 아니 돼.)

103026 #1 저 모힌 좁쏠 서꺼사, 너무 흘착헤부런.(저 메진 좁쌀 섞어야, 너무 물렁물렁해 버려서.)

103026 #2 너무 흐랑헤부런, 게난 모힌 좁쏠이영 서껑, 서껑은에 떡 허지 아니허믄.(너무 부드러워서, 그러니까 메진 좁쌀이랑 섞어서, 섞어서 떡 하지 아니하면.)

103026 #1 풋쉬허고 허믄 시리에 쳐사.(팥소하고 하면 시루에 쪄야.)

103026 #2 풋쉬 헹은에 옛날은.(팥소 해서 옛날은.)

103026 #1 것도 옛날.(그것도 옛날.)

103026 #2 저 돌방멩이 ᄆᆞ솽허곡, ᄆᆞ솽허믄.(저 돌방망이 부숴서 하고. 부숴서 하고.)

103026 @ 감준 안 멩글아 봅디강? 조로.(감주는 안 만들어 봤습니까? 조로.)

103026 #1 무사 조캄주게, 골감주, 골감주옌 허여, 골감주우다. 이디선 허믄 식게 때 허영 그거 요즘 ᄀᆞ뜨믄 음료수, 골감주.(왜 조 감주요, 엿기름으로 만든 감주, 엿기름으로 만든 감주라고 해, 엿기름으로 만든 감주입니다. 여기선 하면 제사 때 해서 그거 요즘 같으면 음료수, 엿기름으로 만든 감주.)

103026 #2 집이서 보리쏠 헹은에게 키왕은에, 걸로 멘들아사.(집에서 보리쌀 해서 키워서, 걸로 만들어야.)

103026 @ 좁쏠로도 멘들아 감주?(좁쌀로도 만들어 감주?)

103026 #2 좀쏠로 만들아.(좁쌀로 만들어.)

103026 #1 골감주, 좁쏠로 헹 헌 것이 제라헌 거우다게. 요즘 탁배기보다, 그것이 아주 돌곡 혼 잔씩을 먹어도.(엿기름으로 만든 감주, 좁쌀로 해서 한 것이 온전한 것입니다. 요즘 탁주보다, 그것이 아주 달고 한 잔씩을 먹어도.)

103026 #2 게난 옛날 보리쏠 헹 키왓당 이제 그걸.(그러니까 옛날 보리쌀 해서 키웠다가 이제 그걸.)

103025 @ 그거 골이옌 헤십주.(그거 엿기름이라고 했습니다.)

103026 #2 예, 골 멘들앙, 이제 ᄀᆞ뜨믄 골, 이제도 골은 골이라. 예, 게난 골 헹은에

그것 티왓당 허믄 그것이 보족보족 나. 나믄 이제 거세기 좁쏠로 밥 허영.(예, 엿기름 만들어서, 이제 같으면 엿기름, 이제도 엿기름은 엿기름이야. 예, 그러니까 엿기름 해서 그거 틔웠다가 하면 그것이 뾰족뾰족 나. 나면 이제 거시기 좁쌀로 밥해서.)

103026 @ 아, 좁쏠로 밥 헤은에 허는 거구나.(아, 좁쌀로 밥해서 하는 거구나.)

103026 #2 밥 허영 그것 궤영 영, 물 줭 놔두믄 물 줘엉 항 소곱에, 망데기에 놩 놔두믄 부각허여 혼 이틀만이 부각허민 그거 저 대체, 체로 헹 걸러그네 이제.(밥해서 그것 끓어서 이렇게, 물 줘서 놔두면 물 줘서 항 속에, 옹기에 넣어서 놔두면 보각해서 한 이틀만에 보각하면 그거 저 대체, 체로 해서 걸러서 이제.)

103026 #1 엿 멩글 때 저.(엿 만들 때 저.)

103026 #2 솟디 놩 솜앙, 게믄 탁 솖앙도 먹곡, 그냥도 먹곡, 엿 멘들 땐 그냥도 허여.(솥에 넣어서 불을 때어서, 그러면 탁 삶아서도 먹고, 그냥도 먹고, 엿 만들 때는 그냥도 해.)

103026 #1 좁쏠엿 헐 때ᄀᆞ찌 그추룩 헹 막 딸리믄 엿 뒈곡게, 아니허영 조금 솜으믄, 덜 솜으믄 것이 감줍주게. 돌허여, 무신거 든 거 안 놔도.(좁쌀엿 할 때같이 그와 같이 해서 마구 막 달이면 엿 되고요, 아니해서 조금 불을 때면, 덜 불을 때면 것이 감주지요. 달아, 무엇 단 거 안 넣어도.)

103026 #2 게난 그거 허영 청은에 감주허게 뒈믄.(그러니까 그거 해서 쪄서 감주하게 되면.)

103026 #1 제사 때도 감주 가져오라. 골감주 허믄게, 혼 잔씩 먹고.(제사 때도 감주 가져오라. 엿기름으로 만든 감주하면요 한 잔씩 먹고.)

103026 #2 그추룩 헨 헷수다.(그처럼 해서 했습니다.)

103027 @ 그다음에양, 조찝, 조찝은 뭐에 사용헷수가?(그다음에요, 조짚, 조짚은 뭐에 사용했습니까?)

103027 #1 쉐, 쉐 멕엿수다.(소, 소 먹였습니다.)

103027 #2 썰언, 썰언.(썰어서, 썰어서.)

103027 #1 게고양, 조찝 썰멍, 쉐도 작두로 헹 먹곡, 그냥도 주곡 허믄.(그리고요, 조짚 썰면서, 소도 작두로 해서 먹고, 그냥도 주고 하면.)

103027 #2 누까에 술망 줫주기.(쌀겨에 삶아서 줬지요.)

103027 #1 쉐 잘 먹는디, 또 좃대가리옌 허영 그거는 전이 잔치집이 뭐 이 허믄 주로 잔치집이는 우리도 어린 때 보믄 잔치집이 강 밥을 먹젠 통사발에 영 밥 거렁 허믄, 그 좃대가리 다 꺼꺼당은에 고기 혼 점 무슨 두부 혼 점, 조 놩, 대가리 꺼껑.(소 잘 먹는데, 또 조 끄트머리라고 해서 그거는 전에 잔칫집에 뭐 이 하면 주로 잔칫집에는 우리도 어린 때 보면 잔칫집에 가서 밥을 먹으려고 통이 깊숙한 사발에 이렇게 밥 떠서 하면, 그 조 끄트머리 다 꺾어다가 고기 한 점 무슨 두부 한 점, 조 넣어서, 끄트머리 꺾어서.)

103027 #2 끗뎅이 꺼꺼당. (끄트머리 꺾어다가.)

103027 #1 그거 헤당 허믄 어느 집이 잔치헌다. 아, 좃대가리 필요허다, 그거 헤다

놩 허믄 꼭꼭 찔렁 밥 우터레 꼭 허게 찔렁은에 다.(그거 해다가 하면 어느 집에 잔치한다. 아, 조 끄트머리 필요하다, 그거 해다가 놓아서 하면 꼭꼭 찔러서 밥 위에 꼭 하게 찔러서 다.)

103027 #2 궤기 두 점 놩, 경 헨 줜.(고기 두 점 놓아서, 그렇게 해서 줬어.)

103027 #1 주곡 아이덜은 주로.(주고 아이들은 주로.)

103027 @ 젝고지 역할 헷수가?(적꼬치 역할 했습니까?)

103027 #1 예, 적고지 역할, 좃대가리 그거허곡, 주로 조 나온 그거 허곡, 쉐 먹이는 거 허고.(예, 적꼬치 역할, 조 끄트머리 그거하고, 주로 조 나온 그거 하고, 소 먹이는 거 하고.)

103027 #2 썰엉 누까에 조체 불려분 것에 누까에 허곡(썰어서 쌀겨에 조 겉껍질 불려버린 것에 쌀겨에 하고.)

103027 #1 북북 썰멍.(박박 썰면서.)

103027 #2 장만헌 누까허곡 술망 쉐 멕연, 쉐 먹연.(장만한 쌀겨하고 삶아서 소 먹였어, 소 먹였어.)

103027 @ 조찝으로는 불 안 땟수가?(조짚으로는 불 안 땠습니까?)

103027 #2 아이 때서. 더러 대가리덜은, 더러 대가리 남은 것은 이서. 대가리 남은 거 굽더레, 그런 건 굴묵[86] 지덧주기, 굴묵게.(아니 때었어. 더러 끄트머리들은, 더러 끄트머리 남은 것은 있어. 끄트머리 남은 거 둥치로, 그런 건 '굴묵' 때었지요, '굴묵'요.)

103027 #1 쉐 멕이곡, 옛날 대신 또.(소 먹이고, 옛날 대신 또.)

103027 #2 보리낭보단 그건 ᄒᆞ쏠 오래 가, 솜음이. 보릿낭은 바르르 헤불고.(보릿짚보다는 그거는 조금 오래 가, 불을 때는 것이. 보릿짚은 바르르 해 버리고.)

103027 #1 조대가린 그 조.(조 끄트머리는 그 조.)

103027 #2 조낭을 썰당 ᄒᆞ끔 소곱으로 썰엉 쉐 멕이고, 연헌 것은, 덩친 놔뒀단 불솜고, 불 솜기 아까왕은에.(조짚을 썰다가 조금 속으로 썰어서 소먹이고, 연한 것은, 둥치는 놔뒀다가 불 때고, 불 때기 아까워서.)

103027 @ 우린 헤 보믄 꽷낭이 가장 좋아 뵈어.(우리는 해 보면 깻짚이 가장 좋아 보여.)

103027 #2 굴묵 지더난.('굴묵' 때었던.)

103027 @ 꽷낭 거 밥 헐 때 가장 좋아.(깻짚이 그거 밥할 때 가장 좋아.)

103027 #2 가장 좋아낫수다마는, 꽨 우리 꿰는 잘 아니 헤낫수다, 꿰 아이뒈어.(가장 좋았었습니다만, 깨는 잘 아니 했었습니다, 깨 아니 되어.)

103027 #1 게고양, 이 헤변더렌 꽤가 잘 안 뒙니다.(그리고요, 이 해변으로는 깨가 잘 안 됩니다.)

103027 @ 꽤가 안 뒈어, 거 이 태풍때문인가?(깨가 안 되어, 그거 이 태풍 때문인가?)

103027 #1 아니, 하이튼 그거 비 오곡, 어떵 맛추지 못허믄 꽤 안 뒈어.(아니, 하여

86) '굴묵'은 구들방에 불을 때게 만든 아궁이 및 그 아궁이 바깥 부분이다.

튼 그거 비 오고, 어떻게 맞추지 못하면 깨 안 되어.)

103027 @ 이 꽤는 ᄀᆞ물아야 뒈는 거게. ᄀᆞ물앙은에 뒈는 것이 두 가지우다, 두 가지. 꽤허고 멘네.(이 깨는 가물어야 되는 거. 가물어야 되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깨하고 면화.)

103027 #2 멘네.(면화.)

103027 #1 예, 멘네는.(예, 면화는.)

103027 @ 꽤허고 멘네는 ᄀᆞ물아야 뒈는 거.(깨하고 면화는 가물어야 되는 거.)

103027 #2 멘넨 이디 더럭[87]더렌 헤도 이렌 안 헤 봣수다. 몰라 우리.(면화는 여기 '더럭'으로는 해도 이곳으로는 안 해 봤습니다. 몰라 우리.)

103027 #1 멘네, 어린 때 많이 멘네 타레 밧디 가낫수다.(면화, 어릴 때 많이 면화 따러 밭에 갔었습니다.)

103027 @ 좁쏠에서 멘네까지 가부럿수다만.(좁쌀에서 면화까지 가버렸습니다만.)

103027 #2 게메, 게난 허천드레 믄 가부러신게. 좁쏠도 다 아니허영, 좁쏠도 다 아니헤둥은에, 말만 허연.(글쎄, 그러니까 다른 곳으로 모두 가버렸어. 좁쌀도 다 아니해둬서, 말만 했어.)

103028 @ 마지막으로 게믄 조농사에 대한 얽힌 추억, 조농사 추억이 이실 거 아니우꽈? 조농사 허멍.(마지막으로 그러면 조농사에 대한 얽힌 추억, 조농사 추억이 있을 거 아닙니까?)

103028 #1 아이고, 게메, (아이고, 글쎄.)

103028 @ 뭐 검질맬 때라던가.(뭐 김맬 때라든가.)

103028 #2 추억게 무시거, 하도.(추억 무엇, 하도.)

103028 #1 조 불리는 소리를 해야.(조 밟는 소리를 해야.)

103028 #2 조 불리는 소리보단 벳 난 디 앚앙은에 검질 메곡 벳 난 디 앚앙 검질메고.(조 밟는 소리보다는 햇볕 난 데 앉아서 김매고, 햇볕 난 데 앉아서 김매고.)

103028 #1 그땐양, 페렝이도 겡 어선.(그때는요, 패랭이도 그렇게 없어서.)

103028 #2 밥도, 밥도 기렵곡, 먹을 것도 엇고.(밥도, 밥도 그립고, 먹을 것도 없고.)

103028 #1 이녁 집이서 페렝이 줄지 아이허믄 어성 그자, 아이 머리엔 무싱거 헤노믄 양지도 거멍케 카고, 등뗑이 다 카고.(이녁 집에서 패랭이 겯지 아니하면 없어서 그저, 아이 머리에는 무엇 해놓으면 얼굴도 거멓게 타고, 등도 다 타고.)

103028 #2 초신 신엉 강 앚앙은에 무신거 허곡.(짚신 신어서 가서 앉아서 무엇 하고.)

103028 @ 게믄 조 불리는 노래 혼번 헤봅서.(그러면 조 밟는 노래 한번 해보십시오.)

103028 #2 아이고, 조 불리는 노래 ᄀᆞᆺ사 허난 더 허여져?(아이고, 조 밟는 노래 금방 하니까 더 해져?)

103028 @ 혼번 더.(한번 더.)

87) '더럭'은 애월읍 상가리와 하가리를 일컫는 지명이다.

103028 #2 혼번 더?(한번 더?)

103028 @ 예.(예.)

103028 #2 헙서.(하세요.)

103028 #1 예, 으르르르르 어어.(예, 으르르르르 어어.)

103028 #2 어어어 어랑 허랑.(어어어 어랑 허랑.)

103028 #1 어 허어어어어.(어 허어어어어.)

103028 #2 걸으라 걸으라 재게 재게 걸으라. 어러러러러 허. 어러러러러 어라. 우리 ᄆᆞᆯ덜은 말도 잘 들고 놈이 ᄆᆞᆯ덜은 말도 아이 들엄시녜, 어러러러러 허허허.(걸어라 걸어라 재우 재우 걸어라. 어러러러러 허. 어러러러러 어라. 우리 말들은 말도 잘 듣고 남의 말들은 말도 아니 듣고 있네, 어러러러러 허허허.)

103028 #1 어러러러러 허허허.(어러러러러 허허허.)

103028 #2 어러러 어러러 어러러 어러러 허러러 허러러 아이고 잘도 간다 ᄆᆞᆯ들아. 경허멍 그추룩 허멍 허당 아기 울어가믄 옵더레 가곡 허멍, 아이고.(어러러 어러러 어러러 어러러 허러러 허러러 아이고 잘도 간다 말들아. 그렇게 하면서 그와 같이 하면서 하다가 아기 울어 가면 옆으로 가고 하면서, 아이고.)

103028 #1 옛날 삶사 삶이우꽈?(옛날 삶이야 삶입니까?)

103028 #2 경 허멍. 그추룩 허멍 헤도 이제 ᄆᆞᆯ 불리는 하르방이, 잘도 노래 잘 부르는 하르방이 셔난. 그 하르방 빌기가 막 다 빌어가젠 헤도 못 빌어. 우리 옵집이난 빌엇주, 우리가. 빌엉 허믄 느도 노래 배우라. 배우라 허믄, 순일이 아버지게. 아이구 게메. 경 허단 이제 이디 할망은 살안 허긴 헴구나마는, 지금 잘 불르는 대장 어른이 잇젠, 이디 완 살멍 거 노래를 잘 헨, ᄆᆞᆯ 불리는 노래.(그렇게 하면서. 그와같이 하면서 해도 이제 말 밟는 할아버지가, 잘도 노래 잘 부르는 할아버지가 있었어. 그 할아버지 빌리기가 모두 다 빌려 가려고 해도 못 빌려. 우리 옆집이니까 빌렸지, 우리가. 빌려서 하면 너도 노래 배우라. 배우라 하면, '순일'이 아버지게. 아이고 글쎄. 그렇게 하다가 이제 여기 할머니는 살아서 하긴 하고 있구나만, 지금 잘 부르는 대장 어른이 있다고, 여기 와서 살면서 그렇게 노래를 잘했어, 말 밟는 노래.)

103028 #1 겐디 조도 저 아무 보리도 경 허주마는, 조는 그냥 요거 비 맞으믄 첨 안 뒈어마씨. 거멍케 좁쏠ᄀᆞ치 거멍헤부니까 조 헷당, 그때는 ᄀᆞ을이난 비는 잘 아니 오는디 ᄀᆞ을 들엉 이제 하니가 와상와상 헤노믄, 재게 ᄆᆞᆯ르곡 허는디, 노 허당 하니 올르젠 허믄, 거 ᄇᆞ름 불젠 허믄, 비가 잡아 ᄀᆞᆯ깁주게. 그땐 나도양, 밤이 헷단 저 밧은 수산봉 곁에 멀곡 비는 와작착 와작착 ᄀᆞᆯ겨 가사 어떵 허여게, 미리 비 오카부덴 해서. 간양, 거 허멍 그거 눌멍 허난 첨 그런 적도 만헷고, 이 저 추억이 만수다게, 조에 대허영.(그런데 조도 저 아무 보리도 그렇게 하지만, 조는 그냥 요거 비 맞으면 참 안 돼요. 거멓게 좁쌀같이 검어버리니까 조 했다가, 그때는 가을이니까 비는 잘 아니 오는데 가을 들어서 이제 북풍이 와상와상 해놓으면, 빨리 마르고 하는데, 동북풍 하다가 북풍 오르려고 하면, 거 바람 불려고 하면, 비가 잡아 갈기지요. 그때는 나도요, 밤에 했다가 저 '수산봉' 곁에 멀고, 비는 와작착 와작착 갈겨 가야 어떻게 해요, 미리 비 올까 싶어서 했

어. 가서요 거 하면서 그거 쌓으면서 하니까 참 그런 적도 많았고, 이 저 추억이 많습니다, 조에 대해서.)

103028 #2 게난 이제 그추룩 질이 널러시믄 허주마는, 영 질 좁은 딜로 조도 져 오곡, 보리도 져 오곡 허당 보믄 질읖이 질 가시에 깍깍허영 옛날 그추룩.(그러니까 이제 그와 같이 길이 넓었으면 하지만, 이렇게 길 좁은 데로 조도 져 오고, 보리도 져 오고 하다가 보면 길옆에 가시에 깍깍해서 옛날 그와 같이.)

103028 #1 조, 조도 대가리 믄 꺼꺼져불곡.(조, 조도 끄트머리 모두 꺾어져 버리고.)

103028 #2 게난 저 쉐나 물이나 질멍 오당 보믄, 집이 왕 보믄 조도 대가리 다 꺼꺼져불엉, 믄딱 까시에 믄딱 훌터불엉 어서. 조 시껑오곡 허당 보믄, 경 헤도 쉐, 첨 물 메어둰은에, 저 부렁 질 이염에 허믄, 무시거 부렁 보믄 반작허영은에, 게난 이제 물방에 ᄌᆞ꼿디 강 메둰 조코고리 이제 ᄐᆞ당 물방에 둥그렁, 아이고, 체로 쳥 조칵메긴 그추룩 놔뒷당 막 헌 멕에 멧 가멩이나 멕 헹 담아둰.(그러니깐 저 소나 말이나 짊어져서 오다가 보면, 집에 와서 보면 조도 끄트머리 다 꺾어져 버려서, 모두 가시에 모두 홅어버려서 없어. 조 실어서오고 하다가 보면, 그렇게 해도 소, 참 말 매어둬서, 저 부려서 길 옆에 하면, 무엇 부려서 보면 반작해서, 이제 연자방아 옆에 가서 매둬서 조이삭 이제 뜯어서 연자방아 굴려서, 아이고, 체로 쳐서 '조칵메기'는 그처럼 놔뒀다가 아주 헌 멱서리에 몇 가마니나 멱서리 해서 담아둬서.)

103028 #1 가멩이 담는 멕이 뚜로 이서, 크게 담앗당.(가마니 담는 멱서리 따로 있어, 크게 담았다가.)

103028 #2 이제 그추룩 경 헹 놔뒷당 쉐 주곡.(이제 그처럼 그렇게 해서 놔뒀다가 소 주고.)

103028 #1 쉐 ᄒᆞ낌썩 멕이곡.(소 조금씩 먹이고.)

103028 #2 멕이곡.(먹이고.)

103028 #1 건 쉐 양식.(건 소 양식.)

103028 #2 게 아이믄 비 맞아나믄 터불엉 쉐 잘 아이 먹곡, 경 엿날은.(그렇게 아니면 비 맞으면 떠 버려서 소 잘 아니 먹고, 그렇게 옛날은.)

103028 #1 모든 것이 빌 맞치지 말아사, 보리도.(모든 것이 비를 맞히지 말아야, 보리도.)

103028 #2 게난 아이고, 그렇게 머리덜이 경 허멍 살안.(그러니까 아이고, 그렇게 머리들이 그렇게 하면서 살았어.)

103028 #1 아니, 그땐양, 날씰 듣지 못헤노난 이제ᄀᆞ찌 일기방송허영 닐, 모리 비 올 것ᄀᆞ찌 다 알암시믄.(아니, 그때는요, 날씨를 듣지 못했으니까 이제까지 일기방송해서 내일, 모레 비 올 것까지 다 알고 있으면.)

103028 #2 라지오가 시카? 테레비가 시카? 멍청허게 붉으믄 쉐나 물앙 어디 저 쉐 멕이레 가곡, 조코고리 ᄐᆞ당 둥그릴 셍각허곡.(라디오가 있나? 텔레비전이 있나? 멍청하게 밝으면 소나 몰아서 어디 저 소 먹이러 가고, 조이삭 뜯어다가 굴릴 생각하고.)

103028 #1 요즘 무신 테레비가 싯수강? 라지오가 싯수강?(요즘 무슨 텔레비전이 있

습니까? 라디오가 있습니까?)

103028 #2 게난 좁쏠 헤노믄 이제 돈 얼마썩 허영 좁쏠 하귀 장에 풀레, 어디 가젱 허민 이제 졍 가사. 아침이 아기 잘 때에 졍 강 풀앙, 두어뒈 졍 강 풀앙은에, 풀앙 오멍 무신것.(그러니까 좁쌀 해놓으면 이제 돈 얼마씩 해서 좁쌀 '하귀' 장에 팔러 어디 가려고 하면 이제 져서 가야. 아침에 아기 잘 때에 져서 가서 팔아서, 두어 되 져서 가서 팔아서, 팔아서 오면서 무엇.)

103028 #1 고모신 사고.(고무신 사고.)

103028 #2 고모신도 하나 사곡, 초신도 하나 사곡허멍.(고무신도 하나 사고 짚신도 하나 사고하면서.)

103028 #1 나도 머리 이발허젠 허믄 돈이 어시믄 거 헤당, 좁쏠 강 풀앙 오믄 그거.(나도 머리 이발하려고 하면 돈이 없으면 거 해다가, 좁쌀 가서 팔아서 오면 그거.)

103028 #2 풀앙, 경 헨 헤낫수다.(팔아서, 그렇게 해서 했었습니다.)

103028 #1 풀앙 이발도 허곡, 고모신도 못 사믄 사곡.(팔아서 이발도 하고, 고무신도 못 사면 사고.)

103028 #2 곧지도 못허곡, 이제 사름덜은 몰라. 우리 아기덜토 못 곧곡.(말하지도 못하고, 이제 사람들은 몰라. 우리 아기들도 못 말하고.)

103028 @ 예, 수고헷수다.(예, 수고했습니다.)

콩농사

103029 @ 그다음에양, 콩 농사에 대해서 물어보쿠다양. 콩 농사를 허젠 허민 어떤 준비가 필요헙니까?(그다음에요, 콩 농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콩 농사를 하려고 하면 어떤 준비가 필요합니까?)

103029 #1 이디서 콩은 크게 뭐 아이 허주만 콩은 유월절 전에 유월절 넘으믄 요놈으 것이 이제 저 전이 갈믄 낭만 커불어. 게난 유월절에 맞추앙 가는디, 또 콩은 모든 건 두불에 가는 디 초불에 갈아마씨. 어떠냐허믄 콩은, 또 영 골으믄 뭐 헛말 같아도 어디 저 원수진 사름 빌엉 콩 갈아. 영 허영 왜냐믄 깊게 갈믄 안 뒈어. 그냥 야트게 그자 쉐 ᄀᆞ르치멍이라도 탁탁 젱기 들르멍 헹, 또 씨도 드무룽이 삐영양, 정식으로로 삐지 아이허믄 콩은 ᄌᆞ지믄 열질 아이허니까, 경 헹 허곡 주로 이제 콩 갈 때 아주 드물게 젱기 영 들르멍 팍팍 그자 가는 채, 마는 채 해도 나중에 뒈믄 콩이 그때사 제라헌 것이 뒈어마씨.(여기서 콩은 크게 뭐 아니 하지만, 콩은 유월절 전에 유월절 넘으면 요놈의 것이 이제 저 전에 갈면 나무만 커버려. 그러니까 유월절에 맞혀서 가는데, 또 콩은 모든 건 두벌에 가는 데 애벌에 갈아요. 어떠냐하면 콩은, 또 이렇게 말하면 뭐 헛말 같아도 어디 저 원수진 사람 빌어서 콩 갈아. 이렇게 해서 왜냐 하면 깊게 갈면 안 돼. 그냥 얕게 그저 소 가르치면서라도 탁탁 쟁기 들면서 해서, 또 씨도 드물게 뿌려서요, 정식으로 뿌리지 아니하면 콩은 잦으면 열지를 아니하니까, 그렇게 해서 하고 주로 이제 콩 갈 때 아주 드물게 쟁기 이렇게 들면서 팍팍 그저 가는 채, 마는 채 해도 나중에 되

면 콩이 그때야 온전한 것이 되어요.)

103029 #2 일찍 갈아불믄 콩낭만 나곡, 콩 잘 올지도 아이허곡.(일찍 갈아버리면 콩 짚만 나고, 콩 잘 열지도 아니하고.)

103029 #1 걸름콩이옝 허영은에 걸름이 옛날은 걸름이 귀허난 똑 건 일찍 갈아사. 똑 보리 비어나믄 걸름콩 갈젠 허영, 것이 헤노믄 밧이 비영 혼 불 골앗당 그거 헤 노믄 양, 비 맞곡 헹 썩엉 갈아노믄 걸름 안 헤도 혼 불 걸름헌 것추룩.(거름용 콩이라고 해서 거름이 옛날은 귀하니까 똑 건 일찍 갈아야. 똑 보리 베면 거름용 콩 갈려고 해서, 그것이 해놓으면 밭에 베어서 한 벌 거름한 것처럼.)

103029 #2 밧이 걸언.(밭이 걸어서.)

103029 #1 그땐 뭐 비료도 엇곡 헷자 통시에 걸름벡이 어시난 이제 걸름콩 갈곡, 에, 거 걸름콩이라.(그때는 뭐 비료도 없고, 해봐도 돼지우리에 거름밖에 없으니까 이제 거름용 콩 갈고, 에, 그거 거름용 콩이야.)

103029 #2 ᄯᅮ시 이제.(다시 이제.)

103029 #1 경 안 헌 건 이녁 콩 헤 먹을 거는 늦게 갈아, 유월절 ᄉᆞ시에 갈주.(그렇게 안 한 거는 이녁 콩 해 먹을 거는 늦게 갈아, 유월절 금방에 갈지.)

103029 #2 유월절 혼 오 일 전이, 일주일 전이.(유월절 한 오 일 전에, 일주일 전에.)

103029 #1 게난 유월절 뒈가믄 쉐도양, 여기서 목장에 올리는디.(그러니까 유월절 돼 가면 소도요, 여기서 목장에 올리는데.)

103029 #2 강 ᄆᆞᆯ앙 와사.(가서 몰아서 와야.)

103029 #1 막, 아이, 아이. 막 이 저 ᄆᆞ쉬덜이 와려마씨. 쉐ᄑᆞ리가 독헤 가지고.(마구, 아니, 아니. 아주 이 저 마소들이 조급해요. 쇠파리가 독해 가지고.)

103029 #2 콩 갈기가 궂어.(콩 갈기가 궂어.)

103029 #1 유월절 뒈가믄 쉐는 이디서 농사 재게 헤뒁 올려야 헐 건디, 절 전에 콩 안 갈 사름은 목장에 쉐 강 보리 얼마 줭 ᄋᆞ름 거 올리는디, 그디 가믄 ᄑᆞ리도 덜 허곡, 쉐 진독도 덜 허곡 허영으네 유월절 뒈엉 콩 갈젠 헌 사름은 늦엉 허는 거라. 겡 콩만 갈아뒁 재게 쉐 올려사 허켜. (유월절 돼 가면 소는 여기서 농사 빨리 해둬서 올려야 할 건데, 유월절 전에 콩 안 갈 사람은 목장에 소 가서 보리 얼마 줘서 여름 거 올리는데, 거기 가면 파리도 덜 하고 소 진드기도 덜 하고 해서 유월절 되어서 콩 갈려고 하는 사람은 늦어서 하는 거야. 그렇게 콩만 갈아둬서 빨리 소 올려야 하겠어.)

103030 @ 게난 콩은 아까 물어봣수다마는 언제 어떵 갑니까?(그러니까 콩은 아까 물어 봤습니다만 언제 어떻게 갑니까?)

103030 #1 콩은 유월절 ᄉᆞ시에 헤 가지고 우선 밧 거시지 말앙, 이제 거 씨 삔디 씨도 좀 드물게 삐곡, 가는 건 첨 원수 빌어당 갈아. 건 뭐냐 허믄 위로 톡톡톡 갈멍 아주 야프게 콩 짚이 갈믄 못 씨는 거, 콩 짚엉 안 나주. 이제ᄀᆞ치 경운기로 헴시믄 착착 얍게라도 헐 건디.(콩은 유월절 금방에 해 가지고 우선 밭 건드리지 말아서, 이제 거 씨 뿌린데 씨도 좀 드물게 뿌리고, 가는 건 참 원수 빌어다가 갈아. 건 뭐냐 하면 위로 톡

톡톡 갈면서 아주 얕게 콩 깊게 갈면 못 쓰는 거, 콩 깊어서 안 나지. 이제같이 경운기로 하고 있으면 착착 얕게라도 할 건데.)

103030 #2 콩은 경헌디 날짜를 몰르컨게.(콩은 그런데 날짜를 모르겠어요.)

103030 #1 유월 소서, 소서ᄀᆞ라 유월절이옌 헌다, 소서 유월절. 게난 소서뒈믄 날씨도 막 덥고 이 저 ᄋᆞ름엔 뭐 어디 소서.(유월 소서, 소서더러 유월절이라고 한다, 소서 유월절. 그러니까 소서 되면 날씨도 아주 덥고 이제 여름엔 뭐 어디 소서.)

103030 #2 게난 이디 쉐덜이 와리는 따문 재게 갈앙 목장더레 올려불젠 허믄.(그러니까 여기 소들이 조급한 때문 빨리 갈아서 목장으로 올려 버리려고 하면.)

103030 #1 쉐ᄑᆞ리가양 독헤 가지고, 아무튼 유월절 뒈 가믄.(쇠파리가요, 독해 가지고, 아무튼 유월절 돼 가면.)

103030 #2 장남 못 빈 사름은 재게 못 올리곡.(장정 못 빈 사람은 빨리 못 올리고.)

103030 #1 쉐ᄑᆞ리 져 가믄 유월절 닥쳠져, 어떤 때고 이때가.(쇠파리가 져 가면 유월절 닥치고 있어, 어떤 때고 이때가.)

103030 #2 재게 콩 갈아뒁 쉐 올려.(빨리 콩 갈아두고 소 올려.)

103030 #1 예, 쉐 올려.(예, 소 올려.)

103030 #2 게믄 장남 못 빈 사름은 홀어멍이나 할망덜은 재게 못 갈앙 막 거 게 콩 갈지 못허영 헤낫수다마는, 아이고, 그땐 우리 이젠 막 놈이 거 빌언 감저 싱거나부난. 놈이 거 막 갈아주단 보난 우리건 늦언.(그러면 장남 못 빈 사람은 홀어머니나 할머니들은 빨리 못 갈아서 막 그거 그렇게 콩 갈지 못해서 했었습니다마는, 아이고, 그땐 우리 이제는 마구 남의 거 빌어서 고구마 심어 버리니까. 남의 거 마구 갈아주다가 보니까 우리 거는 늦었어.)

103031 @ 콩밧 걸름 엇지양? (콩밭 거름 없지요?)

103031 #2 걸름 아니허여.(거름 아니해.)

103031 #1 콩밧은 걸름콩, 너무 걸믄 콩은 올지 아이허난 그냥 저 생땅에 보리 끄루에 헤도 좋아마씨. 콩은 헤노믄 유월절 ᄉᆞ시에 헹 갈앙 나 노믄 것이 콩이 잘 올고.(콩밭은 거름용 콩, 너무 걸면 콩은 열지 아니하니까 그냥 저 생땅에 보리 갈았던 곳에 해도 좋아요. 콩은 해놓으면 유월절 금방에 해서 갈아서 나 놓으면 그것이 콩이 잘 열고.)

103031 #2 보리 비어나믄 것이 걸름.(보리 베면 그것이 거름.)

103031 #1 그루후제 보리 빌 때는 막 굽으로 안 빕니다. ᄒᆞ끔 우이로 영 비엉 갈아노믄 그것이 믄딱 걸름 뒈어. 조 헐 때도 그거 허고 주로 보리 그루로 헌 것이 걸름이우다.(그 후에 보리 벨 때는 아주 밑으로 안 벱니다. 조금 위로 이렇게 베어서 갈아 놓으면 그것이 모두 거름 되어. 조 할 때도 그거 하고 주로 보리 갈았던 곳에 한 것이 거름입니다.)

103032 @ 콩씨는 어떵 뿌려마씨?(콩씨는 어떻게 뿌려요?)

103032 #1 콩씨는 드무룽이 삐어사, 콩은 이 아멩이나 데끼멍, 콩 ᄌᆞ지믄 안 뒈난 드무룽이 삐엉, 거 콩.(콩씨는 드물게 뿌려야, 콩은 이 아무렇게나 던지면서, 콩 잦으면 안 되니까 드물게 뿌려서, 그거 콩.)

103032 #2 망텡이 메엉은에.(망태기 메어서.)

103032 #1 이제 거 콩씨, 거 무신거렌 허더라. ᄌᆞ지믄 안 뒈어. 우리도 헤보믄 막 천장만썩 눈 ᄀᆞᆷ으멍 작작 삐어. 경 헹 갈아도 나중에는 콩이 처음에는 아이고 드물다 헤도 나중에 허믄 콩이 올매만 지락지락.(이제 거 콩씨, 그거 무엇이라고 하더라. 잦으면 안 돼. 우리도 해보면 천장만큼 눈 감으면서 작작 뿌려. 그렇게 해서 갈아도 나중에는 콩이 처음에는 아이고 드물다 해도 나중에 하면 콩이 열매만 주렁주렁.)

103032 @ 막 거리니까게, 콩은 거려.(마구 거리니까요, 콩은 거려.)

103032 #2 예, 지락지락.(예, 주렁주렁.)

103032 #1 거령은에 올매만 지락지락헌 거 으물이 컨게.(거려서 열매만 주렁주렁 한 거 여물이 커요.)

103032 #2 쉐도 막 와령, 콩 갈젠 허믄 막 천장만장 ᄃᆞᆯ아나곡, 쉐 게난 장남이 ᄃᆞᆫᄃᆞᆫ헌 장남 아니믄 갈질 못허여. 막 더워노난 더워가곡 헤나난 쉐 와령 쉐도, 세벡이 강 갈지 아니허믄양.(소도 아주 조급해서, 콩 갈려고 하면 마구 천장만장 달아나고, 소 그러니까 장정이 단단한 장정 아니면 갈지를 못해. 아주 더우니까 더워가고 하니까 소 조급해서 소도. 새벽에 가서 갈지 아니하면요.)

103032 #1 어두룩헹 베리지 못헌 때 가사게.(어둑해서 보이지 못할 때 가야.)

103032 #2 아이, 강 보믄양, 빌지 못헌 할망덜 낮이 갈젱 허믄.(아니, 가서 보면요, 빌지 못한 할머니들 낮에 갈려고 하면.)

103032 #1 해가 올라가믄 더웡 이거 쉐 와령은에.(해가 올라가면 더워서 이거 소 조급해서.)

103032 #2 막 쉐 와령 허당보믄 밥 먹을 시간도 엇곡, 쉐를 어디레 강 낭 트멍에나 어드레 메영은에 출 줘뒁 오지 아이허믄 막 쉐 들러퀴어노난 일러도 불곡, 놈이 밧디 강 무신거 헤불곡, 쉐가 막 경 헤불믄 쉔 낭 그늘에 ᄃᆞᆯ아당 소낭 틈에 메어뒁 왕 밥 먹어사, 콩 갈 때는.(마구 소 조급해서 하다가 보면 밥 먹을 시간도 없고, 소를 어디로 가서 나무 틈이나 어디로 매어서 꼴 줘두고 오지 아니하면 마구 소 날뛰니까 잃어도 버리고, 남의 밭에 가서 무엇 해 버리고, 소가 마구 그렇게 해 버리면 소를 나무 그늘에 데려다가 소나무 틈에 매어둬서 와서 밥 먹어야, 콩 갈 때는.)

103033 @ 콩밧디 검질은 멧 번 멤수가?(콩밭에 김은 몇 번 매고 있습니까?)

103033 #2 콩밧디 두 번벳기 아이 메어.(콩밭에는 두 번밖에 아니 매어.)

103033 #1 두 번, 초불, 초불 메놩 벌레기 들르멍 두불 메믄 뽀족뽀족 콩이 날 거 아이우꽈? 이제 묵은 검질이 셔, 그딘. 보리 그루에라든지 다 메지 못헌 풀들이. 지금 ᄀᆞ뜨믄 제초제 헤불엉, 거의 죽주마는 옛날은 사름 손으로 메지 아이허믄 검질이 살아날 거 아니우꽈? 그냥, 게믄 그거 이제 초불 벌레기 들러놩 나중에 이제 두불, 어떤 딘 저 일손 어스믄양, 초불만 메영 내분 밧도 싯곡게.(두 번, 애벌, 애벌 매어놔서 '벌레기' 들르면서 두벌 매면 뽀족뽀족 콩이 날 거 아닙니까? 이제 묵은 김이 있어, 거긴. 보리 갈았던 곳이라든지 다 매지 못한 풀들이. 지금 같으면 제초제 해버려서, 거의 죽지만 옛날은 사람 손으로 매지 아니하면 김이 살아날 거 아닙니까? 그냥, 그러면 그거 이제 애

벌 '벌레기' 들러놔서 나중에 이제 두벌, 어떤 데는 저 일손 없으면요, 애벌만 매어서 내버린 밭도 있고요.)

103033 #2 콩이난.(콩이니까.)

103033 #1 겐디 콩이라도 두불 안 메믄 이것이 나중엔양, 콩 비어나믄 검질로 ᄉᆞ뭇 다시 꽉 창.(그런데 콩이라도 두벌 안 매면 이것이 나중에는요, 콩 베면 김으로 사뭇 다시 꽉 차서.)

103033 #2 그 검질 쉐도 강 메엉 틑어 먹곡, 물 조름에 허영 틑어 먹곡 헤도.(그 김소도 가서 매어서 뜯어 먹고, 말 뒤에 해서 뜯어 먹고 해도.)

103033 #1 ᄋᆞ름에 버쳥 일허다보믄, 콩 검질은 보통 덥곡 막.(여름에 부쳐서 일하다보면, 콩 김은 보통 덥고 아주.)

103033 #2 덥곡 못 메엉 내불어.(덥고 못 매어서 내버려.)

103033 #1 뭐 헤노믄 초불만 메는 디도 싯고, 보통.(뭐 해놓으면 애벌만 매는 데도 있고, 보통.)

103033 #2 ᄒᆞ끔 뭐 헌 사름덜은 두불 메곡 허여. 기추룩 허영, 기자 두불 메영 내불어. 예, 복쿨 ᄀᆞ뜬 거영.(조금 뭐 한 사람들은 두벌 매고 해. 그처럼 해서 그저 두벌 매어서 내버려. 예, 깨풀 같은 거랑.)

103033 #1 다른 검질 담지 아니허영 콩 허곡 다른 검질은 쉽게 알아지난양, 콩 검질은 쉬와.(다른 김 같지 아니해서 콩 하고 다른 김은 쉽게 알 수 있으니까요, 콩 김은 쉬워.)

103034 @ 게난 콩밧디 검질덜 어떤 종류가 싯수가?(그러니까 콩밭에 김들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103034 #2 복쿨 ᄀᆞ뜬 거 무신거.(깨풀 같은 거 무엇.)

103034 #1 제완지허고.(바랭이하고.)

103034 #2 제완지허고, 복쿨허고.(바랭이하고, 깨풀하고.)

1030349 #1 또 이 저 무신거 쒜비늠.(또 이 저 뭐 쇠비름.)

1030349 #2 쒜비늠도.(쇠비름도.)

103034 #1 이디선 저 춤비늠도 나주마는, 쒜비늠 주로 나메.(여기서는 저 참비름도 나지만, 쇠비름 주로 나지.)

103034 #2 복쿨 하영 나, 복쿨 콩밧디.(깨풀 많이 나, 깨풀 콩밭에.)

103034 #1 복쿨이영, 또 이 저 제완지. 어떤 딘 씨 진 밧디 헤노믄 제완지로 꽉 차노믄양, 검질 흔 고지 메 가기가 힘들어마씨. ᄋᆞ름에 콩 검질 메당 보믄 시간 다 강.(깨풀이랑, 또 이 저 바랭이. 어떤 데는 씨 진 밭에 해 놓으면 바랭이로 꽉 차 놓으면요, 김 한 이랑 매기가 힘들어요. 여름에 콩 김매다가 보면 시간 다 가서.)

103034 #2 조컴질, 콩은 게도.(조 김, 콩은 그래도.)

103034 #1 콩은 쉬운디 조컴질은 이게 잘 앚지 아니허믄 조 민짝 그냥 뭐 헤불고, 조컴질은 소끄곡 멩심헹 앚아사 허는 따문에.(콩은 쉬운데 조 김은 이제 잘 앉지 아니하면 조 모두 그냥 뭐 해버리고, 조 김은 솎고 명심해서 앉아야 하는 때문에.)

103034 #2 겐디 콩 검질은 쉽주기.(그런데 콩 김은 쉽지요.)

103034 #1 콩 검질은 영 눈 감앙이라도 박박 메믄 쉬운디.(콩 김은 이렇게 눈 감아서라도 박박 매면 쉬운데.)

103034 #2 트멍에 강 묻곡, 콩 검질은 두불 멜 땐 사노롱허영, 사노롱허영.(틈에 가서 묻고, 콩 김은 두벌 맬 때는 시원해서, 시원해서.)

103034 #1 조컴질은 멩심허영 허지 아이허믄 조 다 불라져부러. (조 김은 명심해서 하지 아니하면 조 다 밟아져 버려.)

103034 #2 게난 콩 검질은 두불 멜 땐 ᄒᆞ끔 발이라도 사노롱허영, 사노롱허영, 조컴질 담지 아니허영, 덜 더와.(그러니까 콩 김은 두벌 맬 때는 조금 발이라도 시원해서, 시원해서, 조 김 닮지 아니해서, 덜 더워.)

103034 #1 조컴질이사 오죽 더운 때 헤노믄 아래 와삭와삭 발창 뜨거왕 못 메어, 콩 검질은 게도 영 그늘지난 발이 ᄃᆞ뜻 덜 허는디 조컴질은 어디 그늘 엇고, 잘 못허믄 문 불려젼 허믄.(조 김이야 오죽 더운 때 해놓으면 아래 와삭와삭 발창 뜨거워서 못 매어, 콩 김은 그래도 이렇게 그늘지니까 발이 따뜻 덜 뜨거운데 조 김은 어디 그늘 없고, 잘 못하면 모두 밟아져서 하면.)

103034 #2 대비가 시카? 대비 어시 맨발에 고무신 신엉 허곡.(양말이 있나? 양말 없이 맨발에 고무신 신어서 하고.)

103034 #1 페렝이도 졸바로 씰 거 엇곡 허믄, 문 양지 카곡.(패랭이도 바르게 쓸 거 없고 하면, 모두 얼굴 타고.)

103034 #2 양지 카곡, 이제 콩검질은 조컴질 넘엉 허난 ᄒᆞ끔 날씨가 덜 허여, ᄒᆞ끔 더움 덜 허여.(얼굴 타고, 이제 콩 김은 조 김 넘어서 하니까 조금 날씨가 덜 해, 조금 더움 덜 해.)

103034 #1 아멩헤도 콩 검질 허믄, 조컴질 멜탸? 콩검질 멜탸? 허믄 콩 검질 매레가.(아무래도 콩 김 하면, 조 김 매겠어? 콩 김 매겠어? 하면 콩 김 매러 가.)

103034 #2 대빌 신엉 대비라도 영 신어시믄 헐 거주마는 대비 엇곡.(양말 신어서 양말이라도 이렇게 신었으면 할 거지만 양말 없고.)

103034 #1 멩심허영 덜 헤도 뒈는 디 덜 불라지고, 조는 요거 꼬딱 잘못 눌러앚앗당 양, 문짝 불라져부렁, 꺼꺼져부렁.(명심해서 덜 해도 되는 데 덜 밟아지고, 조는 요거 까딱 잘못 눌러앉았다가, 모두 밟아져 버려서, 꺾어져 버려서.)

103034 #2 막 덥고, 발에 대비라도 신어시믄 대비도 엇고, 발 뜨겁곡.(아주 덥고, 발에 양말이라도 신었으면 양말도 없고, 발 뜨겁고.)

103034 #1 발 뜨거왕 양, 와삭와삭허게.(발 뜨거워서 요, 와삭와삭하게.)

103034 #2 콩 검질은 게도 ᄒᆞ끔 수월허여. 메기가 ᄒᆞ끔 쉽곡, 대비 아이 신어도 이런 대비 안 신어도, 그자 고무신만 신어도 콩 검질은 메기 쉬와.(콩 김은 그래도 조금 수월해. 매기가 조금 쉽고, 양말 아니 신어도 이런 양말 안 신어도, 그저 고무신만 신어도 콩 김은 매기 쉬워.)

103035 @ 그다음에 콩 수확은 어떵 헙니까? (그다음에 콩 수확은 어떻게 합니까?)

103035 #1 꺼껑.(꺾어서.)

103035 @ 꺼끈덴 헙니깡? 빈뎅 헙니깡?(꺾는다고 합니까? 베다고 합니까?)

103035 #1 꺼꺼.(꺾어.)

103035 #2 콩 꺼끄레 가게, 누게네 밧디 콩 꺼끌 거, 그추룩 허여.(콩 꺾으러 가게, 누구네 밭에 콩 꺾을 거, 그처럼 해.)

103035 #1 꺼껑 이디서 헤노믄 거 놔뒷당, 여기선 전인 다 도께로 두드렷주기.(꺾어서 여기서 해놓으면 그거 놔뒀다가, 여기선 전에는 다 도리깨로 두들겼지요.)

103035 #2 도께로 두드련.(도리깨로 두드려서.)

103035 #1 뭐 저 멍석 페왕.(뭐 저 멍석 펴서.)

103035 #2 도께로 두드령.(도리깨로 두드려서.)

103035 #1 나중에 콩 맥타긴 이제사 낫고.(나중에 콩 탈곡기는 이제야 났고.)

103035 #2 아이고, 그때 우린 다 도께로 두드려서. 도께로 두드렷수다게.(아이고 그때 우리는 다 도리깨로 두들겼어. 도리깨로 두들겼습니다.)

103035 #1 돌아가멍.(돌아가면서.)

103035 #2 멍석 페와놩은에.(멍석 펴놔서.)

103035 #1 수눌엉 이제 도께로 두드리고.(품앗이해서 이제 도리깨로 두들기고.)

103035 #2 도께가 매 집이 어서부난 그디 헤나믄 빌어오곡, 저디 헤나믄 빌어오고, 빌어오곡 헤난.(도리깨가 모든 집에 없으니까 거기 했으면 빌려오고, 저기 했으면 빌려오고, 빌려오고 했어.)

103035 #1 우리 나중에 저 ᄉᆞ뭇 도께 어선 뭐 허다가 이 도께도 그거 옛날 도께엔 허믄 잘 메지 못헙주게. 족게 메는 거옌 허영, 도께어시 헤도 목장에 고지 못 뎅여노믄, 그거 윤노리로 헹 잘 뚜껍게 허지 아이허믄 못 헤마씨. 게난 도께가 어려우난, 나중엔 첨 나도 거 용접 소 난 후제 빠이쁘로 헹 그거 멩글안 이제도 싯수다. 쒜 도께렌 허영, ᄉᆞ뭇 것도 신나낫주. 동네 이디도 빌어가곡, 저디도.(우리 나중에 저 사뭇 도리깨 없어서 뭐 하다가 이 도리깨도 그거 옛날 도리깨라고 하면 잘 매지 못하지요. 작게 매는 거라고 해서, 도리깻장부 해도 목장에 숲 못 다녀놓으면, 그거 윤노리나무로 잘 두껍게 하지 아니하면 못 해요. 그러니까 도리깨가 어려우니까, 나중에는 참 나도 그거 용접 소 난 후에 파이프로 해서 만들어서 이제도 있습니다. 쇠 도리깨라고 해서, 사뭇 그것도 신났었지. 동네 여기도 빌어가고, 저기도.)

103035 #2 콩 두들레, 콩 두들레.(콩 두들기러, 콩 두들기러.)

103035 #1 콩 두들레 강.(콩 두들기러 가서.)

103035 #2 게난 콩은 혼 이틀만 허믄 쉬와, 조 담지 아니허영 쉬운디, 콩 불릴 때가 ᄒᆞ끔 궂주기. 막 씬 ᄇᆞ름 아니믄 불리지 못 허여. ᄇᆞ름이 이추룩 허믄 못 불려.(그러니까 콩은 한 이틀만 하면 쉬워, 조 같지 아니해서 쉬운데, 콩 불릴 때가 조금 궂지요. 아주 센 바람 아니면 불리지 못해. 바람이 이처럼 하면 못 불려.)

103035 #1 게난 콩 불릴 ᄇᆞ름이여. 콩 불릴 ᄇᆞ름이여.(그러니까 콩 불릴 바람이여. 콩 불릴 바람이여.)

103035 #2 막 씬 ᄇᆞ름이여, 저 동산에 강 불령오곡덜.(아주 센 바람이여, 저 동산에 가서 불려서 오고.)

103035 #1 콩 불렴직허다허믄 ᄇᆞ름이 씨야허고, 조 불렴직허다 허믄 솔솔솔 불리곡.(콩 불릴 것 같다 하면 바람이 세야 하고, 조 불릴 것 같다 하면 솔솔솔 불고.)

103035 #2 게난 콩만 불리믄 ᄇᆞ름만 불믄, 콩은 다른 것보단 쉬와, 쉬웁니다게. 조 담지 아니허영 쉽곡, 보리도 담지 아니허영 쉽곡, 콩은 질 쉬와. 도께로 두드령, 두드령 장만허믄 불령 것도 얼멩이로 쳐사, 청.(그러니까 콩만 불리면 바람만 불면, 콩은 다른 것보다는 쉬워, 쉬웁니다. 조 같지 아니해서 쉽고, 보리도 같지 아니해서 쉽고, 콩은 제일 쉬워. 도리깨로 두드려서, 두드려서 장만하면 불려서 것도 어레미로 쳐야, 쳐서.)

103035 #1 어느 밧디 멧 섬 낫저, 멧 섬 낫저 허믄.(어느 밭에 몇 섬 났다. 몇 섬 났다 하면.)

103035 #2 멧 말 낫저, 수확도 하영 아니, 콩은 하영 안 납네다. 수확. 예, 다른 거 담지 아니허영.(몇 말 났다, 수학도 많이 아니, 콩은 많이 안 납니다, 수확. 예 다른 거 같지 아니해서.)

103035 #1 경 이디선양, 하영 대대적으로 콩은 아니헤마씨. 집이서 먹을 거 허고 그자 주로 장콩 담아 먹고.(그렇게 여기서는요, 많이 대대적으로 콩은 아니해요. 집에서 먹을 거 하고 그저 주로 장콩 담아 먹고.)

103035 #1 저 하가리 웃드리렌 막 콩덜 농사 하영 허영.(저 '하가리' '웃드리'로는 아주 콩들 농사 많이 해서.)

103035 #2 막 업으로 허는디 이디는 보통 그자 장콩 담아 먹곡 집이서 콩죽 쒀 먹곡, 저 잔치 때 허믄 둠비헹은에 그런 정도벳기는, 별로 이제 먹질 아니헙주게. 밧 토지도 경 어서낫수다. 이렌 널르지 아니허영. 밧도 널르지 아니허영, 흔 어시 경 허난, 그자 허는 건 사당 무신거허고.(마구 업으로 하는데 여기는 보통 그저 장콩 담가 먹고, 집에서 콩죽 쒀 먹고, 저 잔치 때 하면 두부해서 그런 정도밖에는, 별로 이제 먹지를 아니합니다. 밭 토지도 그렇게 없었습니다. 이리 넓지 아니해서, 한 없이 그렇게 하니까, 그저 하는 건 사다가 무엇하고.)

103036 @ 콩으로 헹 뭘 허여마씨?(콩으로 해서 뭘 해요?)

103036 #1 콩으로 이디서 주로 뭐 허는 건, 골아당 콩죽 쒀 먹곡, 메주 쑤곡 장 허젠 허믄 메주를 하영 쒀, 집집마다 메주 쒓수게게.(콩으로 여기서 주로 뭐 하는 건, 갈아다가 콩죽 쒀 먹고, 메주 쑤고 장 하려고 하면 메주를 많이 쒀, 집집마다 메주 쒔습니다.)

103036 #1 거 잔치 때는 걸로 둠비허영.(그거 잔치 때는 걸로 두부해서.)

103036 #2 ᄀᆞ레에, 돌ᄀᆞ레에 골앙은에 둠비 허여. 둠비허곡 잔치 때에.(맷돌에, 연자방아에 갈아서 두부 해. 두부하고 잔치 때에.)

103036 #1 이디 옛날 콩은 이제 콩 담지 아니허영 구시허여마씨. 맛 좋아, 겡 것도 콩. 둠비도 이제 지금은 소곰이여 뭐여 허는디 옛날은 바당물 근 허지 아니헷수가? 그거 헤당 바당물 질어당 그거 맞추멍 둠비 허여.(여기 옛날 콩은 이제 콩 같지 아니해서

구수해요. 맛 좋아, 그래서 그것도 콩. 두부도 이제 지금은 소금이여 뭐여 하는데 옛날은 바닷물로 간 하지 아니했습니까? 그거 해다 바닷물 길어다가 그거 맞추면서 두부 해.)

103036 #2 둠비 허젠 허믄 거 헤사, 바당물 질어 와사.(두부 하려고 하면 거 해야, 바닷물 길어 와야.)

103036 #1 거 허믄 근이 맞으난 더 저 소금 안 놔도.(거 하면 간이 맞으니까 더 저 소금 안 넣어도.)

103036 #2 이젠 바당물.(이제는 바닷물.)

103036 #1 요즘은 오염 뒈부난 먹지 못허주마는, 허허.(요즘은 오염 돼 버리니까 먹지 못하지만, 허허.)

103036 #2 게난 바당물 질레 강 둠비 허젠 허믄 ᄌᆞ꼿디 사름덜 허벅 ᄀᆞ졍 강, 멧 댓 허벅, 댓 사름 강 져다주고.(그러니까 바닷물 길러 가서 두부 하려고 하면 가까운데 사람들 허벅 가져서 가서, 몇 다섯 '허벅', 다섯 사람 가서 져다 주고.)

103036 #1 저 잔치헴저 허믄 물 부주엔 허영 바당에 강 물 질엉 ᄒᆞᆫ 허벅 져다줘.(저 잔치하고 있다 하면 물 부조라고 해서 바다에 가서 물 길어서 한 허벅 져다 줘.)

103036 #2 게난 안네선 막 물 노멍 ᄀᆞ레 ᄀᆞᆯ멍 그 둠비허젠 물, ᄀᆞ레가 ᄀᆞ레 그걸로 ᄀᆞᆯ아놩 둠비허젠 허믄 ᄒᆞ를에 뒙네깡? 멧날 메칠 헤사, 물 질어오는 사름, ᄀᆞ는 사름, 이제 큰 솟 걸엉 거 쑤어사, 첨 솜아사 죽 쑤고. 게난 ᄒᆞ를에 잔치허젠 ᄒᆞ를에 준비를 못헤마씨. 이추룩 ᄒᆞᆫ 사흘 걸려사. 경 헨 읖이 사름덜 물 질어다 주곡, 거 ᄀᆞᆯ아주곡, 솟 디놩 츤물에 맞추앙은에 죽 쒕은에.(그러니까 안에서는 마구 물 넣으면서 맷돌 갈면서 그 두부하려고 물, 맷돌이 맷돌 그걸로 갈아놔서 두부하려고 하면 하루에 됩니까? 몇날 며칠 해야, 물 길어오는 사람, 가는 사람, 이제 큰 솥 걸어서 거 쒀야. 참 불을 때어야 죽 쑤고. 그러니까 하루에 잔치하려고 하루에 준비를 못 해요. 이처럼 사흘 걸려야. 그렇게 해서 옆에 사람들 물 길어다 주고, 그거 갈아주고, 솥에 놔서 짠물에 맞춰서 죽 쒀서.)

103036 #1 옛날은 콩죽 주로 헤 먹은디 우린 식구덜 하고, 또 먹을 건 별로 엇고 헤노난 이제, 흐린조보단 모힌조 서끄곡 헹 콩죽을 하영 쒄 먹엇수다, 옛날. 거 헤노믄 그냥 콩죽도 뭐 허주마는 ᄂᆞ멀 헤다 놓곡 겨울에 드릇ᄂᆞ물 헤당은에 똑 그거 쉐죽 쑤듯이 헹은에 허믄 식구는, 우리도 저추룩 식구 한, 뭐 허난 거 각각 이제 지금 담지 아니허영, 옛날은 그 낭푼이옌 허영, 낭푼이가 어서낫주기, 저 박세기로 팡, 아버지가 낭박세기를 잘 파서.(옛날은 콩죽 주로 해 먹었는데 우린 식구들 많고, 또 먹을 거는 별로 없고 해서 이제, 차조보다는 메조 섞고 해서 콩죽을 많이 쒀서 먹었습니다, 옛날. 그거 해놓으면 그냥 콩죽도 뭐 하지만 나물 해다 넣고 겨울에 들나물 해다 똑 그거 소죽 쑤듯이 해서 하면 식구는, 우리도 저와 같이 식구 많아서, 뭐 하니까 그거 각각 지금 같지 아니해서, 옛날은 양푼이라고 해서, 양푼이가 없었지요, 저 바가지로 파서, 아버지가 나무바가지를 잘 파서.)

103036 #2 낭박세기, 낭박세기 알아집니까? (나무바가지, 나무바가지 알 수 있습니

까?)

103036 @ 예.(예.)

103036 #1 ᄀᆞᆨ쒜로 허영 영.(호비칼로 해서 이렇게.)

103036 #2 우리 아바진 그런 걸 파.(우리 아버지는 그런 거를 파.)

103036 #1 팡 집이서 허믄 집이 식구덜이 이 어멍, 아방 꺼영 빈주륵허게 박세기 엎엉 놔뒀당 콩죽 쑤믄 이제 거 남제로 거리멍 헹은에.(파서 집에서 하면 집에 식구들이 이 어머니, 아버지 거랑 여러 개 바가지 엎어서 놔뒀다가 콩죽 쑤면 이제 거 남자로 뜨면서 해서.)

103036 #2 막 콩죽은 일등, 좋은 음식으로.(아주 콩죽은 일등, 좋은 음식으로.)

103036 #1 게난 콩죽 하도 먹어노난, 이젠 잘 안 먹어. 어릴 때 콩죽만 먹언 커노난. 게난 이제 보난 영양 까친 좋은 거라.(그러니까 콩죽 하도 많이 먹으니까, 이제는 잘 안 먹어. 어릴 때 콩죽만 먹어서 크니까.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영양 가치는 좋은 거야.)

103036 #2 이젠 주젠 허믄 생전 안 먹어마씨. 무사 안 먹엄수겐 허난 옛날 하도, 우리 씨아주바님도 경 아이 먹어. 콩죽을 경 먹어, 콩죽을 하도 옛날 먹어나난.(이제는 주려고 하면 절대 안 먹어요. 왜 안 먹고 있느냐고 하니까 옛날 하도, 우리 시아주버니도 그렇게 아니 먹어. 콩죽을 그렇게 먹어, 콩죽을 하도 옛날 먹으니까.)

103036 #1 주로 뭐 콩은.(주로 뭐 콩은.)

103036 #2 둠비허고.(두부하고.)

103036 #1 둠비허고, 장콩.(두부하고, 장콩.)

103036 #2 장콩을 하영 헤십주기. 장 집집마다 옛날은 장, 장 허난.(장콩을 많이 했습니다. 장 집집마다 옛날은 장, 장 하니까.)

103036 #1 게고 저 이 미릇 숨앗당 보리쏠허곡 좁쏠허곡 헹은에 콩, 콩밥허영 경 헹 이제 콩밥도 잘 숨아놩 헤노믄 맛 좋아마씨. 콩밥도 허영 먹곡.(그리고 저 이 미리 불을 때었다가 보리쌀하고 좁쌀하고 해서 콩, 콩밥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콩밥도 잘 불을 때어놔서 하면 맛 좋아요. 콩밥도 해서 먹고.)

103036 #2 게난게, 보리낭 불 허영 허젠 허믄 게 보리쏠은 설곡, 콩은 설곡, 좁쏠도 어떤 때엔 설곡 허멍.(그러니까요, 보릿짚 불 해서 하려고 하면 그렇게 보리쌀은 설고, 콩은 설고, 좁쌀도 어떤 때에는 설고 하면서.)

103036 @ 콩ᄂᆞ물, 콩ᄂᆞ물 허영 식게 허지 안 헷수가?(콩나물, 콩나물 해서 제사 하지 안 했습니까?)

103036 #2 콩ᄂᆞ물도 허연 식게 헷수다. 콩ᄂᆞ물도 허고, 콩 하영 안 허난, 이 동네.(콩나물도 해서 제사했습니다. 콩나물도 하고, 콩 많이 안 하니까, 이 동네.)

103036 @ 거 저 온돌방에 콩 놩은에.(그거 저 온돌방에 콩 놔서.)

103036 #2 예, 콩 놩, 잘못허믄 썩어불곡.(예, 콩 놔서, 잘못하면 썩어버리고.)

103036 #1 시리에 놩.(시루에 넣어서.)

103036 #2 아니 저, 거세기 고소리.(아니 저, 거세기 소줏고리.)

103036 #1 게 고소리가, 첨 고소리 헌 것에 콩 키워나시난, 콩ᄂᆞ물.(그렇게 소줏고리

가, 참 소줏고리 헌 것에 콩 키웠었으니까, 콩나물.)

103036 #2 시리에 놩, 고소리 헹.(시루에 넣어서, 소줏고리 해서.)

103036 #1 게도 그때도 콩도 콩ᄂᆞ물도 어려우난 식게집이, 멩질칩이 가지 아니허믄 그것도 먹기 어려와낫수다, 게 콩ᄂᆞ물 먹으레 가, 식게 먹으레 가겐, 그디 가믄 콩나물 줜. 호박 보끈 거 허고, 경 먹어나고 이 저.(그래도 그때도 콩도 콩나물도 어려우니까 제삿집에, 명절집에 가지 아니하면 그것도 먹기 어려웠었습니다. 게 콩나물 먹으러 가, 제사 먹으러 가겠다고, 거기 가면 콩나물 줬어. 호박 볶은 거 하고, 그렇게 먹었었고 이저.)

103036 #2 아이고 게메, 옛날도 그추룩 허멍.(아이고 글쎄, 옛날도 그처럼 하면서.)

103036 #1 콩을 주로 이디선 하영 갈질 아이헤난, 콩덜은. 그추룩 헹 먹는 걸로 보통 콩 소개가 뒛고.(콩을 주로 여기서는 많이 갈지를 아니하니까, 콩들은. 그처럼 해서 먹는 걸로 보통 콩 소개가 되었고.)

103036 @ 콩국도 허영.(콩국도 해서.)

103036 #1 예, 콩국도 거 ᄂᆞ멀에 헹 잘 허믄 우리 집사름 콩국은 잘 끓여, 맛 좋게.(예, 콩국도 거 나물에 해서 잘 하면 우리 집사람 콩국은 잘 끓여, 맛 좋게.)

103036 #2 게난 ᄂᆞ멀 셔? 엿날 드릇ᄂᆞ물 헤놔놩, 씨우릉헌 ᄂᆞ물 셔낫수다. 그 ᄂᆞ멀 헹, 옛날은게 질레 ᄂᆞ멀 헤와도 곱닥헹그네 어떵 안 헤신디, 질레 ᄂᆞ멀.(그러니까 나물 있어? 옛날 들나물 해놔서, 씁쓰레한 나물 있었습니다. 그 나물해서, 옛날은요 길에 나물 해와도 고와서 어떻게 안 했는데, 길에 나물.)

103036 #1 거고 이 조크루에는 보리 안 간 밧, 저 번헌 것들이 합주게. 웃드리에 가믄, 조크루, 내불믄 드릇ᄂᆞ멀이 나마씨. 게믄 그거 이제, 그거 캐당 갓당 멕 졍 왕 헷당은에 그거 헹 쉐도 쒕 주곡, 사름도 이제 걸로 국 끌령 먹고. 콩죽 쑬 때도 썰어노믄, 콩 뭐 헤도 씨우릉헌 게 먹어보믄 맛 좋아, 하하.(웃음) 콩죽 쑬 때도 거 썰어 놓곡.(그리고 이 조 갈았던 곳에는 보리 안 간 밭, 애벌갈이를 한 것들이 많지요. '웃드리'에 가면, 조 갈았던 곳, 내버리면 들나물이 나지요. 그러면 그거 이제, 그거 캐다가 갔다가 멱서리 져서 와서 했다가 그거 해서 소도 쒀서 주고, 사람도 이제 걸로 국 끓여서 먹고. 콩죽 쑬 때도 썰어놓으면, 콩 뭐 해도 씁쓰레한 게 먹어보면 맛 좋아, 하하.(웃음) 콩죽 쑬 때도 그거 썰어 넣고.)

103036 @ 콩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잇수가?(콩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103036 #1 콩은 청대콩 싯고, 그냥 ᄃᆞᆨ새기콩[88]이옌 허영, 이게 훌경양, ᄃᆞᆨ새기콩은 종류가 이젠 뭐옌 허는지 몰라도, 동글락동글락헌 게 거허고, 청대콩은. 아, ᄃᆞᆨ새기콩은 이렇게 노랑허곡 술지고, 청대콩이옌 헌 건 퍼렁허곡 좀진게.(콩은 청대콩도 있고, 그냥 'ᄃᆞᆨ새기콩'이라고 해서, 이게 굵어서요, 'ᄃᆞᆨ새기콩'은 종류가 이젠 뭐라고 하는지 몰라도, 둥글둥글한 게 그거하고, 청대콩은. 아, 'ᄃᆞᆨ새기콩'은 이렇게 노랑하고 살찌고, 청대콩이라고 한 건 파랑하고 잘아.)

103036 #2 막 좀질지도 아니 허여.(아주 잘지도 아니하고.)

88) 'ᄃᆞᆨ새기콩'은 콩 종류의 하나이며, 달걀처럼 생긴 콩이다.

103036 #1 또 걸름콩, 걸름콩 허는 건 즘질곡, 또 노랑 허여.(또 거름용 콩, 거름용 콩 하는 건 잘고, 또 노랑 해.)

103036 #2 걸름콩은 막 즘질고.(거름용 콩은 아주 잘고.)

103036 #1 나가 알기론 시 종류가 잇는디.(내가 알기로는 세 종류가 있는데.)

103036 @ 요즘 나오는 거 콩지름콩인가?(요즘 나오는 거 콩나무콩인가?)

103036 #1 예, 주름콩은 전인 어서낫수다, 것이. 전이 어섯단 이제사 나온 거고, 주름콩 준준헌 게, 빨리 조생종으로 빨리 베곡 허는디, 옛날은 엇고 그 대신 그때 걸름콩, 나도 이제 저것이 걸름콩헐 때, 걸름콩 풀아줘, 어떤 디 가믄 걸름콩허믄 벌써 씨가 즘진 게, 노랑케양.(예, 주름콩은 전에는 없었습니다, 것이. 전에 없었다가 이제야 나온 거고, 주름콩 잘잘한 게, 빨리 조생종으로 빨리 베고 하는데, 옛날은 없고 그 대신 그때 거름용 콩, 나도 이제 저것이 거름용 콩 할 때, 거름용 콩 팔아줘, 어떤 데 가면 거름용 콩하면 벌써 씨가 잘잘한 게, 노랑 하게.)

103036 @ 걸름콩은 뭐에 써마씨?(거름용 콩은 뭐에 써요?)

103036 #1 걸름 허는디, 게난 일찍 갈앗당.(거름 하는데, 그러니까 일찍 갈았다가.)

103036 @ 아, 걸름. 오깨기[89]ᄀᆞ찌.(아, 거름. '오깨기'같이.)

103036 #1 아, 재게, 오깨기 전이 갈앗당 이거 저 퍼렁케 허영 비영 놔뒁당, 그것을 우테레 꼴앙 갑주게.(아, 빨리, '오깨기' 전에 갈았다가 이거 저 퍼렇게 해서 베어서 놔뒀다가, 그것을 위에 깔아서 갈지요.)

103036 @ 메주 멩그는 콩은?(메주 만드는 콩은?)

103036 #1 메주 멩그는 콩은 청대콩.(메주 만드는 콩은 청대콩.)

103036 @ 청대콩?(청대콩?)

103036 #2 청대콩 아니, 거 독새기콩도 이 저 허긴 헤난디, 이 동네렌 청대콩 헹.(청대콩 아니, 거 '독새기콩'도 이 저 하긴 했었는데, 이 동네는 청대콩 해서.)

103036 #1 콩은 주로 저 둠비 헐 때 먹고, 청대콩으로 이제 메주는 주로 허는 모양인디. 무신거 허멍 메주 솖을 때 옛날.(콩은 주로 저 두부 할 때 먹고, 청대콩으로 이제 메주는 주로 하는 모양인데. 무엇 하면서 메주 삶을 때 옛날.)

103036 #2 청대콩으로, 우린 청대콩, 노랑헌 콩 솜아나서. 우린 독새기콩으로.(청대콩으로, 우리는 청대콩, 노란 콩 불을 때었어. 우리는 '독새기콩'으로.)

103036 #1 게믄 독새기콩.(그러면 '독새기콩'.)

103036 #2 가마솟, 가마솟이 셔서, 그땐. 게난 아까시낭 헤당은에, 지들커 어시난, 그거.(가마솥, 가마솥이 있어서, 그땐, 그러니까 아카시아나무 해다가, 땔감 없으니까, 그거.)

103036 @ 아까시낭 어디 강 허여당?(아카시아나무 어디 가서 해다가?)

103036 #2 엿날은 저 수산봉에 셔낫수다. 오름에 강, 아까시낭 비어당.(옛날은 저 '수산봉'에 있었습니다. 오름에 가서, 아카시아나무 베어다가.)

103036 #1 옛날은 저 수산봉에도 낭이 어선, 그냥 아까시낭 그 옛날 일제시대에 막

89) '오깨기'는 거름용 풀이다.

거 전부 오름 싱거낫젠 헙디다, 들어보니깐. 지금도 그거에 아까시낭이 이서마씨. 거 뿔리 파당 불 솜앙 뭐 허고, 또 숫도 구고 경헨.(옛날은 저 '수산봉'에도 나무가 없어서, 그냥 아카시아나무 그 옛날 일제시대에 마구 거 전부 오름 심었었다고 합디다, 들어보니까. 지금도 그곳에 아카시아나무 있어요. 그거 뿌리 파다가 불 때어서 뭐 하고 또 숯도 굽고 그렇게 했어.)

103036 #2 콩 헐 땐 그런 거 헤당 허지 아니허여. 보리낭은 감당 못 헤, 보리낭불은 허젠 허믄.(콩 할 때는 그런 그거 해다 하지 아니해. 보릿짚은 감당 못 해, 보릿짚 불은 하려고 하면.)

103036 #1 보리낭불 허당 보믄 문 어느 사이에 다 카불곡.(보릿짚불 하다가 보면 모두 어느 사이에 다 타버리고.)

103036 #2 보리낭불은 궤지도 아니 허영. 경허난에 그 낭뿔리 헤당은에 솜아사. 게멍 헤낫수다.(보리짚 불은 끊지 아니 해. 그러니까 그 나무뿌리 해다 불을 때어야. 그러면서 했었습니다.)

103037 @ 콩찝이 저 콩ᄁᆡ질아니우꽈양?(콩짚이 저 콩깍지 아닙니까?)

103037 #1 콩ᄁᆡ질.(콩깍지.)

103037 @ 예, 콩ᄁᆡ질. 거 어떵 활용헙니까?(예, 콩깍지. 그거 어떻게 활용합니까?)

103037 #1 콩ᄁᆡ질은 주로 쉐 멕이고.(콩깍지는 주로 소 먹이고.)

103037 #2 막 영양, 영양 보충으로.(아주 영양, 영양 보충으로.)

103037 #1 쉐 멕이곡.(소 먹이고.)

103037 #2 쉐 멕이고.(소 먹이고.)

103037 #1 불도 좀 솜고 허는디, 이디선 콩ᄁᆡ질는 불 안 솜아마씨.(불도 좀 때고 하는데, 여기서는 콩깍지는 불 안 때요.)

103037 #2 막 쉐만 멕여, 막 가냥 잘 허영.(마구 소만 먹여, 아주 보관 잘 해서.)

103037 #1 콩ᄁᆡ질은 텃젠 허믄 잘 안멕이난, 몰리왓당, 잘 몰리왓당 딱 놔뒷당 ᄒᆞ끔썩 콩ᄁᆡ질은 빠줘.(콩깍지는 텄다고 하면 잘 안 먹이니까, 말렸다가, 잘 말렸다 딱 놔뒀다가 조금씩 콩깍지는 빼줘.)

103037 #2 멕에, 멕에 담아당 주믄, 멕 채 줭 놔두믄 굽ᄁᆡ지 문딱 먹엉, 멕은 이제 거세기로 비와오곡 허멍.(멱서리에, 멱서리에 담아다가 주면, 멱서리 채 줘서 놔두면 밑까지 모두 먹어서, 멱서리는 이제 거시기로 비워오고 하면서.)

103037 @ 콩ᄁᆡ질 불 살랑은에 갈치 궈 먹기도 허지 안헷수가?(콩깍지는 불 살려서 갈치 구워 먹기도 하지 안 했습니까?)

103037 #1 예, 건 콩ᄁᆡ질은 ᄆᆞ청은에 그거 헹 허믄 갈치 아이.(예, 건 콩깍지는 마쳐서 그거 해서 하면 갈치 아니.)

103037 #2 게난 불 잘 아이 솜아마씨. 건 아껴근에.(그러니까 불 잘 아니 때요. 건 아껴서.)

103037 #1 아껑 허주. 콩ᄁᆡ질로 궈 노믄 갈치 아이, 고등에도 궝 먹고, 겨울에 저 새왓디 가믄 거 지들케 헤당 허믄 콩ᄁᆡ질 어디서 눌엉 놔둰 웃드리레. 거 꽁ᄁᆡ질 강 ᄒᆞ

꼼 빠 오라.(아껴서 하지. 콩깍지로 구워 놓으면 갈치 아니, 고등어도 구워서 먹고, 겨울에 저 띠밭에 가면 거 땔감 해다가 하면 콩깍지 어디서 쌓아서 놔둬 '웃드리'에. 거 콩깍지 가서 조금 빼 오라.)

103037 #2 놈이 콩깍질덜 문 들어가부런, 쉐 멕이젠.(남의 콩깍지들 모두 가져가버렸어, 소 먹이려고.)

103037 #1 빠당 쉐도 멕이곡 허는디.(빼다가 소도 먹이고 하는데.)

103037 #2 콩깍질 일러부럿젠 허는 소리덜 헤낫수다. 헤나서, 쉐 멕이젠.(콩깍지를 잃어버렸다고 하는 소리들 했었습니다. 했었어, 소 먹이려고.)

103037 #1 우리 새 허레 가믄, 아까 곧듯이 불살랑은에 고등에도 궝 먹곡 헷주기.(우리 띠 하러 가면, 아까 말하듯이 불 살려서 고등어도 구워 먹고 했지요.)

103038 @ 그다음에 콩 농사에 얽인 추억이나 경험 말헤봅서.(그다음에 콩 농사에 얽힌 추억이나 경험 말해보세요.)

103038 #1 별로 콩은 이제 흔번 눌언 놔두난, 그것이 아까 곧듯이 저 이 덜 허니까 이 콩 일러부러마씨. 밧디 잘 눌엉 놔두지 아이 허는디, 눌언 놔두난 막 콩이 흔 눌 눌언 놔두난 간, 콩 장만허레 간 보니까, 콩이 싹 줄어들어서. 거 뭐 어디사 가져갓는지 몰라도 이초록 허영 옛날은 밧디 잘 안 눕주게. 콩 일러분뎅 허영.(별로 콩은 이제 한번 쌓아서 놔두니까, 그것이 아까 말하듯이 저 이 덜 하니까 이 콩 잃어버려요. 밭에 잘 쌓아 놔두지 아니하는데, 쌓아 놔두니까 마구 콩이 한 가리 쌓아서 놔두니까 가서, 콩장만 하러 가서 보니까, 콩이 싹 줄어들었어. 그거 뭐 어디야 가져갔는지 몰라도 이처럼 해서 옛날은 밭에 잘 안 쌓지요. 콩 잃어버린다고 해서.)

103038 #2 우잣[90]디 ᄀᆞ져완, 우잣디 ᄀᆞ져와난.('우잣'에 가져와서, '우잣'데 가져왔었어.)

103038 #1 콩 흔 짐이믄 쏠도 흔 짐이옝 허여마씨. 콩은 그렇게 굽ᄁᆞ지 헤노믄 수확이 하영 나는디 어떤 딘 우잣디 갓단 놔두난 어디 사름덜은 밤에 콩 장만헨 놔두난, 아거 누게 도둑질허레 밤이 헨 놔두니까 젼 나오단양, 우리 친족넨디 거 바가젼 이제 이름 안 곧쿠다마는, 그런 면이 이선, 우리도 야 이거 콩 큰일 난다, 콩 일러부럿당.(콩 한 짐이면 쌀도 한 짐이라고 해요. 콩은 그렇게 밑에까지 해놓으면 수확이 많이 나는데 어떤 데는 '우잣'에 갔다가 놔두니까 어디 사람들은 밤에 콩장만 해서 놔두니까, 아 그거 누구 도둑질하러 밤에 해서 놔두니까 져서 나오다가요, 우리 친족인데 거 넘어져서 이제 이름 안 말하겠습니다만, 그런 면이 있어서, 우리도 야 이거 콩 큰일 난다, 콩 잃어버렸다가.)

103038 #2 게난 우리 그추룩헨, 아니 일러먹고 밧에 눌언 놔두난 더러 일러부러난.(그러니까 우리 그처럼 해서 아니 잃어버리고 밭에 쌓아서 놔두니까 더러 잃어버렸어.)

103038 #1 문 빠간.(모두 빼가서.)

103038 #2 그땐 콩 허믄 막, (그땐 콩 하면 마구.)

103038 #1 귀헤난.(귀했었어.)

90) '우잣'은 집안의 울타리의 안쪽이다.

103038 #2 다른 것보단 막 콩이 뭣 헤낫수다게.(다른 것보다는 아주 콩이 뭐 했었습니다.)

103038 #1 게난 요즘은 밧디 게도 저 비엇당 눌엉 놔두지 아이허여마씨. 콩 일러부러나난, 요사이는 즉시즉시 비멍 문, 준 거는 멕에 담아오고.(그러니까 요즘은 밭에 그래도 저 베었다가 쌓아서 놔두지 아니해요. 콩 잃어버렸었으니까, 요사이는 즉시즉시 베면서 모두, 잔 거는 멱서리에 담아오고.)

103038 #2 게난 콩 비멍 그자 문 못 비어도 더러 묵엉 짐으로 져와.(그러니까 콩 베면서 그저 모두 못 베어도 더러 묶어서 짐으로 져와.)

103038 #1 가져오곡.(가져오고.)

103038 #2 져와낫수다게. 니아까가 시카? 무싱것이 시카? 옛날은. 콩 혼 뭇이믄 혼 짐벡이 아니헹게.(져왔었습니다. 리어카가 있나? 무엇이 있나? 옛날은. 콩 한 뭇이면 한 짐밖에 아니해서요.)

103038 #1 묵으기 궂이난 멕, 멕에 담앙, 경 헹 낭이 즈른즈른헙주게. 게믄 요만씩 허여, 콩 꺼꺼놩 허믄 무끌 나우가 어서, 경 안 허믄 페들락허영.(묶기 궂으니까 멱서리, 멱서리에 담아서, 그렇게 해서 짚이 자잘하지요. 그러면 요만큼씩 해, 콩 꺾어놔서 하면 묶을 나위가 없어, 그렇게 안 하면 뒤틀려서.)

103038 #2 멕에도 담곡.(멱서리에도 담고.)

103038 #1 멕더레 담곡 허영 집이 가져와낫수게.(멱서리로 담고 해서 집에 가져왔었습니다.)

103038 #2 구덕에도 담곡 허멍, 경 허멍.(바구니에도 담고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103038 @ 쉐질메로 허영 오진 안 헷수가? 쉐질메로 허영으네.(소길마로 해서 오진 안 했습니까?)

103038 #2 쉐질메 우린 아니 헤 봣수다. 놈이 사름덜은 쉐질메 허믄.(소길마 우리는 아니 해 봤습니다. 남의 사람들은 소길마 하면.)

103038 #1 쉐도 헤영은에 거 콩은양.(소도 해서 거 콩은요.)

103038 #2 멕에 담아사.(멱서리에 담아야.)

103038 #1 잘 못허믄 거 무생이나 잘 헹 허믄 좋은 걸로 허곡게, 안 허믄 무생이 잘 못 허믄 게난 이 샐 비어오던지 나룩찝이라도 허영 가졍 강 콩 묵으젠 허믄 무생이 별도 헤여사. 경 헹 허믄 이제 우리도 무사 망머를[91] 헐 때 콩 무껀 쉐에 시꺼와나서, 저 웃드리 밧디 강.(잘 못하면 그거 매끼나 잘해서 하면 좋은 걸로 하고요, 안 하면 매끼 잘 못하면, 그러니까 이 띠를 베어오든지 볏짚이라도 해서 가져서 가서 묶으려고 하면 매끼 별도 해야. 그렇게 해서 하면 이제 우리도 왜 '망머를' 할 때 콩 묶어서 소에 실어 왔었어, 저 '웃드리' 밭에 가서.)

103038 #2 장전, 장전 즈꼿디 간, 장전 아래 간, 에이고, 경 정 그런 세월, 저런 세월도 저, 다.('장전', '장전' 옆에 가서, '장전' 아래에 가서, 아이고 그렇게 저렇게 그런 세월, 저런 세월도 저, 다.)

91) '망머를'은 제주시 애월읍 장전리에 위치한 지경 이름이다.

103038 #1 게난 이제 말 곧단 보난 다 추억이 나왐서.(그러니까 이제 말 하다가 보니까 다 추억이 나오고 있어.)

103038 #2 옛날 헤난 거 하나썩 하나썩 생각이 나.(옛날 했던 거 하나씩 하나씩 생각이 나.)

103038 @ 게난 그것들 곱서게.(그러니까 그것들 말하십시오.)

103038 #2 하나썩 생각허멍, 생각나는 거 골아. 게난 콩 작물 허믄 쏠 강 밧젠 두어 뒈 졍 강 하귀 강 풀앙은에, 걸엉 강 재게 강 풀앙 오젠 허믄 어떵 허당 재수 좋으믄 콩 살 사름이 재게 나오믄 확 풀앙 오고, 게 아니믄 전화가 시카, 뭣이 시카, 집인 아기 눅져둥 가믄, 재게 못 풀믄, 그거 풀아사 똑 그날 무시거 상 고무신도 상 오곡, 무시거 대비도 상 오곡, 허젠 허믄 헤살 거라부난, 옛날 아이고 어떵 헹사.(하나씩 생각하면서, 생각나는 거 말하세요. 그러니까 콩 작물 하면 쌀 가서 받으려고 두어 되 져서 가서 '하귀' 가서 팔아서, 걸어서 가서 빨리 가서 팔아서 오려고 하면 어떻게 하다가 재수 좋으면 콩 살 사람이 빨리 나오면 확 팔아서 오고, 게 아니면 전화가 있나, 무엇이 있나, 집에는 아기 눕혀둬서 가면, 빨리 못 팔면, 그거 팔아야 똑 그날 무엇 사서 고무신도 사고 오고, 무엇 양말도 사서 오고, 하려면 하면 해야 할 거니까, 옛날 아이고 어떻게 해야.)

103038 @ 콩 비쌋지양? 옛날.(콩 비쌌지요? 옛날.)

103038 #2 옛날 비싸, 천오백 원허곡, 백오십원 허곡 허믄게. 백 원만 주믄.(옛날 비싸, 천오백 원하고, 백오십 원하고 하면요, 백 원만 주면.)

103038 #1 콩은 보리쏠, 좁쏠보단도 비쌋수다. (콩은 보리쌀, 좁쌀보다도 비쌌습니다.)

103038 #2 비싸낫수다. 예, 콩이라낫수다.(비쌌습니다. 예, 콩이었습니다.)

103038 @ 제일 비싼 것이 콩이구나.(제일 비싼 것이 콩이구나.)

103038 #1 꽤허고.(참깨하고.)

103038 @ 꽤는 옛날부터 비싸고?(참깨는 옛날부터 비싸고?)

103038 #2 천오백 원도 허고, 백오십 원도. 게난 질 풀기도 그것이양, 잘 받아가. 잘 받아가곡 헤도게, 어떵 허당.(천오백 원도 하고, 백오십 원도. 그러니까 제일 팔기도 그것이요, 잘 받아가. 잘 받아가고 해도요, 어떻게 하다가.)

103038 @ 콩 사당 뭐 헤신고 거? 콩지름 냅곡.(콩 사다가 뭐 했는가 그거? 콩나물 내고.)

103038 #2 장시나 허게, 그것덜.(장사나 하게, 그것들.)

103038 #1 콩지름도 허곡, 주로 이 거 메주콩이영, 이 무신 둠비콩이영 풀아실 거우다. 그 사름덜도 장시난 항상 사당 풀곡.(콩나물도 하고, 주로 이 그거 메주콩이랑, 이 무슨 두부콩이랑 팔았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도 장사니까 항상 사다가 팔고.)

103038 #2 게난 콩 두드려 가믄 놈이 사름덜은 콩 언제 풀레가멘, 언제 풀레가젠.(그러니까 콩 두들겨 가면 남의 사람들은 콩 언제 팔러 가냐고, 언제 팔러 가냐고.)

103038 #1 전이사, 이젠 갑바여, 뭣이여 셔네, 전인 콩 두드리젠 허믄 읖이 강 멍석 빌어오곡 헤사, 것이 이제 갑바덜 하난 헤도 옛날은 갑바가 귀헤낫수다. 게난 멍석 주로

허영 허믄 멍석 욮이 문딱 둘렁 콩은 첨 사돈칩이꼬지 친뎅 허여. 게난 도께질허젠 허믄 멍석 빌어온 것이 혼 멧 집이 강 빌어와사 막 꼴앙은에 콩 장만허여.(전에야 이제는 갑바여, 뭣이여 있어서 전에는 콩 두들기려고 하면 옆에 가서 멍석 빌려오고 해야, 그것이 이제 갑바들 많으니까 해도 옛날은 갑바가 귀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멍석 주로 해서 하면 멍석 옆에 모두 둘러서 콩은 참 사돈집에까지 친다고 해. 그러니까 도리깨질하려고 하면 멍석 빌려온 것이 한 몇 집에 가서 빌려와야 마구 깔아서 콩 장만해.)

103038 @ 콩 두두리는 노랜 엇수가?(콩 두들기는 노래는 없습니까?)

103038 #2 양?(예?)

103038 @ 콩 두드리는 노래는 어서?(콩 두들기는 노래는 없어요?)

103038 #2 몰르쿠다. 나도 이젠, 하하하하하(웃음), 콩 두드리는 노래.(모르겠습니다, 나도 이제는, 하하하하(웃음), 콩 두들기는 노래.)

103038 #1 혜 봐.(해 봐.)

103038 #2 아, 아, 못 허여.(아, 아, 못 해.)

103038 @ 콩 두드리는 노래.(콩 두들기는 노래,.

103038 #2 순일이 아방은 잘 혜난디, 난 콩 두드리는 노래, 도께, 도께질 허멍.('순일'이 아버지는 잘 했었는데, 난 콩 두들기는 노래, 도리깨 도리깨질 하면서.)

103038 @ 도께질허는 거.(도리깨질 하는 거.)

103038 #2 도께질허멍.(도리깨질하면서.)

103038 @ 혼번 혜 봅서.(한번 해 보세요.)

103038 #2 아이고, 오널 못 허쿠다. 하하하(웃음). 이 생각 아이 난. 생각 아이 남신게. 어이고, 게메.(아이고 오늘 못 하겠습니다. 하하하(웃음). 이 생각 아니 나서. 생각 아니 나고 있네요. 아이고, 글쎄.)

103038 @ 생각허멍 즘 못 자지랑 맙서양.(생각하면서 잠 못 자지는 마세요.)

103038 #2 예게, 경 허커라.(예게, 그렇게 하겠어.)

103038 #1 게난 이 저 영 헙니다게, 도께 허젠 허민 영 어신 때 허영 사름 쪽 양쪽이서.(그러니까 이 저 이렇게 합니다, 도리깨 하려고 하면 이렇게 없을 때 해서 사람 쪽 양쪽에서.)

103038 #2 욮이 사름 맞으카부덴, 멀리상.(옆에 사람 맞을까봐, 멀리서서.)

103038 #1 혼 사름이 문제 소리를 허영 어어어어어어어어 어어어어어어 어영 얏.(한 사람이 먼저 소리를 해서 어어어어어어어어 어어어어어어 어영 얏.)

103038 #2 이얏. 혼 발착 두드리고.(이얏. 한 발짝 두들기고.)

103038 #1 게난 저 허믄 저쪽에서 소리가 나옵주기. 어여여어어허어어어야, 야 요놈으 도께야, 확.(그러니까 저 하면 저쪽에서 소리가 나오지요. 어여여어어허어어어야, 야 요놈의 도리깨야, 확.)

103038 #2 착 허믄 저펜이서 또 소리허고.(착 하면 저편에서 또 소리하고.)

103038 #1 저기서 확 허곡, 이쪽이서 확 허고, 겐 이제 마주 잘못 안 허믄 맞추지 아이허믄 도께끼리 이제 두드려지난, 경 허멍 이제 노래 허멍.(저기서 확 하고, 이쪽에

서 확 하고, 그렇게 이제 마주 잘못 안 하면 맞추지 아니하면 도리깨끼리 이제 두드려지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제 노래하면서.)

103038 #2 경 허다은에 탁베기, 감주 혼 잔 먹고, 그추룩 허멍 쉬는 건 거벡이 감주 혼 잔 먹는 거, 쉬곡, 콩 두드령.(그렇게 하다가 탁주, 감주 한 잔 먹고, 그처럼 하면서 쉬는 건 거밖에 감주 한 잔 먹는 거, 쉬고 콩 두드려서.)

103038 #1 게난 콩을 하영 헌 집인 콩이 하다 허믄 그걸 자꾸 두드리멍 낭은 옆더레 허고 마당은 옛날 크지 아니헤십주게, 족앙 허믄 콩 두드리는 마당 허믄 벌써 널르지 아니허믄 문 튀엉 삼방끄지 문 튀곡 허는디. 영 헹양, 그 콩이 하다 허영 영 허믄 도껠 쿡 찔렁 그 도께가 쓰러지지 아이허믄 콩, 요 집이 콩 멧 섬 나오켜, 벌써 짐작을 허영.(그러니까 콩을 많이 한 집에는 콩이 많다 하면 그걸 자꾸 두들기면서 짚은 옆으로 하고 마당은 옛날 크지 아니했지요, 작아서 하면 콩 두들기는 마당 하면 벌써 넓지 아니하면 모두 튀어서 삼방까지 모두 튀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요, 그 콩이 많다 해서 이렇게 하면 도리깨를 쿡 찔러서 그 도리깨가 쓰러지지 아니하면 콩, 요 집에 콩 몇 섬 나오겠어, 벌써 짐작을 해.)

103038 #2 옛날엔 글 몰르곡 멍청허게 살아노난.(옛날에는 글 모르고 멍청하게 살았으니까.)

103038 #1 얼마 아이뒈엉 허믄 주로 영 우리도 헤 보믄 콩을 이제 헹 다 두드령 허믄, 이제 이거 문딱 낭 헤도 그거 불리지 아니헌 거난 합주게. 게믄 도께를 콕 세웡 씨러지믄 이거 멧 섬 안 나코, 도껠 헹 구짝 상, 어 그 집이 콩 섬이나 나카, 콩 섬은 혼 섬 아이고 멧 섬, 콩 섬이나 나크라. 영 헹 이제 도께 세왕은에 헤 보고.(얼마 아니 되어서 하면 주로 이렇게 우리도 해 보면 콩을 이제 해서 다 두드려서 하면, 이제 이거 모두 짚 해도 그거 불리지 아니한 거니까 많지요. 그러면 도리깨를 콕 세워서 쓰러지면 이거 몇 섬 안 나고, 도리깨를 해서 곧장 서서, 어 그 집에 콩 섬이나 날까, 콩 섬은 한 섬이 아니고 몇 섬, 콩 섬이나 나겠어. 이렇게 해서 이제 도리깨 세워서 해 보고.)

103038 #2 게 콩 두드릴 때도 두드리는 사름만 아니허메, 여자덜 둘이, 할망덜 둘이 상.(그렇게 콩 두들길 때도 두들기는 사람만 아니하지, 여자들 둘이, 할머니들 둘이 서서.)

103038 #1 작데기로.(작대기로.)

103038 #2 작데기로 콩을 뒛사 놓곡, 뒛사 놓고. 영 허멍 양펜이 뒛사놩 헤사 소곱에 두드려지게, 영 뒛사놓고, 뒈사놩은에.(작대기로 콩을 뒤집어 놓고, 뒤집어 놓고. 이렇게 하면서 양편에서 뒤집어놔서 해야 속에 두들겨지게, 이렇게 뒤집어놓고, 뒤집어놓아서.)

103038 #1 영 앞더레 가멍 뒈쓰곡.(이렇게 앞으로 가면서 뒤집고.)

103038 #2 것도 도께 어슬 때, 어떵 확 허게 헤사.(그것도 도리깨 없을 때, 어떻게 확 하게 해야.)

103038 #1 뒤터레 가멍 것이 뿔르게 헤사, 게 아니믄 도께에 잘못허믄 맞아 져.(뒤로 가면서 것이 빠르게 해야, 그렇게 아니면 도리깨에 잘못하면 맞아 져.)

103038 #2 그추룩 허고 맞앙은에 맞으카부덴, 경 허곡. 게난 콩, 식구 하영하영 헤서. ᄒᆞ끔만 헤도 ᄋᆞ라이 허젱 허믄 양펜이 허젠 허믄 식구가 하사. 날 좋은 때 헤 불젠 허곡.(그처럼 하고 맞아서 맞을까 봐,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콩, 식구 많이많이 했어. 조금만 해도 여럿이 하려고 하면 양쪽에 하려고 하면 가족이 많아야. 날 좋은 때 해버리려고 하고.)

103038 #1 경허고 콩은 추지믄 못 허여. 날씨 봉 하니ᄇᆞ름이나 불곡 헐 때, 콩 내놔도 저 ᄇᆞ름 바른 디레 막 널엇당 이제 요것이 와상허게 헤야 도께질 허지, ᄒᆞ꼼만 추졋다 허믄 질그락질그락 허멍 안 까지주기.(그리고 콩은 추지면 못 해. 날씨 봐서 북풍이나 불고 할 때, 콩 내놔도 저 바람 바른 데로 마구 널었다가, 이제 요것이 와상하게 해야 도리깨질 하지, 조금만 추졌다 하면 질경질경 하면서 안 까지지요.)

103038 #2 까지질 아니허여.(까지지를 아니해.)

103038 #1 게난 ᄇᆞ름 바르고 하니ᄇᆞ름 불 때, 콩은 비어당 놔뒷당 주로 그때에 장만헷던 거주기.(그러니까 바람 바르고 북풍 불 때, 콩은 베었다가 주로 그때 장만했던 거지요.)

103038 @ 예, 오늘은 여기까지 허쿠다.(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밭벼농사

103039 @ 오늘은 그 저 여긴 알드르[92]난에 산디 농사 대신에 저 나록농사양, 나록농사에 대허영은에 허쿠다. 그 저 나록농사는 어떤 준비가 필요헙니까?(오늘은 그 저 여기는 '알드르'니까 밭벼 농사 대신에 저 벼농사요, 벼농사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그 저 벼농사는 어떤 준비가 필요합니까?)

103039 #1 나룩도 수답이 싯곡, 건답이 신디, 수답은 물이면 ᄒᆞ를 헤원 인제 물을 언제나 빠지지 아이헌 것이 수답이고 헌디, 메종을 보통, 메종을 놩 싱거사 헙주게. 겡메종을 어떵 허영 싱그냐 허믄, 게 메종을 여기선 쉐걸름ᄀᆞ뜬 건 아이 놔마씨. 거 쉐걸름을 노믄 메종 놔도 ᄀᆞ지곡 허영 잘 안뒈어. 게믄 어떤 메종을 허냐 허믄 거 풀을 헤당 저슬살이렌 헌 풀 잇수다. 여기 쉐도 안 먹곡 독헌 풀.(벼도 수답이 있고, 건답이 있는데, 수답은 물이면 하루 종일 이제 물을 언제나 빠지지 아니한 것이 수답이고 하는데, 모종은 보통, 모종을 놔서 심어야 하지요. 그렇게 모종을 어떻게 해서 심느냐 하면, 그렇게 모종을 여기서는 쇠두엄 같은 거는 아니 놓아요. 거 쇠두엄을 놓으면 모종 놔도 말짱하고 해서 잘 안 돼. 그러면 어떤 모종을 하느냐 하면 거 풀을 해다가 겨우살이라고 한 풀 있습니다. 여기 소도 안 먹고 독한 풀.)

103039 #2 막 독헌 풀. 거 무사 그런 풀.(아주 독한 풀. 그거 왜 그런 풀.)

103039 #1 그런 풀 헤당은에 이제 헤다 놩.(그런 풀 해다 이제 해다 놔서.)

103039 #2 독헌 풀.(독한 풀.)

103039 #1 걸 작두로 줄게 썰엉 수답에 이제 발 잘, 궹이로 떵 펜안허게 멩글아 놩

92) '알드르'는 아래쪽에 있는 들이란 뜻에서, 해변 또는 해안가 가까이에 있는 지역을 일컫는다.

거기 이제 풀 썬 걸 이제 그레 다 뿌렁, 발로 또 불라마씨. 불랑 우일 또 그건 걸름용이난 그 다 불랑 그 우티도 올라오게 허영 펜안허게 허영 씨를 흔 이틀 전에 뿌렷당, 이으름이 뒈 가믄, 저 봄 뒈영 헤 가믄 거 날씨가 ᄃᆞ뜻허믄 재게 순이 나마씨. 뽀족뽀족허믄 이제 그때 씨를 뿌리는 거라. 씨 뿌렁은에 그걸 허게 뒈믄 물은 언제나 가뜩, 거.(그걸 작두로 잘게 썰어서 수답에 이제 발 잘, 괭이로 떠서 편안하게 만들어 놔서 거기 이제 풀 썬 것을 이제 그리 다 뿌려서, 발로 또 밟아요. 밟아서 위에를 또 그건 거름용이니까 그 다 밟아서 그 위에도 올라오게 해서 편안하게 해서 씨를 한 이틀 전에 뿌렸다가 이 여름이 돼 가면, 저 봄 되어서 해 가면 거 날씨가 따뜻하면 빨리 순이 나요. 뾰족뾰족하면 이제 그때 씨를 뿌리는 거야. 씨 뿌려서 그걸 하게 되면 물은 언제나 가뜩, 거.)

103039 #2 수답에 뒙니깡게? 건답에.(수답에 됩니까? 건답에.)

103039 #1 받앙 걸어놩.(받아서 걸어놔서.)

103039 #2 물을 빠사 뒈는 거주, 더러 빠사.(물을 빼야 되는 거지, 더러 빼야.)

103039 #1 아이, 경 헹 물이 나기 시작허믄 그때 물을 빠는 거라. 물 빠믄 요것이 오깍 발아가 뒈영 우터레 솟아올르믄 커가는 거.(아니, 그렇게 해서 물이 나기 시작하면 그때 물을 빼는 거야. 물 빼면 요것이 완전히 발아가 되어서 솟아오르면 커가는 거.)

103039 #2 광이로 골 쳐 놩은에.(괭이로 골 쳐 놓아서.)

103039 #1 물코도 치곡 허영 그때부터 ᄒᆞ끔 ᄆᆞᆯ리와사 메종이 실허여마씨, ᄆᆞᆯ려사 실허여마씨.(물꼬도 치고 해서 그때부터 조금 말려야 모종이 실해요, 말려야 모종이 실해요.)

103039 #2 메종 따문, 물을 빠부러사.(모종 때문, 물을 빼버려야.)

103039 #1 물을 빵 고량이만 ᄒᆞ끔 안지게 헤 가지고.(물을 빼서 고랑에만 조금 앉게 해 가지고.)

103039 #2 경 아니허믄 걸름을.(그렇게 아니하면 거름을.)

103039 #1 이제 거, 거 헤강 커 가믄 피도 뽑아주곡, 이렇게 헹 길루앗당 그것이 흔 ᄉᆞ십 일, ᄉᆞ십 일 뒈 가믄 메종이 영 흔 뼘쯤 커 갑니다. 흔 조리, 흔 조리 커 가믄 영 보믄 메종 언제 가식헐 거 알아지믄, 그때 미리 이제 논을 좀 그 이식헐 밧디 이제 거 ᄏᆞᆯ 밧 갈곡 허영 정릴 허는 거라. 정리헷당 것도 이디선 물이 항상 부족허난, 겡 뒈어 가믄 오월 똑 장마가 걸려마씨. 장마가 걸리믄 이제 그걸 운반헷당 장마철 헹, 물 족으니까 그걸 기준 헹 걸 사름덜 빌엉 믄 싱금니다.(이제 거, 그거 해가서 커 가면 피도 뽑아주고, 이렇게 해서 길렀다가 그것이 한 사십 일, 사십 일 돼 가면 모종이 이렇게 한 뼘쯤 커 갑니다. 한 조리, 한 조리 커 가면 이렇게 보면 모종 언제 가식할 거 알 수 있으면, 그때 미리 이제 논을 좀 그 이식할 밭에 이제 거 깨끗하게 밭 갈고 해서 정리를 하는 거야. 정리했다가 그것도 여기서는 물이 항상 부족하니까, 그렇게 돼 가면 오월 똑 장마가 걸려요. 장마가 걸리면 이제 그것을 운반했다가 장마철 해서, 물 적으니까 그걸 기준 해서 그것을 사람들 빌어서 모두 심습니다.)

103039 #2 저디 내창물 밧젠 허믄 막 싸왕 나룩 싱그젠 허믄 우리 논에 물 하영 노

켜, 저 우리 논에 물 담으켜, 게믄 불가 강 보믄 우리 물 대영 놔두믄 지네 논더레 문딱 터불어. 나룩 물이 부족헤가믄양, 저 거세기 메종 놓젠 허믄 물을 광이로 문딱 아래 팟당 물을 ᄒᆞ끔 알러레 ᄂᆞ린 다음에 메종을 키우젠 헷당, 이젠 그걸 막앙 물을 이제 물을 골르게 허젠 허믄 막 나 모녀 물 받으켜, 나 모녀 물 받으켜 허멍 붉도록 요 수산 하르방은 매질허멍 헤낫수다, 막 그 물 따문에. 우린 영 헨 나룩찜으로, 보리낭 허연 영 놘, 이 아방[93] 밤이 간 문 돌 지들놘 헨 놔두난 그 하르방 와네 지네 논더레 문딱, 문딱 터불언. 나중에 문딱 터부난 이제 우리 나룩 물을 받아사 헐 건디, 저 나룩이 잘 뒈지 아니허연, 뒈지 아니허연 이제 그 하르방이영 ᄉᆞ뭇 목아지심으멍 싸완, 이 아방. 막 그 이제 저.(저기 냇가 물 받으려고 하면 마구 싸워서 벼 심을려고 하면 우리 논에 물 많이 넣겠어, 저 우리 논에 물 담겠어, 그러면 밝아 가서 보면 우리 물 대어서 놔두면 자기네 논으로 모두 터버려. 벼 물이 부족해가면 요, 저 거세기 모종 놓으려고 하면 물을 괭이로 모두 아래 팠다가 물을 조금 아래로 내린 다음에 모종을 키우려고 했다가 이제는 그걸 막아서 물을 이제 물을 고르게 하려고 하면 마구 나 먼저 물 받겠다고, 나 먼저 물 받겠다고 하면서 밝도록 요 '수산' 할아버지는 매질하면서 했었습니다, 막 그 물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해서 볏짚으로, 보릿짚 해서 이렇게 놨어, 이 '아방' 밤에 가서 모두 돌지질러서 해서 놔두니까 그 할아버지가 와서 자기네 논으로 모두, 모두 터버렸어. 나중에 모두 터버리니까 이제 우리 벼 물을 받아야 할 건데, 저 벼가 잘 되지 아니해서, 되지 아니해서 이제 그 할아버지랑 사뭇 목 잡으면서 싸웠어, 이 '아방'. 마구 그 이제 저.)

103039 #1 어떠냐 허믄.(어떠하냐 하면.)

103039 #2 그 물 지네 논에만 밧젠, 지네 논에만 싱그젠.(그 물 자기네 논에만 받으려고, 자기네 논에만 심으려고.)

103039 #1 논물 인심 허곡, 멜팟 인심은 똑 ᄀᆞ뜨덴 허여. 멜도 그거 영 멜팟 여기 저 원 헹 그레도 멜팟허믄 거기서 막 서로 허듯이, 나룩도 물 ᄒᆞᆫ 적 그거 생각허영은 누게 밥 ᄒᆞᆫ 적 주지 아니헙니다. 어떻게 헌 지 인심이 메마른지양, 이웃 간에라도양 싸우멍 이녁 밧디 물을, 논을 ᄒᆞ끔이라도 대젱 허믄, 싱경.(논물 인심 하고 멸치어장은 인심은 똑 같다고 해. 멸치도 그거 이렇게 멸치어장 여기 저 원 해서 그리도 멸치어장 하면 거기서 마구 서로 하듯이, 벼도 물 한 적 그거 생각해서는 누구 밥 한 적 주지 아니합니다. 어떻게 한 지 인심이 메마른지요, 이웃 간에라도 싸우면서 이녁 밭에 물을, 논을 조금이라도 대려고 하면, 심어서.)

103039 #2 겡 허믄 메종 논딘 내불어뒁, 그 논엔 헤뒁 저펜 논 물 받앙 이제 광이로 논을 떠사마씨. 막 옷 벗어두고, 첨 무신, 무신 씰 건 시카? 맨발에 막 광이로 논을 떠사, 떠놩은에 이펜 메종을 그레 갓당 싱그젠 허믄 물 부족허믄 그때부턴 쌉기 시작허영, 막 나 하영 허켜, 나 물 받으켜허멍 막 인심헹 원 저 나룩 경 헹 싱글 때도양 막 원수덜이 하근에 말도 아이 ᄀᆞᆯ안 싱거낫수다. 막 붉기 전이 밤세낭 그 하르방덜광, 그 사름덜광.(그렇게 하면 모종 놓은 데는 내버려둬서, 그 논엔 해둬서 저편 논 물 받아서 이제

93) '아방'은 아버지를 뜻하는데, 여기서는 남편을 일컫는다.

괭이로 논을 떠야지요. 마구 옷 벗어두고, 참 무슨, 무슨 쓸 건 있을까? 맨발에 마구 괭이로 논을 떠야, 떠놔서 이편 모종을 그리 갔다가 심으려고 하면 물 부족하면 그때부터는 싸우기 시작해서, 아주 나 많이 하겠어. 나 물 받겠어 하면서 마구 인심 해서 원 저 벼 그렇게 해서 심을 때도요, 아주 원수들이 많아서 말도 아니해서 심었었습니다. 막 밝기 전에 밤새도록 그 할아버지들과, 그 사람들과.)

103039 #1 게난 이 저.(그러니까 이 저.)

103039 #2 지네 논에만 받앙, 그렇게 힘들어.(자기네 논에만 받아서, 그렇게 힘들어.)

103039 #1 논을 골르젠 허믄 너무 어렵고 허니까 삼테기라가지고 이렇게 갈쿠리 닮은 거, 진 거 헹은에 쉐로양 논을 골라마씨. 게멍 쉐 잘 못허믄 쉐 이껑 그거 허멍 문짝 골랑은에 겡 나룩을 싱그는디, 나룩도.(논을 고르려고 하면 너무 어렵고 하니까 삼태기라 가지고 이렇게 갈퀴 닮은 거, 긴 거 해서 소로요, 논을 골라요. 그러면서 소 잘 못하면 소 이끌어서 그거 하면서 몽땅 골라서 그렇게 벼를 심는데 벼도.)

103039 #2 하이고 것도 어려와, 나룩도 어떵사 헤신디.(아이고, 그것도 어려워. 벼도 어떻게야 했는지.)

103039 #1 싱거놔도 첫째는 물이우다게 물 부족허믄 안 뒌데, 아까 이 사름 곧듯이 매일 가믄 물과 전쟁이우다. 나룩, 물이 ᄒᆞ끔이라도 잘 간 디는 나룩이 뒈고.(심어놔도 첫째는 물입니다. 물 부족하면 안 되는데, 아까 이 사람 말하듯이 매일 가면 물과 전쟁입니다. 벼, 물이 조금이라도 잘 간 데는 벼가 되고.)

103039 #2 나룩 좋곡, 수확도 하영 나곡, 경 허여.(벼 좋고, 수확도 많이 나고, 그렇게 해.)

103039 #1 물 어시믄 안 뒈는 농사가 나룩 농사.(물 없으면 안 되는 농사가 벼농사.)

103039 #2 게난 광이로 일단, 초불은 물을 떠놩 이제 쉐도 아무 쉐나 허지 못허영 막 쉐, 실헌 쉐허영 그 진진헌 널짝 헹은에 그 쉐 이끄멍 논을 문짝허게 골라놔사.(그러니까 괭이로 일단, 초벌은 물을 떠놔서 이제 소도 아무 소나 하지 못해서 아주 소, 실한 소해서 그 긴긴 널쪽 해서 그 소 이끌면서 논을 반드럽게 골라놔야.)

103039 #1 저 삼태기ᄀᆞ찌 요렇게 뭔 거 잇수다, 양쪽에.(저 삼태기같이 요렇게 된 거 있습니다, 양쪽에.)

103039 #2 경 헹 골랑은에.(그렇게 해서 골라서.)

103039 #1 딱 헹 쉐는 가운디 끄스곡, 겡 헤가믄 영 펜안허게 골라질 거 아이우꽈?(딱 해서 소는 가운데 끌고, 그렇게 해가면 이렇게 편안하게 골라질 거 아닙니까?)

103039 #2 게믄 그 메종, 메종 뽑으멍, 게난 거 아무나 그 일도 아니헤줘. 아무나 아니헤줭 나룩 허젠 허믄양, 그렇게 첨 힘들게 헤연에, 겡허난 그거 헹 농사허젠 허믄 그놈이 물이 다른 거 닮지 아니허영 ᄆᆞᆯ라가면 물 밧곡, 이제 물이 하믄 나룩 썩엄시카부덴 물을 빠고, 빠곡, 더끄곡 이것이 과정이 경 힘들어마씨. 경 헨 잘 헌 사름덜은 밤이 줌 안 장은에 그거 농사허영, 나룩 일 허는 사름덜은 곡석을, 나룩을 헨 먹은디, 첨 밤이 줌 자불곡 헌 사름덜은 잘 못 헹, 우리 막 싸와낫수다, 막.(그러면 그 모종, 모종

뽑으면서, 그러니까 그거 아무나 그 일 아니해줘. 아무나 아니해줘서 벼 하려고 하면요, 그렇게 참 힘들게 했어, 그러니까 그거 해서 농사하려고 하면 그놈의 물이 다른 거 닮지 아니해서 말라가면 물 받고, 이제 물이 많으면 벼 썩고 있을까 봐서 썩어버릴까 싶어서 물을 빼고, 빼고, 덮고 이것이 과정이 그렇게 힘들어요. 그렇게 해서 잘 한 사람들은 밤에 잠 안 자서 그거 농사해서, 벼 일 하는 사람들은 곡식을, 벼를 해서 먹는데, 참 밤에 잠자버리고 한 사람들은 잘 못 해서, 우리 마구 싸웠었습니다, 마구.)

103039 #1 게난 것도, 그것도 아니주마는 나룩을 헐 때에는 저 익엉 비어놀 거 아니우꽈? 비어 노믄 장만허는 과정도 처음엔양, 클, 보리클 닮은 거, 걸로 훌타낫수다게. 저 나룩허멍 훌터낫는디, 나중에 또 발로 불르는 탈곡기라고 헤 가지고양게, 뭇을 준준허게 묵엉, 뭇에 이렇게 보리 허는 탈곡기는 경운기로 헷주마는, 이건 처음에는 발로 불앙, 겡 이거 니아까에 끄성 뎅이멍 논마다 뎅이멍 그걸 헹, 지네도 쿰 헤 먹고 혼자 사긴 비싸난 빌엉 우리도 장만허곡 허는디, 그거 허믄, 탈곡기 허믄 아주 훌트는 것보단 쉽곡 깨끗허게 장만이 뒈어. 경 헨 허곡, 잘 안 뒈믄 젠 죽젱이 천지로 불리믄 반작이라, 이건 ᄇᆞ름에 나가는 게.(그러니까 그것도, 그것도 아니지만 벼를 할 때에 저 익어서 베어 놓을 거 아닙니까? 베어 놓으면 장만하는 과정도 처음에는요, 틀, 보리를 떠는 농기구 닮은 거, 걸로 홅었었습니다. 저 벼하면서 홅었었는데, 나중에 또 발로 밟는 탈곡기라고 해 가지고요, 뭇을 자잘하게 묶어서, 뭇에 이렇게 보리 하는 탈곡기는 경운기로 했지만, 이건 처음에는 발로 밟아서, 그렇게 해서 이거 리어카에 끌어서 다니면서 논마다 다니면서 그걸 해서, 자기네도 삯 헤 먹고 혼자 사긴 비싸니까 빌어서 우리도 장만하고 하는데, 그거 하면, 탈곡기 하면 아주 홅는 것보다는 쉽고 깨끗하게 장만이 돼. 그렇게 하고 잘 안 되면 잔 쭉정이 천지로 불리면 반작이야, 이건 바람에 나가는 게.)

103039 #2 물을 밧앗닥 싯닥 똑 온도 맞추는 거 모냥으로 잘 허지 아니허믄 나룩이 움지도 아이허곡 죽어불곡, 경 허믄 그 탈곡기 장시도 그런 걸로 쿰 아이 받으켄.(물을 받았다가 있다가 똑 온도 맞추는 거 모양으로 잘하지 아니하면 벼가 여물지도 아니하고 죽어버리고, 그렇게 하면 그 탈곡기 장사도 그런 것으로 삯 아니 받겠다고.)

103039 #1 게 허곡 비료양, 비료를.(게 하고 비료요, 비료를.)

103039 #2 쿰 아이 받으켄 허여.(삯 아니 받겠다고 해.)

103039 #1 논에 비료를 멩심허영 헤사 허여마씨. 이 비료가 너무 걸엉은에 요솔 하영 나중에 헷당은 낭이 익엉 멜락헹 씨러져불믄 거 뒈질 아니어여마씨. 그리고 나중에 처음엔 옛날 나룩덜 헷는디, 나중에는 농요기[94]라고 허는 종자가 나와서 논에, 지금은 뭣사 헴신디 몰라도, 그때 농요기옌 헌 거는 요거 메 줄추헌게, 이제 허믄 커 가는 거 보멍 비료를 ᄒᆞ끔썩 줘사. 물 받앙 약간썩 뿌령 놔두믄 것이 다 흡수뒈영 허믄, 또 이 농요기 종자는양, 아주 요렇게 ᄀᆞ늘면서도 열매는 실허여, 게믄 아주 고고리가 수북허게 허영 요거 첨, 또 밥맛도 구수허고.(논에 비료를 명심해서 해야 해요. 이 비료가 너무 걸어서 요소를 많이 나중에 했다가는 짚이 익어서 말랑말랑하게 연해서 쓰러져 버리면 거 되지를 아니해요. 그리고 나중에 처음에는 옛날 벼들 했는데, 나중에는 '농요기'라고

94) '농요기'는 벼 종자 중 하나다.

하는 종자가 나와서 논에, 지금은 무엇이야 하고 있는지 몰라도, 그때 '농요기'라고 한 거는 이거 모 자잘한 게, 이제 하면 커 가는 거 보면서 비료를 조금씩 줘야. 물 받아서 조금씩 뿌려서 놔두면 것이 다 흡수되어서 하면, 또 이 '농요기' 종자는요, 아주 요렇게 가늘면서도 열매는 실해, 그러면 아주 이삭이 수북하게 해서 요거 참, 또 밥맛도 구수하고.)

103039 #2 게난 논마다 다 틀려.(그러니까 논마다 다 달라.)

103039 #1 또 농팔[95]이옌 헌 거는 이파리 넙작넙작헌 게, 아 요놈으 건 농팔인 ᄒᆞ끔만 허믄 이제 비료가 쪼금 더 가도 이게 웁지 아니허고 잘, 농팔이옌. 농육[96], 농팔 주로 헷는디, 게 농육은 잘, 농팔은 웁지 아니허곡 죽젱이가 하마씨. 잘 이거 비료 조절 안 헷당은 반작, 죽젱이 헤 노믄게, 농육은 아주 종자가 ᄀᆞ늘고 약헤도양, 열매는 요거 좋고, 우린 이제 주로 농육을 많이 헤낫수다게, 농육 헷당.(또 '농팔'이라고 한 거는 잎이 넓적넓적 게, 아 이놈의 거 '농팔'인 조금만 하면 이제 비료가 조금 더 가도 이게 여물지 아니하고 잘, 농팔이라고. '농육', '농팔' 주로 했는데, 게 '농육'은 잘, '농팔'은 여물지 아니하고 쭉정이가 많아요. 잘 이거 비료 조절 안 했다가는 반작, 쭉정이 해 놓으면요, '농육'은 아주 종자가 가늘고 약해도요, 열매는 요거 좋고, 우리는 이제 주로 '농육'을 많이 했었습니다, '농육' 했다가.)

103040 @ 게믄양, 나룩은 언제 감니까?(그러면요, 벼는 언제 갑니까?)

103040 #1 나룩은 메종을 놔서 주로 허기 때문에.(벼는 모종을 놔서 주로 하기 때문에.)

103040 @ 언제?(언제?)

103040 #1 여기서 헹 우리가 허믄.(여기서 해서 우리가 하면.)

103040 #2 저.(저.)

103040 #1 아니, 아니.(아니, 아니.)

103040 @ 메종 놀 때.(모종 놓을 때.)

103040 #1 춘분 흔 이십일 전에 그때 ᄒᆞ끔 나룩 메종 놀 때는 ᄒᆞ끔 추워마씨. 발도 실렵고.(춘분 한 이십일 전에 그때 조금 벼 모종 놓을 때는 조금 추워요. 발도 차갑고.)

103040 @ 게 어떵 갈아마씨? 메종 놀 때.(게 어떻게 갈아요? 모종 놓을 때.)

103040 #1 메종은.(모종은.)

103040 #2 발 실루와도 막.(발 차가워도 마구.)

103040 #1 저 헤도 그레 주로 하영 여기서 놔 노니까, 하영 허는 사름은 쉐로 이제 ᄇᆞᆯ리멍 허는디, 겡 아니헹 우리 영 헤보믄 그 삼태기로 끗곡 헤 가지고 이제 풀을, 풀 주로 이것이 헤 나믄 잘 아이허믄 그디가 메종 자리는 이제 잘 뒈질 안 헙니다. 게난 풀 이제.(저 해도 그리 주로 많이 여기서 놔 놓으니까, 많이 하는 사람은 소로 이제 밟으면서 하는데, 그렇게 아니해서 우리 이렇게 해 보면 그 삼태기로 끌고 해 가지고 이제 풀을, 풀 주로 이것을 해 나면 잘 아니하면 거기가 모종 자리는 이제 잘 되지를 안

95) '농팔'은 벼 종자 중 하나다.
96) '농육'은 벼 종자 중 하나다.

합니다. 그러니까 풀 이제.)

103040 #2 독헌 풀 헨, 걸름 헤난에.(독한 풀 해서, 거름 했었어.)

103040 #1 발이 지깍 얼거진 게, 메 헤나믄 허난 이제 저슬살이풀, 것도 다른 풀은 잘 걸질 아니허여마씨. 이제 저슬살이 풀만.(발이 깊게 얽어진 게, 모 하였으면 하니까 이제 겨우살이풀, 그것도 다른 풀은 잘 걸질 아니해요. 이제 겨우살이풀만.)

103040 #2 것도 ᄉᆞ끼로, ᄉᆞ끼로 영 묵엉, 니긔반듯허게 허영 그 안네서만 허영은에 그 논 전체 다 허지 못헤근에, 영 ᄉᆞ끼로 묵어놩 어느 만이 헹 그 안네 허영은에 불랑은에 허영 씨도 삐곡.(그것도 새끼로, 새끼로 이렇게 묶어서, 네모반듯하게 해서 안에서만 해서 그 논 전체 다 하지 못해서, 이렇게 새끼로 묶어놔서 어느 정도 해서 그 안에 해서 밟아서 해서 씨도 뿌리고.)

103040 #1 물이 펜안허게 골라놩, 물을 어느 정도 좀 허여, 또 불라가믄 흑이 올라올 거 아이우꽈? 게믄 거 이제 풀 논 건 중간에 가, 우이는 펜안허게 댈 수 잇으믄 물 영 받앙 잔잔허게 헤야 그 씨가 잘 들어삽주게. 게믄 ᄇᆞ름이나 안 불곡 이렇게 허믄 이제 메종을 흔 이틀, 사흘 뒈믄 이제 뿔이 뽀족뽀족 납니다. 물 컷당, 나룩씨를, 겡 헷당 뽀족뽀족 날 때, 이제 이렇게 뿌리멍 ᄇᆞ름 잔 날 이제 걸 허영.(물을 편안하게 골라놔서, 물을 어느 정도 좀 해, 또 밟아 가면 흙이 올라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 이제 풀 놓은 거는 중간에 가, 위에는 편안하게 댈 수 있으면 물 이렇게 받아서 잔잔하게 해야 그 씨가 잘 들어서지요. 그러면 바람이나 안 불고 이렇게 하면 이제 모종을 한 이틀, 사흘 되면 이제 뿌리 뾰족뾰족 납니다. 물 담갔다가, 볍씨를, 그렇게 했다가 뾰족뾰족 날 때, 이제 이렇게 뿌리면서 바람 잔 날 이제 걸 해서.)

103040 #2 게난 이제 씨 뿌린 후젠 물 조절을 잘 헤사. 물 하영 놔도 그거 끄서가불곡, 족게 놔도 아이 뒈고, 막.(그러니까 이제 씨 뿌린 후에는 물 조절을 잘 해야. 물 많이 넣어도 그거 끌어가버리고, 적게 넣어도 아니 되고, 막.)

103040 #1 그땐 막 첨 비라도 오민.(그때는 마구 참 비라도 오면.)

103040 #2 밤이도 막 강 지커곡 헤사.(밤에도 마구 가서 지키고 해야.)

103040 #1 저.(저.)

103040 #2 날 동안은.(날 동안은.)

103040 #1 비 하영 오믄 또 터나가카부덴.(비 많이 오면 또 터 나갈까 싶어서.)

103040 #2 터 나가카부덴, 아이 물을 하영 받으믄 허곡, 또 족게 받으믄 안 뒈고.(터 나갈까 싶어서, 아니 물을 많이 받으면 하고, 또 적게 받으면 안 되고.)

103040 #1 물이 이거 ᄆᆞᆯ르믄 졸바로 잘 나질 아니허고.(물이 이거 마르면 바르게 잘 나질 아니하고.)

103040 #2 게난 밤이도 간 자꾸 헤낫수다게.(그러니까 밤에도 가서 자꾸 했었습니다.)

103040 #1 메종 놧당, 아무 메종도 경 허주마는 멩심허지 아니허믄.(모종 놨다가, 아무 모종도 그렇게 했지만 명심하지 아니하면.)

103040 #2 밤이 강 자꾸 헤수다게.(밤에 가서 자꾸 했었습니다.)

103040 #1 흔 사흘 닷새 만이 이것이 발만 내려강 앚앙 뿔이가 아래 벋기 시작헤노믄 이제 올라오믄 웬만헌 건 잘 그때는 좋아.(한 사흘 닷새 만에 이것이 발만 내려가서 앉아서 뿌리가 아래 뻗기 시작해 놓으면 이제 올라오면 웬만한 건 잘 그때는 좋아.)

103040 @ 메종허는 거는 어느 정도 키와야 뒈어.(모종하는 거는 어느 정도 키워야 되어.)

103040 #1 메종은 게난 흔 ᄉᆞ십일 정도.(모종은 그러니까 한 사십일 정도.)

103040 @ 사십일 정도?(사십일 정도?)

103040 #1 예, 여기서는 이제 보통 뭐 늦은 거는 순 나지 아이허여, 우리 영 놔 보믄 이제 ᄉᆞ십일 정도, 삼십오 일에서 ᄉᆞ십일 정도 메종 놔. 게믄 요만큼 허영 흔 조리, 메종 우터레 흔 조리 정도 큽주게. 게믄 것이 그때는 뽑기 좋곡, 거 뽑앙 다 묵으멍 이제 촉촉 물 갈아놩 허믄 던지믄 이제 줄 이렇게 잡앙 허메.(예, 여기서는 이제 보통 뭐 늦은 거는 순 나지 아니해, 우리 이렇게 놔 보면 이제 사십일 정도, 삼십오 일에서 사십일 정도 모종 놔. 그러면 요만큼 해서 한 집게뼘, 모종 위에 한 집게뼘 정도 크지요. 그러면 그것이 그때는 밟기 좋고, 그거 뽑아서 다 묶으면서 이제 촉촉 물 갈아놔서 하면 던지면 이제 줄 이렇게 잡아서 하지.)

103040 @ 사름덜 하영 빌엉은에.(사람들 많이 빌어서.)

103040 #1 하영 빌엉 허는디.(많이 빌어서 하는데.)

103040 #2 하영 빌엉허여.(많이 빌어서 해.)

103040 #1 거 허민 그냥 아멩이나 깍깍 찔러난디, 나중엔 그땐 농촌지도소에선 안 나완양, 걸 얼마나 강조헌디 그냥 잘못허믄 막 야단허멍 줄을 잘 헙센, 줄을 표시가 딱딱딱 뭴 거 아이우꽈? (거 하면 그냥 아무렇게나 깍깍 찔렀었는데, 나중에는 그땐 농촌지도소에서는 안 나와서요, 걸 얼마나 강조했는데 그냥 잘못하면 아주 야단하면서 줄을 잘 하라고, 줄을 표시가 딱딱딱 될 거 아닙니까?)

103040 #2 경 헨 싱건.(그렇게 해서 심었어.)

103040 #1 몰라도 막 둥이믄 이제 탁 다시 이거 소리, 어어어 허믄 탁 넘어가고. 어어어 허믄 탁 넘어가고 허멍, 게난 한 사름썩 간격을 둬은에 싱급주게, 딱 싱거노믄 일로도 맞곡 절로도 딱 맞아.(몰라도 마구 당기면 이제 탁 다시 이거 소리, 어어어 하면 탁 넘어가고, 어어어 하면 탁 넘어가고 하면서, 그러니까 한 사람씩 간격을 둬서 심지요. 딱 심어놓으면, 이쪽으로도 맞고 저쪽으로도 딱 맞아.)

103040 #2 그전인 아멩이나 우리 싱건. 게난 드믄 디영 줒은 디영.(그전엔 아무렇게나 우리 심었어. 그러니깐 드믄 데랑 잦은 데랑.)

103040 #1 나룩 빌 때도 두세 포기썩 영 호미로 탁 걸령 허믄 착착 비영 쉬와, 이거 여러 가지 검질 메는 것도 논 검질이 막 더운 때, 그땐 이제 나룩이 요만큼헌, 요만쯤 커강 요 저 어느 정도 뒈믄 검질을 메는디.(벼 벨 때도 두세 포기씩 이렇게 낫으로 탁 걸려서 하면 착착 베어서 쉬워, 이거 여러 가지 김매는 그것도 논 김이 아주 더운 때, 그때는 이제 벼가 요만큼 한, 요만큼 커가서 요 저 어느 정도 되면 김을 매는데.)

103040 @ 검질은 나중에 물어보쿠다양.(김은 나중에 물어보겠습니다.)

103040 #1 예.(예.)

103041 @ 그다음에 저 나룩 걸름 어떵 마련헙니까?(그다음에 저 벼 거름 어떻게 마련합니까?)

103041 #1 걸름은 옛날 저 이디서 복합비료영 허곡, 용성비료가.(거름은 옛날 저 여기서 복합비료라고 하고, 용성비료가.)

103041 #2 용성산디, 뭣산디, 그때 불치, 불치.(용성인지, 뭔지, 그때 불티, 불티.)

103041 #1 그때 비료는 용성비료 나완 우리 화학비료 썻고.(그 때 비료는 용성비료 나와서 우리 화학비료 썼고.)

103041 #2 불치 사근에.(불티 사서.)

103041 #1 이제 쉐걸름이나 ᄒᆞ끔썩 눈 갈기 전이 경 허영 뿌리곡.(이제 소거름이나 조금씩 논 갈기 전에 그렇게 해서 뿌리고.)

103041 #2 불치 한 사름은 허곡, 게 아니허믄.(불티 많은 사람은 하고, 그렇게 아니하면.)

103041 #1 겡 주로 헌디 이디선 쉐걸름은 보리허고, 주로 나룩에는 그냥 저 이 ᄑᆞ는 비료, 그때 저 뭐 거멍헌 비료 무신거라?(그렇게 주로 했는데 여기선 소거름은 보리하고, 주로 벼에는 그냥 저 이 파는 비료, 그때 저 뭐 거먼 비료 뭐지?)

103041 #2 무시것산디, 거멍헌 거.(뭔지, 거먼 거.)

103041 #1 거 일름도, 비룔 이제 허믄 검질도 잘 난뎅 허영 그 비룔 사당 건 똑 불치ᄀᆞ치 헌디 거멍헤마씨.(그거 이름도, 비료를 이제 하면 김도 잘 난다고 해서 그 비료를 사다가 건 똑 불티같이 거멓습니다.)

103041 #2 백오십 원.(백오십 원.)

103041 #1 겐 그걸 그때 우리 얼마씩 줜 사당 허믄, 막 관에서 그걸 쓰렝 막 헤 가지고, 농촌지도소에서영, 요거 허믄 나룩 실헹 좋넹 허영, 그추룩도 헨 헤보고. 저 뭐 웃드르 낭 싱경 허믄 ᄒᆞᆫ 이십일 뒈가믄 요것이 거 도 상은에, 도 상 ᄑᆞ릇ᄑᆞ릇허게 올라옵주. 게믄 웃비료옌 허영 약간썩, 하영 허믄 안 뒈고, 요소비룔 ᄒᆞ끔썩 데껑 놔두믄 요것이 또 발이 딱 부떵.(그래서 그걸 그때 우리 얼마씩 줘서 사다가 하면, 마구 관에서 그걸 쓰라고 마구 해 가지고, 농촌지도소에서랑, 이거 하면 벼 실해서 좋다고 해서, 그와 같이도 해서 해보고. 저 뭐 '웃드르' 나무 심어서 하면 한 이십일 돼 가면 요것이 거 새싹 서서, 새싹 서서 파릇파릇하게 올라오지요. 그러면 위에 주는 비료라고 해서 약간씩, 많이 안 되고. 요소비료를 조금씩 던져서 놔두면 요것이 또 발이 딱 붙어서.)

103041 #2 요소비료 헐 때도 물 하영 빠부러사. 물 흥당허믄 아이뒈어.(요소비료를 할 때도 물 많이 빼버려야. 물 흥건하면 아니 돼.)

103041 #1 물 너무 하도 안 뒈고, 물이.(물 너무 많아도 안 되고, 물이.)

103041 #2 질착질착헐 정도만 허영.(질척질척할 정도만 해서.)

103041 #1 ᄒᆞ끔 영.(조금 이렇게.)

103041 #2 빠브러사.(빼버려야.)

103041 #1 발만 적실 정도, 그 저.(발만 적실 정도, 그 저.)

103041 #2 물코가, 나오는 물코가 이십주, 경 헷당 그것도 물코 막젱허믄.(물꼬가, 나오는 물꼬가 있지, 그렇게 했다가 물꼬 막으려고 하면.)

103041 #1 게 비료를.(게 비료를.)

103041 #2 밤이 강 막곡.(밤에 가서 막고.)

103041 #1 ᄇᆞ름 잔 때 이거는, 게난 농약도 치지, 비료 ᄇᆞ름 잔 때 허고, 처음엔 농약도 그 무신 분무기가 셔낫수가? 그땐 분무기가 어선, 게난 ᄂᆞᆷ 어신 분무기, 요새 거 무신 영 지는 분무기허믄 ᄉᆞ뭇 그 동네에서 멧 사름이 돈 메왕 계를 허여.(바람 잘 때 이거는, 그러니까 농약도 치지, 비료 바람 잔 때 하고, 처음엔 농약도 거 뭐 분무기가 있었습니까? 그땐 분무기가 없어서, 그러니까 남 없는 분무기, 요새 거 뭐 이렇게 지는 분무기하면 사뭇 그 동네에서 몇 사람이 돈 모아서 계를 해.)

103041 #2 분무기 아이고, 그땐 무신.(분무기 아니고, 그때는 무슨.)

103041 #1 아이라게, 분무기라게.(아니야, 분무기야.)

103041 #2 닮은 걸로, 무신거.(같은 걸로, 무엇.)

103041 #1 이제 헹 이피엔[97] 농약도 썻고, 이렇게 그때부터. 우리 처음엔 농약을 몰르고 안 헷수다게. 농약을 모르니까 막 거 나비 들어오고 막 헨, 병이 이선 멜[98] 들엇저 허여, 멜강나방인디.(이제 해서 '이피엔' 농약도 썻고. 이렇게 그때부터. 우리 처음에는 농약을 모르고 안 했습니다. 농약을 모르니까 마구 거 나비 들어오고 마구 해서, 병이 있어서 '멜' 들었다고 해서, '멸강나방'인데.)

103041 #2 무신거 싯수가?(무엇 있었습니까?)

103041 #1 셍이 소리, 제비 소리. 멜 들엇저 허는디 멸강나방이옌 허영 그것이 이 이파리 허믄 ᄒᆞ를에도 막 갈가먹어. 게믄 이건 여기선 우리 무신 약이 잇수강? 뭐 허꽝? 처음엔 헷는디 뒷헤부턴 막 농촌지도소에서양, 나산 이거 대대적으로 약 아이허믄 안 된다고 허는디, 분무기영 상 허렌 허난 무신 요즘사 기계로 헷지아니허꽈? 그땐 지는 분무기도 셧수가? 우리 다섯 농가, 여섯 농가 합쳥 돈 이제 분무기를 상.(새 소리, 제비 소리. '멜' 들었다고 하는데 멸강나방이라고 해서 그것이 잎 하면 하루에도 막 갉아먹어. 그러면 이거는 여기선 우리 무슨 약이 있었습니까? 뭐 할까? 처음에는 했는데 다음해부터는 마구 농촌지도소에서요, 나서서 이거 대대적으로 약 아니 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분무기랑 사서 하라고 하니까 무슨 요즈음에야 기계로 하지 아니합니까? 그때는 지는 분무기도 있었습니까? 우리 다섯 농가, 여섯 농가 합쳐서 돈 이제 분무기를 사서.)

103041 #2 하나 사믄, 하나 사믄 그거 허곡, 이제, 이제거추룩 경 분무기가, 그 땐 불치, 멕에 불치 졍 강 뿌리는 사름도 싯곡 헤도.(하나 사면, 하나 사면 그거 하고, 이제 지금처럼 그렇게 분무기가, 그 때는 불재, 멱서리에 불재 져 가서 뿌리는 사람도 있고 해도.)

103041 #1 게난 분무기로 헹 약이 처음 나올 때는 우리도양, 약 허멍 이피엔 헌 농

97) '이피엔'은 농약 이름이다.
98) '멜'은 멸치인데, 여기서는 '멸강나방'을 말한다.

약 살충제로 써십주게. 살충제, 하여튼 벌거지만 못 먹으믄 뒈어, 나룩은. 경 헨 이피엔 헌 농약도.(그러니까 분무기로 해서 약이 처음 나올 때는 우리도요 약 하면서 '이피엔'이라고 한 농약 살충제로 썼지요. 살충제, 하여튼 벌레만 못 먹으면 돼, 벼는. 그렇게 해서 '이피엔'이라고 한 농약도.)

103041 #2 막 ᄀᆞ물안에 나룩 원 아이뒈난 헤도 이섯수다. 그땐 우리 막 싱근 삭도 못 허고게.(아주 가물어서 벼 원 아니 됐던 해도 있었습니다. 그땐 우리 마구 심은 삯도 못 하고.)

103041 #1 그땐 어떠냐믄 돌 칸다, 흑 칸다 헤 가지고.(그땐 어떠냐면 돌 탄다, 흙 탄다 해 가지고.)

103041 #2 언제산디.(언제인지.)

103041 #1 막 ᄋᆞ름네낭 석 ᄃᆞᆯ을 그냥 ᄀᆞ물안 비 ᄒᆞᆫ 적 안 오난.(아주 여름 동안 석 달을 그냥 가물어서 비 한 적 안 오니까.)

103041 #2 나룩 못 헤 먹어낫수다.(벼 못 해 먹었었습니다.)

103041 #1 무신거 밧딘 퍼렁헌 것도 실 리가 잇수가, 엇곡 헤 가지고 게난 사름 먹을 것도 어시 ᄆᆞᆫ 경 헤낫주.(무엇 밭에는 파란 것도 있을 리가 있습니까, 없고 해 가지고 그러니까 사람 먹을 것도 없이 모두 그렇게 했었지.)

103041 #2 게난 ᄆᆞᆫ 비엉 쉐 주멍 내불멍.(그러니까 모두 베어서 소 주면서 내버려.)

103041 #1 그땐 허난 물이 엇지, 물 신디 ᄒᆞ끔 저 멀리서 물 대불믄 깍더렌 물이 안 와. 논 깍더렌 안 오믄 우리도 그냥, 하도 허단 비 안 오고 허난 나중에 포기헨 내불멍 헷수다. 그런 헤도 싯고.(그때는 하니까 물이 없지, 물 있는데 조금 저 멀리서 물 대버리면 끝으로는 물이 안 와. 논 끝으로는 안 오면 우리도 그냥, 하도 하다가 비 안 오고 하니까 나중에 포기해서 내버리면서 했습니다. 그런 해도 있고.)

103041 #2 나룩 농사도 그추룩.(벼농사도 그처럼.)

103041 #1 나룩은 하이튼 물이 호령이난, 물만 시믄 잘 뒈주.(벼는 아무튼 물이 호령이니까, 물만 있으면 잘 되지.)

103042 @ 거고 저 나룩씨 뿌릴 때 어떵 뿌립니까?(그리고 저 볍씨 뿌릴 때 어떻게 뿌립니까?)

103042 #1 씨는 흑을 펜안히 거 저 수답에 보통 메종 놉니다게. 이거 밧디 노믄.(씨는 흙을 평평하게 거 저 수답에 보통 모종 놉니다. 이거 밭에 놓으면.)

103042 #2 물을 빠불어사.(물을 빼버려야.)

103042 #1 ᄀᆞ믈앙 나중에 메종 메젱 헤도 궂곡 허난 수답 항상 물이 차 있는, 발 디디믄 요 동모리ᄁᆞ지 움싹움싹 들어오는 수답덜 싯지 아이허꽝? ᄆᆞ른 것이 건답이옌 허고, 수답이옝 허는디 수답에 풀 헤당 미리 ᄒᆞᆫ 열흘 전이 꼴앙은에 거 저슬살이 풀 헤당 꼴앙 막 알로 ᄇᆞᆯ랑 흑 올라오게 허영 펜안히 골랑 ᄒᆞᆫ 닷새 물을 앚져마씨. 게믄 물이 이제 풀 썩어가곡 헤가믄 냄새도 나곡, 물이 거무룽, ᄇᆞᆯ그룽헌 물이 영, 거 물 받앙 놔두믄, 경 헤가믄 영 강 봉 야, 이거 메종 놓게 뒘신게 허믄, 사흘 전이 씰 물에 컷당 거 이제 ᄇᆞ름 잔 날이나, 이제 이건 줏게 뿌려사 허여마씨. 메종, 메 따문에 줏게 안 뿌리

믄 드물믄 얼마 나오질 아니허여, 메종이. 게난 줓게.(가물어서 나중에 모종 매려고 해도 궂고 하니까 수답 항상 물이 차 있는, 발 디디면 요 무릎까지 움싹움싹 들어는 수답들 있지 아니합니까? 마른 것이 건답이라고 하고, 수답이라고 하는 데 수답에 풀 해다가 미리 한 열흘 전에 깔아서 저 겨우살이 풀 해다가 깔아서 아주 아래로 밟아서 흙 올라오게 해서 평평하게 골라서 한 닷새 물을 앉혀요. 그러면 물이 이제 풀 썩어가고 해가면 냄새도 나고 물이 거무스름, 불그스름한 물이 이렇게, 거 물 받아서 놔두면, 그렇게 해가면 이렇게 가 봐서 야, 이거 모종 놓게 되고 있다고 하면, 사흘 전에 씨를 물에 담갔다가 그거 이제 바람 잔 날이나, 이제 이건 잦게 뿌려야 해요. 모종, 모 때문에 잦게 안 뿌리면 드물면 얼마 나오지를 아니해, 모종이. 그러니까 잦게.)

103042 #2 물소곱이 거라부난.(물속에 것이니까.)

103042 # 또 피 뽑아불곡 허믄 얼마 뒈질 아니허난 이제 줓게 뿌려삽니다게. 줓게 뿌리믄 처음에 줓아 뵈어도 나중 소끄곡 좀 저 피 메곡 헤 가믄 제대로 뒈어 강은에.(또 피 뽑아버리고 하면 얼마 되지를 아니하니까 이제 잦게 뿌려야 합니다. 잦게 뿌리면 처음에 잦아 보여도 나중 솎고 좀 저 피 매고 해 가면 제대로 되어 가서.)

103042 #2 게난 물에 뿌렁게, 물이, 물이 막.(그러니까 물에 뿌려서, 물에, 물에 마구.)

103042 @ 예, 손으로?(예, 손으로?)

103042 #1 예, 손으로.(예 손으로.)

103042 #2 손으로 뿌려.(손으로 뿌려.)

103042 #1 손으로, 게난 영 ᄇᆞ름 잔 때 허믄 멩텡이에 영 담앙 그거 헹 흔 줌썩 앗아내멍 영 봥 착착 씨, 거 물 뭐영 허믄 씬 훌근 거난.(손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바람 잔 때 하면 망태기에 이렇게 담아서 그거 해서 한 줌씩 가져내면서 이렇게 봐서 착착 씨, 거 물 뭐랑 하면 씨는 굵은 거니까.)

103042 #2 삐긴 좋아마씨.(뿌리기는 좋아요.)

103042 #1 어디 간 거, 안 간 거 알아집주게. 게믄 그거 보멍 ᄇᆞ름 쎄게 불믄 못 허고, ᄇᆞ름 잔 날만 삐영은에.(어디 간 거 안 간 거 알지지요. 그러면 그거 보면서 바람 세게 불면 못 하고, 바람 잔 날만 뿌려서.)

103042 #2 게난 씨 뿌리젠 허믄 물을 이만이 헷당 거 빠브러사, 흑을 영 알아질 거라부난.(그러니까 씨 뿌리려고 하면 물을 이만큼 했다가 그거 빼버려야, 흙을 이렇게 알 수 있을 거라서.)

103042 #1 물 첨 빼족빼족허게 이제, 물이 뽀족뽀족헹은에 또.(물 참 빼족빼족하게 이제, 물이 뾰족뾰족해서 또.)

103042 #2 경 헷당 ᄃᆞ시 이제, 거 나가믄 또 물 받아사, 이 물에 나는 거난, 물 받아사 물 크곡, 물 너미 하영 받으믄 ᄒᆞ끔 영 수답 알러레 물 ᄒᆞ끔 영 골쳉이로, 광이 매날 그디 곶당 놔두곡 무신 뭐 저 거시기 술칵 술칵 ᄋᆞ정가근에 불 부쳥, 그레 바리지 아니허믄 누게 논더레 박아지곡.(그렇게 했다가 다시 이제, 거 나가면 또 물 받아야, 이 물에 나는 거니까, 물 받아야 물 크고, 물 너무 많이 받으면 조금 이렇게 수답 아래로

물 조금 이렇게 골짜기로, 괭이 만날 거기 갖다가 놔두고 무슨 뭐 저 거세기 관솔, 관솔 가져가서 불붙여서, 그리 보지 아니하면 누구 논으로 넘어지고.)

103042 #1 저 게도 엿날은 이제ᄀᆞ치 까치옌 헌 것이 어섯수다게. 게난 우리가 그런 건 이제 헤시믄 까치가 줏어 먹어불주마는.(저 그래도 옛날은 이제같이 까치라고 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 이제 했으면 까치가 주워 먹어버리지만.)

103042 #2 먹당도 남을 건디. 그땐 이젠.(먹다가도 남을 건데. 그때는 이제는.)

103042 #1 뭐 그런 거는 엇고, 또 그런 가마기 또 먹지 아니허곡 허믄 꿩이나 가끔 뭐 헤도 꿩도 저 물 이서노난 잘 안 와마씨. 게 메종에는 크게 일 어시 이제 나기 시작만 헤 노믄 그거 ᄒᆞ끔 이제 ᄒᆞᆫ 보름, ᄒᆞᆫ 덜 뒈 가믄 발이 아래 영 사려지곡 커가믄 들어강 영 고량으로 저 다 헷당은에 피도 뽑곡, 어지러운 첨 잡풀덜도 ᄏᆞᆯ 뽑아 메멍 길루기 시작헙주. 게당 또 봉은에 메가 약허다 허믄 영 봉 요솔 ᄒᆞ끔썩 데껴마씨. 하영 허믄 절대 안 뒈고, 약간썩만 산득산득 헤도 물에 들어간 거난, 골로루 다 먹엉 메종이 노랑헷당 가무릉헌 게 이제 첨 ᄒᆞ끔 실헤갑주게. 경 헹 ᄒᆞᆫ 둘, 이제 ᄒᆞᆫ ᄉᆞ십일 키우믄 보통 싱글만 헙니다. 게 이거 메칠 뒈서 허믄 ᄒᆞᆫ 마흔날 뒈서, 영 헹 허믄.(뭐 그런 거는 없고, 또 그런 까마귀 먹지 아니하고 하면 꿩이나 가끔 뭐 해도 꿩도 저 물 있으니까 잘 안 와요. 그거 모종에는 크게 일 없이 이제 나기 시작만 해 놓으면 그거 조금 이제 한 보름, 한 달쯤 돼 가면 발이 아래 이렇게 사려지고 커 가면 들어가서 이렇게 고랑으로 저 다 했다가 피도 뽑고, 어지러운 참 잡풀들도 깨끗하게 뽑아 매면서 기르기 시작하지요. 그러다가 또 봐서 모가 약하다 하면 이렇게 봐서 요소비료를 조금씩 던지지요. 많이 하면 절대 안 되고, 약간씩만 산득산득해도 물에 들어간 거니까, 골고루 다 먹어서 모종이 노랗다가 거무스름한 게 이제 참 조금 실해가지요. 그렇게 해서 한 달, 이제 한 사십일 키우면 보통 심을 만합니다. 그렇게 이거 며칠 돼서 하면 한 마흔 날 돼서, 이렇게 해서 하면.)

103042 #2 게도 쉰 날도 뒈언, 우린 이만 헌 거 싱그부난에.(그래도 쉰 날 되어서, 우리는 이만큼 한 거 심어버리니까.)

103042 #1 메종이 안 크믄 쉰 날이라도 뒝 싱그는디.(모종이 안 크면 쉰 날이라도 돼서 심는데.)

103042 #2 쉰 날 뒈엉은에 싱거부난에, 그땐 잘 아이 뒈언, 얼룩달룩헌 거.(쉰 날 돼서 심어버리니까, 그때는 잘 아니 되어서, 얼럭덜럭한 거.)

103042 #1 보통 뒈믄 ᄒᆞᆫ 마흔 날 ᄉᆞ시믄 이제 싱극곡.(보통 되면 한 마흔 날 근방이면 이제 심고.)

103042 #2 게난 완전 기술이 부족헨 우리도 경 헷주기, 그땐. 수산[99] 하르방덜은 메종을 멩텡이에 정 온 거 보믄 첨 좋앙, 우리 건 나빠 뵝 허믄.(그러니까 완전 기술이 부족해서 우리도 그렇게 했지요, 그땐. '수산' 할아버지들은 모종을 망태기에 져서 온 거 보면 참 좋아서, 우리 그건 나빠 보여서 하면.)

103043 @ 그다음에 그 검질은 멧 번 멥니까?(그다음에 그 김은 몇 번 맵니까?)

99) '수산'은 제주시 애월읍 수산리를 말한다.

103043 #1 검질은 거 흔 서너 번 메는디 처음엔, 이.(김은 그거 한 서너 번 매는데 처음엔, 이.)

103043 @ 뭘로 메어?(무엇으로 매어?)

103043 #1 손으로 논 검질.(손으로 논 김.)

103043 #2 피나 뽑앙게.(피나 뽑아서.)

103043 #1 아니, 나록 검질이 고량에.(아니, 벼 김이 고랑에.)

103043 @ 고량에 이신 것덜.(고랑에 있는 것들.)

103043 #1 골갱이로 헹 이제.(호미로 해서 이제.)

103043 @ 옛날 저 뭘로 아니허연, 저 뭐 제초제, 아니, 제초제 아니고 미는 거.(옛날 저 무엇으로 아니 했어, 저 뭐 제초제. 아니, 제초제 아니고 미는 거.)

103043 #1 미는 거.(미는 거.)

103043 @ 거 뭐옌 허는고?(그거 뭐라고 하는가?)

103043 #1 것도 처음엔 어섯수다게.(그것도 처음에는 없었습니다.)

103043 @ 거 뭐옌 헌다마는, 쒜로 뭔 거, 영 헌 거.(그거 뭐라고 한다마는, 쇠로 된 거, 이렇게 한 거.)

103043 #1 밀레[100]옌 허던가, 미레기옌 허여. 영 밀엉 강 돌아가멍 흔 짝 흑도 일어나곡 허멍 검질 영.('밀레'라고 하던가, '밀레'라고 해. 이렇게 밀어서 가서 돌아가면서 한 짝 흙도 일어나고 하면서 김 이렇게.)

103043 @ 검질 영 메어지멍.(김 이렇게 매어지면서.)

103043 #1 건 고량으로 영 작작, 골 맞추앙 허믄.(그건 고랑으로 이렇게 작작, 고랑 맞추어서 하면.)

103043 @ 손으로.(손으로.)

103043 #1 예, 그거는 나중에 것덜 나오고 처음엔 다 업더젼 멧주기.(예, 그거는 나중에 것들 나오고 처음에는 다 엎어져서 맸지요.)

103043 @ 손으로.(손으로.)

103043 #1 손으로 다 헤나믄.(손으로 다 해 나면.)

103043 #2 멧 사름썩게.(몇 사람씩요.)

103043 #1 손콥이, 요즘 장갑 끼주, 옛날 장갑이 셔. 그땐 안 쩐 일 헷수다게. 게난 거 논 검질 메나믄 손콥이 믄딱 몽글아져.(손톱이, 요즘 장갑을 끼지, 옛날 장갑이 있어. 그땐 안 껴서 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논 김매어 나면 손톱이 모두 모두 닳아져.)

103043 #2 물 웃 떵 헤 놓곡 허믄.(물 위에 떠서 해 놓고 하면.)

103043 #1 물 웃 뜨고, 영 검질.(물 위에 뜨고, 이렇게 김.)

103043 #2 게난 우린 아기 둘곡.(그러니까 우리는 아기 데리고.)

103043 @ 거 흔 멧 번 메어마씸?(그거 한 몇 번 맵니까?)

103043 #1 시 번.(세 번.)

103043 #2 경 헌 사름도 싯고, 두 번 헌 사름도 싯고.(그렇게 한 사람도 있고, 두 번

100) '밀레'는 논바닥을 고르는 도구이다.

한 사람도 있고.)

103043 #1 것도 흔두 번 헷당 나중에 피 메곡 헤야주, 나중. 제일 다 고고리 올라와 가믄 멩심헹 피 메곡 허영, 것도 피 털어져노믄 요거 씨가 얼른 끈질 못허여. 새도 나곡 자꾸 헤노난 피는 멩심헹 메지 아니허믄 안 뒈어.(그것도 한두 번 했다가 나중에 피 매고 해야지, 나중에. 제일 다 이삭 올라와 가면 명심해서 피 매고 해서, 그것도 피 떨어져 놓으면 요거 씨가 얼른 끊질 못해. 띠도 나고 자꾸 해 놓으니까 피는 명심해서 매지 아니하면 안 돼.)

103043 @ 고고리 피기 전에 메야 뒈겟네예.(이삭 피기 전에 매야 되겠네요.)

103043 #1 예, 고고리 피어갈 때.(예, 이삭 피어갈 때.)

103043 #2 고고리 피어 갈 때, ᄀᆞ찌 비슷헤노난.(이삭 피어갈 때, 같이 비슷하니까.)

103043 #1 똑 나룩이나 뭐 비슷헤노난, 요놈으 건 첨 잘 안 멧당 씨도 금방 털어져, 이제.(똑 벼나 뭐 비슷하니까, 요놈의 건 참 잘 안 맸다가 씨도 금방 떨어져, 이제.)

103043 #2 비슷헤노난 허기 곶어마씨.(비슷하니까 하기 곶어요.)

103044 @ 그다음에 나룩밧디 어떤 검질덜 이서마씨?(그다음에 벼 밭에 어떤 김 들 있어요?)

103044 #1 나룩밧딘 저 물, 물세기[101]옌 허영.(벼밭에는 저 물, '물세기'라고 해서.)

103044 #2 거 무신 검질고? 나룩밧디.(그거 무슨 김인가? 벼밭에.)

103044 @ 예?(예?)

103044 #1 물세기 좀 넙작넙작허멍.('물세기' 좀 넓적넓적하면서.)

103044 #2 물세기.('물세기'.)

103044 #1 그 저 무신거 헌 거 잇수다게. 그런 거 이제 뽑아내곡, 주로 이제 거. (그 저 무엇 한 거 있습니다. 그런 거 이제 뽑아내고 주로 이제 거.)

103044 #2 잊어불지도 안 허여게, 이 하르방[102].(잊어버리지도 안 해요, 이 '하르방'.)

103044 #1 쉐터럭, 쉐터럭 닮은 거.(소털, 소털 닮은 거.)

103044 @ 뭐라, 거난?(뭐야, 그러니까?)

103044 #1 뭐, 허허허허(웃음) ᄀᆞ만 셔봐, 무신 그거 시컴[103]인가 뭐 이제 요놈으 것이 부그락이 낭은에 요걸 잘 아이 헷당은 나중에 온 나룩밧이 번져, 게난 그걸 일엇다 허믄 금방 메지 아이허믄 안 뒈어. 물세기렌.(뭐 허허허허(웃음) 가만 있어봐, 무슨 그거 '시컴'인가 뭐 이제 요놈의 것이 보각하게 나서 요걸 잘 아니 했다가는 나중에 온 벼밭에 번져, 그러니까 그걸 잃었다 하면 금방 매지 아니하면 안 돼. '물세기'라고.)

103044 #2 아이고, 잘 멧수다게, 우리도게.(아이고, 잘 맸습니다, 우리도요.)

103044 #1 첨 이 손콥이 다 달아지게 멧주게. 나록을, 게 아니믄 이거 검질 씨와노믄양, 잘 옴지도 아니허여.(참 손톱이 다 닳아지게 맸지요. 벼를, 그렇게 아니하면 이거 김 씌워 놓으면요, 잘 여물지도 아니해.)

---

101) '물세기'는 김이 소털처럼 생겼으며, 논에 나는 김의 종류이다.
102) '하르방'은 할아버지인데, 여기서는 남편을 일컫는다.
103) '시컴'은 논에 나는 김의 종류이다.

1030443 #2 나룩 장만허젠 허믄양, 멘딱 그거 들어강.(벼 장만하려고 하면요, 모두 그거 들어가서.)

103044 @ 모든 농사가게, 검질 이시믄 안 뒈어.(모든 농사가요, 김 있으면 안 돼.)

103044 #2 멘딱 나룩 장만헤노믄.(모두 벼 장만해 놓으면.)

103044 #1 검질 씨와, 씨와노믄 이디 나룩도 잘 안 옴고.(김 씌워, 씌워 놓으면 여기 벼도 잘 안 여물고.)

103044 #2 게믄 막 요 밧디 나룩 아이뒛저. 요 밧딘, 검질 씨왓젠 허멍. 멘딱 나룩, 논덜이난 그 하르방덜 넘어가멍덜 ᄀᆞᆫ곡, 놈덜토 ᄀᆞᆫ곡, 게난 우린 잘 헤졋저.(그러면 마구 요 밭에 벼 아니 됐다. 요 밭은, 김 씌웠다고 하면서, 모두 벼, 논들이니까 그 할아버지들 넘어가면서들 말하고, 남들도 말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잘 해졌다.)

103044 #1 게난 아까 이, 우리 집사름 ᄀᆞᆫ듯이 이거 물 따문에양, 이웃 간에도 이건 막 싸와마씨. 매닥질 허멍 싸웁니다게.(그러니까 아까 이, 우리 집사람 말하듯이 이거 물 때문에요, 이웃 간에도 이거는 마구 싸워요. 매닥질 하면서 싸웁니다.)

103044 #2 물이, 물이.(물이, 물이.)

103044 #1 물이 이녁 헷단, 나도 거 멧 번 에피소드 난 건 무사냐믄 지이 나룩 싱건 이제 물 근근이 대언. 오늘 게믄 붉도록 물 대믄 뒈겟다 허연 것도 ᄎᆞ례대로 딱 헤논디, 아, 저 멀리 가멍 이렇게 보난 누게 사름이 어두룩헌디, 무시거 믄 해 젼 어두운디 아뜩아뜩 허는 것이 나, 이상허다 이제 집더레 가단, 또 완 보난양, 우리 밧디, 우리 논에 헌 것이 그 물코 다 터불언 지네 논에, 지네 논더레 터부난, 그냥 이제.(물이 이녁 했다가, 나도 그거 몇 번 일화 난 건 왜냐하면 자기 벼 심어서 이제 물 근근이 대었어. 오늘 그러면 밝도록 물 대면 되겠다 해서 것도 차례로 딱 했는데, 아, 저 멀리 가면서 이렇게 보니까 누군가 사람이 어둑한데, 무엇 모두 해 져서 어두운데 아뜩아뜩 하는 것이 나, 이상하다 이제 집으로 가다가, 또 와서 보니까요, 우리 밭에, 우리 논에 한 것이 그 물꼬 다 터버려서 자기네 논에, 자기네 논으로 터버리니까, 그냥 이제.)

103044 #2 나 다 경.(나 다 그렇게.)

103044 #1 이건양, 지네 땅은.(이건요, 자기네 땅은.)

103044 #2 뚠 사름도 경 헤난, 논더레.(다른 사람도 그렇게 했었어, 논으로.)

103044 #1 물 인심이옌 헌 건 첨 멜팟디 인심ᄀᆞ찌.(물 인심이라고 한 건 참 멸치어장에 인심같이.)

103044 #2 이 나룩은 것에 막.(이 벼는 것에 막.)

103044 #1 모지우다게.(모집니다.)

103044 #2 못 젼디는 겁디다게. 물이 조정헹.(못 견디는 겁니다. 물이 조정해서.)

103044 #1 먹을 땐 영, 게난 쌍놈이 일 허고, 양반이 먹는 것이 나룩이옌 허여마씨.(먹을 때는 이렇게, 그러니까 쌍놈이 일하고, 양반이 먹는 것이 벼라고 해요.)

103044 #2 게난양 물 따문에.(그러니까요, 물 때문에.)

103044 #1 양반이 ᄀᆞ만이 앚앙 먹긴 좋은디, 일은 쌍놈이라, 이건 완전이.(양반이 가만히 앉아서 먹기는 좋은데, 일은 쌍놈이야, 이건 완전히.)

103044 #2 혼번 물 대영 ᄀᆞ만 놔둬줌시믄 허주마는 못 허영 이거. 물을 ᄂᆞ리왓닥 올리왓닥 허는 따문에, 겐 말쩬 막 물, 이제 그 어디고? 수산봉 저수지 사름덜 저 물 ᄒᆞ를은 이디 주곡, ᄒᆞ를은 요 펜 밧디 주고, 믄딱 그 사름덜이 왕 ᄀᆞᆯ아주난, 경 헤가난 덜 싸왓수다게. 그 사름덜이 완 막 경 ᄀᆞᆯ아줜.(한번 물 대어서 가만 놔두고 있으면 하지만 못 해서 이거. 물을 내렸다 올렸다 하는 때문에, 그건 말째는 마구 물, 이제 그 어디인가? '수산봉' 저수지 사람들 저 물 하루는 여기 주고 하루는 요 편 밭에 주고, 모두 그 사람들이 와서 말해주니까, 그렇게 해가니까 덜 싸웠습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마구 그렇게 말해줘서.)

103045 @ 그 나룩 수확은 어떵 헙니까?(그 벼 수확은 어떻게 합니까?)

103045 #1 나룩은 다 익으믄 호미로 비는디 이게 줄이 이렇게 맞추아 노믄 그 전인 아멩이나 싱그난 비기도 구진디, 이젠 탁 허믄 세 포기, 네 포기 다닥다닥 비엉 다 눅졋당, 이것이 비나 와노믄, 또 논에 이거, 아무 곡식도 경 허주마는양, 멩심헤야 허여. 게난 이제 비영 놧당 허멍, 전인 영 홀타놧수다게, 가렝이.(벼는 다 익으면 낫으로 베는데 이게 줄이 이렇게 맞추어 놓으면 그전에는 아무렇게나 심으니까 베기도 궂은데, 이젠 탁하면 세 포기, 네 포기 다닥다닥 베어서 다 눕혔다가, 이것이 비나 와놓으면, 또 논에 이거, 아무 곡식도 그렇게 하지만요, 명심해야 해. 그러니까 이제 베어서 놨다가 하면서, 전에는 이렇게 홅어놨습니다, 그네.)

103045 @ 비, 비믄 묵어야 헐 거 아니우꽈?(비, 비면 묶어야 할 거 아닙니까?)

103045 #1 묵엉.(묶어서.)

103045 #2 혼 줌썩 묵엉 하영도 안 무꺼.(한 줌씩 묶어서 많이도 안 묶어.)

103045 #1 겟당 나중이 거 탈곡기 허젠허믄 혼 줌썩 묵엉 요만씩.(그랬다가 나중에 거 탈곡기 하려고 하면 한 줌씩 묶어서 요만큼씩.)

103045 @ 클로 허지 아니허연 옛날은?(틀로 하지 아니해서 옛날은?)

103045 #1 옛날은 클로, 클로 허믄 혼 사름은 이제 보리 홀트듯이 홀탕 이디 아사주곡 허믄 헹 찝은 묵어가멍 경 헨 장만헷수다. 게고 돌에 영 놩 착착 두드려서 훌트기도 허고, 돌로 영 석돌 닮은 거 허영, ᄂᆞ신 돌 허영은에.(옛날은 틀로, 틀로 하면 한 사람은 이제 보리 홅듯이 홅어서 여기 가져주고 하면 해서 짚은 묶어가면서 그렇게 해서 장만했습니다. 그리고 돌에 이렇게 놔서 착착 두드려서 홅기도 하고, 돌로 이렇게 석돌 닮은 거 해서, 날카로운 돌 해서.)

103045 #2 이만썩 허영 영 착착 두드렁.(이만큼씩 해서 이렇게 착착 두드려서.)

103045 #1 와작착, 와작착.(와작착, 와작착.)

103045 #2 막 천장만장 차작차작.(마구 천장만장 차작차작.)

103045 #1 멍석 ᄀᆞᆯ아놓곡 허영은에, 튀지 못허게 허영.(멍석 깔아놓고 해서, 튀지 못하게 해서.)

103045 #2 게난게, 농사짓는 게 농사짓는 거산디 뭣산디.(그러니까요, 농사짓는 게 농사짓는 건지 뭔지.)

103045 #1 돌로 그냥 가운디 놩 막 두드렷주기.(돌로 그냥 가운데 놔서 마구 두들겼

지요.)

103045 #2 경 헹, 그추룩 헹.(그렇게 해서, 그처럼 해서.)

103045 #1 경 헨 문 불리곡 헤노믄.(그렇게 해서 모두 불리고 해놓으면.)

103045 @ 돌 이름 뭔지 알아지쿠가?(돌 이름이 뭔지 알 수 있습니까?)

103045 #2 멧, 멧돌 아이 그거?(맷, 맷돌 아니 그거?)

103045 #1 석돌이옌 허영.(석돌이라고 해서.)

103045 @ 석돌?(석돌?)

103045 #1 석돌이옌 영 앙상헌 거.(석돌이라고 이렇게 앙상한 거.)

103045 #2 앙상혜도 민딱헌 돌 아이라?(앙상해도 미끈한 돌 아니야?)

103045 #1 모난 돌, 모난 돌 영 벌러진 돌 헤사 걸 허지.(모난 돌, 모난 돌 이렇게 깨진 돌 해야 그걸 하지.)

103045 #2 ᄂᆞ신 돌 헤사.(날카로운 돌 해야.)

103045 #1 거 안 허믄 잘 안 두드려져마씨. 게믄 막 마주 앚앙 질게 영 놩 와작착 와작착.(거 안 하면 잘 안 두들겨져요. 그러면 마구 마주 앉아서 길게 이렇게 놔서 와작착 와작착.)

103045 #2 저펜이레 할망 두들곡, 이펜이도 두들곡, ᄀᆞ찌 막 두들언. 경 헨도 하영 헷수다게. 옛날 경헌디 그 후제 탈곡기여, 무시거여 허멍.(저편으로 할머니 두들기고, 이편으로도 두들기고, 같이 마구 두들겼어. 그렇게 해도 많이 했습니다. 옛날은 그런데 그 후에 탈곡기여, 무엇이여 하면서.)

103045 #1 또 그렇게 허당은에 보리 홀트는 것이 이 가렝이, 그 가렝이 저 뭐 무신 거옌 허여, 저 잊어부런, 그 보리 홀트는.(또 그렇게 하다가 보리 훑는 것이 그네, 그 그네 저 뭐 무엇이라고 해, 저 잊어버렸어, 그 보리 훑는.)

103045 @ 클?(틀?)

103045 #2 클, 클이 아이고 무시거? 무신.(틀, 틀이 아니고 무엇? 무슨.)

103045 #1 가렝이, 보리 홀트는 가렝이, 이렇게 헌 거 무사 영 헹 보리농사.(그네, 보리 훑는 그네, 이렇게 한 거 왜 이렇게 해서 보리농사.)

103045 @ 가렝이?(그네?)

103045 #1 가렝이주게. 그걸로 홀탄.(그네지요. 그걸로 훑어서.)

103045 #2 가렝이옌 허여 이디선. 영 영헨 줍아 뎅기멍.(그네라고 해 여기서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잡아 다니면서.)

103045 #1 보리 홀트는 거.(보리 훑는 거.)

103045 @ 홀트는 거 잘 기억허믄 뒙니다. 옛날 그 도구.(훑는 거 잘 기억하면 됩니다. 옛날 그 도구.)

103045 #2 게메, 도구를 잘 기억.(글쎄, 도구를 잘 기억.)

103045 @ 도구 이름이 뭔가?(도구 이름이 뭔가?)

103045 #2 옛날 가렝이 우린 가렝이옌 헨, 이디선.(옛날 그네 우리는 그네라고 했어, 여기서는.)

103045 @ 도께질은 안 헤 봅디가?(도리깨질은 안 해 봤습니까?)
103045 #2 아이고, 무사 아이 헷수가? 도께질.(아이고, 왜 안 했습니까? 도리깨질.)
103045 #1 도께질도 헷는디.(도리깨질도 했는데.)
103045 #2 도껜 나룩은 잘 아니 헨.(도리깨는 벼에는 잘 안 했어.)
103045 #1 나룩은 이디선.(벼는 여기서는.)
103045 #2 문딱 져나곡 저.(모두 져나고 저.)
103045 #1 도께질은 잘 아니헤난.(도리깨질은 잘 안 했어.)
103045 #2 돌로 문딱.(돌로 모두.)
103045 #1 도께로 어떵 허냐 허믄, 헤노믄 더러 까지곡 헤노믄, 쏠 반작 나불믄 도께질은 잘 아이헙니다.(도리깨로 어떻게 하냐 하면, 해 놓으면 더러 까지고 해 놓으면, 쌀 반작 나버리면 도리깨질은 잘 안 합니다.)
103045 #2 쏠 부솨지고.(쌀 부수어지고.)
103045 #1 거 잘못헹 너무 몰른 거 헤불믄 부수믄 문딱 도께에 맞으믄 쏠 까져부러.(그거 잘못해서 너무 마른 거 해버리면 부수면 모두 도리깨에 맞으면 쌀 까져버려.)
103045 @ 까져부니까예.(까져버리니까요.)
103045 #2 까지곡 허난에.(까지고 하니까.)
103045 #1 아이허곡 주로 허단 나중에는 이제 거 돌아가는 영 탈곡기.(아니하고 주로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거 돌아가는 이렇게 탈곡기.)
103045 #2 발로 볼라나서, 발로 볼르멍.(발로 밟았었어, 발로 밟으면서.)
103045 #1 발로 볼르멍 그자.(발로 밟으면서 그저.)
103045 #2 탈곡기도 헤끄만헌 건디 니아까 닮은 것에 무시거 허영은에.(탈곡기도 조그마한 건데 리어카 닮은 것에 무엇 해서.)
103045 #1 영 탈곡기 그저.(이렇게 탈곡기 그저.)
103045 #2 발로 영 영 영 볼랑.(발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밟아서.)
103045 #1 발로 볼르멍.(발로 밟으면서.)
103045 #2 발로 볼랏수다. 볼르곡 무신거.(발로 밟았습니다. 밟고 무엇.)
103045 #1 밀엉 가멍, 돌아가는 걸로 확.(밀어서 가면서, 돌아가는 것으로 확.)
103045 @ 돌아가는 거?(돌아가는 거?)
103045 #2 예, 경 헤근에 밧디 영, 밧도 거 두둑이 좋은 디 가곡, 두둑 이상헌 디 강 헤주지도 아이허곡, 짐 저레 들러내치렌 허영은에, 경 허멍 장만허연. 우린 신작로에 들러내곡, 한질이도 들러내곡 헤 낫수다, 옛날.(예, 그렇게 해서 밭에 이렇게, 밭도 거 두둑이 좋은 데 가고, 두둑 이상한 데 가서 해주지도 않고, 짐 저리 들러 내치라고 해서, 그렇게 하면서 장만했어. 우리 신작로에 드러내고, 한길에도 드러내고 했었습니다, 옛날.)
103046 @ 그다음에 나록쏠 허며는 나록쏠 가졍 무신거 멩글아 먹엇수가?(그다음에 볍쌀 하면 볍쌀 가져서 무엇 만들어서 먹었습니까?)
103046 #2 나록은 이제 막.(벼는 이제 마구.)

103046 #1 그때 나록은 귀헌 거난.(그때 벼는 귀한 거니까.)

103046 #2 젯상에도 싯주기, 든 거 풀아당은에.(제상에도 있지요, 단 거 팔아다가.)

103046 #1 이디선 집이서 잘 먹질 아이허여마씨. 아이덜 셔도 거 곤밥도 잘 못헹 먹고.(여기서는 집에서 잘 먹지를 않아요. 아이들 있어도 그거 흰밥도 잘 못해서 먹고.)

103046 #2 헹 곤밥도 못헤줘십주.(해서 흰밥도 못해줬지요.)

103046 #1 경 헹은에 이제 풀앙.(그렇게 해서 이제 팔아서.)

103046 #2 풀앙.(팔아서.)

103046 #1 풀앙 걸 큰돈으로 헹은에.(팔아서 걸 큰돈으로 해서.)

103046 #2 술도 사오곡게.(술도 사오고요.)

103046 #1 뭐 이발헐 때도 그거 혼 말 장에 강.(뭐 이발할 때도 그거 한 말 장에 가서.)

103046 @ 식게 때.(제사 때.)

103046 #1 식게 때도 허곡.(제사 때도 하고.)

103046 #2 식게 때, 식게 때 밥은 곤밥허영 져당, 공장이 강.(제사 때, 제사 때 밥은 흰밥해서 져다가, 공장에 가서.)

103046 #1 곤밥허고 헹 먹는디, 주로 저 이건 귀헌 거난 쏠 풀앙은에 무신거 집이 가용 쓰고, 영 헹 저 살아가는 거우께. 뭐 돈 쓸 일이 그때는.(흰밥하고 해서 먹는데, 주로 저 이거는 귀한 거니까 쌀 팔아서 뭐 집에 가용 쓰고, 이렇게 해서 저 살아가는 것입니다. 뭐 돈 쓸 일이 그때는.)

103046 #2 아이덜 무신 거 ᄒᆞ끔, 어린 아이덜.(아이들 뭐 거 조금, 어린 아이들.)

103046 #1 지금 닮지 아니허영 전인, 이제는 무신 원예작물 헹 영 돈 나도, 그 때는 먹을 거.(지금 같지 안 해서 전에는, 이제는 무슨 원예작물 해서 이렇게 돈 나도, 그때는 먹을 거.)

103046 #2 먹을 거박기, 풀안 먹을 거벡기.(먹을 거밖에, 팔아서 먹을 거밖에.)

103046 #1 돈이 얼마 뒈지도 아이허여마씨. 풀멍 그자.(돈이 얼마 되지도 않아요. 팔면서 그저.)

103046 #2 무신거 ᄒᆞ끔.(무엇 조금.)

103046 #1 놈 볼 때는 나룩쏠 허영 저 집이 곤밥 헹 먹엄져.(남 볼 때는 볍쌀 해서 저 집에서 흰밥해서 먹고 있다.)

103046 #2 어떵 먹는 사름은 헤도, 우린 정 아이 먹어봇수다게. 하도 어려와노난, 거 풀아당은에, 풀앙은에.(어떻게 먹는 사람은 해도, 우리는 저렇게 안 먹어봤습니다. 아주 어려웠으니까, 그거 팔아다가, 팔아서.)

103046 #1 식게허젠 헤도 그거 풀아사 적갈도 허곡 뭣.(제사하려고 해도 그거 팔아야 적도 하고 뭣.)

103046 #2 식게도 허곡게.(제사도 하고요.)

103046 #1 하간 비용 들어가믄.(여러 가지 비용 들어가면.)

103046 #2 신도 사곡게, 저 무신거 감도 사당 감물도 들이곡 무시거 허멍, 경헤도

그거 아니 꼭 돈도 아이 뒈어. 무시거 막 헤봣자 돈 얼마 아이뒈고 허난, 애월장[104]에 강 졍 강 풀아오고 저 서문통[105] 제주차보끄지 져 강, 제주차보 엿날은 졍 강은에.(신도 사고요, 저 무엇 감도 사다가 감물도 들이고 무엇 하면서, 그래도 그거 아니 꼭 돈도 안 돼. 무엇 마구 해봤자 돈 얼마 안 되고 하니까, '애월장'에 가서 져서 가서 팔아오고 저 '서문통' 제주차고까지 져 가서, 제주차고 옛날은 져서 가서.)

103046 #1 게난 멕에 졍양.(그러니까 멱서리에 져서요.)

103046 #2 ᄒᆞ를 헤양 강 와사. ᄒᆞᆫ 말 졍 강은에.(하루 종일 갔다 와야. 한 말 져서 가서.)

103046 #1 둘이 졍 가사, 혼자는, 둘이 졍 강 허믄, 그디 가믄 시에 사름덜 졸바로 돈 줍니까? 게도 어쩔 수 어시 풀앙 왕 그 돈으로 하근 걸.(둘이 져서 가야, 혼자는, 둘이 져서 가서 하면, 거기 가면 시내에 사람들 바르게 돈 줍니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팔아서 와서 그 돈으로 모든 거를.)

103046 #2 술산디 뭣산디 몰르곡.(술인지 뭣인지 모르고.)

103046 #1 그때는 차가 드무난 걸엉 가오고, 걸엉 오고 헷수다게.(그때는 차가 드무니까 걸어서 가오고, 걸어서 오고 했습니다.)

103046 #2 무사 땀뿌차도 난 타나서.(왜 덤프차도 난 탔었어.)

103046 @ 떡도 멩글앙 먹지 안 헷수가?(떡도 만들어서 먹지 안 했습니까?)

103046 #2 양?(예?)

103046 @ 쏠로 떡.(쌀로 떡.)

103046 #2 예, 떡도 멘드라낫수다마는, 경 가난헌 사름이 경 못 멘들앗주기게, 경 자꾸. 아이, 식게 때는 자꾸 떡 만들고, 제사 때에는예.(예, 떡도 만들었었습니다만, 그렇게 가난한 사람이 그렇게 못 만들었지요죠, 그렇게 자꾸. 아니, 제사 때는 자꾸 떡 만들고, 제사 때에는요.)

103046 @ 식게 때, 멩질 때.(제사 때, 명절 때.)

103046 #2 예, 식게 때, 멩질 때 송펜이영.(예, 제사 때, 명절 때 송편이랑.)

103046 #1 송펜이영.(송편이랑.)

103046 #2 송펜이영 그걸로.(송편이랑 그걸로.)

103046 #1 절변 이 저.(절편 이 저.)

103046 #2 새미[106], 인절미[107]허고.('새미', '인절미'하고.)

103046 #1 새미, 인절미허곡.('새미', '인절미'하고.)

103046 #2 곤떡허고 헨에.(흰떡하고 해서.)

103046 #1 송펜허고.(송편하고.)

103046 #2 옛날은 그걸로.(옛날은 그걸로.)

---

104) '애월장'은 제주시 애월읍 애월리에 있는 오일장이다.

105) '서문통'은 제주시 용담동 지경 이름이다.

106) '새미'는 메밀가루나 쌀가루 따위를 반죽해 반달 모양으로 만든 후에 안에 팥소 들을 넣어 접어서 솥에서 찌거나 삶아낸 떡이다.

107) '인절미'는 메밀이나 쌀가루 따위로 네모지고 넓적하게 만든 후 삶거나 쪄낸 떡이다.

103046 #1 곤떡이영 허믄 영 동글락허게 허영 영 빚엉은에 똑똑똑 칸으로 찍으멍 곤떡도 허곡, 새미, 인절미허고 주로 제사 때는 경 헹.(흰떡이랑 하면 이렇게 둥글게 해서 이렇게 빚어서 똑똑똑 칸으로 찍으면서 흰떡도 하고, '새미', '인절미'하고 주로 제사 때는 그렇게 해서.)

103046 @ 저기 우리 저 우리 보며는 뭐냐 저, 곤떡도 보민 여러 가지라, 똥골락헌 거영, 부치는 거영.(저기 우리 저 우리 보면 뭐냐 저, 흰떡도 보면 여러 가지야, 동그란 거랑 붙이는 거랑.)

103046 #1 예, 고달떡[108]이 싯고, 곤떡도.(예, '고달떡'이 있고, 흰떡도.)

103046 @ 목안허고 우리 대정하고 틀려.(목안하고 우리 '대정' 하고 달라.)

103046 #2 저 거세기 반, 반돌, 반돌허고, 반돌떡도 잇곡.(저 거시기 반, 반달, 반달하고, 반달떡도 있고.)

103046 @ 예, 반달.(예, 반달.)

103046 #2 반달떡도 이서. 건 이제도 이서, 이제도. 이제도 풀아, 동문시장이.(반달떡도 있어. 건 이제도 있어, 이제도. 이제도 팔아, '동문시장'에.)

103046 #1 반으로 밀멍 꼭꼭 찍어내믄, 술망.(반으로 밀면서 꼭꼭 찍어내면, 삶아서.)

103046 @ 영 헤근에 손으로 영 쫄랑, 영 부쪄근에 짓는 거 잇주게.(이렇게 해서 손으로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붙여서 짓는 거 있지요.)

103046 #2 건 우리 식이 아이라.(건 우리 식이 아니야.)

103046 @ 여기 목안은 ᄒᆞ나 헹은에 멩글아부러. 건디 대정은 영 부쪙.(여기 목안은 하나 해서 만들어 버려. 그런데 '대정'은 이렇게 붙여서.)

103046 #1 아, 부쪙.(아, 붙여서.)

103046 @ 부쪙은에 영 눌르곡, 또 뒛사근에 영 눌르곡 허영은에.(붙여서 이렇게 누르고, 또 뒤집어서 이렇게 누르고 해서.)

103046 #2 거봐, 것이 정상인디 이딘.(거봐, 그것이 정상인데 여기는.)

103046 @ 여긴 ᄒᆞ나로.(여기는 하나로.)

103046 #2 ᄒᆞ나로만 영영 헤불엉, 경 아니 허여. 게난 그런 것도 허고 풀앙 그걸로 가용 돈 헹, 게 동싱 집에 잔치먹으레 가젠 헤도 쏠 ᄒᆞᆫ 뒈, 두어 뒈 어졍 가곡게. 동네에도 잔치 무시거 나오믄 그 나룩 져당게, ᄒᆞᆫ 뒈 가졍가곡, 경 무신 돈으로 가졍가지 아니허영 그런 걸로 가졍 간 먹엇주. 가졍 강 먹어.(하나로만 이렇게 이렇게 해버려서, 그렇게 안 해.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하고 팔아서 그걸로 가용 돈 해서, 동생 집에 잔치 먹으러 가려고 해도 쌀 한 되, 두어 되 가져서 가고요. 동네에도 잔치 무엇 나오면 그 벼 져다가요, 한 되 가져가고, 그렇게 무슨 돈으로 가져서 가지 안 해서 그런 걸로 가져서 가서 먹었지. 가져서 가서 먹어.)

103046 #1 쏠 두 뒈만 허믄 아이고 큰 부주 헷저. 큰 부주여.(쌀 두 되만 하면, 아이고, 큰 부조 했다. 큰 부조야.)

---

108) '고달떡'은 좁쌀가루에 팥소 따위로 켜를 짓되 그 사이에 쌀가루를 넣어 켜를 안친 시루떡이다.

103046 #2 쏠 두 뒈 허영, 그 부주헹 가. 그땐 다 우리가 아니, 다 경 헷수다. 부주헹 강.(쌀 두 되 해서, 그 부조해서 가. 그때는 다 우리가 아니, 다 그렇게 했습니다. 부조해서 가서.)

103046 #1 닷 뒈 이제ᄀᆞ찌 닷 뒈 부주, 혼 말 부주. 혼 말 부주 헤 노믄 동싱이나 영 큰 부주 아이허믄 혼 말 부주는 잘 엇고, 보통은 닷 뒈 부주옌 허믄.(닷 되 이제같이 다섯 되 부조, 한 말 부조. 한 말 부조 해 놓으면 동생이나 이렇게 큰 부조 안 하면 한 말 부조는 잘 없고, 보통은 닷 되 부조라고 하면.)

103046 #2 두 뒈 헤 강, 잔치 때나 헤나고.(두 되 해 가서, 잔치 때나 했었고.)

103046 #1 두 뒈, 걸 닷 뒈옝 허는디 족은 말로 허영.(두 되, 걸 닷 되라고 하는 데 작은 말로 해서.)

103046 @ 게난 쏠이 비싸긴 헤서.(그러니까 쌀이 비싸긴 했어.)

103046 #1 비싸십주.(비쌌지요.)

103046 @ 옛날 보면은 친목회 헐 때도 쏠 혼 가마니나.(옛날 보면 친목회 할 때도 쌀 한 가마니나.)

103046 #2 혼 가멩인 막 그 부제예. 부제, 부제로 헷수다.(한 가마니는 아주 부자요. 부자, 부자로 했습니다.)

103046 #1 쏠제가 싯고 허믄, 제 영 허믄 쏠제허믄 뭣이 이 화단제여, 무신 제여 헤도 쏠제가 질 하영 허믄 건 잘 뒈어마씨. 뭔 일 낫다 허믄 쏠제 허믄 쏠제 받앙.(쌀계가 있고 하면, 계 이렇게 하면 쌀계하면 뭣이 이 화단계여, 무슨 계여 해도 쌀계가 제일 많이 하면 거는 잘 돼요. 뭔 일 났다 하면 쌀계 하면 쌀계 받아서.)

103046 #2 혼 가멩이 받아, 쏠제.(한 가마니 받아, 쌀계.)

103046 #1 게믄 이제 혼 가멩인 잠깐 뒈어 으라 사람 메와노믄, 두 뒈썩 헤도 열 뒈.(그러면 이제 한 가마닌 잠깐 되어, 여러 사람 모아 놓으면, 두 되씩 해도 열 되.)

103046 #2 경 받앙 쏠제허곡, 또 것도 일 나믄 갚아사 헐 거, 나룩 져당은에.(그렇게 받아서 쌀계하고, 또 것도 일 나면 갚아야 할 거, 벼 져다가.)

103046 #1 다음 뭐 허믄, 또 거 돌아가멍 허는 일이난.(다음 뭐 하면, 또 거 돌아가면서 하는 일이니까.)

103047 @ 그다음에 나룩찝 헹근에 뭘 멩글앙 써마씨?(그다음에 볏짚 해서 뭘 만들어서 써요?)

103047 #1 이디선 ᄂᆞ람지[109]도 허곡, 새 어시믄, 또 나중에는 이제 우리 새끼틀 사당 새끼도 꼬곡 건 처음이고 젤 처음 헐 때는 그 ᄂᆞ람지도 허곡 쉐도 멕이고 이건 여러 가지 이제 헌디.(여기서는 'ᄂᆞ람지'도 하고, 띠 없으면, 또 나중에는 이제 우리 새끼틀 사다가 새끼도 꼬고 그건 처음이고, 제일 처음 할 때는 그 'ᄂᆞ람지'도 하고 소도 먹이고 이건 여러 가지 이제 했는데.)

103047 @ 주젱이는 안 멩긂니까?(주저리는 안 만듭니까?)

103047 #2 주젱이, 주젱인 저.(주저리, 주저리는 저.)

---

109) 'ᄂᆞ람지'는 이엉과 비슷한 것으로 낟가리 위에 덮는 물건이다.

103047 #1 무사 ᄂᆞ람지 헹은에 주젱이도 좀 허는디, 주젱인 이디선 새로 주로 헙니다게, 새밧디.(왜 ‘ᄂᆞ람지’ 해서 주저리도 좀 하는데, 주저리는 여기서는 띠로 주로 합니다, 띠밭에.)

103047 @ 아, 그 주젱이는.(아, 그 주저리는.)

103047 #1 예, 새로 허고, 주젱이 새 주젱이 허믄 영 넙작헙주게. 나룩 주젱이, 나룩찝은 얼마 멀린 못 허여, 게난.(예, 띠로 하고, 주저리 띠 주저리 하면 이렇게 넓적하지요. 벼 주저리, 볏짚은 얼마 멀리는 못 해, 그러니까.)

103047 #2 나룩은.(벼는.)

103047 @ ᄂᆞ람지만.(‘ᄂᆞ람지’만.)

103047 #1 ᄂᆞ람지는 보통 게도.(‘ᄂᆞ람지’는 보통 그래도.)

103047 @ 나룩찝으로.(볏짚으로.)

103047 #1 새 ᄂᆞ람지 헤야, 또 오래 가곡.(띠 ‘ᄂᆞ람지’ 해야, 또 오래 가고.)

103047 #2 아이 저 나룩, 나룩, 나룩찝으로 헌 건 물 흔번만 와 나믄 이것이.(아니 저 벼, 벼, 볏짚으로 한 건 물 한번만 와 나면 이것이.)

103047 #1 이것이 삭아졍 흔 여름이면 헌 디 새는 허믄.(이것이 삭아져서 한 여름이면 하는 데 띠는 하면.)

103047 #2 주젱인, 주젱인, 새로 헤 노믄 ᄒᆞ끔 오래사 감신디 재게 어떵 아니허여.(주저리는, 주저리는, 띠로 해 놓으면 조금 오래야 가고 있는지 빨리 어떻게 안 해.)

103047 #1 두 핸 감니다게. 저 이 새로 헹 여끈 ᄂᆞ람지난.(두 해는 갑니다. 저 이 띠로 해서 엮은 ‘ᄂᆞ람지’니까.)

103047 #2 도새기, 돗통에도게 도새기 질루는 디게, 우이 그 주젱이 헹 거 씨왕 노믄, 조찝 우이도 그거 씨왐수게.(돼지, 돼지우리에도 돼지 기르는 데요, 위에 그 주저리 해서 거 씌워 놓으면, 조짚 위에도 그거 씌우고 있습니다.)

103047 #1 새끼 꽝은에 허고.(새끼 꼬아서 하고.)

103047 #2 새끼 꽝도 허곡.(새끼 꼬아서도 하고.)

103047 #1 난 그때 새끼 기계 사단 새끼 꽝.(난 그때 새끼 기계 사다가 새끼 꼬아서.)

103047 #2 꼬아, 꽈낫수다. 그거 나룩찝 논 벌멍 그 나룩찝을 뭣 허난 경 헨 이녁냥으로 우리도 꼬멍, 꼬멍.(꼬아, 꼬았었습니다. 그거 볏짚 논 벌면서 그 볏짚을 뭐 하니까 그렇게 해서 이녁대로 우리도 꼬면서, 꼬면서.)

103047 #1 나중에 쉐 구르마 허영 어디 한림이영 어디 주문받앙 시꺼강 풀곡 허믄, 거 용돈 씨곡.(나중에 소 마차 해서 어디 ‘한림’이랑 어디 주문 받아서 실어가서 팔고 하면, 그거 용돈 쓰고.)

103047 #2 게메, 어떵사 헨 살아신디.(글쎄, 어떻게 해서 살았는지.)

103047 @ 그 신은 안 멩글아봅디가? 나룩찝으로.(그 신은 안 만들어봤습니까? 볏짚으로.)

103047 #1 신? 신은 우리가양, 어린 때 신 삼아낫수다, 찝신.(신? 신은 우리가요, 어

릴 때 신 삼았었습니다. 짚신.)

103047 #2 아바님네 뭐, 아바님네가양.(아버님네 뭐, 아버님네가요.)

103047 #1 뭐 영 허믄 그때 멍석 줏곡.(뭐 이렇게 하면 그 때 멍석 잦고.)

103047 @ 맞아, 멍석.(맞아, 멍석.)

103047 #1 멍석 줏곡 뭐 헷는디, 멕 줏곡.(멍석 잦고 뭐 했는데, 멱서리 잦고.)

103047 #2 저 신은 아니 헤 봔.(저 신은 안 해 봤어.)

103047 #1 찝신은.(짚신은.)

103047 #2 ᄀᆞ렛방석 줄아밧주. ᄀᆞ렛 방석.(맷돌방석 잦아봤지. 맷돌 방석.)

103047 #1 ᄀᆞ렛방석이영 멕도 줏곡.(맷돌방석이랑 멱서리도 잦고.)

103047 #2 ᄀᆞ렛방석은 줄아보고, 족은 거난 허고.(맷돌방석은 잦아보고, 작은 거니까 하고.)

103047 #1 그런 이 멍석은 ᄒᆞᆫ 스무 날 걸려마씨. 하나 멍석허젠 허믄, 막 멩심허영 찝 두드리멍, 이디서도 비 온 날은 헐 것이 업지 아니허꽝? 보리 장만허고 이제 가을 헤노믄 똑 ᄋᆞ름에 찝 잘헹 놔뒁당 거 허믄.(그런 이 멍석은 한 스무 날 걸려요. 하나 멍석하려고 하면, 아주 명심해서 짚 두들기면서, 여기서도 비 오는 날은 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보리 장만하고 이제 가을 해놓으면 똑 여름에 짚 잘해서 놔뒀다가 거 하면.)

103047 #2 나룩찝은 막, 털엉 곱닥허게 허영 묵엉.(볏짚은 마구, 떨어서 곱게 해서 묶어서.)

103047 #1 헹 놔뒁당 멕, 멍석 줏곡.(해서 놔뒀다가 멱서리, 멍석 잦고.)

103047 #2 멕, 멍석 줄젠 허믄 게도.(멱서리, 멍석 잦으려고 하면 게도.)

103047 #1 일등헌 걸로, 이제 좋은 걸로 멍석은 ᄌᆞ릅주게. 멕은 헤도 멍석 줏는 건, 그걸로 이제 다 꼬앙 헤놩, ᄒᆞᆫ 십오일 보통 걸립니다. 멍석 하나 허젠 허믄.(일등한 걸로, 이제 좋은 것으로 멍석은 잦지요. 멱서리는 해도 멍석 잦는 건, 그걸로 이제 다 꼬아서 해놓아서, 한 십오일 보통 걸립니다. 멍석 하나 하려고 하면.)

103047 @ 게난 나룩찝이 활용도가 높으긴 허여.(그러니까 볏짚이 활용도가 높긴 해.)

103047 #2 예.(예.)

103047 #1 하이고.(아이고.)

103047 @ 쏠도 경 허주만.(쌀도 그렇게 하지만.)

103047 #2 새끼 꼬곡양.(새끼 꼬고요.)

103047 #1 이디서 가멩이는 안 짜, 겐디 멕은 줄아마씨.(여기서 가마니는 안 짜, 그런데 멱서리는 잦아요.)

103047 @ 가멩이는 육지서 내려오는 거 아니?(가마니는 육지서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103047 #2 여기 ᄀᆞ렛방석허곡, 저 멩텡이허곡, 멩텡이도 헐 충 몰란.(여기 맷돌방석하고, 저 망태기하고, 망태기도 할 줄 몰라서.)

103047 #1 멩텡이 줄앙, 멩텡이영 영 허믄 그거 어디 똥도 주스레 뎅이곡.(망태기

잦아, 망태기랑 이렇게 하면 그거 어디 똥도 주우러 다니고.)

103047 #2 이상케 허는 욕 들으멍, 허지 못 허연.(이상하게 하는 욕 들으면서, 하지 못해서.)

103047 #1 주스레 뎅이곡, 멩텡인 이 저 무신거 메엉 뎅이멍 나룩씨도.(주우러 다니고, 망태기는 이 저 무엇 메어서 다니면서 볍씨도.)

103047 #2 물똥도 줍젠 허믄 멩텡이가 셔사. 멩텡이 아이믄게, 거 주서당 놔둬사, 물똥.(말똥도 주우려고 하면 망태기가 있어야. 망태기 아니면요, 거 주워다가 놔둬야, 말똥.)

103047 #1 똥은 어디 쉬와? 막 사름덜 다 주시레 뎅이멍.(똥은 어디 쉬워? 마구 사람들 다 주우러 다니면서.)

103047 #1 어디 저 못ᄀᆞ뜬 디에 노믄 쉐덜, 쉐, 물덜 물 먹으레 왕 똥 싸곡 허믄, 그거 누게가 주서간 처리 몰르게 우리도 ᄀᆞᆯ체허곡, 멩텡이허영 우리도 저 밑에 정반못[110]이옝 허영 이염에 살아십주게. 그냥 쉐덜 왕 물 먹엉 ᄒᆞᆫ참 헹 강 허믄 막 똥 싸곡, 그디 헤 노믄.(어디 저 못같은 데 놓으면 소들, 소, 말들 물 먹으러 와서 똥 싸고 하면, 그거 누가 주워간 처리 모르게 우리도 삼태기하고, 망태기해서 우리도 저 밑에 '정반못'이라고 해서 옆에 살았지요. 그냥 소들 와서 물 먹어서 한참 해가서 하면 마구 똥 싸고, 거기 해 놓으면.)

103047 #2 막.(마구.)

103047 #1 누게 먼저 주서간 철 모르게 우선 먼제 줍는 것이 임제난, 경 헨 저 ᄒᆞ끔이나 걸름허젠 그걸 주서가고.(누가 먼저 주워간 줄 모르게 우선 먼저 줍는 것이 임자니까, 그렇게 해서 저 조금이나 거름 하려고 그걸 주워가고.)

103047 #2 게난 거 나룩찝이 첨 하근거 잘 썻수다. 이것, 저것 써. 숫기도 꼬앙 놔뒷당, 나룩찝 어졍강 무신거 무끄곡, 그거 아니믄 헐 것이 어서, 나룩찝으로 묵엉 비 아이 맞게 잘 더껏당.(그러니까 그거 볏짚이 참 여러 가지 잘 썼습니다. 이것, 저것 써. 새끼도 꼬아서 놔뒀다가, 볏짚 가져가서 무엇 묶고, 그거 아니면 할 것이 없어, 볏짚으로 묶어서 비 안 맞게 잘 덮었다가.)

103047 #1 것도 비 ᄒᆞᆫ번 맞아불믄 삭앙은에 영 질기지 아이허곡.(그것도 비 한번 맞아버리면 삭아서 이렇게 질기지 아니하고.)

103047 #2 경 헹 더껏당 우이도 새 ᄂᆞ람지라도 허영 더끄지 아이허믄 나룩찝만 더끄믄 비 맞으믄 느랏헤부난에, 어디 구들 안이, 씨는 구들러레 더러 데명 놔두고.(그렇게 해서 덮었다가 위에도 띠 'ᄂᆞ람지'라도 해서 덮지 않으면 볏짚만 덮으면 비 맞으면 늘어져 버리니까, 어디 방 안에, 씨는 방으로 더러 쌓아서 놔두고.)

103048 @ 그다음에 나룩농사허멍 아까도 말헨게마는, 그 얽힌 추억, 경험 거 ᄒᆞᆫ번 말해봅서. 아까 물꼬 때문에.(그다음에 벼농사하면서 아까도 말했지만, 그 얽힌 추억, 경험 거 한번 말해 보세요. 아까 물꼬 때문에.)

103048 #1 예, 물꼬, 물꼬 나룩은 제일 중요헌 것이 물이난 하나로 열ᄀᆞ지가 물이우

110) '정반못'은 제주시 애월읍 구엄리 해안가에 위치한 못 이름이다.

다게. 게난 이거 물 어시믄 안 뒈어. 게난 이거 밤에고 낮이고양, 나도 저 논은 처음에 허영, 놈으 논이영 벵작허영 허믄 이거 물 걱정이라. 비가 밤이 와도 걱정, ᄀᆞ물아 가믄 이거 어떵 물 대코 허는디, 겐디 거기서도 막 원물이옌 허영 요렇게 물꼬허멍 ᄎᆞ례 대기가 싯수다. 문제 거 원물 문제 거 나오는 디가 첫째 ᄎᆞ례라.(예, 물꼬, 물꼬 벼는 제일 중요한 것이 물이니까 하나로 열까지가 물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물 없으면 안 돼. 그러니까 이거 밤이고 낮이고요, 나도 저 논은 처음에 해서, 남의 논이랑 병작 해서 하면 이거 물 걱정이야. 비가 밤에 와도 걱정, 가물어 가면 이거 어떻게 물 댈까 하는데, 그런데 거기서도 마구 원물이라고 해서 요렇게 물꼬 하면서 차례 대기가 있어요. 먼저 거 원물 먼저 거 나오는 데가 첫째 차례야.)

103048 #2 대가리가, 머리가.(머리가, 머리가.)

103048 #1 그다음에 ᄎᆞᄎᆞᄎᆞᄎᆞ 헤 가믄.(그다음에 차차차차 해 가면.)

103048 @ 처음 논이 최고로 조컨게.(처음 논이 최고로 좋겠네요.)

103048 #1 예, 일 번, 일 번. 게난 그디서 다 채워야 뒤터레 ᄎᆞᄎᆞ 내려와.(예, 일 번 일 번. 그러니까 거기서 다 채워야 뒤쪽으로 차차 내려와.)

103048 #2 헤 나사 알러레 ᄎᆞᄎᆞ 헤 오젠 허믄, 나룩은 ᄆᆞᆯ라가곡 죽어가곡.(해 나야 아래로 차차 해 오려고 하면, 벼는 말라가고 죽어가고.)

103048 #1 게 안 허믄 막 싸왕은에 느 대켜, 나 대켜 게믄 그렇게 헤 놔도 나중에 허믄양, 저 뒤테레 가믄 이건 업어치기 헌 사름덜이 하, 밤이 왕 ᄆᆞᆫ 물 터불곡, 이거 뭐 이건 얼씬 헨 밤새낭 터불믄 뒷날 이제 물 봉봉 헤시카부덴 강 보믄 바싹 ᄆᆞᆯ라, 이녁 논에.(그렇게 안 하면 마구 싸워서 너 대겠어, 나 대겠어 그러면 그렇게 해 놔도 나중에 하면요, 저 뒤로 가면 이건 업어치기 한 사람들이 많아, 밤에 와서 모두 물 터버리고 이거 뭐 이거는 얼른 해서 밤새도록 터버리면 뒷날 이제 물 봉봉 했을까 싶어서 가서 보면 바싹 말라 자기 논에.)

103048 #2 게난 처음 짓는 건 이제 밤중에 그디 논에 자꾸 가곡, 어떤 땐 허벅으로 거 물 져당은에 메종헌 디 놓곡.(그러니까 처음 짓는 거는 이제 밤중에 거기 논에 자꾸 가고, 어떤 때는 '허벅'으로 거 물 져다가 모종한 데 붓고.)

103048 #1 거멍케 칸 디, 물 비와 가멍.(거멓게 탄 데, 물 부어 가면서.)

103048 #2 카불믄 허벅에 물 져당, 두어 개 이 아방이영 나영 경 가봣자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 바싹 ᄆᆞᆯ라불곡, 물 경 허멍, 밤이 경 뎅여난 것이 질양, 이제 잊어불지 아이험니다게.(타버리면 '허벅'에 물 져다가, 두어 개 이 '아방'이랑 나랑 져서 가봤자 그까지 거 아무것도 아니, 바싹 말라버리고, 물 그렇게 하면서, 밤에 그렇게 다녔던 것이 제일이요, 이제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103048 #1 이제ᄀᆞ찌 경운기가 셩, 기계라도 올리멍 물 헤져, 게고 그렇게 물이 어서 마씨. 지금은.(이제까지 경운기가 있어서, 기계라도 올리면서 물 할 수 있어, 그리고 그렇게 물이 없어요. 지금은.)

103048 #2 물 졍 강, 그거 져 봣자양, 그까짓 거 뒈지 아니허여.(물 져 가서, 그거 져 봤지요, 그까지 거 되지 안 해.)

103048 #1 옛날에 원물이옌 헤 가지고 물이 제우 먹는 물 나곡 허는 디, 이제 저 원동산[111], 그 물벳긴 그 ᄉᆞ방엔 어서마씨. 그 물 하나로 나룩을 다 허는디 이쪽에 그저 우리 깍에는 허단 버치난 물통 판, 어떵 헙니까? ᄀᆞ물아가난 통 팟단에 게 허믄 거기 퍼 노믄 좋곡, 그냥 ᄀᆞ물아가믄 이제 물통 헷당 그거 ᄒᆞ끔썩 목숨 살리는 거라. 내불믄 그냥 카나믄양, 이것이 막 늦어지곡.(옛날에 '원물'이라고 해 가지고 물이 겨우 먹는 물 나고 하는 데 이제 저 '원동산 그 물밖에는 그 사방에는 없어요. 그 물 하나로 벼를 다 하는 데 이쪽에 그저 우리 끝에는 하다가 부치니까 물통 파서 어떻게 합니까? 가물어 가니까 통 팠다가 그거 하면 거기 퍼 놓으면 좋고, 그냥 가물어 가면 이제 물통 했다가 그거 조금씩 목숨 살리는 거야. 내버리면 그냥 타나면요, 이것이 아주 늦어지고.)

103048 #2 칸, 문딱 막 경 허단 보난 물라네 나룩 아이뭰 헨 어이가 어십디다. 그 때 경 헤난 헤가 이서, 막 그추룩 허연.(타서, 모두 막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말라서 벼 안 돼서 어이가 없었어요. 그때 그렇게 했던 해가 있어. 아주 그처럼 해서.)

103048 #1 그땐 돌 칸다, 흑 칸다.(그때는 돌 탄다, 흙 탄다.)

103048 @ 옛날은 흑으로 골 멩그니까, 물 와도 물 하영 오질 안 허여.(옛날은 흙으로 고랑 만드니까, 물 와도 물 많이 오지 안 해.)

103048 #2 아이고 게.(아이고 게.)

103048 #1 카 빠지멍양.(타 빠지면서요.)

103048 #2 돌 ᄀᆞ뜨믄 허주마는양, 멘딱 밋밋헌 거난.(돌 같으면 하지만요, 모두 밋밋한 거니까.)

103048 #1 세멘이나 뭣 헌 거믄 영 잘잘 내려오주만, 흑이난 그 ᄉᆞ방이 다 빠져사 그레 올 거주, 졸졸졸.(시멘트나 뭐 한 거면 이렇게 잘잘 내려오지만, 흙이니까 그 사방이 다 빠져야 그리 올 거지, 졸졸졸.)

103048 #2 흔 헨 첨 오꼿 내불엉, 아이고 어이가 어서낫수다. 매날 밤낮을 그디, 밤이 매날 뎅여낫수다.(한 해는 참 그만 내버렸어, 아이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매날 밤낮을 거기, 밤에 매날 다녔었습니다.)

103048 #1 이제 놉 빌언 막 싱건 키와노난 저 ᄀᆞ물안 빈 아니오지 허단 버치난 이젠 나중엔 내불언 포기헨, 포기헨 내부난 그거 ᄂᆞ시 뒈지 아니헙디다게. 이제 비어단 쉐멕이멍 그냥 뭐 허지.(이제 놉 빌어서 마구 심어서 키웠는데 저 가물어서 비는 안 오지 하다가 부치니까 이제는 나중에는 내버려서 포기했어, 포기해서 내버리니까 그거 도저히 되지 않습디다. 이제 베어다가 소먹이면서 그냥 뭐 하지.)

103048 #2 경도 흔 헤도 헤난 첨 헤 낫수다마는 이제 아이고, 이제 사름덜 ᄀᆞᆯ으믄 게.(그렇게 한 해도 하니까 참 했었습니다만 이제 아이고, 이제 사람들 말하면요.)

103048 @ 예, 좀 쉬엉 허쿠다.(예, 좀 쉬어서 하겠습니다.)

고구마 농사

111) '원동산'은 제주시 애월읍 구엄리에 있는 지경 이름이다.

103049 @ 이 저 감저농사에 대허영 물어보쿠다양, 감저 농사 허젠 허민 어떤 준비가 필요헙니까?(이 저 고구마 농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고구마 농사 하려고 하면 어떤 준비가 필요합니까?)

103049 #1 감전 허젠 허믄 우선 것도 아무 농사도 경허주마는 이제 메종을 잘 길롸사. 밧이 번헌 것 셔도 메종이 시원허지 아니허믄 하영 못 싱그난, 여기서 하영 싱경 허젠 허믄 메종을, 게난 감젯메 헐 감제를 잘 보관을 헤사마씨. 요것이 상강 전에 캐엉 씨 헐 거를 뚜로 미릇헹 고운 걸로, 상처 안 난 걸로, 요놈으 거 파당 골갱이나 ᄒᆞ끔 뭐 허거나 이제 쉐로 갈아졍 헌 거는 씨가 안 뒙주게, 게난 고운 걸로 골령 상처 안 난 걸로 판찍헌 걸로 허영, 초불 이제 잘 그늘진 딜로 ᄒᆞᆫ 열흘 놔뒀당, 걸 이제 처음엔 뭐 감제 이 마을에 저 감제 저장고가 셔낫수다. ᄒᆞᆫ 부락에 ᄒᆞ나썩 여기도 잇주마는 지금도 저장고, 거기에도 그놈으 것이 감제가 잘 썩어마씨. 이거 보존을 잘 헌덴 헤도, 게난 이제 이것도 안 뒈겟다 헤 가지고 우리도양 멕에영.(고구마는 하려고 하면 우선 것도 아무 농사도 그렇지만 이제 모종을 길러야. 밭이 애벌갈이한 것 있어도 모종이 시원하지 않으면 많이 못 심으니까, 여기서 많이 심어서 하려고 하면 모종을, 그러니까 고구마줄 할 고구마를 잘 보관을 해야 합니다. 요것이 상강 전에 캐서 씨 할 거를 따로 미리 해서 고운 것으로, 상처 안 난 것으로, 요놈의 거 파다가 호미나 조금 뭐 하거나 이제 소로 갈아져서 한 거는 씨가 안 되지요, 그러니까 고운 걸로 골라서 상처 안 난 것으로 깨끗한 것으로 해서, 애벌 이제 잘 그늘진 데로 한 열흘 놔뒀다가, 그걸 이제 처음에는 뭐 고구마 이 마을에 저 고구마 저장고가 있었습니다. 한 마을에 하나씩 여기도 있지만 지금도 저장고, 거기에도 그놈의 것이 고구마가 잘 썩어요. 이거 보존을 잘한다고 해도,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안 되겠다 해 가지고 우리도요 멱서리랑.)

103049 #2 사과 상자.(사과 상자.)

103049 #1 또 능금 하꼬에.(또 능금 상자에.)

103049 #2 능금 하꼬 헤당은에.(능금 상자, 해다.)

103049 #1 능금 하꼬에 허영 그거 딱딱 허멍 신문지 옆으로 ᄒᆞ끔썩 허멍 너무 고냥 난 딘 ᄆᆞᆯ르지 못허게 허멍 똑똑 놩 이제.(능금 상자에 해서 그거 딱딱 하면서 신문지 옆으로 조금씩 하면서 너무 구멍 난 데는 마르지 못하게 하면서 똑똑 놔서 이제.)

103049 #2 신문이라, 저 무신, 무신 종이.(신문이야, 저 무슨, 무슨 종이.)

103049 #1 저 이 벡장에.(저 이 벽장에.)

103049 #2 벡장에.(벽장에.)

103049 #1 벡장에 저 영 잘 쌍 놔뒷당, 것이 자꾸 온돌허곡 헤가믄 처음만 잘허믄 잘 안 썩어마씨. 나중에.(벽장에 저 이렇게 잘 싸서 놔뒀다가, 그것이 자꾸 온돌하고 해가면 처음만 잘하면 잘 안 썩어요. 나중에.)

103049 #2 문을 잘 더꺼사게. 아이덜 확확 문 ᄋᆞᆯ아불곡, 이추룩 헌 문이라게, 무시거 영.(문을 잘 닫아야. 아이들 확확 물 열어버리고, 이처럼 한 문이라서, 무엇 이렇게.)

103049 #1 놔뒷당 식량으로 감제도 겨울엔 먹을 거 어시믄.(놔뒀다가 식량으로 고구마도 겨울에는 먹을 거 없으면.)

103049 #2 것도 쳥도 먹고.(그것도 쪄서 먹고.)

103049 #1 그거 쳥 먹고 허멍 메종은 딱 헹 살렷당, 그 메종을 언제 노냐 허믄 이제서도 춘분 ᄉᆞ시에, 건 이제 보통 보믄 삼월 이십일이 춘분 똑 양력은 맞아마씨. 그 ᄉᆞ시 전후헹 메종을 놉주게. 메종을 놓는디 어떤 식으로 놓냐 허믄 거 밧 갈앙 이것도 썩은 걸름을 멧 개나 아무것도 뭐 허주마는, 걸름을 부그락이 쉐걸름 으름에 허멍 자꾸 쉐시랑질 헹 놔뒁당, 요놈으 것이 비 맞고 뭣허고 허믄 복삭 삭아마씨, 그걸 이제.(그거 쪄서 먹고 하면서 모종은 딱 해서 살렸다가, 그 모종을 언제 놓느냐 하면 이제도 춘분 근방에, 거는 이제 보통 보면 삼월 이십 일이 춘분 똑 양력은 맞아요. 그 근방 전후해서 모종을 놓지요. 모종을 놓는데 어떤 식으로 놓느냐 하면 그거 밭 갈아서 이것도 썩은 거름을 몇 개나 아무것도 뭐 하지만, 거름을 보각이 소거름 여름에 하면서 자꾸 쇠스랑질 해서 놔뒀다가, 요놈의 것이 비 맞고 뭐하고 하면 바싹 삭아요, 그걸 이제.)

103049 #2 ᄀᆞᆯ체 아졍강.(삼태기 갖고가서.)

103049 #1 ᄀᆞᆯ체로 허영 삭삭삭 감젯메 놓을 디 뿌령 갈앙 놔뒁당은에, 딱 삼월 춘분 뒈가믄 걸 지금은양, 전이는 춘분 ᄉᆞ시에 헷는디 이제는 혼 십 일내지 이십 일 앞당경 헤마씨. 왜냐믄 비니루 나기 때문에 비니루 헹 영 허곡 허믄 훨씬 빨라마씨.(삼태기로 해서 삭삭삭 고구마모 놓을 데 뿌려서 갈아서 놔뒀다가, 딱 삼월 춘분 돼 가면 그걸 지금은요, 전에는 춘분 근방에 했는데 이제는 한 십 일내지 이십 일 앞당겨서 해요. 왜냐하면 비닐 나기 때문에 비닐 해서 이렇게 하고 하면 훨씬 빨라요.)

103049 #2 그땐 더끌 것도 엇고 허난에게.(그때는 덮을 것도 없고 하니까.)

103049 #1 그땐 비닐도 엇고, 우리 처음 헐 때.(그때는 비닐도 없고, 우리 처음 할 때.)

103049 #2 늦엉 놔사.(늦어서 놔야.)

103049 #1 감젯메 헐 땐 이제 거 춘분 ᄉᆞ시에 놩 이것이 ᄎᆞᄎᆞ허멍 물 주멍 검질도 메곡 허멍 골 짓성 놉니다게, 여기선. 저 흑 다 강아놩 궹이로 북삭허게 쉐시랑으로 헤놩 골 영 작작 짓엉은에 그레 이 감제 순 나는 거를 우터레 가게.(고구마모 할 때는 이제 거 춘분 근방에 놔서 이것이 차차 하면서 물 주면서 김도 매고 하면서 고랑 지어서 놉니다, 여기서는. 저 흙 다 갈아놔서 괭이로 보각이 쇠스랑으로 해놔서 고랑 이렇게 작작 지어서 그리 이 고구마 순 나는 거를 위로 가게.)

103049 #2 흑 더끄멍.(흙 덮으면서.)

103049 #1 경 헹 쭉 노멍 우이 흑 더끄멍 헹은에 이제 메종을 놓는디, 겡 뽀족뽀족허게 나가믄 물도 주곡.(그렇게 해서 쭉 놓으면서 위에 흙 덮으면서 해서 이제 모종을 놓는 데 그렇게 뾰족뾰족하게 나가면 물도 주고.)

103049 #2 물 질어당, 대베기[112]로 져당, 저디 강 져 와사.(물 길어다가, '대베기'로 져다가, 저기 가서 져 와야.)

103049 #1 ᄎᆞᄎᆞ 낭 헤가믄.(차차 나서 해가면.)

112) '대베기'는 모양이 둥그스름하여서 가운데 배는 불룩하고 위아래는 졸아지되 위의 아가리는 아주 좁게 된, 물을 길어 나르는 작은 동이이다.

103049 #2 바당이 강 물 질어당, 물이 어선(바다에 가서 물 길어다가, 물이 없어서.)

103049 #1 놓은 디는 메종도 실허고, 걸름 잘 안 간 딘 이젠 그 대신 불치영 줫당 밧을 이제 보그락허게 잘 갈앙 헤 놔야, 요게 이제 나중 메종 놔도 실허주게, 아니믄 씰 자리가 뭐허믄 감제 싱거도 잘 들지도 아이허곡.(놓은 데는 모종도 실하고 거름 잘 안 간 데는 이제는 그 대신 불티랑 줬다가, 밭을 이제 보드랍게 잘 갈아서 해 놔야, 요게 이제 나중 모종 놔도 실하지요, 아니면 쓸 자리가 뭐하면 고구마 심어도 잘 들지도 않고.)

103049 #2 오줌도 질어당 주곡 헤사.(오줌도 길어다 주고 해야.)

103049 #1 또 이거 몰라부렁 죽곡 허난, 경 허젠 허믄 이디서 제일 문제는 흑을 먼저 보그락허게 멩글곡, 걸게 썩은 걸름허영 북작 썩엉 반착 서꺼근에 헤 놔야 감젯메 놔도 이제 큽주게. 재게 크는디 허믄. 싱글땐 어떵 허냐허믄 이디서 무신 저 밧 갈아가멍 요것도양, 유월절 소서, 유월절 전에 헤야지 늦엉 심으믄 감제가 상강 가까우곡 허믄 클 어이가 어시 재게 들질 아이허여마씨. 게난 이거 어떻든 춘분 ᄉᆞ시에 메종 놩, 그 상강을 백일 앞뒁 재게 싱거삽주.(또 이거 말라버려서 죽고 하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면 여기서 제일 문제는 흙을 먼저 보드랍게 만들고, 걸게 썩은 거름해서 완전히 썩어서 반쪽 섞어서 해 놔야 고구마모 놔도 크지요. 빨리 크는데 하면. 심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여기서 무슨 저 밭 갈아 가면서 이것도 요것도요, 유월절 소서, 유월절 전에 해야지 늦어서 심으면 고구마가 상강 가깝고 하면 클 여유가 없어 빨리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든 춘분 근방에 모종 놔서, 그 상강을 백일 앞둬서 빨리 심어야지.)

103049 @ 장마철에 싱그는 거 아니우꽈?(장마철에 심는 거 아닙니까?)

103049 #1 아, 장마, 거의 이디선 장마 끈나강 싱금니다. 겡 마ᄇᆞ름 잘못허당 허믄 똑 장마 끗데는 잘 불어, 마ᄇᆞ름 불믄 두 헤 열 나흘 간 계속 불어노믄양, 이거 잘못허믄 감제줄 죽읍니다게.(아, 장마, 거의 여기서는 장마 끊나 가서 심습니다. 그렇게 마파람 잘못하다가 하면 똑 장마 끝에는 잘 불어, 마파람 불면 두 해 열나흘간 계속 불어놓으면요, 이거 잘못하면 고구마 덩굴이 죽습니다.)

103049 @ 감젯줄 죽어부러.(고구마 덩굴 죽어버려.)

103049 #1 그때 어디.(그때 어디.)

103049 #2 하영 죽언.(많이 죽었어.)

103049 #1 이제ᄀᆞ치 무신 수도가 셧수가? 밧디 장치 안 뒌 거난, 더러 어떤 딘 보리낭도 더끄는 사람도 싯고.(이제같이 무슨 수도가 있었습니까? 밭에 장치 안 된 거니까, 더러 어떤 데는 보릿짚 덮는 사람도 있고.)

103049 #2 나룩찝도 더끄곡 헤서, 우린 하영 헤부난 더꺼보지 아이헤서.(볏짚도 덮고 했어, 우리는 많이 해 버리니까 덮지 안 했어.)

103049 #1 나룩찝도 더끄고, 우리도 흔 보통 그자 흔 삼ᄉᆞ천 평 감젠 싱거낫주기.(볏짚도 덮고, 우리도 한 보통 그저 한 삼사천 평 고구마를 심었었지요.)

103049 #2 싱거낫수다게. 싱경 허믄.(심었었습니다. 심어서 하면.)

103049 #1 경 허믄 허는디 감제헐 땐 이제 놉 빌엉은에 수눌어 가멍, 이디선 놈으

일덜 허영 허는 사름 별로 어서마씨, 서로 수눌멍.(그렇게 하면 하는데 고구마 할 때는 이제 놉 빌어서 품앗이해 가면서, 여기서는 남의 일들 해서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서로 품앗이하면서.)

103049 #2 옛날에 경 헷수게.(옛날에 그렇게 했습니다.)

103049 #1 난 쉐 시난에 밧 갈아 주곡 그 집이 강 허믄, 아 그 사름덜 왕은에.(난 소 있으니까 밭 갈아주고 그 집에 가서 하면, 아 그 사람들 와서.)

103049 #2 감제 싱거줘.(고구마 심어줘.)

103049 #1 감제 싱거줘. 겡 멧 사람 수눌어 허믄, 게 밧이나 잘 갈아줍서 허믄 강, 밧 갈아주믄 이제 왕 감제 싱거주곡 허믄, 요거 허믄 이제 감제도 헤 노믄 도상 커도 검질도 잘 메사 허고, 또 거 벳토를 헤사 허여, 고량에.(고구마 심어줘. 그렇게 몇 사람 품앗이해서 하면, 그렇게 밭이나 잘 갈아 주세요 하면 가서, 밭 갈아주면 이제 와서 고구마 심어주고 하면, 이거 하면 이제 고구마도 해 놓으면 도서서 커도 김도 잘 매야 하고, 또 거 배토를 해야 해, 고랑에.)

103049 #2 고량에 숭그랑케 헤사 감제 크곡 큰덴 허여.(고랑에 북돋게 해야 고구마 크고 큰다고 해.)

103049 #1 감제가 잘 난 이제 어느 정도 좀 컹 줄 영 벋어 가믄, 젱기 저 벳토 잇수다게, 요렇게 잠대에 메왕 허믄 흑이 양측이 착착 갈앙, 걸로 갈앙 벳토 헤 줘사.(고구마가 잘 나서 이제 어느 정도 좀 커서 줄 이렇게 뻗어 가면, 쟁기 저 배토 있습니다. 요렇게 쟁기에 메워서 하면 흙이 양측에 착착 갈아서, 걸로 갈아서 배토해 줘야.)

103049 #2 경허믄 검질도 덜 허곡, 고량 크믄.(그러면 김도 덜 하고, 고랑 크면.)

103049 #1 검질도 덜 허곡, 감제도 좀 잘 들곡.(김도 덜 하고, 고구마도 좀 잘 들고.)

103049 #2 잘 들곡 허여 경, 삼천 평허믄.(잘 들고 해서 그렇게, 삼천 평하면.)

103049 #1 경 헤도.(그렇게 해도.)

103049 #2 ᄒᆞ를이랑 메칠 헤사.(하루랑 며칠 매야.)

103049 #1 감제는 또 검질이 잘 짓어.(고구마는 또 김이 잘 깃어.)

103049 #2 게도 쉬웁니다. 감제, 감제가.(그래도 쉽습니다. 고구마가, 고구마가.)

103049 #1 조컴질 닮지 아니허영, 감제 검질은 메긴 쉬웁니다.(조 김 닮지 안 해서, 고구마 김은 매기는 쉽습니다.)

103049 #2 불라져도 어떵 아이허곡 헤도.(밟아져도 어떻게 않고 해도.)

103049 #1 게난 고량에 탕 앚앙 감제 첨 더러 늦게 싱근 건 감제 봉강 먹어가멍도 검질 메곡게.(그러니까 고랑에 타서 앉아서 고구마 첨 더러 늦게 심은 거는 고구마 주워 먹어가면서도 김매고요.)

103049 #2 그추룩 헤낫수다.(그처럼 했었습니다.)

103050 @ 그다음에 감저, 아까 말헷수다마는 언제 어떵 감니까?(그다음에 고구마, 아까 말했지마는 언제 어떻게 갑니까?)

103050 #1 감제 가는 거?(고구마 가는 거?)

103050 @ 응, 감제 거난.(응, 고구마 거니까.)

103050 #2 파는 거?(파는 거?)

103050 #1 파는 거?(파는 거?)

103050 @ 아이, 아니. 감저 줄기 헤당은에 아까 소서 때.(아니, 아니. 고구마 덩굴 해다가 아가 소서 때.)

103050 #2 아, 소서 때 감저 싱그는 과정, 감저 싱그는 때.(아 소서 때 고구마 심는 과정, 고구마 심는 때.)

103050 #1 아, 싱그는 과정, 싱그는 과정은 소서 전에 싱거야지, 유월절 뒈가믄 거 절기가 급박헤불어마씨. 막 덥곡, 또 메 싱거놔도 더위허곡 헤노믄 감젓줄 문 골아부러. 땅이 질척헤가믄, 유월절 ᄉᆞ시 뒈가믄 땅이 뜨거웁주마씨. 막 벳도 나곡 허믄 감제 하영 실패허난 이디선 어떻든 유월절 흔 보름 전에 싱금니다게.(아, 심는 과정, 심는 과정은 소서 전에 심어야지, 유월절 돼 가면 거 절기가 급박해 버려요. 아주 덥고, 또 모 심어 놔도 더위하고 해놓으면 고구마 덩굴 모두 곯아 버려. 땅이 질척해 가면, 유월절 근방 돼 가면 땅이 뜨겁지요. 막 볕도 나고 하면 고구마 많이 실패하니까 여기서는 어떻든 유월절 한 보름 전에 심습니다.)

103050 @ 거난에 밧 갈아야 헐 거 아니우꽈?(그러니까 밭 갈아야 할 거 아닙니까?)

103050 #2 예, 쉐 허영 밧 갈아, 잠대에 메왕.(예, 소 해서 밭 갈아, 쟁기에 메워서.)

103050 #1 잠대로 쉐 갈믄 이제.(쟁기로 소 갈면 이제.)

103050 #2 우리 집이 싯수다, 이제.(우리 집에 있습니다, 이제.)

103050 #1 이 저 사름덜 빌엉 ᄀᆞᆯ갱이로 영 짝허멍 이제.(이 저 사람들 빌어서 호미로 이렇게 짝하면서 이제.)

103050 @ 어디 어디에 싱거?(어디 어디에 심어?)

103050 #1 이렁더레.(이랑으로.)

103050 @ 이렁?(이랑?)

103050 #1 이렁.(이랑.)

103050 @ 게난 높은 디가 이렁, 낮은 디가 고랑.(그러니까 높은 데가 이랑, 낮은 데가 고랑.)

103050 #2 고량, 게난.(고랑, 그러니까.)

103050 #1 게난 이렁더레도 ᄀᆞᆯ갱이 골 치멍 그레.(그러니까 이랑으로도 호미로 고랑 지으면서 그리.)

103050 @ 손으로도 허지 아니허연.(손으로도 하지 안 했어.)

103050 #2 골 치멍도 허곡.(고랑 지으면서도 하고.)

103050 #1 손으로도 허곡, 밧이 보그락헌 밧은 잘 갈아졍.(손으로도 하고, 밭이 보드라운 밭은 잘 갈아져서.)

103050 @ 손으로 허고.(손으로 하고.)

103050 #1 물맞인 딘 손으로 허고, 게 아니허영 벙뎅이 나곡 ,문 헌 딘게.(물맞은 데는 손으로 하고, 그렇게 안 해서 덩어리 나고, 모두 한 데는요.)

103050 #2 질왓더렌.(‘질왓’으로는.)

103050 #1 골갱이로 영 두드리멍 거 벙에, 뭴 수 이시믄 잘 들게 허젱 보그락허게 헹 싱거삽주.(호미로 이렇게 두들기면서 그거 볏밥, 될 수 있으면 잘 들게 하려고 보드랍게 해서 심어야지요.)

103050 @ 나도 옛날 싱거 봣수다.(나도 옛날 심어 봤습니다.)

103050 #2 게난 밧을 잘 갈아사, 가는 과정도 잘 갈아사.(그러니까 밭을 잘 갈아야, 가는 과정도 잘 갈아야.)

103050 @ 나도 싱거봐신디 아이, 보리 그루에는 싱그기가 좋은디, 유채 그루에는 아이, 손 찔러부렁.(나도 심어봤는데 아니, 보리 갈았던 곳에는 심기가 좋은데 유채 갈았던 곳에는 아니, 손 찔러버려서.)

103050 #1 게고 유채낭 그룬 잘 들지도 아니허여.(그리고 유채 갈았던 곳에는 잘 들지 안 해.)

103050 @ 경 헤마씨?(그렇게 해요?)

103050 #1 감제는 보리 그루에 헤야 들러졍 걸름도 뒈고, 경헌디 유채엔양, 우리도 감제 헤 봐도 잘 안 들곡.(고구마는 보리 갈았던 곳에 해야 들러져서 거름도 되고, 그런데 유채는요, 우리도 고구마 해 봐도 잘 안 들고.)

103049 #2 감제 들지 아이허여마씨.(고구마 들지 안 해요.)

103049 #1 그것이 이것도 유채는 땅의 기운을 문딱 지름으로 빠먹어부난 메 줄라마씨. 메 줄르믄 이것이 보리그루 거 아주 걸지 아이허꽝? 보리 우이로 비어노믄.(그것이 이것도 유채는 땅의 기운을 모두 기름으로 빼먹어 버리니까 모 잘아요. 모 잘면 이것이 보리 갈았던 곳이 그거 아주 걸지 않습니까? 보리 위로 베어 놓으면.)

103050 @ 싱그기도 막 힘들어.(심기도 아주 힘들어.)

103050 #1 쉽곡, 유채 그룬 문 손.(쉽고, 유채 갈았던 곳은 모두 손.)

103050 @ 찔러부렁게.(찔러 버려서요.)

103050 #1 찔르멍 잘 아이허믄 저 가운디 대 살믄 그거 씨 허기가 궂어.(찌르면서 잘 안 하면 저 가운데 대 살면 그거 씨 하기가 궂어.)

103050 #2 겐디 이딘 보리 하영 아이 갈아낫수다게, 질왓덜이라노난 밧이 나빠마씨, 이렌. 신엄덜 보단도 밧이 이렌 ᄒᆞ끔 덜 허여.(그런데 여기는 보리 많이 안 갈았었습니다. ‘질왓’들이니까 밭이 나빠요, 이리는. ‘신엄’들 보다도 밭이 이리는 조금 덜 해.)

103050 #1 게도 보리그루에 하영 싱것주.(그래도 보리 갈았던 곳에 많이 심었지.)

103050 #2 경헤도 우린 보리 삼천 평 싱글 땐 무신 보리 하영 갈아낫수가? 천 평 벡기 아이 갈안. 저 거세기 헤 불언, 보리씨 공출헤부난 그때 허지 못허고 못 헤낫주.(그래도 우리는 보리 삼천 평 심을 때는 무슨 보리 많이 갈았었습니까? 천 평밖에 아니 갈았어, 저 거시기 해 버려서, 보리씨 공출해 버리니까 그때 하지 못하고 못 했었지.)

103051 @ 그다음에 감저 걸름 어떵 마련헙니까?(그다음에 고구마 거름 어떻게 마련합니까?)

103051 #1 감제는, 감제도 또 걸믄 안 뒈어. 저 줄만 쳐 나, 들질 아니허영 잘 뭐

허젠 허믄 싱거노믄.(고구마는, 고구마도 또 걸면 안 되어. 저 줄만 쳐 나, 들지를 안 해서 잘 뭐 하려고 하면 심어놓으면.)

103051 #2 무사 저 쉐걸름덜 놓긴 놔나서.(왜 저 쇠두엄들 놓기는 놨었어.)

103051 #1 우리도 쉐걸름 놔도, 주로 이디선 경 허믄 거 요소허고 염가, 이게 요소만 허믄 줄기만 쳐 나불엉 안 뒈난 웃비료옌 허영 저 염가 서껑 저, 비 닐 비오켜 허믄 오늘 약간썩 이렁더레 촉촉촉 뿌려줘사마씨. 예 줍아주멍 헤노믄 나중에 요것이 이제 거 감제 염가는 감제 기운 놈삐 크듯이 감제도 열매난에.(우리도 쇠두엄 놔도, 주로 여기서는 그렇게 하면 그거 요소하고 염화가리, 이게 요소만 하면 줄기만 쳐 나버려서 안 되니까, 웃비료라고 해서 저 염가 섞어서 저, 비 내일 비 오겠다 하면 오늘 조금씩 이랑으로 촉촉촉 뿌려줘야. 예, 집어주면서 해놓으면 나중에 요것이 이제 거 고구마 염화가리는 고구마 기운이 무 크듯이 고구마도 열매이니까.)

103051 #2 걸름 논, 흔 밧은 걸름 놓곡, 두 밧은 아이놔부난 감제가 막 차이 션.(거름 놓은, 한 밭은 거름 놓고, 두 밭은 안 놔버리니까 고구마가 아주 차이가 있어.)

103051 #1 걸름 논 거, 안 논 거는 큰 차이 나고.(거름 놓은 거, 안 놓은 거는 큰 차이가 나고.)

103051 #2 쉐걸름 멕에 져 강, 저 쉐로 시꺼 강 흔 이틀 간 시꺼사. 경 아니허믄 걸름도 엇곡, 경 허믄 천 펭벳긴 못 놩 허믄 저 뚜나.(쇠두엄 멱서리에 져 가서, 저 소로 실어 가서 한 이틀 실어야. 그렇게 안 하면 거름도 없고, 그렇게 하면 천 평밖에 못 놔서 하면 저 달라.)

103051 #1 보리그루에 저, 감제는.(보리 갈았던 곳에 저, 고구마는.)

103051 #2 저 신 사름덜은양, 막 걸름 하영 헙니다마는.(저 있는 사람들은요, 아주 거름 많이 합니다마는.)

103051 #1 부그락이 벌러지멍 감제가 잘 들어마씨.(보각이 벌어지면 고구마가 잘 들어요.)

103052 @ 그다음에 아까 들어본 건디 이거 감저는 어떵 심는 걸, 다시 흔번 골아봅서.(그다음에 아까 들어본 건데 이거 고구마는 어떻게 심는 걸, 다시 한번 말해보십시오.)

103052 #2 이렁에게.(이랑에요.)

103052 #1 감젠 쉐로.(고구마는 소로.)

103052 @ 감젓줄 허는 거부터 시작허영.(고구마 덩굴 하는 거부터 시작해서.)

103052 #1 감제줄은양, 감제줄 어느 정도 흔 뿜 이상 크믄 이제 아, 이거 밧이영, 밧을 게난 물 맞추젠 허믄 감젯메도 잘 길르멍 때를 봐사, 비가 오고 이디.(고구마덩굴은요, 고구마덩굴 어느 정도 한 뻠 이상 크면 이제 아, 이거 밭이랑, 밭을 그러니까 물 맞추려고 하면 고구마 모도 잘 키우면서 때를 봐야, 비가 오고 여기.)

103052 @ 감젓멘 어디 놈수강?(고구마 모는 어디 놓고 있습니까?)

103052 #2 저 밧디, 밧디게.(저 밭에, 밭에요.)

103052 #1 감젯메는 밧디 노는디 어디 우영팟이나, 우리도 우영팟디 놩.(고구마 모

는 밭에 놓는데 어디 텃밭이나, 우리도 텃밭에 놔서.)

103052 #2 우영팟 어스믄 감저 싱글 디 강 흔구석에 놔 노믄 메 줄랑 헤도, 밧 어슨 땐 그추룩 헤사.(텃밭 없으면 고구마 심을 데 가서 한구석에 놔 놓으면 모를 잘라서 해도, 밭 없는 때는 그처럼 해야.)

103052 #1 거 막 저, ᄉᆞ뭇 그거 안 헤도 오좀도 주곡 헤 노믄 좋아마씨. 우영팟디 놩 메종을 잘 길루와사, 겡 헹 이제 흔 뽐 이상 영 흔 조리 이상 크믄 그때 비어당 븍븍 비어당 때 보멍 싱거삽주.(그거 마구 저, 사뭇 그거 안 해도 오줌도 주고 해 놓으면 좋아요. 텃밭에 놔서 모종을 잘 키워야, 그렇게 해서 이제 한 뼘 이상 이렇게 한 집게뼘 이상 크면 그때 베어다가 박박 베어다가 때 보면서 심어야지요.)

103052 @ 거 등짐으로 져 갓수강?(그거 등짐으로 져 갔습니까?)

103052 #2 게 등짐으로 져 가주.(그렇게 등짐으로 져 가지.)

103052 #1 다 멕에 담앙 지곡.(다 멱서리에 담아서 지고.)

103052 #2 멕에 담앙 져 가곡게.(멱서리에 담아서 져 가고요.)

103052 #1 이제 무신 저.(이제 무슨 저.)

103052 #2 대구덕에 헹도 져 가곡.(대바구니에 해서도 져 가고.)

103052 #1 구덕에도 져 가고.(바구니에도 져 가고.)

103052 #2 경 헴신디, 다 멕에 져 가, 멕에덜 문딱 숫기 꼬앙 그걸로 허믄 싱그레 간 사람덜도 ᄀᆞ찌 져다 주곡, 우리도 져 가곡, 아.(그렇게 하고 있는데, 다 멱서리에 져 가, 멱서리에 모두 새끼 꼬아서 그걸로 하면 심으러 간 사람들도 같이 져다 주고, 우리도 져 가고, 아.)

103052 #1 더러 이제.(더러 이제.)

103052 #2 아시날 더러 져 가곡.(전날 일부 져 가고.)

103052 #1 감젯메가 질믄 찝으로 헹 영 무끄멍 촐ᄀᆞ찌 흔 단썩 무껑은에.(고구마 모가 길면 짚으로 해서 이렇게 묶으면서 꼴같이 한 단씩 묶어서.)

103052 #2 무껑.(묶어서.)

103052 #1 가져당 어디 밧 이염더레 놩 뭣 더꺼사.(가져다가 어디 밭 옆에 놔서 뭐 덮어야.)

103052 #2 궤양이 헤은에.(고이 해서.)

103052 @ 시들어불카부덴.(시들어 버릴까 싶어서.)

103052 #1 예, 시들어, 게 안 뒈주. 게난 더끄멍 감제 싱거가는 양 영 그레 갓다줘사, 이제 싱근 사름덜토.(예, 시들어, 게 안 되지. 그러니까 덮으면서 고구마 심어가는 대로 이렇게 그리 가져다줘야, 이제 심는 사람들도.)

103052 #2 갓다주곡.(가져다주고.)

103052 #1 영 헹 싱그곡 허는디, 골 허믄 영, 게난 감제 밧을 잘 갈아사마씨. 밧을 헹 속 영 아멩 잘 갈아도, 초불 갈믄 질지도 아이허곡, 속 묻어지믄 소곱이 디깍허믄 들질 아니허여마씨. 게난 감제 싱글 때 뒐 수 이시믄 거시령 놔뒀당, 또 갈아야 그거 속 안 살앙 허지, 속 살믄 안네 생땅이라.(이렇게 해서 심고 하는데, 고랑 하면 이렇게, 그

러니까 고구마 밭을 잘 갈아야 해요. 밭을 해서 속 이렇게 아무리 잘 갈아도, 애벌 갈면 질지도 안 하고, 속 묻어지면 속에 깊게 박혀있으면 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구마 심을 때 될 수 있으면 건드려서 놔뒀다가, 또 갈아야 그거 속 안 살아서 하지, 속 살면 안에는 생땅이야.)

103052 #2 겐디 보리그루엔 그냥도 헷수다.(그런데 보리 갈았던 곳에는 그냥도 했습니다.)

103052 #1 게믄 그디 감제 잘 아이, 보리그룬 뒈는디 그냥, 뚠 그룬 이제 유채 ᄀᆞ뜬 거 헤난 거, 초불.(그러면 거기 고구마는 잘 아니, 보리 갈았던 곳은 되는데 그냥, 다른 것을 갈았던 곳에는 이제 유채 같은 거 했던 거, 애벌.)

103052 #2 유채 헤난 딘 아이뒈어.(유채 했던 데는 안 돼.)

103052 #1 초불 갈앙 뒐 수 이시믄 갈앙 놔뒷당, 또 갈아야 보그락허곡 손질도 좋곡, 감제도 잘 들지. 게 안허믄 소곱에 허믄 속 묻어졍은에 손 깍깍 찔르멍.(애벌 갈아서 될 수 있으면 갈아서 놔뒀다가, 또 갈아야 보드랍고 손질도 좋고, 고구마도 잘 들지. 그렇게 안 하면 속에 하면 속 묻어져서 손 깍깍 찌르면서.)

103052 @ 유채낭이 잘 썩지도 안 허곡.(유채나무가 잘 썩지도 안 하고.)

103052 #1 예.(예.)

103052 #2 쉐 어신 사름은, 쉐 어신 사름은 그냥 하영 갈곡 게.(소 없는 사람은, 소 없는 사람은 그냥 많이 갈고요.)

103052 #1 초불에 갈곡 헌디 하여튼.(애벌에 갈고 했는데 하여튼.)

103052 #2 쉐 싯고, 쉐 셩 장남 싯곡 헌 사름은.(소 있고, 소 있어서 장정 있고 한 사람은.)

103052 #1 두불 갈앙은에.(두벌 갈아서.)

103052 #2 두불 갈앙 영 허멍 헤낫수다게. 경 허믄 천 평 아니 아무만이 헤도 게 잘아이 들믄 밧 단둘이, 경 허믄 골을 동그랑케 헹 헤노믄 할망덜 앚앙 영 관헤근에 그레 더끄곡 더끄다근에 무시거 시원헌 거, 감주 가져갓당 먹곡 허멍, 거 헹 ᄒᆞ를 얼마, 얼마 허믄 밧 갈아주믄 싱거주켄, 밧 갈아주믄 싱거주켄 허믄 우리 ᄒᆞᆫ 언젠 ᄂᆞᆷ이 거 갈단 보난 이녁 감제 못 싱건 내불어낫수다게, ᄀᆞ물안 못 싱건.(두벌 갈아서 이렇게 하면서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천 평 아니 아무만큼 해도 게 잘 아니 들면 밭 정리, 그렇게 하면 골을 동그랗게 해 놓으면 할머니들 앉아서 이렇게 관해서 거기 덮고 덮다가 무엇 시원한 거, 감주 가져갔다가 먹고 하면서, 거 해서 하루 얼마, 얼마 하면 밭 갈아주면 심어 주겠다고, 밭 갈아주면 심어 주겠다고 하면 우리 한 언제 남의 것 갈다 보니까 이녁 고구마 못 심어서, 내버렸었습니다, 가물어서 못 심어서.)

103052 #1 아니 어떠헷냐 허믄 그때 이제 그때도 장마 막 젼 허단 딱 장마가 끗나서마씨. 겐 물도 막 하니까.(아니 어떠했냐 하면 그때 이제 그때도 장마 막 져서 하다가 딱 장마가 끝났어요. 그래서 물도 아주 많으니까.)

103052 #2 막 ᄀᆞ물안.(아주 가물어서.)

103052 @ 장마 때 싱거야주게.(장마 때 심어야지요.)

103052 #1 예, 장마에 서늘, 서늘헌 땐 싱경 살려야 허는디.(예, 장마에 서늘, 서늘한 때 심어서 살려야 하는데.)

103052 #2 놈이 것만 막 갈아 줫주게.(남의 것만 마구 갈아 줬지요.)

103052 #1 아이, 이젠 사름덜 빌엉 우린 하영 싱그난, 메종은 하영 놔 놓고 이거 놈으 거 허당 이제 다음 비 ᄒᆞ끔 오건 우리 거 싱그주 헨.(아니, 이제는 사람들 빌어서 우리는 많이 심으니까, 모종을 많이 놔 놓고 이거 남의 거 하다가 이제 다음 비 조금 오건 우리 거 심지 했어.)

103052 #2 모다들언 막 싱그젠 허연, 싱그난에.(모여들어서 마구 심으려고 했어, 심으니까.)

103052 #1 문딱 수눌언 막 놈우 것만 갈아 줘서. 놈우 밧덜, 게단 장마 딱 끗난 ᄆᆞ르기 시작허니까, 이건 우리 건 완전 내불엇어.(모두 품앗이해서 마구 남의 것만 갈아 줬어, 남의 밭들, 그러다가 장마 딱 끝나서 마르기 시작하니까 이거는 우리 거는 완전 내버렸어.)

103052 #2 게난 이제 그걸 비어단 문딱 쉐 멕엿수다. 도새기도 주고.(그러니까 이제 그걸 베어다가 모두 소 먹였습니다. 돼지도 주고.)

103052 #1 쉐멕이고 첨, 가슴이 아픕디다. 경 허멍.(소먹이고 참, 가슴이 아픕디다. 그렇게 하면서.)

103052 #2 잘도 감젠 ᄒᆞᆫ 고지 쫙허게 메종 논 디.(잘도 고구마는 한 고지 쫙하게 모종 놓은 데.)

103052 #1 게 하영 놘 헨 허고.(그렇게 많이 놔서 해서 하고.)

103052 #2 경 헤낫수다.(그렇게 했었습니다.)

103052 #1 게난 아이덜토양 이 감제, 게니까 이제 감제 팡 아이덜토 주곡, 혹교에 뎅일 때 운동헐 때도 그거 뭐 먹을 것이 잇수가? 감제 청.(그러니까 아이들도 이 고구마, 그러니까 이제 고구마 파서 아이들도 주고, 학교에 다닐 때 운동회 할 때도 그거 뭐 먹을 것이 있습니까? 고구마 쪄서.)

103052 #2 운동회날은 감제 청 가곡 헷수다게.(운동회날은 고구마 쪄서 가고 했습니다.)

103052 @ 포따리에 쌍 갓주게.(보자기에 싸서 갔지요.)

103052 #2 게난 운동회 때 감제 청 갈 거 어선, 경 헤난.(그러니깐 운동회 때 고구마 쪄서 갈 거 없어서, 그렇게 했으니까.)

103052 @ 우리도 경 헷수다, 옛날에.(우리도 그렇게 했습니다, 옛날에.)

103052 #2 경 헤낫수다, 그때게.(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때요.)

103052 @ 우리도 감저 치곡 그 영.(우리도 고구마 찌고 그 이렇게.)

103052 #2 운동회 헐 때에.(운동회 할 때에.)

103052 @ 우녕팟디 감낭 좀 이서나신디, 그 풋감, 풋감 우령.(텃밭에 감나무 좀 있었는데, 그 아주 작은 감, 아주 작은 감 풋감으로 우려서.)

103052 #1 감 우령은에.(감 우려서.)

103052 @ 감 우렁, 그거 담곡 헹은에.(감 우려서, 그거 담고 해서.)

103052 #2 담곡 헹.(담고 해서.)

103052 #1 것이.(것이.)

103052 #2 쉐 멕이레 강도 감제 쳥 어져가곡 헤낫수다.(소 먹이러 가서도 고구마 쪄서 가져가고 했었습니다.)

103052 @ 제일 먹고 싶은 것은 두 개라, 이 저 감 물랑물랑헌 거.(제일 먹고 싶은 것은 두 개야, 이 저 감 물렁물렁한 거.)

103052 #2 홍시.(홍시.)

103052 @ 홍시 거 폽주게. 그거 하난 먹고 싶으고, 그다음에 저 풀떡, 풀떡.(홍시 거 팔지요. 그거 하나 먹고 싶고, 그다음에 저 풀빵, 풀빵.)

103052 #1 예, 풀떡은.(예, 풀빵은.)

103052 #2 풀떡도 셔난, 먹어나서.(풀빵도 있었어, 먹었었어.)

103052 #1 그때 이만썩 커낫수다게.(그때 이만큼씩 컸었습니다.)

103052 @ 게메, 풀떡 이 저 돗지름에 허영은에.(글쎄, 이 저 돼지기름에 해서.)

103052 #1 거지빵이옌 허영은에 막 나도 저.(거지빵이라고 해서 막 나도 저.)

103052 #2 돈 어시믄 상 먹어집니까? 못 상 먹엉 허난, 감제 친 거 먹곡.(돈 없으면 사서 먹을 수 있습니까? 못 사서 먹어서 하니까, 고구마 찐 거 먹고.)

103052 @ 경 헷수다.(그렇게 했습니다.)

103052 #2 감제 게난 흔 언젠 오꼿 내부난 그땐 막 곤란허연.(고구마 그러니까 한 언젠가 그만 내버리니까 그때는 아주 곤란해서.)

103052 @ 물감저 그거 맛도 어신 거 그냥.(물고구마 그거 맛도 없는 거 그냥.)

103052 #1 허허, 그자 먹기로, 그자 먹기로 먹어십주, 시장허난.(허허, 그저 먹기로, 그저 먹기로 먹었지요, 시장하니까.)

103052 #2 경 허난 그뒷 헤에, 뒷 헤에 막 곤란헨양, 식구들은 싯고 허난 전분 주시헤단에, 저 감제 공장에 간 전분 주시헤단에 담 우이 멘딱 널언에 담 우이 멘딱 저 묵은 집이 살 때에, 멘딱 담 우이 널언 그거 뻐산양, 떡 허곡, 시금시금허멍 헤도 아이 뒈엉 어떵 헙니까? 경도 헤낫수다. 그렇게 그때 슝년이, 슝년 져나서.(그렇게 하니까 그다음 해에, 다음 해에 아주 곤란해서요, 식구들은 있고 하니까 전분 찌꺼기 해다가, 저 고구마 공장에 가서 전분 찌꺼기 해다 담 위에 모두 널어서 담 위에 모두 저 묵은 집에 살 때, 모두 담 위에 널어서 그거 빻아서요, 떡 하고, 시큼시큼하면서 해도 아니 되어서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그때 흉년이, 흉년 졌었어.)

103052 #1 밀, 밀주시도양, 그때 밀주시라고 허영 거 뭐냐허믄 밀도 초불 간 거 싯고, 두불 내린 것이 셔, 두불 거는 복삭허여마씨. 게믄 거 체로 허는디, 그거 헨 우리도 먹어나고, 그 헤엔 우리가양, 거 소문나나서. 감젠 하영 허고 못 허난 밀ᄀᆞ를, 밀ᄀᆞ를 뭐 열아홉 번 먹엇저, 우린 게난 밀츠베기 첨 이.(밀, 밀 찌꺼기요, 그때 밀 찌꺼기라고 해서 그거 뭐냐 하면 밀도 애벌 간 거 있고, 두벌 내린 것이 있어. 두벌 거는 푹석해요. 그러면 그거 겨로 하는데 그거 해서 우리도 먹었었고, 그해에는 우리가요, 그거 소문났

었어. 고구마는 많이 하고 못 하니까 밀가루를, 밀가루를 뭐 열아홉 번 먹었어, 우리는 그러니까 밀수제비 참 이.)

103052 #2 밀ᄎᆞ베기허곡 무신거.(밀수제비하고 무엇.)

103052 #1 ᄀᆞ를 ᄌᆞ베기 매날 헨 먹엇주기.(가루 수제비 매날 해서 먹었지요.)

103052 #2 밀, 밀체 헤당은에 허곡, 감젯주시 떡 허곡, 경 허멍 그 시절이 엄청난 첨 일을 당헷수다게. 경 헤낫수다.(밀, 밀겨 해다가 하고, 고구마 찌꺼기 떡 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 시절에 엄청난 참 일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했었습니다.)

103053 @ 그다음에양, 감저밧디 검질 멧 번 멥니까?(그다음에요, 고구마밭에 김 몇 번 맵니까?)

103053 #2 감저밧디 검질은 두 번도 메곡, 얼마 아이 메어. 감저밧디 검질은 쉬왓수다.(고구마밭에 김은 두 번도 매고, 얼마 아니 매어. 고구마밭에 김은 쉬웠어요.)

103053 #1 예, 게도 거 막 저.(예, 그래도 그거 마구 저.)

103053 @ 두 번?(두 번?)

103053 #2 예, 두 번, 두 번벳기 아이 메언.(예, 두 번, 두 번밖에 아니 매었어.)

103053 #1 덥곡 감제헐 땐 똑 장마 끗데 메 노믄 덥곡, 요놈으 거양 헤노믄 어떵 그마 불어놓곡 허믄 검질은 빈작허곡 땅은 여긴 질왓이난양, 땅은 쎄지, 골갱인 안 들어가지 검질은 빈작 나 노믄, 이 저 보통 제완지허고 쒜비늠 ᄀᆞ뜬 거 나 노믄 이제 요걸 비왕 뭐헌디 헤노믄, 우리도 저 흔 밧 이염에는 한질왓디 저 거 물통이 셔, 골쳉이에 물 들러당 그레 지쳣당 그거 보그락허믄 메곡.(덥고 고구마 할 때는 꼭 장마 끝에 메 놓으면 덥고, 요놈의 거요, 해놓으면 어떻게 그 마 불어놓고 하면 김은 아주 많고 땅은 여기는 '질왓'이니까요, 땅은 세지, 호미는 안 들어가지 김은 아주 많이 나 놓으면, 이 저 보통 바랭이하고 쇠비름 같은 거 나 놓으면 이제 요걸 비와서 뭐한데 해놓으면, 우리도 저 한 밭 옆에는 한길 밭에 저 그거 물통이 있어. 골짜기 물 길어다가 그리 지쳤다가 그거 보드라우면 매고.)

103053 #2 게난 무신 멘날 메집니까?(그러니까 무슨 맨날 매어집니까?)

103053 @ 게난 두 번양.(그러니까 두 번요.)

103053 #2 예.(예.)

103053 #1 두 번 메곡 벳토.(두 번 매고 배토.)

103053 #2 두 번벳기 아이 메어.(두 번밖에 안 매어.)

103053 #1 벳토허여, 쉐로 벳토헹 이제 골 갈곡.(배토해, 소로 배토해서 이제 골 갈고.)

103053 #2 막 검질 한 디예.(아주 김 많은 데요.)

103053 #1 아이, 감제도 ᄒᆞ끔 잘 들곡, 검질도 좀 제초 뒈고, 고량은 제초 뒈고.(아니, 고구마도 조금 잘 들고, 김도 좀 제초 되고, 고랑은 제초 되고.)

103053 #2 벳토허곡 두 번벳기 아이 메어. 어떵사 헤신디 두 번벳기 아이 메낫수다.(배토하고 두 번밖에 안 매어. 어떻게야 했는지 두 번밖에 안 매었었습니다.)

103054 @ 게난 감저밧디는 아까 검질, 무슨 검질?(그러니까 고구마밭에는 아까 김,

무슨 김?)

103054 #1 검질 주로 제완지허고 쒜비늠허고.(김은 주로 바랭이하고 쇠비름하고.)

103054 @ 그다음.(그다음.)

103054 #2 복쿨도 나고.(깨풀도 나고.)

103054 #1 복쿨도 나고, 겐디 이디선 건 제일 제완지허고 쒜비늠만 안 나믄 좋아. 제완지허고 쒜비늠.(깨풀도 나고, 그런데 여기서는 거는 제일 바랭이하고 쇠비름만 안 나면 좋아.)

103054 @ 제완지는 쎄주게, 저거.(바랭이는 세지요, 저거.)

103054 #1 요거양 바짝 흑은 ᄆᆞ르지.(요거요 바짝 흙은 마르지.)

103054 @ 마지막이렌 막.(마지막이라고 막.)

103054 #1 마지막은.(마지막은.)

103054 @2 쉔 주믄 잘 먹엉.(소는 주면 잘 먹어.)

103054 @ 부트멍 막 번져노니까.(붙으면서 마구 번지니까.)

103054 #1 비 와 노믄 부텅.(비 오면 붙어서.)

103054 #2 잘 죽지도 아이허곡.(잘 죽지도 아니하고.)

103054 #1 잘 담앙 내치지나 아이허믄.(잘 담아서 내치거나 아니하면.)

103054 @ 쉐는 잘 먹어, 저거.(소는 잘 먹어, 저거.)

103054 #1 쉐는 막, 허허.(소는 막, 허허.)

103054 #2 담을 건 무신거 셔서.(담을 거는 무엇 있어.)

103054 @ 제완지는 쉐 잘 먹어.(바랭이는 소 잘 먹어.)

103054 #2 들으쏭 내불믄 또 살아낭, 또 부터근에.(그대로 내버리면 또 살아나서, 또 붙어서.)

103054 #1 쉐출 허레 뎅이곡.(소꼴 하러 다니고.)

103054 #2 쉐출 헤당 멕이곡 허멍.(소꼴 해다 먹이고 하면서.)

103054 #1 이 저 ᄋᆞ름에는 첨 쉐허고, 자연허곡 뭣이 싸움이우다게. 쉐출 ᄋᆞ름에, 경 헤도.(이 저 여름에는 참 소하고, 자연하고 뭣이 싸움입니다. 소꼴 여름에, 그렇게 해도.)

103054 #2 검질만 메렌 허곡, 골갱이 어졍강.(김만 매라고 하고, 호미 가져가서.)

103054 #1 검질 ᄋᆞ름, 막 어린 때도 영 기억은, 그자 검질 메난 기억벳기 엇수다.(김 여름, 아주 어릴 때도 이렇게 기억은, 그저 김맸던 기억밖에 없습니다.)

103054 #2 흑교 가지 말앙 검질 메렌.(학교 가지 말고 김매라고.)

103054 @ 검질메는 거.(김매는 거.)

103054 #2 흑교 가지 말렌 헤서, 경 허멍.(학교 가지 말라고 해서, 그렇게 하면서.)

103054 #1 저 어디에는 요 우리도 한질 우녁 저펜이 강 큰 밧디 거 저 이젠 그때 문중밧이엔 허영 벌엇는디, 그때 허믄 이제도 보는 그 밧이 커, 혼 천 멧 펭이라, 그디서 헤노믄양, 그 ᄋᆞ름에 그딘 주로 뭐냐허믄 조허고 콩 갈앗는디 콩 검질 메젠 허믄 것도 덥긴허지 그 자갈은 무사 또 셔? 자갈 메우켄 요 혼 고지 메 가젠헤도 으슥허여, 낫

전은 못 메어, 영 헤노믄 첨 아까ᄀᆞ치 어머니덜은 저 멍에질 짓 들러주곡 허믄 게도 쉬왕.(저 어디에는 요 우리도 한길 위쪽 저편에 가서 큰 밭에 그거 저 이제는 그때 문중밭이라고 해서 벌었는데, 그때 하면 이제 보는 그 밭이 커, 한 천몇 평이야, 거기서 해놓으면요, 그 여름에 거기는 주로 뭐냐 하면 조하고 콩 갈았는데 콩 김매려고 하면 그것도 덥기는 하지 그 자갈은 왜 또 있어? 자갈 메우겠다고 요 한 고지 매 가려고 해도 으슥해, 낮 전은 못 매어, 이렇게 해놓으면 참 아가같이 어머니들은 저 밭머리 깃 들러주고 하면 그래도 쉬웠어.)

103054 #2 어머닌 뭣이옌 ᄀᆞᆯ아, 재게 메라 ᄌᆞ냑이 식게 먹으레 갈 거옌 허영, 겡 그추룩 허멍 허연.(어머니는 뭐라고 말해, 빨리 매라 저녁에 제사 먹으러 갈 거라고 해서, 그렇게 그처럼 하면서 해서.)

103054 @ 달래멍.(달래면서.)

103054 #1 게민 달래어, 누구네 집이 식게난.(그러면서 달래어, 누구네 집에 제사니까.)

103054 #2 게난 그땐 뭣이 불이 이서, 뭣이 셔? 그땐 호야 헤근에 허난에, 경 허멍.(그러니까 그때는 뭐 불이 있어, 뭐가 있어? 그땐 남포등 해서 하니까, 그렇게 하면서.)

103054 #1 이제랑 느네 재게 메사 식게칩이 갈 거라이.(이제는 너희 빨리 매야 제삿집에 갈 거야.)

103054 #2 경 그추룩 허난, 경 헤낫수다게.(그렇게 그처럼 하니까, 그렇게 했었습니다.)

103054 #1 경 허믄 강 콩ᄂᆞ물도 먹곡, 잘 맛 조은 것도 먹엉은에.(그렇게 하면 가서 콩나물도 먹고, 잘 맛 좋은 것도 먹어서.)

103054 #2 식게 먹으레 갈 거여, 시에 산지[113]에, 산지에 갈 거여 허멍, 산지포랑 어디레, 불도 엇곡.(제사 먹으러 갈 거야, 시에 '산지'에, '산지'에 갈 거야 하면서, '산지포'랑 어디로, 불도 없고.)

103054 #1 게난 우리 큰 형님네가 시에 살앗수다게. 시에 그 저 뭐 이 목공도 허곡 허멍 살앗는디 꼭 여름에 식게가 셔마씨. 게 이제도 칠월 초나흘날 제사가 신디, 이게 큰어머니 돌아간 제사라마씨. 건 자식도 엇고 똘 하나 싯단 뭐 헌디 아, 그때 허믄 똑으름에 검질 막 강 허영양, 춤웨허고 그 식게 먹으레 강 허믄 여기서 갈 땐 어떵 간 줄 알암수가? 여기선 그땐 버스가 잘 어시난 넘어가는 추럭 어떵 허영 탕 양 가곡.(그러니까 우리 큰 형님네가 시에 살았습니다. 시에 그 저 뭐 이 목공도 하고 하면서 살았는데 꼭 여름에 제사가 있어요. 그렇게 이제도 칠월 초나흘 제사가 있는데, 이게 큰어머니 돌아가신 제사에요. 건 자식도 없고 딸 하나 있다가 뭐 했는데 아, 그때 하면 꼭 여름에 김 마구 가서요, 참외하고 그 제사 먹으러 가서 하면 여기서 갈 때는 어떻게 간 줄 알고 있습니까? 여기서는 그때는 버스가 잘 없으니까 넘어가는 트럭 어떻게 해서 타서 가고.)

103054 #2 도라꾸, 추럭이라. 도라꾸.(트럭, 트럭이야. 트럭.)

113) '산지'는 제주시 건입동에 위치한 산지천 일대를 일컫는다.

103054 #1 도라꾸이옌 허영 탕 가고, 그디 강 저 산지 살앗는디양, 산지 강 보믄 아, 밤 이딘 전기가 뭔 처레 모른디, 전깃불이 밤이 강 보믄 베롱베롱 훤히 싸진 것이, 야 이거 신기허다. 전기가 어서난디 게도, 겐디 우리 형님네도 욮방이 살멍양 ,도둑질헹 전 길, 거 영 돈 안 내젠 허영, 그디 영 전기 오믄 그디 영 딱 강 툭 걸엉은에 방도 싸곡 허영, 건 돈을 안 낸 헤낫수게. 걸 나도 알아젼.(트럭이라고 해서 타서 가고, 거기 가서 저 '산지' 살았는데요, '산지' 가서 보면 아, 밤 여기는 전기가 뭔 지 모르는데, 전깃불이 밤에 가서 보면 아롱아롱 훤히 켜진 것이, 야 이거 신기하다. 전기가 없었는데 그래도, 그런데 우리 형님네도 옆방에 살면서요, 도둑질해서 전기를, 그거 이렇게 돈 안 내려고 해서, 거기 이렇게 전기 오면 거기 이렇게 딱 가서 탁 걸어서 방도 키고 해서, 그건 돈을 안 내서 했었습니다. 걸 나도 알았어.)

103055 @ 그다음에 감저 수확 어떵 헙니까?(그다음에 고구마 수확 어떻게 합니까?)

103055 #1 감제는 주로 쉐로 갈곡(고구마는 주로 소로 갈고.)

103055 @ 아, 거난 수확헐 때 감젯줄을.(아, 그러니까 수확할 때 고구마 덩굴을.)

103055 #2 감젯줄을 막 허연.(고구마 덩굴을 마구 해서.)

103055 #1 줄을 비영, 줄 비영.(덩굴을 베어서, 덩굴 베어서.)

103055 @ 뭘로 비어서?(뭐로 베었어?)

103055 #2 호미로게.(낫으로요.)

103055 #1 호미로 사름으로 골 쳐가멍.(낫으로 사람으로 골 쳐가면서.)

103055 @ 젱기론 안 해 봅디가? 감젓줄 허는 거.(쟁기로는 안 해 봤습니까? 고구마 덩굴 하는 거.)

103055 #1 젱기로도 헤도, 이디선 주로 호미로 두 고지에 하나썩 큰 밧더레게.(쟁기로 해도, 여기서는 주로 낫으로 두 고지에 하나씩 큰 밭으로요.)

103055 @ 둥그리멍.(굴리면서.)

103055 #1 감젯줄 비어나믄 애먹주기. 작작 골 쳐 놩은에 나중에 둥그리멍 이것도 다 비엉, 감젯줄은 또 쉐 잘 먹으난 잘 저장헷당 허는디, 이거 널엇당 이제.(고구마 덩굴 베 나면 애먹지요. 작작 골 쳐 놔서 나중에 굴리면서 이것도 다 베어서, 고구마 덩굴은 또 소 잘 먹으니까 잘 저장했다가 하는데, 이거 널었다가 이제.)

103055 #2 에, 감젯줄허기가, 에.(에, 고구마 덩굴 하기가, 에.)

103055 @ 게난 감젓줄 비엇당은에.(그러니까 고구마 덩굴 베었다가.)

103055 #2 시들어 가믄.(시들어 가면.)

103055 #1 비엇당 시들어가믄 한쪽더레 더러 밀어가멍 감젤 가는 거라.(베었다가 시들어가면 한쪽으로 더러 밀어가면서 고구마를 가는 거야.)

103055 #2 감제 갈아가멍 그거 더러 웁더레 내쳐가멍.(고구마 갈아가면서 그거 더러 옆으로 내쳐 가면서.)

103055 #1 쉐로 이제 주로 이디선 쉐로 가난, 감제 허믄 댓 사름썩 주워.(소로 이제 주로 여기서는 가니까, 고구마 하면 다섯 사람씩 주워.)

103055 @ 감저 팔 때?(고구마 팔 때?)

103055 #1 감제 팔 때 감제 주스레 오라 헹, 영.(고구마 팔 때 고구마 주우러 오라 해서, 이렇게.)

103055 #2 비는 것도 장만허영 ᄒᆞ를에도 못 비엉, 메칠 비어사.(베는 것도 장만하고 하루에 못 베어서, 며칠 베어야.)

103055 #1 이디선 처음엔 뻿데기도 허고, 그 후제 전분 공장 나난 그거 이제 헹 허믄 망사리허영 ᄒᆞᆫ 망사리 얼마썩 허믄 망사리에 담안 이제 전분 공장더레 시꺼갓수다.(여기서는 처음엔 고지도 하고, 그 후에는 전분 공장 생기니까 그거 이제 해서 하면 망사리 해서 한 망사리 얼마씩 하면 망사리에 담아서 이제 전분 공장으로 실어갔습니다.)

103055 #2 그디서 시끄레 와, 그디 사름덜.(거기서 실으러 와, 거기 사람들.)

103055 @ 뻿데긴 안 헤 보고?(고지는 안 해 보고?)

103055 #2 뻿데긴 아니 허고.(고지는 안 하고.)

103055 #1 처음엔 뻿데기 헤낫는디.(처음에는 고지 했었는데.)

103055 #2 ᄒᆞ끔 헤낫수다게.(조금 했었습니다.)

103055 @ 돈 더 벌젠 허면게.(돈 더 벌려고 하면요.)

103055 #1 경 헤도 이디선 주로 전분 공장.(그렇게 해도 여기서는 주로 전분 공장.)

103055 #2 전문 공장더레만 다 간, 잘 안 헤낫수다.(전분 공장으로만 다 가서, 잘 안 했습니다.)

103055 #1 거 날씨 좋곡 잘 헹 ᄆᆞᆯ리울 디가 셔사주, 이디서 감저뻿데기도 ᄆᆞᆯ리울 디가 어디 산담이나게, 아니믄 어디 ᄂᆞᆷ우 산더레 널엉 영 지치곡 허는디.(그렇게 날씨 좋고 잘 해서 말릴 데가 있어야지, 여기서는 고구마고지도 말릴 데가 어디 무덤 주위 돌담이나, 아니면 어디 남의 묘로 널어서 이렇게 지치고 하는데.)

103055 @ 밧디 그냥 널믄 뒈주기.(밭에 그냥 널면 되지요.)

103055 #2 아이, 질왓[114] 뒈불곡양.(아니, '질왓' 돼버리고요.)

103055 #1 밧디 헷당 비 오믄 줍젠 헤도 경허고, 질왓, 웃드리, 웃드리ᄀᆞ찌 자갈 신 밧이믄 몰라도 이디선.(밭에 했다가 비오면 주우려고 해도 그러고, '질왓', '웃드르', '웃드르' 같이 자갈 있는 밭이면 몰라도 여기서는.)

103055 #2 질왓덜 허곡.('질왓'들 하고.)

103055 @ 흑 막 부터불고.(흙 마구 붙어버리고.)

103055 #2 예, 부떠불곡.(예, 붙어버리고.)

103055 #1 비 ᄒᆞᆫ번 맞으민 범벅 뒈불어.(비 한번 맞으면 범벅 돼버려.)

103055 #2 게난 아직꺼진 뻿데긴 아니 허연, 체암 ᄒᆞ끔 허단 공장 낫젠, 뻿데긴 체암 어디 간 널어시냐허믄 바당에 간 널엇주게. 바당에 테역 우티덜 더러 알동네 사름덜 더러 널단.(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고지는 안 했어, 처음 조금 하다가 공장 생기니까, 고지는 처음 어디 가서 널었느냐 하면 바다에 가서 널었지요. 바다에 떼 위 더러 아래쪽에 있는 동네 사람들 더러 널다가.)

103055 #1 문 져 간에 널언.(모두 져 가서 널었어.)

114) '질왓'은 돌멩이가 없고 맨흙이 깔려 있는 밭이다.

103055 #2 져 가멍 널단에 공장 생겨가난에, 공장 헴젠 소문나난에.(져 가면서 널다가 공장 생겨가니까, 공장 하고 있다고 소문나니까.)

103055 @ 여기도 이선게, 전분 공장.(여기도 있었어, 전분 공장.)

103055 #1 예, 다 그디덜.(예. 다 거기들.)

103055 @ 이젠 치왐선게마는.(이제는 치우고 있지만.)

103055 #2 다 그디덜 간 풀아.(다 거기들 가서 팔아.)

103055 @ 큰, 큰 전문공장이더라고.(큰, 큰 전문공장이더라고.)

103055 #1 크게 헤낫수다.(크게 했었습니다.)

103055 #2 크게 헤낫수다마는.(크게 했었습니다만.)

103055 #1 이 근방에 부족허믄 막 저 동촌에 강 시꺼 와, 감제덜. 감제덜 막 전문공장이.(이 근방에 부족하면 마구 저 동촌에 가서 실어 와, 고구마들. 고구마들 마구 전문공장에.)

103055 #2 그레 풀안 뻿데기 아니 헤 봔. 흔번 헤밧자 범위가 헤꼬만 허게 허고게, 거 놀감저만 하영 풀앗수게.(그리 팔아서 고지 안 해 봤어. 한번 해봤자 범위가 조금만 하고요, 그렇게 날고구마만 많이 팔았습니다.)

103055 @ 게난 팔 때는 쉐로 팡?(그러니까 팔 때는 소로 파서?)

103055 #2 예, 쉐로 갈앙.(예, 소로 갈아서.)

103055 #1 @ 갈앙은에.(갈아서.)

103055 #2 손으로 주워.(손으로 주워.)

103055 #1 보통허믄 수눌어가멍 허믄 쉐 둘썩, 싯썩 흔 밧디 젱기로 막 갈아노믄, 쉐 하나에 사름 줏는 사름이 싯, 싯은 버쳐, 너이나.(보통하면 품앗이하면서 하면 소 둘씩, 셋씩 한 밭에 쟁기로 마구 갈아놓으면, 소 하나에 사람 줍는 사람이 셋, 셋은 부쳐, 넷이나.)

103055 #2 아니, 싯썩 허믄 싯썩도 허고.(아니, 셋씩 하면 셋씩도 하고.)

103055 #1 가멍 막 욮더레 잡아 데껴 가믄 한쪽에선양, 또 그날 막 망사리에 담아가멍.(가면서 마구 옆으로 잡아 던져 가면 한쪽에서는요, 또 그날 마구 망사리에 담아가면서.)

103055 #2 망사리레 담아가멍.(망사리로 담아가면서.)

103055 #1 게다 보믄 사름이 멧씩 영 셔도 다 필요허여.(그러다 보면 사람이 몇씩 이렇게 있어도 다 필요해.)

103056 @ 그다음에 저 감저 어떵 보관헙니까?(그다음에 저 고구마 어떻게 보관합니까?)

103056 #1 감제는 집이 먹을 거 웨에는 이디선 다 풀아불어. 게 메종 놀 거허고 먹을 거는 놔두는디, 처음에 감젯 눌.(고구마는 집에 먹을 거 외에는 여기서는 다 팔아버려. 게 모종 놓을 거하고 먹을 거는 놔두는데, 처음에 고구마 가리.)

103056 #2 거세기 감제 땅 팡 그레 구뎅이.(거시기 고구마 땅 파서 그리 구덩이.)

103056 @ 감젯 구뎅이?(고구마 구덩이?)

103056 #1 감젯 구뎅이 파.(고구마 구덩이 파.)

103056 #2 감젯 구뎅이 팡은에.(고구마 구덩이 파서.)

103056 #1 이제 것도 물 ᄆᆞᆯ른 디, 비 왕 물 나믄 안 뒈고, 이딘 질흑 밧이 하노난.(이제 것도 물 마른 데, 비 와서 물 나면 안 되고, 여기서는 아주 질퍽질퍽하게 된 흘밭이 많으니까.)

103056 @ 썩어부니까게.(썩어 버리니까요.)

103056 #1 예, 겡 팡은에 하도 중이 헤가난 영 저 쒜.(예, 그렇게 파서 하도 쥐가 해가니까 이렇게 저 쇠.)

103056 @ 쒜 철망 놩은에.(쇠 철망 놔서.)

103056 #1 쒜 철망허고 또 이 조집, 조집 아이허믄 나룩찝은 물 탕 주믄 비오믄 안 뒈난 조집으로 허영, 영 휘 둘렁 철망허영 그레 아레 영 놓곡, 또 우터레 영 무신거 연통ᄀᆞ찌 허영 우에 공기 나가게, 경 헹 묻엉 헤도양, 재수 좋으믄 그것이 잘 살곡 썩지 아이허곡, 게 안허믄 썩는 디가 하우다게. 게믄 그후젠 집마다 이젠 온돌방에 가멩이나 멕에 담곡, 또 능금 하꼬에 이제 영 헹은에 그.(쇠 철망하고 또 이 조짚, 조짚 안 하면 볏짚은 물 타서 주면 비오면 안 되니까 조짚으로 해서, 이렇게 휘 둘러서 철망해서 그리 아래 이렇게 놓고, 또 위에 이렇게 무엇 연통같이 해서 위에 공기 나가게, 그렇게 해서 묻어서 해도요, 재수 좋으면 그것이 살고 썩지 않고, 게 안 하면 썩는 데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 후에는 집마다 이제는 온돌방에 가마니나 멱서리에 담고, 또 사과 상자에 이제 이렇게 해서 그.)

103056 #2 벡장에 놩 놔두곡.(벽장에 놔서 놔두고.)

103056 #1 벡장에 다 허멍 이 하꼬도 너무 이제 성허믄 신문지 영 노멍 덜 ᄆᆞᆯ르게 허렌게 허영 그레 ᄌᆞ근ᄌᆞ근 좋은 감제로만 놧당, 것이 겨울 양식도 허영 먹곡, 흔 하꼬 들러내믄 식구덜이영 청 감제 헹 먹고.(벽장에 다 하면서 이 상자도 너무 이제 엉성하면 신문지 이렇게 놓으면서 덜 마르게 하라고요 해서 그리 차근차근 좋은 고구마로만 놨다가, 그것 겨울 양식도 해서 먹고, 한 상자 들어내면 식구들이랑 쪄서 고구마 해서 먹고.)

103056 #2 신문지도 셔? 공회당이 강 ᄒᆞ끔 빌어왕은에 놓곡, 경 헤낫수다.(신문지도 있어? 공회당에 가서 조금 빌려와서 넣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103057 @ 그다음에양, 우리 여자 삼춘이 말헙서. 그 감저로 뭘 헤마씨, 감저로.(그다음에요. 우리 여자 삼촌이 말하세요. 그 고구마로 뭘 했나요, 고구마로.)

103057 #2 감제, 감제술도 허영 풀곡.(고구마, 고구마술도 해서 팔고.)

103057 @ 감제 술 허영.(고구마 술 해서.)

103057 #2 게 감제떡도 허영 먹곡, 감제술도 허영 풀아낫수다. 고소리 허영 옛날.(그렇게 고구마떡도 해서 먹고, 고구마술도 해서 팔았었습니다. 소줏고리 해서 옛날.)

103057 @ 게 이거 뻿데기헤야 뒐 거 아이라.(게 이거 고지해야 될 거 아니야.)

103057 #2 뻿데기도 아니허곡, 저 그냥 술망도 헤나서. 술망 누룩에 허영, 우린 그거 허는 과정을 처음 잘 몰른디 할망네 허는 거 보믄 감제술, 감제술, 감젤 무사 술망수

강? 허믄 감제술 헐 거 아이가게. 야이 저레 불이나 솜암시라 허멍 경 허멍 허연, 감제술하고 감제떡, 감제떡허곡게. 감제떡허믄 귀신 아이 나온덴, 귀신 봐려진덴 감제떡을 옛날은 할망덜 경 헙다게, 원 나도.(고지도 안 하고 저 그냥 삶아서도 했었어. 삶아서 누룩에 해서, 우리는 그거 하는 과정을 처음 잘 몰랐는데 할머니네 하는 거 보면 고구마술, 고구마술, 고구마를 왜 삶고 있습니까? 하면 고구마술 아닌가요, 이 아이 저리 불이나 때고 있으라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했어, 고구마술하고 고구마떡, 고구마떡하고요. 고구마떡 하면 귀신 안 나온다고, 귀신 볼 수 있다고 고구마 떡을 옛날은 할머니들 그렇게 합디다, 원 나도.)

103057 @ 감저 침떡도 헤서양? 뻿데기 ᄀᆞᆯ앙은에.(고구마 시루떡도 했었지요? 고지 갈아서.)

103057 #2 감제 침떡도 뻿데기 ᄀᆞᆯ앙 감제 침떡도 허곡, 게난 감제떡허믄 귀신 아이 나온덴 허멍, 경 옛날 우리 할마니네 경 허연, 경 허고 감제술도 허고.(고구마 시루떡도 고지 갈아서 고구마 시루도 하고, 그러니까 고구마 떡 하면 귀신 안 나온다고 하면서, 그렇게 옛날 우리 할머니네 그렇게 했어, 그렇게 하고 고구마 술도 하고.)

103057 @ 게난 먹을 거 어시난 경 ᄀᆞᆯ아실테주.(그러니까 먹을 거 없으니까 그렇게 말했겠지.)

103057 #2 게메, 먹을 거 어시난 경 ᄀᆞᆯ아선게. 엿날은 먹을 거 엇곡, 손지덜 오믄 줄 거 엇곡 허나네 그추룩 ᄀᆞᆯ아실테주 원, 게난.(글쎄, 먹을 거 없으니까 그렇게 말했었어, 옛날은 먹을 거 없고, 손자들 오면 줄 거 없고 하니까 그렇게 말했겠지 원, 그러니까.)

103057 @ 게난 이제 뻿데기도 허고.(그러니까 이제 고지도 하고.)

103057 #2 뻿데기 ᄒᆞ끔 허영, 게 어디 ᄇᆞ른구덕[115]이 놩 놔뒷다근에.(고지 조금 해서 그거 어디 'ᄇᆞ른구덕'에 놔서 놔뒀다가.)

103057 @ 겨울에 먹지 안허꽈양? 쳐근에.(겨울에 먹지 않습니까? 쪄서.)

103057 #2 하영 안 헤나서.(많이 안 했었어.)

103057 #1 떡 먹을 땐 물 ᄒᆞ끔 영 컷당, 것도 ᄃᆞᆯ허게 무신 사카린 물이나 ᄒᆞ끔 허영 영 젓엉 뿌령 놔두믄 ᄃᆞᆯ허여마씨.(떡 먹을 때는 물 조금 이렇게 담갔다가, 것도 달게 무슨 사카린 물이나 조금 해서 이렇게 저어서 뿌려 놔두면 달하지요.)

103057 @ 그거 창에 부뜬 것이 맛 좋아, 창에.(그거 바닥에 붙은 것이 맛 좋아, 바닥에.)

103057 #1 허허(웃음), 창에, 하하하(웃음), 창에.(허허(웃음), 창에, 하하하(웃음), 창에.)

103057 #2 하하하하하(웃음).(하하하하하(웃음).)

103057 #1 솟창에 딱 부뜬 거.(솥바닥에 딱 붙은 거.)

103057 @ 그거 떼엉 먹는 것이.(그거 떼어서 먹는 것이.)

103057 #1 것이 맛 좋주기. 하하(웃음).(것이 맛 좋지요. 하하(웃음).)

115) 'ᄇᆞ른구덕'은 대오리를 결은 바구니가 헐어서 종이나 헝겊 따위에 풀을 발라 붙인 바구니이다.

103057 #2 이제 사름덜 그런 거 먹음이랑 말앙, 게난.(이제 사람들 그런 거 먹음이랑 마랑, 그러니까.)

103057 @ 이젠 쉐 줘도 안 먹을 거우다. 건강식으로덜.(이제는 소 줘도 안 먹을 겁니다. 건강식으로들.)

103057 #2 예, 경 허난양.(예, 그렇게 하니까요.)

103057 #1 이제 건강식으로 먹주.(이제 건강식으로 먹지.)

103057 #2 아이고, 감제, 감제가 질 좋은 거라낫는디.(아이고, 고구마, 고구마가 제일 좋은 것이었는데.)

103057 #1 감젯양 무정허여마씨. 왜냐믄 때만, 게난 잘 물 맞추앙 싱금만 허믄 감젠 웬만허믄 뒈는디 대풍에도 뭐.(고구마는요 무정합니다. 왜냐하면 때만, 그러니까 잘 물 맞춰서 심기만 하면 고구마는 웬만하면 되는데 태풍에도 뭐.)

103057 #2 밥에도 게 보리쏠로도 감저 혜난, 감제 썰어놩, 밥에 느량 허연.(밥에도 게 보리쌀로도 고구마 했었어, 고구마 썰어놔서, 밥에 늘 했어.)

103057 #1 게메, 좁쏠에 보리쏠에 무신거 영.(글쎄, 좁쌀에 보리쌀에 무엇 이렇게.)

103057 #2 느량 허연.(늘 해서.)

103057 #1 저 감제 썰어 놓곡 허믄 맛 좋주기, 밥 헹. 모힌 좁썰 허영 감제 썰어 놓곡 허영.(저 고구마 썰어 넣고 하면 맛 좋지요, 밥해서. 메진 좁쌀 해서 고구마 썰어 넣고 해서.)

103057 #2 느량 경 허연, 좁쏠.(늘 그렇게 해서, 좁쌀.)

103057 @ 에이고, 그거 허믄 감제만 파먹엇주.(아이고, 그거 하면 고구마만 파먹었지.)

103057 #1 하하하(웃음), 맛 좋은 걸로 감제.(하하하(웃음), 맛 좋은 것으로 고구마.)

103057 #2 아이, 쏠은 ᄒᆞ끔만 놓고, 쏠 어시난 ᄒᆞ끔만 놓고.(아니, 쌀은 조금만 넣고, 쌀 없으니까 조금만 넣고.)

103057 @ 좁쏠 놔근에, 감제 놔근에, 아이고.(좁쌀 넣고, 고구마 넣고, 아이고.)

103057 #2 감제밥 헹 먹고, 감제떡 허믄 귀신 아이 나온뎅 우리 할마니 무사 경 ᄀᆞᆯ암신고, 경 헤낫수다.(고구마밥해서 먹고, 고구마떡 하면 귀신 안 나온다고 우리 할머니 왜 그렇게 말하고 있는지 그렇게 했었습니다.)

103057 #1 감제떡은 올리믄 거멍허여.(고구마떡은 올리면 검어.)

103057 #2 게난 귀신 귀신 아니 나온덴 허멍 경, 떡허고, 감제 ᄉᆞᆯ망 무신.(그러니까 귀신 안 나온다고 하면서 그렇게, 떡하고, 고구마 삶아서 무슨.)

103057 @ 뻿데기도 저거 비 맞으민 거멍허주게.(고지도 저거 비 맞으면 검지요.)

103057 #2 예, 게 거멍허여. 거멍허여.(예, 그렇게 검어, 검어.)

103057 @ 게난 이 감저떡도 거멍헐 수벳기 없어. 저 포도당입주, 포도당.(그러니까 이 고구마떡도 검을 수밖에 없어. 저 포도당이지, 포도당.)

103057 #1 예.(예.)

103057 #2 이디 이젠 그런 거 먹는 것이 좋은 건디양.(여기 이제는 그런 거 먹는 것

이 좋은 것인데요.)

103057 #1 건강식이우다게.(건강식입니다.)

103057 @ 건강식이라마씨.(건강식이에요.)

103057 #2 게난 먹지 아니허여.(그러니까 먹지 안 해.)

103057 @ 감저 막 비싸우다, 이젠.(고구마 아주 비쌉니다, 이제는.)

103057 #2 예, 막 비싸마씨.(예, 아주 비싸요.)

103057 @ 첨, 요즘은 비싸고.(참, 요즘은 비싸고.)

103057 #1 전인 첨 하영 싱거네 분무기도 타 나고, 니아까도 타 나고. 감제떡.(전에는 참 많이 심어서 분무기도 타 나고 리어카도 타 나고. 고구마떡.)

103057 #2 감제술이옌 허멍, 우리 할마니 감제.(고구마술이라고 하면서, 우리 할머니 고구마.)

103057 @ 감제술도 담아마씨?(고구마술도 담아요?)

103057 #2 감제술도 허영 고소리에 허영, 어떵사 헤신디.(고구마술도 해서 소줏고리에 해서, 어떻게야 했는지.)

103057 @ 게난 감제술도 허고.(그러니까 고구마술도 하고.)

103057 #2 감제술도 허고, 감제떡도 허곡게.(고구마술도 하고, 고구마떡도 하고요.)

103057 @ 그다음은.(그다음은.)

103057 #2 저 감제밥도 허영, 느량.(저 고구마밥도 해서, 늘.)

103057 @ 감제밥도?(고구마밥도?)

103057 #1 밥에 썰어 놩은에.(밥에 썰어 넣어서.)

103057 #2 밥에 썰어놩도 허고, 감제술도 허여.(밥에 썰어 넣어서도 하고, 고구마술도 해.)

103057 @ 우리 할마닌 느량 감제술에 보리에 어떵 허연 헤나서. 보리 거 무신 보리 잇잔아, 꺼끌꺼끌헌.(우리 할머니는 늘 고구마술에 보리에 어떻게 해서 했었어. 보리 그거 무슨 보리 있잖아, 까끌까끌한.)

103057 #1 겉보리.(겉보리.)

103057 #2 겉보리로, 그 보리로 헨에, 감제영 허영 술 헤낫수다. 게믄 정지에 강 보믄 정지, 궤팡더레 강 보믄 이만썩 헌 거 술 냄새가 구싱허여근에, 원 엿날은 중이사 들 엄신,디 뭣사 헴신디 헤도, 그거 거려다근에 할으버지 술이 좋아허는 우리 할으버지덜이라노난 느량 그 감제술 먹어. 감제허곡 겉보리 헹은에 술 허영.(겉보리로, 그 보리로 해서, 고구마랑 해서 술 했었습니다. 그러면 부엌에 가서 보면 부엌, 고방으로 가서 보면 이만큼씩 한 거 술 냄새가 구수해서, 원 옛날은 쥐가 들고 있는지, 뭐야 하고 있는지 해도, 그거 떠다가 할아버지 술을 좋아하는 우리 할아버지들이니까 늘 그 고구마술 먹어. 고구마하고 겉보리 해서 술 해서.)

103058 @ 감젓줄로는 뭘 헙니까? 감젓줄.(고구마덩굴로는 뭘 합니까? 고구마덩굴.)

103058 #1 감제줄을 쉐, 쉐. 물리왓당 그건 아주 잘 보관헹, 첨 나룩찝에 뭐 이 조찝에 헹 눌어도 허곡, 감젯줄은 이제 그 사이에 놓멍 눌엇당 여기선 쉐 멕이는.(고구마

덩굴을 소, 소. 말렸다가 그건 아주 잘 보관해서, 참 볏짚에 뭐 이 조짚에 해서 쌓아도 하고, 고구마덩굴은 이제 그사이에 놓으면서 쌓았다가 여기선 소 먹이는.)

103058 @ 잘 몰리와야 헐 거 아니라양.(잘 말려야 할 거 아닙니까요.)

103058 #1 잘 몰리와사.(잘 말려야.)

103058 @ 거 안 허민 썩어불어.(그거 안 하면 썩어버려.)

103058 #1 게난 이제.(그러니까 이제.)

103058 #2 썩어불믄.(썩어 버리면.)

103058 #1 사이에.(사이에.)

103058 #2 도새기.(돼지.)

103058 #1 놓멍 헤야.(놓으면서 해야.)

103058 #2 도새기 신디 통시레 놔 부렁게.(돼지 있는데 돼지우리로 놔 버려.)

103058 #1 덜 몰라, 덜 썩읍주게. 게난 덜 몰라, 이 저 조낭허고 감제허고 영 허믄 흔 도리 놩 눌 때, 흔 도리 놓믄, 조낭허곡 흔 도린 감제줄 놓곡, 영 헹 눌엉 헷당 이제 빠 멕일 땐 거 썰멍 이건 양식으로도 막 감제, 쉐가 잘 먹으난 썰멍 홈치 ᄀᆞ찌 서껑.(덜 말라, 덜 썩지요. 그러니까 덜 말라, 이 저 조짚하고 고구마하고 이렇게 하면 한 도리 놔서 쌓을 때, 한 도리 놓으면, 조짚하고 한 도리는 고구마덩굴 놓고, 이렇게 해서 쌓아서 했다가 이제 빼서 먹일 때는 거 썰면서 이거는 양식으로도 마구 고구마, 소가 잘 먹으니까, 썰면서 한꺼번에 같이 섞어서.)

103058 #2 게난 싱싱헤사게.(그러니까 싱싱해야.)

103058 #1 것도 벌겅허게 몰라사.(그것도 벌겋게 말라야.)

103058 #2 몰르지 아이허믄.(마르지 않으면.)

103058 #1 거멍허영 시들엉 썩어놓믄 안 먹어.(검어서 시들어서 썩어 놓으면 안 먹어.)

103058 #2 도새기, 돗통더레 놔 불어사. 돗통더레 놩 걸름 뒈영은에, 그거 허영 걸름은 일 년에 두 번 도새기통에 꺼내어나고.(돼지, 돼지우리에 넣어 버려야. 돼지우리로 넣어서 거름 돼서, 그거 해서 거름은 일 년에 두 번 돼지우리에서 꺼내었었고.)

103058 @ 에이, 그거 걸름은 잘 안 뒈어. 그거, 그거 막 긴 거.(에이, 그거 거름은 잘 안 돼. 그거, 그거 아주 긴 거.)

103058 #2 게믄 놔둘 디 어시믄.(그러면 넣어둘 데 없으면.)

103058 @ 돗통에 놓민.(돼지우리에 놓으면.)

103058 #1 걸름 내기도 궂곡.(거름 내기도 궂고.)

103058 @ 걸름 낼 때 힘들어.(거름 낼 때 힘들어.)

103058 #1 그거 지각지각 허멍.(그거 지각지각 하면서.)

103058 #2 걸름 내기 궂어도 어드레 못 허난 그레 놩 놔두곡, 베낏디 걸름 헌 딘 감젯줄 헌 딘도 놓곡 허멍, 으시데껴불고 어떵 헤불언.(거름 내기 궂어도 어디로 못 하니까 그리 넣어서 넣어두고, 바깥에 거름 한 데는 고구마덩굴 한 데도 넣고 하면서, 없애 버리고 어떻게 해버렸어.)

103058 @ 그 감젓줄이 정말 독헤난 거라, 저 쉐덜 거 저 밧 갈 땐양, 그거 특별 음식이주게.(그 고구마덩굴이 정말 독했던 거야, 저 소들 그거 저 밭 갈 때는요, 그거 특별 음식이지요.)

103058 #2 예, 혼 뭇 벌경헌 거.(예, 한 뭇 벌건 거.)

103058 @ 감젓줄 헤당 주민 쉐 잘 먹어.(고구마덩굴 해다 주면 소 잘 먹어.)

103058 #2 밧 갈당 ᄒᆞ끔 쉴 때에.(밭 갈다가 조금 쉴 때.)

103058 #1 감제줄 시든 거, 감젯줄 시들엉 놔뒁당 갓다주믄 그건 첨 잘 먹어, 쉐.(고구마덩굴 시든 거, 고구마덩굴 시들여서 놔뒀다가 가져다주면 그거는 참 잘 먹어, 소.)

103058 #2 아이, 쉐도 갈당게, 쉬는 시간에 ᄒᆞ끔 쉬영 허켄 허영, 그땐 감젯줄도 혼 뭇, 두 뭇 갓당 어디 놔뒁당.(아니, 소도 갈다가요, 쉬는 시간에 조금 쉬어서 하겠다고 해서, 그때는 고구마덩굴도 한 뭇, 두 뭇 가져다가 어디 놔뒀다가.)

103058 @ 넹기는 것도 어서, 잘 먹어, 쉐덜.(남기는 것도 없어, 잘 먹어, 소들.)

103058 #2 예, 문짝 먹어마씨. 거 저 나룩찝으로 묵엉은에 헤 놓믄 문짝 먹어, 싱싱헌 것쯤은 잘 먹곡.(예, 모두 먹어요. 그거 저 볏짚으로 묶어서 해 놓으면 모두 먹어, 싱싱한 것쯤은 잘 먹고.)

103058 #1 벌경케 잘 ᄆᆞᆯ리와사 뒛사 놓멍.(벌겋게 잘 말려서. 뒤집어 놓으면서.)

103058 @ 벌경 헤얍주게.(벌겋게 해야지요.)

103058 #2 아이고 게난, 그 작산 삼천 평.(아니고 그러니까, 그 많은 삼천 평.)

103058 @ 요즘은 사름덜도 이제 먹지 안 헙니까? 감젓줄.(요즘은 사람들도 이제 먹지 안 합니까? 고구마덩굴.)

103058 #2 다 늘경, 늘경. 예, 놀 거 헹 뎅가리 맛 좋아마씨, 뎅가리.(다 늙어서, 늙어서. 예, 날 거 줄거리 맛 좋습니다, 줄거리.)

103058 #1 예, 감젯뎅가리 그거 영 이파리 따곡, 또 거죽 벳경은에.(예, 고구마줄거리 그거 이렇게 잎 따고, 또 껍질 벗겨서.)

103058 @ 거죽 벳경은에.(껍질 벗겨서.)

103058 #1 ᄆᆞᆯ리왓당도.(말렸다가도.)

103058 #2 맛 좁네다.(맛 좋습니다.)

103058 #1 거 술망 ᄆᆞᆯ리우믄 고사리ᄀᆞ찌 허곡, 고사리 닮아, 경 헹 먹곡 허는디.(그거 삶아서 말리면 고사리같이 하고, 고사리 닮아, 그렇게 해서 먹고 하는데.)

103058 @ 게난 쉐 잘 먹으난에, 사름덜도 아, 이거 우리 먹어도 뭠직허다 헨에.(그러니까 소 잘 먹으니까, 사람들도 아, 이거 우리 먹어도 될 것 같다 해서.)

103058 #1 건강식으로 이제.(건강식으로 이제.)

103058 #2 감젯뎅가리 이제 동문시장에도 풀아, 에고 게메 그자 쎙감제 삼천펭허멍, 게난.(고구마줄거리 이제 '동문시장'에도 팔아, 에고 글쎄, 그저 생고구마 삼천 평하면서, 그러니까.)

103059 @ 그다음에 감저 농사허멍 얽힌 추억, 다 못 ᄀᆞᆯ은 거 혼번 영.(그다음에 고구마 농사하면서 얽힌 추억, 다 못 말한 거 한번 이렇게.)

103059 #2 다 못 ᄀᆞᆯ은 거, 아이고.(다 못 말한 거, 아이고.)

103059 @ ᄀᆞᆯ아봅서.(말해보세요.)

103059 #1 감제를 하영 헤난디, 아 거 저 아버지가 그 사이에 몸이 좋지 아이헷수다게. 늙언 혼 ᄋᆞ든 아홉에 돌아갓는디, 아 게난 아버지는 감제는 한참 헐 땐디 아 이제 거 아버진 임종을 허게 뒈어도 아 감제를, 게면 영 보난 이제 돌아감신가? 아니다. 감제 우선 감제 공장에 강 시꺼가라, 차는 막 대고.(고구마를 많이 했었는데, 아 그거 저 '아버지'가 그 사이에 몸이 좋지 안 했습니다. 늙어서 한 여든아홉에 돌아가셨는데, 아 그러니까 아버지는 고구마는 한참 할 때인데, 아 이제 아버지는 임종을 하게 되어도 아 고구마를, 그러면 이렇게 보니까 이제 돌아가고 있는가? 아니다. 고구마 우선 고구마 공장에 가서 실어가라, 차는 마구 대고.)

103059 #2 시꺼가렌 ᄀᆞᆯ안.(실어가라고 말했어.)

103059 #1 이제 허난 간 시꺼단 간 완 보난 아버진 돌아가부난 임종을 못 허고, 그것이 이제도 서운헤마씨. 게도 뚠 형들은 보고 다 헷는디, 나만 우리 두 갓만 못 본 거라.(이제 하니까 가서 실어다가 가서 와서 보니까 아버지는 돌아가 버리니까 임종을 못 보고, 그것이 이제도 서운해요. 그래도 다른 형들은 보고 다 했는데, 나만 우리 두 부부만 못 본 거야.)

103059 @ 감제 때문에양.(고구마 때문에요.)

103059 #1 감제 때문에, 아 거 강 왕, 우선 뭐 허젠 간 완 보난 돌아가부런.(고구마 때문에, 아 저 그거 가서 와서, 우선 뭐 하려고 가서 와서 보니까 돌아가셔 버리고.)

103059 #2 아, 경 헌디 경헤도 서월 섭섭헌 일이 셔, 아바지가 이제 저디 살멍 그땐 이발소도 엇고 머리 허난, 이 아방이 성질이 개떡 달마마씨. 이 하르방, 개떡다므난 성질깝을 허여, 하르방 이발을 헤 내어양, ᄀᆞ세로 이발 허는디, 이발 헤 ᄃᆞ렌 허난 조용허영 허믄 허주마는 똑 개떡ᄀᆞ찌 막 하르방신디 대답을 허멍 머리를 까까서. 머리 이제 간 보난, 난 아기 업곡 간 보난, 영 이디 영 갈적삼 쳐 놓고 머리 까깜서. 그 머리 까깐 올리지 아니허영 돌아가션양. 게난 그것도 ᄒᆞ끔 아이고, 우리도 잘 헤져신가도 셍각허고, 돌아가신 날 잘 못 봐부난에 잘 헤져신가 셍각도 허고, 모든 것이 다 부모신디 잘못헌 것만 섭섭헙니다게. 게난 이 우리가 일 버치고 쉐 따문에 뭣 허곡, 무신거 허곡 허난양, 부모 탓 것추록 성질이 개떡달마마씨. 바륵바륵허고 경 헤놓믄, 난 무사 경 헴수강 허믄 아버지 따문 아이라, 아이라 허멍도 나 보기 미안허영 헤도, 경헤도 성질 허멍 딴 형들은 좋긴 좋아도게, 돌아갈 땐 보긴 본디, 머릴 ᄀᆞ세로 까깡 그루후에 메칠 돌아가긴 돌아간, 그런 뭣이 션.(아,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세월 섭섭한 일이 있어, 아버지가 이제 저기 살면서 그때는 이발소도 없고 머리하니까, 이 '아방'이 성질이 개떡 같아요. 이 할아버지, 개떡 같으니까 성질값을 해, 할아버지 이발을 해내요. 가위로 이발하는데, 이발 해드리라고 하니까 조용해서 하면 하지만 똑 개떡같이 마구 할아버지에게 대답하면서 머리를 깎았어. 머리 이제 가서 보니까, 난 아기 업고 가서 보니까, 이렇게 여기 이렇게 감물을 들인 적삼 쳐 놓고 머리 깎고 있어. 그 머리 깎아서 올리지 안 해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조금 아니고, 우리도 잘 해졌는가도 생각하고, 돌아가신 날 잘 못

봐버리니까 잘 해졌는가도 생각도 하고, 모든 것이 다 부모에게 잘못 한 것만 섭섭합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가 일 부치고 소 때문에 뭣하고, 무엇하고 하니까요, 부모 탓 것처럼 성질이 개떡 같아요. 바륵바륵하고 그렇게 해놓으면, 난 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하면 아버지 때문 아니야, 아니라 하면서도 나 보기 미안해서 해도, 그렇게 해도 성질 하면서 다른 형들은 좋긴 좋아도요, 돌아갈 땐 보긴 보았는데, 머릴 가위로 깎아서 그 후에 며칠 돌아가긴 돌아갔어, 그런 뭣이 있어.)

103059 #1 경 허고 저 감젯줄은 아까 곧듯이 잘 몰리와야 허는디, 요게 똑 그때에는 몰리당 허믄 다 몰라갈 때 이제 비가 똑 오고 잘 옵니다게. 밤중이라도 강 허믄, 이거 이제 작산 거.(그렇게 하고 저 고구마덩굴은 아까 말했듯이 잘 말려야 하는데, 요게 똑 그때에는 말리다가 하면 다 말라갈 때 이제 비가 똑 오고 잘 옵니다. 밤중에라도 가서 하면, 이거 이제 많은 거.)

103059 #2 삼천 펭이난에.(삼천 평이니까.)

103059 #1 큰 양식인디 아, 이거 밤에 비가 왐직허다 허믄 그냥 막, 어떤 날은 그거 다 눌당 보믄 날이 불가불어. 경 허믄 빈 아이오곡, 그거 더껑 야, 이거 잘 헤젓저 허영 허는디, 이 그런 추억, 저런 추억이.(큰 양식인데 아, 이거 밤에 비가 올 것 같다 하면 그냥 마구, 어떤 날은 그거 다 쌓다 보면 날이 밝아버려. 그렇게 하면 비는 안 오고, 그거 덮어서 야, 이거 잘 해졌다 해서 하는데. 이 그런 추억, 저런 추억이.)

103059 #2 겐디 감젯줄을 우린 아니헌디 감젯줄 문딱 져 가불엉, 도둑덜 정양, 옛날은. 쉐 멕이젱 들러간 사름네도 하마씨.(그런데 고구마덩굴을 우리는 안 하는데 고구마덩굴 모두 져 가버려서, 도둑들 져서요, 옛날은. 소 먹이려고 가져간 사람들도 많아요.)

103059 @ 감젯줄을.(고구마덩굴을.)

103059 #2 예.(예.)

103059 #1 아이고, 여기서 거 문 밤이양 지켜사.(아이고, 여기서 거 모두 밤에요 지켜야.)

103059 #2 밤이 문딱 져 왐젠 ᄉᆞ뭇, 경 헤부난 밤이 밧디 가곡.(밤에 모두 져 오고 있다고 사뭇, 그렇게 해버리니까 밤에 밭에 가고.)

103059 #1 게 안 허믄 이 저냑 저 감저, 들러감저 헌 소리가 우리도 어떤 때, 저 으씩헌 밧은 문 일러부런.(그렇게 안 하면 이 저녁 저 고구마, 가져가고 있어 한 소리가 어떤 때, 저 으슥한 밭은 모두 잃어버렸어.)

103059 #2 쉐 멕이젱, 쉐.(소 먹이려고, 소.)

103059 #1 어디 뭐 촞아집네깡게.(어디 뭐 찾을 수가 있습니까.)

103059 #2 똑ᄀᆞ뜬 감젯줄덜이난.(똑같은 고구마덩굴이니까.)

103059 #1 그레 가져강 지네 밧더레 놔 불믄 매깁주.(그리 가져가서 자기 밭으로 놔버리면 없지.)

103059 #2 경 헴젠 허영 소문 들으난 우린 일러불진 아이 헷수다마는, 경 헹 밤이 지커레 막 뎅연, 동네사름덜 자꾸 경 곧곡 허연, 골아노난.(그렇게 하고 있다고 해서 소문 들으니까 우리는 잃어버리지는 안 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밤에 지키러 마구 다녔

어, 동네사람들 자꾸 그렇게 말하고 해서, 말하니까.)

기타 농사

103060 @ 그다음에 감저 농사는 끗나고양, 수박 농사 어떵헙니깡? 하나만 물어보쿠다양. 거난 전체적으로 수박 농사에 대허영 혼번 골아봅서.(그다음에 고구마 농사는 끝나고요, 수박 농사 어떻게 합니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수박 농사에 대하여 한번 말해보세요.)

103060 #1 수박은 이 저 우선은 아무것도 거주마는 땅이 중요허여. 이 질왓디 헤노믄양, 이런 수박ᄀᆞ뜬 것도 비 아이 왕 물 골르믄, 우선 썩어불믄 안 뒈니까, 질왓은 이제 고량을 잘 치곡 헤 가지고 허는디, 게난 보통 여기서 수박도 허믄 신엄[116] 수박 뭐 땅이 저 메ᄆᆞ라마씨. 비와도 잘 안 골르곡, 또 스며들어불곡 이렇게 헹 물 잘 빠지고, 이런 밧디 수박은, 또 호박 닮은 거난 그렇게 헤야 그런 밧이 이제 맛도 좋고, 농사허는디 이 질왓디는 좋질 아이허고, 또 이 줓게 싱경도 안 뒈고, 줓게 이게 손 잘 봐야 허고, 손 어떻게 뒀냐허믄 거 딱 허믄 세 줄만 넹겨, 세 가달씩, 딱 석 줄만 넹기고 그걸 이제 가까운디 열다섯 안네 꺼는 타불어야, 요거 저 뿔리 가까운 거 헷당은 이것이 나중에는 그거 하나로 허젱 허믄 뜬디 큰 것이 크질 못허여. 그거 다 영양 뿔아먹어부런, 게난 뒐 수 이시믄 열 다섯 마디 이상 뒈영 타불곡, 또 시 가달로 헤 가지고 처음엔 드물다 허영 엉상헤야 수박이 드랑드랑허지, ᄌᆞ지믄 이거 양 줄 안 쳣당은, 요즘은 저 호박에 부찐 거난 거 ᄒᆞ끔허믄 첨 줄이 무성헙니다게.(수박은 이 저 우선은 아무것도 거지만 땅이 중요해. 이 '질왓'에 해 놓으면요, 이런 수박 같은 것도 비 아니 와서 물 괴면, 우선 썩어버리면 안 되니까, '질왓'은은 이제 고랑을 잘 치고 해 가지고 하는데, 그러니까 보통 여기서 수박도 하면 '신엄' 수박 뭐 땅이 저 메말라요. 비와도 잘 안 괴고, 또 스며들어버리고 이렇게 해서 물 잘 빠지고, 이런 밭에 수박은, 또 호박 닮은 거니까 그렇게 해야 그런 밭이 이제 맛도 좋고, 농사하는데 이 '질왓'에는 좋지 않고, 또 이 잦게 심어도 안 되고, 잦게 이게 손 잘 봐야 하고, 손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거 딱 하면 세 줄기만 남겨, 세 가닥씩, 딱 세 줄기만 남기고 그걸 이제 가까운데 열다섯 안에 거는 따버려야, 요거 저 뿌리 가까운 거 했다가는 이것이 나중에는 그거 하나로 하려고 하면 다른데 큰 것이 크지를 못해. 그거 다 영양 빨아먹어 버려서,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열다섯 마디 이상 되어서 따버리고, 또 세 가닥으로 해서 처음에는 드물다 해서 앙상해야 수박이 주렁주렁하지, 잦으면 이거요 줄기 안 쳤다가는, 요즘은 저 호박에 붙인 것이니까 그거 조금 하면 참 줄기가 무성합니다.)

103060 #2 접목혜사마씨.(접목해야.)

103060 #1 접목헌 거난.(접목한 거니까.)

103060 @ 접목 부찐 거구나.(접목 붙인 거구나.)

103060 #2 예, 접부쪄사마씨.(예, 접붙여야.)

116) '신엄'은 제주시 애월읍 신엄리를 말한다.

103060 #1 접부쪄 이제.(접붙여 이제.)

103060 @ 호박씨에, 호박 난 것에.(호박씨에, 호박 난 것에.)

103060 #1 예, 게난 호박도.(예, 그러니까 호박도.)

103060 #2 메종, 메종은 다 놔사.(모종, 모종은 다 놔야.)

103060 #1 이디 호박이 아니고, 접목 호박이 잇수다.(여기 호박이 아니고, 접목 호박이 있습니다.)

103060 @ 아.(아.)

103060 #1 것에 다 헤당 부쪙 허믄 아렌 호박이요, 우에는 수박입주게. 경 허난 이제 웬만이 걸름 ᄀᆞ뜬 거 너무 하영 놔도 이거 호박 종류난양, 낭만 무성헤부러.(그것에 다 해다 붙여서 하면 아래는 호박이요, 위에는 수박이지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웬만큼 거름 같은 거 너무 많이 놔도 이거 호박 종류니까요, 나무만 무성해 버려.)

103060 @ 접부찔 때 어떵 허여마씸?(접붙일 때 어떻게 해요?)

103060 #1 접은 메종 헤당 요즘은 영 삽접이옝 우이로 꼽는디, 그전에 우리 헐 땐 호박메하고 수박메허고, 호박메를 ᄆᆞᆫ제 놔, 낭이 좀 컹 허믄 그다음에 ᄒᆞᆫ 일주일이나 열흘 사이로 하이튼 일주일 전후는 놉니다게. 겡 그거 수박메 봣당은에 십오일네지 이십일 뒈영 어느 정도 본잎이 영 나왕 호박에, 아 수박에 영 허믄, 게난 이것도 호박을 너무 재게 키우믄 안 뒈어. 억제시켱 바짝 ᄆᆞ디가 줄르게 헷당 이제 거 ᄆᆞ디가 줄르믄 강헐 거아니우꽝? ᄇᆞ륵ᄇᆞ륵허믄 이제 우린 호접이옌 허영 이제 거 호박에 수박에 ᄀᆞ찌 멧 당 칼로 영 쑥 빼멍 마주 요렇게 까깡 톡 디물믄 이것이 딱 부뜰 거 아니우꽈? 게믄 이제 거 줍제기옝 허영 요만헌 거 톡 젭정은에 허믄 그 메종 싱그는 사름, 또 가당 두 갤 ᄀᆞ찌 영 싱거, 싱경 살아낭 좀 커가믄 또 저 어느 정도 컹 헤가믄 호박멘 저 이 독독 잘라불곡 우인 이제 수박뒈고 아렌 호박뭽주기.(접은 모종 해다 요즘은 이렇게 삽접이라고 위로 꼽는데, 그전에 우리 할 때는 호박 모종하고 수박 모종하고, 호박 모종을 먼저 놔, 줄기가 좀 커서 하면 그다음에 한 일주일이나 열흘 사이로 아무튼 일주일 전후는 놓습니다. 그렇게 그거 수박 모종 놨다가 십오일이나 이십일 되어서 어느 정도 본잎이 이렇게 나와서 호박에, 아 수박에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이것도 호박을 너무 빨리 키우면 안 되어. 억제시켜서 바짝 마디가 짧게 했다가 이제 거 마디가 짧으면 강할 거 아닙니까? 바륵바륵하면 이제 우리는 호접이라고 해서 이제 거 호박에 수박에 같이 맸다가 칼로 요렇게 쑥 빼면서 마주 요렇게 각각 톡 깎아서 드밀면 이것이 딱 붙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거 집게라고 해서 요만한 거 톡 사이에 끼어들어서 하면 그 모종 심는 사람, 또 가다가 두 개를 같이 이렇게 심어, 심어서 살아나서 좀 커가면, 또 저 어느 정도 커서 해가면 호박 모종에 저 이 똑똑 잘라버리고 위에는 이제 수박 되고 아래는 호박 되지요.)

103060 @ 그것도 막 심든 거네양.(그것도 아주 힘든 거네요.)

103060 #1 예, 경 헤 놩은에.(예, 그렇게 해 놓아서.)

103060 #2 심듭니다.(힘듭니다.)

103060 #1 밧디 싱거. 밧디도 ᄒᆞᆫ 일 메다 ᄒᆞᆫ, 겐디 구십 보통 놉니다. 팔십 줒으믄

팔십, 게난 줄은.(밭에 심어. 밭에도 한 일 미터 한, 그런데 구십 보통 놉니다. 팔십 잦으면 팔십, 그러니까 줄은.)

103060 #2 이젠 막 일메타 싱검주.(이제는 막 일 미터 심고 있지.)

103060 #1 줄을 줒게 허영 손을 잘 봐졈직 허믄 흔 팔십, 팔십 센티 놩 수박 간격을 하나에 뭣, 것도 밧 갈앙 멀칭을 헤사, 비닐 멀칭, 비닐 멀칭은 헤 놩 거 이제 거 딱 허게 줄 맞촹 구멍 헷당 거기 딱딱 싱급주.(줄을 잦게 해서 손을 잘 볼 수 있을 것 같으면 하면 한 팔십, 팔십 센티 놔서 수박 간격을 하나에 뭐, 것도 밭 갈아서 멀칭을 해야, 비닐 멀칭, 비닐 멀칭은 해놔서 그거 이제 거 딱 하게 줄 맞춰서 구멍 했다가 거기 딱딱 심지.)

103060 #2 수박 종자 키움도, 과정도 ᄒᆞ끔 힘, 궂어마씨.(수박 종자 키움도, 과정도 조금 힘, 궂어요.)

103060 #1 그것도 약도 잘허곡.(그것도 약도 잘하고.)

103060 @ 약도양.(약도요.)

103060 #1 메종을 잘 아이 허믄.(모종을 잘 안 하면.)

103060 #2 온도 맞촹.(온도 맞춰서.)

103060 #1 온도 맞추곡 헹.(온도 맞추고 해서.)

103060 #2 전기 온상, 전기 온상허영.(전기 온상, 전기 온상해서.)

103060 #1 전기헙니다. 전인 우리도 처음에 실패헌 건 뭐냐 허믄 그거 전기가 이디 농업 전기가 안 들어와낫수다. 게난 여기서 뭐 허냐 허믄 쉐똥, 물똥 줏어다 이거 이제 나룩찝, 아까 헌 나룩찝허고.(전기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처음에 실패한 거는 뭐냐 하면 그거 전기가 여기 농업 전기가 안 들어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 하느냐 하면 소똥, 말똥 주어다가 이거 이제 볏짚, 아까 한 볏짚하고.)

103060 #2 막 어디 욮이 데멋당.(마구 어디 옆에 쌓았다가.)

103060 #1 흔 칭 흔 칭 노멍 물 허멍 주젯경, 또 이거 그것만도 안 뒈어, 누까에 이제 요소비료 조금씩 데껴노민.(한 층 한 층 놓으면서 물 하면서 추져서, 또 이거 그것만도 안 되어, 쌀겨에 이제 요소비료 조금씩 던져놓으면.)

103060 #2 열나게 멘들 거, 열나게.(열나게 만들 거, 열나게.)

103060 #1 으라 칭 놩 막 불라. 불랑 이제 놔뒷당 어느 정도 썩는 열에 의헹은에, 그걸로 이제 메종을 놧주.(여러 징 놔서 마구 밟아. 밟아서 이제 놔뒀다가 어느 정도 썩는 열에 의해서, 그걸로 이제 모종을 놓았지.)

103060 #2 열이, 열이 ᄃᆞ뜻혜 가믄 것더레 메종 놔.(열이, 열이 따뜻해 가면 것으로 모종 놔.)

103060 #1 흑을 이제.(흙을 이제.)

103060 #2 흑 우이.(흙 위에.)

103060 #1 상토에 허영, 흑을 부그락허게 이제 썩은 흑 허나, 게 아이믄 이제 나중엔 종묘사에서 다 풀앗수다, 상토는.(상토에 해서, 흙을 보드랍게 이제 썩은 흙 하나, 게 아니면 이제 나중에는 종묘사에서 다 팔았습니다, 상토는.)

103060 #2 건 막 후제, 그 후제게, 우린 헐 땐.(건 아주 후에, 그 후에, 우리 할 때는.)

103060 #1 나중이고, 처음엔 이제 상토헐 땐 멘딱 흑을 이녁냥으로 허여. 썩은 걸름 헹 서껏당 두 번, 시 번 엎엉 이제 막 젓엉 딱 허게 놔 뒷당 그걸로 거 이제 메종을 헙주게.(나중에, 처음에는 이제 상토할 때는 모두 흙을 이녁대로 해. 썩은 거름해서 섞었다가 두 번, 세 번 엎어서 이제 막 저어서 딱 하게 놔뒀다가 그걸로 그거 이제 모종을 하지요.)

103060 #2 나룩찝이영 누까영 놩, 쉐똥 주서당 놔두믄 거기가 ᄃᆞ뜻헤가.(볏짚이랑 쌀겨 놔서, 소똥 주어다가 놔두면 거기가 따뜻해가.)

103060 #1 썩어가멍 ᄃᆞ뜻허멍.(썩어가면서 따뜻하면서.)

103060 #2 게난 이까지, 막 일로 저 널르게 헌 사름 하나가 ᄒᆞᆫ 십 메다 이상, 십 메다, 뭐.(그러니까 이까지, 마구 일로 저 넓게 한 사람 하나가 한 십 미터 이상, 십 미터, 뭐.)

103060 #1 경 헤도 본상이라고 헤서 저 수박메허고 호박메하고, 겐디 호박메부터 먼제 놔, 겡 ᄒᆞᆫ 삼 일뒈영 뽀족뽀족 호박이 남 시작허믄 이제 거 수박을 놉주게. 놩 헹 이제 어느 정도 컹 영 봥 호박도 영 본입이 나오젠 조지락허믄 아이고 접목헤야겟다. 그땐 헤 가지고 사름덜 빌엉 양, 수눌멍게 호접이옌 허영 아까 식으로 영 허믄, 지금은 삽접이옌 허영 갈랑 콕콕 질르는디 전이 우리는 호접이옌 허영.(그렇게 해도 본상이라고 해서 저 수박모종하고 호박모종하고, 그런데 호박모종부터 먼저 놔, 그렇게 한 삼 일되어서 뾰족뾰족 호박이 나기 시작하면 이제 거 수박을 놓지요. 놔서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커서 이렇게 봐서 호박도 이렇게 본잎이 나오려고 튀어나오면 아이고 접목해야겠다. 그때는 해 가지고 사람들 빌어서요, 품앗이하면서 호접이라고 해서 아까 식으로 이렇게 하면, 지금은 삽접이라고 해서 갈라서 콕콕 지르는데, 전에 우리는 호접이라고 해서.)

103060 #2 우리 옛날은.(우리 옛날은.)

103060 #1 저 거 메종 노믄 호박메하고 수박메를 ᄀᆞ찌, 접목허는 사람 ᄯᅳ로 빈주릉케 앚곡, 또 이펜이 이제 메종 메는 사름허믄 메종 메엉 다 주믄 우리 이제 접목허는 사름덜은 ᄯᅳ로 앚으멍 요거 입에 영 고젱이 하나 물곡, 칼로 멘도칼 ᄂᆞ신 걸로 헹, 아, 연필 까끄는 칼, 그거 헤야 잘 먹어, 저 멘도칼로, 쏙 까깡 콕 찍으멍 톡 허게 젭경주믄 이쪽에선 삐죽헤 노믄, 또 싱그는 사름이 죽 싱거오멍 이제, 또 온돌 잘 맞촤사. 게 안 허믄 이게 재게 커불던지, 또 온도가 떨어지믄 이게 곰팡이 들멍 썩어불고.(저 거 모종 놓으면 호박 모종하고 수박 모종을 같이, 접목하는 사람 따로 아주 많이 앉고, 또 이편에 이제 모종 매는 사람하면 모종 매어서 다 주면 우리 이제 접목하는 사람들은 따로 앉으면서 이거 입에 이렇게 꼬챙이 하나 물고, 칼로 면도칼 날카로운 걸로 해서, 아, 연필 깎는 칼, 그거 해야 잘 먹어, 저 면도칼로, 싹 깎아서 콕 찍으면서 톡 하게 사이에 끼어들어서 주면 이쪽에서는 삐죽해 놓으면, 또 그거 심는 사람이 쭉 심어오면서 이제, 또 온도를 잘 맞춰야. 게 안 하면 이게 빨리 커 버리던지, 또 온도가 떨어지면 이게 곰팡이 들면서 썩어 버리고.)

103060 #2 게난 나룩찝에 누까에 서끈 건 뚜뚯혜봣자 오래 가질 아니허여. 이제ᄀᆞ찌 전기ᄀᆞ뜨믄 온도가 조정허멍 어떵 뒈는디 그건 막 재게 식어불곡 허믄, 메종이 하난 크고 하난 족고, 그추룩 허멍.(그러니까 볏짚에 쌀에 섞은 건 따뜻해봤자 오래 가지를 안 해. 이제같이 전기 같으면 온도를 조정하면서 어떻게 되는데 그거는 아주 빨리 식어버리고 하면, 모종이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고, 그처럼 하면서.)

103060 #1 게고 그르치는 일이 하곡양.(그리고 그르치는 일이 많고요.)

103060 #2 그추룩 누까에 헌 거에 온도. 이제, 이제 사름덜은 전기로 메종을 허는디, 그땐 그추룩.(그처럼 쌀겨에 한 거에 온도. 이제, 이제 사람들은 전기로 모종을 하는데, 그때는 그처럼.)

103060 #1 요즘은 귀천 몰르게 전기 허는디, 전기 쌍포에 짝 꼴앙 허믄 뭐 온도도 일정허고.(요즘은 귀천 모르게 전기 하는데, 전기 쌍포에 짝 깔아서 하면 뭐 온도도 일정하고.)

103060 #2 예, 나룩찝, 나룩찝 막 헹 놔뒷다근에, 나룩찝 물 적경 져당은에 거 눈 팡팡 오는디, 나룩찝 강 물 적경 져와.(예, 볏짚, 볏짚 막 해서 나뒀다가, 볏짚 물 적셔서 져다가 그거 눈 팡팡 오는데, 볏짚 가서 물 적셔서 져와.)

103060 #1 저 웃드리레 올라강은에 거 똥 주워당, 쉐똥, 말똥 줏어당 나룩찝에 헷당으네 그레 ᄒᆞᆫ 칭, ᄒᆞᆫ 칭 노멍 누까 ᄒᆞ끔 뿌리고 요소 쪼끔 뿌리곡 헹 걸 멧 칭 이제 높일수록 열이 잘 나난. 경 헹 막 불랑은에 잇당.(저 '웃드리'로 올라가서 거 똥 주어다가, 소똥, 말똥 주어다가 볏짚에 했다가 거기 한 층, 한 층 놓으면서 쌀겨 조금 뿌리고 요소 조금 뿌리고 해서 그것을 몇 층 이제 높을수록 열이 잘 나니까. 그렇게 해서 마구 밟아서 있다가.)

103060 #2 ᄃᆞ뚯혜가믄.(따뜻해 가면.)

103060 #1 것이 열이 나기 시작헹 ᄒᆞᆫ 열흘 뒈가믄 열이 납주게. 영 온도계 꼽아봥 어느 정도 열이 난다 허믄 그때 상토 준비헷당 싹 꼴곡 그 메종을 놉주게. 나중이 이거 재게 안 허믄 또 열 식어불믄 커지지 아니허여.(그것이 열이 나기 시작해서 한 열흘 돼 가면 열이 나지요. 이렇게 온도계 꼽아봐서 어느 정도 열이 나고 있다 하면 그때 상토 준비했다가 싹 깔고 그 모종을 놓지요. 나중에 이거 빨리 안 하면 또 열 식어버리면 크지 안 해.)

103060 #2 커지지 아니허고 메종 그르쳐불어, 썩어불곡.(크지 않고 모종 그르쳐 버리고, 썩어 버리고.)

103060 #1 커지지 아이허곡 허난, 또 그추룩 헤 노믄 나중에 수박도 싱경 접목헤노믄, 그래도 온돌 맞추아야 헐 건디, 메칠 헌다 허믄 그걸 맞추앙 또 온상을 불라사 그디. 온상 불른덴 허는디, 불랑 그걸 맞촹.(크지 않고 하니까, 또 그처럼 해 놓으면 나중에 수박도 심어서 접목해 놓으면, 그래도 온도 맞추어야 할 건데, 며칠 한다고 하면 그걸 맞추어서 또 온상을 밟아야 거기. 온상 밟는다고 하는데, 밟아서 그걸 맞춰서.)

103060 #2 나룩찝 놓고, 쉐똥 놓고.(볏짚 놓고, 소똥 놓고.)

103060 #1 거를 맞춰사.(거를 맞춰야.)

103060 #2 누까 놓고.(쌀겨 놓고.)

103060 #1 그레 접목헌 거 이제 거 포제기에 그릇 담아, 요만헌 거 포트 폽니다게. 처음엔 포트 어시난, 우리도양 비닐 주머니 영 헹 끈엉 흑 다 그저 한 쪽은 촛불로 멕영 영 수에ᄀᆞ찌 헐 거 아이우꽈? 똑 수에 닮아. 게믄 거 수에ᄀᆞ찌 담앙 똑똑 짤르멍 허멍 그레 싱경은에 다 밧디 가졍가곡, 밧디 싱글 땐 영 칼로 족족 째멍 비닐은 빼뒁.(그리 접목한 거 이제 거 보자기에 그릇 담아, 요만한 거 포트 팝니다. 처음에는 포트 없어서, 우리도 비닐 주머니 이렇게 해서 끊어서 흙 다 그저 한 쪽은 촛불로 먹여서 이렇게 순대같이 할 거 아닙니까? 똑 순대 같아. 그러면 그거 순대같이 담아서 똑똑 자르면서 하면서 거기 심어서 다 밭에 가져가고, 밭에 심을 때는 이렇게 칼로 족족 째면서 비닐은 빼둬서.)

103060 #2 그추룩 헷수다. 수박 경 헌디, 우리 헐 땐 그렇게.(그처럼 했습니다. 수박 그렇게 했는데, 우리 할 때는 그렇게.)

103060 @ 게난 수박 농사도 힘든거네양.(그러니까 수박 농사도 힘든 거네요.)

103060 #1 힘들어마씨, 겡.(힘들어요, 그렇게.)

103060 @ 먹긴 좋아도.(먹기는 좋아도.)

103060 #2 겡 허곡 그 수박도 손을 잘 봐사. 손을 두루 보믄 줓아불믄 이놈으 것이, 수박은 커사 이제 상품 가치가 신 거난 줄믄 안 뒈어. 줄믄 파치영 허영 ᄒᆞ끔 주난, 커야 하여튼.(그렇게 하고 그 수박도 손을 발 봐야. 손을 덜 보면 잦아버리면 이놈의 것이, 수박은 커야 이제 상품 가치가 있는 거니까 잘면 안 돼. 잘면 파치라고 해서 조금 주니까, 커야 하여튼.)

103060 @ 수박은양.(수박은요.)

103060 #1 예, 커사 상품으로, 이거 멧 덩어리짜리, 멧 덩어리짜리 허믄 준 거 허믄 이건 반작으로 디물어불어.(예, 커야 상품으로, 이거 몇 덩어리짜리, 몇 덩어리짜리 하면 잔 거 하면 이건 반작으로 집어넣어 버려.)

103060 #2 이제덜은 하근 시설이 좋앙 쉽게들 헴수게, 메종도.(이제는 여러 가지 시설이 좋아서 쉽게들 하고 있습니다, 모종도.)

103060 #1 이젠양, 개인적으로 메종 자꾸 실패허고 허난 잘 안 놔마씨. 메종을 사당.(이제는요, 개인적으로 모종 자꾸 실패하고 하니까 잘 안 놓아요. 모종을 사다가.)

103060 @ 예, 전문적으로.(예, 전문적으로.)

103060 #2 예, 메종을 딱 이 충청도 어디서.(예, 모종을 딱 이 충청도 어디서.)

103060 #1 예, 메종은 또 전문적으로 허는 사름덜이 셔, 여기서도.(예, 모종은 또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 여기서도.)

103060 #2 사당은에.(사다가.)

103060 @ 거난 나도 저 선셍헐 때 저기 수산, 유원지 옆이 김○○씨.(그러니까 나도 저 선생할 때 저기 '수산', 유원지 옆에 김○○씨.)

103060 #1 예.(예.)

103060 #2 ○○이 아지방 매날.(○○이 아주버니 맨날.)

103060 @ 거기 헨에 아, 그 집이 가시난 수박 묘종 오십개 주멍.(거기 해서 아, 그 집에 갔으니까 수박 모종 오십 개 주면서.)

103060 #2 아이고, 하영 줘신게.(아이고, 많이 줬네요.)

103060 @ 앗아 강 싱그렌, 게 싱것수게. 과수원 이신디, 그늘진 딘 또 안 뒈는 거 저거.(갖고 가서 심으라고. 게 심었습니다. 과수원 있는데, 그늘진 데 또 안 되는 거 저거.)

103060 #1 벳이 발라야.(볕이 들어야.)

103060 @ 아, 경 헨에 싱거신디, 계산이 앞선 거라.(아, 그렇게 해서 심었는데, 계산이 앞선 거야.)

103060 #2 계산이 앞선.(계산이 앞서서.)

103060 @ 묘종 하나에 수박 세 개 은덴, 거난 이제 오십개니까.(모종 하나에 수박 세 개 연다고, 그러니까 이제 오십 개니까.)

103060 #2 백오십 개.(백오십 개.)

103060 @ 백오십 덩어리가 나오며는 이것을 어떵 처단헐 건가.(백오십 덩어리가 나오면 이것을 어떻게 처단할 건가.)

103060 #2 하하하하하.(웃음)(하하하하하.(웃음))

103060 @ 허단 보난, 허단 보난 나중에 가난양, 보난에 요 주먹만씩 헌 거 두 개 이십디다. 두 개 아이고.(하다가 보니까, 하다가 보니까 나중에 가니까요, 보니까 요 주먹만큼 한 거 두 개 있습디다. 두 개 아이고.)

103060 #2 거난 아이 뒈어, 아이 뒈어, 그늘쳐부난마씨.(그러니까 안 되어, 안 되어, 그늘져버리니까요.)

103060 #1 거양.(거요.)

103060 #2 그늘처부런마씨.(그늘져버렸어요.)

103060 @ 약도 안 허고.(약도 안 하고.)

103060 #2 예, 약도 안 허고.(예, 약도 안 하고.)

103060 #1 잘 걸루고 약도 잘 허고.(잘 걸게 두고 약도 잘 하고.)

103060 #2 손보는 과정도 못 허고게.(손보는 과정도 못 하고요.)

103060 @ 그자 싱그민 올카부덴 헨.(그저 심으면 열까 싶어서 했어.)

103060 #2 싱그민 올카부덴 허연.(심으면 열까 싶어서 했어.)

103060 #1 호박도 감 종류나 관릴 잘 헤사.(호박도 감 종류나 관리를 잘 해야.)

103060 #2 관리 잘허곡, 약도 잘 허고 헤사.(관리 잘하고, 약도 잘 하고 해야.)

103060 #1 경허고 준 거, 가까운 디 건 타불어사.(그리고 잔 거, 가까운 데 거는 따버려야.)

103060 @ 음.(음.)

103060 #2 건 타불 걸 헨, 게난.(그거는 따버릴 걸 했어, 그러니까.)

103060 #1 열 다섯 ᄆᆞ디 아레 건 타불어야지, 그걸 그냥 둘린냥 내불믄 나중에 저 끗터레 가믄 준준헌 거.(열다섯 마디 아래 거는 따버려야지 그거를 그냥 달린 대로 내버

리면 나중에 저 끝으로 가면 자잘한 거.)

103060 #2 기운이 그레 아이 간덴.(기운이 그리 안 간다고.)

103060 #1 주먹만썩도 아니허여.(주먹 만큼씩도 안 해.)

103060 #2 경 허멍 게도 경.(그렇게 하면서 그래도 그렇게.)

103060 #1 아무 농사도 마찬가지.(아무 농사도 마찬가지.)

103060 @ 잘 들엇수다. 쉬엉양.(잘 들었습니다. 쉬어서요.)

103061 @ 그다음에 춤웨 농사는 어떵 헙니까?(그다음에 참외 농사는 어떻게 합니까?)

103061 #1 춤웨도 전인 춤웨를 그냥 집이 아이 헤낫수다게. 밧디 그냥 영 구뎅이 짓엉 메종을 이제 거 씨 대여섯 개썩, 영 구뎅이 부그락허게 짓으멍 무신 그땐 비니루여 뭐 멀칭도 엇고 처음 헐 땐 우리도 웨, 춤웨 헤낫주마는, 구뎅이 영 보그락허게 짓엉은에 그레 씨 멧 방울 대여섯 방울 꼭꼭 찔렁.(참외도 전에는 참외를 그냥 집에 안 했었습니다. 밭에 그냥 이렇게 구덩이 지어서 모종을 이제 거 씨 대여섯 개씩 이렇게 구덩이 보드랍게 지으면서 무슨 그때는 비닐도 뭐 멀칭도 없고 처음 할 때는 우리도 외, 참외 했었지만, 구덩이 이렇게 보드랍게 지어서 그리 씨 몇 방울 대여섯 방울 꼭꼭 찔러서.)

103061 #2 밧을 간 말부터 헤사주, 아이고 첨.(밭을 간 말부터 해야지, 아이고 참.)

103061 #1 아, 게 바싹 갈아야지, 갈아 놩.(아, 그렇게 바싹 갈아야지. 갈아 놔서.)

103061 #2 쉐로 갈아 놩.(소로 갈아 놔서.)

103061 #1 이제 고지 잡기를.(이제 이랑 잡기를.)

103061 #2 동그랑케.(동그랗게.)

103061 #1 골 쳥.(골 쳐서.)

103061 @ 골 쳥 그다음은?(골 쳐서 그다음은?)

103061 #1 혼 시 고지에 하나썩.(한 세 이랑에 하나씩.)

103061 @ 골아지는 대로 골믄 뒈는디마씨.(말해지는 대로 말하면 되는데요.)

103061 #1 시 고지에 하나썩 영 골 갈앙 가운데 헤노믄 물 빠질 거 아이우꽈? 잘 빠지곡 그추룩 헤 놩 불치로 각 구뎅이 헐 때는 영 허영 허믄, 이디서 불치 하영 헤당 그레 ᄒᆞ끔썩 혼 좀팍[117]썩 노멍 보그락허게 구뎅이 짓어마씨.(세 이랑에 하나씩 이렇게 골 갈아서 가운데 해놓으면 물 빠질 거 아닙니까? 잘 빠지고 그처럼 해 놔서 불티로 각 구덩이 할 때는 이렇게 해서 하면, 여기서 불티 많이 해다 그리 조금씩 한 '좀팍'씩 넣으면서 보드랍게 구덩이 지어요.)

103061 #2 씨 놀 디게, 씨 놀 디.(씨 놓을 데요, 씨 놓을 데.)

103061 #1 씨 놀 디레, 구뎅이 짓엉 그레 보그락허게 헤 노믄 씨 나도 아메도 잘 클 거 아이우꽈? 불치 놩 서끄곡 허믄 그디.(씨 놓을 데에, 구덩이 지어서 그리 보드랍게 해 놓으면 씨 나도 아무래도 잘 클 거 아닙니까? 불티 넣어서 섞고 하면 거기.)

103061 #2 게난 구뎅이마다 막.(그러니까 구덩이마다 마구)

103061 #1 불치 이제 혼 좀팍썩 그레 노멍 구뎅이 헐 딘 다 보그락허게 헤 놩 씨

117) '좀팍'은 나무를 둥그스름하고 납죽하게 파서 만든 작은 바가지 비슷한 그릇이다.

헤 노믄, 보통 영 동글락허게 헤 노믄, 영 긋엉 댓 방울 꼭꼭 찔렁.(불티 이제 한 '좀팍' 씩 그리 넣으면서 구덩이 할 데는 다 보드랍게 해 놔서 씨 해 놓으면, 보통 이렇게 동그랗게 해 놓으면, 이렇게 그어서 댓 방울 꼭꼭 찔러서.)

103061 #2 좀팍에, 좀팍에 담앙 강게 영 영.('좀팍'에, '좀팍'에 담아서 가서 이렇게 이렇게.)

103061 #1 씨 담으멍 경 허영 복짝 나 노믄 이제 요것이 그땐 농약 별로 엇고, 나 놔도 요거 무시거 잘 끈어먹던지양 이제 헤불어, 경 헹 멩심헹 이거 약 아니허당 그땐 약이엔 헌 건 뭐.(씨 담으면서 그렇게 해서 빽빽이 나 놓으면 이제 요것이 그 때는 농약 별로 없고, 나 놔도 이거 뭐 잘 끊어먹던지 이제 해버려, 그렇게 해서 명심해서 이거 약 안 하다가 그때는 약이라고 한 거는 뭐.)

103061 #2 무사게, 디디티[118] 간에.(왜요, '디디티' 가서.)

103061 #1 디디티 ᄀᆞ를 무신 수건, 두건에나 영 쌍 ᄀᆞ를이난, 톡톡톡 막뎅이 허멍 그 ᄀᆞ를 털어질 거 아이우꽈?('디디티' 가루 무슨 수건, 두건에나 이렇게 싸서 가루이니까, 톡톡톡 막대기 하면서 그 가루 떨어질 거 아닙니까?)

103061 #2 디디티 헹.('디디티' 해서.)

103061 #1 농약 버므리믄 벌거지가 잘 안 먹어. 경 헹 키왕 허곡, 요것이 이제 ᄒᆞ끔 커가믄 소끄우멍 거기서 나중에는 젤 나중에 하나 좋은 걸로 넹경 다 뽑아불고, 경 헹 이제 허곡 헌디, 이건 니 ᄆᆞ디뒐 때 보통 이제 웨, 춤웨 하영 헤나난, 춤웨 잘 알아집주기. 겡 시 마디, 니 마디에 길루겟다 허믄 이제 우 막아마씨. ᄒᆞᆫ 다섯 마디쯤 뒈믄.(농약 버무리면 벌레가 잘 안 먹어. 그렇게 해서 키워서 하고, 요것이 이제 조금 커 가면 솎으면서 거기서 나중에는 제일 나중에 하나 좋은 걸로 남겨서 다 뽑아버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했는데, 이건 네 마디 될 때 보통 이제 외, 참외 많이 했었으니까, 참외 잘 알 수 있지요. 그렇게 세 마디 네 마디에 기르겠다 하면 이제 위 막아요. 한 다섯 마디쯤 되면.)

103061 #2 순 나오게 똑똑 꺼껑.(순 나오게 똑똑 꺾어서.)

103061 #1 똑똑 꺽엉 이제 뎅이멍 다 꺼끄곡 헹 놔두믄 옆 가지가 나기 시작헐 거 아이우꽈? 게믄 석 줄 하고 싶다허믄, 이 처음엔 석 줄 헹, 나중엔 줓게 헌 사름은 두 줄이 셔. 두 줄 딱 우 시 ᄆᆞ디 뒝 딱 막아불믄 두 가달만 남아. 이거 ᄒᆞᆫ 오십 전네지지 육십 전 직전에 하나썩 협주게, 줓게 두 가달로 헌 사람은. 겐디 우린 보통 허믄 팔십 전네지 구십 전엔 헤마씨. 구십, 구십 센티, 그 정도 영 놩 씨 허믄 세 가달 영 버므렁 허믄 이것도 다섯 아니 ᄒᆞᆫ ᄋᆞ섯, ᄋᆞ덥쯤, ᄋᆞ덥 마디쯤 뒈믄 또 울 막아마씨, 똑똑 막으믄이.(똑똑 꺾어서 이제 다니면서 다 꺾고 해서 놔두면 옆 가지가 나기 시작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석 줄 하고 싶다하면, 이 처음엔 석 줄 해서, 나중에는 잦게 한 사람은 두 줄이 있어. 두 줄 딱 위 세 마디 돼서 딱 막아버리면 두 가닥 남아. 한 오십 전이나 육십 전 직전에 하나씩 하지요, 잦게 두 가닥으로 한 사람은. 그런데 우리는 보통 하면 팔십 전이나 구십 전에는 해요. 구십, 구십 센티미터, 그 정도 이렇게 놔서 씨 하면 세 가

118) '디디티'는 참외 잎에 치는 농약 이름이다.

닥 이렇게 버무려서 하면 이것도 다섯 아니 한 여섯, 여덟, 여덟 마디쯤 되면 또 위를 막아요, 똑똑 막으면 이.)

103061 @ 옆으로 나는 것도.(옆으로 나는 것도.)

103061 #1 예, 순 짓은 날 거 아니우꽈? 아덜 순이엔 헙니다. 으덥 개쯤 허믄.(예, 순 짓은 날 거 아닙니까? 아들 순이라고 합니다. 여덟 개쯤 하면.)

103061 @ 손지 순 내와야 허컨게마씨.(손자 순 내와야 하겠네요.)

103061 #1 예, 손지 순 나믄 이제 또 그걸 어떠냐 허믄, 가까운 디, 덩치 가까운 디 건 허믄 이것이 장손이엔 허영, 잘 그레 메종 가불믄 크지도 아이허곡, 경 가불믄, 요걸 또 두세 마디 보통 끈어불어마씨. 게믄 영 뿔리 하나 허믄 요만이 빌 거 아이우꽈? 안 올앙, 게믄 그 사이에 허믄 끄트머리 가서 웨는 훌급네다게. 맛도 좋곡 훅는디, 요것이 덩치 가까이 올아불믄 끗터레 간 건 영양분 못 뿔아먹언 줄곡, 크지도 아이 허고, 올매는 거 손보기에 달린 거, 춤웨는 손 잘 봐사, 하영 헷저 허믄, 거 어떵 손 봣젠, 영 헹이선.(예, 손자 순 나면 이제 또 그걸 어떻게 하냐하면, 가까운 데, 둥치 가까운 데 거는 하면 이것이 장손이라고 해서, 잘 그리 모종 가버리면 크지도 않고, 그렇게 가버리면, 이거를 또 두세 마디 보통 끊어버려요. 그러면 이렇게 뿌리 하나 하면 요만큼 빌 거 아닙니까? 안 열어서, 그러면 그 사이에 하면 끄트머리 가서 외는 굵습니다. 맛도 좋고 굵은데, 요것이 둥치 가까이 열어 버리면 끝으로 가서 거는 영양분 못 빨아먹어서 잘고, 크지도 않고, 열매는 그거 손보기에 달린 거, 참외는 손 잘 봐야, 많이 했다 하면, 그거 어떻게 손 봤다고, 이렇게 해서 있어서.)

103061 #2 손 하영 봣젠 헙니다.(손 많이 봤다고 합니다.)

103061 #1 손 잘 보젠허믄 이거 곧 또 순 나가믄 이거 무디 막는데 장난이 아이라마씨. 똑 게곡 헤당 잘 손 안 봐 노믄 버쳐노믄양, 그 사이에 또 비나 오곡 장마졍 헤노믄 얼른 커불어. 게믄 어느 거, 어느 건 철 몰랑 범벅 졍 헤노문양.(손 잘 보려고 하면 이거 곧 또 순 나가면 이거 마디 막는데 장난이 아니에요. 꼭 그리고 해다가 잘 손 안 봐 놓으면 부쳐놓으면요, 그 사이에 또 비나 오고 장마져서 해놓으면 얼른 커버려. 그러면 어느 거, 어느 거는 절기 몰라서 범벅 져서 해놓으면요.)

103061 #2 막 순이 막 와상 다 허영.(마구 순이 아주 빽빽이 다 해서.)

103061 #1 와상허믄 나중에 허다 버치믄 막 호미로.(빽빽이 하면 나중에 하다 부치면 마구 낫으로.)

103061 #2 호미로 막 비어.(낫으로 마구 베어.)

103061 #1 주작주작헌 거만 ᄀᆞ령 내부는 수박이 어떵 허여. 게고 또 약은 벌거지 먹엉 겡 허당 보믄, 제일 무서운 것이 거 저 흰ᄀᆞ루병, 여기서 제 지쳇젱 허여. 이거 제 지쳐부런, 춤웨. 잘헤사커라, 제 지쳔.(우뚝우뚝한 거만 깔겨 내버리는 수밖에 어떻게 해. 그리고 또 약은 벌레 먹어서 그렇게 하다 보면, 제일 무서운 것이 그거 저 흰가루병, 여기서 재 끼얹었다고 해. 이거 재 끼얹어버렸어, 참외. 잘해야겠어, 재 끼얹어서.)

103061 #2 그 집이 아이 뒈서, 겡 허멍.(그 집 안 돼서, 그렇게 하면서.)

103061 #1 우에 헤뜩헤뜩헨 그냥 거 똑 제 올라, 똑 제 올른 것츠록 헤 노믄 그건

허믄 옛날 저 그 처음엔 약이 잘 어선, 에, 제 지쳇저 허믄 이디선 츰웨밧딘 무꾸럭, 물꾸럭 헹 제를 지내서, 옛날은. 그거 헹 허믄 무꾸럭ᄀᆞ찌 허믄 츰웨가 잘 발 벋으라 헹, 물꾸럭 헤당 꼭 츰웻밧 가운디 강 이제 이 상돌 피와놓고 메 헤곡 헹 똑 물꾸럭헹 강 제 지넹 해낫수다, 우리도 어릴 때, 허허(웃음). 하도 아버지 너 제 지내지 아이허믄 빙 걸리메 잘 허여.(위에 희뜩희뜩해서 그냥 거 똑 재 올라, 똑 재 오른것처럼 해 놓으면 그거는 하면 옛날 저 그 처음에는 약이 잘 없어서, 에, 재 끼얹었다 하면 여기서는 참외밭에는 문어, 문어 해서 제를 지냈어, 옛날은. 그거 해서 하면 문어같이 하면 참외가 잘 발 뻗으라 해서, 문어 해다 꼭 참외밭 가운데 가서 이제 이 향로 피워놓고 메 해서 똑 문어 해서 가서 제지내고 했었습니다. 우리도 어릴 때, 허허(웃음). 하도 아버지 너 제지내지 않으면 병 걸리므로 잘해.)

103061 #2 진 빙 경 아이걸려서 게난, 나 원 덜 빙 어떵산디 그땐 병도 덜 헷주게. 덜 허난게 경.(긴 병 그렇게 안 걸려서 그러니까, 나 원 덜 병 어떻게인지 그때는 병도 했지요. 덜 하니까 그렇게.)

103061 #1 겡 제 지내낫는디 나중에 허믄, 또 이것이 약 어스난 이제 송둥이[119]이라고 헹양, 이제 무신거 잘 먹어마씨. 거 츰웨왓디 헤노믄 그때 약 어스난 에 츰웨왓디 송둥이 ᄃᆞ리레 가사.(그렇게 제지냈었는데 나중에 하면, 또 이것이 약 없으니까 이제 '송둥이'이라고 해서요, 이제 무엇 잘 먹어요. 그거 참외밭에 해놓으면 그때 약 없으니까요 참외밭에 '송둥이' 쫓아 버리러 가야.)

103061 @ 송둥이 하기는 허여.('송둥이' 많기는 해.)

103061 #1 예, 저 이 대왓디 대썹으로 허영.(예, 저 이 대밭에 댓잎으로 해서.)

103061 #2 대썹 헤다 놔근에.(댓잎 해다 놔서.)

103061 @ 요만큼 헌 거.(요만큼 한 거.)

103061 #2 영 영 놩 거렁.(이렇게 이렇게 놔서 잡아 올려서.)

103061 #1 놀멍 거 튿어먹어불어.(날면서 그거 뜯어먹어 버려.)

103061 @ 볼그렁헌 거.(발그레한 거.)

103061 #2 볼그렁헌 거, 요멘이, 요만이 헌 거.(발그레한 거, 요만큼, 요만큼 한 거.)

103061 #1 송둥이, 송둥이 ᄃᆞ리레 간다고 허영 그거 막 허믄, 그 순간은 놀아나불엇당, 또 뒤에 앚으믄 곧 앚아 먹엉 매날 송둥이 ᄃᆞ리레 강.('송둥이', '송둥이' 쫓아 버리러 간다고 해서 그거 마구 하면, 그 순간은 날아나 버렸다가, 또 뒤에 앉으면 곧 앉아서 먹어서 매날 '송둥이' 쫓아 버리러 가서.)

103061 #2 대 헤다 놩은에.(대 해다 놔서.)

103061 @ 거 묘종 하나에 츰웨 멧 개 정도 옵니까?(그거 모종 하나에 참외 몇 개 정도 엽니까?)

103061 #1 게난 아까 골앗지만 메종을 손을 잘 봉 허믄 일고여덥 개 거 ᄋᆞ는디, 게 안허믄 ᄋᆞ라 개 올아밧자 간절기ᄀᆞ찌 헤 가지고 줄앙은에 이건 아무 가치가 어십주게. 줄믄 저 폴지도 못허고 그냥 놈 줘붐벳긴. 게난 훅게 허젠허민 하영 둘리지 말앙, 대여

119) '송둥이'는 나물이나 참외 잎 따위를 먹는 벌레이다.

섯만 돌렝 흔 구뎅이에. 경 허고 손 잘 보곡 약 잘허믄 이게 이제.(그러니까 아까 말했지만 모종을 손을 잘 봐서 하면 일고여덟 개 거 여는데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개 열어봤자 개똥참외같이 해 가지고 잘아서 이거는 아무 가치가 없지요. 잘면 저 팔지도 못하고 그냥 남 줘 버리는 수밖에. 그러니까 굵게 하려고 하면 많이 달리지 말아서, 대여섯만 달려서 한 구덩이에. 그렇게 하고 손 잘 보고 약 잘하면 이게 이제.)

103061 #2 그땐 춤웨씨도 경 잘 돌리지 아이허는 거, 옛날 그때는.(그때는 참외씨도 그렇게 잘 달리지 않는 거, 옛날 그때는.)

103061 #1 씨는 저 질 씨 한 건 이 저 일본, 그 춘양참웨[120]옌 헤 가지고 이건 보믄 춘양 웨옌 헤도 일산이라마씨.(씨는 저 제일 씨 많은 거는 이 저 일본, 그 '춘양참웨'라고 해 가지고 이거는 보면 '춘양참웨'라고 해도 일본산입니다.)

103061 #2 우리 잘 돌리지도 아이허고.(우리 잘 달리지도 않고.)

103061 #1 그건 게도 맛도 좋곡 헌디 춘양 참웨는 별로, 뭐 아가네[121]여 무신 일름이 으라 가지랏는디, 아가네 춤웬 영민이 아방네 허난.(그거는 그래도 맛도 좋고 하는데 '춘양참웨' 별로, 뭐 '아가네'여 무슨 이름이 여러 가지였는데, '아가네' 참외는 '영민'이 아버지네 하니까.)

103061 #2 원 맛 경, 민들락민들락헌 거.(원 맛 그렇게, 매끈매끈 한 거.)

103061 #1 보기가 좋아. 겐디 맛이 없어. 부그락헌 소게웨옌 허영, 게고 또 옛날은 그 웨가 팔모웨, 뭐 여러 가지 저 골개비웨, 여러 가지 신디 골개비 웨는 어룩어룩헌 게 골개비 똑 등뗑이, 거 웨가 이서.(보기가 좋아. 그런데 맛이 없어. 보드라운 솜외라고 해서, 그리고 또 옛날은 그 외가 팔모외, 뭐 여러 가지 저 개구리외, 여러 가지 있는데 개구리외는 얼룩얼룩한 그렇게 개구리 똑 등, 그거 외가 있어.)

103061 @ 그 웨가 잇수다.(그 외가 있습니다.)

103061 #1 또 팔모웨옌 헌 건 영 니모지멍 헌디 이제는 영 익엉, 익기 전이 타는디, 전인 우리 웨 탈 땐, 거 구뎅이가 털어졍 영 지냥으로 털어진 것이 합주게.(또 팔모외라고 한 거는 네모지면서 한데 이제는 이렇게 익어서, 익기 전에 따는데, 전에는 우리 외 딸 때는, 거 구덩이가 떨어져서 이렇게 자기대로 떨어진 것이 많지요.)

103061 @ 쉐뿔춤웨도 잇지 안 허꽈? 쉐뿔 춤웨.(소뿔참외도 있지 않습니까? 소뿔참외.)

103061 #1 이디선 뭐 헌디.(여기서는 뭐 하는데.)

103061 @ 가파도[122]가 그 저 옛날, 옛날양 가파도가 상당히 거 저.('가파도'가 그 저 옛날, 옛날요 '가파도'가 상당히 거 저.)

103061 #1 예, 웨 하영 헤낫수다.(예, 외 많이 했었습니다.)

103061 @ 그 헤낫젠 헙니다. 가파도 춤웨, 그때 그.(그 했었다고 합니다. '가파도' 참외 그때 그.)

103061 #1 수랑수랑헌 게.(길쭉길쭉한 게.)

---

120) '춘양참웨'는 참외씨가 일본산으로, 참외 종류의 하나다.
121) '아가네' 일본산 참외 종류의 하나다.
122) '가파도'는 서귀포시 대정읍에 속한 섬이다.

103061 @ 쉐뿔ᄀᆞ찌 생긴 거.(소뿔같이 생긴 거.)

103061 #1 어, 이디.(어, 여기.)

103061 @ 츰웨.(참외.)

103061 #1 이딘 그런 건 어섯고.(여기는 그런 건 없었고.)

103061 @ 어.(어.)

103061 #1 주로 헌 건 이디선 저 팔모웨 허고.(주로 한 거는 여기서는 저 팔모외 하고.)

103061 @ 팔모웨.(팔모외.)

103061 #1 또 ᄀᆞᆯ개비웨허고, 또 뭐 그 외로 나중엔 헤 가난 이제.(또 개구리외 하고, 또 뭐 그 외로 나중에 해 가니까 이제.)

103061 @ ᄑᆞ릿ᄑᆞ릿헌 거양?(파릇파릇한 거요?)

103061 #1 예, 거 ᄑᆞ릿ᄑᆞ릿허멍 거 맛도 좋아, 구싱헌 게.(예, 그거 파릇파릇하면서 그거 맛도 좋아, 구수한 게.)

103061 @ 요즘 허민 메론 닮은 거.(요즘 하면 메론 닮은 거.)

103061 #1 똑 메론ᄀᆞ찌 동골락허멍 넵짝헌 거 싯곡, 으라 가지 종류가 셩.(똑 메론 같이 동그라면서 납작한 거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

103062 @ 예, 예. 거허고 이제 고치 농사는 어떵 헙니까?(예, 예. 그거하고 이제 고추 농사는 어떻게 합니까?)

103062 #1 고치도 이제, 엿날은 헌디 요사이는 메종허고 전이 허고 틀려.(고추도 이제, 옛날은 했는데, 요사이는 모종하고 전에 하고 달라.)

103062 #2 하영 아이 헨.(많이 안 했어.)

103062 #1 메종 게도 고치메도 노믄 아무 디도 밧을 잘 갈아야지만, 막 구뎅이 쳥 갈믄 고치메도 크믄 이 저 시 가달 거린 ᄆᆞ디가 이서, 그 아레 껀 다 훌터불어야지, 걸 요즘부터 보믄 어떤 사름덜은 걸 훌트지 아니허영 요렇게 똑.(모종 게도 고추모종도 놓으면 아무 데도 밭을 잘 갈아야지만, 마구 구덩이 쳐서 갈면 고추모도 크면 이 저 세 가지 뻗어 나간 마디가 있어. 그 아래 거는 다 홅어 버려야지, 걸 요즘부터 보면 어떤 사람들은 그걸 홅지 아니해서 요렇게 똑.)

103062 @ 내불엉양.(내버려서요.)

103062 #1 내불믄양, 이게 싹 헤노믄 고치 얼마 크지도 아니허곡, 데락데락 올아밧자 젠젠헌 게 크질 아니허여. 겡 크게 허고 메종 좋게 허젠 허믄, 시 커리 아렛 건 믄딱 훌터불곡 겡 헹 우이 것만 헹 허믄.(내버리면요, 이게 싹 해놓으면 고추 얼마 크지도 않고, 주렁주렁 열어봤자 자잘한 게 크지를 안 해. 그렇게 크게 하고 모종 좋게 하려고 하면, 세 가지 아래 거는 모두 홅어 버리고 그렇게 해서 위에 것만 해서 하면.)

103062 @ 도마토도 경 헌 거 닮아양.(토마토도 그렇게 한 거 같아요.)

103062 #1 예, 도마도도 마찬가지.(예, 토마토도 마찬가지.)

103062 @ 밑에 꺼 타 불어야 헐 거난. (밑에 거 따 버려야 할 거니까.)

103062 #1 이 젓순 잘 막곡, 도마돈. 고치도 또 젓순은 막아줘사.(이 곁순 잘 막고,

토마토는. 고추도 또 곁순은 막아줘야.)

103062 @ 농약도 하영 허지양, 고치?(농약도 많이 하지요, 고추?)

103062 #1 고치도 농약 쳐야 헙니다, 게난.(고추도 농약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103062 #2 고치도 게 이제 닮지 아니허연, 옛날엔 고치씨도 막 이상헌 것덜.(고추도 그렇게 이제 닮지 아니해서, 옛날에는 고추씨도 아주 이상한 것들.)

103062 @ 베렝이 하영 들어가지.(벌레 많이 들어가지.)

103062 #1 베렝이덜 하영 들언, 옛날.(벌레들 많이 들어서, 옛날.)

103062 #1 약 안 치믄 반작 베렝이라.(약 안 치면 반 정도 벌레야.)

103062 #2 옛날은 어떵 옛날은.(옛날은 어떻게 옛날은.)

103062 #1 고망 터지믄 이건 가치가 어시.(구멍 터지면 이건 가치가 없이.)

103062 @ 우리 생각으론 매우나네 베렝이덜 안 들어가카부덴 허는디.(우리 생각으로는 매우니까 벌레들 안 들어갈까 싶어서 하는데.)

103062 #2 아이고, 막 한.(아이고, 아주 많아.)

103062 #1 베렝이가 더 맛 좋게 먹어.(벌레가 더 맛 좋게 먹어.)

103062 #2 게난 집이 고치 농사 힘든덴 허멍 잘 아니허여, 촘웨보단도 더 힘든덴. 우리 생각엔 거 메종 헹양 씨 놩 허주기, 똑똑 것도 허는디, 뭠직 헌 디, 고치 농사. 에, 고치 베렝이덜, 고치, 고치, 막 그거 문딱 먹어불곡. 경 허멍 경 갈아낫수다. 헤 보질 아니허연.(그러니까 집에 고추 농사 힘들다고 하면서 잘 안 해, 참외보다도 더 힘들다고. 우리 생각에는 거 모종 해서요 씨 놔서 하지요, 똑똑 것도 하는데, 될 거 같은 데, 고추 농사. 에, 고추 벌레들, 고추, 고추, 마구 그거 모두 먹어버리고.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갈았었습니다. 해 보지를 안 했어.)

103062 #1 고친 저 옛, 근간에다 고치 허멍 저기, 게고 물리우기 똑 장마철에 이놈으 것이 헤노믄 타 놔도 문.(고추는 저 옛, 근간에다 고추 하면서 저기, 그리고 말리기 꼭 장마철에 이놈의 것이 해놓으면 따 놔도 모두.)

103063 @ 그다음에 배추 농사 어떵 헷습니까?(그다음에 배추 농사 어떻게 했습니까?)

103063 #1 배추는양, 우리도 배추를 하영 헤낫수다. 전문, 원래 배추 전문 헤난디 배추도 봄배추가 잇고, 가을배추가 잇고, 으름 배추 뭐, 절기마다 틀린 디, 봄배추부터 말허믄 요것이 이제 거 봄에도 속음배추가 잇고, 또 절구배추양, 김치배추가 셔. 게난 봄에 저 속음배추 반작허젠 허믄, 절구 배추허젠, 메종을 놔서 싱그는디 이제 이것도 온상헹은에 흑도 보그락허게 헹 온도 맞촹 싱거사. 이것이양 온도가 온상에서 추워불믄 이것이 보통 십이도 영 거 온도계로, 십이도 알로 떨어정 메종이 크믄 이것이 뭐 저 캐기 전이 쳇대 나불어. 저 뭐 헤불믄 동지대 상 올라와불주. 게난 온도가 젤 중요헌 거, 온돌 맞아사, 배추는. 으름 껀 덜허지만 봄에 꺼 허고 겨울에 거는 온도 안 맞추믄 이것이 커가당 그냥 대 나불믄 다마도 안 앚곡 뭐 헐 거 아니우꽈? 게난 이제 우리도 온도 딱 잘 맞촹 헌덴 허영 첨.(배추는요, 우리도 배추를 많이 했었습니다. 전문, 원래 배추 전문했었는데 배추도 봄배추가 있고, 가을배추가 있고, 여름배추 뭐, 절기마다 다른 데,

봄배추부터 말하면 요것이 이제 거 봄에도 속음배추가 있고, 또 절구배추요, 김치배추가 있어. 그러니까 봄에 저 속음배추 반작하려고 하면, 모종을 놔서 심는데 이제 이것도 온상 해서 흙도 보드랍게 해서 해서 온도 맞춰서 심어야. 이것이요 온도가 온상에서 추워 버리면 이것이 보통 십이도 이렇게 거 온도계로, 십이도 아래로 떨어져서 모종이 크면 이것이 뭐 저 캐기 전에 첫대 나버려. 저 뭐 해버리면 동지대 서서 올라와 버리지. 그러니까 온도가 제일 중요한 거, 온도가 맞아야, 배추는. 여름 거는 덜하지만, 봄 거하고 겨울에 거는 온도 안 맞추면 이것이 커가다가 그냥 대 나버리면 속도 안 앉고 뭐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온도 딱 맞춰서 한다고 해서 참.)

103063 @ 하우스에서 경 허는 거 아니꽈예?(하우스에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103063 #1 예, 하우스에도 허고.(예, 하우스에서도 하고.)

103063 #1 하우스에도 경 허고 체암 메종 놀 때도 나룩찝허곡 저 쉐똥 줏어당은에 허곡.(하우스에도 그렇게 하고 처음 모종 놓을 때도 볏짚하고 저 소똥 주어다가 하고.)

103063 @ 아니, 노지에, 노지에 그냥.(아니, 노지에, 노지에 그냥.)

103063 #1 노지에 싱그는 거.(노지에 심는 거.)

103063 #2 노지에 허는 것도, 노지에 허는 것도 저, 씨 좁아놩 허고, 그런 건 범위가 족게 허고, 메종 논 건 하영 헤낫수다, 메종덜 놩. 배추가 동지 사지 아이허영 헌덴, 동지 사믄 먹을 거 엇넨 허멍, 하영 헹 누게 사레 와도 동지산 ᄂᆞ멀은 아이 사커라, 아이 사커라, 그추룩 헤근에 갈아낫수다게. 메종을 자꾸 놔.(노지에 하는 것도, 노지에 하는 것도 저, 씨 집어놔서 하고, 그런 건 범위가 작게 하고, 모종 놓은 거는 많이 했었습니다, 모종들 놔서. 배추가 동지 서지 안 해서 한다고, 동지 서면 먹을 거 없다고 하면서, 많이 해서 누구 사러 와도 동지 선 나물은 안 사겠어, 안 사겠어, 그처럼 해서 갈았었습니다. 모종을 자꾸 놔.)

103063 @ 동지를 서지 말게 헤야겟네예?(동지를 서지 말게 해야겠네요?)

103063 #2 동지 사지, 동지 사는 거는 유채 ᄀᆞ뜬 거나 씨 받는 거 허주, 동질 사질 말아사.(동지 서지, 동지 서는 거는 유채 같은 거나 씨 받는 거 하지, 동지를 서지 말아야.)

103063 #1 첫째는양 동지 안 사게 멩글젠 허믄.(첫째는요 동지 안 서게 만들려고 하면.)

103063 #2 멩글젠 허믄 온도를.(만들려고 하면 온도를.)

103063 #1 온도를 잘 맞촤사.(온도를 잘 맞춰야.)

103063 #2 집을 ᄯᅡ시게 헤사, 무시거.(집을 따뜻하게 해야, 무엇.)

103063 #1 전인 거 ᄆᆞᆯ똥 줏어오곡. 무신거 저 온상 멩글젠 허믄 나룩찝 허곡.(전에는 거 말똥 주어오고. 무엇 저 온상 만들려고 하면 볏짚하고.)

103063 #2 게난 나룩찝 하영 놘.(그러니까 볏짚 많이 놔서.)

103063 #1 온상 거 틀 짜 놩, 낭으로.(온상 거 틀 짜 놔서, 나무로.)

103063 #2 니기반득허게 딱 허영.(네모반듯하게 딱 해서.)

103063 #1 나룩찝 놩, 그레 막 ᄇᆞᆯ르멍 헹은에, ᄒᆞᆫ 칭 정도, 일메다 정도 ᄇᆞᆯ라노믄,

그거 썩어가믄 열날 거 아이우꽈? 게믄 흑을, 상톨 잘 멩심헹 멩글앗당, 그레 헤 놩 이제 온도계 영 찔러보멍 뜨뜻허믄 이제, 그때 메종씨를 뿌령, 배추씨 뿌령은에.(볏짚 놔서, 그리 마구 밟으면서 해서, 한 칭 정도, 일 미터 정도 밟아 놓으면, 그거 썩어가면 열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흙을, 상토를 잘 명심해서 만들었다가, 거기 해 놔서 이제 온도계 이렇게 찔러보면서 따뜻하면 이제, 그때 모종씨를 뿌려서, 배추씨 뿌려서.)

103063 #2 배추씨 작작 뿌려 놩.(배추씨 작작 뿌려 놔서.)

103063 #1 더껑 잘 헹 놔두믄 흔 사흘 뒈가믄 납주게. ᄉᆞ십팔 시간 원래 나는디 흔 사흘 잡앙, 보통 이제 춤웨ᄀᆞ뜬 건 사흘, 나을 전이 나고, 젤 재게 나는 게 배추우다. 영 뿌령 ᄒᆞ끔만 온도 맞으믄 흔 이틀부턴 나기 시작허여. 이렇게 들렁 보믄.(덮어서 잘해서 놔두면 한 사흘 돼 가면 나지요. 사십팔 시간 원래 나는데 한 사흘 잡아서, 보통 이제 참외 같은 거는 사흘, 나흘 전에 나고, 제일 빨리 나는 게 배추입니다. 이렇게 뿌려서 조금만 온도 맞으면 한 이틀부터는 나기 시작해. 이렇게 들러서 보면.)

103063 #2 그냥 그거, 그냥, 그냥 사름덜은 뽑앙 밧디 강 싱그믄 발 어신 거난 죽어불엉마씨. 발이 게난, 또 뽑앙 우리 저 무신거영 차롱착에 영.(그냥 그거, 그냥, 그냥 사람들은 뽑아서 밭에 가서 심으면 발 없는 거니까 죽어 버려요. 발이 그러니까, 또 뽑아서 우리 저 무엇이랑 채롱짝에 이렇게)

103063 #1 포토, 포토 내령.(포토, 포토 내려서.)

103063 #2 싱것당은에 들렁 강 싱그지 아이허믄, 그냥 사름덜은 뽑아당 인력 엇곡 뽑아당 밧디 싱그믄 죽어불어.(심었다가 들어가서 심지 않으면, 그냥 사람들은 뽑아다가 인력 없고 뽑아다가 밭에 심으면 죽어버려.)

103063 #1 그걸 상토를 잘 멩글앙 헷당 이디서 수에ᄀᆞ찌 막 담아.(그걸 상토를 잘 만들어서 했다가 여기서 순대같이 마구 담아.)

103063 #2 김치 ᄂᆞ멀 잎 나오게, 김치 ᄂᆞ멀. (김치 나물 잎 나오게, 김치 나물.)

103063 #1 톡톡 짤랑 이제 거 허곡, 또 봄에 거는 거 짤라노믄 흑이 움직이기 궂이난 빠져불어. 게난 그걸 촛불에양, 영 불 싸놩 쫄앙 놧당.(톡톡 잘라서 이제 거 하고 또 봄에 거는 거 잘라 놓으면 흙이 움직이기 궂으니까 빠져버려. 그러니까 그걸 촛불에요, 이렇게 불 켜놔서 잘라서 놨다가.)

103063 #2 비니루 이만이 헌 거.(비닐 이만큼 한 거.)

103063 #1 막 거 감아진 것덜이 십니다. 풀아당 허믄, 그 훌근 거, 족은 거 허믄 어느 정도 헐 거, 흔 십 센치가 가장 맞아, 그거 헤당은에 이 저 촛불에 다 십 센치 요만큼썩 짤랑, 겡 이제 촛불에다 녹영 놔뒷당.(마구 거 감아진 것들이 있습니다. 팔아다가 하면, 그 굵은 거, 작은 거 하면 어느 정도 할 거, 한 십 센티미터가 가장 맞아, 그거 해다 이 저 촛불에다 십 센티미터 요만큼씩 잘라서, 그렇게 이제 촛불에 다 녹여서 놔뒀다가.)

103063 #2 흔 만 본 헤사.(한 만 본 해야.)

103063 #1 이제 또 저 그걸 막.(이제 또 저 그걸 마구.)

103063 #2 만 본도 하지 아니허여마씨.(만 본도 많지 않아요.)

103063 #1 우리도 담기 바쁘난 아이덜 빌엉 하나에 얼마썩 돈 주믄.(우리도 담기 바쁘니까 아이들 빌어서 하나에 얼마씩 돈 주면.)

103063 #2 일 원썩, 십 원썩 주곡 헤나시난.(일 원씩, 십 원씩 주고 했었으니까.)

103063 #1 막 담앙 콘테나에 혼 콘테나에 얼마 허믄 돈 주멍.(마구 담아서 컨테이너에 한 컨테이너에 얼마 하면 돈 주면서.)

103063 #2 콘테나 네 개 영 찰리에도 놓곡 허멍 헨마씨, 헤낫수다.(컨테이너 네 개 이렇게 자루에도 넣고 했어요, 했었습니다.)

103063 #1 경 헤 놩 담앙 허믄 메.(그렇게 해 놔서 담아서 하면 모종.)

103063 #2 혼 멧칠.(한 며칠.)

103063 #1 메종을 놩 뚠 쪽에서 허믄, 흑을 또 그디도 멩글아사 허여.(모종을 놔서 다른 쪽에서 하면, 흙을 또 거기도 만들어야 해.)

103063 #2 뚜뜻허게 멩글아사.(따뜻하게 만들어야.)

103063 #1 온상에, 겡 그레 앚졍은에 싱급주게. 가식이라고.(온상에, 그렇게 그리 앉혀서 심지요. 가식이라고.)

103063 @ 쉬운 농사가 어서.(쉬운 농사가 없어.)

103063 #2 게난 그땐 머리빡덜을 못 쎠부난 경 헷주기게.(그러니까 그땐 머리들을 못 써버리니까 그렇게 했지요.)

103063 @ 아니우다게.(아닙니다.)

103063 #2 그때는.(그때는.)

103063 #1 그땐 뭐 저.(그땐 뭐 저.)

103063 #2 머리빡을 못 써부난.(머리를 못 써버리니까.)

103063 @ 우리 동네는 그런 거 포토 만드는 것도 몰르고.(우리 동네는 그런 거 포토 만드는 것도 모르고.)

103063 #1 몰라실 거우다, 그때는.(몰랐을 겁니다, 그때는.)

103063 @ 우린 퍼데기, 퍼데기ᄂᆞ멀.(우리는 속이 없는, 속이 없는 배추.)

103063 #2 배추는 질 일등, 제주도에서 멧 번 아이해낫수다.(배추는 제일 일등, 제주도에서 몇 번 안 했었습니다.)

103063 #1 ᄉᆞ방이서 우리도 배추 허믄 저 김여환이 배추옌 허믄 동문시장이 강.(사방에서 우리도 배추 하면 저 김여환이 배추라고 하면 '동문시장'에 가서.)

103063 #2 동문시장에 가믄 이디 다 알아.('동문시장'에 가면 여기 다 알아.)

103063 #1 이제 첨 옛날은 경 헤낫수다게. 봄배추 잘헌덴 허영. 그건 뭐냐 허믄 온도를 잘 맞추는 것이 관건이라마씨, 제일 문제는.(이제 참 옛날은 그렇게 했었습니다. 봄배추 잘한다고 해서. 그건 뭐냐 하면 온도를 잘 맞추는 것이 관건이에요, 제일 문제는.)

103063 #2 게난 그거 배추 풀안 이제 밧도 사고 이제 아기덜 공부도 시기고, 막 헷수다.(그러니까 그거 배추 팔아서 이제 밭도 사고 이제 아기들 공부도 시키고, 막 했습니다.)

103063 #1 우리는 다른 거보단도 배추.(우리는 다른 거보다도 배추.)

103063 #2 질 쉬와마씨.(제일 쉬워요.)

103063 #1 풀믄 아 그것을, 우리가 살앗수다. 게난 또 더러 못 픈 거는 장에, 오일장 저.(팔면 아 그것을,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또 더러 못 판 거는 장에 오일장 저.)

103063 #2 오일장, 제주차보 장에.(오일장, 제주차고 장에.)

103063 #1 제주차보에도 가곡, 하귀장, 여기선양 애월장, 외도장, 다 봣수다게. 그때는 뭐 저 질도 나쁘곡 허난, 무신 니아까가 처음엔 셧수가? 니아까도 어디 물건 장시 꺼 빌어당 장에.(제주차고에도 가고, '하귀장', 여기서는요 '애월장', '외도장', 다 봤습니다. 그때는 뭐 저 길도 나쁘고 하니까, 무슨 리어카가 처음에 있었습니까? 리어카도 어디 물건 장수 거 빌어다가 장에.)

103063 #2 혼번 빌어당, 빌어당.(한번 빌어다가, 빌어다가.)

103063 #1 안 갈 때 혼번 시꺼당은에, 허켕 허영, 혼 동네 하나, 둘 니아까가 셔낫수다.(안 갈 때 한번 실어다가, 하겠다고 해서, 한 동네 하나, 둘 리어카가 있었습니다.)

103063 @ 거 끗어갓구나.(그거 끌어갔구나.)

103063 #1 끗어갓주기. 어떵 배추 캣당 졍, 처음엔 졍 간디 멕에, 졍 가믄 얼마 졍 가짐니까? 풀앙, 그거 애월장끄지 졍 가봅서.(끌어갔지요. 어떻게 배추 캤다가 져서, 처음에는 지고 갔는데 멱서리에, 져서 가면 얼마 져서 가집니까? 팔아서, 그거 '애월장'까지 져서 가보세요.)

103063 #2 애월장 졍 가난 혼번은 못 풀안에 이제 풀아사 무시거 백 원 줭 상 먹고, 시장허난에 헌디, 못 픈난에 우리 그냥도 와낫수다게.('애월장' 져서 가니까 한번은 못 팔아서 이제 팔아야 무엇 백 원 줘서 사서 먹고, 시장하니까 하는데, 못 파니까 우리 그냥도 왔었습니다.)

103063 #1 게난 오일장 간디 시에 장이 주로 이제 건.(그러니까 오일장 갔는데 시에 장에 주로 이제 거는.)

103063 #2 제주차보 셔낫수다.(제주차고 있었습니다.)

103063 #1 차 빌엉 이 저 제주차보엔 허영 서문로타리허믄 우트레 올라간 디 영, 그땐 집이 얼마 어선양, 질레에 장을 서서. 게니까 그기 헤당 미리 아시날 가사 장 츠지허난, 이 차 추럭 빌엉.(차 빌려서 이 저 제주차고라고 해서 서문로터리하면 위로 올라간데 이렇게, 그땐 집이 얼마 없었어요, 길에 장이 서서. 그러니까 거기 해다가 미리 전날 가야 장 차지하니까, 이 차 트럭 빌려서.)

103063 #2 추럭산디 경운기산디.(트럭인지 경운기인지.)

103063 #1 아, 경운기도 헤나고, 처음엔 경운기로 허난.(아, 경운기도 했었고, 처음에는 경운기로 하니까.)

103063 #2 경운기로 허연.(경운기로 했어.)

103063 #1 이제 거 놉 빌언 경운기 시껀 거 간 밤이 간 펀 딱 허게 헨 뒷날 장에 허젠, 거 날이 좋아야 허는디 뒷날 아침 장이 보젠 허니까 비가 닥닥 와 간다 말이여.

아, 거 뭐 더끌 것도 엇고, 거 비와 노믄 어디 내불 거 아이우꽈? 이 헤볼 내기 어시, 막 거 시에 사름덜토 이제도 기억나져, 하나에 흔 포기에 오 완, 오 완 허난 양.(이제 거 놉 빌어서 경운기 실어서 그거 가서 밤에 가서 내리고 딱 하게 해서 뒷날 장에 하려고, 거 날이 좋아야 하는데 뒷날 아침 장을 보려고 하니까 비가 닥닥 와 온다 말이야. 아, 그거 뭐 덮을 것도 없고, 거 비와 놓으면 어디 내버릴 거 아닙니까? 이 해볼 도리가 없이, 마구 그거 시에 사람들도 이제도 기억나져, 하나에 한 포기에 오 원, 오 원 하니까요.)

103063 #2 곧 풀아집디다.(곧 팔 수 있습디다.)

103063 #1 누게 사간 처리 모르게.(누구 사서 간 줄도 모르게.)

103063 #2 얼메사 받아져신지. 막 오완, 오완 허난 확 풀안.(얼마야 받아졌는지. 마구 오 원, 오 원 하니까 확 팔았어.)

103063 #1 막 그레 들엉 사가는 거라. 게난 이제 흔 어이에 풀고. 우리영 ᄀᆞ찌 시꺼 간 사름은 어떠냐믄 십 원 풀 켜, 이십원 풀켜 허니까.(마구 그리 들어서 사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한순간에 팔고. 우리랑 같이 실어간 사람은 어떠냐면 십 원 팔겠어, 이십 원 팔겠어 하니까.)

103063 #2 못 풀안.(못 팔았어.)

103063 #1 못 풀안, 이제 뒷날 또 더껏단 애월장ᄁᆞ지 ᄃᆞᆫ 간 운임들이멍 풀고.(못 팔아서, 이제 뒷날 또 덮었다가 '애월장'까지 모두 가서 운임들이면서 팔고.)

103063 #2 그 사름은 풀앗젠 헤도 우리 오 완, 오 완 허난 만 오천 원 받안에게, 만 오천 원 받안에.(그 사람은 팔았다고 해도 우리 오 원, 오 원 하니까 만오천 원 받아서, 만오천 원 받아서.)

103063 #1 만오천 원 아니라게.(만오천 원 아니야.)

103063 #2 천오백 원.(천오백 원.)

103063 #1 천오백 원인가 받안, 그때. 게난 저 어떠냐 허믄 경운기 삯 천오백 원 줘불고.(천오백 원인가 받았어, 그때. 그러니까 저 어떠냐 하면 경운기 삯 천오백 원 줘버리고.)

103063 #2 맞아, 경 헤부난.(맞아, 그렇게 해버리니까.)

103063 #1 뭐 그저 그날 간 밥 사 먹고 허다 보난 돈 천 원도 안 남안 헤낫수다마는, 그런 추억도 잇고.(뭐 그저 그날 가서 밥 사 먹고 하다 보니까 돈 천 원도 안 남아서 했었습니다만, 그런 추억도 있고.)

103063 #2 경 헨, 경 헤도.(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도.)

103063 #1 어떠튼 우린 배추 따문 하영 살앗수다. 예, 배추.(어떻든 우리는 배추 때문에 많이 살았습니다. 예, 배추.)

103063 #2 배추 따문에 돈 벌언 ᄒᆞ교도 시기고.(배추 때문에 돈 벌어서 학교도 시키고.)

103063 @ 맞수다.(맞습니다.)

103063 #2 국민학교도 체암 시겨가고, 아무것도 어시 첨, 잇날 살아가단에.(국민학교

처음 시켜가고, 아무것도 없이 참, 옛날 살아가다가.)

103064 @ 그다음에 놈삐 농사는 어떵 헙니까?(그다음에 무 농사는 어떻게 합니까?)

103064 #1 놈삔 주로 먹을 것만 허고, ᄀᆞ을 들엉 영 허믄, 놈삐는 이제 혼쪽더레.(무는 주로 먹을 것만 하고, 가을 들어서 이렇게 하면, 무는 이제 한쪽으로.)

103064 @ 농사 안 지어도 대충 아는 대로.(농사 안 지어도 대충 아는 대로.)

103064 #2 먹을 걸로게, 먹을 것덜은 헷수다.(먹을 것으로, 먹을 것들은 했습니다.)

103064 #1 먹을 건 허고 또 이.(먹을 거는 하고 또 이.)

103064 #2 벡 펭썩, 헤끔썩.(백 평씩, 조금씩.)

103064 #1 밧 갈앙 허믄, 놈삐도 고지로, 고지로 톡톡톡 허멍.(밭 갈아서 하면, 무도 이랑으로, 이랑으로 톡톡톡 하면서.)

103064 #2 맏긴 질 쉬와마씨.(맡기는 제일 쉬워요.)

103064 #1 씨, 씨만 질뤙 허믄, 놈삐는 저 약만 잘허고, 약은 아무것도 문 먹어불믄, 먹기 전이.(씨, 씨만 찔러서 하면, 무는 저 약만 잘하고, 약은 아무것도 모두 먹어버리면, 먹기 전에)

103064 #2 아니, 저 디디티, 디디티 삐엇주.(아니, 저 '디디티', '디디티' 뿌렸지.)

103064 #1 이 저 메종 구뎅이 톡톡톡 씨 질루믄, 이 막뎅이에 두건 ᄀᆞ뜬 거 감앙, 톡톡톡 치멍, ᄀᆞ를이 싹 허믄 이제.(이 저 모종 구덩이 톡톡톡 씨 찌르면, 이 막대기에 두건 같은 거 감아서, 톡톡톡 치면서, 가루가 싹 하면 이제.)

103064 #2 디디틴 아무것도 아이라도, 그자 건식으로 허긴 헨.('디디티'는 아무것도 아니라도, 그저 건식으로 하기는 했어.)

103064 #1 헤낫주게.(했었지요.)

103064 #2 두 개 헌 거 하나썩 뽑앙 하나썩만 넹겨.(두 개 한 거 하나씩 뽑아서 하나씩만 남겨.)

103064 #1 자꾸 소끄멍 헹.(자꾸 솎으면서 해서.)

103064 #2 소끄멍 헹.(솎으면서 해서.)

103064 #1 나중에 하나만 냉기고, 거리운 것도 메 불고, 영 거리운 거.(나중에 하나만 남기고, 뻗어 나간 것도 매 버리고, 이렇게 뻗어 나간 거.)

103064 #2 경 헹 허믄.(그렇게 해서 하면.)

103064 #1 가치가 어서.(가치가 없어.)

103064 #2 하귀장이 애월장이 그자 두어 뭇썩 풀아난, 하영 건 아이 헤나고. 두어 메썩 ᄒᆞ끔썩 헹 강 풀믄게, 십원도 받곡, 칠원도 받곡 허멍 헤낫수다게.('하귀장'에 '애월장'에 그저 두어 뭇씩 팔았었어, 많이 건 안 했었고. 두어 뭇씩 조금씩 해서 가서 팔면요, 십 원도 받고, 칠 원도 받고 하면서 했었습니다.)

103064 @ 게난 요거 농산 안 지어나도 이 들은 거 헹은에 영 말허믄 뒙니다.(그러니까 요거 농사는 안 지었어도 이 들은 거 해서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103064 #2 들은 거 아이고, 우리 놈삐, 우린 하영 안 허연, 두어 번 풀렌 뎅여낫주게. 서너 번 멕으로 정은에, 간 풀기도 풀안.(들은 거 아니고, 우리 무, 우리는 많이 안

했어, 두어 번 팔러 다녔었지요, 서너 번 멱서리로 져서, 가서 팔기도 팔았어.)

103064 #1 무사게 경도 허고, 지금 놈삐 농사덜 하영 헌 사름덜은.(왜요 그렇게도 하고, 지금 무 농사들 많이 한 사람들은.)

103064 #2 그후제덜은 막 하영 허연.(그 후에는 아주 많이 했어.)

103064 #1 이제 밧 갈앙 것도 자꾸 놈삐씨.(이제 밭 갈아서 그것도 자주 무씨.)

103064 #2 나도 놈삐 농사.(나도 무 농사.)

103064 #1 놈삐 농사허젠.(무 농사하려고.)

103064 #2 허레, 일허레 가나서. 저 신엄[123]이영, 어음[124]이영, 봉성[125]도 가난.(하러, 일하러 갔었어. 저 '신엄'이랑, '어음'이랑, '봉성'도 갔었어.)

103064 #1 그레허믄 이제 똑 이것도 웨구뎅이ᄀᆞ찌양 건 매 고지마다 허여, 매 고지마다, 고지에 이렇게 곧 갈믄 고지에 똑똑똑 그 저.(그리하면 이제 똑 이것도 외구덩이 같이요 거는 모든 이랑마다 해, 모든 이랑마다, 이랑에 이렇게 곧 갈면 이랑에 똑똑똑 그 저.)

103064 #2 매 고지마다 ᄀᆞᆯ갱이ᄌᆞ룩 흔허영 딱.(모든 이랑마다 호미자루 한해서 딱.)

103064 #1 흔허영 씨 노멍.(한해서 씨 놓으면서.)

103064 #2 ᄀᆞᆯ갱이 영 노믄 그레 톡 허게 놓곡.(호미 이렇게 놓으면 그리 톡 하게 놓고.)

103064 #1 겡 나믄 이것도 솎앙은에, 나중에는 가리웨기[126] 다 메 불고, 겡 이제 하나썩만 존 걸로 냉겻당 허믄, 이것이 약만 잘 허껑, 얼른 커마씨.(그렇게 나면 이것도 솎아서, 나중에는 '가리웨기' 다 매 버리고, 그렇게 이제 하나씩만 좋은 것으로 남겼다 하면, 이것이 약만 잘 섞어서, 얼른 커요.)

103064 #2 게난 무우가 젤 쉽넨 헙니다. 우리도 강 무우 작업허레도 간, 돈 벌레도 가고 헷는디.(그러니까 무가 제일 쉽다고 합니다. 우리도 가서 무 작업하러도 가서, 돈 벌러도 가고 했는데)

103064 #1 저 그 단무지 허는 거는 이런디 하영.(저 그 단무지 하는 거는 이런데 많이.)

103064 #2 게난 그것도 종잘 잘 택헤사 헤산덴. 무를양, 종자를 잘 택헹, 옛날 우리 것추룩 그자.(그러니까 그것도 종자를 잘 택해야 해야 한다고. 무를요, 종자를 잘 택해서, 옛날 우리 것처럼 그저.)

103064 #1 종자 좋은 거 아이허믄 요것이양.(종자 좋은 거 안 하면 요것이요.)

103064 #2 종자 잘헤사 단무지 공장에 가곡.(종자 잘해야 단무지 공장에 가고.)

103064 #1 잘 안 크고 그냥 영 거리게 뒈멍, 토종ᄀᆞ찌 내려앚앙 무 지럭시 뒈믄.(잘 안 크고 그냥 이렇게 뻗어 나가게 되면서, 토종같이 내려앉아서 무 길이 되면.)

103064 @ 새끼 차 불믄.(새끼 차 버리면.)

---

123) '신엄'은 제주시 애월읍 신엄리를 말한다.
124) '어음'은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를 말한다.
125) '봉성'은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를 말한다.
126) '가리웨기'는 모종의 순이 하나로 올라오지 않고 두 개로 갈라진 것이다.

103064 #1 예, 새끼 차고, 수랑수랑허게 허게 이게 씨가 좋아사.(예, 새끼 차고, 길쭉길쭉하게 이게 씨가 좋아야.)

103064 #2 게난 옛날은 땅 알러레 놈삘 들엿주마는, 이제는 영 우터레 질롸사.(그러니까 옛날은 땅 아래로 무가 들었지만, 이제는 이렇게 위에 키워야.)

103064 #1 땅 우터레 질루아사.(땅 위로 키워야.)

103064 @ 놈삐도 종류 잇지 아니허꽝양? 단지놈삐여, 무신 놈삐여.(무도 종류 있지 않습니까? 단지무여, 무슨 무여.)

103064 #1 이제 저 무신, 저 뭐.(이제 저 무슨, 저 뭐.)

103064 #2 놈삐 종륜 무신 저, 무신 놈삐게. 청대, 청대무우허고, 무시거 저 나 원 잊어불엇저, 건. 무시거 거 단무지 허는 놈삐, 뭣이옌 골아라마는, 나도 청대놈삔 알아지고.(무 종류는 무슨 저, 무슨 무게. 청대, 청대무하고, 무엇 저 나 원 잊어버렸어, 거는. 뭐 거 단무지 하는 무, 뭐라고 말해라만, 나도 청대무는 알 수 있고.)

103064 #1 건 저 대가리가 영 퍼렁케 헹, 헌 거고.(건 저 윗부분이 이렇게 파랗게 해서, 한 거고.)

103064 #2 청대놈삔 대가리가 영 허고 ᄀᆞ늘아. 놈삐가 ᄀᆞ늘아. 이제ᄀᆞ추룩 술지질 아니허여. 이제 그 단무지허는 놈삐는 술졍은에.(청대무는 윗부분이 이렇게 하고 가늘어. 무가 가늘어. 이제 그렇게 굵지를 안 해. 이제 그 단무지 하는 무는 굵어서.)

103065 다음에는 지실 농사, 어떵 헙니까?(다음에는 감자 농사, 어떻게 합니까?)

103065 #1 지실은 별로 아이 헤봔. 지슬 이제 거 진흥원에서 이디선양, 땅이 질왓이라노난 지슬이 웃드리ᄀᆞ찌 북삭북삭 흑이 뒈어야 지슬이 잘 뒈는디, 이제 춤질 왓 뒈어노난 잘 안뒙주게.(감자는 별로 안 해봤어. 감자 이제 거 진흥원에서 여기서는요, 땅이 '질왓'이니까 감자가 '웃드리'같이 북삭북삭 흙이 되어야 감자가 잘 되는데, 이제 차진 질흙 밭 되니까 잘 안 되지요.)

103065 #2 잘 아이뒈어.(잘 안 되어.)

103065 #1 우리도 요 쪼금 한질 우터레 올라간 작젱이[127]옌 헌디.(우리도 요 조금 한길 위에 올라가서 '작젱이'라고 하는데.)

103065 #2 그까짓 거 흔 이벡 평헤나시난.(그까짓 거 한 이백 평했었으니까.)

103065 #1 간 이제, 무시거 이벡 평이라, 거 칠벡 평짜리 무사 메종허영 하영 들어사 가멍, 게 그거 지슬 농사 질 좋은 거옌 허연, 진흥원, 지도소에서 일본 씨옌 이제 알썬헨 우리 구헤단 지슬도 이제 감제 허듯이 보통 건 흔 두 고지 합쳥, 고지가 좀 넙게, 쉐로 갈아도 둥긋허게 갈아야 이게, 이제 구뎅이 짓는 것도 좋아마씨. 게난 어느 정도 영 구뎅이 짓으멍 그것이 이제 큰 거는 두 개에 끈곡, 어떤 건 이제 너무 크믄 시 개에 벌르멍, 또 그것도 헤지믄 불치ᄀᆞ뜬 거 구뎅이에 놔 지믄 좋고, 못 헤도 구뎅이 영 동그랑케 올리멍 헤야 감제ᄀᆞ찌 들겁주게.(간 이제, 무엇 이백 평이야, 거 칠백 평짜리 왜 모종해서 많이 들어서 가면서, 게 그거 감자 농사 제일 좋은 거라고 해서, 진흥원, 지도소에서 일본 씨라고 이제 알선해서 우리 구해다가 감자도 이제 고구마 하듯이 보통 거

127) '작젱이'는 제주시 애월읍 구엄리에 있는 지경 이름이다.

는 한 두 이랑 합쳐서, 이랑이 좀 넓게, 소로 갈아도 둥긋이 갈아야 이게, 이제 구덩이 짓는 것도 좋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구덩이 지으면서 그것이 이제 큰 거는 두 개에 끊고, 어떤 거는 이제 너무 크면 세 개에 쪼개면서, 또 그것도 해지면 불티같은 거 구덩이에 넣어 지면 좋고, 못 해도 구덩이 이렇게 둥그렇게 올리면서 해야 고구마같이 들 거지요.)

103065 #2 겐디 것도 씨를, 씨가 잘 택헤사.(그런데 그것도 씨를, 씨가 잘 택해야.)

103065 #1 씨 잘 못허믄 요건양.(씨 잘 못하면 요건요.)

103065 #2 밧도 잘 들고, 지슬 놓는 밧은 밧을 잘 선택허영 헙니다. 아무 밧이나 아니 허영.(밭도 잘 들고, 감자 놓는 밭은 밭을 잘 선택해야 합니다. 아무 밭이나 안 해서.)

103065 @ 자갈밧은 안 뒈고.(자갈밭은 안 되고.)

103065 #1 자갈 너무 하믄 또 이게.(자갈 너무 많으면 또 이게.)

103065 #2 지슬밧은.(감자밭은.)

103065 @ 멍쿠젱이 졍.(못 져서.)

103065 #1 지슬이 곱질 안 헤. 자갈 하믄 크지 아니허여.(감자가 곱지를 않아. 자갈 많으면 크지 아니해.)

103065 #2 아이 게난, 어.(아니 그러니까, 어.)

103065 @ 멍쿠젱이 닮앙.(못 같아서.)

103065 #2 곱닥허영 민들락허질 아니허영, 자갈 헌 건. 게난 지슬 놓는 밧은 우리 오래전이도 지슬 하영 헙니다마는, 이 저 밧 골령 아무나 못 헙니다. 경 골아.(고와서 매끈하지 않아서, 자갈 한 거는. 그러니까 감자 놓는 밭은 우리 오래전에도 감자 많이 합니다마는, 이 저 밭 가려서 아무나 못 합니다. 그렇게 말해.)

103065 #1 지슬은 좋아사, 흑이 좋아사.(감자가 좋아야, 흙이 좋아야.)

103065 #2 메칠 시믄 지슬 놓레, 지슬 씨 놔 줍센 허영, 이게 강 갈 거.(며칠 있으면 감자 놓으러, 감자 씨 놔 주라고 해서, 이제 가서 갈 거.)

103066 @ 피 농사져 봅디강? (피 농사지어 봤습니까?)

103066 #1 여기서 피 안 헤. 어디여서 안 허냐 허믄 피 헤 나믄 그 밧, 논에, 뭐 다음 농사를 안 뒈어. 피가 이거 혼번 씨 헤노믄 끈질 못 허여. 게난 이 ᄉᆞ방에선 나가 알기론 피 헌 딘 베려보질 못 헤서.(여기서 피 안 해. 어디여서 안 하냐 하면 피 해 나면 그 밭, 논에, 뭐 다음 농사가 안 되어. 피가 이거 한번 씨 해 놓으면 끊지를 못해. 그러니까 이 사방에서는 내가 알기로는 피를 한 데는 보이지를 못해서.) 103066 @ 응.(응.)

103066 #1 피 농산.(피 농사는.)

103066 #2 피 농산 안 허연, 몰라.(피 농사는 안 해서, 몰라.)

103067 @ 그다음에 ᄆᆞ멀 농사는 어떵 헙니까? ᄆᆞ멀.(그다음에 메밀 농사는 어떻게 합니까? 메밀.)

103067 #1 ᄆᆞ멀도 주로 이디, 이디선 ᄆᆞ멀 허진 아이헷는디 저 장전[128] 우터레 가

믄 ᄆᆞ멀 농사 이제 그쪽도 거의가 목장에, 목장 이긴 디 강 ᄆᆞ멀을 허는디.(메밀도 주로 여기, 여기서는 메밀 하지는 않는데 저 '장전' 위로 가면 메밀 농사 이제 그쪽도 거의가 목장에, 목장 일군 데 가서 메밀을 하는데.)

103067 @ 언제 씨 뿌려? 그건.(언제 씨 뿌려? 그거는.)

103067 #2 뭐 언제사 뿌리는지, ᄆᆞ멀. 시월 낭 허는 거라.(뭐 언제야 뿌리는지, 메밀. 시월 나서 하는 거야.)

103067 @ 저 가을에 꼿 피주게.(저 가을에 꽃 피지.)

103067 #1 예, 가을에 꼿 피는디 것도 상강, 상강 압뒁, 것이 크기 시작허믄 흔 둘 만이 꼿을 피난, 상강 똑 기준 헤 가지고 흔 둘 전에 씨를 뿌려야 헤. 겐 농사옌 헌 건 이제 상강 뭐 무슨 이런 소서, 유월절, 아 이런 절기로 안 헴수강?(예, 가을에 꽃 피는데 것도 상강, 상강 앞둬서, 그것이 크기 시작하면 한 달 만에 꽃이 피니까, 상강 똑 기준 해 가지고 한 달 전에 씨를 뿌려야 해. 겐 농사라고 하는 거는 이제 상강 뭐 무슨 이런 소서, 유월절, 아 이런 절기로 안 하고 있습니까?)

103067 #2 잇날은 그런, 그거.(옛날은 그런, 그거.)

103067 #1 게난 상강 전이 흔 둘 전이 허지 아니허믄 그 시기가 재게 얼어불믄 안 뒈고, 또 너무 늦어도 안 뒈고 허난 절기를 잘 맞추앙 그때 헹, ᄆᆞ멀을 주로. 이디선 ᄆᆞ멀 농사는 별로 헌 사름도 엇곡, 허질 못 허여마씨. 땅이 맞지 아니허영.(그러니까 상강 전에 한 달 전에 하지 않으면 그 시기가 재우 얼어버리면 안 되고, 또 너무 늦어도 안 되고 하니까 절기를 잘 맞춰서 그때 해서, 메밀을 주로. 여기서는 메밀 농사는 별로 한 사람도 없고, 하지 못해요. 땅이 맞지 않아서.)

103067 #2 이 우터레 ᄆᆞ멀 허는 디, 장전더레 ᄆᆞ멀 허는 디 십니다.(이 위로 메밀 하는 데, '장전'으로 메밀 하는 데 있습니다.)

103067 #1 우터레 올라가믄 ᄆᆞ멀덜 허여.(위로 올라가면 메밀들 해.)

103067 @ 웃드르에.('웃드르'에.)

103067 #2 문딱 새 먹어.(모두 새 먹어.)

103067 @ 보통 웃드르에 허는 겁주.(보통 '웃드르'에 하는 거지.)

103067 #2 웃드르도 문딱 새 먹어불곡.('웃드르'도 모두 새 먹어버리고.)

103067 @ 웃드르 허민 저 산디나 ᄂᆞ멀.('웃드르' 하면 저 밭벼나 나물.)

103067 #1 산디나 놈삐나.(밭벼나 무나.)

103067 #2 아이 놈삔 이레도 하영, 이젠 놈삐덜토 허영.(아니 무는 이리도 많이, 이제는 무들도 해서.)

103067 @ 놈삐 저 어디.(무 저 어디.)

103067 #1 웃드르에 많이 허여.('웃드르'에 많이 해.)

103067 @ 표선리[129] 쪽더레 하영 허는 딥디다. 그 웃드르레.('표선리' 쪽으로 많이 하는 뎁디다, 그 '웃드리'에.)

---

128) '장전'은 제주시 애월읍 장전리를 말한다.
129) '표선리'는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이다.

103067 #1 예, 문 늠삐.(예, 모두 무.)

103067 @ 예, 거 저 시흥리[130], 그 우에.(예, 그거 저 '시흥리', 그 위에.)

103067 #2 밧덜이 그렌 널르곡게.(밭들이 그 그곳으로는 넓고요.)

103067 #1 널르곡 흑이 좋읍주게.(넓고 흙이 좋아요.)

103067 #2 고산[131]더레 그 저 어디.('고산'으로 그 저 어디.)

103067 #1 질허지 아니허영.(질지 않아서.)

103067 @ 아이고 건디 밧은 애월[132]이 최고 좋은 밧이우다.(아니고 그런데 밭은 '애월'이 최고 좋은 밭입니다.)

103067 #1 예, 흑은 뭐 헌디, 너무 질흑 젼.(예, 흙은 뭐 한데, 너무 질흙 져서.)

103067 #2 혼 나라도 애월허고 이디 뚜나고, 밧이 막 뚜나. 고내[133]도 밧 좋덴 허여. 저 경헌디 땅이 크지 아니허영 헤도.(한 나라도 '애월'하고 여기 다르고, 밭이 아주 달라. '고내'도 밭 좋다고 해. 저 그런데 땅이 크지 않고 해도.)

103067 @ 게난 ᄆᆞ멀 농산 안 져 보고양?(그러니까 메밀 농사 안 지어 보고요?)

103067 #2 안 헤봣수다게.(안 해봤습니다.)

103068 @ 담배 농사 져 봅디강?(담배 농사 져 봤습니까?)

103068 #1 예, 담밴 좀 헷는디, 담배도.(예, 담배는 좀 했는데, 담배도.)

103068 #2 아바지, 아바지 살 때.(아버지, 아버지 살 때.)

103068 #1 이제 거 메종 놧당 담배씨 허믄 거, 담배씨 허믄 거 회사가 싯수다게. 게믄 거기서 메종을, 이제 종자를 메종이 아니고, 종자를 줘마씨. 막 담배씬 오직 좀질지 아이허꽈? 담배씨ᄀᆞ찌 좀질덴 허여. 좁쏠보단도 더 좀질아. 게믄 그걸 이제 것도 이 저 춘분 전에, 아, 그건 좀 추워도 뒈난 이월 경칩만 나믄, 이월돌 나믄 경칩아니우꽝? 이월, 이월달 춘분 전에 경칩허곡 춘분 사이에, 그 사이에 놉주게. 메종, 언제 영 노믄. 요것도 이제 흑 헹 메종 헤노믄 요것이 담배도 헤난 밧은 안 뒈어, 요거. 똑 인삼ᄀᆞ찌 헤 가지고 담배도 아이 헤난 밧은 허고, 메종도 헤난 밧은 허믄 골라앚으멍 뒈질 아니허여.(이제 그거 모종 놨다가 담배씨 하면 그거, 담배씨 하면 그거 회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모종을, 이제 종자를 모종이 아니고, 종자를 줘요. 아주 담배씨는 오직 잘지 않습니까? 담배씨같이 잘다고 해. 좁쌀보다도 더 잘아. 그러면 그걸 이제 것도 이 저 춘분 전에, 아, 그건 좀 추워도 되니까 이월 경칩만 나면, 이월달 나면 경칩 아닙니까? 이월, 이월 춘분 전에 경칩하고 춘분 사이에, 그 사이에 놓아요. 모종, 언제 이렇게 놓으면. 요것도 이제 흙 해서 모종해 놓으면 요것이 담배도 했던 밭은 안 되어, 요거. 똑 인삼같이 해 가지고 담배도 안 했던 밭은 하고, 모종도 했던 밭은 하면 가라앉으면서 되지를 아니해.)

103068 #2 우리 아바님 헐 때 봐나난.(우리 아버님 할 때 봤었으니까.)

103068 #1 경 헹 허믄 담배도 요거 두 고지 합쳥 메종 어느 정도 혼 다섯 잎 정도,

130) '시흥리'는 서귀포시 성산읍 시흥리이다.
131) '고산'은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를 말한다.
132) '애월'은 여기서 제주시 애월읍 전체를 뜻한다.
133) '고내'는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를 말한다.

너이다섯 잎 정도 뒈믄 흔 이제.(그렇게 해서 하면 담배도 요거 두 이랑 합쳐서 모종 어느 정도 한 다섯 잎 정도, 네다섯 잎 정도 되면 한 이제.)

103068 #2 막 좃게 싱거낫수다, 아버지 헐 때.(아주 잦게 심었었습니다, 아버지 할 때.)

103068 #1 삼십 센치에 ᄒᆞ나씩인가 싱거. 게 너무 좃으믄 이파리가 이제 그 줄곡 허난 마주 영 허멍 그 두 줄로 허멍, 마주 여기 허믄 혼두 고랑, 니 고랑 헹 허믄 이디 접쳥 싱급주게.(삼십 센티미터에 하나씩인가 심어. 게 너무 잦으면 잎이 이제 그 잘고 하니까 마주 이렇게 하면서 그 두 줄로 하면서, 마주 여기 하면 한두 고랑, 네 고랑 해서 하면 여기 접쳐서 심지요.)

103068 #2 집 ᄌᆞ꼿디 아버지 헤난.(집 옆에 아버지 했었어.)

103068 #1 경 헹 허곡, 또 쓰러졈직허믄 영 줄 메영 대로 이렇게 양쪽 박앙은에, 이 새끼줄로 이렇게 헹은에 넘어지지 못허게.(그렇게 해서 하고, 또 쓰러질 것 같으면 이렇게 줄 매어서 대로 이렇게 양쪽 박아서, 이 새끼줄로 이렇게 해서 넘어지지 못하게.)

103068 #2 담배 ᄐᆞ다 나믄 손 진닥진닥허영.(담배 뜯어 나면 손 진득진득해서.)

103068 #1 경 헹 이제 어느 정도 커 노믄 담밸 튿읍주게, 튿앙 첨 그 후로 담배 튿으레 가곡 헴저 허믄, 요놈으 것이 ᄋᆞ름에 헤노난 세벡이 ᄐᆞ다야 허여, 담배를. 담배 튿앙 헤노믄 이건 멕에 담아당 졍 허믄 더우니까 폭낭 알 ᄀᆞ뜬 디 강 담배덜 막 ᄋᆞᆨ아, 거는.(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커 놓으면 담배를 뜯지요, 뜯어서 참 그 후로 담배 뜯으러 가고 하고 있다고 하면, 요놈의 것이 여름에 하니까 새벽에 뜯어야 해, 담배를. 담배 뜯어서 해놓으면 이건 멱서리에 담아다가 져서 하면 더우니까 팽나무 아래 같은 데 가서 담배들 마구 엮어, 거는.)

103068 #2 나룩찝 엇다당, 나룩찝 엇다당 ᄋᆞ까.(볏짚 갖다가, 볏짚 갖다가 엮어.)

103068 #1 ᄂᆞ람지 여끄듯이 ᄋᆞ끄멍 빈주릉케 허멍, 이 집이영 처마ᄀᆞ뜬 디영 ᄃᆞᆯ아메멍, 그때도 첨 집마다 담배 ᄆᆞᆯ리운 게.('ᄂᆞ람지' 엮듯이 엮으면서 아주 많이 하면서, 이 집이랑 처마 같은 데랑 달아매면서, 그때도 참 집마다 담배 말린 게.)

103068 @ 그늘에서 ᄆᆞᆯ려야지양?(그늘에서 말려야지요?)

103068 #1 예, 반 그늘져.(예, 반 그늘져.)

103068 #2 그때게 초가집이영.(그때요 초가집이랑.)

103068 #1 반 그늘 지믄 뒈어마씨.(반 그늘지면 되어요.)

103068 #2 초가집 그늘에게, 거 흔 스무 개썩 무껑.(초가집 그늘에요, 그거 한 스무 개씩 묶어서.)

103068 #1 겡 ᄃᆞᆯ아메엉.(그렇게 달아매어서.)

103068 #2 ᄃᆞᆯ아메난 우린 잘 몰라.(달아매니까 우린 잘 몰라.)

103068 #1 요놈으 것이.(요놈의 것이.)

103068 #2 아버지 허는 것만 봔, 시아버지 헐 때 허는 거.(아버지 하는 것만 봤어, 시아버지 할 때 하는 거.)

103068 #1 비 맞으믄 요것도 상품이 아이뒈어. 색깔이 나빤. 담배는 색깔이 좋아야.

첫째 냄새도 허주마는, 담배 앗다 이거 담배 색갈 좋다. 건 어떠냐믄 빌 안 맞치고, 또 이 음지에 반 그늘진 디 헹 물리와사. 게믄 나중에 이거 접 짓엉, 접 짓는다고 헹 영 담배 헹 묵엉 헤노믄, 무신 영 담배 무끄는 기계가 잇수다. ᄏᆞ찡케 허영 허믄 이제 잘 묵어사, 상품 까치 싯젱허믄. 게 헹 가믄 이것도 전매청에서 받으난 아, 이거 좋으믄 시세 낭 이것도 돈 받곡, 나쁘믄 에이 하등벡기 안 뒈어, 상등, 중등, 상등이옌 헙디다게. 상등 깝 받앙 좋아. 돈 하영 받아서 허고.(비 맞으면 요것도 상품이 안 되어. 색깔이 나빠서. 담배는 색깔이 좋아야. 첫째 냄새도 하지만, 담배 앗다 이거 담배 색깔 좋다. 건 어떠냐면 비를 안 맞히고, 또 이 음지에 반 그늘진 데 해서 말려야. 그러면 나중에 이거 접 지어서, 접 짓는다고 해서 이렇게 담배 해서 묶어서 해놓으면, 무슨 이렇게 담배 묶는 기계가 있습니다. 가지런히 해서 하면 이제 잘 묶어야, 상품 가치 있으려고 하면. 게 해서 가면 이것도 전매청에서 받으니까 아, 이거 좋으면 시세 나서 이것도 돈 받고, 나쁘면 에이 하등밖에 안 되어, 상등, 중등, 상등이라고 합디다. 상등 값 받아서 좋아. 돈 많이 받아서 하고.)

103068 #2 아바지 부름씨만 헤 나난.(아버지 심부름만 해 나니까.)

103068 #1 게믄 삼벡 평에 얼마냐 허믄 이제 거 나머지덜은 준 거 톹아당 담배 피우고 그때. 게믄 낭엣 것덜도 담배낭 헤 나믄 동네 사름덜 왕 담배 거 톹앙 이파리는 썰엉 이제 엽초 물리왕 피우곡 허멍. 그런 면은 이섯수다게. 담배는 잘 헤야 아무 농사도, 저 담밴 거.(그러면 삼백 평에 얼마냐 하면 이제 거 나머지들은 잔 거 뜯어다가 담배 피우고 그때. 그러면 나무에 그것들도 담배 해 나면 동네 사람들 와서 담배 거 뜯어서 잎은 썰어서 이제 엽초 말려서 피우고 하면서. 그런 면은 있었습니다. 담배는 잘해야 아무 농사도, 저 담배는 거.)

103068 #2 아버지 허는 것만 우리 ᄀᆞ찌 헨. ᄀᆞ찌 헤낫수다게.(아버지 하는 것만 우리같이 했어. 같이 했었습니다.)

103068 #1 ᄀᆞ찌 심부름은 늘 그거 헤나난.(같이 심부름은 늘 그거 했었으니까.)

103068 #2 이녁냥으로 직접 우린 아니 헤보고.(이녁대로 직접 우린 안 해보고.)

103069 @ 그다음에 멘네, 멘네 농사.(그다음에 면화, 면화 농사.)

103069 #2 에이, 멘네 농산 이렌 뭐.(에이, 면화 농사는 이리는 뭐.)

103069 #1 자 멘네도 우리 저 아버님네 헐 땐.(자 면화도 우리 저 아버님네 할 때는.)

103069 @ 혼번 골아봅서.(한번 말해보세요.)

103069 #1 멘네는 허믄 이제 거 멘네 어떵 헌츠록은 몰르고, 어린 때 그때 허난 멘네 타렌 갓수다. 타레 간 허믄 ᄀᆞ을 들어강 춘바람이 나기 시작허믄 요놈으 것이 이제 막 동짓덜 나도록 멘네는 핍니다게. 피영 헤 노믄 이거 이제 영 무신 앞치마 닮은 거 허영 톹앙 멘네 톡톡 담으믄 짝짝 벌어져마씨. 메종 벌어지지 아이 허영 뭐 헌 거는 탕 먹기도 허곡 헤 가멍. 멘네도레기, 멘네도레기옌 허영 먹곡, 맛 좋아.(면화는 하면 이제 거 면화 어떻게 한 거는 모르고, 어릴 때 그때 하니까 면화 따러 갔습니다. 따러 가서 하면 가을 들어서 찬바람이 나기 시작하면 요놈의 것이 이제 마구 동짓달 나도록 면화

는 픱니다. 피어서 해 놓으면 이거 이제 이렇게 무슨 앞치마 닮은 거 해서 뜯어서 면화 톡톡 담으면 짝짝 벌어져요. 모종 벌어지지 않아서 뭐 한 거는 따서 먹기도 하고 하면서. 다래. 면화 다래라고 해서 먹고, 맛 좋아.)

103069 #2 게만 막 무신거 먹어불어.(게만 마구 무엇 먹어버려.)

103069 @ 멘네뜨레기 맛 좋아마씨.(다래 맛 좋아요.)

103069 #1 맛 좋곡 헌 디 걸 멘넬 허믄 이제 영 탕 헤 노믄, 이디서 물레가 잇수다, 물레. 물레 영 둘르멍 요렇게 딱 무신 그 보리낭 담은 걸로 ᄂᆞ실게 헤노믄, 그거 영영 발라가믄 씨는 털어지고, 요것이 이제 씨만 발르는 겁주게.(맛 좋고 한 데 걸 면화 하면 이제 이렇게 따서 해 놓으면, 여기서 씨아가 있습니다, 씨아. 씨아 이렇게 돌리면서 요렇게 딱 무슨 그 보릿짚 같은 걸로 날카롭게 해 놓으면, 그거 이렇게 이렇게 발라가면 씨는 떨어지고, 요것이 이제 씨만 바르는 거지요.)

103069 #2 것도 ᄆᆞᆯ리와사, 멘네 톧아당.(그것도 말려야, 면화 뜯어다가.)

103069 #1 잘 ᄆᆞᆯ리왕.(잘 말려서.)

103069 @ 거난 멘네 타당은에 거기서 멘네 솜 뽑앗수가? 아이게, 타당은에 집이 왕.(그러니까 면화 따다가 거기서 면화 솜 뽑았습니까? 아니요, 따다가 집에 와서.)

103069 #1 집이 왕 ᄆᆞᆯ리와. 잘 ᄆᆞᆯ리우지 아이 허믄 씨 잘 안 털어져마씨.(집에 와서 말려. 잘 말리지 않으면 씨 잘 안 떨어져요.)

103069 #2 무사 집, 밧디서 뽑앗주기.(왜 집, 밭에서 뽑았지.)

103069 #1 어디서 밧디 무사 멘네 져당.(어디서 밭에 왜 면화 져다가.)

103069 @ 아이, 거 한걸헌 사름덜은 밧디서 뽑앗고.(아니, 그렇게 한가한 사람들은 밭에서 뽑았고.)

103069 #1 아이.(아니.)

103069 #2 ᄆᆞᆫ 불려부렴젠 허멍.(모두 날려 버린다고 하면서.)

103069 @ 바쁜 사름덜은 집이 왕은에 밤이, 밤이 뽑앗어.(바쁜 사람들은 집에 와서 밤에, 밤에 뽑았어.)

103069 #1 예, 멕에 졍 왕.(예, 멱서리에 져 와서.)

103069 #2 방앗간 할망도 경 집이서, 집이서 허긴 헤 낫수다.(방앗간 할머니도 그렇게 집에서, 집에서 하긴 했었습니다.)

103069 @ 한걸헌 사름덜은 한걸허게 밧디서 영 뽑앗수다게.(한가한 사람들은 한가하게 밭에서 뽑았습니다.)

103069 #1 물레로, 물레옝 허영 영 저 마주 돌아강 영 허믄 그거 이제 씨는 털어지곡, 그거는 영 둘르멍 이레 놔뒷당 또 이.(씨아로, 씨아라고 해서 이렇게 저 마주 돌아가서 이렇게 하면 그거 이제 씨는 떨어지고, 그거는 이렇게 돌리면서 이리 놔뒀다가 또 이.)

103069 #2 정지에서, 정지에서 무신거.(부엌에서, 부엌에서 무엇.)

103069 #1 소게, 소게 텝는 디 강.(솜, 솜 타는 데 가서.)

103069 #2 ᄀᆞ렛 방석 ᄀᆞᆯ아놩 허믄.(맷돌 방석 깔아놔서 하면.)

103069 #1 그거 테와당 이제 허곡, 거 정 읏끈다 허영 그걸 허믄, 이제 거 소게 테우는 디 강 헤 노믄 영 정 줏는 것이 그 영 발로 둘르멍 허믄 실 뽑는 거, 것도 기술이라 잘 아이 허믄 그냥.(그거 타다가 이제 하고, 그거 실톳 엮어서 그걸 하면, 이제 거 솜 타는 데 가서 해 놓으면 이렇게 실톳 잦는 것이 그 이렇게 발로 돌리면서 하면 실 뽑는 거. 그것도 기술이라 잘 안 하면 그냥.)

103069 #2 것도 선셍님도 잘 알주기, 졍 뽑아난 거. 잇날 영영 둘롸가믄, 둘롸감시믄.(그것도 선생님도 잘 알지요, 실톳 뽑았던 거. 옛날 이렇게 이렇게 돌려 가면. 돌려 가면.)

103069 #1 물레 둘르는 거.(씨아 돌리는 거.)

103069 @ 거 뽑을 때는 안 봐 보고양.(그거 뽑을 때는 안 봐 보고요.)

103069 #2 게난 영영 헤 가믄 멘네가 북삭북삭 다 풀어져.(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 가면 면화가 북삭북삭 다 풀어져.)

103069 @ 우리 누님 시집보내젠 허난에, 그때는 이불 멧 채 허며는 막 알아줫주게.(우리 누님 시집보내려고 하니까, 그때는 이불 몇 채 하면 매우 알아줬지요.)

103069 #2 멘네 이불이 알아줫주.(면화 이불이 알아줬지.)

103069 @ 게난 우리 누님이 단똘이난에, 거 그 당시 지금 흔 사십 년 거의 뒘신디, 저 이불 여섯 채 헹 갓수다. 읏섯 채 허젠 허난.(그러니까 우리 누님이 외동딸이니까, 거 그 당시 지금 한 사십 년 거의 되고 있는데, 저 이불 여섯 채 해서 갔습니다. 여섯 채 하려고 하니까.)

103069 #2 막 부제여, 첨.(아주 부자야, 참.)

103069 @ 읏섯 채 허젠 허난에, 그 멘네를 매날 가는 거라.(여섯 채 하려고 하니까, 그 면화를 맨날 가는 거야.)

103069 #2 아이고, 멘네 거 하영, 하영 들어불어.(아이고, 면화 거 많이, 많이 들어버려.)

103069 @ 게난 멘네 탕은에 이제 건 거만 탕 오민, 저녁 뒈민양.(그러니까 면화 따서 이제 건 거만 따서 오면, 저녁 되면요.)

103069 #1 피는 거, 잘 핀 거만.(피는 거, 잘 핀 거만.)

103069 @ 각짓불로 허영 그거 뽑앙.(등잔불로 해서 그거 뽑아서.)

103069 #2 게 뽑앙 각짓불 싸멍.(게 뽑아서 등잔불 켜면서.)

103069 @ 경 허멍 우리 누님 시집보냇수게.(그렇게 하면서 우리 누님 시집보냈습니다.)

103069 #2 하영도 첨, 살림이 뭐 헤난 어른이여, 그추룩 하영 허영 그때 보낼 적에, 아이고.(많이도 참, 살림이 뭐 했던 어른이야, 그처럼 많이 해서 그때 보낼 적에, 아이고.)

103069 #1 읏섯 채썩 헤시믄 큰 부젯집이라난.(여섯 채씩 했으면 큰 부잣집이었어.)

103069 #2 큰 부제우다, 큰 부제.(큰 부자입니다, 큰 부자.)

103069 @ 아이 거난.(아니 그러니까.)

103069 #1 혼 채, 여기서사 잘헷자 두 채.(한 채, 여기서야 잘해야 두 채.)

103069 #2 두 채도 못 허연. (두 채도 못 했어.)

103069 #1 게 아니믄 혼 채.(그렇게 아니하면 한 채.)

103069 #2 경 헤낫수다.(그렇게 했었습니다.)

103069 @ 거난 우리 누님은 이 저 단똘이난게.(그러니까 우리 누님은 이 저 외동딸이니까.)

103069 #2 단똘 아니 우똘이라도 잘 사난 헷주.(외동딸 아니 큰딸이라도 잘 사니까 했지.)

103069 #1 게도 잘 사난.(그래도 잘 사니까.)

103069 #2 건 못 허여.(건 못 해.)

103069 @ 거난 우리 어머니가 그냥 잘 헤주젠 막 허난.(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냥 잘 해주려고 아주 하니까.)

103069 #2 단똘이라도. 집이 아멩이도 뭣이 허락뒈난에.(외동딸이라도. 집에 아무래도 뭣이 허락되니까.)

103069 @ 거난에 멘네 거 아이고 거, 타당 까는 것이양.(그러니까 면화 거 아이고 거, 따다 까는 것이요.)

103069 #2 아이고, 멘네 이불이옌 허믄 부젯칩 아이허믄 못 헤낫수게.(이이고, 면화 이불이라고 하면 부잣집 안 하면 못 했었습니다.)

103069 @ 베렝이덜은 어떵사 거 한디, 그 멘넷베렝이.(벌레들은 어떻게야 거 많은지, 그 면화 벌레.)

103069 #2 경 헤도 정지에서 허곡.(그렇게 해도 부엌에서 하고.)

103069 #1 멘네 무사 멘네씨 지름도 뽕 뭐 허곡.(면화 왜 면화씨 기름도 빼서 뭐 하고.)

103069 #2 거세기 막 삼방이서도 헤낫주.(거시기 마구 삼방에서도 했었지.)

103069 @ 아이 그건 안 헤 보고.(아니 그건 안 해 보고.)

103069 #2 멘네씨.(면화씨.)

103069 #1 멘네씨 지름은 경 천징에도 먹곡, 경 헌덴.(면화씨 기름은 그렇게 천식에도 먹고, 그렇게 했다고.)

103069 @ 멘네씨 깐에 먹어낫수다. 옛날 돗궤기 먹엇단 막 두드레기 나난에, 두드레기 나난에 멘네씨 깡 먹으민 존덴 허연에 그거 깐 먹어나신디.(면화씨 까서 먹었었습니다. 옛날 돼지고기 먹었다가 마구 두드러기 나니까. 두드러기 나니까 면화씨 까서 먹으면 좋다고 해서 그거 까서 먹었었는데.)

103069 #2 멘네 지름 경 좋덴 허영 그때.(면화 기름 그렇게 좋다고 해서 그때.)

103069 @ 나이 들어가니까 두드레기가 어서지는 걸.(나이 들어가니까 두드러기가 없어지는 거를.)

103069 #2 아이고, 어떵 허당.(아이고, 어떻게 하다가.)

103069 #1 그땐 약이 어섯수게게.(그땐 약이 없었습니다.)

103069 @ 아이 그땐 저 어린 때양, 돼지고기 쪼금 먹으니까 막 부선 막 가렵고.(아니 그땐 저 어릴 때요, 돼지고기 조금 먹으니까 막 부어서 막 가렵고.)

103069 #2 사춘기에.(사춘기에.)

103069 #1 볼거리 낭.(볼거리 나서.)

103069 #2 경 헙니다, 다 흔 때 경 헐 거.(그렇게 합니다, 다 한 때 그렇게 할 거.)

103069 @ 안 먹단 먹어노난게, 겁난 거주, 겁난.(안 먹다가 먹으니까, 겁난 거지, 겁나서.)

103069 #2 겁난, 흔때 경 헙니다게 다. 아이고, 게메.(겁나서, 한때 그렇게 합니다. 아이고, 글쎄.)

103069 @ 몸이 겁난 두드레기 나곡 허연.(몸이 겁나서 두드러기 나고 해서.)

103069 #2 예.(예.)

103069 @ 거난 멘네 농사까지 다 끗낫수다. 오늘은 이걸로 헹 마치쿠다.(그러니까 면화 농사까지 다 끝났습니다. 오늘은 이걸로 해서 마치겠습니다.)

4. 들일

소 기르기

104001 @ 오늘은 저 쉐 어떵 질룹니까?(오늘은 저 소 어떻게 기릅니까?)

104001 #1 쉐 보통 이제 집이, 이디 옛날은 우리가 쉐는 이제 식구에 따랑, 식구나 다름엇수다게. 흔 집이 쉐가 어스믄 일을 못 허여. 밧 갈곡, 걸름 허곡, 출 헤당 멕이고, 이거 쉐 어시믄 우린 살 질 못 허기 때문에 매 집이 메는디, 제일 허는 게 뭐냐믄 쉐출 마씨. 출을 어떵 해 오느냐, 게믄 이젠 처음에 우리도 쉐 엇다가 이제 살림을 살안, 쉐를 어디 간 저 이 송애기 하나, 송애기 하나 조그맣게 이디 하나 사단.(소 보통 이제 집에, 여기 옛날은 우리가 소는 이제 식구에 따라서, 식구나 다름없습니다. 한 집에 소가 없으면 일을 못 해. 밭 갈고, 거름 하고, 꼴 해다 먹이고, 이거 소 없으면 우리는 살지를 못 하기 때문에 매 집에 매는데, 제일 하는 게 뭐냐면 소꼴입니다. 꼴을 어떻게 해 오느냐, 그러면 이제는 처음에 우리도 소 없다가 이제 살림을 살아서, 소를 어디 가서 저 이 송아지 하나, 송아지 하나 조그맣게 여기 하나 사다가.)

104001 #2 사당.(사다가.)

104001 #1 이제 쉐를 사단 허난, 것이 암송애긴디 집이 옛날은 쉐도 무시거 가난헤노난 쉐를 살 수가 없는디, 그걸 누게 이제 싸구리 어느 사켄, 사불켄 허난.(이제 소를 사다가 하니까, 그것이 암송아지인데 집에 옛날은 소도 무엇 가난하니까 소를 살 수가 없는데, 그걸 누가 이제 싸구려 어느 사겠다고, 사버리겠다고 하니까.)

104001 #2 싸구려 저, 애월 친정어머니가 우리 사랑에 큰 사위난에 두루막을 헤 주켄. 큰 사우난 할망 돗 장시허멍 도새기 풀앙 왕 백오십 원 벌곡, 이백 원 벌곡 허멍.

게난 큰 사우난 도새기 풀앙 허멍 두루막을 하나 헤 주켄, 게난 애월 두루막허레 간 보난, 두루막 허는 집잇 할망이 쉐 잡앙, 쉐 잡앙 먹젠, 쉐 잡앙, 쉐 잡앙 먹젠 허난, 쉔, 쉐도 어떵 잡앙 먹어 허난. 저디 강 봐. 저 쉐양에 강 봐, 쉐 이제 ᄌᆞ냑인 잡을 거라. 저 누게 하르방이영 잡을 거라. 우리 어머닌 그 말 들언 완, 우리신디 ᄀᆞᆯ으레 완에, 야, 쉐 잡은켄 헌 거.(싸구려 저, '애월' 친정어머니가 우리 사랑에 큰 사위니까 두루마기를 해 주겠다고, 큰 사위니까. 할머니 돼지 장사하면서 돼지 팔아서 와서 백오십 원 벌고 이백 원 벌고 하면서. 그러니까 큰 사위니까 돼지 팔아서 하면서 두루마기를 하나 해 주겠다고, 그러니까 '애월' 두루마기 하러 가서 보니까, 두루마기 하는 집에 할머니가 소 잡아서, 소 잡아서 먹으려고, 소 잡아서, 소 잡아서 먹으려고 하니까, 소는, 소도 어떻게 잡아서 먹어 하니까. 저 외양간에 가서 봐, 소 이제 저녁에 잡을 거야. 저 누구 할아버지랑 잡을 거야. 우리 어머니는 그 말을 들어서 와서, 우리에게 말하러 와서, 야, 소 잡겠다고 한 거.)

104001 #1 추렴헹 저.(추렴해서 저.)

104001 #2 쉐 잡앙 먹켄 헴젠 허는 거라, 게난 이제.(소 잡아서 먹겠다고 하고 있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104001 #1 다간쯤 뒌 거, 송애기.(두습쯤 된 거, 송아지.)

104001 #2 게난 우리 씨아바님ᄀᆞ라 들으난, 에, 우리 쉐 잡는 것 강 사 오게, 사 오게. 쉐 사레 이젠 씨아바님이영 아방[134]이영 걸어은에 난 아기 업어부난, 걸언 간에, 그때 얼마 줘신고? 삼만, 삼천 얼마 줘신가? 쉐 헨 그거 산 오란, 그디 잡앙 먹젠 허단 쉔, 산 오란에 그디 사름덜은 아이 쉔 어디불엇나? 어디 불엇나? 그 두루막 할망신디 허난, 나 누게 줘 부런, 엄젱이 사름신디, 엄젱이 사름신디 쉐 줘부런, 줘부런. 겐 그거 몰안 오란에 우리 집이 거 암쉐, 암쉐 닮은 거라양?(그러니까 우리 시아버님더러 들으니까, 에, 우리 소 잡는 것 가서 사 오게, 사 오게. 소 사러 이제는 시아버님이랑 '아방'이랑 걸어서 난 아기 업어 버리니까, 걸어서 가서, 그때 얼마 줬는가? 삼만, 삼천 얼마 줬는가? 소해서 그거 사서 왔지, 거기 잡아서 먹으려고 했던 소, 사서 와서 거기 사람들은 아니 소는 어디 버렸어? 어디 버렸나? 그 두루마기 할머니에게 하니까, 내가 누구 줘버렸어, '엄젱이' 사람에게, '엄젱이' 사람에게 소 줘버렸어, 줘버렸어. 그래서 그거 몰아서 와서 우리 집에 거 암소, 암소 닮은 거야?)

104001 #1 암쉐주기.(암소지요.)

104001 #2 암쉐옌 허난에 막 저 키완에.(암소라고 하니까 막 저 키워서.)

104001 #1 그것이 키우는 과정.(그것이 키우는 과정.)

104001 #2 그것이 쉐 메기 시작을 헤 가는디, 출 매날 헤당 주곡.(그것이 소 매기 시작을 해 가는데, 꼴 맨날 해다 주고.)

104001 #1 요새양, 그거 다 몰람저. 거 ᄒᆞ끔 ᄀᆞᆫ젱 허믄, 요게 이제 거 쉐도 요양을 헤야 허기 때문에양, ᄋᆞ름엥 이디서 금승, 다간이옌 헌 송애긴디, 이디서 구완허기가 어려와마씨. 거 송애기 하나 웨로 허는 건. 아, 욮이 하르방덜이영 쉐 질르는 디가 신디,

134) '아방'은 아버지인데, 여기서는 남편을 뜻한다.

우리 쉐양, 부쩡 저 산에 올려, 산에 올리믄 쉐 잘 뒈영 온다, 으름에. 아, 그 말 들언 ᄀᆞ찌 뭐 협주 헨, 이제 거 순열이 아방이라고 잇수다게. 거 늘 산에 엿날부터.(요새요, 그거 다 모르고 있다. 거 조금 말하려고 하면, 요게 이제 거 소도 요양을 해야 하기 때문에요, 여름에 여기서 마소의 한 살, 마소의 두 살이라고 한 송아지인데, 여기서 구완하기가 어려워요. 그거 송아지 하나 외로 하는 거는. 아, 옆에 할아버지들이랑 소 기르는 데가 있는데, 우리 소요, 붙여서 저 산에 올려, 산에 올리면 소 잘 돼서 온다, 여름에. 아, 그 말 들어서 같이 뭐 하지요 해서, 이제 거 순열이 아버지라고 있습니다. 거 늘 산에 옛날부터.)

104001 #2 막 무식헌 하르방이주, 쉐벳기 몰르는 하르방이 이서나서.(아주 무식한 할아버지지, 소밖에 모르는 할아버지 있었어.)

104001 #1 산에서만 살고 허난, ᄀᆞ찌 이제 그 쉐를 산에 몰아단, 전인 한라산에 목장이 잇주마는 전인양, 목장 셔도 한라산 거의 백록담 ᄉᆞ방에 그 저 어디, 거기 쉐를 올령 놔둡주게. 게믄 갈 때는 그 물, 거 야생이라, 야생뒙니다, 거 올령 놔두믄. 우리도 올련 놔뒀는디, 거 처음 올릴 때 어떠허냐 허믄, 강 이제 거 내창 거기 가믄 물을 우선 골으쳐마씨. 물 잇는 디만 강 영 헤놩, 석 클렁 내부는 거라. 올릴 때 뭐냐믄 혹시 잘못뒈카부덴, 거 등, 뒷 잠지에 낙인을 찍엉, 낙인이옌 헌 건 쒜로 글자 새경은에 구웟당 걸 벌겅케 허영 그냥 이 뒷 잠지에 강 쿡 찍으믄, 쉐는 얼 먹주마는 그렇게 헹 그것이 얼른 지와지질 아니허여. 낙인을 허믄 일러불지 아이헌다. 일러불지 아이헌다. 게믄 게 허쿠덴 허영 낙인찍엉은에 올려서. 올영은에 쉐를 또 으름내낭 허믄 가끔 강 봐사 헐 거 아이우꽈? 한라산에, 이디선 가젠 허믄 엿날은 거 질이 없어가지고, 그냥 그 사름, 이젠 차로 영 가도, 전인 사름으로 걸엉 올라가난양, 여기서 밤 혼 두어 시쯤 뒈민 이제.(산에서만 살고 하니까, 같이 이제 그 소를 산에 몰아다가, 전에는 한라산에 목장이 있지만 전에는요, 목장 있어도 한라산 거의 백록담 사방에 그 저 어디, 거기 소를 올려서 놔두지요. 그러면 갈 때는 그 물, 그거 야생이야, 야생됩니다, 그거 올려서 놔두면. 우리도 올려서 놔뒀는데, 그거 처음 올릴 때 어떠하냐 하면, 가서 이제 거 냇가 거기 가면 물을 우선 가리켜요. 물 있는 데만 가서 이렇게 해놔서, 고삐 끄러 내버리는 거야. 올릴 때 뭐냐 하면 혹시 잘못될까 싶어서, 그거 등, 뒷 볼기에 낙인을 찍어서, 낙인이라고 한 건 쇠로 글자 새겨서 구웠다가 걸 벌겋게 해서 그냥 이 뒷 볼기에 가서 쿡 찍으면, 소는 얼 먹지만 그렇게 해서 그것이 얼른 지워지지 안 해. 낙인을 하면 잊어버리지 않는다, 잊어버리지 않는다. 그러면 게 하겠다고 해서 낙인찍어서 올려서. 올려서 소를 또 여름내내 하면 가끔 가서 봐야 할 거 아닙니까? 한라산에, 여기서는 가려고 하면 옛날은 그거 길이 없어서, 그냥 그 사람, 이젠 차로 이렇게 가도, 전에는 사람으로 걸어서 올라갔지요, 여기서 밤 한 두어 시쯤 되면 이제.)

104001 #2 사ᄂᆞ롱헌 때에 가고, 가고 헤사.(서늘한 때에 가고, 가고 해야.)

104001 #1 여기서 엿날 저 뭐 이 거 저 수로가 잇수다. 저 무신 수로옝 헌다. 저 옛날 배창[135]이렌 헤난, 논 헤난 수로, 그 수로 따라 구짝 그것이 어떵 허냐 허믄 저 어

135) '배창'은 한라산에서 어승생 한밝저수지까지 내려오는 수로이다.

승생오름[136], 거의 그꺼지 간에, 지금 ᄀᆞ뜨믄 물땡크, 그 수로를 만들어서. 겐 배창이란 헌 분이 일제시대 만들엇는디 그 수로 따랑 구짝 가믄 거의 저 한라산 입구, 그꺼지 올라갑주. 강 그 날 재수가 좋믄 그 쉐를 강 보고, 첨 재수 어스믄 쉐를 못 보는디, 아침이 게난 밥 동고량[137]에 지곡 헤 앗앙은에, 그 하르방이영 서너이 고들고들 밤이 걸엉 가멍. 거의 강 큰 오름 넘엉 이제 거 어승생오름 그꺼지 가믄 이제 너븐 캐[138]라고 잇수다. 그디 가믄 꼭 강 산에 이제 밥 헹 간 것도 지곡 헹, 거 강 산신님 앞이 기도도 드리고.(여기서 옛날 저 뭐 이 그거 저 수로가 있습니다. 저 무슨 수로라고 한다. 저 옛날 '배창' 이라고 했었어, 논했던 수로. 그 수로 따라 곧장 그것이 어떻게 하냐 하면 저 '어승생오름', 거의 그까지 가서, 지금 같으면 물탱크, 그 수로를 만들었어. 그건 '배창'이라고 한 분이 일제시대 만들었는데 그 수로 따라서 곧장 가면 거의 '한라산' 입구, 그까지 올라가지요. 가서 그날 재수가 좋으면 그 소를 가서 보고, 참 재수가 없으면 소를 못 보는데, 아침에 그러니까 밥 '동고량'에 지고 해서 가져서, 그 할아버지랑 서너 사람 고들고들 밤에 걸어서 가면서. 거의 강 큰 오름 넘어서 이제 거 '어승생오름' 그까지 가면 이제 '너븐캐'라고 있어요. 거기 가면 꼭 가서 산에 이제 밥해서 간 것도 지고 해서, 그거 가서 산신님 앞에 기도도 드리고.)

104001 #2 동고량에 밥 쌍 간 거 놩 절허영.('동고량'에 밥 싸서 간 거 놓고 절해서.)

104001 #1 예, 경 헹은에 거기서 밥 먹곡 헹.(예, 그렇게 해서 거기서 밥 먹고 해서.)

104001 #2 절허영.(절해서.)

104001 #1 아침 조반은 먹기 실프난 그냥 동고량착에 지곡 헹 올라가, 밥 헹 먹엉. 그 날 이제 재수가 좋으믄 거의 사제비오름[139]이라고 한라산 거의 올라가믄, 거 백록담[140] 이렇게 허믄 거 너븐, 거 사제비동산이엔 헙디다. 그딜 가져마씨. 가믄 거의 이제 ᄒᆞᆫ 열ᄒᆞᆫ 시나 열두 시 뒈믄, 거제 올라가믄. 사제비에 가믄 쉐덜이양, ᄋᆞ름에 첨 ᄉᆞ방에서 그때는 거 목장 셔도 그레 올립디다게. 가믄 남군[141] 쉐덜도 오고, 아, 이 북군[142] 쉐덜토 강, 뭐 어느 쉐가 어느 철인지 알아야지, 이젠 게 쉐약헨 강, 우리 가는 건 쉐색갈허고 내림만 보는 거라마씨. 아, 이거 이추룩 커샤, 강 허믄 이녁 쉐가 잘 헤지믄 보곡, 못 허는 그날 못 보는디, 봐지믄 내려오곡 허는디, 강 보믄 물이양, 그때도 한라산 물이 거의 귀헙디다게. 백록담에 물덜을 먹어마씨. 쉐덜이 어떻게 놀카로운지. 백록담 우리도 그꺼지 올라가믄, 쉐 보젠 허믄 강, 물 먹는 거 보는디, 자꾸 갈 때마다 백록담은 자꾸 올라갑주게. 요게 장마 때는 물이 어느 정도 하영 ᄀᆞᆯ르는디, 장마난 안 ᄆᆞᆯ르곡 허믄양, 물이 밋창에벳기 어서마씨. 게도 쉐덜은 그꺼지 강 먹곡 허는디, 이 장마가 뒈

136) '어승생오름'은 제주시 노형동 남쪽 한밝저수지 뒤에 솟은 오름이다.
137) '동고량'은 대오리로 네모나게 엮은 도시락을 말한다.
138) '너븐캐'는 어승생오름 근방에 있는 지명이다.
139) '사제비오름'은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한라산 국립공원의 어리목 남쪽에 있는 오름이다.
140) '백록담'은 한라산 꼭대기에 있는 화구호(火口湖)이다.
141) '남군'은 제주도 예전 행정구역인 남제주군을 일컫는다.
142) '북군'은 제주도 예전 행정구역인 북제주군을 일컫는다.

믄게, 경 헹 내려오곡. 또 ᄀᆞ을들믄 쉐 내여와야 헐 거 아이우꽈? 내려오젠 허믄 또.(아침 조반은 먹기 싫으니까 그냥 '동고량착'에 지고 해서 올라가, 밥해서 먹어서. 그날 이제 재수가 좋으면 거의 '사제비오름'이라고 한라산 거의 올라가면, 거 '백록담' 이렇게 하면 그거 넓은, 거 '사제비동산'이라고 합디다. 거기 가져요. 가면 거의 이제 한 열한 시나 열두 시 되면, 거의 올라가면. '사제비'에 가면 소들이요, 여름에 참 사방에서 그때는 거 목장 있어도 그리 올렸습니다. 가면 '남군' 소들도 오고, 아, 이 '북군' 소들도 가서, 뭐 어느 소가 어는 것인지 알아야지, 이제는 게 소약해서 가서, 우리 가는 건 소 색깔하고 내림만 보는 거지요. 아, 이거 이처럼 컸어, 가서 하면 이녁 소가 잘하면 보고, 못 하는 그 날 못 보는데, 봐지면 내려오고 하는데, 가서 보면 물이요, 그때도 '한라산' 물이 거의 귀합디다. '백록담'에 물들을 먹어요. 소들이 어떻게 날카로운지. 백록담 우리도 그까지 올라가면, 소 보려고 하면 가서, 물 먹는 거 보는데, 자꾸 갈 때마다 '백록담'은 자꾸 올라가지요. 요게 장마 때는 물이 어느 정도 괴는데, 장마니까 안 마르고 하면요, 물이 밑창에밖에 없어요. 그래도 소들은 그까지 가서 먹고 하는데, 이 장마가 되면요, 그렇게 해서 내려오고, 또 가을되면 소 내려와야 할 거 아닙니까? 내려오려고 하면 또.)

104001 #2 쉐 보레 간 못 춪안.(소 보러 가서 못 찾아서.)

104001 #1 못 찾을 때도 멧 번 이섯수다.(못 찾을 때도 몇 번 있었습니다.)

104001 #2 못 춪안 굴소곱에 간 눤 보난 귀신 나완에.(못 찾아서 굴속에 가서 누워서 보니까 귀신 나와서.)

104001 #1 거 밤이양.(거 밤에요.)

104001 #2 밤이, 아이고.(밤에, 아이고.)

104001 #1 거 쉐는 못 춪고.(그렇게 소는 못 찾고.)

104001 #2 못 춪은 날이라.(못 찾은 날이야.)

104001 #1 거 비는 착착착 오지, 아, 이젠 하르방 둘허고 나하고 서이 이제 어느 저 무신 궤.(그렇게 비는 착착착 오지, 아, 이제는 할아버지 둘하고 나하고 셋이 이제 어느 저 무슨 굴.)

104001 #2 궤소곱에 간.(굴속에 가서.)

104001 #1 저 이 ᄀᆞ만 셔.(저 이 가만히 있어.)

104001 #2 무슨 궤소곱에.(무슨 굴속에.)

104001 #1 사제비궤[143]옌 헤냐?('사제비굴'이라고 하던가?)

104001 #2 무신거 궤.(무엇 굴.)

104001 #1 큰 궤, 거 궤에 강 눅는디, 밤이 누니까양, 비는 착착 오는디.(큰 굴, 거 굴에 가서 눕는데, 밤에 누우니까요, 비는 착착 오는데.)

104001 #2 막.(마구.)

104001 #1 거 이렇게 나도 거 저 젊을 때양, 군인 가기 전이난 흔 스물하나 둘 뭴 땝주게.(그거 이렇게 나도 그거 저 젊을 때요, 군인 가기 전이니까 한 스물하나 둘 될

143) '사제비굴'은 사제비오름에 있는 굴이다.

때지요.)

104001 #2 스물 하나둘 넘을 때주게.(스물 하나둘 넘을 때지요.)

104001 #1 아이라.(아니라.)

104001 #2 스물싯에산디.(스물셋인지.)

104001 #1 내가 경 헤난, 가난 밤이 이렇게 누믄양, 뭐가 눈썰메에 아 그냥.(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가니까 밤에 이렇게 누우면요, 뭐가 눈결에 아 그냥.)

104001 #2 막 총덜 봐려지곡.(마구 총들 보이고.)

104001 #1 아 그냥, 뭐 허곡 무싱것이 이 저.(아 그냥, 뭐 하고 무엇이 이 저.)

104001 #2 탁 탁탁탁탁 허멍.(탁 탁탁탁탁 하면서.)

104001 #1 야개기레 솩 내려오는 것ᄀᆞ찌 영 눈 텅 보믄 어서마씨. 아, 허단 버치난 하르방 일낫수다. 재게 내려그릅서. 무사 영 헴시니? 아이고, 큰일 낫수다. 막 설득시견 겨우 내려오는디, 밤이 이제 내려오난 빈 칙칙 오고 날은, 돌은 엇고 어두우난 고지 소곱은 왁왁헙주. 낭 셔노난 뭐 질을 알아지카. 게난 거 하르방덜이 경험이 많으난, 비크릇헌 디 알러레만 감시믄 헤벤더레 내려 가진다. 게난 붝도록 글라 허난.(목으로 싹 내려오는 것같이 이렇게 눈 떠서 보면 없어요. 아, 하다가 부치니까 할아버지 일 났습니다. 빨리 내려가시지요. 왜 이렇게 하고 있니? 아이고, 큰일 났습니다. 막 설득시켜서 겨우 내려오는데, 밤에 이제 내려오니까 비는 칙칙 오고 날은, 달은 없고 어두우니까 곶속은 캄캄하지. 나무 있으니까 뭐 길을 알아지겠나. 그러니까 그거 할아버지들이 경험이 많으니까, 비탈진 데 아래로만 가고 있으면 해변으로 내려 가진다. 그러니까 밝도록 가자고 하니까.)

104001 #2 붝도록 걸언.(밝도록 걸었어.)

104001 #1 ᄒᆞ꼼 가당 뭣에 탁 푸더지곡 허멍도 첨, 허단 보난 거의 날이 기미웅 붉아가난 저 저 큰 오름 뒤에 어디 저 궤물동산[144]이옌 허연 그끗지 내려오멍 헨. 집이 뒷날 오멍 헷는디양, 이런 추억이 많고.(조금 가다가 뭐에 탁 넘어지고 하면서도 참, 하다가 보니까 거의 날이 희미하게 밝아 가니까 저 저 큰 오름 뒤에 어디 저 '궤물동산'이라고 해서 그까지 내려오면서 했어. 집에 뒷날 오면서 했는데요, 이런 추억이 많고.)

104001 #2 ᄃᆞ시, ᄃᆞ시.(다시, 다시.)

104001 #1 이 게도 그새 헤 가지고 나도 폴안에 어디 허단 보난.(이 그래도 그새 해 가지고 나도 팔아서 어디 하다가 보니까.)

104001 #2 아이 게난.(아니 그러니까.)

104001 #1 샛기가, 샛기가 난, 뒷 헨 간 보난에, 아 쉐도 크고 엄청난 디.(새끼가, 새끼가 나서, 다음 해에 가서 보니까, 아 소도 크고 엄청난 데.)

104001 #2 쉘.(소를.)

104001 #1 샛기 나서마씨, 노란 부룽이 난에, 이제 영 뭐 허난, 그 헨 이제 뒷 헤는 군인 영장 나완 곧 가게 뒈난, 요걸 거념, 우리 집 사름은 아기 돌곡 거념을 못 헙주게. 아이고, 아멩에도 이거 쉔 아버지네영, 게민 거 쉐 폴앙 어디 돌겡이라도 하나 사 불곡,

144) '궤물동산'은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산간에 있는 오름이다.

경 헹 이제 군인 가는 것이 좋암직허다, 영장은 나오고 허난. 아, 경 헨 쉐 이 샛기 풀고 헨에, 또 첨 어디 둘겡이, 그때는 밧 금지는 쌋수다게.(새끼 낳았어요, 노란 부룩소 낳아서, 이제 이렇게 뭐 하니까, 그 해는 이제 다음 해는 군인 영장 나와서 곧 가게 되니까, 이걸 관리, 아내는 아기 데리고 관리를 못 하지요. 아이고, 아무래도 이거 소는 아버지네랑, 그러면 그거 소 팔아서 어디 작은 밭이라도 하나 사 버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군인 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영장은 나오고 하니까. 아, 그렇게 해서 소 이 새끼 팔고 해서, 또 참 어디 작은 밭, 그때는 밭 값이 쌌습니다.)

104001 #2 팔만 원이여, 칠만 원이여.(팔만 원이여, 칠만 원이여.)

104001 #1 팔만 얼마짜리 이제 흔 ᄉᆞ벡 평 사 두고, 경 헨 헷는디.(팔만 얼마짜리 이제 한 사백 평 사 두고, 그렇게 해서 했는데.)

104001 #2 게난 쉐 촞으레도 잘도 ᄋᆞ라 번 가 왓주기.(그러니까 소 찾으러도 잘도 여러 번 가 왔어요.)

104001 #1 쉐 그자 허믄.(소 그저 하면)

104001 #2 못 촞고, 못 촞고.(못 찾고, 못 찾고.)

104001 #1 참 나도 고지 하영 뎅엿수다, 집사름허고.(참 나도 곶 많이 다녔습니다,집사람하고.)

104001 #2 게난 쉐가 우리 도워줜에. (그러니까 소가 우리 도와줘서.)

104001 #1 게난 거 죽는 쉐 살련 놔두난.(그러니까 거 죽는 소 살려서 놔두니까.)

104001 #2 쉐가 도와줜에, 우리신디.(소가 도와줘서, 우리에게.)

104001 #1 영 샛기도 나고, 우리 앞이 영 도와주곡 헤낫수다.(이렇게 새끼도 낳고, 우리 앞에 이렇게 도와주고 했었습니다.)

104001 #2 군인도 못 가고. 그때 경 군인도 가지 말렌 허고. 게고 집이 허단 보난 밧도 ᄉᆞ백 펭짜리 밧도 사지고, 그 쉐 풀안. 경 허멍 그 쉐가 그추룩 헤도 그자, 그 생각을 굴소곱에 눠난 생각을, 어디 무신 전화가 시카? 게난 하르방덜, 이디선 하르방덜 싯 다 죽어시카부덴 오죽헤낫수가. 싯 죽어시카부덴, 궤소곱에 가난에.(군인도 못 가고. 그때 그렇게 군인도 가지 말라고 하고. 그리고 집에 하다가 보니까 밭도 사백 평짜리 밭도 사지고, 그 소 팔아서. 그렇게 하면서 그 소가 그처럼 해도 그저, 그 생각을 굴속에 누웠던 생각을, 어디 무슨 전화가 있나? 그러니까 할아버지들, 여기서는 할아버지들 셋 다 죽었을까 싶어서 오죽했었습니까. 셋 죽었을까 싶어서, 굴속에 가니까.)

104001 #1 뒷날 못 촞으믄 어디 사름 촞으레, 동원허젠 허연 보난 뒷날은 게도 살안 돌아오난.(뒷날 못 찾으면 어디 사람 찾으러, 동원하려고 해서 보니까 뒷날은 그래도 살아서 돌아오니까.)

104001 #2 동네 구장, 구장신디 간 들어보곡 막 헷수게, 사름 아이 완. 게난 궷소곱에 간 보난 무신 대삿간을 씬 사름덜이 나와서라, 야개기에 무시것도 해서라. 경 허멍 궷소곱에 잔 뒷날도 혜영 걸언 오난 사름, 동고량착도 어디 뎃겨불고, 밥도 굼고 헤연 헤노난, 쉐따문에. 게도 또 메칠 시난 또 쉐 보레 간. 쉐 보레 간 보난 쉐가 막 떠나불어서렌. 빈직빈직허고 거멍허연에, 샛기도 나고.(동네 구장, 구장에게 가서 들어보고 마

구 했습니다, 사람 안 와서. 그러니까 굴속에 가서 보니까 무슨 대삿갓을 쓴 사람들이 나와서라, 목에 무엇도 해서라. 그렇게 하면서 굴속에 잔 뒷날도 종일 걸어서 오니까 사람, '동고량착'도 어디 던져 버리고, 밥도 굶고 해서 하니까, 소 때문에. 그래도 또 며칠 있으니까 또 소 보러 갔어. 소 보러 가서 보니까 소가 막 떠나버렸다고. 반질반질하고 검어서, 새끼도 낳고.)

104001 #1 이 저 고지 속에는 양, 여기 닮지 아니허영 목장이, 그딘 목장허믄 저 한라산 앞이 요 저 그 쉐덜 허는디 거는 고지는양, 여름에도 간 보니까 낭 그늘에 시원헌디 그냥 낭이파리 튿어먹곡, 그늘진 디 픠리가 시카? 픠리 어서마씨. 게 헤노믄 쉐가 으름에 첨, 사름이 에어콘 허영 살듯이 서늘헌 게 뭐 쉐.(이 저 곶 속에는요, 여기 닮지 안 해서 목장이, 거기는 목장하면 저 '한라산' 앞에 요 저 그 소들 하는데 거는 곶은요, 여름에도 가서 보니까 나무 그늘에 시원한 데 그냥 나뭇잎 뜯어먹고, 그늘진 데 파리가 있나? 파리 없어요. 그거 해놓으면 소가 여름에 참, 사람이 에어컨 해서 살듯이 서늘한 게 뭐 소.)

104001 #2 게난 쉐 춪지 못허영.(그러니까 소 찾지 못해서.)

104001 #1 완전이 쉐 뒈어불엉.(완전히 소 되어버려서.)

104001 #2 쉐가 막 뜨나부난양, 쉐가 막 커불고, 막 뜨나부난, 또 이제 누리완. 에, 쉐 우리 쉐 일러먹엇저. 쉐 대정[145] 몰아간 셍이여. 정의[146] 몰아간 셍이여. 막 허단 이제 즈꼿딧 하르방이 에, 저 엉둥이에, 엉둥이에 무신거 헷 놔두난 알아진다, 알아진다.(소가 아주 달라 버리니까요, 소가 아주 커버리고, 아주 달라 버리니까, 또 이제 내려와서. 에, 소 우리 소 잃어버렸다. 소 '대정' 몰아간 모양이야. '정의' 마을에 몰아간 모양이야. 마구 하다가 이제 옆에 할아버지가 에, 저 엉덩이에, 엉덩이에 무엇 해서 놔두니까 알 수 있다, 알 수 있다.)

104001 #1 낙인찍언 놔두난.(낙인찍어서 놔두니까.)

104001 #2 게난 또 혼번 또 그 하르방 빌언 가난, 동고량에 밥 싸고 헨 간, 간 후젠 저 그디가 어디 백록담 물 먹엄시난, 이 쉐가 똑 니네 쉐 닮다. 샛기도 아이 베낫수다. 아이 베낫수다. 샛기도 나고, 겐 허난 심질 못 허연양, 쉐가 막 누실아. 막 누실안 걸리지, 걸리지 못허영.(그러니까 또 한번 또 그 할아버지 빌어서 가니까, '동고량'에 밥 싸고 해서 갔어, 간 후에는 저 거기가 어디 '백록담' 물 먹고 있으니까, 이 소가 똑 너희 소 닮다. 새끼도 아니 배었었습니다. 아니 배었었습니다. 새끼도 낳고. 그렇게 하니까 잡지를 못해서요, 소가 아주 날카로워서 걸리지, 걸리지 못해서.)

104001 #1 아이고, 막 저 곶쉐[147] 뒈언에.(아이고, 아주 저 '곶쉐' 되어서.)

104001 #2 겐 이제 저 어디 웨방 사름 빌언, 조천[148]인가 어디 뚠 사름도 쉐 보레 간 사람 빌언에 걸리멍 헨. 그땐 첨 아방[149] 풀 다치멍 허멍 헤도양, 쉐 그 순열이 아

145) '대정'은 대정현을 뜻한다.
146) '정의'는 정의현을 뜻한다.
147) '곶쉐'는 깊은 산속에서 방목하는 소를 말한다.
148) '조천'은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를 말한다.
149) '아방'은 아버지인데, 여기서는 남편을 뜻한다.

방이옌 헌 하르방이 유식허곡 대정 하르방인디 쉐만 보는 하르방 이서낫수다게, 소리도 잘 허곡. 그 하르방 빌언 쉐 걸련 심언. 게 아녀시믄 그 쉐 못 걸련, 막 쉐가 몹씰안마씨. 목장에 간 막 몹씰안. 첨 제우 나 걸련에 완. 게도 거 뎅경 가젠허난에, 그 쉐 이레 오란 허난 요디 저 누게 아방, 누게신디 풀아신디, 저 누게 아방신디 풀안에.(그렇게 이제 저 어디 외방 사람 빌어서, '조천'인가 어디 다른 사람도 소 보러 갔던 사람 빌어서 걸리면서 했어. 그땐 참 '아방' 팔 다치면서 해도요, 소 그 '순열이' 아버지라고 한 할아버지가 유식하고 '대정' 할아버지인데 소만 보는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소리도 잘 하고. 그 할아버지 빌어서 소 걸려서 잡았어. 게 안 했으면 그 소 못 걸렸어, 아주 소가 사납고 악해서. 목장에 가서 아주 사납고 악해서. 참 겨우 나 걸려서 왔어. 그래도 다녀서 가려고 하니까, 그 소 이리 오라고 하니까 요기 저 누구 아버지, 누구에게 팔았는데, 저 누구 아버지에게 팔아서.)

104001 #1 현, 현 칩이.(현, 현씨 집에.)

104001 #2 현, 저 현 이장네 하르방 맞아, 맞아.(현, 저, 현 이장네 할아버지 맞아, 맞아.)

104001 #1 현○○하르방.(현○○ 할아버지.)

104001 #2 현○○신디 풀앗구나. 풀안에 그 돈 헨 빚이 추추추 허연에 밧 사고, 게도 벵젱 아이 가난, 또 쉐 사와낫수다, 우리. 쉐 산 보난, 막 호실이 하르방신디.(현○○에게 팔았구나. 팔아서 그 돈 해서 빚이 차차차 해서 밭 사고, 그래도 병정 안 가니까, 또 소 사왔었습니다, 우리. 소 사서 보니까, 막 호실이 할아버지에게.)

104001 #1 속쉐, 게난.(칡소, 그러니까.)

104001 #2 쉐 아이사서.(소 안 샀어.)

104001 #1 속쉔디, 속쉐옌 헌 건.(칡소인데, 칡소라고 한 거는.)

104001 #2 얼룩달룩헌 속쉐.(얼럭덜럭한 칡소.)

104001 #1 그 얼룩얼룩허멍 영 그냥 저 점 벡여지믄 영 긁어지는 '속쉐', '속쉐'라 헷어.(그 얼럭덜럭하면서 이렇게 그냥 저 점 박혀지면 이렇게 긁어지는 칡소, 칡소라 했어.)

104001 #2 막 몹씰안, 몹씰안.(아주 사납고 악해서, 사납고 악했어.)

104001 #1 이 속쉐는양, 구늉이 셩 몹씰아마씨.(이 칡소는요, 군흉이 있어서 사납고 악해요.)

104001 #2 경 헌 줄 알앗수강? 우린 몰르난 뭐 쉐 그냥.(그렇게 한 줄 알았습니까? 우리는 모르니까 뭐 소 그냥.)

104001 #1 속쉐에 우린.(칡소에 우리는.)

104001 #2 몰르난.(모르니까.)

104001 #1 뒤 몰라노난 아 쉐가, 다음 사젠 헤도 사부난, 그 쉔 삿는디, 속쉐 산 허난 놈덜토 나중에, 에, 속쉐 잘못 삿저.(뒤 모르니까 아 소가, 다음 사려고 해도 사 버리니까, 그 소 샀는데, 칡소 사서 하니까 남들도 나중에, 에, 칡소 잘못 샀다.)

104001 @ 구늉이, 구늉이 셔, 구늉이 좀 잇수다게.(군흉이, 군흉이 있어, 군흉이 좀

있습니다.)

104001 #1 구늉이 셔. 요놈으 거 밧 ᄀᆞ르치젠 허믄양.(군흉이 있어. 요놈의 거 밭 가르치려고 하면요.)

104001 #2 아이고, 첨.(아이고, 참.)

104001 #1 허믄 영 허믄 사름신디 돌려들엉 찔르곡, 경 헨 이제 우리 이 사름 아기 업곡 헹은에 어떵 헙니까, 겡 누게 놉 빌진 못 허곡 헹 일허젠 허믄.(하면 이렇게 하면 사람에게 달려들어서 찌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이 사람아기 업고 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누구 놉 빌지는 못 하고 해서 일하려고 하면.)

104001 #2 막 사름 우티 강 막 (마구 사람 위에 가서 마구.)

104001 #1 사름신디 찔르젱 돌려들곡.(사람에게 찌르려고 달려들고.)

104001 #2 쉐 장시 하르방.(소 장수 할아버지.)

104001 #1 게도 일젠 허믄, 허당 버치믄 누게 장남 빌언에 ᄉᆞ뭇 ᄀᆞ리치멍 또.(그래도 일하려고 하면, 하다가 부치면 누구 장남 빌어서 사뭇 가르치면서 또.)

104001 #2 잊어불지도 아니허여.(잊어버리지도 안 해.)

104001 #1 요 쉐 ᄀᆞ르치젱 허믄 이디서 쉐 서렝이[150]옝 허영.(요 소 가르치려고 하면 여기서 소 '서렝이'라고 해서.)

104001 #2 고냥 똘랑게.(구멍 뚫어서.)

104001 #1 돌로 고냥 똘란에 이 저.(돌로 구멍 뚫어서 이 저.)

104001 #2 똥고냥에서 끗엉.(똥구멍에서 끌어서.)

104001 #1 예, 끗엉 막 질레도 뎅이곡, 요걸 얼 멕영 ᄒᆞ끔 질 들이와사. 숙쉐는 거 우린 분시 몰란 사낫지, 숙쉐는 구늉이 셔.(예, 끌어서 마구 길에도 다니고, 요걸 얼 먹여서 조금 길 들여야. 칡소는 거 우린 분수 몰라서 샀었지, 칡소는 군흉이 있어.)

104001 #2 그때 저, 잊어불지 아니헙니다. 올레[151]서 집줄 영영 헐 때 쉐 장시 하르방 몰앙 완, 요거 좋은 쉐라, 좋은 쉐라 허멍 우린 속안 사난에, 얼마사 줜 사신지, 집 일젠, 초가집 일젠 줄 놈시난에, 잊어불지 아니허여. 겐 완 산.(그때 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올레'서 집줄 이렇게 이렇게 할 때 소 장수 할아버지 몰아서 와서, 요거 좋은 소야, 좋은 소야 하면서 우린 속아서 사니까, 얼마야 줘서 샀는지, 집 이려고, 초가집 이려고 줄 놓고 있으니까, 잊어버리지 아니해. 그거는 와서 샀어.)

104001 @ 그 구엄리 목장은 엇수강?(그 '구엄리' 목장은 없습니까?)

104001 #1 목장은 엇수다. 목장은 저 이 신엄 목장, 또 중엄 목장 헌디, 구엄은 언제나 중엄 목장신디 강, 저 쉐 몰아갑주게. 이 유월절 ᄉᆞ시 뒈 가믄 농사가 거의 ᄆᆞ쳐마씀. 겐 막 덥기도 허곡 이때 뒈믄 소서 유월절이라고 헤 가지고, 겡 이제 그때 뒈 가믄 쉐덜 다 목장에 올리곡, 겐디 그디 가믄 쏠, 아, 보리로, 보리로 그땐 뭐 ᄒᆞᆫ 말이여, ᄒᆞ끔 오레 가는 건, 말 가옷, 두 말 영 헹 받으믄, 거 강 보믄 첨 중엄 목장이.(목장은 없습니다. 목장은 저 이 '신엄' 목장, 또 '중엄' 목장 했는데, '구엄'은 언제나 '중엄' 목장

150) '서렝이'는 소를 길들이기 위해서 돌이나 나무 따위로 만든 도구이다.
151) '올레'는 거릿길 쪽에서 대문까지의, 집으로 드나드는 아주 좁은 골목 비슷한 길이다.

있는데 가서, 소 몰아가지요. 이 유월절 근방 돼 가면 농사가 거의 마쳐요. 그래서 아주 덥기도 하고 이때 되면 소서 유월절이라고 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때 돼 가면 소들 다 목장에 올리고, 그런데 거기 가면 쌀, 아 보리로, 보리로 그땐 뭐 한 말이여, 조금 오래 가는 건, 말 가웃, 두 말 이렇게 해서 받으면, 거 가서 보면 참 '중엄' 목장이.)

104001 #2 신엄 목장이 커낫주기게.('신엄' 목장이 컸었어요.)

104001 #1 신엄 목장은 저 어승생 이염에 거 궷물 신디, 물이 또 좋수다, 거긴. 신엄 목장더레 ᄒᆞ끔 뭐 헌 사름덜은 몰아가곡, 중엄 목장은 ᄒᆞ끔 가까워마씀, 큰 오름.('신엄' 목장은 저 '어승생' 옆에 거 '궷물' 있는데, 물이 또 좋습니다, 거기는. '신엄' 목장으로 조금 뭐 한 사람들은 몰아가고, '중엄' 목장은 조금 가까워요, 큰 오름.)

104001 @ 구엄리는 목장이 어섯구나.('구엄리'는 목장이 없었군요?)

104001 #1 구엄은 목장이.('구엄'은 목장이.)

104001 #2 목장 어서노난, 그레만 몰아당, 보리, 보리 ᄒᆞ끔 줭, 삯으로 값 줘사.(목장 없으니까, 그리만 몰아다가, 보리, 보리 조금 줘서, 삯으로 값 줘야.)

104001 #1 ᄒᆞ끔 뭐 헌 사름덜은 신엄 목장더레 가고, 건 걸기 좋고 그디 강 보믄 또 궷물오름이라고 헹 싯곡, 이 저 헤 가지고 물이 좋아마씨. 게고 낭 그늘 좋곡 허난, 신엄더레 헤 뭐 헌 사름덜은 하영 갓수다.(조금 뭐 한 사람들은 '신엄' 목장으로 가고, 건 걷기 좋고 거기 가서 보면 또 '궷물오름'이라고 해서 있고, 이 저 해 가지고 물이 좋아요. 그리고 나무 그늘 좋고 하니까, '신엄'으로 해 뭐 한 사람들은 많이 갔습니다.)

104001 #2 우린 신엄 아이 가고, 중엄벡기 아이 가 봣수다, 중엄 목장. ᄇᆞ디난게, ᄇᆞ디난.(우린 '신엄' 안 가고, '중엄'밖에 아니 가 봤습니다, '중엄' 목장. 가까우니까요, 가까우니까.)

104001 @ 말뚝 박안에 쉔 안 질뤄 봅디가?(말뚝 박아서 소 안 길러 봤습니까?)

104001 #1 무사 쉐, 어디 가젱 허믄, 거 쉘.(왜 소, 어디 가려고 하면, 거 소를.)

104001 #2 딱.(딱.)

104001 #1 말뚝 박앙 이제, 말목 박앙 메영 어디 멀리 못 가게 헤영. 쉐 강 고쪄 메고. 고쪄 멩 촐 비레 강 헤도, 그건 사름만 일일이 거렁헤지는 거라, 촐도 비어사 허난. 영 봥 ᄒᆞ끔 쉐 먹엄직헌 디 시믄 말목 다 박앙은에.(말뚝 박아서 이제, 말뚝 박아서 매어서 어디 멀리 못 가게 해서, 소 가서 옮겨 매고. 옮겨 매서 꼴 베러 가서 해도, 그건 사람만 일일이 허황해지는 거야, 꼴도 베어야 하니까. 이렇게 봐서 조금 소 먹을 것 같은 데 있으면 말뚝 다 박아서.)

104001 #2 먹는 동안에.(먹는 동안에.)

104001 #1 쉐 앞더레 헹 멕이곡, 먹는 동안에 이제 거 촐도 비고.(소 앞으로 해서 먹이고, 먹는 동안에 이제 거 꼴도 베고.)

104001 @ 쉐 멕이레 뎅겨 봣지양?(소 먹이러 다녀봤지요?)

104001 #2 아이구, 잘 간.(아이고, 잘 갔어.)

104001 #1 늘 쉐 멕이레 뎅기고. 겐 쉐 번 헹도 멧 사름 장전 ᄉᆞ방 강, 그 빈 밧덜이 하우다, 소낭밧덜이영. 그레 강 허믄 쉐 번 헹은에, 쉐 번 헹 허믄, ᄒᆞᆫ 열 사름 이제,

열 댓 집이 하믄, 게 안 허믄 으남은 집이 좋아마씨. 쉐 번 허믄 열이 돌아가멍 ᄒᆞ를 흔 집썩 헤도 열흘에 흔번 볼 거 아니우꽈? 게믄 거념이 쉽고.(늘 소 먹이러 다니고. 겐 소 번갈아 가면서 해서도 몇 사람 '장전' 근방 가서, 그 빈 밭들이 많습니다, 소나무밭들이랑. 그리 가서 하면 소 번갈아 가면서 해서, 소 번갈아 가면서 해서 하면, 한 열 사람이제, 열댓 집에 하면, 그렇게 안 하면 여남은 집이 좋아요. 소 애벌갈이하면 열이 돌아가면서 하루 한 집씩 해도 열흘에 한번 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돌보기도 쉽고.)

104001 #2 쉐 친목 것추룩. 이제 사름 친목 것추룩, 경 행 돌아가멍 흔 집이 흔번썩 봐낫수다.(소 친목 것처럼. 이제 사람 친목 것처럼, 그렇게 해서 돌아가면서 한 집에 한번 씩 봤었습니다.)

104001 #1 촐은 늘 첨 청촐 헤당은에 으름에 집이 멜 동안은 출도 행 멕이고.(꼴은 늘 첨 새파란 꼴 해다가 여름에 집에 맬 동안은 꼴도 해서 먹이고.)

104002 @ 예, 쉐 종류는?(예, 소 종류는?)

104002 #1 쉐 종류는양.(소 종류는요.)

104002 @ 어떤 것들이 잇수강?(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104002 #1 뭐 이 여기선 보믄 ᄉᆞᆨ쉐, 뭐 이 저.(뭐 이 여기선 보면 칡소, 뭐 이 저.)

104002 #2 암쉐.(암소.)

104002 #1 암쉐, 저 뿔 오그라진 암쉐여, 무신 검은 쉐, 이제 황쉐 잇고, ᄉᆞᆨ쉐, 이제 저 검은 흑, 검은 흑쉐, 검은 것도 두 가지라. 하난 완전 검은 것이 싯고, 다음에 이제 검은 뿔 오그라진 암쉐.(암소, 저 뿔 오그라진 암소야, 무슨 검은 소, 이제 황소 있고, 칡소, 이제 저 검은 흑, 검은 흑소, 검은 것도 두 가지야. 하나는 완전 검은 것이 있고, 다음에 이제 검은 뿔 오그라진 암소.)

104002 #2 건 막 몹씰아.(건 아주 사납고 악해.)

104002 @ 완전 검은 건 무슨 쉐옌 허여마씸?(완전 검은 건 무슨 소라고 하지요?)

104002 #1 거는 이 저 진흑쉐옌 허고. 진흑쉐 그거 아이.(거는 이 저 진흑소라고 하고. 진흑소 그거 아니.)

104002 #2 막 몹씰앙, 쉐가.(아주 사납고 악해서, 소가.)

104002 #1 이 저 진흑쉐도 몹씰아. 게난 질 순헌 건 요 황쉐, 노랑쉐가 아메도 어질곡, 뿔도 이제 뿔도 너무 성긋헌 거는 그냥 이 싸움쉡주게, 그건. 뿔 봉도 사곡, 사져.(이 저 진흑소도 사납고 악해. 그러니까 제일 순한 건 요 황소, 노랑소가 아무래도 어질고, 뿔도 이제 뿔도 너무 뾰족한 거는 그냥 이 싸움소지요, 그건. 뿔 보고도 사고, 사져.)

104002 #2 게난 몹씰앙 풀아사.(그러니까 사납고 악해서 팔아야.)

104002 @ 게난 쉐 종류는 두 가지로 봉 허네 양, 이 털허고 뿔.(그러니까 소 종류는 두 가지로 봐서 하네요, 이 털하고 뿔.)

104002 #1 예, 뿔허고, 주로 이제 뿔 허믄 쪼짝 뿔이여.(예, 뿔하고, 주로 이제 뿔 하면 뾰족한 뿔이야.)

104002 #2 아이 영 입도 봐사. 쉐도 영 입 진, 입 진 쉐가 서.(아니 이렇게 입도 봐

야. 소도 이렇게 입 긴, 입 긴 소가 있어.)

104002 #1 눈 알이 진 쉐옌 허영.(눈 아래가 긴 소라고 해서.)

104002 #2 그 쉐는.(그 소는.)

104002 #1 눈 알이 질엉, 영 톡이 진 쉐는 잘 안 먹어.(눈 아래가 길어서, 이렇게 턱이 긴 소는 잘 안 먹어.)

104002 #2 먹지도 아이 허곡 몹씰만 허영양, 페라왕마씨.(먹지도 안 하고 사납고 악하기만 해서요, 까다로워요.)

104002 #1 에, 거 눈 알 질언 잘 먹켜.(예, 거 눈 아래 길어서 잘 먹겠어.)

104002 #2 영 입 나온 쉐가 이서마씨.(이렇게 입 나온 소가 있어요.)

104002 #1 쉐 사젱 허믄 눈 알을 보라, 눈 알이 지냐, ᄇᆞ뜨냐 허영, 주뎅이가 물착 허곡 허믄 쉐가 똥이라도 밋밋 먹고.(소 사려고 하면 눈 아래를 보라, 눈 아래가 긴가, 짧은가 해서, 주둥이가 매끈하고 하면 소가 똥이라도 줄곧 먹고.)

104002 #2 잘 먹지도 아이 허고.(잘 먹지도 안 하고.)

104002 #1 게 아니고 요거 잘 안 먹으믄양.(게 아니고 요거 잘 안 먹으면요.)

104002 #2 우리도 그런 쉐 질완.(우리도 그런 소 길렀어.)

104002 #1 이런 거 큰 어디 영 이껑 가도 냄새 영 쿡쿡 ᄒᆞ끔만 헤 노믄 안 먹어마씨.(이런 거 큰 어디 이렇게 이끌어서 가도 냄새 이렇게 쿡쿡 조금만 해 놓으면 안 먹어요.)

104002 #2 안 먹고.(안 먹고.)

104002 #1 요놈으 거는양, 성가시고.(요놈의 거는요, 성가시고.)

104002 #2 막, 막 착허지도 아이허고.(아주, 아주 착하지도 않고.)

104002 #1 또 이 비육쉐옌 내치는 디도 그걸 이제 쉐 허믄 ᄑᆞ는 딘 어떠냐 허믄, 미국쉐옌 허영 술지왕 폽주게, 궤기쉐로. 경 헹 ᄑᆞ는 디, 집이서 이제 허믄 ᄋᆞ름에 콩허고 보통 헷당 콩 술망 멕이곡, 조 헹도 이디 허믄 술므멍 늘 것 술므멍, 이제 촐은 누까에 촐 썰어 놔 누까에 헹 멕이곡, 항상 집이서. 겡 허믄 이제 쉐 키우는 과정은양, 그것이 ᄒᆞᆫ 다섯 설내지 ᄋᆞ섯 설 뭴 때ᄁᆞ지 키와야, 이 저 궤기쉐로 나가.(또 이 비육소라고 해서 내치는 데도 그걸 이제 소하면 파는 데는 어떠냐 하면, 미국 소라고 해서 살찌워서 팔지요, 고기소로. 그렇게 해서 파는데, 집에서 이제 하면 여름에 콩하고 보통 했다가 콩 삶아서 먹이고, 조 해서도 여기 하면 삶으면서 늘 먹이 삶으면서, 이제 꼴은 쌀겨에 꼴 썰어 놔 쌀겨에 해서 먹이고, 항상 집에서. 그렇게 하면 이제 소 키우는 과정은요, 그것이 한 다섯 살이나 여섯 살 될 때까지 키워야, 이 저 고기소로 나가.)

104002 #2 아이 쉐도 페라왕, 페라왕.(아니 소도 까다로워서, 까다로워서.)

104003 @ 그다음에 쉐 가졍은에 뭘로 활용헷수가?(그다음에 소 가져서 뭐로 활용했습니까?)

104003 #1 이디선 첫째는 밧 갈고.(여기서는 첫째 밭 갈고.)

104003 #2 구르마허고.(마차하고.)

104003 #1 밧 갈고 구르마 헹, 허곡 짐.(밭 갈고 마차 해서, 하고 짐.)

104003 #2 구르마도 허여.(마차도 해.)

104003 #1 시꺼 오곡. 쉐질메 허영. 경 헹 이 저 쉐앗배옌 허영 쉐앗배도 꽝 문 헤 난디, 요거 신사라옝 허영양, 찝 닮지 아니 허영 질긴 것이 싯수다, 저 이제 ᄀᆞ뜨믄 난 닮은 건디. (실어 오고, 소길마 해서. 그렇게 해서 이 저 참바라고 해서 꼬아서 모두 했었는데, 요거 뉴질랜드삼이라고 해서요, 짚 같지 아니해서 질긴 것이 있습니다, 저 이제 같으면 난 닮은 건데.)

104003 @ 그거 신사라.(그거 뉴질랜드삼.)

104003 #1 예, 신사라 그걸로 문 두드리멍 배 꼬믄.(예, 뉴질랜드삼 그걸로 모두 두들기면서 참바 꼬면.)

104003 @ 예, 신사라로.(예, 뉴질랜드삼으로.)

104003 #1 질깁주게. 쉐석도 다 걸로 허고, 또 고지 가믄 그 소리낭이라고 허여, 그 걸로 문 두드령 소리낭 헤당, 그땐 이제ᄀᆞ찌 산에 강덜 이제 뭐 헤 가지고 허난, 그레 소리낭 좀 헤온 건 말 아이헷수다게. 그디도 단속헌 사름도 이거 뭐 아 저기 소리낭 헹 쉐앗배 ᄒᆞ끔 꼬젠 헴젠 허믄 말 아이 헤도, 거 저 소리낭 거죽 벳경, 경 헨 문 져 왕 이제 배 들이곡, 으름엔 홀 거 잇수강? 거나헹 집이 배 들이곡 헹, 쉐아배도 꼬고.(질기지요. 소고삐도 다 걸로 하고, 또 곶 가면 그 소리나무라고 해, 그걸로 모두 두드려서 소리나무 해다가, 그땐 이제같이 산에 가서 이제 뭐 해 가지고 하니까, 그리 소리나무 좀 해온 건 말 안 했습니다. 거기도 단속한 사람도 이거 뭐 아 저기 소리나무 해서 참바 조금 꼬려고 하고 있다고 하면 말 안 해도, 거 저 소리나무 거죽 벗겨서, 그렇게 해서 모두 져 와서 이제 참바 들이고, 여름에는 할 거 있습니까? 거나해서 집에 참바 들이고 해서, 참바도 꼬고.)

104005 @ 그다음에 쉐 나이, 아까 ᄒᆞᆫ 술이 뭐마씨?(그다음에 소 나이, 아까 한 살이 뭐에요?)

104005 #1 쉐 나이는 금승, 다간, 사릅, 나릅 다음에 이제 거.(소 나이는 하릅, 두습, 사릅, 나릅 다음에 이제 거.)

104005 @ 나릅 다음은?(나릅 다음은?)

104005 #1 다습이옌.(다습이라고.)

104005 @ 다습.(다습.)

104005 #1 다습, 다습.(다습, 다습.)

104005 @2 다습이옌 허믄 다숫 설이이라.(다습이라고 하면 다섯 살 이야.)

104005 #1 거 다습쯤 난 거 닮수다. 늬빨 영 들러봥 걸, 잘 몰르는 늬빨 영 들러봥 니가 이제 영 우리도 잘 배우라, 영 보믄, 어금니가 영 나곡 허믄 이것 ᄒᆞᆫ 다습은 넘은 거로고. 어금니 난 벌써.(거 다습쯤 난 거 같습니다. 이빨 이렇게 들러봐서 거를, 잘 모르는 이빨 이렇게 들러봐서 이가 이제 이렇게 우리도 잘 배우라, 이렇게 보면, 어금니가 이렇게 나고 하면 이것 한 다습은 넘은 거로군. 어금니 나서 벌써.)

104005 @ 여섯 살은 뭐옌 헤서마씸?(여섯 살은 뭐라고 했어요?)

104005 #1 하여튼 다습ᄀᆞ진 아는 디 으슷 살은 잘 몰라. 다습 뒈가믄 이 저.(하여튼

다습까지는 아는데 여섯 살은 잘 몰라. 다습 돼 가면 이 저.)

104005 #2 풀아불어 잡아불고, 게 안 허믄.(팔아 버려 잡아 버리고, 게 안 하면.)

104005 #1 풀아불고, 게 아니믄 육쉐로 멕영 풀아불어마씨.(팔아 버리고 게 아니면 육소로 먹여서 팔아 버리지요.)

104005 @ 여섯 살.(여섯 살.)

104005 #1 예, 요섯살.(예, 여섯 살.)

104005 @ 엇고?(없고?)

104005 #2 다슷 술 헤가믄 막.(다섯 살 해가면 막.)

104005 #1 다습 뒈 가믄 니가 영 들렁, 코 헹, 니 영 벌경 보믄, 이 어금니가 소곱에 나곡 헤가믄 요거 다습은 넘은 거여. 코 꿰곡. (다습 되 가면 이가 이렇게 들러서, 코 해서, 이 이렇게 벌겨서 보면, 이 어금니가 속에 나고 해가면 요거 다습은 넘은 거야. 코 꿰고.)

104005 @ 어금니 나 가민 쉐도 다 뒌 거구나.(어금니 나 가면 소도 다 된 거구나.)

104005 #1 예, 그러믄 문 나이 찬 거.(예, 그러면 모두 나이 찬 거.)

104005 #2 게난 어디 잡아먹는 디 보내고.(그러니까 어디 잡아먹는 데 보내고.)

104005 @ 쉐 이것도.(소 이것도.)

104005 #2 잡앙 먹는 디도 보내고.(잡아서 먹는 데도 보내고.)

104005 @ 열다섯 술 산덴 허는디.(열다섯 살 산다고 하는데.)

104005 #1 예, 오래 사는디, 이디선 경 질루지 아이헤마씨, 쉐 늙어 가믄 노망헌덴.(예, 오래 사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기르지 안 해요, 소 늙어 가면 노망한다고.)

104005 #2 저기 목장에 강, 검은데기[152] 목장에 가믄 경, 검은데기 하르방 쉐 늙은 쉐들 셔. 늙은 쉐들 셔. 그 하르방도 아이고, 쉐들 내불어 뒁 죽어부런.(저기 목장에 가서, '검은데기' 목장에 가면 그렇게, '검은데기' 할아버지 소 소 늙은 소들 있어. 그 할아버지도 아이고, 소들 내버려 둬서 죽어버렸어.)

104006 @ 쟁기 명칭 혼번 골아봅서.(쟁기 명칭 한번 말해보십시오.)

104006 #1 쟁긴양, 구짝 헌 것이 성에고, 성에. 이거 성에헴직허다. 또 하난 무클이옌 헌 거, 오그라져, 쟁기 무클 닮은 거, 쒜 오그라졍, 요것도 잘 헤야지 무클이 너무 구짝 벋으믄 흑에 잘 안 들어. 겐 요것이 보기 좋게 쏙 저 뭣이옌 곧나, 질메 가진 너무 오그라지고, 그 보단 덜 오그라지고, 오그라졍 허믄, 요것이 무클이고, 성에, 그다음엔 이 벳바들[153]이옌, 벳바들허믄 영 콕 찔렁 받는 것이 잇수다. 그다음엔 양짓머리, 영 손 쥐영 밧 갈 때 허는 거, 양짓머리가 싯수다.(쟁기는요, 곧장 한 것이 성에고, 성에. 이거 성에 할 수 있을 것 같다. 또 하나는 쟁깃술이라고 한 거, 오그라져, 쟁기 쟁깃술 닮은 거, 쇠 오그라져서, 요것도 잘 해야지 쟁깃술이 너무 곧장 뻗으면 흙에 잘 안 들어. 겐 요것이 보기 좋게 쏙 저 뭐라고 말하나, 길마 가지는 너무 오그라지고, 그 보다는 덜 오그라지고, 오그라져서 하면, 요것이 쟁깃술이고, 성에, 그다음에는 이 '벳바들'이라고,

152) '검은데기'는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의 한 자연마을이다.

153) '벳바들'은 보습 위에 댄 볏을 받치는, 한 마루에 꿰어진 나무깽이를 말한다.

‘벳바들’하면 이렇게 콕 찔러서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다음엔 양지머리, 이렇게 손 쥐어서 밭 갈 때 하는 거, 양지머리가 있습니다.)

104006 @ 가운디 세운 건?(가운데 세운 건?)

104006 #2 뭐?(뭐?)

104006 #1 아, 그건.(아, 그건.)

104006 #2 가운디 세와져서.(가운데 세워져서.)

104006 #1 아, 것이 뭐더라? 대칼은 아니고.(아, 그것이 뭐더라? 대칼 아니고.)

104006 @ 대칼은?(대칼은?)

104006 #1 대칼은 벳 신 거고. 무클, 쟁기 무클, 성에 이거.(대칼은 볏 있는 거고. 쟁깃술, 쟁기, 쟁깃술, 성에 이거.)

104006 #2 건 모르커라, 잊어부런.(건 모르겠어, 잊어버려서.)

104006 @ 나중에 물어볼 거난양, 생각헹 놔둡서.(나중에 물어볼 거니까요, 생각해서 놔두세요.)

104006 #1 예.(예.)

104006 #2 이제 우리 쟁기 풀아서 헐 건디, 누게 줘 불어사 헐 건디.(이제 우리 쟁기 팔아야 할 건데, 누구 줘 버려야 할 건데.)

104006 @ 그다음에 쉐 두드리는 거?(그다음에 소 두들기는 거?)

104006 #1 아, 저 가린석[154]이라고 헹양, 베 두드릴 때.(아, 저 ‘가린석’이라고 해서요, 배 두들길 때.)

104006 @ 가린석.(‘가린석’.)

104006 #1 가린석, 저 밧갈 때, 이레 가곡 저레 가곡, 요것도 똑 저 거 무신 볼레낭이나, 볼레낭이 아이고 윤노리낭, 그런 낭으로 오그령 헤사 이제 거 가린석 헴직허다. 윤노리엔 허영 질깁니다게. 그것이 잘 꺽어지지도 아이허곡 허는, 이디선 윤노리허믄 대게 쉐 이제 가린석 요거 허켜 허영. 윤노리로 헹 딱 허게 허고, 또 이 쉐 밧갈 때는 아까 골앗듯이 소리낭 가린석 허믄 요것이 든든허곡양, 쉐 혼번 탁 허믄, 쉐가.(‘가린석’, 저 밭갈 때,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요것도 똑 저 거 무슨 보리수나무나, 보리수나무가 아니고 윤노리나무, 그런 나무로 오그려서 해야 이제 거 ‘가린석’ 할 수 있을 것 같다. 윤노리라고 해서 질깁니다. 그것이 잘 꺾어지지도 안 하고 하는, 여기선 윤노리하면 대게 소 이제 ‘가린석’ 요거 하겠다 해서. 윤노리로 해서 딱 하게 하고, 또 이 소 밭갈 때는 아까 말했듯이 소리나무 ‘가린석’ 하면 요것이 단단하고요, 소 한번 탁 하면, 소가.)

104006 #2 말 잘 안 들으믄, 탁 두들경 허믄, 말 아이 들으믄.(말 잘 안 들으면, 탁 두드려서 하면, 말 안 들으면.)

104006 #1 이 저 신사라로 꼬은 건 약허여, 걸 두드리믄. 경 허영 ᄀᆞ르치곡 헤낫수다.(이 저 뉴질랜드삼으로 꼰 건 약해, 걸 두드리면. 그렇게 해서 가르치고 했었습니다.)

104007 @ 다음에 질메, 질메 명칭 혼번 영 골아봅서.(다음에 길마, 길마 명칭 한번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154) ‘가린석’은 밭을 갈 적에 왼쪽으로 쇠머리에 씌워진 긴 고삐다.

104007 #1 질메는 앞 곱은 가지허고, 뒤, 뒷 곱은 가지, 등태, 이건 뭐.(길마는 앞 굽은 가지하고, 뒤 굽은 가지, 겉언치, 이건 뭐.)

104007 #2 나룩찝으로 멘들아사.(볏짚으로 만들어야.)

104007 #1 이거 영 헌 거 멍에, 멍엘 거라. 성에, 아 이게 성에고, 쟁기 이게 성에라. 영 세운 거.(이거 이렇게 한 거 멍에, 멍에일 거야. 성에, 아 이게 성에고, 쟁기 이게 성에야. 이렇게 세운 거.)

104007 #2 성에옌게, 그거.(성에라고요, 그거.)

104007 #1 그게 성에.(그게 성에.)

104007 @ 거난 영 질메 영.(그러니까 이렇게 길마 이렇게.)

104007 #1 예, 질메허믄 질멧가지가 뒤에 싯고, 쪼금 앞 질멧가진 더 짝 오그라진 거고, 뒷 질멧 가진 ᄒᆞ끔 영 ᄂᆞ롯헤사. 게 안 헹 딱 헤불믄, 앞뒤에 허믄 쉐나 ᄆᆞᆯ 질롸도 딱 접아불어. 게난 쉐가 못 젼디곡 허난, 요건 앞 질멧가지 헤졈직허다 허고 또 뒷 질멧가지 헤졈직허다 허믄 그 저, 그 웨로 영 헌 거ᄀᆞ찌 그거는 뭐.(예, 길마하면 길마 가지가 뒤에 있고, 조금 앞 기마가지는 더 짝 오그라진 거고, 뒤 길마 가지는 조금 이렇게 늘어져야. 게 안 해서 딱 해버리면, 앞뒤에 하면 소나 말 길러도 딱 접어버려. 그러니까 소가 못 견디고 하니까, 요건 앞 길마 가지 할 수 있을 것 같다 하고, 또 뒤 길마 가지 할 수 있을 것 같다 하면 그 저, 그 외로 이렇게 한 거같이 그거는 뭐.)

104007 #2 등태 만들젠 허믄.(겉언치 만들려고 하면.)

104007 #1 등태 허젠 허믄 그거, 이제.(겉언치 하려고 하면 그거, 이제.)

104007 #2 나룩찝 두드렁은에.(볏짚 두드려서.)

104007 #1 아니, 낭을 헤살 거 아니라. 그 성에가 아니고 뭣이옌 허더라. 건 좀 다음 생각헤 보고.(아니, 나무를 해야 할 거 아니야. 그 성에가 아니고 뭐라고 하드라. 건 좀 다음 생각해 보고.)

104007 # @ 성엔 아까 춪앗주기게.(성에는 아까 찾았지요.)

104008 @ 예, 그다음에 멍에, 멍에 잇지아니허꽈양? 멍에 명칭, 이거 영 헌 거 영.(예, 그다음에 멍에, 멍에 있지 않습니까? 멍에 명칭, 이거 이렇게 한 거 이렇게.)

104008 #1 멍에는 이 저 전이는 구짝 헹 달루앙 양쪽에 이제 고냥 똘루앙 좁게[155] 옌 허영 영, 그것도 이제 뭐냐 허믄 산에 강 윤노리 헹 쏙 불에 오그렁 헤야 요게 쉐가 똑 허지, 너무 잘 아이허믄 야개기 딱 쥐지멍 안 뒈고. 허고 나중엔 요렇게 오그라진 거, 똑 쉐질메 뒷가지 닮은 거, 너무 오그라졍 안 뒈어. 그런 걸로 허믄 쉐가 좀 한걸하고 이제 거 멍에 멩글앙은에 허곡. 고냥을 잘 똘라사 것도. 고냥을 영 훼오름허게 잘 안 똘르믄 쉐가 딱 야개기 딱 좁아노믄, 얼마 갈지도 못 허여. ᄋᆞ름 갈앙, ᄋᆞ름 밧 갈젠 허믄, 쉐 더워노믄양, 쉐가 거음 넵니다.(멍에는 이 저 전에는 곧장 해서 다루어서 양쪽에 이제 구멍 뚫어서 '좁게'라고 해서 이렇게, 그것도 이제 뭐냐 하면 산에 가서 윤노리 해서 쏙 불에 오그려서 해야 요게 소가 똑 하지, 너무 잘 안 하면 목 딱 조여지면서 안 되고. 하고 나중엔 요렇게 오그라진 거, 똑 소길마 뒷가지 닮은 거, 너무 오그라져서 안

155) '좁게'는 멍에 양편에 각각 꿰어서 목 아래로 휘어다가 매게 된 나뭇가지.

되어. 그런 걸로 하면 소가 좀 한거하고 이제 거 멍에 만들어서 하고. 구멍을 잘 뚫어야 것도. 구멍을 이렇게 휘둥그렇게 잘 안 뚫으면 소가 딱 목 딱 조여 놓으면, 얼마 갈지도 못 해. 여름 갈아서, 여름 밭 갈려고 하면, 소 더워 놓으면요, 소가 거음 냅니다.)

104008 #2 멍에 잘 못 허믄. 쉐 죽곡.(멍에 잘 못 하면. 소 죽고.)

104008 #1 더 너무 뭐 헤 노믄, 아이고 이거 쉐 잡아먹젠 헌 거여 이추룩. 멍에 고냥 잘 뚤르라.(더 너무 뭐 해 놓으면, 아이고 이거 소 잡아먹으려고 한 거야 이렇게. 멍에 구멍 잘 뚫으라.)

104008 #2 것도 엿날.(것도 옛날.)

104008 #1 이것이 쪼끔만 바레기로 잘 맞추지 아이허믄 안 뒈어.(이것이 조그만 깔때기로 잘 맞추지 안 하면 안 되어.)

104008 @ 이디 이꺼난 쉐도 아플 거주게.(여기 이끌었던 소도 아플 거지요.)

104008 #1 예, 수뭇 쉐 쉐와지곡 허믄, 게믄 불 그스령 잘 그거 영 고냥 맞추라.(예, 사뭇 소 조여주고 하면, 그러면 불 그을려서 잘 그거 이렇게 구멍 맞추라.)

104008 #2 ᄀᆞ시락 살랑은에, 자꾸 영 멍에 허젠 허믄, 그디 고냥 뚤라놔도 막 쏘곱에, 무싱걸로 막 뚤라노믄 쏘곱에 들어가지 아니헴젼 허영, ᄀᆞ시락 불로 멘딱 그거 캐와근에 문질문허게 멘들지 아이허믄, 멍에가 쉐 야개기 벗어질 때가 천지.(까끄라기 불 때어서, 자꾸 이렇게 멍에 하려고 하면, 거기 구멍 뚫어놔도 막 속에, 무엇으로 마구 뚫어놓으면 속에 들어가지 아니 하고 있다고 해서, 까끄라기 불로 모두 그거 태워서 만질만질하게 만들지 않으면, 멍에가 소 목 벗어질 때가 많아.)

104008 #1 거 잘 못 허믄양.(거 잘 못 하면요.)

104008 #2 야개기 털 문짝 뽑아졍.(목 털 모두 뽑아져서.)

104008 #1 이 저 야개 벗어져노믄 얼른 좋지도 아이험니다. 그헤에는 약 불른 체 헷자 무슨 약이 싯수가? 전이 연고나 영.(이 저 목 벗겨져 놓으면 얼른 좋지도 안 합니다. 그해에는 약 바르는 체하려고 해도 무슨 약이 있습니까? 전에는 연고나 이렇게.)

104008 #2 연곤 셔서.(연고는 있어.)

104008 #1 거 헤노믄 그 헤에는 쉐 ᄀᆞᆯ으치당 야개기 벗어져노믄 ᄀᆞᆯ으치지도 못허고 요것이, 그거 멩심헹양, 그 멍에에 무신 저.(거 해놓으면 그 해에는 소 가르치다가 목 벗겨져 놓으면 가르치지도 못하고 요것이, 그거 명심해서요, 그 멍에에 무슨 저.)

104008 #2 제일 멩심헐 건 멍에.(제일 명심할 건 멍에.)

104008 #1 멍에 트멍에 거기 쉐가죽으로 영 헹 ᄒᆞ끔 보드랍게 헹 그레 담앙, 겡 허믄 이것이 솔러레 덜 강, 덜 벗어지주, 쉐 야개기.(멍에 틈에 거기 소가죽으로 이렇게 해서 조금 보드랍게 해서 그리 담아서, 그렇게 하면 이것이 살로 덜 가서, 덜 벗겨지지, 소 목.)

104008 @ 게난 이 힘으로 밧 가는 거주게.(그러니까 이 힘으로 밭 가는 거지요.)

104008 #1 예, 야개기 벗어져 노믄, 요거 쉐 ᄀᆞᆯ으치당 벗어져 노믄.(예, 목 벗겨져 놓으면, 요거 소 가르치다가 벗겨져 놓으면.)

104008 #2 쉐 막 아팡 못 허난.(소 아주 아파서 못 하니까.)

104008 #1 쉐 골으치지도 못 허고, 쉐는 그냥 막 들락퀴멍 허주, 아파노믄. 게난 멩심허영 첨, 쉐 멍에 야개 벗어진다, 멩심허라.(소 가르치지도 못 하고, 소는 그냥 마구 날뛰면서 하지, 아파 놓으면. 그러니까 명심해서 참, 소 멍에 목 벗겨진다, 명심하라.)

104008 #2 쉐 멍에가 잘 헤사, 잘 헤사, 경 헤낫수다.(소 멍에가 잘 해야, 잘 해야, 그렇게 했었습니다.)

104008 #1 이 으름에.(이 여름에.)

104008 #2 쉐 멍에 잘 못허믄 데껴뒁 또 허고. 고지 올라강 그거 헹 오젱 허믄.(소 멍에 잘 못하면 던져버려서 또 하고. 곶에 올라가서 그거 해서 오려고 하면.)

104009 @ 그다음에 목장양, 여기 구엄린 목장 엇어낫주마는, 목장은 어떵 관리헙니까?(그다음에 목장요, 여기 '구엄리'는 목장 없었지만, 목장은 어떻게 관리 합니까?)

104009 #1 목장덜은 우리가 허믄 쉐 으름 내낭 이디서 유월절 ᄉᆞ시에 올리믄 이게 혼 칠월, 팔월 뒈믄 내려옵주게. 쉐를 내리오는디.(목장들은 우리가 하면 소 여름 내내 여기서 유월절 근방에 올리면 이게 한 칠월, 팔월 되면 내려옵니다. 소를 내려오는데.)

104009 #2 촐 헐 때난에.(꼴 할 때니까.)

104009 #1 거기서도 촐 허게 뒈믄 내려오는디 그디서도 쿰 줘은에 혼 집이 보통.(거기서도 꼴 하게 되면 내려오는데 거기서도 품삯 줘서 한 집에 보통.)

104009 @ 쉐테우리?(소테우리?)

104009 #1 예, 쉐테우리[156] 앞이 멧겨. 게믄 그 사름이 으름 내낭 그디 살멍 보리 받앙, 그때는 보리쌀 아이고 보리로. 혼 집이 허영 보리 멧 섬 헷저. 쉐 봐 나믄 보리, 보리 그 집이 보리 하서. 쉐 쿰 받을 거.(예, '쉐테우리' 앞에 맡겨. 그러면 그 사람이 여름 내내 거기 살면서 보리 받아서, 그때는 보리쌀 아니고 보리로. 한 집에 해서 보리 몇 섬 했다. 소 봐 나면 보리, 보리 그 집에 보리 많아. 소 품삯 받을 거.)

104009 #2 아이 것, 쉐도 아무나 못 봥은에.(아니 것, 소도 아무나 못 봐서.)

104009 #1 게난 쉐도양, 그거 쉐 눈에 쑥 헹 잘 헤사. 너무 그 돌아나불믄 놈으 쉐, 강 쉘 잘 선별헹, 아 이거 우리 쉐 왓젱 헹양, 지네들끼리도 허믄 쌉곡.(그러니까 소도요, 그거 소 눈에 쑥 해서 잘 해야. 너무 그 달아나버리면 남의 소, 가서 소를 잘 선별해서, 아 이거 우리 소 왔다고 해서요, 자기네끼리도 하면 다투고.)

104009 #2 막.(마구.)

104009 #1 나중에 허믄 저.(나중에 하면 저.)

104009 #2 쉐피젱이, 쉐피젱이 허멍.(소백정, 소백정 하면서.)

104009 #1 진독, 진독이옌 허영, 진독약 허레도.(진드기, 진드기라고 해서, 진드기 약 하러도.)

104009 @ 부구리[157]?('부구리'?)

104009 #1 부구리 게메, 부그리 진독약 허레 보통 혼 십오일에, 혼 둘에 혼번 갑주게, 강 그 약 허멍 ᄀᆞ를 헹은에 무신 진독약 읍에서 테와주곡 헙디다.('부구리' 글쎄, '부

156) '쉐테우리'는 소떼를 돌보거나 키우는 사람.
157) '부구리'는 진드기가 성장하여 된 벌레이다.

구리' 진드기약 하러 보통 한 십오일에, 한 달에 한번 가지요, 가서 그 약 하면서 가루를 해서 무슨 진드기약 읍에서 나눠주고 합디다.)

104009 @ 디디티 아니?(디디티 아니?)

104009 #2 디디티라, 디디티 닮은 거. 디디타라게.(디디티야, 디디티 닮은 거. 디디티야.)

104009 #1 그걸로 헹 강, 이녁 쉐 강 허믄 저 개역 헹 강 ᄒᆞ끔 멕이고, 으름에 헹 강, 덜 지치뎅, 뒌장에 헹양, 물에 개역 캉 허믄 잘 먹어마씨.(그걸로 해서 가서, 이녁 소 가서 하면 저 미숫가루 해서 가서 조금 먹이고, 여름에 해서 가서, 덜 지치다고, 된장에 해서요, 물에 미숫가루 타서 하면 잘 먹어요.)

104009 #2 막 더워낫젱 허멍.(아주 더웠었다고 하면서.)

104009 @ 뒌장은 잘 먹어.(된장은 잘 먹어.)

104009 #1 예, 뒌장 헹, 경 헤야 쉐가 물 잘 먹곡 헹은에 쉐 입맛 돋아난덴 허영, 경 헹 헤낫수다.(예, 된장 해서, 그렇게 해야 소가 물 잘 먹고 해서 소 입맛 돋아난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했었습니다.)

104009 #2 거 부구리 따문 질 궂어. 쉐 헐 땐 거 따문에 자꾸 목장에.(거 '부구리' 때문 제일 궂어. 소 할 땐 거 때문에 자주 목장에.)

104009 #1 쉐 보레 자꾸 가사.(소 보러 자주 가야.)

104009 @ 부구리 약, 부구리 약은 주인이 허는 거난.('부구리' 약, '부구리' 약은 주인이 하는 거니까.)

104009 #1 게난 건 이제 또 그사이 어떵 뒘신가 자꾸 돌아봐사. 경 헹 놈으 거 쉐양, 아니 목장덜이 영 담 하나 메왕 목장덜 헙주게. 장전 목장, 구엄, 중엄 목장, 구엄은 어서난.(그러니까 건 이제 또 그사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자꾸 돌아봐야. 그렇게 해서 남의 거 소요, 아니 목장들이 이렇게 담 하나 메워서 목장들 하지요. '장전' 목장, '구엄', '중엄' 목장 '구엄'은 없었지.)

104009 @ 노꼬메[158] 근방에 이서난.('노꼬메' 근방에 있었어.)

104009 #1 그거는 장전 목장. 그레 허믄 이제 쉐, 놈으 쉐 튀어나믄 또 목장끼리덜 싸우멍 허믄 이녁 쉐여, 놈우 쉐여, 나중에 통지 왕은에, 문 강 이녁 쉐인 거 확인허고 허멍.(그거는 '장전' 목장. 그리 하면 이제 소, 남의 소 튀어나면 또 목장끼리들 싸우면서 하면 이녁 소여, 남의 소여, 나중에 통지 와서, 모두 가서 이녁 소인 거 확인하고 하면서.)

104009 #2 그디서 기별 옵니다. 저 쉐 일러먹으난 기별 와. (거기서 기별 옵니다. 저 소 잃어버리니까 기별 와.)

104009 @ 낙인은 누가 찍어?(낙인은 누가 찍어?)

104009 #1 낙인은 집이서도 허고, 보통 허믄 동네마다 낙인 하나 놔뒀당, 거 가믄 빌어당 이녁대로 웬만허믄 찍엇수다, 우린. 게도 그거 낙인찍을 때도 벌겅케 궛당은에 영 메다 엉치레 그냥 재게 콱 찍으지 아이허믄 쉐발 맞아.(낙인은 집에서도 하고, 보통

158) '노꼬메'는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에 있는 오름 이름이다.

하면 동네마다 낙인 하나 놔뒀다가, 거 가면빌어다가 이녁대로 웬만하면 찍었습니다, 우린. 그래도 그거 낙인찍을 때도 벌겋게 구웠다가 이렇게 메다 엉덩이에 그냥 빨리 콱 찍지 아니하면 소발 맞아.)

104009 @ 저 사름 마을 이름 적엄신가? 낙인에.(저 사람 마을 이름 적고 있는가? 낙인에.)

104009 #1 아니, 게 낙인에 이녁 개인으로 헌 건 예를 들엉 허믄 뭐 이 허고, 구엄은 날 일, 아, 흔 일 욮이 날 일헤영 옛 구자라고 써서. 구. 게믄 거.(아니, 게 낙인에 이녁 개인으로 한 건 예를 들어서 하면 뭐 이 하고, '구엄'은 날 일, 아, 한 일 옆에 날 일해서 옛 구 자라고 썼지. 구, 그러면 거.)

104009 @ 구엄리 쉐란 것 알기 위해서.('구엄리' 소라는 거 알기 위해서.)

104009 #1 예, 구 자 헹 그거 낙인 콕 찍곡 헷수다. 그것도 강 낙인 헌 디 강 헤 와사, 멧 사름 이제.(예, 구 자 해서 그거 낙인 콕 찍고 했습니다. 그것도 가서 낙인 하는데 가서 해 와야, 몇 사람 이제.)

104009 @ 일름표나 다름어신게.(이름표나 다름없네요.)

104009 #1 예, 그거예 혼번 잘헤 노믄 생전 첨, 쉐 일생동안 낙인 지와지질 아이허주.(예, 그거요 한번 잘해 놓으면 생전 참, 소 일생동안 낙인 지워지지를 안 하지.)

104009 @ 쉐덜은 비슷비슷허주게. 사름은 얼굴 틀리주마는, 쉐덜은 비슷비슷허난.(소들은 비슷비슷하지요. 사람은 얼굴 다르지만, 소들은 비슷비슷하니까.)

104009 #1 아이고, 쉐는 낙인 아이허믄 잘 모르고, 이녁쉐여 놈우 쉐여.(아이고, 소는 낙인 안 하면 잘 모르고, 이녁 소여 남의 소여.)

104009 @ 자주 보는 것도 아니고.(자주 보는 것도 아니고.)

104009 #1 싸우멍.(싸우면서.)

104009 #2 게난 기별 옵니다. 쉐 일러먹엉, 쉐 어디 달아나부러시난 쉐 영, 기별 오젱 헤도 전날, 그날 못 왕, 누게 쉐 보레 간 사름신디 메칠 후제사 골으믄.(그러니까 기별 옵니다. 소 잃어버려서, 소 어디 달아나 버렸으니까 소 이렇게, 기별 오려고 해도 전날, 그날 못 와서, 누구 소 보러 간 사람에게 며칠 후에야 말하면.)

104009 @ 쉐는 주인을 알아.(소는 주인을 알아.)

104009 #1 예, 알고말고.(예, 알고말고.)

104009 @ 나도.(나도.)

104009 #2 메칠 후제사 골아, 강 봥.(며칠 후에야 말해, 가서 봐서.)

104009 @ 조팟 볼릴 때 그때, 초등학교 때주. 목장이 강은에 쉐 몰앙 오렌. 아이고, 그때 안개 팡팡 끼고 올라가니까양, 쉐가 딱 나를 보는 거라.(조밭 밟을 때 그때, 초등학교 때지. 목장에 가서 소 몰아서 오라고. 아이고, 그때 안개 팡팡 끼고 올라가니까요, 소가 딱 나를 보는 거야.)

104009 #2 아.(아.)

104009 @ 거 나가 몰앙 와낫수다. 몰앙 그때, 이제 초등학생덜 강 목장에 올라강.(거 나가 몰아서 왔었습니다. 몰아서 그때, 이제 초등학생들 가서 목장에 올라가서.)

104009 #2 아이고, 첨.(아이고, 참.)

104009 @ 몰앙 오렌 허믄 몰앙 와질 건가?(몰아서 오라고 하면 몰아서 올 수 있을 건가?)

104009 #2 이제 고등학생도 못 몰아와.(이제 고등학생도 못 몰아와.)

104009 #1 고등학생도 못 가.(고등학생도 못 가.)

104009 #2 못 헤, 못 헤마씨.(못 해, 못 해요.)

104009 @ 나 혼자 간에 그냥.(나 혼자 가서 그냥.)

104009 #2 아이고, 거 참 대단허우다.(아이고, 거 참 대단합니다.)

104009 @ 몰안에 왓주마씨.(몰아서 왔어요.)

104009 #2 대단허우다.(대단합니다.)

104009 #1 게난 쉐 올릴 때 우리도 저 어린 때도 가난 기억이 서. 겐 놈우쉐영 ᄀᆞ찌 가난. 몰앙 가믄 놈우 쉐 트멍이 이녁 쉐 그디 강 잘 인계만 헤주믄 뒈난. 요건 누구네 쉐여. 게난 그 목감도 눈여기지 아이허믄 낙인 어신 건 그디서도 낙인 찍읍디다게. 낙인 어신 쉐가 이서, 게믄 낙인은 잘 쉐 받으멍 ᄆᆞ딱 적고, 어슨 거는 이제 어느 착에 신 거, 무슨 자 신 거, 요거 잘 알아야, 이제 뚠 쉐영 서꺼지지 아이허게.(그러니까 소 올릴 때 우리도 저 어린 때도 갔던 기억이 있어. 그래서 남의 소랑 같이 가니까. 몰아서 가면 남의 소 틈에 이녁 소 거기 가서 잘 인계만 해주면 되니까. 요건 누구네 소여. 그러니까 그 목감도 눈여기지 안 하면 낙인 없는 건 거기서도 낙인찍습디다. 낙인 없는 소가 있어, 그러면 낙인은 잘 소 받으면서 모두 적고, 없는 거는 이제 어느 쪽에 있는 거, 무슨 자 있는 거, 요거 잘 알아야, 이제 다른 소랑 섞어지지 안 하게.)

104009 #2 경 헨, 옛날도 그런 거 허멍.(그렇게 해서, 옛날도 그런 거 하면서.)

104010 @ 그다음에 쉐 질루멍 느꼇던 추억, 쉐 질루멍 ᄀᆞᆯ아줍서.(그다음에 소 기르면서 느꼈던 추억, 소 기르면서 말해주십시오.)

104010 #1 쉐는 구늉 쉐 신 거는 여간 잘못허당 사 노믄 밧 ᄀᆞ르칠 때, 게고양 양종덜은 ᄋᆞᆨ아, 쉐가 영 헹 양종 ᄀᆞ리치는 쉐 밧 갈당도양, 흔번 착 허믄, 영 돌아상 뒤터레 어떵 영 확 헹 멍엘 벗어불어.(소는 군흥 있는 거는 여간 잘못하다가 사 놓으면 밭 가르칠 때, 그리고 양종들은 약아, 소가 이렇게 해서 양종 가르치는 소 밭 갈다가도요, 한번 착 하면, 이렇게 돌아서서 뒤로 어떻게 확 해서 멍에를 벗어버려.)

104010 #2 멍에 채 ᄃᆞᆯ아난 저 어디레.(멍에 채 달아나서 저 어디로.)

104010 #1 ᄃᆞᆯ아나고, 밧 갈당 그냥 ᄃᆞᆯ아남저, 저 신작로로 헹 어디에 막 ᄃᆞᆯ아서 제우 강 심곡양.(달아나고, 밭 갈다가 그냥 달아나고 있다, 저 신작로로 해서 어디에 막 달려서 겨우 가서 잡고요.)

104010 #2 막 헹실머리 나쁜 쉐덜은.(아주 행실머리 나쁜 소들은.)

104010 #1 게난 이 아멩헤도 쉐는 이 토종쉐라사. 게난 이, 게고 저 양종덜ᄋᆞᆯ 재게 술지고 크긴 허우다. 뿔이영 거달거달거달헌덴 허영, 재게. 토종은 덜 커도 이제 순허곡. 우리도 방에 허단도 방엣혹더레 올라산 ᄆᆞᆫ 사름 캐우리멍, 아, 이거 영 올라삿당 쉐 그냥 사름 그냥 뿔로 받아.(그러니까 이 아무래도 소는 이 토종소라야. 그러니까 이, 그리

고 저 양종들은 빨리 살찌고 크긴 합니다. 뿔이랑 거달거달거달한다고 해서, 빨리. 토종은 덜 커도 이제 순하고. 우리도 방아 하다가도 방아확으로 올라가서 모두 사람 헤집으면서, 아, 이거 이렇게 올라섰다가 소 그냥 사람 그냥 뿔로 받아.)

104010 #2 막 거 ᄉᆞᆨ쉐게, ᄉᆞᆨ쉐.(마구 거 칡소요, 칡소.)

104010 #1 ᄉᆞᆨ쉐, 것도 구늉이 싯곡.(칡소, 것도 군흉이 있고.)

104010 #2 막 얼룩덜룩헌 쉐, 막 헹실 나쁜 거 사완. (아주 얼럭덜럭한 소, 아주 행실 나쁜 거 사서 왔어.)

104010 #1 구늉 쉐, ᄉᆞᆨ쉐 이제도 에 ᄉᆞᆨ쉐, 또 이 사름도 영 ᄀᆞᆯ으믄 뭐 허영, 송 씨라고 헹 ᄒᆞ끔 저 페라운 점이 핫수다게, 게 이 성 씨 거느리믄 안 뒛저. 에, 송개신디 ᄉᆞᆨ쉐 씨, 경 헹 나쁜 말도 셔나고 헌디.(군흉 소, 칡소 이제도 칡소, 또 이 사람도 이렇게 말하면 뭐 해서, 송 씨라고 해서 조금 저 까다로운 점이 많습니다, 게 이 성씨 거느리면 안 되겠다. 에, 송가에게 칡소 씨, 그렇게 해서 나쁜 말도 있었고 한데.)

104010 #2 나쁜 말도.(나쁜 말도.)

104010 #1 어떠튼 이 ᄉᆞᆨ쉐 씨는 알아주질 아니허여. 게고 이 저 양종.(어떻든 이 칡소 씨는 알아주지를 안 해. 그리고 이 저 양종.)

104010 #2 우린 저 쉐 어떵 헌 처리 알앗수가? 쉐만 질루믄.(우린 저 소 어떻게 한 줄 알았습니까? 소만 기르면.)

104010 #1 이 저 밧 ᄀᆞ르칠 때도 멩심헹양, 이 ᄉᆞᆨ쉐씨난 양종덜은 막 다른 쉐 닮지 아니허영, 다른 쉐 열흘 ᄀᆞ르쳠시믄 곱 스무날은 영 ᄀᆞ르쳐사 ᄒᆞ끔 수군군허주. 게 아니믄 말을 듣질 아니허여. (이 저 밭 가르칠 때도 명심해서요, 이 칡소씨니까 양종들은 막 다른 소 같지 아니해서, 다른 소 열흘 가르치고 있으면 곱 스무날은 이렇게 가르쳐야 조금 수군수군하지. 게 아니면 말을 듣지를 아니해.)

104010 @ 쉬엇당 허쿠다.(쉬었다가 하겠습니다.)

104010 #1 경 헙서. 허허허.(웃음)(그렇게 하세요. 허허허.(웃음))

말 기르기

104011 @ 거민 저 ᄆᆞᆯ에 대해서양, ᄆᆞᆯ은 어떵 질룹니까?(그러면 저 말에 대해서요, 말은 어떻게 기릅니까?)

104011 #1 ᄆᆞᆯ도 쉐나 ᄀᆞ뜨는디, 보통 여기서 ᄆᆞᆯ덜은 저 이 밧도 안 갈고 ᄆᆞᆯ이 쓰는 건 여기서 단지 뭐냐 ᄒᆞ믄, 밧이나 ᄇᆞᆯ리곡 뭐 이 저 뭐 ᄒᆞ주, 별로 여기서 ᄆᆞᆯ은 사름 탕 뎅이곡 뭐 ᄒᆞ는 거 웨에는 ᄆᆞᆯ이 쓰는 용도가 별로 엇어마씀. 게난 ᄆᆞᆯ은 하영 질루질 안 ᄒᆞ여마씀. 주로 쉐도 질루곡, ᄆᆞᆯ 질루는 거는.(말도 소나 같은데, 보통 여기서 말들은 저 이 밭도 안 갈고 말이 쓰는 건 여기서 단지 뭐냐 하면, 밭이나 밟고 뭐 이 저 뭐 하지, 별로 여기서 말은 사람 타서 다니고 뭐 하는 거 외에는 말이 쓰는 용도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말은 많이 기르지를 아니해요. 주로 소도 기르고, 말 기르는 거는.)

104011 @ 게난 ᄆᆞᆯ은 어디서 질롸?(그러니까 말은 어디서 길러요?)

104011 #1 물도 집의서 똑 쉐왕에 메곡 쉐나 마찬가지 똑ᄀᆞ찌 관리ᄒᆞ여.(말도 집에서 똑 외양간에 매고 소나 마찬가지 똑같이 관리해.)

104011 #2 겐디 해변더렌 잘 안 질롸.(그런데 해변으로는 잘 안 길러.)

104011 #1 물덜 해도 이 저 물 장시덜 여기서 ᄒᆞ영 ᄉᆞ믓 하영 받아당 저 육지에 나가믄 쉐, 물 구루마용으로 많이 나갑주게. 게믄 여기서 물 새끼 낭은에 좀 뭐행 ᄒᆞ믄 질루당 물 장시신디 프는 거.(말들 해도 이 저 말 장수들 여기서 해서 사뭇 많이 받아다가 저 육지에 나가면 소, 말 마차용으로 많이 나가지요. 그러면 여기서 말 새끼 낳아서 좀 뭐해서 하면 기르다가 말 장수에게 파는 거.)

104011 #2 그것이 하영 흡니다. 물 장시신디 풀아.(그것을 많이 합니다. 말 장수에게 팔아.)

104011 #1 이제 물 용도가 밧가는 건 쉐로 갈고, 구루마나 좀 물 구루마 ᄒᆞ는 사름 건 전문으로 ᄒᆞ는 사름덜. 물 구루마는 늘 이 쉐 닮지 안 ᄒᆞ영 집의 자가용으로.(이제 말 용도가 밭가는 건 소로 갈고, 마차나 좀 말 마차 하는 사람 건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 말 마차는 늘 이 소 같지 아니해서 집의 자가용으로.)

104011 #2 옛날 농사 지은 거 물 구루마 ᄒᆞ영 감제도 풀레 가곡.(옛날 농사 지은 거 말 마차 해서 고구마도 팔러 가고.)

104011 #1 그런 거 구루마용으로.(그런 거 마차용으로.)

104011 @ 목장에는 물 안 올리지양?(목장에는 말 안 올리지요?)

104011 #1 물 목장은 엇수다, 엇어.(말 목장은 없습니다, 없어.)

104011 #2 잘 들어보지 안 흔디, 육지레 풀레 가 물덜, 육지레.(잘 들어보지 안 했는데, 육지로 팔러 가 말들, 육지로.)

104011 #1 아니, 그건 물 장시덜 받앙, 물 장시덜 키왕, 건 구루마용으로. 육지레 가믄 더러 물 구루마 ᄒᆞ지 안 흡니까? 엿날 차덜 별로 엇인 때 물 구루마. 여기서도 물 구루마용으로 영업용으로 ᄒᆞ는 사름덜 셔낫수다.(아니, 그건 말 장수들 받아서, 말 장수들 키워서, 건 마차용으로. 육지로 가면 더러 말 마차 하지 아니합니까? 옛날 차들 별로 없을 때 말 마차. 여기서도 말 마차용으로 영업용으로 하는 사람들 있었습니다.)

104011 #2 게난 거 돈 받으멍.(그러니까 거 돈 받으면서.)

104011 #1 ᄒᆞᆫ 번 어디ᄁᆞ지 시꺼 가믄 얼마 받곡. 쉐 촘 차 엇어놓니까, 그때는.(한 번 어디까지 싣고 가면 얼마 받고. 소 참 차 없었으니까, 그때는.)

104011 #2 쉐 엇어근에 쉐에 짐 시끄지 못ᄒᆞ는 할망덜은 물 구루마 빌어근에, 무사이디 동석이 아방네영 안 해서.(소 없어서 소에 짐 신지 못하는 할머니들은 말 마차 빌어서, 왜 여기 동석이 아버지네랑 안 했어.)

104011 #1 물 구루마 해낫주.(말 마차 했었지.)

104011 #2 이제 우리보단, 다 죽어불엇수다만은 그 하르방덜 물 구루마 ᄒᆞ여근에 보리 강 시꺼오곡, 이제 조 ᄒᆞ믄 조 시꺼오곡, 이제 할망덜만 쉐 엇곡 쉐에, 저 멕에 담앙 못 ᄒᆞ는 할망덜이 시믄 그 사름덜 돈 받으멍 ᄒᆞ여마씀. 경 ᄒᆞ곡 저 도새기 풀레 물 구루마 빌령 가곡, 게믄 도새길 주나 쏠을, 보릴 주나 쿰을 저 무시거 쿰을 줘사.(이제 우

리보단, 다 죽어버렸습니다만 그 할아버지들 말 마차 해서 보리 가서 실어오고, 이제 조 하면 조 실어오, 이제 할머니들만 소 없고 소에, 저 멱서리에 담아서 못 하는 할머니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 돈 받으면서 해요. 그렇게 하고 저 돼지 팔러 말 마차 빌려서 가고. 그러면 돼지를 주나 쌀을, 보리를 주나 품삯을 저 무엇 품삯을 줘야.)

104011 #1 장에 시꺼 가곡, 물 구루마용으로 요즘 저 차, 요즘은 차가 시난 해도 옛날사 차가 별로 셧수강? 흔 뭐 이 흔 부락에 차에가 엇어나십주게. 게믄 주로 물 구루마ᄒᆞ곡, 그자.(장에 실어 가고. 말 마차용으로 요즘 저 차, 요즘은 차가 있으니까 해도 옛날에야 차가 별로 있었습니까? 한 뭐 이 한 부락에 차가 없었었지요. 그러면 주로 말 마차하고, 그저.)

104011 #2 쉔 하영 메여낫수다만은.(소는 많이 매었었습니다만.)

104011 #1 쉔 ᄒᆞ믄 이녁도.(소는 하면 이녁도.)

104011 #2 물은 얼마 안 메여.(말은 얼마 안 매어.)

104011 #1 이녁 일 ᄒᆞ는 거는 쉐 구루마로 영 ᄒᆞ곡, 뒤에 구루마 메왕은에.(이녁 일 하는 거는 소 마차로 이렇게 하고, 뒤에 마차 메워서.)

104011 #2 물은양, ᄀᆞ르치기가 더 궂어.(말은요, 가르치기가 더 궂어.)

104011 #1 물이 페랍곡, 물은 아주 페라왕 ᄒᆞ꼼 ᄒᆞ믄 사름도 뒤돌아사멍 차불믄, 물 메엿당은에 이.(말이 까다롭고, 말은 아주 까다로워서 조금 하면 사람도 뒤돌아서면서 차버리면, 말은 매었다가 이.)

104011 #2 사름도 다친 사름이 막 하낫수다.(사람도 다친 사람이 아주 많았었습니다.)

104011 #1 물은 이 돌아사멍.(말은 이 돌아서면서.)

104011 #2 게난 집집마다 쉔 메멍.(그러니까 집집마다 소 매면서.)

104011 #1 싸울 때도 하주만 사름도 차불어.(싸울 때도 많지만 사람도 차버려.)

104011 #2 게난에.(그러니까.)

104011 #1 뒷발로.(뒷발로.)

104011 #2 물 장시가 둘 셔낫수다, 이디. 우리 씨집오기 전의도 경 물 장시신디, 또 우리 하르바님네도 물 질룅 관옥이 하르방이영 둘이 셔낫수다만은 풀앙 ᄒᆞ믄. 물은 이제 부두레, 부두에 물 몰아가믄 돈 얼마 주곡, 혹생 때. 그 하르방덜 어디 배로사 시껌신디 경 ᄒᆞ연. 이 아방도 해낫주게.(말 장수가 둘 있었습니다, 여기. 우리 시집오기 전에도 그렇게 말 장수에게, 또 우리 할아버지네도 말 길러서 관옥이 할아버지랑 둘이 있었습니다만 팔아서 하면. 말은 이제 부두로, 부두에 말 몰아가면 돈 얼마 주고, 학생 때. 그 할아버지들 어디 배로야 싣고 있는지 그렇게 해서. 이 '아방'도 했었지요.)

104011 #1 물 저 서부두ᄁᆞ지 몰아가믄 멧 ᄆᆞ리 ᄒᆞ믄 돈이 그때 천 원짜린 막 비싸고 ᄒᆞ난, 오백이여 이제 두 ᄆᆞ리 ᄒᆞ믄.(말 저 '서부두'까지 몰아가면 몇 마리 하면 돈이 그때 천 원짜리는 아주 비싸고 하니까, 오백 원이여 이제 두 마리 하면.)

104011 #2 오백원 햇져 춤, 천 원 받아.(오백 원 했다 참, 천 원 받아.)

104011 #1 천 원 받앙 오믄 큰돈입주게, 그땐 햇고. 그때는 고무신 하나에 뭐 칠팔

십 원 영 갈 땐디.(천 원 받아서 오면 큰돈이지요, 그땐 했고. 그때는 고무신 하나에 머 칠팔십 원 이렇게 갈 때인데.)

104011 @ 쉐 장시나 물 장시가 돈은 현금은 하영 가졍 다녓주게.(소 장수나 말 장수가 돈은 현금은 많이 가져서 다녔었지요.)

104011 #1 아이고, 사장이우다, 사장. 이디서 ᄒᆞ믄 장시는.(아이고, 사장입니다, 사장. 여기서 하면 장수는.)

104011 @ 우리 족은아버지가 옛날 쉐 장실 해나신디, 나도 그 저 우리 중문서.(우리 작은아버지가 옛날 소 장수를 했었는데, 나도 그 저 우리 '중문'서.)

104011 #1 예.(예.)

104011 @ 그때 저 대정 초등학교 아픠ᄁᆞ지 쉐 몰아가렌.(그때 저 '대정' 초등학교 앞까지 소 몰아가라고.)

104011 #2 몰아가믄 돈 받지.(몰아가면 돈 받지.)

104011 @ 쉐 ᄒᆞᆫ ᄆᆞ리 몰아가니까, 두 명이 ᄒᆞᆫ 사름이 천오백 원씩 받앗수다, 그때. 그때 천오백 원 ᄒᆞ민.(소 한 마리 몰아가니까, 두 명이 한 사람이 천오백 원씩 받았습니다, 그때. 그때 천오백 원 하면.)

104011 #1 커서.(컸어.)

104011 #2 천오백 원. 우린 천 원.(천오백 원. 우린 천 원.)

104011 @ 초등학생 때 천오백 원 ᄒᆞ민 엄청 큰 거우다게. 그 주넹이 강 ᄒᆞ루 강 벡 ᄆᆞ리 잡으면은 그때 이 원 오십 전이난에 이백오십 원벡이 안 뒈여.(초등학생 때 천오백 원 하면 엄청 큰 겁니다. 그 지네 가서 하루 가서 백 마리 잡으면 그때 이 원 오십 전이니까 이백오십 원밖에 안 돼.)

104011 #1 벡 ᄆᆞ리 잡앗자.(백 마리 잡아도.)

104011 @ 난 ᄒᆞ루에 비온 뒷날은 가근에 ᄒᆞᆫ 백 ᄆᆞ리 잡읍니다.(난 하루에 비온 뒷날은 가서 한 백 마리 잡습니다.)

104011 #1 것도 소낭밧듸 강 담 일리멍.(것도 소나무밭에 가서 담 일으키면서.)

104011 @ 게난 막 그냥 일러불곡.(그러니까 마구 그냥 일으켜버리고.)

104012 @ 경 ᄒᆞ곡양, 그 물 종류, 물 종류에 대ᄒᆞ영 ᄒᆞᆫ번 ᄀᆞᆯ아줍서.(그렇게 하고요, 그 말 종류, 말 종류에 대하여서 한번 말해주세요.)

104012 #1 물 종류는 잘 몰랑. 가레물 뭐 이 저 무신 빈직빈직ᄒᆞᆫ 그 저 색깔ᄒᆞᆫ 물이 그.(말 종류는 잘 몰라서. 가라말 뭐 이 저 무슨 반짝반짝한 그 저 색깔한 말이 그.)

104012 #2 무신 물이옌 해라, 저 무신 물.(무슨 말이라고 하더라, 저 무슨 말.)

104012 @ 가레물 거멍ᄒᆞᆫ 거.(가라말 검은 거.)

104012 #2 가레물ᄒᆞ곡 이제.(가라말하고 이제.)

104012 @ 그다음에 뭐 저 벌겅ᄒᆞᆫ 건?(그다음에 뭐 저 벌건 건?)

104012 #1 것이 이제.(것이 이제.)

104012 #2 청, 어.(청, 어.)

104012 #1 청대물은 이제.(청총마는 이제.)

104012 @ 청대ᄆᆞᆯ, 청대ᄆᆞᆯ도 잇어.(청총마, 청총마도 있어.)

104012 #1 가레ᄆᆞᆯ, 청대ᄆᆞᆯ 이 노랑ᄒᆞᆫ ᄆᆞᆯ이 무시거 나 원.(가라말, 청총마 이 노랑한 말이 무엇 나 원.)

104012 #2 ᄆᆞᆯ덜은양, ᄆᆞᆫᄆᆞᆫ 안 ᄒᆞ연 못 질롸난. 쉐보단도 더 페라왕 ᄒᆞ지 구졍양, 경 ᄒᆞ곡.(말들은요, 모두모두 안 해서 못 길렀렀어. 소보다도 더 까다로워서 하지 궂어서요, 그렇게 하고.)

104012 #1 ᄆᆞᆯ은 경 ᄒᆞ곡 이.(말은 그렇게 하고 이.)

104012 #2 용도가 엇어, 이제. 밧도 못 갈곡.(용도가 없어, 이제. 밭도 못 갈고.)

104012 #1 밧 ᄇᆞᆯ리곡 그자.(밭 밟고 그저.)

104013 @ ᄆᆞᆯ은 어떵 이용홉니까?(말은 어떻게 이용합니까?)

104013 #1 ᄆᆞᆯ 이디선 그자 주로 ᄒᆞ는 건 ᄆᆞᆯ 구루마 이 전문으로 ᄒᆞ영 ᄒᆞ곡, 또 밧 ᄇᆞᆯ릴 때도 ᄆᆞᆯ 목장에 올렷당.(말은 여기선 그저 주로 하는 거는 말 마차 이 전문으로 해서 하고, 또 밭 밟을 때도 말 목장에 올렸다가.)

104013 #2 조팟.(조밭.)

104013 #1 조팟 ᄇᆞᆯ릴 때 이제 ᄆᆞᆯ덜 몰아당 ᄒᆞ를 ᄒᆞ믄 어느, 오늘은 누구네 밧, 누구네 밧 ᄒᆞ믄 막 조 짱 것도양, ᄇᆞᆯ리는 건 ᄒᆞ를에 멧 밧 ᄇᆞᆯ립주게. 막 ᄆᆞᆯ 대여섯 ᄆᆞ리 해 놓믄, 몰멍. 주로 뭐 경 ᄒᆞ곡 이디서 ᄆᆞᆯ 혼 건 어디 제주시 ᄀᆞ뜬 딘 보믄 ᄆᆞᆯ로 밧 간덴 ᄒᆞ여도 여기선 쉐 이시난.(조밭 밟을 때 이제 말들 몰아다가 하루 하면 어느, 오늘은 누구네 밭, 누구네 밭 하면 막 조 짜서 것도요, 밟는 건 하루에 몇 밭 밟지요. 마구 말 대여섯 마리 해 놓으면, 몰면서. 주로 뭐 그렇게 하고 여기서 말 하는 건 어디 제주시 같은 데 보면 말로 밭 간다고 해도 여기선 소 있으니까.)

104013 #2 ᄆᆞᆯ 구루마 ᄒᆞ영 시에도 사름덜 가낫수다.(말 마차 해서 시에도 사람들 갔었습니다.)

104013 #1 ᄆᆞᆯ 구루마사.(말 마차야.)

104013 #2 경 장에 가멍 차 엇이난 ᄆᆞᆯ 구루마 탕 강 장에 뭐 풀레 강 밤의 ᄇᆞᆯ가가믄.(그렇게 장에 가면서 차 없으니까 말 마차 타서 가서 장에 뭐 팔러 가서 밤에 밝아가면.)

104013 @ 우리도 ᄆᆞᆯ로는 밧 안 갈아.(우리도 말로는 밭 안 갈아.)

104013 #1 시에선 연병장에 갈앗젠 우리 웨삼춘네 ᄒᆞ여도 건 소문만.(시에서는 연병장에 갈았다고 우리 외삼촌네 해도 건 소문만.)

104013 @ 이 내창에 ᄆᆞᆯ덜이 하영 내려와낫어. 경 ᄒᆞ민양 동네 아이덜.(이 냇가에 말들이 많이 내려왔었어. 그렇게 하면요 동네 아이들.)

104013 #2 ᄆᆞ스왕.(무서워서.)

104013 @ 돌멩이 들렁 ᄆᆞᆯ 마칠락.(돌멩이 들러서 말 마칠락.)

104013 #1 ᄆᆞᆯ은 막 물 먹는 디 가믄 둥굴어 놓믄 물이 그냥 막 흑탕. 똑 물 신디 가믄 ᄆᆞᆯ은 이 쉐 닮지 안 ᄒᆞ영 그냥 막 둥굴엉 몸 ᄀᆞᆷ으멍 해놓믄 저 흑탕물 막 그자 이 구진 물 ᄆᆞᆫ 지곡 해가지고, ᄆᆞᆯ은 게난 이제. 게난 여기 ᄆᆞᆯ 장시가 혼 멧 사름 셔 놓난

그 사름덜은 받아놩은에, ᄉᆞ방엣 거 막 받앙 ᄆᆞᆯ을 멥주게.(말은 마구 물 먹는 데 가면 뒁굴어 놓으면 물이 그냥 아주 흙탕. 똑 물 있는데 가면 말은 이 소 같지 아니해서 그냥 마구 뒁굴어서 몸 감으면서 해놓으면 저 흙탕물 마구 그저 이 궂은 물 모두 지고 해 가지고, 말은 그러니까 이에. 그러니까 여기 말 장수가 한 몇 사람 있어 놓으니까 그 사람들은 받아놔서, 사방에 거 마구 받아서 말을 매지요.)

104013 #2 창꼴.(창고를.)

104013 #1 창꼬 ᄒᆞ영 막 메 놓믄.(창고 해서 마구 매 놓으면.)

104013 #2 창꼬가 아니고, 저 ᄂᆞ람지 집 ᄒᆞ영.(창고가 아니고, 저 노람지 집 해서.)

104013 #1 요 사름덜이양, 그 번 ᄒᆞ영 해놓믄 쉐 먹을 풀도 ᄆᆞᆯ은 굽으로 끈어먹지 안 ᄒᆞ니까. 쉔 우의로 속속. ᄆᆞᆯ 먹어난 딘 먹을 것이 없어. 게난 이디서도 아이고 저 ᄆᆞᆯ 번ᄒᆞ믄 영 ᄒᆞ멍 춤 자꾸 욕해지곡.(이 사람들이요, 그 번갈아서 해놓으면 소 먹을 풀도 말은 밑으로 끊어먹지 아니하니까. 소는 위로 속속. 말 먹었던 데는 먹을 것이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도 아이고 저 말 번하면 이렇게 하면서 참 욕해지고.)

104013 #2 ᄆᆞᆯ 장신 막 인심이 엇어낫수다, 잇날.(말 장수는 아주 인심이 없었습니다, 옛날.)

104013 #1 ᄆᆞᆯ 장시옌 ᄒᆞ믄 춤, 이 좋게 생각을 안 ᄒᆞ여져.(말 장수라고 하면 참, 이 좋게 생각을 안 하지요.)

104013 #2 ᄆᆞᆯ이 그추룩 멘들아 놓난양, 사름도 경 인심 엇어부난. ᄆᆞᆯ이 그추룩 인심 엇어가난 사름아울라 경.(말이 그처럼 만들어 놓으니까요, 사람도 그렇게 인심 없어버리니까. 말이 그처럼 인심 없어서 사람도 그렇게.)

104013 #1 ᄆᆞᆯ 장시네 집ᄒᆞ믄 벌써 이 인정부떠가 박ᄒᆞ여.(말 장수네 집하면 벌써 이 인정부터가 박해.)

104013 #2 ᄆᆞᆯ이 박ᄒᆞ여마씀, 쉐 닮지 안 ᄒᆞ영. 게난 집집마다 메지도 안 ᄒᆞ곡. ᄆᆞᆯ 구루마 ᄒᆞᆫ 덴 댓 사름 셔근에 장의 무신거 풀레 갈 때 빌엉 가곡.(말이 박 하지요, 소 같지 안 해서. 그러니까 집집마다 매지도 않고. 말 마차 한다고 댓 사람 있어서 장에 무엇 팔러 갈 때 빌어서 가고.)

104013 #1 이디도 ᄒᆞ믄 쉐도 메곡, 저 ᄆᆞᆯ 장시 ᄒᆞ믄 그 이제 제주시 그 부두레 몰아 갑주. ᄆᆞᆯᄒᆞ믄 멧 ᄆᆞ리.(여기도 하면 소도 매고, 저 말 장수 하면 그 이제 제주시 그 부두로 몰아가지요. 말하면 몇 마리.)

104013 #2 산지[159]레, 잇날 산지.('산지'에, 옛날 '산지')

104013 #1 두 ᄆᆞ리, 시 ᄆᆞ리 ᄒᆞ영 영 야개기 영 메영은에. 춤 ᄆᆞᆯ, ᄆᆞᆯ은 ᄒᆞᆫ ᄆᆞ리 잘못ᄒᆞ믄 뚠 더레 막 가부니까 이거 우두머리 ᄆᆞᆯ을 잘 헤여사. 게난 그 이끄곡 ᄒᆞ영 가당 차 와놓믄 ᄆᆞᆯ은 쉐 닮지 안 ᄒᆞ영 잘 놀라마씨. 차 확 넘어갓당 차 와들랑 ᄒᆞ믄 그땐 멩심ᄒᆞ영 ᄆᆞᆯ도 몰아사.(두 마리, 세 마리 해서 이렇게 목 이렇게 매어서. 참 말, 말은 한 마리 잘못하면 다른 데로 마구 가버리니까 이거 우두머리 말을 잘 해야. 그러니까 그 이끌고 해서 가다가 차 와놓으면 말은 소 닮지 않아서 잘 놀라요. 차 확 넘어갔다가 차

159) '산지'는 제주시 건입동 '산젓개'와 '산젓물' 일대에 형성되었던 자연마을이다.

와들락 하면 그땐 명심해서 말도 몰아야.)

104014 @ 그다음에 물 나이 쉐영 틀리지 안 ᄒᆞ우꽈?(그다음에 말 나이 소랑 다르지 않습니까?)

104014 #1 물은 틀린디 그 물도 아가리로 봅디다, 니빨.(말은 다른데 그 말도 아가리로 봅디다, 이빨.)

104014 @ 혼 술은 뭐옌 ᄒᆞ여마씨?(한 살은 뭐라고 해요?)

104014 #2 이빨 ᄒᆞ나 ᄒᆞ믄 혼 술게.(이빨 하나 하면 한 살게.)

104014 @ 혼 술, 두 술 ᄒᆞ지 안 ᄒᆞ영.(한 살, 두 살 하지 아니해서.)

104014 #1 ᄆᆞᆼ생이 니는, ᄆᆞᆼ생인 잘 안 해놓난, 그거는 나이는 좀 그건 몰르겟네.(망아지 이는, 망아지는 잘 안 해놓으니까, 그거는 나이는 좀 그건 모르겠네.)

104014 #2 그 이빨 들렁 하나 낫져, 두 개 낫져 ᄒᆞ여.(그 이빨 들어서 하나 났다, 두 개 났다 해.)

104014 #1 물 ᄒᆞ믄 또 이 물이 보믄 거음[160] 낫젠 ᄒᆞ여마씨. 거음이 뭐냐 ᄒᆞ믄 이 니엄 잘 붓어. 게믄 여기서 보믄 그 쉐 파스 ᄒᆞ는 사름 데려당 ᄒᆞ믄, 검치 ᄒᆞ덴 해 가지고양, 니엄 붓엉 붕그랑ᄒᆞᆫ 거 그거 ᄆᆞᆫ 침 저 넙작ᄒᆞᆫ 무신 저 그 침으로 ᄆᆞᆫ 질렁은에 피빵 소곰 그레 데경 밀곡 ᄒᆞ믄. 게믄 뒷날부떠 풀도 먹곡. 풀 안 먹어 가믄 저거 물 거음 낫져. 영 거음 낫져 ᄒᆞ여 니빨에.(말 하면 또 이 말을 보면 '거음' 났다고 합니다. '거음'이 뭐냐 하면 이 잇몸 잘 부어. 그러면 여기서 보면 그 소 파스 하는 사람 데려다가 하면, 검침한다고 해서요, 잇몸 부어서 붕긋한 거 그거 모두 침 저 넓적한 무슨 저 그 침으로 모두 찔러서 피 빼서 소금 그리 묻혀서 밀고 하면. 그러면 뒷날부터 풀도 먹고. 풀 안 먹어 가면 저거 말 '거음' 났다. 이렇게 '거음' 났다 해서 이빨에.)

104014 @ 치감이나 마찬가지네.(치감이나 마찬가지네.)

104014 #1 치감, 치감.(치감, 치감.)

104014 @ 사름은 치감 ᄒᆞ면은 이 세우리로 ᄒᆞ영 막 밀엇주게.(사람은 치감 하면은 이 부추로 해서 마구 밀었지요.)

104014 #1 물은 겨난 닛굽 저 침으로 줘 나믄 막 피 나믄 소금행양, 그자 이 박박박 그냥 소금 막 ᄒᆞᆫ 줌 줴여오라 ᄒᆞ영 밀엉 해놓믄, 아, 그것이.(말은 그러니까 잇몸 저 침으로 줘 나면 마구 피 나면 소금해서요, 그저 이 박박박 그냥 소금 막 한 줌 쥐어 오라 해서 밀어서 해놓으면, 아, 그것이.)

104014 #2 딱 물덜 아가리 들르젠 ᄒᆞ믄.(딱 말들 아가리 들으려고 하면.)

104014 #1 경ᄒᆞ곡 너무 심ᄒᆞᆫ 거는 물, 물 자려.(그리고 너무 심한 거는 말, 말 자려.)

104014 #2 무꺼근에 눅져놩 ᄒᆞ지 안 ᄒᆞ믄.(묶어서 눕혀서 하지 않으면.)

104014 #1 물 자려근에 둘이 서이 딱 무꺼놩 아가리 벌려근에 겁주언에. 경 안 ᄒᆞ믄 막 발질ᄒᆞ멍 사름 차, 불라불어.(말 자려서 둘이 셋이 묶어놔서 아가리 벌려서 겁주어서. 그렇게 안 하면 마구 발길질하면서 사람 차, 밟아버려.)

160) '거음'은 이가 날 자리에 잇몸이 부어오르는 현상을 말하는 것 같다.

104015 @ 그다음에 ᄆᆞᆯ 질루우멍 느꼇던 추억 ᄀᆞᆯ아줍서.(그다음에 말 기르면서 느꼈던 추억 말해주세요.)

104015 #1 ᄆᆞᆯ은 우리도 이제 하영은 안 질롸나도 그 어옝 ᄒᆞ믄, 어린 때부떠 ᄒᆞ믄 ᄆᆞᆯ은 영 타는 거, 몽골식은 아니라도 ᄆᆞᆯ 뻔을 해낫수다게. 여기서 별로 이제 밧 가는 건 아무것도 이제 못 갈아도, ᄆᆞᆯ 질루왕 풀젠 ᄒᆞ영 ᄆᆞᆯ 뻔을 ᄒᆞᆸ주. 여기서 저 막 ᄆᆞᆯ 어더레 가믄 저 버는 밧덜 하믄 소낭밧이영, 이제 밥 쌍 강 그 저 다섯 집이여, 열 집이여 ᄒᆞ믄 아, 오널은 누게네 번? 영 ᄒᆞ믄 ᄆᆞᆫ딱 이제 가멍 저.(말은 우리도 이제 많이는 안 길렀어도 그 순식간 하면, 어릴 때부터 하면 말은 이렇게 타는 거, 몽골식은 아니라도 말 번을 했었습니다. 여기서 별로 이제 밭 가는 건 아무것도 이제 못 갈아도, 말 길러서 팔려고 해서 말 번을 하지요. 여기서 저 마구 말 어디로 가면 저 경작하는 밭들 하면 소나무밭이랑, 이제 밥 싸고 가서 그 저 다섯 집이야, 열 집이야 하면 아, 오늘은 누구네 번? 이렇게 하면 모두 이제 가면서 저.)

먹이

104016 @ 그 쉐ᄒᆞ고 ᄆᆞᆯ 먹이는 어떤 것덜이 잇수과?(그 소하고 말 먹이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104016 #1 쉐는 보통 저 촐 ᄒᆞ영, 청초렌 ᄒᆞ영 그 풀 무슨 비여당 먹곡. 경 안 ᄒᆞ영 ᄒᆞ믄 가을에 이제 팔월 추석 넘으믄 이 저 촐왓디 강 그 촐 비영은에 ᄆᆞᆯ리왓당은에 ᄒᆞ여다놩 집드레 눌엇당, 가을 뒈믄 그걸 이제 집의서도 청초 ᄒᆞ여당 비육쉐, 이제 술진 쉐덜 ᄒᆞ젠 ᄒᆞ믄 요거 썰멍, 썰멍 누까에, 이제 쉐 ᄀᆞ를 보리 해난 깍아난 ᄀᆞ를 누까 ᄀᆞ를 ᄒᆞ영 뿌리멍, 여기서 보통은 이제 육지 ᄀᆞ찌 솖진 안 ᄒᆞᆸ니다게. 이디선 누까 ᄀᆞ를 영 물 적정 쉐왕에 ᄒᆞ영 멕이곡. 또 이 콩 솖앙, 비육쉐는 솖앙 이제 멕이곡. 나중 막 뒈여 가믄 여기선 경 ᄒᆞᆸ디다. 재게 술지지 안 ᄒᆞ영 그게 잘못인디, 돗지름 막 ᄒᆞ여당 이제 그걸 잘 안 먹으믄 코에 영 들렁 아가리엔 막 대, 대롱 닮은 거, 대롱입주. 것에 질멍 이제 코에 영 들렁 강제로 멕여낫수다. ᄆᆞᆯ은 보통 저 이 생.(소는 보통 저 꼴 해서, 청초라고 해서 그 풀 무슨 베어다가 먹고. 그렇지 안 해서 하면 가을에 이제 팔월 추석 넘으면 이 저 꼴밭에 가서 그 꼴 베어서 말렸다가 해해다놔서 집에 쌓았다가, 가을 되면 그걸 이제 집에서도 청초 해다가 비육소, 이제 살찐 소들 하려고 하면 요거 썰면서, 썰면서 쌀겨에, 이제 소 가루를 보리 했던 깎았던 가루를 쌀겨 가루를 해서 뿌리면서, 여기서 보통은 이제 육지 같이 삶지는 아니합니다. 여기선 쌀겨 가루를 이렇게 물 적셔서 외양간에 해서 먹이고. 또 이 콩 삶아서, 비육소는 삶아서 이제 먹이고. 나중 마구 되어 가면 여기선 그렇게 합디다. 빨리 살찌지 않아서 그게 잘못인데, 돼지기름 마구 해다가 이제 그걸 잘 안 먹으면 코에 이렇게 들어서 아가리에는 마구 대, 대롱 같은 거, 대롱이지. 그것에 기르면서 이제 코에 이렇게 들어서 강제로 먹였었습니다. 말은 보통 저 이 생.)

104016 #2 ᄆᆞᆯ은 생 걸로 먹어마씸. 솖지 아니 ᄒᆞ영 생 거. 콩도 그냥 비왕 내불믄

딱딱딱딱 씹엉.(말은 생 걸로 먹여요. 삶지 아니해서 생 거. 콩도 그냥 부어서 내버리면 딱딱딱딱 씹어서.)

104016 #1 쉐 닮지 안 ᄒᆞ영 ᄆᆞᆯ은.(소 같지 아니해서 말은.)

104016 #2 니가 틀린고라.(이가 다른 게지.)

104016 #1 니가 쉐는 이 어금니가 어신디, ᄆᆞᆯ은 어금니가 셩 꼭꼭 씹엉 먹으믄.(이가 소는 이 어금니가 없는데, 말은 어금니가 있어서 꼭꼭 씹어서 먹으면.)

104016 #2 저 잘 ᄆᆞᆯ ᄒᆞ는 뒨 ᄆᆞᆯ이 아프나 어떵 새끼 나나 ᄒᆞ믄 ᄒᆞ끔 ᄉᆞᆯ망 것 멘들앙 주지, 경 안 ᄒᆞᆫ 때 쉐 닮지 안읍디다.(저 잘 말 하는 데는 말이 아프나 어떻게 새끼 낳나 하면 조금 삶아서 먹이 만들어서 주지, 그렇지 아니한 때 소 같지 않습디다.)

104016 #1 ᄆᆞᆯ은.(말은.)

104016 #2 우리도 오래 아니 질루와도, 어머님네 ᄒᆞ끔 ᄒᆞ멍 저 친정에 살멍 ᄒᆞ영 보믄 그냥 갖당 비와마씸, 할머님네. 저 쉐는 ᄉᆞᆯ망 자꾸 ᄒᆞ여도. 그 점이 ᄆᆞᆯ은 좋긴 좋아, 자꾸 숧지 안 ᄒᆞ영.(우리도 오래 아니 길러도, 어머님네 조금 하면서 저 친정에 살면서 해서 보면 그냥 갖다가 부어요, 할머님네. 저 소는 삶아서 자꾸 해도. 그 점이 말은 좋긴 좋아, 자꾸 삶지 아니해서.)

104016 #1 아프나 ᄒᆞ믄.(아프나 하면.)

104016 #2 아프나 새끼 나나 ᄒᆞᆫ 땐 무신 죽 쒕 줍니다.(아프나 새끼 낳나 한 땐 무슨 죽 쒀서 줍니다.)

104017 @ 그 촐은 어떵 마련홉니까?(그 꼴은 어떻게 마련합니까?)

104017 #1 촐은 게난 이제 촐왓듸, 이 저 촐왓 신 사름은 ᄒᆞ곡, 어슨 사름도 촐왓 어슨 땐 저 지금 쉐질 우터레 이제 촐덜 풀믄. (꼴은 그러니까 이제 꼴밭에, 이 저 꼴밭 있는 사람은 하고, 없는 사람도 꼴밭 없을 땐 저 지금 소길 위로 이제 꼴들 팔면.)

104017 #2 누게 거 사사.(누가 거 사야.)

104017 #1 상, 그거 비여당양, 그 팔뤌 추석 좀 전후ᄒᆞ영 이제 거믄 촐이 굳어집주게. 그걸 강 비영, 하니ᄇᆞ름도 불곡 촐이 이제 세믄 그걸 ᄒᆞᆫ 댓새만 비영 ᄆᆞᆯ리우믄, 그거 비여당 이제 집에 ᄆᆞᆫ 쉐로 시꺼 오곡, 사름으로 지곡ᄒᆞ멍. 이디서 촐왓듸도양 이디서 한 참.(사서, 그거 베어다가, 그 팔월 추석 좀 전후해서 이제 그러면 꼴이 굳어집니다. 그걸 가서 베어서, 북풍도 불고 꼴이 이제 쇠면 그걸 한 닷새만 베어서 말리면, 그거 베어다가 이제 집에 모두 소로 실어 오고, 사람으로 지고하면서. 여기서 꼴밭에도요 여기서 한 참.)

104017 #2 잘도 멀어.(잘도 멀어.)

104017 #1 어떤 뒨 두어 참 올라가 놓난 새벡의 가얍주게. 촐왓도 이거 강행군이우다게. 야튼 아침의 붉기 전의 가야 사누룽ᄒᆞᆫ 때 촐 비지, 늦엉 가믄 벌써 똠 나불곡. 붉기 전의 강 촐을 시작을 해사 그 촐 비여. 게난 막 사름 멧 사름 빌엉 가곡 ᄒᆞ영 요걸 ᄒᆞ여 놓믄.(어떤 데 두어 참 올라가 놓으니까 새벽에 가야지요. 꼴밭도 이거 강행군입니다. 하여튼 아침 밝기 전에 가야 시원할 때 꼴 베지, 늦어서 가면 벌써 땀 나버리고. 밝기 전에 가서 꼴을 시작을 해야 그 꼴 베어. 그러니까 마구 사람 몇 사람 빌어서 가고

해서 이걸 해 놓으면.)

104017 #2 경 ᄒᆞ곡 출도 저 비 맞아나믄 쉐 안 먹어마씸.(그렇게 하고 꼴도 저 비 맞아나면 소 안 먹어요.)

104017 #1 겨난 빌 안 맞쳥 성ᄒᆞ게 ᄒᆞ여야.(그러니까 비를 안 맞혀서 성하게 해야.)

104017 #2 비 안 맞쳥 퍼렁 곱닥ᄒᆞ게 ᄒᆞ영 ᄒᆞ젠 ᄒᆞ믄 밧듸 눌어근에.(비 안 맞혀서 파랗게 곱게 해서 하려고 하면 밭에 쌓아서.)

104017 #1 이제 그 날씨 좋아사.(이제 그 날씨 좋아야.)

104017 #2 새 비여당 우의 더껑, ᄂᆞ람지[161] 못 ᄒᆞ믄 비여당 더껑 놔둉. 날씨 경 해가믄 우의 건 젖어도 건 내불어근에 ᄆᆞᆯ 짓이나 쥐불곡 해도 저 퍼렁ᄒᆞᆫ 때 ᄒᆞ영 멕이지 안 ᄒᆞ믄 잘 안 먹어마씸, 쉐는.(띠 베어다가 위에 덮어서, 'ᄂᆞ람지' 못 하면 베어다가 덮어서 놔둬서. 날씨 그렇게 해가면 위에 거는 젖어도 그건 내버려서 말 짓이나 쥐 버리고 해도 저 파랄 때 해서 먹이지아니하면 잘 안 먹어요, 소는.)

104017 #1 우리도 저 아의덜은 오망오망 ᄒᆞ곡. 이제 촐왓된 가야지 누게 빌 사름, 놉 빌어도 잘 안 ᄒᆞ여 줍니다게, 사름덜이. 게믄 이제 ᄒᆞᆫ 멧 사름, 우리도 저 검은덕이오름[162]이옌 ᄒᆞᆫ 듸 강 그 서의 강 합쳥은에, 우리 ᄀᆞ찌 살멍 ᄒᆞ자. 아주 목장에 강 그 듸 밥행 먹으멍.(우리도 저 아이들은 올망졸망 하고. 이제 꼴밭에 가야지 누구 빌 사람, 놉 빌어도 잘 안 해 줍니다,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한 몇 사람, 우리도 저 '검은덕이오름'이라고 한 데 가서 그 셋이 가서 합쳐서, 우리 같이 살면서 하자. 아주 목장에 가서 거기서 밥해서 먹으면서.)

104017 #2 나멘 체음 나올 때난에.(라면 처음 나올 때니까.)

104017 #1 으에, 그거 ᄒᆞ영 나면죽 쒕 먹으멍.(으에, 그거 해서 라면죽 쒀서 먹으면서.)

104017 #2 나멘 솖으난 막 그거 좋덴.(라면 삶으니까 아주 그거 좋다고.)

104017 #1 아의 오망오망ᄒᆞ난 집사름은 촐 비레 못 가난 이제 서의 그냥 홀아방 식으로 살멍도 촐 해단 나중엔 막 ᄒᆞᆫ 눌썩 ᄒᆞ난.(아이 올망졸망하니까 집사람은 꼴 베러 못 가니까 이제 셋이 그냥 홀아버지 식으로 살면서도 꼴 해다가 나중엔 마구 한 가리씩 하니까.)

104017 #2 굴소곱에 강 살앙 그 때.(굴속에 가서 살면서 그때.)

104017 #1 이제 그 거 내쳇당은에 차로 시꺼 오멍 ᄒᆞ연에 ᄒᆞᆫ 집의 ᄒᆞᆫ 차썩.(이제 그거 내쳤다가 차로 실어 오면서 해서 한 집에 한 차씩.)

104017 #2 경 ᄒᆞ연 시꺼올 땐 도락꼬로, 저 화물차, 화물차도 막 ᄋᆞ까사. 어는 제 해 주켄 ᄒᆞ믄.(그렇게 해서 싣고올 땐 트럭으로, 저 화물차, 화물차도 막 ᄋᆞ까사. 언제 해 주겠다고 하면.)

104017 #1 엿날은 도라꾸옌 ᄒᆞ는디 도라꾸 ᄒᆞ믄 매번 엇어가지고양, 빌어사 여간 ᄒᆞ영 맞추지 안 ᄒᆞ믄 못 ᄒᆞ여, 하도 차덜 엇어놓난.(옛날은 트럭이라고 하는데 트럭 하면

161) 'ᄂᆞ람지'는 이엉과 비슷한 것으로 낟가리 위에 덮는 물건이다.
162) '검은덕이오름'은 제주시 애월읍 검은덕이마을에 있는 오름이다.

매번 없어가지고요, 빌어야 여간 해서 맞추지 아니하면 못 해, 하도 차들 없어놓으니까.)

104017 #2 겨난 하이고 쉐로 시꺼오당 그 작산 거 쉐로 못 시꺼오곡.(그러니까 아이고 소로 실어오다가 그 많은 거 소로 못 실어오고.)

104017 #1 겨난 보통은양, 그 놉 씨곡 짐 지믄 다 지곡, 쉐에 시끄곡. 쉐에 저 촐 시끄는 건 해낫주양?(그러니까 보통은요, 그 놉 쓰고 짐 지면 다 지고, 소에 싣고. 소에 저 꼴 싣는 거는 했었지요?)

104017 #2 질메 ᄒᆞ영 그자.(길마 해서 그저.)

104017 #1 질메 ᄒᆞ영 그 영 ᄒᆞᆫ 사름이 쉐 둘씩 몰곡 ᄒᆞ영 올 땐 ᄉᆞ뭇 쉐덜 질레 잘못ᄒᆞ믄 찔레[163] 부뜨곡 ᄒᆞ믄.(길마 해서 그 이렇게 한 사람이 소 둘씩 몰고 해서 올 땐 사뭇 소들 길에 잘못하면 '찔레' 붙고 하면.)

104017 #2 ᄒᆞᆫ 바린 시껑 옵니다. ᄒᆞᆫ 바린 시끄곡 지곡 ᄒᆞ믄 육십 못은 와. 쉐 양착 시끄곡 사름 지곡 ᄒᆞ믄.(한 바린 실어서 옵니다. 한 바린 싣고 지고 하면 육십 뭇은 와. 소 양쪽 싣고 사람 지고 하면.)

104017 #1 ᄒᆞᆫ 바리옌 ᄒᆞ믄.(한 바리라고 하면.)

104017 @ 예. ᄒᆞᆫ 바리, 쉐로는 육십 못.(예. 한 바리, 소로는 육십 뭇.)

104017 #1 육십 못.(육십 뭇.)

104017 #2 영 게 준준ᄒᆞ게 무끄믄 육십 못. 육십 못 시꺼, 촐게 쫄르곡 ᄒᆞ난.(이렇게 게 자잘하게 묶으면 육십 뭇. 육십 뭇 실어, 꼴게 짧고 하니까.)

104017 @ 게난 조는 멧 못 ᄒᆞ여?(그러니까 조는 몇 못 하죠?)

104017 #2 조는 그냥 이만썩 ᄒᆞ영 무끄난.(조는 그냥 이만씩 해서 묶으니까.)

104017 #1 마은 못고라 ᄒᆞᆫ 바리옌.(마흔 뭇더러 한 바리라고.)

104017 @ 조?(조?)

104017 #2 쓰무 못도 ᄒᆞ곡게.(스무 뭇도 하고요.)

104017 @ 아이고 조는 마은 못 못 시끕니다게.(아이고 조는 마흔 뭇 못 싣습니다.)

104017 #1 게나제나 쉐는 츰 촐은 육십 못 보통, 사름은 이 마은 나믄 못 지곡.(그러나저러나 소는 참 꼴은 육십 뭇 보통, 사람은 이 마흔 나면 못 지고.)

104017 @ 이 바리가 질메에 실을 수 있는 양이 바립주게, 양쪽에 해서. 촐은 양쪽에 쓰무 못씩, 보통 보민 어떤 디는 마은 못 ᄒᆞ는 듸도 잇고, 여긴 육십 못 햇다면은 촐.(이 바리가 길마에 실을 수 있는 양이 바리지요, 양쪽에 해서. 꼴은 양쪽에 스무 뭇씩, 보통 보면 어떤 데는 마흔 뭇 하는 데도 있고, 여긴 육십 뭇 했다면 꼴.)

104017 #1 촐 뭇이 줄아.(꼴 뭇이 잘아.)

104017 @ 못이 줄앗다는 겁주.(뭇이 잘았다는 거지.)

104017 #2 줄고 지러기 쫄르난에 시끌 때도 마주 부쪙. 마주 부쪙 영 시꺼.(잘고 길이가 짧으니까 실을 때도 마주 붙여서. 마주 붙여서 이렇게 실어.)

104017 #1 잘 아니 ᄒᆞ믄 요것이.(잘 안 하면 요것이.)

163) '찔레'는 소끼리 뿔로 받으며 싸우는 일을 말한다.

104017 #2 오당 빠지곡 ᄒᆞ여.(오다가 빼지고 해.)

104017 #1 오당 빠지곡.(오다가 빼지고.)

104017 @ 거난 배를 잘 무꺼야주게.(그러니까 참바를 잘 묶어야지요.)

104017 #2 경 오젠 ᄒᆞ믄양, 쉔 재게 가곡, 사름은 지믄 돌팡[164]에 멧 번 쉬영 졍 오곡, 경 안 ᄒᆞ믄 져 오질 못 ᄒᆞ여. 옺어 오질 못 ᄒᆞ는 따문에 짐도 지곡, 쉐도 시끄곡.(그렇게 오려고 하면요, 소는 빨리 가고, 사람은 지면 '돌팡'에 몇 번 쉬어서 져서 오고, 그렇게 안 하면 져 오질 못 해. 가져 오질 못 하는 때문에 짐도 지고 소도 싣고.)

104017 #1 게난 ᄒᆞᆫ 바리.(그러니까 한 바리.)

104017 #2 ᄒᆞᆫ 바리 햇자.(한 바리 해봐야.)

104017 #1 촐 ᄒᆞ젠 ᄒᆞ믄 보통은 이 열흘, 놉 못 빌곡 ᄒᆞ믄 보름도 ᄒᆞ곡 ᄒᆞ는디. 이거 젤 얼먹는 건 촐 ᄒᆞᆯ 때벳기 사름 얼먹어 해변 사름. 뭐 막 강 ᄒᆞ를 ᄒᆞ영 비여야지. 뒷날은 또 어제 빈 건 이제 더러 성ᄒᆞᆫ 걸로 무꺼가멍, 또 비곡 해가믄양, 경ᄒᆞ곡 졸바로 밥도 못 먹곡 아침 새벡이.(꼴 하려고 하면 보통은 이 열흘, 놉 못 빌고 하면 보름도 하고 하는데. 이거 젤 얼먹는 건 꼴 할 때밖에 사람 얼먹어 해변 사람. 뭐 마구 가서 하루 해서 베어야지. 뒷날은 또 어제 벤 거는 이제 더러 성한 걸로 묶어가면서, 또 베고 해가면요, 그리고 똑바로 밥도 못 먹고 아침 새벽에.)

104017 #2 나멘 질 체얌 날 때우다게.(라면 제일 처음 날 때입니다.)

104017 #1 촐만 해지믄 좋아.(꼴만 해지면 좋아.)

104017 #2 나멘 ᄒᆞ믄 맛 좋덴 먹어낫수다만은.(라면 하면 맛 좋다고 먹었었습니다만.)

104018 @ 거민양, 촐 비는 거에 대ᄒᆞ영 아까도 ᄀᆞᆯ앗주만은 ᄒᆞᆫ번 더 ᄀᆞᆯ아봅서.(그러면요, 꼴 베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아까도 말했지만 한번 더 말해주세요.)

104018 #1 촐은 팔월절 들엉, 입추. 팔월절 들믄 이제 뭐이냐 그 저 자골촐 말고.(꼴은 팔월절 들어서, 입추. 팔월절 들면 이제 뭐냐 그 저 자귀풀꼴 말고.)

104018 #2 새촐.(띠꼴.)

104018 #1 아니 그건.(아니 그건.)

104018 #2 새로 ᄒᆞᆫ 것도 새촐 해낫주게.(띠로 한 것도 띠꼴 했었지요.)

104018 #1 하여튼 촐왓듸 촐보다 전의 ᄒᆞ는 촐이 잇수다. 그건 머냐 ᄒᆞ믄 이제 새왓 가부레기. 새왓이 믄 비당 나중에 끗나가믄, 이건 촐로 비여얍주. 게믄 요건 너무 세여 불믄 안 먹어, ᄆᆞ쉬가. 게난 건 입추 전에 비여사 ᄒᆞ곡. 그다음에 촐왓듸 촐은 이제 비믄 입추 넘엉, 여기선 보통 저 ᄒᆞ다 보믄 똑 팔월 추석 멩질이 ᄀᆞ찌 드는 수가 만해마씨. 게 우리도 멩질 해 먹으믄 그냥 뒷날은 촐왓듸 가야 ᄒᆞ여, 그건 어쩔 수 엇어. 경ᄒᆞ당 날씨 이제 ᄀᆞ찌 예보가 엇이 해 놓믄 비라도 와 놓믄 요건 ᄒᆞ를이라도 성케 해야 ᄒᆞ는 때문에, 이건 양식이난 쉐 양식.(하여튼 꼴밭에 꼴보다 전에 하는 꼴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이제 띠밭 띠를 수확할 수 없는 곳. 띠밭이 모두 베다가 나중에 끝나

164) '돌팡'은 말을 타고 내리거나 짐을 지고 부리거나 할 적에 대(臺)가 되게끔 놓인 넓적한 큰 돌 따위이다.

가면, 이건 꼴로 베어야지요. 그러면 요건 너무 쇠어버리면 안 먹어, 마소가. 그러니까 건 입추 전에 베어야 하고. 그다음에 꼴밭에 꼴은 이제 베면 입추 넘어서, 여기선 보통 저 하다 보면 똑 팔월 추석 명절이 같이 드는 수가 많아요. 그렇게 우리도 명절 해 먹으면 그냥 뒷날은 꼴밭에 가야 해, 그건 어쩔 수 없어. 그렇게 하다가 날씨 이제 같이 일기 예보가 없이 해 놓으면 비라도 와 놓으면 요건 하루라도 성하게 해야 하는 때문에, 이건 양식이니까 소 양식.)

104018 #2 할망덜 둘 빌어당 촐 비멍.(할머니들 둘 빌어다가 꼴 베면서.)

104018 @ 거 촐 어느 정도 해 봅디강?(거 꼴 어느 정도 해 봤습니까?)

104018 #1 우리도.(우리도.)

104018 #2 촐 하영 해낫수다.(꼴 많이 했었습니다.)

104018 #1 촐 한두 눌썩, 이제 눌이옌 ᄒᆞ믄 어느 크긴 ᄒᆞ우다만은, 게도 이제 서른 바리 촐이여, 뭐 마은 바리 촐이여.(꼴 한두 가리씩, 이제 가리라고 하면 어느 크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제 서른 바리 꼴이야, 뭐 마흔 바리 꼴이야.)

104018 #2 그추룩 해낫수다.(그처럼 했었습니다.)

104018 #1 영 ᄒᆞᆫ 눌 ᄒᆞ믄, 양쪽에 그득ᄒᆞ게 눌엉 ᄒᆞ믄, 그 촐을 경 해지믄 마음이 미두ᄒᆞ여마씨. 우선은 양식이.(이렇게 한 가리 하면. 양쪽에 가득하게 쌓아서 하면, 그 꼴을 그렇게 해지면 마음이 안심하지요. 우선은 양식이.)

104018 #2 쉐 양식이 해졋다 ᄒᆞ여근에.(소 양식을 해졌다 해서.)

104018 #1 그렇게 해 놓니까.(그렇게 해 놓으니까.)

104019 @ 거난 촐 운반ᄒᆞᆯ 때는?(그러니까 꼴 운반할 때는?)

104019 #1 촐을 운반ᄒᆞᆯ 때엔 주루 저 쉐에 시끄곡, 지곡.(꼴을 운반할 때에는 주로 저 소에 싣고, 지고.)

104019 #2 졍 ᄂᆞ리와사주, 무껑 알러레.(져서 내려와야지 묶어서 아래로.)

104019 @ 촐 비믄 메칠이믄 ᄆᆞᆯ라?(꼴 베면 며칠이면 말라요?)

104019 #1 아, 그때 하늬불곡 ᄒᆞ믄양, 하늬ᄇᆞ름 안 불믄 재게 안 ᄆᆞᆯ르는디, 추석 넘엉 이제 입추 지낭 그 하늬 불어놓믄 ᄒᆞᆫ 이틀이믄 ᄆᆞᆯ라마씨.(아 그때 북풍불고 하면요, 북풍 안 불면 빨리 안 마르는데, 추석 넘어서 이제 입추 지나서 그 북풍 불어 놓으면 한 이틀이면 말라요.)

104019 #2 동산 우곡게, 촐왓덜은.(동산 위에고, 꼴밭들은.)

104019 #1 그냥 아래 뭐 날씨 ᄆᆞᆯ르곡 ᄒᆞ믄 성ᄒᆞ게 거는 무꺼 놓믄 파랑케 고왕은에 그냥 구싱ᄒᆞ게 쉐덜토 먹읍주.(그냥 아래 뭐 날씨 마르고 하면 성하게 거는 묶어 놓으면 파랑하게 고와서 그냥 구수하게 소들도 먹지요.)

104019 @ 경 ᄒᆞ여근에 이제 께로 무꺼야 뒐 거 아니라.(그렇게 해서 이제 매끼로 묶어야 될 거 아니라.)

104019 #1 께는.(매끼는.)

104019 @ 께는 새로 햇수과?(매기는 띠로 했습니까?)

104019 #1 촐 ᄒᆞ멍 진 걸로.(꼴 하면서 긴 걸로.)

104019 #2 촐, 촐.(꼴, 꼴.)

104019 @ 게 새네이.(그거 띠네요.)

104019 #1 진 걸로 영 봉 ᄒᆞ꼼 진 걸로 따으멍. 게난 저 하영 ᄒᆞ젠 ᄒᆞ믄.(긴 걸로 이렇게 봐서 조금 긴 걸로 따면서. 그러니까 저 많이 하려고 하면.)

104019 #2 크겐 못 무꺼, 똑 요만썩.(크게는 못 묶어, 똑 요만씩.)

104019 #1 새덜 신 듸, 새 신 듸 ᄒᆞ꼼 구석 ᄀᆞ뜬 듸 해당, 무생이 뒈왓젠 ᄒᆞ여. 무생이 뒈왕 하영 무껑 놔뒷당 촐 무끌 땐 그거 혹혹 앗아내멍 무끕주게. 게난 촐 무끄기 전의 무생이 하영 뒈왕 놔둬, 게믄 거기 무생이가 세여봉 멧 개 ᄒᆞ믄.(띠들 있는 데, 띠 있는 데 조금 구석 같은 데 해다가, 매끼 비틀었다고 해. 매끼 비틀어서 많이 묶어서 놔뒀다가 꼴 묶을 땐 그거 혹혹 앗아내면서 묶습니다. 그러니까 꼴 묶기 전에 매끼 많이 비틀어서 놔둬, 그러면 거기 매끼 세어봐서 몇 개 하면.)

104019 @ 데명 놔둬?(쌓아서 놔둬?)

104019 #1 무껑 놔뒷당 날씨가 좋으믄 ᄒᆞ곡, 게 아니믄 저 더러.(묶어서 놔뒀다가 날씨가 좋으면 하고, 그렇게 아니면 저 더러.)

104019 @ 운반ᄒᆞ여야 홀 거 아니우꽈?(운반해야 할 거 아닙니까?)

104019 #1 눌곡.(쌓고.)

104019 @ 어디? 밧듸 눌엉?(어디? 밭에 쌓아서?)

104019 #1 밧듸. 경 일어부는 수도 많곡.(밭에. 그렇게 잃어버리는 수도 많고.)

104019 @ 집의 가져와야 홀 거 아니우꽈?(집에 가져와야 할 거 아닙니까?)

104019 #1 집의 가져옴도.(집에 가져오기도.)

104019 #2 알러레 져 내려 와사주기.(아래로 져 내려 와야지요.)

104019 #1 어디 구루마도 엇인 집덜은 구루마 못 빌믄 쉐로 빌엉은에 두세 ᄆᆞ리썩 쉐 ᄒᆞ영, 몰곡 지곡 ᄒᆞ영 식구덜 집더레 운반해 오곡. 게믄 구루마 못 빈 집은 ᄒᆞ를 다 비영은 두 번, 시 번, 보통 시 번 ᄒᆞ믄 밤중.(어디 마차도 없는 집들은 마차 못 빌면 소로 빌어서 두세 마리씩 소 해서, 몰고 지고 해서 식구들 집으로 운반해 오고. 그러면 마차 못 빈 집은 하루 다 베어서 두 번, 세 번, 보통 세 번 하면 밤중.)

104019 #2 시 번썩은 멀어.(세 번씩은 멀어.)

104019 #1 두 번. 아침 뒈영 낮이영 정심때도 강은에 촐 무끄믄 강 시꺼오곡, 경 ᄒᆞ연. 눌엇당 해 오믄 좀 틈 장은에 ᄒᆞ믄 시끄기도 좋아 납조록ᄒᆞ영, 곧 무끈 것보단(두 번. 아침 되어서 낮이랑 점심때도 가서 꼴 묶으면 가서 실어 오고, 그렇게 해서. 쌓았다가 해 오면 조금 뜸 들여 하면 싣기도 좋아 납작해서, 곧 묶은 것보다는.)

104019 #2 구루마 빌려진 땐 질 이염더레 막 져내젠 ᄒᆞ믄, 져내멍 빠지멍 ᄒᆞ멍.(마차 빌려진 땐 길 옆으로 마구 져내려고 하면, 져내면서 빼지면서 하면서.)

104020 @ 그다음에 그 여물, 여물은 어떵 마련홉니까?(그다음에 그 여물, 여물은 어떻게 마련합니까?)

104020 #1 쉐에.(소에.)

104020 @ 응.(응.)

104020 #1 쉐 여물은 저 보통 콩깍지 ᄒᆞ곡.(소 여물은 저 보통 콩깍지 하고.)

104020 @ 콩깍지.(콩깍지.)

104020 #1 또 콩 불려나믄 이 각젱이, 그런 거 ᄒᆞ여당.(또 콩 불려나면 이 깍지, 그런 거 해다가.)

104020 @ 콩깍지 ᄒᆞ곡.(콩깍지 하고.)

104020 #1 조, 조각메기[165] ᄒᆞ곡.(조, '조각메기' 하고.)

104020 @ 조각메기.('조각메기'.)

104020 #2 보리 져나믄게 보리붕뎅이영.(보리 져나면 보리껍질이랑.)

104020 #1 보리 ᄒᆞ여도 쉔 이 ᄀᆞ시락 셔 놓믄 덜 먹어마씨. 젤 잘 먹는 건 조각메기 ᄒᆞ곡, 콩붕뎅이 ᄒᆞ곡. 콩붕뎅이 영 불려난 거. 또 감젯줄, 요거 성ᄒᆞ게 ᄒᆞ믄 구싱ᄒᆞᆫ 게, 쉐 곤밥이 감젯줄.(보리 해도 소는 이 까끄라기 있어 놓으면 덜 먹어요. 제일 잘 먹는 건 '조각메기' 하고, 콩깍지 하고, 콩깍지 이렇게 불려난 거. 또 고구마 덩굴, 요거 성하게 하면 구수한 게, 소 흰밥이 고구마줄기.)

104020 #2 촐 ᄒᆞ여 놓곡 ᄒᆞ믄.(꼴 해서 놓고 하면.)

104020 #1 쉐 곤밥이라, 쉐 곤밥.(소 흰밥이야, 소 흰밥.)

104020 #2 경 홀 갖엉만 오믄 걱정 엇언 잘 먹엇주.(그렇게 할 갖어서 오면 걱정 없이 잘 먹었죠.)

104020 #1 게난 조집이영 눌 땐 감젯줄이영. 요건 감젯줄만 ᄒᆞ여 놓믄 이 물기 하놓믄 뽑아지질 안 ᄒᆞ난 조집이영 서껑 눌어마씨, 보통 ᄒᆞ믄. 조집 트멍에 감젯줄 눌엇당 빠 줄 때도 좋곡, 서꺼 놓믄 이제 잘 ᄆᆞᆯ르곡, 경 ᄒᆞ영 보통 눌엇수다게.(그러니까 조짚이랑 살을 땐 고구마 덩굴이랑. 요건 고구마 덩굴만 해서 놓으면 이 물기 많으면 뽑아지질 안 하니까 조짚이랑 섞어서 쌓아요, 보통 하면. 조짚 틈에 고구마 덩굴 쌓았다가 배 줄 때도 좋고, 섞어 놓으면 이제 잘 마르고, 그렇게 해서 보통 쌓았습니다.)

104021 @ 그다음에 저 촐 빌 때 얽힌 추억이나 경험을 ᄒᆞᆫ번 말해봅서.(그다음에 저 꼴 벨 때 얽힌 추억이나 경험을 한번 말해보십시오.)

104021 #1 촐 빌 땐양, 우리도 촐왓듸 해 놓믄. 이디서 주로 쉐질[166], 쉐질 드르에 가는디, 아, 이 사름덜은 이제 그 쉐질 사름덜은 막 늦어사 ᄒᆞᆸ니다. 바로 앞의 촐왓덜이난. 게믄 이제 해변 사름덜은 이제 그 사름덜 빌엉 해얍주게. 그거 빌엉 이제 수눌지 못ᄒᆞ고 ᄒᆞ믄 ᄒᆞ는디. 촐을 비영 ᄒᆞ믄 해변서덜양, 이제 해변 사름덜은 촐 ᄒᆞ젠 ᄒᆞ믄 단도릴 ᄒᆞ영양, 이 팔월 나기 전의 촐 ᄒᆞ젠 ᄒᆞ믄 자리젯 ᄀᆞ뜬 거 보통 담는디, 웃드리[167] 사름덜토 자리젯을 잘 먹읍주게.(꼴 벨 때는요, 우리도 꼴밭에 해 놓으면. 여기서 주로 '소길', '소길' 들에 가는데, 아, 이 사람들은 이제 그 '소길' 사람들은 아주 늦어야 합니다. 바로 앞에 꼴밭들이니까. 그러면 이제 해변 사람들은 이제 그 사람들 빌어서 해야지요. 그거 빌어서 이제 품앗이해서 못 하고 하면 하는데. 꼴은 베어서 하면 해변서요, 이제 해변 사람들은 꼴 하려고 하면 단도리를 해서요, 이 팔월 나기 전에 꼴 하려고 하면

165) '조각메기'는 조 이삭이나 콩꼬투리에서 열매를 털어 버리고 남은 줄기나 깍지 따위를 말한다.
166) '쉐질'은 제주시 애월읍 소길리의 옛 이름이다.
167) '웃드리'는 한라산이 있는 쪽 벽지(僻地) 근처의 들, 또는 그런 곳에서 이루어진 마을이다.

자리젓 같은 거 보통 담는데, '웃드리' 사람들도 자리젓을 잘 먹지요.)

104021 #2 자리젯 막 맛 좋덴덜 ᄒᆞ멍.(자리젓 아주 맛 좋다고들 하면서.)

104021 #1 어디 ᄒᆞ영 자리젯 셔? 엇어? 영. 아, 그디 자리젯, 해변 사름덜 자리젯. 영 ᄒᆞ믄 그거 먹젠 이제 쿰도 받지만은 자리젯.(어디 해서 자리젓 있어? 없어? 이렇게. 아, 거기 자리젓, 해변 사람들 자리젓. 이렇게 하면 그거 먹으려고 이제 품삯도 받지만 자리젓.)

104021 #2 뚠듸 가당도.(다른데 가다가도.)

104021 #1 아, 그 집의 자리젯 맛 좋아ᄒᆞ믄 막 사름덜 ᄋᆞ라이 둘이 빌 거 다섯썩 영 빌어집주게, 열썩게. 경ᄒᆞᆫ디 그런 추억 잇고양, 또 ᄒᆞᆫ 가지는 자리를 해 놓믄 그땐 웃드리 강 자리젯을 먹어 놓믄 물이 막 기렵지 안 ᄒᆞᆸ니까? 또 더움은 와삭와삭 덥긴 ᄒᆞ곡, 게믄 이제 우린 놉 빌엉 ᄒᆞ는 따문, 물을 멧 펭 못 질어옵주게.(아, 그 집에 자리젓 맛 좋아하면 아주 사람들 여럿이 둘이 빌 거 다섯씩 이렇게 빌어 지지요, 열씩요. 그런데 그런 추억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자리를 해 놓으면 그땐 '웃드리' 가서 자리젓을 먹어 놓으면 물이 아주 먹고 싶지 않습니까? 또 더움은 와삭와삭 덥긴 하고, 그러면 이제 우린 놉 빌어서 하는 때문, 물을 몇 병 못 길어오지요.)

104021 #2 펭이 셔게, 그땐.(병이 있어, 그땐.)

104021 #1 경 ᄒᆞ영 ᄒᆞ믄, 펭 무신거 영 동골락ᄒᆞᆫ 물펭 ᄒᆞ영 질엉 가믄, 정 가놓난 어디 뭐 요즘 ᄀᆞ찌 차로나 니아까 시믄 끄성 갈 껀디. 경 ᄒᆞ영 욮의서 ᄒᆞ믄, 할망, 하르방이 온 듸라 영 ᄒᆞ믄. 엣, 물이 여름에 그 괄락괄락, 여름 아니라도 덥곡, 또 자리젯 짜게 먹어 놓믄 물이 오죽 기려울 거 아니우꽈?(그렇게 해서 하면, 병 무엇 이렇게 동그란 물병 해서 길어서 가면, 져서 가니까 어디 뭐 요즘같이 차로나 리어카 있으면 끌어서 갈 건데. 그렇게 해서 옆에서 하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온 데라 이렇게 하면. 엣, 물이 여름에 그 괄락괄락, 여름 아니라도 덥고, 또 자리젓 짜게 먹어 놓으면 오죽 먹고 싶을 거 아닙니까?)

104021 #2 게난 옛.(그러니까 옛.)

104021 #1 물 셔시믄 할망. 엣, 그 사름 뭐. 해변 사름 웃으메. 자리젯 잘 먹어놩 물만 기려왕. 영 ᄒᆞ멍 ᄒᆞᆫ 그런 면도 잇곡, 또 촐 뭐 ᄒᆞ당 보믄 우리도 놉 빌엉 촐을 비는디, 어떤 할망 끗나난 이 해변 사름덜 ᄒᆞᆫ 서너 사름, 대여섯 사름 빌엉 가난. 먼저 감십서, 우리 촐 좀 무껑 가쿠다.(물 있으면 할머니. 엣 그 사람 뭐. 해변 사람 웃어요. 자리젓 잘 먹어놔서 물만 먹고 싶어서. 이렇게 하면서 한 그런 면도 있고. 또 꼴 뭐 하다가 보면 우리도 놉 빌어서 꼴을 베는데, 어떤 할머니 끝나니까 이 해변 사람들 한 서너 사람, 대여섯 사람 빌어서 가니까. 먼저 가고 있으세요, 우리 꼴 좀 묶어서 가겠습니다.)

104021 #2 저 할락산ᄁᆞ지.(저 '한라산'까지.)

104021 #1 아, 이 밋터레 ᄂᆞ려얄 건디 할망덜은 모르난.(아, 이 밑으로 내려야할 할 건데 할머니들은 모르니까.)

104021 #2 질 몰르난 막 우터레 가불언.(길 모르니까 마구 위로 가버렸어.)

104021 #1 막 우터레 올라간. 게난 우린 집의 와시카부덴 왕 보니 와? 아, 이제 할

망 일러부럿젠 야단ᄒᆞ니까.(마구 위로 올라갔어. 그러니까 우린 집에 와 있을까 싶어서 와서 보니 와? 아, 이제 할머니 잃어버렸다고 야단하니까.)

104021 #2 저 신엄[168] 사는 하르방.(저 '신엄' 사는 할아버지.)

104021 #1 막 헤메단양 어디 저 우틔서.(마구 헤매다가요, 어디 저 위에서.)

104021 #2 막 왁왁헌 후제.(아주 어두운 후에.)

104021 #1 내려올 때사 ᄒᆞ연 이거, 이거 어디 할망덜 할라산더레 올라감젠.(내려올 때야 해서 이거, 이거 어디 할머니들 '한라산'으로 올라가고 있다고.)

104021 #2 쉐 봔 오단 하르방이 만난.(소 봐서 오다가 할아버지 만났어.)

104021 #1 경 ᄒᆞ연 ᄎᆞᆷ 추억도 잇고.(그렇게 했던 참 추억도 있고.)

104021 #2 할망덜 어더레 감서? 집더레 감서. ᄒᆞ난 집의가 아니고 저 우터레 올라가 불언. 경 막 우리 ᄉᆞ뭇 뭣 해낫수다게, 그때.(할머니들 어디로 가고 있어? 집으로 가고 있어. 하니까 집에가 아니고 저 위로 올라가 버렸어. 그렇게 마구 우리 사뭇 뭣 했었습니다, 그때.)

104021 #1 경ᄒᆞ고 이 웃드리 사름덜은 양 저 ᄒᆞ믄 촐 비젠 ᄒᆞ믄 동산더레 ᄒᆞ영 촐 비는 소리덜이양, 홍애기[169]덜 질르멍. 해변 사름덜은 경 촐 비는 소리 안 ᄒᆞ곡, 웃드리 사름덜은 촐 비는 홍에기.(그리고 이 '웃드리' 사람들은요, 저 하면 꼴 베려고 하면 동산으로 해서 꼴 베는 소리들요, '홍애기'들 지르면서. 해변 사람들은 그렇게 꼴 베는 소리 안 하고, '웃드리' 사람들은 꼴 베는 '홍애기'.)

104021 #2 이 밧듸서.(이 밭에서.)

104021 #1 이 밧듸서 나오믄 저 동산에서 나오곡 ᄒᆞ멍.(이 밭에서 나오면 저 동산에서 나오고 하면서.)

104021 #2 촐 비는 소릴 경 잘홉니다.(꼴 베는 소리를 그렇게 잘합니다.)

104021 @ 누게마씨?(누가요?)

104021 #2 그 웃드리 사름덜이 빌엉 ᄒᆞ믄, 우린 그듸 사름덜 동네 강 보믄게. 그 동네 사름덜, 저 동네 사름덜 ᄒᆞ믄, 저 밧듸서 촐 비는 소리, 요 밧듸서 촐 비는 소리, 경이 이 동네 사름덜은 그추룩 소리를 못 ᄒᆞ여마씸.(그 '웃드리' 사람들이 빌어서 하면, 우린 거기 사람들 동네 가서 보면요. 그 동네 사람들, 저 동네 사람들 하면, 저 밭에서 꼴 베는 소리, 요 밭에서 꼴 베는 소리, 그렇게 이 이 동네 사람들은 그처럼 소리를 못 해요.)

104021 @ 게 불러지쿠과?(그렇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104021 #2 에에, 못 불러.(에에, 못 불러.)

104021 @ ᄒᆞᆫ번.(한번.)

104021 #2 경ᄒᆞ난 이제, 그것이 특기라. 이 하르방[170]은 소리 못 행. 우리 동네 사름덜은 이건 ᄒᆞ난에 에에, 소리 ᄒᆞ는 디 강 뭐 ᄒᆞ여. 촐 못 비메, 그 대신 ᄒᆞ멍. 경 ᄒᆞ멍 경 그런, 저런 멋도 셔낫수다게.(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특기야. 이 할아버지는 소리 못

168) '신엄'은 제주시 애월읍 신엄리를 말한다.
169) '홍애기'는 농촌에서 혼자 또는 여러 사람이 노동하면서 부르는 소리이다.
170) '하르방'은 할아버지인데, 여기서는 남편을 뜻한다.

했어. 우리 동네 사람들은 이건 하니까 에에, 소리 하는데 가서 뭐 해. 꼴 못 베요, 그 대신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그런, 저런 멋도 있었습니다.)

땔감

104022 @ 거민양, 그 땔감 종류 잇지 안 ᄒᆞ우꽈? 옛날 낭불로도 숨곡 다 해시난에, 땔감 종류 ᄒᆞᆫ번 말해봅서.(그러면요 그 땔감 종류 있지 안 합니까? 옛날 나무불로도 때고 다 했었으니까, 땔감 종류 한번 말해보세요.)

104022 #1 땔감 종류는 뭐 주로 검벌옌 행 검질 비여당 좀 숨곡, 보리낭 이제 주로 보리낭 해당 숨곡, 그다음 이제 겨울 들어강 솔입 글그레.(땔감 종류는 뭐 주로 검불이라고 해서 검불 베어다가 좀 불을 때고, 보릿짚 이제 주로 보릿짚 해다가 불을 때고, 그 다음 이제 겨울 들어가서 솔잎 긁으러.)

104022 #2 솔입 글그곡.(솔잎 긁고.)

104022 #1 솔입 이제 하늬ᄇᆞ름 불어나믄양, 솔입이 털어집니다게. 털어지믄 막 새벡이, 것도 저 놈 ᄒᆞ기 전의 가젠 ᄒᆞ믄.(솔잎 이제 북풍 불어나면요, 솔잎이 떨어집니다. 떨어지면 아주 새벽에, 것도 남 하기 전에 가려고 하면.)

104022 #2 놈 ᄒᆞ기 전의 강 글거사.(남 하기 전에 가서 긁어야.)

104022 #1 글경 막 들어 모두왕 이 밧, 저 밧 ᄒᆞ여야 ᄎᆞ지홈으로. 겡 해야지 겡 아니 ᄒᆞ영 놈 ᄒᆞ믄, 뚠 사름 해불믄 뭐 ᄒᆞ난. 막 해당 이제 햇당 솔입 보따리도 영 ᄒᆞ영 ᄒᆞ믄 글경양, 새끼로 다 무끄곡.(긁어서 마구 들어 모아서 이 밭, 저 밭 해야 차지함으로. 그렇게 해야지 그렇지 안 해서 남 하면, 다른 사람 해버리면 뭐 하니까. 마구 해다가 이제 했다가 솔잎 보따리도 이렇게 해서 하면 긁어서요, 새끼로 다 묶고.)

104022 #2 경 새낄 나록찍 ᄒᆞ영 문딱 꼬앙 놔둬사.(그렇게 새끼를 볏짚 해서 모두 꼬아서 놔둬야.)

104022 #1 솔입 ᄒᆞ영 멧 짐 ᄒᆞ여당 ᄒᆞ곡, 눌 우리도 솔입 ᄒᆞ연 막 눌언.(솔잎 해서 몇 짐 해다가 하고. 가리 우리도 솔잎 해서 마구 쌓았어.)

104022 #2 막 눌언 ᄉᆞ뭇, 집의 져당.(마구 쌓아서 사뭇, 집에 져다가.)

104022 #1 집의서 ᄒᆞ믄 그것이 겨울에도 불 숨곡, 아이덜이영 ᄒᆞ믄. 그 웨로 엿날은 양, 삭다리옌 ᄒᆞ영 이 저 큰오름[171] 뒤트멍에 쉐 몰곡 행 간 해와난 적 잇수다게. 그때는 하도 여기 지들케가 귀ᄒᆞ난, 거 강 해당 ᄒᆞ믄 우린 그거 강 낭 해당 풀멍 햇는디. 쉐 몰앙 강 거 시끄곡. 그 큰오름 뒤트레 가난 누게 사름 안 뎅기난 하십데다. 와상ᄒᆞ영 짐 버청 못 져오주, 지들케 어선 못 ᄒᆞ지 아녀.(집에서 하면 그것이 겨울에도 불 때고, 아이들이랑 하면. 그 외로 옛날은요, 삭정이라고 해서 이 저 '큰오름' 뒤틈에 소 몰고 해서 가서 해왔던 적 있습니다. 그때는 하도 여기 장작이 귀하니까, 거기 가서 해다가 하면 우린 그거 가서 나무 해다가 팔면서 했는데. 소 몰아서 가서 거 싣고. 그 '큰오름' 뒤에

171) '큰오름'은 '노꼬메큰오름'이라고도 하며,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에 나란히 있는 두 오름 중 큰 오름을 말한다.

가니까 누구 사람 안 다니니까 많습디다. 와상 해서 짐 부쳐서 못 져오지, 장작 없어서 못 하지는 않지.)

104022 #2 게난 그디 감도 어려와.(그러니까 거기 감도 어려워.)

104022 #1 거 가젠 ᄒᆞ믄 여기서 ᄒᆞᆫ 두 참, 시 참은 가사 ᄒᆞᆯ 거. 저 한라산, 큰오름, 족은오름[172] 두 트멍더레 보통 올라가믄 거 가믄, 이제 거 영 사름덜 하영 뎅겨나곡 질이 좀 나잇는 디 잇수다.(거 가려고 하면 여기서 한 두 참, 세 참은 가야 할 거. 저 '한라산' '큰오름', '작은오름' 두 틈으로 보통 올라가면 거 가면, 이제 거 이렇게 사람들 많이 다녀나고 길이 좀 나있는 데 있습니다.)

104022 #2 낭, 죽어분 낭덜 삭다리 뒈믄 그거 져와.(나무, 죽어버린 나무들 삭정이 되면 그거 져와.)

104022 #1 솔비낭 그런 걸랑 빼곡, 불도 잘 안 부떠. 겐디 젤 좋은 건 게볍곡 ᄒᆞᆫ 건 종낭. 종낭이옌 ᄒᆞ믄 불도 잘 부뜨곡 가볍곡. 종낭덜만 다 ᄒᆞ젠 ᄒᆞ영 종낭 행 져오곡, 해 와나곡. 이디서 또 요 거 가까운 디 수산봉[173]에 아까시낭이 잇수다, 이제도 잇는디. 우트레 거의가 저 아까시낭 밧이 셔낫수다. 우리도 그거 해당은에 춤, 이 사름 베가 이만이 해도 수산봉ᄁᆞ지 올라강 걸 지영 내려오곡 춤, 이제 ᄀᆞ뜨믄 당췌 못 해. 아이 임신 뒈영 ᄒᆞᆫ 디 큰일 날 걸 몰르곡, 겨니까 핸 햇는디. 요걸 해당 또 숫을 궈서마씨. 아까시낭 숫은 소낭 닮지 안 ᄒᆞ영 ᄆᆞ디곡 좋아, 숫만 멩글아 놓믄. 숫은 어떵 굽느냐 ᄒᆞ믄.(솔비나무 그런 거는 빼고, 불도 잘 안 붙어. 그런데 제일 좋은 건 가볍고 한 거는 때죽나무. 때죽나무라고 하면 불도 잘 붙고 가볍고. 때죽나무들만 다 하려고 해서 때죽나무 해서 져오고, 해 왔었고. 여기서 또 요 거 가까운 데 '수산봉'에 아카시아나무 있습니다, 이제도 있는데. 위로 거의가 저 아카시아나무 밭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거 해다가 참, 이 사람 배가 이만큼 해도 '수산봉'까지 올라가서 걸 져서 내려오고 참, 이제 같으면 당최 못 해. 아이 임신되어서 한 데 큰일 날 걸 모르고, 그러니까 해서 했는데. 요걸 해다가 또 숯을 구웠어요. 아카시아나무 숯은 소나무 같지 안 해서 이렇게 마디고 좋아, 숯만 만들어 놓으면. 숯은 어떻게 굽느냐 하면.)

104022 @ 그건 나중에 물어보쿠다.(그건 나중에 물어보겠습니다.)

104022 #1 경ᄒᆞ고 이제 지들케 ᄒᆞᆫ 건 거 솔입 글그는 거.(그리고 이제 장작 한 건 거 솔잎 긁는 거.)

104022 #2 솔입 글경 오단 일러불언에. 저 줄창ᄒᆞ젠, 줄창이옌 ᄒᆞᆫ 말은 ᄒᆞᆫ번 이펜 팡[174]더레 져다뒁 또 강 저듸 거 이펜 팡더레 져다 놓곡. 경해사 집의 가까와 가젠. 게믄 솔입은 석 짐 글건 놔두난에 ᄉᆞ뭇 애씨게 ᄒᆞ연 글거놔두난에. 글건 오단, 석 짐 글그난 시 번은 요디 이 팡에 저펜 팡드레 져오곡, 집의 ᄎᆞᄎᆞᄎᆞᄎᆞ 가, ᄲᅮ디여 가게. 게 ᄒᆞᆫ번은 해뒁 두루웨기[175] ᄒᆞ레 가부난 ᄒᆞᆫ 짐이 나 껏이 엇어불어서. 어디 져온 사름은 비슷

172) '족은오름'은 '노꼬메족은오름'이라고도 하며,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에 나란히 있는 두 오름 중 작은 오름을 말한다.

173) '수산봉'은 제주시 애월읍 수산리 북서쪽 일주도로 변에 있는 오름이다.

174) '팡'은 말을 타고 내리거나 짐을 지고 부리거나 할 적에 대(臺)가 되게끔 놓인 넓적한 큰 돌 따위이다.

175) '두루웨기'는 하눌타리의 일종이다.

ᄒᆞ연 알아져도 내불라, 아방[176] 내불라, 내불라. 우리랑 두 짐만 먹게 ᄒᆞ연 이젠 아방이 영 ᄒᆞᆫ 짐썩 젼. 아방은 아기 재와둰 마중 가선게. 이제 배 ᄋᆞ젼 마중 가선게, 거 ᄒᆞᆫ 짐썩만 젼 완 먹어낫수다게. 경 그르후젠 저 식구덜 싯곡 하근디 뭣 ᄒᆞ난에 길가의 어욱도 비여당 ᄉᆞᆷ곡, 수산봉에 가까운 디 시난 강 아까시낭 해당 ᄉᆞᆷ곡.(솔잎 긁어서 오다가 잃어버려서. 저 줄곧하려고, '줄창'이라고 한 말은 한번 이편 '팡'으로 져다둬서 또 가서 저기 거 이편 '팡'으로 져다 놓고. 그래야 집에 가까워 가려고. 그러면 솔잎은 석 짐 긁어서 놔두니까 사뭇 애쓰게 해서 긁어 놔두니까. 긁어서 오다가, 석 짐 긁으니까 세 번은 요기 이 '팡'에 저편 '팡'으로 져오고, 집에 차차차차 가, 가깝게 가게. 그렇게 한번은 해둬서 '두루웨기' 하러 가 버리니까 한 짐이 내 것이 없어져 버렸어. 어디 져온 사람은 비슷해서 알 수 있어도 내버리라, '아방' 내버리라, 내버리라. 우리랑 두 짐만 먹게 해서 이젠 '아방'이랑 한 짐 씩 졌어. '아방'은 아기 재워두고 마중 왔었지. 이제 참바 가져서 마중 왔었지, 거 한 짐씩만 져 와서 먹었었습니다. 그렇게 그 후에는 저 식구들 있고 여기저기 여러 곳 뭣 하니까 길가에 억새도 베어다가 불을 때고, '수산봉'에 가까운 데 있으니까 가서 아카시아나무 해다가 불을 때고.)

104022 #1 경ᄒᆞ곡 저 이 꽝낭, 저 요 빌레[177]에 이 못 쓸 불모지에 가믄 꽝낭이라고 영 ᄒᆞᆫ 거.(그리고 저 이 꽝꽝나무, 저 요 '빌레'에 이 못 쓸 불모지에 가면 꽝꽝나무라고 이렇게 한 거.)

104022 #2 섬피 멘들곡 ᄒᆞ는 거.(끙게 만들고 하는 거.)

104022 #1 섬피 멘들곡 ᄒᆞ는 낭이 잇수다. 꽝낭 이제도 이제. 그거 비여, 저 나대로 ᄒᆞ영 착착 비영 놔뒀당 ᄆᆞᆯ르믄 그거 무꺼당 이제 저 자귀나 뭣으로 닥닥닥 그걸 ᄌᆞ르게 썰어서.(끙게 만들고 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꽝꽝나무 이제도 이제. 그거 베어, 저 나대로 해서 착착 베어서 놔뒀다가 마르면 그거 묶어다가 이제 저 자귀나 뭣으로 닥닥닥 그걸 잘게 썰어서.)

104022 #2 못 ᄉᆞᆷ앙, 왕상해 놓난.(못 불을 때어, 푸석푸석해 놓으니까.)

104022 #1 게난 그것에 행 ᄆᆞᆯ리왓당, 또 저 솔입에 서끄믄양, 불이 ᄆᆞᆯ랑 잘 부뜨곡 화력이 쎄여.(그러니까 그것에 해서 말렸다가, 또 솔잎에 섞으면요, 불이 말라서 잘 붙고 화력이 세여.)

104022 #2 보리낭만 ᄉᆞᆷ으믄 재게 부떠 와불어.(보릿짚만 불을 때면 빨리 붙어 와버려.)

104022 #1 보리낭 금방 ᄉᆞᆷ으믄 이건 불도 약ᄒᆞ고 밥도 재영 ᄒᆞ믄 하영 들어가곡 ᄒᆞ난. 경 ᄒᆞ영도 ᄉᆞᆷ앙 쓰곡 해낫주, 지들케.(보릿짚 금방 불을 때면 이건 불도 약하고 밥도 재어서 하면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도 불을 때어서 쓰고 했었지, 땔감.)

104022 #2 거 행 ᄒᆞ꼼 솔입 강 글거와 가난, ᄒᆞ꼼 그땐 수월ᄒᆞ연 보리낭만 ᄉᆞᆷ단에. ᄒᆞ꼼 저 ᄒᆞᆫ 짐 ᄒᆞ믄 막 ᄒᆞᆫ 메칠 ᄒᆞᆫ 일주일, 열흘 ᄉᆞᆷ아난.(그렇게 해서 조금 솔잎 가서 긁어와 가니까, 조금 그땐 수월해서 보릿짚만 불을 때다가. 조금 저 한 짐 하면 마구

176) '아방'은 아버지인데, 여기서는 남편을 뜻한다.
177) '빌레'는 지면(地面) 또는 땅에 넓적하고 평평하게 묻힌 돌이다.

한 며칠 한 일주일, 열흘 불을 때었어.)

104022 #1 그땐 보통 보리밥 행 먹읍주게, 여름에 ᄒᆞ믄. 그냥 보리 ᄒᆞ젠 ᄒᆞ믄 보리밥 ᄒᆞ영 쏠 해 놓믄 괄락 궤엿당, 재게 솜앙 궤엿당 초불 궤엿당, ᄀᆞ만이 틈 자게 놔뒷당, 또 다음 영 솜으믄 밥이 재게 되곡, 경 안 ᄒᆞ영 계속 솜으믄 멩심ᄒᆞ영 잘 안 ᄒᆞ믄 믄 카불곡, 또 물이 족으믄 뽁뽁ᄒᆞ영 설엉양, 밥맛도 밥 먹기도 어렵곡 ᄒᆞ영, 지들케도 하영 들어가곡.(그땐 보통 보리밥해서 먹었지요, 여름에 하면. 그냥 보리 하려고 하면 보리밥해서 쌀 해 놓으면 한꺼번에 끓었다가, 빨리 불을 때어서 끓었다가 애벌 끓었다가 가만히 뜸 자게 놔뒀다가, 또 다음 이렇게 불을 때면 밥이 빨리 되고, 그렇게 안 해서 계속 불을 때면 명심해서 잘 안 하면 모두 타버리고, 또 물이 적으면 뻑뻑해서 설어서요, 밥맛도 밥 먹기도 어렵고 해서, 땔감도 많이 들어가고.)

104022 #2 경 ᄒᆞ여도 그런 밥 먹으멍 살앗주. 맛 좋안 그 밥이.(그렇게 해도 그런 밥 먹으면서 살았지, 맛 좋아서 그 밥이.)

104022 @ 그다음에 쉐똥, 물똥 줏어낫지양. 요거에 대해여근에 ᄒᆞᆫ번 ᄀᆞᆯ아줍서.(그다음에 소똥, 말똥 주웠었지요. 요거에 대해서 한번 말해주십시오.)

104022 #1 쉐똥, 우리도 저 온상 ᄒᆞ젠 해도, 주로 이디선 걸름ᄒᆞ곡, 저 이 찍ᄒᆞ고 ᄀᆞ찌 서껑 발열시켱 뭐 메종도 ᄃᆞᆺ뜻ᄒᆞ게 ᄒᆞ영 ᄒᆞ는 따문에. 경 ᄒᆞ젠 ᄒᆞ난 저 웃드리에 올라가믄 물, 쉐가 합니다게. 드르에 놩 내분 거. 경 강은에 멕 가졍 강.(소똥, 우리도 저 온상 하려고 해도, 주로 여기선 거름하고, 저 이 짚하고 같이 섞어서 발열시켜서 뭐 모종도 따뜻하게 해서 하는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저 '웃드리'에 올라가면 말, 소가 많습니다. 들에 놓아서 내버린 거. 그렇게 가서 멱서리 가져가서.)

104022 #2 막 베긴 놀 거난 베여.(아주 무거운, 날 거니까 무거워.)

104022 #1 놀 건양, 무신 니아까가 시카?(날 거는요, 무슨 리어카가 있을까?)

104022 @ 거 물리왕 와야주게.(거 말려서 와야지요.)

104022 #2 아이, 아이. 물리왕 오젠 ᄒᆞ믄, 멕에 해영 졍와.(아니, 아니. 말려서 오려고 하면, 멱서리에 해서 져와.)

104022 #1 믄 가져가불어. 물똥 ᄀᆞ뜬 거 줍기 좋아도 베여마씸.(모두 가져가버려. 말똥 같은 거 줍기 좋아도 무거워요.)

104022 #2 물리우당 보믄 뚠 사름 주워가불곡게.(말리다가 보면 다른 사람 주워가버리고.)

104022 #1 믄 줏어가니까 베여도 그냥.(모두 주워가니까 무거워도 그냥.)

104022 #2 ᄒᆞ꼼씩 져와낫수다, 우린게.(조금씩 져왔었습니다, 우리는.)

104022 @ 집의 왕 물리왓구나.(집에 와서 말렸구나.)

104022 #2 예, 집의 왕 질레레영 영 널엉 놔두믄.(예, 집에 와서 길이랑 이렇게 널어서 놔두면.)

104022 #1 멕ᄒᆞ고 걸름착, 걸름착 멕에 행은에 지영은에 왕 물리왕. 경 아니믄 어느 사이에, 저번의도 물리완 놔두난 누게 지여가불언, 문딱게. 아이고, 잘 뒛져게, 문딱.(멱서리하고 멱둥구미, 멱둥구미 멱서리 져 와서 말려서. 그렇게 아니면 어느 사이에, 저번

에도 말려서 놔두니까 누구 져 가버렸어, 모두. 아이고, 잘 됐다, 모두.)

104022 #2 경 ᄒᆞ연 또 쉐똥은 저 ᄒᆞ꼼 ᄆᆞ르믄 ᄋᆞ저오믄 굴묵[178] 짇어. ᄀᆞ시락에, ᄀᆞ시락만 ᄒᆞ믄 빌빌빌 ᄒᆞ믄 돌 굴묵에 ᄒᆞ여근에 쉐똥ᄒᆞ영 짇으믄 ᄒᆞ꼼 오래 강, 밤중 뒈도록은 뚯앙 아기덜 그레 굴묵 어귀레 눅지곡. 저 ᄀᆞ시락만 ᄒᆞ믄 자게 부떠불어마씸.(그렇게 해서 또 소똥은 저 조금 마르면 가져오면 '굴묵' 때어. 까끄라기에, 까끄라기만 하면 빌빌빌 하면 돌 '굴묵'에 해서 소똥해서 때면 조금 오래가서, 밤중 되도록은 따뜻해서 아기들 거기 '굴묵' 어귀로 눕히고. 저 까끄라기만 하면 빨리 붙어버려요.)

104022 #1 호르르르 부떠불고 쉐똥에 서껑 ᄒᆞ믄 이거 초지냑 ᄒᆞ여도 붉도록 부떠, 또 부떠나도 드뜻ᄒᆞ메.(호르르르 붙어버리고, 소똥에 섞어서 하면 이거 초저녁 해도 밝도록 붙어, 또 붙은 붙어나도 따뜻해요.)

104022 #2 게도 쉐똥 시믄 막 아이고 올 겨울엔 쉐똥 시난에 ᄀᆞ시락 살아나곡, 굴묵 저 구들 ᄒᆞ꼼 ᄃᆞ뜻흠직ᄒᆞ다. 경 ᄒᆞ영 아기덜은 그레 눅지곡.(그래도 소똥 있으면 마구 아이고 올 겨울엔 소똥 있으니까 까끄라기 살아나고, '굴묵' 저 방 조금 따뜻할 것 같다. 그렇게 해서 아기들은 그리 눕히고.)

104022 @ 그 낭토막은 안 행 옵디가?(그 나무토막은 안 해서 왔습니까?)

104022 #2 낭토막 해도 밥ᄒᆞ젠 ᄒᆞ믄 굴묵더레 덜 강.(나무토막 해도 밥하려고 하면 '굴묵'으로 덜 갔어.)

104022 #1 목궹이라고 해영 이 저 곡궹이에 불미왕에 강은에 양쪽 놀을 돋지와. 거 끈어둰은에 이제 베려, 하난 요렇게 가고, 하난 영 도치 식으로 ᄒᆞ영, 요건 낭뿔리용이라. 낭뿔리 우리도 잘햇수다. 이 낭뿔리 ᄒᆞ레 강 ᄒᆞ믄 소낭덜 비여난, 거 굽덩치 ᄒᆞ믄 불리도 파곡 이거 이제 ᄒᆞ는디, 이건 완전 저 곡궹이로, 목궹이로 해가지고. 경 ᄒᆞ여도 그건 낭으로 ᄒᆞ난 좋곡. (목괭이라고 해서 이 저 곡괭이 대장간에 가서 양쪽 날을 돋쳐. 거 끊어둬서 이제 벼려, 하나는 요렇게 가고, 하나는 이렇게 도치 식으로 해서. 요건 나무뿌리용이야. 나무뿌리 우리도 잘했습니다. 이 나무뿌리 하러 가서 하면 소나무들 베었던, 거 둥치 하면 뿌리도 파고 이거 이제 하는데, 이건 완전 저 곡괭이로, 목괭이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도 그건 나무로 하니까 좋고.)

104022 #2 졍 왕 집의 문딱 깨영 널엉.(져 와서 집에 모두 깨어서 널어서.)

104022 #1 깨영 딱ᄒᆞ게 눌엉 놔뒷당, 건 양념으로 ᄒᆞ꼼썩 솜곡 무신.(깨어서 딱하게 쌓아서 놔뒀다가, 건 양념으로 조금씩 불을 때고 무슨.)

104022 #2 아이고, 밥ᄒᆞ는 거 일등으로 그건 ᄒᆞ곡.(아이고, 밥 하는 거 일등으로 그건 하고.)

104022 #1 제사 때나 그거 쓰곡.(제사 때나 그거 쓰고.)

104022 #2 어떤 때 굴묵, 솔칵 빠지믄 굴묵더레 ᄒᆞ꼼 짇어사, ᄀᆞ시락 그레 ᄒᆞ영 ᄒᆞ믄 막 겨울엔 지꺼져.(어떤 때 '굴묵', 관솔 빠지면 '굴묵'으로 조금 때어야, 까끄라기 그리 해서 하면 아주 겨울엔 기뻐요.)

104022 #1 솔칵 신 저 소낭 뿔리는 요것이 이제 그 불이 쎄여가지고 부떠놓믄 불이

178) '굴묵'은 구둘방에 불을 때게 만든 아궁이.

ᄆᆞ뎡양, ᄒᆞ꼼만 솜아도 밥이 금방 뒈메. 거난 건 아꼉 쓰곡, 주로 솔입 ᄒᆞᆫ 거 ᄒᆞ곡 서끄멍 ᄉᆞᄆᆞᆺ.(관솔 있는 저 소나무 뿌리는 요것이 이제 그 불이 세어서 붙어놓으면 불이 마뎌서요, 조금만 불을 때어도 밥이 금방 되요. 그러니까 건 아껴서 쓰고. 주로 솔잎 한 거 하고 섞으면서 사뭇.)

104022 @ 경 ᄒᆞ믄 솔입 걷는 거에 대ᄒᆞ영 ᄒᆞ번 ᄀᆞᆯ아줍서.(그렇게 하면 솔잎 걷는 거에 대해서 한번 말해주십시오.)

104022 #2 대글겡이, 대글겡이.(대갈퀴, 대갈퀴.)

104022 #1 대글겡이로 막 ᄒᆞ영 이제 보달치멍, 거 이제 새끼 꼬앗당 강 영 놩 보달쳥 탁탁 ᄒᆞ믄 것도 기술이 셔사. 잘못ᄒᆞ믄 헤싸져부니까.(대갈퀴로 마구 해서 이렇게 이제 얽어 묶으면서, 거 이제 새끼 꼬았다가 가서 이렇게 놔서 얽어 묶어서 탁탁 하면 것도 기술이 있어야. 잘못하면 헤벌어져 버리니까.)

104022 @ 끅으로 무꺼야 ᄒᆞᆯ 거 아니라.(칡으로 묶어야 할 거 아니야.)

104022 #1 칙이나 새끼.(칡이나 새끼.)

104022 @ 여긴 칙이옌 ᄒᆞᆸ니까?(여긴 칡이라고 합니까?)

104022 #1 예, 칙.(예. 칡.)

104022 #2 여긴 칙이옌 ᄒᆞ여도. 나락찍 ᄒᆞ엿당 새끼 꼬앙, 새끼 꼬는 집이 천지.(여긴 칡이라고 해도. 볏짚 했다가 새끼 꼬아서, 새끼 꼬는 집이 많지.)

104022 #1 새끼 꽛당 영 놩 그 처음에는 글겡이로 잘 탁탁 ᄒᆞ멍양, 귓뎅이 ᄒᆞ여놩 싹 ᄆᆞᆯ앙 둘이 ᄒᆞ영은에 딕각. 이것도 혼자 보달치기는 잘 띡각을 못 ᄒᆞ여. 둘이 ᄒᆞ영 마주, 보통 둘이 마주ᄒᆞ영 딱 ᄒᆞ영 양펜이 코찡케 때려 놓믄 보달 딱 쳐.(새끼 꼬았다가 이렇게 놔서 그 처음에는 갈퀴로 잘 탁탁 하면서요, 귀퉁이 해서 놔서 싹 말아서 둘이 해서 빽빽이. 이것도 혼자 얽어 묶기는 잘 빽빽이 못 하지. 둘이 해서 마주, 보통 둘이 마주해서 딱 해서 양편에 가지런하게 때려 놓으면 얽어 묶어 딱 쳐.)

104022 #2 게난 것도 밧을 좋은 밧을 아다루 ᄒᆞ믄 하영 글그고, 밧이 동산이영 까시트멍 ᄒᆞ믄.(그러니까 것도 밭을 좋은 밭을 걸려서 하면 많이 긁고, 밭이 동산이랑 가시틈 하면.)

104022 @ 솔입도 밧 좋고 나쁘고가 잇수과?(솔잎도 밭 좋고 나쁘고가 있습니까?)

104022 #2 아이고 춤 선선ᄒᆞᆫ 소리.(아이고 참 선선한 소리.)

104022 #1 소낭 잘 터야.(소나무 잘 터야.)

104022 #2 소낭 아래 칙이영 검질이영 신 딘 대글겡이가 솔입을 가밧자 긁질 못 ᄒᆞᆸ주게.(소나무 아래 칡이랑 검불이랑 있는 데는 대갈퀴가 솔잎을 가봐야 긁지를 못하지요.)

104022 @ 풀 신 딘 안 뒈주기.(풀 있는 데는 안 되지요.)

104022 #2 예. 경 ᄒᆞ난에 영 봥은에 소낭 아래 사름덜이 다 그런 것만 보젠 ᄒᆞ여. 거난 영 보믄 글거난 딘 알아져마씸, 저 솔입 글거난 디. 게믄 그런 디 가근에 긁곡, 무신거 저 양말이나, 대비나 신엉 갓당 영 걸쳥 놈 ᄒᆞ여가지 못ᄒᆞ게 ᄎᆞ지홈으로. 경 해근에 ᄎᆞ지홈으로 ᄒᆞ영.(예.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봐서 소나무 아래 사람들이 다 그런 것

만 보려고 해.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긁었던 데는 알아져요, 저 솔잎 긁었던 데. 그러면 그런 데 가서 긁고, 무엇 저 양말이나, 양말이나 신어서 갔다가 이렇게 걸쳐서 남 해서 가지 못하게 차지함으로. 그렇게 해서 차지함으로 해서.)

104022 #1 하니ᄇᆞ름 불어낫다 ᄒᆞ믄 이거 난리라. 새벡의 밤의 강 막 이 밧 저 밧양, ᄒᆞ꼼썩 ᄎᆞ지홈으로 메와 놔.(북풍 불었었다 하면 이거 난리야. 새벽에 밤에 가서 마구 이 밭 저 밭요, 조금씩 차지함으로 모여 놔.)

104022 #2 대막뎅이 질르나, 댈 질르나, 누게 ᄋᆞ져가지 못ᄒᆞ게 ᄒᆞ멍 ᄒᆞ지 안 ᄒᆞ믄 솔입도 ᄆᆞ딱 글거가 불곡. 거 솔입은 하도 매 밧듸 못 글거, 칙뿔리영 검질 신 딘 긁지 못ᄒᆞ여.(대막대기 찌르나, 대를 찌르나, 누구 가져가지 못하게 하면서 하지 안 하면 솔잎도 모두 긁어가 버리고. 거 솔잎은 많아도 모든 밭에 못 긁어, 칡뿌리랑 검불 있는 데는 긁지 못해.)

104022 @ 솔똥이영 ᄀᆞ찌 글그는 거 아니꽈양?(솔방울이랑 같이 긁는 거 아닙니까?)

104022 #2 예게, 솔똥. 솔똥은 저 멕에도 담곡, 무신거 해낫수다. ᄯᅳ로 담앙 와근에 그 솔똥은. 게난 솔똥은 하영 못 ᄒᆞ주기게. 저 솔입만이 못 ᄒᆞ여. 솔입이영 ᄒᆞ믄 ᄆᆞ딱 털어져 불곡.(예, 솔방울. 솔방울은 저 멱서리에도 담고, 무엇 했었습니다. 따로 담아서 와서 그 솔방울은. 그러니까 솔방울은 많이 못 하지요. 저 솔잎만큼 못 해. 솔잎이랑 하면 모두 떨어져 버리고.)

104022 #1 ᄯᅳ로 ᄒᆞ여사.(따로 해야.)

104022 #2 솔똥은 줍젠 ᄒᆞ믄, 것도 솔입 긁젠 ᄒᆞ믄 욕심으로 그거 자게 못 ᄒᆞ여. 멕으로 ᄒᆞ나, 경 아니믄 저 무신 갈중의[179]라도 영 ᄒᆞ영.(솔방울은 주우려고 하면, 것도 솔잎 긁으려고 하면 욕심으로 그거 빨리 못 해. 멱서리로 하나, 그렇지 않으면 저 무슨 '갈중의'라도 이렇게 해서.)

104022 #1 아니, 멩텡이영 가졍 갓당 것에 줏엉와.(아니, 망태기랑 가져갔다가 것에 주워와.)

104022 #2 멩텡이 우터레 갈중의 담은 거 영 놩 ᄒᆞ영 지곡, 소랑ᄒᆞ게 놩 지곡, 기 아니 ᄒᆞ영 솔입은 ᄒᆞᆫ 뭇 ᄒᆞ영 놔두믄 무시거 어드레 아방 왕 ᄒᆞ렌 ᄒᆞ질 못ᄒᆞ여. 어디 밧도 몰르곡 무시거옌 ᄀᆞᆮ지도 못 ᄒᆞ곡 ᄒᆞ믄 나냥으로 그거 졍 ᄂᆞ리당 어떵 ᄒᆞ영 질레에 어떵 ᄒᆞ여근에 어디 솔입 글경 왐신고? ᄒᆞ영 ᄉᆞ망일 때엔 아방이 걸렁 졍 오곡, 경 아닌 땐 나만 솔똥이영 무시거영 졍왓다근에.(망태기 위로 '갈중의' 담은 거 이렇게 놔서 해서 지고, 길쭉하게 놔서 지고, 그렇게 안 해서 솔잎은 한 뭇 해서 놔두면 무엇 어디로 '아방' 와서 하라고 하지 못해. 어디 밭도 모르고 무엇이라고 말하지도 못하고 하면 나대로 그거 져서 내리다가 어떻게 해서 길에 어떻게 해서 어디 솔잎 긁어서 오고 있는가? 해서 소망일 때에는 '아방'이 걸려서 지고 오고, 그렇지 않을 때는 나만 솔방울이랑 무엇이랑 져왔다가.)

104022 #1 대통 여자덜이 긁는디양, 솔입 긁는 건게 ᄒᆞ곡, 마주 가는 건 남자가 강 지여 오곡 경.(대부분 여자들이 긁는데요, 솔잎 긁는 건요 하고, 마주 가는 건 남자가

179) '갈중의'는 감물을 들인 중의이다.

가서 져 오고 그렇게.)

104022 @ 져 오는 거?(져 오는 거?)

104022 #2 뒷날 가근에, 뒷날 어떵 ᄒᆞ당은에 아기 재와근에 어떵 어머니나 ᄒᆞ꼼 봐 줍센 ᄒᆞ믄 아방고라 양, 솔입 글경 놔 둔 거 일러먹엄수다. 가게 가게.' 경 ᄒᆞ믄 저 ᄆᆞᆯ을 막 먼먼ᄒᆞᆫ 디 가믄 어떤 땐 셔, ᄀᆞ만이. 무끈 냥 시믄 이제 아방 져 오곡, 난 ᄯᅳ시 재게 오젠 ᄒᆞ믄 솔똥 줏어근에 멕이라도 지곡, 경 햄수게.(뒷날 가서, 뒷날 어떻게 하다가 아기 재워서 어떻게 어머니나 조금 봐 달라고 하면 '아방'더러 예, 솔잎 긁어서 놔 둔 거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가게, 가게. 그렇게 하면 저 말을 아주 먼 데 가면 어떤 때는 있어, 가만히. 묶은 대로 있으면 이제 '아방' 져 오고, 난 다시 빨리 오려고 하면 솔방울 주워서 멱서리에라도 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04022 @ 이젠 영 뎅겨보난 솔똥이영 솔입이영 하십디다. (이제는 이렇게 다녀보니까 솔방울이랑 솔잎이랑 많습디다.)

104022 #2 이젠 쎙엿수다. 수산봉에 가도.(이제는 쌓였습니다. '수산봉'에 가도.)

104022 #1 쎙영 ᄌᆞᄁᆞᆺ디도 핫수다. 춤 간세ᄒᆞ영 못 ᄒᆞ주, 그거 춤 ᄒᆞ젱만 ᄒᆞ믄 전의 닮지 안 ᄒᆞ영 천지주.(쌓여서 옆에도 많습니다. 참 게을러서 하지 못 하지, 그거 참 하려고만 하면 전에 같지 않아서 많지.)

104022 @ 낭ᄒᆞ레 고지 갓당 왓지양? 그거 ᄒᆞᆫ번 ᄀᆞᆯ아줍서.(나무하러 곶에 갔다 왔지요? 그거 한번 말해주세요.)

104022 #1 낭ᄒᆞ렌 저 여기서 ᄒᆞᆫ 세 참은 넘어 세 참 반쯤, 저 큰오름 뒤에 삭다리 ᄒᆞ젠 ᄒᆞ믄 그레 가사 이제, 가도 그디 가도 무신 사오기 ᄀᆞ뜬 거, 거는 베영 못 져오곡, 보통 강 이제 종낭 ᄀᆞ뜬 거 행 오는디. 우린 처음엔 무신건 철이 알앗수강? 어린 때 가난. 사오긴지 뭔지 이제 와상해시난, 다른 건 게베운 건 ᄂᆞᆷ사름 하영 ᄒᆞ고, 가부리믄 얼말 아녀도 ᄂᆞᆷ만이 ᄒᆞ니까 베여서양, 그건 다른 사름 곱은 지여도 한걸히 오는디, ᄂᆞᆷ 내분 거. 게난 그런 걸 잘 알아야지. 사오기 해단, 또 이디 오난 그거 잘 불 안 부뜨는 거난 누겔 뭐옌 ᄒᆞᆸ니까? 이거 잘못 해왓져. 게난 것도 낭도 잘 알앙 해야지.(나무하러는 저 여기서 한 세 참은 넘어 세 참 반쯤, 저 '큰오름' 뒤에 삭정이 하려고 하면 그리 가야 이제, 가도 거기 가도 무슨 벚나무 같은 거, 거는 무거워서 못 져오고, 보통 가서 이제 때죽나무 같은 거 해서 오는데. 우린 처음엔 무엇인지 알았습니까? 어린 때 가니까. 벚나무인지 뭔지 이제 아주 많으니까, 다른 거 가벼운 건 남이 많이 하고, 가버리면 얼마 안 해도 남만큼 하니까 무거워서요, 그건 다른 사람 곱은 져도 한가히 오는데, 남이 내버린 거. 그러니까 그런 걸 잘 알아야지. 벚나무 해다가, 또 여기 오니까 그거 잘 불 안 붙는 거니까 누가 뭐라고 합니까? 이거 잘못 해왔어. 그러니까 그것도 나무도 잘 알아서 해야지.)

104022 #2 게난 다음부떤 쉐 몰앙 간 ᄒᆞ멍.(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소 몰아서 가서 하면서.)

104022 #1 쉐 몰고 ᄒᆞ연 춤 쉐 두 바리 ᄒᆞ영 간, 삭다리 시껀에 오멍 해낫는디.(소 몰고 해서 참 소 두 바리 해서 갔어, 삭정이 실어서 오면서 했었는데.)

104022 @ 등짐으로도 하영 졋지양?(등짐으로도 많이 졌지요?)

104022 #1 아이고, 등짐으로 지곡, 쉐 몰곡 ᄒᆞ영 집의 와놓믄 등뗑이가 다 벗어져.(아이고, 등짐으로 지고, 소 몰고 해서 집에 와 놓으면 등이 다 벗겨져.)

104022 @ 여기는 다 연료를 쓴 거지양?(여기는 다 연료로 쓴 거지요?)

104022 #1 예, 이디선 다 지들케.(예, 여기서는 다 땔감으로.)

104022 #2 게난에 그때도 낭 ᄒᆞ레 강도 우리 도께 ᄒᆞ는 낭은 하영 해단에 누게 주멍. 도께, 그거 ᄒᆞ레 강 보믄 도께 ᄒᆞ는 낭, 일름 뭣이우꽈? 도께 ᄒᆞ는 낭.(그러니까 그때도 나무 하러 가서도 우리 도리깨 하는 나무는 많이 해다가 누구 주면서. 도리깨, 그거 하러 가서 보면 도리깨 하는 나무, 이름이 뭐입니까? 도리깨 하는 나무.)

104022 #1 윤누리.(윤노리.)

104022 #2 지레기 질어놓난 시꺼오젠 ᄒᆞ난에 배 ᄒᆞ난 막 걸련에 ᄆᆞᆫ 질메 벗어놓난에 벗으멍 ᄒᆞ난 아이고 잊어불지 아녀.(길이가 길어놓으니까 실어 오려고 하니까 참바 하니까 마구 걸려서 모두 길마 벗어 놓으니까 벗으면서 하니까 아이고 잊어버리지 안 해.)

104022 #1 질레레 내려오믄양, 좁은 디양 박박 홀트멍 쉐 몰아놓믄 옆의 막 걸리곡.(길로 내려오면요, 좁은 데요 박박 홅으면서 소 몰아놓으면 옆에 마구 걸리고.)

104022 #2 윤누리낭은 따신 ᄒᆞ지 아녀.(윤노리나무는 다신 하지 아니해.)

104022 #1 도께 낭은 집주게. 질어놓믄 쉐 ᄒᆞ영 ᄆᆞᆫ 저 쉐 질메 벗어지멍 ᄆᆞᆫ 걸리믄.(도리깨 나무는 길지요. 길어놓으면 소 해서 모두 저 소 길마 벗어지면서 모두 걸리면.)

104022 @ 서린 보통 저 뭘로 햇지양? 소낭으로.(서까래는 보통 저 뭐로 했지요? 소나무로.)

104022 #1 여긴 소낭마씨.(여기는 소나무요.)

104022 @ 서리.(서까래.)

104022 #1 서리 ᄒᆞ곡, 대 ᄋᆞ깡 저 집 뭐 ᄒᆞᆯ 때, 새끼로 ᄒᆞ영 대 ᄋᆞ깡 퉤기엔 해가지고 퉤기 ᄋᆞ끈다. 경 대로 다 ᄒᆞ영 엉알엉알 해놩 흑질 ᄒᆞ영은에 안내 ᄇᆞᆯ르곡.(서까래 하고, 대 엮어서 저 집 뭐 할 때, 새끼로 해서 대 엮어서 설외라고 해서 설외 엮는다. 그렇게 대로 다 해서 엉알엉알 해놔서 흙질해서 안에 바르고.)

104022 #2 우리 그런 집의 오래 살앗수게.(우리 그런 집에 오래 살았습니다.)

104026 @ 그다음에 저 숫 굽는 거, ᄒᆞᆫ번 ᄀᆞᆯ아봅서.(그다음에 저 숯 굽는 거, 한번 말해보십시오.)

104026 #1 숫은양 거 ᄆᆞ딘 거라사. 이 소낭 ᄀᆞ뜬 건 재게 부떠불곡, 송진이 셔 놓난.(숯은요, 거 마딘 거라야. 이 소나무 같은 건 빨리 붙어버리고. 송진이 있어 놓으니까.)

104026 @ 소낭은 안 뒈지양?(소나무는 안 되지요?)

104026 #1 야튼 뒈여도 이거 얼마 나오지도 아녀곡 잘 끼우질 안 ᄒᆞ믄 재게 카불엉 나중엔 제벳기 어서, 소낭은. 게난 보통 우린 아까시낭으로 가까운 디 싯고 ᄒᆞ난 많이

이제 해 밧는데, 요거 ᄒᆞ믄 흑 팡 영 구뎅이 널르게 감저 구뎅이 ᄀᆞ찌 파놔. 요거 아래 펜안ᄒᆞ게 읖의 흑 좀 영 반 자쯤 올령은에 직깍 세와마씸, 낭을. 트멍 시믄 안 뒈여. 직깍 세와놩 이제 바끗딜로 또 좀진 낭 뭐 이 ᄎᆞ낭 ᄀᆞ뜬 거 이파리 신 걸 해당 걸 싹 더꺼. 구짝 세왕 이제 동골락ᄒᆞ게 해놔. 요걸 잘못 세우믄 그거 불 하영 부떠부렁 안 뒈고, 직깍 세와놔. 그 우의 이제 ᄎᆞ낭 ᄀᆞ뜬 거 비여당 우의 딱 놩. 그때 이제 흑을 막 지둘뤄. 흑 지둘룅 늬 구석은 불도옌 ᄒᆞ영 고냥 나오는 디 싯곡, 불 질르는 디 셔. 게믄 한 쪽으로 이제 두 군데는 불 솜아가곡, 늬 군데는 둘로 연기 날 거 아니꽈? 흑은 영 눌 눌엉은에 ᄒᆞ듯이 둥그렇게 땅 우트레 가게 ᄒᆞ여. 흑 막 ᄉᆞ방에 지쳐놓믄 딱 ᄒᆞ게 토굴이 뒈는 겁주, 안네. 경 한쪽으론 이제 그 불궤수웨옌 ᄒᆞ영 낭으로 것도 혼참 솜아사. 경 해영 안네 그 불, 놀 거라도 주로 ᄆᆞ른 건 카불엉 안 뒈곡, 놀 걸로 ᄒᆞ여 숫은. 불이 부뜨기 시작해놓믄 요거 저 흑 해놓곡 ᄒᆞ믄 얼른 꺼지질 안ᄒᆞ여마씸. 게난 혼 일주일 이상 이제 하영 혼 건 일주일, 게 안ᄒᆞ믄 사흘 불 때사. 자꾸 강 ᄒᆞ믄 불 꺼져시카부덴 밤의도 강 보곡. 꺼져시믄 또 그레 불궤수웨 놓멍 부쪙. 그걸 쏘곱으로 어떤 땐 다 부떠사 놀 거 때양. 우읜 또 영 그 멩게낭이영 무신거 검불 하영 놩 해놓믄.(아무튼 되어도 이거 얼마 나오지도 않고 잘 끼우지를 않으면 빨리 타버리고 나중엔 재밖에 없어, 소나무는. 그러니까 보통 우린 아카시아나무로 가까운 데 있고 하니까 많이 이제 해 봤는데, 요거 하면 흙 파서 이렇게 구덩이 넓게 고구마 구덩이 같이 파놔. 요거 아래 평평하게 옆에 흙 좀 이렇게 반 자쯤 올려서 빽빽이 세워요, 나무를. 틈 있으면 안 돼. 빽빽이 세워서 이제 바깥으로 또 잔 나무로 뭐 이 참나무 같은 거 잎 있는 걸 해다가 걸 싹 덮어. 곧장 세워서 이제 동그랗게 해놔. 요걸 잘못 세우면 그거 불 많이 붙어버려서 안 되고, 빽빽이 세워놔. 그 위에 이제 참나무같은 거 베어다가 위에 딱 놔서. 그때 이제 흙을 마구 지질러. 흙 지질러서 네 구석은 불도라고 해서 구멍 나오는 데 있고, 불 지르는 데 있어. 그러면 한 쪽으로 이제 두 군데는 불 대어가고, 네 군데는 둘로 연기 날 거 아닙니까? 흙은 이렇게 가리 쌓아서 하듯이 둥그렇게 땅 위에 가게 해서. 흙 마구 사방에 끼얹어놓으면 딱 하게 토굴이 되는 거지, 안에. 그렇게 한쪽으론 이제 그 불쏘시개라고 해서 나무로 것도 한참 불을 때어야. 그렇게 해서 안에 그 불, 날 거라도 주로 마른 거는 타버려서 안 되고, 날 걸로 해 숯은. 불이 붙기 시작해 놓으면 요거 저 흙 해놓고 하면 얼른 꺼지질 안 해요. 그러니까 한 일주일 이상 이제 많이 한 건 일주일, 그렇게 안 하면 사흘 불 때야. 자꾸 가서 하면 불 꺼졌을까 싶어서 밤에도 가서 보고. 꺼졌으면 또 거기 불쏘시개 넣으면서 붙여서. 그걸 속으로 어떤 땐 다 붙어야 날 거 때요. 위에는 또 이렇게 그 청미래덩굴이랑 뭐 검불 많이 놔서 해놓으면.)

104026 #2 퍼렁혼 풀 해당 지쳐놩.(퍼런 풀 해다가 끼얹어놔서.)

104026 #1 흑 지쳐도 다 부떠마씸, 그레. 게믄 영 봥 사을 보통 잘 부뗫다. 사나을 영 봥 쏘곱이 다 부뗫다 ᄒᆞ믄 또 고냥을 딱 막아마씸. 게영 혼 사흘 딱 ᄒᆞ게 숨 못 쉬게 ᄒᆞ여놓믄 나중에 이것이 제라ᄒᆞ게 잘 부뜨믄, 기회에 잘 끼와지믄 숫이 오곤ᄒᆞ고 쒯소리가 나멍 지릉지릉 ᄒᆞ게 춤 ᄒᆞ곡. 겡 안 ᄒᆞ믄, 잘 안 막앗다믄 너무 카불어. 또 덜 부뗫다 ᄒᆞ믄 생바리[180] 나, 생바리옌 ᄒᆞ주, 잘 안 부뜬 거. 경 ᄒᆞ영 생바리 엇이 ᄒᆞ젠

ᄒᆞ믄 불을 잘 피와사 ᄒᆞᆫ다 ᄒᆞ여. 경 ᄒᆞ영 숫덜을 굽니다, 보통 여기서.(흙 끼얹어도 다 붙어요, 그리. 그러면 이렇게 봐서 사흘 잘 붙었다. 사나흘 이렇게 봐서 속에 다 붙었다 하면 또 구멍을 딱 막아요. 그렇게 해서 한 사흘 딱 하게 숨 못 쉬게 해 놓으면 나중에 이것이 온전하게 잘 붙으면, 기회에 잘 끼워지면 숯이 온전하고 쇠 소리가 나면서 지릉지릉하게 참 하고, 그렇게 안 하면, 잘 안 막았다면 너무 타버려. 또 덜 붙었다 하면 '생바리' 나, '생바리'라고 하지, 잘 안 붙은 거. 그렇게 해서 '생바리' 없게 하려고 하면 불을 잘 피워야 한다 해. 그렇게 해서 숯들을 굽니다, 보통 여기서.)

104026 @ 숫 멩글앙 숫 폴레 갓지양?(숯 만들어서 숯 팔러 갔지요?)

104026 #1 숫 폴레 간디 우리도. 그때 ᄒᆞ는 숫을 ᄒᆞ난 폴아사 ᄒᆞᆯ 거 아니꽈? 이거. 쏠도 엇곡, 우리 춤 이발ᄒᆞᆯ 돈도 엇곡, 농촌에 무신 돈이 어시믄 그걸 이제 어디 하귀[181]ᄁᆞ지, 애월[182]ᄁᆞ지 믄 젼 간. 그땐 멕에, 무신 니아까가 싯수광? 차가 싯수광? 구루마가 싯수광?(숯 팔러 갔는데 우리도. 그때 한 숯을 하니까 팔아야 할 거 아닙니까? 이거. 쌀도 없고, 우리 참 이발 할 돈도 없고, 농촌에 무슨 돈이 없으면 그걸 이제 어디 '하귀'까지, '애월' 까지 모두 져 가서. 그땐 멱서리에, 무슨 리어카가 있습니까? 차가 있습니까? 마차가 있습니까?)

104026 #2 이발소에도 폴곡.(이발소에도 팔고.)

104026 #1 이발소에 주로 ᄒᆞ믄 불ᄒᆞ믄 고데[183]라고 ᄒᆞ영 숫에 궈, 이제 영 고데질 ᄒᆞ곡, 경 ᄒᆞ멍 ᄒᆞ는 이발소선 삽주게, 숫을. 미리 맞추왓당 얼마 지여오쿠다 ᄒᆞ믄, 그땐 이제 ᄒᆞᆫ 멕에 얼마 해서. ᄒᆞᆫ 멩텡이믄 얼마. 우린 ᄒᆞᆫ 멩텡이 사쿠다, ᄒᆞᆫ 멕 사쿠다 ᄒᆞ주.(이발소에 주로 하면 불하면 '고데기'라고 해서 숯에 궈, 이제 이렇게 '고데질' 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는 이발소에서는 사지요, 숯을. 미리 맞췄다가 얼마 져오겠습니다 하면, 그땐 이제 한 멱서리에 얼마 해서. 한 망태기면 얼마. 우린 한 망태기 사겠습니다, 한 멱서리 사겠습니다 하지.)

104026 #2 이제 그거 폴아다근에 쏠도 받아당 먹곡.(이제 그거 팔아다가 쌀도 받아다가 먹고.)

104026 #1 겡 ᄒᆞ연 폴안 저 우리 생활햇수다게. (그렇게 해서 팔아서 저 우리 생활했습니다.)

104027 @ 그다음에 땔감 준비ᄒᆞ멍 느꼇던 추억이나 경험 ᄒᆞᆫ번 ᄀᆞᆯ아봅서.(그다음에 땔감 준비하면서 느꼈던 추억이나 경험 한번 말씀해보십시오.)

104027 #1 주로 ᄒᆞ믄 이 낭 뿔리 우리도 하영 햇수다게. 낭 뿔리 ᄒᆞ는디, 어디 들린 딘 가믄 탕 쳐 봉 이제 ᄒᆞ믄 탕 울리믄 쉽게 나왕 그걸 ᄒᆞ곡, 경 안 ᄒᆞᆫ 건 생낭 뿔리 가믄 요거 막 심들어마씨, 생낭 뿔리는. 깅 해도 불 때는 딘 생낭 뿔리가 오래 가곡. 경 ᄒᆞ연 사름이 얼 먹는디. 잇엉 낭 뿔리 ᄒᆞ레 가자 ᄒᆞ믄 벌써 이제 여기서도 멧 사름덜,

180) '생바리'는 잘 안 구워진 숯을 말하는 것 같다.
181) '하귀'는 제주시 애월읍 하귀리를 말한다.
182) '애월'은 제주시 애월읍 애월리를 말한다.
183) '고데'는 '고데기'라는 일본말로, 미용실에서 웨이브를 연출할 때 사용하는 둥근 형태로 된 기계이다.

것도 어느 구역 ᄒᆞ믄 이제 이녁 ᄎᆞ지ᄒᆞᆯ 걸 믄 해사 미릇도. 난 요 밧듸서, 난 요밧듸서 ᄒᆞ믄, 거 춤 소리 ᄒᆞ멍덜 생낭 ᄲᅮᆯ리도 ᄒᆞ곡.(주로 하면 이 나무 뿌리 우리도 많이 했습니다. 나무 뿌리 하는데, 어디 들린 데는 가면 탕 쳐 봐서 이제 하면 탕 울리면 쉽게 나와서 그걸 하고, 그렇지 안 한 거는 생나무 뿌리 가면 요거 아주 힘들어요, 생나무 뿌리는. 그렇게 해도 불 때는 데는 생나무 뿌리가 오래 가고. 그렇게 해서 사람이 얼 먹는데. 있어서 나무 뿌리 하러 가자 하면 벌써 이제 여기서도 몇 사람들, 것도 어느 구역 하면 이제 이녁 차지할 거를 모두 해야 미리. 난 요 밭에서, 난 요 밭에서 하면, 거 참 소리하면서들 생나무 뿌리도 하고.)

104027 #2 낭 파멍도 소리 ᄒᆞ여. 엿날 어른덜 낭 ᄲᅮᆯ리 파멍도 소리 ᄒᆞ곡.(나무 파면서도 소리 해. 옛날 어른들 나무 뿌리 파면서도 소리 하고.)

104027 #1 낭 ᄲᅮᆯ리도 풀아 여기서는. 그때는 소낭밧듸 허가가 잘 안 줍디다, 전매청에서는. 거 걸렷다 ᄒᆞ믄 벌금도 내곡 ᄒᆞ난. 낭 ᄲᅮᆯ리 ᄒᆞ믄 ᄒᆞᆫ 짐에 얼마 ᄒᆞ멍, 낭 ᄲᅮᆯ리 풀아낫수다게, ᄒᆞᆫ 짐에 얼마 ᄒᆞ멍. 짐도 짐에 가주만은 장남 짐이여, 아잇 짐이여 ᄒᆞ멍. 이제 거 이제 ᄀᆞ뜨믄 무게로 ᄒᆞ주만은 거 장남 짐 ᄒᆞᆫ 짐에 얼마, 아잇 짐 ᄒᆞᆫ 짐에 얼마. 영 핸 풀곡사곡 헤낫수다.(나무 뿌리도 팔아 여기서는. 그때는 소나무밭에 허가를 잘 안 줍디다, 전매청에서는. 거 걸렸다 하면 벌금도 내고 하니까. 나무 뿌리 하면 한 짐에 얼마 하면서, 나무 뿌리 팔았었습니다, 한 짐에 얼마 하면서. 짐도 짐에 가지만 장정 짐이야, 아이 짐이야 하면서. 이제 거 이제 같으면 무게로 하지만은 거 장정 짐 한 짐에 얼마, 아이 짐 한 짐에 얼마. 이렇게 해서 팔고 사고 했었습니다.)

104027 #2 경 ᄒᆞ는 그건 어디 강 ᄑᆞᆫ 줄 알아? 저 둠비 ᄒᆞ는 집의 강, 둠비 ᄒᆞ는 집의도 풀아낫수다. 낭ᄲᅮᆯ리 졍 강.(그렇게 하는 그건 어디 가서 판 줄 알아? 저 두부 하는 집에 가서, 두부 하는 집에도 팔았었습니다. 나무뿌리 져서 가서.)

104027 #1 게난 미릇 맞추왕 언제 낭ᄲᅮᆯ리 멧 짐 해오쿠다' ᄒᆞ믄 '거 장남짐으로 멧 짐양', 등짐 아잇 짐 멧 짐 영 ᄒᆞ멍, 아, 장남 짐 멧 짐이우다, 영 ᄒᆞ멍. 경 ᄒᆞ연 그때는 까격이 차이가 낫주기, 장남 짐은 얼마, 등짐은 얼마, 아잇 짐은 얼마 ᄒᆞ멍.(그러니까 미리 맞추어서 언제 나무뿌리 몇 짐 해오겠습니다 하면, 거 장남 짐으로 몇 짐요, 등짐 아이 짐 몇 짐 이렇게 하면서. 아, 장정 짐 몇 짐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해서 그는 가격이 차이가 났었지, 거 장정 짐은 얼마, 등짐은 얼마, 아이 짐은 얼마 하면서.)

사냥

104028 @ 그다음에 사냥에 대ᄒᆞ영 물어보쿠다양. 옛날 어떤 것덜 사냥햇수과?(그다음에 사냥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옛날 어떤 것들 사냥했습니까?)

104028 #1 아, 이디선 수산봉 가까우난 주로 꿩.(아, 여기서는 '수산봉' 가까우니까 주로 꿩.)

104028 @ 꿩?(꿩?)

104028 #1 꿩코 놩 ᄒᆞ곡. 이디 노리는 우리 뭐난 한라산에서 내려. 이딘 주로 꿩코

놧당 꿩 잡고, 또 저 나도 족제비 다시 놩 족제비 하낫수다, 제주도에. 경 또 족제비가 이거 헤 놓믄 거 거죽양, 영 목도리로 행 ᄒᆞ곡 비싸마씸. 족제비 하나에 가격 그땟돈 에 비쌉디다. 경 ᄒᆞ연 족제비 ᄒᆞ나 ᄒᆞ믄 쏠이 멧 말에치 받아져. 게난 또 족제비 장시가. (꿩 올가미 놔서 하고. 여기 노루는 우리 머니까 '한라산'에서 내려. 여기는 주로 꿩 올가미 놨다가 꿩 잡고, 또 저 나도 족제비 다시 놔서 족제비 많았습니다, 제주도에. 그렇게 또 족제비가 이거 해 놓으면 거 거죽요, 이렇게 목도리로 해서 하고 비싸지요. 족제비 하나에 가격 그때 돈 에, 비쌉디다. 그렇게 해서 족제비 하나 하면 쌀이 몇 말 받아져. 그러니까 또 족제비 장수가.)

104028 #2 엿장시덜.(엿장수들.)

104028 #1 엿장시덜 사곡, 또 족제비덜 전문으로 ᄒᆞ는 디가 셔.(엿장수들 사고, 또 족제비들 전문으로 하는 데가 있어.)

104028 #2 막 받으레 뎅겨낫수다.(마구 받으러 다녔었습니다.)

104028 #1 장에 얼마 가믄.(장에 얼마 가면.)

104028 @ 네 개? 꿩, 노리, 족제비, 지다린 안 해봅디가?(네 개? 노루, 족제비, 오소리는 안 해봤습니까?)

104028 #1 지다린 안 해봔. 이딘 지다린 별로 엇고, 또 어디 수덕 ᄀᆞ뜬 디나.(오소리는 안 해봤어. 여기는 오소리는 별로 없고, 또 어디 수덕 같은 데나.)

104028 #2 아니, 멀리서 보긴 해도 그런 거 잡지 못ᄒᆞ여. 지다리 넘어감져 ᄒᆞ영 쉐멕이멍 봐도, 이런 건 사냥도 재게 못 ᄒᆞ여.(아니, 멀리서 보긴 해도 그런 거 잡지 못해. 오소리 넘어가고 있다 해서 소 먹이면서 봐도, 이런 건 사냥도 빨리 못 해.)

104028 #1 족제빈 족닷이옌 ᄒᆞ영, 그 영 낭으로, 대로나 읏깡 요렇게 받쳇당 것이 이제 무신.(족제비는 '족닷이'라고 해서, 그 이렇게 나무로, 대로나 엮어서 요렇게 받쳤다가 것이 이제 무슨.)

104029 @ 거 나중에 물어볼 거난, 그다음에 첫 번째로 꿩 사냥, 꿩 사냥에 대행 ᄒᆞᆫ 번 ᄀᆞᆯ아줍서.(거 나중에 물어볼 거니까, 그다음에 첫 번째로 꿩 사냥, 꿩 사냥에 대해서 한번 말해주십시오.)

104029 #1 꿩은 꿩코, 이 저 전깃줄 ᄒᆞ영 벳겻당 그 저 강철로 이렇게 ᄒᆞ영 꿩코를 멩글아. 경 ᄒᆞ영 꿩 뎅이는 질, 이렇게 보믄 꿩 뎅여난 질은 알아집니다. 경 ᄒᆞ믄 그레 놓곡, 또 콩 해당 도록도록 들이쳐. 요거 꿩이옌 ᄒᆞᆫ 것도 하나 먹기 시작ᄒᆞ믄 그레 따랑 똑 가마씨. 게난 콩을 멧 방울 도록도록 털어치멍 놩.(꿩은 꿩 올가미, 이 저 전깃줄 해서 벗겼다가 그 저 강철로 해서 꿩 올가미 만들어. 그렇게 해서 꿩 다니는 길, 이렇게 보면 꿩 다녔던 길은 알아집니다. 그렇게 하면 그리 놓고, 또 콩 해다가 도록도록 들이쳐. 요거 꿩이라고 한 것도 하나 먹기 시작하면 그리 따라서 똑 가요. 그러니까 콩을 몇 방울 도록도록 떨어뜨리면서 놔서.)

104029 # @ 싸이나?(청산가리?)

104029 #1 아니, 싸이난 안 ᄒᆞ고, 처음엔. 나중엔 싸이나로 잡앗는디. 처음엔양 꿩코 놘 잡단 '에 그거 꿩코 행 잘 안 들메, 약행 해여. 거 사름이 멍청ᄒᆞᆫ 것이 그 싸이나로

흔 것도 풀곡 먹어서마씨. 거 창지만 빼불민 어떵 아니메. 거 온 독에 농약 독이 다 묻혓는디 창지만 저 무신.(아니, 청산가리는 안 하고, 처음엔. 나중엔 청산가리로 잡았는데. 처음에는요 꿩 올가미 놔서 잡다가 에, 그거 꿩 올가미 해서 잘 안 들지, 약해서 해여. 거 사람이 멍청한 것이 그 청산가리로 한 것도 팔고 먹었었지. 거 창자만 빼버리면 어떻게 안 하지. 거 온 독에 농약 독이 다 묻혔는데 창자만 저 무슨.)

104029 # @ 먹엇수게.(먹었습니다.)

104029 #1 대코젱이로 듸물앙 창지만 빵 데껴둥 풀아십주, 우리. 풀앙 받곡. 이제 꿩도 집의서도 먹곡덜.(대코로 들이밀어서 창자만 빼서 던져둬서 팔았지, 우리. 팔아서 받고. 이제 꿩도 집에서도 먹고들.)

104029 # @ 꿩코는 어디 골총 ᄀᆞ뜬 디 잘 놧지양?(꿩 올가미는 어디 고총 같은 데 잘 놨지요?)

104029 #1 아니, 이제 수산봉에 가믄 소낭 그 크지 아니 ᄒᆞ연 요만썩 흔 때난 그 꿩 뎅이는 질을 보통 영 강 보믄, 막 똥도 싸곡, 꿩 똥 싸곡. 영 옴막ᄒᆞ게 그 낭 트멍, 저 족은 낭 트멍 까시 드는 뎅이는 디가 알아져마씨. 게믄 그런 디 영 ᄒᆞ영은에 콩 주세기 해당 콩 꿩은 잘 먹어 콩. 영 두망두망 이제 모드락모드락 놩 놔두믄 그거 먹젠 ᄒᆞ당 꿩 걸리는 거. 꿩코에 걸령 경게, 메날 아침, 저녁 돌아봐사 꿩은.(아니, 이제 '수산봉'에 가면 소나무 그 크지 않아서 요만씩 할 때니까 그 꿩 다니는 길을 보통 이렇게 가서 보면, 막 똥도 싸고, 꿩 똥 싸고. 이렇게 옴쏙하게 그 나무 틈, 저 작은 나무 틈, 가시 드는 다니는 데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데 이렇게 해서 콩 찌꺼기 해다가 콩 꿩은 잘 먹어 콩. 이렇게 듬성듬성 이제 모도록모도록 놔서 놔두면 그거 먹으려고 하다가 꿩 걸리는 거. 꿩 올가미에 걸려서 그렇게요, 매일 아침, 저녁 돌아봐야 꿩은.)

104029 #2 들엄신가? 안 들엄신가.(들고 있는가? 안 들고 있는가?.)

104029 #1 누게 ᄒᆞ믄 누게 또 가져가불어. 멩심ᄒᆞ영 꿩코 돌아봐사 아침 저녁 ᄒᆞ멍, 이제 장에 강 풀곡.(누구하면 누구 또 가져가 버려. 명심해서 꿩 올가미 돌아봐야 아침, 저녁 하면서, 이제 장에 가서 팔고.)

104029 # @ 꿩은 후진을 못 해.(꿩은 후진을 못 해.)

104029 #1 그땐양, 꿩이 관에서도 단속을 안 흡디다게, 웬만ᄒᆞ믄 꿩은.(그때는요, 꿩이 관에서도 단속을 안 합디다, 웬만하면 꿩은.)

104029 #2 관이 무신 셔서. 옛날사 다.(관이 무슨 있어. 옛날에야 다.)

104029 #1 이제는 못 잡게 다 금수 내려도. 전읜 웬만흔 거 ᄒᆞ영 다 장에 강 풀곡 햇주. 꿩은 흔 짐 졍 강, 거 식당 ᄀᆞ뜬 디 꿩 전문흔디.(이제는 못 잡게 다 금수 내려도. 전에는 웬만한 거 해서 다 장에 가서 팔고 했지. 꿩은 한 짐 져서 가서, 거 식당 같은 데 꿩 전문하는데.)

104029 # @ 흔 짐ᄁᆞ지 해봅디강?(한 짐까지 해 봤습니까?)

104029 #2 아니, 흔 짐은 아니고게.(아니, 한 짐은 아니고요.)

104029 #1 멧 ᄆᆞ리 맞추아.(몇 마리 맞추어.)

104030 @ 그다음에 노리 사냥에 대ᄒᆞ영 흔번 ᄀᆞᆯ아줍서.(그다음에 노루 사냥에 대하

여서 한번 말해주세요.)

104030 #1 노루는 별로 여기서 아니곡, 웃드리 사름 들어보믄 노리 사냥도 코 놔당, 노리 코 놧당은에 이 저 것도 이.(노루는 별로 여기서 안 하고, '웃드리' 사람 들어보면 노루 사냥도 올가미 놨다가, 노루 올가미 놨다가 이 저 것도 이.)

104030 #2 노리 콘 두터레 영 흔덴 흡디다.(노루 올가미는 뒤에 이렇게 한다고 합디다.)

104030 #1 아, 게난 노리코도 꿩 닮지 안 ᄒᆞ영 걸렷다 ᄒᆞ믄 이거 들라켱 해 놓믄 그 ᄉᆞ방에 노리가 여러 ᄆᆞ리 떼지엉 뎅이당 하나 걸리믄 노리도 욬앙양. 그냥 그 ᄉᆞ방에 다신 뎅이질 안 ᄒᆞ여, 노린 혼번 해나믄. 게난 노리코 들엉, 우린 안 해밧는디, 노리콘 혼번 해나믄 들지 안 ᄒᆞ메. 어떵 노리가 욬은 줄 알아? 혼번 걸렁 해나믄 그 냄새영 뭣으로 그 ᄉᆞ방엔 안 들어.(아, 그러니까 노루 올가미도 꿩 같지 안 해서 걸렸다 하면 이거 날뛰어서 해 놓으면 그 사방에 노루가 여러 마리 무리지어서 다니다가 하나 걸리면 노루도 약아서요. 그냥 그 사방에 다시는 다니지를 안 해, 노루는 한번 해 나면. 그러니까 노루 올가미 들어서, 우린 안 해봤는데, 노루 올가미는 한번 해 나면 들지 안 하지. 어떻게 노루가 약은 줄 알아? 한번 걸려서 해 나면 그 냄새랑 뭐로 그 사방에는 안 들어.)

104030 #2 홍서방 친구 노리 잡앙 우리 집의 ᄋᆞ져오켄, ᄋᆞ져오지 말라. 저 우의 사는 사름인디, 쓰레기 ᄒᆞ는 사름인디.(홍서방 친구 노루 잡아서 우리 집에 가져오겠다고, 가져오지 말라. 저 위에 사는 사람인데, 쓰레기 하는 사람인데.)

104030 # @ 나도 혼번 먹어봐신디 별로 데.(나도 한번 먹어봤는데 별로 데.)

104030 #1 풀 내 나곡양, 이 저 여름에 잡은 건 풀 내 나마씨. 차라리 쉐고기나 ᄆᆞᆯ코기가 낫주. 노리 피 이제 옛날도 사냥ᄒᆞ믄 노리 피부떠 먹는다 ᄒᆞ는디, 노리 핀 우리 먹어보지 아니 ᄒᆞ고, 저 사슴 피 ᄀᆞ뜬 건 먹어밧주만은 노리 핀.(풀 냄새 나고요, 이 저 여름에 잡은 건 풀 냄새 나요. 차라리 소고기나 말고기가 낫지. 노루 피 이제 옛날도 사냥하면 노루 피부터 먹는다 하는데, 노루 피는 우리 먹어보지 아니하고, 저 사슴 피 같은 건 먹어봤지만 노루 피는.)

104030 # @ ᄆᆞᆯ 핀 혼번 먹어바신디.(말 피는 한번 먹어봤는데.)

104030 #1 ᄆᆞᆯ도 ᄆᆞᆯ추렴ᄒᆞᆯ 때 건. 경흔디 ᄆᆞᆯ 간이 좋고.(말도 말추렴할 때 건. 그런데 말 간이 좋고.)

104031 @ 그다음에 지다리 사냥.(그다음에 오소리 사냥.)

104031 #1 지다리는 별로 안 해밧수다만은 들 때는, 지다리도 걸, 지다리는 코도 놩 심곡, 개.(오소리는 별로 안 해봤지만은 들 때는, 오소리도 걸, 오소리는 올가미도 놔서 잡고, 개.)

104031 @ 개로 ᄒᆞ여근에.(개로 해서.)

104031 #1 개로 ᄒᆞ는디 것이 구녕 잘 아니믄, 똑 지다린 날 구녕 싯곡 들 구녕 두 곤델 행 놔둬. 어떻게 지다리가 욬은디. 게난 이거 꼭 날 굼 들 굼 이시난 그걸 잘못 ᄒᆞ믄 그냥 뚠 구멍으로 도망쳐불어. 걸 잡젠 ᄒᆞ믄.(개로 하는 데 것이 구멍 잘 아니면,

똑 오소리는 날 구멍 있고 들 구멍 두 군데 해서 놔둬. 어떻게 오소리가 약은지. 그러니까 이거 꼭 날 구멍 들 구멍 있으니까 그걸 잘못 하면 그냥 다른 구멍으로 도망쳐 버려. 걸 잡으려고 하면.)

104031 @ 연기 피왕도 흔덴 ᄒᆞ멍.(여기 피워서도 한하다고 하면서.)

104031 #2 쉐 멕이레 간 때 보믄 지다리 셩은에.(소 먹이러 간 때 보면 오소리 있어서.)

104031 #1 어떤 땐 이날 굼에 잘해야지, 들 굼에 해 놓믄 ᄋᆞᆨ앙양. 지다리ᄀᆞ찌 ᄋᆞᆨ다영. 어떻게 ᄋᆞᆨ은지 지다리는 웬만ᄒᆞ영 잡기 어려워.(어떤 때 이날 구멍에 잘해야지, 들 구멍에 해 놓으면 약아서요. 오소리같이 약다 이렇게. 어떻게 약은지 오소리는 웬만해서 잡기 어려워.)

104031 @ 지다리엿 먹어낫수다.(오소리엿 먹었었습니다.)

104031 #1 지다리엿?(오소리엿?)

104031 @ 예, 지다리엿 ᄒᆞ연에 흔번 먹어나신디.(예, 오소리엿 해서 한번 먹었었는데.)

104031 #1 보기 좋덴. 우리 먹어보지 안 ᄒᆞ연.(보기 좋다고. 우리 먹어보지 안 했어.)

104031 @ 좋덴 흡디다게, 지다리 엿.(좋다고 합디다, 오소리 엿.)

104031 #1 거 막 비싸게. 지다리 흔 ᄆᆞ리 ᄒᆞ믄 ᄆᆞᆯ 흔 ᄆᆞ리 준덴 해낫수다. 겡 비싸곡 좋덴 ᄒᆞ곡.(거 아주 비싸요. 오소리 한 마리 하면 말 한 마리 준다고 했었습니다. 그렇게 비싸고 좋다고 하고.)

104032 @ 그다음에 족제비에 대ᄒᆞ영 ᄀᆞᆯ아줍서.(그다음에 족제비에 대하여 말해주세요.)

104032 #1 족제비 잘 잡아낫수다게. 족제빈 비싸니까.(족제비 잘 잡았었습니다. 족제비는 비싸니까.)

104032 @ 거 어떵 잡읍니까?(거 어떻게 잡습니까?)

104032 #1 족제빈 영 뭣 처음엔양, 요것이 다른 건 먹지 아니 ᄒᆞ곡 쥐만 먹읍주게.(족제비는 이렇게 뭣 처음에는요, 요것이 다른 건 먹지 안 하고 쥐만 먹습지요.)

104032 @ 쥐?(쥐?)

104032 #1 쥐.(쥐.)

104032 @ 쥉이?(쥐?)

104032 #1 예, 중이만 먹으믄 요걸 영 무신 궤기에나 바릇궤기 ᄒᆞ영 족 덧 똑 요 식으로 ᄒᆞ영 받치곡 ᄒᆞ영 요렇게 톡 햇당. 대 요렇게 ᄒᆞ영 요디 햇당 톡 ᄒᆞ믄 요것이 탁 압더레 떨어지믄 우읜 무거운 돌덜 지둘롯당 압사ᄒᆞ영 죽는 거. 게믄 처음엔 궤기 ᄒᆞ영 강 보믄 집 이염이난 저 이 중이가 듭주게, 보통 ᄒᆞ믄. 이제 요 중이 ᄃᆞᆯ아메영은에 직시 이제 다시 중이 ᄃᆞᆯ앙은에 족 덧 영 놩 놔두믄 족 덧 가멍 영 고냥으로 강 탁 털어졋다 ᄒᆞ믄 좀 돈 벌엇다 이. 강 보믄 이 납작ᄒᆞ게 그자 이건 무거운 돌 ᄒᆞ영 흔번에 중이 영 산 것ᄀᆞ찌 해놓믄 대번에 물멍 뒤레 ᄃᆞᆼ이믄 이건 뭐 백 프로 잡읍주게. 겨믄 또

요건 어떻게 ᄒᆞ느냐 ᄒᆞ믄 주둥이로 영 ᄒᆞ영 ᄏᆞᆯ 거, ᄂᆞ신 칼로 베껴. 베껑 이제 대가리만 나오기 시작 ᄒᆞ믄 ᄃᆞᆼ이멍 짝짝 ᄒᆞ믄 이제 발은 나중에 요런디 끈곡, 탁 베껴져마씨. 게믄 거 그냥 놔두믄 썩어불곡 변ᄒᆞ니까 그 조찝을 담아마씨, 그레. 이젠 뒈싸놓멍 조찝 삼앙 이제 빈주룽케 걸엉 놔두믄 ᄆᆞᆯ릅주게.(예. 쥐만 먹으면 요걸 이렇게 무슨 고기에나 바닷고기 해서 족제비 덫 똑 요 식으로 해서 받치고 해서 요렇게 톡 했다가. 대 요렇게 해서 요기 했다가 톡 하면 요것이 탁 앞으로 떨어지면 위에는 무거운 돌들 지질렀다가 압사해서 죽는 거. 그러면 처음엔 고기 해서 가서 보면 집 옆이라서 저 이 쥐가 들지요, 보통 하면. 이제 요 쥐 달아매어서 즉시 이제 다시 쥐 달아서 족제비 덫 이렇게 놔서 놔두면 족제비 덫 가면서 이렇게 구멍으로 가서 탁 떨어졌다 하면 좀 돈 벌었다 이. 가서 보면 이 납작하게 그저 이건 무거운 돌 해서 한꺼번에 쥐 이렇게 산것같이 해놓으면 대번에 물면서 뒤로 당기면 이건 뭐 백 퍼센트 잡습니다. 그러면 또 요건 어떻게 하냐 하면 주둥이로 이렇게 해서 깨끗하게 거, 날카로운 칼로 벗겨. 볏겨서 이제 머리만 나오기 시작하면 당기면서 짝짝 하면 이제 발은 나중에 요런데 끊고, 탁 벗겨져요. 그러면 거 그냥 놔두면 썩어버리고 변하니까 그 조짚을 담아요, 그리. 이젠 뒤집어 놓으면서 조짚 삼아서 이제 많이 걸어서 놔두면 마르지요.)

104032 #2 초집, 초집 등뗑이에 영.(초집, 초집 등에 이렇게.)

104032 #1 초집 ᄀᆞ떤 디 어디 걸엉 놔두믄 잘 아니 ᄒᆞ믄 누게 들러가 불곡, 봐지믄. 걸엉 나두믄 바싹 ᄆᆞᆯ르믄 족제비 장시덜이 뎅이당 흥성을 ᄒᆞ여. 이 건 뭐 ᄒᆞᆫ 족짜리여. ᄒᆞᆫ 족짜리는 저, 두 족짜리 뒈여, 족반, 무신 족산디 몰라도 ᄒᆞᆫ 족짜리여, 두 족짜리여, 이거 족반짜리난 얼마 돈 아이 주크라, 이거. 아이고, 두 족짜린게, 좀 긴 거. 큰 거 영 보믄 이 두 뽐인 셍이라. 두 족이옌 족 장시, 족제비 장시덜이. 두 뽐 뒌 거는 비싸마씨. 뭐냐믄 이 목도리로 이렇게 ᄒᆞ믄 비쌉니다. 그땐 장에 막 족제비 장시가 셔낫수다. 것만 두러메영 뎅여.(초집 같은데 어디 걸어서 놔두면 잘 안 하면 누구 들어가 버리고, 봐 지면. 걸어서 놔두면 바싹 마르면 족제비 장수들이 다니다가 흥성을 해. 이 건 뭐 한 족자리야. 한 족자리는 저, 두 족자리 되어, 족 반, 무슨 족제비인지 몰라도 한 족자리야, 두 족자리야, 이거 족반자리니까 얼마 돈 안 주겠어, 이거. 아이고, 두 족자리지, 좀 긴 거. 큰 거 이렇게 보면 이 두 뼘인 모양이야. 두 족이라고 족제비 장수, 족제비 장수들이. 두 뼘 된 거는 비싸요. 뭐냐 하면 이 목도리로 이렇게 하면 비쌉니다. 그땐 장에 마구 족제비 장수가 있었습니다. 그것만 둘러매어서 다녀.)

104032 @ 꼴렝인 붓 멩글앗지양?(꼬리는 붓 만들었지요?)

104032 #1 붓 멩글곡, 견디 우리 꼴렝이 엇이믄.(붓 만들고, 그런데 우리 꼬리 없으면.)

104032 #2 못 풀아마씸.(못 팔아요.)

104032 #1 족제비 풀지 못 ᄒᆞ여. 경 족제비 장시도 꼴렝이 보곡, 이 족 보는디, 꼴렝이도 이디선 ᄒᆞ믄 붓 멩그는디, 건 아주 최상 붓입주.(족제비 팔지 못 해. 그렇게 족제비 장수도 꼬리보고, 이 족제비 보는데, 꼬리도 여기선 하면 붓 만드는데, 건 아주 최상 붓이지.)

104032 #2 받아가는 사름도 꼴렝이 엇이믄 아이 받아가.(받아가는 사람도 꼬리 없으면 안 받아가.)

104032 @ 붓이 영 눌르면은, 먹물 ᄒᆞ영 딱 눌르면은 이거 괏짝괏짝 사.(붓이 이렇게 누르면, 먹물 해서 딱 누르면 이거 꼿꼿하게 서.)

104032 #1 괏짝괏짝. 원 ᄆᆞᆯ터럭 붓이여 뭐여 해도 족제비 꼴렝이 붓은 엇고.(꼿꼿하게. 원 말털 붓이여, 뭐야 해도 족제비 꼬리 붓은 없고.)

104032 @ 그게 최고우다.(그게 최고입니다.)

104032 #1 응.(응.)

104033 @ 그다음에 사냥에 대한 추억이나 경험 ᄒᆞᆫ번 ᄀᆞᆯ아줍서.(그다음에 사냥에 대한 추억이나 경험 한번 말해주십시오.)

104033 #1 사냥은 뭐 이 저 나가 아까 얘기해시난 죄 받음 죄 받아게. 이 웃듸 ᄆᆞᆫ딱 족제비엔 ᄒᆞᆫ 건 춤 하영 잡아낫수다게. 그 ᄒᆞ믄 아, 돈이 뀌 뒈니까, 뭐 젤 쉽곡 ᄒᆞᆫ 건 어디 놈의 일 강 ᄒᆞ는 것보다 족제비 ᄒᆞᆫ ᄆᆞ리 잡으믄 이제 ᄒᆞᆫ 메칠 일ᄒᆞᆫ 돈이 나오난 그렇게 햇곡, 또 이 저.(사냥은 뭐 이 저 나가 아까 얘기했으니까 죄 받음 죄 받아요. 이 위에 모두 족제비라고 한 건 참 많이 잡았었습니다. 그 하면 아, 돈이 꽤 되니까. 뭐 제일 쉽고 한건, 어디 남의 일 가서 하는 것보다 족제비 한 마리 잡으면 이제 한 며칠 일한 돈이 나오니까 그렇게 했고, 또 이 저.)

104033 @ 여기선 어디 강 잡아마씸?(여기선 어디 가서 잡아요?)

104033 #1 여기선 그때는양, 쥐덜 하니까.(여기선 그때는요, 쥐들 많으니까.)

104033 @ 성담 ᄀᆞ뜬 디가 하는디.(성담 같은 데가 많은데.)

104033 #1 예, 담 무신 수덕 ᄀᆞ뜬디 영 뎅이당 어디 저 수덕에도 그.(예, 담 무슨 수덕 같은데 이렇게 다니다가 어디 저 수덕에도 그.)

104033 @ 잣박?(잣벽?)

104033 #1 예, 저 뭐 ᄒᆞᆫ 디가 잇수다게. 수덕 ᄀᆞ뜬 잣 ᄒᆞ믄, 그런 디 놧다 ᄒᆞ믄 어떤 잰 고넹이도 들곡 ᄒᆞ는디. 주로 이제 족제비 ᄒᆞ믄, 집 이염에도 영 소랑ᄒᆞ게 ᄒᆞ는 저 이 뭐 이 집 귀야지 욮의 담.(예. 저 뭐 한 데가 있습니다. 수덕 같은 잣 하면, 그런 데 놨다 하면 어떤 빠른 고양이도 들고 하는 데. 주로 족제비 하면, 집 옆에도 이렇게 길쭉하게 하는 저 이 머 이 집 귀퉁이 옆에 담.)

104033 #2 그땐 초집이난에게, 초집이난 무신거 먹젠덜 들어왕.(그땐 초집이니까요, 초집이니까 무엇 먹으려고 들어와서.)

104033 #1 초집이난 그런 트멍 쥐 잘 뎅이는 디가 십주게.(초집이니까 그런 틈에 쥐 잘 다니는 데가 있어요.)

104033 #2 그런 디 왓다근에.(그런 데 왔다가.)

104033 #1 그런 디 놓믄 똑 족제비 들어. 경 ᄒᆞ믄 우리도 저 알동네 살 땐 ᄒᆞ믄 아, 요딘 놓믄 족제비 잘 뒈는 골목이다.' 경 ᄒᆞ연 족제비 잡아나곡.(그런 데 놓으면 똑 족제비 들어. 그렇게 하면 우리도 저 아랫동네 살 땐 하면 아, 요긴 놓으면 족제비 잘 되는 골목이다. 그렇게 해서 족제비 잡았었고.)

104033 #2 지붕 소곱의도 족제비 막 터졍 들어가.(지붕 속에도 족제비 마구 터져서 들어가.)

104033 #1 에이고, 수뭇 돌아뎅이는 것이 밤의도 족제비, 훤해 소리가 짹짹ᄒᆞ멍.(아이고, 사뭇 돌아다니는 것이 밤에도 족제비, 훤해 소리가 짹짹하면서.)

5. 바다일

105001 @ 오늘은 그 저 바당일에 대ᄒᆞ영 물어보쿠다양. 바당에서 ᄒᆞ는 일은 어떤 것덜이 잇수과?(오늘은 그 저 바다일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바다에서 하는 일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105001 #1 바당이옌 ᄒᆞᆫ 건 바르철이옌 ᄒᆞ영 전의는 배행 테우로 ᄒᆞ영 자리 거리레 가곡, 또 여[184] 가까이 ᄒᆞ믄 덤장이옌 해가지고 그냥 영 구물 놧당 하루 지나믄 이제 걷어내믄 거기 그 장소 노는 고기덜이 거기 걸려듭주게, 경 ᄒᆞ믄. 한치라든가 뭐 오징어, 요런 거 이제 잡젱 ᄒᆞ곡, 또 저 엿날은 테우옌 ᄒᆞ영 지금도 그건 뭐 영 그자 흔적만 남앗수다만은, 테우옌 ᄒᆞ영 그 자리 사둘이라고 있수다게, 자리 뜨는 거. 게난 여에 영 가믄 이제 그 이렇게 수경이라고 해가지고 영 그 유리로 뭰 거 차가지고 이제 ᄀᆞ뜨믄 그 망원경 닮은 거. 그걸로 해영 베에 우리도 강 영 홀 때 보믄 이렇게 업더정 자리가 어디, 그 자리도 보통 밑에가양, 이 이어도[185]ᄀᆞ찌 여가 신 디 그런 디가 만이 살아마씸. 경ᄒᆞ니까 이렇게 봥 아 무슨 여, 무슨 여 ᄒᆞ믄 그 온여[186] 뭐 당여[187].(바다라고 한 건 바다철이라고 해서 전에는 배해서 떼로 해서 자리 거리러 가고, 또 '여' 가까이하면 덤장이라고 해서 그냥 이렇게 그물 놨다가 하루 지나면 이제 걷어내면 거기 그 장소 노는 고기들이 거기 걸려들지요, 그렇게 하면. 한치오징어라든가 뭐 오징어, 요런 거 이제 잡으려고 하고, 또 저 옛날은 떼라고 해서 지금도 그건 뭐 이렇게 그저 흔적만 남았습니다만, 떼라고 해서 그 자리 사둘이라고 있어요, 자리 뜨는 거. 그러니까 '여'에 이렇게 가면 이제 그 이렇게 수경이라고 해서 이렇게 그 유리로 된 거 차서 이제 같으면 그 망원경 같은 거. 그걸로 해서 배에 우리도 가서 이렇게 할 때 보면 이렇게 엎어져서 자리가 어디, 그 자리도 보통 밑에 가요 이 '이어도' 같이 '여'가 있는 데 그런 데가 많이 살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봐서 아 무슨 '여', 무슨 '여' 하면 그 '온여' 뭐 '당여'.)

105001 #2 돋여[188].('돋여'.)

105001 #2 돋여, 이런 여덜이 십주게, 바당에도. 건 우리덜이 그 저 지와놓은 이름이우다만은 아, 온여 근방 ᄒᆞ믄 아, 어느 쪽에 강 있다. 이걸 벌써 알아가지고. 경 ᄒᆞ영

184) '여'는 바닷가 바닥이 얕거나 조수가 썰 때 나타나 보이는 돌 따위를 말한다.
185) '이어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마라도로부터 남서쪽으로 149km 떨어진 지점에 있는 수중 암초인 것 같다.
186) '온여'는 '여'의 종류인 것 같다.
187) '당여'는 '여'의 종류인 것 같다.
188) '돋여'는 '여'의 종류인 것 같다.

이제 그 자리 사둘이라고 ᄒᆞ영 그 이렇게 저 망 같이 크게 행 거 저 얼멩이 닮은 그런 나이롱 구물 짠 거, 걸로 이렇게 해 가지고 쑤욱 행, 그 수경이옌 ᄒᆞᆸ니다게, 그 저 망원경 담은 거. 유리로 영 ᄉᆞ각진 건디 싹 업더졍 보믄 자리가 어느 쪽에 신 걸 알아져마씨. 게믄 쑥 행 떳당 막 자리가 그 ᄉᆞ방에 들어온 줄 알믄 싹 ᄒᆞ게 들릅주게. 들르믄 이제 그 구물에 해 가지고 자리 거리곡. 겡 해영 또 자리 해지믄 ᄒᆞ곡. 주낫이라고 ᄒᆞ영 양, 또 거 생성은 보통 여기서 저 옥돔, 그거 생성이라고 ᄒᆞ는디 제주도에선 생선, 생선. 그 건양 주낫으로벳기 안 잡아마씨. 이렇게 그 생성밧듸 여기서 ᄒᆞ믄 그 갈치왓이 싯고, 생성밧듸 싯고, 자리왓이 싯고 뭐 이 저 이 그냥 어렝이왓 싯고. 그 각각 바당의 깊이가 틀려가지고 고기 사는 디가 이제 깊은 바당일수록 큰 궤기가 사는디, 가까이 살믄 어렝이 궤기 나끄는 그런 디가 잇곡, ᄒᆞ꼼 더 가믄 이제 생성ᄒᆞ곡 갈치 나끄는 디가 잇수다게. 어장이 각각 틀려. 게믄 갈치 나끄는 디 가믄 갈치는 이제 뭐 구물로 뜨는 것도 아니고, 거 갈치 이껍으로 해가지고 꿰엇당 거 던졍 갈칠, 낚시를 ᄒᆞᆫ 줄에 ᄋᆞ라 개 멥니다. 일 메다나 팔십 전쯤. 경 안 ᄒᆞ영 쪼꼼 뭐 ᄒᆞ믄 막 줒아야 육십 쎈찌. 경 안 ᄒᆞ믄 팔십 쎈찌. 이렇게 ᄋᆞ라 개 이제 그 니껍을 꿰영 데껴둠서 이 뉄 훌텅 젓어마씸. 배를 젓엉 저레 가가믄 이렇게 줄이 흘리와질 거 아니우꽈? 게믄 갈치덜이 그 확 ᄃᆞᆯ려들엉 그 무는 거라. 경 ᄒᆞ영 ᄒᆞᆫ번에 그 ᄃᆞᆼ이곡 ᄒᆞ믄 ᄒᆞᆫ.(‘돋여’, 이런 ‘여’들이 있지요, 바다에도. 건 우리들이 그 저 지은 이름입니다만은 아, ‘온여’ 근방 하면 아, 어느 쪽에 가서 있다. 이걸 벌써 알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자리 사둘이라고 해서 그 이렇게 저 망같이 크게 해서 거 저 어레미 같은 그런 나일론 그물 짠 거, 걸로 이렇게 해 가지고 쑤욱 해서, 그 수경이라고 합니다, 그 저 망원경 같은 거. 유리로 이렇게 사각진 건데 싹 엎드려서 보면 자리가 어느 쪽에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쑥 해서 떴다가 마구 자리가 그 사방에 들어온 줄 알면 싹 하게 들러요. 들으면 이제 그 그물에 해 가지고 자리 거리고. 그렇게 해서 또 자리해지면 하고. 주낙이라고 해서요, 또 거 생선은 보통 여기서 저 옥돔, 그거 생선이라고 하는 데 제주도에선 생선, 생선. 그건요 주낙으로 밖에 안 잡아요. 이렇게 그 생선밭에 여기서 하면 그 갈치밭이 있고, 생선밭이 있고, 자리밭이 있고, 뭐 이 저 이 그냥 어렝놀래기밭 있고. 그 각각 바다의 깊이가 달라가지고 고기 사는 데가 이제 깊은 바다일수록 큰 고기가 사는데, 가까이 살면 어렝놀래기 고기 낚는 그런 데가 있고, 조금 더 가면 이제 생선하고 갈치 낚는 데가 있습니다. 어장이 각각 달라. 그러면 갈치 낚는 데 가면 갈치는 이제 뭐 그물로 뜨는 것도 아니고, 거 갈치 미끼로 해가지고 꿰었다가 거 던져서 갈치를, 낚시를 한 줄에 여러 개 맵니다. 일 미터나 팔십 전쯤. 그렇게 안 해서 조금 뭐 하면 아주 잦아야 육십 센티미터. 그렇게 안 하면 팔십 센티미터. 이렇게 여러 개 이제 그 미끼를 꿰여서 던져둬서 이 낚시줄 훑어서 저어요. 배를 저어서 저쪽으로 가가면 이렇게 줄이 흘리워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갈치들이 그 확 달려들어서 그 무는 거야. 그렇게 해서 한번에 그 당기고 하면 한.)

105001 #2 ᄉᆞ망 일믄 ᄒᆞ꼼 하영 나오곡.(소망 일면 조금 많이 나오고.)

105001 #1 ᄋᆞ라 개 ᄒᆞᆫ번에 올라오기도 ᄒᆞ는디, 잘 아니 ᄒᆞ믄 ᄒᆞ나 둘도 나끄곡. 겐디 사름이 ᄆᆞ음이 이상해가지고양, 우리 영 갈치왓듸 그 가보면 읖의서 고기 나끄면서

도 ᄀᆞ뜬 배, 동서라도 ᄀᆞᆯ아주질 안 ᄒᆞᆸ니다.(여러 개 한번에 올라오기도 하는데, 잘 안 하면 하나 둘도 낚고. 그런데 사람이 마음이 이상해서요, 우리 이렇게 갈치밭에 그 가보면 옆에서 고기 낚으면서도 같은 배, 동서라도 말해주지를 안 합니다.)

105001 #2 기술이 ᄯᅮ낭, 갈치 나끌 때.(기술이 달라서, 갈치 낚을 때.)

105001 #1 아니, 멧 발 디물앙, 멧 발 디물앙 갈치 무는 걸 욒의 가. 아, 영 보믄 이물, 고물이라고 ᄒᆞ는디, 이물은 앞의고, 고물은 뒈엔디, 그것이 젤 선장이나 이제 고물 탓 이물 탓 이렇게. 또 잘 못 나끄는 사름 중간에 놓는 사름 부떠가든지 ᄒᆞ믄 앚집주게. 앞뒤는 이제 잘 ᄒᆞ는 사름덜. 게믄 뒤 ᄀᆞ뜬 딘 멀리 흘릴 거 아니우꽈? 멀리 데껴, 갈치 술을. 경 아픠도 멀리 데끼곡 영 ᄒᆞ는디. ᄋᆞ픠는 그 욒더레 데껴도 얼마 못 ᄒᆞ곡, 또 줄이 서로 걸려부난. 경 ᄒᆞᆫ디 갈친 욒의서 보믄 훌터 나끄는 디도, 아, 이녁은 못 나까. 건 머냐. 멧, 멧 발 나끈 갈치가 놓는 디가 잇는디. 걸 어떵 운이 좋으믄, 예를 들엉 쓰무 발이던지, 거 서른 발 내려서 잘 물어. 영 ᄒᆞ믄 훌터 나끄는디, 아, 욒 사름은 걸 잘 못 나까마씸. 이렇게 보믄 그 깊이가 멧 발 ᄒᆞᆫ 걸 몰라. 경 ᄒᆞ영 ᄀᆞᆯ아주질 안 ᄒᆞᆸ니다, 서로 ᄀᆞ뜬 배 타도.(아니 몇 발 디밀어서, 몇 발 디밀어서 갈치 무는 걸 옆에 가. 아, 이렇게 보면 이물 고물이라고 하는데, 이물은 앞에고, 고물은 뒤엔데, 그것이 제일 선장이나 이제 고물 탓, 이물 탓 이렇게. 또 잘 못 낚는 사람 중간에 놓는 사람 붙어 가든지 하면 앉지요. 앞뒤는 이제 잘하는 사람들. 그러면 뒤 같은 데는 멀리 흘릴 거 아닙니까? 멀리 던져, 갈치술을. 그렇게 앞에도 멀리 던지고 이렇게 하는데. 옆에는 그 옆으로 던져도 얼마 못 하고, 또 줄이 서로 걸려 버리니까. 그렇게 하는 데 갈치는 옆에서 보면 홅어 낚는 데도 아, 이녁은 못 낚아. 건 뭐냐, 몇, 몇 발 낚은 갈치가 넣는 데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운이 좋으면, 예를 들어서 스무 발이던지, 거 서른 발 내려서 잘 물어. 이렇게 하면 홅어 낚는데, 아, 옆 사람은 그걸 잘 못 낚아요. 이렇게 보면 그 깊이가 몇 발 한 걸 몰라. 그렇게 해서 말해주질 안 합니다, 서로 같은 배 타도.)

105001 #2 게난 잘 ᄒᆞ는 사름만 배에 시껑 가. 생성 나끄는 사름덜은 일류, 일류 선장, 저 잘 나끄는 사름덜. 게 아니믄 ᄃᆞᆯ아가질 아니 ᄒᆞ여.(그러니까 잘 하는 사람만 배에 실어서 가. 생선 낚는 사람들은 일류, 일류 선장, 저 잘 낚는 사람들. 그렇게 안 하면 데려가지를 아니해.)

105001 #1 경 저 어렝이왓도 이 각각 틀립주게, 바당 이 깊이가. 궤기 또 사는 궤기덜토 각각 ᄯᅮ나곡.(그렇게 저 어렝놀래기밭도 이 각각 다르지요, 바다 이 깊이가. 고기 또 사는 고기들도 각각 다르고.)

105002 @ 그다음에양, 그 듬북ᄒᆞ고 감태 잇지 안 ᄒᆞ우꽈?(그다음에요, 그 뜸부기하고 감태 있지 않습니까?)

105002 #2 감태.(감태.)

105002 @ 감태ᄒᆞ고 듬북, 거 어떵 채취ᄒᆞᆸ니까?(감태하고 뜸부기, 거 어떻게 채취 합니까?)

105002 #2 예, 감탠게 그 감태 ᄌᆞ무는 시기가 서근에 감태 ᄌᆞ물레 가게 ᄒᆞ믄 이디서 저 ᄆᆞ딱 알동네 사름덜 ᄀᆞᆯ아. 닐 감태 ᄌᆞ물 거라. 밥도 잘 먹엉 놔두곡, 힘도 쎄라. ᄒᆞ멍

감탠 경 미역 닮지 안 ᄒᆞ여근에 ᄌᆞ물앙 올령, 게 영 ᄌᆞ물레 가믄, 에에, 감태 저 밥 두루 먹엇져, 힘 엇다. 감탠양 그 막 힘이 셔사. 다른 거 닮지 안 ᄒᆞ영. 미역은 가벼운디 감태는양, 그 망사리로 ᄒᆞ나 해도 베영 나오질 못ᄒᆞ여. 게난 우리 ᄀᆞ뜬 사름은 베영 못 나옵니다, 막 춤. 감태 ᄌᆞ무는 할망덜은 에에 할망덜, 저 보통 할망덜 아니라. 독ᄒᆞᆫ 할망덜이라.' ᄆᆞ음이 그추룩 가는 사름은 감태를 못 ᄌᆞ물아낫젠 ᄒᆞᆸ디다게. 경 ᄒᆞ영 우리 씨이모님, 우리 씨어머니 아시는 워낙 알동네 살멍 그런 감태만 ᄌᆞ물곡, 그 빈네만 ᄒᆞ곡 해나난 ᄆᆞ음이 막 굳어져근에 바당물에 가도 막 일등으로 잘 ᄒᆞ여. 겐디 상동ᄒᆞ고 하동도 ᄯᅳ나, 감태 ᄌᆞ무는 것이. 경 ᄒᆞ영 ᄌᆞ물아다 놔근에 그것도 저 그땐 공출ᄒᆞ렌 ᄒᆞ믄 감태도 더러 공출ᄒᆞ고, 저 그 후젠 공출ᄒᆞ단에 이 시대가 바꽈져 가난, 이 밧듸 저 도새기 걸름 엇어가난 밧듸 꼴안. 밧듸 꼴젠 ᄒᆞ믄 막 멕에 담앙덜 서로 서로 져 가곡. 그것도 잇날은 바당 인심이 경 어성양. 막 바당이옌 ᄒᆞ믄 할망덜토 막 지네 지레 에에, 그 집원 무신 그것도 못 ᄒᆞ여. ᄂᆞᆷ광 ᄀᆞ찌 감태도 그 멧 짐, 난 석 짐 졍 온디 ᄒᆞᆫ 짐도 못ᄒᆞ여? ᄒᆞ멍양, 그처록 바당 인심이 하도 해놓난 ᄒᆞ단 이 상동 사름덜은 하영 떨어져불언. 하도 알동네 할망덜 그추룩 ᄒᆞ연. 이 심이 쎄사 ᄒᆞᆫ덴 ᄒᆞ멍 밥 잘 먹엉 오라, 뭣 ᄒᆞ라 ᄒᆞ멍 ᄀᆞᆯ을 말 어스난 그추룩 ᄒᆞ멍. 미역은 가볍게 해지는디, 이 감탠양 아무나 잘 못 ᄒᆞᆸ디다게. 우리도 간양, 좁아뎅겨보난.(예. 감태는요 그 감태 채취하는 시기가 있어서 감태 채취하러 가게 하면 여기서 저 모두 아랫동네 사람들 말해. 내일 감태 채취할 거야. 밥도 잘 먹어서 놔두고, 힘도 세라, 하면서 감태는 그렇게 미역 같지 안 해서 채취해서 올려서, 그렇게 해서 채취하러 가면, 에에, 감태 저 밥 두루 먹었어, 힘 없다. 감태는요 그 아주 힘이 있어야. 다른 거 같지 안 해서. 미역은 가벼운데 감태는요, 그 망사리로 하나 해도 무거워서 나오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무거워서 못 나옵니다, 아주 참. 감태 캐는 할머니들은 에에 할머니들, 저 보통 할머니들 아니야, 독한 할머니들이야. 마음이 그처럼 가는 사람은 감태를 못 채취했었다고 합디다. 그렇게 해서 우리 시이모님, 우리 시어머니 동생은 워낙 아랫동네 살면서 그런 감태만 채취하고, 그 빈녀만 하고 했으니까 마음이 아주 굳어져서 바닷물에 가도 아주 일등으로 잘 해. 그런데 상동하고 하동도 달라, 감태 채취하는 것이. 그렇게 해서 채취해다 놔서 그것도 저 그땐 공출하라고 하면 감태도 더러 공출하고, 저 그 후에는 공출하다가 이 시대가 바뀌져 가니까, 이 밭에 저 돼지거름 없어 가니까 밭에 깔았어. 밭에 깔려고 하면 마구 멱서리에 담아서들 서로, 서로 져 가고. 그것도 옛날은 바다 인심이 그렇게 없어서요. 마구 바다라고 하면 할머니들도 마구 자기네 지러 에에, 그 집에는 무슨 그것도 못 해. 남과 감태도 그 몇 짐, 난 석 짐 져서 오는데 한 짐도 못 해? 하면서요, 그처럼 바다 인심이 하도 해놓으니까 하다가 이 상동 사람들은 많이 떨어져 버려. 하도 아랫동네 할머니들 그처럼 했어. 이 힘이 세야 한다고 하면서 밥 잘 먹어서 오라, 뭣 하라 하면서 말할 말 없으니까 그처럼 하면서. 미역은 가볍게 해지는데, 이 감태는요 아무나 잘 못 합디다. 우리도 가서요, 잡아 당겨 보니까.)

105002 @ 혼자 ᄒᆞᆸ니까? 공동으로 ᄒᆞᆸ니까?(혼자 합니까? 공동으로 합니까?)

105002 #2 공동으로 체얌읜 ᄒᆞ단, 공출ᄒᆞᆯ 땐 공동으로 ᄒᆞ단 말젠, 저 감태 ᄌᆞ물아

와도 지르지썩 ᄒᆞ멍 밧듸 ᄀᆞᆯ아. 밧듸 오좀 졍 강 서끄곡 ᄒᆞ여근에.(공동으로 처음에는 하다가, 공출 할 때는 공동으로 하다가 나중에는, 저 감태 채취해 와도 자기만큼씩 하면서 밭에 깔아. 밭에 오줌 져 가서 섞고 해서.)

105002 @ 거난 처음엔 공동으로?(그러니까 처음에는 공동으로?)

105002 #2 예, 처음엔 공동으로 ᄒᆞ여근에, 감태도 잇날 공출산디, 무신거산디 경 저 하영 ᄒᆞᆫ 사름은 하영 주곡, 그레 시꺼가낫수다, 잇날 무신 차로 ᄒᆞ여근에. 시꺼갈 땐 바당에 가도 감태도 널엇당도 가져가곡, 널엉 뭴싸 놔.(예. 처음에는 공동으로 해서, 감태도 옛날 공출인지, 무엇인지 그렇게 저 많이 한 사람은 많이 주고, 그리 실어갔었습니다, 옛날 무슨 차로 해서. 실어갈 땐 바다에 가도 감태도 널었다가도 가져가고, 널어서 뒤집어 놔.)

105002 #1 ᄆᆞᆯ리왓당.(말렸다가.)

105002 #2 멕에 담으라 ᄒᆞ멍 그추룩 ᄒᆞ멍 해도양, 이 알동네, 웃동넨 ᄯᅮ나근에 웃동네 사름은 ᄒᆞ단에 말쩬 하영 떨어젼. 줌녀덜 하영 떨어지곡, 이제 하도 ᄒᆞ는 사름덜찌리도 잘 못 헴져, 잘 헴져 하도 해 놓난, 경 해낫수다게. 경 ᄒᆞ연 그 후젠 말쩬 멧 사름만 감태 ᄒᆞ연에 바당에 저 걸름 ᄒᆞ젠. 걸름 ᄒᆞ곡 오좀 져 가곡, 츤물 져 가곡 해낫수다게.(멱서리에 담으라 하면서 그처럼 하면서 해도요, 이 아랫동네, 윗동네는 달라서 윗동네 사람은 하다가 말째는 많이 떨어졌어. 해녀들 많이 떨어지고, 이제 하도 하는 사람들끼리도 잘 못 하고 있다, 잘 하고 있다 하도 해 놓으니까,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후에는 말째는 몇 사람만 감태 해서 바다에 저 거름 하려고. 거름 하고 오줌 져 가고 짠물 져 가고 했었습니다.)

105002 #1 ᄆᆞᆷ, ᄆᆞᆷ덜토 이 저 드릇ᄆᆞᆷ이옌 ᄒᆞ영 사름 먹지 안 ᄒᆞ영 무신 ᄆᆞᆷ덜. 그런 ᄆᆞᆷ덜은 이제 그 ᄌᆞ물앙 ᄆᆞᆷ ᄌᆞ물앙 막 해 놓믄, 또 저 하도 막 저 이 눌 씌여나믄 ᄆᆞᆷ이 막 그 올릅주게. 경 그거 막 ᄆᆞᆷ ᄃᆞᆼ영 놔뒷당 이제 밧듸 ᄀᆞᆯ곡, 걸름으로. 이추룩 그건 걸름용이난. ᄆᆞᆷ컬름 이제 요거 썩엉 ᄒᆞ믄 두세 해 두어 해갈수록 밧이 좋아집주게, 염분은 좀 셔도.(모자반, 모자반들도 이 저 개모자반이라고 해서 사람 먹지 안 해서 무슨 모자반들. 그런 모자반 들은 이제 그 채취해서 모자반 채취해서 마구 해놓으면, 또 저 하도 마구 저 이 가리 씌워 나면 모자반이 마구 그 오르지요. 그렇게 그거 마구 모자반 당겨서 놔뒀다가 이제 밭에 깔고, 거름으로. 이처럼 그건 거름용이니까. 모자반거름 이제 요거 썩어서 하면 두세 해 두어 해갈수록 밭이 좋아지지요, 염분은 좀 있어도.)

105003 @ 그다음에 그 보말양, 보말ᄒᆞ고 겡이.(그다음에 그 고둥요, 고둥하고 게.)

105003 #1 그엥이?(게?)

105003 @ 건 어떵 잡읍니까?(건 어떻게 잡습니까?)

105003 #1 보말은 이제 그 보말왓듸 물이 그 저 ᄒᆞ꼼 쌍에 톳왓, 보말왓 이 바당도 각각 그 물싸는 지픠가 ᄯᅮ납주게. 보말왓이옌 ᄒᆞ믄 이제 구젱이 나기 전에 그거 이제 ᄒᆞᆫ 두어 숨이옌 ᄒᆞ느냐? 두 숨이나 물 싸믄 그 지픠가 두 숨 빠지곡 ᄒᆞ믄, 에, 보말 막 낫져 이. 보말이 먹보말이 싯고 무신.(고둥은 이제 그 고둥밭에 물이 그 저 조금 써서 톳밭, 고둥밭 이 바다도 각각 그 물 써는 깊이가 다르지요. 고둥밭이라고 하면 이제 소

라 나기 전에 그거 이제 한 두어 숨이라고 하느냐? 두 숨이나 물 써면 그 깊이가 두 숨 빠지고 하면, 에, 고둥 마구 났다 이. 고둥도 밤고둥이 있고 무슨.)

105003 #2 지름보말.(남방울타리고둥.)

105003 #1 지름보말, 또 무신 보말.(남방울타리고둥, 또 무슨 고둥.)

105003 #2 시 가지 신디.(세 가지 있는데.)

105003 @ 게난 잡는 것만 골아봅서.(그러니까 잡는 것만 말해보십시오.)

105003 #1 보말 게믄.(고둥 그러면.)

105003 #2 담 뒈쓰믄.(담 뒤집으면.)

105003 #1 이렇게 큰 담 시믄, 알로 영 치와가멍 보믄 보말이 아래 돌아집니다. 게믄 손으로 영 ᄒᆞ영 허곡, 또 이.(이렇게 큰 담 있으면, 아래로 이렇게 치워가면서 보면 고둥이 아래 매달립니다. 그러면 손으로 이렇게 해서 하고, 또 이.)

105003 #2 손벳기 무신.(손밖에 무슨.)

105003 #1 보말 ᄀᆞ뜬 거 하영 저 잡을라믄 여기서 줴기 아시날 글어, 영 ᄒᆞ여. 줴기알[189]이옌 ᄒᆞᆫ 건 물때 맞추앙 밤의 이제 초저녁에 물이 딱 싼 때 강 물이 벤직벤직ᄒᆞᆯ 때 ᄒᆞ믄 영 횃불 들렁, 횃댈 들렁 이 불 뎅이믄 그 보말이영 뭐영 그 햇당 전부 벳, 벳 맞젠 나앚읍니다. 게믄 발에 영 뎅여가믄 발에 꼭꼭 찔러 보말 한 딘. 경 ᄒᆞ영 막 씰멍 이제 구덕 영 두트레 찻당 두트레 영 줴기 아시날 존둥이 줄라메영.(고둥 같은 거 많이 저 잡으려면 여기서 조금 전날 가자, 이렇게 해. '줴기알'이라고 한 건 물때 맞춰서 밤에 이제 초저녁에 물이 딱 썬 때 가서 물이 반짝반짝할 때 하면 이렇게 횃불 들러서, 횃불을 들러서 이 불 다니면서 그 고둥이랑 뭐랑 그 했다가 전부 볕, 볕 맞으려고 나앉습니다. 그러면 발에 이렇게 다녀가면 발에 꼭꼭 찔러 고둥 많은 데는. 그렇게 해서 마구 쓸면서 이제 바구니 이렇게 뒤로 찼다가 뒤로 이렇게 조금 전날 잔등이에 잘라매어서.)

105003 #2 존둥이에 구덕 줄라메영.(잔등이에 바구니 잘라매어서.)

105003 #1 횃불 영 ᄒᆞᆫ 쪽 들르곡, ᄒᆞᆫ 사름은 횃불 들르곡, 경 ᄒᆞ영. 줴기 알 씰렌 행은에.(횃불 이렇게 한 쪽 들고, 한 사람은 횃불 들고, 그렇게 해서 조금 아래 쓸라고 해서.)

105003 #2 막 보말 하난에.(아주 고둥 많으니까.)

105003 #1 경 ᄒᆞ영 보말 하영 잡곡.(그렇게 해서 고둥 많이 잡고.)

105003 #2 막 하영 잡앗주, 그때.(아주 많이 잡았지, 그때.)

105003 #1 또 그엥이도, 그엥이 잡을 땐 그 몸크엥이[190]라고 ᄒᆞ여. 존 그엥이덜이 이제 신디. 그걸 영 보말왓 전의라도 물이 싸기 시작ᄒᆞ믄 ᄉᆞ방에 자갈이 영 무룩ᄒᆞᆯ 거 아니우꽈? 경 ᄒᆞ영 문딱 다 치와 가운딘 영 낮에. 치우믄 긍이가 문딱 그레 들어갑니다, 가운듸레. 경 ᄒᆞ영 막 치왕 영 ᄒᆞ영 ᄎᆞᄎᆞ 치와가믄 하나썩 돌릴 거 아니우꽈? 긍이. 게믄 문딱 깡통더레 햇당 심어놔. 경 ᄒᆞ영 그거 햇당 나중에 죽도 뽓앙 쒕 먹곡 뭐. 반찬도 행 먹곡, 경 ᄒᆞ엿수다.(또 게도, 게 잡을 땐 그 '몸크엥이'라고 해. 잔 게들이 이제 있

189) '줴기알'은 조금 때 물이 잘 괴는 바닷가 언덕 위에 패어 들어간 곳이다.
190) '몸그엥이'는 게의 일종이다.

는 데. 그걸 이렇게 고둥밭 전에라도 물이 써기 시작하면 사방에 자갈이 이렇게 뭉뚝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모두 다 치워 가운데는 이렇게 낮에. 치우면 게가 모두 그리 들어갑니다, 가운데로. 그렇게 해서 마구 치워서 이렇게 해서 차차 치워 가면 하나씩 달릴 거 아닙니까? 게가. 그러면 모두 깡통으로 했다가 잡아놔. 그렇게 해서 그거 했다가 나중에 죽도 빻아서 쒀서 먹고 뭐. 반찬도 해서 먹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105003 #2 방엣혹에 뿟앙.(방아확에 빻아서.)

105003 #1 방엣혹에 콕콕.(방아확에 콕콕.)

105003 @ 보말 해당은 뭐 행 먹엇수광?(고둥 해다가 뭐 해서 먹었습니까?)

105003 #2 보말도게 죽도 쒕 먹곡, 거세기 국도 끌령 먹곡. 그추룩 해낫주기. 아기덜 기운출리렌 ᄒᆞ멍 죽 쒕 멕이믄 막 베 아파근에 물똥 싸곡 ᄒᆞ멍. 경 어신 사름은 경 ᄒᆞ영 하영 멕이곡.(고둥도요 죽도 쒀서 먹고, 거시기 국도 끓여서 먹고, 그처럼 했었지요. 아기들 기운차리라고 하면서 죽 쒀서 먹이면 아주 배 아파서 물똥 싸고 하면서. 그렇게 없는 사람은 그렇게 해서 많이 먹이고.)

105003 @ 베가 좀 아프는 모양이라.(배가 좀 아프는 모양이야.)

105003 #1 그게양 지름끼가 너무 한 셍이라.(그게요 기름기가 너무 많은 모양이야.)

105003 #2 지름끼 하신디 뭣사 신디게, 먹을 거 엇이난에.(기름기 많은지 뭐야 있는지, 먹을 거 없으니까.)

105003 #1 그걸 먹으믄 베 아프는 사름이 잇어.(그걸 먹으면 배 아프는 사람이 있어.)

105003 #2 아기덜은. 그거 베지근ᄒᆞᆫ 거옌 죽 쒀근에 어멍 먹어보믄 베지근ᄒᆞ난 아기덜 먹을 거 엇이난 그거라도 주믄. ᄒᆞ꼼 하영 먹으믄 물똥 싸곡, 경 ᄒᆞ멍 해낫수다게. 경 ᄒᆞ난 잡아다근에.(아기들은. 그거 비지근한 거라고 죽 쒀서 어머니 먹어보면 비지근하니까 아기들 먹을 거 없으니까 그거라도 주면. 조금 많이 먹으면 물똥 싸고, 그렇게 하면서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잡아다가.)

105003 #1 보말 깡 영 반찬도, 장물에, 장물에 컷당 그거 밥 먹으멍 이제 하나썩영 먹곡 줍아 먹곡.(고둥 까서 이렇게 반찬도, 간장에, 간장에 담갔다가 그거 밥 먹으면서 이제 하나씩 이렇게 먹고, 집어 먹고.)

105004 @ 그다음에 그 보말 종류 어떤 것덜 잇수과?(그다음에 그 고둥 종류 어떤 것들 있습니까?)

105004 #1 보말 종류는 먹보말 싯곡, 건 이만썩 훌근 건디, 또 수드리보말이라고 ᄒᆞ꼼 지픈 디 강.(고둥 종류는 밤고둥 있고, 건 이만큼씩 굵은 건데, 또 두드럭고둥이라고 조금 깊은 데 가서.)

105004 #2 ᄒᆞ꼼 커.(조금 커.)

105004 #1 납작ᄒᆞ게 구젱이 종류 비슷ᄒᆞ여도. 거 수드리보말, 먹보말, 또 지름보말, 또 이 준 거 뭣고.(납작하게 소라 종류 비슷해도. 그거 두드럭고둥, 밤고둥, 또 남방울타리고둥, 또 이 잔 거 뭐지.)

105004 @ 지름보말은 어떤 거라?(남방울타리고둥은 어떤 거지?)

105004 #1 지름보말은 저 먹보말 아랫 거 준 건디, 그게 이제 빈주룽케 저.(남방울타리고둥은 저 밤고둥 아래 거 잔 건데, 그게 이제 아주 많이 저.)

105004 #2 아니, 등뗑이가 뜨나.(아니, 등이 달라.)

105004 #1 종류가 틀리고.(종류가 다르고.)

105004 #2 등뗑이가 빈직빈직 ᄒᆞ여, 빈직빈직 ᄒᆞ곡. 지름보말은 홁지도 안 ᄒᆞ곡, 줄도 안 ᄒᆞ영 지름보말은 보말 중에 젤 알아주지 안 ᄒᆞ여. 알아주지 안 ᄒᆞ여도 잘 못 잡으믄 거라도 잡아 와사, 다른 사름덜은 막 재게 잡아도게.(등이 반짝반짝 해, 반짝반짝 하고. 남방울타리고둥은 굵지도 않고, 작지도 않아서 남방울타리고둥은 고둥 중에 젤 알아주지 안 해. 알아주지 않아도 잘 못 잡으면 거라도 잡아 와야, 다른 사람들은 아주 빨리 잡아도.)

105004 @ 게난 먹보말.(그러니까 밤고둥.)

105004 #2 먹보말, 수드리보말, 지름보말.(밤고둥, 두드럭고둥, 남방울타리고둥.)

105004 @ 그다음?(그다음?)

105004 #1 그다음은 무신 저 거드레기.(그다음은 무슨 저 소라게.)

105004 #2 거드레기보말.(소라게고둥.)

105004 #1 거드레기보말이옌 ᄒᆞ영양, 그것이 꼭 영 쏘곱에 집 짓엉 쏘곱에.(소라게고둥라고 해서요, 그것이 꼭 이렇게 속에 집 지어서 속에.)

105004 @ 깅이 신 거?(게 있는 거?)

105004 #1 깅이 신 것이 거드레기보말.(게 있는 것이 소라게고둥.)

105004 @ 거 먹지 못ᄒᆞ는 거 아니우꽈?(거 먹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105004 #1 경 ᄒᆞ여도 그것도 영 솔므믄 나오곡.(그렇게 해도 그것도 이렇게 삶으면 나오고.)

105004 #2 경헤도 그것도 잡아오곡게, 홀 거 엇이난.(그래도 그것도 잡아오고, 할 거 없으니까.)

105004 @ 거드레기 그다음?(소라게 그다음?)

105004 #1 먹보말 싯고, 또 수드리보말, 지름보말, 또 이.(밤고둥 있고, 또 두드럭고둥, 남방울타리고둥, 또 이.)

105004 #2 니 가지.(네 가지.)

105004 #1 아니, 막 듬삭ᄒᆞᆫ 거 뭣고, 것이 지름보말인가.(아니, 아주 푸짐한 거 뭐지, 것이 남방울타리고둥인가?)

105004 #2 지름보말 헤양ᄒᆞᆫ 거 빈직빈직 등뗑이 ᄒᆞᆫ 거. 그건 젠젠ᄒᆞ영 ᄂᆞᆷ광 ᄀᆞ찌 ᄒᆞ지 못ᄒᆞᆫ 사름은 그거라도 해사.(남방울타리고둥 하얀 거 반짝반짝 등 한 거. 그건 자잘해서 남과 같이 하지 못한 사람은 그거라도 해야.)

105004 @ 그 정도.(그 정도.)

105004 #2 예, 그 정도빆이 우린 잡아 나지 안 ᄒᆞ엿수다. 막 젠젠ᄒᆞ영 요멘씩 부뜬 건.(예, 그 정도밖에 우린 잡아 나지 안 했습니다. 아주 자잘해서 요만큼씩 붙은 거는.)

105004 #1 바릇 잡으레 가자 ᄒᆞ믄.(오분자기 잡으러 가자 하면.)

105004 #2 바릇 잡으레 가게 ᄒᆞ믄 어두와사.(오분자기 잡으러 가게 하면 어두워야.)

105004 @ 바릇이옌 햄구나 오분재기.('바릇'이라고 하고 있구나, 오분자기.)

105004 #2 예, 바릇이옌.(예, 오분자기라고.)

105004 #1 뭐 오분재기 ᄀᆞ뜬 것도 해도.(뭐 오분자기 같은 것도 해도.)

105004 @ 바릇.(오분자기.)

105004 #1 바릇 잡으레 가자.(오분자기 잡으러 가자.)

105004 #2 바릇 잡으레 ᄒᆞ는 건 오분재기가 아니고, 이것, 저것 보말.(오분자기 잡으러 하는 건 오분자기가 아니고, 이것, 저것 고둥.)

105004 @ 오분재기 아니?(오분자기 아니?)

105004 #2 어, 이것이.(어, 이것이.)

105004 @ 바르옌 ᄒᆞ주 바르.('바르'라고 하지 오분자기.)

105004 #2 바르.(오분자기.)

105004 #1 이것이 바릇 잡으레 가켜 ᄒᆞ믄 강 겡이도 잡곡 보말도 잡곡.(이것이 오분자기 잡으러 가겠다 하면 가서 게도 잡고 고둥도 잡고.)

105004 #2 ᄋᆞ라 가지.(여러 가지.)

105004 #1 ᄋᆞ라 가지. 바당의 뭐 신 거, 그 톳밧부떠 나기 시작ᄒᆞ믄 ᄎᆞᄎᆞ 바릇 잡으레 가게 ᄒᆞ믄.(여러 가지. 바다에 뭐 있는 거, 그 톳밭부터 나기 시작하면 차차 오분자기 잡으러 가게 하면.)

105004 @ 오분재기가 바르카부덴.(오분자기가 '바르'일까 싶어서.)

105004 #2 아니, 건 아니우다.(아니. 건 아닙니다.)

105004 @ 저 바르옌 ᄒᆞ는 디가 있어, 오분재기를.(저 '바르'라고 하는 데가 있어, 오분자기를.)

105004 #1 겨난 뭣 ᄒᆞ믄 저 궷낭 가졍강 이 저 돌 일르멍, 경 큰 돌 일르믄 그디.(그러니까 뭣 하면 저 굄목 가져가서 이 저 돌 일으키면서 그렇게 큰 돌 일으키면 거기.)

105004 #2 겡이도 나오곡, 보말도 나오곡.(게도 나오고, 고둥도 나오고.)

105004 #1 무신 보말이영 그디 오분재기영양, 점북이영 재수 좋으믄 경 ᄒᆞ곡, 또 이 물그럭도 심어지곡, 경 홉니다. 겨난 이 저.(무슨 고둥이랑 거기 오분자기하고요, 전복이랑 재수 좋으면 그렇게 하고, 또 이 문어도 잡을 수 있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저.)

105004 @ 저 무신거. 저 오분재기ᄒᆞ곡 전복 구별해지쿠과?(저 무엇. 저 오분자기 하고 전복 구별해지겠습니까?)

105004 #1 점북은 납주룩ᄒᆞ멍 저 그 저 옆의 이렇게.(전복은 납작하면서 저 그 저 옆에 이렇게.)

105004 #2 아니, 껍데기 ᄯᅳ나.(아니 껍데기 달라.)

105004 #1 오분재기는 동골락ᄒᆞ면서 이 술이 많고.(오분자기는 동그라면서 이 살이 많고.)

105004 #2 껍데기가 민지락ᄒᆞ여.(껍데기가 매끄러워.)

105004 @ 견디양, 정확ᄒᆞ게 ᄀᆞ리쳐주쿠다양.(그런데요, 정확하게 가르쳐주겠습니다.)

105004 #2 예, 경.(예, 그렇게.)

105004 @ 오분재기는 족아도 그 고망 터진 거, 껍데기 고망터진 숫자가 일곱 개에서 여덟 개고, 고망 터진 거 터져야 뒈.(오분자기는 작아도 그 구멍 터진 거, 껍데기 구멍 터진 숫자가 일곱 개에서 여덟 개고, 구멍 터진 거 터져야 돼.)

105004 #2 두께, 두껭이가?(뚜껑, 뚜껑?)

105004 @ 전복은 커도.(전복은 커도.)

105004 #2 예.(예.)

105004 @ 세 개에서 네 개벳기 안 터져.(세 개에서 네 개밖에 안 터져.)

105004 #1 아, 고망 터진 게.(아, 구멍 터진 것이.)

105004 @ 예.(예.)

105004 #1 우리 그건 몰랏네. 껍데기로 영 봉.(우리 그건 몰랐네. 껍데기로 이렇게 봐서.)

105004 #2 등뗑이, 등뗑이? 등뗑이, 응. 게난 점북은 시 개?(등, 등? 등, 응. 그러니까 전복은 세 개?)

105004 @ 세 개에서 네 개.(세 개에서 네 개.)

105004 #2 세 개에서 네 개, 큰 건 네 개. 게문 오분재긴?(세 개에서 네 개, 큰 건 네 개. 그러면 오분자기는?)

105004 @ 아니, 크던 족던 세 개에서 네 개. 오분재기는 일곱 개에서 여덜 개 터져.(아니, 크든 작든 세 개에서 네 개. 오분자기는 일곱 개에서 여덟 개 터져.)

105004 #2 족아도 그추룩 헴수다양.(작아도 그처럼 하고 있군요.)

105004 @ 족아도.(작아도.)

105004 #2 경 ᄒᆞ여도 여물은 하, 것이.(그렇게 해도 여물은 많아, 것이.)

105004 #1 여물은 오분재기가 합주게.(여물은 오분자기가 많지요.)

105004 #2 겁죽은 족아도.(껍데기는 작아도.)

105005 @ 그다음에양, 깅이 종류 말해봅서, 깅이 종류.(그다음에요, 게 종류 말해 보세요, 게 종류.)

105005 #1 깅이 종류는 저 지름깅이가 싯곡, 그거는 족은 거. 또 ᄆᆞᆷ킹이[191]라고 ᄆᆞᆷ팟듸, 저 톳밧듸 살멍 그 저 불고롱ᄒᆞ게 영 발이 뻘겅ᄒᆞ곡, 대가리 뻘겅ᄒᆞ곡. 그게 영 보믄 잡앙 보믄 뿔긋뿔긋 ᄒᆞᆫ 거. 이거 이제 ᄆᆞᆷ킹이, 지름깅이[192], 또 이 바당에 ᄒᆞ믄 거 무신 이름이라? 이 나오믄 털 복삭 돋는 거.(게 종류는 저 남방울타리고둥 있고, 그거는 작은 거. 또 '몸킹이'라고 모자반밭에, 저 톳밭에 살면서 그 저 발그레한 이렇게 발이 벌겋고, 머리가 벌겋고. 그게 이렇게 보면 잡아서 보면 빨긋빨긋 한 거. 이 거 이제 '몸킹이', '지름깅이', 또 이 바다에 하면 거 뭐 이름이라? 이 나오면 털 빽빽이 돋는 거.)

191) '몸킹이'는 게의 일종이다.

192) '지름깅이'는 조간대(潮間帶) 상층(上層)에 서식하는 게의 일종이다.

105005 #2 건 펄깅이[193]게, 펄깅이.(건 '펄깅이'요, '펄깅이'.)

105005 #1 바당에는 그런 것이, 아니 땅에 잇는 건 내에 잇는 거 ᄒᆞ고 ᄯᅳ납주게. 내깅이는 이제 털 깅이가 있고.(바다에는 그런 것이, 아니 땅에 있는 것은 냇가에 있는 거 하고 다지요. 냇가 게는 이제 털 게가 있고.)

105005 #2 ᄆᆞᆷ킹인 몹실아근에.('ᄆᆞᆷ킹이'는 독해서.)

105005 #1 ᄆᆞᆷ킹이는 빨강ᄒᆞ면서도 ᄆᆞᆷ이나 톳밧 나믄 이제 똑 우리 전의 강 바당에 강 ᄒᆞ믄 영 물이 싸가믄 요것이 물가로 똑 뎅이멍 무신거 먹젠만 뎅이당 ᄒᆞ믄 사름도 심곡 ᄒᆞ는디, 물 지픈 딘 안 살곡, 물이 ᄇᆞ따도 이제 ᄒᆞ곡. ('ᄆᆞᆷ킹이'는 빨강하면서 모자반이나 톳밭 나면 이제 똑 우리 전에 가서 바다에 가서 하면 이렇게 물이 써 가면 요것이 물가로 똑 다니면서 뭐 먹으려고만 다니다가 하면 사람도 잡고 하는데. 물 깊은 데는 안 살고, 물이 밭아도 이제 하고.)

105005 @ 게난 한번 더 ᄀᆞᆯ아봅서. 깅이 종류가 ᄆᆞᆷ킹이.(그러니까 한번 더 말해보세요. 게 종류가 'ᄆᆞᆷ킹이'.)

105005 #1 ᄆᆞᆷ킹이 잇곡, 이제 족은 지름깅이, 지름깅이옌 ᄒᆞᆫ 건 납작 요만썩 ᄒᆞ면서도 그 저 그거 이 심어당.('ᄆᆞᆷ킹이' 있고, 이제 작은 '지름깅이'라고 한 건 납작 요만씩 하면서도 그 저 그거 이 잡아다가.)

105005 @ 바당에 강 쪼끌락ᄒᆞᆫ 거, 건 뭐라?(바다에 가서 작은 거, 건 뭐야?)

105005 #1 게메, 그거 심방깅이가 셔.(글쎄, 그거 두점박이민꽃게 있어.)

105005 @ 심방깅이?(두점박이민꽃게?)

105005 #1 심방깅이옌 ᄒᆞ영 발이 넙작넙작ᄒᆞ면서도 영 저 무신 그 땅에 그 저 내에 사는 깅이 비슷ᄒᆞᆫ 거, 심방깅이. 그거는 영 저 발도 넙작ᄒᆞ고 건 ᄒᆞ꼼 지픈 디도 살곡. 그 무신 우리가 바릇 잡아 봐도 구젱이 나곡 ᄒᆞ는 디 심방깅이가 살아.(두점박이민꽃게라고 해서 발이 넓적넓적하면서도 이렇게 저 무슨 그 땅에 그 저 냇가에 사는 게 비슷한 거, 두점박이민꽃게. 그거는 이렇게 저 발도 넓적하고 건 조금 깊은 데도 살고. 그 뭐 우리가 바다 거 잡아 봐도 소라 나고 하는 데 두점박이민꽃게가 살아.)

105005 #2 막 쎄영 건.(아주 세어서 건.)

105005 #1 ᄆᆞᆷ킹이는 보통 물이 곧 쌍 곧 물 돌앗젠 ᄒᆞᆸ주게. 바당물 곧 싸가믄, 에, 물 돌앗져, 영 ᄒᆞ멍 이제 물이 싸기 시작ᄒᆞ믄 요런 지름깅이 ᄀᆞ뜬 건 나와.('ᄆᆞᆷ킹이'는 보통 물이 곧 써서 곧 물 돌았다고 하지요. 바닷물 곧 써 가면 에, 물 돌았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물이 써기 시작하면 요런 '지름깅이' 같은 건 나와.)

105006 @ 그다음에 아까 횃불양, 횃불 이용해근에 어떤 해산물덜 잡읍니까?(그다음에 아까 횃불요, 횃불 이용해서 어떤 해산물들 잡습니까?)

105006 #1 그거는 이제 밤의 어둡곡 ᄒᆞ믄 줴기알 씰레 가자 ᄒᆞ믄.(그거는 이제 밤에 어둡고 하면 '줴기알' 쓸러 가자 하면.)

105006 @ 줴기알[194]?('줴기알'?)

193) '펄깅이'는 주로 개펄에 사는 게이다.
194) '줴기알'은 조금 때 물이 잘 괴는 바닷가 언덕 위에 패어 들어간 곳이다.

105006 #1 줴기알. 줴기알 쓸레 가자 ᄒᆞ믄 밤의 영 ᄒᆞ영 그 지름통에 경 아니 ᄒᆞ믄, 뭐 대야나 지름 질엉 딱 ᄒᆞ게 뭐 꼴렝이로 막앙은에 왁왁ᄒᆞ영 이 둑둑 훈둘렁 불 착ᄒᆞ믄 그 지름 카멍 영 해당 ᄒᆞ믄 재게 부떠부니까, 영 가끔 흔들곡 영 ᄒᆞ믄 지름이 올라올 거 아니우꽈? 착착ᄒᆞ믄 또 불 그 횃불 ᄒᆞᆫ 사름은 들르곡 둘인 양쪽더레 그 불 보멍 이제 따라강 물 싼 딜로 영 첨벙첨벙 가가믄 줴기알이옌 ᄒᆞ영 이런 보말도 나오곡양. 밤에 그 벳 맞젱 밤의 나와. 게믄 물 ᄒᆞ꼼 지픈 디 강 구젱이도 잡아지곡, 또 재수 좋으믄 물꾸럭도 심어. 경 물꾸럭도 잡곡. 경ᄒᆞ믄 줴기알 ᄒᆞ믄 영 구덕에 딱 ᄒᆞ게 배 메영은에 허리레 차.('줴기알'. '줴기알' 쓸러 가자 하면 밤에 이렇게 해서 그 기름통에 그렇게 안 하면 뭐 대야나 기름 길어서 딱 하게 뭐 끝에 막아서 캄캄해서 이 둑둑 흔들어서 불 착 하면 그 기름 타면서 이렇게 하다가 하면 빨리 붙어 버리니까, 이렇게 가끔 흔들고 이렇게 하면 기름이 올라올 거 아닙니까? 착착하면 또 불 그 횃불 한 사람은 들고 둘은 양쪽으로 그 불 보면서 이제 따라가서 물 썬 데로 이렇게 첨벙첨벙 가가면 '줴기알'이라고 해서 이런 고동도 나오고요. 밤에 그 볕 맞으려고 밤에 나와. 그러면 물 조금 깊은 데 가서 소라도 잡아지고, 또 재수 좋으면 문어도 잡아. 그렇게 문어도 잡고. 그러면 '줴기알' 하면 이렇게 바구니에 딱 하게 참바 매어서 허리에 차.)

105006 #2 ᄉᆞᆼ키 구덕 차.(푸성귀 구덕 차.)

105006 #1 창은에 ᄉᆞᆼ키 구덕 ᄒᆞ영 딱 ᄒᆞ믄 영 굽어도 얼른 안 쏟아질 거 아니우꽈. 경 ᄒᆞ믄 영영 씰멍 이 뒤터레 잡으멍.(차서 푸성귀 바구니 해서 딱 하면 이렇게 굽어도 얼른 안 쏟아질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이렇게 이렇게 쓸면서 이 뒤로 잡으면서.)

105006 #2 두 사름은 잡곡, ᄒᆞᆫ 사름은 불 들르곡.(두 사람은 잡고, 한 사람은 불 들고.)

105006 #1 ᄒᆞᆫ 사름은 불 들렁.(한 사람은 불 들어서.)

105006 #2 ᄉᆞᆯ칵 들르믄 오래 아니 가는 따문에, 저 ᄉᆞᆯ칵은 자꾸 꺼근에.(관솔 들면 오래 안 가는 때문에, 저 관솔은 자꾸 꺼서.)

105006 #1 전의 ᄉᆞᆯ칵불 헤난디 그놈으 건 지름불.(전에 관솔에 켠 불 했었는데 그놈의 거는 기름불.)

105006 @ 각짓불?(등잔불?)

105006 #2 아니 ᄉᆞᆯ칵불. 소낭에 강 ᄉᆞᆯ칵불 헤당 그거 헤근에.(아니 관솔에 켠 불. 소나무에 가서 소나무에 켠 불 해다가 그거 해서.)

105006 #1 아니, 전읜 경 헤난디 중간에 이제 석유 지름 불. 석유 지름 대막뎅이에 그 ᄆᆞ디에 영 질렁 우의로 꼴렝이 막 꽉꽉 뭣으로 담앙은에.(아니, 전에는 그렇게 했었는데 중간에 이제 석유 기름 불. 석유 기름 대막대기에 그 마디에 이렇게 찔러서 위로 끝에 마구 꽉꽉 뭣으로 담아서.)

105006 #2 경 지름 적졍.(그렇게 기름 적셔서.)

105006 #1 훈둘렁 불 탁 부찌믄 불그곡, 지름 카는, 그런 것도 다 카불믄 대게 대 카부난에 그 들른 사름이 멩심ᄒᆞ영 자꾸 영 훈둘러 주곡 해사.(흔들어서 불 탁 붙이면 밝고, 기름 타는, 그런 것도 다 타버리면 대게 대 타버리니까 그 든 사람이 명심해서 자

꾸 이렇게 흔들어 주고 해야.)

105006 #2 지름 골로로 가게.(기름 골고루 가게.)

105006 #1 게믄 어이 쒜기알 오래 씰어졈져.'(그러면 어이 '쒜기알' 오래 쓸고 있다.)

105006 #2 하영 잡아졈져, 경.(많이 잡고 있다, 그렇게.)

105006 @ 게믄 뭐 뭐 잡는 거라?(그러면 뭐 뭐 잡는 거야?)

105006 #2 아이고, 여러 가지 잡아집니다.(아니고 여러 가지 잡을 수 있습니다.)

105006 #1 뭐 나오는 냥 발 ᄒᆞ믄 보통.(머 나오는 대로 발 하면 보통.)

105006 #2 물꾸럭도 잡아지곡, 깅이도 잡곡.(문어도 잡을 수 있고, 게도 잡고.)

105006 #1 물꾸럭도 잡곡, 이 ᄃᆞ신 디 ᄒᆞ믄양, 이 온갖 것이 다 나와.(문어도 잡고, 이 따뜻한 데 하면요, 이 온갖 것이 다 나와.)

105006 @ 낙지.(낙지.)

105006 #1 낙지나 점복, 경 안 ᄒᆞ믄 재수 좋은믄.(낙지나 전복, 그렇지 않으면 재수 좋으면.)

105006 #2 조갱이게, 조갱이, 점복이 아니고.(새끼 전복요, 새끼 전복, 전복이 아니고.)

105006 @ 전복도 나와?(전복도 나와?)

105006 #1 응, 점복도 나와. 조갱이, 보말.(응, 전복도 나와. 새끼 전복, 고둥.)

105006 @ 조갱이?(새끼 전복?)

105006 #2 점복이 조갱이, 이디선 조갱이.(전복이 '조갱이', 여기서는 새끼 전복.)

105006 #1 조갱이, 오분재기.(새끼 전복, 오분자기.)

105006 #2 조갱이 잡곡, 깅이도 어떤 땐 나오곡.(새끼 전복 잡고, 게도 어떤 땐 나오고.)

105006 #1 밤의 ᄆᆞᆷ킹이영 이 깅이덜토 좀 나옵주게. 겨믄 닥치는 양 씰어놔 이 저 구덕더레. 경 ᄒᆞ고 어떤 잰 깅인 문 ᄃᆞᆯ아나불곡.(밤에 'ᄆᆞᆷ킹이'랑 이 게들도 좀 나오지요. 그러면 닥치는 대로 쓸어놔 이 저 바구니로. 그렇게 하고 어떤 빠른 게는 모두 달아나 버리고.)

105006 #2 나록찍이나 ᄋᆞ정강 지둘롸사.(볏짚이나 가져가서 지질러야.)

105006 #1 쒜기알 씰엉 오믄 ᄒᆞᆫ 구덕 ᄒᆞ여 놓믄 갖당 ᄎᆞᆷ, 솖아놓믄 푸지게 먹읍주게.('쒜기알' 쓸어서 오면 한 바구니 해 놓으면 갖다가 참, 삶아 놓으면 푸지게 먹습지요.)

105006 #2 먹곡게.(먹고요.)

105006 #1 반찬도 ᄒᆞ곡.(반찬도 하고.)

105006 #2 동네 사름덜이영 누게 주곡, 폭낭 아래 강.(동네 사람들이랑 누구 주고, 팽나무 아래 가서.)

105006 #1 쒜기알 씰어 왓자 그거 솖앙 먹지 안 ᄒᆞ여.('쒜기알' 쓸어 와도 그거 삶아서 먹지 안 해.)

105006 #2 쒜기알 씰어 왓젠 ᄒᆞ믄 탁배기 먹으레, 감주 먹으레. 폭낭 아래덜 오믄

ᄀᆞ찌 솖앙덜 먹곡.(‘쥐기알’ 쓸어 왔다고 하면 탁주 먹으러, 감주 먹으러. 팽나무 아래들 오면 같이 삶아서들 먹고.)

105006 #1 막걸리 먹으멍 안주도 ᄒᆞ곡 ᄒᆞ영게.(막걸리 먹으면서 안주도 하고 해서.)

105006 #2 막걸리가 아니고 탁베기, 집의서 ᄒᆞ영 술 ᄒᆞ여근에 좁쏠 ᄒᆞ영 술 ᄒᆞ여근에 그거 먹겐. 쥐기알 씰어 왓젠 ᄒᆞ믄 에, 그 집의 저 탁배기 먹곡 그것 강 먹게 ᄒᆞ믄 하르방덜 막, 우리도 씨아바님네 친구덜 폭낭 알 이염에서 ᄒᆞ난 ᄆᆞᆫ딱 완에 춤 먹으멍 해낫수다.(막걸리가 아니고 탁주, 집에서 해서 술 해서 좁쌀로 해서 이렇게 술 해서 그거 먹겠다고. ‘쥐기알’ 쓸어 왔다고 하면 에, 그 집의 저 탁주 먹고, 그것 가서 먹게 하면 할아버지들 마구, 우리도 시아버님네 친구들 팽나무 아래 옆에서 하니까 모두 와서 참 먹으면서 했었습니다.)

105006 #1 쥐기알 잘 ᄒᆞ믄 푸집주게 그거. 먹는 게 하.(‘쥐기알’ 잘 하면 푸지지요 그거. 먹는 게 많아.)

105006 #2 것도 옛날이주, 이젠 하나토 엇어.(것도 옛날이지, 이젠 하나도 없어.)

105006 #1 이젠 뭐 하도 물가 바당.(이젠 뭐 하도 맑아 바다.)

105006 #2 바당의 오염뒈곡 추접ᄒᆞ영. 그땐 무신 바당 깨끗ᄒᆞ난 아멍 잡앙 그듸서도 튿어 먹으멍.(바다가 오염되고 더러워서. 그땐 무슨 바다 깨끗하니까 아무거나 잡아서 거기서도 뜯어 먹으면서.)

105007 @ 구엄리에 원[195] 잇수과? 원담.(‘구엄리’에 ‘원’ 있습니까? ‘원담’.)

105007 #1 원땀, 이제는.(‘원담’, 이제는.)

105007 @ 원담 또는 갯담이엔 ᄒᆞ는디, 그 안네 들어온 궤기는 어떵 잡읍니까?(‘원담’ 또는 ‘갯담’이라고 하는데, 그 안에 들어온 고기는 어떻게 잡습니까?)

105007 #1 아, 그건 원땀 이 계로 ᄒᆞ영 수리ᄒᆞ는 사름이 싯수다게, 멧 사름 ᄒᆞ믄. 그 지금 삼밧[196] 아래 원땀이 셔낫는디, 이젠 흔적만 싯고양, 거기 어촌계에서 하도 저 못ᄒᆞ게 ᄒᆞ곡, 단속해 놓난 원땀은 내불엄수다, 안 ᄒᆞ연. 전읜 원땀 ᄒᆞ믄 멜 들어왓져 뭐 거기 ᄒᆞ믄 이렇게 원땀 자꾸 저 이 파도 씨고 절 일어가믄 헤싸집주게. 게믄 원땀 수리ᄒᆞ레 가자 해서.(아, 그건 ‘원담’ 이 계로 해서 수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몇 사람 하면. 그 지금 ‘삼밧’ 아래 ‘원담’이 있었는데, 이젠 흔적만 있고요, 거기 어촌계에서 하도 저 못하게 하고, 단속해 놓으니까 ‘원담’은 내버리고 있습니다, 안 해서. 전에는 ‘원담’ 하면 멸치 들어왔다 뭐 거기 하면 이렇게 ‘원담’ 자꾸 저 이 파도 세고 파도 일어가면 무너지지요. 그러면 ‘원담’ 수리하러 가게 해서.)

105007 #2 수리해서? 다우레, 담 다우레.(수리해서? 쌓으러, 담 쌓으러.)

105007 #1 원땀 다우레 가자 행 강 모다들엉 거 ᄏᆞᆯ 멜라진거 다곡, 준 고냥덜은 내불곡, 큰 고냥덜은 다 궤기 나가분덴 막아마씨. 경 이제 물쌍 우리도 거 강 보믄 아, 거 고기덜이 저레 직ᄒᆞ엿당 물때 뒈믄 원땀 ᄒᆞᆫ 사름덜이 왕 궤기도 더러, 하여튼 드러

195) ‘원’은 ‘원담 또는 갯담’이라고도 하며, 해변 조간대(潮間帶)에 만(灣)을 이루는 듯한 곳에 돌담을 축조해 놓고 밀물을 따라 몰려든 고기떼를 썰물이 나면 그 안에 가둬 놓아 쉬 잡을 수 있게 장치해 둔 곳이다.

196) ‘삼밧’은 제주시 애월읍 구엄리 해안가 지경 이름이다.

그레 들어온 거는 거의 심어마씨, 이 궤기도 물때에 맞추왕.(원담 쌓으러 가게 해서 가서 모여들어서 거 깨끗하게 무너진 거 쌓고, 작은 구멍들은 내버리고 큰 구멍들은 다 고기 나가 버린다고 막아요. 그렇게 이제 물써서 우리도 거 가서 보면 아, 거 고기들이 저리 지켰다가 물때 되면 '원담' 한 사람들이 와서 고기도 더러, 하여튼 마구 그리 들어온 거는 거의 잡아요, 이 고기도 물때에 맞춰서.)

105007 @ 손으로 심읍니까?(손으로 잡습니까?)

105007 #1 소살로.(작살로.)

105007 #2 아니, 무신걸로 거려, 거리는 거 ᄒᆞ영.(아니, 무엇으로 잡아 올려, 잡아 올리는 거 해서.)

105007 #1 족바지로도 거리곡, 저거 소살로 쏘앙은에 잡곡.(작은 바가지로도 잡아 올리고, 저거 작살로 쏘아서 잡고.)

105007 #2 푸데로도 잡곡.(포대로도 잡고.)

105007 #1 그 안네 영 물 ᄒᆞ여도 다 물 빠지진 안 ᄒᆞᆸ니다. 물 가운듸서 소살로 탁탁 쏩곡.(그 안에 이렇게 물 해도 다 물 빼지진 안 합니다. 물 가운데서 작살로 탁탁 쏘고.)

105007 #2 지네덜 ᄒᆞ여근에 어디 장에도 풀레 가곡 하도 헤가난, 그추룩 헤가난 어촌계에서 못 ᄒᆞ게.(자기네들 해서 어디 장에도 팔러 가고 하도 해가니까, 그처럼 해가니까 어촌계에서 못 하게.)

105007 #1 이제 지네 뭐 ᄒᆞ영 바당 거는 못 ᄒᆞ게 ᄒᆞ여. 설러부런.(이제 자기네 뭐 해서 이렇게 바다 것은 못 하게 해, 치워버렸어.)

105007 #2 이제도 담은 잇수다. 담은 이서도 그것이 해체뒈부럿주게, 이제.(이제도 담은 있습니다. 담은 있어도 그것이 해체돼 버렸어요, 이제.)

105007 #1 거기 하간거 잡지 못ᄒᆞ게 ᄒᆞ여부난.(거기 여러 가지 거 잡지 못하게 해 버리니까.)

105008 @ 원땀 보수는 어떵ᄒᆞᆸ니까?('원담' 보수는 어떻게 합니까?)

105008 #1 원땀은 원땀, 동네에서 멧 사름이 원땀 계를 ᄒᆞ영은에 저 우리 원땀 저 수리ᄒᆞ영 뭐 ᄒᆞ자 ᄒᆞ믄 장남덜 신 집의 그걸 ᄒᆞ영 멧이 영 짜가지고 계 ᄀᆞ찌양.('원담'은 '원담'. 동네에서 몇 사람이 '원담' 계를 해서 저 우리 '원담' 저 수리해서 뭐 하자 하면 장정들 있는 집에 그걸 해서 몇이 이렇게 짜서 계같이요.)

105008 #2 지게에 지곡, 돌.(지게에 지고, 돌.)

105008 #1 그거 ᄒᆞ영 그 돌 춤, 잘 든든ᄒᆞ게 두 줄로 딱 다웁니다.(그거 해서 그 돌 참, 잘 단단하게 두 줄로 딱 쌓습니다.)

105008 #2 먹돌로 먹돌.(먹돌로 먹돌.)

105008 #1 웨 줄로 다우면은 절 일엉 찰락찰락 해가믄 다 멜라져. 게난 두 줄로 아주 기운 씬 장남덜 이신 집이라사 다웁주게. 다우멍 또 이제 뭐 ᄒᆞᆫ 건 고냥 ᄒᆞᆫ 건 문딱 막곡 ᄒᆞ멍, 경 ᄒᆞ영 보수ᄒᆞᆸ주게. 원땀 쭉 ᄒᆞ게 ᄒᆞ루.(외 줄로 쌓으면 파도 일어서 찰락찰락 해가면 다 무너져. 그러니까 두 줄로 아주 기운 센 장정들 있는 집이라야 쌓지요. 쌓으면서 또 이제 뭐 한 건 구멍 한 건 모두 막고 하면서, 그렇게 해서 보수하지요. '원

담’ 쭉 하게 하루.)

105008 #2 막 씬 바당 쎄여놓으믄 그디 담 멜라졍.(막 센 바다 세어 놓으면 거기 담 무너져서.)

105008 #1 오십 메다 보통. 영 웻담. 바당은 영 가운더레 동골락ᄒᆞ게 다왕.(오십 미터 보통. 이렇게 외담. 바다는 이렇게 가운데로 동그랗게 쌓아서.)

105008 #2 이제도 잇수다. 담 고냥이영 잇는디.(이제도 있습니다. 담 구멍이랑 있는데.)

105008 #1 이제도 그 저 흔적은 잇수다.(이제도 그 저 흔적은 있습니다.)

105008 #2 이젠 어촌계가 생겨불곡, 딱 막아불곡 해부난 ᄒᆞ지 못ᄒᆞ곡, 이젠 궤기도 들어오지 안 ᄒᆞ곡 ᄒᆞ난.(이젠 어촌계가 생기고, 딱 막아버리고 하니까 하지 못하고, 이젠 고기도 들어오지 않고 하니까.)

105008 #1 이젠 궤기덜이양.(이젠 고기들이요.)

105008 @ 이호[197]옌 크게 만들앗수다.(‘이호’에는 크게 만들었습니다.)

105008 #2 여기도 담 고냥이영 영 막아난 디 문딱 싯수다만은 보술 안 ᄒᆞ곡, 보수 안 ᄒᆞ곡.(여기도 담 구멍이랑 이렇게 막았던 데 모두 있습니다만 보수를 안 하고, 보수 안 하고.)

105008 #1 어촌계에서 관리ᄒᆞ고 ᄒᆞ난예, 원땀은 그자 시지부지.(어촌계에서 관리하고 하니까요, ‘원담’은 그저 흐지부지.)

105008 #2 흔적은 다 잇수다. 영 나가곡 들어오곡 ᄒᆞ는 디.(흔적은 다 있습니다. 이렇게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데.)

105008 #1 게난 이제 그 일반 사름덜이 영 바릇 잡는 디 ᄒᆞ고, 또 어촌계에서 원땀 ᄒᆞ는 듸는 구젱이도 하곡 ᄒᆞ믄, 또 구젱이 씨라고 ᄒᆞ영 문딱 저 수산협동조합에서 씨를 구젱이 종ᄌᆞ, 헤끔썩 흔 거, 걸 다 뿌립주게. 뿌령 요것이 ᄒᆞ믄 멧 해, 두 해, 세 해 ᄒᆞ믄 ᄌᆞ물멍 잡는디 일반 사름덜은 잡질 못 ᄒᆞ게 ᄒᆞ여마씨, ᄌᆞ본 ᄒᆞ영은에 씨 놔 놓난. 게난 그 전읜 보믄 그추룩 안 흔 땐 원땀에 강 문딱 돌 일르멍 바릇도 잡아난디 이젠 못 ᄒᆞ여.(그러니까 이제 그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바다 거 잡는 데 하고, 또 어촌계에서 ‘원담’ 하는 데는 소라도 하고 하면, 또 소라 씨라고 해서 모두 저 수산협동조합에서 씨를 소라 종자, 조금씩 한 거, 걸 다 뿌리지요. 뿌려서 요것이 하면 몇 해, 두 해, 세 해 하면 채취하면서 잡는데 일반 사람들은 잡지 못 하게 해요, 자본 해서 씨 놔 놓으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 보면 그처럼 안 한 땐 ‘원담’에 가서 모두 돌 일으키면서 바다 것도 잡았었는데 이젠 못 해.)

105009 @ 멜, 원땀 안네 멜 들어오지 안 흡니까양?(멸치, ‘원담’ 안에 멸치 들어오지 않습니까?)

105009 #2 멜 들어.(멸치 들어.)

105009 @ 멜은 어떵 잡읍니까?(멸치는 어떻게 잡습니까?)

105009 #1 전읜 멜 들엇져 ᄒᆞ믄 막 동네가 난리우다. 멜 들엇져 ᄒᆞ믄 멜팟, 겐디 멜

197) ‘이호’는 제주시 이호동에 위치한 이호테우해변을 가리킨다.

팟 인심이라고 멜 든덴 욮의 뭐 해도양, 족바지 ᄒᆞ영 멜 들믄 그냥 무신 전의 ᄀᆞ찌 영 ᄒᆞ영 큰 배로 ᄒᆞ영 뭐 헴시믄, ᄒᆞ지만은 이런 듸 저 원땀에 멜 들어 온 거 족바지나 뭣으로 ᄒᆞ영 이제 먼제 자기가 거려갈라고 확확 ᄒᆞ멍 춤 구덕이영 뭐 ᄀᆞᆯ체영 닥치는 양 멜 그냥 푹 ᄒᆞ게 들어와 놓믄 이건 먼제 거리는 것이 자기가 임재라.(전에는 멸치 들었다 하면 아주 동네가 난리입니다. 멸치 들었다 하면 멸치밭, 그런데 멸치밭 인심이라고 멸치 든다고 옆에 뭐 해도요, 작은 바가지 해서 멸치 들면 그냥 무슨 전에 같이 이렇게 해서 큰 배로 해서 뭐 하고 있으면, 하지만 이런 데 저 '원담'에 멸치 들어 온 거 작은 바가지나 뭐로 해서 이제 먼저 자기가 잡아 올리려고 확확 하면서 참 바구니랑 뭐 삼태기랑 닥치는 대로 멸치 그냥 푹 하게 들어와 놓으면 이건 먼저 잡아 올리는 것이 자기가 임자야.)

105009 #2 ᄒᆞ꼬만ᄒᆞᆫ 테우 들어오긴 ᄒᆞ여. ᄒᆞ꼬만ᄒᆞᆫ 베 쏘곱에 들어와도 그듸 주인이 옌 헤근에 다른 사름덜 헤가믄 ᄒᆞ꼼 뭣옌도 ᄒᆞ곡. 그 배로 ᄒᆞ영 시껑 나강 어디 폴레사 감신디 원 어디 하귀장[198]에 가켜 애월장[199]에 가켜 ᄒᆞ멍 장은 모르고 어디 가켄 ᄒᆞ멍, 그 테우에 다 거려 논 것덜 그레 ᄃᆞ렝 ᄒᆞ여. ᄃᆞ렝 ᄒᆞ곡 우리 먹을 사름덜은 것에 ᄒᆞ여근에 ᄒᆞ꼼 ᄋᆞ정 강 막 바당에서 무신거 보리낭 술랑 구어먹으멍 그디서덜 경 ᄒᆞ멍 해낫수다. 경ᄒᆞᆫ디 그 후젠 멜 들엇젠 ᄒᆞ여도 그추룩 하영 나오지 안 ᄒᆞ여. ᄎᆞᄎᆞ 멜이 족앙양, 멜이 ᄎᆞᄎᆞ 족아.(조그마한 떼 들어오긴 해. 조그마한 배 속에 들어와도 거기 주인이라고 해서 다름 사람들 해가면 조금 뭐라고 하고. 그 배로 해서 싣고 나가서 어디 팔러야 가고 있는지 원 어디 '하귀장'에 가겠다 '애월장'에 가겠다 하면서 장은 모르고 어디 가겠다고 하면서, 그 떼에 다 잡아 올려놓은 것들 그리 달라고 해. 달라고 하고 우리 먹을 사람들은 것에 해서 조금 가져가서 바다에서 무엇 보릿짚 사라서 구워 먹으면서 거기서들 그렇게 하면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는 멸치 들었다고 해도 그처럼 많이 나오지 안 해. 차차 멸치가 적어서요, 멸치가 차차 적어.)

105009 #1 멜 수룩이 잘 뒈사.(멜 수룩이 잘 되야.)

105009 #2 그때 멧 번은 잘 들엇젠 소문 나낫수다.(그때 몇 번은 잘 들었다고 소문났었죠.)

105009 #1 그땐 ᄒᆞ영 ᄒᆞ믄 바당이 헤영ᄒᆞ영.(그땐 해서 하면 바다가 하야서.)

105009 #2 바당이 헤영ᄒᆞ엿젠 ᄒᆞ여.(바다가 하얗다고 해.)

105009 #1 ᄀᆞᆺ이 헤영케 그냥 멜 지쳐불믄 막 멜 줏어 ᄒᆞᆫ 구덕썩.(가가 하얗게 그냥 멸 지쳐버리면 마구 멸치 주워 한 바구니씩.)

105009 #2 줏어도 막 ᄒᆞ곡, 줏기 실프믄 그디 강 거리젠 ᄒᆞ믄 그 테우 들어와근에 헤끄만ᄒᆞᆫ, 그냥 이제도 잇수다만은 들어왕 ᄒᆞ믄 그 테우 임제덜이 막 ᄒᆞ여근에.(주워도 마구 하고, 줍기 싫으면 거기 가서 잡아 올리려고 하면 그 떼 들어와서 조그마한, 그냥 이제도 있습니다만은 들어와서 하면 그 떼 임자들이 마구 해서.)

105009 #1 족바지로 거리곡.(작은 바가지로 잡아 올리고.)

198) '하귀장'은 제주시 애월읍 하귀리에 있었던 오일장이다.
199) '애월장'은 제주시 애월읍 애월리에 있었던 오일장이다.

105009 #2 구덕더레 행 놓.(바구니로 해서 놔.)

105009 #1 거 흔 구덕 ᄒᆞ믄 금방이라.(거 한 바구니 하면 금방이야.)

105009 #2 경 어디 풀레 감젠 ᄒᆞ여도 우리대로 해나난 그듸서 주믄게, ᄀᆞ찌 ᄒᆞ여근에 주믄 보리낭 살뢍 불 궝덜 하르방덜 바당의서 막 먹곡, 집의도 왕 먹곡.(그렇게 어디 팔러 가고 있다고 해도 우리대로 했으니까 거기서 주면요, 같이 해서 주면 보릿짚 사려서 불 구워서들 할아버지들 바다에서 마구 먹고, 집에도 와서 먹고.)

105010 @ 그다음에 궤기는 어떵 나끕니까?(그다음에 고기는 어떻게 낚습니까?)

105010 #1 바당의 흔 건 주로 ᄒᆞ고 이 ᄀᆞᆺ듸서도 나끕주게. 이제 저 축항 두이 나끅곡 ᄒᆞ는디, 이제는 무신 저 개량 ᄎᆞᆷ대로 ᄒᆞ영 나까도.(바다에 한 건 주로 하고 이 가에서도 낚지요. 이제 저 축항 뒤에 낚고 하는데. 이제는 뭐 저 개량 낚싯대 해서 낚아도.)

105010 @ 옛날, 옛날.(옛날, 옛날.)

105010 #1 옛날엔양, 고냥 ᄎᆞᆷ대로 ᄒᆞ여.(옛날에는요, 구멍 낚싯대로 해.)

105010 #2 수산봉에 강 ᄎᆞᆷ대 강 비여와사.('수산봉'에 가서 낚싯대 가서 베어와야.)

105010 #1 고냥 ᄎᆞᆷ대엔 ᄒᆞ영 이 저 고냥더레 ᄒᆞ믄, 그 전읜 멜 들엇다 ᄒᆞ믄, 그 우럭이 황우럭예 우럭덜이 그 따라 들어오는지 우리도 나까 보믄 멜에 꿰영 ᄒᆞ믄양, 들이치기가 바쁘게 팍팍 ᄎᆞᆷ 우럭, 또 감팍이옌 ᄒᆞ영 우럭 감팍이 주로 ᄒᆞ곡, 이 조금 지픈더레 주믄.(구멍 낚싯대라고 해서 이 저 구멍으로 하면, 그 전에는 멸치 들었다 하면, 그 우럭볼락이 황우럭요, 우럭들이 그 따라 들어오는지 우리도 낚아 보면 멸치에 꿰어서 하면요, 들이치기가 바쁘게 팍팍 참 우럭, 또 쏨뱅이라고 해서 우럭, 쏨뱅이 주로 하고 이 조금 깊은 데 주면.)

105010 @ 감팍이가 뭐라?(쏨뱅이가 뭐야?)

105010 #1 감팍이.(쏨뱅이.)

105010 @ 감성돔인가?(감성돔인가?)

105010 #1 아니, 우럭ᄒᆞ고 감팍은 똑 우럭 닮은 디 색깔이 꺼멍ᄒᆞ여마씀. 그것이 감팍이고, 우럭 ᄒᆞ믄 이제 우럭 ᄒᆞ믄 황우럭.(아니, 우럭하고 쏨뱅이는 똑 우럭 같은 데 색깔이 검어요. 그것이 쏨뱅이고, 우럭 하면 이제 우럭 하면 황우럭.)

105010 @ 우럭 종류구나?(우럭 종류군요?)

105010 #1 우럭 종류, 감팍. 게믄 요건 꼭 고냥에만 살아. 게난 요 ᄀᆞᆺ듸서 나까도 지픈 듸 영 물 쌍 ᄒᆞ믄 고냥이 요렇게 시믄 그레 뿡기 영 뭣 줭 그레 모아지믄, 요것이 고냥에만 살아놓난양, 우럭 고냥, 감팍 고냥 ᄒᆞ멍 흔 고냥에 ᄒᆞ믄 멧 개 올라옵니다게. 나끄곡 또 경 ᄒᆞ영 나끄곡, 우리 주로 흔 건 여름에 팔월 이때로구나 메역치 나끄레 가자 ᄒᆞ믄, 것도 고냥에만 살아.(우럭 종류, 쏨뱅이. 그러면 요건 꼭 구멍에만 살아. 그러니까 요 가에 나가도 깊은 데 이렇게 물 써서 하면 구멍이 요렇게 있으면 그리 미끼 이렇게 뭣 줘서 거기 모이면, 요것이 구멍에만 살아 놓으니까요, 우럭 구멍, 쏨뱅이 구멍 하면서 한 구멍에 하면 몇 개 올라옵니다. 낚고 또 그렇게 해서 낚고, 우리 주로 한 건 여름에 팔월 이때로구나 미역치 낚으러 가게 하면, 그것도 구멍에만 살아.)

105010 @ 메역, 메역쉬옌 ᄒᆞ지 안 ᄒᆞ여마씸?(미역, '메역쉬'라고 하지 않나요?)

105010 #1 메역치, 메역치 영 ᄒᆞ영. 미역치 ᄒᆞ믄 미역치 고냥 어디라 우리 적시영 ᄒᆞ믄 것도 ᄀᆞᆯ아주질 안 ᄒᆞ여, 잘 나끄는 사름덜은. 아, 욮의서 ᄒᆞ믄 드러 나끕주게. 나끄는 듸는 요건양, 어떵 나끄냐 ᄒᆞ믄 저 뽕돌 영 ᄒᆞ영 그 고냥 ᄒᆞ영 우리 나까보믄 요렇게 ᄒᆞ영 이렇게 그 밥게라고 잇수다. 늬껍은 밥게라. 경 ᄒᆞ믄 그거 꿰영양 무거운 뽕똘 ᄒᆞ영 고냥더레 들이쳐. 잘못 ᄒᆞ믄 요것이 고냥에 들어가믄 뽕똘은 물믄 거 끈어져사 나와. 게난 이제 봉똘 ᄒᆞ영 건 기술이 필요ᄒᆞ고 고냥에만 잘, 그거는 고냥에양, 이렇게 강 도록도록도록 춤대 끗에서 ᄒᆞ믄 하나만 나끄기 시작 ᄒᆞ믄 이거 얼만이 디물믄 미역치 나까질 것이다 ᄒᆞ영. 진짜 고냥만 잘 춪으믄 계속 물엉 올라오는 게 미역체라. 이거 고냥에만 살아. 경 ᄒᆞ영 확 ᄒᆞ게 올라오곡 ᄒᆞ믄 구덕 바우레 영, 거 잘 못 ᄒᆞ믄 손 쎄와불어. 손 춤 찔렁 미역체 까시가 똑 솔치 ᄀᆞ찌양. 거 잘 못 쎄우믄 손이 이만큼 부습니다게, 미역체는. 그거 까시 독이 잇어. 확 나끄믄 요렇게 올라오믄 구덕 바우레, 요렇게 구덕이 시믄 톡 ᄒᆞ믄 입을 아 벌립니다게. 게믄 콕 잡앙은에 낚시 톡 떼영 또 들이치곡. 경 ᄒᆞ영 나끄는디. 또 이 또 베탕 나가는 건 다르고, 고기 나끄는 게. 벤 ᄒᆞ믄 그 낮에도 나끄는디 이디서 ᄒᆞ믄 저 어렝이 나끄는 바다가 잇수다. 건 뭐냐 ᄒᆞ믄 똑 이 저 자리왓 정도에서 어렝이가 나끕주게. 자리왓 정도 가믄, 우럭도 물곡 어렝이 춤 어렝이가 뻘겅케 거 나끄는디. 또 ᄒᆞ꼼 더 가믄 갈치왓 뭐, 이제 거 생성왓, 생성왓 가가믄 좀 먼디, 갈치 ᄒᆞ곡 생성. 그거는 강은에 이제 ᄒᆞ믄 갈치는 사름으로 나끅곡, 그거 이제 ᄒᆞᆫ 발이나 ᄒᆞᆫ 팔십 쎈치 정도 낚시를 영 ᄒᆞ믄 여라 개를 삔주룽케 묶어가지고, 이건 이상케 갈치뻮이 안 먹어. 갈치 나끄젱 ᄒᆞ믄 처음에 엇이믄 어디 시장에 강 갈치 사당 배칸 다음 훼 ᄒᆞ듯 둘로 ᄒᆞ믄 꽝은 내불곡, 그거 ᄒᆞ영 짝 오렁은에 이제 얼마니 썰엉 늬껍을 홉주게. 경 여라 개 꿰영 데끼문 이제 어떤 젠 두세 개도 물곡. 경 ᄒᆞ연 이제 막 메영 ᄃᆞᆼ이곡 ᄒᆞ믄, 장갑 잘 찌곡 해사 이것도 손 다 붕물엉.(미역치, 미역치. 이렇게 해서. 미역치 하면 미역치 구멍이 어디야 우리 적셔서 하면, 것도 말해주지를 안 해, 잘 낚는 사람들은. 아, 옆에서 하면 계속 낚지요. 낚는 데는 요건요, 어떻게 낚냐 하면 저 봉돌 이렇게 해서 그 구멍 해서 우리 낚아보면 요렇게 해서 이렇게 그 갯강구라고 있어요. 미끼는 갯강구야. 그렇게 하면 그거 꿰어서요, 무거운 봉돌 해서 구멍으로 집어넣어. 잘못하면 요것이 구멍에 들어가면 봉돌은 물면 거 끊어져야 나와. 그러니까 이제 봉돌 해서 건 기술이 필요하고 구멍에만 잘, 그거는 구멍에요, 이렇게 가서 도록도록도록 낚싯대 끝에서 하면 하나만 낚기 시작하면 이거 얼마만큼 들이밀면 미역치 낚아질 것이다 해서. 진짜 구멍만 잘 찾으면 계속 물어서 올라오는 게 미역치야. 이거 구멍에만 살아. 그렇게 해서 확 하게 올라오고 하면 바구니 가장자리로 이렇게, 거 잘못하면 손 쏘아버려. 손 참 찔러서 미역치 가시가 똑 쑤기미 같이요. 거 잘 못 쏘면 이 이만큼 붓습니다, 미역치는. 그거 가시 독이 있어. 확 낚으면 요렇게 올라오면 바구니 가장자리로, 요렇게 바구니가 있으면 톡 하면 입을 아 벌립니다. 그러면 콕 잡아서 낚시 톡 떼어서 또 들이치고. 그렇게 해서 낚는데. 또 이 또 배타서 나가는 건 다르고, 고기 낚는 게. 배는 하면 그 낮에도 낚는데 여기서 하면 저 어렝놀래기 낚는 바다가 있습니다. 건 뭐냐 하면 똑 이 저 자리밭 정도에서 어렝놀래기를 낚지요. 자리밭 정도 가면, 우럭도 물고 어렝놀래

기 참 어렝놀래기가 벌겋게 거 낚는데. 또 조금 더 가면 갈치밭 뭐, 이제 거 생선밭, 생선밭 가가면 좀 먼데, 갈치하고 생선. 그거는 가서 이제 하면 갈치는 사람으로 낚고, 그거 이제 한 발이나 한 팔십 센티미터 정도 낚시를 이렇게 하면 여러 개를 아주 많이 묶어서, 이건 이상하게 갈치밖에 안 먹어. 갈치 낚으려고 하면 처음에 없으면 어디 시장에 가서 갈치 사다가 베 가른 다음 회 하듯 둘로 하면 뼈는 내 버리고, 그거 해서 짝 오려서 이제 얼마만큼씩 썰어서 미끼를 합니다. 그렇게 여러 개 꿰어서 던지면 이제 어떤 때는 두세 개도 물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마구 매어서 당기고 하면, 장갑 잘 끼고 해야 이것도 손 다 부르트고.)

105010 #2 장갑이 무신 셔서.(장갑이 무슨 있어.)

105010 #1 아니, 이게 지픠 사는 거난양, 갈치는. 이른 발, 여든 발 영 홉주게. 그디 끗지 어떤 땐 백 발도 디물아 술을, 갈치 술. 갈치 술은 이 정술로 해도 좀 솔진 정술을 해사. 게 안 ᄒᆞ믄 두 개, 시 개 물믄 갈칫 니빨이 오죽 ᄂᆞ십니까, 탁탁 끈어져.(아니, 이게 깊이 사는 거니까요, 갈치는. 일흔 발, 여든 발 이렇게 하지요. 거기까지 어떤 때는 백 발도 들이밀어 술을, 갈치 술. 갈치 술은 이 정술로 해도 좀 굵은 정술을 해야. 그렇게 안 하면 두 개, 세 개 물면 갈치 이빨이 오죽 날카롭습니까, 탁탁 끊어져.)

105010 #2 우리 씨아바님이 ᄀᆞ찌 뎅겨놓난. 낚시ᄒᆞ레 경 잘 뎅겨마씀. 이 양반ᄒᆞ고 씨아아님이 경 갈치 나끄레 가고, 어렝이 나끄레 가곡.(우리 시아버님이 같이 다녀 놓으니까. 낚시하러 그렇게 잘 다녔어요. 이 양반하고 시아버님이 그렇게 갈치 낚으러 가고, 어렝놀래기 낚으러 가고.)

105010 #1 또 생성은 주낫 놔. 주낫 놩 놔뒷당, 아시날 놔뒷당 뒷날 새벽 아침의 강 주낫 걷으레 가 하믄 강은에 네 젓으멍 그 이렇게 줄 쭉 흘령 생성밧듸 ᄒᆞ믄 그 저 주낫 낚시라고 이렇게 오그라진 낚시가 잇수다. 건 ᄒᆞᆫ번 탁 물믄 빠질 못ᄒᆞ여. 주낫 낚시라고 오그렝이[200] 낚시가 주낫 낚신디. 그것 다 니껍 ᄒᆞ멍 주욱 네 젓으멍 놩 놔뒷당. 것도 ᄒᆞ믄 ᄒᆞᆫ 쪽 ᄏᆞ이엔 ᄒᆞ영 틔우는 게 잇수다. 경 틔왕 멧 발 널비, 멧 발 널비 ᄒᆞ영 이제 쉰 발 놩. 백 발 긴 건 ᄒᆞ곡, 그렇게 행 놧당 뒷날 새벡의 네 젓어 가멍 거 걷음주게. 걷으믄 밤의 문 것덜은 이제 그냥 물엉 잇어불어. 경 생성, 보통 경 ᄒᆞ영 생성 잡곡, 요즘은 잘 안 물어 전의 ᄀᆞ찌 생성.(또 생선은 주낙 놔. 주낙 놔서 놔뒷다가, 전날 놔뒷다가 뒷날 새벽 아침에 가서 주낙 걷으러 가 하면 가서 노 저으면서 그 이렇게 줄 쭉 흘려서 생선밭에 하면 그 저 주낙 낚시라고 이렇게 오그라진 낚시가 있습니다. 건 한번 탁 물면 빼지를 못해. 주낙 낚시라고 '오그렝이' 낚시가 주낙 낚시인데. 그것 다 미끼 하면서 쭉 노 저으면서 놔서 놔뒀다가. 것도 하면 한 쪽 박이라고 해서 띄우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띄어서 몇 발 넓이, 몇 발 넓이 해서 이제 쉰 발 놔서. 백 발 긴 건 하고, 그렇게 해 놨다가 뒷날 새벽에 노 저어 가면서 거 걷습니다. 걷으면 밤에 문 것들은 이제 그냥 물어서 있어 버려. 그렇게 생선, 보통 그렇게 해서 생선 잡고, 요즘은 잘 안 물어 전에 같이 생선.)

105010 #2 우리 씨아바님은 경 풀레 강.(우리 시아버님은 그렇게 팔러 가서.)

200) '오그렝이'는 물건이 상하거나 수가 줄어지거나 하지 않고 본디 그대로이다.

105010 #1 생성 풀당 어디 저.(생선 팔다가 어디 저.)

105010 #2 바릇궤기 나까 오믄 늘양 풀앗수다.(바닷고기 낚아 오면 늘요 팔았습니다.)

105010 #1 웃드리레 졍 강은에, 강 쏠이영도 바꽈 오곡. (‘웃드리’로 져 가서, 가서 쌀이랑 바꿔 오고.)

105010 #2 우리 씨어머님은 ᄆᆞ음씨 좋아부난양, 웃드리 사름덜 고기 ᄆᆞᆫ 줘동 와. 게 아바님은 막 욕ᄒᆞ여. 어디 강 나 해온 거 쥠젠 해도. 씨어머님은 경 준준ᄒᆞᆫ 궤기, 미역치 ᄀᆞ뜬 건 ᄆᆞᆫ딱 다 줘동 와. ᄉᆞᆼ키 구덕에 졍 가믄 돈 받아온 거 보믄 ᄆᆞᆫ딱 줘동 와. 우리 씨어머님은 무신거 풀레 가믄 막 장전[201] 사름이영 어디 신엄[202] 사름이영 지꺼졍 해낫덴 ᄒᆞᆸ디다.(우리 시어머님은 마음씨 좋아서요, ‘웃드리’ 사람들 고기 모두 줘둬서 와. 그렇게 아버님은 마구 욕해. 어디 가서 나 해온 거 주고 있다고 해도. 시어머님은 그렇게 자잘한 고기, 미역치 같은 건 모두 다 줘둬서 와. 푸성귀 바구니에 져서 가면 돈 받아온 거 보면 모두 줘둬 와. 우리 시어머님은 무엇 팔러 가면 마구 ‘장전’ 사람이랑 어디 ‘신엄’ 사람이랑 기뻐서 했었다고 합디다.)

105010 #1 막 싸게 주난게.(아주 싸게 주니까.)

105010 #2 씨어머님 경 막 줘동 와, 궤기영.(시어머님 그렇게 마구 줘둬서 와, 고기랑.)

105010 #1 것도 고뤤 일이우다게. 그거 낚시 걷어놩 이제 ᄆᆞᆫ딱 주낫 낚시 사린다 ᄒᆞ영 이제 ᄎᆞ례대로 낚실 똑똑 영 그 이렇게 ᄒᆞᆫ 바우에 거는 듸가 잇수다게. 낚시 ᄃᆞᆼ여가멍 걸엇당 주낫 놓게 뒈믄, 또 그걸 다 니껍을 꿰여. 경 ᄒᆞ영 네 젓어가멍 쏙쏙 놓곡. 그것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니우다게. 경ᄒᆞ영 뒤날 아침 걷곡 해가믄 재수가 좋으믄 하영 물곡, 경 아니 ᄒᆞ믄 빈 낚시 뤤 거 하곡게. (그것도 고된 일입니다. 그거 낚시 걷어놔서 이제 모두 주낙 낚시 사린다 해서 이제 차례대로 낚시를 똑똑 이렇게 그 이렇게 한 가장자리에 거는 데가 있습니다. 낚시 당겨가면서 걸었다가 주낙 놓게 되면, 또 그걸 다 미끼를 꿰어. 그렇게 해서 노 저어가면서 쏙쏙 넣고. 그것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뒷날 아침 걷고 해가면 재수가 좋으면 많이 물고, 그렇게 안 하면 빈 낚시 된 거 많고요.)

105011 @ 그다음에 낚싯대 잇지 안 ᄒᆞ우꽈양? 낚싯대ᄒᆞ곡 낚싯줄, 낚시, 뽕돌 이건 어떵 구햇수가?(그다음에 낚싯대 있지 않습니까? 낚싯대하고 낚싯줄, 낚시, 봉돌 이건 어떻게 구했습니까?)

105011 #1 아, 건 낚시점에 강 전읜, 낚실 전읜 장에 풀레 뎅여낫수다게. 낚시 장시 ᄒᆞᆫ 거 이제는 낚시점 셔도. 전읜 낚시점 엇으난 오일장 에 어디 가믄 낚시 싸게 풀아. 똑 ᄀᆞ뜬 거라도 어떤 딘 가믄 ᄒᆞ꼼 싸곡, 것도 주낫 낚시 ᄀᆞ뜬 것도 숫자가 하곡양, 생성 이 저 무신 갈치 낚시도 요거 낚시 그 ᄒᆞᆫ번 나끄믄 그것이 이제 그 톡 끈어불믄 다음 새 낚시로 해야지 써난, 써난 낚시를 못 씁주게. 게난 낚실 하영 사사 ᄒᆞ여. 게믄 오

201) ‘장전’은 제주시 애월읍 장전리를 말한다.
202) ‘신엄’은 제주시 애월읍 신엄리를 말한다.

일장에 강.(아, 건 낚시점에 가서 전에는, 낚시를 전에는 장에 팔러 다녔었습니다. 낚시 장수 하면 거 이제는 낚시점 있어도. 전에는 낚시점 없으니까 오일장 에, 어디 가면 낚시 싸게 팔아. 똑 같은 거라도 어떤 데는 가면 조금 싸고, 것도 주낙 낚시 같은 것도 숫자가 많고요, 생선 이 저 무슨 갈치 낚시도 요거 낚시 그 한번 낚으면 그것이 이제 그 톡 끊어버리면 다음 새 낚시로 해야지 썼던, 썼던 낚시를 못 쓰지요. 그러니까 낚시를 많이 사야 해. 그러면 오일장에 가서.)

105011 #2 오일장이라? 제주차부장[203]이주.(오일장이라? '제주차부장'이지.)

105011 #1 게메, 거기도 가곡, 오일장에도 풀레 뎅여난, 처음에.(글쎄, 거기도 가고, 오일장에도 팔러 다녔어, 처음에.)

105011 #2 걸언 가멍.(걸어서 가면서.)

105011 #1 문 빡스에 졍 뎅이멍.(모두 박스에 져서 다니면서.)

105011 #2 나 조케 그 욮의 살멍 사다 주켄 ᄒᆞ여도.(나 조카 그 옆에 살면서 사다 주겠다고 해도.)

105011 #1 대도 저 이 ᄀᆞᆺ 궤기 나끄는 건 춤대를 영 저 이 ᄒᆞ곡, 경 안 ᄒᆞ영 바당에 간 건 주로 이제 술로 ᄒᆞ영은에 손으로 이렇게 이제 갈치 부뜬다, 뭐 오징에 부뜬다, 이 각각 틀려마씸, 나끄는 게. 게난 갈치왓은 막 지픈 듸 아은 발이여 머 여든 발이여, 머 그 발 수로 흡디다게, 전의 나끌 때. 에이 여든 발 ᄒᆞ믄 어디 가믄 아은 발 지럭시여. 그 깊일 말ᄒᆞ는 겁주게, 아은 발 발앙은에 여기서부떠 ᄒᆞᆫ 백 메다쯤 뒐 거우라.(대도 저 이 바닷가 고기 낚는 건 낚싯대 이렇게 저 이 하고, 그렇지 아니해서 이렇게 바다에 간 건 주로 이제 줄로 해서 손으로 이렇게 이제 갈치 붙는다, 뭐 오징어 붙는다, 이 각각 달라요, 낚는 게. 그러니까 갈치밭은 아주 깊은 데 아흔 발이야, 뭐 여든 발이야, 뭐 그 발 수로 합디다, 전에 낚을 때. 에이 여든 발 하면 어디 가면 아흔 발 길이야. 그 깊이 말 하는 거지요, 아흔 발 발아서 여기서부터 한 백 미터쯤 될 거야.)

105011 #2 게난 춤대도 막 시 개썩 무껑 우리 씨아버님네 시 개썩 무끕디다게. 갈치 나끌 때, 춤댈 하나만 우린 가져감직ᄒᆞᆫ디 시 개 놩 무껑, 경 안 ᄒᆞ믄 궤기 버침이 간 뭔가 ᄒᆞᆫ덴 ᄒᆞ멍.(그러니까 낚싯대도 마구 세 개씩 묶어서 우리 시아버님네 세 개씩 묶습디다. 갈치 낚을 때, 낚싯대를 하나만 우린 가져갈 것 같은데 세 개 놔서 묶어서, 그렇게 안 하면 고기 부침이 가서 뭔가 한다고 하면서.)

105011 #1 궤기 하영 나끄젠 ᄒᆞ믄 베에 저 갈치, 이녁 베 ᄒᆞ믄 영 ᄃᆞᆯ아메영 저레 네 젓어가믄, 저레 기겡잇베 아니난 목선으로 햇지 안 햇수과? 옛날은. 게믄 네 젓어가믄 그 ᄒᆞᆫ 사름은 네 젓곡, 둘이 강 해도 이제 줄을 이렇게 메영은에 양쪽에 그 바릇줄[204] 메영 그 저레 젓어가는 양 이제 ᄒᆞ믄 갈치 문 건 벌써 춤대가 오그라질 거 아니우꽈. 쑥쑥쑥 오그라져 가믄 아이고 물엇구나, ᄒᆞ영 그 짝의 나까가멍 한 사름은 ᄃᆞᆼ영 또 ᄒᆞ곡 이짝으로 ᄒᆞ곡 바빠마씸, 그 사름. 갈치 구덕 ᄒᆞ영 다 나끄는 냥.(고기 많이 낚으려고 하면 배에 저 갈치, 이녁 배 하면 이렇게 달아매어서 저리 노 저어가면서 저리 기계

203) '제주차부장'은 1970년대 제주시 남성로 근처에 있었던 오일장이다.
204) '바릇줄'은 바닷고기를 낚기 위해서 매는 줄이다.

배 아니니까 목선으로 했지 안 했습니까? 옛날은. 그러면 노 저어가면 그 한 사람은 노 젓고, 둘이 가서 해도 이제 줄을 이렇게 매어서 양쪽에 그 '바릇줄' 매어서 그 저리 저어가는 대로 이제 하면 갈치 문 건 벌써 낚싯대가 오그라질 거 아닙니까? 쑥쑥쑥 오그라져 가면 아이고 물었구나, 해서 그쪽에 낚아가면서 한 사람은 당겨서 또 하고 이쪽으로 하고 바쁘지요, 그 사람. 갈치 바구니 해서 다 낚는 대로.)

105011 #2 막대기 ᄒᆞ는 사름은 넣곡 ᄒᆞ영 강, 경 안 ᄒᆞ믄 기운 엇엉 못 ᄒᆞ여.(막대기 하는 사람은 넣고 해서 가서, 그렇지 않으면 기운 없어서 못 해.)

105011 @ 춤댄 어디 간에 해옵디가?(낚싯대는 어디 가서 해 왔습니까?)

105011 #1 춤댄 보통 이젠 ᄑᆞ는 거 셔도, 전읜 엇으믄 웃드리 대왓 좋은 디 강 좋은 걸 사와사.(낚싯대는 보통 이젠 파는 거 있어도, 전에는 없으면 '웃드리' 대밭 좋은 데 가서 좋은 걸 사서 와야.)

105011 #2 우리 어디 대ᄒᆞ레 가낫수게.(우리 어디 대하러 갔었습니다.)

105011 #1 저 마형기네 집이옌 ᄒᆞ영 여기서도 한 세참쯤 올라가믄 저.(저 '마형기'네 집이라고 해서 여기서도 한 세참쯤 올라가면 저.)

105011 #2 고지, 고지.(곶, 곶.)

105011 #1 하잣도[205] 옆의 큰오름[206] 바로 아픠 이렇게 움막 행 ᄒᆞᆫ 만 평 넘은 이제 그 낭이 울창ᄒᆞᆫ 디, 이제도 그 터는 신디.('하잣도' 옆에 '큰오름' 바로 앞에 이렇게 움막 해서 한 만 평 넘은 이제 그 나무가 울창한 데, 이제도 그 터는 있는데.)

105011 #2 대도 싯곡.(대도 있고.)

105011 #1 거기 강 보믄 왕대가 좋아마씸. ᄉᆞ정ᄒᆞ영 사오곡.(거기 가서 보면 왕대가 좋아요. 사정해서 사서 오고.)

105011 #2 더러 사오곡, 고기 나끄는 대ᄒᆞ믄.(더러 사오고, 고기 낚는 대하면.)

105011 #1 거기 가믄 그 하르방은양, 아은 여섯ᄀᆞ지 살아서. 갈치라도 ᄒᆞᆫ 짐 졍 오지 안 ᄒᆞ영.' 영 ᄒᆞ믄.(거기 가면 그 할아버지는요, 아흔여섯까지 살았어. 갈치라도 한 짐 져서 오지 안 해서. 이렇게 하면.)

105011 #2 막 이상케 생긴 하르방.(아주 이상하게 생긴 할아버지.)

105011 #1 어떤 땐 우리 나까지믄 더러 궤기 졍 가믄 싸게 해주곡 ᄒᆞ영.(어떤 땐 우리 낚아지면 더러 고기 져서 가면 싸게 해주고 했어.)

105011 #2 혼자만 굴 쏘급에 살멍양, 굴 쏘굽에 우리 들어강 보믄, 게도 문 멘들안에 영 ᄒᆞ연 들어강, 이디 왕 봅서, 이디 왕 봅서, 바싹 ᄆᆞ스와근에. 중엄 사름ᄒᆞ고 이 아방네 ᄀᆞ찌 간 보난 굴 쏘급에 살암십디다게, 그 하르방. 대왓 지키멍, 대왓 지네 거난 누게 비여가카부덴 ᄒᆞ멍양. 게난 왕댄 궤기 나끄는 댄 ᄆᆞᆫ딱 그디 강근에 ᄒᆞ난. ᄆᆞᆫ 도둑맞아불엄젠 하르방이, 얼굴이영 양 이상케 어디 귀신ᄀᆞ찌 생긴 하르방이우다. 막 등치도 크곡.(혼자만 굴 속에 살면서요, 굴속에 우리 들어가서 보면, 그래도 문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들어가서, 여기 와서 보세요, 여기 와서 보세요, 바싹 무서워서. '중엄' 사람하

205) '하잣도'는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에 위치한 '큰오름' 앞에 있는 지경을 일컫는다.
206) '큰오름'은 '노꼬메큰오름'이라고도 하며,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에 나란히 있는 두 오름 중 큰 오름이다.

고 이 '아방'네 같이 가서 보니까 굴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할아버지. 대밭 지키면서, 대밭 자기네 거니까 누가 베어갈까 봐 하면서요. 그러니까 왕대는 고기 낚는 대는 모두 거기 가서 하니까. 모두 도둑맞아 버린다고 할아버지가, 얼굴하고요 이상하게 어디 귀신 같이 생긴 할아버지입니다. 아주 몸피도 크고.)

105011 @ 뽕똘은 어떵 멘들앗수광?(봉돌은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105011 #1 뽕똘도 구리 사당 ᄒᆞ곡 그 연철이라고 ᄒᆞ영 이디서도 더러 집의서 멩급주게. 연철 사당은에 막 불에 구우멍 두드려, 거 무신 납 고망 뚤르는 것이 잇수다게. 고냥 뚤르멍 무게를 어느 정도 영 들러 보멍 이거 갈치 술 ᄀᆞ뜨믄 뽕똘이 이만이 커마씨. 갈치 나끄는 뽕똘은 막 이만이 ᄒᆞ곡, 지픈 바당에 ᄒᆞ난. 또 그 웨로 어렝이 나끄나 이런 거는 ᄒᆞ꼼 야픈 바당에 들어가난 뽕똘이 족곡. 또 뭐 고셍이 뽕똘이 잇곡, 우럭 뽕돌이 잇곡, 고기마다 종류마다 뽕똘이 틀려. 지금은 만든 거 다 사당 ᄒᆞ는디 전읜 집의서 멘들아낫수다게. 납 고냥 뚤르곡 ᄒᆞ영 무게 제멍.(봉돌도 구리 사다가 하고 그 연철이라고 해서 여기서도 더러 집에서 만들지요. 연철 사다가 마구 불에 구우면서 두들겨, 거 무슨 납 구멍 뚫는 것이 있습니다. 구멍 뚫으면서 무게를 어느 정도 이렇게 들어 보면서 이거 갈치 줄 같으면 봉돌이 이만큼 커요. 갈치 낚는 봉돌은 아주 이만큼 하고, 깊은 바다에 하니까. 또 그 외로 어렝놀래기 낚으나 이런 거는 조금 얕은 바다에 들어가니까 봉돌이 작고. 또 뭐 용치놀래기 봉돌이 있고, 우럭 봉돌이 있고, 고기마다 종류마다 봉돌이 달라. 지금은 만든 거 다 사다가 하는 데 전에는 집에서 만들었었습니다. 납 구멍 뚫고 해서 무게 재면서.)

105012 @ 그다음에 작살로 어떤 궤기 잡앗수가?(그다음에 작살로 어떤 고기 잡았습니까?)

105012 #1 작살 그 소살. 이디선 소살이옌 ᄒᆞ는디. 소살 ᄒᆞ믄 보통 저 이 저 남뚜리알[207]이옌 해 가지고 글로 들엉 요 저 온여[208]ᄁᆞ지 오젠 ᄒᆞ믄 거의 ᄒᆞᆫ 멧백 메다 뒈우다게. 그디를 히여오멍 ᄒᆞ는디 보통 이제 이 허리에 차곡 거디, 그디 쑥 들어가믄 보통 북바리라고 해가지고 우리도 해 보믄 엉장 쏘곱에 작살 쑥 처음에 들어강 보믄 그놈에 북바리는 뜨면서도 맛도 잇곡, 쑥 들엉 북바리 멧 개 쏘앗져 ᄒᆞ믄 벌써 돈도 하영 줘, 또 따치가 잇곡, 냅작ᄒᆞᆫ 게 늘내 나곡.(작살 그 작살. 여기서는 '소살'이라고 하는데. 작살 하면 보통 저 이 저 '남뚜리알'이라고 해서 거기로 들어서 요 저 '온여'까지 오려고 하면 거의 한 몇백 미터 됩니다. 거기를 헤엄쳐서 오면서 하는데 보통 이제 이 허리에 차고 거기에, 거기 쑥 들어가면 보통 붉바리라고 해서 우리도 해 보면 절벽 속에 작살 쑥 들어가서 보면 그놈의 붉바리는 뜨면서도 맛도 있고, 쑥 들어서 붉바리 몇 개 쏘았다 하면 벌써 돈도 많이 줘, 또 독가시치가 있고, 납작한 게 비린내 나고.)

105012 @ 따치는 잡아낫수가? 따치도.(독가시치는 잡았었습니까? 독가시치도.)

105012 #1 따치 잡앗수다. (독가시치 잡았었습니다.)

105012 @ 걸름이나 ᄒᆞ지 안 ᄒᆞ여.(거름이나 하지 아니해.)

---

207) '남뚜리알'은 제주시 애월읍 구엄리에 위치한 바다 지경을 일컫는다.
208) '온여'는 제주시 애월읍 구엄리에 위치한 바닷가 지경 이름이다.

105012 #1 예, 잘 안 먹어낫수다. 늘내 낭. 따치ᄒᆞ곡 우럭 이제 뭐 닥치는 냥 소살ᄒᆞ믄 하영 ᄒᆞᆫ 때는 막 그꺼지 ᄒᆞ영 나오믄 둘이 보통 ᄀᆞ찌 듭니다. 둘이 ᄒᆞ믄 그거 궤기 버쳐가믄 이제 이 허리에 창은에 작살 주멩이영 차놓믄 저꺼지 줄 흘리멍도 하나씩은 아게미에 ᄒᆞ영 딱딱 무끄멍 경 나오믄, 춤 저 어디 온여로 ᄒᆞ영 그 어딜로 들엉 나오믄 그거 저꺼지, 족은여[209]꺼지 히영 나오젠 ᄒᆞ믄 진짜 버쳐. ᄒᆞᆫ 짐 ᄒᆞ여, 솔직어니. 그렇게 ᄒᆞ영 더러 풀기도 ᄒᆞ곡, 집의 먹기도 ᄒᆞ곡. 막 여러 집의 무신거 여름에 먹을 사름덜은 그디 톧아삿당 또 사곡.(예. 잘 안 먹었었습니다. 비린내 나서. 독가시치하고 우럭 이제 뭐 닥치는 대로 작살 하면 많이 한 때는 마구 그까지 해서 나오면 둘이 보통 같이 듭니다. 둘이 하면 그거 고기 부쳐 가면 이제 이 허리에 차서 작살 주머니랑 차놓으면 저까지 줄 흘리면서도 하나씩은 아가미에 해서 딱딱 묶으면서 그렇게 나오면, 참 저 어디 ‘온여’로 해서 그 어디로 들어서 나오면 그거 저까지 ‘족은여’까지 헤엄쳐 나오려고 하면 진짜 부쳐. 한 짐 해서, 솔직하게. 그렇게 해서 더러 팔기도 하고 집에서 먹기도 하고. 아주 여러 집에 뭐 여름에 먹을 사람들은 거기 타다 섰다가 또 사고.)

105013 @ 궤깃베는 어떤 종류가 잇수강?(고깃배는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105013 #1 궤깃베 여기 낚베가 싯고.(고깃배 여기 낚싯거루가 있고.)

105013 @ 낚베?(낚싯거루?)

105013 #1 낚베는 ᄒᆞᆫ, 이제 말ᄒᆞ믄 일 톤 미만, 또 뗏마가 싯곡, 건 제일 작은 거. 혼자나 둘이, 막 해야 세 사름. 두 사름 내지 보통 ᄒᆞᆫ 사름 이제도 뗏마 신디. ᄒᆞᆫ 사름용이 뗏마고, 낚베옌 ᄒᆞ영은에 이제 ᄀᆞ뜨믄 ᄒᆞᆫ 이제 조금 큰 거는 일고ᄋᆞ답까지 탑니다. 보통은 다서여섯, 적겐 ᄒᆞᆫ 세 사름 탕, 거기 사공이 잇곡 이.(낚싯거루는 한, 이제 말하면 일 톤 미만, 또 뗏마가 있고, 건 제일 작은 거. 혼자나 둘이, 마구 해야 세 사람. 두 사람 내지 보통 한 사람 이제도 뗏마 있는데. 한 사람용이 뗏마고, 낚싯거루라고 해서 이제 같으면 한 이제 조금 큰 거는 일고여덟까지 탑니다. 보통은 대여섯, 적게는 한 세 사람 타서. 거기 사공이 있고 이.)

105013 @ 낚베.(낚싯거루.)

105013 #1 낚베예. 낚베 ᄒᆞ믄 기겟베가, 또 이제는 발동기 전의, 이제 기겟베에 발동기 ᄒᆞ믄 ᄒᆞᆫ 칠팔 명 탑주게. 거는 이제 선장도 잇고, 거기는 먼 디 강 고기 나까오고.(낚싯거루요. 낚싯거루 하면 기계 배가, 또 이제는 발동기 전에, 이제 기계 배에 발동기 하면 한 칠팔 명 타지요. 거는 이제 선장도 있고 거기는 먼 데 가서 고기 낚아 오고.)

105013 #2 생성 나끄곡 건.(생선 낚고 건.)

105013 #1 생성 주로 나끄곡.(생선 주로 낚고.)

105013 #2 큰 베난.(큰 배니까.)

105013 #1 갈치왓이나 생성왓이나.(갈치밭이나 생선밭이나.)

105013 @ 뗏마가 뗀가? 테우.(뗏마가 뗀가? ‘테우’.)

105013 #1 아니, 테우ᄒᆞ고 ᄯᅳ나우다. 냅작ᄒᆞ게 ᄒᆞ영 영 저 그 지금은 숙대낭으로 ᄒᆞ

209) ‘족은여’는 제주시 애월읍 구엄리에 위치한 바닷가 지경 이름앋.

는디, 전읜양 구상낭이라고 해서 저 한라산 앞의 가믄 저 물에도 잘 안 썩곡, 잘 뜨곡 또 쎄곡. 구상낭으로 ᄒᆞ영 테우 ᄒᆞ젠 ᄒᆞ믄 막 두세 사름썩 지멍 내려오멍 ᄒᆞ영.(아니, 떼하고 다릅니다. 납작하게 해서 이렇게 저 지금은 삼나무로 하는데, 전에는 구상나무라고 해서 저 한라산 앞에 가면 저 물에도 잘 안 썩고, 잘 뜨고 또 세고. 구상나무로 해서 떼 하려고 하면 마구 두세 사람씩 지면서 내려오면서 해.)

105013 @ 게난 젤 작은 것이 뗏마.(그러니까 제일 작은 것이 뗏마.)

105013 #1 뗏마.(뗏마.)

105013 @ 그다음?(그다음?)

105013 #1 그다음 낚베. 기겟베가 싯곡. 또 테우가 싯곡. 테우는 자리 뜨곡 이 저 ᄀᆞᆺ 궤기 나끄레, 이제 어렝이나 이런 거 나끄레 뎅이줍게, 테우로.(그다음 낚싯거루. 기계배가 있고. 또 떼가 있고. 떼는 자리 뜨고, 이 저 바닷가 고기 낚으러, 이제 어렝놀래기 이런 거 낚으러 다니지요, 떼로.)

105013 #2 미역치 나끄곡.(미역치 낚고.)

105013 #1 미역친 ᄀᆞᆺ듸서 나끄곡.(미역치는 가에서 낚고.)

105014 @ 줌녀덜이 채취ᄒᆞ는 해산물, 줌녀양.(해녀들이 채취하는 해산물, 해녀요.)

105014 #1 줌녀덜?(해녀들?)

105014 #2 줌녀덜은 무신거 점복ᄒᆞ곡 구젱이 ᄒᆞ곡게, 문어도 잡곡.(해녀들은 무엇 전복하고 소라하고, 문어도 잡고.)

105014 @ 물꾸럭?(문어?)

105014 #2 예, 물꾸럭도 잡아. 잡곡 또 해삼도 ᄒᆞ곡.(예, 문어도 잡아. 잡고 또 해삼도 하고.)

105014 #1 해녀도 다 작살에.(해녀도 다 작살에.)

105014 #2 해녀덜토양, 각종 다 잡아.(해녀들도요 각종 다 잡아.)

105014 @ 해산물 ᄒᆞ믄 해초.(해산물 하면 해초.)

105014 #2 해초도 허주기.(해초도 하지요.)

105014 #1 미역, 정각.(미역, 청각채.)

105014 #2 정각, 미역, 톳게. 그런 거.(청각채, 미역, 톳요. 그런 거.)

105014 @ 가시리.(풀가사리.)

105014 #2 가시리, 아니 톳은 톳만 ᄒᆞ는, 톳이 해경[210] ᄒᆞ믄 톳만 ᄒᆞ는 날이 셔마씸. 톳이 해경 헤사 것도. 해경 ᄒᆞ믄 톳은 받아가는 따문 일본더레양. 그때 일본더레 받아간.(풀가사리, 아니 톳은 톳만 하는, 톳이 '해경' 하면 톳만 하는 날이 있어요. 톳이 '해경' 해야 것도. '해경' 하면 톳은 받아 가는 때문 일본으로요. 그때 일본으로 받아갔어.)

105014 #1 수출ᄒᆞ는.(수출하는.)

105014 #2 톳 해경 헴젠 ᄒᆞ믄 톳만 ᄒᆞ여. 미역도 셔도 아니 ᄒᆞ곡. 정각도 셔도 아니

210) '해경'은 해산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채취를 금하였다가 합의 된 날짜에 그 금지를 풀고 해산물을 캐기 시작하는 일을 말한다.

ᄒᆞ곡, 톳만.(톳 '해경' 하고 있다고 하면 톳만 해. 미역 있어도 아니 하고. 청각채도 있어도 안 하고, 톳만.)

105014 @ 이디선 미역이옌 흡니까, 메역이옌 흡니까?(여기서는 미역이라고 합니까, '메역'이라고 합니까?)

105014 #2 미역, 여기선 미역. 또 정각, 톳. 이제 저 거시기 경 시 가지, 늬 가지라. 미역이영 톳이영 정각이영 저 거세기 가시리, 가시리는.(미역, 여기선 미역. 또 청각채, 톳. 이제 저 거시기 그렇게 세 가지, 네 가지야. 미역이랑 톳이랑 청각채랑 저 풀가사리, 풀가사리는.)

105014 @ 저 뭣고 구젱기도 ᄒᆞ곡.(저 뭐고 소라도 하고.)

105014 #2 예, 구젱기, 전복, 거세기.(예, 소라, 전복, 거시기.)

105014 @ 성게.(성게.)

105014 #2 성게. 성게도 ᄒᆞ곡.(성게. 성게도 하고.)

105014 #1 성게가 구살.(성게가 '구살'.)

105014 #2 구살도 ᄒᆞ곡. 이것저것 각종 흡니다게.(성게도 하고. 이것저것 각종 합니다.)

105014 @ 구살ᄒᆞ고 성겐 틀리지양.('구살'하고 성게는 다르지요.)

105014 #2 예, 뜨나.(예, 달라.)

105014 @ 구살이 솜.(성게가 말똥성게.)

105014 #2 구살이 성게주게.('구살'이 성게지요.)

105014 #1 솜이 성게고, 구살 또 뜨나.(말똥성게가 성게고, 성게 또 달라.)

105014 @ 솜이, 말똥성게가 솜인데. 까시 어신 거.(말똥성게가, 말똥성게가 '솜'인데. 가시 없는 거.)

105014 #1 예, 가시가 좀진 거. 그것이 솜이옌 ᄒᆞ곡, ᄒᆞ꼼 굵은 건 구살.(예, 가시가 자잘한 거. 그것이 말똥성게라고 하고, 조금 굵은 건 성게.)

105014 #2 게난 한동안은 잘 햇주만은. 구살은 구살만 ᄒᆞ는 해가 싯젠 말이 셔.(그러니까 한동안은 잘 했지만은. 성게는 성게만 하는 해가 있다는 말이 있어.)

105014 @ 게난 구살이 성게고.(그러니까 '구살'이 성게고.)

105014 #1 아, 표준어로 솜은 뭐옌 ᄒᆞ여?(아, 표준어로 '솜'은 뭐라고 해?)

105014 @ 솜은 말똥성게.('솜'은 말똥성게.)

105014 #2 말똥성게.(말똥성게.)

105014 #1 저 이 성게국 끌령 먹는 건 구살이로구나.(저 이 성게국 끓여서 먹는 건 성게로구나.)

105014 @ 구살.(성게.)

105014 #1 예, 구살국이옌.(예, 성게국이라고.)

105014 @ 솜으로도 ᄒᆞ긴 흡니다. 구살이 좀 낫아, 솜보다는.(말똥성게로도 하긴 합니다. 성게가 좀 나아, 말똥성게보다는.)

105014 #2 낫아도 이젠 비슷ᄒᆞ게 풀아부난 몰르주게.(나아도 이젠 비슷하게 팔아버

리니까 모르지요.)

105014 #1 뻘겅ᄒᆞ곡 구살이 이제 맛이 셔.(벌겋고 성게가 이제 맛이 있어.)

105014 #2 이제도 저 구살 ᄒᆞ는 사름은 해년 멧 개 잇수다만은 막 비싸. 비쌍 이디서 못 사마씸. 게난 구살 ᄒᆞ젠 ᄒᆞ난 멧 사름, 멧 엇수다, 시닛산디.(이제도 저 성게 하는 사람은 매해 몇 개 있습니다만 아주 비싸. 비싸서 여기서 못 사요. 그러니까 성게 하려고 하니까 몇 사람, 몇 없습니다, 세넷인지.)

105014 @ 저거 잡아왕 깨는 것도 힘들어.(저거 잡아 와서 깨는 것도 힘들어.)

105014 #2 경ᄒᆞ곡 바당에서 다 작업은 ᄒᆞ영덜, 하르방덜 강 ᄀᆞ찌, 할망은 물들엉.(그리고 바다에서 다 작업은 해서들, 할아버지들 가서 같이, 할머니들은 물들어서.)

105014 #1 멩심ᄒᆞ영 그 술만ᄒᆞ젠 ᄒᆞ믄 그것이 공들어.(명심해서 그 살만하려고 하면 그것이 공들어.)

105015 @ 그다음에 좀녀덜이 물질홀 때 필요혼 도구덜 잇지 안 ᄒᆞ우꽈예? 어떤 것덜 잇수광?(그다음에 해녀들이 물질할 때 필요한 도구들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들 있습니까?)

105015 #1 빗창[211].(‘빗창’.)

105015 #2 빗창, 테왁[212]게, 이제 눈ᄒᆞ곡, 이제 무신거 옛날사 소중기ᄒᆞ곡게, 소중기ᄒᆞ곡, 적삼ᄒᆞ곡.(‘빗창’, ‘태왁’요, 이제 물안경하고, 이제 무엇 옛날에야 속옷하고요, 속옷하고, 적삼하고.)

105015 @ 소중기, 적삼.(속옷, 적삼.)

105015 #2 소중기, 적삼, 눈게.(속옷, 적삼, 물안경요.)

105015 #1 테왁.(‘태왁’.)

105015 #2 테왁, ᄯᅳ시 망사리게.(‘태왁’, 또 망사리요.)

105015 @ 망사리.(망사리.)

105015 #2 망사리ᄒᆞ곡, 거세기 빗창ᄒᆞ곡.(망사리하고, 거시기 ‘빗창’하고.)

105015 @ 소살.(작살.)

105015 #2 소살은 잘 아니 ᄋᆞ졍 다녓주.(작살은 잘 안 가져서 다녔지요.)

105015 #1 소살도 가졍 뎅여.(작살도 가져서 다녀.)

105015 @ 상군덜 정도 홀 텝주.(상군들 정도 할 터이지.)

105015 #2 상군, 상군덜은.(상군, 상군들은.)

105015 #1 상군덜은 소살 가졍 뎅여.(상군들은 작살 가져서 다녀.)

105015 #2 우리도 ᄒᆞ꼼 물에 들어봣수다만은 그추룩은, 상군 아니난에 소살 ᄀᆞ뜬 건 몰르고, 저 그자 빗창 그런 그 도구덜게, 아니 눈.(우리도 조금 물에 들어 봤습니다만 그처럼은, 상군 아니니까 작살 같은 건 모르고, 저 그저 ‘빗창’ 그런 그 도구들요, 아니 물안경.)

105015 @ 빗창으론 뭘 ᄒᆞ여마씸?(‘빗창’으로는 뭘 해요?)

---

211) ‘빗창’은 해녀가 바닷속에 들어가서 전복을 캐는 데 쓰는 길쭉한 쇠붙이로 된 연장이다.

212) ‘테왁’은 박의 씨통을 파내고 구멍을 막아서 해녀들이 작업을 할 때 바다에 갖고 가서 타는 물건이다.

105015 #2 빗창으로게 전복 떼곡게, 거세기도 떼여져, 구살도. 구살 ᄆᆞ스왕, 구살도 영 ᄒᆞ영 잘 떼곡. 뚠 사름덜은 ᄀᆞᆯ겡이 ᄒᆞ영, 이 상군덜은 ᄀᆞᆯ겡이영 무신거 소살이영 ᄋᆞ라 개 ᄋᆞ졍 뎅입니다만은 이 경 못 ᄒᆞ여. 서투난 그거 ᄋᆞ져 뎅이멍 하간거 물 쏘굽의서 ᄒᆞ지 못 ᄒᆞ난 그자 빗창으로만 영영영 ᄒᆞ영 구살도 ᄆᆞᆫ딱 그추룩 ᄒᆞ여.('빗창'으로는 전복 떼고, 거시기도 떼어져, 성게도. 성게 무서워서, 성게도 이렇게 해서 잘 떼고. 다른 사람들은 호미 해서, 이 상군들은 호미랑 무엇 작살이랑 여러 개 가져서 다닙니다만 이 그렇게 못 해. 서투니까 그거 가져서 다니면서 여러 가지 물속에서 하지 못하니까 그저 '빗창'으로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성게도 모두 그처럼 해.)

105016 @ 좀녀덜이 물질ᄒᆞ지 안 홉니까양, 옛날 ᄒᆞ고 오늘날 ᄒᆞ고 어떤 차이점이 잇수가?(해녀들이 물질하지 안 합니까, 옛날하고 오늘날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105016 #2 아이고, 차이사 ᄒᆞᆯ 말이 어십주.(아이고, 차이야 할 말이 없지요.)

105016 @ 옛날이영 비교헤근에 ᄒᆞᆫ번 ᄀᆞᆯ아봅서.(옛날이랑 비교해서 한번 말해보십시오.)

105016 #2 옛날 ᄒᆞ곡 이제사. 이제사 물질ᄒᆞ는 건.(옛날하고 이제야. 이제야 물질하는 건.)

105016 #1 고무옷도 입곡.(고무옷도 입고.)

105016 #2 고무옷도 입곡, 숨 쉬는 것도 ᄃᆞᆯ곡게, 눈도 틀리곡, 다 틀려마씸게, 이젠.(고무옷도 입고, 숨 쉬는 것도 달고요, 물안경도 다르고, 다 달라요. 이젠.)

105016 #1 물갈구리라고 발에 ᄒᆞ영 잘 헤엄 해지게.(물갈퀴라고 발에 해서 잘 헤엄칠 수 있게.)

105016 #2 고무옷 입곡게, 영 반도도 차곡, 눈도 뜰리곡, 다 모든 것이 다 이제 다 뜰려마씸. 입는 거아울라 다 뜰려 이젠.(고무옷 입고요, 이렇게 반도도 차고, 물안경도 다르고, 다 모든 것이 다 이제 다 달라요. 입는 거마저 다 달라 이젠.)

105016 #1 전읜 소중기 입곡, 저.(전에는 속옷 입고, 저.)

105016 #2 전읜 아무것도 안 입엉 그자.(전에는 아무것도 안 입어서 그저.)

105016 @ 소중기ᄒᆞ고 적삼.(속옷하고 적삼.)

105016 #1 이젠 고무옷으로 변ᄒᆞ연.(이젠 고무옷으로 변했어.)

105016 #2 이젠 큰 거 눈도 ᄒᆞ곡, 머리예 쓰는 것도 고무옌 딱 쓰곡, 이제 저 ᄒᆞ꼼 뭐 ᄒᆞᆫ 사름덜은 숨쉬는 것도 ᄒᆞ영 ᄃᆞᆯ앙 이런 듸.(이젠 큰 거 물안경도 하고, 머리에 쓰는 것도 고무라고 딱 쓰고, 이제 저 조금 뭐 한 사람들은 숨쉬는 것도 해서 달아서 이런 데.)

105017 @ 이거 아까 ᄀᆞᆯ앗수다만은 좀녀덜 물옷 변천에 대ᄒᆞ여근에 ᄒᆞᆫ번 더 ᄀᆞᆯ아줍서, 옛날은.(이거 아까 말했습니다만 해녀들 물옷 변천에 대하여서 한번 더 말해주세요, 옛날은.)

105017 #2 소중기ᄒᆞ곡게.(속옷하고요.)

105017 @ 아래는 소중기ᄒᆞ곡.(아래는 속옷하고.)

105017 #2 아랜 소중기, 우읜 물적삼. 게 물적삼ᄒᆞ곡 눈도 ᄒᆞ꼬만 ᄒᆞᆫ 거 쓰곡, 이디

도 광목으로 수건 ᄒᆞ영 쓰곡.(아래는 속옷, 위에는 물적삼. 그렇게 물적삼 하고 물안경도 조그만 한 거 쓰고, 여기도 광목으로 수건 해서 쓰고.)

105017 @ 그거 입으믄 아멩ᄒᆞ여도 춥지양?(그거 입으면 아무래도 춥지요?)

105017 #2 아이고, 추웡 바당의 들어가믄 처음읜 경 ᄒᆞ여도 ᄎᆞᄎᆞ 해가믄게. 경 ᄒᆞ곡 눈 씨곡, 빗창 ᄀᆞ지곡 ᄒᆞ믄. 상군덜은 소살이영 골겡이영 다 ᄋᆞ정 가. 골겡이 ᄋᆞ정 가사 그 까시 돋은 거 ᄒᆞ젠 ᄒᆞ믄 장이덜은 그걸로 ᄒᆞ믄 그자 먹기 확 ᄒᆞ고.(아이고, 추워서 바다에 들어가면 처음에는 그렇게 해도 차차 해가면요. 그렇게 하고 물안경 쓰고, '빗창' 가지고 하면. 상군들은 작살이랑 호미랑 다 가져서 가. 호미 가져서 가야 그 가시 돋은 거 하려고 하면 장이들은 그걸로 하면 그저 먹기 확 하고.)

105017 @ 올라오믄 불턱에 가지 안 ᄒᆞᆸ니까 양, 불턱.(올라오면 불 곁에 가지 안 합니까요. 불 옆에.)

105017 #2 나오믄게 불 추우레 가사주게. 지들커영 정 갓다근에.(나오면요 불 쬐러 가야지요. 땔감이랑 져서 갔다가.)

105017 @ 불턱[213]양. 돌로 영 해근에.(불 옆에요. 돌로 이렇게 해서.)

105017 #2 그제는 돌 신 때.(그때는 돌 있는 때.)

105017 @ 이제는 탈의장덜 마을마다 멩글아십디다.(이제는 탈의장들 마을마다 만들어 있습디다.)

105017 #2 이젠 집덜 다 시난 집 쏘굽의 강.(이젠 집들 다 있으니까 집 속에 가서.)

105017 #1 전읜 담 다왕 불 살롱 추곡.(전에는 담 쌓아 불 피워서 추고.)

105017 #2 거세기 구덕에 놩 정 가사. 지들커 아정가지 안 ᄒᆞ믄 누게 ᄂᆞᆷ의 거 해줍니까? 엇이난에 지들커 ᄒᆞ영 보리낭이영 조집이나 무신 나록찍이라도 ᄋᆞ정 가믄 질레에 낭귀야지라도 붕그곡 ᄒᆞ영. 대구덕에 놔근에 지곡 테왁 놓곡 ᄒᆞ영 가지 안 ᄒᆞ믄 얼엉 추지 못ᄒᆞ여마씨.(거시기 바구니에 놔서 져 가야. 땔감 가져서 가지 안 하면 누가 남의 거 해 줍니까? 없으니까 땔감 해서 보릿짚이랑 조짚이나 무슨 볏짚이라도 가져서 가면 길에 나뭇가지라도 줍고 해서. 대바구니에 넣어서 지고 '태왁' 넣고 해서 가지 안 하면 얼어서 쬐지 못합니다.)

105017 @ 경ᄒᆞ난 이제 옷도 변ᄒᆞᆫ 거 아니우꽈양?(그러니까 옷도 변한 거 아닙니까?)

105017 #2 예, 무신거 모든 것이 변ᄒᆞᆫ 것이 뭐 합주기.(예. 무엇 모든 것이 변한 것이 뭐 많지요.)

105017 @ 고무옷은 입어봅디가?(고무옷은 입어 봤습니까?)

105017 #2 고무옷 우리 아이 입어봣수다. 아, 입으난 그때에, 입어 봐 입 어봐 ᄒᆞ연 우리 그때 사진 찍젠 경 ᄒᆞ여도 사진 찍으레 바당의서 ᄒᆞᆯ 때 ᄒᆞᆫ번 입어보난양, 아이고 답답ᄒᆞ고양.(고무옷 우리 아니 입어봤습니다. 아, 입으니까 그때에, 입어 봐, 입어 봐 해서 우리 그때 사진 찍으려고 그렇게 해도 사진 찍으러 바다에서 할 때 한번 입어보니까

213) '불턱'은 해녀들이 무자맥질해서 작업하다가 언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하여 마련해 간 땔감으로 불을 지펴서 쬐는 곳이다. 바닷가 바위 위 바람막이에 돔담을 둥그스름하게 에워싼 곳이다. 바닷가 바위의 자연적 됨됨이를 활용하여 꾸며지기도 하여, 해녀들의 탈의장으로 이용한다.

요, 아이고 답답하고요.)

105017 @ 뚯뚯홀 건가?(따뜻할 건가?)

105017 #2 아이. 뚯뚯흔디양, 몸에 어떵.(아니, 따뜻한데요, 몸이 어떻게.)

105017 #1 공기가.(공기가.)

105017 #2 공기가 어떵 틉틉ᄒᆞ고 이거 난 줘도 못 입으켜, 영. 게난 옛날 옷이 좋아마씸.(공기가 어떻게 텁텁하고 이거 난 줘도 못 입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옛날 옷이 좋아요.)

105018 @ 톳은 어떵 채취홉니까?(톳은 어떻게 채취합니까?)

105018 #2 톳?(톳?)

105018 @ 톳은 공동으로 ᄒᆞ지양?(톳은 공동으로 하지요?)

105018 #2 예, 톳은 물 싸믄 강 그자.(예, 톳은 물 써면 가서 그저.)

105018 @ 채취 과정 흔번 골아봅서.(채취 과정 한번 말해보세요.)

105018 #1 호미로.(낫으로.)

105018 #2 호미롤 ᄒᆞ나, 손으롤 ᄒᆞ나.(낫으로 하나, 손으로 하나.)

105018 #1 보통 호미로 비멍.(보통 낫으로 베면서.)

105018 #2 늘근 톳은 호미로 안 비영 못 ᄒᆞ여.(늙은 톳은 낫으로 안 베면 못 해.)

105018 @ 오래지 안 흔 건 손으로도 ᄒᆞ여져?(오래지 안 한 건 손으로도 할 수 있어?)

105018 #2 예, 오래지 안 흔 건, 젊은 톳은 손으로 더러 메여지곡.(예. 오래지 아니한 건, 어린 톳은 손으로 더러 매어지고.)

105018 #1 그건 뭐 좀 부드러우난. 톳 이만썩 질어 가믄 질깁주게. 게믄 호미로 비여사.(그건 뭐 좀 부드러우니까. 톳 이만큼씩 길어 가면 질기지요. 그러면 낫으로 베어야.)

105018 #2 호미로 그런 건, 그런 건 비여근에 게도 적[214] 붙게 말아사. 적 부뜨믄.(낫으로 그런 건, 그런 건 베어서 그래도 '적' 붙게 말아야. '적' 붙으면.)

105018 #1 그걸 이제 알아주지 안 ᄒᆞ난, 멩심ᄒᆞ영 잘 줄라얍주.(그걸 이제 알아주지 안 하니까, 명심해서 잘 잘라야지.)

105018 #2 경 ᄒᆞ영 바당의 널엉 톳 뒐쓰레 가곡, 메칠 시믄 또 톳 담으레 가곡. 그추룩 헤낫수다.(그렇게 해서 바다에 널어서 톳 뒤집으러 가고, 며칠 있으면 담으러 가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105018 #1 비 맞히지 말아사 비 맞히믄 까치가 어서.(비 맞히지 말아야 비 맞히면 가치가 없어.)

105018 #2 저 무신거 ᄒᆞ영 더끄곡, ᄂᆞ람지[215]도 ᄒᆞ영 더끄곡 ᄒᆞ멍, 옛날엔 그추룩 햇수게. 경 ᄒᆞ난 이제덜은 톳 ᄒᆞ믄 창고가 셔근에 탁탁탁 톳만 ᄒᆞ믄 뒈싸 놓곡 어퍼 놓곡 뭐.(저 무엇 해서 덮고, 'ᄂᆞ람지'도 해서 덮고 하면서,. 옛날엔 그처럼 했습니다. 그렇

214) '적'은 바닷가 돌 위에 붙어 있는 날카로운 굴 껍데기 따위를 말하며 흰색과 붉은색을 딘다.
215) 'ᄂᆞ람지'는 이엉과 비슷한 것으로 낟가리 위에 덮는 물건이다.

게 하니까 이제들은 톳 하면 창고가 있어서 탁탁탁 톳만 하면 뒤집어 놓고 엎어 놓고 뭐.)

105018 @ 이제 톳은 공동으로뻿기 안 햄구나?(이제 톳은 공동으로밖에 안 하고 있구나?)

105018 #2 예게, 공동으로만.(예, 공동으로만.)

105018 #1 어촌계에서 공동 관리 헤 가지고.(어촌계에서 공동 관리 해 가지고.)

105018 #2 어촌곈 돈 나올 디 어시난 그런 거 ᄒᆞ영게 ᄒᆞ꼼씩.(어촌계는 돈 나올 데 없으니까 그런 거 해서요 조금씩.)

105018 #1 어촌곈 그거 ᄒᆞ곡, 해녀덜 줌수ᄒᆞ는 거.(어촌계는 그거 하고, 해녀들 잠수하는 거.)

105018 @ 개인이 강은 못 ᄒᆞ고?(개인이 가서는 못 하고?)

105018 #2 어떤 땐 톳 문딱 비여분 후젠 ᄒᆞ꼼씩 문드린 거 시믄, ᄒᆞ나씩 문드린 거 시믄, 톳 ᄒᆞ레 가믄 누게 관리 안 ᄒᆞ여근에 내불어마씸, 해 와. 경 ᄒᆞ여도 그건 잠깐게 ᄒᆞ꼼게, 무신거.(어떤 땐 톳 모두 베어 버린 후에 조금씩 떨어진 거 있으면, 하나씩 떨어진 거 있으면, 톳 하러 가면 누구 관리 안 해서 내버려요, 해 와. 그렇게 해도 그건 잠깐요 조금, 무엇.)

105018 #1 먹을 거나 ᄒᆞ꼼 비여놓곡.(먹을 거나 조금 베어놓고.)

105018 #2 ᄒᆞᆫ 구덕이나 ᄒᆞᆫ 골체나 홈벳기. 경 ᄒᆞ믄 비여난 뒷 거 ᄒᆞ믄.(한 바구니나 한 삼태기나 함박에. 그렇게 하면 베었던 데 거 하면.)

105018 @ 바당 직ᄒᆞ레 다니지양?(바다 지키러 다니지요?)

105018 #2 예, 바당 직ᄒᆞ는, 관리ᄒᆞ는 사름덜 잇어마씨.(예, 바다 지키는, 관리하는 사람들 있어요.)

105018 #1 물 싼 때 ᄀᆞ뜬 땐 바릇 잡아가불카부덴. 경 ᄒᆞ영 거기 어디 들엇다 ᄒᆞ믄 막 불르멍 야단ᄒᆞ영 빨리 나오렝 ᄒᆞ여. 심지어는양 구젱이 ᄀᆞ뜬 것도 멧 개 ᄒᆞ믄 그걸 막 털어가 못 ᄒᆞ게.(물 썬 때 같은 때 바다 거 잡아가 버릴까 싶어서. 그렇게 해서 거기 어디 들었다 하면 마구 부르면서 야단해서 빨리 나오라고 해. 심지어는 소라 같은 것도 몇 개 하면 그걸 막 털어가 못 하게.)

105018 #2 경 ᄒᆞ여도 이 글레엔 덜 턴덴 ᄒᆞ여. 엿날엔 우린 원 못 잡아낫수다게. 강 무신거 ᄒᆞ믄 막 직ᄒᆞ는 남자덜 뎅겨마씨.(그렇게 해도 이 근래에는 덜 턴다고 해. 옛날엔 우린 전혀 못 잡았었습니다. 가서 무엇 하면 막 지키는 남자들 다녀요.)

105018 @ 다울려?(내쫓아?)

105018 #2 예, 다울려 가불어. 그만행 와 그거, 그거 ᄒᆞ는 거 아니라. ᄒᆞ멍 막 욕 들어.(예, 내쫓아 가버려. 그만해서 와 그거, 그거 하는 거 아니라. 하면서 마구 욕 들어.)

105018 #1 경 ᄒᆞ멍 이 어떵 ᄒᆞ냐 ᄒᆞ믄 중산간에서 왕 그 웃드리 사름덜 왕 보말이라도 하나 잡아가믄.(그렇게 하면서 이 어떻게 하냐 하면 중산간에서 와서 그 '웃드리' 사람들 와서 고둥이라도 하나 잡아가면.)

105018 #2 막 욕ᄒᆞ영.(마구 욕해서.)

105018 #1 아니, 게 욕 막 해나난양, 이디서 이제 산더레 촐 비레 가난, 새 비레 가믄 이 막 야단ᄒᆞ여. 해변 사름덜, 너 사름 새끼 아니라고.(아니, 그렇게 욕 마구 했었으니까요, 여기서 이제 산으로 꼴 베러 가니까, 띠 베러 가면 이 마구 야단해. 해변 사람들, 너 사람 자식 아니라고.)

105018 #2 해변 것덜.(해변 것들.)

105018 #1 거 뭐 저 보말 하나 톳 해 간 걸 못 ᄒᆞ게 ᄒᆞ믄 불보제기[216]옌 ᄒᆞ멍 욕도 우리 해변 사름이옌 ᄒᆞ믄 벌써 욕부떠 들어.(거 뭐 저 고둥 하나 톳 해 간 걸 못 하게 하면 '불보제기'라고 하면서 욕도 우리 해변 사람이라고 하면 벌써 욕부터 들어.)

105018 #2 옛날 어른덜 문딱 돌아갓수게. 욕해난 사름도 돌아가고.(옛날 어른들 모두 돌아갔습니다. 욕했던 사람도 돌아가고.)

105018 #1 너무 지나쳥양, 하나 둘 흔 걸 막 저 구덕 비와 앗으멍 경 헤가믄 좋읍니깡게? 그 사름이.(너무 지나쳐서요, 하나 둘 한 걸 마구 저 바구니 부어 가지면서 그렇게 해가면 좋습니까? 그 사람이.)

105018 #2 톳이라도 헤난 듸 거 ᄒᆞ꼼 헤가믄 막 못 ᄒᆞ게 ᄒᆞ난, 게난 해변더렌 경 ᄒᆞ멍 욕 들어낫수다.(톳이라도 했던 데 거 조금 해가면 마구 못 하게 하니까, 그러니까 해변으로 그렇게 하면서 욕 들었었습니다.)

105019 @ 그다음에 가시리 잇지 안 ᄒᆞ우꽈? 가시리는 어떵 채취홉니까? 가시리는 종류도 많지 안 ᄒᆞ우꽈양?(그다음에 풀가사리 있지 않습니까? 풀가사리는 어떻게 채취합니까? 풀가사리는 종류도 많지 안 합니까?)

105019 #2 우뭇가사리여 무신 풀가사리여 ᄒᆞ멍 해도.(우뭇가사리여 무슨 풀가사리여 하면서 해도.)

105019 @ 가시리? 가사리?(풀가사리? 풀가사리?)

105019 #2 가시리, 경 ᄒᆞ여도 우린 저.(풀가사리. 그렇게 해도 우린 저.)

105019 @ 가사리가.(가사리가.)

105019 #2 가시리. 예, 가시리.(풀가사리. 예, 풀가사리.)

105019 @ 거 어떵 채취홉니까?(거 어떻게 채취합니까?)

105019 #2 어떵 그거 해다 놩게, 저 가시리, 옛날은 가시리 메여당 공동으로 ᄒᆞ영 풀 거, 풀 거 ᄒᆞ멍 해나신디, 우린 아이 때고 ᄒᆞ난 저 ᄒᆞ는 것만 구경ᄒᆞ고, 저 어머님덜 ᄒᆞ는 것 간 영 ᄀᆞ찌 도우긴 햇는디. 알동네 굴 칩의 할망쯤은 가시리 해다 놓믄 요년덜 ᄒᆞ멍 욕ᄒᆞ멍 거 불람져, 잘 못 널엄져, 것도 경 ᄒᆞ는 할망이. 관리ᄒᆞ는 할망이 시난 욕은 해도 좋긴 좋아난디양, 경 해낫수다. 경 ᄒᆞ당 이제 가시리 해당.(어떻게 그거 해다 놔서요, 저 풀가사리, 옛날은 풀가사리 매어다가 공동으로 해서 팔 거, 팔 거 하면서 했었는데, 우린 아이 때고 하니까 저 하는 것만 구경하고, 저 어머님들 하는 것 가서 이렇게 같이 돕기는 했는데. 아랫동네 굴 집에 할머니쯤은 풀가사리 해다 놓으면 요년들 하면서 욕하면서 거 바르고 있다, 잘 못 널고 있다, 것도 그렇게 하는 할머니가, 관리하는

216) '불보제기'는 어부를 나쁘게 욕하는 말이다.

할머니가 있으니까 욕은 해도 좋긴 좋았었는데요,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풀가사리 해다가.)

105019 #1 가시린 하영 안 ᄒᆞ잖아.(풀가사리는 많이 안 하잖아.)

105019 #2 하영 안 ᄒᆞ연, 경 ᄒᆞ여도 ᄒᆞ꼼썩 ᄒᆞ여도.(많이 안 했어, 그렇게 해도 조금씩 해도.)

105019 #1 집의 풀 ᄒᆞᆯ 거나 ᄒᆞ고.(집에 풀 할 거나 하고.)

105019 #2 예, 풀 ᄒᆞᆯ 거나 ᄒᆞ고 가시린.(예, 풀 할 거나 하고 풀가사리는.)

105019 @ 우미 멩그는 디.(우뭇가사리 만드는 데.)

105019 #2 우미 멩그는 건 해당 ᄒᆞ끔씩 갈라주곡.(우뭇가사리 만드는 건 해다가 조금 씩 나눠주고.)

105019 #1 여름의 햇당 ᄒᆞ꼼.(여름에 했다가 조금.)

105019 #2 춤 ᄒᆞ끔씩 주믄 바당의 강 일 잘 ᄒᆞ곡, 것도 ᄀᆞ찌 잘 ᄒᆞᆫ 사름 갈라주믄 가정왕 ᄉᆞᆯ망게, 집의서 ᄉᆞᆯ망 우미 멘들앙 먹곡. 우미 어머님네영 우리도 ᄉᆞᆲ나낫수다.(참 조금씩 주면 바다에 가서 일 잘 하고, 것도 같이 잘 하는 사람 나눠주면 가져와서 삶아서, 집에서 삶아서 우뭇가사리 만들어서 먹고. 우리 어머님네랑 우리도 삶았었습니다.)

105019 @ 풀을 하영 멩글앗주, 옛날. 방 ᄇᆞ를 때.(풀을 많이 만들었지, 옛날. 방 바를 때.)

105019 #1 가시리풀.(풀가시리풀.)

105019 #2 예게, 가시리 풀도 ᄉᆞᆲ아낫수다. 굴묵[217]에서 ᄉᆞᆷ앙.(예게, 풀가사리 풀도 삶았었습니다. '굴묵'에서 불을 때어서.)

105019 #1 그것이 밀ᄀᆞ루 풀보다 좀 안 일곡 잘 부떠.(그것이 밀가루 풀보다 나무좀 안 일고 잘 붙어.)

105019 #2 가시리 풀도 해나곡, 우뭇가사리도 ᄉᆞᆲ아낫수다.(풀가사리 풀도 했었고, 우뭇가사리도 삶았었습니다.)

105019 @ 가시린 개인이 ᄒᆞ여, 공동?(풀가사리는 개인이 해, 공동?)

105019 #2 가시린 풀ᄒᆞ는 건 그땐 ᄀᆞ찌 ᄒᆞ연 무신것덜 해난디 말쩨라가난 저 질로 지썩 ᄀᆞ정왕 무신 도비ᄒᆞ켜, 무신 집 ᄒᆞ켜 ᄒᆞ멍.(풀가사리는 풀하는 건 그 땐 같이 해서 무엇들 했었는데 말짜라가니까 저 저마다 따로따로 가져와서 무슨 도배 하겠다, 무슨 집 하겠다 하면서.)

105019 #1 대대적으로.(대대적으로.)

105019 #2 대대적으론 안 ᄒᆞ여난. 톳 그추룩은 안 ᄒᆞ여낫수다, 이디.(대대적으론 안 했어. 톳 그처럼은 안 했었습니다, 여기.)

105020 @ 그다음에 전복ᄒᆞ고 구젱긴 어떤 잡아낫수가? 이딘.(그다음에 전복하고 소라는 어떻게 잡았었습니까? 여기는.)

105020 #2 전복, 구젱기 물에 들믄게 빗창으로 잡곡, 구젱기도 물에 들엉 영 보믄 구젱기 싯는 디, 전복 싯는 듸가 알아진덴, 알아진덴 ᄒᆞ여근에.(전복, 소라는 물에 들면

217) '굴묵'은 구들방에서 불을 때게 만든 아궁이 및 그 아궁이 바깥 부분이다.

‘빗창’으로 잡고, 소라도 물에 들어서 이렇게 보면 소라 있는 데, 전복 있는 데가 알아진다고, 알아진다고 해서.)

105020 @ 옛날에 하나서.(옛날에 많았어.)

105020 #2 옛날엔 상군덜 보믄.(옛날엔 상군들 보면.)

105020 @ 나도 그디 간에, 바당에 간에 전복 혼번 떼 봐신디, 옛날은 잇어서, 곳듸도.(나도 거기 가서, 바다에 가서 전복 한번 떼 봤는데, 옛날은 있었어, 가에도.)

105020 #2 옛날은 곳듸 들엉 우린 상군 아니난 먼 바당에 못 들어낫수다게. 우리찌레만 멘딱 ᄀᆞ찌 ᄒᆞ믄 ᄀᆞ찌 들엉 ᄒᆞ믄게 전복도 큰 거 못 ᄒᆞ곡게. 우린 베껏디 드난에 이만썩 ᄒᆞᆫ 거 드러 ᄒᆞ여근에 물에 들엉 보믄양, 그땐 영 ᄒᆞ영 손 디물엉 보믄 시믄 빗창 이디 햇다근에 빗창으로 행 떼영 나오곡. 경 ᄒᆞ영 또 여[218] ᄒᆞ영 뎅이당 보믄 담고냥에 보믄 구젱이도, 그땐 구젱이도 싯곡, 전복도 싯곡 해낫수다게.(옛날은 가에 들어서 우린 상군 아니니까 먼 바다에 못 들어났습니다. 우리끼리만 모두 같이 하면 같이 들어서 하면 전복도 큰 거 못하고요. 우린 바깥에 드니까 이만큼씩 한 거 계속 해서 물에 들어서 보면요, 그땐 이렇게 해서 손 들이밀어서 보면 있으면 ‘빗창’ 여기 했다가 ‘빗창’으로 해서 떼어서 나오고. 그렇게 해서 또 ‘여’ 해서 다니다 보면 담 구멍에 보면 소라도, 그땐 소라도 있고, 전복도 있고 했었습니다.)

105020 @ 고냥만 잘 춪으믄.(구멍만 잘 찾으면.)

105020 #2 예, 고냥만 잘 춪으믄. 하영 못 해낫수다게.(예, 구멍만 잘 찾으면. 많이는 못 했었습니다.)

105020 #1 바당의 들어가믄 냅조록ᄒᆞᆫ 돌 일르믄 전복이 똑 사는 디가 이서.(바다에 들어가면 납작한 돌 일으키면 전복이 똑 사는 데가 있어.)

105020 #2 상군덜 해 온 전복 곳듸 ᄒᆞᆫ 전복이 금지가 ᄯᅮ나, ᄑᆞ는 듸도. 상군덜은 막 이만ᄒᆞᆫ 전복 늘근 점복양, 것이 비싸곡. 곳듸 ᄒᆞᆫ 사름 건 금지가 ᄯᅮ나 마씸. 경 헤낫젠, 경 헤낫수다게.(상군들 해 온 전복 가에서 한 전복이 값이 달라, 파는 데도. 상군들은 아주 이만큼 한 전복 늙은 전복요, 것이 비싸고. 가에서 한 사람 거는 값이 달라요. 그렇게 했었다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105020 @ 이거 전복ᄒᆞ고 구젱기는 공동으로 홉니까? 개인으로 홉니까?(이거 전복하고 소라는 공동으로 합니까? 개인으로 합니까?)

105020 #2 저 공출ᄒᆞ영 받는 사름이 셔낫수다.(저 공출해서 받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05020 #1 공동으로.(공동으로.)

105020 @ 공동으로?(공동으로.)

105020 #2 예, 공동으로 헤낫수다.(예, 공동으로 했었습니다.)

105020 #1 개인이 얼마썩 ᄒᆞ믄 떳당 ᄆᆞ딱 적엉은에 이제 돈은 그거 산출ᄒᆞ영 받곡, 일 키로에 얼마 ᄒᆞ믄.(개인이 얼마씩 하면 떴다가 모두 적어서 이제 돈은 그거 산출해서 받고. 일 키로그램에 얼마 하면.)

---

218) ‘여’는 바닷가 바닥이 얕거나 조수가 썰 때 나타나 보이는 돌 따위를 말한다.

105020 @ 지금도 다 공동으로 헴지양?(지금도 다 공동으로 하고 있지요?)

105020 #1 예, 지금도 다 받아가.(예, 지금도 다 받아가.)

105020 @ 어촌계에서.(어촌계에서.)

105020 #1 어촌계에서 받아가. 요즘은 물질 안 ᄒᆞ난 이 사름도 모르는디.(어촌계에서 받아가. 요즘은 물질 안 하니까 이 사람도 모르는데.)

105020 #2 이젠 상군도 멧 사름 엇곡.(이젠 상군도 몇 사람 없고.)

105020 #1 이젠 구엄[219]에 지금 물질ᄒᆞ는 사름이 멧 사름 엇수다. 엿날 분덜은 다 늘경 돌아가불곡, 또 새로운 사름덜은 물질을 벱질 안 ᄒᆞ여 놓난, 그걸 이제 박ᄒᆞ곡 뭐 ᄒᆞ난 ᄒᆞ젠을 안 ᄒᆞ여.(이젠 '구엄'에 지금 물질하는 사람이 몇 사람 없습니다. 옛날 분들은 다 늙어서 돌아가 버리고, 또 새로운 사람들은 물질을 배우지를 아니해 놓으니까. 그걸 이제 박하고 뭐 하니까 하려고 안 해.)

105020 #2 박ᄒᆞᆫ 직업입주기.(박한 직업이지요.)

105021 @ 전복ᄒᆞ고 구젱기 종류는 어떤 것덜이 잇수과? 한 예를 든다면은 암컷, 수컷 구별뒙니까? 전복.(전복하고 소라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한 예를 든다면 암컷 수컷 구별 됩니까? 전복.)

105021 #2 그 암컷, 수컷. 우린 어떵사 헤신디 그거.(그 암컷, 수컷. 우린 어떻게야 했는지 그거.)

105021 #1 암첨복, 수첨복.(전복의 암컷, 전복의 수컷.)

105021 #2 술이 압더레 밀락이 나온덴 암첨복은.(살이 앞으로 반드럽게 나온다고 전복의 암컷은.)

105021 #1 아니 경 ᄒᆞ곡.(아니 그렇게 하고.)

105021 #2 게난 상군덜 해온 건 하. 그것이 근이 하영 가곡. 우리 야픈 듸서 ᄒᆞᆫ 사름은 우의 터럭이 엇어마씸, 베껫듸서 ᄒᆞᆫ 사름은. 상군덜은 전복을 행 왕 보믄 전복 우의 보믄 털이 북삭ᄒᆞ여.(그러니까 상군들 해온 건 많아. 그것이 근이 많이 가고. 우리 얕은 데서 한 사람은 위에 털이 없어요, 바깥에서 한 사람은. 상군들은 전복을 해 와서 보면 전복 위에 보면 털이 많지.)

105021 #1 아니, 늣 돋안게.(아니 싱경이 돋아서.)

105021 #2 늣. 것이 북삭ᄒᆞ여, 겐디.(싱경이, 것이 많아, 그런데.)

105021 #1 늣도 거 막 오랜 거난 ᄒᆞ고.(싱경이도 거 아주 오랜 거니까 하고.)

105021 #2 이 ᄀᆞᆺ듸 ᄒᆞᆫ 사름덜은양, 그런 것도 엇곡, 멘딱 수천복만 해여. 상군덜은 다 그 지픈 듸 가믄 암천복이 한덴 ᄒᆞ영.(이 바닷가에 한 사람들은요, 그런 것도 없고, 모두 전복의 수컷만 하고. 상군들은 다 깊은 데 가면 전복의 암컷이 많다고 해서.)

105021 @ 지픈 듼 암천복이 하곡.(깊은 데는 전복의 암컷이 많고.)

105021 #2 예, 경 ᄒᆞᆫ덴 ᄒᆞ영 돈이 더.(예, 그렇게 한다고 해서 돈이 더.)

105021 @ 야픈 듼 수천복이 하고.(얕은 데는 전복의 수컷이 많고.)

105021 #1 수첨복.(전복의 수컷.)

---

219) '구엄'은 제주시 애월읍 구엄리를 말한다.

105021 #2 예, 우린 안 헤봇수다만은 이 뭐 흔.(예. 우린 안 해봤지만은 이 뭐 한.)

105021 @ 이게 두터운가? 암천복은.(이게 두꺼운가? 전복의 암컷은.)

105021 #2 예, 암천복은 두꺼왕 술이 베껏듸레 나와마씸. 술이 나오곡.(예, 전복의 암컷은 두꺼워서 살이 바깥으로 나와요. 살이 나오고.)

105021 @ 수천복은 안 나오고?(전복의 수컷은 안 나오고?)

105021 #2 예, 안 나온덴마씨.(예, 안 나온다고요.)

105021 @ 비짝 ᄆᆞᆯ르구나.(바짝 마르는구나.)

105021 #1 ᄑᆞ는듸도 아멩해도 틀려. 암천복만 사젠 이.(파는데도 아무래도 달라. 전복의 암컷만 사려고 이.)

105021 #2 아멩해도 틀려마씸. 이 두껭이도 틀리곡, 경 ᄒᆞᆫ덴 ᄒᆞᆸ디다.(아무래도 달라요. 이 뚜껑도 다르고, 그렇게 한다고 합디다.)

105021 @ 게난 구별해야 살 거 아니.(그러니까 구별해야 살 거 아니.)

105021 #1 눈으로 보믄 착 ᄒᆞ여. 요거 암첨복, 요거 수첨복.(눈으로 보면 착 해. 요거 전복의 암컷, 요거 전복의 수컷.)

105021 #2 훤ᄒᆞ여마씸.(훤해요.)

105021 @ 좀 술지구나.(좀 살지구나.)

105021 #1 술치고 물착ᄒᆞᆫ 게.(살찌고 매끈한 게.)

105021 #2 예, 두껭이도 ᄯᅳ나.(예, 뚜껑도 달라.)

105021 @ 두껭이가 좀 산봉우리 모양으로 봉오롯ᄒᆞ구나.(뚜껑이 좀 산봉우리 모양으로 봉긋하구나.)

105021 #1 봉오롯ᄒᆞᆫ 게.(봉긋한 게.)

105021 #2 봉오롯ᄒᆞ고 이런 디도 킛징ᄒᆞ고, 수천복은 영 소랑해불어.(봉긋하고 이런 데도 반듯하고, 전복의 수컷은 이렇게 길쭉해 버려.)

105021 #1 납조록ᄒᆞ고.(납작하고.)

105021 #2 납조록하고 진진ᄒᆞ여, 소랑ᄒᆞ여.(납작하고 긴긴해. 길쭉해.)

105021 #1 그디가 문착ᄒᆞ지 못ᄒᆞ여.(거기가 매끄럽지 못해.)

105021 @ 전복 껍데기 영 큽니까?(전복 껍데기 이렇게 큽니까?)

105021 #1 아이고, 전복 껍데기 커, 상군덜 행 온 건 지퍼마씸.(아이고, 전복 껍데기 커, 상군들 해서 온 건 깊어요.)

105021 @ 아니, 게난 술이 클수록 껍데기도 커가?(아니, 그러니까 살이 클수록 껍데기도 커가?)

105021 #2 예, 술이 클수록 껍데기도 틀려.(예, 살이 클수록 껍데기도 달라.)

105021 #1 지금 거 껍데기덜 ᄒᆞ믄 그 저 단추, 지금은 뭐 ᄒᆞᆫ디 단추 멩글아낫어. 이디 단추공장 셩, 받아오믄 이제 구젱이닥물로 멩글곡, 또 전복 껍데기는 좀 뚜껍곡 뭐 ᄒᆞᆫ 걸로 이제 좋은 단추를 멩글아.(지금 거 껍데기들 하면 그 저 단추, 지금은 뭐 하는데 단추 만들었었어. 여기 단추공장 있어서, 받아오면 이제 소라딱지로 만들고, 또 전복 껍데기는 좀 두껍고 뭐 한 걸로 이제 좋은 단추를 만들어.)

105021 @ 옛날은 옛날이라양. 이젠 플라스틱으로 다 해부난.(옛날은 옛날이야. 이젠 플라스틱으로 다 해 버리니까.)

105021 #1 전의 여기서양, 그거 ᄒᆞ젠 ᄒᆞ믄 사레 가멍, 단추 고냥에.(전에 여기서요, 그거 하려고 하면 사러 가면서, 단추 구멍에.)

105021 @ 그다음에 장롱에 햇주게, 장롱에 껍데기덜.(그다음에 장롱에 했지요, 껍데기들.)

105021 #2 구젱이 공장 셩, 그때도.(소라 공장 있어서, 그때도.)

105021 @ 구젱기도 암컷, 수컷 잇수강?(소라도 암컷 수컷 있습니까?)

105021 #2 구젱인 난 모르쿠다.(소라는 난 모르겠습니다.)

105021 @ 구젱이 종류 어떤 것덜이 잇수과?(소라 종류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105021 #2 구젱이 종류 무신거라.(소라 종류 무엇이야.)

105021 #1 조쿠젱이가 싯곡, 또 이.(어린 소라가 있고, 또 이.)

105021 #2 조쿠젱이, 물쿠젱이.(어린 소라, 말소라.)

105021 #1 무슨 이 조쿠젱이엔 ᄒᆞᆫ 건 이 째끔썩 ᄒᆞ멍 저 크질 안 ᄒᆞ여.(무슨 이 어린 소라라고 건 이 조금씩 하면서 저 크질 아니해.)

105021 @ 조쿠젱인 족은 거.(어린 소라는 작은 거.)

105021 #1 조쿠젱인 크질 안 ᄒᆞ여, 족은 거 하여튼. 구젱이가 ᄒᆞ꼼 큰 거는 물쿠젱이엔 ᄒᆞ영 ᄒᆞ꼼 크고, 그거 이제 ᄒᆞ영 뭐 ᄒᆞᆫ 디. 이제 이디선 그자, 또 늙은 구젱인 뭣고.(어린 소라는 크지를 아니해, 작은 거 하여튼. 소라가 조금 큰 거는 말소라라고 해서 조금 크고. 그거 이제 해서 뭐 하는데. 이제 여기선 그저, 또 늙은 소라는 뭐고.)

105021 #2 민둥구젱이[220].(‘민둥구젱이’.)

105021 #1 민둥구젱이엔 ᄒᆞ영 크곡.(‘민둥구젱이’라고 해서 크고.)

105021 #2 민둥구젱이, 물쿠젱이 ᄒᆞ멍, 민둥구젱인 거 것도 비슷ᄒᆞᆫ 거게. 무신 그추룩 우에 늣 돋아.(‘민둥구젱이’, 말소라 하면서, ‘민둥구젱이’는 거 것도 비슷한 거. 무슨 그처럼 위에 싱경이 돋아.)

105021 #1 민둥구젱이 거 막 늙은 거. 늙은 구젱이고 건, 또 술도 하.(‘민둥구젱이’ 거 아주 늙은 거. 늙은 소라고 건, 또 살도 많아.)

105021 #2 경 ᄒᆞ여도 건 막 지픈 바당에, 상군덜양.(그렇게 해도 건 아주 깊은 바다에, 상군들요.)

105022 @ 그다음에 떼양, 태우에 대헤근에 아는 바 ᄒᆞᆫ번 ᄀᆞᆯ아줍서.(그다음에 떼요, 떼에 대해서 아는 바 한번 말해주십시오.)

105022 #1 테우는 여기서 주로 저.(떼는 여기서 주로 저.)

105022 @ 테우엔 ᄒᆞᆸ니까?(떼라고 합니까?)

105022 #1 테우.(떼.)

105022 @ 떼, 떼엔 안 ᄒᆞ영.(떼, 떼라고 안 했어.)

105022 #1 테우엔 ᄒᆞ는디, 이 저 치레ᄒᆞᆫ 사름덜은 상산에 강 이 저 구상낭, 구상낭도 그

220) ‘민둥구젱이’는 껍질의 돌기가 닳아 없어진 성숙한 소라를 말한다.

거 저, 전윈 그 낭을 상감덜 ᄒᆞ영 저 뭐 이 못 비게 관릴 덜해낫수다. 게난 테우 ᄒᆞ젠 ᄒᆞ믄 구상낭 강 해와사 질이라. 구상낭 강, 둘셋썩 짝지우멍 강 그거 막 지픈 산에 강 영 ᄒᆞ여 놓믄 이거 졍 옴도 걸리곡 못 져, 등뗑이 박박 ᄒᆞ멍. 영 저 목도질 ᄒᆞ영 어깨에 메여오곡 ᄒᆞ는디. 그 후제는 이제 여기서 경 ᄒᆞ단 못 ᄒᆞ난 나중에 숙대낭, 숙대낭이라고 이제 이 숙대낭으로 멩급주게. 멩글앙 ᄒᆞ믄 보통 이제 ᄋᆞ덥 개 테우, 열 개 테우, 것도 테우. ᄋᆞ덥 개는 ᄒᆞ꼼 지픈 듸 가까이만 뎅이곡, 열 개짜리는 좀 너른 바당에 뎅입주게. 이제 ᄒᆞ꼼 넙으니까, 또 사름도 ᄋᆞ덥 개 짜리는 잘 해야 둘 타는디, 열 개짜리는 둘도 타곡, 싯도 타곡 경 ᄒᆞ영 네 젓으멍. 주로 ᄒᆞ는 건 뭐냐 ᄒᆞ믄 자리 뜨는 거, 또 어렝이왓듸 강 어렝이나 이제 고셍이 나끄는 거. 이런 걸 주로 홉주게. 경 ᄒᆞ믄 주로 ᄒᆞ는 건 자리사 둘 ᄒᆞ영 자리 뜨는 거, 테우는. 에, 경 테우 들어왐서 ᄒᆞ믄 자리 하영 떠샤? 경 ᄒᆞ영 강 보곡, 또 헤엄쳥 자리왓듸, 우린 헤엄쳥 자리왓끄지 가집주게. 그디 가믄 자리도 빌엉 먹곡 해낫는디.(떼라고 하는데. 이 저 치레한 사람들은 상산에 가서 이 저 구상나무, 구상나무도 그거 저, 전에는 그 나무를 상감들해서 저 뭐 이 못 베게 관리를 덜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떼 하려고 하면 구상나무 가서 해와야 제일이야. 구상나무 가서, 둘셋씩 짝지우면서 가서 그거 아주 깊은 산에 가서 이렇게 해 놓으면 이거 져서 오는 것도 걸리고 못 져, 등이 박박 하면서. 이렇게 저 목도질 해서 어깨에 메어오고 하는데. 그 후에는 이제 여기서 그렇게 하다가 못 하니까 나중에 삼나무, 삼나무라고 이제 이 삼나무로 만들지요. 만들어서 하면 보통 이제 여덟 개 떼, 열 개 떼, 것도 떼. 여덟 개는 조금 깊은 데 가까이만 다니고, 열 개짜리는 좀 넓은 바다에 다니지요. 이제 조금 넓은니까, 또 사람도 여덟 개 짜리는 잘해야 둘 타는데, 열 개짜리는 둘도 타고, 셋도 타고 그렇게 해서 노 저으면서. 주로 하는 건 뭐냐 하면 자리 뜨는 거, 또 어렝놀래기밭에 가서 어렝놀래기나나 이제 용치놀래기 낚는 거. 이런 걸 주로 하지요. 그렇게 하면 주로 자리야 둘 해서 자리 뜨는 거, 떼는. 에, 그렇게 떼 들어오고 있어 하면 자리 많이 떴어? 그렇게 가서 보고, 또 헤엄쳐서 자리밭에, 우린 헤엄쳐서 자리밭까지 가지지요. 거기 가면 자리도 얻어서 먹고 해었는데.)

105023 @ 그다음에 돗베 알아지지양. 풍선, 그 돗베에 대ᄒᆞ영 아는 바 ᄒᆞᆫ번 ᄀᆞᆯ아줍서.(그다음에 돛단배 알아지지요. 풍선, 그 돛단배에 대해서 아는 바 한번 말해주세요.)

105023 #1 그것이 낚벱주게. 낚베라고도 ᄒᆞ는디.(그것이 낚싯거루지요. 낚싯거루라고도 하는데.)

105023 @ 낚베?(낚싯거루?)

105023 #1 낚베에는 풍선을 둘 ᄃᆞ느냐, 싯 ᄃᆞ느냐, 하나 ᄃᆞ느냐 따랑 틀려마씨. 그 방향이. ᄒᆞ꼼 큰 거는 싯끄지 ᄃᆞᆯ곡 경 안 ᄒᆞᆫ 건 보통 둘. 둘ᄒᆞ영 저 ᄇᆞ름, 이건 ᄇᆞ름 영 ᄒᆞ영 갈 거 아니우꽈? 게믄 둘 ᄒᆞ믄 요쪽에 요렇게 치는 거. 것이 영 그 사둘 멘다고 ᄒᆞ는데, ᄇᆞ름이 절로 삭 불어오믄 재게 영 가젠 ᄒᆞ믄 이짝으로 딱 그걸 모다들엉 탁 메야 ᄇᆞ름 받을 거 아니우꽈? 이건 ᄇᆞ름 받앙 가야 ᄒᆞ여. 게난 요거 잘못ᄒᆞ당양, 거 위험해마씨. 거 ᄇᆞ름 돌 때 참 탁 잘못ᄒᆞ믄 베 뒤집혀집니다게. 여기서도게 엿날부터 바당에 경 ᄒᆞ영 베 잘못햇당 죽는 사름이 핫수다. 그거 뭐 순간적으로 확 돗껭이 들믄, 돗껭이옌 홉주게, 휏 ᄒᆞ게 ᄇᆞ름 드는 거.(낚싯거루에는 풍선을 둘 다느냐, 셋 다느냐, 하나 다느냐 따라서 달라요. 그 방향이. 조

금 큰 거는 셋까지 달고, 그렇지 않은 건 보통 둘. 둘해서 저 바람, 이건 바람 이렇게 해서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둘 하면 요쪽에 요렇게 치는 거. 것이 이렇게 그 사둘 맨다고 하는데, 바람이 저쪽으로 싹 불어오면 빨리 이렇게 가려고 하면 이쪽으로 딱 그걸 모여들어서 탁 매야 바람이 받을 거 아닙니까? 이건 바람 받아서 가야 해. 그러니까 요거 잘못하다가는, 거 위험해요. 거 바람 돌 때 참 탁 잘못하면 배 뒤집혀 집니다. 여기서도 옛날부터 바다에 그렇게 해서 배 잘못했다가 죽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거 뭐 순간적으로 확 회오리바람 들면, '돗껭이'라고 하지요, 휙 하게 바람 드는 거.)

105023 @ 회오리ᄇᆞ름양? (회오리바람?)

105023 #1 회오리, 돗껭이 들믄 거 잘못ᄒᆞ영 거 츰 베 이 잘못ᄒᆞ게 걸 올렷당 ᄒᆞᆫ번에 그냥 어퍼져불어. 경ᄒᆞ난 영 ᄒᆞ곡 이 저 이런 뗏마 ᄀᆞ뜬 건 하나 ᄒᆞ영은에 그 저 간단히 건네 젓어가멍 요레 줄이 셩, 요레 톡 ᄃᆞᆼ이곡 저레 톡 ᄃᆞᆼ이곡 ᄒᆞ멍 간단히.(회오리, 회오리바람 들면 거 잘못해서 거 참 배 이 잘못하게 걸 올렸다가 한번에 그냥 엎어져 버려.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이 저 이런 뗏마 같은 건 하나 해서 그 저 간단히 건 노 저어가면서 요쪽으로 줄이 있어 요쪽으로 톡 당기고 저쪽으로 톡 당기고 하면서 간단히.)

105023 @ 그 아까 낚베, 돗베양, 그 부분 명칭 알아지쿠광? 명칭덜 대충.(그 아까 낚싯거루, 돛단배요, 그 부분 명칭 알 수 있습니까? 명칭들 대충.)

105023 #1 게메, 앞의는.(글쎄, 앞에는.)

105023 @ 뭐옝 ᄒᆞ여마씨?(뭐라고 하지요?)

105023 #1 이물이옌 ᄒᆞ곡, 뒤엔 고물.(이물이라고 하고, 뒤에는 고물.)

105023 @ 뒤엔 고물.(뒤에는 고물.)

105023 #1 읖의는 뭐 정물이옌 ᄒᆞ던가, 영 읖의 ᄒᆞᆫ 건.(옆에는 뭐 정물이라고 하던가, 이렇게 옆에 한 건.)

105023 @ 정물?(정물?)

105023 #1 응.(응.)

105023 @ 그다음에?(그다음에?)

6. 의생활

옷감

106001 @ 이 시간에는 의생활예. 옷감의 종류에 대해서 우선 알아보쿠다. 옷감 종류에는 어떤 것덜이 잇수과?(이 시간에는 의생활요. 옷감의 종류에 대해서 우선 알아보겠습니다. 옷감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106001 #1 옷감 여기서 젤 뭐 ᄒᆞᆫ 게, 멩지, 무명, 베, 또 이 저 뭣고, 무신 광목.(옷감 여기서 젤 뭐 한 것이, 명주, 무명, 베, 또 이 저 뭐지, 무슨 광목.)

106001 #2 광목.(광목.)

106001 #1 또 오광목.(또 오광목.)
106001 #2 오광목, 광목도 멧 찔이라.(오광목. 광목도 몇 가지야.)
106001 #1 게 으라 질이난 아난 골아.(그렇게 여러 가지니까 아니까 말해.)

명주

106002 @ 그 정도민 뒛수다. 경ᄒᆞ민 그 멩지에 대ᄒᆞ영 물어보쿠다양. 멩지실을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아는 대로 ᄒᆞᆫ번 골아봅서.(그 정도면 됐습니다. 그러면 그 명주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명주실을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아는 대로 한번 말해보십시오.)
106002 #1 멩지는 이 근방이서 잘 아니 ᄒᆞ여부니까 ᄒᆞᆫ디. 나가 쪼금 저 양잠단지 다녀서 좀 들어본 거는, 그 멩지 우선 ᄒᆞ믄, 누에 번데길 해야ᄒᆞᆯ 거 아니우꽈? 요걸 키와 가는 과정은 사십구 잠이여 헤 가지고 뒈면 이거 이제 그 어느 정도 번데기가 어느 만이 커서 ᄒᆞ믄 요 때는 이제 그 멕이는 과정도 ᄯᅮ나고, 그건 우선 우리 들은 거양, 교육 받으멍 ᄒᆞᆫ 거 얘기ᄒᆞ멍. 그게 이슬 찌거나 이 누에도 멕일 때는 멩심 안 ᄒᆞ영 요것이 설사나믄 전멸해마씸. 그러니까 이슬 안 진 때 잘 멕여사 ᄒᆞ곡, 사십구 잠이라고 해서 마은아옵 날짜에 요거 마추왕 이제 관리를 ᄒᆞ는 과정인데. 그 웨 우리 실무는 못 해봐서, 실지는.(명주는 이 근방에서 잘 안 해버리니까 하는데. 내가 조금 저 양잠단지 다녀서 좀 들어본 거는, 그 명주 우선 하면, 누에 번데기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요걸 키워 가는 과정은 사십구 잠이야 해서 되면 이거 이제 그 어느 정도 번데기가 어느 만큼 커서 하면 요 때는 이제 그 먹이는 과정도 다르고, 그건 우선 우리들은 거요, 교육받으면서 한 거 얘기하면서. 그게 이슬 끼거나 이 누에도 먹일 때는 명심 안 하면 요것이 설사나면 전멸해요. 그러니까 이슬 안 낀 때 잘 먹여야 하고, 사십구 잠이라고 해서 마흔아홉 날짜에 맞춰서 이제 관리를 하는 과정인데. 그 외 우리 실무는 못 해봤어, 실제는.)
106002 @ 누에는 뭐 멕입니까?(누에는 뭐 먹입니까?)
106002 #1 누에는 뽕낭. (누에는 뽕나무.)
106003 @ 멩지 종류 알아지쿠과?(명주 종류 알 수 있습니까?)
106003 #2 멩진 무신, 무신 멩지 알아져? 수단멩지[221] ᄒᆞ고양.(명주는 무슨, 무슨 명주 알 수 있나? '수단멩지' 하고요.)
106003 #1 양단?(양단?)
106003 #2 양단 아니, 양치멩지[222]. 양단으로 헨에 골아난디.(양단 아니, '양치멩지'. 양단으로 해서 말했었는데.)
106003 @ 양치멩지?('양치멩지'?)
106003 #2 예, 경 ᄒᆞ연 우리 양단이옌 ᄒᆞ연, 양치멩지옌 ᄒᆞ연 우리 전의 들어밧수다 만은.(예, 그렇게 해서 우리 양단이라고 해서, '양치멩지'라고 해서 우리 전에 들어봤습

221) '수단멩지'는 명주 종류의 하나다.
222) '양치멩지'는 명주 종류의 하나다.

니다만.)

106003 #1 가짜 멩지 그건 뭣이라?(가짜 명주 그건 뭣이야?)

106003 #2 가짜 멩지.(가짜 명주.)

106003 #1 가짜 쏙앙 그 멩지엔 행 ᄒᆞ는 그런 멩지 가짜 멩지 한동안 나와나지 아니ᄒᆞ여서. 거 무신 멩지여 ᄒᆞ민 아이고 거 쏙앗구나.(가짜 속아서 그 명주라고 해서 하는 그런 명주 가짜 명주, 한동안 나왔었지 안 했어. 거 무슨 명주여 하면 아이고 거 속았구나.)

106003 @ 생명주 들어봅디가?(생명주 들어봤습니까?)

106003 #2 셍멩진 들어보고게.(생명주는 들어보고요.)

106003 @ 셍멩진 뭐꽈?(생명주는 뭐입니까?)

106003 # 셍멩지, 진짜 멩지가 셍멩지엔 ᄒᆞ여. 진짜 저 집의서 할망덜 그 물레에 짠 거.(생명주, 진짜 명주가 생명주라고 해. 진짜 저 집에서 할머니들 그 물레에 짠 거.)

106004 @ 그다음에 멩지로는 어떤 옷을 맨듭니까?(그다음에 명주로는 어떤 옷을 만듭니까?)

106004 #2 멩지 바지저고리ᄒᆞ곡게.(명주 바지저고리하고요.)

106004 #1 보통 저승옷덜 ᄒᆞᆯ 때, 멩지 거 춤멩지엔 ᄒᆞ영 그걸로 다 우알 그 옷 멩글곡, 저승옷 멩글곡.(보통 저승옷들 할 때, 명주 거 참명주라고 해서 그걸로 다 위아래 그 옷 만들고, 저승옷 만들고.)

106004 #2 멩지 이불, 옛날엔 멩지 이불 ᄒᆞ여.(명주 이불, 옛날에는 명주 이불 했지.)

106004 #1 또 이불도 ᄒᆞ여.(또 이불도 해.)

106004 #2 멩지 이불 ᄒᆞ영 시집갈 때나 ᄒᆞ곡, 저 ᄒᆞᆫ 채 ᄒᆞ영은에. 옛날 하르방덜 멩지 이불 행 가민 아이고 그 집이 부재여.(명주 이불 해서 시집갈 때나 하고, 저 한 채 해서. 옛날 할아버지들 명주 이불 해서 가면 아이고 그 집이 부자야.)

106004 #1 춤멩지라.(참명주라.)

106004 #2 멩지 짜는 집이난에 저 부재여 ᄒᆞ멍 경, 우리 할으버지네 옛날 부재라나난 경 ᄒᆞ엿젠 말 ᄒᆞᆸ디다.(명주 짜는 집이니까 저 부자야 하면서 그렇게, 우리 할아버지네 옛날 부자였으니까 그렇게 했다고 말 합디다.)

106004 #1 가난ᄒᆞᆫ 딘 멩지로.(가난한 데는 명주로.)

106004 #2 멩지랑마랑.(명주는커녕.)

106004 #1 옷이영 이불이영 ᄒᆞᆯ 생각도 못 ᄒᆞ고.(옷이랑 이불이랑 할 생각도 못 하고.)

106006 @ 누에치기에 대ᄒᆞ영 ᄒᆞᆫ번 ᄀᆞᆯ아줍서.(누에치기에 대해서 한번 말해주세요.)

106006 #1 누에치긴 세 번 뭐 ᄒᆞ는디, 보통 우리 교육받은 거벳기 몰르고, ᄒᆞ여나지 안 ᄒᆞ여부난.(누에치기는 세 번 뭐 하는데, 보통 우리 교육받은 거밖에 모르고, 해나지 안 해버리니까.)

106006 #2 무사 누에 숣는 건 알아낫주.(왜 누에 삶는 건 알았었지.)

106006 #1 술망 나중에 ᄒᆞ믄 또 누에고치라고 ᄒᆞ영 다 빼여나믄 그 쏙에 것도 먹곡 ᄒᆞ는디. 누에는 그 우선은 아무것도 ᄒᆞ주만 먹이가 젤 중요ᄒᆞᆫ 건 뭐냐 ᄒᆞ믄, 우리 그 처음 교육받을 때 그 뽕낭 입만, 입이 제일, 입에 따랑 그 뽕낭 입이 좋아야 누에도 좋은 씰이 나오고, 춤멩지 나오고, 그것이 이제 뽕낭 입이 어떵 잘못ᄒᆞ영 이슬 찐 때 멕이거나 뭣 ᄒᆞ믄 그 누에가 건강ᄒᆞ질 못 ᄒᆞ믄양, 좋은 씰을 빼질 못 ᄒᆞ여게. 저 거미줄ᄀᆞ찌 영 빼영 누에 먹으멍 쏘굽으로 똑 거미줄 치듯 마찬가지우다, 누에씰이.(삶아서 나중에 하면 또 고치라고 해서 다 빼어나면 그 속에 것도 먹고 하는데. 누에는 그 우선은 아무것도 하지만 먹이가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우리 그 처음 교육 받을 때 그 뽕나무 잎만, 잎이 제일, 잎에 따라서 그 뽕나무 잎이 좋아야 누에도 좋은 실이 나오고, 참명주 나오고, 그것이 이제 뽕나무 잎이 어떻게 잘못해서 이슬 낀 때 먹이거나 뭣 하면 그 누에가 건강하지를 못하면요, 좋은 실을 빼지를 못해요. 저 거미줄같이 이렇게 빼서 누에 먹으면서 속으로 똑 거미줄 치듯 마찬가지입니다, 누에 실이.)

106006 #2 누에가 좋아사 춤멩지 난덴 해낫수다.(누에가 좋아야 참명주 난다고 했었습니다.)

106006 #1 누에 이파리가 좋아사, 먹이가 좋아사. 잘못뒈영은에 설살 나거나 뭐 ᄒᆞ믄 그 누에 봉오리가 설사 나게 뒈믄 좋은 씰을 못 뽑아마씨. 게난 약ᄒᆞ곡 나중에도 춤멩지가 못 뒈여마씨. 첫째 뭐 ᄒᆞᆫ 건 이슬 찔 때 주지 말고, 다른 건 원 열 번 강조해도 이슬 찔 때 아침의 이 누에 뽕을, 뽕이파리를 이슬 ᄆᆞ를 때 꼭 줘야. 물기 많으믄 사름ᄀᆞ뜨믄 베 아팡 설사 나듯이 ᄒᆞ믄 누에가 좋은 씰을 뽑지 못ᄒᆞᆸ니다.(누에 잎이 좋아야, 먹이가 좋아야. 잘못되어서 설사를 나거나 뭐 하면 그 누에 봉오리가 설사 나게 되면 좋은 실을 못 뽑아요. 그러니까 약하고 나중에도 참명주가 못 돼요. 첫째 뭐 한 건 이슬 낄 때 주지 말고, 다른 건 원 열 번 강조해도 이슬 낄 때 아침에 이 누에 뽕을, 뽕잎을 이슬 마를 때 꼭 줘야. 물기 많으면 사람 같으면 배 아파서 설사 나듯이 하면 누에가 좋은 실을 뽑지 못합니다.)

무명

106007 @ 그다음에 무명에 대해서 물어보쿠다양. 그 무명씰을 만드는 과정에 대ᄒᆞ영 ᄒᆞᆫ번 ᄀᆞᆯ아줍서.(그다음에 무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그 무명실을 만드는 과정에 대하여 한번 말해주세요.)

106007 #2 멘네 ᄒᆞ믄게.(면화 하면.)

106007 #1 그거 밧듸 멘네 갈앙, 게문 거 이제 ᄀᆞ을 들엉, 봄에 보통 ᄒᆞᆫ 것도 이제 콩 갈기 전에 이 멘넨 일 년 농사우다. 게난 일찍 갈앙 갈믄 이제 수확도 하영 나는디, 밧듸 갈앙 요것이 이젠 ᄒᆞ믄 멘네ᄃᆞ래기가 ᄀᆞ을 들어강 이제 츤ᄇᆞ름 맞아가믄 이것이 헤뜩헤뜩 멘네가 피어납니다. 피어나믄 요거 이제 멘네 타당, 핀 거부떠 이제 멘네 타당 집의 ᄆᆞᆯ리왕 이제 요 물레라고 잇수다게. 물레 요렇게 ᄒᆞᆫ 거. 물레로 다 멕이멍 씨를 빼불어. 씰 뺑 보그라기 ᄒᆞᆫ 쪽더레 놔뒷당은에 이제. 멘네 뽑넹 ᄒᆞ여. 멘네 뽑아, 멕이멍

이제 그 영 무신 물레 영 ᄒᆞ는 저 또닥또닥 ᄒᆞ게 요렇게 ᄒᆞ영은에 돌아가게 멩글앙 요렇게 ᄒᆞ멍 멕이믄 씨는 빠지곡, 그 저 소게 될 거는 영 안쪽드레 ᄒᆞ믄 무룩ᄒᆞ게 ᄒᆞ영 자꾸 ᄆᆞᆯ리우멍 햇당은에 요거 이제 그 소게틀 칩의 가. 경 안 ᄒᆞ믄 집의서도 날 관 날은 이제 막 마당에 널엇당 막뎅이로 두드령 복작ᄒᆞ게 소게틀 못ᄒᆞᆫ 사름은 하찮은 디 ᄒᆞᆫ 사람은, 한 딘 소게틀 집의 강 ᄒᆞ곡, 족은 사름덜은 마당에 널엇당 막댕이로 착착 두드려 노믄 부그락이 경 이 벳 맞곡 ᄒᆞᆫ 때는 올라오믄 이제 그걸 이 조그만썩 꼬리 ᄒᆞ듯이 영 소랑소랑 뽑지 안 ᄒᆞ여, 막 두드려 놩. 경 ᄒᆞ영 정[223]을 준는 거라.(그거 밭에 면화 갈아서, 그러면 거 이제 가을 들어서, 봄에 보통 한 것도 이제 콩 갈기 전에 이 면화는 일 년 농사입니다. 그러니까 일찍 갈아서 갈면 이제 수확도 많이 나는데, 밭에 갈아서 요것이 이젠 하면 목화다래가 가을 들어가면서 이제 찬바람 맞아가면 이것이 희뜩희뜩 면화가 피어납니다. 피어나면 요거 이제 면화 따다가, 핀 거부터 이제 면화 따다가 집에서 말려서 이제 요 물레라고 있습니다. 물레 요렇게 한 거. 물레로 다 먹이면서 씨를 빼 버려. 씨를 빼서 부각이 한 쪽으로 놔뒀다가 이제. 면화 뽑는다고 해. 면화 뽑아, 먹이면서 이제 그 이렇게 무슨 물레 이렇게 하는 저 또닥또닥 하게 요렇게 해서 돌아가게 만들어서 요렇게 하면서 먹이면 씨는 빼지고, 그 저 솜이 될 거는 이렇게 안쪽으로 하면 수북하게 해서 자꾸 말리면서 했다가 요거 그 솜틀집에 가. 그렇게 안 하면 집에서도 날 햇빛 많은 날은 이제 마구 마당에 널었다가 막대기로 두드려서 복작하게 솜틀 못 한 사람은 하찮은 데 한 사람은, 많은 데는 솜틀집에 가서 하고, 작은 사람들은 마당에 널었다가 막대기로 착착 두들겨 놓으면 그렇게 보각이 그렇게 이 볕 맞고 할 때는 올라오면 이제 그걸 이 조금씩 실톳 하듯이 이렇게 길쭉길쭉 뽑지 아니해, 마구 두들겨 놔. 그렇게 해서 ‘정’을 겯는 거야.)

106007 #2 씰을 빠.(실을 빼.)

106007 #1 정 짓는 거. 이 물레 ᄒᆞ믄, 거 기술이라양. 이렇게 ᄒᆞ믄 한쪽으로 둘러가멍 이짝으론 정 영 하나 ᄒᆞᆯ 만썩 막뎅이 두드려 논 부그락ᄒᆞᆫ 거.(꼬리 잣는 거. 이 물레 하면, 거 기술이에요. 이렇게 하면 한쪽으로 둘러가면서 이쪽으로는 꼬리 이렇게 하나 할 만큼씩 막대기 두들겨 놓은 보각한 거.)

106007 #2 부그락ᄒᆞᆫ 거 멘넬 영 ᄒᆞᆫ 번썩 ᄆᆞᆯ아.(부각한 거 면화를 이렇게 한 번씩 말아.)

106007 #1 ᄆᆞᆯ앙 이제 하나 ᄒᆞᆯ 만썩 ᄆᆞᆯ앙 정 영 둘르는 물레 기계에 처음 씰 나와가믄 거 잘 짓는 사름은 기술이라. 둘러가멍 짝짝 씰, 똑 저 집줄 놓듯이 뽑아갑주기, 이제. 둘러가멍 ᄒᆞ믄 그 기계로 멩글아 오멍 잘 안 뒈믄 자꾸 그 둘르는 디도 돗지름이나 불랑 문질문질ᄒᆞ믄, 그때 무신 구리스가 셧수과? 뭣이. 돗지름 주로, 쉐지름이나 불랑 문질문질 영 둘르믄 정 준넨 흡니다게.(말아서 이제 하나 할 만큼씩 말아서 ‘정’ 이렇게 두르는 물레 기계에 처음 실 나와 가면 거 잘 겯는 사람은 기술이야. 둘러가면서 짝짝 실, 똑 저 집줄 놓듯이 뽑아가지요, 이제. 둘러가면서 하면 그 기계로 만들어 오면서 잘 안 되면 자꾸 그 두르는 데도 돼지기름이나 발라서 매끈매끈하면, 그때 무슨 구리스가

223) ‘정’은 솜을 가늘게 말아서 두 뼘 가량의 길이로 끊어낸 물건이다.

있습니까? 뭣이. 돼지기름 주로, 소기름이나 발라서 매끈매끈 이렇게 두르면 '정' 겯는다고 합니다.)

106007 #2 정 즛암서 저 집의.('정' 잣고 있어 저 집에.)

106007 #1 영 ᄒᆞ영 하영 해 놓믄 가레기옌 ᄒᆞ영 씰 또 막 감아져. 하영 감아지믄 이제 또 이 쒜로 ᄒᆞ영 이렇게 ᄒᆞᆫ 거, 우리도 가레기옌 해가지고 그것에 감앙 이 둘르는 것이 잇수다게. 씰 하영 ᄒᆞ여 놓믄 그것에 영 가레기 ᄒᆞ영 막 이제 ᄋᆞ라 개 어느 만큼 감아지믄, 또 놓곡, 놓곡 ᄒᆞ영. 그걸 이제 미녕을 짜기 전에 가레기 다 행 해 놓믄, 또 그것도 이제 풀 멕영, 풀 멕이는디 저 이 무신거옌 ᄒᆞᆫ다, 무신거 노라.(이렇게 해서 많이 해 놓으면 가락이라고 해서 실 또 마구 감아져. 많이 감아지면 이제 또 이 쇠로 해서 이렇게 한 거, 우리도 가락이라고 해서 그것에 감아서 이 두르는 것이 있습니다. 실 많이 해서 놓으면 그것에 이렇게 가락 해서 마구 이제 여러 개 어느 정도 감아지면, 또 놓고, 놓고 해서. 그걸 이제 무명을 짜기 전에 가락 다 해서 해 놓으면, 또 그것도 이제 풀 먹여서, 풀 먹이는데 저 이 무엇이라고 한다, 무엇 노가.)

106007 #2 것도 알아집니께.(것도 알 수 있어요.)

106007 #1 미녕 노라, 미녕씰 논덴 ᄒᆞ영, 쭉쭉 ᄇᆞ름 잔 날 것도 ᄇᆞ름 잔 날 ᄒᆞ믄.(무명 노가, 무명실 논다고 해서, 쭉쭉 바람 잔 날 것도 바람 잔 날 하면.)

106007 #2 니 구석 낭 세와 놓곡, 걸상 만들앙.(네 구석 나무 세워 놓고, 걸상 만들어서.)

106007 #1 낭 세우곡 ᄒᆞ영 똑 집줄 놓듯이 짝 ᄒᆞ영 해놓믄 아랜 이제 ᄀᆞ시락 불 살롸. 여기 ᄋᆞ라 가달 ᄒᆞ여 놓믄 이제 무신 솔입으로 영 ᄒᆞᆸ디다. 재게 풀 적지멍 다 멕여. 아래 ᄀᆞ시락 불 해 놓믄 뜻뜻이 ᄆᆞᆯ라갈 거 아니우꽈? 너무 불 쎄믄 카불곡. 경ᄒᆞ영 솔입 불로 풀 들렁 뎅기멍 짝짝짝짝 솔입 영.(나무 세우고 해서 똑 집줄 놓듯이 짝 해서 해 놓으면 아랜 이제 까끄라기 불 피워. 여기 여러 가닥 해 놓으면 이제 무슨 솔잎으로 이렇게 합디다. 빨리 풀 적시면서 다 먹여. 아래 까끄라기 불 해 놓으면 따뜻이 말라갈 거 아닙니까? 너무 불 세면 타버리고. 그렇게 해서 솔잎 불로 풀 들어서 다니면서 짝짝짝짝 솔잎 이렇게.)

106007 #2 저디 낭 박곡 이디 낭 박곡 ᄒᆞ민. 저레 강 걸엉 이레 오곡, 이레 강 걸엉 이레 오곡 헤가믄 풀 멕이믄, 솔입으로양, ᄂᆞᆯ 솔입 해당 영 풀 쒕 풀 멕이믄 영 ᄒᆞ믄 풀 멕이믄 ᄆᆞᆯ르질 안 ᄒᆞ난 여기영 저기영 ᄀᆞ시락 불 살롸마씸. 살뢍 ᄒᆞ믄 저디 낭 공쟁이 멘들아 놓곡, 이 펜의 낭 공쟁이 멘들아 놓믄, 저 마당만이 이디만이 ᄒᆞ믄 사름덜이 저 낭 공쟁이 강 하나 걸엉 왕, 이레 낭 공쟁이에 하나 걸엉 ᄒᆞ믄 막 널어질 거 아니우꽈양? 널어가믄 풀 멕영 ᄒᆞ믄 풀이 ᄆᆞᆯ르질 안 ᄒᆞ여마씸, 미녕 차젠 ᄒᆞ믄. 경 아래 ᄀᆞ시락 불 느량 살룹디다, 할망덜. ᄀᆞ시락 불 살롸근에 헤나신디, 야, 불 살루라, 불 살루라, 경 ᄒᆞ멍. 경 불 살루믄 저 할망덜 둘인 저레 헤가곡 이레 헤가곡 헤도, 그 ᄀᆞ시락 불 끼왕 밤중 뒈도록, 뒷날사 그걸 걷어.(저기 나무 박고 여기 나무 박고 하면. 저리 가서 걸어서 이리 오고, 이리 가서 걸어거 이리 오고 해 가면 풀 먹이면, 솔잎으로요, 날 솔잎 해다가 이렇게 풀 쒀서 풀 먹이면 이렇게 하면 풀 먹이면 마르지를 않으니까 여기랑 저기

랑 까끄라기 불 피워요. 피워서 하면 저기 나무 걸이 만들어 놓고, 이 편에 나무 걸이 만들어 놓으면, 저 마당만큼 여기만큼 하면 사람들이 저 나무 걸이에 가서 하나 걸어서 와서, 이리 나무 공걸이에 하나 걸어서 하면 마구 널어질 거 아닙니까? 널어가면 풀 먹여서 하면 풀이 마르질 아니해요, 무명 짜려고 하면. 그렇게 아래 까끄라기 불 늘 피웁디다, 할머니들. 까끄라기 불 피워서 했는데, 야, 불 피워라, 불 피워라,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불 피우면 저 할머니들 둘이는 저리 해가고 이리 해가고 해도, 그 까끄라기 불 꺼서 밤중 되도록, 뒷날에야 그걸 걷어.)

106007 #1 ᄆᆞᆯ롸놩.(말려놔서.)

106007 #2 예, ᄆᆞᆯ롸. 뒷날 걷는디도 이제 걷어가멍 도레기 멘들아 가멍 저레 강 멘들앙 허곡, 이레 강 영 와 가믄 도레기 멘들아부러. 멧 도레기 멘들아놩 미녕을 차기 시작ᄒᆞ여마씸. 그것도 다 ᄆᆞᆯ롸놩 ᄒᆞ젠 ᄒᆞ믄 인력이 하영 걸리는 거 닮읍디다게. 경 ᄒᆞ연 그것이 막 큰일로 ᄒᆞ여근에 할망덜은 뒷날은 미녕 차는 것도 발 ᄇᆞᆯ랑양. 미녕 차는 거 그것도 구들에 것도 구들도 닮은 디 챗방이라. 큰큰ᄒᆞᆫ 디 막 널른 디, 창고 닮은 디 가근에, 깨끗ᄒᆞᆫ 디양, 이제 생각은 깨끗ᄒᆞᆫ 디라. 그디 가근에 춤 그 틀도 발로 ᄇᆞᆯ르믄 짝 가곡, 짝 오곡, 것도 지름 신 거 멕여사. 멕이지 안 ᄒᆞ믄 들각들각 ᄒᆞ영 미녕은 해가당 부끌레기 뒈불곡, 미녕을 코찡ᄒᆞ게 곱닥ᄒᆞ게 짜지질 안 ᄒᆞ영양. 영 미녕 짜는 거 뭣고 거.(예, 말려. 뒷날 걷는데도 이제 걷어가면서 바퀴 만들어 가면서 저리 가서 만들어서 하고, 이리 가서 이렇게 와 가면 바퀴 마들어 버려. 몇 바퀴 만들어 놔서 무명을 짜기 시작해요. 그것도 다 말려놔서 하려고 하면 인력이 많이 걸리는 거 같습디다. 그렇게 해서 그것이 아주 큰일로 해서 할머니들은 뒷날은 미녕 짜는 것도 발 밟아서요. 무명 짜는 거 그것도 방에 것도 방도 같은 데 챗방이야. 큰큰한 데, 아주 넓은 데, 창고 같은 데 가서, 깨끗한 데요, 이제 생각은 깨끗한 데야. 거기 가서 참 그 틀도 발로 밟으면 짝 가고, 짝 오고, 것도 기름 있는 거 먹여야. 먹이지 안 하면 들각들각 해서 무명은 해가다가 공기주머니 돼 버리고, 무명을 반듯하게 곱게 짜지질 안 해요. 이렇게 무명 짜는 거 뭐지 거.)

106007 #1 얼레기[224]?(‘얼레기’?)

106007 #2 얼레기 ᄒᆞ영 영영 ᄒᆞ곡, 영영 ᄒᆞ곡 해가믄.(‘얼레기’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고 해가면.)

106007 #1 이레 듸물앙 착 ᄒᆞ영 ᄒᆞ믄, 또 뭣이옌 이거 얼레기 닮은 걸로 탁 뗑기곡, 또 이레 얼레기 듸물앙 탁ᄒᆞ곡. 경 ᄒᆞ영 ᄒᆞᆫ 올 ᄒᆞᆫ 올 짭주게. 경 ᄒᆞ영 또 ᄒᆞᆫ 마.(이리 들이밀어서 착 해서 하면, 또 뭐라고 이거 ‘얼레기’ 같은 걸로 탁 당기고, 또 이리 머리빗 ‘얼레기’ 들이밀어서 탁하고. 그렇게 해서 한 올 한 올 짜지요. 그렇게 해서 또 한 마.)

106007 #2 ᄒᆞᆫ 마, ᄒᆞᆫ 필, ᄒᆞᆫ 필이주기, ᄒᆞᆫ 필.(한 마, 한 필, 한 필이지요, 한 필.)

106007 #1 ᄒᆞᆫ 필, 경 ᄒᆞ영 미녕 ᄒᆞᆫ 필이여 ᄒᆞ믄.(한 필, 그렇게 해서 무명 한 필이야 하면.)

224) ‘얼레기’는 무명 짤 때 실을 감는 도구다.

106007 #2 어디서 맞추앙.(어디서 맞추어서.)

106007 #1 갈중의[225] 멧 개 나온다. ᄒᆞᆫ 필 멧 개.('갈중의' 몇 개 나온다. 한 필 몇 개.)

106007 #2 갈중의 ᄒᆞ곡, 이제 무신거ᄒᆞ곡 막 맞추앙. 우리도 할머니 ᄒᆞᆯ 때 ᄒᆞᆫ디 영ᄌᆞ끗디서 봐낫수다. 그추룩 ᄒᆞ멍 ᄒᆞ라, ᄒᆞ라 ᄒᆞ멍 ᄀᆞ찌 심부름 ᄒᆞ곡.('갈중의' 하고, 이제 무엇하고 마구 맞춰서. 우리도 할머니 할 때 함께 이렇게 옆에서 봤었습니다. 그처럼 하면서 하라, 하라 하면서 같이 심부름 하고.)

106007 @ 그다음에 무명 종류에는 어떤 것덜이 잇어낫수과?(그다음에 무명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106007 #2 무명 종류가 뭣이 저.(무명 종류가 뭐가 저.)

106007 @ 토목, 생목, 광목, 닷새미녕, 엿새미녕, 여덜새미녕 잇수과?(토목, 생목, 닷새무명, 엿새무명, 여덟새무명 있습니까?)

106007 #1 그건 놀이 좀 멧 개영, 너븐 거, 좁은 거.(그건 날이 좀 몇 개랑, 넓은 거, 좁은 거.)

106007 @ 골아봅서, 미녕 종류.(말해보세요, 무명 종류.)

106007 #2 미녕 종류 무신, 선생님 ᄀᆞᆫ는 거 거 비슷ᄒᆞᆫ게, 게.(무명 종류 무슨, 선생님 말하는 거 비슷해요, 것이.)

106007 @ 거난 거 ᄒᆞᆫ번 골아봅서.(그러니까 거 한번 말해보세요.)

106007 #2 골아봅서, 아방[226]이. 하나 영 좁은 미녕이 셔. 좁은 미녕은 거 무신거옌.(말해보세요, '아방'이. 하나 이렇게 좁은 무명이 있어. 좁은 무명은 거 무엇이라고.)

106007 #1 여, 엿새미녕?(여, 엿새무명.)

106007 @ 엿새미녕?(엿새무명?)

106007 #2 응, 엿새미녕.(응, 엿새무명.)

106007 #1 엿새미녕. 여덥새미녕 ᄒᆞ꼼 넙은 거, 그거는 놀이 하영 들어간 거고. 좁은 거는, 엿새미녕은 그런대로 무신 옷 멩글 때도, 그 옆의 저 제단ᄒᆞᆯ 때 들어가곡, 그 쓰임이 각각 틀린 모냥이라마씸.(엿새무명, 여덟새무명 조금 넓은 거, 그거는 날이 많이 들어간 거고. 좁은 거는, 엿새무명은 그런대로 무슨 옷 만들 때도, 그 옆에 저 재단할 때 들어가고, 그 쓰임이 각각 다른 모양이에요.)

106007 #2 엿새미녕은 속곳 만들곡, 그추룩 ᄒᆞ멍.(엿새무명은 속옷 만들고, 그처럼 하면서.)

106007 #1 이불 ᄒᆞᆯ 때도 이제 너븐 걸로 ᄒᆞ곡.(이불 할 때도 이제 넓은 걸로 하고.)

106007 @ 거난 숫자가 할수록 좋은 거 아니우꽈?(그러니까 숫자가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닙니까?)

106007 #1 아이, 그거는 쓰기에 따랑. 보통은 이제 숫자가 하믄 널버집주게. 이것이 널버지믄 이제.(아니, 그거는 쓰기에 따라서. 보통은 이제 숫자가 많으면 넓어지지요. 이

225) '갈중의'는 감물을 들인 중의이고 보통 노동복으로 입는다.
226) '아방'은 아버지인데, 여기서는 남편을 뜻한다.

것이 넓어지면 이제.)

106007 #2 아이 좀질게 짜곡, 홁게 짜곡게. 씰을 좀질게 놓곡, 씰을 ᄒᆞ꼼 영 두망두망 놩 짜진 건 저 나쁜 미녕, 이제 ᄀᆞ뜨믄양.(아니 잘고 가늘게 짜고, 굵게 짜고요. 실은 잘고 가늘게 놓고, 실을 조금 이렇게 드문드문 놔서 짜진 건 저 나쁜 무명, 이제 같으면 요.)

106007 @ 이거 여덜새라?(이거 여덟새야?)

106007 #2 응, 여덜새.(응, 여덟새.)

106007 #1 영 보믄 미녕 구별ᄒᆞ는 거, 딱 손으로 영 엉알엉알 짜사, 경 아니 ᄒᆞ영 ᄒᆞ꼼 줏게 이걸 어러질 탁탁 잘 ᄒᆞ곡 거.(이렇게 보면 무명 구별하는 거, 딱 손으로 이렇게 엉성엉성 짜야, 그렇게 안 해서 조금 잦게 이걸 엉겨질 탁탁 잘하고 거.)

106007 #2 ᄇᆞ뜨게, ᄇᆞ뜨게 씰 놩.(짧게, 짧게 실 놔서.)

106007 #1 좀 가짜 옐 들엉 미녕 ᄒᆞ꼼 홀 거난, 이제 잘게 드물게 ᄒᆞ멍 하영 빨리 짜질 거 아니우꽈?(좀 가짜 예를 들어서 무명 조금 할 거니까, 이제 잘게 드물게 하면서 많이 빨리 짜질 거 아닙니까?)

106007 #2 홁은미녕은 싸아, 싸. 싸곡 갈중의나 ᄒᆞ곡, 갈적삼[227]이나 ᄒᆞ곡. 준 미녕은.(굵은무명은 싸, 싸. 싸고 '갈중의'나 하고, '갈적삼'이나 하고. 잔 무명은.)

106007 #1 옷 멘들곡.(옷 만들고.)

106007 #2 옷이나 장옷 멘들곡, 이불이영 저.(옷이나 장옷 만들고, 이불이랑 저.)

106008 @ 그러면은 저 미녕으로 어떤 옷을 만듭니까?(그러면은 저 무명으로 어떤 옷을 만듭니까?)

106008 #2 미녕으로 저 갈중의, 적삼도 만들곡, 그냥 저 도폭도 만들앙 입어. 옛날은 헤양ᄒᆞ게 미녕ᄒᆞ영(무명으로 저 '갈중의', 적삼도 만들고, 그냥 저 도포도 만들어서 입어. 옛날은 하얗게 무명해서.)

106008 #1 바지저고리.(바지저고리.)

106008 #2 바지저고리 저 하르방덜 멘들앙, 옛날 우리 하르바지도 입어낫수다. 헤양ᄒᆞ게 ᄒᆞ영 도폭, 도폭이엔 ᄒᆞᆸ니다. 옛날은 경 행 입곡, 경 아니 ᄒᆞ영 감 들영 입곡. 그 미녕 그 옷이엔 ᄒᆞᆫ 거 무신거꽈? 저 미녕 치마도 행 입곡, 경 해낫수다게. 미녕 적삼, 미녕적삼도 행 입곡, 옛날은 미녕 적삼 행 입엉 저 시집도 가낫젠 ᄒᆞᆸ디다, 촌에 할머니네, 우리 할머니네. 게난 미녕도 좋은 거. 나쁜 건.(바지저고리 저 할아버지들 만들어서, 옛날 우리 할아버지도 입었었습니다. 하얗게 해서 도포, 도포라고 합니다. 옛날은 그렇게 해서 입고, 그렇게 안 해서 감물 들여서 입고. 그 무명 그 옷이라고 한 거 무엇입니까? 저 무명 치마도 해서 입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무명 적삼, 무명 적삼도 해서 입고, 옛날은 무명적삼 해서 업어서 저 시집도 갔었다고 합디다, 촌에 할머니네 우리 할머니네. 그러니까 무명도 좋은 거. 나쁜 건.)

106008 #1 주루 저 거 ᄒᆞᆫ 건 갈중의나 적삼 멩글곡, 미녕 놎은 건.(주로 저 거 한 건 '갈중의'나 적삼 만들고, 무명 나쁜 건.)

227) '갈적삼'은 감물을 들인 적삼이다.

106008 #2 거난 씰이 좀질믄 좋곡.(그러니까 실이 잘고 가늘면 좋고.)

106008 #1 좀질곡 줏게 짜진 거. 거난 것도 좀 가짜로 짱 이제 엉알엉알 짜믄 빨리 짜집주게. 거난 가격이 싸곡, 들러봐도 멧 근짜리, 멧 근짜리 무게가 안 나와. 경 이건 가짜 미녕이여 영 ᄒᆞ여나곡. 영 또 손으로 봐도 엉알엉알 ᄒᆞᆫ 거 ᄒᆞ곡, 직깍 짜진 건 틀립주게.(잘고 잦게 짜진 거. 그러니까 좀 가짜로 짜서 이제 엉성엉성 짜면 빨리 짜지지요. 그러니까 가격이 싸고, 들어봐도 몇 근짜리, 몇 근짜리 무게가 안 나와. 그렇게 이건 가짜 무명이야 이렇게 했었고. 이렇게 또 손으로 봐도 엉성엉성 한 거 하고, 빽빽이 짜진 거는 다르지요.)

106008 #2 직깍 짜졍 고운 것덜은 저 하르방덜 옷 ᄒᆞ영 입어, 우알.(빽빽이 짜져서 고운 것들은 저 할아버지들 옷 해서 입어, 위아래.)

106009 @ 토목에 대ᄒᆞ영 알아지쿠과? 토목. 미녕 종륜디 토목. 토목으론 뭘 멩급니까?(토목에 대하여서 알 수 있겠습니까? 토목. 무명 종류인데 토목. 토목으로는 뭘 만듭니까?)

106009 #1 토목, 그 뚜꺼운 걸 말ᄒᆞ는 거. 기지가 뚜꺼운 거. 토목 옷으로 게 뭐 멩글곡, 주로 거는 광목이나 뚜꺼운 거. 토목은 뚜꺼운 거, 좋은 거. 그냥 얄븐 거 잇고 두 가진디. 토목으론 집의서 이불, 이불 우알 체 보통 그런 걸로. 토목 무사 토목 옷 ᄒᆞ영은에 저 이불 ᄒᆞ믄 아이고.(토목, 그 두꺼운 걸 말하는 거. 옷감이 두꺼운 거. 토목 옷으로 그렇게 뭐 만들고, 주로 거는 광목이나 두꺼운 거. 토목은 두꺼운 거, 좋은 거. 얇은 거 있고 두 가지인데. 토목으로는 집에서 이불, 이불 위아래 채 보통 그런 걸로. 토목 왜 토목 옷 해서 저 이불 하면 아이고.)

106009 #2 막 뜻안 좋다 ᄒᆞ멍 헤긴 헤나서, 견디. 이불이 하영 멘들앗수다. 토목 뚜껍곡.(아주 따뜻해서 좋다 하면서 하긴 했었어, 그런데. 이불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토목 두껍고.)

106009 #1 토목 ᄒᆞ영 겨울에도 뜻이켜, 경.(토목 해서 겨울에도 따뜻하겠어, 그렇게.)

106009 #2 토목은 뚜꺼왕 옷은 잘 아녀. 옛날 토목 ᄒᆞ믄게, 바당에 강 젤 드리는 하르방덜 토목으로 ᄒᆞ연 무시거 헨 입어낫주기. 두루막 ᄒᆞ영, 두루막이 아니고 무시거우꽈? 아방 싯지 아니 ᄒᆞ여. 바당에 강 제 드릴 때 토목으로 ᄒᆞ여근에 옷 멘들앙.(토목은 두꺼워서 옷은 잘 안 해. 옛날 토목하면요, 바다에 가서 제를 드리는 할아버지들 토목으로 해서 무엇 해서 입었었지요. 두루마기 해서, 두루마기 아니고 무엇입니까? '아방' 있지 안 해. 바다에 가서 제 드릴 때 토목으로 해서 옷 만들어서.)

106009 #1 건 저 심방덜 봐사 알아.(건 저 무당들 봐야 알아.)

106009 #2 아니, 심방덜 말앙게, 무사 제 ᄒᆞᆯ 때에 바당에 경 ᄒᆞᆯ 때에 입어낫젱 ᄒᆞᆸ니다, 토목. 게난 에, 토목 옷은 바당에 그런.(아니, 무당들 말고요, 왜 제 할 때에 바다에 그렇게 할 때에 입었었다고 합니다, 토목. 그러니까 에, 토목 옷은 바다에 그런.)

106009 #1 토목은 베곡양, 까격도 ᄒᆞ꼼 비싸. 저 일반 광목 닮지 아니ᄒᆞ영. 경 보통 경 ᄒᆞᆫ 건 주로 이불 우알 체 ᄒᆞ믄 토목 아이 그. 또 너무 뚜꺼왕 무겁곡 밤의 영 더껑

눕는 것도 우알 저 이불은. 겨믄 보통 토목이옌 ᄒᆞ믄 그추룩 좀 잘 사는 집의 이제 겨울에 뭐 ᄒᆞ젠 ᄒᆞ믄 토목 옷이나 입어서? 영 ᄒᆞ영. 건 뚜꺼운 옷이여, 얄븐 걸 구별ᄒᆞ는 거주.(토목은 무겁고요, 가격도 조금 비싸. 저 일반 광목 같지 안 해서. 그렇게 보통 그렇게 한 건 주로 이불 위아래 채 하면 토목 아니 그. 또 너무 두꺼워서 무겁고 밤에 이렇게 덮어서 눕는 것도 위아래 저 이불은. 그러면 보통 토목이라고 하면 그렇게 좀 잘 사는 집에 이제 겨울에 뭐 하려고 하면 토목 옷이나 입었어? 이렇게 해서. 건 두꺼운 옷이야, 얇은 걸 구별하는 거지.)

106010 @ 광목으로는 뭘 만듭니까?(광목으로는 뭘 만듭니까?)

106010 #2 광목도 그자 그 그런 것도 광목도 ᄒᆞ는 집읜 셔. ᄒᆞ꼼 뭐 ᄒᆞᆫ 집읜 싸곡게, 광목은 ᄒᆞ꼼 싸곡 ᄒᆞ난 토목보단.(광목도 그저 그 그런 것도 광목도 하는 집에는 있어. 조금 뭐 한 집은 싸고요, 광목은 조금 싸고 하니까 토목보다는.)

106010 @ 광목으로도 이불 ᄒᆞ지 안흡니까?(광목으로도 이불 하지 않습니까?)

106010 #2 예, 광목으로도 이불 ᄒᆞ곡. 이불도 ᄋᆞ라 찔, 집집마다 ᄯᅮ나주기. ᄯᅮ나곡 광목으론게 거세기, 그 무시것덜, 옛날은 광목 치메 행 입어낫수게. 광목 치메 ᄒᆞ연 어머니덜토 다 입어나곡, 광목 적삼ᄒᆞ곡.(예, 광목으로도 이불하고. 이불도 여러 종류, 집집마다 다르지. 다르고 광목으로는 거시기, 그 뭐 무엇들, 옛날은 광목 치마해서 입었었습니다. 광목 치마 해서 어머니들도 다 입었었고, 광목 적삼하고.)

106010 @ 바진 안 멩글앗수과?(바지는 안 만들었습니까?)

106010 #2 예, 무사 바지 아이 멘들앗수과? 광목 중의게. 하르방덜 광목 중의 행 입엉.(예, 왜 바지 안 만들었습니까? 광목 중의요. 할아버지들 광목 중의 해서 입어서.)

106010 #1 중의 적삼.(중의 적삼.)

106010 #2 광목 중의 적삼 ᄒᆞ곡, 그것이 옛날덜은 하르방덜 그걸 헹 입젠 ᄒᆞ믄 그것도 어디 강 중의 적삼 ᄒᆞ는 디 강, 저 애월도 가곡, 어디 강 걸엉 강 헹 와사. (광목 중의 적삼하고. 그것이 옛날들은 할아버지들 그걸 해서 입으려고 하면 그것도 어디 가서 중의 적삼 하는 데 가서, 저 '애월'도 가고, 어디 가서 걸어서 가서 해서 와야.)

106011 @ 홍세미녕[228] 알아지쿠가?('홍세미녕' 알 수 있겠습니까?)

106011 #2 홍세미녕이옌 말은 들어난디 잘 건 알지 못ᄒᆞ여. 말은 들어낫수다.('홍세미녕'이라고 말은 들었었는데 잘 건 알지 못해. 말은 들었었습니다.)

106011 #1 홍세미녕은 물감.('홍세미녕'은 물감.)

106011 #2 아니, 미녕 종류 아니?(아니, 무명 종류 아니?)

106011 @ 홍세미녕이 저 ᄒᆞ꼼 ᄇᆞᆯ그룽ᄒᆞᆫ 거.('홍세미녕' 저 조금 발그스름한 거.)

106011 #1 물들인 걸 닮은디 홍세미녕이옌.(물들인 걸 같은데 '홍세미녕'이라고.)

106011 #2 물들인 미녕이 맞아, 우린 관리 안 ᄒᆞ여나난 잘 모르쿠다만은, 홍세미녕이 물들이 미녕 맞아. 홍세미녕이옌 ᄒᆞ영 저 심방덜 무신거 ᄒᆞᆯ 때, 홍세미녕 무신거 ᄒᆞ멍 말은 들어낫수다.(물들인 무명이 맞아, 우린 관리 안 했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홍세미녕' 물들인 무명 맞아. '홍세미녕'이라고 해서 저 무당들 무엇 할 때, '홍세미녕' 무엇

228) '홍세미녕'은 혼례를 치르는 날 신랑이 신부 집으로 가지고 가는 혼서함 속에 넣는 무명이다.

하면서 말은 들었었습니다.)

106011 #1 주로 저 이 무당덜, 심방덜 거 알록달록ᄒᆞ게 ᄒᆞ영 홍세미녕 물 믄 짱은에 저 가달 돋진 거 ᄒᆞ영 입곡, 뒤에 영 놀개 돋졍. 경 ᄒᆞ연 홍세미녕이 주로 심방덜 홀 때 해낫주, 일반 사름은 잘 아니. 그 알록달록ᄒᆞᆫ 걸 입읍니까게? 일반 사름덜이.(주로 저 이 무당들, 무당믈 거 알록달록하게 해서 '홍세미녕' 물 모두 짜서 저 다리 돋친 거 해서 입고, 뒤에 이렇게 날개 돋쳐서. 그렇게 해서 '홍세미녕'이 주로 심방들 할 때 했었지, 일반 사람은 잘 아니. 그 알록달록한 걸 일반 사람들이 입습니까? 일반 사람들이.)

106011 #2 게난에 홍세미녕은 심방덜 ᄒᆞ는 거.(그러니까 '홍세미녕'은 무당들 하는 거.)

106012 @ 멘네 농사에 대ᄒᆞ영 ᄒᆞᆫ번 ᄀᆞᆯ아줍서.(면화 농사에 대해서 한번 말해주세요.)

106012 #1 멘네는 이제 이디서 이제 그 보통 보릿그르 전에 밧을 번ᄒᆞ영 싱급니다게. 보릿그르에 ᄒᆞ믄 늦어. 게난 이건 속성이 아니고 멘네는 ᄒᆞ꼼 장기, 요것이 가는 저 그 작물이난 밧듸 보릿그르 전에 밧 번햇당 요게 너무 얼믄 안 나고, 씨로 좃게 이제 밧 번헷당은에 ᄀᆞ을 이제 ᄀᆞ을 농ᄉᆞ옌 ᄒᆞᆸ주게, 이제 조 ᄀᆞ뜬 거. 게난 그 전에 갈아, 멘네는. 경 ᄒᆞ영 다른 영 나기 전에 벌써 나믄 ᄉᆞ꾸곡, 요것이 두물어야지 좃으믄 낭만 막 우터레 나불곡 ᄋᆞ물이 엇어. 게난 ᄒᆞ곡 아, 멘네 농ᄉᆞ ᄒᆞ젠 ᄒᆞ믄 밧 좀 밧을 미리 갈앗당, 그거 이제 그 장마 전에 밧 갈앙 이제 ᄒᆞ꼼 비 맞곡 ᄒᆞ믄 밧이 이제 부드러울 거 아니우꽈? 부드러우믄 그때 멘네 농ᄉᆞ 갈아사켕 갈아 놓믄, 요것도양 좃으믄 못 써 두물어사. 겡 ᄒᆞᆫ 서너 번 ᄉᆞ꾸멍, 또 검질 씌우믄 안 뒈여마씸. 검질을 미리 잘 메여줘사, ᄉᆞ꾸멍 ᄉᆞ꿀 때마다, 엿날사 제초제가 셔낫수광? 엇어가지고 다 손으로 멧주, 검질. 게 메영 검질 ᄒᆞ영 두무룽이 해 놓으믄 이제 좀 낭이 어느 정도 ᄒᆞᆫ 두어 자, ᄒᆞᆫ 자 뒈여가믄 요거 너무, 또 두 자 이상 뒈여불어도 잘 안 ᄋᆞᆯ아.(면화는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보통 보리 갈았던 곳에 전에 밭을 애벌갈이했다가 심습니다. 보리 갈았던 곳에 하면 늦어. 그러니까 이건 속성이 아니고 면화는 조금 장기, 요것이 가는 저 그 작물이니까 밭에 보리 갈았던 곳에 전에 밭 애벌갈이했다가 요게 너무 얼면 안 나고, 씨로 잦게 이제 밭 애벌갈이했다가 가을 이제 가을 농사라고 하지요, 이제 조 같은 거. 그러니까 그 전에 갈아, 면화는. 그렇게 해서 다른 이렇게 나기 전에 벌써 나면 솎고, 요것이 드물어야지 잦으면 나무만 마구 위로 나버리고 여물이 없어. 그렇게 하고 아, 면화 농사 하려고 하면 밭 좀 밭을 미리 갈았다가, 그거 이제 그 장마 전에 밭 갈아서 이제 조금 비 맞고 하면 밭이 이제 부드러울 거 아닙니까? 부드러우면 그때 면화 농사 갈아야겠다 갈아 놓으면, 요것도요 잦으면 못 써 드물어야. 그렇게 한 서너 번 솎으면서, 또 김 씌우면 안 돼요. 김을 미리 잘 매어줘야, 솎으면서 솎을 때마다, 옛날에야 제초제가 있었습니까? 없어서 다 손으로 맸지, 김. 그렇게 매어서 김 해서 드물게 해 놓으면 이제 좀 나무가 어느 정도 한 두어 자, 한 자 되어가면 요거 너무, 또 두 자 이상 되어 버려도 잘 안 열어.)

106012 #2 게난 메ᄀᆞᆯ추ᄒᆞᆫ[229] 밧듸 갈아사게.(그러니까 '메ᄀᆞᆯ추ᄒᆞᆫ' 밭에 갈아야지요.)

106012 #1 메줄추ᄒᆞ게 요거 갈앙.(‘메줄추ᄒᆞ게’ 요거 갈아서.)

106012 #2 막 나쁜 밧듸.(아주 나쁜 밭에.)

106012 #1 멘네 ᄒᆞ믄 ᄃᆞ레기 나기 시작 ᄒᆞ믄 요거 이제 걸름을 주지 말아사. 엿날은 걸름도 엇엇는디. 그때 나온 건 유한 ᄒᆞ꼼썩 화학비료 셔나고. 그 웨에는 이제 그 에, 너무 메줄추ᄒᆞ다 ᄒᆞ멍 오좀이나 ᄒᆞ꼼 지쳐, 이제. 주로 오좀 햇수다게, ᄒᆞ꼼 덜 크믄. 오좀 지치곡 ᄒᆞ믄 가모롱ᄒᆞ게 이게 이제 너무 하영 줘도 안 뒈곡. 거 ᄒᆞ영 욜매 욜기 시작ᄒᆞ믄 이제 요거 츤ᄇᆞ름이 나사. 츤ᄇᆞ름 불곡 ᄒᆞ믄 막 저 상강 뒈가믄 요것이 이 이제 이파리도 좀 덜 ᄒᆞ곡 그거 해가믄, 이파리도 너무 한 건 우리 막 이파리 타레 가나서. 탕 그걸 자게 타불어사 이제 멘네가 자게 은덴 ᄒᆞ영, 이파린 멀릿 거는 ᄒᆞ나씩 타불어서. 게믄 요것이 읖더레 멘넷ᄃᆞ레기 이만썩 ᄒᆞ믄 착착 벌어집주게. 벌어지젠 ᄒᆞ믄 두물어사 ᄒᆞ곡양, 줏으믄 다마가 줄곡, 잘 안 올아. 게난 두물게 ᄒᆞ영에 싱경 내불믄 츤ᄇᆞ름 넘어가믄 이것이 피영, 영 ᄒᆞ나썩 멘넷ᄃᆞ레기 피영 강 타오라 ᄒᆞ믄 강.(면화 하면 다래 나기 시작하면 요거 이제 거름을 주지 말아야. 옛날은 거름도 없었는데. 그때 나온 건 유한 조금씩 화학비료 있었고. 그 외에는 이제 그 에, 너무 ‘메줄추ᄒᆞ다’ ᄒᆞ멍 오줌이나 ᄒᆞ꼼 지쳐, 이제. 주로 오줌 했습니다, 조금 덜 크면. 오줌 지치고 하면 거무스름하게 이게 이제 너무 많이 줘도 안 되고. 거 해서 열매 열기 시작하면 이제 요거 찬바람이 나야. 찬바람 불고 하면 아주 저 상강 돼가면 요것이 이 이제 잎도 좀 덜 하고 그거 해가면, 잎도 너무 많은 건 우리 마구 잎 따러 갔었어. 따서 그걸 빨리 따버려야 이제 면화가 빨리 열린다고 해서, 잎은 멀리 거는 하나씩 따버렸어. 그러면 요것이 잎으로 면화다래 이만큼씩 하면 착착 벌어지지요. 벌어지려고 하면 들물어야 하고요, 잦으면 열매가 잘고, 잘 안 열어. 그러니까 드물게 해서 심어서 내버리면 찬바람 넘어가면 이것이 피어서, 이렇게 하나씩 면화다래 피어서 가서 따오라 하면 가서.)

106012 #2 멘네 탕 먹으멍.(면화 따서 먹으면서.)

106012 #1 이제 거 ᄒᆞ곡, 또 ᄃᆞ레기 선 거는 이제 탕 먹곡, 맛 좋아 것도.(이제 거 하고, 또 다래 덜 익은 거는 이제 타서 먹고 맛 좋아 것도.)

106012 #2 멘넨 갈젠 ᄒᆞ믄 씨 ᄒᆞ기가 막 궂어낫수다게. 그 무신거 ᄆᆞ딱 소게 닮은 거 다듬앙, 다듬지 안 ᄒᆞ믄 그 씨 ᄌᆞ끗디 그거 ᄒᆞ믄 안 난덴 ᄒᆞ연. 난덴사 ᄒᆞ여신지, 안 난덴사 ᄒᆞ여신지.(면화 갈려고 하면 씨 하기가 아주 힘들었습니다. 그 무엇 모두 솜 같은 거 다듬어서, 다듬지 않으면 그 씨 옆에 그거 하면 안 난다고 했어. 난다고야 했는지 안 난다고 했는지.)

106012 #1 안 나, 안 나. ᄏᆞᆯ.(안 나, 안 나. 깨끗이.)

106012 #2 씨어머님네 ᄒᆞ는 거 우리 다듬아낫수다, 다듬으렌.(시어머님네 하는 거 우리 다듬었었습니다, 다듬으라고.)

106012 #1 씨 ᄒᆞ는 거 ᄏᆞᆯ, 소게 ᄒᆞ나 든 거 엇이 다듬아사.(씨 하는 거 깨끗이, 솜 하나 든 거 없이 다듬어야.)

106012 #2 씨가 ᄏᆞᆯ 궂입디다.(씨가 깨끗이 궂습니다.)

---

229) ‘메줄추ᄒᆞ다’는 농작물 따위가 잘 발육되지 못하여 자잘하다.

106012 #1 다듬앙 씨만 영 도로록ᄒᆞ게 해사 물컷당 삐여.(다듬어서 씨만 이렇게 도록하게 해야 물 담갔다가 뿌려.)

106012 #2 게난 우리 생각엔 그자 물 컹 영 싯어불민, 싯어도 아이 뭰덴 ᄒᆞ곡.(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그저 물 담갔다가 이렇게 씻어버리면, 씻어도 안 된다고 하고.)

106012 #1 ᄏᆞᆯᄒᆞ게 다듬앙.(깨끗하게 다듬어서.)

106012 #2 문딱 영 ᄒᆞ난 그것이 막 궂입디다, 멘네 홀 때. 씨어머님은 이거 담듬아사, 다듬아사 ᄒᆞ난에.(모두 이렇게 하니까 그것이 아주 궂습디다, 면화 할 때. 시어머님은 이거 다듬어야, 다듬어야 하니까.)

106012 #1 멘네 그거 어느 정도 커근에 멘네 탕 밧듸도 널곡, 이제 그 집의도 지어당 멩텡이 ᄒᆞ영 지어당 마당에 널엇당 이제 어느 정도 ᄒᆞ꼼 ᄆᆞᆯ랑 ᄒᆞᆫ 메칠 이제 벳 쒜우믄 요거 멘네 그 물레 ᄇᆞᆯ르는 것이 잇어마씨. 이거 멕여가멍 ᄇᆞᆯ랑은에 씨는 안쪽더레 빠져가곡, 요건 이제 멘네 ᄇᆞᆯ라가멍 이쪽더레, 또 널엉 걸 이제 ᄆᆞᆯ리와 놓믄 이제 더러 멘네 소게 테우는 디 가곡, 한 거는. 적은 거는 집의서, 이제 쓰는 거는 집의서 이 이불 ᄀᆞ뜬 거 좀 눕는 디 ᄒᆞ젠 ᄒᆞ믄 마당의 널엇당 ᄒᆞᆫ 이틀 바싹 ᄆᆞᆯ리우믄 막대기로 막 두드려도 뒈곡.(면화 그거 어느 정도 커서 면화 따서 밭에도 널고 이제 그 집에도 져다가 망태기 해서 져다가 마당에 널었다가 이제 어느 정도 조금 말려서 한 며칠 이제 볕 쏘이면 요거 면화 그 물레 밟는 것이 있어요. 이거 먹여가면서 밟아서 씨는 안쪽으로 빠져가고, 요건 이제 면화 밟아가면서 이쪽으로, 또 널어서 걸 이제 말려 놓으면 이제 일부 면화 솜 타는 데 가고, 많은 거는. 적은 거는 집에서, 이제 쓰는 거는 집에서 이 이불 같은 거 좀 눕는 데 하려고 하면 마당에 널었다가 한 이틀 바싹 말리면 막대기로 마구 두들겨도 되고.)

106012 #2 씨집갈 때 그거 이불 헤근에, 나도 그추룩 ᄒᆞ연 이불 두 개, 요 두개 ᄒᆞ연 소게 아이구, 그 이불 ᄒᆞ영 뭣 흡니까? 아무것도 아녕. 그런 이불 이제. ᄉᆞ뭇 애씨게 마당의 어머님은 두드렁, 멍석 페와놩 두드려근에 그것 소게 쌍, 쌍 이제 이불 ᄒᆞ영.(시집갈 때 그거 이불 해서, 나도 그처럼 해서 이불 두 개, 요 두 개해서 솜 아이고, 그 이불 해서 뭣 합니까? 아무것도 안 해서. 그런 이불 이제. 사뭇 애쓰게 마당에 어머님은 두드려서, 멍석 펴서 두드려서 그것 솜 싸서, 싸서 이제 이불 해서.)

106012 #1 정 줏곡 그거. 저 미녕 홀 사름덜은 거 이제 거 북삭ᄒᆞ영, 뭐옌 ᄒᆞ나 이제 정 ᄆᆞᆯ아. 영 정 ᄆᆞᆯ앙 ᄒᆞ나썩 이제 뽑앙 영 놔뒷당 정 줏으멍 이 물레로 뽑으멍 씰 감앙 이제 얼레기에 감으믄 이제 하나 헤지믄 이제 그만 ᄒᆞ영, 또 다른 거, 또 ᄒᆞ곡 ᄒᆞ멍. 경 ᄒᆞ영 씰을 빠십주, 멩글앙. 거 잘 ᄒᆞ는 사름은 춤 거 기술적으로.(꼬리 잣고 그거. 저 무명 할 사람들은 거 이제 거 이제 거 푹신해서, 뭐라고 하나 이제 꼬리 말아. 이렇게 꼬리 말아서 하나씩 이제 뽑아서 이렇게 놔뒀다가 꼬리 자으면서 이 물레로 뽑으면서 실 감아서 이제 '얼레기'에 감으면 이제 하나 해지면 이제 그만 해서, 또 다른 거, 또 하고 하면서. 그렇게 해서 실을 뺐지, 만들어서. 거 잘하는 사람은 참 거 기술적으로.)

106012 #2 경 헷당 그걸로 씨 ᄒᆞ곡.(그렇게 했다가 그걸로 씨 하고.)

106012 #1 둘러가멍 삭삭 씰 잘 뽑아. 우리 영 헤보믄 씰을 뽑질 못 ᄒᆞ여. 이거 잘 못헷당은 막 그냥 홈치 감아져불어. 게믄 이거 뽑질 못ᄒᆞ곡 ᄒᆞ는디. 요것도 ᄒᆞ젠 ᄒᆞ믄 ᄒᆞ루 종일 헤 놓믄 풀이양, 어깨 아파사.(둘러가면서 삭삭 실 잘 뽑아. 우리 이렇게 해 보면 실을 뽑질 못 해. 이거 잘못했다가는 마구 그냥 한꺼번에 감아져 버려. 그러면 이거 뽑질 못하고 하는데. 요것도 하려고 하면 하루 종일 해 놓으면 팔이요, 어깨 아파야.)

106012 #2 풀 아프곡, 멘네가 온몸으로 하나 다 부뜨곡.(팔 아프고, 면화가 온몸으로 하나 다 붙고.)

106012 #1 몬지가 ᄉᆞ뭇 안네.(먼지가 사뭇 안에.)

104012 #2 헤양케 다닥다닥 부떵. 무신 다듬으카, 모욕을 ᄒᆞ카 이제. 그땐 기영, 경 ᄒᆞᆫ 거 수건, 광목 수건 셧당 털어둬근에, 털어둬 젯 멕이곡, 눵 자곡. 보리쏠 밥 궤와 가멍.(하얗게 다닥다닥 붙어서. 무슨 다듬을까, 목욕을 할까 이제. 그땐 기어서, 그렇게 한 거 수건, 광목 수건 있다가 떨어둬서, 떨어둬서 젖 먹이고, 누워서 자고. 보리쌀 밥 끓여 가면서.)

모시

106013 @ 오늘 거 저 모시 실을 멩그는 과정에 대허영 ᄀᆞᆯ아줍서.(오늘 거 저 모시 실을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말해주세요.)

106013 #1 요즘 모시옝 허믄 거저 모싯잎은 먹엄수다마는 모싯잎은 아, 전인 모실 헤다가 그걸 이제 좀 ᄆᆞᆯ리왕 걸 시들룅 이제 질깃질깃허믄 걸 저 ᄆᆞᆫ딱 덩드렁마께[230] 로 독독독독 찢어마씨. 걸 아래 영 허믄 너무 허믄 이제 놀 거난 허고 이제 시들롸사. 것이 질길 거난 시들룅 우리 어린 때 전이 보믄 걸 독독 실 빠젱 헴서, 모싯잎. 거 헤노믄 이제 헤 놩 거저 시들룅 마께로 두드려 놩, 솟디 놩 숢아. 거 어느 정도 숢앙 영 보믄 실이 거 헤영케 나옵니다. 바깟디 거죽 다 빼불믄 삼베 허듯이 똑ᄀᆞ뜬 원리우다. 경 헹 그것이 이제 줄게 줴 노믄 ᄏᆞᆯ, 껍데길 훌터노믄 이제 거 헤영케 실이.(요즘 모시라고 하면 그저 모시 잎은 먹고 있지만은 모시 잎은 아 전에는 모시를 해다가 그걸 이제 좀 말려서 걸 시들여서 이제 질깃질깃하면 걸 저 모두 '덩드렁마께'로 독독독독 찢어요. 그것을 아래 이렇게 하면 너무 하면 이제 날 거니까 하고 이제 시들어야. 것이 질길 거니까 시들여서 우리 어린 때 전에 보면 걸 독독 실 빼려고 하고 있어, 모시 잎. 거 해놓으면 이제 해 놔서 거 저 시들여서 방망이로 두들겨 놔서, 솥에 넣어서 삶아. 거 어느 정도 삶아서 이렇게 보면 실이 거 하얗게 나옵니다. 바깥에 거죽 다 빼버리면 삼베 하듯이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이 이제 잘게 죄어 놓으면 깨끗이, 껍데기를 훑어놓으면 이제 거 하얗게 실이.)

106013 #2 모시씰 나.(모시실 나.)

106013 #1 모시씰이 빼, 뒤엣 거 거저 헤영케 뒈마씨. 게믄 그걸 헤다가 이제 정 ᄌᆞᆺ

230) '덩드렁마께'는 짚이나 대 따위를 두드리는 방망이다.

듯이, 것도 다 손으로 빼네, 공듭주게. 다 씰 헤노믄 문딱 잇어. 이렇게 허멍 씰, 씰허멍 영 놩 허믄, 그레 춤 불르멍 영 헹 잇곡, 잇곡 허멍 걸 궤양케 얼레기에 헹 감아. 감으멍 막 헹 이거 허믄 저 미녕씰 빠듯이 똑ᄀᆞ뜬 원리로 경 헹, 이제 실헹 얼레기에 감앙 헷다가, 요걸 이제 모시 차는데, 거 미녕 닮지 아니 허영 거 얼레기도 보믄 좀질고 ᄀᆞ는, 저 미녕씰보단 궤양 멩심 아니 허믄, 이거 짜 노믄 질기는 디, 모시, 모시옷이 짜기 전 영.(모시실이 빼, 뒤에 거 그저 하얗게 돼요. 그러면 그걸 해다가 이제 '정' 잣듯이, 것도 다 손으로 빼네, 공들지요. 다 씰 해놓으면 모두 이어. 이렇게 하면서 실, 실하면서 이렇게 놔서 하면, 그리 침 바르면서 이렇게 해서 잇고, 잇고 하면서 걸 고이 '얼레기'에 해서 감아. 감으면서 마구 해서 이거 하면 저 무명실 빼듯이 똑같은 원리로 그렇게 해서, 이제 실해서 '얼레기'에 감아서 했다가, 요걸 이제 모시 짜는데, 거 무명 같지 아니 해서 보면 자잘하고 가는, 저 무명실보다는 고이 명심 않으면, 이거 짜 놓으면 질기는데, 모시, 모시옷이 짜기 전 이렇게.)

106013 #2 풀 불앙, 풀 불랑 영 허멍.(풀 발라서, 풀 발라서 이렇게 하면서.)

106013 #1 이디서 질기게 허젠 허믄 멩심헹 실을 빠사마씨. 게 아니 허믄 실 ᄒᆞ끔헌 거 떼어 져 불고 허니까. 감앙 어떵 어떵 얼리우멍 헤 놩 얼레기에 감앙, 게 헤노믄 나중에 이거 모시 짤 때는 그렇게 헹 짜 놓믄 질기곡 허는데, 실 허는 과정이 저 공이 듭주게. (여기서 질기게 하려고 하면 명심해서 실을 빼야합니다. 그렇게 안 하면 실 조금 한 거 떼어 져 버리고 하니까. 감아서 어떻게 어떻게 어울리면서 해 놔서 '얼레기'에 감아서, 그렇게 해 놓으면 나중에 이거 모시 짤 때는 그렇게 해서 짜놓으면 질기고 하는데, 실 하는 과정이 저 공이 들지요.)

106013 #2 게난 모시틀, 모시틀 헤다 놩 허젱 허믄 중엄리[231] 할멍 헐 때 보믄, 이런 집도 아이라, 쉐왕 닮은 집, 사는 디 강 모시틀 왁왁헌 디 헤사 헌뎅 허멍, 헤 놩 그걸 무사 그디서 헴수겐 허난 모시틀은 막 왕대 닮은 걸로 헨게. 이만이 헌 거 왕대 닮은 걸로 헹 무신 틀 짜. 이만이 헌 거 틀 짜단, 무사 그디서 헴수겐 허난 왕댄 경 왁왁헌 디서 헤사, 뭣이 ᄇᆞ름 으시난 나간덴, 경 허멍 우리 할마니, 방앗간 할마니 산 때에 그 왕 댈 헤근에 모시틀 만들앙 허믄, 구들러레 웬경 허믄, 웬경 왕대를 ᄆᆞᆯ롸사, 모시틀을 허젠 허믄 거 무신거 잇잔아, 이만헌 거, 거. 바당에 강 저 테우에 영 셉는 거, 뭐지? 그거 헤다놘에 헙디다게. 경 허난 바당에 테우 헤다놘 그런 기계라. 그런 꼴레기 헤다놘에 모시틀을 짜는 건 알아져, 알아지곡. 저 미녕은 베낏디서 짜곡, 모신 안네서 짜곡 헙디다게. 경 허멍도 허는 거 봐낫주기, 우리.(그러니까 모시틀, 모시틀 해다 놔서 하려고 하면 '중엄리' 할머니 할 때 보면, 이런 집도 아니야, 외양간 닮은 집, 사는 데 가서 모시틀 캄캄한 데 해야 한다고 하면서, 해 놔서 그걸 왜 거기서 하고 있습니까 하니까 모시틀은 아주 왕대 같은 걸로 했어요. 이만큼 한 거 왕대 같은 걸로 해서 무슨 틀 짜. 이만큼 한 거 틀 짜다가, 왜 거기서 하고 있습니까 하니까 왕대는 그렇게 캄캄한 데서 해야, 뭣이 바람 없으니까 나간다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 할머니, 방앗간 할머니 살아 계실 때 그 왕대를 해서 모시틀 만들어서 하면, 방으로 옮겨서 하면, 옮겨서 왕대를 말려

231) '중엄리'는 제주시 애월읍 중엄리를 말한다.

야, 모시틀을 하려고 하면 거 무엇 있잖아, 이만큼한 거, 거. 바다에 가서 저 떼에 이렇게 세우는 거. 뭐지? 그거 해다놔서 합디다. 그렇게 하니까 바다에 떼 해다놔서 그런 기계야. 그런 실톳 해다놔서 모시틀을 짜는 건 알 수 있어, 알 수 있고. 저 무명은 바깥에서 짜고, 모시는 안에서 짜고 합디다. 그렇게 하면서도 하는 거 봤었어요, 우리.)

106013 #1 게난 그것이 실, 실이.(그러니까 그것이 실, 실이.)

106013 #2 우리 모신 안 헤도.(우리 모시는 안 해도.)

106013 #1 바인다 헤 가지고 그렇게 어둔 디서 허는 건디.(바인더 해 가지고 그렇게 어두운 데서 하는 건데.)

106013 #2 어둔 디서 허여. 미녕 닮지 아니 허영.(어두운 데서 해. 무명 같지 안 해서.)

106013 #1 하여튼 요건 저 이 미녕 닮지 아니 허영 실 빠젱 허믄양, 공이 들어. 멘네실 헹, 저 미녕은 그 멘네로 허믄 불라노믄 실 빠기가 쉬운디, 불랑.(아무튼 요건 저 이 무명 같지 않아서 실 빼려고 하면요, 공이 들어. 면화실 해서, 저 무명은 그 면화로 하면 밟아놓으면 실 빼기가 쉬운데, 밟아서.)

106013 #2 붉은 디서 허는디, 모신 어두운 디서, 왕대로 멘들앙 헤나서.(밝은 데서 하는데, 모시는 어두운 데서, 왕대로 만들어서 했었어.)

106013 #1 무신 요거 춤 ᄒᆞ끔 뱃기멍, 영 헹 영 실 다 잇엉.(무슨 요거 침 조금 뱉으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실 다 이어서.)

106013 #2 영 부비엉 허고.(이렇게 문지르면서 하고.)

106013 #1 부비멍 다 잇젱 허믄 거 공이 하영 들어마씨. 그거 헹 이제 잘 헤노믄 모시.(문지르면서 다 이으려고 하면 거 공이 많이 들어요. 그거 해서 이제 잘 해놓으면 모시.)

106013 #2 물들이는 건 산에 강 무신거.(물들이는 건 산에 가서 무엇.)

106013 #1 거 저.(거 저.)

106013 #2 무신 낭 헤당은에, 이제 ᄀᆞ뜨믄 무신거 돔박낭인가? 무신 낭 꼿 헤다 놩은에, 물들여나서, 뻘경헌 물 허영은에.(무슨 나무 해다가, 이제 같으면 무엇 동백나무인가? 무슨 나무 꽃 해다가 놔서, 물들였었어, 빨간 물 해서.)

106013 #1 예, 그런 거 허고, 여러 가지 풀로, 자연적입주게. 지금 생각허믄 이젠 뭐 화학 물감이 셩 허주, 전이사 그런 것이 셧수강? 게믄.(예, 그런 거 하고, 여러 가지 풀로, 자연적이지요. 지금 생각하면 이젠 뭐 화학 물감이 있어서 하지, 전에야 그런 것이 있었습니까? 그러면.)

106013 #2 게난 산에 강 그 꼿 헤다 놩, 물들이젠 허믄 물 숣아, 숣앙 이제 허는 사름 저 당동산[232]이 할망 빌어다 놩, 허는 건 우리 봐낫수다게. 꼿 헤다 놩 딸리는 거. 딸령 물들이믄 모시가.(그러니까 산에 가서 그 꽃 해다 놔서, 물들이려고 하면 물 삶아, 삶아서 이제 하는 사람 저 '당동산'에 할머니 빌어다 놔서, 하는 건 우리 봤었습니다. 꽃 해다 놔서 달이는 거. 달여서 물들이면 모시가.)

232) '당동산'은 제주시 애월읍 구엄리에 위치한 지명이다.

106013 #1 곱게.(곱게.)

106013 #2 벌경헌 모시 나오곡, 노랑헌 모시 나오곡 그추룩 허여. 당동산 그 누게 하르방 잇지 아니허여게. 저 기어꼬[233] 하르방, 기어꼬 할망 어, 그 할망이 경 모시물, 서촌[234] 할망이난에, 그 할망 잘 들인덴 허멍, 우리 빌어단 안가름[235] 할망 허는 집이, 우린 어린 때고 경 그것이 쉽게 허는 거 아닌 생입디다, 이젠 보난. 게도 ᄉᆞ뭇 푸린 물이여, 노랑물이여 들영은에, 폭낭 아래 막 널엉은에, 돈은 얼마사 받아나신지, 무신 십원이여, 오완이여 허멍, 받아도 그거 풀앙은에 우리 할마닌 경 허멍 허난 우리 할으바진 술 먹엉 허지 말렌 막 욕허곡 헤도 할망이 그 대정읍 서촌 할망, 저 당동산 할망 잇수다게, 부제 할망. 그 할망이 그런 거 잘 헴젠 구엄, 중엄만 경 헤낫수다. 이디 우린 자세히 몰라 그런 걸. 허여 가난 봔 그자.(벌건 모시 나오고, 노란 모시 나오고 그처럼 하지. '당동산' 그 누구 할아버지 있지 않아요. 저 '기어꼬' 할아버지, '기어꼬' 할머니 어, 그 할머니가 그렇게 모시물, '동촌' 할머니니까, 그 할머니 잘 들인다고 하면서, 우리 빌어다가 '안가름' 할머니 하는 집에, 우린 어릴 때이고 그렇게 그것이 쉽게 하는 거 아닌 모양입디다, 이젠 보니까. 그래도 사뭇 푸른 물이여, 노란 물이여 들여서, 팽나무 아래 마구 널어서, 돈은 얼마나 받았었는지, 무슨 십 원이여, 오 원이여 하면서, 받아도 그거 팔아서 우리 할머니는 그렇게 하면서 하니까 우리 할아버지는 술 먹어서 하지 말라고 마구 욕하고 해도 할머니가 그 '대정읍' '서촌' 할머니 저 '당동산' 할머니 있습니다, 부자 할머니. 그 할머니가 그런 거 잘하고 있다고 '구엄', '중엄'만 그렇게 했었습니다. 여기 우리는 자세히 몰라 그런 걸. 해 가니까 봐서 그저.)

106013 #1 봔 험도.(봐서 함도.)

106013 #2 그 모시 짜는 거 허고, 미녕 짜는 거 허고 뜰려.(그 모시 짜는 거 하고, 무명 짜는 거 하고 달라.)

106013 #1 게난 아버지네 살 때에.(그러니까 아버지네 살 때에.)

106013 #2 이만헌 왕대 헤근에.(이만한 왕대 해서.)

106013 #1 거 이파리는 쉐 멕이고. 모시, 모시 허젠 허믄, 게난 것도 그늘 어디 영, 낭이영 하영 헌 트멍에 걸 거 아니우꽈? 모시 대가, 모시 이파리 영, 지금도 잇지마는, 그런 디 거 비영 대는 이제 대는 일부러 이건 모시씰 뺄거여 헹, 따로 막 무껑 이제 따로 그늘에 ᄆᆞᆯ리왕, ᄆᆞᆯ리왕 ᄒᆞ끔 이거 ᄆᆞᆯ리우지 아니허믄 픽픽 꺼꺼졍 끈어지곡, 약허니까 ᄆᆞᆯ리왕 시들시들헌 후제 이거 좀 확 허게 물에 데우쳥 숢아, 경 헹 이제 덩드렁마께로 독독독독 두드리멍 이거 헤노믄 소곱이 다 거 무릇무릇 허멍 바껏디는 거자 훌터내믄 ᄏᆞᆯ 거죽도 벗어지고, 게믄 이제 헤양케 뭣이 좋게 나와마씨. 영 헹, 영 헹 ᄇᆞᆯ랑 동ᄆᆞ리에 놩 갈적삼 입엉 동ᄆᆞ리로 잇엉은에.(거 잎은 소 먹이고. 모시, 모시 하려고 하면, 그러니까 것도 그늘 어디 이렇게, 나무랑 많이 한 틈에, 길 거 아닙니까, 모시 대가, 모시 잎 이렇게, 지금도 있지만, 그런 데 거 베어서 대는 이제 대는 일부러 이건 모시실 뺄 거다 해서, 따로 마구 묶어서 이제 따로 그늘에 말려서, 말려서 조금 이거 말리지 않

233) '기어꼬'는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별칭이다.
234) '서촌'은 여기서는 대정읍을 일컫는다.
235) '안가름'은 한 마을 내에서 안쪽에 위치한 동네이다.

으면 픽픽 꺾어져서 끊어지고, 약하니까 말려서 시들시들한 후에 이거 좀 확 하게 물에 데쳐서 삶아, 그렇게 해서 이제 '덩드렁마께'로 독독독독 두들기면서 이거 해놓으면 속이 다 무릇무릇 하면서 바깥에는 그저 홅어내면 깨끗 거죽도 벗겨지고, 그러면 이제 하얗게 뭣이 좋게 나와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밟아서 무릎에 놔서 '갈적삼' 입어서 무릎으로 이어서.)

106013 #1 경 허멍 얼레기로 감으멍, 거 참 공이 좀 듭니다마는, 좀질게 욦이선 이제 거 요만이 허믄 영 손으로 찢이멍, 그거 ᄒᆞᆯ헤놓믄 솖앙 영 허믄양 겁데긴 다 벗어지고, 똑똑 벗어지믄 그 중간에 껍질만, 거 질긴 거 잇주마는, 그거.(그렇게 하면서 '얼레기'로 감으면서, 거 참 공이 좀 듭니다만, 잘게 옆에서는 이제 거 요만큼 하면 이렇게 손으로 찢으면서, 그거 깨끗해 놓으면 삶아서 이렇게 하면요 껍데기는 다 벗겨지고, 똑똑 벗겨지면 그 중간에 껍질만, 거 질긴 거 있지만, 그거.)

106013 #2 아이고 공들게.(아이고 공들게.)

106013 #1 그걸로 다 잇으멍 씰을 멩글앙, 거 모시 짜는.(그걸로 다 이으면서 실을 만들어서, 거 모시 짜는.)

106013 #2 모시 짜는 건 그거 우리 봐낫수다.(모시 짜는 건 그거 우리 봤었습니다.)

106013 #1 삼베도 마찬가지로, 거 허는 건 마찬가진디.(삼베도 마찬가지로, 거 하는 건 마찬가지인데.)

106013 @ 예.(예.)

106013 #1 원리가.(원리가.)

106014 @ 경 허민양, 모시론 어떤 옷 멩금니까?(그렇게 하면요, 모시로는 어떤 옷 만듭니까?)

106014 #2 뭐 모시론 중의적삼도 만들곡, 이제 옛날 ᄀᆞ뜨믄 왕댈, 무신거 허난.(뭐 모시로는 중의적삼도 만들고, 이제 옛날 같으면 왕대를, 무엇 하니까.)

106014 #1 아니 모시는양, 미녕이나 광목 닮지 아니허영 이건 ᄒᆞ끔 고급 옷에 들어갑니다게, 모시. 이 저 모시 중의적삼 뭐 이런 보통 또 게곡, 저 이상헌 말 ᄀᆞᆮ아도 이 저 저승옷이나 이런 옷에 모실 하영 씁주게. 그러니까 귀ᄒᆞᆫ 좀 이 저 거 기지 뒈노난, ᄒᆞ끔 중요헌 일, 기지 뒈는 거 이거, 영 입엉, 아따 저 모시 중의적삼 입엇져.(아니 모시는요, 무명이나 광목 같지 않아서 이건 조금 고급 옷에 들어갑니다, 모시. 이 저 모시 중의적삼 뭐 이런 보통 또 그렇고, 저 이상한 말 같아도 이 저 저승옷이나 이런 옷에 모시를 많이 쓰지요. 그러니까 귀한 좀 이 저 거 옷감 되니까, 조금 중요한 일, 옷감 되는 거 이거, 이렇게 입어서, 아따 저 모시 중의적삼 입었어.)

106014 #2 그 집이 부젯칩이 잘 사는 셍이로고. 모시옷 헨 입언.(그 집이 부잣집이 잘 사는 모양이로고. 모시옷 해서 입어서.)

106014 #1 겐 이 모시는, (그렇게 이 모시는.)

106014 #2 아무나 못 입어낫수다게, 옛날.(아무나 못 입었었습니다, 옛날.)

106014 #1 예, 게 짜기도 어렵고 멩글앙 헤 놔도, 비싼 기지 뒈난, 모시.(예, 그렇게 짜기도 어렵고 만들어서 해 놔도, 비싼 옷감 되니까, 모시.)

106014 #2 에, 게 양반칩이 아덜이여, 그 집이 저 모시옷 입은 거 보난 아멩헤도 뭣 허다 허영.(에, 게 양반집에 아들들이여, 그 집에 저 모시옷 입은 거 보니까 아무래도 뭣 하다 해서.)

106015 @ 그다음에 모시 갈아봅디강? (그다음에 모시 갈아봤습니까?)

106015 #1 모시는.(모시는.)

106015 @ 모시 어떵 재배헙니까?(모시 어떻게 재배 합니까?)

106015 #1 모시는 것도 뿔리가, 뿔리로 재배허는디, 우리도 거 아버님네 허는 거, 우리 자꾸 강 모시 비어오라 헹, 우영팟디영 거 갈믄, 그게 이제 ᄌᆞ주 허믄 안 뒈곡 드물게 헤도 더러 솎아, 가운디양, 뿔리가 이제도 허주마는 모시 뿔린 이제 그냥 크게 허믄 막 대 올라옵니다. 게믄 그걸 이제 거 뿔리로 치지멍 겡 첨 둠망둠망 싱경, 요거 크기 시작헤노믄양, 흔 헤 으름이믄 그디 다 퍼져불어, 싹 허게. 게곡 대도 훌그곡양, 길게 자라믄 그거 이파리 문딱 쉐 멕이곡, 이제 그 굽은 대, 대로 주로 비영은에 멩그는 건디, 게난 그거 대 헹은에 아까 ᄀᆞᆫ듯이 그거 문딱 헷당 그늘에 좀 시들와, 이거 시들우지 아이허믄 질기질 아이허여마씨. 게난 그늘에 흔 메칠 놔뒷당은에 시들엉 영 봉, 좀 시들엇져 허믄 그땐 이제 솟디 놩 이 허멍, 얼른 데우쳥 너무 오래 허믄 거 놀 거난 아멩 시들롸도 허난, 데우쳥.(모시는 것도 뿌리가, 뿌리로 재배하는데, 우리도 거 아버님네 하는 거, 우리 자꾸 가서 모시 베어오라 해서, 텃밭이랑 거 갈면, 그게 이제 자주 하면 안 되고 드믈게 해도 더러 솎아, 가운데요, 뿌리가 이제도 하지만은 모시 뿌리는 이제 그냥 크게 하면 마구 대 올라옵니다. 그러면 그걸 이제 거 뿌리로 찢으면서 그렇게 참 드믄 드믄 심어서, 요거 크기 시작하면요, 한 해 여름이면 거기 다 퍼져버려, 싹 하게. 그리고 대도 굵고요, 길게 자라면 그거 잎 모두 소 먹이고, 이제 굽은 대, 대로 주로 베어서 만드는 건데, 그러니까 그거 대 해서 아까 말했듯이 그거 모두 했다가 그늘에 좀 시들려, 이거 시들지 않으면 질기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늘에 한 며칠 놔뒀다가 시들어서 이렇게 봐서, 좀 시들었다 하면 그땐 이제 솥에 넣어서 이 하면서, 얼른 데우쳐서 너무 오래 하면 거 날 거니까 아무래도 시들어도 하니까, 데쳐서.)

106015 #2 ᄀᆞ시락 불 살아놩, 데우쳥은에, (까끄라기 불 피워놔서, 데쳐서.)

106015 #1 아니 건, 독독독독 마께로 다 두드렷다. 덩드렁마께로 거 헹, 아래 덩드렁[236]이옌 허영, 거 놩 쎄믄, 쎄게 두드리믄 것이 부서져불고 끈어지니까, 독독독독 울리멍 이레 주믄 흔 쪽에선 이제 그거 무신 장갑을 요즘은 쪗주, 그냥 손으로 박박 트드멍.(아니 건, 독독독독 방망이로 다 두들겼다. '덩드렁마께'로 거 해서, 아래 '덩드렁'이라고 해서, 거 놔서 세면, 세게 두들기면 것이 부서져 버리고 끊어지니까, 독독독독 울리면서 이리 주면 한쪽에서는 이제 그거 무슨 장갑을 요즘은 꼈지, 그냥 손으로 박박 뜯으면서.)

106015 #2 퍼렁 거 훌터불멍.(파란 거 훑어 버리면서.)

106015 #1 훌트멍 허난 거죽이영 쏙이영 다 나와옵주게. 게난 흥그랑허게[237] 대만

236) '덩드렁'은 딴딴하고 미끄닥하고 둥글넓적한 짚 따위를 두드리는 돌판이다.
237) '흥그랑허다'는 묽은 것에 건더기는 얼마 없고 물이 많다.

남아. 대 저 속만, 중간 껍질광. 게믄 그걸 헹은에 줄게 다 쏙 허믄 물에 다 시쳥, 시치믄 그게 저 깨끗허게 하양케 나옵니다게. 아이 헤 본 사름은 몰라도. 그걸 헹 다 찌지멍 이제 허믄 읖이서는 다 씰 멩글아가멍 경 헹 씰 멩글앙 허믄, 이제 거, 짜는 거는 베 짱 허는 거난 미녕 짜듯이, 짜도 이건 짤 때도 미녕 ᄀᆞ뜬 건 질기난 영 꼬리라고 허영 영 탁 허는디 이건 멩심헹 술짝술짝 허영, 공드난 공든 깝으로 모시는 비싸고, 미녕 닮지 아니허영. 미녕 두 필 깝도 옛날 헐 때는, 미녕 흔 필에 모시 첨, 모시 흔 필에 미녕 두 필, 어떤 땐 시 필 깝을 먹읍주게. 게난 모신 귀헌 거.(홅으면서 하니까 거죽이랑 속이랑 다 나오지요. 그러니까 '흥그랑허게' 대만 남아. 대 저 속만, 중간 껍질하고. 그러면 그걸 해서 잘게 다 속 하면 물에 다 씻어서, 씻으면 그게 저 깨끗하게 하얗게 나옵니다. 안 해 본 사람은 몰라도. 그걸 해서 다 찢으면서 이제 하면 옆에서는 다 실 만들어가면서 그렇게 해서 실 만들어서 하면, 이제 거, 짜는 거는 베 짜서 하는 거니까 무명 짜듯이, 짜도 이건 짤 때도 무명 같은 건 질기니까 이렇게 실톳이라고 해서 이렇게 탁 하는데 이건 명심해서 살짝살짝 해서, 공드니까 공든 값으로 모시는 비싸고, 무명 같지 아니해서. 무명 두 필 값도 옛날 할 때는, 무명 한 필에 모시 참, 모시 한 필에 무명 두 필, 어떤 때는 세 필 값을 먹습지요. 그러니까 모시는 귀한 거.)

106015 #2 게난 허는 것만 우린 봐낫수다마는. 게 일허게 무신 어두운 디 강 허여. 할망, 우리 할망.(그러니까 하는 것만 봤었습니다만. 그렇게 일하게 뭐 어두운 데 가서 해. 할머니, 우리 할머니.)

삼

106016 @ 게민 그다음엔 삼, 삼에 대허영 물어보쿠다양. 그 삼 씰을 만드는 과정 흔번 ᄀᆞᆯ아줍서.(그러면 그다음에 삼, 삼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그 삼 실을 만드는 과정 한번 말해주세요.)

106016 #1 것도 똑 ᄀᆞ뜨우다, 모시나. 겐디 모시, 삼은 좀 저 여기선 뭐옝 허느냐 허믄 어주이라고 허여.(것도 똑 같습니다, 모시나. 그런데 모시, 삼은 좀 저 여기선 뭐라고 하느냐 하면 어저귀라고 해.)

106016 @ 어주이?(어저귀?)

106016 #1 예, 어주이옝 허영 거 질긴디, 이 대가 이만썩 헙주게. 대가 이 저 굵은 거는양, 우리 엄지손가락ᄀᆞ찌 헹 줒게 우리도 저 우영팟이영 갈안 이렇게 헷는디.(예, 어저귀라고 해서 거 질긴데, 이 대가 이만큼씩 하지요. 대가 이 저 굵은 거는요, 우리 엄지손가락같이 해서 잣게 우리도 저 텃밭이랑 갈아서 이렇게 했는데.)

106016 #2 맨 대 천지주, 옛날엔.(맨 대 천지지, 옛날엔.)

106016 #1 이 지금도 가끔 보여마씨. 밧디 오늘 저 요번 검질메난 요거 어주이여 허난, 어주이라고 허영양, 흔 발썩 헙니다, 키가. 흔 질썩 더 허영.(이 지금도 가끔 보여요. 밭에 오늘 저 요번 김매니까 요거 어저귀여 하니까, 어저귀라고 해서요, 한 발씩 합니다, 키가. 한 질씩 더 해.)

106016 #2 어주이, 우리 빈 거.(어저구, 우리 벤 거.)

106016 #1 어, 그거 어주이, 그거 헹 이 저 꼭 모시나 ᄀᆞ뜬 원리로 헹 요건.(어, 그거 어저귀, 그거 해서 이 저 꼭 모시나 같은 원리로 해서 요건.)

106016 #2 막 질겨, 건.(아주 질겨, 건.)

106016 #1 질겨야, 게믄 여기서 삼베허기 전에도 저 신사라 대신, 그거 헹 배도 들이곡, 배 꼬앙 허믄 아 이거, 어주이 배여 허믄, 그거 몰랑몰랑헤도 질겨마씨. 첨 쉐얏배에도 쓰곡 허는디.(질겨야, 그러면 여기서 삼베하기 전에도 저 뉴질랜드삼 대신, 그거 해서 참바도 들이고, 참바 꼬아서 하면 아 이거, 어저귀 참바라고 하면, 그거 말랑말랑해도 질겨요. 참 참바에도 쓰고 하는데.)

106016 #2 그것도 독독독 허곡 허는디.(그것도 독독독 하고 하는데.)

106016 #1 그것도 두드령.(그것도 두드려서.)

106016 #2 먹돌[238]로 두드령.('먹돌'로 두드려서.)

106016 #1 두드령 이제 똑ᄀᆞ치, 저 모시 ᄀᆞ찌.(두드려서 이제 똑같이, 저 모시 같이.)

106016 #2 우리 하르방 신 삼으멍, 그것도 신 삼아.(우리 할아버지 신 삼으면서, 그것도 신 삼아.)

106016 #1 그추룩 두드령 이거 헤 노믄.(그처럼 두드려서 이거 해 놓으면.)

106016 #2 건 숢지 아이헤도 뒈여.(건 삶지 않아도 돼.)

106016 #1 무사 것도 숢아? 거죽 ᄆᆞᆯ리왕은에.(왜 것도 삶아? 거죽 말려서.)

106016 #2 그냥 두드령게, 우리 아버지, 할으버지네.(그냥 두드려서,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네.)

106016 #1 두드령 다 쏙 빼 놩, 그 거죽 헤 노믄양, ᄒᆞ끔 숢아 가믄 문들문들헙니다게, 벳길 때. 거죽이 문들문들예, 술진 거난 일도 쉽고, 그건양 모시 닮지 아니허영, 또 질 저 이 잇는 것도 쉽고, 요것이 실이 뽑는 것이 ᄒᆞᆫ 발썩 더 헌 거난.(두드려서 다 속빼 놔서, 그 거죽 해 놓으면요, 조금 삶아 가면 반들반들합니다, 벗길 때. 거죽이 반들반들요, 살진 거니까 일도 쉽고, 그건요 모시 같지 않아서, 또 제일 저 이 잇는 것도 쉽고, 요것이 실이 뽑는 것이 한 발씩 더 한 거니까.)

106016 #2 질, 질겨.(질, 질겨.)

106016 #1 경 허영 이거 이제 짜 노믄 삼베 뒈는 거주. 게 헹 육지덜은 다 갈앙, 여기서도 한동안 헐 때는 갈앙 헤당, 이거 비영 이제, 요거 저 삼베옷 헐거여 허믄.(그렇게 해서 이거 이제 짜 놓으면 삼베 되는 거지. 그렇게 해서 육지들은 다 갈아서, 여기서도 한동안 할 때는 갈아서 하다가, 이거 베어서 이제, 요거 저 삼베옷 할 거다 하면.)

106016 #2 어제도 어우이옌 허멍 이 아방[239].(어제도 어저귀라고 하면서 이 '아방'.)

106016 #1 어주이에 그것이.(어저귀에 그것이.)

106016 #2 옆집이 살멍.(옆집에 살면서.)

---

238) '먹돌'은 아주 딴딴하고 광택이 나는 돌이다.

239) '아방'은 아버지인데, 여기서는 남편을 뜻한다.

106017 @ 삼으로 베를 멩글지 안 헙니까양? 베양, 베로는 어떤 옷을 멩글아마씨? (삼으로 베를 만들지 않습니까? 베요, 베로는 어떤 옷을 만듭니까?)

106017 #2 거 저 뭣이, 저승옷허고.(거 저 뭣이 저승옷 하고.)

106017 @ 저승옷?(저승옷?)

106017 #1 요즘 저.(요즘 저.)

106017 #2 저승옷이라 저.(저승옷이라 저.)

106017 @ 사름 묶을 때 허지, 일곱 마디로.(사람 묶을 때 하지, 일곱 마디로.)

106017 #2 사름 묶을 때, 사름, 사름 묶을 때.(사람 묶을 때, 사람, 사람 묶을 때.)

106017 @ 그다음에 저 상제옷도 허고.(그다음에 저 상복도 하고.)

106017 #1 아, 요즘 저 상제복도 허곡, 두건도 허곡, 또 게메 그런 거 다 쓰곡, 지금 이 옷도 헹 입곡, 거 베옷 입으믄 노랑케, 거 첨 보기 좋곡 으름에도 시원헙주.(아, 요즘 저 상복도 하고, 두건도 하고, 또 글쎄 그런 거 다 쓰고, 지금 이 옷도 해서 입고, 거 베옷 입으면 노랗게, 거 참 보기 좋고 여름에도 시원하지.)

106017 @ 베게도 허지 안 헙니까?(베개도 하지 않습니까?)

106017 #1 베게영 이불, 또 이불도 영 안네 놔 노믄 저 산도록.(베개랑 이불, 또 이불도 이렇게 안에 놔 놓으면 저 시원하고.)

106017 @ 산도록허주게.(시원하지요.)

106017 #1 산도록헤마씨, 으름에도 씨원허고.(시원해요, 여름에도 시원하고.)

106017 #2 옛날 무신.(옛날 무슨.)

106017 #1 이제는 그냥 나이롱이 나와부난 나이롱 저, 지금 영장밧디 어디여 저 두건 멩그는 거, 다 나이롱이우다게.(이제는 그냥 나일론이 나와 버리니까 나일론 저, 지금 장지 어디여 저 두건 만드는 거, 다 나일론입니다.)

106017 #2 진짜 베가 아이.(진짜 베가 아니.)

106017 #1 베가 아니라 물만 들여. 옛날 베는 그것이 아닌데, 진짜 베로, 거는 이제 삼이라고 허영 아까 어주이에 비영 문딱 그걸로 장만허영 씰 빠가지고 이제 거 일름 모르켜, 거는 뭐, 물들이는 거.(베가 아니라 물만 들여. 옛날 베는 그것이 아닌데, 진짜 베로, 거는 이제 삼이라고 해서 아까 어저귀 베어서 모두 그걸로 장만해서 실 빼서 이제 거 이름 모르겠어, 거는 뭐, 물들이는 거.)

106017 @ 옛날 사름덜도 보민 궤 헹 놔둬, 베, 베를.(옛날 사람들도 보면 궤 해서 놔둬. 베, 베를.)

106017 #1 건 진짜 베우다.(건 진짜 베입니다.)

106017 #2 베 이제 저승옷허젠 문딱 베 헹은에 놔둰은에, 베 허믄 관 우터레도 글 쎵 덕그곡.(베 이제 저승옷하려고 모두 베 해서 놔둬서, 베 하면 관 위에도 글 써서 덮고.)

106017 #1 혼 필 허믄 얼마썩 허멍 옛날은 다.(한 필 하면 얼마씩 하면서 옛날은 다.)

106017 #2 이젠 문딱 그 저 절간이서 상허는 따문 그런 거 아니헤도, 옛날 할망덜은

문딱 베로 허영. 메칠 베, 일곱메여 묶을 거영, 대가리 빌 거영, 주근주근 뻬마다 묶으곡, 옛날은 경 헤도 이젠.(이젠 모두 그 저 절에서 상례하는 때문 그런 거 안 해도, 옛날 할머니들은 모두 베로 했어. 며칠 베, 일곱 매여 묶을 거하고, 머리 벨 거하고, 차근차근 뼈마다 묶고, 옛날은 그렇게 해도 이젠.)

106017 #1 나이롱이 아니난 그냥 저 어디.(나일론이 아니니까 그냥 저 어디.)

106017 @ 나이롱은 썩지 안 허주게.(나일론은 썩지 안 하지요.)

106017 #1 관에 놔도 썩어불고, 요건 허는디 나이롱은 썩지 아이허여마씨.(관에 넣어도 썩어버리고, 요건 하는데 나일론은 썩지 않아요.)

106017 @ 거난 썩는 걸 담아야주게.(그러니까 썩는 걸 담아야지요.)

106017 #1 예, 게난 썩는 거.(예, 그러니까 썩는 거.)

106017 #2 이제 경 헐 리가 잇수가? 다 그런 나이롱 베허고. 옛날덜 베 놔둔 거, 문딱 좀 일어불엇져. 뭣 헷져. 궤에덜 놔두난.(지금 그렇게 할 리가 있습니까? 다 그런 나일론 베하고. 옛날들 베 놔둔 거, 모두 좀 잃어버렸다. 뭐 했다. 궤에 놔두니까.)

106017 #1 게난 저번에도 우리도 저 공동묘지 허멍, 천리허는 디 보니까, 그 형님, 큰 형님, 이쪽더레 방위가 틀려가지고 새로 이제 모시젠 허난, 걸 천리를 헤야 헐 거 아니우꽈? 간 보니 그 저.(그러니까 저번에도 우리도 저 공동묘지 하면서, 이장하는 데 보니까, 그 형님, 큰 형님, 이쪽으로 방위가 달라가지고 새로 이제 모시려고 하니까, 걸 이장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가서 보니 그 저.)

106017 #2 문딱 썩어불언.(모두 썩어버려서.)

106017 #1 뭣이 썩질 아니헤서마씨, 베가. 그 나이롱 베난.(뭣이 썩지 아니했어요, 베가. 그 나일론 베니까.)

106017 @ 나이롱 베.(나일론 베.)

106017 #1 나이롱 베 이거.(나일론 베 이거.)

106017 @ 나이롱 안 썩어.(나일론 안 썩어.)

106017 #1 아이고 이거, 안 뒈겟다, 속으로양, 탁 느껴젼. 게 다른 건 다 썩은 디 그 베로 헌 건 안 썩언.(아이고 이거, 안 되겠다, 속으로요, 탁 느껴져서. 그렇게 다른 건 다 썩는 데 그 베로 한 건 안 썩어서.)

106017 #2 옷만 착 허게.(옷만 착 하게.)

106017 #1 겡 허니까 이젠 옛날 거 삼으로 진짜 삼으로 헹 베 멩근 거는 그냥 이건 인조ᄀᆞ뜨지 아이허난 썩어불엉 좋을 건디.(그렇게 하니까 이젠 옛날 거 삼으로 진짜 삼으로 해서 베 만든 거는 그냥 이건 인조 같지 않으니까 썩어버려서 좋을 건데.)

106017 #2 사름ᄀᆞ치 썩어불엉 좋을 건디, 경 아니헤부난. 아이고, 게메.(사람같이 썩어버려서 좋을 건데, 그렇게 안 해버리니까. 아이고, 글쎄.)

106018 @ 그다음에 삼 재배에 대해서 흔번 ᄀᆞᆯ아줍서.(그다음에 삼 재배에 대해서 한번 말해주세요.)

106018 #1 삼은양, 어주이는 씨가 잇수다게. 씨가 거멍허여. 이 저 요만씩 헌 건디, 요번이도 거 검질메멍 요거 어주이옌 허난.(삼은요, 어저귀는 씨가 있습니다. 씨가 검어

서. 이 저 요만큼씩 한 건데, 요번에도 거 김매면서 어저귀라고 하니까.)

106018 #2 읖이 할망 어주이가 뭣고 허멍.(옆에 할머니가 어저귀가 뭐니 하면서.)

106018 #1 이 저 요만씩 헌 거, 씨가 까망허여. 게믄 그걸 이제 재배허젠 허믄 씨 두드려, 더러 삼 허멍도 요만썩 굵은 거난 씨가 똑 솔똥 씨ᄀᆞ찌 허는디, 솔 씨보단 ᄒᆞ끔 줄아마씨.(이 저 요만큼씩 한 거, 씨가 검어. 그러면 이제 재배하려고 하면 씨 두들겨, 더러 삼 하면서도 요만큼씩 굵은 거니까 씨가 똑 솔방울 씨같이 하는데, 솔방울 씨보다는 조금 작아요.)

106018 @ 삼이옝 헙니까? 숨이옝 헙니까?('삼'이라고 합니까? '숨'이라고 합니까?)

106018 #1 삼.(삼.)

106018 @ 그냥 삼?(그냥 삼?)

106018 #1 예, 게네 그 삼을 이제 걸 씰 헤당 놔뒀당 밧디 갈앙은에 뿌렁 허믄, 이거 이제 줒으믄 안 뒈어. 이거 줒으믄 솟구쳥양, 다 이것도 곡식 똑 갈듯이 솎아. 이제 조금 드믄드믄헹, 대가 술질 거 아이우꽈? (예, 그래서 그 삼을 이제 걸 씨를 해다가 놔뒀다가 밭에 갈아서 뿌려서 하면, 이거 이제 잦으면 안 돼. 이거 잦으면 솟구쳐서요, 다 이것도 곡식 똑 갈듯이 솎아. 이제 듬성듬성해서, 대가 살찔 거 아닙니까?)

106018 #2 전각에 씰 거라부난. ᄒᆞ쏠 술져사, 씰 하영 나오곡 허는 따문에.(전각에 쓸 거라서. 조금 살쪄야, 실 많이 나오고 하는 때문에.)

106018 #1 술졍은에 듬망듬망헷당 걸름도 주곡 헹은에, 요거 헐 때는 이제 굽으로 비어사. 굽으로 비영 헤나믄 이제 또 요것이.(살쪄서 듬성듬성했다가 거름도 주고 해서, 요거 할 때는 이제 밑으로 베어야. 밑으로 베어서 하면 이제 또 요것이.)

106018 #2 막 질겨, 거.(아주 질겨, 거.)

106018 #1 비기도 어려와도 요거 헹양, 그 어주에는양 이거 씨로 나는 거난양, 또 허젠 허믄 또 갈아야, 이 저 모시 닮지 아니허영. 모시는 덩어리 졍 뿔리로 허는데, 이 삼은양, 아, 저 어주에는 그냥 뭐헌 거난 뿔리 비어불믄 그냥 죽어불어. 게난 이건 또 씨 받앗당 또 갈아야, 까망헌 씨, 요만씩 헌 거, 즘진 거, 씨 뿌렁 다른 농사 허듯이 갈앗당, 요거 허믄 솎와사, 솎왕 드므룽이.(베기도 어려워도 요거 해서요, 그 어저귀는요 이거 씨로 나는 거니까요, 또 하려고 하면 갈아야, 이 저 모시 같지 않아서. 모시는 덩어리 져서 뿌리로 하는데, 이 삼은요, 아, 저 어저귀는 그냥 뭐한 거니까 뿌리 베어버리면 그냥 죽어버려. 그러니까 이건 또 씨 받았다가 또 갈아야, 검은 씨, 요만큼씩 한 거, 잔 거, 씨 뿌려서 다른 농사 하듯이 갈았다가, 요거 하면 솎아야, 솎아서 드물게.)

106018 #2 뎅가리가, 뎅가리가 술져사.(줄거리가, 줄거리가 살쪄야.)

106018 #1 뎅가리가 굵엉 벌착허믄, 우리 키 이상 올라갑니다. 이제 ᄒᆞᆫ 허영 씨가 까망케 익어사 ᄒᆞᆯ 쯤이. 게 안 허믄 너무 어린 때에 헤도 질기지 아이허고, 씨가 까망케 익으믄 아이고, 빌 헌 뒷져, 영 돌아봉. 게믄 그 씨랑 더러 타고 새헤에 헐 걸로 또 헹.(줄거리가 굵어서 발착하면, 우리 키 이상 올라갑니다. 이제 한 해서 씨가 까맣게 익어야 할 즈음에. 그렇게 안 하면 너무 어릴 때 해도 질기지 않고, 씨가 까맣게 익으면 아이고, 벨 한이 됐다, 이렇게 돌아봐서. 그러면 그 씨랑 더러 따고 새해에 할 걸로 또 해

서.)

도구

106019 @ 그다음에 도구에 대해서 물어보는 데양, 씨아 알아지지양 씨아. 씨 빼는 거,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쿠다.(그다음에 도구에 대해서 물어보는 데요, 씨아 알 수 있지요, 씨아. 씨 빼는 거,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106019 #1 무신 씨아?(무슨 씨아?)

106019 @ 그 저 멘네 헐 때 허는 거, 씨아, 씨아 아니꽈?(그 저 면화 할 때 하는 거, 씨아, 씨아 아닙니까?)

106019 #1 물렌디, 물레옝 허여.(물렌데, 물레라고 해.)

106019 @ 씨아, 씨 빼는 거.(씨아, 씨 빼는 거.)

106019 #1 게메.(글쎄.)

106020 #2 물레, 물레.(물레, 물레.)

106020 #1 물레옝 ᄒᆞ여.(물레라고 해.)

106020 #2 물레 줒아사.(물레 잦아야.)

106020 #1 마주 영 젭지랑 영 돌아갑주게.(마주 이렇게 사이에 끼어들어서 이렇게 돌아가지요.)

106020 @ 응.(응.)

106020 #1 씨는 영 멘네는 ᄒᆞ곡, 씨는 바깥더레 도록도록 털어지곡게, 경.(씨는 이렇게 면화는 하고, 씨는 바깥으로 도록도록 떨어지고요, 그렇게.)

106020 #2 물레게.(물레요.)

106020 #1 물레 영 멕여가멍 ᄒᆞ민게.(물레 이렇게 먹여가면서 하면요.)

106020 #2 ᄒᆞᆫ집이, 매집이 셔나서.(한집에, 매집에 있었어.)

106020 #1 소게는 ᄒᆞᆫ 펜더레 털어지곡, 씨는, 멘네씨는 요레 털어지민, 그거 지름허영게.(솜은 한 편으로 떨어지고, 씨는, 면화씨는 요리로 떨어지면, 그거 기름해서요.)

106020 #2 멘네씬 지름 허영 지침에도 먹곡, 천징에도 먹곡, 옛날 하르방덜.(면화씨는 기름해서 기침에도 먹고, 천식에도 먹고, 옛날 할아버지들.)

106020 #1 천징에 좋덴 허연 지름 허는 집이 강 지름 헤다근에.(천식에 좋다고 해서 기름 하는 집에 가서 기름 해다가.)

106020 #2 막 약으로 ᄉᆞ뭇 헤나수다.(마구 약으로 사뭇 했었습니다.)

106020 #1 지침 막 헹 천징 오래 허민 그걸 먹곡.(기침 아주 해서 천식 오래 하면 그걸 먹고.)

106020 #2 아이덜토 지침나면 멕이곡, 경 헤나수다.(아이들도 기침나면 먹이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106020 @ 물레에 대허영 다시 ᄒᆞᆫ번 ᄀᆞᆯ아줍서.(물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해주십시오.)

106020 #1 우리가 알기로는 일름은 다 몰르겟는디 물레 멩그는 거는.(우리가 알기로는 이름은 다 모르겠는데 물레 만드는 거는.)

106020 @ 아는 것만 게민.(아는 것만 그러면.)

106020 #1 물레 멩그는 거는 이렇게 마주 이제 아주 저 그냥 소낭 것은 안 뒈고 구짝헌, 좀 저 물레살[240]이옌 허믄, 거 든든헌 물레살 멩글 거여 허믄 저 고지나 강 아주 질긴 낭으로, 거 윤노리나, 윤노리나 요런 걸로 헹 물레살 허켄 허믄 톱으로 이제 다 그 거죽 벳겨놩 두망두망 영 줄을 내영 양 돌아가면서도 그 트멍으로 실이 빼지게끔, 저 아니 씨가 빠지게 경헹 영 메겨놩 요만이 뚝 앚이민, 영 헹 앚앙 요거 둘르는 거 허믄 요짝 메겨가멍.(물레 만드는 거는 이렇게 마주 이제 아주 저 그냥 소나무 것은 안 되고 똑바른, 좀 저 '물레살'이라고 하면, 그거 단단한 '물레살' 만들 거야 하면 저 고지나 가서 아주 질긴 나무로, 그거 윤노리나무나, 윤노리나무나 요런 것으로 해서 '물레살' 하겠다고 하면 톱으로 이제 다 그 거죽 벗겨놔서 드문드문 이렇게 줄을 내어서 돌아가면서도 그 틈으로 실이 빼지게끔, 저 아니 씨가 빼지게 그렇게 해서 매겨놔서 요만큼 딱 앉으면, 이렇게 해서 앉아서 요거 두르는 거 하면 요쪽 매겨가면서.)

106020 #2 영 일자로 멘들앙게, 두 개 영 헹.(이렇게 일자로 해서, 두 개 이렇게 해서.)

106020 @ 예, 아는데 이거 돌리는 건 뭐라?(예, 아는데 이거 돌리는 건 뭐야?)

106020 #2 어, 돌리는 거게, 그거.(어, 돌리는 거요, 그거.)

106020 @ 도레기?(바퀴?)

106020 #1 도레기, 물렛도레기.(바퀴, 물레바퀴.)

106020 #2 물레 돌리레 가켜 허믄.(물레 돌리러 가겠다 하면.)

106020 #1 물렛도레기허고 요건 가레기옌 허주. 아, 가레기는 영 그 쒜로 헹은에 이렇게 무신 저 뭐 ᄀᆞ찌, 보리, 보리 홅으는 것 ᄀᆞ찌 갈기 똑 쒜 먹은 것에, 실 감은 거, 그렇게 헹 것이.(물레바퀴하고 요건 가락이라고 하지. 아, 가락은 이렇게 그 쇠로 해서 이렇게 무슨 저 뭐 같이, 보리, 보리 홅는 것 같이 갈기 똑 쇠 먹은 것에, 실 감은 거, 그렇게 해서 그것이.)

106020 @ 실 감는 것이 가레기구나.(실 감는 것이 가락이구나.)

106020 #1 예, 가레기, 가레기영 물레 틀멍, 물레 귀틀, 영 허믄 이제 요건 윤노리로 헹 좀 만들엉, 거 ᄆᆞᆯ리왓당 것도. 거 저 놀 걸로 헤불민 쉬어분덴 헤 가지고, 거 아버니네 헐 땐 늘 ᄆᆞᆯ리왓당 그거 잘 멩글젠 허믄 그것이 낭이 쒜우다, 윤노리낭은. 톱으로 영 보기 좋게 영 멩글아 놩 물레 돌리고, 게난 헐 때 거 잘 안 돌리믄 ᄆᆞᆫ 쉐콥 멕이멍, 요즘은 뭐 저 지름 셩 허주만 옛날 쉐콥 헹 놔뒀당 돗지름이나 쉐콥 ᄇᆞᆯ르멍, 거 안 돌아강 끼각끼각 소리나믄 자꾸 멕이멍, 게믄 문지럽주게. 경 헹 물레 저 돌렁 허믄 ᄒᆞ를 얼마썩 멧 구덕 헷저, 멧 구덕 헷저. 그땐 구덕 아니믄 멩텡이로, 멘네 타오는 거 멩텡이로 헹 져 오고, 집이서는 구덕으로 주로 헷수다게. 저 멘네 ᄇᆞᆯ르믄 걸 멧 구덕, 멧 구덕 허여. 게믄 아 멧 구덕이믄 이제 거 미녕이 얼마 나오켜. 그거 봐서 짐작을 허는 거라.

240) '물레살'은 씨아손에 꿰어져 돌며 목화씨가 따지게 하는 두 개의 나무이다.

그걸로 알아.(예, 가락, 가락이랑 물레 틀면서, 물레 귀틀, 이렇게 하면 이제 요건 윤노리나무로 해서 좀 만들어서, 그거 말렸다 그것도. 그거 저 날 것으로 해버리면 쉬어버린다고 해 가지고, 그거 아버지네 할 땐 늘 말리었다가 그거 잘 만들었다고 하면 그것이 나무가 쇠입니다, 윤노리나무는. 톱으로 이렇게 보기 좋게 이렇게 만들어서 놔서 물레 돌리고, 그러니까 할 때 그거 잘 안 돌리면 모두 쇠기름 먹이면서, 요즘은 뭐 저 기름 있어서 하지만 옛날 쇠기름 해서 놔뒀다가 돼지기름이나 쇠기름 바르면서, 그거 안 돌아가서 끼각끼각 소리 나면 자꾸 먹이면서, 그러면 번드럽지요. 그렇게 해서 물레 저 돌려서 하면 하루 얼마씩 몇 '구덕' 했다, 몇 구덕 했다. 그땐 '구덕' 아니면 망태기로, 면화 따오는 거 망태기로 해서 져오고, 집에서는 '구덕'으로 주로 했습니다. 저 면화 바르면 그것을 몇 '구덕', 몇 '구덕' 해. 그러면 아 몇 '구덕'이면 이제 거 무명이 얼마 나오겠어. 그거 봐서 짐작하는 거야. 그걸로 알아.)

106021 @ 그다음에 베틀에 대허영 혼번 골아줍서, 베틀.(그다음에 베틀에 대해서 한번 말해주십시오, 베틀.)

106021 #1 베틀은 이 저 요 미녕 짜는디, 영 헌 건 꼬리옌 헌 거고. 실 감앙 확 넹경 탁허고, 요건 저 꼬리 틀, 요, 요렇게 헹 실 테멩을 대로 멩글앙 요렇게 헹 그저 저 보니까 딱 민지럽게, 쪼그만 허믄 실이 요렇게 빠는디 실이 끊어지니까, 그디 곱게 헹 민질민질허게 다 거 헤놩은에 특 만들아.(베틀은 이 저 요 무명 짜는데, 이렇게 한 건 실톳이라고 한 거고. 실 감아서 확 넘겨서 탁하고, 요건 저 실톳 틀, 요, 요렇게 해서 실 테를 대로 만들어서 요렇게 해서 그저 저 보니까 딱 미끄럽게, 조금만 하면 실이 요렇게 빼는데 실이 끊어지니까, 거기 곱게 해서 매끈매끈하게 다 그거 해놔서 탁 만들어.)

106021 #2 허린 차곡게, 허리에 영 베틀 차곡 헹은에. 허리 차곡 영.(허리에 차고요, 허리에 이렇게 베틀 차고 해서. 허리 차고 이렇게.)

106021 #1 발로 툭 강 영 탁 멕이고.(발로 툭 가서 이렇게 탁 먹이고.)

106021 #2 발로 멕이곡, 멕이곡.(발로 먹이고, 먹이고.)

106021 #1 동영.(당겨서.)

106021 #2 멕이곡, 저레 바리믄 잘 안 뒈곡.(먹이고, 저리 보면 잘 안 되고.)

106021 #1 게난 잘못허당 실 끊어지카부덴 멩심허영 그레 베리멍, 물레 차는 사름은 뚠더레 정신을 못 둬. 항상 실광 ᄒᆞ곡 요 꼬리 넹기곡, 또 발로 허고, 이걸 정신이 그레 안 헷당은 실 하나 끊어져불면 새로 거 이성 허젠 허믄 멩심헹 잇곡, 경 헹은에. 또 이 모시 짤 땐 더 멩심해야 허고.(그러니까 잘못하다 실 끊어질까 싶어서 명심해서 그리 보면서, 물레 짜는 사람은 다른 곳으로 정신을 못 둬. 항상 실과 하고 요 실톳 넘기고, 또 발로하고, 이걸 정신이 그리 안 했다가는 실 하나 끊어져 버리면 새로 그거 이어서 하려고 하면 명심해서 잇고, 그렇게 해서. 또 모시 짤 때는 더 명심해야 하고.)

106021 #2 모시 짜는 기계가 뚜납디다게. 대로 멘든 거, 그건 왕대로 멘든 거.(모시 짜는 기계가 다릅디다. 대로 만든 거, 왕대로 만든 거.)

106021 #1 그 저 미녕 짜는 거는 게도 멘네씨 헌, 그 저 미녕이 질기니까, 실이 질기난 헌디, 제일 허는 건 모시가 공들이고, 그다음엔 삼베, 베 짜는 거, 그다음에 제일

쉬운 건 미녕이고.(그 저 무명 짜는 거는 그래도 면화씨 한, 그 저 무명이 질기니까, 실이 질기니까 하는데, 제일 하는 건 모시가 공들이고, 그다음에는 삼베, 베 짜는 거, 그다음에 제일 쉬운 건 무명이고.)

106021 #2 미녕은 훽궤이 짜지 못허여. 미녕 짜 나도 풀 불랑 저 ᄀᆞ시락 불 살리왕 ᄆᆞᆯ리와사 미녕 짜도, ᄀᆞ시락 헹 짜 놩은에.(무명은 많이 짜지 못해. 무명 짜 나도 풀 발라서 까끄라기 불 살려서 말려야 무명 짜도, 까끄라기 해서 짜 놔서.)

106021 #1 이게 보지락 헤도 길게 허영 걸 허젠 허믄.(이게 보각 해도 길게 해서 걸 하려고 하면.)

106021 #2 보리죽 쒕은에 비치락, 비치락으로, 보리죽 쒕은에 미녕더레 ᄆᆞᆫ딱.(보리죽 쒀서 빗자루, 빗자루로, 보리죽 쒀서 무명으로 모두.)

106021 #1 거 저 솔잎으로 이렇게.(그거 저 솔잎으로 이렇게.)

106021 #2 알로 불 살랑 허당 ᄆᆞᆯ리왕, ᄆᆞᆯ리왕.(아래로 불 살려서 하다가 말려서, 말려서.)

106021 #1 솔잎으로 ᄏᆞ찡케 헹 묶어놩 저, 풀 적정 밀ᄀᆞ를 쒕은에.(솔잎으로 가지런하게 해서 묶어놔서 저, 풀 적셔서 밀가루를 쒀서.)

106021 #2 보리죽 쒕은에, 보리죽 쒕은에.(보리죽 쒀서, 보리죽 쒀서.)

106021 #1 갓당 쫙 멕이멍 ᄆᆞᆯ리왕.(갔다가 쭉 먹이면서 말려서.)

106021 #2 멕영 헤근에.(먹여서 해서.)

106021 #1 그 씨를 헤 놩 잘.

106021 #2 ᄀᆞ시락 사당 그 미녕을 ᄆᆞᆯ리와사. ᄆᆞᆯ리우지 안 허믄 그거 처음 썩어부렁, 미녕이 썩어, 이제 ᄀᆞ뜨믄 곰펭이 피는 거라. 썩어불엉 경 헹 읖더레 멍석 꼴앙은에 그걸 느량 넙디다게, 널엉.(까끄라기 사다가 그 무명을 말려야. 말리지 안 하면 그거 처음 썩어버려서, 무명이 썩어, 이제 같으면 곰팡이 피는 거야. 썩어버려서 그렇게 해서 옆으로 멍석 깔아서 그걸 늘 넙디다, 널어서.)

106021 #1 ᄆᆞᆯ리왕.(말려서.)

106021 #2 널엉 그거 풀 불랑은에 ᄀᆞ시락 살뢍 ᄆᆞᆯ리와놩 그레 널믄, 멍석 꼴아놩 널어. 널믄 ᄒᆞᆫ 길이여, 두 길이여사 헴신디, 걸 ᄆᆞᆯ앙은에 말쩬 보믄 담아, 저 게영 할망이 또 뒷날 널곡 걸 어떵 허영, 경 ᄋᆞ라 번 헙디다.(널어서 그거 풀 발라서 까끄라기 살려서 말려놔서 그리 널면, 멍석 깔아놔서 널어. 널면 한 길이여, 두 길이여야 하고 있는지, 걸 말아서 말째는 보면 담아, 저 개어서 할머니가 또 뒷날 널고 걸 어떻게 해서, 그렇게 여러 번 합디다.)

106021 #1 잘 ᄆᆞᆯ리와사.(잘 말려야.)

106021 #2 미녕에.(무명에.)

106021 #1 잘 안 ᄆᆞᆯ리우면 것이 ᄒᆞ끔씩 곰펭이 피영 허멍.(잘 안 말리면 그것이 조금씩 곰팡이 피면서.)

106021 #2 이제 ᄀᆞ뜨믄 곰펭이 피영.(이제 같으면 곰팡이 피어서.)

106021 #1 썩어분다 허여.(썩어버린다 해.)

106021 #2 썩넨 허난, 게난.(썩는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106021 #1 요즈음 나이롱 ᄀᆞ뜬 거는 곰펭이 안 피주마는 옛날 미녕은.(요즈음 나일론 같은 거는 곰팡이 안 피지만 옛날 무명은.)

106021 #2 게난 이.(그러니까 이.)

106021 #1 저 멘네도 경 허곡.(저 면화도 그렇게 하고.)

106021 #2 게도 정 허곡, 모시 풀은 ᄆᆞᆯ라 무신 걸로사 멕여신디, 그때 멕이는 건 아는디 미녕은 알아져, 잘. 미녕은 그자 보리죽 쒕은에 그건 그자 미녕이난 경 곱게 아니 허영 영 멕여근에 ᄀᆞ시락 불 살라놩 알로 ᄆᆞᆯ리우는디, 양 펜이 사다리나 놩은에 걸 골ᄀᆞ루 영 헹 ᄀᆞᆯ앙. 영 헹 사다리나 영 놔근에 그레 미녕 짠 건 그레 널어가멍 알론 ᄀᆞ시락으로 또 보리죽 쒕 멕영, 보리 이제 ᄀᆞ뜨믄 풀이라 풀, 보리죽 쒕은에 멕영, 알론 ᄀᆞ시락 불 살뢍 걸 ᄆᆞᆯ리왕 이제 멍석 꼴앙은에.(그래도 져서 하고, 모시 풀은 말라 무슨 걸로야 먹였는지, 그때 먹이는 건 아는데 무명은 알 수 있어, 잘. 무명은 그저 보리죽 쒀서 그건 그저 무명이니까 그렇게 곱게 안 해서 이렇게 먹여서 까끄라기 불 살려서 아래로 말리는데, 양편에 사다리나 놔서 그것을 엿기름가루 이렇게 해서 갈아서. 이렇게 해서 사다리나 이렇게 놔서 그리 무명 짠 건 그리 널어가면서 아래로는 까끄라기로 또 보리죽 쒀서 먹여서, 보리 이제 같으면 풀이야 풀, 보리죽 쒀서 먹여서, 아래로는 까끄라기 불 살려서 걸 말려서 이제 멍석 깔아서.)

106021 #1 멕이는 거, 멕이는 거는 저 솔잎 ᄒᆞ찡케 헤놩 감앙 그거 이제 그걸로 헹 콕 적졍 짝짝 멕이믄.(먹이는 거, 먹이는 거는 저 솔잎 가지런하게 해놔서 감아서 그거 이제 그걸로 해서 콕 적셔서 짝짝 먹이면.)

106021 #2 멍석 꼴앙 민딱 널엇당은에 우리 족은시어머니, 닐은 미녕 겔 날이여. 미녕 게켕 허멍. 게믄 뚤덜, ᄉᆞ춘 시누이덜하곡, 뚤덜 하곡 헤도 모다들엉 잘못허믄 욕도 듣곡 허멍. 게난 그 불살르멍, 불살르멍 경 헙디다게. 경 헤난 거는 우리도 ᄀᆞ찌 강은에 친족 방이난 경 헴선게, 경 그런 거 무신 할망덜 알아? 허는 거만 보멍 ᄀᆞ찌 그자.(멍석 깔아서 모두 널었다가 우리 작은시어머니, 내일은 무명 갤 날이야. 무명 개겠다고 하면서. 그러면 딸들, 사촌 시누이들하고, 딸들 많고 해도 모여서 잘못하면 욕도 듣고 하면서. 그러니까 그 불사르면서, 불사르면서 그렇게 합디다. 그렇게 했었던 거는 우리도 같이 가서 친족 방이니까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그런 거 무슨 할머니들 알아? 하는 거만 보면서 같이 그저.)

106021 #1 게난 아예 그 미녕 짜곡, 베 짜곡 허는 방이 ᄄᆞ로 딱 싯수다게.(그러니까 아예 그 무명 짜고, 베 짜고 하는 방이 따로 딱 있습니다.)

106021 #2 만딱 메 강.(모두 메어 가서.)

106021 #1 이건 ᄄᆞ로 싯당 베틀, 요건 미녕틀. 요건 이제 저 모시틀 헹 ᄄᆞ로 ᄄᆞ로 다 기계덜 ᄄᆞ로 멩글앙.(이건 따로 있다가 베틀, 요건 무명틀. 요건 이제 저 모시틀 해서 따로 따로 다 기계들 따로 만들어서.)

106021 #2 아, 게 그거 문딱 기계 영 줍아. 줍안에 어드레 영. 보리 홅으젠 허난 뭣 헴젠.(아, 그렇게 그거 모두 기계 이렇게 집어서. 집어서 어디로 이렇게. 보리 홅으려고

하니까 뭣 하고 있다고.)

106021 #1 보관, 보관헹 우리도 어린 때 영 강 ᄆᆞᆼ직앙 헤가믄 못 ᄆᆞᆼ직게.(보관, 보관해서 우리도 어릴 때 이렇게 가서 만져서 해가면 못 만지게.)

106021 #2 막 할망 울멍.(마구 할머니 울면서.)

106021 #1 이거 저.(이거 저.)

106021 #2 이제 ᄀᆞ뜨믄 고장 난덴 말이라. 허지 말라, 허지 말라 욕 들어낫수다게. 우리 시집완 보난 족은시어머님이 경 알력집서 베 짜곡, 짜는 것은 저 선둘[241] 할망이라. 그디선 선둘, 우리 족은시어멍이 선둘 어른인디. 그디선 막 그런 거 헤낫젠 헙디다. 구엄[242] 완 보난 이것이, 엄젱이 완 보난 엄젱이 못 사는 디, 못 사는디옝 허멍, 저 당신이 배운 것이 물질도 잘 못 허곡, 바당도 못 허난 베 짜켄, 무신 미녕 짜켄 허멍, 경헨 막 우리도 씨 누이도 막 헹 경 살앗수다.(이제 같으면 고장 난다고 말이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욕 들었었습니다. 우리 시집와서 보니까 작은시어머님이 그렇게 아랫집서 베 짜고, 짜는 것은 저 '선둘' 할머니야. 거기서는 '선둘', 우리 작은시어머니가 '선둘' 어른인데 거기서는 마구 그런 거 했었다고 합디다. '구엄' 와서 보니까 이것이, '엄젱이' 와서 보니까 '엄젱이' 못 사는 데, 못 사는 데라고 하면서, 저 당신이 배운 것이 물질도 잘 못하고, 바다도 못 하니까 베 짜겠다고, 무슨 무명 짜겠다고 하면서, 그렇게 해서 마구 우리도 시누이도 마구 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106021 #1 수원 우쪽 선둘이옌 헌, 이제는 대림이옌 헨 뭣이 헤도 옛날 그딧 분 족은어머니가 왓주마는, 그분안테 막 전문으로 헨, 우리가 욮이 사난 멘날 봐십주게.('수원' 위쪽 '선둘'이라고 한, 이제는 '대림' 해서 뭣이 해도 옛날 거기 분 작은어머니가 왔지만, 그분한테 마구 전문으로 해서, 우리가 옆에 사니까 맨날 봤습지요.)

106021 #2 우녁집[243]이 사는 동셍이옌 헷수다. 게 시집완 보난 우리 시어머님은 아직 그런 거 아니허고 족은어머니 경 헨 경 허고. 우린 친정에서 ᄃᆞ시 말젯할아버지, 말젯할망이 돌아가도, 그때, 그때 돌아가도 안 뒛수다마는 완 보난 부엌에서 불살르멍 ᄀᆞ시락 담아 놓으멍 마당이서 헴십디다. 게도 행칠이[244] 할망 경 헤낫수게. 행칠이 할망.('우녁집'에 사는 동생이라 했습니다. 그렇게 시집와서 보니까 우리 시어머님은 아직 그런 거 아니하고 작은어머니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고. 우린 친정에서 다시 셋째 할아버지, 셋째 할머니가 돌아가도, 그때, 그때 돌아가도 안 됐습니다만 와서 보니까 부엌에서 불사르면서 까끄라기 담아 놓으면서 마당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행칠이' 할머니 그렇게 했었습니다. '행칠이' 할머니.)

106021 #1 게난 보통 사름은 잘 못허고, 그냥 농사는 짓고, 것도 옛날 첨 기술이 셩, 손기술이 셔사, 솜씨가 셔사 요거 베 짜고 뭐 이, 뭐 헌덴 허믄 옛날도 그 베틀 짠덴 허믄 알아줘낫수다게.(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잘 못하고, 그냥 농사는 짓고 그것도 옛날 참 기술이 있어, 손기술이 있어야, 솜씨가 있어야 요거 베 짜고 뭐 이, 뭐 한다고 하면 그

241) '선둘'은 제주시 한림읍 대림리의 옛 이름이다.
242) '구엄'은 제주시 애월읍 구엄리를 말한다. '엄젱이'라고도 한다.
243) '우녁집'은 한 집의 위쪽 울타리 밖에 있는 집이다.
244) '행칠'은 제주시 애월읍 구엄리에 사는 사람이다.

베틀 짠다고 하면 알아줬습니다.)

106021 #2 아이고, 그 집이 베 짜는 집이여.(아이고, 그 집이 베 짜는 집이야.)

106022 @ 그다음에 바농질에 대허영 물어보쿠다양, 바농질. 바농질 도구에는 어떤 것덜 잇수가?(그다음에 바느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바느질. 바느질 도구에는 어떤 것들 있습니까?)

106022 #2 바농질 도구 무신.(바느질 도구 무슨.)

106022 @ 바농 잇고.(바늘 있고.)

106022 #1 실.(실.)

106022 #2 바농 도구는 무신거 알아지커라.(바늘 도구 무엇 알 수 있어.)

106022 #1 아, 바농허고 실ᄒᆞ고, 저.(아, 바늘하고 실하고, 저.)

106022 @ 바농쌈지.(바느질고리.)

106022 #1 바농쌈지허고, 손 무신 영 꿰는 거 뭐? 손에 영.(바느질고리하고, 손 무슨 이렇게 꿰는 거 뭐? 손에 이렇게.)

106022 #2 꿰는 거.(꿰는 거.)

106022 #1 아니 영 손에 꿰영.(아니 이렇게 꿰어서.)

106022 @ 다치지 안 허게. 골무?(다치지 안 하게. 골무?)

106022 #1 골무.(골무.)

106022 #2 걸 보고 골무.(그것을 보고 골무.)

106022 #1 골무.(골무.)

106022 #2 골무고, 다치지 안 허게, 영 골무.(골무고, 다치지 안 하게, 이렇게 골무.)

106022 @ 그다음?(그다음?)

106022 #2 골무도 허허(웃음), 골무허고 바늘쌈지허고게. 바늘쌈지허고게. 실페허고게, 무신거.(골무도 허허(웃음), 골무하고 바느질고리하고요. 바느질고리하고요. 실패하고요, 무엇.)

106022 #1 실 감는 거, 건 실페고.(실 감는 거, 건 실패고.)

106022 #2 경 허고게, 우리 저.(그렇게 하고요, 우리 저.)

106022 @ 바농꽂이는 건 뭐라?(바늘꽂이는 건 뭐야?)

106022 #2 바농꽂이는 건, 것이 실페 아이라?(바늘꽂이는 건, 그것이 실패 아니야?)

106022 #1 아니, 실펜 실 감앙 영 허는 거고.(아니, 실패는 실 감아서 이렇게 하는 거고.)

106022 #2 바농꽂이는 건 거 뭣이여마는. 동글락헌 거 셔낫수다. 우리 집이도.(바늘꽂이는 건 거 뭣이 여만 둥근 거 있었습니다. 우리 집에도.)

106022 @ 복삭복삭헌 거.(북삭북삭한 거.)

106022 #1 그디 콕 찔렁 놔뒷당은에 앗앙에 바농질헐 때 경 허영.(거기 콕 찔러서 놔뒀다가 가져서 바느질할 때 그렇게 해서.)

106022 #2 집이서 경 헤나난. 게난 그런 거.(집에서 그렇게 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106022 #1 골무 쪙 손에 찔러지지 아니허게 영 홀 때 경.(골무 껴서 손에 찔러지지 아니하게 이렇게 할 때 그렇게.)

106022 #2 골무 영 허곡게. 바농산디 무신거 영. 바농 영영 ᄀᆞ는 것도 셔나서. 뭣고 거. 거 뭣이옌 헤라마는. 바농 게 바농 뭣 허믄 영영 바위여근에 영 봥 바농 바위라, 바농 바위라.(골무 이렇게 하고요. 바늘인지 무엇 이렇게. 바늘 이렇게 이렇게 가는 것 있었어. 뭣인가 그거. 그거 뭣이라고 해라만. 바늘 그렇게 바늘 뭣 하면 이렇게 이렇게 갈아서 이렇게 봐서 바늘 갈라, 바늘 갈라.)

106022 @ 신돌 아니?(신돌 아니?)

106022 #2 아니, 신돌 닮은 거 영, 무신거산디 셔낫수다. 바농 바위는 거. 뭣이옌 헤라마는 이제.(아니, 신돌 같은 거 이렇게, 무엇인지 있었습니다. 바늘 가는 거. 무엇이라고 해라만 이제)

106022 #1 금방 잊어부러.(금방 잊어버려.)

106022 #2 아니, 신돌 닮은 거 셔낫수다. 바농 바위는 거. 우리 할마니 바농 바위라, 바농 바위라.(아니, 신돌 같은 거 있었습니다. 바늘 가는 거. 우리 할머니 바늘 갈라. 바늘 갈라.)

106022 #1 바위어 놩 더 머리에, 머리에 영영 허멍 문지럽게 허젠.(갈아서 놔서 더 머리에, 머리에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번드럽게 하려고.)

106022 #2 머리에도 허곡게. 바농도 바위곡 경, 경 헤낫수다.(머리에도 하고요. 바늘도 갈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106022 #1 아니, 바위어 놩 머리에 영영 허믄 이게 잘 들어가, 바늘 머리에 문지르왕.(아니, 갈아 놔서 머리에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게 잘 들어가, 바늘 머리에 문질러서.)

106023 @ 게난양 그 바농질 방법, 영영 꿰가는 것도 잇고, 영 홀치는 것도 잇지 안허꽈?

106023 #2 바농 게 실 꿰여근에게 호앙 바농 감치는 것도 싯고, 감치멍 줘 가는 것도 잇고, 감치는 건 두 개 허영 영 헤노난 재게 허젠 허믄 팍팍 감쳐가는 건, 그건 아기 지성귀라도 허는 거지, 옷은 그추룩 헹 홁엉 허지 못허여.(바늘 그렇게 실 꿰어서 호아서 바늘 감치는 것 있고, 감치면서 줘 가는 것도 있고, 감치는 건 두 개해서 이렇게 하니까 빨리하려고 하면 팍팍 감쳐가는 건, 그건 아기 기저귀라도 하는 거지, 옷은 그처럼 해서 굵어서 하지 못해.)

106023 @ 옷은 어떵 허여?(옷은 어떻게 해?)

106023 #2 옷은 그냥 대님 박앙은에 뎅침박을 거주게. 영 헹 박앙 또.(옷은 그냥 대님 박아서 박음질할 거지요. 이렇게 해서 박아서 또.)

106023 @ 그거 골아줍서, 어떤 옷은?(그거 말해주세요, 어떤 옷은?)

106023 #2 뒤으로 뎅침박고, 옷 두 개 헤다놩, 잘 뎅침박는 건 이제 ᄀᆞ뜨면 미싱 헹 딱 허곡게. 허듯이 그냥 영 후끄는 건 그냥 아기 지성귀나 그자 건 확확 후끄멍 허는 거고. 뎅침박는 건 막 뚜시 데깍허게, 치져지지 아니허게 막 주는 거.(뒤로 박음질하고,

옷 두 개 해놔서 잘 박음질하는 건 이제 같으면 재봉틀 해서 딱 하고요. 하듯이 그냥 이렇게 호는 건 그냥 아기 기저귀나 그저 건 확확 호면서 하는 거고. 박음질하는 건 마구 다시 딴딴하게, 찢어지지 않게 마구 주는 거.)

106023 #1 옷 같은 거, 강알 같은 디 치져지지 아니허게.(옷 같은 거, 사타구니 같은 데 찢어지지 아니하게.)

106023 #2 경 뎅침박앙 막 갈중의[245]도 그추룩 허고. 겐디 영 후끄는 건 아기 지성귀라도 재게, 갈중의라도 영영 허젠 허민, 지성귀 ᄀᆞ뜬 건 영영 후끄왕, 두망두망허게 줏아. 뎅침은 막 줏게, 뒤레 주곡 앞더레 주곡 막 헤사.(그렇게 박음질해서 마구 '갈중의'도 그처럼 하고. 그런데 이렇게 호는 건 아기 기저귀라도 빨리, '갈중의'라도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하면, 기저귀 같은 건 이렇게 이렇게 호아서, 드문드문하게 잦아. 박음질은 아주 잦게, 뒤로 주고 앞으로 주고 마구 해야.)

106023 #1 이불에 끼우는 거 헐 때는.(이불에 끼우는 거 할 때는.)

106023 #2 이불 끼우는 건 훅게 후끄멍게.(이불 끼우는 건 굵게 호면서요.)

106023 @ 후끄는 거?(호는 거?)

106023 #2 어, 후끄는 거 좋아, 이불 끼우는 거. 경 허곡 무신 갈적삼[246], 갈적삼 헐 때도 게 미리 동전 영 지졍, 것도 후끄는 거 허곡게. 경 헤낫주기 경.(어, 호는 거 좋아, 이불 끼우는 거. 그렇게 하고 무슨 '갈적삼', '갈적삼' 할 때도 그렇게 미리 동정 이렇게 지져서, 그것도 호는 거 하고요. 그렇게 했었지 그렇게.)

106023 #1 ᄀᆞ세허고 그 기구가.(가위하고 그 기구가.)

106023 #2 ᄀᆞ세. 관혼상제.(가위. 관혼상제.)

106023 #1 관혼상제, 옛날 무신 영.(관혼상제, 옛날 무슨 이렇게.)

106023 #2 바농광 실광 실페허곡.(바늘과 실과 실패하고.)

106023 #1 자 영 재는 거. 얼마 허믄 끊엉. 재단허젠 허믄 ᄀᆞ세허곡.(자 이렇게 재는 거. 얼마 하면 끊어서. 재단하려고 하면 가위하고.)

106023 @ 그 재단은 나중에 물어볼 거, 거난.(그 재단은 나중에 물어볼 거, 그러니까.)

106023 #2 게난 ᄀᆞ세허곡 실페허곡, 게 저.(그러니까 가위하고 실패하고. 그렇게 저.)

106023 #1 골무허고.(골무하고.)

106023 #2 골무허곡게 이게 강 바느질허젠 허믄 줌도 허고 뎅침허고, 무신거 뎅침도 어느 제랑 뎅침허멍 줄 디, 경헤도 뎅침 안 허믄 거세기 옷이 질기지 안 허난에 뎅침허는 거.(골무하고 이게 가서 바느질하려고 하면 줌도 하고 박음질하고, 무엇 박음질도 어느 때랑 박음질하면서 줄 것인지, 그래도 박음질 안 하면 거시기 옷이 질기지 안 하니까 박음질하는 거.)

245) '갈중의'는 감물을 들인 중의이고, 보통 노동복으로 입는다.
246) '갈적삼'은 감물을 들인 적삼이다.

옷 종류

106024 @ 그다음에 그 남자 옷 종류에 대허영 걸아줍서. 남자 옷 종류.(그다음에 그 남자 옷 종류에 대해서 말해주십시오. 남자 옷 종류.)

106024 #2 남자 옷 무신, 이젠 옛날 사신디 소중의영 갈중의영 입곡, 그런 거벳기 더 입어서. 게곡 막 적삼이영.(남자 옷 무슨, 이젠 옛날 샀는데 속옷이랑 '갈중의'랑 입고, 그런 거밖에 더 입어서. 그리고 마구 적삼이랑.)

106024 #1 적삼.(적삼.)

106024 #2 갈중의영.('갈중의'랑.)

106024 #1 아랜 갈중이.(아래는 '갈중의'.)

106024 #2 갈중의도, 중의적삼도 입고.('갈중의'도, 중의와 적삼도 입고.)

106024 #1 중의적삼이엔 헹 입고. 두루마기.(중의와 적삼이라고 해서 입고. 두루마기.)

106024 #2 두루막은 식게 먹으레 갈 때 입곡게, 어디 외출용으로 그추룩 헷주게.(두루마기는 제사 먹으러 갈 때 입고요, 어디 외출용으로 그처럼 했지요.)

106024 #1 외출용으로.(외출용으로.)

106024 #2 두루막, 갈중의도 적삼 헹 입곡. 아랜 속옷.(두루마기, '갈중의'도 적삼 해서 입고. 아래는 속옷.)

106024 #1 속옷.(속옷.)

106024 #2 속옷은 이젠 헤도 빤스게, 빤스, 빤스주게. 속옷 헹 빤스로 입엇당, 물 질레 갈 때도 그 속옷 입곡, 게 아니허믄 속옷 멘들앙 이녁냥으로, 바농으로 멘들아근에. 게난 그것이 이제 ᄀᆞ뜨면 빤스주게. 속옷이영 중의적삼.(속옷은 이젠 해도 팬티요, 팬티, 팬티지요. 속옷 해서 팬티로 입었다가, 물 길러 갈 때도 그 속옷 입고, 그렇게 안 하면 속옷 만들어서 이녁대로, 바늘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같으면 팬티지요. 속옷이랑 중의와 적삼.)

106024 #1 중의적삼, 뭐 이.(중의와 적삼, 뭐 이.)

106024 #2 중의적삼, 속옷, 이 저 갈적삼도 입곡, 무신 미녕으로 헹 저 우이 거 무신거 만들아근에, 만들앙 입곡.(중의와 적삼, 속옷, 이 저 '갈적삼'도 입고, 무슨 무명으로 해서 저 위에 거 무엇 만들어서, 만들어서 입고.)

106024 #1 그 영 질게 헌 건 두루마기고, 두루막 옷.(그 이렇게 길게 한 건 두루마기고, 두루마기 옷.)

106024 #2 두루막은 어디 갈 때에 게. 외출허레 갈 때에 건 막 입곡, 갈중이 적삼 입곡, 중의적삼이영 무신거 그런 종류가 하영, 옛날은 무신 속옷허고 중의적삼, 저 거세기.(두루마긴 어데 갈 때 그렇게. 외출하러 갈 때 건 마구 입고, 중의와 적삼이랑 무엇 그런 종류가 많이, 옛날은 무슨 속옷하고 중의와 적삼, 저 거시기.)

106024 #1 뭐구나, 맞추는 거.(뭐구나, 맞추는 거.)

106024 #2 중의적삼, 저 마구지, 마구지 적삼 입곡, 게난 그런 종류벳기 입을 것이,

것도 경 읏어근에, 게 나는 아이, 아기덜은 옷 어시난 조쟁이 난냥 그냥 뎅이곡게, 그추룩.(중의와 적삼, 저 마고자, 마고자 적삼 입고, 그러니까 그런 종류밖에 입을 것이, 그것도 그렇게 없어서, 그렇게 나는 아이, 아기들은 옷 없으니까 자지 난대로 다니고요, 그처럼.)

106025 @ 여자 옷은 이 동네는 어떤 것들 잇수가?(여자 옷은 이 동네는 어떤 것들 있습니까?)

106025 #2 여자 옷은 무신거 저 옛날도게 무신 치마저고리, 치마여, 속옷이여 이제 저 옛날엔 하영 저 몸빼를 입언, 몸빼. 중의적삼 저 감몸빼[247], 옛날은 그런 거 하영 입곡, 무사 우리도 어린 때에 치마 헹 어머니 하귀장에 강 도새기 풀앙 오멍 옷 상 와근에 멘들앙, 옛날엔 거 뭐신고, 국 국 국방색 물들인 미녕, 그거 상 왕은에 국방색 헤근에 이디 저 이제 ᄀᆞ뜨면 빤슨디 저 아래 바지 멘들곡, 저 속옷도 만들곡, 국방색 물들인 걸 느량 상 왕, 한림장에 강도 상 오고, 장에나 가지 아니허믄 그런 것 풀지 못허영 미녕 헹 허믄 미녕을 아까왕 허지 아니헤근에 다른 거 허곡, 국방색 바지를 하영 입엇주기.(여자 옷은 무엇 저 옛날도 무슨 치마저고리, 치마여, 속옷이여 이제 저 옛날엔 많이 저 몸빼를 입었어, 몸빼. 중의와 적삼 저 '감몸빼', 옛날은 그런 거 많이 입곡, 무사 우리도 어릴 때 치마 해서 어머니 '하귀장' 가서 돼지 팔아서 오면서 옷 상 와서 만들어서, 옛날엔 거 뭐인고, 국 국 국방색 물들인 무명, 그거 상 와서 국방색 해서 여기 저 이제 같으면 팬티인데 저 아래 바지 만들고, 저 속옷도 만들고, 국방색 물들인 걸 늘 상 와서, '한림장'에 가서도 상 오고, 장에나 가지 아니하면 그런 것 팔지 못해서 무명해서 하면 무명을 아까워서 허지 아니해서 다른 거 하고, 국방색 바지 해서 입었지요.)

106025 #1 그걸로 헹 저 이불도 허고.(그걸로 해서 저 이불도 하고.)

106025 #2 이불도 허고, 국방색.(이불도 하고, 국방색.)

106025 #1 그건 저 이.(그건 저 이.)

106025 #2 원 저 국방색이우다. 군인이 왕 픈뎅 허여, 그때.(원 저 국방색입니다. 군인이 와서 판다고 해, 그때.)

106025 #1 육이오난, 이제 거 국방색 군인 물감덜 하영 퍼져가지고.(육이오니까, 이제 그거 국방색 군인 물감들 많이 퍼져서.)

106025 #2 경 헹, 그런 거 하영 입엇주기. 갈중의허곡게. 갈중의, 적삼허고, 저 감갈적삼으로 헤근에.(그렇게 해서, 그런 거 많이 입었지요. '갈중의'하고요. '갈중의' 적삼하고, 저 감 '갈적삼'으로 해서.)

106025 #1 무사게, 제.(왜요, 제.)

106025 #2 메날 그추록 헹.(맨날 그처럼 해서.)

106025 #1 모자도 그냥 뭐 멩글앙 다, 지금 우리 어린 때.(모자도 그냥 뭐 만들어서 다, 지금 우리 어릴 때.)

106025 #2 살앗주게.(살았지요.)

106025 #1 게 뭐허믄 양말도 엇이 영 그자 뭐 헹 멩글앙 경 헹 신엉, 그것이 오래

247) '감몸빼'는 감물 들인 몸빼이다.

안 갑디다. 게믄 이제 학교 뎅길 때 1학년 때 그 신발도 못 신언.(그렇게 뭐하면 양말도 없이 이렇게 그저 뭐 해서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신었어, 그것이 오래 안 갑디다. 그러면 이제 학교 다닐 때 1학년 때 그 신발도 못 신었어.)

106025 #2 신발 신은 건 말제사.(신발 신은 건 말째야.)

106026 @ 그 신발은 나중에 물어보쿠다양. 그다음에 아이 옷 종류, 아이 옷 종류.(그 신발은 나중에 물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아이 옷 종류, 아이 옷 종류.)

106026 #2 아기 옷 종류.(아기 옷 종류.)

106026 @ 어떤 것들이 잇수강?(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106026 #2 아기 옷 종류는 그땐 무신것덜 셔서, 거세기 뭣고 끈 헹 맨 거 영 돌옷 아니 무신것고게. 저 아기 옷도 저 무신거 사단 헤서게.(아기 옷 종류는 그땐 무엇들 있었어, 거시기 뭣인가 끈 해서 맨 거 이렇게 돌옷 아니 무엇인가. 저 아기 옷도 저 무엇 사다 했어요.)

106026 #1 사오는 게 문제 아니고, 어떤 옷인가.(사오는 게 문제 아니고, 어떤 옷인가.)

106026 #2 아니 걸 사단 멘들앗주기, 집이서 곰 멘드랑 곰으로 적삼, 저.(아니 걸 사다 만들었지요, 집에서 재료 만들어서 재료로 적삼, 저.)

106026 #1 백일옷이옌 허영, 영.(백일옷이라고 해서, 이렇게.)

106026 #2 백일옷이옌 허영 곰 멘들앙, 멘들아근에.(백일옷이라고 해서 재료 만들어서, 만들어서.)

106026 #1 거 ᄒᆞ끔 키가 뒈영 끈 하나 허영, 베 영 단추 으시 영 확 감앙 툭허게 무끄곡 허믄 것이 옷이라낫주. 뭐 옷이 무신 별도, 우리 저 어린 때 허믄.(그거 조금 키가 돼서 끈 하나 해서, 베 이렇게 단추 없이 이렇게 확 감아서 탁하게 묶고 하면 그것이 옷이었었지. 뭐 못이 무슨 별도, 우리 저 어릴 때 하면.)

106026 #2 느량 그런 옷 헹 입져. 백일옷, 백일옷 거추룩 헹.(늘 그런 옷 해서 입혀. 백일옷, 백일옷 그처럼 해서.)

106026 #1 영 잘 못허믄.(이렇게 잘 못하면.)

106026 #2 영 멘들아근에. 영 멘들아근에 존등이 무껑 아기 옷덜 경 헷주. 옷이 무신 옷 출리곡 옷이 셔서게. 등받이 하나 헹 눅지곡, 게믄 ᄒᆞ끔 뭐헌 집인 그 국방, 국방색 끌레기 사당 그걸로 ᄒᆞ끔, 저 우의 등받이도 멘들곡, 경 하니헌 집인.(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서 잔등이 묶어서 아기 옷들 그렇게 했지. 옷이 무슨 옷 차리고 옷이 있어요. 등받이 하나 해서 눕히고, 그러면 조금 뭐한 집에는 그 국방, 국방색 꾸러미 사다 그걸로 조금, 저 위에 등받이도 만들고, 그렇게 아니하는 집에는.)

106026 #1 지성귀도 뭐헌디 아이들 키울 땐 갈중의 거 저 믄 헌 거 그런 걸로 끊엉 이 저 무신거허곡.(기저귀도 뭐한데 아이들 키울 때는 '갈중의' 그거 저 모두 헌 거 그런 것으로 이 저 무엇하고.)

106026 #2 지성귀도 허고.(기저귀도 하고.)

106026 #1 지성귀도 허고. 거 뭣고, 이 저 오줌 싸믄 영.(기저귀도 하고. 그거 뭣인

가, 이 저 오줌 싸면 이렇게.)

106026 #2 확, 기저귀.(확, 기저귀.)

106026 #1 기저귀 거 저 다 갈중의 거 헌 걸로 헹, 그거 미녕이난 ᄉᆞ락ᄉᆞ락허여.(기저귀 그거 저 다 '갈중의' 그거 헌 것으로 해서, 그거 무명이니까 사락사락해.)

#1060262 ᄉᆞ라ᄉᆞ락헤마씨. 뿔기도 좋곡, 뿔젠 허믄 물 신디 강 뿔앙 왕 허믄 거 재게 ᄆᆞᆯ라마씨. 갈중의난에, ᄉᆞ락ᄉᆞ락허곡 곧 얼마 어성 ᄆᆞᆯ랑, 게난 갈중의가 ᄋᆞ라 개 시믄 허주마는 할망덜 신디 강 빌어오곡 그추룩 허멍, 경 헹 경 옷이옌 헌 건 아이덜 무신 아래고 경 입져서.(사락사락해요. 빨기도 좋고, 빨려고 하면 물 있는데 가서 빨아 와서 하면 그거 빨리 말라요. '갈중의'니까, 사락사락하고 곧 얼마 없어서 말라서, 그러니까 '갈중의'가 여러 개 있으면 하지만 할머니들에게 가서 빌어오고 그처럼 하면서, 그렇게 해서 그렇게 옷이라고 한 건 아이들 아래고 그렇게 입혔어.)

106026 #1 중의, 중의적삼ᄀᆞ찌 저 영 헹 아래도 무사 거, 그때는 고무가 별로 어스난 우리 입어 봐도 영 허믄 저 끈으로 헹 툭허게 허리레 강 무껑, 경 허믄 것이 요즘 빤스 대리 그자 아래.(중의, 중의와 적삼까지 저 이렇게 아래도 거, 그때는 고무가 별로 없으니까 우리 입어 봐도 이렇게 하면 저 끈으로 해서 탁하게 허리로 가서 묶어서, 그렇게 하면 그것이 요즘 팬티 대리 그저 아래.)

106026 #2 거 하나만 입지곡, 겨울에도 입지곡 허믄.(그거 하나만 입히고, 겨울에도 입히고 하면.)

106026 #1 게고 겨울에, 그때도 춤 아픈 아이라 하도 뭐 헤노면 심이 어섯주. ᄒᆞ교 뎅길 때.(그리고 겨울에, 그때도 참 아픈 아이라 하도 뭐 해놓으면 힘이 없었지. 학교 다닐 때.)

106026 #2 옷이옌 헌 건 무신 벨로 그거벳기, 등받이허고 베 감앙 무사 베를 감는고? 아기덜은. 갈중의로 헹 베 감앙.(옷이라고 한 건 무슨 별로 그거밖에, 등받이하고 배 감아서 왜 배를 감는가? 아기들은. '갈중의'로 해서 배 감아서.)

106026 #1 베만 안 아프믄.(배만 안 아프면.)

106026 #2 베 감는 건 갈중의 치졍은에.(배 감는 건 '갈중의' 찢어서.)

106026 #1 하르방, 할망덜토 다 거 지혜가 잇어가지고 베만 ᄯᅮ뜻허믄 병이 안 걸리는 거우다. 항시로 베가 ᄯᅮ뜻혜야.(할아버지, 할머니들도 다 거 지혜가 있어서 배만 따뜻하면 병이 안 걸리는 것입니다. 항상 배가 따뜻해야.)

106026 #2 베만 등받이 헹 눅지곡게. 경 헹 옷이 셔서 지성귀 헹. 욱아갈 땐 그 국방색 기지 사당은에, 일ᄒᆞ년 때 뒈 가도 그걸로 헹 무신거 멘들앙 입지곡, 일ᄒᆞ년 전이도 그런 거 ᄒᆞ끔 입지멍.(배만 등받이 해서 눕히고요. 그렇게 해서 옷이 있어 기저귀 해서. 성장할 땐 그 국방색 옷감 사다가, 일학년 때 돼 가도 그걸로 해서 무엇 만들어서 입히고, 일학년 전에도 그런 거 조금 입히면서.)

106026 #1 재게 이 어슨 때는 허믄, 후루메옌 허영, 후루메. 영 이제 ᄀᆞ뜨면 코드ᄀᆞ찌 무사 후루메 잇지 아니허여? 후루메옌 헹, 거 일본말인가?(빨리 이 없는 때는 하면, 두루마기라고 해서, 두루마기. 이렇게 이제 같으면 코드같이 왜 두루마기 있지 않습니

까? 두루마기라고 해서, 그거 일본말인가?)

106026 #2 후루메 일본말.('후루메' 일본말.)

106026 @ 일본말일 거우다.(일본말일 것입니다.)

106026 #2 일본말이주기.(일본말이지요.)

106027 @ 그다음에양 마름질, 그 마름질, 옷 멩글젠 허민 말아야 뒐거 아니우꽈양? 마름질허고 옷 만드는 과정, 옷 멩그는 과정 ᄒᆞ끔 ᄀᆞᆯ아줍서. 천을 영 끊어야 뒐 거 아니라.(그다음에요, 그 마름질, 옷 만들려고 하면 마름질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마름질하고 옷 만드는 과정, 옷 만드는 과정 조금 말해주십시오. 천을 이렇게 끊어야 될 거 아니야.)

106027 #2 재단헤사. 어, 재단헹근에 자 놩은에 줄로 메칠 헹 재여근에 등받이, 어깨, 다리허곡.(재단해야. 어, 재단해서 자 놔서 줄로 며칠 해서 재어서 등받이, 어깨, 다리하고.)

106027 #1 가다가 잇지 아니허여, 가다가.(모양이 있지 아니해, 모양이.)

106027 #2 가다 허믄 이, 저 종이, 종이.(모양 하면 이, 저 종이, 종이.)

106027 #1 옛날 이 집 할망[248]도양 저 양재학원 나왓수다게. 게난 그때 헌 거 잘 ᄀᆞᆯ아.(옛날 이 집 '할만'도요 저 양재학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한 거잘 말해.)

106027 #2 잘 알아지커라게. 하도 오래넘어노난.(잘 알 수 있겠어. 하도 오래됐으니까.)

106027 #1 천 영 놩 가다.(천 이렇게 놔서 모양.)

106027 #2 가다, 거 종이.(모양, 그거 종이.)

106027 #1 종이로 만들어.(종이로 만들어.)

106027 #2 우리 거 일본 간 오난에 학원이옌 허멍 시에 어디 가낫는디, 거 종이로 비료 푸대, 비료 푸대 종이로 헹은에 가다를 멘들아 줘. 가달 멘들믄 그 가다를 어져와근에 천 놔근에 끊어근에 그걸로 만들아근에 이제 잘 못 만든 사름은 점수도 아이 맞곡, 걸 잘 맞은 사름은 게도 나도 멧 등벳기 못 허연 맞곡 경 헤나서. 경헌디 이제 거 천에 뜨라근에 옷도 바농질를 잘 헤집디다게. 미녕은 잘 주어지고 모시도 잘 못허믄 모시 ᄀᆞ뜬 것도 못 허고 그 국방색 기지, 어머니가 ᄒᆞᆫ 필 사와, 어디 도새기 풀레 강, 한림 어디 강 풀암젠 허믄, 그걸 사오믄 막 아이 동네 사름덜 막 우리 집이 강 빌어오게 헤도 우리 식구덜 하고, 아이 뒈어. 게고 나도 거 양재학원 감젠 그거 어정 가믄 그디 가믄 선생님 거 '어디 션.', '어디 션.' 허영, 거 바농질이 잘 뒈어, 것이. 미녕 것추록 질서툴어도 바농이 잘 나가곡 그건. 다른 건 바농질 잘못허믄, 난 재게 허곡 ᄂᆞᆷ보다는, 게도 멧 등밧기 못 허여. 그디 워낙 가달 잘허곡, 머리덜이 좋은 아이덜샤 셔신디 가달 헤사 옷을 곱게 만드는디, 우린 잘 곱게, 멧 등밧기 못 허연. 멧 개 못 만들안. 그 기지는 좋은 거 가져가도 뭣이 잘못뒈여근에사 헤신디, 모제 만들곡.(우리 그렇게 일본 가오니까 학원이라고 하면서 시에 어디 갔었는데, 그거 종이로 비료 포대, 비료 포대 종이로 해서 모양을 만들어 줘. 모양을 만들면 그 모양을 가져와서 천 놔서 끊어서 그걸로 만

248) '할망'은 할머니인데, 여기서는 아내이다.

들어서 이제 잘 못 만든 사람은 점수도 아니 맞고, 걸 잘 맞은 사람은 그래도 나도 몇 등밖에 못 해서 맞고 그렇게 했었어. 그런데 이제 그거 천에 따라서 옷도 바느질을 잘 할 수 있습디다. 무명은 잘 주어지고 모시도 잘못하면 모시 같은 것도 못 하고 그 국방색 옷감, 어머니가 한 필 사와, 어디 돼지 팔러 가서, 한림 어디 가서 팔고 있다고 하면, 그걸 사오면 마구 아니 동네 사람들 마구 우리 집에 가서 빌어오게 해도 우리 식구들하고, 아니 되어. 그리고 나도 그렇게 양재학원 가고 있다고 그거 가져가면 거기 가면 선생님 거 '어디 있었어.', '어디 있었어.' 해서, 그렇게 바느질이 잘되어, 것이. 무명 것처럼 제일 서툴어도 바늘이 잘 나가고 그건. 다른 건 바느질 잘못하면, 난 빨리하고 남보다는, 그래도 몇 등밖에 못 해. 거기 워낙 모양을 잘하고, 머리들이 좋은 아이들이 있었는지 모양을 해야 옷을 곱게 만드는데, 우린 잘 곱게, 몇 등밖에 못 했어. 몇 개 못 만들어서. 그 옷감은 좋은 거 가져가도 뭣이 잘못되어서 했는지, 모자 만들고.)

106027 #1 게난 가다를 허젠 허믄.(그러니까 모양을 하려고 하면.)

106027 #2 가다는 이제 그.(모양은 이제 그.)

106027 #1 이 무신걸로 그렁, 백묵 닮은 걸로 그려야 헐 거 아니라.(이 무엇으로 그려서, 분필 같은 걸로 그려야 할 거 아니야.)

106027 #2 것도 그렷주기.(그것도 그렸지요.)

106027 #1 옷 허젠 허믄 가다 뚝 놩 그렁, 그대로 ᄀᆞ세로 뚝 허게 끊엉.(옷 하려고 하면 모양 딱 놔서 그려서, 그대로 가위로 딱 하게 끊어서.)

106027 #2 ᄀᆞ세로 끊엉 저.(가위로 끊어서 저.)

106027 #1 바농으로 줍곡, 게 아니믄 미싱으로 허고.(바늘로 주고, 그렇게 아니하면 재봉틀로 하고.)

106027 #2 미싱으로 허고, 미싱도 우린 저 잘 못헤난, 그때. 어린 때곡 곧 들어가난에, 것도 돈 셩 미싱도 사줘사주기, 놈광 ᄀᆞ찌 사지도 못허고 놈 허는 것광 부떵 허믄.(재봉틀로 하고, 재봉틀도 우린 잘 못하니까, 그때. 어릴 때고 곧 들어가니까, 그것도 돈 있어서 재봉틀도 사줘야지요. 남과 같이 사지도 못하고 남 하는 것과 붙어서 하면.)

106027 #1 바농질로 주로.(바느질로 주로.)

106027 #2 바농으로 주로 허영, 잘 못헤낫수다게.(바늘로 주로 해서, 잘 못했었습니다.)

106028 @ 그다음에양, 명칭을 좀 알아보쿠다. 바지, 바지 명칭, 뭐옌 ᄀᆞᆯ읍니까? 바지 명칭에 대허영 ᄀᆞᆯ아봅서.(그다음에요, 명칭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바지, 바지 명칭, 뭐라고 말합니까? 바지 명칭에 대해서 말해보십시오.)

106028 #2 그 무시거, 이디 그 헛귀, 무시거.(그 무엇, 여기 그 헛귀, 무엇.)

106028 @ 아, 게난 명칭, 명칭, 이딘 뭐옌 허여? 끗댕이.(아, 그러니까 명칭, 명칭, 여기서는 뭐라고 해? 끄트머리.)

106028 #2 알 단, 알 단. 이디 주름바지도 싯곡. 알 단도 싯고, 이디 저 골방바지[249] 도 싯고, 무시거.(아래 옷단, 아래 옷단. 여기 주름바지도 있고. 아래 옷단도 있고, 여기

249) '골방바지'는 두루마기를 입을 때 입는 아래 바지이다.

저 ‘골방바지’도 있고, 무엇.)

106028 #1 게난 이거.(그러니까 이거.)

106028 #2 바지민 골방바지는 그거 저 무시거게. 두루막에 입는 아래 바지, 게난 이 고무 노믄 골방바지렌 허여. 고무가 이 주름이난 거 골방바지엔 헤나고.(바지면 ‘골방바지’는 그거 저 무엇요. 두루마기에 입는 아래 바지, 그러니까 이 고무 넣으면 ‘골방바지’라고 해. 고무가 이 주름이니까 그거 ‘골방바지’라고 했었고.)

106028 @ 그다음에 저고리, 저고리 명칭, 여긴 뭐옌 허여. 동전?(그다음에 저고리, 저고리 명칭, 여긴 뭐하고 해. 동정?)

106028 #2 동전허고 짓허곡게, 짓허곡게 소매허고, 소매허고 짓허곡게, 또시 저 곰허고, 곰허고, 곰허곡게. 곰허고 또시 풀, 풀 뒤에 짓허고, 풀찌허곡게. 이디 짓허고 동전허고, 곰허고, 또시 또 뭣고 품허곡게. 미녕허믄 품허곡게. 그거벳기 무시거, 게난 경 헤나서.(동정하고 옷깃하고요, 옷깃하고요 소매하고, 소매하고 옷깃하고요, 다시 저 옷감하고, 옷감하고, 옷감하고요. 옷감하고 다시 팔, 팔 뒤에 옷깃하고, 팔찌하고요. 여기 옷깃하고 동정하고, 옷감하고, 다시 또 뭣인가 품하고요. 무명하면 품하고요. 그거밖에 무엇, 그러니까 그렇게 했었어.)

106028 @ 그다음에 치마, 치마 명칭?(그다음에 치마, 치마 명칭?)

106028 #2 치만게, 무신 저.(치마는요, 무슨 저.)

106028 @ 치메.(치마.)

106028 #2 저 무신 치마고.(저 무슨 치마고.)

106028 @ 영.(이렇게.)

106028 #2 허리치마, 허리치마허곡게.(허리치마, 허리치마하고요.)

106028 #1 주름치마.(주름치마.)

106028 #2 주름치마허곡게.(주름치마하고요.)

106028 @ 거 명칭덜 잇지 않으꽈?(그거 명칭들 있지 않습니까?)

106028 #2 또시 저 무신 치마.(다시 저 무슨 치마.)

106028 #1 것도 저 곰은 들어가지.(그것도 저 옷감은 들어가지.)

106028 #2 곰도 들어가고, 치마에. 곰도 들어가곡, 바지 치마도 잇고. 이 치만 으라불 종류라, 경헤도.(옷감도 들어가고, 치마에. 옷감도 들어가고, 바지 치마도 있고. 이 치마는 여러 벌 종류야, 그래도.)

106028 @ 치마옌 헙니까, 치메옌 헙니까?(‘치마’라고 합니까, ‘치메’라고 합니까?)

106028 #2 치메, 어. 치메, 치메라, 엿날은 치메. 거기 우리 치메 멘들앙 가켜. 갈중의 치메도 허고, 으라 가지 셔나서, 치메.(치마, 어. 치마, 치마야, 옛날은 ‘치메’. 거기 우리 치마 만들어서 가겠어. ‘갈중의’ 치마도 하고, 여러 가지 있었어, 치마.)

106028 @ 그다음에 보선, 보선 명칭?(그다음에 버선, 버선 명칭?)

106028 #2 보선은게 이디.(버선은요 여기.)

106028 #1 앞볼, 앞볼이영.(앞볼, 앞볼이랑.)

106028 #2 앞이 보선?(앞에 버선?)

106028 @ 예.(예.)

106028 #2 보선은 무시거.(버선은 무엇.)

106028 #1 게난 게 앞볼이옌 허연.(그러니까 그거 앞볼이라고 했어.)

106028 #2 앞보선허고, 앞보선. 저 무신 보선고 하나 저.(앞버선하고, 앞버선. 저 무슨 버선인가 하나 저.)

106028 @ 명칭덜 잇지 아니허꽝게. 쪼짝 튀어나온 거 뭐옌 허여?(명칭들 있지 않습니까. 뾰족하게 튀어나온 거 뭐라고 해?)

106028 #2 거 앞보선.(그거 앞버선.)

106028 #1 앞볼.(앞볼.)

106028 @ 앞볼.(앞볼.)

106028 #2 앞볼, 보선. 누게 경 헤실거라.(앞볼, 버선. 누군가 그렇게 했을 거야.)

106028 #1 앞볼이옌 허고 뒤.(앞볼이라고 하고 뒤.)

106028 #2 뒤에 영 튀어난 거.(뒤에 이렇게 튀어나온 거.)

106028 @ 여기, 여기선 그추룩 골아.(여기, 여기서는 그처럼 말해.)

106028 #1 그것이 앞볼이고, 뒤엔?(그것이 앞볼이고, 뒤에는?)

106028 #2 ᄃᆞ시.(다시.)

106028 #1 뒤에 옴막 들어간 거?(뒤에 움막 들어간 거?)

106028 #2 건 무시것산디, 멘들아나도 잊어부럼서.(건 무엇인지, 만들었어도 잊어버리고 있어.)

106028 @ 나중에 물어봅서.(나중에 물어보십시오.)

106028 #2 ᄃᆞ시 셍각 아이 남서게. 나 멘날 만들아낫주기, 보선게.(다시 생각 안 나네요. 나 맨날 만들었었지요, 버선요.)

106029 @ 그다음에 단추 종류에 대허영 골아줍서. 단추 종류, 단추.(그다음에 단추 종류에 대해서 말해주십시오. 단추 종류, 단추.

106029 #2 단추 종류 무시거, 무신 단추?(단추 종류 무엇, 무슨 단추?)

106029 @ 헝겊으로도 멩글앗지예.(헝겊으로 만들었지요.)

106029 #1 골, 골 단추가 잇고, 그 헝겊 단추는.(골, 골 단추가 있고, 그 헝겊 단추는.)

106029 #2 헝겊 단추는 적삼에만 멘든덴, 적삼에.(헝겊 단추는 적삼에만 만든다고, 적삼에.)

106029 #1 그냥 이런 양 단추옌 허여, 이거는 이제. 전이 주로 뭐 구젱이딱물이나, 게 아니믄 전북껍죽으로 멩글곡, 낭, 낭.(그대로 이런 양 단추라고 해, 이거는 이제. 전에 주로 뭐 소라딱지나, 그거 아니면 전복껍질로 만들고, 나무, 나무.)

106029 #2 낭 단추는 갈적삼에 ᄃᆞᆯ아.(나무 단추는 '갈적삼'에 달아.)

106029 #1 낭에 헌 거.(나무에 한 거.)

106029 #2 마을 하르방덜 갈적삼에 ᄃᆞᆯ앙, 경 헤나서.(마을 할아버지들 '갈적삼'에 달아서, 그렇게 했었어.)

106029 #1 요 저 누구 양순이네.(요 저 누구 양순이네.)

106029 #2 잘헤낫주.(잘했었지.)

106029 #1 단추 공장 허멍.(단추 공장 하면서.)

106029 #2 우리 중엄[250] 사름덜 단추공장 허멍. 게 할망 셔나서.(우리 '중엄' 사람들 단추공장 하면서. 그런 할머니 있었어.)

106029 #1 게 이 딱물 허는디, 이제는 이제 문딱 공장이서 나와부난 헤도.(그렇게 이 딱지 하는데, 이제는 이제 모두 공장에서 나와버리니까 해도.)

106029 #2 낭 단추 헤믄, 낭 단춘 하르방덜 갈적삼에 헤게. 갈적삼에 돌아난.(나무 단추 하면, 나무 단추는 할아버지들 '갈적삼'에 해요. '갈적삼'에 달았었어.)

106029 #1 속옷에 영 무신걸로 꼴렝이로 헹, 속옷에 영 저 ᄃᆞ는 단추, 무신 단추옌 헤냐? 옥단추. 옥단추옌 헨 거세기 거 가슴에 ᄃᆞ는 거고. 거 속옷에 다는 단추 꼴렝이로만 셍각허믄 몰르커라. 옥단추는 이 가슴에 ᄃᆞ는 거고. 낭단추는 하르방덜 갈적삼에 메영. 이 갈적삼이 남자덜 나눔으로 헌덴 허영 그디 돌아나서. 낭단추로게, 낭. ᄯᅳ시 저 양순이네 허는 구젱이 단추, 구젱이 단추는 뭣에 돌아나서? 구젱이 단추는 아이덜 ᄒᆞᆨ셍복에 돌아나서.(속옷에 이렇게 무엇으로 꼬랑이로 해서, 속옷에 이렇게 저 다는 단추 무슨 단추라고 해냐? 옥단추. 옥단추라고 해서 거시기 거 가슴에 다는 거고. 그거 속옷에 다는 단추 꼬랑이로만 생각하면 모르겠어. 옥단추는 이 가슴에 다는 거고. 나무 단추는 할아버지들 '갈적삼'에 매었어. 이 '갈적삼'이 남자들 나눔으로 한다고 해서 거기 달았었어. 나무 단추로요, 나무. 다시 저 '양순이'네 하는 소라 단추, 소라 단추는 뭣에 달았었어? 소라 단추는 아이들 학생복에 달았었어.)

106029 #1 ᄒᆞᆨ셍복에.(학생복에.)

106029 #2 아이덜 ᄒᆞᆨ셍복에, 구젱이 단추.(아이들 학생복에, 소라 단추.)

106029 #1 멩그는 거 강 보믄.(만드는 거 가서 보면.)

106029 #2 빈직빈직허여, 아이덜 ᄒᆞᆨ셍복에.(빤작빤작해, 아이들 학생복에.)

106029 #1 막 돌랑 허믄 고망 뚤르는 사람 ᄯᅳ로 잇곡, 또 구젱이딱물 헤당은에 막 줏어당 거기서 받아놩 ᄒᆞᆫ 짐에 얼마. 겡 뭐 키로가 셔시카.(마구 도려서 하면 구멍 뚫는 사람 따로 있고, 또 소라딱지 해다가 마구 주어다가 거기서 받아놔서 한 짐에 얼마. 그렇게 뭐 킬로그램이 있었을까.)

재단과 염색

106030 @ 그다음에 옷감 손질에 대허영 ᄀᆞᆯ아줍서, 옷감.(그다음에 옷감 손질에 대해서 말해주십시오, 옷감.)

106030 #2 옷감 손질은 게 뭐 무신거 손질헤 뭐. 이젠.(옷감 손질은 그렇게 뭐 무엇 손질해 뭐. 이젠.)

106030 #1 풀 멕영 서답허는 거, 그런 걸 말허여.(물 먹여서 빨래하는 거, 그런 걸

250) '중엄'은 제주시 애월읍 중엄리를 말한다.

말해.)

106030 #2 엿날은 미녕허믄 게 그거 허영 풀, 풀 멕영은에, 발로 ᄌᆞ근ᄌᆞ근헹 널엇다은에 ᄆᆞᆯ르믄 멘들곡, 또 마께로, 마께로 두드리곡.(옛날은 무명하면 그렇게 그거 해서 풀, 풀 먹여서, 발로 자근자근해서 널었다가 마르면 만들고, 또 방망이로, 방망이로 두들기고.)

106030 #1 무사 홍짓대.(왜 홍두깨.)

106030 #2 홍짓대 헹은에, 건 풀 멕영 홍짓대로 두드리곡게.(홍두깨 해서, 건 풀 먹여서 홍두깨로 두들기고요.)

106030 #1 아이, ᄃᆞᆨᄃᆞᆨ 두들여야 것이 딱 허게 풀이 잘 살아.(아니, 닥닥 두들겨야 그것이 딱 하게 풀이 잘 살아.)

106030 #2 그걸로 베적삼도 허곡, 갈적삼도 허고. 아이 두드렁 허는 집도 싯곡 ᄋᆞ라 질이라마씨. 두드렁 허는 집인 아이고 그 집이 춤 뭐 허는 집이여, ᄋᆞ라 가지로 멘들아. 우리 큰할마닌 두드리고, 우리 어머니는 두들미랑마랑, 그냥 나신디 풀 멕영 보리죽 쒕 풀 멕영은에.(그걸로 베적삼도 하고, '갈적삼'도 하고. 아니 두드려서 하는 집도 있고 여러 가지에요. 두드려서 하는 집에는 아이고 그 집에 참 뭐 하는 집이야, 여러 기지로 만들어. 우리 큰할머니는 두들기고, 우리 어머니는 두들기기는커녕, 그냥 나에게 풀 먹여서 보리죽 쒀서 풀 먹여서.)

106030 #1 발로 불랑 ᄌᆞ근ᄌᆞ근 영 늘령.(발로 밟아서 자근자근 이렇게 늘려서.)

106030 #2 발로 불랑 허곡, 경 옷감이엔 헌 건, 그추록 헤난, 경 헨 소중기로만 멘들고, 물에 들 때 갈적삼, 수건도 만들고, 그추록 헤낫수다.(발로 밟아서 하고, 그렇게 옷감이라고 한 건, 그처럼 했었어, 그렇게 해서 속옷만 만들고, 물에 들 때 '갈적삼', 수건도 만들고, 그처럼 했었습니다.)

106031 @ 그다음에 염색, 염색에 대허영 혼번 ᄀᆞᆯ아줍서.(그다음에 염색, 염색에 대해서 한번 말해주십시오.)

106031 #2 물들인 거?(물들이는 거?)

106031 @ 예.(예.)

106031 #2 물들인 거, 어디 저 산에 강 꼿도 헤당 솔망 물들이곡.(물들이는 거, 어디 저 산에 가서 꽃을 해다 삶아서 물들이고.)

106031 @ 옛날도 경 헙디강?(옛날도 그렇게 했습니까?)

106031 #2 예, 옛날 경 헤나서. 우리 할망 저, 모시영 헐 때, 모시 헐 때, 고장 헤당은에, 고장 헤당은에.(예, 옛날 그렇게 했었어. 우리 할머니 저, 모시랑 할 때, 모시 할 때, 꽃 해다, 꽃 해다.)

106031 @ 고장양.(꽃요.)

106031 #1 이제 꼿이 옛날은 무슨, 무슨.(이제 꽃이 옛날은 무슨, 무슨.)

106031 #2 무신 꼿, 돔백꼿 닮은 거 헤당 헤나서.(무슨 꽃, 동백꽃 닮은 거 해다 했었어.)

106031 @ 거난에 옛날 말로 ᄀᆞᆯ아야 뒈어.(그러니까 옛날 말로 말해야 돼.)

106031 #2 게난 고장 타당은에 저 우리 산세미오름[251]에 고장 타레 감젠. 고장 타당 뭣 허쿠강 허믄 '물들이켜.' 에, 물 들영헤사 팔월 멩질에도 아이덜토 곱닥허게 허영.(그러니까 꽃 따다가 저 우리 '산세미오름'에 꽃 따러 가고 있다고. 꽃 따다가 뭣 하겠습니까 하면 '물들이겠어.' 에, 물들여야 팔월 명절에도 아이들도 곱게 해서.)

106031 #1 돔백, 돔백낭.(동백, 동백나무.)

106031 #2 돔백낭 셍인ᄀᆞ라 벌겅흔 꼿 헤나서.(동백나무 모양이야 벌건 꽃 했었어.)

106031 @ 그거 감물도 들이잖아예. 갈중의 허젠 허믄.(그거 감물도 들이잖아요. '갈중의' 하려고 하면.)

106031 #2 예게, 그거 감물도 들이곡게.(예, 그거 감물도 들이고요.)

106031 @ 늦엇지, 지금.(늦었지, 지금.)

106031 #2 감물.(감물.)

106031 #1 이제 늦엇고.(이제 늦었고.)

106031 #2 감물도 들이곡, 모싯잎도 헤당 물들이곡 퍼렁케 물들이곡, 경 헨 건 부지런헌 사름, 엿날도.(감물도 들이고, 모시 잎도 해다 물들이고 퍼렇게 물들이고, 그렇게 한 건 부지런한 사람, 옛날도.)

106031 #1 갈중의 감물 들이는 거는 거 이젠 늦어서.('갈중의' 감물 들이는 거는 그거 이제 늦었어.)

106031 @ 늦으난 옛날 거 허영헌 씨 나오민 먹어낫주게, 우리 고향에서.(늦으니까 옛날 그거 하얀 씨 나오면 먹었었지요, 우리 고향에서.)

106031 #1 팔월 저.(팔월 저.)

106031 #2 아이고, 시장허난 우리 먹어낫수다게.(아이고, 시장하니까 우리 먹었습니다.)

106031 #1 촐 비기 전이 그걸 헤당은에 그걸 감물 멩글앙 벌겅케 허믄 그걸 막 ᄲᅮ상은에 물로 재멍 허믄 씨가 하얗게 나믄 그걸 막 줏어먹곡, 하하(웃음). 그거 헹 또.(꼴 베기 전에 그걸 해다 그걸 감물 만들어서 벌겋게 하면 그걸 마구 빻아서 물로 재면서 하면 씨가 하얗게 나면 그걸 마구 주워 먹고, 하하(웃음). 그거 해서 또.)

106031 #2 방잇혹, 방잇혹에 강 그걸 막.(방아확, 방아확에 가서 그걸 마구.)

106031 #1 방잇혹에 그걸 ᄲᅮ상, 거의 이제 막.(방아확에 그걸 빻아서, 거의 이제 마구.)

106031 #2 이제 우리.(이제 우리.)

106031 #1 손안으로 물로 재멍 허영, 물들여 노믄게, 이게 바렌덴 헤 가지고 ᄒᆞ루에 흔 번썩 물 적져당.(손안으로 물로 재면서 해서, 물들여 놓으면요, 이게 바랜다고 해 가지고 하루에 한 번씩 물 적셨다가.)

106031 #2 물 적셩 널엉.(물 적셔서 널어서.)

106031 #1 널엉, 경 헤야, 그것이 벌겅케 바렝 이제 거 풀 헤두엇당.(널어서, 그렇게 해야, 그것이 벌겋게 바래서 이제 그거 풀 해뒀다가.)

---

251) '산세미오름'은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와 유수암리 경계에 있는 표고 652미터의 오름이다.

106031 #2 그건 막 옛날 후제, 옛날 후제 옛날. 그건 막 신식 사름덜토 허고, 옛날부떠 물들여나곡 헷수다. 옛날은 보리죽 쒕 허곡, 그루후제 막 감 들이멍.(그건 아주 옛날 후에, 옛날 후에 옛날. 그건 아주 신식 사람들도 하고, 옛날부터 물들였었고 했습니다. 옛날은 보리죽 쒀서 하고, 그 후에 마구 감 들이면서.)

신발

106032 @ 그다음에 신발에 대허영 물어보쿠다양. 신 종류, 신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잇수가?(그다음에 신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신 종류, 신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106032 #1 신은 ᄋᆞ라 가지 뭣이 잇는데, 옛날은 저 비올 때는 이제 장마져시믄 남신이옌 헤 가지고, 우리도 그 부모님네 만들엉 허믄 이제 발에 안 맞으믄 이거 잘못허당, 것이 영 아래 툭헹 두 개 헤노믄 비가 영 와도 비올 때도 거 신엉 뎅이주게. 남신이옌, 남신이옌. 그다음에 털신이옌 허영양, 그 쉐가죽이나 뭣으로 경 요걸 이제 오렁은에 똑똑허게 헹 거 똑 짚신ᄀᆞ찌 멩글아.(신은 여러 가지 뭣이 있는데, 옛날은 저 비올 때는 이제 장마지면 나막신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도 그 부모님네 만들어서 하면 이제 발에 안 맞으면 이거 잘못하다가, 그것이 이렇게 아래 탁해서 두 개 해놓으면 비가 이렇게 와도 비올 때도 그거 신어서 다니지요. 나막신이라고, 나막신이라고. 그다음에 털신이라고 해서요, 그 소가죽이나 뭣으로 그렇게 요걸 이제 오려서 딱딱하게 해서 그거 딱 짚신같이 만들어.)

106032 @ 가죽신양.(가죽신요.)

106032 #1 예, 가죽신 오래 가. 또 저 이 가죽신이옌 허믄, 주로 털신은 코헹 영 엉갈엉갈허고, 가죽신은 똑 보선ᄀᆞ찌 멩글아 가지고.(예, 가죽신은 오래 가. 또 저 이 가죽신이라고 하면, 주로 털신은 코해서 굵고, 가죽신은 똑 버선같이 만들어서.)

106032 #2 그때 이 쪼짝헌.(그때 이 뾰족한.)

106032 #1 끗뎅이 쪼짝허게 헹, 그거 가죽신은 까시도 안 들고 어디 고지 갈 때, 이제 거 까시로 질이 험헐 때, 나쁜 질레에는 거 신엉 가, 가죽신. 경허고 이제 나중에는 짚신 삼안, 짚신 삼아도 짚신 허믄, 흔번 영 이제 메칠 허믄 오래 가렝 발 젠뎅 허여. 흑더레 영 올라사. ᄒᆞ끔 이제 흑 데겨놩 메칠 신읍주게. 흔 이삼일 신으믄 뒛사야. 게 안 허믄 재게 끈어져부난. 뒛상 또 영 신 뒛슨덴 헨에, 또 메칠 신당 끈어지믄 문 데껴불고.(끄트머리 뾰족하게 해서, 그거 가죽신은 가시도 안 들고 어디 곶 갈 때, 이제 그거 가시로 길이 험할 때, 나쁜 길에는 그거 신어서 가, 가죽신. 그리고 이제 나중엔 짚신 삼아서, 짚신 삼아도 짚신 하면, 한번 이렇게 이제 며칠 하면 오래 가라고 발을 잰다고 해요. 흙으로 이렇게 올라서. 조금 이제 흙 문질러놔서 며칠 신지요. 한 이삼일 신으면 뒤집어야. 그렇게 안 하면 빨리 끊어져 버리니까. 뒤집어서 또 이렇게 신 뒤집는다고 해서, 또 며칠 신다가 끊어지면 모두 던져버리고.)

106032 #2 신사라로 허지 아니허믄 짚신 오래 가지 아니허영.(뉴질랜드삼으로 하지

아니하면 짚신 오래 가지 아니해.)

106032 #1 게난 짚신으로 초신 저 재게헌 건 오래 안 가고 ᄒᆞ끔 질기게 허젠 허믄 그 너삼이나 삼, 삼이나 신사라로 헤사 그게 오래 가마씨. 게 이 뭐 짚신은 메칠 못 헹 놀 난뎅 허여, 놀 난덴. 끈어져불어.(그러니까 짚신으로 짚신 저 빨리한 건 오래 안 가고 조금 질기게 하려고 하면 그 고삼이나 삼, 삼이나 뉴질랜드삼으로 해야 그게 오래 가요. 그렇게 이 뭐 짚신은 며칠 못 해서 날 난다고 해, 날 난다고. 끊어져 버려.)

106032 #2 게도 짚신 신으믄 발도.(그래도 짚신 신으면 발도.)

106032 #1 게볍긴 허고.(가볍긴 하고.)

106032 #2 발에 꼭 살앙 발도 덥지 아이 허곡, 아프지도 아니허고.(발에 꼭 살아서 발도 덥지 아니하고, 아프지도 아니하고.)

106032 #1 게난 옛날 중요헌 건 털신, 가죽신.(그러니까 옛날 중요한 건 털신, 가죽신.)

106032 #2 남신.(나막신.)

106032 #1 남신, 짚신, 뭐 이거 멧 종류 불과허고.(나막신, 짚신, 뭐 이거 몇 종류 불과하고.)

106033 @ 그러면예, 가죽신 멩그는 과정에 대헤서 ᄀᆞᆯ아봅서.(그러면요, 가죽신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말해보십시오.)

106033 #1 가죽신은 주로 이제 쉐가죽 신인디, ᄆᆞᆯ가죽 헤도, 건 ᄆᆞᆯ가죽은 얄룹고. 쉐가죽 허는디 가죽을 허젱 허믄 보드럽게 잘 가죽을 달롸사. 쉐 잡앙 허믄 그거 이제 딱 허게 바렌다고 헹 벳 난 디 딱 헹 널엇당.(가죽신은 주로 이제 소가죽 신인데, 말가죽 해도, 건 말가죽은 얇고. 소가죽 하는데 가죽을 하려고 하면 부드럽게 잘 가죽을 다뤄야. 소 잡아서 하면 그거 이제 딱 하게 바랜다고 해서 변 나는 데 딱 해서 널었다가.)

106033 #2 가죽 널엉.(가죽 널어서.)

106033 #1 그걸 이제 내불믄 ᄆᆞᆯ라가민 줄어들어부난.(그걸 이제 내버리면 말라가면 줄어들어 버리니까.)

106033 #2 꽝꽝, 꽝꽝헤야.(딴딴, 딴딴해야.)

106033 #1 딱 이제 거 고젱이 멩글앙 가죽을 다 벌려, 짝 벌경은에 뭐 마께로 못 박으멍 땅더레, 경 헹 놔두믄 바짝 ᄆᆞᆯ라도 안 줄어들고, 게 안허믄 오그라들엉.(딱 이제 그거 꼬챙이 만들어서 가죽을 다 벌려, 짝 벌려서 뭐 방망이로 못을 박으면서 땅으로. 그렇게 해서 놔두면 바짝 말라도 안 줄어들고, 그렇게 안 하면 오그라들어서.)

106033 #2 막 ᄇᆞᆯ랑.(마구 밟아서.)

106033 #1 아니, 아니. 경 오그라들엉 허믄, 요거 이제 나중에 바짝 ᄆᆞᆯ리우믄 요거 이제 또 메칠간 바렌다고 헤 가지고 믄 물 주멍 헹 그거, 또 거 옷감 바레듯이 게멍 헤 놓으면 나중에 이게 줄어들질 아니허여마씨, 그냥 헤도. 게 놩 이제 신발 멩글젠 허믄, 볼 ᄀᆞ뜬 거 멩글젠 허믄양, 그거허곡.(아니, 아니. 그렇게 오그라들어서 하면, 요거 이제 나중에 바짝 말리면 요거 이제 또 며칠간 바랜다고 해 가지고 모두 물 주면서 해서 그거, 또 그거 옷감 바래듯이 개면서 해 놓으면 나중에 이게 줄어들질 아니해요, 그냥 해

도. 그렇게 놔서 이제 신발 만들려고 하면, 볼 같은 거 만들려고 하면요, 그거하고.)

106033 #2 남신 갓다 놩 그레.(나막신 가져다 놔서 그리.)

106033 #1 다 멘들멍.(다 만들면서.)

106033 #2 남신 갓다놩 다여사, 비슷허게 허젠 허믄.(나막신 가져다 놔서 닿아야, 비슷하게 하려고 하면.)

106033 #1 또 저 실 허젠 허믄 그 오롯실[252]이옌 헙디다. 이젠 뭣으로, 가만이 보니까 뭐 이 삼실은 아니고 오롯실이라고 헹양, 신을 주는 가죽신이 뚜로 이서. 요걸로 헤야 오래 가. 게난 하이튼 가죽신은 홈은 요거 옛날덜은 막 양반이나, 이거 만들젠 헤도 공들곡양, 오래 가곡. 그거 믄 장식허젠 허믄 하근거 믄 색칠도 허곡 허멍.(또 저 실 하려고 하면 그 '오롯실'이라고 합디다. 이젠 뭣으로, 가만히 보니까 뭐 이 삼실은 아니고 '오롯실'이라고 해서요, 신을 주는 가죽신이 따로 있어. 요걸로 해야 오래 가. 그러니까 하여튼 가죽신 함은 요거 옛날은 마구 양반이나, 이거 만들려고 해도 공들고요, 오래 가고. 그거 모두 장식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모두 색칠도 하고 하면서.)

106033 #2 옷 이신 거 물 헤당 데기곡, 아무나 허지 못하고.(옷 있는 그거 물 해다 문지르고, 아무나 하지 못하고.)

106033 #1 가죽신은.(가죽신은.)

106033 #2 가죽신은 옛날 저.(가죽신은 옛날 저.)

106033 #1 고급으로 아주 좋게 헹 가죽신 신엉 뎅염서 허영. 또 사냥꾼덜 허믄 산에 주로 뎅일 때는 주로 가죽신 신고, 게볍고 딱 발에 맞으믄양, 어디 가시왓에도 좋고, 가시왓도 불라도 들어가지 아니허고. 요즘 워카 허듯이 아주.(고급으로 아주 좋게 해서 가죽신 신어서 다니고 있어 해. 또 사냥꾼들 하면 산에 주로 다닐 때는 주로 가죽신 신고, 가볍고 딱 발에 맞으면, 어디 가시밭에도 좋고, 가시밭 밟아도 들어가지 아니하고. 요즘 군화 하듯이 아주.)

106034 @ 그다음에 남신양, 나막신이옌도 헙니다.(그다음에 나막신요, 나막신이라고도 합니다.

106034 #1 예, 그땐 남신이옌 허여.(예, 그땐 '남신'이라고 해.)

106034 @ 남신 멩그는 과정 혼번 골아줍서.(나막신 만드는 과정 한번 말해주십시오.)

106034 #1 남신은양, 주로 이 여기선 이 종낭이옌 허영 게벼운 거, 어디서 이 산에 강 헤지민 허곡, 못 허믄 소낭 영 께영양, 반으로 께 놩 이제 가다 맞추기 영 허는디, 모냥 보멍 파, 믄딱 이제 자귀로 헤놩, 나중에 곡쒜옌 허영 영 오그라진 거, 놀 돋쳇당 불미에 강 멩글아 북북 오그라지게 파지게, 곡쒜옌 헌 거. 그걸로 맞작헹 손질헤 노믄 발에 영 신어보멍, 요즘 구두 맞추듯이 신어봥 흑끔 족으믄 안넨 더 파고, 아, 이거 발 멕현 못 신으켜. 또 보선발에 신으젠 허믄 흑끔 허글헤야 헐 거 아니우꽈? 흑끔 크게 허젠 허믄 안네, 게난 처음에 혼뻔에 멩글 때 멩글질 아니허여마씨. 이게 헤 보멍 족으믄 더 늘루젠 헹 허니까, 겐 허고 발에 아래 영 둘을 돋정으네 신 헤도 얼른, 두 개 영

252) '오롯실'은 실 종류의 하나다.

돋졍, 굽을 앞 굽을 멩글아. 두 갤 멩글앙 영 헤노믄 저 영 뎅이는 디도 씨러지도 아니허고, 경 헹 저 자귀허고 ᄀᆨ쒜허고, 거 멩글젠 허믄 톱이영 다 들어서.(나막신은요, 주로 이 여기선 이 때죽나무라고 해서 가벼운 거, 어디서 이 산에 가서 할 수 있으면 하고, 못 하면 소나무 이렇게 깨어서요, 반으로 깨 놔서 이제 모양 맞추기 이렇게 하는데, 모양 보면서 파, 모두 이제 자귀로 해놔서, 나중에 호비칼이라고 해서 이렇게 오그라진 거, 날 돋우었다가 풀무에 가서 만들어 박박 오그라지게 파지게, 호비칼이라고 한 거. 그걸로 손질해 놓으면, 발에 이렇게 신어보면서. 요즘 구두 맞추듯이 신어봐서 조금 작으면 안에는 더 파고, 아, 이거 발이 막혀서 못 신겠어. 또 버선발에 신으려고 하면 조금 여유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조금 크게 하려고 하면 안에, 그러니까 처음에 한꺼번에 만들 때 만들지를 아니해요. 이게 해 보면서 작으면 더 늘리려고 하니까, 그렇게 하고 발에 아래 영 둘을 돋우어서 신 해도 얼른, 두 개 영 돋우어서, 굽을 앞 굽을 만들어. 두 갤 만들어서 이렇게 해놓으면 저 이렇게 다니는 데도 쓰러지지도 아니하고, 그렇게 해서 저 자귀하고 호비칼하고, 그거 만들려고 하면 톱이랑 다 들어서.)

106034 #2 ᄀᆨ쒜도 하나도 아니고.(호비칼도 하나도 아니고.)

106034 #1 두 개.(두 개.)

106034 #2 두 개? 나 원.(두 개? 나 원.)

106034 #1 무신 융단 ᄀᆨ쒜옌 허영 안네 영 홈파는 것 싯고.(무슨 융단 호비칼이라고 해서 안에 이렇게 홈파는 것 있고.)

106034 #2 우리 시아바님 멘들아낫수다.(우리 시아버님 만들었었습니다.)

106034 #1 나가 경 헹 좀 아는디, 바깟디도 이제 무신 ᄀᆨ쒜 끌로 곱게 헹양, 까까가믄 것이 신으믄, 요즘 어디 출품헐 때ᄀᆞ찌 곱게 멩급주게.(내가 그렇게 해서 조금 아는데, 바깥에도 이제 무슨 호비칼 끌로 곱게 해서요, 깎아가면 그것 신으면, 요즘 어디 출품할 때같이 곱게 만들지요.)

106034 #2 것도 잘 만들아진 땐 허고, 못 만든 땐 우리 시아바님 데껴불어. 발 신어낭 발 아팡.(그것도 잘 만들어진 때는 하고, 못 만든 때는 우리 시아버님 던져버려. 발 신어 나서 발 아파서.)

106034 #1 발 아파가믄.(발 아파가면.)

106034 #2 게믄 새로 파젠 허믄 막.(그러면 새로 파려고 하면 마구.)

106034 #1 안넬 막 팟수다.(안에를 마구 팠습니다.)

106034 #2 잘도 하나 멩글기가 ᄋᆞ라 날, ᄋᆞ라 날 걸령, 오래여.(잘도 하나 만들기가 여러 날, 여러 날 걸려, 오래.)

106034 #1 남신 파는 건 오랩니다.(나막신 파는 건 오랩니다.)

106035 @ 그다음에 찍신, 찍신 만드는 과정 ᄀᆞᆯ아줍서?(그다음에 짚신, 짚신 만드는 과정 말해주십시오?)

106035 #1 짚신은 이 저 처음에 찝을 잘 선택헹.(짚신은 이 저 처음에 짚을 잘 선택해서.)

106035 @ 찍이옌 헙니까? 찝이옌 헙니까?(‘찍’이라고 합니까? ‘찝’이라고 합니까?)

106035 #1 찝.(짚.)

106035 #2 나룩에.(벼에.)

106035 #1 나룩찝 뭐, 영 허는디 나룩찝을 헤도 이제 좋은 찝으로 헹은에, 잘 이 물 ᄒᆞ끔 뿌리멍 잘 두드려사. 덩드렁마께[253]에서 독독독 두드려놩 물 뿜엉 ᄒᆞ끔 틈 잣당, 또.(볏짚 뭐, 이렇게 하는데 볏짚을 해도 이제 좋은 짚으로 해서, 잘 이 물 조금 뿌리면서 잘 두드려야. '덩드렁마께'에서 독독독 두드려놔서 물 뿜어서 조금 뜸 잤다가, 또.)

106035 #2 ᄃᆞ시.(다시.)

106035 #1 ᄒᆞᆫ 번 이제 독독독 두드리믄 거 복삭헙주게. 찝이 복삭허믄 잘 꽝, 영 저 뭣에 신 삼젱 허믄, 그 신사라옌 허영 영 가지가 니 개, 다섯 개 돋은 것이 앞이 영 멩글앙, 멩글곡 이 허리엔 영 차고, 그렇게 헹 실을 다 나룩찝 허듯이, 아 첨 저.(한 번 이제 독독독 두들기면 그거 폭신하지요. 짚이 폭신하면 잘 꼬아서 이렇게 저 뭣에 신 삼으려고 하면, 그 뉴질랜드삼이라고 해서 이렇게 가지가 네 개, 다섯 개 돋은 그것이 앞에 이렇게 만들어서, 만들고 이 허리에는 이렇게 차고, 그렇게 해서 실을 다 볏짚 하듯이, 아 참 저.)

106035 #2 베 짜듯이.(베 짜듯이.)

106035 #1 베 짜듯이 다 줄을 영 메 놩게, 욜로부터 시작헹 거 저 찝을 새끼부터 좋게 꽈 놩 찝신, 에고 찝신 삼암직허다. 새끼를 곱게 질게 꽈사. 아멩이나 ᄀᆞᆫ지 아니허고. 겡 꽈 노믄 이제 거 영 가레기옌 허영, 저 니 가달 보통, 저레 앞이 영 조작조작허게 허영 영 이레, 또 이제 새끼 영 메고, 허리 영 허리띠ᄀᆞ치 메놩, 그레 영 줄라멩, 글로부터 시작헹 찝신을 짭주게. 멕 ᄃᆞ라가듯이 ᄒᆞ끔씩 허멍. 짱 허믄 나중이 다 짜지믄 영 발로 맞추멍, 그 찝신 가다가 잇수다게. 이제 골이옌 헌 건디. 구두 골 허듯이 찝신도 골이 이서. 그거 보멍 거의 이제 삼아지믄 찝신 삼는덴 헹. 삼아지믄 그 뒤치기 멩글아근에 좁게 헹, 그런 거는 잘 끈어진덴 헹양, 처음엔 다 나룩찝으로 허단, 나중엔 저 우의 코영 허는 걸로 허고, 그 뒤치기 허는 거는 신사라로 허여. 거믄 질기게. 재게 안 끈어지주기. 이게 주로 찝신은 코허고 요런 디서 끈어져. 게난 신도 헹 다 헤지믄, 이제 걸 ᄏᆞ컬허게 칼로 허영 골짝 ᄀᆞ상, 베로 허영 끈곡. 경 허곡, 게난 골이 잇수다. 발 모냥 똑신, 게 그레 놩 독독독 두드려, 발에 맞게끔. 경 헹 영 잘 안 뭰 건 밋창에 허멍, 딱 헹 둘이 허믄, ᄒᆞᆫ 베 헹 이제 또, 그땐 장에도 풀레 가고, 게도 고무신, 나도 찝신도 사서마씨, 고무신.(베 짜듯이 다 줄을 이렇게 매 놔서요, 여기로부터 시작해서 그거 저 짚을 새끼부터 좋게 꽈 놔서 짚신, 에고 짚신 삼을 것 같다. 새끼를 곱게 길게 꽈야. 아무렇게나 꼬지 아니하고. 그랗게 꽈 놓으면 이제 거 이렇게 가락이라고 해서, 저 네 가닥 보통, 저리 앞에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해서 이렇게 이리, 또 이제 새끼 이렇게 매고, 허리 이렇게 허리띠같이 매어놔서, 그리 이렇게 동여매어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짚신을 짜지요. 멱서리 따라가듯이 조금씩 하면서. 짜서 하면 나중에 다 짜지면 이렇게 발로 맞추면서, 그 짚신 모양이 있습니다. 이제 골이라고 한 것인데. 구두 골 하듯이 짚신도 골이 있어. 그거 보면서 거의 이제 삼아지면 짚신 삼는다고 해서. 삼아지면 그 뒤치기 만들어

253) '덩드렁마께'는 짚이나 대 따위를 두드리는 방망이다.

서 좁게 해서, 그런 거는 잘 끊어진다고 해서요, 처음엔 다 볏짚으로 하다가, 나중엔 저 위에 코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그 뒤치기 하는 거는 뉴질랜드삼으로 해. 그러면 질기게. 빨리 안 끊어지지요. 이게 주로 짚신은 코하고 요런 데서 끊어져. 그러니까 신도 해서 다 해지면, 이제 걸 깨끗하게 칼로 해서 골짝 잘라서, 켤레 해서 끊고.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골이 있습니다. 발 모양 똑 신, 그거 그리 놔서 독독독 두드려, 발에 맞게 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잘 안 된 건 밑창에 하면서 딱 해서 둘이 하면, 한 켤레 해서 이제 또, 그땐 장에도 팔러 가고, 그래도 고무신, 나도 짚신도 샀어요, 고무신.)

106035 #2 아바지가 씨아바님이 못 허는 일이 어서낫수다.(아버지가 시아버님이 못 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106035 #1 찝신 삼는 거, 하하(웃음).(짚신 삼는 거, 하하(웃음).)

106035 #2 문딱 거.(모두 거.)

106035 #1 찝신 삼앙 허믄 어머니 장에 강 풀곡 헨.(짚신 삼아서 하면 어머니 장에 가서 팔고 했어.)

106035 #2 돈도 아니나고 살 게 어시난.(돈도 없고 살 게 없으니까.)

106035 #2 돈도 아니나고 살 게 어시난. 남신 파곡, 찝신.(돈도 없고 살 게 없으니까. 나막신 파고 짚신.)

106035 #1 찝신 삼곡예.(짚신 삼고요.)

106035 #2 골체 줄앙 풀곡, 멍석 줄앙 풀곡, 경 헙디다게.(삼태기 결어서 팔고, 멍석 결어서 팔고, 그렇게 합디다.)

106035 #1 골체도 칙 걷엇당 허곡.(삼태기 칡 걷었다가 하고.)

106035 #2 우리 아바지네 그추룩 헙디다게.(우리 아버지네 그처럼 합디다.)

106036 @ 찝신 종류도 잇수강?(짚신 종류도 있습니까?)

106036 #2 예, 찝신 종류.(예, 짚신 종류.)

106036 #1 찝신 종류는 그 저 새각시, 저 새시방허는 찝신은.(짚신 종류는 그 저 새색시, 저 새서방 짚신은.)

106036 #2 무시거라?(무엇이야?)

106036 #1 아주 그건양, 이름은 잊어불고, 헌디 찝도 베꼇디 그 북삭흔 뭐는 다 벳겨뒁 대만 허곡양, 또 칙은 나중이는 대만 허고, 거 삼아 노믄 곱닥허여마씨. 그 고운 걸로만 노랑허게 허고, 또 나중에는 물들영도 문 곱게 물 멕영, 거 뭐옌 허드라. 이거 저 냅다 새각시, 새시방 신이옌 허영.(아주 그건요, 이름은 잊어버리고, 한데 짚도 바깥에 그 북삭한 뭐는 다 벗겨둬서 대만 하고요, 또 칡은 나중에는 대만 하고, 그거 삼아 놓으면 고와요. 그 고운 것으로만 노랗게 하고, 또 나중에는 물들여서 모두 곱게 물 먹여서, 그거 뭐라고 하더라. 이거 저 냅다 새색시, 새서방 신이라고 해서.)

106036 #2 청신[254]이여, 청신. 청신이옌 헤서. 게 새시방 신는 거, 청신. 뭣이옌 골아서? 그때 새시방 이껑 가는 사름도 셔나난, 그건. 엿날은 거 무당산디, 무시거산디 새시방 이껑 가는 사람도 그 신을 신언 간. 새시방도 신고.('청신'이야, '청신'. '청신'이라

254) '청신'은 신랑, 신부 등이 결혼식 때 신는 신발이다.

고 했어. 그거 새서방 신는 거, '청신'. 뭣이라고 말했어? 그때 새서방 이끌고 가는 사람도 있었으니까, 그건. 옛날은 그거 무당인지, 무엇인지 새서방 이끌고 가는 사람도 그 신을 신어서 갔어. 새서방도 신고.)

106036 #1 양반허고 쌍놈덜이 ᄆᆞᆯ 아가리 들렁 간뎅 헹은에, 잔치헐 땐 그 신을양 정성으로.(양반하고 쌍놈들이 말 아가리 들러서 간다고 해서, 잔치할 때는 그 신을요 정성으로.)

106036 #2 신을 고운 거.(신을 고운 거.)

106036 #1 게난 이 신만은 새시방허고 그 저 ᄆᆞᆯ 아가리 들른 사름허고 ᄀᆞ뜬 신을 줘.(그러니까 이 신만은 새서방하고 그 저 말 아가리 들른 사람하고 같은 신을 줘.)

106036 @ 들러리 아니?(들러리 아니?)

106036 #1 예, 들러리지, 이제 ᄀᆞ뜨믄. 들러린디 ᄆᆞᆯ 영 아가리 들렁, ᄆᆞᆯ 탕 허믄 달랑달랑 방울 ᄃᆞᆯ곡 헹은에 해낫주. 요거는 새시방 신이여, 거 새시방 신은 저 무신 곱게 멕영은에.(예, 들러리지, 이제 같으면. 들러린데 말 이렇게 아가리 들러서, 말 타서 하면 달랑달랑 방울 달고 해서 했었지. 요거는 새서방 신이여, 그거 새서방 신은 저 무슨 곱게 먹여서.)

106036 @ 청사초롱 들엇주마씨.(청사초롱 들었지요.)

106036 #2 청, 무신 신이옌 헤서. 청신이옌 헤냐. 저 새시방허고 저 이제 ᄀᆞ뜨면 들러리, ᄆᆞᆯ 이껑 가는 사름허고 ᄀᆞ찌 신어나서양. 경 헷젠 허여.(청, 무슨 신이라고 했어. '청신'이라고 해냐. 저 새서방하고 저 이제 같으면 들러리, 말 이끌고 가는 사람하고 같이 신었었어요. 그렇게 했다고 해.)

106036 #1 게메, ᄀᆞ뜬 신 줜.(글쎄, 같은 신 기웠어.)

106036 #2 게난 이 그, 그 당시.(그러니까 이 그, 그 당시.)

모자 등

106037 @ 거민양, 짚신은 이 정도 허고. 모자, 모자 종류는 어떤 것들 잇수강? 옛날 모자 종류는?(그러면요, 짚신은 이 정도 하고. 모자, 모자 종류는 어떤 것들 있습니까? 옛날 모자 종류는?)

106037 #1 모자 종류는 저 털감테[255]옌 허영 추을 때 털감테.(모자 종류는 저 '털감투'라고 해서 추울 때 '털감투'.)

106037 @ 예, 털감테.(예, '털감투'.)

106037 #1 털감테가 싯고, 또 이 비올 때 쓰는 우장이 싯고.('털감투'가 있고, 또 이 비올 때 쓰는 도롱이 있고.)

106037 @ 우장.(도롱이.)

106037 #1 거는 영 저 새 ᄂᆞ람지[256]로 허영.(그거는 이렇게 저 띠 이엉으로 해서.)

255) '털감테'는 털로 만든 방한모이다.
256) 'ᄂᆞ람지'는 이엉과 비슷한 것으로 낟가리 위에 덮는 물건이다.

106037 @ 우장이 도롱이 아닌가?(‘우장’이 도롱이 아닌가?)

106037 #1 예, 새 ᄂᆞ람지로 헹 영 비올 때 주젱이 여끄듯이 그추룩 헹 머리에 써나고. 쓰곡 큰 비 우장.(예, 띠 ‘ᄂᆞ람지’로 해서 이렇게 비올 때 주저리 엮듯이 그처럼 해서 머리에 썼었고. 쓰고 큰 비에 도롱이.)

106037 @ 털감테. 그다음에 탕건 이서나지 안헷수가?(‘털감테’. 그다음에 탕건 있었지 않습니까?)

106037 #1 탕건허고 망건.(탕건하고 망건.)

106037 @ 어, 망건.(어, 망건.)

106037 #1 망건이영 탕건이영, 또 이 뭐더라.(망건이랑 탕건이랑, 또 뭐더라.)

106037 @ 총모자 들어낫수가?(총모자 들었었습니까?)

106037 #1 에, 그거는 ᄆᆞᆯ총으로.(에, 그거는 말총으로.)

106037 @ ᄆᆞᆯ총으로.(말총으로.)

106037 #1 ᄆᆞᆯ총으로 헹 탕건 멩글고, 이 저 뭐 헤낫주, 갓 멩글고.(말총으로 해서 탕건 만들고, 이 저 뭐 했었지, 갓 만들고.)

106038 @ 여름 모자는 페렝이?(여름 모자는 패랭이?)

106038 #2 페렝이 줄앗주기게.(패랭이 결었지요.)

106038 #1 여름은 페렝이, 주로 페렝이.(여름은 패랭이, 주로 패랭이.)

106038 #2 보릿대로 허영, 보릿낭으로 허연.(보릿대로 해서, 보릿짚으로 해서.)

106038 #1 보릿낭으로 영 우의 감으멍 허연, 우리도 늘 줄안, 그 바농으로 헹 주웡 페렝이 멩글앙 써낫수다. 이젠 ᄑᆞ는 사름덜 하난.(보릿짚으로 이렇게 위에 감으면서 해서, 우리도 늘 결었어, 그 바늘로 해서 기워서 패랭이 만들어서 썼었습니다.)

106038 @ 그러며는 아까 여름 모자 페렝이, 페렝이에 대허영 ᄒᆞᆫ번 ᄀᆞᆯ아줍저.(그러면 아까 여름 모자 패랭이, 패랭이에 대해서 한번 말해주십시오.)

106038 #1 페렝이는 이디 저 보리, 헌디 주로 겉, 솔오리보다 겉보릿대가 질기곡 좋아마씨. 겐 또 무신 저 맥주보리나 것이.(패랭이는 여기 저 보리, 한데 주로 건, 쌀보리보다 겉보릿대가 질기고 좋아요. 그렇게 또 무슨 저 맥주보리나 것이.)

106038 #2 맥주보리 하영 헤낫주기, 맥주보리.(맥주보리 많이 했었지, 맥주보리.)

106038 #1 맥주보릿낭이 줌질곡 또 좋아마씨. 게믄 그걸 영 헹 톡톡 꼭대기로 허멍 아래 그 저 뭐 빵은에 영 흘퉈서.(맥주보릿짚이 가늘고 또 좋아요. 그러면 그걸 이렇게 해서 톡톡 꼭대기로 하면서 아래 그 저 뭐 빼서 이렇게 홅어서.)

106038 #2 아니, 홅어뒁.(아니, 홅어둬서.)

106038 #1 홅어뒁 지깍허게 무껑 놔둠서 허고, 페렝이 줏넨 허믄, 그걸 ᄒᆞ끔 틈 재왕 줌자게 헹 아사내멍 헹 줄앙, 쭉 허게 멧 발헹 둘레가 얼마 허믄 요거 페렝이 망이 셔마씀, 망이. 영 머리에 들어가게끔 요만큼 허믄 그거 헹 이제, 전인 손으로 줘난디 나중에 미싱으로도 허고, 손으로 줄 땐 허믄 영 돌려가멍 문딱 실로 옷 멩글 듯이 다 주엇수다.(홅어둬서 빽빽하게 묶어서 놔두고 있으면서 하고, 패랭이 만든다고 하면, 그걸 조금 뜸 재워서 잠자게 해서 가져내면서 해서 결어서, 쭉 하게 몇 발해서 둘레가 얼마

하면 요거 패랭이 망이 있어요, 망이. 이렇게 머리에 들어가게끔 요만큼 하면 그거 이제, 전에는 손으로 기웠는데 나중에 재봉틀로 하고, 손으로 기울 땐 하면 이렇게 돌려가면서 모두 실로 옷 만들 듯이 다 기웠습니다.)

106038 #2 게난 질기지도 아니 허고, 잘 곱게 허지도 못허멍, 춤말로.(그러니까 질기지도 아니하고, 잘 곱게 하지도 못하면서, 참말로.)

106038 #1 곱겐 못 헤도.(곱게는 못 해도.)

106038 #2 경헤도 막 페렝이.(그래도 마구 패랭이.)

106038 #1 비 맞히진 말아사, 비 맞으면 여름인 두 덜, 흔 덜도 안 강 다 삭아질 거주.(비 맞히진 말아야, 비 맞으면 여름에는 두 달, 한 달도 안 가서 다 삭아질 거지.)

106038 #2 게난 메날, 메날 페렝이. 겨울, 으름 나믄 페렝이덜 문 줄아.(그러니까 맨날, 맨날 패랭이. 겨울, 여름 나면 패랭이들 모두 결어.)

106038 @ 예.(예.)

106038 #1 거 장마지믄 맥주보리낭 헤당 놤서.(그거 장마지면 맥주보릿짚 해다가 놔 두고 있어.)

106038 #2 페렝이덜 여껏주.(패랭이들 엮었지.)

106038 #1 이제 페렝이 여끄젠 허믄, 경 헹 왕덜.(이제 패랭이 엮으려고 하면, 그렇게 해서 와서들.)

106038 #2 여끄곡, 또 우리 시아바님 신, 신 줄곡, 그추룩.(엮고, 또 우리 시아버님 신, 신 겯고, 그처럼.)

106038 #1 신 삼안.(신 삼았어.)

106038 #2 신 삼곡, 저 집인 가믄 페렝이 여깜서고. 그추룩 장마지믄 영.(신 삼고, 저 집에는 가면 패랭이 엮고 있었고. 그처럼 장마지면 이렇게.)

106039 @ 그다음에 겨울 모자, 털감테. 그거에 대허영 흔 번 골아줍서.(그다음에 겨울 모자, '털감투'. 그거에 대해서 한 번 말해주십시오.)

106039 #1 털감테는 저 주로 여기서 쉐가죽도 허는디, 털감테는 쉐가죽보단도 물가죽으로, 그것이 얄고 또 이 좀 보드러와마씨, 물가죽이. 게난 것도 바농질도 쉽곡 허난, 물가죽도 쉐가죽 허듯이, 잡으믄 가죽을 헤당 거 물리와. 딱 허게 고젱이 박앙 마당 ᄀᆞ뜬디 딱 벌령, 물라가믄 줄어들고 이것이 빠짝 질기난 못 허게 헹 헤노믄, 요거 ᄒᆞ끔 부드럽게 허젠 허믄양.('털감투'는 저 주로 여기서 소가죽도 하는데, '털감투'는 소가죽보다도 말가죽으로, 그것이 얇고 또 이 조금 부드러워요, 말가죽이. 그러니까 그것도 바느질이 쉽고 하니까, 말가죽도 소가죽 하듯이, 잡으면 가죽을 해다가 그거 말려. 딱 하게 꼬챙이 박아서 마당 같은데 딱 벌려서, 말라가면 줄어들고 이것이 바짝 질기니까 못 하게 해서 놓으면, 요거 조금 부드럽게 하려고 하면요.)

106039 #2 마께로 두드리곡 허멍.(방망이로 두드리고 하면서.)

106039 #1 아니, 장에 강 뭐 양젯물, 그거 헤당양 뭐 작작 멕이고, 어떤 사람은 식초도 헹은에 술에 서껑 술에 영 그거 멕이곡, 아주 그 지름 ᄒᆞ끔 빠지멍 부드러와. 게믄 그걸로 이제, 물가죽은 웬만이 두드린 건양 털이 안 빠지니까, 게난 덩드렁마께로 아래

돌은 안 뒈고 낭 ᄀᆞ뜬디, 영 동글락헌 낭 허영, 모자 멩글 건, 이제 독독독 두들영 가죽 달롭렌 허여. 게 부드럽게 가죽 달롸사 허메, 모자 멩글 거난. 겡 이제 잘 줘노믄, 가다 헤노믄 ᄆᆞᆯ, ᄆᆞᆯ가죽은 비올 때도 쓰곡, 추울 때 쓰고, 이건 일 년 웬만헌 땐 다, 어디 저 산에 갈 때도 쓰고, 경 헹 써낫수다게, ᄆᆞᆯ가죽. 쉐가죽은 두꺼와노난 다루기 궂어.(아니, 장에 가서 뭐 양잿물, 그거 해다가요 뭐 작작 먹이고, 어떤 사람은 식초도 해서 술에 섞어서 술에 이렇게 그거 먹이고, 아주 그 기름 조금 빼지면서 부드러워. 그러면 그걸로 이제, 말가죽은 웬만큼 두드린 건요 털이 안 빼지니까, '덩드렁마께'로 아래 돌은 안 되고 나무 같은데, 이렇게 둥근 나무 해서, 모자 만들 건, 이제 독독독 두드려서 가죽 다루라고 해. 그렇게 부드럽게 가죽 다뤄야 해요, 모자 만들 거니까. 그렇게 잘 기워놓으면, 모양 해놓으면 말, 말가죽은 비올 때도 쓰고, 추울 때도 쓰고, 이건 일 년 웬만할 땐 다, 어디 저 산에 갈 때도 쓰고, 그렇게 해서 썼었습니다, 말가죽. 소가죽은 두꺼우니까 다루기 궂어.)

106039 #2 거시기.(거시기.)

106039 #1 쉐가죽으로도 털감테 멩글주마는.(소가죽으로도 '털감투' 만들지만.)

106040 @ 그다음에 양태 알아지쿠가? 양태.(그다음에 갓양태 알 수 있겠습니까? 갓양태.)

106040 #1 양태는 그 저 이 갓 멩그는 바우이 허는 거, 것이 양탠디, 양태는 그 저 산에 가민 부드럽곡 질긴 거, 뭐옌 허드라. 봄에 유름 아니고 망 멩그는.(갓양태는 그 저 이 갓 만드는 테두리에 하는 거, 그것이 갓양태인데, 갓양태는 그 저 산에 가면 부드럽고 질긴 거, 뭐라고 하더라. 으름 아니고 망 만드는.)

106040 @ 졸겡이?(으름?)

106040 #1 요것이 양태 망을 멩글젠 허믄, 거 헤당 ᄆᆞᆯ리왓당, 졸겡이줄이영 거죽은 벳겨불곡, 그 좀 시들놧당, 요것이 얼른 꺼꺼지지 아니헙니다. 잘 달롸근에, 그렇게 헹 머리에 맞게 으라 개 헤당 놧당, 요것도 잘 달롸사. 달룬데, 경 아니허믄 머리에 맞게 허멍 ᄆᆞᆫ딱 고냥 똘랏당. 양탠 주로 이제 ᄆᆞᆯ총으로 헹, 거 허믄 ᄆᆞᆯ총덜 받아가, 거 허믄. 옛날서부떠 다 망 쓰는 건 ᄆᆞᆯ총이라.(요것이 갓양태 망을 만들려고 하면, 그거 해다가 말렸다가, 으름줄이랑 거죽은 벗겨버리고, 그 조금 시들어놨다가, 요것이 얼른 꺾어지지 아니합니다. 잘 다뤄서, 그렇게 해서 머리에 맞게 여러 개 해다 놨다가, 요것도 잘 다뤄야. 다루는데, 그렇게 아니하면 머리에 맞게 하면서 모두 구멍 뚫었다가. 갓양태는 주로 이제 말총으로 해서, 그거 하면 말총들 받아가, 그거 하면. 옛날서부터 다 망 쓰는 건 말총이야.)

106041 @ 그다음에 아까 ᄀᆞᆯ앗던 총모자, 총모자에 대허영 ᄀᆞᆯ아줍서.(그다음에 아까 말했던 총모자, 총모자에 대해서 말해주십시오.)

106041 #1 총모자는 이 저 뭐.(총모자는 이 저 뭐.)

106041 @ ᄆᆞᆯ총 대부분.(말총 대부분.)

106041 #1 ᄆᆞᆯ총으로 쓰는디, 게난 ᄆᆞᆯ총 깝이 그때 비싸난 ᄆᆞᆯ총 좋으믄 그때 ᄆᆞᆯ 혼 ᄆᆞ리 깝을 줘. 아, 이거 ᄆᆞᆯ총 좋다, 이거. ᄆᆞᆯ 깝은 무신거 멧 푼 안 줍주게. ᄆᆞᆯ 뭐 궤기

헷자 별로 이제 먹는디 알아주지 아이허고. 물도 간허고 총뿐이라, 돈 주는 게. 또 가죽허고, 가죽은 얄루난 모제나 이런 거, 또 가죽옷도, 물지름허고, 주로 물은 간허고, 아, 또 꽝허고, 물꽝은 이제 그걸 허믄 딸령 먹으믄 꽝에 좋덴 헹은에, 그거 물꽝.(말총으로 쓰는데, 그러니까 말총 값이 그때 비싸니까 말총 좋으면 그때 말 한 마리 값을 줘. 아, 이거 말총 좋다, 이거. 말 값은 무엇 몇 푼 안 주지요. 말 뭐 고기 했자 별로 이제 먹는데 알아주지 아니하고. 말도 간하고 총뿐이야, 돈 주는 게. 주로 말은 간하고, 아, 또 뼈하고, 가죽은 얇으니까 모자나 이런 거, 또 가죽옷도, 말기름하고, 주로 말은 간하고, 아, 또 뼈하고, 말뼈는 이제 그걸 하면 딸려서 먹으면 뼈에 좋다고 해서, 그거 말뼈.)

106041 #2 막 구웡덜 먹어서.(마구 구워서들 먹었어.)

106041 #1 주로 물꽝이 비싸.(주로 말뼈가 비싸.)

106041 @ 예.(예.)

106041 #2 이젠 막 비싼덴 허여.(이젠 아주 비싸다고 해.)

106041 #1 이젠 물총도 소용엇고, 옛날은 물총 썻주마는. 이제는 물간허고 꽝허고.(이젠 말총도 소용없고, 옛날은 말총 썼지만. 이제는 말간하고 뼈하고.)

106041 @ 물지름허고.(말기름하고.)

106041 #1 물지름허고, 물치름은 어디.(말기름하고, 말기름은 어디.)

106041 #2 옛날사 그거 궨찮아, 궨찮아 허영.(옛날이야 그거 괜찮아, 괜찮아 해서.)

106041 #1 불르곡 헤나서, 물치름.(바르고 했었어, 말기름.)

106041 #2 물총 받으레 무시것덜 뚜러메영 뎅겨낫수다. 물총 받으레 뎅겨난.(말총 받으러 무엇들 둘러매어서 다녔었습니다. 말총 받으러 다녔었어.)

106041 @ 물총으로 헹 만드는 과정?(말총으로 해서 만드는 과정?)

106041 #1 게난 이제 망이옌 허영 줏는 거, 이거 찝신 줄듯이 헤도 거 무신거 바농귀, 오그렝이 헹 혹혹 빼내는 거. 그것 잊어부럿다. 건데 거 망허믄 가다가 잇수다. 것도 가다가 영.(그러니까 이제 망이라 해서 만드는 거, 이거 짚신 짜듯이 해도 그거 무엇 바늘귀, 온전히 해서 혹혹 빼내는 거. 그것 잊어버렸다. 그런데 그거 망하면 모양이 있습니다. 그것도 모양이 이렇게.)

106041 #2 가다가 무시거, 가다옌, 거 무신 동글락헌 거?(모양이 무엇, 모양이라고, 그거 무슨 둥근 거?)

106041 #1 거 잊어부런.(그거 잊어버렸어.)

106041 @ 모르면 지나가고마씨.(모르면 지나가고요.)

106041 #1 거 헤 가지고 이렇게 동글락허게 허영 그 우이로, 게곡 요거 모냥을 멩글아, 아래도 영 허곡 허영, 똑 그저 뭐 멩글듯이, 아니 갓 쓰게, 똑 사람 머리ᄀᆞ찌 헹 꼭 쒜로 멩글앙, 거 주문헹 다 받으믄 이것 총, 저 물총.(그거 해 가지고 이렇게 둥글게 해서 그 위로, 그리고 요거 모양을 만들어, 아래도 이렇게 하고 해서, 똑 그저 뭐 만들 듯이, 아니 갓 쓰게, 똑 사람 머리같이 해서 꼭 쇠로 만들어서, 그거 주문해서 다 받으면 이것 총, 저 말총.)

106041 #2 물총허는 사름은 풀레와, 그거.(말총하는 사람은 팔러와, 그거.)

106041 #1 그거 다.(그거 다.)

106041 #2 무신거 두러메고, 그디 앚앙 총 받앙.(무엇 둘러매어서, 거기 앉아서 총 받아서.)

106041 #1 물총 줏는 디 강 보믄, 이 동네에서 더러 그거.(말총 곁는 데 가서 보면, 이 동네에서 더러 그거.)

106041 #2 우리 아바님넨 건 아니 헤나고.(우리 아버님네는 건 아니 했었고.)

106041 #1 아니헤나고, 정성 안 들이믄, 요것도 츤츤이 잘 잇어사. 게 안 허믄 물총, 아, 거 물 이제 허믄 흔 ᄆᆞ리 체 허믄 갓 뭐 두 개 나오믄 잘 나온다. 게난 물총 갓이 그때 비쌀 때는 물깝도 비싸고, 물총 허젠 허믄.(아니했었고, 정성 안 들이면, 요건도 찬찬히 잘 이어야. 그렇게 안 하면 말총, 아, 그거 말 이제 한 마리 채 하면 갓 뭐 두 개 나오면 잘 나온다. 그러니까 말총 갓이 그때 비쌀 때는 말값도 비싸고, 말총 하려고 하면.)

106041 #2 물총 게, 앞동산 그거 짜는 사람 물총 헤낫젠.(말총 게, 앞동산 그거 짜는 사람 말총 했었다고.)

106041 #1 게난 옛날은양, 그렇게 헹 요즘 타는 물도 물총 좋은 건 꼴렝이 끈어가불멍 헷수다, 그 나쁜 놈덜이.(그러니까 옛날은요, 그렇게 해서 요즘 타는 말도 좋은 건 꼬랑이 끊어버리면서 했습니다, 그 나쁜 놈들이.)

106041 #2 경 허멍 헷젠.(그렇게 하면서 했다고.)

106041 #1 꼴렝이 어신 물덜 하낫주. 산 채로 끈어가불엉.(꼬랑이 없는 말들 많았었지. 산 채로 끊어가 버려서.)

106041 #2 우리 동네 맨 물 장시난에.(우리 동네 맨 말 장수니까.)

106042 @ 그다음에 탕건, 그 줏기?(그다음에 탕건, 그 곁기?)

106042 #1 줏기.(곁기.)

106042 @ 줏기에 대헤서 흔번 골아줍서.(곁기에 대해서 한번 말해주십시오.)

106042 #1 탕건이나 뭐나 똑ᄀᆞ뜬 거우다게.(탕건이나 뭐나 똑같은 것입니다.)

106042 @ 물총으로?(말총으로?)

106042 #1 물총으로 가다 영 쒜로 헌 거 멩글아 놩, 그거 처음에는 이 망이옌 헤 가지고 우이만 허고, 탕건은 이 저 요즘 우이 뭐만 어서. 거 저 뭣이 갓이 아니고, 탕건은 갓 아래 쓰는 거 아니라게. 탕건 써 놩 갓을 쓰게 뒈서. 게난 탕건 허게 뒈믄 이것도 모냥이 셩 앞이 요렇게 옴막허게 들어가게 허믄 문딱 그 가다가 잇수다게. 가다대로 놩 쫙허게.(말총으로 모양 이렇게 쇠로 한 거 만들어 놔서, 그거 처음에는 이 망이라 해 가지고 위에만 하고, 탕건은 이 저 요즘 뭐만 없어. 그거 저 뭣이 갓이 아니고, 탕건은 갓 아래 쓰는 거 아니에요. 탕건 써 놔서 갓을 쓰게 됐어. 그러니까 탕건 하게 되면 이것도 모양이 있어서 앞에 요렇게 옴쏙하게 들어가게 하면 모두 그 모양이 있습니다. 모양대로 놔서 쫙하게.)

106042 #2 게난 물총도 사가믄 그냥 아니헌덴 헙디다. 그거 다 지름 무시거 지름 불랑 멕영 뻣뻣허게 다 널엉, 우리 그때 들은 말인디, 널엉 헤사 그 짜는 것이, 또 딱딱헹

민질락허지 아니헹, 게난 우리 그때 그거 강은에 그냥 헤질 줄 알아요, 그때 헷는디. 문딱 손으로 방 풀 멕이듯이 무시거 멕영, 씰껍 줌지난에, 줌질게 허영 막덜 널엇당, 널엇당 그거 하나썩 빠멍 줏질 허믄.(그러니까 말총도 사가면 그냥 아니한다고 합디다. 그거 다 기름 무엇 기름 발라서 먹여서 뻣뻣하게 다 널어서, 우리 그때 들은 말인데, 널어서 해야 그 짜는 것이, 또 딱딱해서 매끈하지 아니해서, 그러니까 우리 그때 그거 가서 그냥 할 수 있을 줄 알아요, 그때 했는데. 모두 손으로 방 풀 먹이듯이 무엇 먹여서, 실밥 잘고 가느니까, 잘고 가늘게 해서 마구들 널었다가, 널었다가 그거 하나씩 빼면서 잣질하면.)

106042 #1 헤양허고 준 거는 뚜로 아사불고, 좋은 걸로 이제 갓을 멩글고, 그다음에는 탕건, 탕건은 ᄒᆞ끔 나쁜 저.(하얗고 잔 거는 따로 가져버리고, 좋은 것으로 이제 갓을 만들고, 그다음에는 탕건, 탕건은 조금 나쁜 저.)

106042 #2 긴, 긴 건 그거허고, 쫄른 것도 두 가지.(긴, 긴 건 그거하고, 짧은 것도 두 가지.)

106042 @ 재료는 ᄆᆞᆯ총이구나.(재료는 말총이구나.)

106042 #2 예, ᄆᆞᆯ총으로 다 헨. 우리 게 풀, 풀 멕영.(예, 말총으로 다 했어. 우리 그렇게 풀, 풀 먹여서.)

106042 #1 옛날 뭐 양반덜 쓰는 것도 다 ᄆᆞᆯ총으로 헹.(옛날 뭐 양반들 쓰는 것도 다 말총으로 했어.)

106042 #2 버짝, 버짝허게 헹 헌덴 헙디다게, 경헤사 ᄆᆞᆯ총 짜기 좋넨. ᄆᆞᆯ총 받으레 왕, 우리 것도 들은 말이우다게.(뻣뻣, 뻣뻣하게 해서 한다고 합디다, 그래야 말총 짜기 좋다고. 말총 받으러 와서, 우리 그것도 들은 말입니다.)

106042 #1 요즘은 다 저 인공으로 멩글앙, 옛날사 다 ᄆᆞᆯ총이옌 ᄆᆞᆯ 꼴렝이로 다 헷수다.(요즘은 다 저 인공으로 만들어서, 옛날이야 다 말총이라고 말 꼬랑이로 다 했습니다.)

106043 @ 그다음에 망건 줏기에 대허영 ᄒᆞᆫ번 ᄀᆞᆯ아줍서, 망건.(그다음에 망건 곁기에 대해서 한번 말해주십시오, 망건.)

106043 #1 탕건이옝도 허고 망건이옝도 허는디, 망건은 이 저 뭐 탕건 우이 갓 이렇게 둘르는 것이, 이렇게 끈이 양반덜허고 뭣을 구별허젠, 탕건은 뭐가 갓에 끈이 구별뒈어.(탕건이라고도 하고 망건이라고도 하는데, 망건은 이 저 뭐 탕건 위에 갓 이렇게 두르는 것이, 이렇게 끈이 양반들하고 뭣을 구별하려고, 탕건은 뭐가 갓에 끈이 구별되어.)

106043 #2 그것이 구별뒈어.(그것이 구별되어.)

106043 #1 탕건, 게난 영 쓴 거 보믄, 탕건 쓰믄 저 멀리서 봉 요거 양반이다, 저 이제 쌍놈은 아니다.(탕건, 그러니까 이렇게 쓴 것을 보면, 탕건 쓰면 저 멀리서 봐서 요거 양반이다, 이제 쌍놈은 아니다.)

106043 @ 망건은 얕은 사람이?(망건은 얕은 사람이?)

106043 #1 예, 얕은 사름이. 요건 탕건 써 가믄 ᄒᆞ끔 저건 지체가 높은 사람, 그걸

로 구별헨, 옛날은.(예, 얕은 사람이. 요건 탕건 써 가면 조금 저건 지체가 높은 사람, 그걸로 구별했어, 옛날은.)

106043 @ 줏는 건 마찬가지네예.(겯는 건 마찬가지네요.)

106043 #1 예, 줏는 건 마찬가지.(예, 겯는 건 마찬가지.)

106043 #2 그 줄젠 허믄 풀산디 뭘 멕인덴 헙디다게. 총 장시 왕 골아낫수다.(그 결으려고 하면 풀인지 뭘 먹인다고 합디다. 총 장수 와서 말했습니다.)

106043 @ 재료는 같은 거?(재료는 같은 거?)

106043 #1 예, 몰총 다.(예, 말총 다.)

106043 #2 경 헹 무신거 영 멕영.(그렇게 해서 무엇 이렇게 먹여서.)

106043 @ 옛날 그 저 뭐냐, 밧디 막 나는 거 잇지 아니허꽈? 질긴 거. 거 뭘로, 그거 귀덕[257]에.(옛날 그 저 뭐냐, 밭에 마구 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질긴 거. 그거 뭘로, 그거 '귀덕'에.)

106043 #1 아, 저 정동.(아, 저 댕댕이덩굴.)

106043 @ 어, 정동으로, 정동으로 줏는 건 뭐라?(어, 댕댕이덩굴로, 댕댕이덩굴로 겯는 건 뭐야?)

106043 #1 정동으로 헌 건, 거 방립이옌 허연.(댕댕이덩굴로 한 건, 그거 방립이라고 했어.)

106043 @ 방립?(방립?)

106043 #2 페렝이 것추룩.(패랭이 것처럼.)

106043 @ 방립.(방립.)

106043 #1 방립이 페렝입주게, 페렝이. 방립 모자 영 허믄 정둥 거둬당 그저. 정동도 거둰은에 멩글앙 모제, 이제 ᄀᆞ뜨면.(방립이 패랭이지요, 패랭이. 방립 모자 이렇게 하면 거둬다가 그저. 댕댕이덩굴도 거둬서 만들어 모자, 이제 같으면.)

106043 @ 밧 바닥에 막 나주게.(밭 바닥에 마구 나지요.)

106043 #1 예, 페렝이, 페렝이주게.(예, 패랭이, 패랭이지요.)

106043 #2 이제 ᄀᆞ뜨면 페렝이, 그늘도 하영 져, 그거.(이제 같으면 패랭이, 그늘도 많이 져, 그거.)

106043 #1 머리도 무거와.(머리도 무거워.)

106043 @ 귀덕 사름덜 잘 준덴 허여.('귀덕' 사람들 잘 겯는다고 해.)

106043 #2 귀덕 사름덜 잘 줄 거우다.('귀덕' 사람들 잘 결을 것입니다.)

106044 @ 그다음에 도롱이 아까 우장, 우장에 대허영 흔번 골아줍서.(그다음에 도롱이 아까 '우장', 도롱이에 대해서 한번 말해주십시오.)

106044 #1 우장은 새로 똑 ᄂᆞ람지, 주젱이 식으로.(도롱이는 띠로 똑 'ᄂᆞ람지', 주저리 식으로.)

106044 @ 도롱이옝도 허주게, 우장.(도롱이라고도 하지요. '우장'.)

106044 #1 우장이, 우장이옝. 영 헹 비, 큰비 올 때도 그 똑 더끄는 것도 저 새도

257) '귀덕'은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를 말한다.

좋은 걸로, 진 걸로 우장 저 멩글암직허다 허믄 새가 아주 진 거 헤야, 거 멀리 영 짜믄 똑 주젱이 허듯이 여깡, 이제 영 헹 머리에 써 보믄 톡 허믄 거 옛날은 우비가 셧수강? 우비도 어섯주게.(도롱이, 도롱이라고. 이렇게 해서 비, 큰비 올 때도 그 똑 덮는 것도 저 새도 좋은 것으로, 긴 것으로 도롱이 저 만들 것 같다 하면 띠가 아주 긴 것 해야, 그거 멀리 이렇게 짜면 똑 주저리 하듯이 엮어서, 이제 이렇게 해서 머리에 써 보면 톡 하면 그거 옛날은 우비가 있었습니까? 우비도 없었지요.)

106044 #2 그거 ᄂᆞ람지 더껑 대가리에 쓰믄 우장 쓰는 거고.(그거 'ᄂᆞ람지' 덮어서 머리에 쓰면 도롱이 쓰는 거고.)

106044 #1 게믄 이 저 우장 쓰는 거, 이디 ᄂᆞ람지도 뭣이옌?(그러면 이 저 도롱이 쓰는 거, 여기 'ᄂᆞ람지'도 뭣이라고?)

106044 #2 ᄂᆞ람지.('ᄂᆞ람지'.)

106044 #1 두르메영 ᄂᆞ람지가 이서. 좀질게 여깡. 새끼로 헹 영 톡 씨곡 우이 우장 씌우곡 허믄 비가 와도 안 들어. 거 옛날은 무신것 우비가 셧수강? 어섯주기. 그런 걸로 멩글앙 썻주.(둘러매어서 'ᄂᆞ람지'가 있어. 잘고 가늘게 엮어서. 새끼로 해서 이렇게 쓰고 위에 도롱이 씌우고 하면 비가 와도 안 들어. 그렇게 옛날은 무엇 우비가 있었습니까? 없었지요. 그런 것으로 만들어서 썼지.)

7. 식생활

밥과 국

107001 @ 오늘은 그 밥예, 밥에 대헤서 물어보젠 허는데, 밥 종류에는 어떤 것덜 잇수가? 밥 종류.(오늘은 그 밥요, 밥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 밥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107001 #2 밥 종류는 무시거 셔? 보리밥, 좀쏠밥[258], 곤밥도 허고, 곤밥은 아기나 멕이젱 나룩 저.(밥 종류는 무엇 있어? 보리밥, '좀쏠밥', 흰밥도 하고, 흰밥은 아기나 먹이려고 벼 저.)

107001 @ 그 종류덜 말헤봅서.(그 종류들 말해보십시오.)

107001 #2 보리밥허고, 좀쏠밥허고, 곤밥허고.(보리밥하고, '좀쏠밥'하고, 흰밥하고.)

107001 @ 좀쏠밥?('좀쏠밥'?)

107001 #2 좀쏠밥, 좀쏠[259], 좀쏠밥 쏠을 반착 ᄀᆞ레에 골앙, 게 아이믄 베 아픈덴 허멍, 아이덜 그거 좀쏠밥 헹 멕이고.('좀쏠밥', '좀쏠', '좀쏠밥' 쌀을 반쪽 맷돌에 갈아서, 그렇게 아니하면 배 아프다고 하면서, 아이들 그거 '좀쏠밥' 해서 먹이고.)

107001 @ 조팝도 잇고.(조밥도 있고.)

258) '좀쏠밥'은 잘게 간 보리쌀 따위로 지은 밥이다.
259) '좀쏠'은 잘게 간 보리쌀 따위를 말한다.

107001 #2 조팝, 조팝은 저 핫주기.(조밥, 조밥은 저 많지요.)

107001 #1 감제 썰어놩은에.(고구마 썰어 넣어서.)

107001 #2 감제밥.(고구마밥.)

107001 #1 감제밥 싯고, 또.(고구마밥 있고, 또.)

107001 #2 콩밥, 밥은 그추룩 헌 밥도.(콩밥, 밥은 그처럼 한 밥도.)

107001 #1 아니 조밥, 쌀이 좁쌀이믄 픗 놓곡, 옛날 거 촐왓디 강.(아니 조밥, 쌀이 좁쌀이면 팥 넣고, 옛날 그거 꼴밭에 가서.)

107001 #2 모인좁쏠밥도 잇고.(메좁쌀밥도 있고.)

107001 #1 저 감제 썰어놓곡, 픗 놓고, 또 보리쌀에 좁쏠에 헤 가지고 이제 경 헹, 그것이 맛도 좋곡, 촐 비레 갈 때, 그거 놔뒁당은에 그걸 경 헨 먹어낫주. 감제밥이영.(저 고구마 썰어 넣고, 팥 넣고, 또 보리쌀에 좁쌀에 해 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서, 그것이 맛도 좋고, 꼴 베러 갈 때, 그거 놔뒀다가 그걸 그렇게 해서 먹었었지. 고구마밥이랑.)

107001 #2 보리밥이여, 저 ᄉᆞ레기밥이여, 뚜시 무신것고? 아까 저.(보리밥이여, 저 싸라기밥이여, 다시 무엇인가? 아까 저.)

107001 #1 좀쏠밥.('좀쏠밥'.)

107001 #2 좀쏠밥이여, 좀쏠밥이 ᄉᆞ레기밥이주기. ᄉᆞ레기밥, ᄉᆞ레기밥.('좀쏠밥'이여, '좀쏠밥'이 싸라기밥이지요. 싸라기밥, 싸라기밥.)

107001 @ 눔삐밥.(무밥.)

107001 #2 눔삐밥도 잇고, 밥은.(무밥도 있고, 밥은.)

107001 @ 반지기밥[260]?('반지기밥'?)

107001 #2 반지기밥도 잇고.('반지기밥'도 있고.)

107001 #1 아, 반지기밥.(아, '반지기밥'.)

107001 #2 쏠밥도 잇고게. 밥은 알아지켜.(쌀밥도 있고요. 밥은 알 수 있겠어.)

107001 #1 옛날은 반지기밥 허믄.(옛날은 '반지기밥' 하면.)

107001 @ 톳, 톳으로도 밥헨 먹어낫주.(톳, 톳으로도 밥해서 먹었었지.)

107001 #2 허긴 헤도 그런 건 잘 우린.(하기는 해도 그런 건 잘 우린.)

107001 @ 넘피밥?(넓패밥?)

107001 #1 아, 아, 넘피, 넘피 거 톳보단도 넘피, 패영 헷주, 패.(아, 아, 넓패, 넓패 그거 톳보다도 넓패, 패라고 했지, 패.)

107001 #2 ᄎᆞ라왕. 거 아니믄.(짜서. 그거 아니면.)

107001 @ 패밥?(패밥?)

107001 #1 패밥이 이신디 주로 여기서 허믄.(패밥이 있는데 주로 여기서 하면.)

107001 @ 넘피영도 허고, 패영도 허고.(넓패라고도 하고, 패라고도 하고.)

107001 #1 패 경혼디, 그거 헐 땐 물릇, 그거 딸령 먹는디 물릇밧디 가믄 물릇, 이젠 물릇이 어려운디 그땐 멘 물릇이라. 질왓[261]디 강 허믄 물릇이 빈주랑, 게 물릇에

260) '반지기밥'은 보리쌀과 쌀을 반씩 섞어서 지은 밥, '반지기'라고도 한다.

패 놩 허영, 그걸 저 우리도 어려왕 그걸 먹젠 허믄 망데기[262]에, 망데기에 헹 그거 ᄀᆞ시락 불 살랑, 우이 두껑 더끄곡 헤 가지고 걸 ᄀᆞ시락 불로 은근이, 재게 딸리믄 항이 벌러져부난 츤츤이 헹 딸려 노믄 이게 짐 후제 익어. 익엉 헤노믄, 거 패가양, 이제도 소위 말하는 패 먹은 똥, 패 먹은 똥.(패 그런데, 그거 할 땐 무릇, 그거 딸려서 먹는데 무릇밭에 가면 무릇, 이젠 무릇이 어려운데 그땐 맨 무릇이야. '질왓'에 가서 하면 무릇 아주 많이 보여, 그렇게 무릇에 패 넣어서 해서, 그걸 저 우리도 어려워서 그걸 먹으려고 하면 '망데기'에, '망데기'에 해서 그거 까끄라기 불 피우서, 위에 뚜껑 덮고 해 가지고 걸 까끄라기 불로 은근히, 빨리 딸리면 항이 깨져 버리니까 천천히 해서 딸려 놓으면 이게 김 후에 익어. 익어서 해놓으면, 그거 패가요, 이제도 소위 말하는 패 먹은 똥, 패 먹은 똥.)

107001 #2 막 독허여.(아주 독해.)

107002 @ 이거는 나중에 하나하나 물어보쿠다양. 밥쏠 종류 잇지 안허꽈? 밥쏠 종류. 쏠 종류는 보리도 잇고.(이거는 나중에 하나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밥쌀 종류 있지 않습니까? 밥쌀 종류. 쌀 종류는 보리도 있고.)

107002 #1 통보리밥[263].('통보리밥'.)

107002 @ 아, 거난 쏠 종류, 종류.(아, 그러니까 쌀 종류, 종류.)

107002 #2 통보리쏠, 보리쏠, 검은 보리쏠, 또 즘쏠, 노랑 보리쏠, 검은 좁쏠.(통보리쌀, 보리쌀, 검은 보리쌀, 또 '즘쏠', 노랑 보리쌀, 검은 좁쌀.)

107002 @ 그다음.(그다음.)

107002 #2 이 저, 아니 풋도 쏠이라.(이 저, 아니 팥도 쌀이야.)

107002 @ 풋밥.(팥밥.)

107002 #2 풋밥도 잇고게, 콩밥도 잇고, 저 감제밥도 잇고, 패밥도 잇곡. 패밥은 아기덜은 안 멕여, 아이 멕여나서. 우리 퐨 어른덜 ᄀᆞᆯ령 먹어도 질기곡 먹으믄 츠라왕은에.(팥밥도 있고요, 콩밥도 있고, 저 고구마밥도 있고, 패밥도 있고. 패밥은 아기들은 안 억여, 아니 먹였었어. 우리 패는 어른들 골려서 먹어도 질기고 먹으면 짜서.)

107003 @ 경허믄양, 하나하나 물어부쿠다예. 보리밥에 대허영 ᄀᆞᆯ아줍서. 보리밥 어떻게 만들어 먹을 것이냐?(그러면요, 하나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보리밥에 대해서 말해주십시오. 보리밥 어떻게 만들어 먹을 것이냐?)

107003 #2 보리게, 보리쏠, 보리 두드령 장만헤당은에게, 저 거세기 ᄀᆞ레에 ᄀᆞᆯ앙, ᄀᆞ레에 ᄀᆞᆯ앙은에 물 웃졋당은에, 물 웃짐도허고 ᄌᆞ를지믄, ᄌᆞ를지믄 그냥 놔근에 솟디 솔입에 살랑은에 밥허믄 밥이 가실가실허여. 가실가실헤도 오래 틈 재왕 놔두믄 그자 문작헹.(보리요, 보리쌀, 보리 두드려서 장만해다가, 저 거시기 맷돌에 갈아서, 맷돌에 갈아서 물에 적셨다가, 물에 적심도 하고 바쁘면, 바쁘면 그냥 넣어서 솥에 솔잎에 불을 피워서 밥하면 밥이 진기가 없어. 진기가 없어도 오래 뜸 재워서 놔두면 그저 반드러워서.)

---

261) '질왓'은 돌멩이가 없고 맨흙이 깔려 있는 밭이다.
262) '망데기'는 중두리 정도 크기의 중배가 부르지 않은 옹기이다.
263) '통보리밥'은 갈지(磨) 아니한 온 보리쌀로 지은 밥이다.

107003 @ 보리 솟에 놩 솖아야 헐 거 아니우꽈?(보리 솥에 넣어서 삶아야 할 거 아닙니까?)

107003 #2 솟디 놩 솖앙, 솖앙.(솥에 넣어서 삶아서, 삶아서.)

107003 #1 게난 우리, 나도 보리밥을 하영 헤봣는디, 이게 보릿낭으로 허영 솖는디, 이게 막 낭을 족게 들이곡, 덜 익젠 허믄 혼번 궤와, 초불 궤왕 내불어마씨. 물을 어느 정도 놩 궤왕 놔뒀당, 틈 자믄 이제, 그땐 물 뿔운덴 허영 나중에 뿔우왕 혼번 더 궤왕 솜으믄 밥이 뒈메, 문작허게.(그러니까 우리, 나도 보리밥을 많이 해봤는데, 이게 보릿짚으로 해서 삶는데, 이게 아주 짚을 적게 들이고, 덜 익으려고 하면 한번 끓여, 초벌 끓여서 내버려요. 물을 어느 정도 넣어서 끓여서 놔뒀다가, 뜸 자면 이제, 그땐 물 잦힌다고 해서 나중에 잦혀서 한번 더 끓여서 불을 때면 밥이 되지, 반드럽게.)

107003 #2 보리가 게 문작허게 지어지지 아니허문 깍깍허영게, 깍깍허고 뭣허고. 게고 보린 매집이 엇고게. 게도 그냥 ᄀᆞ레에 ᄀᆞᆯ믄 가실가실헹 헤도게, 거 쳐근에 재게 먹젠 허믄 보리 물 컷당은에, 물 컷당은에 어디 건졍 놔뒀당도 먹곡, 그냥도 솜앙은에 물 뿔엉은에, 물 궤왕 놔두믄 물이 재게, 그 쏠이 뿍뿍뿍헤노난 재기 익질 아니허여. 익지 아니헤도 틈 재와근에 놔두엇당 물 뿔엇젠 허믄, 물 뿔은 거 강 영 먹어보믄 뿍뿍허믄, 뚜시 솜곡, 뚜시 솜앙도 먹곡 허멍, 밥이옝 헌 건 그추룩 헹, 보리밥은 경 헨 먹고.(보리가 그렇게 반드럽게 지어지지 않으면 까끌까끌해서, 까끌까끌하고 뭣하고. 그리고 보린 매집이 없고요. 그래도 그냥 맷돌에 갈면 진기가 없어서 해도요, 그거 쪄서 빨리 먹으려고 하면 보리 물 담갔다가, 물 담갔다가 어디 건져서 놔뒀다가도 먹고 그냥도 불 때서 물 삐어서, 물 끓여서 놔두면 물이 빨리, 그 쌀이 뿍뿍뿍하니까 빨리 익지를 아니해. 익지 아니해도 뜸 재워서 놔뒀다가 물 삐었다고 하면, 물 삔 것 가서 이렇게 먹어보면 뿍뿍하면, 다시 불을 때고, 다시 불을 때서 먹고 하면서, 밥이라고 한 건 그처럼 해서, 보리밥은 그렇게 해서 먹고.)

107003 #1 보리가, 또 가을 들어강 조팝허믄.(보리가, 또 가을 들어가서 조밥하면.)

107003 @ 아, 거난 건 나중에.(그러니까 건 나중에.)

107003 #2 나중에 허고, 게난 보리밥만 허고.(나중에 하고, 그러니까 보리밥만 하고.)

107003 @ 보리밥만양.(보리밥만이요.)

107003 #2 게난 그추룩 헹 보리 물 웃졍은에, 촐왓디 갈 때도 동고랑[264]에 거렁 어정가고. 물 잘잘 헤도 보리밥은, 보리밥은 먹으믄 곧 시장허고, 곧 베고프고, 베고프곡 헹, 밥은 들구 먹어봐도 베가 불질 아니허여. 경헤도 어선, 그 밥도. ᄀᆞ레에 ᄀᆞᆯ안 매날 앚졍 놔둠주. ᄀᆞ레 매날 쏠 헐 적마다 혼뻔에 쏠 장만 못 허난, ᄀᆞ레에 매날 앚졍 놔둠서.(그러니까 그처럼 해서 보리 물 적셔서, 꼴밭에 갈 때도 '동고랑'에 떠서 가져가고. 물 잘잘 해도 보리밥은, 보리밥은 먹으면 곧 시장하고, 곧 배고프고, 배고프고 해서, 밥은 계속 먹어봐도 배가 불지 아니해. 그래도 없어서, 그 밥도. 맷돌에 갈아서 맨날 앉혀서 놔두고 있으면서. 맷돌 맨날 쌀 할 적마다 한꺼번에 쌀 장만 못 하니까, 맷돌 맨날

264) '동고랑'은 대오리로 네모나게 만든 도시락. '동고랑착'이라고도 한다.

앉혀서 놔두고 있으면서.)

107003 #1 동고량착에.(‘동고량착’에.)

107003 #2 동고량착 지곡 허멍. 가당 보믄 보리왓디영, 촐왓디영, 경 허멍 가난. 보리죽, 보리죽도 쒕 먹곡.(‘동고량착’ 지고 하면서. 가다가 보면 보리밭이랑, 꼴밭이랑, 그렇게 하면서 가니까. 보리죽, 보리죽도 쒀서 먹고.)

107004 @ 그다음에 반지기밥에 대허영 골아줍서.(그다음에 ‘반지기밥’에 대해서 말해주십시오.)

107004 #2 반지기밥은 무시거 저, 거세기.(‘반지기밥’은 무엇 저, 거시기.)

107004 #1 보리쏠 반지기.(보리쌀 ‘반지기’.)

107004 #2 줌쏠 멘들앙게, 보리 벌렁.(‘줌쏠’ 만들어서, 보리 깨어서.)

107004 @ 보리에 쏠 놩.(보리에 쌀 넣어서.)

107004 #2 보리에 쏠 놔도 반지기밥. 게난 쏠은 재게 익고, 보리쏠은 두루 익주게.(보리에 쌀 넣어도 ‘반지기밥’. 그러니까 쌀은 빨리 익고, 보리쌀은 덜 익지요.)

107004 @ 게난 반지기밥은 어떵 멩글앗수가?(그러니까 ‘반지기밥’은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107004 #2 게난 반지기 멘들믄 보리쏠 ᄀᆞ레에 골믄, 보리쏠이 반착썩 벌러지믄 재게 익을 거 아이라게? 게믄 산디쏠에 헤근에 ᄀᆞ찌 놩은에.(그러니까 ‘반지기’ 만들면 보리쌀 맷돌에 갈면, 보리쌀이 반쪽씩 깨지면 빨리 익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밭벼쌀에 해서 같이 넣어서.)

107004 #1 ᄀᆞ찌 놩 뒈나?(같이 넣어서 되나?)

107004 #2 ᄀᆞ찌 놩 아니 저.(같이 넣어서 아니 저.)

107004 @ 보리쏠 놩, 다음에 놔야 뒈어.(보리쌀 넣어서, 다음에 넣어야 되어.)

107004 #1 그추룩 허믄 안 뒈어.(그처럼 하면 안 되어.)

107004 #2 쏠이 혼번 늦추어 놩.(쌀 한번 늦추어 넣어서.)

107004 #1 궤와 놩은에.(끓여 놓아서.)

107004 @ 저 좀 뜸 들영 헤놓은 다음에, 다음에 곤쏠 놩은에.(저 조금 뜸 들여서 해놓은 다음에, 다음에 흰쌀 넣어서.)

107004 #2 나룩쏠을 놩 허고, 게난 재기 아니 허민, 우린 문 ᄀᆞ레에 골멍, 친정어머니.(볍쌀을 넣어서 하고, 그러니까 빨리 아니하면, 우린 모두 맷돌에 갈면서, 친정어머니.)

107004 @ 납작보리쏠이 나중에 생겻수다.(납작보리쌀이 나중에 생겼습니다.)

107004 #1 경 헨 재게 익엉.(그렇게 해서 빨리 익어서.)

107004 #2 납작보리쏠은 막 우리 큰 후제, 아기덜토 난 후제 납작보리쏠 나고.(납작보리쌀은 아주 우리 큰 후에, 아기들도 낳은 후에 납작보리쌀 나고.)

107004 @ 나 자취헐 때 납작보리쏠로 밥헤 먹엇수다.(나 자취할 때 납작보리쌀로 밥해 먹었습니다.)

107004 #2 그땐 막 ᄉᆞ삼사건 후제, 막 오랜 후제.(그땐 아주 사삼사건 후에, 아주 오

랜 후에.)

107004 @ 거난 반지기밥을 허는 이유가 옛날 우리 소풍 가젠 허며는 보리밥 쌍 보내진 아니허거든, 경 헤근에 이제.(그러니까 '반지기밥'을 하는 이유가 옛날 우리가 소풍 가려고 하면 보리밥 싸서 보내지 아니하거든, 그렇게 해서 이제.)

107004 #2 아이고, 선생님넨 부제우다.(아이고, 선생님네는 부자입니다.)

107004 @ 보리쏠 영 헤근에 곤쏠 혼 주먹 놩은에 젓지 아니허여, 그거만 익게 멩글앙은에 그걸 영 헤근에 섞언에 소풍 보냇거든.(보리쌀 이렇게 해서 흰쌀 한 주먹 넣어서 젓지 아니해, 그거만 익게 만들어서 그걸 이렇게 해서 섞어서 소풍 보냈거든.)

107004 #2 아이고, 선생님은 부제라낫수다. 우린 보리쏠만 거령 가낫수다, 마농지허곡게.(아이고, 선생님은 부자였습니다. 우린 보리쌀만 떠서 갔었습니다, 마늘장아찌하고요.)

107004 @ 게난 그걸 영 헤근에, 논을 조끔 허니까.(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해서, 논을 조금 하니까.)

107004 #2 논 허난 헷주. 우린양 놈이 논 벵작허고, 경 우린 저.(논을 하니까 했지. 우린요 남의 논 병작하고, 그렇게 우린 저.)

107004 #1 논 허난 나왓겟지. 여기는 뭐옌 허믄양, 우리 저 소풍갈 때 얘기로고만, 우리 혼번은 국민학교 사학년쯤 뒐 때라. 욮이 친구영 헤근에, 아, 거 부모님 못 살 건데, 너네 소풍 가지 말앙 오늘 쉐 보렌 허라 아, 가만 셍각헤 보난 막 부에가 나, 놈덜은 다 소풍 가는디 쉐 보렝 헤노믄 부에 안 납네까? 아멩 어린 거라도. 게난 이 저 남수네 아시영 우리 쉐 에와뒁 가게, 이제 어디 담 동그랑케 다왕 쉐 에와뒁, 게 소풍을 간. 아, 게난 부모네 경허난 동고량이면 좋아. 이제 얼른 재게 가젠 허난 사발에 뭐 보리쏠밥헌 거 놓곡, 뭐 반찬이 시카, 마농지.(논을 하니까 나왔겠지. 여기는 뭐라고 하면요, 우리 저 소풍 갈 때 얘기구만, 우리 한번은 국민학교 사학년쯤 될 때야. 옆의 친구랑 해서, 아, 그거 부모님 못 살 건인데, 너희들 소풍 가지 말아서 오늘 소 보라고 하라, 아,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아주 화가 나, 남들은 다 소풍 가는데 소 보라고 하면 화가 안 납니까? 아무리 어린 거라도. 그러니까 이 저 남수네 동생이랑 우리 소 에워둬서 가게, 이제 어디 담 동그랗게 다 와서 소 에워둬서, 그렇게 소풍 갔어. 아, 그러니까 부모네 그러니까 '동고량'이면 좋아. 이제 얼른 빨리 가려고 하니까 사발에 뭐 보리쌀밥 한 것 놓고, 뭐 반찬이 있을까, 마늘장아찌.)

107004 #2 우테레 놘에.(위로 놓아서.)

107004 #1 그거허곡 헨 갓어, 간 졍 가난에, 소풍 헐 때 뚠 아이덜은 영 그 저 동그량착에 게도 영 계란 반찬이나 허곡 반지기밥 헹 먹는디, 아 우린 보리밥에 마농지 허난, 사발에 거리난 놈 부끄러완 저 곱안 뚠 디 간 먹언 오멍 헤낫수다게, 그런 기록들이.(그거하고 해서 갔어, 가서 져서 가니까, 소풍 할 때 다른 아이들은 이렇게 그 저 '동그량착'에 그래도 이렇게 계란 반찬이나 하고 '반지기밥' 해서 먹는데, 아 우린 보리밥에 마늘장아찌 하니까, 사발에 뜨니까 남 부끄러워서 저 숨어서 다른 데 가서 먹어서 오면서 했었습니다, 그런 기록들이.)

107004 @ 나도 경 헷수다. 듹새기 헹은에 그 불루젠 세우리 놔근에 막 불리주게. 그거 어선 나도 소풍 두 번 못 가낫수다.(나도 그렇게 했습니다. 달걀 해서 그 늘리려고 부추 넣어서 막 늘리지요. 그거 없어서 나도 소풍 두 번 못 갔었습니다.)

107004 #1 세우리 하영 놓고.(부추 많이 넣고.)

107004 #2 게도 선생님넨 잘 살앗수다게. 아멩 헷자.(그래도 선생님네는 잘 살았습니다. 아무리 했자.)

107004 #1 아멩 헤도 잘 사난.(아무리 해도 잘 사니까.)

107004 #2 예, 옛날부떠.(예, 옛날부터.)

107004 @ 아, 게난 조상한티 식게허젠 논 물려받은 것이 이섯주게.(아, 그러니까 조상한테 제사하려고 논 물려받은 것이 있었지요.)

107004 #2 게메, 게난 아멩 헤도 잘 살앗수다게.(글쎄,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잘 살았습니다.)

107004 #1 게난 제월제 밧이라도 어디.(그러니까 제위전 밭이라도 어디.)

107004 @ 게난 반지기밥 허며는 보리쏠허고 곤쏠.(그러니까 '반지기밥' 하면 보리쌀하고 흰쌀.)

107004 #2 곤쏠 저 나룩.(흰쌀 저 벼.)

107004 @ 놩 헤도 반지기.(넣어서 해도 '반지기'.)

107004 #2 산디쏠 해당 반지기.(밭벼쌀 해다가 '반지기'.)

107004 @ 보리쏠허고 좁쏠 헌 것도 반지기라양? 거 반지기엔 허지 안 헌단 말이꽈?(보리쌀하고 좁쌀 한 것도 '반지기'지요? 그거 '반지기'라고 하지 안 한다는 말입니까?)

107004 #1 보리쏠에 저 나룩쏠 헤사 반지기밥이옌.(보리쌀에 저 볍쌀 해야 '반지기밥'이라고.)

107004 @ 보리쏠에 좁쏠은 반지기엔 안 허여.(보리쌀에 좁쌀은 '반지기'라고 안 해.)

107004 #2 반지기엔 안 허고, 무사 게도 반지기, 반지기엔 헹 쌍 갓수다.('반지기'라고 안 하고, 왜 그래도 '반지기', '반지기'라고 해서 싸서 갔습니다.)

107004 @ 반지기 허믄 보통 보리쏠에 곤쏠이라.('반지기' 하면 보통 보리쌀에 흰쌀이야.)

107004 #2 나룩쏠 놩 ᄒᆞ끔 헤사, 나룩쏠. 우리 나룩, 나룩이라. 산디, 산디 헹 ᄒᆞ끔 벵작 허믄.(볍쌀 넣어서 조금 해야, 볍쌀. 우리 벼, 벼야. 밭벼, 밭벼 해서 조금 병작 하면.)

107004 @ 풀기가 엇주게.(풀기가 없지.)

107004 #1 예, 갈갈갈 허영.(예, 갈갈갈 해서.)

107004 #2 게난 그거 ᄒᆞ끔 갈라오믄 도께로 두드령 장만헹은에.(그러니까 그거 조금 갈라오면 도리깨로 두드려서 장만해서.)

107005 @ 그다음에 곤밥에 대허영 ᄀᆞᆯ아줍서.(그다음에 흰밥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107005 #2 곤밥은 나룩 지어당, 저 산디 지어당 허믄 곤밥이주기. 산디 지어당 곤쏠 노으믄 곤밥, 곤밥 헹 제사허곡.(곤밥은 벼 찌어다가, 저 밭벼 찌어다가 하면 흰밥이지요. 밭벼 찌어다가 흰쌀 넣으면 흰밥, 흰밥해서 제사하고.)

107005 #1 겐디 요즘은양 쏠이 뭐 헌 디, 옛날은 그 진짜배기 쏠로 농약도 벨로 안 치곡 헤 노난 곤밥 헤 가믄 이웃디서 거, 제사 때 영, 멩질 땐 집집마다 헐 거 아니우꽈? 경헹 밥 거려 가믄 거, 곤밥 냄새가 구수하게 나는디 지금은 안 나마씨.(그런데 요즘은요 쌀이 뭐 한 데, 옛날은 진짜 쌀로 농약도 별로 안 치고 해 놓으니까 흰밥 해 가면 이웃에서 거, 제사 때 이렇게, 명절 땐 집집마다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밥 떠 가면 거, 흰밥 냄새가 구수하게 나는데 지금은 안 나요.)

107005 #2 곤밥 허믄 그자.(흰밥 하면 그저.)

107005 @ 다 곤밥 허영 먹어부난게.(다 흰밥해서 먹어버리니까.)

107005 #1 곤밥 먹곡, 일 년에 멩질 때 딱 허고, 식게 땐디 식게 땐 베 불게 못 얻어먹어. 멩질 때는 혼 대여섯 집 돌아뎅이믄 ᄒᆞ루종일 곤밥 먹을 거 아니우꽈? 게 노면 너무 하영 먹엉, 주는 양 다 먹엉 뒷날은 베 아팡. 베 아팡, 허허(웃음).(흰밥 먹고, 일 년에 명절 때 딱 허고, 제사 때인데 제사 땐 배 불게 못 얻어먹어. 명절 때는 한 대여섯 집 돌아다니면 하루종일 흰밥 먹을 거 아닙니까? 그거 놓으면 너무 많이 먹어서, 주는 대로 다 먹어서 뒷날은 배 아파서. 배 아파서, 허허.(웃음))

107005 #2 하도 먹을 거 어서 노난, 집인 아무것도 엇곡 허민.(하도 먹을 거 없어 놓으니까, 집에는 아무것도 없고 하면.)

107005 #1 먹을 거 어선. 쳐 먹어 노믄 베 아팡양, 설사 나곡 영.(먹을 거 없어서. 아주 많이 먹어 놓으면 배 아파서요, 설사 나고 이렇게.)

107005 @ 게난 다 먹어부는 겁주게.(그러니까 다 먹어버리는 거지.)

107005 #1 주는 양 막 먹어.(주는 대로 마구 먹어.)

107005 @ 콩ᄂᆞ물도 주민 다 먹어불곡.(콩나물도 주면 다 먹어버리고.)

107005 #1 하이튼 뭐 허당도 식게칩이 가믄, 쏠 떨어졋덴 허영, 요거 요만헌 도욕[265]만이 헌 적갈[266] 하나.(하여튼 뭐 하다가도 제삿집이 가면, 쌀 떨어졌다고 해서, 요거 요만한 '도욕'만큼 한 '적갈' 하나.)

107005 @ 옛날 보말만씩 허연.(옛날 고둥만큼씩 해서.)

107005 #1 예, 영 봉 아, 이거 적갈 엇다, 식겟칩이서. 하하.(웃음)(예, 이렇게 봐서 아, 이거 '적갈' 없다, 제삿집에서. 하하(웃음).)

107005 @ 게난 혼 근으로 식겔 헷수게게.(그러니까 한 근으로 제사를 했습니다.)

107005 #1 예, 경 헹 가져오고.(예, 그렇게 해서 가져오고.)

107005 #2 예, 경 헹 얻어 먹곡.(예, 그렇게 해서 얻어 먹고.)

107005 @ 돗궤기 혼 근, 육백 그람이 혼 근 아니우꽈? 육백 그람게.(돼지고 한 근, 육백 그램이 한 근 아닙니까? 육백 그램이.)

---

265) '도욕'은 고동. 물렛가락의 윗몸에 끼워 고정시킨 두 개의 구슬 같은 물건이다.
266) '적갈'은 적 따위를 통틀어 일컫는 말이다.

107005 #1 혼 근이믄 식게허당도 남아.(한 근이면 제사하다가도 남아.)

107005 @ 재수 어시민 쟁반에 돗궤기 혼 점이 없어.(재수 없으면 쟁반에 돼지고기 한 점이 없어.)

107005 #1 하하(웃음), 거 이 경 헤낫수다.(하하(웃음), 거 이 그렇게 했었습니다.)

107005 #2 선생님도 알고, 알암신게.(선생님도 알고, 알고 있네.)

107005 #1 이디 돗궤기 적갈 떨어졋저 허믄 가져오곡. 하하(웃음).(여기 돼지고기 적 떨어졌다 하면 가져오고. 하하(웃음).)

107005 @ 사과 하나 가지믄 혼 열두 사름 갈르곡.(사과 하나 가지면 한 열두 사람 가르고.)

107005 #2 예, 그추룩 헷수게.(예, 그처럼 했습니다.)

107005 #1 바싹 갈랑은에, 아이고 그추룩, 아무 디도 어려와나서양.(바싹 갈라서, 아이고 그처럼 아무 데도 어려웠어요.)

107005 @ 나도 식게 먹으레 잘 뎅엿수다. 우리 집 중에는 나가 그때, 어릴 때 으망져난 모양이라마씨.(나도 제사 먹으러 잘 다녔습니다. 우리 집 중에는 나가 그때, 어릴 때 똑똑한 모양이에요.)

107005 #1 식게칩일 잘 다년.(제삿집에를 잘 다녔어.)

107005 @ 식게칩이 그냥, 뭐 얻어먹젠.(제삿집에 그냥, 뭐 얻어먹으려고.)

107005 #1 아, 게믄 식겟칩이 가믄, 콩ᄂᆞᆯ도 먹곡, 거 첨 먹을 것이 호박 채영, 뭣이영, 곤밥이영 먹을 게 핫주게.(아, 그러면 제삿집에 가면, 콩나물도 먹고, 거 참 먹을 것이 호박채랑, 뭣이랑, 흰밥이랑 먹을 것이 많지.)

107005 #2 곤밥 주곡 허믄 경.(흰밥 주고 하면 그렇게.)

107005 @ 마농지만 먹당게 그거 먹어 노민.(마늘장아찌만 먹다가 그거 먹어 놓으면.)

107005 #2 막 가민 맛 좋게 먹어난.(마구 가면 맛 좋게 먹었었어.)

107005 @ 잔치 때도 보민 곤밥을 다 안 헤서양?(잔치 때도 보면 흰밥을 다 안 했지요?)

107005 #2 곤밥 아이고, 게난. 옛날 식게칩이도 못 사난.(흰밥 아이고, 그러니까. 옛날 제삿집에도 못 사니까.)

107005 @ 보리밥 멩텡이로 허영, 풋밥으로 영.(보리밥 망태기로 해서, 팥밥으로 이렇게.)

107005 #1 잔칫집인 저, 반지기밥 허영도 허고, 반지기밥 영 허고, 어떤 딘 통보리밥[267]도 싯고.(잔칫집에는 저, '반지기밥' 해서도 하고, '반지기밥' 이렇게 하고, 어떤 데는 '통보리밥'도 있고.)

107005 @ 보리밥이 대부분이우다.(보리밥이 대부분입니다.)

107005 #2 예, 보리밥이 하낫수다게.(예, 보리밥이 많았었습니다.)

107005 #1 반지기밥 헌 딘 나중이고.('반지기밥' 한 덴 나중이고.)

---

267) '통보리밥'은 갈지(磨) 아니한 온 보리쌀로 지은 밥이다.

107005 @ 겐디 곤밥은 저 나이 드신 분 이시며는, 저 흔 그릇 정도 헤근에 옆이 놔 근에 보내메.(그런데 흰밥은 저 나이 드신 분 있으면, 저 한 그릇 정도 해서 옆에 놔서 보내지.)

107005 #1 어디 사둔칩이 영 허믄 저 데반, 우시 앚을 것 아니우꽈? 우시 앚이믄 그딘 곤밥이 나와, 게믄 먹당 영 손지신디도 사발에 영 거렁, 요거 우리 손지신디 주렌 헹 영.(어디 사돈집에 이렇게 하면 저 대반, 위요 앉을 것 아닙니까? 위요 앉으면 거기는 흰밥이 나와. 그러면 먹다가 이렇게 손자에게도 사발에 이렇게 떠서, 요거 우리 손자에게 주라고 해서 이렇게.)

107005 @ 그 저 독새기 얻어먹젠게.(그 저 달걀 얻어먹으려고.)

107005 #1 독새기 또 그거 하나 허믄 멧 개에 갈랑 먹고. 또 이디서양 통보리밥 헐 때 잔치 때는 그 조집 영 꼭대기로 옛날 두부 흔 점허고, 돗궤기 요만헌 거 흔 점허고, 무신거 영 전 하나 허고, 영 서껑양. 고젱이에 영 꿰어, 겡 통보리밥 우테레 꼭꼭 찔러, 경 헹 흔 사발 헹.(달걀 또 그거 하나 하면 몇 개에 갈라서 먹고. 또 여기서요 '통보리밥' 할 때 잔치 때는 그 조짚 이렇게 꼭대기로 옛날 두부 한 점하고, 돼지고기 요만큼 한 거 한 점하고, 무엇 이렇게 전 하나 하고, 이렇게 섞어서요. 꼬챙이에 이렇게 꿰어, 그렇게 '통보리밥' 위로 꼭꼭 찔러, 그렇게 해서 한 사발 해서.)

107005 #2 경 헹 흔 사발 헹 잔치 헤십주게.(그렇게 해서 한 사발 해서 잔치 했습지요.)

107005 #1 그땐 게도 어른덜은 독상에 다 줜, 이젠 헤도. 우리 헐 땐양 잔치허젠 허믄.(그땐 그래도 어른들은 독상에 다 줬어, 이젠 해도. 우리 할 때는요 잔치하려고 하면.)

107005 @ 바닥에.(바닥에.)

107005 #1 바닥에게.(바닥에이.)

107005 #1 아래 그냥 주고.(아래 그냥 주고.)

107005 @ 바닥에 영 헤근에.(바닥에 이렇게 해서.)

107005 #2 바닥에 흔 사발씩.(바닥에 한 사발씩.)

107005 @ 바닥에 영 헤근에 먹엇지.(바닥에 이렇게 해서 먹었지.)

107005 #2 경 헤낫수다.(그렇게 했었습니다.)

107005 #1 어른덜은 게도 독상에 줭. 다 허믄 저 독상 가져왐젠, 그 동네 잔치허젠 허믄 상 빌레.(어른들은 그래도 독상에 줬어. 다 하면 저 독상 가져오고 있다고, 그 동네 잔치하려고 하면 상 빌러.)

107005 @ 게 수염 길러야.(그렇게 수염 길러야.)

107005 #1 하하하(웃음).(하하하(웃음).)

107005 @ 나도 옛날 ᄀᆞ뜨믄, 이 나이에 수염 길르믄 흔 상 받아실 거우다.(나도 옛날 같으면, 이 나이에 수염 기르면 한 상 받았을 것입니다.)

107005 #1 아, 게 독상 가져와.(아, 그렇게 독상 가져와.)

107005 #2 독상도 헤나고, 보리낭 꼴앙덜.(독상도 했었고, 보릿짚 깔아서들.)

107005 @ 게난 나 나이만 뒈면 하르방이옌 헤나서.(그러니까 나 나이만 되면 할아버지라고 했었어.)

107005 #1 맞수다게. 뭐 오십만 나도 수염 영 질루곡 허영.(맞습니다. 뭐 오십만 나도 수염 이렇게 기르고 해서.)

107005 #2 하영 돌아갓수게, 그 나이에.(많이 돌아갔습니다, 그 나이에.)

107005 @ 거니까.(그러니까.)

107005 #2 오십 나가믄, 이제덜은 백 세여, 무시거여 헹덜. 아이고, 독상, 잔치.(오십 나가면, 이제는 백 세여, 무엇이여 해서들. 아이고, 독상, 잔치.)

107006 @ 조팝에 대허영 골아줍서, 조팝.(조밥에 대해서 말해주십시오, 조밥.)

107006 #1 조팝은 흐린조팝 싯곡, 모인조팝 신디, 흐린조팝은 거무렁허게 허고, 또 흐리니 조팝은 너무 흐렁 뭐허난 감제 썰어 놓고, 그디 풋 첨 놓곡 헹은에 헤 노믄 것도 맛 좋아.(조밥은 차조밥 있고, 메조밥 있는데, 차조밥은 거무스름하게 하고, 차지니 조밥은 너무 차져서 뭐하니까 고구마 썰어 넣고, 거기 팥 참 넣고 해서 해 놓으면 것도 맛 좋아.)

107006 @ 조팝에 풋을 놔마씸?(조밥에 팥을 넣어요?)

107006 #2 풋 놓곡, 감제도 놓고.(팥 넣고, 고구마도 넣고.)

107006 #1 풋허고 보리쏠 ᄒᆞ끔 놓고, 경 헹 감제 썰어 놓곡, 경 허영 하영 불리우젠 감제를 하영 놉주기.(팥하고 보리쌀 조금 넣고, 그렇게 해서 고구마 썰어 넣고, 그렇게 해서 많이 늘리려고 고구마를 많이 넣지요.)

107006 #2 보리쏠 놩 재게, 재게 밥 못 헐 땐 조팝만 허여. 막 무시거 출왓딜 가나 새왓디 가젠 헤도, 재게 밥허젠 허믄 좁쏠은 재게 익엉, 보리쏠은 익지 안 허난. 게난 좁쏠 놓고, 감제 썰어 놓고, 감제도 거 신 집이라사, 어신 집인 것도 못 허여. 좁쏠만 놩.(보리쌀 넣어서 빨리, 빨리 밥 못 할 땐 조밥만 해. 마구 무엇 꼴밭에를 가나 띠밭에 가려고 해도, 빨리 밥하려고 하면 좁쌀은 빨리 익어서, 보리쌀은 익지 아니하니까. 그러니까 좁쌀 넣고, 고구마 썰어 넣고, 고구마도 거 있는 집이라야, 없는 집에는 것도 못해. 좁쌀만 넣어서.)

107006 @ 옛날이사 감제 어신 디가 어디 이섯수강?(옛날이야 고구마 없는 데가 어디 있었습니까?)

107006 #2 아이고, 어신 집이도 셔낫수다. 게난에 흐려근에 거 흐린조팝만 허믄, 흐렁 베 아픈덴 헤근에 감제 서끄믄 ᄒᆞ끔 덜 헌덴 헹, 게도 경 허믄 밥 하영 안 헤도.(아이고, 없는 집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차져서 거 차조밥만 하면, 차져서 배 아프다고 해서 고구마 섞으면 조금 덜 한다고 해서, 그래도 그렇게 하면 밥 많이 안 해도.)

107006 @ 모인조팝은 안 먹엇수과?(메조밥은 안 먹었습니까?)

107006 #1 모인조도 밥도 다 헹 먹어십주. 저 이 무신, 거 모인조ᄀᆞ라 게시리[268]옌 허던가?(메조도 밥도 다 해서 먹었었지. 저 이 무슨, 거 메조더러 '게끔'라고 하던가?)

107006 #2 게시리.('게끔'.)

---

268) '게끔'는 메조의 한 종류이다.

107006 #1 게시리, 경 헨 허믄 이거 모인조도 수북허게 춤 조 익어가믄 헹 그것 장만헹 뭐 허는디, 문딱 허믄 물방에 둥글이곡, 그거.('게시리', 그렇게 해서 하면 이거 메조도 수북하게 참 조 익어가면 해서 그것 장만해서 뭐 하는데, 모두 하면 연자매 굴리고, 그거.)

107006 #2 게난게 노랑 좁쏠, 누린 좁쏠은 죽 쑤곡, 쏠, 나룩쏠 헤지민 곤쏠죽 쑤고 먹엇주기. 노랑 좁쏠로 헹 죽 쑤곡, 노랑 조.(그러니까 노랑 좁쌀, 누린 좁쌀은 죽 쑤고, 쌀, 볍쌀 해지면 흰쌀죽 쑤고 먹었지요. 노랑 좁쌀로 해서 죽 쑤고, 노랑 조.)

107007 @ 그다음에 풋밥에 대허영 골아줍서, 풋밥. 풋, 잔치 때 허지 안 헙니까?(그다음에 팥밥에 대해서 말해주십시오, 팥밥. 팥, 잔치 때 하지 안 합니까?)

107007 #2 잔치 때, 풋도 허믄 경, 풋 헌 집인 막 부제옝 허곡. 풋 섞엉, 우리 시집가도 풋이랑 말앙, 저.(잔치 때, 팥도 하면 그렇게, 팥 한 집에는 아주 부자라고 하고. 팥 섞어서, 우리 시집가도 팥이랑 말앙, 저.)

107007 #1 저 잔칫집이.(저 잔칫집에.)

107007 @ 녹디밥은 어서양, 녹디밥은?(녹두밥은 없지요, 녹두밥은?)

107007 #2 녹디밥은.(녹두밥은.)

107007 @ 녹디죽은 이신디.(녹두죽은 있는데.)

107007 #1 녹디밥도 심니다게. 녹디밥이 맛 좋아. 녹디밥은양, 미릇 풋이라도 숢앗당, 숢앗당 놔뒷당, 밥헐 때 거 거려놩 ᄒᆞ끔썩.(녹두밥도 있습니다. 녹두밥이 맛 좋아. 녹두밥은요, 미리 팥이라도 삶았다가, 삶았다가 놔뒀다가, 밥할 때 거 떠놔서 조금씩.)

107007 @ 불그렁허주게.(발그레하지.)

107007 #1 불그렁허고, 맛도 좋고.(발그레하고, 맛도 좋고.)

107007 #2 거난 이제 그 말 들어나서, 앞 가름 할망안티. 무사 잔치 땐 풋, 풋 헴시넨 허난, 에, 잇날은 잔치 때 풋 놩 허믄 귀신덜 돌아낭, 혀뜩헌 귀신덜 부뜨지 아니허여.(그러니까 이제 그 말 들었었어, 앞 동네 할머니한테. 왜 잔치 때 팥, 팥 하고 있습니까 하니까, 에, 옛날은 잔치 때 팥 넣어서 하면 귀신들 달아나서, 거치적거리는 귀신들 붙지 아니해.)

107007 @ 건 경 헙니다. 이사 갈 때 보믄 소금허고 풋허고 막 뿌령은에.(건 그렇게 합니다. 이사 갈 때 보면 소금하고 팥하고 마구 뿌려서.)

107007 #2 게난 난 그런 말도 몰르고, 우리 왕할마니 나 일본 간 오난에 경 골아나서. 게난 무사 풋밥을 헴수강? 허난. 손지 풀 때 풋만 막 하영 허난에, 경 헤사 귀신덜도 돌아나고, 저 풋밥을 문딱 들엉, 난 알아듣지도 못허곡 그 말만, 들어난 말은 싯수다, 경. 우리 할마니 앞이, 왕할마니 앞이, 저 앞 가름 할망이 경, 문장 할망이 셔낫수다. 할망이라도 막 잘 알아. 우리 홍칩이 할망, 겐디 게도 즈손덜은 으서, 일본 살앙 잘 못 허연, 일본 살앙.(그러니까 난 그런 말도 모르고, 우리 증조모 나 일본 가서 오니까 그렇게 말했었어. 그러니까 왜 팥밥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하니까. 손자 팔 때 팥만 아주 많이 하니까, 그렇게 해야 귀신들도 달아나고, 저 팥밥을 모두 들어서, 난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 말만, 들었던 말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할머니 앞에, 증조모 앞에 저 앞

동네 할머니가 저렇게, 문장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할머니라도 아주 잘 알아. 우리 홍씨 집 할머니, 그런데 그래도 자손들은 없어, 일본 살아서 잘 못 해서, 일본 살아서.)

107008 @ 그다음에 피로도 밥헤 먹엇지양? 피, 피밥에 대허영 ᄀᆞᆯ아줍서. 여기도 피 먹어나신가?(그다음에 피로도 밥해 먹었지요? 피, 피밥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여기도 피 먹었었는가?)

107008 #1 피는 이디선 잘 아이 먹언. 핀 허믄 돗이나 쉐, 숢앙 경 헹 주고, 이 피는 여기는 먹지 안 헨.(피는 여기서는 잘 아니 먹었어. 피는 하면 돼지나 소, 삶아서 그렇게 해서 주고, 이 피는 여기는 먹지 안 했어.)

107008 #2 아이 먹어나서.(아니 먹었었어.)

107008 #1 몰라, 어린 때나 먹어나신가, 피는.(몰라, 어릴 때나 먹었었는가, 피는.)

107008 @ 피는 안 먹어실 거라.(피는 안 먹었을 거야.)

107008 #1 피는 그자 쉐나 ᄆᆞᆯ, 게 안 허믄 주로 도새기 숢앙, 이제 그 피, 피 딸령.(피는 그저 소나 말, 그렇게 안 하면 주로 돼지 삶아서, 이제 그 피, 피 딸려서.)

107008 @ 이제는 좀 건강식품으로덜 먹는 모양이더라고, 서꺼근에.(이제는 좀 건강식품으로들 먹는 모양이더라고, 섞어서.)

107008 #1 요즘은 경 허는 모양입디다.(요즘은 그렇게 하는 모양입디다.)

107008 #2 이젠 거 마트에 가면 그런 종류덜 막 나와. 건강식품에, 이거 무시거 피여, 무신 ᄉᆞᆯ이여, 오곡ᄉᆞᆯ이여, 찹ᄉᆞᆯ이여, 잡곡이여 허멍양, 그런 디 다 ᄒᆞ끔썩 서끄는 셍입디다게.(이젠 거 마트에 가면 그런 종류들 마구 나와. 건강식품에, 이거 무엇 피여, 무슨 쌀이여, 오곡쌀이여, 찹쌀이여, 잡곡이여 하면서요, 그런 데 다 조금씩 섞는 모양입디다.)

107008 @ 옛날 우리 조상들이 먹엇던 것들이 건강식품이라.(옛날 우리 조상들이 먹었던 것들이 건강식품이야.)

107008 #2 예, 맞수다. 옛날 조상님덜 먹어난 거.(예, 맞습니다. 옛날 조상님들 먹었던 거.)

107008 @ 쉰다리[269]도 나오멘예.('쉰다리'도 나오고요.)

107008 #2 쉰다리도 나왐서예.('쉰다리'도 나오고 있어요.)

107008 @ 서귀포 쪽에 관광지 가민 쉰다리 ᄑᆞᆯ아.(서귀포 쪽에 관광지 가면 '쉰다리' 팔아.)

107008 #2 예, 쉰다리 ᄑᆞᆫ덴 헙디다. 쉰다리 ᄑᆞᆯ아.(예, '쉰다리' 판다고 합디다. '쉰다리' 팔아.)

107008 @ 서귀포 쪽은 저 쉰다리, 허허(웃음).(서귀포 쪽은 저 '쉰다리', 허허(웃음).)

107008 #2 아이, 게난 옛날 것이 다 어서져 가멘, 것이 ᄒᆞ끔 나빠마씨.(아니, 그러니까 옛날 것이 다 없어져 가고, 것이 조금 나빠요.)

107008 #1 집이 가만 감주영 골 감주 ᄀᆞ뜬 거 ᄆᆞᆫ딱 허곡, 것이 다 건강식품.(집에 가면 감주랑 엿기름 감주 같은 거 모두 하고, 것이 다 건강식품.)

269) '쉰다리'는 쉰 듯한 밥에 누룩을 넣고 발효시켜 만든 음료이다.

107008 @ 다 건강식품입주게. 감주도 나왐수게게. 이 뭐야 저, 불가리스, 이런 것들이.(다 건강식품이지. 감주도 나오고 있지요. 이 뭐야 저, 불가리스, 이런 것들이.)

107008 #1 예, 감주로구나예.(예, 감주군요.)

107008 @ 식혜, 식혜가 감주 아니우꽈? 통으로 담아진 식혜.(식혜, 식혜가 감주 아닙니까? 통으로 담아진 식혜.)

107008 #2 무사 아이꽈게? 이딘 감주게. 보리 감주여, 골, 무슨 감주여.(왜 아닙니까? 여기는 감주지. 보리 감주여. 엿기름, 무슨 감주여.)

107009 @ 게난 피밥은 별로 안 먹엇다. 경허민 감저밥에 대허영 ᄒᆞ끔 골아줍서, 감저밥. 아까 조에 감저 놩 허는 밥.(그러니까 피밥은 별로 안 먹었다. 그러면 고구마밥에 대해서 조금 말해주십시오, 고구마밥. 아까 조에 고구마 넣어서 하는 밥.)

107009 #2 게메게, 흐린좁쏠에도 감저 놩 허고, 감제 아이 든 것이 셔? 아무것에라도.(글쎄요, 차좁쌀에도 고구마 넣어서 하고, 고구마 아니 드는 것이 있어? 아무것에라도.)

107009 @ 밥헐 때.(밥할 때.)

107009107009 #2 밥헐 땐 자꾸 흐린좁쏠에도 놓고.(밥할 땐 자꾸 차좁쌀에도 넣고.)

107009 @ 쏠허고 감저허고 같이 놔? 아니지.(쌀하고 고구마하고 같이 넣어? 아니지.)

107009 #2 아니, 아니게. 보리쏠 궤와 난 다음, 감제 썰엉 ᄀᆞ찌 놔.(아니, 아니지. 보리쌀 끓여 난 다음, 고구마 썰어서 같이 넣어.)

107009 @ 보리밥에도 감제 놔?(보리밥에도 고구마 넣어?)

107009 #2 보리밥에도 감제 놓고, 보리쏠에 감제에, 좁쏠에 섞엉. 완전 거 맛 좋은 거.(보리밥에도 고구마 넣고, 보리쌀에 고구마에, 좁쌀에 섞어서. 완전 거 맛 좋은 거.)

107009 #1 좁쏠에 섞엉, 이제 거 나중에 ᄒᆞ끔 풋 시믄 풋 섞엉 놓곡 허믄 맛 좋아.(좁쌀에 섞어서, 이제 거 나중에 조금 팥 있으면 팥 섞어서 넣고 하면 맛 좋아.)

107009 #2 풋은 드문 거난 ᄒᆞ끔 뭐 헌 집인 풋 놩 해도게, 잔치 때덜은 신 집이덜은 막 풋허고. 보리밥에도 놓곡.(팥은 드문 거니까 조금 뭐 한 집에는 팥 넣어서 해도, 잔치 때들은 있는 집들은 마구 팥하고. 보리밥에도 넣고.)

107009 #1 감제, 감제 썰어 놩.(고구마, 고구마 썰어 넣어서.)

107009 #2 감제 썰어 놩, 옛날은 감제가 일등이난에. 감제 썰어 놓곡 시 가지 헤 놩 먹곡.(고구마 썰어 넣어서, 옛날은 고구마가 일등이니까. 고구마 썰어 넣어서 세 가지 해놔서 먹고.)

107009 @ 게민 보리허고 좁쏠 궤와 난 다음에 나중에 감제 노겟네양. 두 번째 뿔뤄 난 다음에.(그러면 보리하고 좁쌀 끓여 난 다음에 나중에 고구마 넣겠네요. 두 번째 잦혀 난 다음에.)

107009 #2 두 번째, 아니 보리밥, 보리밥 궤와 난.(두 번째, 아니 보리밥, 보리밥 끓여 난.)

107009 @ 예, 궤와 난 다음에.(예, 끓여 난 다음에.)

107009 #2 궤와 난 다음에 좁쌀 놀 때 감제 놔도 뒈곡, 게 아닌 사름은, 안 헐 땐 감제 통으로 보리쏠이영 놩 ᄀᆞ찌 허는 사름도 잇곡게. 게난 영 생각헤 보멍 허는디.(끓여 난 다음에 좁쌀 넣을 때 고구마 넣어도 되고,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은, 안 할 땐 고구마 통으로 보리쌀이랑 넣어서 같이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하는데.)

107009 #1 게난 이 막 젓엉, 저 감제.(그러니까 이 마구 저어서, 저 고구마.)

107009 @ 젓으믄 안 뒈어.(저으면 안 되어.)

107009 #1 감제범벅.(고구마범벅.)

107010 @ 건 범벅이고. 범벅에 대허영은 나중에 ᄒᆞᆫ번 물어보쿠다. 다 물어봅니다, 죽허고 범벅. 그다음에 ᄂᆞᆷ삐밥에 대허영 ᄒᆞ끔 ᄀᆞᆯ아줍서. ᄂᆞᆷ삐 놩도 밥 허지 안 헙니까 예?(건 범벅이고. 범벅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다 물어봅니다, 죽하고 범벅. 그다음에 무밥에 대해서 조금 말해주십시오. 무 넣어서도 밥하지 않습니까?)

107010 #2 ᄂᆞᆷ삐 놩도 밥 헨 먹어나서.(무 넣어서도 밥해서 먹었었어.)

107010 @ 그거 ᄒᆞ쏠 ᄀᆞᆯ아봅서.(그거 조금 말해보십시오.)

107010 #2 게 ᄂᆞᆷ삐 놩, ᄂᆞᆷ삐 놩은 거세기 노랑 좁쏠에, 노랑 좁쏠에 ᄂᆞᆷ삐 놩 밥 헤나서. 우리 에이고.(그렇게 무 넣어서, 무 넣어서는 거시기 노랑 좁쌀에, 노랑 좁쌀에 무 넣어서 밥했었어. 우리 아이고.)

107010 @ 노랑좁쏠은 뭐옌 ᄀᆞᆯ아마씸?(노랑좁쌀은 뭐라고 말해요?)

107010 #2 노랑조, 노랑좁쏠은.(노랑조, 노랑좁쌀은.)

107010 @ 노랑조옌 허여.(노랑조라고 해.)

107010 #2 노랑조, 흐린조, 노랑조, 그추룩 헤낫주.(노랑 조, 차조, 노랑 조, 그처럼 했었지.)

107010 @ 모인조지, 모인조.(메조지, 메조.)

107010 #1 모인조.(메조.)

107010 #2 노랑 조.(노랑 조.)

107010 #1 모인조가 노랑 조고, 모인조, 흐린조.(메조가 노랑 조고, 메조, 차조.)

107010 @ 모인조, 흐린조.(메조, 차조.)

107010 #2 노랑조 헤낫주. 노린조에도 ᄂᆞᆷ삐도 썰어 놩 먹곡, ᄂᆞᆷ삐도 감제ᄀᆞ찌 비슷허게 하영 먹엇수다. 보리쏠에도 놩 먹어나고.(노랑조 했었지. 노린조에도 무 썰어 넣어서 먹고, 무도 고구마같이 비슷하게 많이 먹었습니다. 보리쌀에도 넣어서 먹었었고.)

107010 @ 요즘은 거 ᄂᆞᆷ삐, 거 밥에 놓질 아니허여, 밥에.(요즘은 그거 무, 그거 밥에 넣질 아니해, 밥에.)

107010 #1 ᄂᆞᆷ삐밥은 잘 안 허여.(무밥은 잘 안 해.)

107010 #2 ᄂᆞᆷ삔, ᄂᆞᆷ삐밥은 잘 안 허여.(무는, 무밥은 잘 안 해.)

107010 @ 빙떡[270]?('빙떡'?)

---

270) '빙떡'은 메밀가루 따위로 반죽하여 번철에서 전을 넓적하게 지지고는 팥이나 무채 따위의 소를 넣

107010 #2 빙떡에 놔마씀.(‘빙떡’에 넣어요.)

107010 @ 우리 동넨 영빈이옌 헙니다, 영빈.(우리 동네는 ‘영빈’이라고 합니다, ‘영빈’.)

107010 #1 빙떡ᄀᆞ라.(‘빙떡’더러.)

107010 @ 예, 아이 특이헌 건데.(예, 아니 특이한 것인데.)

107010 #1 아, 영빈이옌 헴구나, 여기선 빙떡.(아, ‘영빈’이라고 하고 있구나, 여기서는 ‘빙떡’.)

107010 #2 빙떡, 여긴 빙떡에 놈삐 놩.(‘빙떡’, 여긴 ‘빙떡’에 무 넣어서.)

107011 @ 톳밥에 대허영 혼번 ᄀᆞᆯ아줍서, 톳밥.(톳밥에 대해서 한번 말해주십시오. 톳밥.)

107011 #2 톳도 밥에 놩 먹긴, 건 자꾼 아이 먹어도 트멍에 먹언. 톳 솖앙게, 문작이 솖앙당. 솖앗당 물에 크믄 짠 거 믄딱, 짠물 싯어지믄 건졍 놔뒁당.(톳도 밥에 넣어서 먹긴, 건 자꾸 아니 먹어도 틈에 먹었어. 톳 삶아서 반드럽게 삶았다가. 삶았다가 물에 담그면 짠 거 모두, 짠물 씻어지면 건져서 놔뒀다가.)

107011 @ 언제 거 놔?(언제 그거 넣어?)

107011 #2 저 톳, 거세기 ᄀᆞ찌 놔, 좁쏠이영 ᄀᆞ찌. 좁쏠 놀 때 ᄒᆞ끔, 막 하영 놩 먹는 집이도 싯곡게. 노인네덜은 덜 먹어나고, 아기덜신디도 덜 놓곡게. 그 먹기가 거치장시러와. 게도 벨미로 톳밥도 헹 먹어나신디, 썰엉 보리쏠 궤운 다음에, 썰엉, 톳도 썰엉 허주게.(저 톳, 거시기 같이 넣어, 좁쌀이랑 같이. 좁쌀 넣을 때 조금, 아주 많이 넣어서 먹는 집도 있고. 노인네들은 덜 먹었었고, 아기들에게도 덜 넣고요. 그 먹기가 거추장스러워. 그래도 별미로 톳밥도 해서 먹었었는데, 썰어서 보리쌀 끓인 다음에, 썰어서, 톳도 썰어서 하지요.)

107011 #1 솖앗당.(삶았다가.)

107011 #2 솖앗당 건졍 물 빠지믄 칼로 영영 ᄒᆞ끔 썰곡. 좁쏠이영 놀 때 ᄀᆞ찌 놔, 놩 허믄 밥이 풀 맞게. 저 거세기 놩 허믄, 쒜솟디 밥헤노믄, 아이고 이거 밥이 맛 좋아, 무쒜솟디 헤사 밥이 맛 좋아.(삶았다가 건져서 물 빼지면 칼로 이렇게 이렇게 조금 썰고. 좁쌀이랑 넣을 때 같이 넣어, 넣어서 하면 밥이 풀 맞게. 저 거시기 넣어서 하면, 쇠솥에 밥해놓으면, 아이고 이거 밥이 맛 좋아, 무쇠솥에에 해야 밥이 맛 좋아.)

107011 #1 무쒜솟디 낭 불로 솜앙 헤야 밥이 익주. 요사이덜은 이디 저 가스불이여, 뭐여 헹 밥맛이 어서.(무쇠솥에 나무 불로 때어서 해야 밥이 익지. 요사이는 여기 저 가스 불이여, 무엇이여 해서 밥맛이 없어.)

107011 #2 쒜솟디 밥을 허믄 밥이 쿠싱헌 게, 톳밥허곡.(쇠솥에 밥을 하면 밥이 구수한 게, 톳밥하고.)

107011 @ 맞수다게, 이 저 말치[271]에, 말치에.(맞습니다, 이 저 ‘말치’에, ‘말치’에.)

107011 #2 말치에, 두말치[272]에.(‘말치’에 ‘두말치’에.)

고서 길쭉하게 둘둘 말아 만든 떡을 말하며, 지역에 따라 ‘영빈’이라고도 한다.

271) ‘말치’는 한 말 어치의 밥을 할 수 있는 솥이다.

272) ‘두말치’는 용적이 두 말 드는 크기의 솥이다.

107011 @ 저번에 저 어디 간 보난 그 식으로 헨 밥덜 헴십디다게.(저번에 저 어디 가서 보니까 그 식으로 해서 밥들 하고 있습디다.)

107011 #2 아이고, 거 맛 좋아, 맛 좋아.(아이고, 그거 맛 좋아, 맛 좋아.)

107011 @ 서귀포청소년수련장, 그 학생덜 가는 딘디, 그 쏠덜 가져오렝 허여. 거민 이제 거기서 밥, 옛날식으로 밥 헤근에.(서귀포청소년수련장, 그 학생들 가는 데인데, 그 쌀들 가져오라고 해. 그러면 이제 거기서 밥, 옛날식으로 밥해서.

107011 #2 쒜솟디, 말치에.(쇠솥에, '말치'에.)

107011 @ 헤근에 이거 저, 낭불로 때엉, 그다음에 이제 다 밥 뒈난, 다음에는 그 잉겅들을.(해서 이거 저, 나무불로 때어서, 그다음에 이제 다 밥 되니까, 다음에는 잉걸불들을.)

107011 #2 잉겅들을 내청.(잉걸불들을 내쳐서.)

107011 @ 저 어디, 두껑 우에 영 올려놔, 게민 거기에 위에서 덮곡, 밋에서 영 허니까, 밥이 풀풀헌 거라. 엄청 맛잇더라고.(저 어디, 뚜껑 위에 이렇게 올려놔, 그러면 거기에 위에서 덮고, 밑에서 이렇게 하니까, 밥이 풀풀한 거야. 엄청 맛있더라고.)

107011 #2 쒜 우터레 잉겅 올려놩, 자꾸 올려놔낫주, 우리도.(쇠 위로 잉걸불 올려놔, 자꾸 올려놨었지, 우리도.)

107011 @ 두껑에 올려놔야.(뚜껑에 올려놔야.)

107011 #2 두껑에 올려놔사마씨, 잉겅. 졍 아니허믄 밥이 잘 안 뒈어, 잉겅을 올려놔사.(뚜껑에 올려놔야, 잉걸불. 저렇게 아니하면 밥이 잘 안 되어, 일걸불을 올려놔야.)

107011 #1 나중에 물을 그레 퍼놔도 구수허여, 숭늉이옌 허영.(나중에 물을 그리 퍼넣어도 구수해, 숭늉이라고 해서.)

107011 @ 예.(예.)

107011 #1 누렁지나 ᄒᆞ끔 시믄 긁엉 먹고.(누룽지나 조금 있으면 긁어서 먹고.)

107011 #2 밥이 첨, 그런 솟디 헤사 맛이 좋주기. 감제 썰어 놓곡, 쿠싱허게. 겡 두껭이 우이 ᄯᅳ시 고등에나 궤기 시믄 구곡 허멍.(밥이 참, 그런 솥에 해야 맛이 좋지. 고구마 썰어 넣고, 구수하게. 그렇게 뚜껑 위에 다시 고등어나 고기 있으면 굽고 하면서.)

107011 @ 삼겹살, 밋테 잉겅에 헹은에.(삼겹살, 밑에 잉걸불에 해서.)

107011 #2 삽겹살이 뭣산디 인날은 무신거 돗가죽 검은 거 하나 어디 강 사지믄 것도 돈을 셔사 사지곡.(삼겹살이 뭣인지 옛날은 무엇 돼지가죽 검은 거 하나 어디 가서 살 수 있으면 그것도 돈이 있어야 살 수 있고.)

107011 #1 아니, 고등에 주로 권 먹엇주 뭐.(아니, 고등어 주로 구워서 먹었지 뭐.)

107012 @ 그다음에양 패밥, 이 저 넘피옝도 허주게, 패가. 이거 저 국도 하영 끓여 먹읍니다게. 패밥, 패밥에 대허영 ᄒᆞ끔 ᄀᆞᆯ아줍서.(그다음에요 패밥, 이 저 넓패라고도 하지, 패가. 이거 저 국도 많이 끓여 먹습니다. 패밥, 패밥에 대해서 조금 말해주십시오.)

107012 #1 매번 저것이 패 먹은 똥이라고 헹, 잘 익질 아니허여. 딱딱헤 가지고 허난 이, 소화가 잘 안 뒈어.(매번 저것이 패 먹은 똥이라고 해서, 잘 익질 아니해. 딱딱해 가지고 하니까 이, 소화가 잘 안 되어.)

107012 #2 베 아프뎅 허멍 잘 아이 먹어.(배 아프다고 하면서 잘 아니 먹어.)

107012 #1 여간 춤 숨지 아이허믄, 막 숨아놩 놓지 아이허믄, 톳보다도 덜 익어, 패가 제일.(여간 참 불을 때지 않으면, 마구 불을 때어놔서 넣지 않으면, 톳보다도 덜 익어, 패가 제일.)

107012 #2 게난 식구 하시난, 먹을 거 어시난 패밥도 헹, 시어머닌 헴십디다, 것도.(그러니까 식구 많으니까, 먹을 거 없으니까 패밥도 해서, 시어머니는 하고 있습디다, 것도.)

107012 #1 우리 패 허고, 패 헐 땐 똑 거 물룻 헤당, 물룻이 둡니다, 숣앙.(우리 패 하고, 패 할 때는 똑 거 무릇 해다가, 무릇이 답니다, 삶아서.)

107012 #2 것도 으라 번 먹으민 베 아픈덴 허멍.(그것도 여러 번 먹으면 먹으면 배 아프다고 하면서.)

107012 @ 거 쉐 잘 먹는 거, 물룻.(거 소 잘 먹는 거, 무릇.)

107012 #1 경 그거 헤영, 똑 다마네기영 준 마농ᄀᆞ치 헌 물룻 무사 몰르쿠과? 그거 헹 이제 복젱이 다듬와뒁은에 그거 숣앙 헤노믄 들쿠룽허면서도, 그것에 패 놩 먹어노믄 옛날 거 저 밥 헹 먹어노믄 베도 좀 꾸작꾸작 아팡 벤소에 강 허믄 그양, 그땐 그러고 회충이 막, 베에 이만썩 흔 겨울 회충이 막 그냥 춤 똥에 ᄀᆞ찌 나와. 이제 무신 그걸 먹어야 하는데, 회충약 먹지 말앙.(그렇게 그거 해서, 똑 양파랑 잔 마늘같이 한 무릇 왜 모르겠습니까? 그거 해서 이제 복어 다듬어둬서 그거 삶아서 해놓으면 달콤하면서도, 그것에 패 넣어서 먹어놓으면 옛날 거 저 밥해서 먹어놓으면 배도 좀 '꾸작꾸작' 아파서 변소에 가서 하면 그요, 그땐 그러고 회충이 마구, 배에 이만큼씩 한 겨울 회충이 마구 그냥 참 똥에 같이 나와. 이제 무슨 그걸 먹어야 하는데, 회충약 먹지 않아서.)

107012 #2 빙 관혜져, 그런 걸 먹으믄.(병 구완 해져, 그런 걸 먹으면.)

107012 #1 완전이 그렇게 허니까 아, 우리 어린 때. 게난 이것 통시에 가난, 그 겨울 회충이, 지금 그걸 연구헹 헴시민 좋을 거 아니라게. 그렇게 몸에 좋곡, 우리가 그걸 먹어 본 후젠, 막 나도 어린 때 보믄 베 아파. 밥 ᄒᆞ끔 먹으믄 베 아팡 강 설사 주룩 나오곡 허단, 아, 그거 톳밥 먹고 그 저, 패밥 먹은 후제 겡 소곱에 거 나와부니까 구충제 그냥.(완전히 그렇게 하니까아, 우리 어릴 때. 그러니까 이것 변소에 가니까, 그 겨울 회충이, 지금 그걸 연구해서 하고 있으면 좋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몸에 좋고, 우리가 그걸 먹어 본 후에는, 막 나도 어릴 때 보면 배 아파. 밥 조금 먹으면 배 아파서 가서 설사 주룩 나오고 하다가, 아, 그거 톳밥 먹고 그 저, 패밥 먹은 후에 그렇게 속에 나와 버리니까 구충제 그냥.)

107012 @ 패가 좋은 건에.(패가 좋은 건에.)

107012 #1 막 거 패양, 이제 물로 흔번 먹어봐십주. 지금 생각헤도, 패에 물이.(마구 거 패요, 이제 물로 한번 먹어봤지. 지금 생각해도, 패에 물이.)

107012 @ 바당에 하지 안 헙니까? 그 패.(바다에 많지 않습니까? 그 패.)

107012 #1 패는 한디, 물룻이 구허기가 어려와, 이젠. 물룻이 이젠 저 질왓[273]딘 밧

273) '질왓'은 돌멩이가 없고 질흙이 깔려있는 밭이다.

마다 심근디, 아, 이 제초제 헤분 후젠양 물룻이 씨가 ᄆᆞᆯ란.(패는 많은데, 무릇이 구하기가 어려워, 이젠. 이젠 저 '질왓'에는 밭마다 심는데, 아, 이 제초제 해버린 후에는요 무릇이 씨가 말라서.)

107012 #2 게난 이제 패 먹으렌 헤봅서, 이제 사름덜.(그러니까 이제 패 먹으라고 해보십시오, 이제 사람들.)

107012 #1 그 패는 건강식으로 먹어.(그 패는 거강식으로 먹어.)

107012 @ 패는 옛날양, 넘피로 헹은에 밥은 헤 먹지 안 헤신디, 이거 국, 냉국으로 헹.(패는 옛날요, 넓패로 해서 밥은 해 먹지 안 했는데, 이거 국, 냉국으로 해서.)

107012 #2 아, 건 넘피가 경 헨, 넘피. 넘피는.(아, 건 넓패가 그렇게 했어, 넓패. 넓패는.)

107012 #1 넘피국은 막 먹어낫주.(넓패국은 마구 먹었었지.)

107012 @ 넘피가 패 아니우꽈?(넓패가 패 아닙니까?)

107012 #2 아이라, 패가 뜨로 이서.(아니야, 패가 따로 있어.)

107012 #1 패밧이옌 허영 패 요만썩, 톳도 비슷흔 디.(패밭이라고 해서 패 요만큼씩, 톳도 비슷한 데.)

107012 #2 막 뒈영 들러내지 못허영.(마구 되어서 드러내지 못해서.)

107012 #1 톳 비슷허면서도 요거 질경양.(톳 비슷하면서도 요거 질겨요.)

107012 @ 넘피 밥도 헹 먹읍니까?(넓패 밥도 해서 먹습니까?)

107012 #1 넘피는 주로 국도 헹 먹고, 그 저 영.(넓패는 주로 국도 해서 먹고, 그 저 이렇게.)

107012 @ 패허고 넘피가 틀린 것과?(패하고 넓패가 다른 것입니까?)

107012 #2 넘핀 우리도 자꾸 메어낫주.(넓패는 우리도 자꾸 매었었지.)

107012 #1 김 비슷헌 건디, 넘피는.(김 비슷한 것인데, 넓패는.)

107012 @ 넘피허고 이거 틀린 거구나게.(넓패하고 이거 다른 거구나.)

107012 #1 틀려. 패는 곧 허민 바당에 강, 곧 물 들 때, 패밧 낫저 허믄, 패가 제일 문저 ᄆᆞ른 물, 바당물 ᄒᆞ끔 적져진 디 패가 잘 돋아납주기.(달라. 패는 곧 하면 바다에 가서, 곧 물 들 때, 패밭 났다 하면, 패가 제일 먼저 마른 물, 바닷물 조금 적셔진 데 패가 잘 돋아나지요.)

107012 @ 게난 패밥은 조에 조팝에 놓는 거라.(그러니까 패밥은 조에 조밥에 넣는 거야.)

107012 #1 좁쏠도 놓곡 보리쏠도 놓는디 요거 패 잘 솖아사. 게 안 허믄 질경 먹질 못허여.(좁쌀도 넣고 보리쌀도 넣는데 요거 패 잘 삶아야. 그렇게 안 하면 질겨서 먹지를 못해.)

107012 #2 아이 질기곡, 이제 ᄀᆞ뜨믄 어떵 어떵사 헤신디. 독허고 독헤낫젠 허여. 독헹 베 아픈다, 베 아픈다 헤도 먹을 거 어시난 패밥 헹 먹엉, 패밥 헹 먹엉, 패밥 헹 먹곡게. 노랑 좁쏠에 해 먹엇주기게. 노랑 좁쏠에 패 헹 먹엉, 먹엉 것이 약이주.(아니 질기고, 이제 같으면 어떻게 어떻게야 했는지. 독하고 독했었다고 해. 독해서 배 아픈다,

배 아픈다. 해도 먹을 거 없으니까 패밥해서 먹었어, 패밥해서 먹었어, 패밥해서 먹고요. 노랑 좁쌀에 해 먹었지요. 노랑 좁쌀에 패 해서 먹었어, 먹어서 그것이 약이지.)

107012 #1 노랑 좁쏠에도 헹 먹고.(노랑 좁쌀에도 해서 먹고.)

107012 @ 난 지금까지 넘피허고 패가 ᄀᆞ튼 걸로 봐신디.(난 지금까지 넓패하고 패가 같은 것으로 봤는데.)

107012 #2 아이우다게.(아닙니다.)

107012 #1 넘피는 이 저 무시거, 김 비슷허게 요만이, 뭐더라 그 넘피 메가.(넓패는 이 저 무엇, 김 비슷하게 요만큼, 뭐더라 그 넓패 모종이.)

107012 @ 넘피는 국 끌영 먹으민 맛잇지 안 헙니까?(넓패는 국 끓여서 먹으면 맛있지 않습니까?)

107012 #2 아이고 넘피는 일등, 비싸고, 그때도 막, 이제도 그건 비싸. 까릿까릿허영.(아이고 넓패는 일등, 비싸고, 그때도 아주, 이제도 그건 비싸. 까릿까릿해서.)

107012 #1 까릿까릿허영, 춤 저 이 패는.(까릿까릿해서, 참 저 이 패는.)

107012 #2 패는 영 넙작허곡.(패는 이렇게 넓죽하고.)

107012 #1 어느 거, 패가 넙작허여게?(어느 거, 패가 넓죽해?)

107012 #2 ᄒᆞ끔 넙지 아니허여.(조금 넓지 아니해.)

107012 #1 아이 저, 넙은 건 넘피고, 넘피만.(아니 저, 넓은 건 넓패고, 넓패만.)

107012 #2 아, 맞아, 맞아. 넘피고.(아, 맞아, 맞아. 넓패고.

107012 #1 그건 톳 담수다, 패는. 겐디 좀질게 까릿까릿허영 영.(그건 톳 같습니다, 패는. 그런데 잘고 가늘게 까릿까릿해서 이렇게.)

107012 #2 까릿까릿허멍, 영 가달 막 줏곡.(까릿까릿하면서, 이렇게 가지 아주 잦고.)

107012 #1 요놈으 것이 패 먹은 똥이라고 허영 잘 익질 아니허여. 게난 여간 솖아가사.(요놈의 것이 패 먹은 똥이라고 해서 잘 익질 아니해. 그러니까 여간 삶아가야.)

107012 #2 아이고, 패 먹은 똥.(아이고, 패 먹은 똥.)

107012 #1 허허(웃음).(허허(웃음).)

107012 #2 똥 쌈이 심들엉, 거 먹어노믄.(똥 싸는 것이 힘들어서, 그거 먹어놓으면.)

107012 #1 거 저 변비에 좋고, 이제 먹어보믄.(그거 저 변비에 좋고, 이제 먹어보면.)

107012 #2 경 헌 거 닮아, 이제야 ᄀᆞᆫ는 것만 셍각헤 보믄.(그렇게 한 거 같아, 이제야 말하는 것만 생각해 보면.)

107012 #1 설사 나곡 뭐 헌 건 패, 패 딸령 먹으믄 질 낫곡.(설사 나고 뭐 한 건 패, 패 딸려서 먹으면 제일 났고.)

107012 #2 이제 큰 약인디, 것덜.(이제 큰 약인데, 것들.)

107012 #1 이제 연구를 헤시믄 그것도 몸에 좋을 건디 연굴 아니 허연.(이제 연구를 했으면 그것도 몸에 좋을 건데 연구를 아니 해서.)

107012 #2 몰람주.(모르고 있지.)

107012 #1 다 자연이 웬만헌 건 좋은 것덜이우다.(다 자연이 웬만한 건 좋은 것들입니다.)

107012 #2 아이고, 이젠 바당도 멘딱 추접헷수게게.(아이고, 이젠 바다도 모두 추접했습니다.)

107012 #1 바당도 오염됴노난양.(바다도 오염돼 놓으니까요.)

107012 #2 추접헤노난 못 허여. 바당도 추접헨.(추접해 놓으니까 못 해. 바다도 추접해서.)

107013 @ 오늘은 그 국 종류에 대허영 물어보쿠다양. 국 종류에는 어떤 것덜이 잇수가? 밥허고 국 헐 때.(오늘은 그 국 종류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국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밥하고 국 할 때.)

107013 #2 국도 무신거, 뒌장쿡이영, 뒌장쿡.(국도 무엇, 된장국이랑, 된장국.)

107013 @ 아는 데로 골아봅서.(아는 대로 말해보십시오.)

107013 #2 미역국이영, 이제 고기국이영, ᄂᆞᆯ국이영, 그런 거 국은, 호호호(웃음), 저 다 먹어난 국벳기 더 셔. 옛날 콩국이여, 콩국이영 무신.(미역국이랑, 이제 고기국이랑, 나물국이랑, 그런 거 국은, 호호호(웃음), 저 다 먹었던 국밖에 더 있어. 옛날 콩국이여, 콩국이랑 무슨.)

107013 #1 옛날 얘기 허믄 어디 영장칩이선 ᄆᆞᆷ국[274]이옝 허여.(옛날 얘기 하면 어디 상가에선 'ᄆᆞᆷ국'이라고 해.)

107013 #2 ᄆᆞᆷ국도 먹고게.('ᄆᆞᆷ국'도 먹고요.)

107013 #1 그냥 고기 저 뭐만 영 허믄 뒙니다. ᄆᆞᆷ국은 아무것도 어서, 국물뿐. 게난 ᄆᆞᆷ국, ᄆᆞᆷ국 헤낫주.(그냥 고기 저 뭐만 이렇게 하면 됩니다. 'ᄆᆞᆷ국'은 아무것도 없어, 국물뿐. 그러니까 'ᄆᆞᆷ국', 'ᄆᆞᆷ국' 했었지.)

107013 #2 영장팟디, 집이 가믄 ᄆᆞᆷ국 끌령 먹엇주.(장지에, 집에 가면 'ᄆᆞᆷ국' 끓여서 먹었지.)

107013 #1 경 안 헤도. 아무것도 어서.(그렇게 안 해도. 아무것도 없어.)

107013 #2 그땐 우리 분시 몰란, 아이고 먹으레 강 보겐, ᄆᆞᆷ국은 강 보믄 아무것도 어서, ᄆᆞᆷ국, ᄆᆞᆷ국.(그땐 우리 분수 몰라서, 아이고 먹으러 가서 보겠다고, 'ᄆᆞᆷ국'은 가서 보면 아무것도 없어, 'ᄆᆞᆷ국', 'ᄆᆞᆷ국'.)

107014 @ 그다음에 ᄂᆞ멀쿡에 대허영 혼번 골아줍서.(그다음에 나물국에 대해서 한번 말해주십시오.)

107014 #2 모멀?(메밀?)

107014 @ ᄂᆞ멀, ᄂᆞ물.(나물, 나물.)

107014 #2 ᄂᆞ멀, ᄂᆞ멀게 이, 어떵 헹 끌령게, 싯엉은에, 뒌장, 뒌장, 궤어 가건 뒌장, 뒤에 강 장항에 강 장 거려다 놩은에 이제 불 솜으멍, 불 솜으멍.(나물, 나물 이, 어떻게 해서 끓여서, 씻어서, 된장, 된장, 끓여 가건 된장, 뒤에 가서 장독에 가서 장 떠다가 넣어서 이제 불 때면서, 불 때면서.)

274) 'ᄆᆞᆷ국'은 돼지고기를 삶은 육수에 불린 모자반을 넣어 끓인 국이다.

107014 #1 바글바글.(바글바글.)

107017 #2 바글바글 일지도 아니허여. 그때 일미랑말앙 콩, 콩 두르젱이 솖은 거 헹은에, 경 헤도 막 맛 좋아. 그거 헹 바글바글 궤믄 ᄂᆞ물 손으로 박박 ᄆᆞ지려 놩 허믄, 영 먹어봥 삼삼허믄, 삼삼, 이제ᄀᆞ찌 무신 미원을 놔, 뭣 허여. 그자 콩도 이만썩 두루 솖아진 거영, 경 헤도 막 맛 좋아. 아이덜 거 거려당 멕이곡, 우리도 먹곡. 그거 콩 그추룩 헨 먹엇수다. ᄂᆞ멀쿡도 헹 먹고.(바글바글 일지도 아니해. 그때 일기는커녕 콩, 콩 덜 삶은 거 해서, 그렇게 해도 아주 맛 좋아. 그거 해서 바글바글 끓이면 나물 손으로 박박 무질러 넣어서 하면, 이렇게 먹어봐서 삼삼하면, 삼삼, 이제까지 무슨 미원을 넣어, 뭣 해. 그저 콩도 이만큼씩 덜 삶아진 거랑, 그렇게 해도 아주 맛 좋아. 아이들 그거 떠다가 먹이고, 우리도 먹고. 그거 콩 그처럼 해서 먹었습니다. 나물국도 해서 먹고.)

107017 #1 콩국도 끌릴 때는.(콩국도 끓일 때는.)

107017 #2 콩국, 콩국 끌릴 때는, 이것.(콩국, 콩국 끓일 때는, 이것.)

107015 @ 아이, 게난 이거 다 물어볼 거마씨. 게난 저 묻는 말만 대답헤 줍서. 게난 ᄂᆞ멀쿡 허믄 ᄂᆞ멀쿡에 대허영만 ᄀᆞᆯ아주믄 뒈양. 그다음에 콩ᄂᆞ멀쿡에 대허영 ᄀᆞᆯ아줍서.(아니, 그러니까 이거 다 물어볼 거에요. 그러니까 저 묻는 말만 대답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나물국 하면 나물국에 대해서만 말해주면 돼요. 그다음에 콩나물국에 대해서 말해 주십시오.)

107015 #2 콩ᄂᆞ멀쿡이영 ᄂᆞ멀쿡이영 비슷허여. 싯엉 저 콩 헤근에 물, 저 물 웃졍은에, 구들에 헹은에 시리, 시리에 놩은에 콩 내왕, 콩 내왕 먹고, 내왕 허믄 콩대가리 꼬작꼬작 나 가믄 물 잘 아이 주믄 ᄆᆞᆫ딱 ᄆᆞᆯ라불고, 물 줭 할망덜 거, 아이고, 콩나물에 물 주라 헹 강 보믄 꼬작꼬작 나믄 그거 물 주곡 대가리 복복 무시거 나온 거 벳겨불엉, 겁죽을. 겁죽을 벳겨불믄, 그거 콩 낭 허믄 뽑앙은에, 겁덕 벳겨불어사. 경 헹은에 콩나물 나믄 그것, 그자 뒌장 거려다 놩은에 바글바글 궤믄 콩나물 그레 들이청, 경도 헹 먹곡, 그자 두부도, 두분 무신, 헐 땐 먹곡, 안 헐 땐 콩나물국만 먹고, 경 헨.(콩나물국이랑 나물국이랑 비슷해. 씻어서 저 콩 해서 물, 저 물 적셔서, 방에 해서 시루, 시루에 넣어서 콩 나오게 해서, 콩 나오게 해서, 나오게 해서 하면 콩 꼬작꼬작 나 가면 물 잘 아니 주면 모두 말라버리고, 물 줘서 할머니들 거, 아이고, 콩나물에 물 주라 해서 가서 보면 꼬작꼬작 나면 그거 물 주고 대가리 복복 무엇 나온 거 벗겨버려, 거죽을. 거죽을 벗겨버리면, 그거 콩 나서 하면 뽑아서, 껍데기 벗겨버려야. 그렇게 해서 콩나물 나면 그것, 그저 된장 떠다가 넣어서 바글바글 끓이면 콩나물 그리 들이쳐서, 그렇게도 해서 먹고, 그저 두부도, 두부는 무슨, 할 땐 먹고, 안 할 땐 콩나물국만 먹고, 그렇게 했어.)

107016 @ 그다음에 ᄂᆞᆷ삐국에 대허영 ᄀᆞᆯ아줍서.(그다음에 뭇국에 대해서 말해주십시오.)

107016 #2 ᄂᆞᆷ삐국게. ᄂᆞᆷ삐밧디 헹은에 낭, ᄂᆞᆷ삐 갈앙 나믄, 이제 그자 썰엉은에 뒌장 놩 헹은에 끌령은에 먹곡, 게 아니믄 고기국에 놓곡, 고기도 신 땐, ᄂᆞᆷ삐 썰엉, 썰엉, 칼로 썰엉, 썰엉은에 저 뒌장 궤어가믄, 바글바글 게 보리낭 숨으멍 불 숨앙 허영, 바글

바글 허믄 그레 놈삐 놩 궤믄 그냥 먹을 거지. 거려놩 아이덜이영 맛보고.(뭇국요. 무밭에 해서 나서, 무 갈아서 나면, 이제 그저 썰어서 된장 넣어서 해서 끓여서 먹고, 그럼 아니면 고기국에 넣고, 고기도 있을 땐, 무 썰어서, 썰어서, 칼로 썰어서, 썰어서 저 된장 끓어가면, 바글바글 게 보릿짚 불 때면서 불을 때어서 해서, 바글바글하면 그리 무 넣어서 끓이면 그냥 먹을 거지. 떠놔서 아이들이랑 맛보고.)

107016 #1 맛보멍 ᄒᆞ끔 싱거왐직허믄 장 ᄒᆞ끔 놓곡.(맛보면서 조금 싱거울 것 같으면 장 조금 넣고.)

107016 #2 장도 놓곡 허멍, 장.(장도 넣고 하면서, 장.)

107017 @ 그다음에 콩국에 대허영 ᄀᆞᆯ아줍서, 콩국.(그다음에 콩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콩국.)

107017 #1 콩국 끓이는 거.(콩국 끓이는 거.)

107017#2 저 콩ᄀᆞ를국? 콩ᄀᆞ를국은 물 ᄃᆞ뜻ᄒᆞ민 사발레 영 허영 콩ᄀᆞ루를 게엿당 영영 ᄀᆞ를 게영은에, 물 ᄃᆞ뜻헤도 아이 뒈곡 미지그랑 헹은에 그레 들이쳥 이제 불을 베롱허게 숨으멍, 숨으멍 그 콩, 콩국이 둠비ᄀᆞ치 보그락헤 가. 보그락헤 가믄 ᄂᆞᄆᆞᆯ 그자 영영 모질영, 손으로 모질영 그레 놩 허믄 이제 소금 놓고, 바글바글 궤영 허믄, 불이 베롱헤사. 불 세게 하영 숨아불믄 콩국은 부꺼불엉 먹을 거 엇나, ᄆᆞᆫ딱 부꺼불엉. 게믄 불 베롱허게 막 숨으멍 이제 ᄂᆞᄆᆞᆯ 족으믄 모질어 놓곡, 경 헤근에 소금 놓곡 헹은에, 익으믄 그냥 먹어. 더박더박허게 허영 그자. 경 허믄.(저 콩가루국? 콩가루국은 물 따뜻하면 사발로 이렇게 해서 콩가루를 개었다가 이렇게 이렇게 가루를 개었다가, 가루를 개어서 물 따뜻해도 아니 되고 미지근하게 해서 그리 들이쳐서 이제 불을 희미하게 때면서, 때면서 그 콩, 콩국이 두부같이 보각해 가. 보각해 가면 나물 그저 이렇게 이렇게 무질러서, 손으로 무질러서 그리 넣어서 하면 이제 소금 넣고, 바글바글 끓여서 하면, 불이 희미해야. 불 세게 해서 때어버리면 콩국은 넘쳐버려서 먹을 거 없나, 모두 넘쳐버려서. 그러면 불 희미하게 때면서 이제 나물 적으면 무질러 넣고, 그렇게 해서 소금 넣고 해서 익으면 그냥 먹어. 더박더박하게 해서 그저. 그렇게 하면.)

107018 @ 그다음에 호박잎국에 대허영 ᄀᆞᆯ아줍서.(그다음에 호박잎국에 대해서 말해 주십시오.)

107018 #2 호박잎국, 호박잎국은 호박잎 거 헤영 타당은에 영 헹 실 복복 벳경, 벳경은에 물 ᄃᆞ뜻ᄒᆞ게 그거 허영은에 ᄃᆞ뜻ᄒᆞ게 허영, 것도 물 끌령 허믄 아이 뒈어. ᄃᆞ뜻헌 때 허영 이젠 밀ᄀᆞ를부떠 카 놔, 밀ᄀᆞ룰, 보리ᄀᆞ를, 호박잎, 보리ᄀᆞ를 영.(호박잎국, 호박잎국은 그거 해서 따다가 이렇게 해서 실 복복 벗겨서, 벗겨서 물 따뜻하게 그거 해서 뜻하게 해서, 그것도 물 끓여서 하면 아니 되어. 따뜻할 때 해서 이젠 밀가루부터 타 놔, 밀가루를, 보릿가루를, 호박잎, 보릿가루를 이렇게.)

107018 @ 보리ᄀᆞ루꽈? 밀ᄀᆞ루꽈?(보릿가루입니까? 밀가루입니까?)

107018 #2 보리ᄀᆞ를이주게, 보리ᄀᆞ를이주. 보리ᄀᆞ를 영 카 놩은에, 이젠 불을 베롱허게 헤사. 그 호박잎국도 부꺼불믄 먹을 거 아무것도 읏곡, 경 헹 이제 호박잎을 ᄐᆞ다당 ᄐᆞ다 놩 영영 벳경 막 준비헌 다음에 헤사. 불부떠 숨아가믄 ᄆᆞᆫ딱 부꺼불어. 게난 이

제 손으로 복복 모질앙, 호박잎 모질앙, 실 믄딱 벳겨뒁은에, 벳겨뒁, 질긴덴 허멍, 막 궤어가믄 이제 손으로 복복복 영영영 모질여 놩은에, 모질여 놩 소금 놓곡 허멍, 궤믄 그냥 먹어. 그것도 큰 반찬으로 먹엇주. 이제 거 호박잎국.(보릿가루이지요, 보릿가루이지. 보릿가루를 이렇게 타 놔서, 이젠 불을 희미하게 해야. 그 호박잎국도 넘쳐버리면 먹을 거 아무것도 없고, 그렇게 해서 이제 호박잎을 뜯어다가 뜯어 넣어서 이렇게 이렇게 벗겨서 막 준비한 다음에해야. 불부터 때어가면 모두 넘쳐버려. 그러니까 이제 손으로 복복 무질러서, 호박잎 무질러서, 실 모두 벗겨둬서, 벗겨둬서 질기다고 하면서, 마구 끓어가면 이제 손으로 복복복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무질러 넣어서, 무질러 넣어서 소금 넣고 하면서, 끓이면 그냥 먹어. 그것도 큰 반찬으로 먹었지. 이제 거 호박잎국.)

107019 @ 그다음에 묾국에 대허영 골아줍서, 묾국.(그다음에 '묾국'에 대해서 말해주십시오, '묾국'.)

107019 #2 묾국, 돗 장시나 묾국, 호호호(웃음). 저, 저, 돼지, 돼지고기 헤근에 묾국 끌리젠 허믄 돗 잡는 디 강, 저 반으로 허영 돗 잡앙, 잇날은 어느 반에 돗 잡암져 허믄 그디 강 미리 청허여. 꽝 사왕, 꽝 사왕 놔뒷당은에, 막 특별헌 무시거, 하르방 셍일이나 무시거 헐 때 막 허영, 그걸 놔뒷당 딸령, 딸영은에 체암 물은 데껴두고, 두 번체 물도 데껴불곡, 시 번체 막 딸령, 그 물을 시 번체 딸리믄 풀풀허고 물이 ᄒᆞ끔 고와. 고왕 허믄 그것더레 묾 뿔앙은에 묾 막 멧 번 뿔아, 멧 번 뿔앙 칼로 복복 썰엉, 썰엇당 그 뻬다귀 딸려난 거 건졍은에 데껴불곡, 그것더레 놓곡 ᄃᆞ시 ᄆᆞ멀ᄀᆞ를, ᄆᆞ멀ᄀᆞ를 영영 캉은에, ᄆᆞ멀ᄀᆞ를 캉은에 ᄀᆞ를은 말쩨에 놔, 묾국더레. 묾 논 다음에 궤건, 궨 다음에 ᄆᆞ멀ᄀᆞ루를 영영 탕은에, 사발에 캉은에 그레 허믄 풀풀허곡 막 맛 좋곡.('묾국', 돼지 장수나 '묾국', 호호호(웃음). 저, 저, 돼지, 돼지고기 해서 '묾국' 끓이려고 하면 돼지 잡는 데 가서, 저 반으로 해서 돼지 잡아서, 옛날은 어느 반에 돼지 잡고 있어 하면 거기 가서 미리 청해. 뼈 사서 와서, 뼈 사서 와서 놔뒀다가, 아주 특별한 무엇, 할아버지 생일이나 무엇 할 때 마구 해서, 그걸 놔뒀다가 딸려서, 딸려서 처음 물은 던져버리고, 두 번째 물도 던져버리고, 세 번째 마구 딸려서, 그 물을 세 번째 딸리면 풀풀하고 물이 조금 고와. 고와서 하면 그것으로 모자반 빨아서 모자반 마구 몇 번 빨아, 몇 번 빨아서 칼로 복복 썰어서, 썰었다가 그 뼈다귀 딸렸던 거 떠서 던져버리고, 그것으로 넣고 다시 메밀가루를, 메밀가루를 이렇게 이렇게 타서, 메밀가루를 타서 가루는 말쩨에 넣어, '묾국'으로. 모자반 넣은 다음에 끓이건, 끓인 다음에 메밀가루를 이렇게 이렇게 타서, 사발에 타서 그리하면 풀풀하고 아주 맛 좋고.)

연구 참여자

이름	소속	분야	구분
김순자	제주학연구센터	국어학(제주도방언)	연구 책임・총괄 성산읍 온평리
김미진	제주학연구센터	국어학(제주도방언)	공동 연구 남원읍 태흥리
강영봉	(사)제주어연구소	국어학(제주도방언)	교열 및 감수
안민희	민요패 소리왓	한국학(제주민요)	조천읍 신촌리
김승연	(사)제주학연구소	한국학(제주무속)	제주시 우도면
허영선	제주대학교	한국학(제주역사)	성산읍 온평리
최연미	돋을양지책드르	국문학	표선면 세화리
권미소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국어학(제주도방언)	남원읍 태흥리
김보향	제주대학교	국어학(제주도방언)	한경면 신창리
신우봉	제주대학교	국어학(제주도방언)	한림읍 옹포리
김성룡	귀일중학교	국어학(제주도방언)	애월읍 구엄리
현혜림	제주학연구센터		연구 보조
서수빈	제주학연구센터		연구 보조

2019년도 제주어구술자료집 28

발행인 김동전
발행일 2019년 12월 24일
발행처 제주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63196 제주시 동광로 51(이도1동) 3층
전화 (064) 726-5623 **팩스** (064) 747-6140
누리집 www.jst.re.kr

□ 이 보고서는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 전재나 복제를 금합니다.